70 YEARS HISTORY OF
KONKUK UNIVERSITY
1946-2016

학원창립 85주년 기념

건국대학교 70년사 1

상허 유석창 박사의 생애와 사상

KONKUK

70 YEARS HISTORY OF
KONKUK UNIVERSITY
1946-2016

70 YEARS

학원창립 85주년 기념

건국대학교 70년사 1

상허 유석창 박사의 생애와 사상

건국대학교 70년사 편찬위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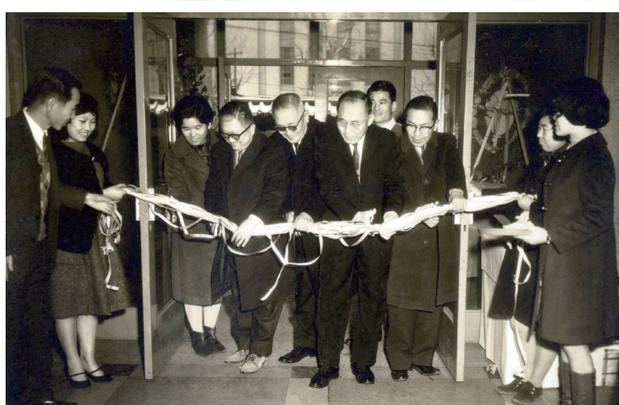
一千九百十一年
四月三日
朝鮮學生基督青年聯合會傳道團紀念

Victory
優勝

Kyungsung Medical college YMCA
23 March 1925

1937.5.

念紀別錢師醫祖錫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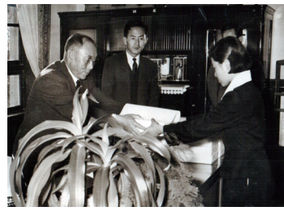
祝 学長 刘锡祖先生歡迎

贈呈
政治大學學部第二回卒業生一同

於 第九陵

全國大学生 教养会

원 제 28 주
民衆病院

場式任離長事理·長總
建國大學校


第二次常任理事会記念
1965. 5. 17
全国農業技術者協会

교육연구세

慶第8回全国農業技術者大会

社團法人民衆病院

故常虛劉錫昶博士葬儀委員會
학교법인사무실

常虛劉錫昶博士社會葬永訣式(開)

故常虛劉錫昶博士
社會葬

학원창립 85주년 기념

건국대학교 70년사 1

상허 유석창 박사의 생애와 사상

목차

총론
상허 유석창!
그는 어떤 사람인가

제1편
상허 유석창 박사의
생애와 활동

1. 부친 유일우의 항일독립운동 031
- 1) 애국계몽운동 참여 031
- 2) 장백현 이주와 항일독립운동 투신 032
- 3) 항일독립운동의 주도적인 역할 수행 037
- 4) 장남 유목의 독립운동과 귀국 045
- 5) 유일우 항일독립운동의 의미 047

2. 청소년기와 경성의학전문학교 수학 049
- 1) 출생과 유년 시절 049
- 2) 귀국 후 학창시절 054
- 3) 인술 보국의 길로 059

3. 사회영 중앙실비진료원 설립과 실비의료 활동 072
- 1) 설립 과정과 유 박사의 활동 072
- 2) 운영 상황과 유 박사의 활동 082
- 3) 민중의원으로의 재출발과 유석창의 전면 등장 087

4. 해방정국기의 활동 104
- 1) 건국인재 양성 구상 104
- 2) 건국의숙의 개설 107

5. 재단법인 정치학원의 설립과 운영 111
- 1) 조선정치학관의 설립 111
- 2) 조선정치대학관으로의 발전 116
- 3) 정치대학으로의 발전 117
  - (1) 6 · 25전쟁과 정치대학의 재건 120
  - (2) 정치대학 부산 연락사무소와 임시 야간대학 설치 121
  - (3) 환도 후의 정치대학 운영 125

6. 건국대학교의 기반 확충과 발전 견인 132
- 1) 종합대학교로의 승격과 교육기반 확충 134
- 2) 농 · 축산 분야의 선도적 인재 양성 착수 138
- 3) 초대 총장 취임과 종합대학으로의 체제 정비 141
- 4) 총장 이임 및 재단 이사장 취임 148

7. 민중병원의 건국대학교병원으로 발전 159

8. 전국농업기술자협회의 결성과 활동 164
- 1) 한국지역사회개발협회의 설립과 활동 164
- 2) 전국농업기술자협회의 설립 경과 168
- 3) 전국농업기술자협회의 이념과 목표 171
- 4) 전국농업기술자협회의 활동과 유석창 총재의 리더십 175
- 5) 농업기술연수원 운영 199
- 6) 농업기술회보의 발간 204
- 7) 상허농촌복지재단의 설립 205
- 8) 상허 선생의 농촌사회 개발론과 새마을운동의 연관성 214

9. 급작스런 서거와 범사회적 애도 및 추모 221
- 1) 서거와 영결식 경과 221
- 2) 사회적 추모와 유지 계승 240
- 3) 상허기념사업회의 결성과 활동 285

제2편
상허 사상의 내용과 가치
–교육 · 의학 · 농업의 발전을 통한 복지문화국가 건설론–

1. 인간에 대한 신뢰와 이타적인 삶의 철학 293

2. 애족 · 애국 사상: 복지문화국가 건설 사상 295

3. 건국인재 양성 교육사상 302

4. 의료제민 사상 310

5. 농업의 근대화와 농촌 발전 사상 313
- 1) 3대 혁명론의 내용 320
- 2) 농업 발전 5단계론의 내용 324

6. 새마을운동 이념 및 한국현대농업사상으로의 발전 328

7. 상허 사상의 의미와 가치 333

제3편
대학교육의 현실 진단과
미래 비전을 담은 글들
–'축하'와 '당부' 속에 담긴 비전과 리더십–

1. 교육 관련 글 343
- 1) 개교 기념사 343
- 2) 입학식사 359
- 3) 졸업식사 365
- 4) 신년사 384
- 5) 송년사 390
- 6) 담화 및 격려사 395
- 7) 기타 407
- 8) 『정대』 및 『건대신문』 기념사 409

2. 면학 격려의 글 416

제4편
내가 기억하는 상허 선생
–유석창 박사의 인간적 면모–

1. 가족들이 기억하는 상허 선생 461

2. 학계 인사들이 기억하는 상허 선생 467

3. 농업계 인사들이 기억하는 상허 선생 517

4. 정치계 인사들이 기억하는 상허 선생 520

5. 내가 알고 있는 상허 선생의 삶과 의식세계 5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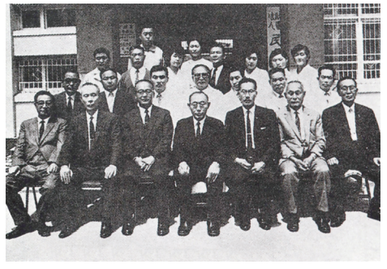
6. 전국농업기술자협회 회원들의 기억 566

제5편
상허 선생이 남긴 말의 향기

1. 상허 선생의 말과 글 속에 녹아 있는 깨우침 579
- 1) '사람 중심과 사람 존중'에 관한 깨우침 579
- 2) '통찰력'에 관한 깨우침 581
- 3) '자아의 확립'에 관한 깨우침 582
- 4) '단결과 협동'에 관한 깨우침 583
- 5) '리더십'에 관한 깨우침 584
- 6) '나라사랑'에 관한 깨우침 586
- 7) '교육'에 관한 깨우침 588
- 8) '대학 · 대학인의 사명'에 관한 깨우침 589
- 9) '농촌의 부흥과 발전'에 관한 깨우침 592

2. 농업 · 농촌 · 농민에 대한 애착과 사랑이 담긴 글들 597

참고문헌 679



건국대학교 70년사 전체 구성

[1권]
상허 유석창 박사의 생애와 사상

총론

상허 유석창! 그는 어떤 사람인가

제1편

상허 유석창 박사의 생애와 활동

1. 부친 유일우의 항일독립운동
2. 청소년기와 경성의학전문학교 수학
3. 사회영 중앙실비진료원 설립과 실비의료 활동
4. 해방정국기의 활동
5. 재단법인 정치학원의 설립과 운영
6. 건국대학교의 기반 확충과 발전 견인
7. 민중병원의 건국대학교병원으로 발전
8. 전국농업기술자협회의 결성과 활동
9. 급작스런 서거와 범사회적 애도 및 추모

제2편

상허 사상의 내용과 가치

–교육 · 의학 · 농업의 발전을 통한 복지문화국가 건설론–

1. 인간에 대한 신뢰와 이타적인 삶의 철학
2. 애족 · 애국 사상: 복지문화국가 건설 사상
3. 건국인재 양성 교육사상
4. 의료제민 사상
5. 농업의 근대화와 농촌 발전 사상
6. 새마을운동 이념 및 한국현대농업사상으로의 발전
7. 상허 사상의 의미와 가치

제3편

대학교육의 현실 진단과 미래 비전을 담은 글들

–'축하'와 '당부' 속에 담긴 비전과 리더십–

1. 교육 관련 글
2. 면학 격려의 글

제4편

내가 기억하는 상허 선생

–유석창 박사의 인간적 면모–

1. 가족들이 기억하는 상허 선생
2. 학계 인사들이 기억하는 상허 선생
3. 농업계 인사들이 기억하는 상허 선생
4. 정치계 인사들이 기억하는 상허 선생
5. 내가 알고 있는 상허 선생의 삶과 의식세계
6. 전국농업기술자협회 회원들의 기억

제5편

상허 선생이 남긴 말의 향기

1. 상허 선생의 말과 글 속에 녹아 있는 깨우침
2. 농업 · 농촌 · 농민에 대한 애착과 사랑이 담긴 글들

[2권]
건국대학교와 한국현대사

총론

건학이념과 우리대학의 표상

제1편

학교법인편

제1장 태동기(1931~1948)
1. 민중병원의 설립과 발전
2. 낙원동 교사 확보와 조선정치학관 설립

제2장 요람기(1948~1959)
1. 재단법인 조선정치학원의 설립
2. 재단법인 정치학원으로의 발전
3. 6 · 25전쟁과 재단의 수난
4. 장안동캠퍼스 건설과 교사 이전
5. 요람기의 수익사업체 운영

제3장 발진기(1959~1980)
1. 종합대학 승격
2. 초급대학 병설과 운영
3. 중등교육기관의 설립과 운영
4. 발진기의 수익사업체 운영

제4장 성장기(1980~2000)
1. 충주캠퍼스의 개교
2. 민중병원의 학교법인 편입과 의과대학 신설
3. 상허문화재단의 설립과 활동
4. 성장기의 수익사업체 운영

제5장 발전기(2001~2016)
1. '건국르네상스'의 선포
2. 스타시티 개발사업
3. 학교법인의 대학인프라 구축을 위한 과감한 투자
4. 발전기의 수익사업체 운영
5. 건국대학교병원의 출범

제2편

서울캠퍼스편

제1장 요람기(1946~1949)
1. 건국의숙의 개설
2. 조선정치학관의 설립
3. 조선정치대학관으로 확장

제2장 준비기(1949~1959)
1. 정치대학으로의 승격
2. 6 · 25전쟁과 정치대학의 행군
3. 정전 후 정치대학의 재건

제3장 발진기(1959~1980)
1. 건국대학교로의 발전
2. 1960년대 한국현대사의 전개
3. 1960년대 학사운영의 변천과 캠퍼스 풍광
4. 1970년대 한국사회와 건국대학교

제4장 성장기(1980~1998)
1. 1980년대 한국사회의 변동과 대학의 사명
2. 1990년대 한국사회의 변화와 대학 발전 모색

제5장 발전기(1998~2016)
1. '수요자 중심의 대학' 만들기(1998. 9~2002. 8)
2. '잠재력을 발휘하는 대학' 만들기(2002. 9~2006. 8)
3. '기본이 충실한 융합연구 대학' 만들기(2006. 9~2010. 8)
4. '건국인만의 컬러가 있는 대학' 만들기(2010. 9~2012. 8)
5. '모두가 오고 싶어 하는 대학' 만들기(2012. 9~2016. 8)

제3편

글로컬캠퍼스편

제1장 요람기(1980~1989)
1. 충주캠퍼스의 탄생
2. 개교 초기 학생단체의 형성과 활동
3. 다양한 대학문화의 생산과 정비
4. 지역사회에 대한 건국인의 봉사활동 전개

제2장 성장기(1990~1999)
1. 1990년대 문민정부의 세계화 정책과 대학구조 변화
2. 대학발전을 위한 건국인의 노력
3. 충주캠퍼스와 지역연구

제3장 발전기(2000~2016)
1. 21세기 대학 환경의 변화와 대학의 현실
2. 변화와 발전을 위한 건국인들의 노력
3. 지역사회와 소통하는 글로컬캠퍼스

제4편

한국현대사와 건국대학교

1. 회고와 증언으로 되돌아보는 개교 초기의 모습
2. 회고와 증언으로 되돌아보는 '6 · 25전쟁과 건국대학교'
3. 4월혁명 및 6 · 3항쟁과 건국대학교
4. 삼선개헌 · 유신 반대운동과 건국대학교
5. 베트남 전쟁과 건국대학교
6. 재미한인재단과 건국대학교

7. 농촌 발전을 위한 건대생들의 활동
8. 10 · 28 건대항쟁과 건국대학교
9. 재학시절을 되돌아보며

[3권 상]
학교법인편 · 서울캠퍼스편

제1편
학교법인편

제1장 학교법인의 구성과 기본재산
제1절 학교법인의 구성과 사무국
제2절 법인 기본재산 현황

제2장 수익사업체 운영
제1절 폐지된 수익사업체
제2절 현존 수익사업체 현황

제3장 건국대학교병원
제1절 민중병원의 성장과정
제2절 새로 건립된 건국대학교병원
제3절 건국대학교 충주병원

제4장 상허문화재단
제1절 상허문화재단의 창립과 조직 구성
제2절 상허문화재단의 주요사업

제2편
서울캠퍼스편

제1장 대학본부
제1절 대학조직의 발전
제2절 대학 기구

제2장 대학운영
제1절 학사 및 의식
제2절 교육시스템의 강화
제3절 대외협력 활동의 강화
제4절 장학 및 학생복지의 확충

제3장 교수활동과 연구
제1절 교수활동
제2절 연구활동의 증진
제3절 연구소

[3권 하]
서울캠퍼스편 · 글로컬캠퍼스편

제2편
서울캠퍼스편

제4장 단과대학
제1절 편제변화
제2절 문과대학
제3절 이과대학
제4절 건축대학
제5절 공과대학
제6절 정보통신대학
제7절 정치대학
제8절 법과대학
제9절 상경대학
제10절 경영대학
제11절 동물생명과학대학
제12절 생명환경과학대학
제13절 생명특성화대학
제14절 수의과대학
제15절 예술디자인대학
제16절 사범대학
제17절 글로벌융합대학
제18절 교양교육센터

제5장 대학원
제1절 일반대학원
제2절 전문대학원
제3절 특수대학원

제6장 학생자치활동
제1절 학생회의 변천과 활동
제2절 중앙동아리의 어제와 오늘

제7장 체육활동
제1절 운동부의 창설과 활약
제2절 주요 대회 및 종목별 전적

제3편
글로컬캠퍼스편

제1장 대학조직
제1절 대학조직의 발전
제2절 대학기구

제2장 대학운영
제1절 교육시스템의 강화
제2절 국제교류 및 유학생 유치 강화
제3절 장학 복지시설의 확충

제3장 단과대학
제1절 편제변화
제2절 미디어커뮤니케이션대학
제3절 디자인대학
제4절 국제비즈니스대학
제5절 공공인재대학
제6절 과학기술대학
제7절 의료생명대학

제4장 대학원
제1절 일반대학원
제2절 의학전문대학원
제3절 특수대학원

제5장 연구소
제1절 연구활동의 증진
제2절 연구소 설치 및 운영 현황

제6장 학생활동과 생활
제1절 학생자치활동

제4편
부속 중 · 고등학교편

제1장 사범대학 부속고등학교
제1절 연혁
제2절 시설 및 기구
제3절 교육목표
제4절 교육활동 및 특별과외활동
제5절 졸업생 현황

제2장 사범대학 부속중학교
제1절 연혁
제2절 시설
제3절 교시 · 교훈 · 교표 · 학교브랜드
제4절 학교장 교육관
제5절 교육 방향
제6절 교직원 조직 현황
제7절 교육 활동
제8절 청소년 육성단체 현황
제9절 예 · 체능부 육성종목 현황
제10절 졸업생 현황

제5편
총동문회편

제1절 총동문회 연혁
제2절 기구와 역대 임원, 조직 구성
제3절 총동문회 기반조성과 운영
제4절 모교 발전을 위한 활동 전개
제5절 친목 · 우의를 위한 활동 전개

劉錫昶

일러두기

– 유석창 박사에 대한 호칭은 나이와 시대적 상황의 흐름에 어울리고, 문맥에 부합할 수 있도록, 중국 장백현에서 거주하던 10대는 '석창 소년', 경신학교와 경성의학전문학교에서 공부하던 20대는 '유석창', 의사로 활동하던 30대는 '유석창 선생', 광복 이후 돌아가실 때까지는 '상허 선생' 및 '유 박사'로 표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 인명이나 고유명사의 한자는 ( ) 안에 병기하였고, 간단한 설명은 〔 〕 안에 적었다.

– 본문 서술 내용에 참고가 되거나 도움을 주는 내용은 짙은 바탕(■) 위에 서술하였다.

– 인용자료의 경우 현대 맞춤법과 다른 경우가 적지 않으나, 가급적 원자료대로 표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단, '읍니다'는 '습니다'로 고쳤다.

– 원자료의 상태가 불량하여 판독이 불가능한 글자는 □로 표시하였다.

–「제4편 내가 기억하는 상허 선생」의 내용 중, 회고 · 구술해주신 분의 직함은 회고 · 구술 당시 또는 게재지 발간 시의 직책이다.

---

* 표지 책제목은『동국정운(東國正韻)』(국보 제142호, 건국대학교박물관 소장)에서 집자(集字)하였음.

총론

– 상허 유석창! 그는 어떤 사람인가 –

'투철한 애국심의 소유자'
'불요불굴(不撓不屈)의 의지인(意志人)'
'의욕과 정열의 인물'
'사랑과 봉사의 인물'
'용기의 인물'
'근면(勤勉) 검약(儉約)의 인물'
'지행합일(知行合一)의 인물'
'공욕(公慾)이 많고 사욕(私慾)이 없는 인물'
'겸손한 능력인(能力人)'
'독창성과 실천력이 뛰어난 인물'
'조용한 농촌혁명(農村革命)의 선구자(先驅者)'
'농촌혁명의 기수'
'우리나라 농민운동의 위대한 영도자'
'1600만 농민의 영도자'
'농민의 절친한 벗'
'농민의 아버지'
'건대의 어머니'

상허 선생의 인품과 공덕을 기리며 지칭하는 표현들이다.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虎死留皮, 人死留名/ 歐陽脩〕"고 했던가?

1985년 4월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공단에서 우리나라 근대사학 역사 100년 동안에 귀감이 될 만한 인물을 발굴 · 선정하여, 그 공훈을 기리고자 시행한 사업에서, 상허 선생은 안창호〔安昌浩, 1899년 점진학교 설립〕 · 이승훈〔李昇薰, 1907년 오산학교 교장〕 · 남궁억〔南宮憶, 1919년 홍천 모곡학교 설립〕 · 엄주익〔嚴柱益, 1905년 양정의숙 설립자〕 · 윤치호〔尹致昊, 1907년경 대성학교 교장〕 · 이동휘〔李東輝, 1907년경 강화도 합일학교 설립〕 · 최규동〔崔奎東, 1918년 중동학교 교장〕 ·

조동식(趙東植, 1912년 동덕학교 교장) 등과 함께 '사학 설립자 13인'의 한 사람으로 선정되었다.

또 2015년 8월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하는 '광복70년, 농림업 70년' 행사에서 농림업 발전에 기여한 인물을 선정해 주요 공적과 사진을 전시하는 '한국 농업의 별' 13명 중의 한 사람으로 상허 선생이 선정됐다.

13명은 우리대학 설립자이자 '농촌혁명의 기수'인 유석창 박사, 국산 종자 개발에 기여한 육종학자 우장춘, 초대 농림부장관 조봉암, 통일벼를 개발한 허문회, 통일벼 보급으로 쌀 증산에 기여한 김인환 전 농진청장, 경운기의 대명사 대동공업을 창업한 김삼만, 풀무원을 창업하고 유기농을 개척한 원경선, 토종 종자기업 농우바이오 설립자 고희선, 수목 육종학자 현신규, 농업경제학의 기틀을 마련한 김준보, 대산농촌문화재단을 설립한 신용호, 채소씨앗 자급자족의 기반을 마련한 흥농종묘 창업자 이춘섭, 한국농업기술자협회 총재와 상허문화재단 이사장을 역임한 류달영이다.

선생의 이타적이고 자기희생적인 인격은 '상허'라는 호에 고스란히 담겨 있다. 1960년대 중~후반의 어느 날 정릉에서 열린 전국농업기술자협회 기획위원회 회의에서, '상허(常虛)'를 호로 삼은 연유에 대한 문의가 있자, 상허 선생은 임진왜란 때 나라를 구한 서산대사(西山大師)가 지은 한시(漢詩) 「향로봉에 올라〔登香爐峯〕」에서, '상허'라는 호를 따왔다고 말했다고 한다.〔전국농업기술자협회 부총재 宋錫度, 「불멸의 救農愛國思想 : 위대한 영도자 상허 유석창 박사 2주기에 붙여」, 『농업기술회보』 126호, 1974년 1월 1일〕

> 만국의 도성은 개미집 같고[萬國都城如蟻蛭]
> 천하의 호걸들도 초파리와 같구나[千家豪傑若醯鷄]
> 맑고 그윽한 달빛을 베고 누우니[一窓明月淸虛枕]
> 끝없는 솔바람 소리 고르지 않구나[無限松風韻不齊]

이 시는 서산대사가 금강산 향로봉에 올라 '대자연인' '대자유인'의 참모습을 노래한 선시(禪詩)이다. 세계만방의 크나큰 도성이라고 해도 개미집에 지나지 않으며, 동서고금의 영웅호걸이라도 하루살이에 지나지 않는 법이다. 만고천추의 빛나는 마음으로 달을 베개 삼아 누우니, 끝없이 불어오는 솔바람이 무생(無生)의 깨우침을 일러준다는 정도로 읽을 수 있을 것 같다. '항상 비어 있으며' '항상 비우고 있다'는 상허 선생의 불가적(佛家的)이고 도가적(道家的)인 우주관과 인생관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대체로 큰 인물들의 공통점은 일생을 사명의식(使命意識) 속에서 살았다는 데서 찾을 수 있다. 그러기에 작은 일이라도 전력을 다해 최선을 다하는 데에서 여느 사람들과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만주에서 청소년기를 보낼 때, 사소한 집안일이라도 그것이 곧 '독립'을 위하는 길이라고 생각하고 성실하게 했으며, 부친과 함께 독립운동 하던 분들을 성심으로 모셨다.

그는 민족의 아픔을 자신의 아픔으로 받아들이고, 민중의 고통을 자신의 고통으로 여겼다. 이 같은 동포애와 인간애를 바탕으로 한 민족주의자이자 독립운동가였다.

그리고 일제침략에 신음하는 민족과 질병에 쓰러져 가는 민중을 구하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의 실력과 능력을 갖추는 일이 시급하다고 생각했다. 그리하여 그 스스로 의술이라는 실력을 토대로 현실적 일상적으로 민중을 구제해 나갔다.

의사 생활을 하면서는 가난한 환자들을 모두 무료로 실비로 진료해 주지 못하는 것을 늘 안타까워하고 미안하게 여겼다.

그리고는 교육을 일으키고 농촌을 개발하고 산업을 진흥시키는 방법을 통해 복지문화국가를 건설해야겠다는 결심을 하고, 그것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던졌다.

건국의숙→조선정치학관→정치대학→건국대학교로 이어지는 인재 양성의 목표는 "나는 왜 교육을 하나? 하나의 일꾼을 얻기 위해서다. 10년에 한 사람이라도 역사적 인물을 키울 수 있다면…"이라는 그의 독백 속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다. 여기서 그가 말하는 '역사적 인물'이라 함은 역사적으로 추앙받는 위대한 인물, 영웅호걸을 가리키는 것이 아닐 것이다. 국가와 민족의 발전에 필요한 동량(棟樑)이 될 만하며, 건강하고 건전한 역사의식 · 민족의식 · 국가의식 · 시민의식을 갖춘 젊은 청년을 가리켰다.

노년에는 농촌운동을 위해 병적인 자신의 결벽증에도 불구하고 몸소 농민들과 한 몸이 되어 일했다.

그에게 있어서는 목적과 수단이 분리될 수 없었고, 이론과 실재가 별개일 수 없었으며, 생각과 실천이 떨어져 있지 않았으며, 아는 것과 행동하는 것이 일치했다.

그는 지시형의 지도자가 아니라, 앞장서서 민중과 더불어 고통을 나누며 몸소 실천함으로써 모범을 보인 솔선수범과 '여민(與民)'의 지도자였다.

또 그는 허장성세와 공리공론(空理空論)을 싫어했고, 헛된 명예나 지위보다는 실질적인 성과를 중시했다. 그리고 올바른 동기와 방법 · 과정을 통해 가장 확실한 결과가 나온다고 믿었다.

또 큰일은 작은 일에서부터 시작해야 하며, 아무리 중요하고 다급한 일이라도 지금 여기서 할 수 있는 일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했고, 이를 실천에 옮겼다.

일단 결심한 일은 백절불굴의 의지와 열정으로 밀고 나갔다.

이렇듯 그는 이상주의자인 동시에 현실주의자이며, 합리주의자였다.

현대는 우상이 필요한 때가 아니고,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성실하고 실천적인 지도자로서, 민중 · 시민들의 고됨과 한숨을 함께 할 수 있는 '여민(與民)'의 리더십을 요구하고 있다. 그는 언제나 '민중의 벗'으로 민중 속에 있기를 원했지, 민중과 유리되어 그들의 '우상'으로 존재하기를 원하지 않았다.

> "구두 한 켤레를 맞추면 보통 10년은 넘게 신었다는 유 박사가 최근까지 신고 있었던 흰 구두는 원래는 빨간색 구두였다는데, 빨간색이 하도 오래 돼 그만 탈색하고 만 것.
>
> 상허의 검소함은 평생을 덮고 잔 이불이 지금은 보기조차 힘든 아주 옛날의 세창직 이불이었다는 것과, 살던 집이 문을 열기도 힘들만큼 낡아 빠진 선친의 집이었다는 것. 상허의 사생활은 검약했으나, 농민과 육영사업을 위해서는 모든 재산을 바쳤다."(『경향신문』 1972년 1월 5일, 7면)

그의 부음을 전하는 신문기사에 있는 내용이다.

"사람은 관 두껑을 덮고 난 뒤에야 알 수 있다(丈夫蓋棺事始定/ 杜甫)."는 말이 있다. 죽고 난 뒤에야 그 사람에 대한 올바른 평가를 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모름지기 "군자는 음식을 배불리 먹지 않고, 몸을 편안하게 두지 않는다(君子食無求飽, 居無求安/『논어』)"는 깨우침으로 자신을 채찍질하면서, 어려운 이웃을 둘러보며 살아 온 일생이었다.

薰育五十年
〈書=卿如·柳興錫〉
『建大』세운 숨은 기둥
誠·信·義를 信條로 實踐躬行一如
亡國의 설움 사무쳐 教育界 投身
(士博昶錫劉)

제1편

상허 유석창 박사의 생애와 활동

1. 부친 유일우의 항일독립운동
2. 청소년기와 경성의학전문학교 수학
3. 사회영 중앙실비진료원 설립과 실비의료 활동
4. 해방정국기의 활동
5. 재단법인 정치학원의 설립과 운영
6. 건국대학교의 기반 확충과 발전 견인
7. 민중병원의 건국대학교병원으로 발전
8. 전국농업기술자협회의 결성과 활동
9. 급작스런 서거와 범사회적 애도 및 추모

제1편

상허 유석창 박사의

생애와 활동

1

부친 유일우의 항일독립운동

1) 애국계몽운동 참여

유일우(劉一憂, 본명: 劉勝均)는 1860년 함경남도 단천군(端川郡) 이중면(利中面) 돌산리(乭山里)에서 중농인 유문길(劉文吉)의 넷째 아들로 태어났다. 부친으로부터 밭 이레갈이(약 7천 평), 논 하루갈이(약 1천 평) 규모의 토지를 물려받았으며, 소 두 마리와 당나귀 한 마리를 소유한 중농이었다. 하지만 농사보다는 학구적인 면이 강하여 한의학(漢醫學) 공부에 심취하였다. 한의사로 개업하고도 한학(漢學)에 정진한 결과, 한학자로서 명성을 얻기에 이르렀다.

청소년기에 이른 1876년 강화도 수호조약을 계기로 조선사회도 근대로의 이행이라는 격랑 속으로 빨려 들어갔고, 유일우 역시 자신의 장래에 대해 고민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매크래(McCrae, 馬具禮) 선교사와의 만남을 통해 그의 생애에 일대 전환기를 맞게 되었다.

> 1898년 캐나다해안지방노회에서 파견한 매크래(MaCrae, 馬具禮) 선교사 부부의 선교구역은 함경도와 만주지역이었다. 이 때 그리슨(Grierson, R.) 의사 부부와 목사 푸트(Foote, W. R.)도 함께 왔다. 당시 미국 북장로교 선교회는 낙동강 이북의 경상남북도 지방과 평안도 · 황해도의 서북지방을, 오스트레일리아 선교회는 경상남도 지방을, 캐나다 선교회는 함경도와 만주 지역을 담당하였다. 1903년 매크래 부인은 함흥 낙민정(지금의 신창리)의 한 사택에 여학생 6명으로 관북지방 최초의 여성중등교육기관인 영생여학교(永生女學校)를 세웠다.

유일우는 매크래 선교사를 통해 국제정세에 눈뜨기 시작하고, 기독교를 이해하게 되면서, 기독교를 통해 선진문물을 접하는 것이 우리나라를 근대화시키는 첩경이라고 생각하게 되었다. 즉 유럽의 선진문화를 받아들여 우리나라를 개화 문명화시키고자 하였던 것이다.

그는 함경남도 단천군 이중면에 교회를 세워 하나님의 복음을 널리 전하는 한편, 이 교회를 우국지사들의 집회 장소로도 제공하려 하였다. 그러나 교회당을 세울 자금이 여의치 않자, 자신의 집을 고쳐 40~5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예배당으로 만들고, 자신이 직접 예배를 이끌었다. 함흥에서 구입

한 종을 처마 끝에 매달아 놓고, 아이들의 서당수업을 알릴 때, 주민들이 모여 의논할 일이 있을 때, 그리고 예배 볼 때 등의 경우에 종을 쳐서 알렸다.

1905년 을사늑약(乙巳勒約, '제2차 韓日協約') 체결 등, 일제의 국권 피탈이 본격화되자, 외세 침입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는 구국예배를 보았으며, 1908년에는 후일 대한민국임시정부 요인으로 활동하는 이동녕(李東寧)을 초빙하여 외세 침략에 대처할 길은 개화와 민족의식의 고양뿐이라는 요지의 강연회를 열었다.

그러나 일제는 한국군대를 해산시켰으며, 반일 의병운동과 애국계몽운동을 통한 우리민족의 저항을 무자비하게 탄압하였다. 마침내 1910년 8월 22일,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 조선통감이 순종황제를 협박하여 이른바 「한 · 일 합병조약(韓日合併條約)」을 체결함으로써, 한국은 일본의 식민지로 전락하고 말았다.

무너져가는 나라의 나락을 붙들고 슬퍼하던 유일우는 이듬해인 1911년 구국민족교육을 실시할 목적으로 돌산소학교(乭山小學校) 설립을 시도하였으나, 조선총독부의 '사립학교 설치령'에 의해 좌절을 맛 볼 수밖에 없었다. 마침내 유일우는 국외로 망명하여 독립운동에 투신하겠다는 결심을 굳히게 되었다.

그는 원래 이름인 '승균(勝均)'을 '일우(一憂)'로 개명함으로써, 조국광복과 민족의 해방을 위해 헌신하겠다는 각오를 다졌다. '대한제국의 붕괴와 함께 유승균은 죽었고, 조국광복을 위해 유일우로 다시 태어난다'는 의미였다. 일제에 빼앗긴 국권을 되찾는 일이 '가장 큰 걱정거리〔一憂〕'가 된 것이다.

2) 장백현 이주와 항일독립운동 투신

1912년 10월 20일 드디어 가족들을 이끌고 망명길에 올랐다. 조상대대로 살던 집을 팔고,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쳤던 망상골의 서당과 돌산소학교의 교장직도 내버려 둔 채, 부인과 차남인 석창(錫昶)을 데리고 만주를 향해 떠났다.

당시 장남 석준(錫俊)은 함흥에 거주하던 선교사 매크래로부터 서양문물을 배우고, 외국유학시험에 합격하여, 일본 메이지대학(明治大學) 법학과에 유학 중이었다. 3녀인 동섭(東燮)은 16세 되던 해에 단천면에 사는 방주섭(方周燮)에게 출가시켰으므로, 석창만 데리고 갔던 것이었다.

목적지는 중국 길림성(吉林省, 당시 奉天省) 장백현(長白縣)이었다. 당시 이 지역에는 구한말부터 관리들의 가렴주구와 흉년으로 인한 생활고를 피해 이주해 온 한국인들이 많았고, 국권 상실이래 한인들의 이주는 더욱 증가하였다. 유일우 일가는 단천을 출발하여 갑산을 경유, 혜산진에 도착하여 압록강을 건넜다.

양촌동(陽村洞)→단천읍(端川邑)→고읍리(古邑里)→송파리(松坡里)→풍화리(豊和里)→하운승리(下雲承里)→상운승리(上雲承里)→하농리(下濃里)→용원리→망상골→고성리(古城里)→수의리(隨意里)→창파리(昌波里)→풍산군(豊山郡) 홍군리(洪君里)→귀락리(貴樂里)→산하리(山下里)→갑산군(甲山郡) 통하리(通河里)→갑산읍(甲山邑)→교항리(橋項里)→상포항리(上浦項里)→하면리(河面里)→함정포리(咸井浦里)→운룡리(雲龍里)→혜산진(惠山鎭)을 거쳐, 압록강을 건너, 11월 1일 국경선을 넘어 이튿날 장백현(長白縣) 18도구(道溝)에 이르는 여정(旅程)이었다. 선교사 쿡(W. T. Cook)은 당시 이주민 대열의 참상을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 "영하 40도의 혹한 속에서 흰 옷을 입은 말없는 군중은 10명, 20명, 또는 50명씩 떼를 지어 산비탈을 기어 넘어온다. 부녀자뿐만 아니라 청년들도 동사(凍死)하기 일쑤다. 그들은 대개 산기슭의 척박한 토지에서 악전고투(惡戰苦鬪)하며 한 줄기 삶의 길을 잇기 위하여 신세계(新世界)를 찾아 온 것이다. 그들은 중국인의 땅 밖에 있는 불모지(不毛地)에 괭이와 호미질을 하며 초근목피(草根木皮)로 생명을 유지하고 있다."

장백현은 길림성(吉林省) 동남부의 장백산(長白山) 주봉인 백두산(白頭山) 남쪽 기슭에 위치해 있다. 청(淸) 광서(光緖) 34년(1908)에 장백부(長白府)가 설치되었고, 중화민국(中華民國) 2년(1912)에 장백공서(長白公署)로 개칭되었다. 봉천성(奉天省) 관할로 있다가, 1946년 9월 15일 조선족자치현(朝鮮族自治縣)으로 개편되었다. 1910년 국권 피탈 직후 압록강 대안지역에는 5만 여 명의 한인이 거주하였다고 한다.

압록강을 건넌 유일우 일가는 김원철(金源哲)이란 인물의 안내로 함경도 사람들이 많이 이주해 있던 길림성(吉林省) 장백현의 신흥덕촌(新興德村)에 도착하였다. 이들은 촌장 김석윤(金碩潤) 집에 머물렀는데, 이은경(李殷卿)의 주도로 환영예배를 갖기도 하였다. 1912년 11월 3일 낡은 집 한 채를 매입하여 수리한 다음, 같은 달 12일 입주하였다. 부인 홍숙경이 여독으로 병석에 눕게 되자, 석창이 간호하였다고 한다.

중국측 자료에 따르면, 유일우 일가는 도착 직후 중국국적을 취득하였다. 현지 일제기관의 관리와 지배로부터 벗어나고, 안정적인 거주 권리와 토지소유권을 확보하는 동시에, 나아가 중국공민의 신분으로서 장백현 관서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그들의 묵인과 보호 하에 반일활동을 전개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기 위한 방편이었다. 이는 그가 일제당국으로부터 '불량선인 갑호(不良鮮人甲號)'로 분류된 사실로도 뒷받침된다. 이에 대해서는 이어지는 내용에서 다루어진다.

이와 함께 후윈펑(胡雲鵬)이라는 인물과 합자하여 약방(藥房)을 운영하였다. 중국측 자료에 의하면, 1912년 장백현 서시가(西市街)에서 광제약포(廣濟藥鋪)를 운영하는 후윈펑이 장백부에 종두소(種痘所) 설립을 신청하여, 장백부 서시가에 종두소를 설치하였다. 유일우가 이 지역의 유력인물인

후원펑과 관계를 구축하였음을 알려주는 사실인 동시에, 이는 한인사회 내에서 유일우가 차지하는 위상에 대한 후원펑의 평가를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1) 한교동사회 활동

여기에서 한 걸음 나아가 후원펑으로 대표되는 유력 중국인사들과의 유대를 기반으로 하여, 유일우는 한교동사회라는 한인사회단체를 결성하였다. '한교동사회(韓僑董事會)' 중의 '동사(董事)'는 이사(理事)로 번역되는 바, 한교동사회는 '한교이사회(韓僑理事會)' 즉 장백현 거주 한인들을 대표하고, 중국기관을 상대로 한인들의 안전 도모와 권익 보호를 위해 노력하는 단체였다. 유일우가 한교동사회를 결성한 인물 중의 한 사람으로서 '불량선인'으로 분류되고 있는 사실은 그가 장백현으로 이주한지 얼마 되지 않은 기간에 한인사회를 이끄는 리더로서 활동하였음을 뒷받침해준다.

이를 뒷받침하는 사실로, 당시 이주한인들에게는 밀 5두(斗), 지름이 1척(尺), 길이가 12척이나 되는 나무 3대씩을 세금으로 받아들이고, 땔감인 장작을 중국관헌 위문(衛門)에 바쳐야 하는 부역이 부과되었다. 유일우 등은 당시 동북삼성의 최고통치자인 장쭤린(張作霖)에게 "오래전부터 한 · 중 양국은 형제국가이다. 지금 한국이 망하여 그 우국지사들이 만주에서 독립운동을 벌이고 있는 터에, 이들을 동정하지는 못할망정 이렇게 천대하고 학대하는 것은 형제의 우의를 저버리는 짓"이라는 항의서한을 보냈다.

(2) 관화학교를 기반으로 한 구국교육활동

한편 1913년 초에는 신흥덕촌 촌장인 김석윤의 주선으로 중국 관청으로부터 장백현 서시가(西市街)에 있던 관립언어학교 부속 태흥학교(太興學校)의 설립을 인가받아, 자신이 교장에 취임하였다. 1915년에는 관화학교(官話學校)로 교명을 바꾸었다.

'관화(官話)' 즉 표준중국어(北京語)를 가르치는 것이 주목적이었던 이 학교는 초등과 3년과 고등과 1년의 과정을 가진 4년제의 소규모 학교였다. 교과목은 중국어와 기타 과목이 있었고, 특별과목으로 한국어(韓國語)와 한민족사(韓民族史)를 가르쳤다. 중화민국 자료에 따르면, 관화학교의 소재지는 동변도(東邊道) 장백현 장백가(長白街)이며, 유일우 · 유래귀(柳來貴) · 이동백(李東白) · 이호용(李鎬鏞) 등이 재직하였다.

1916년 12월 조선주차헌병대사령부에서 안동(安東) · 싱징(興京) · 지안(輯安) · 통화(通化) · 류허(柳河) · 린장(臨江) · 장바이(長白) · 푸송(撫松) · 안투(安圖) 등 9개 현(縣)을 대상으로, 학교명 · 소재지 · 계통 · 개교시기 · 교과목 · 직원 · 생도 수 · 유지 방법 등을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장백현 내에 있는 것으로 파악된 학교는 원인(元仁) · 함선(咸鮮) · 한교(韓僑) · 중화민국어학교(中華民國語學校, 官話研究會中語學校) · 보통(普通) · 창동(昌東, 東昌) · 기독신여(基督新與) · 육영(育英) · 협신(協新) · 창신(昌新, 明新) · 대흥(大興) · 보성(普成, 日新) · 보신(普新, 培英)여자 · 달신(達新) · 유신학교(維新學校)와 선명서숙(鮮明書塾) 등 18개였다.

학생 수가 가장 많은 학교는 창신(명신)학교로 42명, 가장 적은 학교는 원인학교로 10명이 재학하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난다. 장백현 내 18개 학교 가운데 12개 정도의 학교가 '민족독립교육'을 실시하였으며, 기독교 계통에서 세운 학교가 3개였고, '친중배일주의(親中排日主義)'로 분류된 학교가 1개였다.

위 학교의 교과목을 검토해 보면, 민족교육에 역점을 두었고, 근대학문을 가르쳤음을 알 수 있다. 약간의 차이는 있었겠지만, 지지(地誌, 세계지리) · 역사 · 작문 · 산술 · 이과 · 수신(修身, 윤리) · 지나어(중국어) · 성서 · 습자(習字, 글씨연습) · 국문(한글) · 체조 · 창가 · 대한지지 · 한문 · 수학 · 논리 · 화학 · 물리 · 도화(圖畵, 그림그리기) 등이 주된 과목이었다.

교사는 한 학교에 1~3명 정도였으며, 이들은 근대교육을 받은 민족운동가이기도 했다. 중화민국어학교 교장인 첸산윈(千禪雲)만 중국인이었고, 나머지 교장은 모두 한국인이었다.

이들 학교 중 설립시기가 명시된 학교는 한교중학교(韓僑中學校)와 중화민국어학교(中華民國語學校) 2개 교로 '1913년'으로 기록되어 있으며, 여타 학교들의 설립연도는 밝혀져 있지 않다. 그런데 한교중학교에 대한 기술내용을 보면 '반일주의(反日主義)' 성향으로, 교장 유일우와 교사 환흥(桓興)이란 인물이 중심역할을 하고 있고, 학생 수는 28명이었으며, 역사 · 한문 · 중국어 · 수학 · 윤리 · 화학 · 물리 · 작문 등의 교과목을 가르쳤다. 소재지는 장백위(長白衛)로 "1913년 11월 이동휘(李東輝)의 계획에 따라 설립되었다"고 기록되어 있다.

"장백현 내 각 선인학교(鮮人學校)에서는 목하 조선독립창가(朝鮮獨立唱歌)를 제작하여 학생들에게 가르쳐, 치열하게 독립사상을 고취시키고 있다"는 혜산진 헌병분대장의 보고는 이들 학교의 교육이 반일 민족의식 고취에 맞춰져 있었음을 뒷받침한다.

1907년 8월 1일 대한제국 군대 해산 명령을 받자, 강화진위대 병사들을 이끌고 항일의병전쟁을 전개하였고, 이후 신민회(新民會) 간부, 한북흥학회(漢北興學會)와 서북학회(西北學會)의 중심인물로서 애국계몽운동을 벌이다가, 국권 피탈 후 만주로 망명하여 본격적인 항일독립운동을 모색하고 있던 이동휘의 고향이 단천인 사실과 연관지어 생각해 보면, 이주 초기 유일우가 동향 출신으로 이미 독립운동계에 이름을 날리고 있던 이동휘와 교유 · 협조하며 독립운동의 진로를 모색하였을 것임은 상상 가능한 일이다.

앞에서 살폈듯이, 1908년 이동녕 초빙 강연회 개최 사실과 한교중학교(韓僑中學校)를 매개로 한 이동휘와의 관계로 미루어 보면, 국권피탈을 전후한 시기 국내외 최대의 비밀결사로 평가받는 신민회(新民會)와 연계관계를 맺고 있었을 개연성이 시사되고 있다.

그런데 위의 일제자료에서 주목을 끄는 것은, 한교중학교가 1913년 11월에 설립된 것으로 나타나

있다는 점이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1913년 초부터 1914년까지 유일우는 관립언어학교 부속 태흥학교의 교장으로 근무하고 있었다.

태흥학교(太興學校)를 졸업한 유석창의 졸업증서를 보면, 1914년 당시 유일우는 관립언어학교 부속 태흥학교의 교장이었음이 틀림없고, 1915년과 1916년에는 태흥학교에서 이름이 바뀐 '관화학교(官話學校)'의 교장으로 되어 있다. 그런데 앞의 일제자료에는 유일우가 '한교중학교 교장'으로 파악되고 있다. '유석창의 졸업증서'는 건국대학교 박물관에 보관되어 있다.

태흥학교의 인가를 받기 전에 한교중학교를 설립했다가 다시 태흥학교로 만들어 중국관청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은 것인지, 태흥학교를 격상시켜 한교중학교라고 이름 붙인 것인지는 알 수 없다. 또 유일우가 비슷한 시기에 두 학교의 교장을 겸직하였을 개연성도 생각해 볼 수 있다.

태흥학교와 한교중학교의 관계 및 유일우의 봉직 사실에 대한 구체적인 상황은 파악하기 어렵지만, 이는 한인사회에서 설립한 민족학교의 '교장'직을 수행한 유일우의 인격적 · 학문적 수준이 높았음을 뒷받침해 주는 사실인 것만은 틀림이 없다.

(3) 한인사회의 지도적 역할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그는 민족독립운동의 일환으로 학교를 설립하여 민족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재만한인사회가 당면하고 있던 제문제의 해결에도 전력을 경주하였다. 당시 재만한인사회가 안고 있던 문제점으로는, 첫째 중국인 지주와 한인 소작민 사이의 차지와 소작료 문제, 둘째 한국인의 법적지위권인 귀화권 문제(이중국적 문제), 셋째 한국인을 둘러싼 경찰권 · 교육권 문제, 넷째 중국 동북군벌정권 관리들의 가렴주구와 횡포, 그리고 마적들의 횡포로 인한 피해 등을 꼽을 수 있는데, 유일우는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했다.

특히 중국 관리와 마적들의 횡포로 극심한 곤란을 겪고 있던 재만한인사회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은경(李殷卿)을 비롯한 유지들을 규합하여 치안대책을 강구하였다. 이들은 봉천성장(奉天省長) 장쭤린(張作霖)에게 연서(連書)로 청원하였고, 이에 봉천성장은 지방관아에 엄명하여 소총 100정을 지급해 주기도 하였다.

이처럼 장백현 한인사회에 정착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유일우가 이 지역의 지도급 인사가 되어 재만한인사회의 권익을 옹호하는 데 앞장설 수 있게 된 것은 그의 지도력이 뛰어났던 점과 함께, 그의 탁월한 문장력과 지식수준이 또 다른 장점으로 작용하였을 것으로 유추된다.

1920년 여름 무렵 작성된 중국자료에는 "유일우의 진술에 근거하면, 나이는 60세이고 조선 단천 사람이다. 부모는 모두 돌아가셨고, 처는 홍씨이다. 두 아들을 낳았는데, 맏이는 유목이고, 둘째 아들은 유석창이다. 중화민국 원년에 장백현에 와서, 중화민국 국적을 취득하였고, 의료업으로 생활하고 있다"고 기록되어 있다. 한의사로 개업한 유일우가 경제적 · 학문적 기반을 토대로 한인사회의 지도급 인물로 활동하였음을 알려주는 셈이다.

3) 항일독립운동의 주도적인 역할 수행

(1) 독립운동자금 모금활동

1919년 3 · 1운동이 일어나자, 그는 장백현의 만세시위운동을 주도하였다. 그와 함께 만세시위를 주도한 설관협(薛寬協)의 '독립운동 공훈기록'에서 설관협은 "이창운 · 유일우 · 김병윤 등과 함께 동포를 결속시켜 4월 10일 18도구에서 만세시위운동을 주도하였다"고 하였다.

장백현지역 3 · 1운동에서 유일우가 차지한 역할과 위상을 알려주는 일제자료에서는 서울에 거주하는 기독교도가 '장백 기독교도 대표자 유일우' 앞으로 편지를 보냈는데, 내용은 재외 한인을 선동하거나, 선교사의 교사(敎唆)에 따라 해외통신에 싣기 위한 목적으로 국내의 만세시위운동 상황을 과장하여 전하고 있다고 보고하는 것이었다.

편지의 내용은 1919년 3월 1일부터 10일까지의 만세시위 상황을 전하는 것으로, 기독교도 30만 명 이상(그 중 학생 10만 이상, 휴교), 천도교도 300만 명 이상(그 중 노동자 50만 이상, 파업), 불교도 1만 5천 명 이상, 유생 5만 명 이상, 부녀자 5만 명 이상이 참가하였고, 체포된 자는 남성: 5만 명 이상, 여성: 천 명 이상, 사망자는 남성: 1만 명 이상, 여성: 300명 이상, 부상자는 남성: 5만 명 이상, 여성: 천 명 이상, 어린아이 사상자: 300명 이상이었다. 유일우를 '장백 기독교도 대표자'로 지목하고 있음이 주목된다.

5월 3일 유일우는 이창운(李昌云)의 집에서 이창운 · 김동윤(金東潤) · 박기윤(朴基潤) 등과 함께 독립운동 방략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 자리에서 유일우는

> "파리강화회의에서 한국의 독립이 승인되지 않는 경우, 우리민족은 최후의 수단으로서 무력행동을 채택할 수밖에 없다. 그러기 위해, 이천만 동포는 여러 곳에 흩어져 살고 있기에 통일적으로 일제히 기세를 올릴 수는 없지만, 이번에 통일적으로 이를 실천에 옮기기 위하여 지역을 5개 구(區)로 나누어, 제1구는 서울, 2구는 미국의 샌프란시스코, 3구는 하얼빈, 4구는 블라디보스톡, 5구는 상하이(上海)로 하여, 각지에 연락기관을 설치한다.
>
> 이들 기관은 단순한 연락통일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독립자금모금기관 역할을 하여, 각 지역 내의 인사들로부터 기부금을 모집하여, 이 자금으로 러시아령 및 중국내 등지에서 무기를 구입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바로 착수해야 한다. 그리고 하얼빈 · 국자가(局子街) · 흥경(興京)에 지부를 설치하고, 장백현과 연길현은 국자가 지부와 연락하기로 하며, 이에 따라 앞으로 독립운동자금 모집 통고가 있

을 경우에는 자신의 재산 전부를 매각하여 기부하려고 생각하고 있으니, 여러분들도 노력하여 많은 기부금을 갹출하기 바란다."

고 말하였다. 1919년 1월말부터 6월말까지 파리에서 제1차 세계대전의 전후 처리와 새로운 국제질서 수립을 모색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최된 승전국 강화회의에 대한 유일우의 관심은 그의 국제정세에 대한 이해 수준과 안목의 일단을 보여주는 사실로 이해해도 무방할 것이다.

또 향후 독립운동 추진방안의 일환으로 국내외 주요지역을 거점으로 5개 영역으로 나누고 연락기구를 설치함으로써, 효율적이고 유기적인 연락체계를 구축한 다음, 이 같은 조직적 토대와 기반 위에서 무장투쟁을 전개하자는 구상이다. 그리고 그는 이에 소요될 독립운동자금 모금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난 다음, 기꺼이 자신의 재산을 헌납할 용의가 있음을 밝히고 있는 것이다. 이 같은 재산 기부 의사의 표명에는 당시 장백현지역 독립운동진영 내에서 차지하고 있던 그의 위상과 솔선수범의 리더십이 함축되어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3 · 1운동 직후 그의 독립운동자금 모금활동 사실을 보여주는 일제자료에서는 "장백부 거주 불령선인 유일우는 독립운동자금 조달을 칭하고, 일찍이 장백현의 유력인물들에게 배포된 독립선언서 1장에 2원 50전씩을 징수하는 데 착수하였다"고 하였다.

3 · 1운동 직후인 1919년 봄 무렵에 작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일제자료에서는, 그와 이창운 · 김병윤이 장백현 각 사(社) 향약(鄕約, 面長) 7명과 함께 국내 및 남만주지역 한인들이 행동을 함께 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이미 배부한 독립선언서를 매개로 은밀히 인심을 고무시키는 동시에 동지들을 규합하고 있다고 파악하였다.

또 1919년 말에 작성된 일제정보자료에 따르면, 안도현(安圖縣)과 무송현(撫松縣) 방면으로부터 장백현으로 모여든 다수의 독립운동자금 모집 사명을 띤 인물들이 장백현독립지단(長白縣獨立支團)과 연계하여 1만 원(圓)이 넘는 자금을 모금하였다. 8도구(道溝)~13도구 지방: 정원 · 이창운 · 김관계 · 정삼성, 13도구~23도구 지방: 박기윤 · 김병윤 · 유일우 등이 주모하여 이용태 · 김석주 등과 함께 모금을 알선하였다.

일제기관이 파악한 군자금을 출연한 인물과 금액은 장백현 유일우 · 김병윤: 각 200원, 약수동 설관협: 100원, 약수동 안정보 · 안순보 · 이용호: 각 50원, 약수동 한중형: 20원, 이군진 · 김두순 · 이광진 · 이철: 각 20원, 한도화 · 한경수 · 허각 · 양병국 · 강원식: 각 15원으로, 합계 16명 825원이었다. 유일우가 제일 많은 금액(200원)을 희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지도적 위치에 있는 인물로서 솔선수범의 의미와 함께 그의 재력도 상관관계가 있을 것이다.

유일우가 강조한 독립운동자금 모금활동과 관련하여, 파리강화회의가 종료된 직후 작성된 일제자료에 근거하면, 독립운동자금 조달을 목적으로 유일우는 이창운 · 김병윤 등과 상무회(商務會)라는 단체를 조직하였다. 주요 간부는 최진국(회장), 김병윤(부회장), 서경태(총무), 김낙윤(재무), 조훈(서기), 유일우(贊成長), 이창운(贊成員) 등이었다.

이들은 중국관헌의 주목을 피하기 위해, 압록강 건너에 있는 혜산시장에 대항하기 위해 장백시장(長白市場)을 번창시킨다는 목표를 표방하고, 상무회원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발생한 이자는 이동휘(李東輝)가 이끄는 독립군총부로 송금한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말하는 '이동휘가 이끄는 독립군총부'라 함은 상하이의 대한민국임시정부를 가리킨다. 당시 이동휘는 대한민국임시정부의 국무총리로 재임하고 있었다. 상무회 나아가 장백지역을 무대로 한 유일우의 활동이 이동휘와의 연계 속에서 진행되었음을 암시한다.

여기에서 장백현지역의 한인독립운동진영과 상하이에 있는 대한민국임시정부 간의 연계관계를 알려주는 안창호(安昌浩)의 1920년 6월 1일자 일기 기록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당시 안창호는 임정 노동총판 직을 맡으며, 미국에 머물고 있는 이승만 임시대통령을 대신하여, 이동휘 국무총리와 함께 임정을 운영 · 보위하고 있었다. 특히 임정 각 부장이 미처 상하이에 도착하지 못한 상황에서 각 부 차장들을 지휘하며 임정을 이끌고 있었다.

이런 상황을 배경으로 이동백(李東白)이 '장백현 대표(長白縣代表)' 자격으로 상하이로 임정을 찾아왔다. 목적이나 자세한 경과는 파악되지 않지만, 국무원(國務院)에서 이동백이 헌의서(獻議書, 건의서)를 낭독하였고, 이에 대해 논의한 결과, 장백현에 거류민단(居留民團)을 설치할 것, 교통국(交通局)을 설치할 것, 재무관(財務官)을 설치하여 재정을 징집하여 장백현 군사(활동)부문에 충당할 것 등을 결정하고, 각 부서로 하여금 다시 이동백과 상의토록 하였다는 사실 등으로 미루어 보면, 장백현 지역 독립운동진영과 임정의 연대관계 구축 · 강화 방안을 모색하는 일이 주요임무 중의 하나였음은 짐작이 가능하다.

이동백(李東白) 군이 찾아옴에, 장백현(長白縣)의 사정을 자세히 들은즉, 군(君)이 말하길, 장백현은 봉천성(奉天省)에 있으니, 본국의 혜산진과 마주보고 있고, 유하현(柳河縣)에서 800여, 국자가(局子街)에서는 600여, 안동현(安東縣)에서는 1300리, 길림성(吉林省)에서는 800리, 함흥(咸興)에서는 500리인데, 우리나라 사람은 약 8,000이요,

농산물은 조 · 보리 · 감자 · 콩 · 기장 · 옥수수 · 쌀 · 인삼 · 대마 · 꿀 · 소 · 말 · 돼지 · 닭 · 삼나무 등이요, 상업은 잡화, 생선과 소금 등이요, 공업은 토기 · 목기 등이요,

단체는 진동실업회(進東實業會)이니, 그 주뇌자(主腦者, 주도인물)는 신익동(辛翼東) · 이동범(李東範) · 유일우(劉一憂)이니, 1912년에 발기하였고, 목적은 실업 · 자치요, 회원 수는 70인이요, 회비는 매월 50전이라, 적의 압박으로 1913년에 해산당하고,

관화연구회(官話硏究會)는 중국 국적(國籍)을 취득한 사람들이 1916년에 발기하여 중국 국적 취득인의 자치 및 교육 장려요, 외국인과의 교섭과 학교 설립인데, 회원은 70여 호에 120여 인이요, 회비는 년 6원 합 400원이다.

소위 관화학교(官話學校)는 교사 3인에, 졸업생 15명, 재학생 40명이요, 1915년에 설립하였고, 1919년에 제일정몽학교(第一正蒙學校)로 양도하다.

기독교구락부학교(基督敎俱樂部學校)는 교회 소관이니, 1915년에 설립하여 교사 2인, 졸업생 4인, 재학생 25인이요,

제일정몽학교(第一正蒙學校)는 1919년에 설립하였는데, 학생은 40명이요, 교사는 2인이요, 그 외 제2·3·4·5·6·7·8의 정몽학교가 있으나, 각 학교에는 교사 1인, 학생은 평균 20명이요, 경비는 관민이 반씩 분담하고, □육학교(□育學校)는 1915년에 설립, 교사 1인에 학생 20명, 졸업생 10명, 경비는 학부형의 의연으로 하고,

장백현 거류민의 영수(領袖, 지도자)는 이은경(李殷卿)이니, 나이가 54이요, 단천인(端川人)인데, 한학가(漢學家)로 기독교 장로, 8년 전에 이곳에 왔고,

군비단(軍備團)은 1919년 8월 4일에 발기하니, 발기인은 이은경·이동백·김찬·윤병용·김종기·강련상·김기우요, 목적은 군사준비이니, 작탄(炸彈) 준비, 미래의 전투 준비, 국내 잠입 폭동선동이요, 단장은 이은경, 총무는 이동백, 서기장은 윤병용, 서기에 김기우·김종기, 재무장에 김장환, 재무원은 강련상·이헌, 참모장은 김찬, 참모부원 염학모·윤병용이요, 주찰부장(周察部長)은 박동규, 부원은 다수요, 주찰구(周察區)를 분치하였는데,

통신부장은 이병률, 부원은 김대현·이승재·이진호요, 단원은 180인이요, 재정은 동포의 의연(義捐)이니, 수입금이 2500원이요, 지출도 2500원인데,

군비단(軍備團)은 독립단(獨立團) 장백총지단(長白總支團)의 후신이라고 하더라.

〔「안창호일기」 1920년 6월 1일자, 주요한, 『안도산 전서』, 삼중당, 1963, 726~727쪽〕

(2) 대한독립단 활동

유일우는 대한독립단(大韓獨立團) 장백현 지단장으로 활동하였다. 대한독립단은 국내에서의 의병전쟁에 한계를 느끼고 국외로 망명한 의병계열이 조직한 보약(保約)·향약계(鄕約契)·농무계(農務契)·포수단(砲手團) 등의 단체들이 1919년 4월경에 재편성된 결실이었다.

중심인물은 박장호·조맹선·백삼규·조병준·전덕원·박양섭 등이었고, 봉천성 유하현(柳河縣) 삼원보(三源堡)를 근거지로 활동하였다. 이들의 활동무대는 흥경·환인·집안·관전·임강·통화현 등 국내와 접경한 만주지역을 중심으로 국내에까지 뻗쳤다.

대한독립단의 단원을 모집하기 위해서 전덕원·김승학·백의범·백기준·이발영 등은 평안도와 황해도로 떠났고, 유일우·맹헌규 등은 집안·장안 등지에서 활동을 전개하였다. 주로 연고지를 찾은 이들은 1919년 12월까지 100여 개의 지단과 지부를 조직하는 등 큰 성과를 거두었다.

대한독립단은 독립운동을 만주에만 국한시키지 않고 국내와 연계를 갖는다는 목표를 설정하였다.

그리하여 봉천성 유하현 삼원보에 본부(總裁所)를 두고, 서울에는 건국중앙기관(建國中央機關)을 설치하며, 각도에 소집전권위원을 두어 전권을 위임하는 한편, 전권위원회의 사무를 명시하였다.

이처럼 대한독립단은 만주지역을 근거지로 삼아 국내와 연락하여 독립전쟁을 계속하는 것이 최선의 길이라고 믿었다. 대한독립단 조직에서 유일우는 장백현 총지단장 직을 맡아 항일운동을 전개하였다. 대한독립단의 지부조직을 표로 작성해 보면 다음과 같다.

대한독립단 지부 조직

직책	이름	직책	이름
국내 총지단장	홍제업(洪濟業)	태천군 지단장	백낙기(白樂基)
평북 지단장	정우범(鄭禹範)	영유(永柔) 지단장	이항로(李恒老)
평남 지단장	안창일(安昌一)	가산(嘉山) 지단장	오봉희(吳鳳熙)
경기 지단장	한덕리(韓惠履)	수안(遂安) 지단장	최일호(崔一浩)
용천군 지단장	이후관(李厚觀)	**장백현 총지단장**	**유일우(劉一憂)**
철산군 지단장	사병철(史秉哲)	집안현(輯安縣) 유수림자(楡樹林子) 지단장	최남표(崔南表)
영변군 지단장	신태익(申泰翼)	집안현 외차구(外岔溝) 지단장	홍승국(洪承國)
정주군 지단장	조석균(趙錫均)		

유일우의 대한독립단 활동을 알려주는 신문자료가 있다. 함북 길주군 동해면 산성동을 본적으로 하고, 장백현 소사동에 거주하던 김병형(金秉衡)이라는 인물관련 기사에서 유일우가 등장한다. 김병형은 1919년 제령(制令) 8호 위반으로 함흥지방법원 북청지청에서 예심을 거쳐, 1920년 12월 28일 함흥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언도받고, 경성복심법원에 공소하였다.

신문기사에 의하면, 김병형은 "봉천성 장백현 소사동(小寺洞)의 구장(區長)인 장백부에 있는 유일우·박기윤(朴基潤)·이□화(李□化) 등의 대한독립단(大韓獨立團)과 계맥을 상통하여 재무소집원(財務召集員) 겸 모원(募員)이 된 후 구한국의 구토(舊土)를 회복코자 앞의 주소지 부근을 근거로 삼아 그 운동자금을 모집함에 종사하여, 1919년 7월경부터 8월까지 사이에 원의범(元義範)이라는 사람으로 하여금 앞의 장백현에 거주하는 다수의 조선인에게 독립운동자금을 제공하도록 권유케 한 후, 같은 달 안으로 장백현 대사동(大寺洞)과 소사동에 거주하는 김재율(金在律) 외 12명에게 독립운동자금으로 합계 90원을 모집하여, 이것을 대한독립단의 재무부장 박기윤에게 교부하여서, 다수가 함께 안녕질서를 방해한 혐의"라고 하였다.

위 김병형의 활동 사실을 통해서는, 유일우가 장백현 소사동 구장 직을 수행하고 있었으며, 대한독립단의 독립운동자금 모금활동에 참여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3) 대한독립군비단 활동

그는 장백현을 주무대로 활동한 대한독립군비단(大韓獨立軍備團) 활동에도 깊숙이 관여한 것으로 유추된다. 1919년 3 · 1운동 이후 동 · 북간도를 중심으로 대두된 독립전쟁론(獨立戰爭論)을 배경으로, 장백현을 거점으로 이희삼(李熙三) · 이동백(李東白) 등에 의해 조직되었다.

1914년 5월 장백에서는 그 고을에 사는 한인들과 이웃 여러 곳에서 모여든 한인대표들이 군중대회를 열었다. 이 대회에서 '남만주 군비단'이 조직되었고, 유일우는 단장으로 추대되었다. 유 단장은 취임 인사에서 다음과 같이 외쳤다.

> "일본의 악랄한 침범을 당함으로써 우리 백의민족은 역사상 일찍이 겪은 일이 없는 일대 국치민욕을 당하였습니다. 그러나 국가의 성쇠는 일시적 현상이고, 민족의 생명은 영원한 것입니다. 우리가 불행히도 강도 일본에게 국권을 빼앗겼다고 하더라도 민족의 혼백마저 빼앗긴 것은 아닙니다. 일본의 무단정치가 가혹하면 가혹할수록 우리는 더욱 용기를 내고 굳게 뭉쳐서 그들과 싸워야 하겠습니다. 삼천리 금수강산이 시산혈해로 화하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의 투쟁은 멈추어질 수 없습니다. 남만주 군비단은 간도 교포의 독립사상을 고취하는 한편, 독립군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모든 것을 기꺼이 바칠 것을 다짐합니다."(『상허 유석창 전기』 및 『건국대학교 60년사』)

"본 단은 우리 임시정부의 국무총리 총재 각하의 명령으로 조직"하였다는 「대한독립군비(총)단 약장」 제1조의 내용으로 미루어 보면, 대한독립군비단은 상해 대한민국임시정부의 국무총리이던 이동휘의 지령에 의해 조직되었음을 알 수 있다. 공식적인 편제에 포함되어 있지는 않지만, 이동휘와의 인연을 매개로 유일우가 대한독립군비단 활동에 참여하였을 것으로 유추된다.

이 같은 설명은 단장인 이은경 및 군사부장인 이동백과 유일우의 관계로도 뒷받침된다. 먼저 이은경(李殷卿)은 앞에서 설명하였듯이, 유일우 일가가 신흥덕촌에 도착한 직후, 환영예배를 주관한 바 있고, 봉천성장에게 함께 연서를 제출한 바 있었다. 이동백(李東白) 역시 단천 출신으로서, 유일우가 교장으로 있었던 관립언어학교 부설 태흥학교의 교사를 지냈으며, 유석창(劉錫昶)의 담임을 맡기도 하였다. 이와 함께 단장 · 군사부장 · 외교부장 · 소집부장 등의 주요 직책을 담당하고 있던 이은경 · 이동백 · 조훈 · 김정익 등이 단천 출신인 점도 그러하다. 이어서 대한독립군비단 장백지단의 간부 중 이동백이 재무장(財務長)을 맡고 있는 바, 유일우 역시 군비단 장백지단 활동에 참여했을 개연성이 크다.

이외 강상진이라는 인물이 자신의 독립운동 공훈기록에서 "3 · 1운동에 참여한 후 만주 장백현으로 망명하여, 대한독립군비단 장백지단 유일우 부대에 참여하여 활동하였다"고 기록하고 있는 사실도 이를 뒷받침해준다.

(4) 장백현지역 독립운동에서 유일우의 비중

이는 일제자료를 통해서도 뒷받침된다. 1919년 4월 17일자 일제 비밀문서에 따르면, 장백부 부근을 무대로 활동하던 한인독립운동가들이 일 · 중 군경의 감시가 강화됨에 따라, 무송현 서대잠(西大岑)에 근거지를 확보하고 대대적인 활동을 계획하고, 이를 위해 동지들을 규합하기 위해 분주하다고 보고하며, 중심인물을 다음과 같이 파악하였다.

일제기관이 평가하는 장백현 지역 한인독립운동의 중심인물

거주지	종교	이름	기타
장백부	천도교	김병윤(金秉潤)	장백면장
장백부	기독교	**유일우(劉一憂)**	**在外不良鮮人甲號**
장백부	기독교	이창운(李昌云)	在外不良鮮人乙號
장백현 태평구	천도교	김낙윤(金絡允)	
장백현 부흥동	기독교	강주성(姜周星)	
장백현		장자헌(張子軒)	

또 다른 일제자료는 장백현 관내 거주자로서 '독립운동 주모자(主謀者)'로 인정되는 인물들을 아래와 같이 파악하였다.

일제기관이 파악하는 장백현 지역 한인독립운동 '주모자'

거주지	이름 및 신상
장백부	**유일우(在外不良鮮人'甲'號)**, 이창운(在外不良鮮人'乙'號), 이창동, 정삼리(在外不良鮮人'乙'號), 김병윤(在外不良鮮人'乙'號), 이현필(在外不良鮮人'乙'號), 이진(在外不良鮮人'乙'號), 이동백(在外不良鮮人'乙'號), 구성문, 배영숙, 양춘경, 김병능
18도구	이태걸(名簿'乙'), 조영수, 김정현, 김응성, 조창락, 김인식, 설관협(名簿'乙')
17도구	유병률, 연세윤, 한윤, 이은경, 김명순, 심서준, 박상렬, 오주천
16도구	강원동, 배진달, 황원실, 이준명, 박만혁(名簿'乙'), 임수엽, 홍재극, 박만희, 김희조, 김희만, 홍재흘, 홍범조, 장명□
내시궁	이용태, 오제동, 김석주, 최정모, 정손기
치부동	강명구, 안학선, 김정수, 주기도, 이응신
14도구	김곡, 박동식, 심관용, 김종택
13도구	유래귀, 김영길, 김지숙, 김관선, 한리형, 김성호, 유도풍, 박기원, 박기진
12도구	김치준, 이교특, 남동명, 조기초, 최동희
8도구	최정호, 김관계, 방금손, 김성도, 이기화, 김용택, 노춘기
7도구	정봉도, 조계득, 강장팔, 유일희, 원도심, 서인기, 박지엽, 홍근호, 전추, 한근호, 강서팔

위의 표를 통해 보면, 장백현 일대 독립운동 주모자 86명 중, '재외 불량선인 갑호(在外不良鮮人 '甲'號)'로 분류된 인물은 유일우 뿐이다. 일제 당국이 '독립운동 주모자' 중에서도 유일우의 '죄질이 가장 무겁다'고 평가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일제가 파악하는 '죄질'이라 함은 '독립운동의 공적'을 의미하는 것임은 불문가지이다. 이로 미루어 보면, 대한독립군비단과 대한독립단 간부 명단에서 그의 이름이 발견되지 않는 이유를 이해할 수 있게 된다. 독립운동의 전면에 나서기에는 일제의 감시 눈초리가 너무 매서웠고, 또 그가 전면에 나섰을 경우 야기될 수 있는 악영향 등을 고려한 결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유일우의 비중을 알려주는 사실로, 함흥헌병대장의 보고에 따르면, 1919년 4월 21일 장백에 거주하는 '배일 불령선인(排日不逞鮮人)' 유일우는 이창운 · 김병윤 · 정삼성(鄭三星)과 함께, 이창운 집에서 장백현 일본헌병주재소 감독보조원에게

> "지금 한반도 남쪽지역에서는 헌병보조원 · 순사보조 및 기타 조선(총독부) 관헌의 절반이 제복을 벗어던지고, 독립운동에 참가하거나, 해외로 도주하는 등, 구래의 사상이 크게 변하고 있다고 듣고 있다. … 군(君)들은 지금 최하급 왜족노예 처지를 달콤하게 받아들이고 있지만, 이때 한반도 남부지역의 헌병보조원들을 본받아, 감독보조원이라는 직권으로 일반보조원을 지휘하여, 우선 각자 소속해 있는 기관의 병기(兵器)를 탈취 도주한다면, 최단 시간 내에 독립의 날을 볼 수 있게 될 것이다."

라고 독립운동 참여를 설득하였다. 이와 함께 유일우가 장백현에서 이끌었던 독립운동단체로 장백독립군지단과 대한독립총지단이라는 명칭이 등장한다. 먼저 장백독립군지단(長白獨立軍支團)의 단장은 유일우였고, 김병윤이 부단장, 박기윤이 재무였다. 같은 내용을 가리키는 것으로 짐작되는 다른 일제자료에서는 "압록강 대안 불령선인(不逞鮮人)들이 장백독립군사단(長白獨立軍師團)을 설립하였는데, 그 장소는 확실치 않지만 장백부에 둔 것 같다. 단장은 유일우(劉一憂), 부단장은 김모(金某), 재무는 박모(朴某)라고 한다"고 파악하고 있다.

또 일제기관은 유일우를 대한독립총지단(大韓獨立總支團)의 단장으로 파악하였다. 1920년 1월에 작성된 자료에서는, 함경남도지사가 "유일우를 단장으로 하는 대한독립총지단의 약장(約章)을 장백현 13도구(道溝) 삼수동(三水洞)에서 입수했다"고 보고하였다. 소재지는 '백산 남방 부근' 즉 백두산 남쪽지역이었고, 종지(宗旨) 및 목적으로 "정부 및 대한독립총단의 명령에 복종한다"고 하였다. '정부' 즉 대한민국임시정부를 받든다는 뜻과 더불어, 임정 산하 독립운동단체를 자임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약장의 끝 부분에 쓰여 있는 "대한민국 원년 9월 ○일 출판"이라는 글귀로도 뒷받침된다.

이외 또 다른 일제자료에 의하면, 1920년 5월 최진국(崔鎭國) · 김병윤(金秉潤) 등이 창흥상회(昌興商會)를 설립하고, 무명 · 소금 · 어류 · 쌀 등을 판매하였다. 7월에는 유일우와 김병윤이 창흥상회를 '독립운동의 별동대(別動隊)'로 개편하였는데, 유일우가 별동대로의 개편을 제의하였다고 한다. 상회의 자본금과 이익금은 군자금에 충당하였으며, 최진국이 회장을 맡았고, 부회장〔김병윤〕 · 총무〔서경태〕 · 서기 및 재무〔김병형〕 · 회원들〔김낙윤, 이용호, 황□덕, 이식섭, 심재순, 유기철, 이희재, 안정실, 조훈〕로 구성되었다.

독립운동 과정에서는 일제의 눈을 피해 독립운동의 거점을 확보하기 위하여 상회나 양행 등을 설립하여 경제활동을 하면서, 한편으로는 이를 독립운동의 중간연락거점으로 활용한 사례가 많았다. 안희제(安熙濟)가 운영한 백산상회(白山商會)와, 대한광복회 활동의 중심인물인 박상진(朴尙鎭) 등이 개설한 상덕태상회(尙德泰商會) 등이 대표적인 예이다. 유일우의 창흥상회 역시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그런데 유일우가 경제활동을 통해 자본을 모은 사실과 관련한 중국측 자료에 따르면, 당시 유일우는 중평출신 이봉실(李鳳實), 북청출신 이근수(李根秀), 장남 유목(劉睦, 본명: 劉錫俊)과 함께 중국상인 황용린(黃永林)과 결탁하여 목재장사를 하였다. 이들은 목재를 혜산진으로 운반하고 쌀 · 소금 · 목화 등의 생활필수품을 구입하였다. 이 같은 물품은 현지 독립운동단체인 대한독립군비단과 대한독립단에 공급되었을 것으로 유추된다.

4) 장남 유목의 독립운동과 귀국

그러던 중 1921년 2월 유일우는 차남인 석창(錫昶)을 귀국시켜 서울에서 공부토록 하였으며, 뒤이어 그 역시 귀국하여, 1928년까지 단천군 대성리에 살고 있던 딸 동섭(東燮)의 집에서 머물렀다.

둘째 아들인 석창의 교육문제가 귀국을 결정하게 된 주요인이 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와 함께 3 · 1운동에 뒤이은 봉오동전투와 청산리전투에서 독립군이 대승을 거두고, 이에 대한 보복으로 일본군의 독립군 토벌전 및 한인사회 초토화 작전이 펼쳐짐으로써, 재만 독립군의 활동 및 한인사회의 환경이 악화된 사실도 이들의 귀국 결정에 적지 않게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유추된다.

1928년 유석창이 함경남도 장진(長津)에서 공의(公醫)로 근무하게 되면서, 다시 석창과 합류하였다. 유석창이 장진에서 공의로 근무하게 된 것은 일본 유학을 마치고 돌아와, 함경남도청 학무과장으로 근무하던 형 유목이 끌어 준 결과였다.

그런데 일제자료에 따르면, 유목은 '일본대학(日本大學)'을 졸업하였고, "본적이 경성부(京城府)이고, 장백부(長白府) 거주 불령선인 유일우의 장남"으로, 그가 "경성에 있을 때, 예수교회의 중요한 직에 있었는데, 1917년 말 돌연 행방불명되었다가, 얼마 전에 실부 유일우가 있는 장백에 왔다"고 기록하였다.

이에 따르면, 1918년 3월 유목은 안동현(安東縣)에서 하얼빈을 경유하여 블라디보스토크로 갔으며, 얼마 후 하바로프스크에 있는 모 한인학교(韓人學校)에서 교편을 잡았지만, 일본군이 하바로프

스크에 주둔하자 몰래 동녕현(東寧縣) 삼차구(三岔口)로 피신하였다. 이후 삼차구에서 활동 중이다가 이동휘의 비밀명령을 휴대하고 국자가(局子街)로 왔던 차에, 장백현으로 부친 유일우를 방문하였다. 그가 부친 및 지인들에게 전한 러시아지역 한인독립운동의 정황은 다음과 같았다.

"재미 한인대표자들이 강화회의에 청원한 한국독립 승인안은 동 회의에서 기각되었다. 러시아령에서는 최후의 수단으로 무력행동을 계획하여, 목하 독립군 편성에 분주하다. 그 책원지는 삼차구(三岔口) 팔면둔(八面屯) 소수분(小綏芬) 부근인데, 이동휘(李東輝) · 조장원(趙璋元) 등의 부하가 이미 수만 명에 달하고, 각지에서 온 자들이 날로 증가하고 있다.

이동휘가 가장 고심하는 바는 군자금으로, 병기(兵器) 역시 목하 수집에 부심하고 있다. 그리고 이동휘는 3월 하순 부하 중에서 러시아어에 능통한 김우두(金佑斗) 및 오영선(吳永善) 두 사람에게 10만원을 휴대시켜 병기구입을 위해 러시아에 파견하였다.

또 상해의 변용만(卞用万) · 박모(朴某) 등이 이동휘에게 보낸 편지에 의하면, 상하이(上海)에서 중국인을 통해 무기를 구입하는 일은 용이하다고 하며, 자금 송달방법에 대한 문의가 있었다. 이동휘는 상하이에서 미국인으로부터 무기를 구입할 것을 계획하고, 특사를 파견하였다. 이동휘는 스스로 독립군사령관(獨立軍司令官)을 칭하고, 그해 겨울 이전에 군대 편성 및 기타 준비를 갖추어 결빙과 동시에 행동을 개시할 계획이며, 유목(劉睦)은 대대장(大隊長) 직책의 명령을 받았다고 한다."

유목이 장백현→안동현(安東縣)→하얼빈→블라디보스토크→하바로프스크→만주 동녕현(東寧縣) 삼차구(三岔口)→국자가(局子街)→장백현으로 이어지는 여정으로, 이동휘의 비밀명령 수행이라는 사명을 수행하였던 것이다.

이로 미루어 보면, 일본유학을 마친 유목은 부친 유일우가 있는 장백현으로 와서 부친의 사업을 도왔고, 중국 동북지방과 러시아령 연해주 일원을 무대로 하여, 이동휘가 중심이 되어 전개된 독립운동 구도 안에서 활동하였음을 알 수 있다. 유목이 이동휘 휘하 독립군 부대의 대대장 직함을 받은 사실은 그에 대한 이동휘의 신임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를 바탕으로 러시아지역과 서간도지역 한인독립운동 진영 간에 연락활동을 수행하였던 것이다.

그러다가 귀국하여, 조선총독부 관리로 취직하였던 것이다. 아마도 유목의 귀국과 취업은 동생인 유석창과 부친 유일우의 귀국 결정에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1931년 유석창이 서울로 올라오게 되자, 유일우는 일시 딸의 집으로 거처를 옮겼다가, 1932년 유일우도 상경하여 석창과 합류하였다. 처음에는 왕십리에서 거주하다가 성북동으로 이사하였고, 1934년에 다시 가회동으로 이사하였다. 그는 종로4가 종묘 입구에 자리한 묘동교회(廟洞敎會)의 장로로 활동하다가, 1936년 76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다.

5) 유일우 항일독립운동의 의미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유일우는 1912년 10월 하순 고향인 단천을 떠나 당시 봉천성(현재 길림성) 장백현으로 이주하여, 토착 중국인 유력인물인 후윈펑(胡雲鵬)과 합작하여 한약방을 개설하는 한편, 한의사로서의 사회적 · 경제적 기반을 발판으로 당지 한인사회의 지도적 인물로 성장하였다. 그리하여 거주한인들의 경제적 · 사회적 권리 옹호 및 이익 보호를 목적으로 조직된 한교동사회의 중심인물 역할을 함으로써, 한인사회의 지도적 인물로 성장할 수 있었다.

그는 태흥학교(太興學校)와 한교중학교(韓僑中學校) 교장으로, 재만 한인 2세에 대한 민족교육을 이끌었으며, 상무회(商務會)라는 단체를 이끌며 대한민국임시정부로 보낼 목적으로 독립운동자금 모금 활동을 전개하였다.

확인되는 사실만 하더라도, 대한독립총지단(大韓獨立總支團) 단장, 대한독립단(大韓獨立團) 장백현지단장을 역임하였고, 비록 공식적인 대한독립군비단(大韓獨立軍備團)의 조직 · 편제 등에서 그의 이름은 발견되지 않지만, 단장 이은경(李恩卿)과 군사부장 이동백(李東白)과 유일우의 관계, 그리고 단천 출신 인물들이 중심역할을 했던 사실은 그가 대한독립군비단 활동에도 참여했을 개연성을 뒷받침해 준다.

이 같은 사실은 그가 일제당국에 의해, 장백현 일대 독립운동 주모자 86명 중, '재외 불량선인 갑호(在外不良鮮人甲號)'로 분류된 유일한 인물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대한독립군비단의 조직편제에 그의 이름이 포함되지 않은 사실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듯 그는 1910년대~1920년 초반 장백현을 무대로 전개된 한인독립운동의 지도적 인물로 활동하였다.

그리고 그가 주도한 상무회(商務會)나 대한독립총지단(大韓獨立總支團) 등이 설립 취지 및 목적 등에서 대한민국임시정부(大韓民國臨時政府)에 대한 충성과 지원을 명문화하고 있는 점 등도 주목된다. 이와 함께 같은 단천 출신인 이동휘(李東輝)와 연계관계를 유지한 것으로 밝혀지는데, 이동휘가 당시 대한민국임시정부 국무총리로 재직하였던 점도 장백현 지역 독립운동세력이 임정에 대한 옹호 · 봉대 의사를 표방한 사실과 상관이 있을 것이다. 유일우가 장백현을 무대로 전개한 독립운동의 범주와 의미에 대한 보다 심층적이고 본격적인 접근이 요구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가 매크래(MaCrae) 선교사를 통해 기독교라고 하는 새로운 의식세계를 수용한 사실을 통해 우리는 그가 자신이 살고 있는 조선후기 한국사회의 장래에 깊은 우려를 가졌음을 알 수 있다. 아울러 한 걸음 나아가 자신의 집을 예배당으로 개조한 사실을 통해서는 그가 비관적인 현실의 질곡으로부터 벗어나 새로운 내일을 열어가려는 강한 의욕과 실천적 사고의 소유자였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이처럼 현실에 기반 하면서도, 다가올 미래에 대한 준비와, 이를 위한 개척적인 도전을 마다하지 않은 모습은 후일 장백현으로 이주한 이후에도 바로 중국국적을 취득함으로써 안정적인 현실조건을

부친 유일우 선생의 묘소를 참배하는 유석창 박사

마련한 다음, 이를 기반으로 항일독립운동에 적극 투신한 사실에서도 발견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 같은 그의 선제적 준비와 개척의 리더십은 아들인 유석창에게 전해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 장백현에서 아버지를 돕던 유석창이 귀국을 결정하고 이후 경신학교(儆新學校)와 경성의학전문학교(京城醫學專門學校)를 거쳐, 사회영 중앙실비진료원(社會營中央實費診療院)을 기반으로 한 의료제민(醫療濟民)이라는 사회적 · 민족적 헌신의 길을 선택한 것은 일제 식민지배 아래 있는 조국과 민족의 현실을 타개 극복하기 위한 하나의 도전이었다.

일제 패망 후 건국의숙(建國義塾)→조선정치학관(朝鮮政治學館)→조선정치대학관(朝鮮政治大學館)→정치대학(政治大學)→건국대학교(建國大學校)로 이어지는 교육사업 역시 근대화를 통한 경제발전이라는 당시 한국사회의 수요에 부응할 수 있는 건국동량(建國棟梁)을 양성하고자 한, 미래조국의 발전을 위한 투자였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선공후사(先公後私)'와 '사소취대(捨小取大)'라는 대의(大義)의 실천을 통해 교육입국(教育立國)의 국가발전이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 진력하였던 것이니, 그 연원은 부친인 유일우의 현실인식과 인생관에서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2
청소년기와 경성의학전문학교 수학

1) 출생과 유년 시절

유석창(劉錫昶)은 1900년 3월 17일(음력 2월 17일) 함경남도 단천군 이중면 돌산리(신동촌) 25번지에서, 부친 유승균(劉勝均)과 모친 홍숙경(洪淑卿)의 둘째 아들로 태어났다.

단천은 함경남도 최남단에 위치한 고장으로 민족의 얼이 스며 있는 백두산을 주봉으로 한 마천령산맥에서 뻗어 나온 두류산을 필두로 수많은 산봉우리들이 이어져 있고 운주산이 단천시를 병풍으로 둘러싸듯 서북쪽에 높이 솟아 좌우로 날개를 펼치고 있다. 이 운주산 가운데로부터 뻗쳐 나온 듯 금봉산이 작은 병풍이 되어 단천을 감싸듯 내려다보고 있다. 지하자원이 매우 풍부한 이 고장에는 옛날부터 단충선, 용양선 등의 철도가 부설되어 있었으며 돌산리도 단천 시내의 단천역에서 용양선을 타고 가면 갈 수 있었다.

세계 최대의 매장량을 자랑하는 마그네사이트 광산을 비롯하여 철, 니켈, 인회석 등의 특수광물이 다량 매장되어 있다. 그런데 단천은 일제강점기에 일제를 반대하는 농민저항운동이 거세게 일어났던 곳으로도 널리 알려져 있으며, 많은 독립운동가를 배출한 곳이기도 하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단천 출신 선각자들의 교육열을 크게 자랑하지 않을 수 없다. 함경북도 명천 출신의 이용익 대감은 구한말 정계의 거물로 1905년에 보성전문학교(현 고려대학교의 전신)를 세웠는데, 당시 학교 설립에 소요된 자금은 단천광산에서 캐낸 금을 팔아서 마련했다는 일화도 전해지고 있는데, 단천 출신 성재 이동휘 선생의 교육열이 또한 단천 출신 선각자들에게 전통으로 그 명맥을 이어 왔음을 알 수 있다.

잘 알려진 대로 성재 이동휘 선생은 위대한 애국자, 독립투사, 사회혁명가로 대한민국임시정부를 수립하고 초대 국무총리를 지낸 분으로 독립운동가로뿐만 아니라 교육열이 대단하여 강화도에만도 24개의 학교를 세웠고, 당시 전국에 1백여 개나 되는 학교를 세웠던 것이다.

이어 해방 후에 단천 출신 상허 선생이 건국대학교, 단천 출신 대양 선생(주영하, 전 세종대학교 이사장)이 세종대학교를 설립하기에 이른다. 오늘날 세종대학교의 화양동 캠퍼스 부지는 상허 선생이 추천하였다는 일화가 전해지고 있다.〔박택규(건국대학교 이과대학 교수), 「상허 선생, 위대한 휴머니스트」, 『내가 본 상허 유석창』, 100~101쪽〕

부친 유일우 선생(좌)과 모친 홍숙경 여사(우) 모습

어머니가 석창을 잉태하였을 때, 푸른 물에서 용이 솟구쳐 오르고, 치마에 여의주를 받는 태몽을 꾸었다고 한다. 그러나 태몽을 잘못 발설하면 오히려 화가 미칠 것을 염려한 모친은 입을 굳게 다물었다고 한다.

한의사인 부친은 한학의 소양을 갖추었을 뿐만 아니라, 신학문에도 눈을 뜬 인물이었다. 그는 성품이 강직하고 대범한 편이었고, 자녀교육에 엄격하였다. 특히 불의에 가담하거나 거짓말을 하는 것은 결코 용납하지 않았다. 훗날 유석창이 어려운 일에 부딪쳐도 좌절하지 않고 용기를 내서 이를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부모로부터 받은 가정교육의 힘이 컸다.

석창은 어려서부터 뼈대가 굵고, 손발이 컸다. 형제자매와 우애가 두터웠으며 동네 아이들과도 잘 어울렸다. 때때로 엉뚱한 데가 있어, 주위사람들을 놀라게 하는 일도 적지 않았다. 부친은 석창을 서당에 보내 한문을 가르쳤다. 또 아들을 위하여 훈장을 모셔다 놓고 천자문을 읽게 하였다. 천자문을 다 읽은 석창은 아버지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신식교육을 받겠다는 의사를 표명하였으나, 유승균은 또 다시 사서(四書)를 읽도록 하였다. 이처럼 한문교육을 고집한 것은 세상의 이치를 터득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석창의 나이 6세 때인 1905년, 을사늑약(乙巳勒約)이 체결되었다. 뜻있는 사람들은 붉은 십자가를 그린 깃대를 문 앞에 세운 유승균이 개설한 예배당에 모여, 국가의 앞날을 걱정하고 민족의 울분을 달랬다. 이때 석창은 을사늑약 체결이 뜻하는 의미를 제대로 알지는 못했지만, 예배당에 모인 주민들과 함께 울었다고 한다.

이후 고향의 유신학교(維新學校)에 다니며 소년기의 소양을 갖추었는데, "이름난 개구쟁이 수재(秀才)로서 또한 장골(壯骨)이라는 별칭을 갖고 있어, 유 박사가 만주로 떠난 후에야 뒷동산에 풀이 났다고 할 정도였다."

1910년 8월 29일 소위 '한일합병조약(韓日合併條約)' 체결로 국권이 상실되었고, 이후 1912년 말 석창은 부모를 따라 중국 망명길에 올랐다. 유일우 일가가 단천(端川)을 출발하여 중국 동북지역인 장백현(長白縣)에 도착한 때는 1912년 10월 20일이었다. 당시 이 지역에는 500여 가구의 한인(韓人)들이 살고 있었는데, 압록강 대안인 이 지역은 조선후기 이래 이주해 온 한인들이 많이 살아 흡사 한인부락 같았다.

당시 만주지역은 식수난이 심했다. 대지가 황토흙 먼지로 뒤덮여, 계곡의 물은 온통 갈색의 황토물이었다. 우물이 적고 또 석창의 집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서, 세 시간 정도 걸려야 지게로 물을 떠올 수 있었다고 한다. 땔감 역시 구하기 힘들었다. 땔감을 사서 땔 여유가 없기에, 석창은 동네사람들과 서로 품앗이로 나무를 해서 사용했다.

이후 장백에서 지낸 8년 4개월은 석창에게 있어서 망국민으로서의 피눈물 나는 수련의 시기였으며, 동시에 청년으로 성장해 가는 시련의 시간이었다. 가족이 장백에 정착한 지 2주일도 못 되어 모친이 병석에 눕게 되었다. 석창은 보리와 조를 방아에 찧어 감자와 함께 밥을 짓고, 3마장이나 떨어져 있는 우물가에서 물을 퍼 나르고, 장작을 쪼갰다. 어머니의 간병을 위하여 하루에 열두 번이나 약을 달인 일도 있었다고 한다. 채 마르지 않은 나무를 입으로 불어 불길을 살려 놓으면 금세 불길이 사그러지고, 매서운 연기에 눈물로 범벅이 된 눈이 쓰라리고 쑤셨다. 그러고는 책보를 챙겨들고 어머니께 인사드리고 학교로 내달린 생활의 연속이었다. 매운 생나무 연기와 희미한 불빛 아래에서 책을 봐야 했던 탓에 그의 시력은 약화되기 시작했다.

1913년 4월, 14살이 된 석창은 1915년까지, 관화학교에서 공부하였다. 관화학교의 교장은 아버지인 유일우였고, 담임은 독립운동가 이동백(李東白)이었다. 당시 유일우는 장백현 서시가(西市街)에 있던 관립언어학교 부속 태흥학교(太興學校)의 설립을 인가받아, 자신이 교장에 취임하였다. 1915년에는 관화학교(官話學校)로 교명을 바꾸었다. '관화(官話)' 즉 표준중국어(北京語)를 가르치는 것이 주목적이었던 이 학교는 초등과 3년과 고등과 1년의 과정을 가진 4년제의 소규모 학교였다. 교과목은 중국어와 기타 과목이 있었고, 특별과목으로 한국어(韓國語)와 한민족사(韓民族史)를 가르쳤다. 관화학교 재학시절, 담임선생인 이동백의 영향 하에 유석창의 항일의식은 고조되었다.

석창은 병환 중인 모친을 간호하고, 집안일을 돌보면서 15리 길을 통학하였다. 그리하여 교장 효행상(孝行賞)을 두 번이나 받았고, 장백현 현장(縣長)이 수여하는 효행상과 상금도 받았다. 졸업 후인 1917년부터 1918년까지는 관화학교에서 교사로 근무하였다.

양친과 함께한 13살 소년 석창(1912년)

현재 건국대학교 박물관 겸 상허기념관에 있는 유석창이 받은 1914년 11월 1일자 포증서(褒證書, 표창장)에는 유석창의 담임이 이동백(李東白)이고, 유일우가 교장으로 표기되어 있다. 그리고 교명도 '언어학교(言語學校) 부속 태흥학교(太興學校)'로 되어 있다. 또 유석창의 진급증서(進級證書)에 표기된 교장 명의도 유일우로 되어 있다. 아울러 1915년 음력 10월 3일자 '품행포증서(品行褒證書)'와 심상과(尋常科) '필업증서(畢業證書, 졸업증서)'와, 1916년도 고등과(高等科) 필업증서에도 '관화학교(官話學校)'로 표기되어 있다.

유석창의 수학 사실과 관련하여, 유 박사 자신이 쓴 회고의 글에서는 "중국인학교 관립 제일정몽학교를 마치고 계속하여 고등과까지 마쳤"다고 하였고, 유 박사의 구술을 토대로 작성된 기록에서는 "소학교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한 유 박사는 1914년 4월에 다시 장백현 제1정몽학교 고등과에 입학하게 되는데, 그곳에서도 언제나 수석을 차지하였다. 1916년 4월에는 제1정몽학교 고등과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함과 동시에, 이 학교 교사로 부임하였다." 또 "제1정몽학교는 관립(官立)"이라고 하였다.

그런데 졸업 시기, 졸업 후 교사로 근무했다는 사실, 관립이라는 등의 기술내용으로 미루어보면, 제1정몽학교(第一正蒙學校)와 관화학교가 겹쳐진다. 이 시기 일제정보자료 등에서도 제1정몽학교라는 명칭이 달리 발견되지 않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보면, 제1정몽학교가 관화학교를 가리키는 것으로 유추된다. 이주한인들을 대상으로 '관화(官話)' 즉 '중국어(中國語)'를 가르친 학교의 교명이 '제1정몽학교'였던 것으로 유추된다.

당시 석창의 집에는 많은 독립군들이 드나들었는데, 이들에게 식사를 대접하는 일은 석창 소년의 몫이었다. 큰 함지박에 담은 보리에 조와 감자를 섞은 밥과, 감자를 넣어 끓인 된장을 반찬으로 내놓은 밥상이었지만, 아들을 바라보는 어머니는 "어린 것이 저렇게 고생하는데, 저 양반이 정신이 있는가?"하며 안타까워하였다고 한다. 유 박사의 회고담에 근거하여 쓴 기록에서는 이 시기 석창 소년의 모습을 다음과 같이 전한다.

> "부친은 일인의 추적을 피해 집을 비우기가 일쑤였다. 때문에 어린 유 박사만이 병마에 누운 노모와 집을 지키며 책을 잡지 않으면 안 되었다. 야경을 틈타 일시 집에 와 노모의 병상을 일석한 후 훌훌히 광복군 대열을 이끌며 여명을 틈타 사라지곤 하던 부친의 등 뒤에서 15세의 유 박사는 조석을 끓여 어머니를 봉양했고, 약탕관에 불을 지펴야 했다."〔『建大文化』 편집부, 「故 常虛 劉錫昶博士 生活 片片相」, 『建大文化』 3집, 건국대학교총학생회, 1973, 121쪽〕

"큰 명성을 만세에 드날린 사람은 반드시 먼저 작은 일부터 실행했다〔垂大名於萬世者, 必先行之於繡微之事〕." 한(漢) 고조 유방(劉邦)을 도와 중국 천하를 통일한 육가(陸賈)가 남긴 말이다. 작고 하찮게 보이는 일조차 최선을 다하는 정성에서 큰일도 이룰 수 있으리라는 의미이다. 어린 시절부터 자신에게 주어진 상황에 최선을 다하는 그였기에, 후일 민중병원과 건국대학이라고 하는 삶의 금자탑도 쌓을 수 있었을 것이다.

한편 국내에서 3 · 1운동이 일어나자, 3월 16일 장백현에서도 만세운동이 일어났다. 물론 유석창도 여기에 가담하였다. 이와 관련한 일제자료에 따르면, 1919년 4월 8일 오후 5시부터 제1정몽학교 학생 25명이 '대한독립만세'를 외치며 장백시내를 행진하다가, 장백지역 담당 일제헌병이 중국 순경국장(巡警局長)에게 통보하여 이들을 해산시켰다.

3 · 1운동을 치루면서 한인들의 항일의지와 독립 열망은 한층 비등해졌고, 이를 배경으로 독립전쟁론이 크게 대두되기 시작하였다. 그리하여 독립군부대는 일본군을 상대로 크고 작은 항일전투를 전개하였는데, 그 중에서 1920년에 들어 독립군 연합부대는 삼둔자전투(년초), 봉오동전투(6월), 청산리전투(10월)를 전개하여 크게 승리하였다. 이에 일본군은 독가스까지 사용하여 재만한인을 학살하는 한편, 독립군 토벌작전을 전개하였다. 독립군부대는 중-러 국경선을 넘어 러시아령으로 이동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상황을 배경으로 당시 대한독립단 장백현 지단장으로 있던 유일우도 독립운동의 진로 뿐 아니라, 소년광복대(少年光復隊) 대장, 만주군비단(滿洲軍備團) 참모 등으로 활동하고 있는 아들의 장래에 대해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다. 결국 아들을 귀국시켜 공부를 시키는 것이 아들의 장래를 위한 길이 되리라는 결론에 이르렀다.

부친 유일우는 아들 석창에게 다음과 같이 타일렀다.

> "가까운 동지들을 만나 상의한 결과, 일단 국내로 돌아가는 것이 좋겠다는 결론을 얻었다. 나도 이곳 장백(長白)에 와서 십년 가까운 세월을 보내는 동안 이웃 간에도 정도 들고 활동할만한 터전도 마련되어 홀쩍 떠나기는 아쉬운 감이 없지 않다. 그러나 만주(滿洲)에서의 독립운동의 전도(前途)는 밝지 못할 것만 같다. 일본은 조선을 발판으로 여기까지 침략의 손길을 뻗치고 있으며, 이것을 막아야 할 중국이나 아라사〔俄羅斯, 러시아〕의 혁명정부도 아직도 그 기반이 취약하다. 영국이나 미국도 두 손을 얹어놓고 방관만 하고 있지 않느냐. 어떤 의미에서는 일본의 침략에 대한 묵시적 승인을 하고 있는 셈이다. …
>
> 국외의 유랑생활에서 더 얻을 것이 없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세월만 허송하는 것은 부질없는 일이다. 차라리 국내에 들어가서 고국 동포와 호흡을 같이 하면서 지식을 넓히고 독립정신을 고취하여 나아가는 것이 먼 훗날을 기약하는 길이라고 전망한다.
>
> 더욱이 네가 한창 나이에 세계문화의 발전에서 멀리 떨어진 이 응달에서 웅크리고 지낸다는 것은 청춘의 낭비라고 생각한다. 너는 서울이나 상해(上海) 같은 곳에 가서 대지(大志)를 펴야만 한다. 석창아! 네 의견은 어떠냐?"〔『상허 유석창 전기』, 70~71쪽〕

일제의 본격화되는 만주 침략과 이로 인한 항일독립운동의 환경 악화 등에 대한 정세분석을 배경

으로 아들의 장래에 대한 아버지로서의 걱정 등이 짙게 묻어난다. 석창으로서는 독립의 뜻을 이루지 못한 채 일제가 지배하고 있는 한국 땅으로 다시 돌아간다는 것은 어쩐지 투항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 처음에는 언짢게 여겼다. 그러나 곰곰이 생각해 보니 "고국동포와 호흡을 같이 하며, 먼 훗날을 기약하자"는 부친의 말씀이 옳다고 생각되어 따르기로 했다고 한다.

하지만 '불량선인 갑호'로 분류되어, 일제의 추적을 받는 부친과 병약한 모친을 남겨 놓고, 또 그간 몸담았던 독립운동 세계를 떠나, 일제 식민지배 하에 있는 조국으로 되돌아간다는 결정은 힘들고 괴로운 일이었다. 어느새 20대 청년으로 성장한 석창에게 있어서, 그 동안 겪었던 망국민의 비애와 떠나온 조국과 고향에 대한 그리움 등의 감정이 그의 자아 형성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을 것임은 쉽게 상상된다.

1961년 9월 30일 하오 1시, 낙원동 교사에서 거행된 건국대학교총장 이임식에서 행한 '이임사'에서, 그는 장백현 시절에 뼈저리게 느꼈던 '나라 잃은 설움'을 다음과 같이 술회하였다.

> "구한국(舊韓國, 大韓帝國) 말엽 민족 최대의 비극을 싣고, 내닫치는 사나운 풍운에 몰려 빼앗긴 조국의 원혼과 더불어 망명의 길을 떠나서는 가친(家親, 부친)을 따라 삭막한 만주벌을 헤매던 나의 소년시절…… 영하 40도의 혹한의 갖은 고행보다 무서운 질곡과 태형이 있었습니다.
>
> '망명객(亡命客)'이라는 허울 좋은 존대 하에 '망국민(亡國民)'이란 가장 참을 수 없는 만주인(滿洲人)의 천대가 그것이었습니다. 한 번도 승부를 걸어 본 일 없는 소년의 하얀 길 위에 '패자(敗者)'란 낙인을 찍히는 억울함은 어린 골수에 사무친 대로 육십 성상(六十星狀)을 하루도 가신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기에 귀국을 결심했을 때 이미 그는 '기아(饑餓)'와 '병고(病苦)' 그리고 '무지(無知)'라는 3대 병폐를 해결하는 일이 구국독립의 지름길이라고 판단하였다. 또 후일 그는 장백현 시기를 생각하면, "조국(祖國)이란 말을 듣기만 하여도 눈물이 핑 돈다"고 하였다. 아울러 독립운동 지도자인 아버지 밑에서 자라며 목도한 부친의 일거수일투족은 이후 그가 맞닥뜨린 현실을 헤쳐 나가며, '의술제민(醫術濟民)'과 '교육구국(敎育救國)'이라는 꿈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자양분이 되었을 것이다.

2) 귀국 후 학창시절

1921년 봄 일단 단천으로 돌아왔으나, 망명길에 오르면서 가산을 정리해버렸기에 오래 있을 처지도 아니었고, 장백현을 떠나올 때 서울에 가서 공부하기로 결심한 바 있었기에 형인 석준(錫俊)을 찾아 서울로 올라왔다. 형은 일찍이 배재학당을 졸업하고 서울에서 사업을 하고 있었다. 어려서 헤어져 전혀 얼굴을 기억할 수 없는 형제는 두리번거리다가 어렵게 서로를 알아보았다고 한다.

그러나 만난 지 얼마 되지 않아 형은 상하이(上海)로 떠났고, 하숙비를 보내주기로 했던 형으로부터 돈이 오지 않아, 석창은 하숙비 조달을 위해 일본인이 경영하는 장갑공장에서 일을 하며 입학 준비를 해야 했다. 하숙비가 오지 않자, 하숙집 주인은 하루에 두 끼만 먹으라고 했다. 계속 하숙비가 오지 않자, 주인은 하루에 한 끼만 먹으라고 했다. 그러나 이것도 오래가지 않아, 주인은 다시 밥을 줄 수 없으니 잠만 자라고 했다. 며칠 못가서는 잠도 재워 줄 수 없으니 집을 나가라고 했다.

나중에 알고 보니, 형 석준이 친구를 통해 부쳐준 하숙비는 중간에서 누군가에 의해 사라져 버리고 석창에게 전달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허기와 피곤 절망에 휩싸인 채 거리로 쫓겨난 석창은 목공소 문에 붙어 있는 '식모 구함'이라는 구인광고를 보고, 목공소 문을 들어섰다. 석창의 딱한 사정을 들은 일본인 주인은 마지못해 허락해 주었다. 이렇게 해서 소년 식모의 생활이 시작되었다.

> "일본인 주인은 낯모르는 조선인 아이를 주시하고 있었다. 밥을 하고 빨래를 하고 걸레를 빨아 청소를 하는 등, 분주한 식모(食母) 아닌 식동(食童)으로서 눈코 뜰 새가 없었다. 그러던 중 어느 날, 이상한 일이 생겼다. 막 식사가 끝나 상을 물릴 때, 상 밑에 1전짜리 은전(銀錢)이 놓여 있었다. 그러나 무심했다. 있는 그대로 방치해 두었다. 그 후 이런 일이 몇 번 거듭되었다. 후에 그것은 유 박사를 시험하기 위해 주인이 벌인 테스트였다고 일인 주인은 유 박사를 칭찬하며 말했다."

이 같은 험난한 생활 속에서도 면학의 열정은 식지 않았다. 그는 형과 상의하여 중앙고보(中央高普) 진학을 계획하고, 학교 설립자인 인촌 김성수 선생을 찾아가 편입을 허락받았다. 그러나 당시 중앙고보에는 기숙사가 없었기에, 당장 침식을 해결해야 하는 처지였기에, 중앙고보 편입을 포기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고는 기숙사 시설이 잘 갖추어진 것으로 알려진 경신학교(儆新學校) 편입을 결정하였던 것이다.

1922년 그는 경신학교 3학년 편입시험을 치렀으나, 일본어를 제대로 하지 못하여 입학이 허용되지 않았다. 8년간 만주에서 성장하였기에 일본어를 배우고 사용할 기회가 없었던 탓이었다. 그는 등 · 하교 때, 경신학교 정문에 서서 드나드는 교사들에게 인사를 올렸다. 하루는 교감이 불러 "일본글을 볼 줄 아느냐? 한번 읽어 보라"고 하였다. 유 박사는 한문은 우리말로 읽고 일본 가나는 일본말로 읽으니, 교감은 "그것이 국어(國語, 일본어)를 읽는 법인가? 안 되겠다"며 다시 낙방을 선언하였다. 그러나 석창은 여전히 정문 앞에 서서 선생들에게 인사를 드렸다.

이번에는 교장이 불러 까닭을 물었다. "입학을 시켜 준다면 졸업 후 만주로 돌아가겠는가? 상급학교에 진학하겠는가?"라고 물었다. 유 박사는 '앞으로 공부를 더 계속하겠다.'고 대답하는 편이 입학에 유리할 것이라는 생각이 문득 들어 "상급학교에 진학하겠습니다."라고 대답하였더니, 교장은 "안 돼. 국어를 모르는 사람은 만주로 가면 몰라도, 안 돼!"라고 하면서 입학을 허락하지 않았다.

석창은 다시 교장실 문을 두드렸다. 그는 "공부는 해야겠는데 상급학교에 진학하겠다고 하면 입학

1921년 조선학생기독청년연합회(朝鮮學生基督青年聯合會) 전도단(傳道團) 기념: 왼쪽 첫 번째 앉아있는 청년이 유석창 박사

시켜 줄 것으로 알고 거짓말을 하였습니다. 사실은 졸업 후에 만주로 돌아가서 청년들을 교육시키고자 하는 것이 나의 본뜻입니다. 거짓말을 하여 죄를 지었으니, 용서하여 주십시오."라고 입학을 간청하였다.

교장은 "일본어를 모르는 사람을 어떻게 졸업시키겠는가? 학교의 망신이 될 것이니, 졸업 후 만주로 가겠다는 것을 서약하겠는가?"라고 물었다. 그리하여 서약서까지 제출하여, 1학기 동안 청강생이라는 조건으로 입학하게 되었다.

후일의 일이지만, 유 박사가 건국대학교를 설립한 이후 이와 비슷한 일을 치렀다. 축산대학생 한 명이 며칠 동안 가회동 집 대문 앞에 서서 유 박사의 출퇴근을 지키고 있었다. 이유인 즉, 학비를 벌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막상 등록기간이 되었으나 번 돈은 없고, 아르바이트 하느라 수업도 부실하여 교내장학생 시험에도 떨어져 등록도 하지 못하고 낙향해야 하는 처지라는 것이다. 유 박사는 이전 경신학교 입학 때 자신의 처지를 떠올리며 "등록에 신경 쓰지 말고 학업에 열중하라"고 말하고, 대신 등록해 주었다는 것이다.

다시 경신학교 입학 시절로 돌아가, 교내 게시판에는 유석창이 임시청강생으로 입학하였다는 광고가 나붙었다. 비록 동창생들 사이에서 웃음거리가 됐지만, 40명가량 되는 동급생 틈에 끼어 공부할 수 있게 되었다. 그나저나 일본어를 배우고 익히는 일이 급선무였다. 당시 일본어 교사는 일본인 목사였는데, 석창은 이 목사 교사의 배려 아래,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 암기해 버렸다. 그 결과 일본어시험에서 100점을 받아, 2학기부터는 정규학생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반장까지 맡게 되었다. 후일 그는 재학 중 박은식의 『한국통사』·『한국독립운동지혈사』와 이광수의 『민족개조론(民族改造論)』 등을 감명 깊게 읽었다고 회고했다.

1915년에 간행된 『한국통사(韓國痛史)』는 대원군 집권 이후부터 1911년까지의 우리나라 근대사를 일제의 침략이라는 면에 초점을 맞추어 서술한 책이다. 그리고 1920년에 간행된 『한국독립운동지혈사(韓國獨立運動之血史)』는 한국통사와 표리관계에 있다. 일제침략에 대항하여 우리민족이 국권 회복을 위하여 투쟁한 '피의 역사'를 서술한 책이다.

박은식(朴殷植) 선생이 두 책을 서술한 목적이 우리민족으로 하여금 민족정신을 잃지 않도록 하는 데 있었던 바, '혼(魂)' 즉 정신의 문제를 민족과 국가의 존망을 좌우하는 관건으로 이해하여, 민족의 혼이나 국가의 혼은 그 나라의 역사에 담겨 있는 것이기에, 역사가 존재하는 곳에는 국혼(國魂)이 존재하는 법이므로, 국사(國史)가 존속하면 그 나라는 망하지 않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3·1운동 이후 강화되는 일제의 민족이간·분열 정책의 영향으로 흔들리고 희미해져 가는 민족정신의 위기를 절감하면서, 유석창도 자신이 나아가야 길을 고민하였을 것이다. 그는 이광수와 마찬가지로 민족의 실력을 양성하는 것을 중시했던 것 같다. 박은식 선생이 강조한 '혼'과 '백'을 바탕으로, 그가 현실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길은 '의술(醫術)을 통한 민중 구제(民衆救濟)'의 길로 압축되어 갔다. 그러나 유석창은 일제 말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이광수 등에서 보이는 친일적인 행각이나 패배주의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유 박사의 경신학교 재학 시절 회상기

경신 재학 중 나의 생활은 안으로 보면 강인한 의지의 투쟁이요, 밖으로 보면 하나의 커다란 센세이숀을 일으킨 기적적 사건의 연속이었다.

나는 중국 만주에서 들어와 즉시 중앙중학교에 편입이 되었으나, 5원이라는 하숙비를 감당할 수 없어 그 반액으로 숙식할 수 있는 기숙사 설비가 있는 경신학교로 옮아왔던 것이다. 문제는 보결시험에서부터 시작되었다. 다른 학과는 모두 만점에 가까웠으나 그 원수의 일본말에는 완전히 영점, 두 말 없이 낙제가 되고 말았다. 그러나 입학만 허락되면 한 학기 내로 따라갈 자신이 있으니 입학시켜 달라고 애걸해 보았으나 들어줄 리 만무하였다.

나는 망명하여 만주로 떠나시는 부모님을 따라가 독립군들을 접대하며 병중에 계신 모친을 봉양하는 한편, 중국인학교 관립 제일정몽학교를 마치고 계속하여 고등과까지 마쳤지만 일본말은 배우기커녕 들어본 일도 없었다. 그러나 학교에서 필요하다면 배울 수밖에 없고, 또 죽어라 하고 파고들면 못 배울 리 없다는 자신을 갖고 귀국하여 다시 경신학교에 덤벼들었다.

나는 교장실 문 밖에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버티고 서서 꾸벅꾸벅 인사를 하기를 한 주일이나 계속했다. 떼를 쓴 보람이 있어 미국인 교장 쿤스 방에 불려 들어가 학교규칙에도 없는 '임시청강생'이라는 명목

으로 교실에 들어갈 승낙이 내려졌다. 그리고도 조건이 붙었다. 한 학기를 지나서 일어(국어)시험에 합격해야 한다는 조건, 그리고 졸업을 해도 국내에서 상급학교에는 갈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는 조건 등이다.

일어가 능숙해질 수 없으니 진학하려고 했다가는 학교 망신만 시키는 결과가 될 것을 우려했던 모양이다. 그러나 나는 털어놓고 입학허가가 된 것만이 다행하여 모든 조건에 응낙하고 공부하게 되었다. 다음날 보니 '임시청강생 유석창'이라는 광고가 게시판에 나붙었다. 창피하나 할 수 없는 일이었다. 나는 머리를 싸매고 특히 그놈의 원수인 일어를 닥치는 대로 암송해 버렸다. 학기말 시험에 패스하였을 뿐만 아니라 1호 우등생이 되어 일거에 반장까지 하게 되었고, 계속 수석으로 졸업하게 되었다.

나는 경성의학전문학교에 응시할 뜻을 학교 당국에 통고하였다. 학교에서는 또 다시 문제가 일어났다. 입학 시 약속은 졸업 후에 만주로 갈 것을 약속했으나 일등으로 졸업한 이상 문제는 달랐다. 경성의전은 이 나라에서 유일한 관립의전으로서 일인을 4/5 입학시키는 학교인 만큼, 한국인으로서 경성의전의 입학은 도저히 기대하기 어려운 일이었다.

그래서 학교당국에서는 세브란스의전에 응시할 것을 극력 권했다. 수석 졸업생으로 경성의전에서 낙제하면 학교 체면문제라 해서 극구 만류했으나, 나는 기어이 의전을 고집했다. 급기야 교장과 담판한 결과 만일 경성의전에 합격만 하면, 학교의 사택인 27간되는 건물을 상급으로 주어 대학을 마칠 때까지 세를 놓아서 학자에 보태 쓰도록 약속되었다.

나는 경성의전에 무난히 합격하여 모든 사람을 놀라게 하였다. 인술을 몰각한 의사들에게 반성을 촉구하는 길과 가난에 질병을 겹쳐 신음하는 많은 동포를 돕는 뜻에서 기미년 독립투사 33인 중 생존해 계신 여러분과 사회의 명성 높은 여러 어른, 그리고 동아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 등 언론기관의 절대적 지원 아래 사단법인 민중병원을 설립하여 구료사업을 행하는 한편 보건시보를 발행하였다. 그리고 경성제국대학에서 연구생활을 하여 46세에 박사학위를 받았다.

나의 공부는 그야말로 만학이었다. 비록 나이는 그리 많았다고 볼 수 없으나, 나는 그때 이미 어른과 같은 활동을 하고 있던 때다. 만주에서 고등과를 마치고 소년광복대 대장으로 독립운동을 하였고, 또한 독립군 단기사관 양성의 주무를 보내면서 만주벌판에서 활약을 하다가 뜻한 바 있어, 국내로 들어와 의학을 공부하고 인술로써 동포를 위하여 헌신하려 했다.

그러나 나의 경신학교 생활을 회고할 때 스스로 느끼는 바 적지 않다. 강한 의지만 있으면 기적과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교훈이다. 의지와 정성 그리고 조국을 사랑하는 정신, 이것들이 합하면 나라와 겨레를 위하여 어느 정도 보람 있는 일을 할 수 있다는 신념으로 살고 있다.

해방 후 나는 나의 뜻을 계승하여 민중병원을 확대시키는 한편, 건국대학교를 설립하고 교육사업에 심혈을 경주하니, 이야말로 무에서 출발하여 오늘과 같은 큰 교육기관을 발전시킨 것은 오로지 만주 벌판에서 단련한 나의 의지, 그리고 경신생활에서 연마한 나의 의지의 힘에서 나온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제17회 졸업생 1923년도 졸업 유석창 동문(의학박사, 민중병원 및 건국대학교 설립자), 『儆新』 38호, 1971 ; 경신사편찬위원회, 『儆新史』, 경신중고등학교, 1991, 1265~1267쪽〕

3) 인술 보국의 길로

1923년 경신학교를 졸업한 그는 사회 진출이냐, 진학이냐 하는 갈림길에서 고민한 끝에, 경성의학전문학교에 진학키로 결정하였다. 군예빈(君芮彬) 교장을 찾아가 자신의 뜻을 말씀드렸더니, 교장은 "상급학교에 진학하는 것은 서약 위반이니 안 된다. 의학전문학교에 가겠으면 차라리 세브란스의학전문학교에 가라. 경성의학전문학교는 총독부 학교이니 안 된다."고 반대하였다.

당시는 경성의전에는 조선인 학생은 두세 명 정도 밖에 들어가지 못하던 시절이었기에, 경신중학의 수석졸업자가 낙방을 하게 되면, 학교 체면이 어떻게 되겠느냐며, 세브란스의학전문학교도 그에 못지않으니 그쪽으로 택하라는 교장 선생님의 뜻이었다. 이에 맞서 유 박사는 자신이 경성의전에 합격하여 새로운 전통을 세우겠다고 말했다. 교장도 어쩔 수 없었든지 "그렇다면 입학하기만 하면 상을 주겠다."고 약속하였다.

유석창이 경성의학전문학교에 합격하자, 교장은 연건동에 있는 27칸짜리 집을 세놓고 월세를 학비에 보태 쓰도록 조처해 주었다. 그리하여 석창은 졸업할 때까지 이 집의 월세로 학비를 조달할 수 있었다.

1925년 경성의학전문학교 재학시절(앞줄 왼쪽 세 번째 유석창 박사)

군예빈 교장의 약력

군예빈 목사는 미국 북장로교 선교사로서, 1913년부터 1939년까지 재직한 경신학교 제8대 교장이었다.

군예빈 교장은 1880년 8월 2일에 미국 뉴욕주 이다케 부근에서 출생했다. 1900년에 코라엘대학에서 문학사 학위를 받은 뒤 1903년에 오번신학교를 졸업하고 북장로회 해외선교부 전도국으로부터 파송 명을 받아, 동년 10월에 한국으로 건너왔다.

내한 직후 평양에 2년간 머물면서 한국어를 배우는 한편, 선교활동을 돕던 중 1905년에 선교부로부터 황해도 재령의 전도사업 임명을 받아 그곳에 선교지부를 개설하고, 교통이 불편한 인근지방으로 짚신을 신고 다니면서 전도와 교회 창설에 이바지 한 한편, 명신학교 설립에 교육가로서의 초지를 시도하였다. 그의 부인(Lucy F. Floy Donaldson)은 동년 9월 12일에 내한하여 합류하였다.

1912년에 안식년으로 본국에 다녀온 후 1913년에 경신학교 제8대 교장으로 취임했다. 군예빈 교장은 역대 교장 가운데 가장 오랜 기간인 26년간을 봉직하면서 경신학교 확충기에 공헌했다. 취임 후 교훈을 자유 · 평등 · 박애로 제정하고, 일제의 수모 가운데도, 밤낮으로 생각을 태우면서 한결같은 헌신적 노력을 경주해 내실을 도모하였으니, 교운이 날로 융성하여 한국사회에 많은 인재를 배출해 냈다. 특히 뒤지기 싫어하는 성품을 지녀 학생활동과 각종 운동부의 활약은 이 시기에 황금성을 마련했고, 그 부인이 학생들에게 베푼 영어회화와 뒷바라지는 출중한 것이었다. 1922년도와 1930년도의 양차에 걸친 휴가기간에는 고언 목사가 교장서리로 교장 직을 대행했다.

1938년에 이르러 신사참배 문제를 계기로 선교부의 강경한 학교경영 인퇴가 절정에 도달할 때, 교육사업에 선구자적 역할을 기울인 그는 이를 단연 반대하고, 경신학교의 존속을 위해 다방면으로 분투하였다. 선교회의 인퇴가 1939년 3월로 임박한 1년 전인 1938년에 마침 안식년을 당하여 본국으로 귀국하게 되었다. 군예빈 교장은 미국에서 계속 경신학교 존속을 위해 활동할 것을 결심하고, 동년 7월 13일 오후 4시 15분에 서울역에서 다음과 같은 비통한 말을 남겨 놓고 한국을 떠나갔다.

"본국에 돌아가서도 경신학교를 위해서는 교장의 자리도 즐겁게 내어놓고 오직 행운만 바친다면 죽어도 눈을 감겠다."

미국에서의 경신학교 생존활동은 장벽뿐이었다. 1939년에 체념하고 내한한 군예빈 교장은 교장 직을 최초의 한국인인 최태영 선생에게 인계하고 명예교장으로 학교의 운명을 끝내 지키다가, 1941년 태평양전쟁 발발 직후 일제의 발악적인 축출강요에 의해 본국으로 귀국하였다. 귀국 후 눈물로 한국땅을 향해 기도만 하였는데, 해방된 1945년 10월 어느 날 미국의 소리(Voice of America) 방송망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감회의 귀에 익은 목소리를 보내왔다.

"나는 경신학교 군예빈 교장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선은 해방이 되어 기쁩니다. 이제는 남산에 올라가 신사 앞에 서서 예하지 않아도 좋게 됐습니다"

그로부터 풀린 긴장에 병을 얻어, 2년간 투병생활 끝인 1947년 11월 29일에 뉴욕 롱아일랜드 사우드엠프턴에서 부인과 1남 5녀를 남겨 두고 별세하였다.〔경신사편찬위원회, 『儆新史』, 경신중고등학교, 1991, 293~295쪽〕

『조선일보』 1933년 12월 8일자, 「일사일언(一事一言)」에는 장백산인(長白山人, 이광수)이 쓴 「군예빈(君芮彬) 교장(校長)」이라는 글이 실려 있다. 이 글에서는

"경신학교 교장 군예빈 목사는 학교장된 지 20수년을 맞는다. 오는 9일 명월관에서 문인(門人)들이 모여 군 교장을 위하여 '교장 재직 24주년 기념 축하회'를 한다고 하니 귀한 모임이다.

군예빈 교장은 본래 미국인으로 쿤스라는 것이 그의 본명이다. 그러나 그는 조선에 온 지 30년간 조선인으로 살았고, 조선을 위하여 조선말을 하며 살아왔고, 또 군예빈(君芮彬)이라는 이름으로 살아왔다. 조선사람 중에 그만큼 조선사람인 조선사람이 몇이나 되는가.

우리는 만리타국에 와서 우리 자제(子弟)의 교육을 위하여 일생의 대부분을 이미 바쳤고, 또 그 남은 부분을 마저 바치려는 우리 군(君) 교장에게 충정으로 감사하는 뜻을 표하지 아니할 수 없다."

고 기렸다. 석창은 외국인 교장 선생님에게 자신의 의지를 굽히지 않았고, 군예빈은 냉소적인 반응을 보임으로써 제자의 분발을 이끌어 냈고, 덧붙여 학비까지 조달해 준 것이다. 석창의 경성의전 합격은 군예빈 교장을 비롯한 재한 외국인들의 한국인관(韓國人觀)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끼쳤을 것이다. 이런 좋은 선생님을 만난 인연은 유석창이 좋은 교육자가 되기로 결심하고, 실제로 훌륭한 교육자가 되는 데 밑거름이 되었을 것이다.

"저는 결코 허영심으로 상급학교에 가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불쌍한 우리 동포의 고통을 덜어 주기 위하여 인술을 배우고자 하는 것입니다"라는 쿤스 교장에게 한 말이 그가 의학 공부를 선택한 배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

장백현에서 관화학교(官話學校) 심상과(尋常科) 교사로 재직할 때 읽은 양계초(梁啓超)의 『신민총보(新民叢報)』에서 무지(無知) · 기아(饑餓) · 병마(病魔)로부터의 해방(解放)이 인류의 지상과제이며, 그러한 일을 하기 위해서는 의사가 되는 것이 첩경이라는 사실을 터득했다고 한다.

또 부친이 한의사였던 점도 간과할 수 없을 듯하다. 망명 초기 어머니의 병환이 위중하여 중국인 의사에게 왕진을 요청하였으나 거절당했던 쓰라린 기억을 갖고 있었고, 장백현에서 거주하며 동포

들이 질병에 시달리면서도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하는 딱한 사정도 많이 본 그였다. 이 같은 기억과 체험 역시 유석창이 인술제민(仁術濟民)의 길을 선택하는 동기로 작용하였을 것이다.

1924년 그는 '12대 1'의 경쟁률을 뚫고 경성의학전문학교 예과에 입학하였으며, 함경남도 도청에 근무하고 있던 형 석준의 도움으로 학비 걱정은 덜고 공부할 수 있었다. 당시 경성의학전문학교는 종로구 이화동 네거리 서북쪽에 자리 잡고 있었으며, 기본과목: 수신(修身) · 국어〔일본어〕· 조선어 · 독일어 · 수학 · 물리학 · 화학 · 체조, 기초의학: 해부학 · 조직학 · 생리학 · 의화학(醫化學) · 위생학 · 세균학 · 병리학 · 약물학 · 법의학, 임상의학: 내과 · 소아과 · 정신과 · 외과 · 피부과 · 매독과 · 이비인후과 · 안과 · 산과(産科) · 부인과 · 치과의 교과목을 가르쳤다.

학창 시절 그는 해부학 담당 쓰자키〔津崎孝道〕 교수와 약리학 담당 오자와〔大澤勝〕 교수, 병리학 담당 무토〔武藤忠次〕 교수, 의화학 담당 사토〔佐藤剛藏〕 교수의 학구적인 모습과 강의에 매혹되었으며, 이들로부터 적지 않게 영향을 받았다.

특히 그는 쓰자키 교수를 귀감으로 삼아 강의와 연구에 몰두할 수 있었다. 한인학생들에게도 따뜻하게 대해 주고, 밤늦도록 연구실에 불을 밝히고 점심시간에도 입에 빵을 문 채 손으로는 타이프를 치는 학구파의 모습에, 강의시간에는 분필 두 자루만으로 학생들을 몰입시키는 그의 모습을 보며 석창은 경성의전에 입학하기를 잘했다고 생각했단다.

"나도 언젠가는 쓰자키 교수와 같은 명강의를 하는 교수가 되어 불쌍한 우리 동포를 구료하는 명의가 되어야지"하고 스스로를 채근하였다. 2학년부터는 함경남도장학회로부터 장학금을 받게 되어 안정된 생활기반 위에서 학업에 전념할 수 있었다.

그러나 2학년 2학기 이른바 '박열사건(朴烈事件)'을 둘러싼 일본인 학생〔川崎〕과의 원치 않은 시비, 이에 대한 쓰자키 교수의 반응, 6 · 10만세운동에 참여할 수 없었던 상황 등으로 인해, 경성의학전문학교에서의 공부에 대한 회의에 사로잡혔다.

경성의전 재학 시, 같은 반에 있으면서 인간적으로, 사상적으로, 상통한 바 있어 하숙생활도 같이 하고 학생단체에도 함께 가담하여 항시 행동을 같이했던 이종규 선생은 "학생시대를 통하여 우리는 기독교청년회의 조직을 중심으로 다른 전문학교 학생과의 연락이나 사회단체와의 연관성을 맺어 왔다. 기독교단체만은 당시의 조선총독정치가 이를 용허하여 주었기 때문이었다. 의학공부엔 그리 열이 없고 뜻은 딴 곳에 쏠렸던 탓인지, 그의 행동이나 언어에 있어서 동급생들 간에서도 '알지 못할 존재'의 한 사람이라고 지칭을 받아 왔다. 우물우물 하는 유석창의 책 보따리 속에는 무엇이 들어있나 하고 모두들 의아심을 가졌고, 동급 일본인들은 더우기 이상한 시선을 던졌다.

> "동기생 35명 중 유석창 학우가 있어 친하게 되었는데, 그의 부친 유 선생은 학자이며 독립운동가로서 철저한 애국지사이셨다. 유 군은 부친의 지도 아래 어릴 적에 중국으로 망명하여 나라 없는 민족의 설움을 뼛속깊이 느끼셨다. 또한 부친을 통하여 독립운동에 대한 훈련을 받아온 철저한 애국자요, 더할 나위 없는 훌륭한 청년이었다. 나이도 나보다 3년이나 위였고 존경할만한 학우였다.
>
> 나 역시 나름대로 고보를 졸업한 21세의 젊은이로서, 학교를 선택할 때 의사가 되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봉사하는 길이 동족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길이라고 판단하였고, 그것이 졸업 후 장래의 꿈이었기에 앞날을 같이 의논할 수 있는 연상이요 애국사상이 투철한 동지를 만난 것이 너무나도 기쁘게 생각되었다.
>
> 그 때부터 우리는 뜻을 같이하는 친구를 얻은 기쁜 마음으로 모든 일을 함께 의논하게 되었다. 서로 고학생이라는 사실 때문에 더욱 친근하게 되었는지도 모르겠다. 전문학교 4년 중 3년여를 같은 하숙을 하였다면 그 우정을 알만한 일이다. 연상의 친우라 형으로 부르며, 사상적으로 많은 교훈을 받았던 것도 오늘의 나를 있게 한 초석이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우리는 사별할 때까지 다시없는 동지로 살아왔다.
>
> 오호라! 이 아까운 인재는 그가 설립한 건국대학교도 완성하지 못하고 먼저 가셨다. 다시 없는 좋은 친구요, 형으로 부르던 동무를 보내고 나는 오늘도 그를 그리워한다."〔「유석창 박사와의 우정」, 『동성 이종규 박사 회고록』, 12~13쪽〕

한편으로는 쇼펜하우어의 염세철학(厭世哲學)과 노장철학(老莊哲學)에 심취하였는데, 특히 장자(莊子) '인간세(人間世)'편의 "허(虛)가 만물(萬物)을 받아들이는 바탕이며, 도(道)는 허(虛)에만 깃든다."는 대목에 크게 영향 받았다고 하였다. 이는 겸허함과 만인을 포용하는 넓은 도량을 가진 그의 인격 형성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쳤던 것 같다. 후일 자신의 호를 '상허(常虛)'로 한 것을 보면, 이때의 영향이 적지 않았던 것 같다.

또 그는 의사들이 개업하여 개인적인 안일과 치부를 꾀하는 데 실망하여, 이와 같다면 "의학을 배워 의사가 된다고 한들 무슨 소용 있겠는가? 차라리 의사 공부를 그만두고 이 겨레에게 봉사할 수 있는 다른 길을 찾아야 하겠다."고 다짐하였다. 그는 일본인 교장을 찾아가서 "자퇴를 하고 독립운동을 하겠다."고 대답하였다.

일본인 교장은 '석창이 정신병에 걸렸다'고 생각하여, 휴학을 허락하였다. 휴학하는 동안 그는 지나온 일들을 되짚어 보고, 앞으로의 일에 대해 생각을 가다듬었다. 그러나 부친과 경신학교 쿤스 교장, 쓰자키 · 사토 교수 등의 격려에 힘입어

> "많은 개업하고 있는 의사들이나 의학 공부를 하고 있는 학생들이 이기심에서 움직이고 있다. 이러한 모습이 못마땅하여 학업을 포기하기는 하였지만, 그러나 다시 생각하니, 그것은 지나치게 패배적인 생각이다. 내 자신이 올바르게 자세를 가다듬고 봉사하는 인술(仁術)을 베풀면 될 것 아닌가, 내가 처음의

마음을 굽히지 않고 이를 관철하면 될 것 아닌가?"

하는 깨우침에 이르러, 복학을 결심하였다. 이상의 경과에 대해 전하는 일화가 있어 소개한다.

"경성의전에 재학할 당시의 일로서 본과 1학년 당시 한국학생 수가 매우 적고 그 때의 교우들은 한결같이 의전(醫專)을 나와 치부(致富)하겠다는 사고방식에 격분, 교장인 일본인을 찾아가 "학교를 휴학하고 만주로 가 독립운동"을 하겠다고 말하였다. 교장은 유 박사에게 "공부를 너무했기 때문에 머리가 이상해졌으니 휴양"을 하고 오라고 대답했다고 한다.

그 즉시 유 박사는 휴학계를 내고 만주로 건너가 선친과 함께 독립운동에 참가하여 약 1년간 투쟁했다. 이때 유 박사는 자신의 생각을 고쳐 서울에 돌아와 학교를 졸업, 의사가 되어 일제 아래에서 신음하는 겨레를 위해 봉사할 것을 결심했다. 이 때 유 박사가 복학계를 제출하기 위해 학교를 찾아 갔더니 "독립운동을 하고 왔느냐"고 묻자, "한 1년 동안 했다"고 말하여 교장을 놀라게 했다."(『건대신문』 1970년 3월 27일)

는 얘기이다.

그는 육체적 · 정신적 고통으로부터 민중을 구원해야 한다는 열정에 불탔으며, 그러기 위해서는 임상과목을 통한 의사수련을 철저히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굳게 각오했다. 석창은 밤늦게까지 책상에 불을 밝혔다. 그가 공부한 내과는 소화기계(系) · 호흡기계 · 순환기계 · 배설기계 및 이에 딸린 내장과 기관의 기능과 질병에 관한 공부이므로, 가장 기본적이고 광범위한 것이었다.

석창은 작은 인간의 몸속에서 우주의 삼라만상이 담겨 있는 것과 같은 신비와 오묘를 체험했다. 물론 처음에는 형이하학적인 외과학에 마음이 끌렸으나, 막연하면서도 신비롭고 모호함이 있는 내과학에 끌려 결국 내과 전공의의 길로 들어섰던 것이다. 학업 과정에서 석창은 의학의 한계성과 의사로서 양심의 체험도 느꼈고, '가장 위대한 의사는 자연'이라는 깨달음도 얻었다고 한다.

1928년 경성기독청년학생구락부 시절의 유석창 박사(앞줄 가운데)

20대 청년으로서, 의사로서, 식민지 한국사회의 최고 지식인으로서 그의 생각은 1927년 10월 기독동우회(基督同友會, '기독교동우회' '기독청년동우회' '동우구락부') 활동에 참여하게 되면서 더욱 깊어졌다. 경신학교 재학 시절, 경신학교 영어교사 정인표(鄭寅杓)가 YMCA에서 영어를 가르쳤는데, 유석창은 그를 만나러 자주 YMCA에 드나들었다. 그러다가 정인표의 소개로 YMCA연합회 학생부 간사인 이대위(李大偉)를 알게 되었고, 또 이대위의 소개로 YMCA 종교부 간사인

1931년 기독교동우구락부 시절(가운데줄 좌로부터 3번째 유석창 박사, 정중앙에 이대위 박사)

오하영(吳夏英, 吳華英)을 만나게 되었다. 이후 이대위와 오하영은 유석창의 후견인이자 동지 역할을 하였다. 첫 번째 부인인 한동죽(韓東竹)도 이곳에서 만났다.

1927년 가을 이대위와 YMCA 학생부 간사 최봉측의 주도로 설립된 기독교동우회는 경성제국대학과 여러 전문학교에 재학 중인 한인 기독학생으로 구성되어, YMCA 산하단체인 종교 수양단체임를 표방하였으나, 실제로는 독립운동을 위한 비밀결사였다. 정인표 · 이대위 · 오하영 등과 함께 원흥균 · 이종규 · 신동욱 · 김정실 · 김성원 · 원용덕 등이 회원으로 참여하였다.

경성의전 재학 시, "같은 반에 있으면서 인간적으로, 사상적으로, 상통한 바 있어 하숙생활도 같이하고 학생단체에도 함께 가담하여 항시 행동을 같이했던" 이종규는 "당시 조선기독교청년회 청년부 지도자로 계셨고 청년운동의 맹장이었던 2부대학장 이대위(李大偉) 박사(북경대학(北京大學)을 졸업하고 또 미국 예일대학을 졸업한 애국심에 불타는 청년지사)는 각 전문학교에서 뜻 있는 학생 두 명씩을 선발하여 표면엔 '성경반'이라 하고, 내면엔 '동우구락부(同友俱樂部)'라는 비밀단체를 조직하여 민족주의사상을 고취하였던 바, 경의전(京醫專)에선 유 총장과 필자가 이에 참가하게 되었다. 그것이 기연을 맺어 건대에는 김정실(金正實) 교수까지 4명의 동우구락부원이 일하게 되었다. 또는 지금엔 고인이 되었지만, 유상규(劉相奎)라고 3 · 1운동 당시에 학생운동으로 말미암아 상해(上海)에 망명하여 안도산(安島山) 선생의 애제자로서 활약하던 분이 경의전에서 공부하고 있었는데, 우

1959년 건국대학교 교수회의 모습(가운데 유석창 박사와 이대위 박사)

리는 이 유 씨와 제휴하여 비밀히 여러가지 학생운동을 일으켜 일제 시엔 있기 어려운 우리나라 말로 된 『생존(生存)』이라는 소잡지를 발행하였었다."고 회고하였다.

이들 중 오하영 · 이대위 · 신동욱 · 이종규 · 김정실 · 김성원 등은 후일 건국대 운영에까지 인연이 이어진다. 신의(信義)와 존중(尊重)에 바탕 한 상허 선생의 인간관계 및 리더십의 속 모습을 짐작케 하는 대목이다.

기독동우회는 때때로 '성경 연구' 및 '교양강좌'라는 이름으로 좌담회 및 강연회를 개최하였는데, 이상재 · 윤치호 · 정인보 · 안재홍 · 이광수 · 백남준 · 주요한 등 종교계 · 언론계 · 학계의 지도적 인사들이 연사로 초빙되었다. 해방 후에도 상허 선생은 매주 화요일 건국대학교 이사장실에서 스터디 모임을 주재하였는데, 기독동우회 시기의 기억이 상허 선생에게 미친 영향으로 이해해도 무방할 것이다. 나아가 건국대학교 총장으로 재직하던 때 매주 화요일에 간부회의(학처장회의, 교무회의)를 개최한 이래, 지금도 그 관행이 유지되고 있음은 우연의 일치만은 아닐 것이다.

기독동우회의 강령은 '올바른 역사관을 갖자' '올바른 신앙관을 갖자' '일보 전진하자'였다. 유석창은 학업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열심히 참여하였다. 특히 그는 산전개발운동(山田開發運動)에 관심이 많았다. 훗날 '농촌개발운동가 유석창'의 면모가 이로부터 시작되었다고 하겠다.

기독동우회 활동을 통해 민족지도자들과 동지들을 만남으로써, 유석창은 졸업 후 사회활동의 인적기반도 마련할 수 있었는데, 기독동우회에서 만난 이대위 · 오하영 · 이종규 · 김정실 · 김성원 등은 1930년대 민중병원을 설립할 때에도 크게 도움을 주었다.

> 학창시절 때 고고학 강연을 한다기에 최남선 선생의 강연장에 간 적이 있었다. 두 고학생은 강연이 끝나고 최 선생을 중국집으로 모셨다. 그리고 졸업 후 대학을 설립하면 선생 같은 훌륭한 학자를 모시겠다고 하였고, 선생은 학생들의 애국적 꿈에 깊이 감사한다며 한바탕 웃은 기억이 있다. 마침내 해방 후 건국대학교를 설립하고 최 선생을 강사로 모시기도 하였다.〔이종규(전 건국대학교 부총장), 「상허 유석창 박사 추모사」, 『내가 본 상허 유석창』, 179쪽〕

1928년 3월 그는 경성의학전문학교를 졸업하였다. 경성의전 12회 졸업생은 본과 55명〔일본인: 47명, 한국인: 8명〕, 특과 18명〔모두 한국인〕이었는데, 특과 졸업생의 한 사람이었던 그는 당시 함경

남도 도청에 근무하던 형의 소개로 함경남도 장진(長津)에서 공의(公醫) 근무를 시작으로 인술제민(仁術濟民)의 길로 들어섰다.

공의로 부임해서 산모가 열흘 이상 산욕열에 고통 받는 것을 보고도 손을 쓰지 못할 정도로 서툰 순간을 맞기도 하였고, 급성폐렴으로 사경을 헤매는 환자에게 서울의 병원에서 쌀 한 가마 값에 해당하는 주사를 놓아주어 환자의 회복이 빠르자, '명의'라는 소문이 나기도 하였으나, 콩 서되 값의 치료비로는 자신의 월급마저 바쳐야 할 형편이었다. 하지만 그는 장진의 관사에서 부인 한동죽과 부모를 모시고 단란하게 지낼 수 있었다.

그런데 당시 공의는 담당지역에서 환자를 진료하는 외에, 전염병 예방과 신체검사, 위생업무 등을 맡아 보았다. 그는 장진공립보통학교의 교의(校醫)도 겸하였다. 당시 유석창의 모습을 알려주는 신문기사가 있다.

1928년 4월 21일 오후 9시, 함남 단천공립보통학교 교우회에서 단천 천도교□□에서 개최한 강연회에서, 유석창은 300여 명의 청중을 대상으로 '위생 문제'를 주제로 강연을 하였다. 그와 함께 기독교청년회 □□석 씨가 강연하였는데, 강연내용과 언사에 '문제가 있다'고 하여, "잡혀가 밤새 취조를 받았다"고 한다.

학교를 갓 졸업하고 임상경험이 부족하였기에 힘든 나날을 보내야 했지만, 이 보다는 부인 한동죽의 건강이 날로 나빠지는 것이 큰 걱정거리였다. 함흥의 도립병원에 가서 촬영을 한 결과 폐결핵 2기

경성의학전문학교 동문들과 함께(1940년대, 앞줄 오른쪽으로부터 여섯 번째가 유석창 박사)

라는 진단이 나왔다. 당시 폐결핵의 치료법으로는 신선한 공기와 절대적인 안정, 그리고 영양 섭취 이외에는 별다른 대책이 없는 상황이었다. 부인의 치료를 위해서는 치료여건이 나쁜 장진을 떠날 수밖에 없게 되었다.

1928년 6월 30일자로 의사면허(면허번호 879)를 발부받은 그는 함경북도 성진(城津)에 있는 '캐나다 미션'병원인 제동병원(濟東病院)에 근무하고 있는 경성의학전문학교 동기생 김성우(金聲宇)를 찾아갔다. 김성우의 소개로 구례선(Robert Grierson) 원장을 만나, 승낙을 받았다. 1928년 11월 공중의(公衆醫) 생활을 청산하고, 제동병원(濟東病院)으로 옮겼다.

이와 함께 그가 공중의를 그만둔 데에는 다음과 같은 가슴 아픈 기억도 있었다. 하루는 거의 쓰러져 가는 오막살이집으로 왕진한 일이 있었다. 병세로 보아 값비싼 주사약을 놓아 주어야 하겠는데, 그 집 전 재산을 팔아도 약값을 댈 수 없는 형편이었다. 값비싼 주사를 놓아주지 못하는 현실의 한계를 절감한 유석창 의사는 월급의사 생활을 하기로 결심하고, 성진에 있는 캐나다 장로교에서 운영하는 제동병원에 취직하였다. 장진에서 공의 근무경험을 통해 그는 '봉사라는 것은 반드시 도울만한 능력과 힘이 갖추어져야 한다'는 교훈을 얻었다.

150평 규모 2층 양옥의 제동병원은 당시로서는 제법 큰 병원으로, 시설도 도립병원에 못지않았다. 유석창은 이 병원에서 아내의 병을 고칠 수 있을 것으로 믿었다. 구례선은 캐나다 선교단에서 보내오는 선교자금으로 병원을 운영하며, 경제적 능력이 없는 환자는 무료로, 그 밖의 환자들은 실비로 진료해 주어, 그 명성이 간도에까지 퍼져 있었다. 유석창이 '실비병원'이라는 아이디어를 갖게 된 데에는 제동병원과 구례선 원장의 영향이 작지 않았을 것으로 여겨진다.

1930년 함북 성진의 제동의원을 사직하고 상경하기 전 직원들과 함께(앞줄 가운데)

초년생 의사인 그는 구례선 원장으로부터 많은 것을 배우고 익혔다. 서구식 의료시술법을 배운 것이 임상가로서 수확이라고 한다면, 구례선 원장의 부지런하고 헌신적인 자세 속에서 인술(仁術)을 베푸는 진정한 의사의 모습을 발견한 것은 장차 '민중을 위한 의사'가 되는 데 소중한 자산이 되었다.

그는 원장 구례선(Robert Grierson)으로부터 큰 깨우침을 받았다. 구례선 원장이 종양환자나 전염병 환자들에게 거리낌 없이 대하고 만지고 치료하는 광경을 보고 유석창 의사는 "원장님 그렇게 환자에게 접근하셔도 병균에 감염될 염려가 없겠습니까?"하고 물으며 주의하기를 권하였다. 그러면 구례선 원장은 "왜 없겠어요? 그러나 안전만 찾는다면 손을 씻고 집에 들어앉아 있어야지요. 환자를 돌보는 이상 그들을 꺼리거나 두려워해서는 안되지요. 의사마저 그들을 멀리 한다면 누가 저 불쌍한 사람들을 고쳐주고 고통에서 구해내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의사의 사명은 성스러운 것 아니겠습니까?"라고 대답하는 것이었다. 자신의 생명을 걸고 인술을 실천하는 구례선 원장의 귀감을 보며, 그는 충격적인 감동을 느꼈다. 구례선과의 만남은 유석창의 운명을 가르는 또 하나의 계기가 되었다. 그는 구례선으로부터 '돈 버는 기술'이 아닌 '서민에 봉사하는 인술'로서의 의료를 베풀어야 한다는 깨우침을 얻었다.

또 한 가지, 당시 제동병원은 기독교계통 병원이었기 때문에 주일날에 환자를 진료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었다. 그런데 석창이 당직의사로 근무할 때, 생명이 위독한 산모가 왔기에 석창은 사람 살리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하여, 주일날이라는 규칙을 어기고 치료해 주었다. 게다가 이 환자는 치료비조차 충분치 못했는데도 비싼 주사를 놔주고 치료해 주었다.

이에 대해 구례선 원장으로부터 나무람을 받게 되었고, 생명을 구하는 것이 인술이라는 믿음을 갖고 있는 석창은 원장의 냉정한 태도를 의아하게 생각하기도 하였다.

후일 그는 당시의 상황을 회고하며, "학교를 졸업한 후 함경북도 성진(城津) '카나다 미션'병원에 부임하여 일을 할 때, 어느 중환자가 하루에 당시 50원 상당의 주사를 매일 맞아야 치료가 가능한데 그 사람의 전재산이 500원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주사기를 버리고 서울로 내려올 것을 결심, 그곳을 떠났다"고 했다.(『건대신문』 1970년 3월 27일)

이러한 경험은 후일 그가 민중병원을 설립하여 '돈을 벌기 위한 의료사업'보다는 '가난한 민중에게 봉사하는 의료사업'을 펼쳐, 일제 식민지배 하에서 헐벗고 신음하는 이 민족을 위하여 뜻 있는 일을 하는 민족주의적 병원사업에 진력하자는 결심을 굳히는 계기가 되었다.

제동병원에서 함께 근무했던 간호원이 후일 상허 선생과 재회하여, 상허 선생의 당시 모습을 회고하는 일화이다.

비서가 '어떤 할머니가 찾아왔습니다. 명함이 …이랍니다'하고 보고를 했다.

상허선생은 들은 듯도 하고 안들은 듯도 하여 하여간 만나기로 했다.

'아이고, 선생님……'하고 절하는 안노인을 보고, 선생이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젊을 때 밋숀병원에 함께 있던 간호원을 여러 10년 후에 만났으니……

'이렇게나 큰 사업을 할 분을?'

간호원 할머니의 여운을 남긴 말에 주위에서 의심적스러워서 묻지 않을 수 없었다.

상허 선생은 밋숀병원 재직시절에 세인과 다른 모습이 뚜렷이 있었다고 한다.

음악을 논하거나 미술을 애호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스포츠를 즐기거나 오락에 몸을 바치는 것도 아니고 그저 환자 없는 오후면, 의례히 병원 유리창 너머의 먼 산이나 바라보고, 무엇인가 생각에 잠겨 있는 것이 통례(通例)이어서, '저이가 실연했나봐'하는 풍설까지 돌았다고 했다.〔鄭範錫, 「常虛先生의 片貌」, 『학술지』 20, 건국대학교 창립 30주년 기념호, 건국대학교 학술연구원, 1976. 5〕

1929년 11월에는 신혼 1년 만에 폐병에 걸린 아내 한동죽이 24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자, 예기치 못한 비통함 속에서 유 박사는 이듬해 12월 제동병원을 그만두었다. 아내의 요절은 유석창의 인생행로를 바꾸어 놓은 계기가 된다.

지나간 1년은 그의 삶에 있어서 전기가 되었다. 아내의 죽음으로 근무한지 2년도 채 안 되는 직장을 그만 둔 유석창의 행동을 소시민적인 것으로 비판할 수도 있을 것이다. 또 만주지역에서 겪었을 수많은 고난에 비추어 보면 이해되지 않는 행동일 수도 있다. 하지만 일견 초라하게 보이는 이런 면이 인간의 진정한 모습일지도 모를 일이다. 그럼에도 사람들이 그를 그리워하는 것은 이 같은 일시적인 방황과 좌절을 딛고 일어서서, 자신과 사회에 기여하는 의미 있는 활동을 계속하였기 때문일 것이다.

1930년 12월 그는 제동병원을 떠나 헐벗은 겨레와 가난한 민중을 위한 무료 실비 의료기관을 설립하겠다는 결심으로 서울로 올라왔다. 1931년 1월 5일 아침, 서울역에 도착한 유석창은 '뜻을 이루지 못하면 고향에 다시 가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민중 구료사업'을 일으키겠다고 굳게 결심하였다.

유석창 박사의 가족사에 대해 살펴보면, 경성의전 재학 중이던 1927년 5월 그는 함흥 중하리 예배당에서 김영준 목사의 집전으로 함흥기독교회 장로 한영호(韓永鎬)의 장녀인 한동죽(韓東竹)과 결혼하였다. 신부는 영생(永生)여자고등보통학교를 졸업하고, 서울 이화여자전문학교에서 음악을 전공한 재원이었다. 하지만 한동죽은 결혼 2년만에 뜻하지 않게 병으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이후 헐벗고 병든 환자들을 돌보느라 자신을 돌 볼 틈조차 찾을 수 없는 시간을 보내고, 1932년 유석창은 다시 김계순(金桂順)과 재혼하여 현덕(賢德, 사위: 송호수)과 현숙(賢淑, 사위: 현두일) 두 형제를 낳고 원만한 가정을 꾸렸다. 그러나 두 번째 부인도 병으로 사별하였다. 두 아내를 폐결핵으로 잃은 유박사는 이들을 간호하는 과정에서 결벽(潔癖)이 습관화되었다.

1936년 부친 유일우 선생이 76세를 일기로 타계하였다. 종로구 가회동 집도 이 해에 완공되었다. 1951년 6월에는 모친 홍숙경 여사가 수원 부곡에서 92세를 일기로 별세하였다.

1939년 다시 전갑순(全甲順)을 부인으로 맞아 현경(賢卿, 사위: 김경문)을 낳았으나, 뜻이 맞지 않아 이혼하고 말았다. 이후 1940년에 김계옥(金桂玉)과 연을 맺어, 현자(賢子, 사위: 조성일) · 현순(賢順, 사위: 심정춘) · 일윤(一潤, 1947년 6월 4일생, 자부: 김경희) · 승윤(承潤, 1950년 4월 15일생, 자부: 김현숙) 등 네 남매를 두었다.

이렇듯 유석창은 두 번 상처하고 한 번 이혼하였으며, 7남매의 이복형제를 두었으니, 그의 가정생활이 어떠하였을지는 짐작이 가고도 남음이 있다. 인력으로 어찌할 수 없는 일이긴 했지만, 평탄치 못한 가정생활은 커다란 시련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 같은 가정적인 시련이 오히려 그로 하여금 개인과 가정이라는 좁은 범위에서 벗어나 국가와 민족을 위한다는 보다 높은 차원의 일에 전력을 기울이도록 이끌었던 것은 아니었을까. 바꿔 말하면, 가정적 불행이 그를 현실적 만족과 행복에 안주하지 못하게끔 했고, 오히려 그의 모든 역량을 사회와 국가와 민족을 위한 일에 쏟게끔 이끌었고, 그 결과로써 빛나는 이름 석 자를 남길 수 있게 된 것인지 모를 일이다.

3
사회영 중앙실비진료원 설립과 실비의료 활동

1) 설립 과정과 유 박사의 활동

1931년 1월 5일 아침, 서울역에 도착한 유석창은 '뜻을 이루지 못하면 다시는 기차를 타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더 많은 환자를 병마로부터 건져내야 하겠다. 더욱이 가난한 대중의 병고를 구해야 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대규모의 민중구료사업을 일으켜야 하겠다."는 결심을 실천에 옮기는 첫 발을 내디뎠다.

1월 8일 당시 YMCA 총무로 활동하고 있던 이대위(李大偉)를 찾아가, 그의 도움으로 송관범(宋觀範) 목사가 운영하는 관철동의 조선여관의 구석방에 여장을 풀고, 실비병원 설립을 위한 구상을 다듬어 나갔다. 이 시기 송 목사로부터 들은 종교개혁운동을 이끈 마틴 루터의 불굴의 정신에 대한 이야기는 석창에게 상당한 영향을 끼쳤다고 한다.

석창은 경성의학전문학교 동창과 의료계 선배들을 찾아가 자신의 뜻을 설명하였지만, 기대와 달리 오히려 배척을 받았다. 그는 빈민환자들을 실비 또는 무료로 진료해 주는 것이 중산층 이상의 환자들을 주 대상으로 하는 대부분의 개업의들의 이해관계에 배치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였으나, 그들은 유석창의 뜻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어떤 이는 '세상을 모르는 이상주의자'라 했고, 어떤 이는 '어리석은 풋내기'라고 비웃었다. 의료계에 호소해 보았지만, 돌아오는 것은 '남의 영업을 망쳐놓으려 한다'느니, '의료계의 반역자'라는 비난이 되돌아 왔다. 의료기관은 이익을 목표로 하는 사업체가 되어 있었다.

그가 민중구료사업(民衆救療事業)으로써 중앙실비진료원(中央實費診療院)을 설립키로 결심한 배경으로는 우선 경성의학전문학교 재학 중, 의사들이 개업하여 개인적인 안일과 치부를 꾀하는 현실을 목도하고, 이와 같다면 "의학을 배워 의사가 된다고 한들 무슨 소용 있겠는가? 차라리 의사 공부를 그만두고 이 겨레에게 봉사할 수 있는 다른 길을 찾아야 겠다."고 다짐하고 일시 휴학하였듯이, 영업행위로서 의사라는 직업에 대한 회의를 꼽을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가 자신이 생각하는 민중구료활동을 실천에 옮기기 위한 의료기관으로 상정한 '실비진료기관'은 "넉넉한 사람에게는 제대로 받고, 어려운 사람에게는 실비만 받으며, 아주 가난한 사람은 무료로 하는" 성진의 제동병원과 유사한 형태를 상정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그의 결심에는 1910년대 이래 일본국내에서 시행되고 있던 '실비진료소 제도(實費診療所制度)'의 영향도 일부 작용한 것 같다. 원래 일본에서는 1911년 7월경부터 실비진료소 설립운동이 본격화되었는데, 설립 취지는 중산계급(中産階層) 및 그 이하 하층민(下層民)들의 의료비를 경감시켜 줌으로써, 이들의 사회 · 경제적 몰락을 방지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사회적 기반계층의 안정화를 꾀하는 데 있었다. 나아가 이러한 구제제도(救濟制度)를 통해 "국체(國體, 즉 天皇制)를 유지하는 데 위험한 사상이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고, 국가 · 사회의 안녕과 행복을 도모"한다는 정치적 목적이 숨겨져 있었다.

그리고 이 같은 실비진료소가 출현하게 된 요인으로는 "개업의(開業醫) 제도를 기조로 한 명치(明治) · 대정기(大正期)의 일본의 의료공급기구의 존재 방식에 문제가 있었다. 즉 개업의 제도가 의료의 상품화를 초래하여 의료업에 있어서 영리성을 자극하여, 자본주의의 낙오자라고 할 수 있는 무산자(無産者)와 빈민(貧民)이 의료를 구입할 수 있는 기회가 점점 곤란해지고 있는" 사회적 현실이 지적되었다.

유 박사가 경성의전 재학 시 목격한 상품화 영리화의 노예가 된 의사들의 모습을 보고, 의사가 되려는 자신의 꿈에 대한 회의를 품게 되었고, 급기야 경성의전을 휴학하게 만들었던 상황과 일치하고 있는 것이다.

좀 더 나아가 보면, 실비진료소의 약값 · 치료비 등은 개업의원의 1/3에 지나지 않는 실비였다고 하는데, 1939년 경우, 진찰료는 무료이고 기타대금도 7~10전(錢) 이하였다고 한다. 1929년의 경우 전국에 112개소가 개업하였는데, 1933년에 「의료소 단속 규칙(醫療所取締規則)」이 제정되는 등, 개업의사회(開業醫師會)의 대정부 로비로 인해 이 제도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의사가 아닌 사람도 실비진료원을 개설할 수 있다'는 규정을 삭제하고 허가제(許可制)로 바뀌고 말았다. 이를 계기로 실비진료소는 점차 소멸되어 버리고 말았다.〔이상 管谷章, 「第七章 實費診療所設立とその意義」『日本醫療制度史』, 東京: 原書房, 1976, 182~194쪽 참조.〕

이로 미루어 보면, 유 박사는 경성의전에서 수학하면서, 일본의료제도의 모순을 간파하였고, 아울러 의사라는 직업의 특권화에 대한 저항 · 비판의식을 갖게 되었고, 이에 대한 시정 의지를 실천에 옮긴 것이 바로 중앙실비진료원 개설운동으로 나타났다고 할 것이다.

천신만고 끝에 자신과 뜻을 같이 하는 외과 · 피부과 의사: 이재원, 내과 · 소아과 의사: 김중려, 산부인과 의사: 신필호, 약제사: 김보물, 산파: 구경태, 간호원: 오신도 등 6명을 모으는 데 성공했다. 이어서 사회저명인사들에게 후원을 호소하여, 자신의 뜻에 동의하는 3 · 1운동 민족대표 33인 중 생존자들, 언론계 간부, 사회유지들의 도움과 지지를 끌어냈다.

1931년 2월 중앙기독교청년회관(YMCA) 강당에서 제1차 모임이 열려, 3 · 1운동 시 민족대표 대부분을 비롯하여 67명이 모였다. 취지를 설명한 다음 오랜 시간에 걸쳐 논의하였으나, 실비병원 설립을 위한 물질적인 토대가 전혀 없다는 점, 실비병원은 경영이 어렵다는 점, 개업의들로부터 영업

을 침해한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다는 점 등을 중요한 반대근거로 하여, 실비병원 설립은 '개인 의료사업 방해'라는 결론을 맺고 산회되었다.

유 박사는 이에 굴하지 않고 1개월 후인 3월에 다시 제2차 후원회 유지 회합을 가졌다. 하지만 참석한 80명의 견해도 대동소이하여 지난번의 결론을 되풀이할 따름이었다. 이로 인해 유 박사는 더욱 실망하고 좌절감을 느꼈지만, 송관범 목사 등의 격려에 힘입어 다시 일어날 수 있었다.

이 같은 어려움을 헤쳐 나가, 3월 27일 오후 3시 반 종로 YMCA에서 72명의 사회유지가 참석한 가운데 제3차 회합이 열렸다. 이번에도 같은 결론에 도달하여, 한 사람 두 사람 자리를 뜨기 시작하였다. 그들은 말로는 쉬워도 행하기는 너무도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일런지도 모를 일이다. 유석창은 마지막이 될 수도 있는 연설을 시작하였다.

"불쌍한 이 민족과 병고에 시달리는 형제자매를 위하여 실비 의료기관을 설립하고자 하는 이 젊은 사람의 뜻을 여러분께서는 끝내 받아주시지 않으시렵니까?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무지와 빈곤은 비례적으로 이 땅에 질병을 가져왔습니다. 우리 동포의 평균수명은 40세에도 미치지 못하여, 사망률은 천 명에 20.1명 꼴로서, 세계 최상위권에 속합니다. 삼천리 금수강산에 꽃과 평화와 복락이 가득 차있다고 생각한 것은 아득한 옛 이야기입니다.

지금 우리들 주변에는 병균과 가난과 슬픔이 깔려 있을 뿐입니다. 병이 나면 입원하여 의사의 치료를 받고 간호부의 간호를 받을 수 있는 조선 사람은 극소수의 부유층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대다수의 동포는 병원의 문간에 발을 들여놓지도 못한 채 푸닥거리나 하다가 숨져 가는 실정입니다.

이 가련한 동포들이 내미는 창백한 손길에 여러분은 약 한 봉지를 쥐어 주시겠습니까? 아니면 차가운 돌멩이를 올려놓겠습니까? 내 집에 붙은 불이 아니라고 해서 강 건너 불처럼 바라보고만 계시겠습니까? 불은 삽시간에 번져서 온 동리를 태우고 우리 모두의 생명을 앗아갈지도 모릅니다.

애국애족은 거창함 명분, 찬란한 깃발 아래서만 행하여지는 것이 아니라, 가까운 이웃, 비근한 일부터 시작하여야 합니다. 여러분께서 이 사람의 뜻을 저버림으로써 한 청년이 실의에 빠지는 것쯤은 큰 문제가 아닐 것입니다. 다만 이런 일로 인하여 이 사회에 무엇인가 공헌하려는 많은 젊은이들이 의욕을 잃고 발길을 끊게 된다면, 그것은 우리의 앞날을 위하여 큰 불행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저는 뜻을 이루지 못하고 돌아갑니다만, 여러분의 양심의 겨울에는 필시 병마에 시달리는 이 겨레의 참상이 비칠 것입니다. 여러분의 양심의 귀에는 기필코 이 겨레의 신음소리가 들릴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보고 들으시는 괴로움은 이 사람이 좌절에서 맛보는 고통의 몇 갑절이나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부디 여러분의 현명하시고 냉철한 판단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상허 유석창 전기』, 135~136쪽)

일제 식민지 상태에 있는 조국의 모습과 가난과 질병에 허덕이는 민중의 참상을 지적하고 나름의 해결책으로 실비병원 설립을 제시한 이 연설은 식민지이라는 특수한 상황에만 통하는 것이 아니라,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의학관(醫學觀)이었다.

유석창 박사는 눈물을 흘리면서 주먹으로 책상을 내려치며 위와 같이 외치고 하단하였다. 이때 그는 죽음을 각오하였다. "이 순간이 지나면 나의 생명은 없다. 그야말로 최후로 한 마디 하고 저승길로 떠나겠다."는 절박한 심정이었다고 한다. 죽음을 각오한 석창의 외침에 장내는 숙연해졌다.

이어서 3 · 1운동 민족대표 33인 중의 한 사람인 오하영(吳夏英) 선생이 뛰어나와 유 박사를 부축하고 진정시킨 후, 조용히 회중을 향하여 말하였다.

"여러분 우리는 한 청년의 뜨거운 호소를 통하여 우리가 당장 하여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진정 구국애족(救國愛族)의 염원을 품었다면, 가난 때문에 질병의 고통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서민 대중의 참상을 외면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병원이 갖추어야 할 시설이나 기성 병원에 미치는 영향 따위는 이 큰 문제 앞에서 한낱 지엽말절(枝葉末節)의 쇄사(鎖事)에 지나지 않습니다.

요즘 항간에는 저명인사의 명의를 일신의 사리사욕 충족에 이용하려는 부류도 없지 않습니다만, 여러분이나 이 사람이 그런 불순한 기도와 유석창 군의 순수한 봉사정신을 분별하지 못하였다면, 우리는 이 자리에서 솔직히 사과하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옥석을 혼동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유군의 열의와 정성에서 백옥보다도 더 값지고 영롱한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여러분 아무쪼록 이 청년 의학도의 장한 결의를 북돋아 주시고, 이 겨레의 구료사업에 우리의 정성과 힘을 모으시기를 간청하는 바입니다."(『상허 유석창 전기』, 136~137쪽)

오하영 선생의 말씀이 끝나자, 권동진(權東鎭), 최린(崔麟), 송진우(宋鎭禹) 씨 등이 차례로 같은 뜻을 밝히자, 마침내 모두 찬성한다는 뜻을 표시하였다.

실비진료원 발기회 광경(『동아일보』, 1931년 3월 29일 2면 사진 재게재)

회의장에 남은 40여 명은 '경성실비진료소 설립기성회' 발기총회를 거행하였다. 오하영 선생의 사회로 진행된 회의에서는 오하영 선생을 기성회 회장, 서기에 송관범을 선출하고, 오하영 회장 등 10인의 실행위원을 선출하였다.

회의 후 유석창은 「중앙실비진료원 설립 취지문」을 기초하여, 이대위와 오하영의 수정을 거친 뒤 발표하였다.

"현대에 있어서 사회적 불행을 말하면, 맨 먼저 빈궁과 질병을 들 수밖에 없고, 또한 문명의 결함이란 이런 불행한 자를 구제하지 못하는 것이라 하겠다. 그 중에서도 경성(京城) 같은 도시에 있어서는 이러한 현상이 더욱 심하다고 할 수 있다. 전 반도(半島) 중 문화의 혜택을 편피(遍被)한 수부(首府)로서 기실(其實) 다수를 차지한 중산계급(中産階級) 이하에 있어서는 어떠한 병이 들지라도 주사 한 대나 약 한 포를 마음대로 할 수 없는 현상임은 누구나 다 시인하는 바이다.

과연 수를 헤아리기 어려울 만큼 많은 병원이 있으되, 이 병원을 이용할만한 자력이 부족함에야 어찌하랴. 본인 등이 원래 여기에 대한 일념이 간절하지 아니함이 아니었지만은, 이것을 실현함에는 적지 않은 난관으로 인하여 성취를 보지 못하다가, 다행히 이번에 독지가로부터의 물질 및 기술 · 노력 등의 제공을 기초로 하여, 장래 이 사업의 성취를 기하고자 하는 의미에서, 이에 실비진료기성회(實費診療期成會)를 발기하게 되는 바이니, 무릇 많은 동지는 동성상응(同聲相應)하여 차거(此擧)에 대한 많은 동정과 찬성이 있어 줌을 절망(切望)하여 마지않는 바이다"〔「사단법인 민중병원 연혁 및 정관」, 1~2쪽〕

라고 하였다. 병원 진료비조차 지불할 여력이 없는 사회적 소외계층을 위해서 실비로 진료받을 수 있는 병원을 설립하겠다는 요지이다. "병이 들지라도 주사 한 대나 약 한 포를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중산계급 이하의 빈궁과 질병을 치료 · 구제하기 위해 실비진료원을 설립하려 한다는 자신의 의료제민관(醫療濟民觀)을 밝혔다.

이 날 모임에 참석한 사람들은 대다수 실비진료원의 설립에 동의한다는 서명 · 날인을 해주었고, "장래 사회영(社會營)으로 하기 위하여 내부적으로 병원의 준비와, 외부적으로 경영조직체 형성에 대한 방침 및 장정(章程) 등을 실행위원 10인에게 일임"하였다. 이어서 석창은 사회저명인사를 대상으로 서명 · 날인을 받기 위해 동분서주하였다. 유성준(兪星濬, 1860~1934)을 찾아갔을 때의 일화이다.

유석창이 절을 하고 찾아 온 뜻을 아뢰자, 그는 덤덤한 표정으로 수염을 쓰다듬으며 이렇게 말했다.

"내 나이 70이 넘도록 운동을 한다고 뛰어 다녔지만 아무 것도 성취한 것이 없다네."

그는 아직도 민립대학 유산의 아픔을 지니고 있는 것 같았다. … 결국 민립대학 추진 운동은 좌절되고 말았다.

"자네의 갸륵한 뜻은 전폭적으로 찬성하네만, 내 도장 찍는 일만은 그만 두는 게 좋겠네. 내 도장이 길운을 타지 못한 것 같네. 내가 도장 찍는 일마다 잘 안되니 말일세."

"아닙니다. 두고 보십시오. 실비 진료기관이 건립되면 가난한 대중의 벗이 되고 그만큼 우리사회는 밝아질 것입니다."

유석창은 바싹 달라붙었다. 그러자 유성준은 지그시 감았던 눈을 뜨고 한참 그를 쏘아 보았다.

"자네 이 일에 생명을 걸겠다고 약속하겠나?"

"네 약속하겠습니다."

"좋아! 그러면 내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도장을 찍겠네. 이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를 생전에 못 보면 지하에서라도 볼 것이네."

그는 "얘야, 도장을 가져 오너라."하고 딸을 불렀다.

그는 딸로부터 도장을 받아 입김을 불어 넣고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그러나 매우 힘 있게 눌러 주었다.

주지하다시피 유성준은 『서유견문(西遊見聞)』(1895)을 통해 서양의 근대문명을 한국에 본격적으로 소개하는 한편, 한국의 실정에 맞는 자주적인 개화, 즉 '실상개화(實狀開化)'를 주장한 유길준(兪吉濬, 1856~1914)의 동생으로, 1926년 충청남도지사, 1927년 강원도지사를 역임하였고, 조선물산장려회 1 · 2대 이사장을 지낸 인물이다.

다음에는 춘원 이광수(李光洙)를 찾아갔다.

"유 선생 동지가 몇 사람이나 되기에 이렇게 힘든 일을 시작하겠다는 거요?"

유석창은 얼핏 대답이 막혔으나, 자기를 적극 돕겠다는 한 두 동창생을 생각하였다.

"네, 세 사람입니다."

"세 사람? 그 중 한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하겠소?"

"죽은 그 사람이 유석창이 아니면 나머지 두 사람이 힘을 합쳐서 해 나갈 것입니다."

"둘 중에 또 하나가 죽으면 어떻게 하겠소?"

"그이가 유석창이 아니면 혼자서 끝까지 버티어 나갈 것입니다. 제 생명이 붙어 있는 한 이 사업은 계속할 것입니다."

그는 입가에 미소를 띠며 발기 취지문에 서명 날인했다. 조선일보 사장 안재홍도 처음에는 망설였다.

"이런 일이란 최초의 열기가 자꾸 식어가게 마련입니다. 지금은 100도쯤 되겠지만, 차츰차츰 식어서 나중에는 얼음처럼 싸늘해지기 쉽지요. 그렇게 되면 이 동의서도 휴지조각이 될 텐데, 휴지에 도장을 찍어서 뭘 합니까?"

"아닙니다. 선생님, 제 체온이 식지 않는 한 이 사업의 열기는 식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 "

하고 그는 한참 만에 도장을 눌렀다. 이렇게 실비진료원의 설립에 참여하겠다는 인사들의 서명 날

인 작업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자, 석창은 김병로 · 권동진 · 이대위 · 이선근 · 이광수 · 명제세 · 박승직 · 안재홍 · 오하영 · 주요한 · 최규동 · 최린 · 한용운 · 함태영 · 김미리사 등, 3 · 1운동 시 민족대표, 언론계 · 종교계 · 실업계 · 문화계 인사 45명으로 '실비병원설립추진발기회'를 발족시켰다.

발기인은 김여식, 김미리사, 김병로, 김영섭, 김상설, 김준옥, 김춘식, 권동진, 정칠성, 양재창, 유승흠, 유석창, 이경선, 이대위, 이선근, 이종린, 이광수, 명제세, 박승직, 박용희, 방무길, 백홍균, 설의식, 송관범, 안일영, 안재홍, 오하영, 옥선진, 유성준, 유각경, 원익상, 장지영, 장관현, 전성욱, 정인과, 정세권, 주요한, 최규동, 최남, 최린, 한용운, 함태영, 현동완, 홍병선(모두 44인)이었다. 김형진은 회의 당일 불참하여 후일 추가로 발기인단에 들어갔다.

국내 독립운동진영의 좌우합작운동의 결실인 신간회(新幹會) 회장을 지냈고, 항일변호사로 활동한 김병로(金炳魯), 천도교계의 지도자인 권동진(權東鎭), 신간회 총무간사로 활동한 조선일보 사장 안재홍(安在鴻) 등 얼핏 봐도 당시 국내 민족주의 우파진영의 대표적인 인물들이 대거 망라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어서 사업 추진의 절차 · 방법을 논한 바, 제1단계로 각자의 동의에 대한 서명 날인을 받고, 제2단계로 기금 갹출을 위한 강연회를 개최키로 합의하였다. 의견을 개진한 몇 사람이 후원회 이사가 되어 강연회 준비에 착수하였다.

신문기사는 "훌륭한 의료기관이 있으나, 치료비의 과중으로 의사의 치료 한 번 받지 못하고 불행한 경우를 당하는 사람이 부지기수이다. 이에 느낀 바 있는 사회유지 제씨가 경성실비진료원을 설립"하였다는 평가와 함께, 발기인들은 이미 병원자리로 종로 2정목에 있는 중앙전도관 즉 YMCA로 결정하고, 의사와 약품도 준비하였다고 보도하였다. 그리고 중앙전도관이 4월 중순 경 이전하고 난 뒤인 4월 하순경에 개업할 예정이라고 하였다.

또 실비진료원에서는 장차 진찰비를 받지 아니하고, 약값도 인건비와 기타 실비를 제하고 싸게 받을 계획이므로 보통병원의 약값의 1/3에 지나지 않을 것이며, 장차 여타 큰 병원에 재직하는 전문의사들을 초빙하여 전문 진료과목을 담당토록 할 예정이라고 하였다.

같은 날 신문에서는 특별히 기성위원의 한 사람인 유 박사와의 인터뷰 내용을 실었다. 인터뷰에서 유 박사는 "여러 가지 사항은 실행위원회에 일임하였으니, 자세히 말하기는 어려우나, 명실(名實)이 상합(相合)한 기관이 되게 하고자 하는 동시에, 영구히 완전한 우리사람의 기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회의 많은 성원을 바랍니다."고 인사하였다.

'명실이 상합한 기관' 즉 명칭과 실제가 일치하는 실비만 받는 병원을 만들고자 하는 동시에, '우리사람의 기관' 즉 우리민족을 위한 우리민족이 경영하는 병원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실비진료원의 경영방침 및 재정 상황 등과 관련이 있는 중요사항에 대해 언급하고 있음은 그의 비중과 위상을 암시한다. 이는 유 박사가 실비진료원 설립의 실질적인 책임자 역할을 하고 있음을 뒷받침해준다. 당시 사회적 · 민족적 명망가와 저명인사를 발기인으로 모시고, 실비진료원의 설립을 주도해 나가고 있었던 것이다.

같은 날 신문의 사설 내용은 실비진료원 설립에 대한 사회적 기대감을 잘 보여준다.

"경성시내 유지(有志) 제씨의 후원과 수삼 의사들의 독지(篤志)로써 실비치료원(實費治療院)의 계획을 세웠다고 한다. 의약의 사회화는 현하 사회의 일대 요구이어니와, 조선의 현상에 있어서 일층 그 필요를 느끼게 한다. 과학의 진보는 역속도적(力速度的)으로 약진하여 속인의 눈에는 기적과 같은 사실이 속출하는 이 시대에 더구나 근대의학과 의술의 진보는 전대미문(前代未聞)의 진전을 보이고 있다함은 세인의 상식이다.

그러하나 이러한 과학적 진보의 혜택은 학술적으로는 일보 전문가의 전유물(專有物)이 되고, 그 응용에 이르러서는 일부 부유계급의 전유물이 되어 있다는 것도 상식적 사실임이 유감이다. 그 중에서도 가장 인류의 행복 증진에 공헌이 있다는 의약의 진보가 일층 당자의 전유된 정도가 심하다는 데 이르러서는 실로 일종의 사회적 죄악이 아니랄 수 없는 것이다.

질병은 그 발생 초기에 있어서 신속히 의사의 진단 치료함이 가(可)하다고 한다. 이제 다수의 민중에 있어서 경비상 입장에서 그대로 하지 못하고 시일을 천연(遷延)하여 사망과 쇠약의 원인을 짓는다 하면, 이것을 사회적 죄악이라 아니하고 무엇일까?

공사립의 시료기관(施療機關)이 있다 하나, 시료의 문자가 이미 비사회적이어서 민중적 친절미가 없고 실용화가 아니 되는 동시에, 그 실제 운용에 있어서도 비인간적인 폐해가 불소(不少)함으로 그 효용은 극히 제한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므로 일본 같은 데서는 무산정당(無産政黨)에서 당의 의료기관을 특설한 실례 등이 있다.

조선에 있어서 금일 의약계가 받고 있는 진단서와 약가(藥價)가 대다수 민중의 생활정도에 비추어 엄청나게 고가인 것이 사실이다. 의료기관의 부족을 고하는 조선이니만큼 자유방임으로서 의약의 혜택이 일반 민중에게 퍼지게 하기는 당분간 불가능일 것이다. 의약의 공영화(公營化)는 이상적 목표려니와, 우선 상술(上述)과 같은 실비진료원의 성립은 이 염(念)을 깁는 데 유효할 것이다. 국민보건의 소리가 들린 지 오래되어 그 구체적 사업의 진척을 듣지 못했다. 이제 실비치료소(實費治療所)의 출현에 의하여 그 일보를 밟게 되는 것을 축하할 일이다. 우리는 당사(當事) 제위의 희생적 노력에 의하여 속히 실현되기를 갈망한다."(「사설: 의약의 사회화」, 『동아일보』 1931년 3월 29일)

이와 함께 병원 설립의 재정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모금 강연회를 개최하였다. 1931년 4월 하순 YMCA 강당에서 '사회영 중앙실비진료원' 설립에 동참을 호소하는 강연회가 열렸다 유 박사는 「대아(大我)의 눈물」이라는 연제로, 청중을 휘어잡았다.

"여러분 눈을 크게 뜨고 우리의 현실을 직시합시다. 여러분의 각막을 통하여 비치는 가장 선명한 영상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헐벗고 굶주리고 병고에 허덕이는 동포들의 참상일 것입니다. 여러분의 고막을 진동하는 처참한 소리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허기지고 병든 형제들의 신음소리일 것입니다.

이들은 지금 어둠의 광야에 버려져 있습니다. 이들이 내 가족 내 친척이 아니라고 해서 어찌 모르는 체할 수 있겠습니까? 이들의 가난은 곧 나의 가난이요, 이들의 아픔은 곧 나의 아픔입니다. 우리는 마음의 문을 열고 이들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온정의 손길을 뻗쳐서 이들을 어루만져 주어야 합니다.

이 사람은 우리들의 지도자이며 선배이신 여러 어른들의 동의를 얻어서 실비병원(實費病院)을 설립하고자 합니다. 경제적 능력이 있는 사람에게는 실비를 받고, 없는 사람에게는 무료로 진료해 드릴 것입니다. 나는 이 사업에 내 생애와 정열을 다 바칠 것을 맹세합니다. 나는 결코 불쌍한 환자들의 진료를 미끼로 치부하거나 매명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오직 형제자매를 위하여 봉사하고 헌신하고자 할 따름입니다. 이 사업은 여러분의 협조 없이는 결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뜨거운 성원에 힘입어 이 사업이 가난하고 병든 동포를 구제하는 사회의 공기(公器)가 되도록 힘껏 밀어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자신의 포부를 밝히며, 사회적 동참과 지원을 호소하였다. 1시간 20분의 열변이 끝나자 청중은 앞을 다투어 그의 손목을 잡고 끌어안기도 하였다. 여러 사람이 즉석에서 기부금을 내겠다고 약속하기도 했다.

그 뒤 종로 2정목 13번지에 실비진료원 기성회가 설립되어, 본격적인 설립 준비에 들어갔고, 1931년 5월 12일 종로 2정목 67번지 한응수(韓應洙) 씨 소유 건물(3층 벽돌건물)을 빌려 '사회영(社會營) 중앙실비진료원(中央實費診療院)'을 개원하기에 이르렀다. 유 박사의 나이 32세 때의 일이었다.

의사 개업 때 역시 상허는 독특한 구상을 하여 3 · 1 운동 33인의 생존자를 발기인으로 민중영 실비병원을 개업하기로 하여, 젊은 의사가 가상한 이상으로 애국적 사업을 벌인 꿈을 칭찬받았다. 그런데 그 중 한 분이 끝까지 믿음직하지 못하다고 거절하였는데, 상허가 생명이 있는 최후의 일각까지 하겠다고 하자 쾌히 승낙을 하였다고 한다. 시작하면 끝까지 이루는 꾸준하고 끈기 있는 성격이었기에 민중병원을 소기의 희망대로 이루었다. 사회사업가이신 원용덕 · 문덕상 씨가 사업 일체를 찬성하여 종로 기독교 전도관을 얻어 주어 본격적인 실비(무료에 가까운) 의원을 경영하게 되었다.〔이종규(전 건국대학교 부총장), 「상허 유석창 박사 추모사」, 『내가 본 상허 유석창』, 180~181쪽〕

1931년 5월 12일 오후 4시 개원식이 거행되었다. 당시 신문기사는 개원식 상황을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원장 오화영(吳華英) 씨의 사회로 개원식(開院式)을 거행하였는데, 사회 각 방면의 권위 50여 명이 참석하여 자못 성황을 이룬 중, 죽을병에 걸려도 낼 돈이 없기 때문에 무고한 생명을 빼앗기는 일반 가엾은 사람을 위하여 많은 공헌을 해 달라는 서정희(徐廷禧) · 박승직(朴承稷) 씨 등 일반 내빈 측의 열렬한 축사가 있은 후, 6시경에 폐회하였다."〔「實費診療院의 開院式 盛大, 작 십일 오후 네 시에 거행, 社會的 聲援 至大」, 『每日申報』 1931년 5월 14일〕

같은 신문기사에 따르면, 이틀 후인 14일부터 진료를 시작키로 하였으며, "진료비는 극히 저렴한 실비이므로 일반은 주저할 것 없이 이용하기 바란다."고 선전하였다.

진료 첫날 380명의 가난한 환자들이 운집하였고, 한인 대중신문을 대표하는 『동아일보(東亞日報)』 『조선일보(朝鮮日報)』 『중앙일보(中央日報)』는 '살아있는 인술(仁術)'의 출현을 대서특필하였다. 이렇듯 사회영 중앙실비진료원의 개원은 민중의 생명을 구하고 독립의 희망을 이어가고자 했던 유석창 박사의 집념과 노력의 산물이었다.

개원 시 직원 및 진료과목은 원장: 오하영, 부원장 겸 외과 · 피부과 주임: 이원재, 내과 · 소아과 주임: 김중여, 산부인과 주임: 신필호, 안과 · 이비인후과 주임: 유석창, 화류병과: 전문위촉의사, 서무부 주임: 김춘식, 약제사: 전보물, 간호부장 겸 산파: 구경태, 간호부: 오신도 외 3인이었다. 진료시간은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는 각과 전문의사가 진료하고, 6시 이후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는 당직의사가 진료하였으며, 왕진도 나갔다.

이후 유석창은 운영진에는 참여치 않고, 이비인후과 전문의로서 진료활동에만 전념하였다. 그러나 병원장이나 이사 등이 병원 업무나 의료 방면과 연관이 없는 사회적 명망가인 점 등을 감안하면, 재정 문제를 포함한 실질적인 운영상의 과제 해결은 유석창의 몫이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실비진료원의 성격을 규정하는 것으로 읽힐 수 있는 '사회영'이라는 다소 익숙치 않은 단어가 등장한다. 이것은 일제 식민통치 체제하에서 피식민지인인 한국인이 '사단법인' 인가를 받는다는 것은 '하늘의 별 따기'와 같이 어려운 일이었기에, 실비진료원이 개인의 사리나 영리를 위해 설립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에 봉사하기 위해 설립되는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기 위해 사용한 개념으로 이해된다.

그러기에 우리는 '사회영(社會營)'을 표방한 유석창의 애민(愛民) · 애족(愛族)의 공인의식(公人意識)을 눈 여겨 보아야 한다. '국영(國營)' '공영(公營)' '민영(民營)' '사영(私營)'과 구별되는 '사회영'이라는 명칭 속에서 사적인 영리 추구가 아닌 사회적 공익(公益)과 공리(公利)를 우선시했던 그의 경세관(經世觀)을 읽어낼 수 있다. 일제의 대륙침략과 민족말살정책이 본격화하는 상황에서, 그의 애

민 · 애족사상은 더욱 고고하게 비쳤다.

'사회영 중앙실비진료원'은 이후 1933년 9월 '사회영 중앙진료원', 1934년 5월 '사회영 민중의원', 1949년 5월 '사단법인 민중병원'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병원의 이름에 '민중(民衆)'을 사용한 사실은 의술(醫術)로써 돈 없어 치료를 받지 못하고 죽어가는 '민중'을 구하고자 한 신념을 잘 나타내 준다고 하겠다.

1971년 9월 당시 성동구 화양동 27번지 건국대학교 캠퍼스 외곽(현재 예술디자인대학 옆 쌈지공원 자리)에 병원건물을 신축하였고, 2005년 9월 건국대학교 캠퍼스 남단(지하철 2 · 7호선 '건대입구역' 네거리 쪽)으로 신축 이전하여 현재의 '건국대학교병원'(서울 광진구 능동로 120-1)으로 발전하였다.

2) 운영 상황과 유 박사의 활동

개원 이틀 후인 5월 14일 제1회 사회영 중앙실비진료원 유지회 이사회를 열어, 이사장: 권동진, 상무이사: 이대위, 이사: 원익상 · 장관현 · 이경선 · 명제세, 서기장: 명제세, 회계: 이경선을 선임하고, 세칙 및 규정 제정, 회의록 및 회원명부 정리, 기성회의 잔무처리 등은 상무이사에게 일임키로 의결하였다.

이어서 5월 18일 열린 사회영 중앙실비진료원 유지회 제1회 상무이사회에서는 실비진료원 2층에 유지회 사무실을 두고, 업무 추진을 맡을 간사로 홍승일(洪昇逸) 씨를 채용키로 의결하였다. 또 유지회 회원에게 부여할 특전으로 통상회원에게는 진료비를 무료로 해준다. 특별회원 본인에게는 진료비를 반액으로 해준다. 명예회원은 전가족의 진료비를 반액으로 해준다는 내용을 의결하였다.

8월 28일에는 제2회 이사회가 열렸는데, 이 날 보고된 개업 후 (5월 13일부터 8월 20일까지) 100일 동안의 진료상황을 보면, 환자 수가 1만 1,355명이었다. 이 중 내과환자는 3,776명, 외과환자가 3,987명, 이비인후과 환자가 3,547명, 산부인과 환자가 45명이었다. 그런데 내과환자의 8할에 해당하는 2,800여 명이 기생충 보유자로 판명되었기에, "전 경성시민의 보건을 위하여" 9월부터 매월 첫 번째 토요일을 '기생충 검사일'로 정하여, 무료로 검사해 주기로 결정하였다.

또 9월 1일부터 진찰권(1개월간 사용 가능) 값을 5전씩 받기로 결정하였는데, 이는 운영비용 확충을 위한 조처로 유추된다. 이외 유각경(俞珏卿) 이사와 홍승일 간사의 사임을 수리하고, 신임간사에 정동석(鄭東錫) 씨를 뽑았다.

개원 후 실비진료원에 쏠린 사회적 관심과 기대를 알려주는 잡지 기사를 살펴보겠다.

〔時話〕실비치료원(實費治療院)

주요한(朱耀翰)

서울시내 유지들의 발기와 유석창(劉錫昶) 의사 이하 여러 의원이 헌신으로 실비치료원이 진료를 시작했다고 한다.

의료기관을 충분히 이용하는 것은 빈민계급에게는 감히 생각지도 못하는 것이 유감스럽지만 현재의 상황이다. 또 소위 '중산계급'이라 할 만한 봉급생활자, 상인, 시민 중에 있어서도 진료기관에 가기에는 자존심과 규정이 허락지 아니하고, 그렇다고 가정의사를 고빙하기는 힘에 넘치는 일이니, 그들의 고민도 여간한 것이 아니다. 이런 현상에 있어서 진찰료와 약값을 실비로 받는 이 같은 기관의 출현은 시의 적절한 것이라 하겠다.

의료문제에 대해서는 이 밖에도 여러 가지 긴급한 일이 많다. 첫째, 치료보다 민족 보건 상으로 본 기생충 구제, 아동의 영양 증진 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니, 취학아동 중에 기생충 보유자가 9할 이상이란 놀라운 숫자를 보이며, 영양부족에 대해서는 통계가 없으나, 점심을 굶어 수업시간에 졸도했다는 실례가 없지 아니하다.

○

화류병(花柳病)의 방지, 체육의 장려, 특히 여자체육의 발전, 비 건강적인 온돌생활의 개량, 아동의 근시안 방지 등등 일일이 열거하기 어려운 문제가 산같이 쌓여 있다. 현재 조선에서 위생행정은 경찰사무의 한 가지로 되어 있거니와, 독립된 전담기관이 필요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경무국의 한 과인 위생과는 보건국으로 세워도 좋을 것이며, 경찰부와 대비하여 위생부가 있어야 하겠다.

○

관헌에게 이를 맡기어 두기보다는 민간으로서의 운동이 마땅히 있어야 할 것이니, 특히 아동의 보건은 민족의 장래와 크게 관계가 있는 것으로, 아직까지 이에 대한 기관이 없는 것은 유감이다.

다음에 또 한 가지 통감하는 것은 소위 '협잡의사'의 횡행이라는 것이다. '협잡적 직업'이라 하여, 세인의 빈정거림에 오르내리는 직업으로 의사와 변호사가 있는 것은 잘 아는 일이다. 우리는 물론 헌신적으로 사회봉사에 노력하는 수많은 의사가 있고, 또 그에 뒤지지 않는 공공적 정신을 가진 인격적 변호사가 있는 것을 잊어서는 아니 된다. 그러나 개중에 한둘 불량한 직업자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빈정거림이 생기게 되는 것이다.

○

의사의 협잡은 종종 다음의 형태로 나타난다. 아주 악의를 가지고 쓰지 않을 약을 쓰며, 주지 않을 주사를 주며, 심지어 병을 고의로 길게 끌게 하여 치료비를 빼앗는 종류는 가장 가증한 것이나, 그 보다 알지 못하고 느끼지도 못하는 사이에 엄정한 직업도덕에서 벗어나는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을 경계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 있다.

자기 기술의 부족을 감추기 위하여 무책임한 진단과 처방을 하는 것, 또는 환자의 환심을 사기 위하여 필요 없는 치료와 처방을 하는 것, 당연히 전문의에게 보내야 하는데 환자를 잃지 않기 위하여 그냥 계속 진료하고 있는 것, 기계화하고 습관화하여 경솔히 진단하는 것 등은 무의식 중에 범하는 부도덕의 실례이다.

○

의사 자신의 각성을 촉구하며 의사로서 도덕을 옹호하기 위한 권위 있는 기관의 설립, 또는 진단과 치료에 대한 법률적 책임 보장의 규정 등이 다 필요한 일이며, 일반적으로는 일반민중의 의료상식이 좀 더 진보되어야 할 것이다. 매약상에게 속지 않는 지식이 필요함과 같이, 무책임한 의원에게 속지 않을 지식이 또한 필요하다.

○

마지막으로 실비치료원의 실효를 발휘하려면 가정방문을 반드시 실현해야 할 것이다. 외래환자와 입원환자만을 치료함에 있어서는 실비치료원이 큰 종합병원과 다른 공헌을 못할 것이다. 왕진료 전폐, 이것이 실비치료원의 이상이다.

〔『동광(東光)』 22호, 1931. 6. 1〕

젊은 의사로서 개업하여, 그 진의를 알게 된 민중들이 호의를 가지고 매일 성황을 이루는 서울 시내의 명물병원이 되어 서울시내 의사들은 상허가 관철동에서 요술하는 병원이라고까지 소문이 났을 정도이다.〔이종규, 「상허 유석창 박사 추모사」, 『내가 본 상허 유석창』, 179~185쪽〕

사회영 중앙실비진료원 유지회에서는 개원 당시의 의사와 직원 규모로는 하루하루 늘어나는 환자 수를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하여, 1931년 9월 25일 긴급이사회를 소집하여 명제세 서기장의 사회로 병원 시설과 진료과목의 증설 문제에 대해 토의하였다. 그 결과 진료과목을 세분화하는 동시에, 진료원 내부시설을 개조하여 입원실을 늘리고, 대수술실과 안경도수 검사실을 새로 마련하였다.

이때 보강된 병원 운영진과 진료 전문의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았다. 원장; 오하영, 부원장; 명제세, 내과: 윤기녕, 내과 및 임상겸직: □능기, 외과: 오일승, 외과 및 임상 · 기타지도: 신하전 · 권병우, 산부인과 및 임상겸직: 홀 부인, 안과 이비인후과: 유석창 · 최만용 등이었다. 또 이 날 회의에서는 경성여자의학생에게 실습을 허용키로 하였다.

개원한지 4개월 만에 진료과목과 진료공간을 확충할 정도로 실로 비약적으로 발전하였음을 뒷받침하고 있다. 이듬해(1932) 2월 26일 소집된 8회 이사회에서는 "실비진료원을 한층 확대하여 사회대중에게 좀더 유익하게" 하기 위하여 의료진을 확충하는 한편, 무료진찰권 5만 매를 학교 · 예배당 · 공장 등 '집단생활 하는 곳'에 분배키로 의결하였다. 새로 조정된 의료과목과 담당의는 원장: 민병기, 부원장: 유석창, 내과 과장: 민병기, 외과 과장: 유석창, 안 · 이비인후과 과장: 민찬호, 산부인과 과장: 이종완, 조제과장: 윤기녕 등이었다.

4월에는 산부인과를 확장하고, 부속(附屬) 조산부양성소(助産婦養成所)를 신설키로 하고 모집광고를 냈다. 1932년 4월 26일 소집된 제9회 이사회에서는 개원 1주년 기념행사를 종로 중앙전도관(YMCA)에서 성대히 치르기로 하고, 원익상 · 이경선 · 이대위 · 장관현 · 현동완 · 명제세 씨를 준비위원으로 선임하였다. 1주년 축하행사를 협소한 병원건물이 아닌 YMCA에서 치르기로 한 사실에는 그 동안의 실비진료 활동성과에 대한 평가의 의미가 함축되어 있다고 할 것이다.

설립 후 1년의 운영상황은 찾아오는 환자는 5만 명을 넘어섰으나, 실질적인 재정 상태는 적자를 면치 못하였다. 1932년 5월 12일 오후 YMCA에서 열린 제2회 유지회(維持會) 정기총회에서 보고된 운영상황에 따르면, 설립 이래 1년 –공휴일을 제외하면 300여 일– 동안의 환자 수는 5만 1천 243명이고, 수입총액은 1만 4천 655원 41전이고, 지출총액은 1만 6천 925원 83전이었다. 지출 초과 즉 2,270원 42전의 빚이 발생하였다.

같은 날 신임이사로 현동완 · 원익상 · 오하영 · 이대위 · 홍병선 · 한기악 · 설의식 · 김을한 · 김지연 · 김면조 · 이경선 · 장관현 · 조병상 · 이종린 · 명제세 씨가 선임되었고, 정기총회에 이어 거행된 1주년 기념식이 거행되었다. 민병기 원장의 식사에 이어, 부원장 유석창은 개원 이래 경제적 곤란으로 "고심참담하였던 상황을 비장한 어조로" 보고하였다. 이어서 유만겸 · 김창제 씨 등 내빈들의 축사가 있은 후, 오후 7시 경에 종료되었다.

홍병선(洪秉璇, 농촌지도자 양성에 헌신) · 한기악(韓基岳, 조선일보 편집국장) · 설의식(薛義植, 동아일보 편집국장대리) · 김을한(金乙漢, 매일신보 사회부기자) 등 사회적 저명인사를 신임이사로 영입한 사실은 실비진료원의 외연이 확대되었음을 알려준다.

이어서 5월 16일에는 제1회 이사회를 개최하여, 이사장에 이종린(李鍾麟), 서기장에 명제세(明濟世), 회계에 이경선(李敬善), 상무이사에 원익상 · 이경선 · 이대위 · 김지연 · 명제세, 감사에 장관현 · 정칠성 씨를 선임하였다. 이날 결의사항 중 "분원(分院) 설치 문제는 당분간 보류하기로 결정"했다는 내용이 주목되는데, 분원을 설치하고자 한 이들의 구상은 실비진료원을 모체로 하는 빈민구제사업의 규모와 열정을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다.

개원 이래 모험적이지만 의욕에 찬 진료활동을 벌이던 실비진료원은 1932년 7월 14일 화재로 건물이 전소되는 불의의 사고를 당하였다. 병원의 고용원이 약국에서 알콜곤로에 불을 피우다가 실수로 폭발한 것으로 밝혀졌다.

15일 오후 긴급 소집된 이사회에서는 적당한 장소에 임시진료원을 개설하키로 하고, 견지동 수송유치원 자리와 경운동 천도교기념관을 후보지로 상정하고, 이종린 · 오하영 · 명제세 3인을 교섭위원으로 선임하였다. 또 화재 복구과정을 병원 확장의 계기로 삼기로 하고, 당국에 기부금 모금 허가

를 신청키로 하였으며, 신문지상을 통해 화재 수습에 노력해 준 관계기관과 화재 복구작업을 지원 · 위로해 준 사람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이어서 감사인사 엽서를 보내기로 결정하였다.

화재라는 위기를 도약의 기회로 삼고자 하는 의지를 읽을 수 있다. 이후 병원은 잠시 천도교기념관을 거쳐 종로 2정목 12번지 중앙전도관으로 옮긴 것으로 확인된다. 1933년 5월 5일 어린이날을 맞이해서는, 5일부터 10일까지 6일간 유유아(乳幼兒)들을 대상으로 무료진찰과 건강상담의 봉사활동을 펼쳤다.

그런데 1933년에 들어서는 일시 진료를 중단하는 상황에 처하기도 하였는데, 당시 신문기사는 저간의 사정을 다음과 같이 전하였다.

> 시내 종로 2가 12번지 사회영 중앙실비진료원이 실제 운영의 책임을 맡고 있던 민병기(閔丙祺) 박사 · 민찬호(閔瓚浩) 의사 · 은중기(殷仲基) 치과의사와 유지위원(維持委員) 사이에 알력이 생겨, 지난 5월 15일 유지위원 측은 부득이 일시 사업을 중지한다는 섭섭한 광고를 붙이고 일을 거두었다.
>
> 재작년 5월 12일 가난한 민중의 벗을 표방하고 세상에 나오게 된 후, 겨우 두 살을 먹고 민중의 커다란 기대도 헛되게 문을 닫고 말았다. 그러나 위에 기록된 민 씨 등은 이후 한 달 동안이나 집을 비워주지 않고 있다가 지난 12일에야 두 민 씨는 집을 내놓았으나, 치과의사 은중기 씨는 끝끝내 집을 비워주지 않고 버티므로, 14일 아침에는 전임자인 중앙전도관(中央傳道館)의 원익상(元翊常) 목사가 종로서에 은중기 씨를 고소하기에 이르렀다.
>
> 한편 중앙실비치료원의 최초의 창안자(創案者)인 젊은 이상가(理想家) 유석창(劉錫昶) 의사는 위에 기록된 민 씨들이 겨우 집을 비웠으므로, 14일부터 다시 중앙진료원의 간판을 걸고 무료과(無料科), 실비과(實費科), 보통과(普通科)의 세 부로 나누어 앞의 중앙실비진료원의 정신과 사업을 계승하여 가난한 병자들에게 봉사하기로 하였다.
>
> 임시로 당분간은 전기 유 의사의 개인 개업으로 하고, 앞으로 종래의 많은 폐단을 낳은 불완전한 조직의 결점을 일방 위에 기록된 유 의사 등의 발기로 멀지 않은 시기에 보건협회(保健協會)를 창설하고, 일반 민중으로부터 요구가 있는 대로 무료로 오줌 · 똥 · 담 · 각혈의 검사, 건강 상담, 매 일요일마다 위생강좌 등을 개최하리라 한다. 이에 대하여 유석창(劉錫昶) 의사는 아래와 같이 말하였다.
>
> "민 씨 등이 그 동안 빈민 측의 진료에 적지 않은 공헌을 한 것은 사실이외다. 그러나 내과(內科)와 이비과(耳鼻科)와 치과(齒科)를 독립시켜서 그들의 경영에 맡겼던 까닭에, 빈민에게 최소한도의 부담을 지우려고 하는 실비진료원의 정신에 실제로 배반되므로, 그만 서로 손을 놓게 된 것이다. 당분간 신속히 완전한 사회영(社會營)으로 될 희망은 없으므로, 그때까지는 임시로 저의 개인사업으로서 최초의 목적대로 매진하려고 합니다. 운운."〔中央實費診療院 舊累一掃코更生, 係爭中에 있던 院舍明渡받아, 銳意施設更新에 邁進」, 『朝鮮日報』 1933년 6월 15일〕

진료를 일시 중단하게 된 배경을 자세히 알 수는 없지만, "내과(內科)와 이비과(耳鼻科)와 치과(齒科)를 독립시켜서 그들의 경영에 맡겼던 까닭에, 빈민에게 최소한도의 부담을 지우려고 하는 실비진료원의 정신에 실제로 배반"되었다는 대목으로 미루어보면, 설립 취지인 '실비 진료'와 '영리 추구'라는 현실 사이에 가로 놓여 있는 괴리가 원인이었던 듯하다.

1933년 8월 31일 중앙실비진료원 유지회(中央實費診療院維持會)에서 임시총회를 열고 "그 동안 사정에 의해 잠시 중지하게 되었던 진료원을 다시 부활하기로 결의"했다는 기사가 그것이다.

그런데 재개원하더라도 "다만 실비로 될는지, 안될는지는 아직 결정치 못하였다"고 하며, 그 이유로 이사장 이종린(李鍾麟)은 "'실비'라는 말은 지금에는 한 영업의 정책으로 누구든지 쓰게 되어, 말하자면 속되게 되었고, 또 넉넉한 환자가 많아서 실비진료원의 설립취지인 '빈민의료기관'이라는 사명을 다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재개원하게 되면, 보통사람에게는 보통약가를 받고, 극빈자에게는 시료(施療)를 실비로 하여 비로소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자는 의견이 있다."고 설명하였다.

이 임시총회를 계기로 김병로(金炳魯) 외 4인이 새로 이사로 취임하였고, "한 가지 기쁜 소식으로 의사로 있던 유석창 씨가 현가(現價) 천여 원 어치의 의료기구를 기부하였다"고 보도하였다.

3) 민중의원으로의 재출발과 유석창의 전면 등장

4~5개월간 중단하였던 실비진료원은 9월 하순에 이르러 업무를 재개하기에 이르렀는데, "진용을 일신하여 사업을 계속하고자" 중앙실비진료원 유지회 총회의 결의로 '실비' 두 글자를 삭제하고, 사회영(社會營) 중앙진료원(中央診療院)이라고 개칭하고, 원장에 유석창 씨가 취임하였다.

유석창이 운영 일선에 나선 것이다. 앞의 기사에서 유석창을 가리켜 '중앙실비치료원의 최초의 창안자(創案者)' '젊은 이상가(理想家)'로 표현하고 있는 사실이나, "당분간 신속히 완전한 사회영(社會營)으로 될 희망은 없으므로, 그때까지는 임시로 저의 개인사업으로서 최초의 목적대로 매진하려고 합니다"라는 그의 발언으로 미루어 보면, 사회적 원로와 명망가들을 유지위원으로 모시고, 실비 및 무료 운영으로 인해 발생하는 재정적 어려움 등은 그가 감당해 왔음을 파악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병마에 시달리면서 병원 출입을 못하는 빈곤한 시민의 보건을 위하여, 지금부터 3년 전 1931년 5월 사회 각 방면의 성원을 받아, 유석창(劉錫昶) 씨가 창립하였"고, "처음에는 유석창 씨가 경영을 맡았"던 시내 종로 2가 중앙전도관 위층에 있는 사회영 중앙실비진료원이라고 하는 또 다른 기사 역시 실비진료원의 창립자이자 실질적으로 운영책임자 노릇을 해 온 유석창의 역할을 알려준다.

"'실비(實費)'라는 두 글자가 상품화의 경향이 있다 하여 일반의 이러한 오해를 피하고자 '실비'라는 두 글자를 빼버리고 '사회영(社會營) 중앙진료원(中央診療院)'이라고 불러"왔으나, "진료원이라

사회영 중앙실비진료원 3주년 기념 인천 월미도 원유회(1934년 5월 12일)

하면 그것이 병원인 줄 모르는 사람이 많은 관계가 있어", 또 '기존의 병원 및 개업의들의 비난이 있었기 때문에' 개원한지 3년이 되는 1934년 5월에 들어, '일반인이 부르기 쉽도록' 병원의 명칭을 다시 '사회영(社會營) 민중의원(民衆醫院)'으로 고치기에 이르렀다.

경성의전 재학 시, 같은 반에 있으면서 항시 행동을 같이했던 인물은 "(상허 선생은) 사회영(社會營) '민중의원(民衆醫院)'을 창설하여 돈이 없어 병고에 신음하면서도 치료하지 못하는 불쌍한 사람들을 실비 내지는 무료로 치료하도록 하였다. 이 때문에 의료업자 간에서는 비난과 모함을 받았고, 일제관헌으로부터 사상이 불온한 '불령선인' 취급을 받아 가면서도, 그는 꾸준히 이 사회사업을 계속하였다. 사상적으로 주목을 받은 그는 경찰의 탄압을 당하기도 여러 차례였으나, 그는 시종일관 초지를 굽히지 않았다."고 회고하였다.

개원일인 5월 12일을 전후하여, 관수동 국일관(國一館)에서 '개원 3주년 기념 자축회(自祝會)'가 열려, 이종린 씨의 사회로, 원익상 씨의 연혁보고, 유석창의 업무보고, 내빈 축사로 진행된 회의에서는 병원의 이름을 '사회영 민중의원(民衆醫院)'으로 변경하고, 치과의 증설을 의결하였다. 이로써 내과 · 소아과 · 신경과 · 외과 · 피부과 · 화류병과(花柳病科, 性病科) · 안과 · 이비인후과 · 산부인과 · 치과의 진료 부문을 갖추게 되었다.

유석창(劉錫昶)이 업무 보고를 했다는 사실은 그가 병원의 운영 · 관리 등을 실질적으로 관장하

였음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그의 의료구민관(醫療救民觀)이 담겨 있는 '사업내용'을 살펴보기로 하겠다.

一. 사업 방침

(1) 환자를 대함에 있어 친절을 기하여, (환자들의) 의료기관에 대한 공포증을 없애는 한편, 환자의 사정 및 기타에 주안을 두어 이를 경청할 것
(2) 의료지식 및 위생사상의 보급을 위하여, 시간적 여유를 갖고 환자의 질병에 대한 많은 설명을 환자 자신에게 해 줄 것
(3) 예방의학 보급을 위하여 선전을 많이 할 것
(4) 치료에 대한 생각을 우선 하고, 치료비는 별개문제로 할 것
(5) 병원 및 의사 개인의 수지(收支)를 목표로 하지 말고, 환자의 경제력을 기준으로 하여 치료비를 받을 것
(6) 의술(醫術)을 이용하여 단시일에 치부(致富)할 꿈을 꾸지 말고 일생의 사명임을 잊지 말 것
(7) 사람의 생명을 금전으로 계산하지 말 것
(8) 유산계급(有産階級)에 대한 치료비는 실비 이상으로 하더라도, 중산계급(中産階級)에 대한 치료비는 실비로, 무산계급(無産階級)에 대한 치료비는 무료로 할 것

一. 본원 사업으로 대내 · 대외 2종이 있으니

(1) 대외사업으로는 본원 사업방침 8개 조의 대외선전을 위하여, 신문 및 본원 기관지와 기타 선전비라 등을 통해 이를 대외에 선전할 것
(2) 대내사업의 성적은 아래와 같음
(3) 실비진료: 1일 평균 137명, 한 달 평균 4,247명, 1년 평균 50,964명, 3년간 총수 15만 2,892명
(4) 무료진료: 1일 평균 11명, 3년간 총수 11,700명
(5) 무료 변(便) 검사: 8,227명, 무료 예방주사 643명, 무료 종두(種痘) 940명, 무료 건강상담 1,670여명, 무료 유유아(乳幼兒) 검진 315명

1934년 6월 4일 민중의원 유지회 제4회 정기총회에서는 이사장: 설태희, 상무이사: 이종린 · 원익상 · 김성욱 · 옥선진 · 전면조, 이사: 오하영 · 조병옥 · 조동식 · 류승흠 · 김상설 · 이대위 · 이기윤 · 황운식 · 장관현으로 개편하였고, 9월 15일 개최된 민중병원 유지회 이사회에서는 병원 건물 건축을 위해 유지회 회비를 '이사장 설태희, 상무이사 원익상, 병원장 유석창' 세 사람 명의로 해동은행(海東銀行)에 적립키로 의결하였다.

미국 컬럼비아대학에서 수학하고 YMCA 및 신간회 활동에 참여하였고, 조선일보사 간부 등으로 활동하였고, 후일 1960년 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되는 조병옥(趙炳玉), 현 동덕여자대학교 설립자 조동식(趙東植) 등의 참여 사실이 눈에 띈다. 이 같은 유 박사의 교제 범주가 해방정국기 한국민주당 창당 시 그의 이름이 등장하는 사실로 이어졌다고 할 것이다.

또 1935년 7월 9일 개최된 민중의원 유지회 정기총회에서는 이사진을 개편하고, 원내서무 및 회계에 관한 사무는 상무이사와 유석창(劉錫昶) 원장이 상의 처리하도록 의결하였다.

이후 민중병원의 상황을 알려주는 자료는 많지 않은데, "6년 전에 '사회영' 민중의원이라는 이름으로 탄생한 후 이래 경영조직이 변하여, 민중의원이라고 개칭한 후에도 오히려 여러 가지 곤란과 싸우며 동 병원 창립의 초지(初志)인 민중을 위하여 사회봉사로서의 실비와 무료진료에 희생적 노력을 하여 온 부내 종로 2정목 민중의원에서는 이번 유지회의 총회 결과, 병원의 내용을 확대하고 앞으로 의료봉사에 더욱 노력할 터이라고 한다"는 신문기사의 내용으로 미루어 보면, 어려움에 봉착하면서도 실비 및 무료 진료를 통한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겠다는 설립이념을 견지하려 노력하였음을 느낄 수 있다.

한 가지 더 소개하면, "천연두가 날로 만연하는 이 때, 당국에서 종두(種痘)의 두묘(痘苗)를 무료 배부하였건만, 개업의사 중에는 간혹 우두 맞으러 오는 시민으로부터 종두 요금을 받는 일이 있다는 비난이 있는 터이나, 이와 반대로 민중의 보건을 위하여 종두 봉사에 전력을 다 하는 사립의원도 적지 않다. 일례를 들면, 종로에 있는 민중의원(民衆醫院)에서는 (1940년) 1월 9일 이래 17일 오전까지 당국으로부터 두묘를 받아가지고, 임시의사 두 사람이 교대하여 가며 종두실(種痘室)을 두 개나 설비하고, 알콜과 탈지면의 사용료도 받지 않고, 민중에게 봉사하여 총수 580명의 종두를 실시하여 온 곳도 있다"는 기사도 있다. 여전히 실비와 무료 진료라는 시작 당시의 굳은 의지로 일관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이 무렵 상허 선생의 가정생활을 알려주는 회고

1932년경으로 들은 듯하다. 그의 나이 서른 두 셋 때 상허는 천신만고로 후원회를 조직하고 현재 민중병원의 전신인 중앙실비진료원을 종로 YMCA 옆에 설립하고 그의 뜻대로 무산동포(無産同胞)를 위하여 실비와 무료로 의료사업이 본격화되었을 무렵 단천(端川) 고향으로부터 부친께서 상경하신다는 소식이 왔다. 부친께서는 오랫동안 옥고를 치루고 출감하시었으나 아직 몸이 쇠약한데 상경의 소식은 천만 뜻밖이었던 것이다.

밤중에 역(驛)으로 나가 반갑게 만나 모시고, 지금까지도 그 자리에 계셨지만 가회동 그 집으로 와서 '여기가 제 집입니다. 어서 들어가십시다.'하였더니 부친께서는 컴컴한 한밤중이라 잘 살펴볼 형편도 못 되지만,

'이것이 네 집이냐?'

'그렇습니다.'

'이거 기와집이 아니냐?'

'네, 조그마한 기와집이기는 합니다만…'

하고 대답했더니만 그 자리에서 돌아서시며 하시는 말씀이,

'나는 도로 단천 집으로 돌아가련다.'

하신다. 상허 선생은 그 부친의 말하시는 뜻을 얼른 알아차릴 수가 없어 왜 그러시냐고 물으니, 부친은 노발대발하시어,

'너, 내 뜻을 몰라서 묻느냐? 네가 서울 오더니 사람이 변해 버렸구나. 우리 민족이 다 못사는데 네가 먼저 기와집에서 살아서는 안 되는 법이야. 서울장안에 초가집이 다 없어지면 너도 기와집에 살아도 무방하다. 나는 지금 기와집 쓰고 사는 너의 집에는 들어갈 수가 없으니 여관집으로 안내해라.'

그때 상허 선생은 손이 발이 되도록 빌었다. 그리고 잘못했다고 빌기도 했다. 또한, 지금은 자정이 넘어 여관도 찾을 수 없으니 내일 밝는 대로 곧 여관으로 모시고 갔다가 고향집으로 내려가시도록 하겠다고 겨우 진정시켜서 집으로 들어가시는 승낙을 받았던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그것으로 낙착이 되지 않았던 것이다. 병약하신 몸에 상경하기까지의 고생과, 밤새도록 대문 밖에서 추위로 떨며 고생한 동티가 나서 그 이튿날 아침부터 일어나시지 못하시고 시름시름 앓으시다가 별세하시고 말았으니 상허 유 박사의 가슴은 얼마나 아프셨으며, 따라 그 선친의 유언 아닌 유지가 얼마나 뼈에 사무치셨는가를 우리는 짐작할 수 있다.〔김건(문리대 명예교수 · 윤리학), 「常虛精神의 理念的定立」, 『建大學報』 제29집, 1976〕

1931년 9월 18일 만주사변(滿洲事變)을 계기로 급속히 일제의 대륙침략을 뒷받침하기 위한 병참기지로 변화해 가고 있던 1930년대 식민지 한국사회의 암울한 분위기 속에서, 유석창 의사에 대한 신뢰와 기대감을 반영하는 사실로 그가 동아일보의 '지상병원(紙上病院)'란(欄) 필진(筆陣)의 한 사람으로 선정된 사실을 빠뜨릴 수 없을 것이다.

당시 동아일보에서는 "보건에 대한 사상을 보급시키고, 아울러 질병에 대한 문의에는 '지상병원'으로 있는 힘을 다하여 독자 여러분들에게 이바지하려"한다는 취지로 당시 의료계의 유명한 의사 7명을 필진으로 위촉하여 '지상병원'란을 운영해 오다가, 1934년 2월 하순 새로 '사회영 중앙진료원 이비과(耳鼻科) 유석창(劉錫昶) 씨'를 비롯한 두 명을 필진으로 위촉하였다.

같은 기사에서는 10명의 필진을 가리켜 "학식이나 지위로나 세상이 다 아는 조선 의학계의 권위들입니다. 이에 더 무엇이라고 말씀할 나위가 없습니다. 독자 여러분과 한 가지로 우리 조선의 보건사상(保健思想) 보급과 악질(惡疾) 퇴치를 위하여 그 해박한 연구를 기울이실 것입니다"라고 소개

하였다.

유석창 의사의 인술구제와 사회적 공헌에 대한 평가를 반영하는 신문기사가 있다.

> "의사(醫師) 유석창(劉錫昶) 씨는 원래 인격이 출중(出衆)하고 성격이 인자하여 공덕심(公德心)이 많은 관계로, 단천(端川)에서 개업했을 때에도 일반환자에게 많은 편리를 주었고, 경성(京城)에 왔어도 무산계급(無産階級) 환자들을 위하여 사회의 후원을 얻어 종로에 민중의원(民衆醫院)을 설립하고 무산자(無産者)들에게 반가운 '실비치료(實費治療)'란 표방 밑에서 무료치료도 많이 하여, 무산계급에 재(在)한 남녀환자를 무수히 구제하는, 무산자들에게는 실로 '활인불(活人佛)'이라고 한다."〔無産者에 活人佛, 民衆醫院長 劉錫昶氏」, 『東亞日報』 1936년 4월 2일〕

'활인불(活人佛)'이라 함은 '사람의 목숨을 살리는 부처' 같은 사람을 일컫는 말이다. 인간으로서, 의사로서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찬사인 셈이다. 그의 병원 이름이 왜 '민중의원(民衆醫院)'인지 헤아릴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주목되는 것은 "무산계급 환자들을 위하여" '사회(社會)의 후원(後援)'을 얻어 민중병원을 설립하였다는 대목이다. 경성실비진료원→중앙실비진료원→중앙진료원→민중의원으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그가 '사회의 후원'을 받을 수 있었다는 점이다.

이미 중앙실비진료원 설립 당시 그의 헌신과 열정적인 모습에서 확인할 수 있었지만, '사회의 후원'을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그 자신부터 공공선(公共善)을 이루기 위해 멸사봉공(滅私奉公) · 선공후사(先公後私)하는 열정과 헌신의 모습을 보여주어야 했을 것임은 쉽게 상상이 가는 일이다. 상대방과 타자를 감동시키고, 방관자적인 이들을 열성적인 동참자와 지지자로 이끌어 가는 열정과 이타적인 리더십의 소유자였음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다.

이렇듯 실비와 무상으로 환자를 치료해 주고자 하는 유 박사의 신조는 이후에도 변하지 않았다.

> "한번은 저녁 늦게 퇴근하려는 데 환자 하나가 피를 흘리며 병원 문을 두드렸다. 중상은 아니었지만, 수술을 요하는 상처였다. 중년남자인 환자는 유 박사에게 수술비가 없다며 자신의 사정을 털어 놓았다. 유 박사는 기꺼이 수술을 끝내고 웃으며 귀가했다.
>
> 그런데 6 · 25가 민족의 비극을 싣고 서울에 붉은 손을 닿게 했을 때, 노년의 유 박사에게 보은을 받게 했다. 전시의 식량난은 극심했다. 유 박사는 피난을 가지 않은 채 가회동에 머무르고 있었다. 저녁 때 쯤이었다. 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부인 김계옥 여사는 유 박사로부터 그 수술환자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 김 여사는 예감에 바로 그 사람일 것이라고 생각했다.
>
> 때문에 누구인가도 묻지 않고 문을 열었다. 밖엔 왼쪽 어깨에 자루를 멘 사나이가 서 있었다. 그 안에는 쌀 두어 말과 북어 한 궤가 들어있었다. 그는 아무 소리도 없이 그 자루를 놓고 돌아갔다. 김 여사는 그를 주의 깊게 관찰한 후 유 박사께 말씀드렸다. 유 박사는 그가 바로 무료로 수술한 사람임을 알았다. 그 후 많은 사람들이 유 박사의 신변을 보호해준 예는 허다했다."〔『建大文化』 편집부, 「故 常虛 劉錫昶博士 生活 片片相」, 『建大文化』 3집, 건국대학교총학생회, 1973, 126쪽〕

앞에서 소개하였듯이, 병들고 약한 자에 대한 연민과 이들을 돕고 구제해야 한다는 그의 생각은 일종의 소명의식(召命意識) 같은 것이었다. 이 같은 그의 면모는 불의와 맞닥뜨렸을 때는 정의감(正義感)으로, 약자의 불행에 직면해서는 고통을 함께 하는 여민(與民)의 리더십으로 나타났다.

> "언젠가는 퇴근 도중, 어느 한 사람이 서너 명에게 몰매를 맞는 광경을 목도하고는 이에 분개하여 비굴하게 한 사람을 매질하는 사람들에게 달려들어 실컷 두들겨 주고, 쏜살같이 집에 와보니 옷에 피 자국이 여기저기 묻어 있었다고 한다.
>
> 또 그는 정직함을 소중히 여겼다. 한번은 부인 김계옥 여사와 함께 서대문 영천에서 전차를 타고 종로 2가에서 내렸다. 그런데 승객이 많아 미처 승차권을 차장에게 주지 못하고 내려야 했다. 전차가 멈추자, 유 박사는 매표구로 달려 가 5전으로 승차권을 사서 차장에게 주었다. 옆에서 바라보고 있는 부인에게 하신 말씀이 왈, "차를 탔으니 당연히 차비를 지불해야 돼, 내가 5전 짜리는 아니잖아!"라고 하셨더란다."〔『建大文化』 편집부, 「故 常虛 劉錫昶博士 生活 片片相」, 『建大文化』 3집, 1973, 126쪽〕

이런 일화를 접하면, 유달리 원칙과 정직을 강조했던 그의 면모가 새삼 느껴진다. 실제로 그는 흡사 결벽증처럼 매사에 자신에 대해 엄격했다고 한다.

심경(心境)의 요모조모

민중의원 유석창

많은 불행 가운데도 가난에 병을 더한 것처럼 불행은 없으리라고 깊이 느낀 것은 옛날 학생시대의 일이었습니다. 이것은 자신이 가난과 떠날 수 없는 깊은 정분이었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였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나는 후일 의사가 된다면 가난에 병을 더한 사람을 한 번 더 어루만져 주리라고 결심하였던 것도 이때의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변하기 쉬운 것은 사람의 마음입니다. 막상 임상에 나와서 처음 개업을 하고보니 차차 돈맛을 알게 되는데, 나중에는 기기묘묘한 맛까지 다 알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때의 나의 환경이 나로 하여금 그만한 돈맛을 붙이게 한 것도 사실이었으나, 그렇다 할지라도 예전 생각에 비기어서 너무나 엄청나게 달라져 가는데 있어서는 자신도 괴로운 한숨을 금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무슨 까닭인지! 좋은 옷 입고 돈푼 좀 있어 보이는 환자가 오면 거저 덮어놓고 환영입니다. 좋은 자리에

안내하고 가장 친절하게 진찰을 하며 나오지 않는 웃음이라도 싱글싱글 웃어가며 한 번하여도 좋은 말을 두 번 세 번 되풀이 하여가며, 이와 반대로 가난한 사람 다시 말하면 돈푼 좀 없어 보이는 사람 남루한 옷입은 사람만 오면 어찌된 세음인지! 아까까지 나슬나슬하던 몸맵시! 나불나불하던 입버릇! 싱글싱글 웃던 눈자위! 이 모든 형태가 어디로인지 다 숨겨버리고 뻣뻣하고도 거만한 모양! 탁탁한 말씨! 어색한 얼굴! 그 어느 것이나 인술의 이름 아래에서는 꿈에도 보기 징글징글한 형태를 나타내게 됩니다.

이상과 같은 연극은 병원에 오는 환자에게 대하여서만이 상연되는 장면이 아니고, 어디 모르는 곳에 왕진을 갔을 때에도 위에서 살펴 본 생활정도 여하에 따라서는 곧 상연될 수 있는 연극입니다.

이리하다가도 가끔 한가한 기회, 고요한 밤을 당하여 황금의 매력에서, 환경의 쇠사슬에서 놓임을 받아 다시 맑아지는 양심 가운데서는 가책을 받는 우렁찬 목소리가 귀에 역역이 들리고 불안을 느끼는 가슴 속에서는 앞은 한숨이 뭉게뭉게 올라 솟으며, 이어 느끼는 부끄럼에 뉘우치는 눈물이 앞을 가리게 될 때, 아! 네가 누구냐? 과거의 너를 그다지도 잊어버렸느냐? 하는 부르짖음이 뻗어나가게 될 때, 오냐! 이 자리를 떠나자! 어서가자! 내가 있을 자리가 아니다! 라고.

이리하여 자유개업의 자리를 떠나서 그 후 '가나다' 미슌회의 어떤 병원에 월급생활로 들어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병원은 자선사업을 위한 병원인 것만큼 양심생활로 들 때에는 마음이 매우 평안하여 마치 폭풍우를 만났던 외로운 배가 다시 순풍을 만난 듯한 느낌이었으나, 그래도 내 마음에 품은 이상을 마음대로 실현 못하는 한 가지 고통과 월급생활로는 너무나 기계화 하여 버리는 불만 끝에, 이곳도 다시 그만두고 지금으로부터 6년 전에 서울 한복판에 와서 예전 개업과는 정반대의 개업에 몸을 던지어, 이제는 가난한 환자를 보고 반기는 웃음을 웃으며 한 번 더 어루만져보는 생애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 양심생활로는 매우 평안하나 그 대신 또 경영에 곤란이 따릅니다. 어느 때나 이 방면에 불안을 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고 보면 이도 알맞은 생활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두루 알맞은 의사의 생활을 하려면 내가 본 경험으로서는 이런 의사의 마음자리를 가진다면 꼭 될 줄 압니다.

돈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지위가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이나, 보기 좋은 사람이나 보기 싫은 사람 할 것 없이.

'진정한 양심으로 일시동인하는 마음자리로서 아주 없는 사람은 아주 없는 대로 있는 사람은 있는 대로 그 형편에 따라서 많이 받는 사람에게나 아주 못 받는 사람에게나 다 같이 행하여 나아간다면' 일시는 어출하지만 적선지가에 필유여경이라는 철언과 같이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일시동인의 마음을 한결같이 지키기 아직 어렵다고 생각한 나는 차라리 경영에 곤란을 받으면서라도 당분간 이 생활을 계속하여 볼까 합니다.〔'臨床餘閑' 其二, 『동아일보』 1936년 2월 29일〕

인술(仁術)을 천직(天職)으로

민중의원 유석창

지금으로부터 7, 8년 전에 어떤 미순회병원에 있을 때 일입니다.

그 병원 원장은 영국사람이었는데, 환자한테 매우 친절할 편이었습니다. 가끔 입원실에 들어가서 돌아다니며 환자들을 위로하는 가운데 혹 어떤 환자가 약 먹을 시간에 먹지 않았으면 어찌하여 먹지 않았느냐고 물으면, 그 환자의 대답이 약맛이 고약하여 잘 먹을 수 없다고 할 때는, 자기가 그 약병을 들고 그 환자 앞에서 환자가 먹던 추한 약병임을 불구하고 한 모금 먹어보고 다시 권합니다.

뿐만 아니라 기거를 잘못하는 환자들에게는 자기가 친히 앉아 일으키고 눕히는 일을 예사로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일은 그 환자의 병이 어떠한 병임을 막론하고, 또는 유료 무료임을 막론하고, 또는 깨끗하고 추한 환자임을 막론하고 의례 그리합니다.

이것을 본 나는 좀 어떠한 생각이 있어서 그 후 조용한 기회에 원장한테 이렇게 말한 일이 있었습니다.

원장께서 그와 같이 하시는 것은 환자에게 대해서는 매우 친절한 일이나, 그리하는 가운데 혹 전염이라도 된다면 위험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가령 전염은 안 될 환자라 하더라도 환자가 만지고 먹던 약병을 그와 같이 하시기에 더러운 생각은 없으십니까고 물으니

그 원장은 바라보며 머리를 흔들며 섭섭한 빛을 띠어가며 하는 말이, 닥터 유는 생각을 잘 못하였소, 물론 전염될 수 있는 환자에게 대하여서는 조심하는 것이 원칙이겠지만은, 그러나 닥터 유나 내가 "의학의 문에 몸을 디뎌 놓을 때 벌써 환자를 위하여 생명을 바치기로 한 사람이니, 환자를 구하기에 마땅한 일을 하다가 불행으로 생명을 잃는다 하여도 천직은 다한 사람이니 아까울 것은 없겠지요"라는 말을 던지었습니다.

이 말을 듣고 있던 나는 머리가 앞으로 숙여지고 부끄럼에 잠긴 머릿속으로 이렇게 부르짖었습니다.

참으로 천직을 깨달은 사람이로군! 내가 오히려 어리석었어!

저 사람들은 무엇이나 자기가 맡은 직무는 모두 자기의 천직으로 알고 일생을 통하여 정신과 육체를 아울러 여기에 희생하려는 것이 보통인데, 우리 조선 사람은 무엇이나 자기 맡은 일은 거저 일시적으로 두루 어물거려 넘기려 하며, 의사가 되어 면허장 얻은 날은 마치 금광판에서 노다지 얻은 식으로 환자치료야 어떻게 되었던지, 자기 사명이야 무엇이었던지, 단시일 동안에 일확천금하여 가지고 일신의 향락을 누릴 것을 꿈꾸고 앉았으니, 무엇이 바로 되랴!

아닌 것이 아니라, 천직을 모르는 의사가 된다면 무가치폐단이 있을 것만은 사실입니다.

첫째는 나는 일생을 통하여 환자를 구하는 것이 나의 직무이니 초조한 생각을 버리고 유유한 마음자리로 하여 나아가자고 만 한다면, 우선 물질에 그리 흡흡할 리가 없을 것입니다. 암만하기로니 의식주가 안 생길 일은 없는 것이니까!

둘째로 의사가 나의 일생에 천직이라고 생각한다면, 더욱 연구하지 아니하면 이 천직을 다할 수 없다는 생각으로서 책을 가까이 하고 연구를 거듭할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일확천금식이라면 장래에

소용없는 것이니, 더 알아 소용 닫는 생각 아래에서 덮어놓고 열 닷 냥 만큼으로 거저 덤비는 용의(庸醫) 밖에 될 것 없으니, 이리하는 가운데 밑질 것은 환자뿐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 번 천직을 맡은 그 사람은 거저 그 직무를 위하여 일생을 통하여 충실한 편이 옳으리라는 것을 느끼면서!

그러나 말뿐이고 실행이 부족한 나는 부끄럼을 먹으면서 이 글을 마칩니다.

〔'臨床餘閑' 其三, 『동아일보』 1936년 3월 1일〕

가난한 것도 한 몫

민중의원 유석창

세상에서 가난이라면 거저 덮어놓고 나쁜 것인 줄 알지만, 병원에서 의사가 병 치료하는 데는 이것도 한 몫 본답니다.

대체로 부하고 귀한집 병은 고치기 어려워도 가난한집 병은 좀 어물어물 어루만지기만 하면 곧 나아버리는 수가 많습니다. 이것이 아마 눈물이 있는 반면에 웃음을 주는 자연의 보수와도 같습니다.

고루거각에서 금라주리로 몸을 감고 고량진미와 잡동산으로 배를 불리며 유흥과 미색에 몸이 녹아서 인삼 녹용이 떠날 사이 없는 그네들보다, 소박한 살림에 박색인 두 내외가 김치쪽 장뚝방이만 왔다 갔다 하는 그네들이 병은 덜 나며, 조금만 무얼하면 의사 의생 할 것 없이 있는 대로 부르고 양약 한약 할 것 없이 되는대로 지어버리는 그네들보다, 한 푼 두 푼 모아 가지고 겨우 약 한 첩 먹어보는 그네들이 쉽게도 나아버립니다.

이것은 다른 까닭이 아닙니다. 부하고 귀한 생활에서는 조금만 무얼 하면 생활에 절조를 잃어서 결국은 사람이 무얼하는 것이 아니라 음식이 음식을 먹고 색이 색을 끌며 약이 약을 마시게 되어 나중에는 사람이 병을 앓는 것이 아니라 병이 병을 앓게 되니, 이와 같이 된 병통에 화타편작인들 어찌하며, 하도 약을 쓴 나머지에 감수성조차 둔마(鈍痲)된 거기에 삼신산 불로초인들 무얼 하리까!

그러나 부하고 귀하지 못한 사람은 대체로 자연스러운 생활로서 적당하게 먹고 일하고 자고하여 몸에 상당한 저항력을 가진 사람이며, 일조에 병난다 할지라도 모든 형편이 병 조리에 과히 틀리지 아니하며, 약도 과히 써보지 못한 나머지 약이나 치료에 대한 감수성이 극히 예민하여 조금만 무얼 하면 잘 나아가는 편이 많습니다.

이제 여기에서 재미있는 이야기 한 두 가지 적으려고 합니다.

어떤 가난한 친구가 한 번은 와서 하는 말이, 나는 기침병이 난지 수일 되는데 지금은 점점 더 하여 밤조차 잘 수가 없다 하기로 기침약 한 병 지어주었더니 그 후 얼마 만에 다시 와서 하는 말이 그런 신통한 약은 처음 보았다고 하면서 그동안 경과를 이야기하는데,

기침은 약 두 모금만 먹었더니 그만이고, 그 후 얼마 지나서 마침 아내가 하루 저녁은 체하여서 복통이 심하기에 그 약을 좀 먹였더니 또 나아버렸고, 그 후 내가 두통이 심하기에 또 좀 먹었더니 곧 낫겠지요! 그런 만병수약은 처음 보았다고 하면서 깊이 사례하였습니다.

이 말을 들은 나는 여간 흥미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대체 기침약으로 복통, 두통이 다 나았다는 것은 재미있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그 약 가운데 조금 진정시키는 약도 들어있기는 하나 그만한 분량쯤으로 그만큼 효력을 보았다는 것은 약을 별로 못써 본 그 친구에게 한한 말이지 부하고 귀한 편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현상입니다.

그 다음 하루는 어떤 부호의 집에서 나에게 왕진을 청한 일이 있었습니다. 가서보니 낳은 지 6개월 밖에 안 되는 갓난아기인데, 바라보니 벌써 위중하여 보입니다. 어떻게 아파하느냐고 물으니, 수일 전부터 고열이 나고 가끔 벼락울음을 우는데 그동안 수많은 의사와 의생에게 보였으며 주사와 약도 퍽 많이 뒀으나 아무 효력도 없으며, 아직 무슨 병인지도 모른다고 하면서 이것이 3대독자인데 부대 살려달라고 애원합니다.

두루 진찰하여 보니, 그동안 하도 볶아서 여기저기 딴 병을 많이 일으킨 모양이나, 본병은 급성화농성 중이염이었습니다. 이것을 발견하고 그때부터 귀를 치료하였으나 이미 기울어진 병은 생명을 빼앗고 말았습니다.이 어린아이가 부한 집 애기가 아니고 삼대독자가 아니었었던들 또는 처음 앓을 때 그리 들볶지 말았었던들 급성중이염 쯤으로 생명까지 빼앗기었으리라고는 생각할 수 없는 것입니다.

얼마나 가련한 일입니까!

그러므로 어떠한 병이라도 병에 걸리게 될 때는 일시라도 치료를 게을리 하는 것은 재미롭지 못한 일이나, 그렇다하여 너무 황황하게 서두르는 것은 도리어 이런 폐단을 일으킬 염려가 없다고 할 수 없습니다.〔'臨床餘閑' 其四, 『동아일보』 1936년 3월 3일〕

유석창이 질병 · 보건 · 위생을 주제로 신문에 기고한 글의 목록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1) 축농증은 어떠한 병, 그것에서 받는 영향은 무엇?(上)(『동아일보』 1934년 3월 29일(28일 석간), 6면)
2) 축농증은 어떠한 병, 그것에서 받는 영향은 무엇?(中)(『동아일보』 1934년 3월 30일 조간, 6면)
3) 축농증은 어떠한 병, 그것에서 받는 영향은 무엇?(下)(『동아일보』 1934년 3월 31일(30일 석간), 6면)
4) 수영과 귓병, 여름철에 많이 걸리는 귓병의 예방법 겸해 갓난아이의 귓병에 대하여(上)(『동아일보』 1934년 8월 11일 조간 제2판, 6면)
5) 수영과 귓병, 여름철에 많이 걸리는 귓병의 예방법 겸해 갓난아이의 귓병에 대하여(下)(『동아일보』 1934년 8월 12일 조간, 6면)
6) 겨울의 부인위생, 조선가정의 비위생적 생활(一)(『동아일보』 1935년 12월 10일(9일 석간) 4면)
7) 겨울의 부인위생, 실내공기와 옷 입는 것(二)(『동아일보』 1935년 12월 11일(10일 석간) 6면)

8) 겨울의 부인위생, 실외운동과 부인의 섭생(三)(『동아일보』 1935년 12월 13일(12일 석간) 1면)
9) 겨울의 부인위생, 감기와 결핵의 예방에 대하여(完)(『동아일보』 1935년 12월 14일(13일 석간) 4면)
10) 心境의 요모조모('臨床餘閑'其二)(『동아일보』 1936년 2월 29일 조간 제2판, 4면)
11) 仁術을 天職으로('臨床餘閑'其三)(『동아일보』 1936년 3월 1일 조간 제2판, 4면)
12) 가난한 것도 한 몫('臨床餘閑'其四)(『동아일보』 1936년 3월 3일 조간 제2판, 4면)
13) 여름과 수영, 코와 귀에 대한 주의(上)(『동아일보』 1937년 7월 23일(22일 석간) 제2판 3면)
14) 여름과 수영, 코와 귀에 대한 주의(下)(『동아일보』 1937년 7월 24일(23일 석간) 제2판 3면)
15) 환절기의 위생(十二), 서늘해지면 생기는 여러 가지 콧병(上)(『동아일보』 1937년 9월 23일(22일 석간) 제2판 3면)
16) 환절기위생(十三), 무심히 볼 수 없는 목병과 치료(下)(『동아일보』 1937년 9월 25일(24일 석간) 제2판 3면)
17) 이비인후과(上), 하절 위생 지상강좌(其一) 코와 귀에 대한 주의(『동아일보』 1938년 7월 18일(17일 석간) 제2판 3면)
18) 이비인후과(中), 하절 위생 지상강좌(其一) 코와 귀에 대한 주의(『동아일보』 1938년 7월 19일(18일 석간) 제2판 4면)
19) 이비인후과(下), 하절 위생 지상강좌(其一) 코와 귀에 대한 주의(『동아일보』 1938년 7월 20일(19일 석간) 제2판 4면)
20) 환절기의 위생, 이비인후병의 예방법(『동아일보』 1939년 11월 2일(1일 석간) 제2판 4면)

이외에 해방될 때까지, 그의 의료 · 사회봉사활동 상황을 살펴보면, 1934년에 조선보건협회(朝鮮保健協會) 회장에 취임하였음이 밝혀진다. 조선보건협회는 1932년 초 "민중보건운동을 일으키기 위하여", 이남훈(李南薰) · 박제선(朴濟善) 씨 등의 발기로 경성부내 각처 유지의사와 각 언론기관 등을 망라하여 설립되었으며, 시내 서대문정 1정목 148번지에 사무실을 두었다. 회원은 보통회원 · 명예회원 · 특별회원으로 구분되었다. 이로 보면 창립 후 2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유 박사가 회장에 취임한 셈이다.

주요 사업으로는 전국을 대상으로 한 회원 모집, 실비진료, 보건 · 위생에 대한 통속잡지(通俗雜誌, 대중잡지) 발행, '민중보건(民衆保健)'을 주제로 한 강연회 개최, 지방순회 진료, 경성부내 무산자를 대상으로 한 무료 순회진료, 각 학교의 건강우량 아동 표창, 각종 운동경기 장려, 조선민족 보건문제 해결 등을 설정하였다.

이로 미루어 보면 조선보건협회는 보건위생에 대한 국민적 사회적 인식과 관심을 제고시키며,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 · 구제를 목적으로 한 기관임을 알 수 있다.

보건 · 위생에 대한 계몽 · 선전을 목적으로 1932년 10월부터 기관지 성격의 『보건시보(保健時報)』를 발행하였다. 편집국장 김춘식과 기자 4명에, 주간으로 타블로이드판 500부를 찍어 의약계와 유관기관에 배부했다고 한다.

"널리 의학계의 소식을 알리고 동포의 보건 향상에 이바지"함을 표방한 보건시보의 내용은 '타성에 젖은 의료계' 즉, 영리 추구에만 급급한 나머지 서민계층에 대한 진료를 외면하는 의료계의 비인도적 관행에 대한 반성을 촉구하는 논조였고, 민중들의 건강을 해치는 사회적 · 정치적 · 경제적 · 문화적 제조건을 개선함으로써 "인술의 참다운 모습을 구현해야"한다는 요지였다.

의료계에 새로운 기풍을 진작하여 전국적으로 빈민환자 문제를 개선하고, 전국민의 건강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취지에서 출발한 일이었기에, 실현 가능성이 그만큼 낮은 시도였다고 하겠다. 결국 재정난으로 인해 주간에서 월간으로, 다시 격월간으로 간행 횟수가 줄어들다가, 1934년에는 일시 휴간해야 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1935년 재발간 되었지만, 2년만인 1937년 말 폐간되고 말았다.

사회영 중앙실비진료원의 개원에 성공하셨습니다. 그 병원은 비록 그 규모나 의료진용은 당시의 경의전 병원이나 세브란스병원만은 못하였으나 그러나 일제나 외국 원조는 전혀 없이 순전히 우리 민족 자원만으로 이루어진 기관으로서 무료 또는 실비로 진료하는 병원으로서는 전무후무한 것이었다고 하겠습니다.

이 병원은 개원한 지 1년 남짓한 1932년 7월에 서무과 직원의 실화(失火)로 병원이 소진(燒盡)되었으므로 3개월간의 노력으로 YMCA 옆자리로 옮겨 놓고 난 10월에 상허 선생님께서는 또 한 가지의 중요한 사업인 『보건시보(保健時報)』를 창간하셨습니다. 그 명목은 "널리 의학계의 새 소식을 알리고 동포의 보건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라고 내세웠으나 그의 내심은 빈민대중의 진료를 외면하는 의사의 비인도적 자세를 고발하여 의료계에 혁신의 봉화를 올리고자 하는 의욕이 있었습니다. 이 신문은 조간 타블로이드판으로 500부를 찍어서 의료계와 유관단체 기관에 배포하였습니다.

비록 재정 궁색으로 주간이 월간 또는 격월간으로 되기도 하다가 창간 2년 만에 일시(1년간) 휴간하였다가 다시 2년간을 더 지속하였으나 그 이상은 도저히 버텨 나갈 수가 없어서 만 5년 만인 1937년 말에 폐간하였음은….〔양재모(연세대학교 명예교수), 「상허 유석창 선생」, 『내가 본 상허 유석창』, 124~125쪽〕

1933년 11월 26일 오후 2시부터 종로 중앙전도관(YMCA)에서는 '질병과 그 예방책'이라는 연제로 유석창(劉錫昶)의 강연회가 열렸다. 이어서 12월 초에는 매월 1일부터 7일까지 1주일씩 무료 기생충검사, 일반대중을 대상으로 한 무료 대변검사, 화류병 무료 상담 활동을 펼쳤으며, 매월 10일부터 17일까지는 무료로 건강진단을 해 주기로 결정하였다. 다만 12월에는 15일부터 22일 사이의 화 · 목 · 토 3일 간만 실시키로 하였다.

또 그가 종교활동에도 적극적이었음을 뒷받침하는 사실로, 1935년 3월 하순 경성시내 장곡천정〔長谷川町, 현재의 중구 소공동〕에서 장로교 · 감리교 양측의 목사 및 장로 등 유지인사 50여 명이 기독교적극신앙단(基督敎積極信仰團)의 활동을 비판하기 위해 기독교유지회를 열었다는 기사 중

에, 김정식(좌장) · 이재갑(서기) · 이주완 · 오하영 · 원익상 · 차상선 · 김병찬 · 김치명 · 이대위 · 김상돈 · 최봉측 씨 등과 함께 그의 이름이 등장하고 있다.

참고로 기독교적극신앙단에 대해 살펴보면, 1930년을 전후하여 한국교회의 보수적 · 교권주의적 경향과 선교사들의 근본주의적 신앙관이 강화되는 경향이 나타나자, YMCA 총무이던 신흥우(申興雨)가 순수 종교인을 중심으로 '기독교적극신앙단'을 조직하여, 동지의식과 조직적 단결을 강조하는 신앙운동을 전개하며, 점차 전민족적인 정신운동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구상을 하였다.

1932년 6월 신흥우는 5개조의 적극신앙선언과 21개조의 실천강령을 제정하고, 정춘수(鄭春洙) · 김영섭 · 함태영(咸台永) · 박연서 · 전필순(全弼淳) 등 기독교 지도자들을 한데 모아, 1933년경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착수하였다.

하지만 이들의 시도는 기독교계 핵심으로부터 강한 압력을 받았고, 보수적 성향의 기존교계로부터 '반교회적 운동'으로 비판받았다. 대체로 서울 · 경기지역의 인사들이 주도하였는데, 기독교세력이 강력한 함경도 · 평안도지역 기독교계로부터 압력을 받기에 이른 것이다. 1935년 초 신흥우가 YMCA의 총무 직에서 물러나면서 사실상 해체되었다.

1937년 4월에는 졸업한지 9년 만에 다시 경성제국대학 의학부 연구과에 입학하였다. 학위논문을 작성하여 의학박사 학위를 받기 위해서였다. 경성의전 4년 재학기간 동안 3년을 같은 집에서 하숙한 친구 이종규 선생은 당시의 상황을 다음과 같이 회고하였다.

> "2차 세계대전이 격화되면서 국가장래에 대한 우국심과 무서운 변환기에 사로잡혀 나의 뜻하였던 꿈이 사라지는 것 같았다. 아울러 주체할 수 없는 비관이 들며 장래에 대한 실망이 커지고 타락에 빠지는 억울한 인생으로 끝마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던 때였다.
>
> 이러한 고민 속에 정말로 오랜 세월을 보내던 때 서울 민중병원장 유석창 동지가 나를 찾아왔다. 그와는 둘도 없는 친우인 만큼 같은 시국적 우국적 걱정 끝에 괴로움을 타개하는 결론에 도달하여 새 출발하기에 이르렀다.
>
> "일본은 패전하고 망한다. 우리는 독립하고 살아 나아갈 큰 희망이 온다. 어찌 이때에 우리가 옛 꿈을 잊어버리고 그냥 썩겠느냐? 용기를 가다듬자!"는 새로운 뜻을 세웠다.
>
> 그리하여 두 사람이 서울대학 의학부 박사학위 과정에 등록하기로 하였다. 심기일전 용기를 내어 우리의 옛 꿈을 실현하기로 결심한 것이다."(『동성 이종규 박사 회고록』, 16쪽)

하지만 민중병원 운영에 전념해야 하는 현실 상황과 중일전쟁 및 태평양전쟁이라는 위급한 국제정세 탓에 연구작업은 순조롭지 못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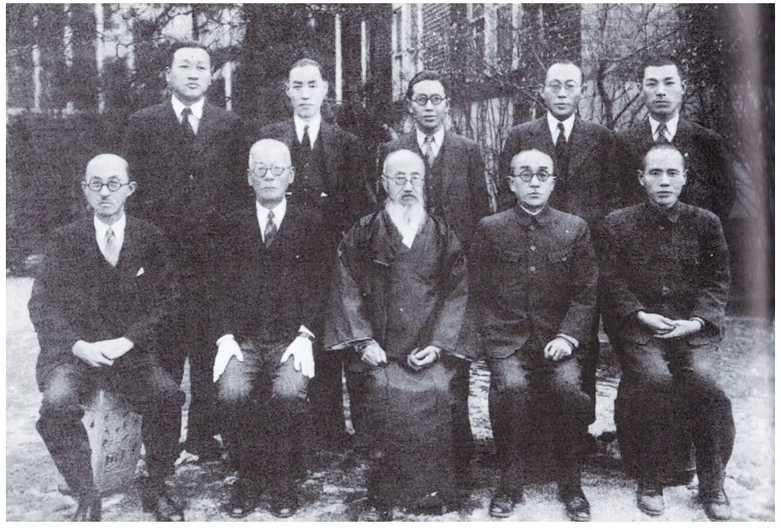
"내 논문은 사실 미완성품이었어요. 내가 받은 학위는 스자키 교수가 나의 고생에 대하여 베풀어준 선물에 지나지 않았지요. 또한 일본 교수들이 귀국 전에 마지막으로 낸 생색이라고도 할 수 있어

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그 학위를 그다지 자랑스러운 것으로 받아들이지는 않습니다"라는 유석창의 말대로, 박사학위논문〔췌장(膵臟)의 Langer Hans Island의 발생학적 지견(知見) 보유(補遺)〕은 1945년 8월 일제 패망과 함께 마무리 되었다.

일제 패망기라는 참담한 상황에서, 더욱이 개인적으로는 민중병원을 운영해야 하는 결코 녹녹치 않은 환경 속에서 어려운 현실을 헤쳐 나가고 극복해 낸 결실이었다는 점은 높이 평가되어야 할 것이다.

1939년에는 조선보건협회 회장, 보건시보사 사장 및 주필, 민중병원 원장 등의 직책을 사임하였다. 일제의 대륙침략과 소위 '황국신민화'정책이 기승을 부리기 시작한 1930년대 말 시대적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몸을 더욱 낮추고 애족과 구국을 위한 자신의 길을 헤쳐 나가기 위한 의지의 표현으로 이해된다.

1940년에는 조선과학협회(朝鮮科學協會)를 조직하여 회장에 취임하고, 윤치호(尹致昊)를 고문〔명예총재〕으로 추대하였다. 홍익범(洪翼範, 동아일보 기자) · 설린(薛麟, 민중병원 약제사) · 이종규(李鍾奎) · 조동식(趙東植) · 원익상(元翊常) 등이 참여하였다. 동아일보 기자로 재직 중이던 홍익범은 홍파동에 있는 허헌(許憲, 일제하 대표적인 한인변호사, 1920년대 후반 신간회 중앙집행위원장 등으로 활동)의 집 지하실에 무전시설을 설치해 놓고, 제2차 세계대전의 전황 및 국제정세를 청취하였다. 그는 일제가 해군총사령관 야마모토 이소로쿠(山本五十六)의 전사 사실을 숨기고 있음을 탐지하여, 이 소식을 널리 알리는 등 민완한 기자였다고 한다. 이들은 종로구 공평동에 사무실을 차리고, 박흥식(朴興植) 화신산업(和信産業) 대표로부터 재정 지원을 받아 활동하다가, 1944년 8월 해



1940년 조선과학협회 회원들과 함께(뒷줄 오른쪽 두 번째)

산하였다.

조선과학협회의 활동은 괄목할만한 성과는 거두지 못하였으나, 이를 통해 유석창은 과학에 대한 학문적 관심과 열정을 유지 심화시킬 수 있었으며, 나아가 후일 과학입국(科學立國)을 통한 국가 발전을 강조한 사실로 이어졌다고 할 수 있다.

조선과학협회의 결성과 관련해서는, 학창시절 유석창은 기독동우회에서 활동하면서 산전개발운동(山田開發運動)을 전개하던 중, 미국 베리아(Beria) 대학 클록(F.O. Clock) 교수의 "과학을 통한 민족갱생(民族更生)의 도(道)를 회복하고, 축산을 통해 일본의 농업 수탈로부터 벗어나야 한다."는 강의에 큰 감화를 받아, 조선과학협회를 설립하게 되었다고 하는 얘기가 전한다.

> 한편 상허 선생님께서는 경성의전 학생시절에 기독동우회 회원으로 추대하실 때에 미국 베리아(Beria) 농과대학의 F.O. 클록(Clock) 교수와 접촉하는 동안에 품게 된 과학 입국의 꿈을 실현하고자 여러 동지들을 규합하여 1941년에 조선과학협회를 창립하여 그 회장으로 추대되셨다. 이 역시 1944년 8월에 해체당하였지만 일제 식민치하에서 상허 선생님께서 창시하신 3대 사업 즉 민중병원, 보건시보, 조선과학협회를 통하여 그 어른이 사회과학으로서의 의도(醫道)를 겨레에 대한 사랑에 어떻게 활용하셨나의 면모를 엿볼 수 있다.〔양재모(연세대학교 명예교수), 「상허 유석창 선생」, 『내가 본 상허 유석창』, 125쪽〕

상허 선생은 미국의 농대 교수인 클록(F.O Clock) 박사의 "한국은 과학을 통하여 민족갱생의 도(道)를 찾아야 한다. 특히 축산을 통하여 부국하지 않는 한 일본의 농업수탈로부터 헤어날 수 없으리라"는 강연에 크게 감명을 받으시고 '과학입국론'을 주창하게 되었다. 그리고 '조선과학협회'를 설립하여 운영하면서 학문에 대한 의지를 굳게 하고 학교 설립의 꿈을 가지시게 되었다.〔류제창(건국대학교 농축산생명과학대학 교수), 「민족의 위대하신 스승 상허 선생님」, 『내가 본 상허 유석창』, 69쪽〕

학창시절 선생은 기독교동우회에 가입하여 활동하기도 하였는데, 특히 당시의 기독교동우회의 활동 중 선생이 관심을 가졌던 것은 산전(山田)개발운동이었다. 이 운동을 위하여 YMCA 국제위원회에 자금을 요청하기로 하고 편지를 띄웠다. 두 달 후에 자금 대신에 미국 조지아주 베리아대학교의 농과대학 교수 클록 박사를 파견해 주었다. 클록 교수의 지도 아래 동우회가 벌인 농촌개발운동은 신앙생활의 기조 위에서 농사개량, 농촌계몽, 협동조합운동, 농촌지도자 양성 등을 주로 하였다. 그러자 일제가 이 운동을 탄압하기에 이르러, 한때 농촌부흥의 희망을 안겨 주었던 이 운동은 쇠잔의 운명을 밟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오로지 선생만이 그 희망을 되살려 내었던 것이다. 뒷날 건국대학교에 축산대학 · 농과대학 · 농업협동조합대학 · 지역사회개발협회 · 농업기술자협회를 창건한 것은 바로 그 때에 품었던 구국제민의 경륜을 실현시킨 것이다.〔김승곤(건국대학교 문과대학 대우교수), 「상허 선생은 위대한 애국자요 사상가였다」, 『내가 본 상허 유석창』, 47~48쪽〕

한편 1930년대 말 상허 선생은 민중병원의 확장을 계획하고, 새 병원건물을 물색하였다. 그리하여 협성실업학교 이사로 있던 이대위의 주선으로 낙원동 소재 협성실업학교 교사를 구입 이전키로 하였다.

당시 협성실업학교의 재단 이사장은 화신(和信)의 사장이던 박흥식(朴興植) 씨였다. 협성실업학교가 종로의 중심지인 낙원동 교사를 처분한다는 소식이 퍼지자 각처에서 매수희망자들이 나타났다. 그 중에는 일본의 유명한 제약회사, 한국인 의사 등이 있었다. 이들은 유리한 조건으로 매수하겠다고 나섰다.

그러나 박흥식 씨는 이 건물은 애초에 공익사업을 위하여 건립된 건물이므로 영리를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어떤 개인에게는 팔 수 없다는 생각이었다. 마침 유 박사는 무산대중을 위한 구료사업을 확충하는 데에 이 건물을 사용하고자 하고 있으므로 그에게 양도하는 것이 옳다는 생각하였다.

그리하여 1939년 5월 매수대금은 12만 5천원으로 확정하고, 선금 1만 5천원을 지불하고 잔액은 연부(年賦) 상환한다는 조건으로 매매가 성립되었다. 그러나 중도금과 잔금을 치르지 못한 채 시간을 끌다가, 건물이 경성부청(京城府廳) 별관(別館)으로 징발 사용되다가 해방을 맞이하게 되었고, 해방 후 잔금을 지불함으로써, 이 건물은 건국대학교의 요람이 되었다.

그는 민중병원을 낙원동 282번지 서북학회 건물로 옮겨, 조선과학협회와 함께 '과학입국(科學立國)'의 선봉으로 삼겠다고 구상하였지만, 건물이 '전시징발'되어버렸기 때문에, 그의 계획은 무산되고 말았다.

"育英"에서 "濟衆"으로
春風秋雨三十一年지나
協成實業學校校舍轉身譚

유석창 박사가 박흥식으로부터 협성실업학교 교사를 구입한 것을 보도한 신문기사(『매일신보』 1939년 5월 16일)

4
해방정국기의 활동

1) 건국인재 양성 구상

1945년 8월 15일 일본제국주의의 식민통치는 끝났다. 하지만 미군과 소련군의 진주로 인해 해방은 또 다른 모순을 잉태하였다. 미 · 소 군정의 실시는 자주적인 민족국가의 건설이 우리 민족의 일차적인 과제임을 일깨워 주었다.

상허 선생은 앞으로 자신의 해야 할 일, 나아가야 할 길에 대해 고심했다. 당시의 상황에 대해 경성의전 재학 시부터 상허 선생과 고락을 함께 했던 이종규(李鍾奎) 선생(후일 건국대학교 부총장 역임)은 다음과 같은 기록을 남겼다.

"36년간의 일제의 탄압에 시달리다가 자유를 찾은 그 감격도 잠시, 혼란한 조국의 장래를 위하여 내 개인을 희생해서라도 훌륭한 역사를 창조하려면 나부터 국가에 봉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다고 생각했다. 이 난국을 타개하고 건국의 초석이 되고 죽어서 거름이 될 각오를 분명히 하고 결심을 굳혔다.

우리는 각자의 의무와 책임을 다함으로써 건국에 이바지하고 과거의 허영심을 버리고 진정한 애국심으로 나라를 이룩하여야 하겠다고 생각했다. 이는 동지 유 박사와 논의 합의한 결심이었다.

국민들은 갈 길이 무엇인지 방황하기만 하는 현실에서, 동지 유 형은 옛날부터 품은 건국요원(建國要員) 양성의 교육에 열(熱)과 성(誠)을 다 하기로 결심하고, 나는 유 형의 출발점이었던 민중병원(民衆病院)을 계승하여 교육의 원동력이 될 옛 꿈을 이룩하기로 하였다.

민중병원에서 빈민층을 상대로 실비 내지 무료진료를 하는 병원으로 키움으로써, 국민보건을 위한 의료개혁정책에 이바지 할 수 있는 보건역군이 되기를 맹세하는 출발점이었다.

나의 재산이란 옛날 사 놓은 살림집 밖에 없기 때문에 그 집을 담보로 은행에서 융자받아 종로에 있는 민중병원을 수리하고 의료기구를 보충하여 병원을 개업하였다.

아내도 동의했으며, 동지 몇 분(김세행)과 해방된 기분으로 열심히 일한 결과 옛날 민중병원 환자들이 많이 찾아왔으며 병원은 성황을 이루었다."(『동성 이종규 박사 회고록』, 19~20쪽)

민중병원(民衆病院)의 운영을 "(경성의학)전문학교 4년 중 3년여를 같은 하숙을 하였"던 이종규 선생에게 맡김으로써, 1931년 사회영 중앙실비진료원(中央實費診療院) 개원 이래 만난을 무릅쓰고 헤쳐 온 '인술보국(仁術報國)'과 '구료제민(救療濟民)'의 길을 벗어나, '건국인재(建國人才)' 양성의 길로 들어선 것이다.

8월 하순 어느 날 밤, 상허 선생은 평소 뜻을 같이하던 동지들과 서울특별시 종로구 낙원동 협성실업학교 건물의 사무실에 모여, 조국이 다시는 다른 민족의 지배를 받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한 대책을 모색하였다. '오늘 이 밤이야말로 장차 국가 민족을 밝혀 줄 등불의 원천이 되리라'는 뜻에서 이 밤을 '조국의 밤'이라고 부르기로 하였다.

그리고 조국이 영원히 사는 길은 오로지 교육에 있음을 천명하고 교육을 하되 사회과학교육에 비중을 두어 올바르게 사회를 지도할 수 있는 일꾼을 기르는 한편, 이 나라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농민과 노동자의 교육에 중점을 둠으로써 경제부흥의 기초를 다지자고 결의하였다. 이 결의에 따라 그들은 '대학교육 설립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유석창 박사를 그 위원장으로 선출하였다.

유 박사의 해방정국기 첫 발걸음은 한국민주당(韓國民主黨) 창당 참여로 시작되었다. 9월 6일 오후 4시 일제말기 징발 당했다가 일제 패망과 함께 되찾은 "전 종로구역소(鐘路區役所, 지금의 '종로구청'에 해당) 자리인" 낙원동의 구 협성실업학교(協成實業學校) 강당에서 대한민주당(大韓民主黨)

해방정국기 정계인사들과 함께(네 번째 줄 왼편 첫 번째가 유석창 박사)

과 한국국민당(韓國國民黨) 당원 약 7백 명이 모여 한국민주당 합동발기회를 열었다.

일제 식민통치 시기 국내 민족주의 보수 우파세력의 집결체라 할 수 있는 한국민주당은 창당선언에서 '조선인민공화국 타도'와 '충칭(重慶) 대한민국임시정부 절대지지'를 천명하였고, 임시로 사무소를 협성실업학교 안에 두었는데, 재정부(財政部) 명단에 유 박사의 이름이 박용희(朴容喜) · 장진섭(張震燮) · 한학수(韓學洙) · 원익섭(元翊燮) · 고광섭(高光表) · 유흥산(劉興山) · 김영철(金永喆) · 정세권(鄭世權) · 이석주(李錫柱) 등과 함께 등장한다.

이어서 유 박사의 이름은 9월 9일 오전 9시 중앙중학 강당에서 거행된 고려청년당(高麗青年黨) 결성에도 고문과 지도위원으로 등장한다. 고려청년당은 강령으로 첫째, 우리 민족의 자주독립국가의 완성을 기한다. 둘째, 우리민족 전체의 행복과 번영을 기한다. 셋째, 세계 신질서 건설에 협력한다고 표방하고, 주요 정책으로 첫째, 민주주의정체 지지, 둘째, 민주 기본권리의 확보, 셋째, 언론 · 집회 · 결사 · 종교의 자유, 최저생활의 확보, 교육의 기회 균등, 대산업의 공영 내지 국유 등을 설정하였다.

정치적 · 이념적 성향을 확실하게 표방하지 않고 있는 사실이나, 당시 민족주의 우파세력의 중심역할을 하던 김성수(金性洙)가 교주(校主)로 있는 중앙중학에서 결성식을 거행한 사실 등으로 미루어보면, 우파 군소정치세력이 결성한 단체로 유추된다.

유 박사가 적극적으로 참여하거나 구체적으로 어떠한 역할을 한 것 같지는 않지만, 유 박사와 함께 고문으로 추대된 인물들〔金炳魯, 金性洙, 金鴻亮, 權東鎭, 羅景錫, 梁柱三, 劉錫昶, 李克魯, 李裕弼, 李勳求, 朴容喜, 方應謨, 白寬洙, 白南薰, 白樂濬, 白麟濟, 徐相日, 孫晋泰, 宋鎭禹, 吳世昌, 玉璿珍, 俞億兼, 尹日善, 張德秀, 鄭寅普, 鄭魯湜, 曹晩植, 崔奎東, 崔斗善, 崔鉉培, 玄相允, 洪命憙, 李軒求, 金用茂, 金法麟, 張勉, 卞榮泰, 明濟世 등〕과 지도위원으로 추대된 인물들〔劉錫昶, 李克魯, 白寬洙, 白樂濬, 玉璿珍, 俞億兼, 張德秀, 鄭魯湜〕의 면모와, 앞의 한국민주당 재정부원 명단에 유 박사의 이름이 포함되어 있는 사실은 국가 건설의 진로를 모색해야 했던 해방직후의 정치환경 하에서 그를 향한 사회적 관심과 그의 리더십에 대한 기대감이 존재했음을 읽을 수 있다.

또 이는 유석창이 자신 및 국가의 장래와 관련하여 '정치'에 대한 관심이 적지 않았음을 뒷받침하는데, 그가 정치에 깊은 관심을 가졌음은 한국민주당 창당에 참여한 사실과 함께, 그가 설립한 '건국의숙'이라는 이름, 그리고 이를 발전시켜 나간 대학들의 명칭이 '조선정치학관' '조선정치대학관' '정치대학' '건국대학교'였던 사실에서도 그 개연성을 찾아 볼 수 있다.

1945년 11월 9일에는 경성제국대학 의학부에서 「췌장(膵臟) Langer Hans Island(嶋)의 발생학적 지견(知見) 보유(補遺)에 관한 연구」라는 주논문과 「27개 인종에 대한 골상학적 비교연구」 외 2편의 부논문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당시의 상황에 정통한 인물의 증언에 의하면, 학위논문 심사 도중에 해방이 되어 지도교수인 쓰자키(津崎孝道)가 일본으로 돌아가 버렸기 때문에, 이후 석창이 일본에 건너가서 심사를 받고, 일본 문부성에서 인정한 학위라고 하였다.

또 1945년 11월 24일 종로 기독교청년회(YMCA) 강당에서는 실업자, 고물가, 빈민구제, 38도 남북 물자교류, 주택 기타 모든 사회문제의 해결을 표방하며, 정치 · 경제 · 문화 · 산업 등 각계 대표자 100여 명이 발기인이 되어 '조선 사회문제대책 중앙협의회(朝鮮社會問題對策中央協議會)'를 결성하고, "각계각층의 인사를 망라하여 신중히 전형한 결과", 조선은행대표(朝鮮銀行代表) 신한공사대표(新韓公社代表) 금융조합연합회대표(金融組合聯合會代表) 학술원대표(學術院代表) 조선공업기술협회대표(朝鮮工業技術協會代表) 전국노동조합전평회대표(全國勞動組合全評會代表) 등을 비롯하여 사회적 명망가(許憲, 金炳魯, 安在鴻, 方應謨, 金錫璜, 李克魯, 印貞植, 金起田, 吳夏英, 金法麟, 梁槿煥, 劉錫昶, 黃信德, 任永信, 金悌植, 高鳳京, 丁七星, 崔斗善 등)로 구성된 중앙위원을 선출하였는데, 유 박사의 이름도 발견된다.

유 박사는 옛 서북학회 건물인 낙원동 282번지의 협성실업학교 건물 안에 대학을 설립하려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해방 직후의 무질서한 틈을 타서 조직력이 뛰어났던 '조선공산당'이 불법으로 이 건물을 점거하였다. 그들은 1층은 사무실로, 지하실은 조선공산당 기관지의 인쇄공장으로 사용하면서 7~8대의 인쇄기를 설치하였다. 이렇게 되자, 이 건물을 무대로 좌우익의 충돌이 그칠 줄 몰랐다. 유 박사는 공산주의자들을 몰아내기 위하여 온갖 노력을 다하였고, 1945년 10월 공산주의자들은 다른 곳으로 옮겨 갔다.

그 후 유 박사는 이 건물을 민중병원으로 개조할 생각도 해보았지만, 병원을 세워 민중을 구료하는 것은 일시적인 치료에 지나지 않지만, 민중의 무지를 영원히 고칠 수 있는 길은 역시 교육에 있다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훗날 유 박사는 당시의 심경을 다음과 같이 회고하였다.

> "배고픈 사람에게 한 마리의 물고기를 주면, 그 사람은 하루를 먹고 견딜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물고기를 잡는 방법을 가르쳐 주면, 그 사람은 자기의 힘으로 고기를 잡아서 일생을 잘 살 수 있습니다.
>
>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유산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물질적인 재산이나 금전은 아닙니다. 자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자주독립의 정신과 능력을 키워 주는 것입니다. 즉 자기 갱생의 힘을 키워 주는 것입니다.
>
> 그러므로 우리가 후손들에게 남겨 주어야 할 최고의 유산은 바로 교육입니다. 우리가 지난날 겪었던 개인적이거나 국가적인 불행과 고난을 다시 겪게 하지 않는 것이 현세대의 우리에게 부여된 의무이자 명제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2) 건국의숙의 개설

유 박사는 조국이 다시는 불행한 운명을 밟지 않고, 자유 · 민주 · 번영을 누릴 수 있는 길은 오로

지 참된 복지문화 국가를 건설하는 데에 있다고 생각하였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선도적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사업이 우선적으로 요구된다고 판단하고, 이를 위해 자신의 여생을 바치기로 결심하였다.

이러한 결심이 서자, 유 박사는 우선 '강습소(講習所)' 형태로라도 시작키로 했다. 교육기관을 설치하려는 경우, 일제의 '사설 학술강습소 설치에 관한 법률'을 따라야 했기 때문이었다. 유 박사는 강습소의 이름을 짓기 위해 고심하였다. 어린 시절 선친을 따라 만주 벌판을 헤맬 때에 겪은 '나라 잃은 슬픔'을 되새겨 보았다. 또 1931년 1월 5일 서울역에 도착하였을 때 "내가 조국을 위하여 무엇인가를 이루지 않고서는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겠"다고 맹세했던 순간도 떠올려 보았다. 그리고 해방의 혼란과 무질서 속에서 나라를 세우기 위해 애쓰는 모습들도 생각해 보았다.

그리하여 민족국가 건설을 짊어질 새로운 인재를 양성하려는 유 박사의 집념은 '건국의숙(建國義塾)'의 설립으로 귀결되었다. 8월 어느 날 '조국의 밤' 축하행사가 열리던 밤, 상허 선생은 몇몇 동지들과 함께 '대학설립 준비위원회'를 결성하였고, 10월에 '사설강습소' 형태로 건국의숙의 설립이 인가되었다. 상허 선생은 당시의 상황에 대해

> "일제의 기반(羈絆)에서 벗어나 해방(解放)의 감격이 무르익던 때였습니다마는, 다른 한편 정치적 혼란이 파생됨으로서 민족 장래에 뜻하지 않은 암운이 가로놓여짐을 간과할 수 없는 때이기도 하였습니다. 이때에 있어 우리들 몇몇 동지들은 일제의 독소를 소탕하고 민족의 영원한 행복을 가져다 줄 기본적인 토대는 오로지 교육, 특히 중견지도층을 양성할 대학교육임을 통감"(「개교 12주년 기념사」, 『政大』 1958년 5월 15일)

하여 건국의숙을 설립하게 되었다고 회고하였다. 해방 후 우리민족이 직면한 '근대 국가 건설'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달성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써 국가건설의 동량이 될 인재를 양성하는 근대적 교육기관의 맹아로써 '건국의숙' 개설이라는 첫발을 내디뎠던 것이다. 같은 맥락에서 상허 선생은

> "나는 여러 선배동지들과 논의한 끝에, 우리가 겪어야 할 근대화 과정 내지 과학국가(科學國家) 건설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선행조건이 지도적 역군의 양성임을 통감하고 우선 그 첫 출발로서 전기(前記) 학관(조선정치학관을 가리킴)을 개설하였던 것입니다."(「개교 17주년 기념사」, 『建大新聞』 1963년 5월 10일)

라고 회상함으로써, 그가 구상한 근대국가의 모습이 '과학국가'였음을 시사하였다. 이는 "우리 몇몇 동지들은 일제의 독소를 소탕하고 민족의 영원한 지향을 심각히 논의한 끝에, 그 길은 우리의 이지러진 민족성을 진실하고 용감하고 부지런하게 바로잡는 동시에, 그 위에 과학(科學)과 기술(技術)의 무장을 갖추도록 하는데 있다는 결론을 얻게 되어, 그 첫 출발로서 건국의숙(建國義熟)을 세웠던 것"(「개교 18주년 기념사」, 『建大新聞』 1964년 5월 15일)이라는 또 다른 회고로 확연해진다.

> "오늘은 제군에게 건국대학교의 창립과 오늘까지에 이른 이야기 하나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1945년 우리나라가 일제(日帝)의 쇠사슬에서 해방되던 그날 저녁 8시경 어느 요리집에서 저녁식사를 나누던 자리에서부터 이야기의 실마리가 시작됩니다. 그 자리에는 33인이시던 분도 있었고, 여러 우리나라 지도층의 분들이 있었습니다. 이때 우리들이 이야기를 나누는 가운데 "다시 찾은 조국을 어떻게 하며는 다시는 잃지 않고 길이길이 보존해나갈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이 초점이 되었습니다. 무력(武力)으로나 과학(科學)으로나 여러모로 생각해 보았지만, 우리나라가 살 길은 새로운 역사의 주인공들을 길러냄으로서 세계문화에 기여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하는 데만 희망이 있다고 결론짓게 된 것입니다. 자손만대에 다시는 억울한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들은 그 결심을 굳게 했던 것입니다."(「1962년 입학식 이사장 고사(告辭)」, 『建大新聞』 1962년 3월 24일)

11월 서울시 종로구 낙원동 282번지에 소재한 붉은 벽돌 3층 건물(옛 서북학회 건물, 현재의 상허기념관 및 박물관)에 건국의숙이 개설되었고, 유 박사 스스로 교수로 인재 양성에 착수하였다. 그리고 뜻있는 청년들을 모아 사회의 지도층 인사들과 명사들의 초청특강을 개최하였다. 강사 중에는 대한민국임시정부 부주석 김규식(金奎植) 박사 · 조정환(曺正煥, 전 외무부 장관) · 최남선(崔南善) 씨 등 명사와 기타 미군정 고위관부들이 포함되어 있었으며, 학생들은 약 30명이었다.

이렇듯 건국의숙은 새로운 '민족국가 건설'이라는 해방정국기의 시대적 과제를 배경으로, 민족국가 건설의 대들보 역할을 할 수 있는 '건국 일꾼'을 양성하기 위하여 설립되었지만, 운영자금을 포함한 재정적 곤란이 문제였다.

유석창은 대인관계가 폭넓은 지우(知友) 옥선진(玉璿珍)의 소개로 이증회(李曾會)라는 인물을 소개받았다. 이증회는 일제강점기에 반도호텔 사장인 일본인 노구치(野口)와 친해, 그의 비호 하에 전국의 삼림을 벌채하여 치부한 인물로, 일제가 패망하자 사회적 배경을 상실하게 되고 주위로부터 '친일파(親日派)'라는 지탄을 받기에 이르렀다. 이에 옥선진이 그에게 친일재산을 교육사업에 희사함으로써 친일파의 낙인을 면하도록 권하였고, 이에 이증회는 40만원을 옥선진을 통해 건국의숙에 기증하였다.

이로써 건국의숙 운영의 어려움을 가까스로 면할 수 있었지만, 미군정 통치체제하에서 시간이 흐르면서 친일파의 준동이 고개를 들게 되면서, 이증회도 건국의숙에 희사한 돈에 대한 집착이 되살아나, 일제 강점기부터 써 먹던 불량배를 동원하는 등의 수단을 동원하여 상허 선생을 괴롭히기 시작했다. 상허 선생은 어떠한 어려움을 겪더라도 하루빨리 이 돈을 갚아야겠다고 생각하고, 가회동 소재 자택을 은행에 담보로 잡히고 또 여기저기서 사채를 얻는 등의 방법으로 40만원을 되돌려 줌으로써, 이증회의 공갈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다.

이후 건국의숙은 조선정치학관(朝鮮政治學館, 1946. 8. 29)과 조선정치대학관(朝鮮政治大學館, 1948. 5. 15)을 거쳐, 국가건설의 주역이 될 '정치 일꾼' 양성을 자임한 정치대학(政治大學, 1949. 9. 9), 그리고 건국대학교(建國大學校, 1959. 2. 26)로 발전하였다.

5
재단법인 정치학원의 설립과 운영

1) 조선정치학관의 설립

이렇게 '건국의숙'이 개설되었으나, 당시 동 건물을 둘러싼 사정은 해방 후의 사회 혼란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었다. 즉 공산당이 이 건물을 불법 점거하고 있었으며, 한국민주당도 여기에서 창당 사무를 보고, 결당 후에도 계속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었다.

유석창 박사는 이렇게 복잡하게 얽혀 있던 낙원동 건물에 입주해 있던 여러 단체 · 기관들을 모진 고심과 성의 어린 노력 끝에 1946년 1월까지는 모두 철수시키고 1946년 2월 15일 조선정치학관 개설 신청을 경기도지사에게 제출하기에 이르렀다.

그해 5월 15일 조선정치학관을 개관하였다. 이어서 8월 29일 경기도지사로부터 조선정치학관의 개설이 승인되었다. 개설 인가 신청서에 따르면, 조선정치학관의 설립 목적은

> 조선의 중견남녀에게 정치 및 사회에 대한 학술을 주로 교수하며, 동시에 조국의식(祖國意識)의 함양 및 인격의 도야에 치중하여, 장래 조선의 지도자(指導者)로서의 역할을 다하기에 족할 만한 동량(棟梁)의 재(才)를 연성(硏成)할 것을 목적으로 한다. …
>
> 우리 정치대학관은 이 사관(士官)을 기르기로 자임하는 것이니, 이들은 정치상으로 보면 주도부대(主導部隊) 배양이요, 군사상으로 보면 사관 양성이다. 이러한 일꾼은 높은 정치과학(政治科學)을 연찬하는 동시에, 국민의 시범이 될 인격(人格)의 수련을 겸하여야 한다.

는 것이었다. "장래 조선의 지도자(指導者)"로서, "정치과학(政治科學)을 연찬하는 동시에, 국민의 시범이 될 인격(人格)의 수련을 겸한 '사관(士官)'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하는 일이 설립목적이었던 것이다. '정치학관'이라는 이름은 유석창 박사가 한국민주당 창당 업무 과정에서 여러 정치인들과 접촉하는 가운데 "정치다운 정치를 할 수 있는 인재가 있어야 하겠다"고 느꼈기 때문이었다. 그리하여 그가 꿈꾸던 '산업과학국가'와 '복지문화국가'를 건설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정치사관(政治士官)'을 양성한다는 뜻에서 '조선정치학관'이라고 이름 지었던 것이다.

명칭만으로 보더라도, 해방정국기의 '근대민족국가 건설'에 대한 뜨거운 관심과 열기를 배경으로

1946년 조선정치학관 야간 법과 입학기념

조선정치학관이 설립되었음을 느낄 수 있다. 해방된 조국의 진로와 내일에 대한 걱정과 열정으로 가득 찼던 상허 선생이 직접 정치무대에 뛰어드는 대신, 교육을 통한 '건국인재' 양성 쪽으로 가닥을 잡았음을 알 수 있다.

후일 상허 선생은 조선정치학관을 설립하게 된 동기를 다음과 같이 회고하였다.

"몽매에도 잊지 못하던 조국이 천우신조로 드디어 광복(光復)은 되었다. 환희는 겨레의 가슴에 마다 벅찼고 환호는 조국강산에 넘쳐흘렀다. 그러나 뜻밖에도 다시 찾은 조국은 어려운 까닭이 많다. 당면한 난관들도 극복하여야 하겠거니와, 백년대계의 건국방안을 세워 조국안전의 보장책도 실천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나라는 지정학적으로 보아서나 역사적 관련으로 볼 때, 병력(兵力)과 부력(富力)으로서는 도저히 타국을 능가할 수 없다.

그러므로 우리 겨레와 나라로 하여금 우리의 천부의 재능과 슬기를 최고도로 발휘시키는 과학과 기술로서 현대적 문화국가(文化國家)를 만드는 동시에, 역사적으로 결함을 가진 민족성을 개조하여 참되고 무언(無言)히 부지런한 민족으로서, 덴마크나 스위스같이 자력 자활(自力自活)하는 아담한 국가로 육성함으로써, 조국과 인류문화에 이바지하겠다."〔'훈육(薰育) 오십년 – 유석창 박사(劉錫昶博士): '건대(建大)' 세운 숨은 기둥', 『동아일보』 1961년 11월 17일〕

"나는 여러 선배동지들과 의논한 끝에 우리가 겪어야 할 근대화 과정 내지 과학국가 건설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선행조건이 지도적 역군의 양성임을 통감하고 우선 그 출발로서 조선정치학관을 개설하였던 것입니다."〔『건대신문』 147호, 1963년 5월 10일〕

"해방된 이 땅 위에서 다시는 불행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 성신의의 교시 아래 진실하고 부지런하고 용기 있는 국민성, 아름다운 문화, 과학 하는 생활, 바른 정치, 고루 번영하는 경제의 씨를 가꾸고 그 지도적 역군을 기르기 위하여 조선정치학관을 창립 개교했다."〔『건대신문』 236호, 1966년 5월 15일〕

"1969년 개교 건국대학교 20주년 기념사에서, 상허 선생은 "돌이켜 보면, 1946년 봄 본인이 뜻을 같이 하는 교육동지와 더불어 본교를 창립한 것은 해방된 조국이 다시는 불행한 전철을 밟지 않고 영구적인 자유 · 민주 · 번영을 누릴 수 있는 참된 문화국가를 건설하기 위해서 였습니다"라고 했다."〔『건대신문』 312호, 1969년 5월 13일〕

이로 보면, 상허 선생이 세우고자 한 국가의 형태는 '문화국가'이고, 이를 위해서는 과학과 기술 능력과 참되고 말없이 부지런하게 자신이 맡은 바에 온힘을 쏟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생각이었다. 해방된 조국이 불행한 전철을 밟지 않고 자유 · 민주 · 번영을 누릴 수 있는 길은 오직 '산업과학국가'를 거쳐 참된 '복지문화국가'를 건설해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그 초석이 될 지도적 역군을 육성해야 하고, 그 같은 애국충정에 근거하여 조국광복과 함께 건국대학교의 전신인 건국의숙 · 조선정치학관 등을 창립했음을 알 수 있다.

조선정치학관의 초대 학관장에는 유석창 박사가 취임하였고, 학감에 김정실, 교무 · 서무 · 회계에 유봉성 씨가 임명되었다. 그러나 유석창 박사의 목표는 정식 대학을 설립하는 데 있었다. 그리하여 유석창 박사는 대학설립을 위한 재단 조성에 전념하기 위하여 바로 학관장 직을 사임하고, 1946년 6월 1일 후임 학관장에 옥선진 씨가 취임하였다. 1946년 11월 30일에는 '건국의숙' 이래 '조선정치학관' 개관 업무에 큰 공을 남겼던 유봉성 씨가 사임하고, 12월 1일자로 송두용(宋斗用) 선생과 정종실 씨가 교무와 회계를 맡았다.

1947년 3월 31일에는 학감을 맡았던 김정실 선생이 사임하였고, 1947년 8월 31일에는 2대 학관장 옥선진 선생도 사임하였으며, 9월 1일자로 진승록 선생이 학관장에 취임하였다. 이어서 9월 20일에는 한웅길 · 최활 두 사람이 교수로 부임하고, 한웅길 교수는 학감 보직을 맡았다.

건국대학교의 전신인 조선정치학관의 설립을 논의하기 위한 모임이 열렸다. 1946년 2월 어느 날의 일이었다. 종로 2가 현재의 YMCA 회관 2층 민중병원에서, 민족지도자 48인 중 한 사람인 강기덕 선생님

과 유석창 박사님, 영어에 능통한 옥선진 선생님, 민법학자 김 모 선생님, 그리고 유석창 박사님의 친구 두 명 등 총 6명이 질곡에 빠진 한민족 청년들을 교육시켜 해방된 조국을 이끌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대학 설립을 결의하였다. 이들은 조선이 일제의 지배를 받은 것은 제대로 배우지 못했기 때문이며, 타국의 지배를 벗어나 독립 자주국가로 서기 위한 선결 조건은 교육이요, 특히 대학 설립이라고 생각하였다. 새로운 대학을 설립하기 위해서, 유석창 박사님은 민중병원을 신축하려고 매입했던 낙원동 건물을 내놓았다.

이러한 과정들을 거쳐서 성균관대학, 동국대학, 중앙대학, 단국대학에 이어, 1946년 5월 15일 드디어 조선정치학관이 설립되었다. 조선정치학관이 '대학'이 아닌 '학관'으로 인가를 받은 것은 재단에 자산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대학이 되기 위해서는 설립기준에 맞는 자산이 확보되어야 했는데, 조선정치학관은 비축해 둔 자산이 없어서, 대학 인가를 받지 못하고 학관으로 인가를 받은 전문학교가 된 것이다. 당시 학과의 체계와 인원은 정치학과 20명, 경제학과 20명으로, 각각 주 · 야간으로 개설되었다.

조선정치학관의 초대 이사장으로는 강기덕 선생님이 취임하였고, 초대 관장으로는 김모 교수가 임용되었다. 설립자이신 유석창 박사님이 이사장이 되지 않은 것은 강기덕 선생님이 북에서 내려올 때, 생활비는 물론,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못해서 당장 기거할 곳도 없었기 때문이었다. 또한 민족대표 48인 중 한 사람이자 유석창 박사님의 선배인 강기덕 선생님을 우대하기 위해서이기도 했다.

강기덕 선생님은 3 · 1운동 당시 학생의 신분으로 독립운동을 하셨던 분이다. 내가 강기덕 선생님을 처음 뵌 것은 조선정치학관 입학식 때였다. 그 분은 키가 5척 정도밖에 안 되는 단신이었으나 다부진 체격을 가지신 분으로 독립투사답게 남을 압도하는 강인한 눈빛을 가지고 계셨다.〔『건국대학교 흘러간 반세기』, 20쪽~22쪽〕

이렇게 대학의 꿈을 실현하기 위한 기반이 어느 정도 갖추어져 가는 중, 뜻하지 않은 재난이 찾아들었다. 단국대학과의 분규였다. 본시 단국대학(檀國大學)이 낙원동 건물에 입주한 것은 1947년 6월이었다. 단국대학의 설립자인 장형(張炯)은 유 학관장에게 잠시 건물을 빌려쓰고 싶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이에 마음이 모질지 못한 상허 선생은 이를 거절하지 못하고, 빠른 시일 내에 이주한다는 조건으로, 본관 건물 지하실과 지층 방 1개를 빌려주었다.

단국대학은 자신의 교사(校舍)를 갖지 못하고, 종로구 이화동에 있는 문교부 인가도 받지못한 배영학관(培英學館) 건물에서 개교하였다. 그러나 이 건물이 워낙 협소하였기에, 낙원동 건물에 세를 들어, 두 군데에서 강의를 하고 있던 터였다.

1947년 7월 24일 상허 선생이 재단법인 조선정치학원과 조선정치대학관의 설립인가 신청을 문교부에 제출할 무렵, 단국대학도 그 재단법인과 단국대학 설립인가를 문교부에 신청하였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해 말 단국대학은 인가를 받았는데 반해, 조선정치대학관은 해를 넘겨 1948년 5월 15일에 이르러서야 문교부로부터 인가를 받았다.

이에 먼저 인가를 받은 단국대학측은 세 들어 있는 낙원동 교사를 빼앗을 목적으로, 1947년 12월 조선정치학관의 학감으로 있는 김정실(金正實)을 단국대학 초대학장으로 데려갔다. '배은망덕(背恩忘德)도 유만부득(類萬不得)이지' 어려운 사정을 헤아려 세를 내주었는데, 이제는 낙원동 교사를 통째로 빼앗아버리자는 음모였다. 김정실은 단국대학측에 막대한 금액을 요구하면서, 조선정치학관 학생들을 유인하여 단국대학으로 편입학시켰다. 학생을 다 빼앗아 버림으로써, 조선정치학관을 소멸시켜 버릴 심산이었다.

당시 조선정치학관의 학생 수는 주야간 합해서 500여 명을 헤아렸는데, 대학 인가가 안 난 정치학관보다는 대학인가를 받은 단국대학으로 옮겨가는 것이 낫다고 생각한 대다수의 학생이 단국대학으로 적을 옮김에 따라 13명의 학생만이 남게 되었다. 이에 정치학관에서는 단국대학측에 낙원동 교사에서 물러나 줄 것을 통보하였으나, 단국대학 측에서는 이를 거부하고 완력으로 저항하기에 이르렀다.

단국대학측은 이전 정치학관 시 학생대표 등을 앞세워 잔류한 13명마저 유인하기 위해 회유를 시도하였고, 이 과정에서 폭력사태도 빈발하였다. 1948년 2월에는 수백 명의 단국대학 학생들이 낙원동 강의실로 쳐들어 왔고, 정치학관 학생들은 이들과 맞서 학교를 지켜냈다. 이러한 경황 속에서 단국대학의 장형 설립자와 김정실 학장은 정치학관 초대 학생회장을 지낸 배강식을 앞세워 유 학관장에게 낙원동 정치학관 건물을 단국대학에 양도하고 단국대학의 이사로 들어 올 것을 종용하였다. 인간적인 배신감과 자신의 꿈이 무너지는 듯한 환멸 속에서 유 학관장은 '생의 좌절을 맛보았다'고 회고하였다.

단국대학으로 학적을 옮긴 500여 명의 학생들은 밤을 새우며 농성을 벌이며 유 학관장에게 포기하도록 강요하였고, 50여 명씩 교대로 가회동 집으로 몰려가 유 학관장과 가족을 협박하였다. 집단시위와 폭행이 난무하는 상황 속에서 정치학관을 사수하는 잔류학생들은 중과부적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낙원동 교사를 사수하였다.

그런데 '조선정치학관'은 전문대학(專門大學) 수준의 정치 · 경제 · 법률 등을 강의하는 관인(官認) 학술강습소였다. 따라서 매년 지방장관의 학술강습소 개설 인가를 받아야 했다. 두 번째 인가는 1947년 8월 29일에 신청하여 11월 28일에 승인되었다. 이번에는 김형민 서울시장 명의로 인가되었는데, 이는 서울시가 경기도로부터 분리되어 중앙직할시로 되었기 때문이었다.

1948년 1월 8일 구자성 씨가 교수로 임명되었으나, 2월 29일 사임하였다. 1월 31일에는 한웅길 학감과 최활 교수도 사임하였다. 2월 5일에는 진승록 학관장이 사임하고, 박승하 선생이 새로 취임하여 1948년 4월 13일부로 학감(교무과장)직을 맡았으며, 5월 1일에는 이복순 씨가 회계업무를 맡았다. 당시의 사회상이 반영되어 교 · 직원의 이 · 취직 현상이 심하였다고 하겠다.

2) 조선정치대학관으로의 발전

조선정치학관이 개설되자 유석창 박사는 이를 발전시켜 정식대학으로서 인가 받는 작업에 착수하였는데, 이를 위해서는 재단법인을 구성하는 일이 시급하였다. 유석창 박사는 학관장 직을 사임하고 재단법인 구성에 진력하였다.

재단법인 설립을 위해서는 먼저 기본재산을 마련해야 했는데, 교육용 교사 및 운동장은 상허 선생 소유의 낙원동 소재 조선정치학관 건물, 기타 연건평 395평과 대지 667평으로 충당할 수 있었으나 수익용 기본재산을 마련하는 일이 과제였다.

상허 선생은 친구 강제동 씨의 주선으로, 황해도 연백의 부호 김상은 씨와 이복실 여사 내외로부터 논 250,117평, 밭 11,044평, 대지 1,652평, 총 262,813평의 토지를 매입하여 이를 기반으로, 1947년 7월 24일자로 '재단법인 조선정치학원'의 설립 인가를 신청하여, 다음 해 5월 15일 재단법인 및 조선정치대학관의 설립을 인가받았다.

이어서 1948년 5월 21일에는 문교부로부터 오하영 대학관장 선임을 인가 받고, 1948년 9월 1일자로 3 · 1운동 민족대표 33인 중의 한 사람인 오하영(吳夏英) 선생이 조선정치대학관 관장에, 신태수 재단 상무이사가 부관장에 취임하였다.

1949년 5월, 조선정치학관 개교 3주년 기념행사에서 김구 선생이 축사를 하고 있다. 이 사진은 공식석상에서의 김구 선생의 마지막 모습을 담고 있어 의미가 깊다. 바로 오른편에는 유석창 박사가 자리하고 있다

1948년 조선정치학관 창립 만2주년 기념 및 조선정치대학관 승격 기념

3) 정치대학으로의 발전

그러나 조선정치대학관은 「대학령(大學令)」에 의거한 4년제 대학과정의 정규학교였으나, 학사학위(學士學位)를 수여할 수 있는 4년제 대학은 아니었다. 대학과정의 정규학교로서 4년제 대학에 준하는 '각종학교(各種學校)'에 지나지 않았다.

조선정치대학관을 대학으로 승격시키기 위해서는 재단의 기본재산을 확충하는 일이 중요하였다. 먼저 신태수(申泰洙) 재단 상무이사는 과거 고창고등보통학교 교장 재직 시 동교의 재단이사로 근무했던 정세환(鄭世煥) 씨와 접촉하여 그가 소유한 토지의 재단 편입 문제를 상의하였다.

당시 농림부에서는 토지개혁 준비를 진행 중이었기에 적지않은 지주들은 소유토지의 처리 문제로 고심하였다. 그리하여 토지를 문교재단에 넣을 경우에는 이중으로 지가증권(地價證券)을 받을 수 있는 법규를 근거로, 답(畓) 240,129평, 전(田) 11,849평, 대(垈) 250평, 임야 264,630평, 유지(溜池) 내지 기타 토지 2,679평, 계 519,537평, 총평가액 31,607,825원이 추가로 재단 재산으로 편입되었다.

당시 상황에 정통한 한 원로동문은 "정세환가의 토지는 재단재산으로 기증받아 대학인가에 기여하였으나, 나중에 정세환 측에서 돌려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지가증권(2,775만원)을 모두 돌려주었다"고 증언하였다.

이와 함께 재단법인이 직영하던 흥국공사(興國公社)의 수익금도 출연하였다. 흥국공사는 유석창 박사 큰 형님의 사위로 재단 감사로 있던 김진호(金鎭浩) 선생이 월남한 후 미군정으로부터 귀속재산을 접수하여 운영하던 중앙목재주식회사(中央木材株式會社)를 개편 창립한 회사이다. 그리하여 1949년 4월 8일 농림부장관으로부터 중앙목재주식회사의 관리권을 허가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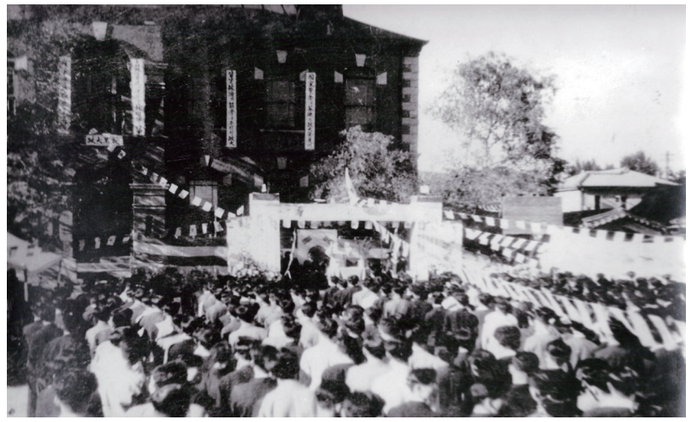
1949년 3월 22일 제7차 이사회에서는 전북 고창군 정계원(정세환 씨의 조부) 씨로부터 입수한 토지 및 경남 합천군 송순용 씨의 임야를 기본재산에 추가하고, 본 법인 직영인 흥국공사의 수익금을 합하여 재단의 기본재산을 확충하고, '조선정치대학관'을 '정치대학'으로 승격시키는 동시에 '재단법인 조선정치학원'을 '재단법인 정치학원'으로 개칭하기로 의결하였다.

'재단법인 조선정치학원'의 초대 이사장에는 강기덕(康基德), 이사에 유석창 · 오하영(吳夏英) · 강제동(姜濟東) · 김상은(金相殷), 감사에 신태수(申泰洙) · 이종규(李鍾奎)가 선임되었다. 그리하여 1948년 12월 2일자로 상임감사 및 부관장에 신태수, 이사에 이종규, 감사에 김진호가 취임하였다. 이어서 1949년 5월 30일에는 재단의 재산 추가와 기부행위 변경 신청을 하여, 1949년 9월 9일자로 문교부의 인가를 받아, 오하영 조선정치대학관 관장이 정치대학장에 취임하였다.

정치대학이 인가받을 때 일화 한 가지를 소개하면, 정치대학의 설립인가 신청서를 홍익대학과 함께 제출하였는데, 홍익대학 설립은 인가되었으나, 정치대학은 반려되었다. 이에 유석창 박사는 모교인 경신학교(儆新學校)측과 합자로 흥농공사(興農公社)를 설립하여 사장에 취임하는 동시에 재단

에 편입시키는 등, 정치대학으로의 승격을 위한 재단재산의 확충에 진력하였을 뿐만 아니라, 안호상(安浩相) 문교부장관을 찾아가 설득시키는 동시에 앞날의 꿈과 포부를 펼쳐 보였다. 이에 안호상 장관이 감복하여 즉석에서 문제를 해결해 줌으로써, 모든 사람을 놀라게 하였다고 한다. 안호상 박사는 정치대학 승격 축하식에도 참석하여 축사까지 해주었으며, 나중에는 출강까지 하며 인연을 이어갔다.

정치대학은 '대한인으로서 교양 높은 지식인을 만들자' '이 나라의 앞날을 바로잡는 지도자를 만들자' '이 나라를 과학의 나라로 만들어 모든 사람을 잘 살게 하는 역군을 만들자'라는 '3대 목표'를 내걸었는데, 이에는 국민들의 정치적 경륜이 부족한 현실을 직시하고 그들의 역량을 배양함으로써 새로운 국가 건설에 이바지하겠다는 건국의숙과 조선정치학관 개설이래의 건학이념을 계승하는 취지



1949년 9월, 정치대학 승격 축하식 광경

1949년 9월, 정치대학 승격 축하식에서 축사 중인 안호상 문교부장관

1949년 9월, 정치대학 승격 축하식에 참석하여 축사 중인 김규식 선생

1949년 9월, 정치대학 승격 축하식에서의 유석창 박사와 오하영 초대 학장

가 담겨 있었다. 같은 맥락에서 상허 선생은 정치대학의 사명으로

> "정치대학은 일찍이 이러한 역사적 운명 속에서 나왔고, 또한 이 운명을 해결하기 위하여 나왔다. 정치대학이란 그 이름부터가 남달리 이 사명을 걸머진 이름이며, 걸머지기 위하여 지은 이름이다.
>
> 정치는 모든 사회현상의 집중적 표현인 것인 만큼, 이 표현을 그 이름에 나타낸 것이며, 정치현상을 중심으로 모든 사회현상을 연구 파악하여 '새 인간' '새 사회' '새 학문'을 발견하여 보자는 데 그 의의가 있다.
>
> 그러므로 우리 대학은 조국과 인류를 위하여 봉사하기에 적응한 자질을 배양하는 데 필요한 모든 지식을 공급하는 한편, 다시 나아가 우리 대학에 부과된 시대적 사명에 대하여 또한 연구와 노력을 쌓고 있는 것이다"〔유석창, 「정치대학의 역사적 사명」, 『政大』 1호, 1952, 9쪽〕

라는 명제를 지적하였다. 정치대학의 초대 학장은 오하영 조선정치대학관 관장, 교무처장은 박승하(朴勝夏), 사무처장은 설린(薛麟)이 임명되었고, 재단법인 정치학원의 초대 이사장에는 상허 선생이 취임하였다.

1949년 12월, 정치대학 학부 2년생 단체 촬영. 2열 좌로부터 10번째 유석창 이사장, 왼쪽 설린 사무처장, 오른쪽 순서대로 오하영 학장, 박승하 교무처장, 송두용 선생

1950년, 정치대학 창립 2주년 기념

(1) 6 · 25전쟁과 정치대학의 재건

1950년 6월 25일 북한의 남침으로 말미암아 28일에는 수도 서울이 북한군의 수중으로 들어가게 되었다. 북한군이 서울을 점령한 후, 북한에서 파견된 새 '교책(校責)'이 임명되어 새로운 체제 편성이 시작되었다. 6월 말경 이병희란 자가 정치대학 교책으로 나타났다. 교책이 부임된 후, 오하영 학장과 유석창 이사장을 비롯한 전임교수들도 거의가 학교에 나오지 않게 되었다. 교책은 1주일 동안 비품을 조사하며, 등교하는 학생들과 교 · 직원들을 상대로 북한정부가 발행하는 신문을 읽어 주는 등 일련의 정치 교양사업을 실시하였으나, 강의는 진행되지 못하였다.

북한군이 서울을 점거한 직후인 6월 29일부터 7월 초순까지에 이르는 약 1주일 동안은 1,000여 명 학생 중 상당수가 학교에 나왔으나, 미군에 의한 폭격이 시작되고, 또 북한군 의용군 모집이 시작되면서 등교하는 학생수가 급격히 감소하였다. 7월 중순부터 의용군 모집이 시작되면서부터는, 대부분의 학생은 학교에 나오지 않았고, 지방출신 학생들의 대부분이 귀향함으로써 학교의 기능은 정지되고 말았다.

전쟁이 발발하자 상허 선생의 가족들은 경기도 화성군 반월면 월암리 부곡에 사는 김계옥 여사의 조카 도승규(都昇圭)의 집으로 피난가고, 상허 선생은 강기덕 선생과 함께 가회동 집 마루 밑 지하실에서 9월 28일 서울이 수복될 때까지 3개월여 동안 은거생활을 하였다.

전쟁 발발로 인해 정치대학이 입은 피해는 실로 컸다. 정치대학의 초대 학장으로 당시 국회의원 신분이었던 오하영(吳夏英) 선생과 설린(薛麟) 사무처장을 비롯한 직원 10여 명이 납북 또는 행방불명되어 버렸다. 이와 함께 황해도 연백에 있는 재단 소유의 토지가 '미수복지구(未收復地區)'가 되어 버렸다. 불행 중 다행으로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낙원동 교사가 피해를 입지 않았고, 학교와 재단의 각종 서류가 잘 보관되었다. 이외에 이대위 · 신태수 · 이종규 · 김진호 · 박승하 · 송두용 등의 중진과, 백찬수 교수를 제외한 대부분의 전임교수 및 직원들도 무사하게 9 · 28 수복을 맞이할 수 있었다.

서울을 되찾았으나 대부분의 학생과 교수 · 강사 · 직원들이 각지로 흩어졌으므로, 정상적인 운영은 불가능하였다. 유석창 이사장, 신태수 이사, 박승하 교무처장 등은 학교 재건의 방안에 고심하였고, 1950년 11월 1일 상허 선생이 학장 서리에 취임하였다. 그러나 중국 인민지원군의 참전으로 압록강 · 두만강까지 진격했던 국군과 연합군은 다시 남하하기에 이르렀고, 1951년 1월 4일에는 또다시 서울을 북한군에 내주었다. 이에 송두용(宋斗用) 교무과장은 정치대학의 학적부를 비롯한 대학 및 재단의 주요서류를 부산으로 옮겼고, 이후 우리대학은 전시수도 부산에서 피난생활의 둥지를 틀었다.

또다시 피난길에 오른 상허 선생과 신태수 · 김진호 선생의 세 가족은 부곡으로 피난하였다. 이곳에서 실명 상태에 있던 상허 선생의 어머님이 돌아가셨고, 이후 부곡에서 동주골로, 다시 부곡으로

왔다가 수원으로 전전하는 유랑민 생활을 해야 한 상허 선생 가족의 처지는 말이 아니었다. 김계옥 여사가 산에 올라 땔감 나무를 줍고, 마당에 호박을 심어 연명해야 하는 딱한 사정이었다.

상허 선생은 약사인 처남 김세행(金世行)의 도움을 받아 수원에 흥국약업사(興國藥業社)라고 하는 약국을 개업하였고, 다시 부산으로 내려가 개강 준비를 하고 있는 송두용 · 박승하 선생 등과 합류하였다. 이후 이 약국은 '정치대학 수원임시연락사무소'(1951. 10), 이어서 '재단법인 정치학원 수원임시연락사무소'(1952. 4)의 간판을 내걸고, 전시 중간거점 역할을 하였다.

(2) 정치대학 부산 연락사무소와 임시 야간대학 설치

1951년 1월 4일 서울을 공산군에게 내 줌에 따라, 상허 선생을 비롯한 학교지도부는 교직원과 학생회 간부들에게 약간의 피난경비를 나누어 주고 헤어졌다. 1950년 12월 19일 교무 직을 맡고 있던 송두용 선생은 학적부 등 학교의 중요 서류를 고리짝에 넣고 자동차 편으로 대구에 도착하였고, 이듬해 3월 5일 부산으로 피난하였다.

송두용 선생은 서대신동의 신흥여관(新興旅館) 앞에 있는 친척 김순순(金順淳)집에 기거하며, 3월 중순 서대신동 1가 60번지 친척집의 일부에 '정치대학 부산연락사무소'를 설치하고, 이방엽 전 사무처장을 수원에 있는 상허 선생에게 보내 제반 문제를 협의토록 했다. 상허 선생은 당시 부곡에 머물고 있던 신태수 선생을 부산으로 내려 보냈고, 4월에 부산으로 내려온 신태수 선생은 송두용 선생 및 당시 제15육군병원 군의관으로 근무하던 이종규(李鍾奎) 선생과 함께 개강 준비에 착수하였다. 이어서 8월에는 상허 선생도 부산으로 내려와 합류하였다.

연락사무소가 설치됨에 따라 교직원과 학생들 간의 연락이 어느 정도 가능해졌다. 그러나 찾아오는 학생 수가 적었을 뿐 아니라 그 나마 학과와 전공이 달랐다. 여기에 교수나 강사가 매우 부족하여 당장 강의를 시작할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었다.

이에 더하여 1951년 여름은 중공군과 북한군의 이른바 하계공세로 말미암아 38°선 근처에서 치열한 전투가 되풀이되던 때였기에, 대부분의 남학생들이 입대하고 소수만 후방요원으로 남아 있었다. 강의를 시작하기에는 여러모로 여건이 갖추어지지 않았다. 정치대학 연락사무소에 찾아오는 정치대학 학생들에게는 전시연합대학에서 청강하도록 권유할 뿐으로, 이렇다 할 대책을 세우지 못하는 형편이었다. 그러나 정치대학 재학생 중 전시연합대학에서 청강한 학생의 수는 많지 않다.

이런 상황에서 문교부를 왕래하며 개강에 필요한 제반 절차를 마무리한 끝에, 1951년 9월 서대신동 피난민 국민학교에서 강의를 재개하기에 이르렀다. 당시 서대신동에는 불에 탄 부산형무소 관사 자리에 세워진 피난민 국민학교가 있었는데, 이곳에 가교사 3개 동을 얻을 수 있었다. 초등학교 측에 대형 군용천막 3개를 사주고, 그 대신 국민학교 수업이 끝난 후인 오후 6시부터 6~7평짜리 판자 교실 3개를 사용하기로 했다.

1952년 11월, 정대 졸업생들과 기념사진 촬영을 한 유석창 학장

1951년 9월 처음 수업을 시작할 때는 입학생이 18명, 재학생이 172명이었다. 재학생의 대부분은 서울에서 다니던 학생들이 아니고, 피난지 부산에서 새로 들어온 학생들이었다. 이처럼 야간에 강의를 하게 됨에 따라, 직장을 가진 재학생과, 또 직장에 다니며 학교에 나가 공부하고자 하는 신입생들이 정치대학을 찾았다. 한 학기 후에는 학생 수가 4~500여 명에 달하였고, 이듬해 봄에는 서대신동 구덕산 기슭에 본격적인 가교사를 건설하였다.

교수진은 대부분 부산에 와서 재편성되었는데, 1951년 10월 1일자로 송두용 선생과 원용명 선생이 각각 전임강사 및 교수로 임용되었다. 또 이범호 · 정범석 · 한태수(韓太壽) · 이영협(李英俠) · 이흥배(李興培) · 최경천(崔慶天) · 구병수(丘秉洙) · 배종호 · 박승하(朴勝夏) · 조옥벽 선생 등이 강의를 맡아 주었다. 또 속강에 발맞춰 학장에 유석창 학장서리, 이사장에 신태수, 신임이사에 김봉일(金奉日) · 송순용(宋順用) · 이상문(李相文)을 선임하였다.

반년여 동안의 피난민 국민학교 교사를 사용하던 시기에는 오후 6시에 시작하여 80분 간 3강좌를 강의하였다. 학과는 정치외교학과와 경제학과 2개였다. 그러다가 1951년 12월 21일자로 '문고 제1288호'로 개편 인가를 받아, 법학과 · 행정학과 · 정외과 · 경제학과 4개로 증설되었다.

1951년 9월 19일에는 부산으로 피난 온 이래 처음으로 이사회를 열고, 오하영 학장의 납북으로 학장서리로 있던 유석창 박사가 학장으로, 신태수 이사가 이사장에 선임되었다. 11월 15일에는 서대신동 소재 '정치대학 연락사무소'에서 다시 재단이사회가 열렸다. 제18차 이사회에서는 '교육법 시행에 따르는 대학 · 초급대학 개편에 관한 인가 신청의 건'을 심의, 문교부에 제출하였다. 그 결과 12월 21일자로 신청안의 대강이 인정되어, 정경학부에 정치외교학과와 경제학과를, 법학부에 법학과와 행정학과가 설치되었다.

한편 1951년 12월 21일자로, 새로운 교육법 시행에 따라 정치대학 직제를 고쳐, 학장 밑에 교무처와 사무처를 두었고, 교무처 안에 교학과와 학생과를, 사무처에 서무과와 사서과를 두었다. 또 각 학과에는 과장을 두기로 하였다. 그러나 전시 피난지에 있는 사정으로 인해 교무처가 제반 업무를 통합하여 관리하였다.

1952년 4월 구덕산 기슭의 가교사로 이전한 이후에는, 학생 수가 1,000여 명으로 증가하였는데, 여기에는 전시 상황이 다소 완화됨에 따라 대학생들에게는 징집이 보류되는 조처가 실시되었기 때문이었다. 즉 1951년 5월 4일 '문교부령 제19호'로 발표된 '교육에 관한 특별조치령 제14조'에 의해, 학생들에 대한 강제 입대 조치가 다소 완화된 데 뒤이어, 1952년 2월에는 국방부 · 문교부 · 서울대학교의 3자 합동연석회의에서 대학생에 대한 징집 보류를 합의하게 됨으로써, 같은 해 5월 27 · 28일 소집된 전국 대학장 회의에서 정식으로 시달되었다.

그런데 피난민 국민학교를 이용한 야간대학의 운영은 발전을 거듭하여, 이듬해인 1952년 4월 5일에는 학부 제1회 졸업식을 거행하게 되었다. 졸업생은 148명이었다. 졸업식에 앞서 정신무장을 진작시키기 위해 송도에 있는 공무원훈련원을 빌려 졸업예정자 전원을 수용하고, 며칠 동안 특별교육

구덕산 피난교사 시절

1953년, 정치대학 제2회 졸업기념(부산 서대신동 구덕산 기슭의 가교사)

을 실시하였다.

졸업식은 4월 5일, 부산시청 앞에 있는 '부민관'이라는 극장을 빌려 성대히 거행하였다. 졸업생 148명 중에는 서울 시기부터 다닌 학생도 일부 있었으나, 부산에서 입학한 학생들이 다수였다. 졸업생의 구성도 다양하여, 비교적 나이 많은 학생들이 많은 것이 특색이었다. 또 대부분이 직장을 가졌고, 직장의 종류도 다양하였다. 어쨌든 정치대학의 제1회 졸업생들은 서울 낙원동 교사는 가보지 못하고 졸업의 영관(榮冠)을 쓰게 되었던 것이다. 신익희(申翼熙) 선생과 안호상(安浩相) 박사는 축사로 졸업생의 장도를 축복해 주었다.

이어서 1952년 4월 1일자로 박승하 선생이 교수 겸 부학장에 임명되었고, 정범석 씨와 조옥벽 씨가 조교수 및 전임강사에 임용되었다. 또 5월 22일자로 김상민 · 윤형묵 · 정성흠 씨가 교무주임 · 학생주임 · 회계주임에 임명되었다. 그리고 김연수(金延洙) 씨가 수원의 연락사무소에서 근무하였다. 또 조옥벽〔자연과학개론〕, 이기홍〔李氣鴻, 농업정책〕, 이영협〔경제사〕, 한태수〔정치학개론〕, 원흥배〔元興培, 논리학〕, 성창환〔成昌煥, 경제원론〕 교수 등이 강의를 맡았다. 10월 1일자로 송두용 선생이 조교수 겸 교무과장에 임명되었다.

그런데 학생들이 늘어남에 따라, 학생들을 수용할 수 있는 새로운 교사의 신축이 당면과제로 떠올랐다. 하지만 피난지에서 대규모 가교사(假校舍)를 신축하는 일은 쉬운 게 아니었다. 우선 학교 부지를 마련하기 위해 서대신동 소재 구덕산 기슭에 있던 부산형무소 채소밭을 빌리기로 교섭을 진행한 결과, 부산형무소 간부들의 호의로 약 3,000평의 부지를 확보할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소장 등 간부 7명의 협조로 부지의 정지작업도 마칠 수 있었다. 그리하여 400여 평에 달하는 가교사가 신축되어, 1952년 3월 이전하였다. 이듬해 1953년 3월 25일에는 가교사 대강당에서 제2회 학부 졸업식이 거행되었다.

이로써 정치대학은 부산으로 피난 와 있는 서울의 타 대학에 손색없는 시설을 갖추게 되었다. 지금은 우리대학이 서울에 위치하고 있지만, 이후 초기 졸업생의 상당수가 부산 지역의 유력자로 성장

하여 맡은 바 책무를 다 하였음에는 이와 같은 상황이 배경으로 작용하였다고 하겠다.

(3) 환도 후의 정치대학 운영

피난지라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 자력갱생의 노력을 펼치고 있는 사이, 1953년 7월 27일 휴전이 성립되었다. 서울시민들은 앞 다투어 상경열차에 몸을 실었고, 서울에서 내려왔던 대학과 중고등학교들도 짐을 꾸리기 시작하였다. 정치대학도 어렵게 마련한 가교사를 등지고 상경 길에 올랐다. 1953년 8월 20일의 일이었다.

이에 앞서 전세가 다소 호전되는 기미가 보이자, 1953년 2월 상허 선생은 가족을 이끌고 서울 가회동 집으로 돌아왔다. 4월 상허 선생은 종로 2가의 민중병원에 '정치대학 서울분교'를 설치하고, 김연수 · 설완〔薛完, 설린의 아들〕 등과 함께 20여 명의 학생을 기반으로 개강을 서둘렀다. 당시 낙원동의 정치대학의 교사(校舍)는 101헌병대가 징발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다가 7월 27일 휴전협정이 체결되고 101헌병대가 철수함에 따라, 8월 27일 정치대학은 2년 9개월 만에 낙원동 교사로 복귀하였다. 상허 선생의 나이 54세 때의 일이었다.

낙원동 교사는 다행히 제대로 보존되고 있었으나, 주변은 폭격으로 폐허처럼 변해 있었다. 당시 정치대학의 본관은 낙원동 옛 서북학회(西北學會) 건물인 붉은 벽돌집이었고, 이와 함께 60평 정도의 낡은 단층 건물과, 도서실로 사용하는 목조 가건물이 한 채 있었다. 붉은 벽돌집의 본관 건물은

1955년, 개교 9주년 기념 야유회(동구릉, 중앙에 유석창 박사, 오른쪽 바로 옆 신태수 이사장, 아래 송두용 교무처장 등)

비잔틴 양식으로, 2층에는 강의실이 두개 있었다. 1층은 학장실 · 교수실 · 교학처 · 사무처 등으로 사용하였다.

환도 직후의 직제를 보면, 학장 유석창 박사는 유임하였고, 1950년 6 · 25전쟁 이전에 부학장으로 재임한 바 있던 박승하 교수는 한동안 교직을 떠났다가, 1952년 4월 1일자로 부학장으로 복직하였다. 그는 1956년 3월 31일 부학장직을 물러났다. 교무처장에는 송두용 선생이 유임하여 환도 후의 복잡한 교무 일반을 처리해 갔다.

그런데 1955년 봄 임시2부를 개설한 후부터는 교무처장의 업무량이 폭주하였을 뿐 아니라, 병사(兵事) 문제 · 학생들의 기강 확립 문제 등 현안이 많이 쌓여, 학생처(學生處)를 설치키로 하여 1955년 10월 1일자로 조일문 선생이 학생처장으로서 관련 사무를 전담케 되었다.

이렇게 종합대학으로의 발전을 위해 고심하는 한편, 학생들과의 소통과 친화를 위해서도 무던히 애를 썼다. 1955년 9월 19~20일에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주요 내용은 교과과정, 교 · 강사에 대한 비판, 학교 운영에 대한 의견 등으로써, 학생들의 바람과 요구를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수렴함으로써 이를 학교 발전의 원동력으로 삼고자 하는 취지였다.

그리하여 여론조사의 결과를 토대로, 1955년 10월 14일 상허 선생은 학장실에서 박승하 부학장이 배석한 가운데 인터뷰를 갖고, 신학기를 맞이하여 학생들에게 인간의 지고선(至高善)인 가치적 생활을 제고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제하면서, "이성적 의식이 없는 동물적 생활을 지양하고, 과학 · 철학 · 윤리 · 도덕 등의 제 부문에서 가치적 생활을 앙양 실천할 것"을 지적하였다. 이어서 그는

> "단과대학과 기타 학교기구의 설치는 명목상의 대학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세(來世)의 한국에 보다 나은 경제적 자립과 사람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문화적 생활을 지도하고 지도적 인물을 배양하는 데에 진의(眞意)가 있으며, 이와 같은 목표는 외형보다 내면에 충실하려는 것으로서 불변의 본교의 전통이요, 교기(校基)가 될 것이다. …"
>
> "학문의 본래 목적은 지행일치(知行一致)인 만큼 배운 것을 그대로 실천에 옮겨 협동정신을 함양하고 민주주의적 제 생활을 체득시켜, 작게는 내 자신의, 크게는 국가 · 사회 전체의 복리를 증진시켜야 되며,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지혜와 용기로써 환경을 스스로 조정하여 최소한의 노력으로 최대의 효과를 성취하기에 일로 탁마(琢磨)하여 성 · 신 · 의의 교훈에 합치시킴은 물론, 더 나아가서 '홍익인간(弘益人間)'이란 교육이념에 귀일하도록 각고면려(刻苦勉勵)해야 한다."

고 강조했다.

또 1956년 4월 21일 정릉 청수장에서 개최된 교 · 강사 간친회 석상에서, 유석창 학장은 '우리대학교육 3대 목표'로 '교양 높은 지식인을 만들자' '이 나라 앞날을 바로잡는 지도자를 만들자' '이 나라를 과학의 나라로 만들어, 모든 사람을 잘 살게 하는 역군이 되게 하자'는 아젠다를 제시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4대 방침'으로 첫째, 70%의 생산교육과 30%의 인간교육을 베풀 수 있는 충분한 시설과 환경 내지 분위기를 조성한다. 둘째, 훌륭한 교수진을 망라한다. 셋째, 우리대학 교육과 동시에 국민 전체의 새로운 지식과 생활 능력을 부여하기 위한 성인교육을 지도할 수 있는 지도자 교육을 병행할 것 등을 제안하였다.

이와 같은 3대 교육목표와 4대 실천방침을 세우고, 학교 간부와 이사들이 학생간부들과 접촉하여 그들의 여론을 청취하는 '상간회(相看會)'라는 모임을 열게 되었다. '상간회'란 문자 그대로 '서로 만나 본다'는 뜻에서 나온 말이지만, 학생들의 동태 · 사상 · 요망사항을 청취 분석함으로써 효율적인 학생지도 방법을 강구해보자는 의도였다.

1956년 6월 10일에는 학도호국단 간부와 각 학회 간부 60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릉에서 회합을 갖고, 1957년 5월 18일 자하문 밖 숲 속에서 제2차 모임이 열렸으며, 이후에도 모임이 서너 차례 더 지속되었다.

한편 상허 선생의 관심은 정치대학을 종합대학으로 승격시키는 데 집중되었다. 종합대학 승격을 위해서는 '종합대학 설치기준령'에 부합하는 교지와 교사를 확보하는 일이 급선무였다. 낙원동 교사는 종합대학은커녕 정치대학의 설치기준에도 못 미치는 것이 현실이었다. 상허 선생은 새로운 교지를 물색하기 위해 회기동으로, 보광동으로, 뚝섬으로, 장안동으로 동분서주하였다. 그 결과 장안동에서 현재의 캠퍼스를 발견하기에 이르렀다. 후일 상허 선생은 당시의 일화 한 토막을 다음과 같이 술회하였다.

> "하루는 하도 헤매고 다니다가 기진맥진하여 보광동 언덕으로 내려가는 길목에서 잠깐 쉬고 있노라니, 어떤 처녀 두 사람이 올라오고 있었다. 그때 그곳이 어딘지 몰라 그 처녀에게 여기가 어디냐고 물었다. 그랬더니 그 처녀들이 당신은 어디를 찾느냐고 반문하는 것이다. 나는 정처 없이 찾아다니는 사람이라고 하였더니, 그 처녀들은 얼굴이 빨개지면서 자기들끼리 수군거리는 것이 아닌가. 그때 정말 나는 교지를 찾아서 정처 없이 떠돌아 다녔다고 하는 것이 솔직한 심경이었다. 또 내 외모가 하도 초라해서 그 처녀들이 나를 수상하게 보았던 것 같다. 내가 솔직한 심경을 털어 정처 없이 떠돌아다닌다고 대답한 것을 그 처녀들은 내가 자기들을 희롱하는 것으로만 생각하였던 모양이다. 허덕이면서 방황하던 때의 정경의 일단이다."〔『校誌』 1집, 87쪽〕

나는 유 박사의 부름을 받고 교지 선정 현장 조사차 나섰으니, 현 초등학교 자리인 정릉동과 현 경희대학교 자리인 휘경동을 답사하고, 현 모교 자리인 당시 산업은행 모진농장을 살펴보고 교지를 결정하는 데 참여하였던 한 사람으로서 유 박사의 원대한 꿈을 더듬어 볼 수 있었다고나 할까?〔황조연(건국대학교 원로동문), 「유석창 박사의 유덕을 추모하며」, 『내가 본 상허 유석창』, 2001, 248쪽〕

1955년, 유석창 박사의 장안동 답사

장안동 일대를 새로운 캠퍼스 후보지로 결정한 상허 선생은 곧 매입 작업에 착수하였다. 1955년 1월 8일 제일 먼저 사들인 땅은 지금의 사범대학 자리 2000여 평이었는데, 이를 시작으로 지금의 캠퍼스가 조성되기 시작하였다. 상허 선생을 도와 캠퍼스 자리를 물색하였던 인물은 "현 건대캠퍼스는 쓰레기로 뒤덮인 불모지였다. 교통은 기동차가 겨우 다니는 서울에서 동쪽으로 10리 떨어진 곳이었다. 이사와 그 땅 관계자들은 다 반대하였으나 선견이 있는 상허는 확신을 가지고 그들을 설득하여 매수를 단행하여 넓고 훌륭한 오늘날의 건대캠퍼스를 이루게 되었다."〔이종규(전 건국대학교 부총장), 「상허 유석창 박사 추모사」, 『내가 본 상허 유석창』, 183~184쪽〕고 회고하였다.

1955년 8월부터 정지공사가 시작되어, 이어서 기초공사와 건설공사가 본격화되었다. 재단에서는 '장안동건설위원회'를 설치하여, 상허 선생이 위원장을 맡아 진두지휘하고, 이종규 부위원장〔나중에 지용하〕과 건설위원회 산하 건설사무소의 김봉일 소장, 도승규 건설과장, 박천봉 · 장창기 기사 등이 참여하였다.

"밤은 새벽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겨울은 봄을 위하여 없을 수 없는 하나의 과정일 뿐이다"라는 상허 선생의 심경처럼, 공사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진행되어, 1956년 6월에는 제1교사〔현재의 사범대학 건물〕와 제2교사〔초창기 대학본부로 사용하였으며, 2006년 상허연구관 신축공사로 인하여 철거〕가 준공되었다.

교지를 대학 캠퍼스로 갖추어 나가는 과정에서 상허 선생은 대학 캠퍼스로서 환경 조성을 중시하였다. 나무 한 그루 없이 흡사 불모지와 같은 땅에 꽃과 나무를 심고 호수를 만들어, 젊은 학생들이 자신의 장래를 개척해 나가는 '축복의 땅'으로 만들겠다는 구상이었다. 일감호(一鑑湖)와 와우도(臥牛島), 청심대(淸心臺) · 선화교(仙化橋)로 이어지는 호수 주변으로 난 산책길에는 상허 선생의 바램이 깃들여 있는 셈이다.

이어서 대학본부 건물〔현재의 문과대학〕, 중앙도서관〔현재의 언어교육원〕, 생활관, 학생식당 등이 들어섬으로써 황량하기까지 느껴졌던 장안벌은 대학캠퍼스로서 그 모습을 갖추어 갔다. 상허 선생이 때로는 공사판의 현장감독으로서, 때로는 잡부로서 흘린 땀과 한숨의 결실이었다.

여기에서 1956~1957년 간 장안동 캠퍼스의 건설 상황을 살펴보면 대개 다음과 같다. 1956년 5월 31일까지 연건평 146평 규모의 농원 부속건물 4개 동이 완공되었다. 5월 30일 및 6월 20일에는 현재 사범대학으로 쓰이고 있는 상허연구동 뒤편 건물(연건평 528평)과, 2004년까지 대학원으로 사용된 2층 건물〔상허연구동에 포함, 이전 문리과대학 문학부 건물로 사용, 연건평 392평〕이 각각 준공되었다. 후자는 본 대학 이전 초기에 세워진 건물로서 1956년 10월 낙원동 정치대학이 장안동으로 옮겨 온 직후 한동안 대학본부 건물로 사용되었다.

2층에 학장실과 이사장실 및 교학처장실이 있었으며, 아래층에는 교학처와 사무처가 좌우로 있었다. 강의실은 대부분 현 사범대학 자리에 있었다. 동서의 양끝에 상 · 하층 각각 200~300명 정도를 수용할 수 있는 큰 강의실이 있었고, 1 · 2층에 각 5~6개의 강의실이 있었다. 강의실에서 유리창 너머로 바라보면 넓게 펼쳐지는 전원(田園)과, 군데군데에 서 있는 목가적인 농원(農園) 건물은 한 폭의 아름다운 그림과도 같았다.

이렇게 장안벌의 교지가 캠퍼스로서 위용을 드러내는 사이, 1956년 10월 19일자로 문교부로부터 「정치대학 위치 변경〔文高 제3200호〕 인가를 받아, 1956년 10월 22일을 시작으로 낙원동 교사에서 장안동 캠퍼스〔당시 주소 : 서울특별시 성동구 모진동 93-1〕로 이전을 단행하였다. 낙원동 교사에는 2부대학이 잔류하였다.

이렇게 새로운 캠퍼스 건설 공사 중에도 상허 선생은 대학으로서 갖추어야 하는 연구와 교학기반을 마련하는 일을 소홀히 하지 않았다. 1957년 5월 15일 개교 10주년을 기념하여 『학술지(學術誌)』

1958년 장안동캠퍼스를 방문한 여학생들(낙원동캠퍼스 소속)과 함께 한 유석창 학장. 기념사진은 당시 제2교사로 지어진 대학본부 앞에서 촬영하였다. 사진제공 : 최은자(법학 58, 앞줄 오른쪽 두번째)

장안동 캠퍼스 제1교사(현 사범대학) 건설 현장에서

1집을 발간하였고(이후 매년 계속 발간되었다), 1958년에 들어서는 동방사상연구소(東方思想硏究所)를 설치하였다.

동방사상연구소의 설립과 활동에 대해 잠깐 살펴보면, 우리대학 개교 이래 상허 선생을 도와온 김건(金鍵) 교수가 6.25전쟁 시 부산에서 해군정훈감으로 근무할 때 김범부 선생(金凡父, 본명: 金鼎卨, 소설가 金東里의 맏형, 2대 민의원 및 계림대학 초대학장 역임)을 알게 되었는 바, 이후 김건 선생이 상허 선생을 도와 우리대학 운영에 합류하면서, 상허 선생과 김범부 선생의 인연이 맺어졌다.

당시 이사장의 직위에 있던 상허 선생은 김범부 선생과 만나면서, "우리나라도 강한 나라를 만들어 잘 살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하고자 하는 그의 학문적 경륜에 공감한 바 있어, 낙원동 캠퍼스에 동방사상연구소를 설립하여 그를 소장으로 임명하고, '김범부 동방학(金凡父東方學)' 강좌를 개설하였던 것이다. 주요 강의주제는 주역 · 오행사상 · 풍류사상 · 겨레얼 · 민족사상 · 화랑도정신과 삼국통일 · 동학사상 · 현대문명의 비판 · 불경 강의 · 노장철학 · 한국사상사 · 중국철학사 · 세계종교사 등이었다고 한다. 상허 선생이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지원함에 따라, 당시 정치대학 교수들을 비롯하여, 정치계 · 학계 · 교육계 사회저명인사들이 수강하였다고 한다.(정홍기, 「상허사상의 원류를 찾아서」, 『농업기술회보』 50권 5호, 전국농업기술자협회, 2013. 10, 47~52쪽 참조)

또 1958년 7월에는 '정치대학 학술원'을 신설하고, 초대 원장에 안호상 박사를 초빙하였다. 학술

원은 후일 종합대학으로 승격되면서 '건대학술원'으로 발전하였고, 이어서 1962년 6월 말에는 다시 '학술연구원'으로 확대 개편되었다. 인문 · 자연 · 사회 과학의 3개 부(部)를 두고, 농업연구소 · 국제문제연구소 · 민족연구소를 두었다. 재단 이사장을 맡고 있던 상허 선생이 원장을 겸하였고, 부원장에 신동욱(申東旭) 교수, 농업연구소장에 농사시험연구소장과 충북대학장을 지낸 장영철(張永哲) 교수, 민족연구소장에 김두헌 대학원장, 국제문제연구소장에 신동욱 교수가 맡았다.

건설기의 장안동 캠퍼스(1957)

6
건국대학교의 기반 확충과 발전 견인

먼저 정치대학에서 건국대학교로 발전한 직후, 상허 선생이 건대신문사 기자에게 설명한 그간의 상황과 경과를 통해, 우리대학의 기반을 확충해 간 과정을 살펴보겠다.

"서울 중앙에 위치한 낙원동 이곳의 본 대학 교지는 실로 민족의 역사에 찬연한 한 '페이지'를 장식할 만한 유서가 깊은 지대이다. 즉 지금으로부터 40여 년 전에 오성학교(五星學校)의 교사로 건립되었던 곳이며, 현 광신상업학교(光新商業學校)의 교사로 사용하던 건물을 유석창 박사가 경영하는 민중병원(民衆病院)을 확충할 목적으로 매수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단기 4278년 8월 15일의 해방과 더불어 민족지사들의 정신과 력사적 사명의 경위로 하여, 이곳에 민중병원을 개설하는 것보다 조국의 앞날을 이끌고 나아갈 일꾼의 양성이 급선무요, 또한 지상과제임을 통감하고 만난을 무릅쓰고 개교의 제반 준비를 진보시켰던 것이다.

드디어 단기 4279년(1946년) 5월 15일 "조선정치학관"으로서 제일보를 옮기는 동시에, 정치과 · 경제과 · 법과의 주야 3과를 두어 400여 명의 학도를 수용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성 · 신 · 의를 모토-로 하여 인격의 도야에 치중하고, 학술의 심오한 연마에 주력하는 한편, 재단의 충실을 기하기 위하여 다방면으로 노력한 결과 시가 약 수억 만 환의 재단을 확보하기에 이르렀다. 따라서 단기 4280년 7월 24일자로 재단법인 및 대학관 인가를 소관당국에 신청한 바, 단기 4281년(1948년) 5월 15일에 그 인가를 받게 되었던 것이다.

그 후 대학 승격을 목표로 하여 1년 동안 재단 확충에 노력한 결과, 토지 39여 만 평과 시내에 2개소의 제재소를 신설하고, 약 5억 환(圜)의 재단이 확립되어 단기 4282년(1949년) 5월 30일자로 재단추가 신청과 동시에, 대학 인가를 소관 당국에 신청하였던 바, 동년 9월 9일자로 재단법인 정치학원 및 정치대학으로서의 인가를 받게 되었다.

이처럼 그 기초를 공고히 하게 되자 교세는 일취월장의 융성을 하게 되어 한국 주정공업계의 가장 우수한 것 중의 하나인 제일주정공장, 충무로 삘딩을 비롯하여 인천 앞바다에 위치하는 영종도(永宗島)의 정대염전(政大鹽田)은 4288년(1955년)부터 다량의 식염을 산출하게 되어, 매년 그 규모가 확대되어 그 제염량의 증가 등으로 재단의 기초는 가일층 공고하게 되었다.

한편 단기 4288년 3월 29일자로 정치대학 제2부의 설립 인가를 얻어 주경야독하는 불우한 학도들(상이군경 제대자, 연령 초과자, 부녀자 등)의 배움의 길을 열어 주게 되었다.

그리하여 교세 확충을 도모하고 있던 재단에서는 서울 성동구 장안동 일대에 일대 대학촌(大學村)을 건설하기 위하여 부지를 매수하여 광활한 지역을 확보하게 되었으며, 여기에 각종 농장, 묘포장(苗圃場), 축산장(畜産場)과 수만 평의 양어장을 건설하는 한편, 본관 및 교사 수개 동을 신축하여 1956년 10월 22일에 장안동으로 이전하게 되고, 이에 따라 대학 창립 이래 10여 년간의 보금자리이며, 원동지적인 역할을 한 낙원동교사는 2부학생(야간)의 전용교사로 전용하게 되었다.

그러나 낙원동교사는 다수 야간학생을 수용하기 위해 선 협착함으로 그간 후면에 수 천 명을 수용할 수 있는 3층 건물 800여 평을 신축 중, 단기 4291년(1958년) 8월에 준공되어 그 면목을 일신하게 되었던 것이다.

이리하여 본교는 모든 부문에 있어 비약적인 발전을 보게 되어, 그 사이 문교당국에 종합대학 승격인가를 신청 중이던 바, 숙망의 종합대학 승격안이 단기 4292년(1959년) 2월 19일자로 개최된 제60차 중앙교육위원회를 압도적 다수표로서 통과됨으로써, 동년 4월 1일자로 '건국대학교'로 교명을 개칭하여 발족하게 되고, 이에 따라 정치대학, 제2부대학, 문리과대학, 축산대학 등 4개 단과대학으로 구성되어, 8개 학부, 18개 학과를 두게 되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A 정치대학: 정경학부(정치외교학과, 경제학과), 법학부(법학과, 행정학과)

B 문리과대학: 문학부(국문학과, 영문학과, 사학과), 이학부(물리학과, 화학과, 생물학과)

C 축산대학: 축산학부(축산학과, 축산가공학과)

D 2부대학: 정경학부(정치외교학과, 경제학과, 상학과), 법학부(법학과, 행정학과), 문학부(국어국문학과, 지리역사학과)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정치대학에는 장학생제도, 문리과대학에는 연구생제도의 특전을 베풀고, 특히 축산대학은 전 학생이 교비생제도로서 일체의 학비, 식비, 기타를 재단에서 부담하고 있다.

한편 단기 4292년 4월에 개원한 대학원은 정치학과, 법과, 경제학과의 세 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하여 종합대학교로 승격한 금년 4월부터 교내 기구를 확장하고 강력 포진을 하여, 그 수뇌부는 다음과 같다.

총장: 유석창(劉錫昶) 박사, 부총장: 신태수(申泰洙) 선생, 정치대학장: 박승하(朴勝夏) 선생, 축산대학장: 김호직(金浩稙) 박사, 문리대학장은 특히 원자과학 방면의 인사로 인선 중임, 대학원장(서리): 한태수(韓太壽) 선생

그리고 재단에 있어서의 기구 중, 이사진은 이사장 신태수(申泰洙) 선생, 부이사장 유석창(劉錫昶) 박사, 상무이사 김진호(金鎭浩) 선생, 이사 이종규(李鍾奎) 박사 · 이대위(李大偉) 선생 · 김석우(金錫禹) 선생 · 김봉일(金奉日) 선생 · 정세환(鄭世煥) 선생 · 송두용(宋斗用) 선생 제씨이다."(「건대 연혁 및 현황 개요」, 『건대학보』 7호, 건대사, 1959)

1) 종합대학교로의 승격과 교육기반 확충

건국대학교로 승격된 1959년에서 1971년에 이르는 10여 년 동안은 우리 국가에 있어서나, 우리 학교에 있어서나 변동이 컸던 시기였다. 먼저 1960년에는 4 · 19 학생의거로 말미암아 4월 26일 이승만 대통령이 하야함으로써, 자유당 정권이 무너지고 민주당 정권의 제2공화국이 수립됐다. 1961년에는 5 · 16 군사쿠데타가 일어나, 1963년 12월 17일 민주공화당 정권의 제3공화국이 출범했고, 1972년 이른바 '10월 유신'으로 이어지던 시기였다.

이 시기 중 우리대학으로서 가장 큰 일은 단과대학이던 정치대학이 1959년 2월 26일 종합대학인 건국대학교로 승격된 것이다. 원래는 학교의 위치를 감안하여 교명을 '장안대학교(長安大學校)'로 결정하고, 1957년 11월 14일자로 문교부에 종합대학 승격을 신청하였다.

신청 당시의 편제는 문리대 · 정치대 · 축산대의 3개 단과대학이었다. 그러나 문교부에서는 축산대학을 하나의 단과대학으로 독립시킬 수 있겠는가? 하는 문제를 제기하고, 이에 대한 보완을 요구해 왔다. 그러나 축산대학에 대한 투철한 신념과 철학을 가진 상허 선생은 이우범 사무처장에게 외국의 학제를 조사연구토록 한 결과, 일본의 홋카이도에 오비히로축산대학이 있음을 근거로 증빙서류를 제출하였고, 이 과정에서 상허 선생이 '장안대학교'라는 교명에 이의를 제기하여, 논의를 거듭한 끝에, '건국대학교(建國大學校)'로 정해졌다.

8 · 15 해방 직후 상허 선생이 교육입국(敎育立國)의 첫 걸음으로 '건국의숙'을 개설한 바 있었고, 또 1950년대 말 당시는 우리나라가 근대국가로의 건국 도상에 있었으므로, '건국대학교'라는 교명을 사용키로 결정된 것이었다.

상허 선생이 교명으로 '건국'을 주장한 데에는 "30년 전〔1920년 후반〕 각 전문학교 재학 중인 동지들이 모여 비밀결사 '기독동우클럽'으로 모일 때 뼈에 사무친 망국의 원한을 풀을 길이 없어 뒤로 오는 세대에게 실국자(失國者)의 누명을 남기지 말자는 뜻"〔「훈육 50년, 유석창 박사 : 「건대」 세운 숨은 기둥」, 『동아일보』 1961년 11월 17일〕에서 비롯되었다는 회고담도 있다.

또 종합대학 승격 당시 "문교부장관 안호상 박사가 고려대학 교수로 있을 당시 상허 선생이 안 박사를 방문하여 최남선 선생에게 말한 것처럼 상허가 설명하기를 일제 말 우리가 대학을 만들면 안 선생을 교수로 모시겠다고 하여, 안 박사가 학생들의 애국심과 고견을 칭송하였다. 그러던 안 박사가 문교부 장관이요 허가권을 가진 분이기에 옛날 고려대학에 방문했던 이야기를 하시며 쾌히 여러 가지 도움을 주셔서 종합대학 허가를 받았다."〔이종규(전 건국대학교 부총장), 「상허 유석창 박사 추모사」, 『내가 본 상허 유석창』, 184쪽〕는 에피소드도 전하고 있다.

그리하여 1957년 11월 14일 종합대학교 승격 신청서류를 제출하여, 중앙교육위원회의 통과를 거쳐, 1959년 2월 26일 문교부장관의 인가를 받기에 이르렀던 것이다.

건국대학교로 승격함에 따라 시설을 확충하고, 학제를 정비하는 과제의 해결은 상허 선생의 리더십이 뒷받침되어야 가능한 일이었다. 캠퍼스 조성 공사 기간 중 엿보였던 상허 선생의 리더십과 인격을 살필 수 있는 일화를 두 가지 소개하겠다.

"현재의 실내체육관과 신관기숙사 동쪽(지금의 동아자동차학원 자리)에는, 그때만 해도 미군 야전병원이 위치하고 있었다. 물론 그 당시 우리대학 주위에는 민간인 거주자가 없었을 때이다. 유 박사님께서 캠퍼스 건설을 위해 진두지휘하시는 것을 목격한 그곳 야전병원장은 무슨 공사인지 궁금도 하거니와, 또한 자기들 병원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정복을 하고 통역관을 대동하여 현장으로 찾아왔다.

"여러분은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그러자 유 박사님께서는 설계도를 내보이며 도처에 세울 캠퍼스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하셨고, 그 병원장은 돌아가면서 '이상한 사람이군!' 하고 자기 병원으로 되돌아갔다.

그 후 3,4년이 지난 어느 날, 한 미군장교가 낙원동 유 박사님의 집무실을 방문하였다.

"나는 몇 년 전 장안동 학교 옆의 야전병원에서 근무하던 병원장이오. 그 때 당신이 허허벌판 물구덩이 언덕에 서서 대학 캠퍼스를 만들겠다고 하기에, 나는 그것이 거의 불가능하고 무모한 것이라 생각하였소. 그래서 당신을 미친 사람이 아닌가 하는 극단적인 생각까지 하였소. 그런데 내가 미국으로 귀국하였다가 다시 한국에 와서 그곳을 돌아보고는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었소. 과연 당신이 설명하던 대로 훌륭한 대학캠퍼스가 이룩되었기 때문이오. 당신은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 줄 아는 선각자요, 그리고 미국을 개척한 선조들과 같은 용기를 지닌 지도자인 것이요"

그 후로 그 미군장교는 당시의 민중병원(현 민중병원 자리에 위치한 기와집 병원 한 동)에 쓸 의약품을 매월 무상으로 지원하였다."〔「유덕산 원로동문 회고」, 『건국대학교 흘러간 반세기』, 110~111쪽〕

공사 중 가장 어려운 것이 '호수 문제'였다. 2만여 평이나 되는 인공호수를 건설하는 일은 예사로운 일이 아니었다. 더욱이 호수를 만들기 위해서는 한강 물을 끌어와야 하는데, 한강에서의 거리가 무려 2㎞나 되었으므로, 여간 난제가 아니었다. 인력 문제도 그렇거니와 막대한 자금이 소요되는 일이었다. 다음의 회고는 왜 상허 선생이 공법상으로도 어려움이 적지 않고, 재정적 부담도 큰 일감호 조성 공사를 강행했는지, 그 배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

"1950년대 말로 기억된다. 장안동 캠퍼스 공사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이르렀을 때, 나는 우연히 유 박사님을 만나 뵌 적이 있었다. 그때 나는 유 박사님께, "선생님, 왜 그렇게 많은 경비가 소요되는 인공호수를 파고, 또 인공폭포를 만들려 하셨습니까? 그 많은 소요경비를 건물공사에 투자하시면 보다 실용적이지 않겠습니까?"라는 질문을 드렸다.

그러자 유 박사님은 빙그레 웃으시며, "황 선생, 많은 사람들이 황 선생과 같은 질문들을 하는데, 그

러한 것은 일이 어렵다고 생각하는 데서 생기는 것이네. 돈이 많이 들고 적게 드는 데 관점을 두지 말고, 하고자 하는 일에 관점을 맞추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지. 이곳에서 공부하게 될 우리 젊은이들을 생각해 보게. 여기서 마음껏 젊음을 불태울 우리의 젊은이들을 생각하란 말이야. 더구나 이곳은 1, 2년 아니 10, 20년 동안만 사용될 곳이 아니라, 역사가 지속되는 한, 언제까지나 존속될 교육기관이라는 것을 생각해야 한다네. 젊은이들이 자연스러운 분위기 속에서 마음껏 호연지기를 펼칠 수 있는 곳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공부하고 강의하는 연구실과 건물도 필요하겠지만,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그러한 분위기를 조성해 주는데 인색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지." 라고 말씀하셨다.〔황대석 명예교수 회고」, 『건국대학교 흘러간 반세기』, 112~113쪽〕

이와 함께 일감호는 농업용수를 위해 만들어진 인공호수이기도 하였다. 6 · 25전쟁의 폐허와 미국의 잉여 농산물 원조로 연명하던 당시에, 우리 국가의 자립과 우리 민족의 살 길은 기술력을 갖춘 농업에서 찾아야 한다는 상허 선생의 신념에서 이루어진 결과였다.〔김임식(전 건국대학교 총동문회장), 「우국지사 상허 선생」, 『내가 본 상허 유석창』, 56~57쪽〕

1960년대에는 일감호에서 키운 잉어 치어(稚魚)를 분양받으러 전국에서 온 사람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는 풍경을 흔히 볼 수 있었다고 한다.〔류태영(건국대학교 사범대학 교수), 「상허 선생과 나」, 『내가 본 상허 유석창』, 80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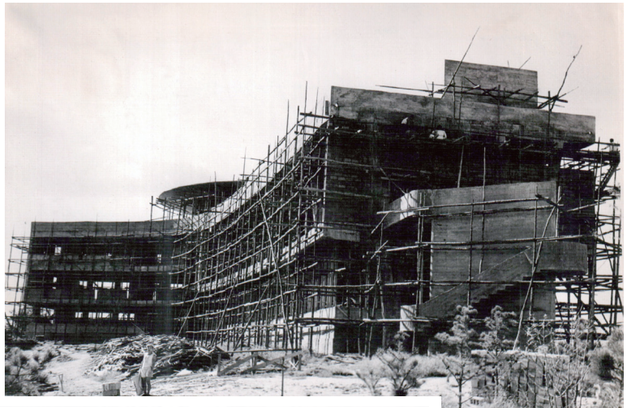
상허 선생은 '산업의 발전'과 '식량 자급' 문제를 해결하려고 농축 계열 교육에 열과 성을 다하였는데, 농축산 산업 육성과 함께 수산업의 발전을 또한 염두에 두었던 것이다. 그래서 학교 발전 계획에 수산부를 포함시켰고, 이 호수에 물고기를 기르고 또 한강에서 물고기를 잡아 여러 가지 수산업 발전의 연구 자료로 삼으려고 구상하였다.〔김현룡(건국대학교 문과대학 명예교수), 「상허 선생에 대한 추념」, 『내가 본 상허 유석창』, 65쪽~66쪽〕

이와 함께 중앙도서관(지금의 언어교육원) 건립에 얽힌 회고 역시 장안동 캠퍼스 건설공사에 고스란히 녹아 있는 상허 선생의 교육철학을 엿볼 수 있을 듯싶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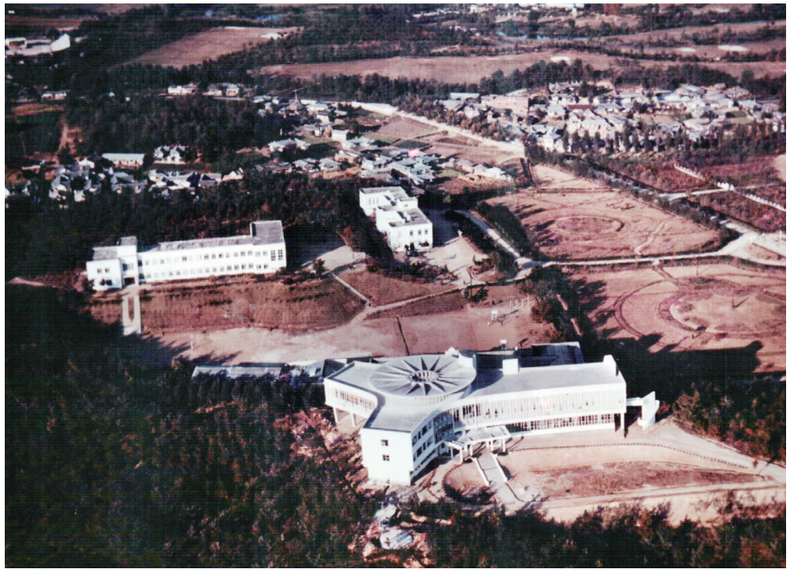
"그때 중앙도서관에 쏟은 정열은 무척이나 큰 것이었네. 설계는 프랑스 유학 다녀온 사람에게 특별히 부탁했고, 책은 학생과 교수가 자진해서 내놓고 모자라는 것은 헌책방을 뒤져서 채웠지. 중앙도서관을 만들며 우리 건국 학생들이 '문인 사관생도'가 되길 바랬어. '사관(士官)'이라는 뜻은 몸과 마음을 조국에 바치는 것을 뜻하는데, 우리학교 학생들이 펜을 가지고 조국에 헌신하기를 바랐던 게지."〔「對談, 일생을 건국과 함께 한 朴勝夏 명예교수」, 『建大新聞』 1986년 5월 19일〕

"저 도서관을 보라. 설계자 김씨는 여러 차례 시안을 거듭하면서 청사진을 만들었다. 유 박사의 주문이 까다로웠던 것이다. 산정(山頂)의 모습을 조금도 상하지 말고 산 모습 생긴 그대로의 건축을 하라고 요청을 하므로, 지금 보이는 대로 그 건물은 Y자형의 모습을 한 것이다. 그 산정이 Y자형인 까닭이다.

그는 산과 나무를 지극히 사랑했다. 그것은 자기의 취미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산에서 젊은이들이 교육을 받고 수련을 해야 큰 인물이 된다는 신념에서 나온 그의 정신이다. 그러므로 산을 상하지 않고 교실을 지으려니 부득이 축대와 농대의 건물이 논바닥에 서게 되고, 지금도 그 뜻을 따라 학생회관도 호수 옆에 서지 않을 수 없었던 것 같다. 우리는 설립자의 건학정신의 뜻을 알아야 한다."〔김건, 「성 · 신 · 의의 표상: 건대의 비전과 심벌」, 『건대신문』 1978년 10월 18일〕



중앙도서관(현 언어교육원) 건설 광경



Y자형을 이루는 옛 중앙도서관(현 언어교육원) 건물 모습

건국대학교 교지로 장안동에 70만 평이 넘는 광대한 땅을 잡은 것을 위시하여 1959년 6월에 건학이념을 실천하려는 구체적 종합계획이 19건이나 되는 광범한 것인데, 그 19건 중의 하나를 '의료대학구'로 지칭하지 않고 '보건대학구'로 표현하신 것은 필시 의학과를 위시하여 간호, 환경위생, 보건행정, 의용공학, 재활의학, 치과, 약학 등 관련학을 두루 포함시키신 때문으로 봅니다.〔양재모(연세대학교 명예교수), 「상허 유석창 선생」, 『내가 본 상허 유석창』, 127쪽〕

60년대를 거쳐 70년대 초반에 이르기까지는 캠퍼스가 넓다는 것밖에 자랑할 것이 없고 시설을 갖추지 않아 불편이 많았다. 특히 운동장은 배수가 되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어 운동장 정리와 스탠드 설치 문제는 대학의 숙원사업이기도 한 때가 있었다. 그러나 재정이 어려운 가운데서 스탠드 건설사업이 이루어지고 이때 많은 교직원이 모인 가운데 유 박사님의 연설이 시작되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두자"는 말씀이었다. 나는 그 뜻을 처음에는 깨닫지 못했다. 그러나 이러한 정신으로 오늘의 장안동 캠퍼스가 하나하나 정리 건설되고 이어졌음을 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정신은 상허의 호에서도 나타나거니와 순수이 비어 있는 마음의 새로움을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이라 생각된다.

당시 서울 특히 동부지역에는 이만한 시설을 갖춘 운동장이 없었다. 정부의 큰 행사가 이곳에서 이루어졌을 뿐 아니라 일반 사회단체도 우리 대운동장을 많이 이용하여 우리 대학의 발전상을 여러모로 알리는 계기가 되어 자랑스럽게 생각되었던 때도 있었다.〔이여하(건국대학교 농축산생명과학대학 명예교수), 「유 박사의 교육 철학」, 『내가 본 상허 유석창』, 171~172쪽〕

2) 농 · 축산 분야의 선도적 인재 양성 착수

먼저 우리대학의 건학이념과 관련하여 상허 선생은

"조국이 근대화된 산업국가로 건설되자면 농과 공이 아울러 발달하여야 하겠고, 이러한 산업국가의 건설은 농에 바탕을 두고 이 기초 위에다 공업화를 추진하여야 하겠다. 그러므로 우선 농의 근대화를 위하여 온갖 힘을 기울여야 하겠는데, 우리나라의 농업 형태를 보면 아직 곡식을 위주로 하는 전통적 형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에 구태의연한 농업생산양식을 전환하여 유축 낙농의 다각적 영농양식을 도입하여 농촌의 근대화를 성취하여야 하겠다."

라고 했다. 이러한 뜻에서 축산대학을 우선적으로 개설하였는데, 축산대학이 단과대학으로 설치된 것은 우리나라 대학의 편제 상 최초의 일이었다. 여기에는 축산업과 농업의 접목과 종합을 바탕으로 교육입국(敎育立國)을 이루고자 하는 상허 선생의 큰 뜻이 담겨 있었다.

"이 무렵에 유 박사의 화제 중에는 덴마크에 관한 것이 흔히 등장되었다. 인구 450만, 협소한 면적, 나쁜 기후, 거의 쓰지 못할 토질, 이런 조건 위에 세계에서 일류되는 나라를 건설한 곳이 덴마크이다. 1903년 이후에 이 작은 덴마크에 노벨수상자만 해도 14명이 된다. 그러나 덴마크가 이렇게 발전된 데 대해서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고, 그 중의 하나는 덴마크 왕립 농과대학의 공적이다. 이 대학의 공헌은 덴마크를 명실 공히 세계의 농촌왕국으로 건설한데 있다. 동 대학의 시험연구와 교육지도가 정책화되고 일률성 있게 그대로 농민에게 시행되어 동 대학 설립 당시의 단위 생산량의 백년이 지난 오늘날 4배가 되며 축산물만 하더라도 연간 7억불을 초과하는 생산고를 올리고 있다.

조국의 현실, 조국의 건설에는 유능한 정치가 있어야 하고 농촌의 혁명이 있어야 했다. 농촌을 혁명하는 수단에는 축산대학을 설립하는 것이 근본적인 대책의 하나이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일 것이다. 우리의 유 박사는 조국의 해방을 맞이하여 중국의 정치대학의 역사적 사명을 되새겨보고 우리의 정치대학을 세우고 농촌의 피폐를 보고는 덴마크의 왕립농과대학으로 우리의 축산대학을 설립한 것이 아닐까 하고 생각된다.

만일 그럴진대 축대의 출현은 종합대 승격과는 필연적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나라의 객관적 조건이 인(因)이 되고, 설립자의 주관적 의욕이 연(緣)이 되어 이루어진 것이요, 다만 종합대 승격은 이의 출현을 위한 하나의 촉진제의 구실을 한 것에 불과하다.

38선으로 조국이 양단된 우리나라의 종합대학교로서 사상과 과학의 대결은 다른 나라보다 몇 배 요청되는 바이니, 대학의 중심이 될 문리과대학의 창설이 있어야 함은 말할 나위도 없다. 그리하여 대학의 본래의 성격과 국가의 객관적 요청을 참작하고 우리 학교의 주관적 의욕이 종합대로서 건국대학교 안이 문교부에 제출되었다."〔정범석(鄭範錫, 본교 시민법률 상담소장), 「종합대 승격의 무렵」, 『건대신문』 1966년 5월 15일〕

상허 선생은 덴마크의 농업 발전을 본보기로 삼아, 우리나라가 처한 자연 및 산업환경과 여건에 대한 진단을 통해, 농축산업의 진흥을 통해 국민들의 먹거리 문제를 해결하고, 나아가 국가발전의 초석을 마련해야 하리라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그는 이와 같은 교육 구상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해방된 조국이 다시는 불행한 운명을 밟지 않고, 영구히 자유와 민주와 번영을 누릴 수 있는 길은 오로지 참된 복지문화국가를 건설하는 데에 있다. 그런데 고도의 문화국가를 건설하기 위하여서는 첫 단

계로 농업과 공업이 아울러 현대화된 산업국가가 건설되어야 하고, 다음으로는 모든 국민이 골고루 잘 살 수 있는 경제국가로 전환되어야 한다. 그때에는 우리가 염원하는 복지문화국가로 손쉽게 옮아가게 될 수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여러 단계를 거쳐 고도의 문화국가를 이룩하여 나아감에는 반드시 처음부터 갖추어져야 할 몇 가지 요인이 있다. 그 첫째는 진실하고 부지런하고 용기 있는 국민성의 함양이요, 그 둘째는 과학과 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이다."

모든 국민이 이러한 기본적인 요인을 갖추게 되는 데에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그 사명을 수행할 선도적 인재 양성이 필요하다. 이것을 느낀 설립자 유석창 박사는 처음부터 이와 같은 이념하에서 교육사업에 종사하여 영재를 모아 인간교육에 치중하여 성 · 신 · 의의 덕성을 기르며, 진실하고 부지런하고 용기 있는 개척자적 정신을 가진 인격을 배양하는 동시에, 고도의 과학과 기술로 무장하여 새로운 시대의 역사적 사명을 짊어지는 유능한 선도자를 배출하고자 한 것이다.

그리하여 이와 같은 건학정신 아래에서 종합대학을 설계하고 건립하는 마당에 있어서 본래 있던 정치대학에 문리과대학과 축산대학이 증설되었다. 문리과대학의 개설은 문학부와 이학부의 여러 과목이 다른 모든 학문의 기초과목이 되므로 종합대학교에서는 마땅히 설립할 일이었지만, 축산대학의 개설은 깊은 뜻을 담고 있었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본 대학교의 건학정신에 입각하여 우리나라의 근대화된 산업국가의 건설을 이룩하자면 농업과 공업이 아울러 발달하여야 하겠고, 이러한 산업국가로의 건설은 농업에다 바탕을 두고 이 기초 위에다 공업화가 추진되어야 하였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농업 형태는 아직 곡식을 위주로 하는 전통적 형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으므로, 이 구태의연한 농업의 생산양식을 전환하여 유축 · 낙농의 다각적인 영농양식을 도입함으로써 농촌 근대화에 이바지할 역군을 양성한다는 이념으로 축산대학을 설치했던 것이다.

이와 같은 교육철학과 관련하여, 그는 "근대화된 산업국가로 건설하자면, 농업과 공업이 아울러 발달해야 한다. 산업국가는 모름지기 농업에 바탕을 두고 그 기초 위에 공업화를 추진해야 한다. … 이제 구태의연한 농업 생산의 양식을 전화하여 축산 · 낙농의 다각적 영농양식을 도입하여 근대화를 성취해야 할 것"(『상허 유석창 박사 전기』, 231쪽)이라고 말하였다. 농업과 공업의 동반발전을 통해 산업의 발전을 이끌어내고, 이 같은 기반 위에 공업화를 추진해야 할 것이며, 농업 분야에 있어서는 노동집약적인 전통적인 생산 양식을 탈피하여 축산업과 낙농업을 적극 도입함으로써 농업의 생산을 다각화하고 농가의 소득 증대를 꾀해야 하리라는 요지이다.

이는 곡류 생산 위주의 영농방식을 축산 · 낙농 위주의 영농방식으로 바꾸어 농촌의 근대화에 기여할 농군사관을 양성하자는 구상이었다. 이를 위해 상허 선생은 축산대학에 입학하는 학생 전원(240명)을 교비장학생으로 하여, 전원 기숙사에 입사시켜 특별교육을 이수토록 하였다. 또 이들을

농업선진국(일본, 덴마크)에 파견하여 선진영농방식을 견학시켰으며, 졸업 후에는 이들을 모두 농촌에 투입하여 축산업 내지 주축시범농가로 양성하고자 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이 같은 교육철학은 지역사회개발초급대학(地域社會開發初級大學, 1962) 및 농림대학(農林大學, 1964, 1970년 農科大學으로 개편)이라는 단과대학의 설치로 이어졌고, 이와 함께 재단 직속으로 농업협동조합초급대학(農業協同組合初級大學, 1963)을 설립함으로써, 4개의 농과계통 대학을 운영하였다.

"이 나라의 산과 들의 풀을 고기와 돈으로 바꿈으로써 농촌부흥의 새 전기를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한 상허 선생은 농촌을 부흥시키자면 무엇보다도 먼저 '영재를 양성하여 농촌에 심어 놓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농촌의 '3대 혁명'론을 주장하며, 3대 혁명을 주도하여 나아갈 '농촌혁명의 기수' 양성을 중시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결심에 따라 '농민의 정신혁명', '농업의 기술혁명', '농촌의 생활혁명'이라는 그의 3대 농촌혁명론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그는 '축산대학', '농림대학', '농과대학' 및 '전국농업기술자협회' 등을 설립하였다.

즉 우리나라의 부흥은 농 · 공 병진정책을 수행하되, 먼저 농촌부흥이 앞서야 된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러기에 대학의 기반시설을 갖추는 데 있어서, 일반적이고 종합적으로 필요한 시설의 공사를 우선적으로 시행하였지만, 농촌 근대화의 역군을 양성하는 데에 필요한 시설에 중점을 두었으며, 그 다음으로 이공분야의 시설을 갖추도록 하였다.

교육에 있어서도 축산대학, 농공대학, 지역사회개발초급대학, 농업협동조합초급대학 등의 농과계대학에 중점을 두었고, 농촌개발의 역군이 될 학사농군 양성에 심혈을 기울였던 것이다. 1958년 8월 대운동장이 건설되었고, 특히 축산대학의 개강에 대비하여 1959년 3월 31일 실습장으로 계사 250여 평이 마련되었으며, 부화장, 돈사, 그리고 농원의 부속건물 등도 준공되었다. 또 실습용으로 소 · 돼지 · 산양 · 토끼 · 닭 · 오리 · 칠면조 등을 들여와 모든 준비를 갖추게 되었다.

3) 초대 총장 취임과 종합대학으로의 체제 정비

한편 종합대학으로 승격된 건국대학교의 편제는 문리과대학 · 정치대학 · 축산대학 · 이부대학과 대학원(석사과정, 박사과정은 1961년 4월 6일자로 인가)으로 편성되었고, 전체 입학정원은 1,224명이었다. 문리과대학(문학부 내에 국문학과 · 영문학과 · 사학과, 이학부 내에 물리학과 · 화학과 · 생물학과)과 정치대학(정경학부 내 정치외교학과 · 경제학과, 법학부 내에 법학과 · 행정학과), 그리고 축산대학(축산학과 · 축산가공학과)과 대학원이 설립되었다.

1960년 2월 20일 문교령 제687호에 의해, 문리과대학 사학과는 지력과(지리학, 역사학 전공으로 분류)로 바뀌었으며, 정치대학에 상학과가 신설되었다. 이어 3월 21일 문교령 제 1194호에 의해, 초

대 총장에 상허 선생이 취임하였고, 정치대학장에 박승하(朴勝夏) 교수, 축산대학장에 김호직(金浩稙) 교수, 대학원장은 서리 한태수(韓太壽) 교수를 거쳐 김두헌(金斗憲) 교수가 임명되었고, 문리과대학장은 상허 선생이 겸하였다가, 나중에 정대위(鄭大爲) 교수가 취임하였다.

1959년 4월 1일 거행된 총장 취임식에서 상허 선생은 취임사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구 정치대학이 종합대학인 건국대학교로 격을 높이고 그 규모를 넓히게 되었음을 학생 제군과 더불어 경하하는 바입니다. 본인은 이번 우리 대학교의 역사적 재출발에 즈음하여 초대 총장의 직책을 맡게 되었음을 분에 넘치는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비재박식한 몸으로 이와 같은 중책을 감당할 수 있을까 매우 두려운 바입니다만, 우리의 현실과 중첩된 과제는 본인으로 하여금 그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게 한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오늘의 우리 대학의 현황을 광복 직후 정치대학이 창립되었던 시대와 비교하여 보면, 점유한 교지의 넓이로나 수립한 학적 체제의 정비 정도로나 교직원과 학생들의 질과 양의 면에서나, 실로 금석의 느낌을 자아내기에 넉넉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렇듯 우리의 오늘을 어제에 비하여 보면 적지 않은 발전을 이루었다 하겠습니다만, 우리가 지향하는 내일이나 앞선 나라들의 대학 실정에 비추어 볼 때, 아직도 현격한 거리가 있음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보다 더 광대한 교정, 보다 더 정비된 시설, 보다 더 우수한 학자와 기술자, 보다 더 풍부한 도서, 그리고 이런 것을 충분히 마련할 수 있는 넉넉한 재정 등이 절실히 요청되고 있습니다. 이는 결코 우리 대학만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생활을 바른 궤도에 올려놓기 위하여, 우리의 이성과 감성을 계발하기 위하여, 그리고 농촌 부흥과 자립경제 체제의 확립을 위하여 필요불가결한 민족적 요청이며, 국가적 사명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일조일석에 세계 굴지의 대학이 되기를 염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계적인 명성을 누리는 대학들은 수백 년 또는 그 이상의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귀중한 시간의 축적을 가지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신생 한국의 여건은 여러 가지 점에서 그들과 같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여건을 무시한다면, 그 결과는 오히려 자신의 자멸을 독촉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주관적 욕구와 객관적 조건의 조화 속에서 한 걸음 한 걸음 소와 같이 꾸준한 진보의 길을 걸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원대한 곳에 착안하되, 비근한 곳에서부터 착수하여 부단히 전진할 것입니다. 논리의 비약이 모순을 내포하듯, 건설의 비약은 왕왕 기초의 불건전을 내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당장 제일 큰 대학교가 되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오직 좋은 대학이 되기 위하여 노력할 따름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대학을 경영하는 재단 관계자의 노력에 대한 기대보다 교수, 학생들의 노력에 기대하는 바가 한층 더 큽니다."

1959년 3월, 축산대학 제1기생의 신입생 선발시험이 실시되었다. 그때만 해도 가난과 굶주림, 그리고 전쟁의 상처가 아직 완전히 치유되지 않은 때였다. 축산대학 제1기 신입생들은 팔도 사투리에 햇볕에 그을린 모습, 농촌 현실에 뼈아픈 고통을 몸소 체험한 각도 각지에서 모여든 인재들이었다. 그 당시 18대 1이라는 높은 경쟁률이 말해 주듯이, 축산대학은 인기가 높았고 우수한 두뇌들이 모였다.

상허 선생은 축산대학의 육성 발전에 깊은 관심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축산대학 신입생의 선발에는 자신이 직접 관여하였다. 시험은 우선 필기시험을 통하여 정원의 배수를 뽑았다. 그리고 자신과 학장의 면접을 통하여 최종선발을 했다. 일단 필답고사에 합격한 학생에 대해서는 성적을 불문에 붙이고 오직 면접만으로 최종 합격자를 뽑았다.

"1959년 3월, 축산대학의 역사가 시작되는 제1기생의 신입생 선발이 있었다. 그때만 해도 가난과 굶주림, 그리고 전쟁의 상처가 아직 완전히 치유되지 않은 때였다. 축산대학 제 1기 신입생들은 팔도 사투리에 햇볕에 그을린 모습, 농촌현실에 뼈아픈 고통을 몸소 체험한 각도 각지에서 모여든 인재들이었다. 그 당시 18 대 1이라는 높은 경쟁률이 말해주듯이, 본교 설립자이신 상허 유석창 박사님의 정열과 혼이 담긴 축산대학은 초창기부터 인기가 많았고 우수한 두뇌의 집결지였다.

유석창 박사님께서는 면접 시험장에서 스스로의 소신과 포부를 밝히는 수험생들에게 고개를 끄덕여 보이시며 흐뭇한 모습으로 그들을 바라보셨다. 일일이 수험생들의 손바닥에 박힌 근육살을 만지면서 감개에 젖어 계시던 그분의 모습을 우리 모두는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다. 유 박사님의 마음속에는 이 정도의 학생들이면 당신이 구상하고 계시는 농촌부흥을 위한 기수들을 충분히 길러낼 수 있다는 생각과 이들의 어깨에 헐벗고 가난한 농촌의 장래를 올려놓아도 손색이 없다는 자신감에 젖어 계셨으리라 생각된다.

신입생들은 우선 정원의 2배수를 성적순으로 선발한 다음, 최종 합격자 77명은 순전히 인물에 치중하여 각 도와 군에 따라 일정수의 비율을 두어 선발하였고, 또 그들은 우리나라 전국 지도상에 핀침으로 표시가 되어 학장실에 비치되었다.

축산대학의 출발은 상허 선생님이 아니면 감히 생각조차 할 수 없는 것이었다. 77명의 신입생 전원을 기숙사에 입사시켜 숙식과 등록금 일체를 졸업 때까지 제공해 주는 교비장학의 혜택을 부여한 것은, 그 당시의 우리나라 경제 여건과 대학 재정으로 보아 어느 누구도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일이었고, 오직 무에서 유를 창조하고 신념과 소신으로 일생을 살아오신 상허 선생님만이 생각하시고 실행에 옮길 수 있던 것이었다."〔맹원재(건국대학교 총장), 「축산대학의 태동」, 『내가 본 상허 유석창』, 82쪽~84쪽〕

건국대학교 발전의 견인차로서 축산대학의 선도적인 발전을 위한 노력과 열정에 대해, 축산대학 1기생으로 입학하여 모교 교수와 총장을 지낸 한 동문은 재학 시 기억을 기록으로 남겼다.

"동대문에서 매 30분마다 발차하는 기동차나 을지로 6가에서 발차하는 버스를 타고 인분냄새가 진동하는 뚝섬 벌판을 지나면 이내 건국대학교 정문에 이른다. 넓고 넓은 캠퍼스와 일감호, 그리고 인공 폭포,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한, 서울 시내에서도 유명한 Y자형 도서관, 우사, 돈사, 양계장 그리고 채소밭이 우리의 생활 터전이었고, 심신을 단련하는 배움터이자 우리들의 일터였다.

낙원동의 교사를 떠나 넓은 장안벌에서 종합대학 승격과 동시에 최초로 맞은 신입생이 축산대학 제 1기생이었고, 우리들은 완전히 장안벌의 주인 행세를 하였다.

기숙사의 아침 기상은 오전 6시였다. 침대 정리와 청소가 끝나면 세면장에서 세수를 하고 옥상에 올라가 태권도 연습을 한다. 그리고 일감호 주변을 따라 신선한 공기를 마시면서 산책과 독서를 즐긴다. 7시 30분에 식당에서 일제히 식사를 하고 9시에 강의를 듣는다.

참으로 꿈같은 생활이었다. 강의 시작 5분전에는 모두가 제자리에서 조용히 교수님을 기다렸고, 강의 시작과 동시에 끝나는 시간까지 숨소리도 안 들릴 정도로 열심히 공부하였다. 이것이 축산대학 제 1회 졸업생 총 62명 중에서 16명이 박사학위를 받는 원동력이 되었다고 생각한다.

학생들은 축산장, 농장, 그리고 임산장으로 순번에 따라 배치되었고, 축산장에서는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소젖을 짜고 돈사, 양계장을 청소하면서 축산기술을 현장에서 몸소 익혔다. 농장에서는 삽을 들고 땅을 1m 깊이로 갈아엎으면서, 인내심과 땅에 대한 애착심을 길렀다. 오늘날 많이 보급된 비닐하우스 채소 재배는 그때 우리 농장에서 최초로 시작되었으며, 오이 참외 수박 등의 야채와 과일의 재배 기술을 이웃농장에 보급하였다. 임산장에서는 묘목 가꾸기와 사과 배 접붙이기 등의 기술을 터득했다.

이처럼 장안벌은 작업복과 모자를 눌러쓴 축산대학생들의 의젓하고 자랑스러운 모습으로 가득 차 있었고, 스스로 붙인 농군사관생도라는 별명은 모든 축산대학생들의 자부심이기도 하였다.

기숙사 생활은 축산대학생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또 잊을 수 없는 추억을 남겨주고 있으며, 강의실 못지않게 인격 도야와 단결심, 그리고 우정을 깊이 심어주는 도장이기도 하였다. 매 학기마다 입실생을 바꾸어 축산대학생 모두에게 같은 방에서 생활하여 더욱 친해질 기회를 주었고, 코고는 소리, 잠버릇과 생활습관 등을 모두 보고 듣고 겪으면서 새긴 우정은 어른이 된 지금도 남들이 따를 수 없을 정도로 두터운 것이다.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옷을 주워 입는 모양, 세수하는 모습, 밥 먹는 습관, 걸음걸이, 공부하는 자세, 운동, 그리고 대화할 때의 얼굴 표정, 웃는 모습, 잠자리에 들어 자는 모습까지, 모든 것을 지켜보면서 대학 4년간을 같이 지냈으니 그것은 한 집안 식구나 다를 바가 없었고, 여기서 싹튼 우애와 이해심 그리고 협동 정신은 어느 누구도 감히 흉내낼 수 없는 것이었다. 이것이 캠퍼스 내의 체육대회에서 수적으로는 열세인 데도 불구하고 항상 우승하도록 하는 원동력이 되었고, 응원할 때에도 우리에게는 여유가 있었다.

특히 2학년을 마치고 축산대학 제 1기생 전원이 똑같이 군에 입대하여 군대생활을 함께 한 것도 평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들의 연결고리를 튼튼하게 해주는 데 커다란 몫을 하였다.

상허 유석창 박사님은 축산대학 제 1기생들에게 너무나 큰 것을 남겨 주셨다. 그분과 종종 가졌던 '꿈의 밤', 즉 대화의 시간은 매우 귀중한 것이었다.

어릴 적부터 만주의 허허벌판에서 키웠던 독립정신과 조국에의 불타는 사랑을 들려주실 때면 우리 모두는 숙연해지곤 하였다. 우리의 마음 속 깊이 뚜렷한 국가관과 애국애족의 커다란 혼이 생겨난 것도 그분의 영향 때문이었다. 조국이라는 단어를 입에 담으실 때마다 흘리시던 눈물을 가까이에서 보고 공부한 축산대학 제 1기생들은 지금도 그 분의 눈물의 참뜻을 되새기며 살아가고 있다. 국가와 농촌과 농민에 대한 유 박사님의 사랑은 그렇게 지극할 수가 없었다. 그리고 그 커다란 사랑을 우리 축산대학 제 1기생들에게 쏟아주셨다.

인물 점수, 그것은 축산대학 제 1기생들에게 가장 중요한 평가 항목 중의 하나였다. 77명의 신입생 중 1학기가 끝나자 9명이 인물 점수의 미달로 퇴교를 당할 정도로 이 인물 점수는 중시되었고, 지금도 교비 장학생 선발에 있어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학과 성적이 좋으면 우수한 학생으로 평가받으나, 축산대학 제 1기생에게는 성적보다도 인물 점수가 더 중요시되었다.

이처럼 축산대학의 교육이념은 특별한 것이었고, 그 이유는 인간교육, 생활교육, 기술교육을 통해서 어려운 농촌 현실에 부딪칠 수 있는 인재 양성에 중점을 두었기 때문이다. 첫째도 사람, 둘째도 사람, 그리고 셋째도 사람이라고 강조하셨던 바와 같이, 상허 유석창 박사님께서는 인물을 가장 최우선에 두셨고, 이러한 사상이 축산대학에서 인재를 양성하는 데에 실현되었던 것이다. 축산대학 제 1기생들은 지금까지도 이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다."〔맹원재(건국대학교 총장), 「축산대학의 태동」, 『내가 본 상허 유석창』, 84쪽~87쪽〕

당시 상허 선생으로부터 배웠던 학생들의 회고를 통해 상허 선생의 체취를 느껴보는 기회를 가져보고, 나아가 빛바랜 흑백필름과도 같은 당시 대학생활을 떠올려 보기로 하자.

상허 선생님은 우리 축산대학 1기생들에게 한 달에 한 번씩 오셔서 특강을 해 주실 때는 항상 "제군들은 이 나라 이 농촌을 이끌고 나갈 농촌혁명의 기수가 되라, 축산입국의 기수가 되라, 새 역사 창조의 주인공이 되라"고 눈물로 호소하시곤 하였다.〔류제창(건국대학교 농축산생명과학대학 교수), 「민족의 위대하신 스승 상허 선생님」, 『내가 본 상허 유석창』, 72쪽〕

"무에서 유를 창조하라! 나의 기억으로는 1962년도 상허 선생님께서 본교 축산대학 생활관에 오셔서 특강을 하시면서 강조하시던 말씀이었다. 당시 나는 대학 초년생이었으며 그 말씀의 높은 뜻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다만 심훈의 『상록수』에 나오는 주인공처럼 되어주기를 바라는 것이 아닐까 하고 생각했으며, 대학을 졸업하고 나면 바로 농촌으로 돌아가 괭이와 삽을 들고, 가진 것은 없지만 맨주먹으로라도 농민의 앞장에 서서 자갈밭을 옥토로 일구며 대학에서 배우고 직접 체험한 영농기술로서 낙후된 농촌을 잘살게 할 수 있는 선도적 역군이 되어야 한다는 것으로 받아들였다."〔김창한(건국대학교 농축산생명과학대학 교수), 「세 가지 교육철학」, 『내가 본 상허 유석창』, 59쪽~60쪽〕

제1회 축우제에 참석하여 격려하는 유석창 박사

제1회 축우제에 참석하여 축대생들과 행사를 함께하고 있는 유석창 박사의 모습

"때는 1961년 늦은 11월의 어느 오후 8시경, 불씨도 없는 썰렁한 강당(구 문과대학 2층)에서 축산대학 학생들을 위한 교양강좌가 있었다. 연사는 건국대학교 총장님이시던 유석창 박사님. 허름한 검정색 양복(언제나 똑같은 양복을 입으셨던 것으로 기억됨)을 입으시고 연단에 서신 총장님은 한국농촌에 대한 그의 원대한 꿈을 말씀하셨다.

우렁차면서도 날카롭지 않은 음성에 자연스러운 몸가짐, 근엄하시기보다는 친근감과 인자함이 넘쳤다. 비록 꿈에 관한 말씀이었으나, 꾸밈이나 교언영색은 찾아 볼 수가 없었다. 헐벗고 가난한 농촌부흥을 위해 우리 함께 도전해 보자고, 두 주먹을 불끈 쥐시던 모습이 아직도 기억에 생생하다." "가난의 굴레에서 허덕이는 농촌을 외면하지 말고, 여러분들의 땀과 희생에 의해 풍요로운 농촌을 만들어야 한다"는 너무나도 진솔한 강연에 나는 마음속으로 '졸업 후 농촌으로 돌아가서 그들과 삶의 애환을 같이 하면서, 농촌혁명의 기수가 돼야겠다'고 다짐을 하였다."(이광전(건국대학교 농축산생명과학대학 교수), 「유석창 총장님과 꿈」, 『내가 본 상허 유석창』, 161~162쪽)

1959년에 종합대학인 건국대학교를 세우고 초대 총장님으로 계시면서 훌륭한 건학이념(애국애족에 불타는 지도자의 육성)과 건학정신(建學精神)을 가진 나라의 역군을 양성하기 위해, 파격적인 축산대학 교비장학생 제도를 우선적으로 도입해서 실험적으로 성관 생활관에서 밤낮으로 수양강좌를 통한 인격교육에 심혈을 기울인 결과, 축산대학 제1기 졸업생 63명 중 16명의 박사를 배출시킨 교육성과를 올리는 등 전인교육의 성공적인 사례가 되었다. 뿐만 아니라 축산대학의 교육은 이론과 실기를 겸비한 교육이었기에 우리나라 축산 발전의 핵심적 역할을 주도해 나갈 일꾼을 배출하여 명실공이 우리나라 축산분야에서는 자타가 공인하는 일류대학으로 인정받게 되었던 것이다.

우리나라 주요 산업이 농업일 때, 상허 선생님은 잘사는 농촌을 건설하기 위한 농촌혁명의 기수, 축산입국의 기수를 양성해서 가난과 기아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교육을 하셨다고 생각된다.(류제창(건국대학교 농축산생명과학대학 교수), 「민족의 위대하신 스승 상허 선생님」, 『내가 본 상허 유석창』, 70쪽~71쪽)

상허 선생은 축산대학생 이외의 다른 단과대학 학생들에게도 정성을 많이 기울였고, 가난한 학생들을 위하여 근로 장학생 제도를 두었다. 근로 장학생들은 기숙사에서 생활하며 밤에 교대로 넓은 농원을 순찰하거나 새벽에 우유를 배달하여 학비와 생활비를 조달하였다. 우유 배달 같은 경우, 자신의 손으로 직접 짠 우유를 손수레에 실어서, 꼭두새벽부터 모진동 · 자양동 · 화양동 일대에 배달하였다. 그렇게 고생스레 일하면서 공부하는 학생들이 수십 명이 넘었다.

1962년에는 한 학생이 야간경비를 서다가 뇌염모기에 물려 사망하는 안타까운 일이 일어났다. 상허 선생은 애통해 하며 축산대학 교무과장을 통해 가족들에게 조의금을 전달했다. 또 농사를 짓다가 한 학생이 사고로 목숨을 잃게 되자, 직접 경기도 화성군의 장지까지 가서 손수 비문을 쓰고 비석을 세워 주었다.

그리고 우수한 학생에게는 시험을 거쳐 장학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성 · 신 · 의 장학금의 경우, '성'조는 등록금 · 생활비 · 책값보조비, '신'조는 등록금 · 생활비 그리고 '의'조에는 등록금이 지급되었다. 이와 함께 학업 성적에 관계없이, 가난하면서 학교에 노동력을 제공할 처지도 못되는 학생에게는 특별 장학금을 지급했다.

축산대학 교비생들의 기숙사인 1960년대 성관 모습

1962년 7월경, 축산대학 우사(牛舍)에서 한 사건이 일어났다. 소를 훔치러 들어갔다가 소에게 밟혀 발목이 골절되어 움직이지 못하고 있는 사람을 잡아 상허 선생에게 보고하였다. 달려 온 상허 선생은 그 자리에서 그 사람을 치료해 주었다. 주위에 있던 사람들은 깜짝 놀랐다. 도둑놈에게 문책이라고는 전혀 하지 않고 상처부터 먼저 살피니, 여느 사람 같으면 상상도 못할 일이었다. 치료를 끝내고 손을 씻고 난 다음 상허 선생은 그 도둑을 관대하게 용서해 주었다고 한다.〔「유덕산 원로동문 회고」, 『건국대학교 흘러간 반세기』, 96쪽〕

위의 일화는 상허 선생의 참모습을 잘 전해준다. 그랬기에 1960년 2월 17일 회갑을 맞이하였으나, 그는 주위의 권유를 뿌리치고 회갑 축하와 관련되는 모든 행사를 거절하였다.

4) 총장 이임 및 재단 이사장 취임

1961년 9월 1일자로 군사혁명정부에서 공표한 「교육에 관한 임시특례법」의 '각급 학교 교원의 정년을 65세에서 60세로 낮추는' 조처에 의해 상허 선생은 총장직에서 물러나야 했다. 1961년 9월 30일 이임식을 갖고 이대위 이부대학장 · 김건 축대학장과 함께 2년 5개월만에 총장직에서 물러나게 된 상허 선생은 명예총장으로 추대되었다.

상허 선생은 총장직 이임사(離任辭)에서, "대학을 떠날 수밖에 없는 형편에 봉착하였으나, 나의 마음은 '건국'이라고 명명한 이 학원을 여전히 감돌고 있으며, 더욱이 조국재건의 뜻을 가진 건국에 대한 일념은 영원히 나의 생활에서 떼어낼 수가 없다"고 토로한 다음

> "조국이 없이는 부귀도 없으며, 조국이 없이는 너도나도 없다는 신념에서 나의 잔뼈가 굵어 왔으며, 총칼을 들고 반제대열에 따랐던 나로서는 지금도 '조국'이라는 말만 들어도 가슴이 뭉클해지며, 눈시울이 뜨거워집니다. 내가 '조국'안에 있고, '조국'이 내 안에 있는 듯, '조국'이 나요, 내가 곧 '조국'인 양 '조국'과 나는 결코 둘이 아니라는 신념에서, 나는 한 평생 그 '조국'과 그 '나'를 위하여 작은 정성이나마 몸과 마음을 바쳐 살아왔다."

고 자부한 다음, 자신이 보듬어 세우고자 하는 건국대학교의 청사진으로 '과학과 기술을 연마할 수 있는 학원을 삼는 동시에, 조국애를 주입하는 도량(道場)' '조국재건에 이바지할 수 있는 인물들에게 언제나 수련의 기회를 줄 수 있는 훈련센터'를 제시하고, 총장직을 물러난 후에도 "건대의 발전을 위하여 배후의 힘이 될 것이며, 후계자를 도와 그 육성을 위한 비료가 됨으로써" 건국대를 '조국재건의 등불'로 만드는데 전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하였다.〔전 총장 유석창, 이임사, 『建大學報』 11, 건대사, 1961, 18 ~19쪽〕

유석창 총장 이임사

오늘 우리를 보내주기 위해 이처럼 성대한 이임식을 베풀어준 제 이사 교강사 교직원과 동문 및 학생 제군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 자리에 서고 보매 창립 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16년간 무능한 자신이 여러분 앞에서 일해 온 것이 푸라스보다 마이너스가 많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물러나는 이 시간이 혹 슬픈 일이라고 생각할지 모르나, 자신은 만족하게 생각합니다. 본교를 위해 낡은 총장이 물러나는 것이 마땅하다고 믿습니다. 여러분이 모인 이 가운데 교육에서 물러나는 이 자리는 죽기 전에 유언할 수 있는 장소인 것 같습니다.

저의 과거의 계획과 앞으로의 할 일들을 건아(健兒) 앞에 호소하려는 것이니 여러분이 이것을 명심하고 실천하여 큰 수확을 거둘 수 있다면 만족하겠습니다.

현재 나는 이 대학을 떠날 수밖에 없는 형편에 봉착하였으나, 나의 마음은 건국(建國)이라고 명명한 이 대학을 떠날 수가 없는 동시에, 더욱이 조국재건의 뜻을 가진 건국에 대한 생각은 영원히 내 생활에서 떼어버릴 수 없습니다. 조국에 대한 사랑이 누구에게나 범연(泛然)하랴만, 나는 아마도 조국애(祖國愛)에 사로잡히어 병든 몸이 되었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국운이 기울어진 구한말 망명의 길을 떠나 광복운동(光復運動)에 일생을 바치신 가친(家親)을 따라 삭막한 만주(滿洲) 일대를 헤메던 나의 소년시절에 망국민(亡國民)의 서러운 조국의 그리움이 뼈 속까지 사무쳐 비록 이 몸이 백골(白骨)이 되고 진토(塵土)가 된들 가실 수 없을 것입니다.

조국 없이 부(富)도 귀(貴)도 없으며 조국 없이 너도나도 없다는 생각에서 나의 잔뼈가 굵었으며, 총칼을 들고 반제대열(反帝隊列)에 따랐던 것입니다. 지금도 조국이라는 말만 들어도 가슴이 뭉클하여지며 눈시울이 뜨거워집니다. 내가 조국 안에 있고, 조국이 내 안에 있는 듯, 조국이 나요 내가 조국인양, 조국과 나는 둘이 아니요 하나라는 이념에서 나는 일평생 그 조국을 위하여 그날을 위하여 미성(微誠)이나마 몸과 마음을 바쳐 살아왔으니, 이러한 심경이 이른바 '사랑'인가 합니다.

천우신조로 급기야 오매불망하던 그 조국은 광복의 날을 맞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환희는 겨레들의 가슴에 벅찼고 환호는 강산에 넘쳐 흘렀습니다. 그러나 의외에도 그 다시 찾은 조국은 어려운 까닭이 많았습니다. 당면한 난관들도 극복하여야 하였거니와 백년대계의 건국방안을 세워 조국안전의 보장책도 실천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모든 혼란 중에서도 교육계는 꾸준히 성장의 일로(一路)를 밟았습니다. 그것만이 민족번영의 기본이 된다고 믿었던 까닭입니다. 나도 그 대열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러나 교육의 행진도 그 대열을 정돈하는 때는 왔었습니다. 나는 솔선하여 방향전환을 꾀하였던 것이니, 그것은 바로 장안(長安) 일대를 점유한 거대한 건대(建大) 캠퍼스입니다. 나는 여기에서 새로운 꿈을 실현하기 시작하였으니, 이곳으로 하여금 과학과 기술을 연마할 수 있는 학원을 삼는 동시에 조국애를 주입하는 도장(道場)을 삼고자 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조국재건에 이바지 할 수 있는 인물들에겐

언제나 수련의 기회를 주는 훈련의 '센타-'를 삼고자 하였습니다.

생각건대 우리나라는 지정학적으로 보나 역사적 관계로 보나, 병력(兵力)과 부력(富力)을 가지고는 용이하게 타에 능가하기 힘들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민족은 천부고유의 재능과 예지(叡智)를 최고도로 발휘시켜 과학의 나라 기술의 나라 신의(信義)의 나라를 만들어 덴마크나 스위스와 같이 자력자활(自力自活)의 아담한 국가로 육성하게 되면 하나의 유족한 귀염둥이가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꿈과 지성으로 앞날을 기약하고 돌진하는 도중 의외에도 퇴진의 한을 품게 되나, 노장은 조국재건의 초지를 조금도 굽힘없이 일로매진(一路邁進)할 것을 다시금 마음먹습니다.

건대(建大)는 이로부터입니다. 나는 건대의 발전을 위하여 배후의 힘이 될 것을 약속합니다. 후계자를 도와 건대 육성의 비료가 됨으로써, 우리가 세워놓은 이념을 꿋꿋히 살려 조국재건의 등불이 되게 하렵니다. 나는 때로 조국재건의 방략과 조국애를 부르짖는 교육행각자(教育行脚者)로서 전국 농산어촌을 편답(遍踏)할 뜻도 있습니다. 여생의 '푸로'는 오히려 다채로울지 모르나, 중심은 오로지 조국이요, 재건임에 틀림없을 것을 스스로 다짐합니다. 1회 졸업생이 커서 장년이 된 것은 만족하나, 장안동 나무들이 아직 어리고 약한 것이 섭섭합니다. 빨리 자라 무성하고 벌레먹은 고목이 되길 바랍니다.〔『建大新聞』 1961년 10월 2일 1면〕

여기에서 다소 긴 글이지만, 총장직을 떠나면서 『건대신문』 기자와의 인터뷰 기사를 소개하겠다. 총장직을 물러나게 되는 데 대한 소회, 교육철학 등을 포함하여, 상허 선생 스스로 밝힌 자전적 기록이다.

상허 유석창 박사의 약전

구한말에 독립투사의 아들로 태어나 망국의 한 속에서 조국광복운동과 동포구제사업에 전념하시고, 해방 직후에는 조국을 영구히 보존하기 위하여 교육의 길을 찾아 본교를 창립하고, 불철주야 심혈을 기울여 오늘의 대건국대학교를 이룩하신 유석창 총장님은 이번에 정년제로 초지를 다 펴시지 못한 채 뜻밖에도 62세의 나이로 자리를 물러서시게 되었다.

이임식을 하루 앞둔 9월 29일 기자는 유 총장님과의 마지막 인터뷰를 위해 총장실 문을 두드렸다. 언제나 보아도 포근한 미소가 안경 넘어 자애로우신 눈깃으로부터 건장하신 노안이 넘쳐흐른다.

"선생님과 저의 학생기자와의 마지막 인터뷰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떠나시는 내일을 앞두고 선생님의 감회를 들으러 왔습니다."

"혹시 생각하면 섭섭하지만 나 자신은 무척 만족해 떠난다 해도 노장은 초지를 굽힘이 없이 일로매진할 것이니까."

"선생님이 걸어오신 역사는 매우 다난하나 빛나는 역사라고 들었습니다. 본교를 창립하신 경로를 다시 한번 듣고 싶습니다."

"나는 선친 일우(一憂) 씨(오직 나라 하나만을 근심한다는 뜻)에게서 어렸을 적 여섯 살 때부터 큰 영향을 받았어. 선친의 영향 속에서 나는 자랐고 늙는 줄 모르면서 오직 조국이라는 일념만으로 일해 왔어."

유 총장님의 우렁차면서도 인자하신 말씀은 어릴 적부터 하나하나를 더듬어 가신다.

유 총장님은 4233년 2月 17일 함경남도 단천(端川)이라는 산고수려(山高水麗)하고 험산준령(險山峻嶺)이 겹겹이 싸였으며, 갖은 보광(寶鑛)을 지닌 고장에서 출생하셨다. 고어에 '인걸(人傑)은 지반(地盤)'이라 하였거니와 일세의 풍운아였던 이동휘(李東輝) 선생이 또한 이곳 출신이라는 것도 우연한 일이 아닐 것이다.

그의 선친 일우(호 後樂堂) 씨는 구한말 일제침략에 반기(反旗)를 든 혁명투사(革命鬪士)였다. 총장께서 6살 되던 을사년(乙巳年, 1905)에 우리나라는 일제와의 강압적인 보호조약이 체결되어 외교와 군사권이 박탈되었다.

당시 유 총장님의 본댁에는 수많은 애국지사들이 모여 벽이 무너질 정도로 몸부림치며 통곡하였다. 그때 유 총장은 육 세의 소년으로서 무의식의 울음을 따라 우셨다. 이 울음은 가슴깊이 아로새겨 새로운 인생관이 싹트게 되었다. 일곱 살 때 향읍(鄕邑) 유신학교(維新学校)에서 수업하시다가, 4243년 11살 때 한일합방이 되자 유 총장의 선친께서는 망명정객이 되어 만주로 독립운동을 떠나시게 되었으며, 그도 선친을 따라 봉천(奉天)에서 장백관립제일정몽학교(長白官立第一正蒙学校)에 입학하였다.

15세에 이곳을 졸업하고 다시 같은 학교 고등과에 입학하여 18세 때 졸업하였다. 이 만주 중국학교 시절에 가장 뼈저리게 느낀 것은 망국민의 설움이었다. "아무리 성적이 우수하고 힘이 세다 할지라도, 중국인학생으로부터 '망국종'(亡国種)이라고 지탄을 받을 때의 모욕과 쇼크는 조국이 없으면 개체의 생명이 살아있을 수 없다는 조국애를 뼛속 깊이 느끼게 되었다."

그리하여 앞의 고등과를 졸업하자마자 같은 학교 교원으로 시무(視務)하는 한편, 소년광복대(少年光復隊) 대장에 취임하여 소년광복운동을 지도하셨다. 20세부터 22세까지는 기미독립운동과 동시에 남만주군비단(南滿洲軍備團) 참모로 취임하는 한편, 독립군단기사관양성소(獨立軍短期士官養成所)에서 주무(主務)로 일하셨으며, 유명한 청산리전투(青山里戰鬪)에는 실전투사로 참전하여 구사일생으로 생명을 보전하셨다.

그 후 대세가 만부득이하매 귀국하여 서울 경신중학교(儆新中学校)를 졸업하고 경성의전(京城医專)에 들어갔다. 당시의 한국사회는 3 · 1운동 이후 일제의 폭정 하에서 정치와 법률을 배워도 그 역량을 발휘할 수 없었으며, 잘못하면 그들의 노예적 지배와 시달림을 받게 되었었다. 차라리 의술(医術)이라는

자유로운 기술을 배워서 헐벗고 굶주리고 병고에 시달리는 불쌍한 식민지 백성을 돕고 계몽하면서 때를 기다릴 수밖에 없다는 비장한 결심 하에 의학도(医学徒)가 되셨다.

의전학생 시대에 유 총장은 의학공부에 별로 뜻이 없고, 그의 행동과 언어에는 동급생들간에도 '알지 못할 존재'의 한 사람으로 불려졌다. 우물우물하는 유 총장의 책 보따리 속에는 도대체 무엇이 들어 있나 하고 의아심을 가졌고, 동급 일인들은 더욱 날카로운 시선을 던졌다.

당시 조선기독교청년회(朝鮮基督教青年會) 청년부 지도자로서 청년운동의 맹장이시던 이대위(李大偉) 명예교수는 각 전문학교에서 뜻있는 학생 두 명 씩을 모아 표면엔 성경반이라고 내면으로는 '동우구락부(同友俱楽部)'라는 비밀단체를 조직하여 민족주의사상을 고취하였던 바, 경의전(京医專)에서는 유 총장과 현재 우리학교 재단이사의 한분인 이종규(李鐘奎) 박사가 이에 참가하였다. 이것이 기연이 되어 오늘의 건대에는 김정실(金正實) 교수까지 네 명의 동우구락부원이 일하게 되었다.

28세에 경의전을 졸업 후 유 총장은 함남 장진이라는 압록강 상류 산간벽지의 소읍(小邑) 공의(公医)로 가셨다. 그런데 이곳에서 어느 날 출산하려는 산모를 치료하러 왕진하셨다가 그 집 재산 전체가 주사약 값도 못되는 가난한 광경에 가지고 갔던 주사로 치료를 한 후 값도 받지않고 그대로 뛰쳐 일어나 더 큰 동포에 대한 봉사를 위해 서울로 내려왔다. 적수단신 상경한 유 총장은 서울역에 하차할 때 타고 온 기차에 향하여 "내가 뜻한 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않고는, 다시 죽어도 이 기차를 타지 않겠다."고 맹서하셨다.

그리하여 4263년 31살 되던 해에 물심양면의 갖은 고초를 겪어가면서, 당시 기미독립운동 지도자 33인을 중심으로 기타 각계대표 45인의 합의로 그 후원 아래 무산대중의 구료사업(救療事業)과 일반 보건운동을 위한 사단법인 민중병원(民衆病院)을 창설하고 그 설립자 및 원장이 되셨다. 이 때문에 의료업자간에서는 비난과 모함, 일제관인으로부터 사상이 불온한 '불령선인(不逞鮮人)'의 취급을 받아가면서도 꾸준히 의료사회사업을 계속하였다.

또한 사회문제연구회 지도위원이 되셔서 사회정책의 이론과 실제 및 통계학적 연구를 지도하셨다. 4267년엔 조선보건협회(朝鮮保健協會) 회장이 되셨으며, 기관지 조선보건시보(朝鮮保健時報) 사장 겸 주필이 되셨다. 70년에 경성제대 의학부에 입학하여 다시 수학하셨고, 78년 44살 되던 해에 의학박사 학위를 받으셨다.

민중병원은 일취월장하여 더욱 지반이 굳어져서 현 낙원동 본관(그때의 協成実業学校 교사)을 매수하여 그 규모를 확대하였다. 그러던 중에 오매불망(寤寐不忘)이던 조국광복을 맞이하게 되었다. 환희는 겨레의 가슴에 벅찼고, 환호는 강산을 넘쳐흘렀다. 그러나 유 총장께서는 뜻밖에도 다시 찾은 조국은 어려운 까닭들이 많음을 깨달으셨다. 당면한 난관들도 극복해야 하겠지만, 조국을 영구히 보전하기 위하여는 백년대계의 건국방안을 세워 조국안전의 보장책으로 실천해야만 된다고 확신하셨다.

우리나라는 지리학적으로 보나 역사적 관계를 보나 남에 일본, 북에 중 · 소 등 3대강국이 둘러있고, 작은 국토와 천연자원의 부족은 국가의 대외정치의 배경인 군사력과 부력(富力)의 약세를 면할 수 없다.

이러한 약세를 극복하고 조국을 영구히 보전하는 길은 '교육의 길' 밖에 없다고 생각하셨다. 그리하여 고도의 과학의 나라 기술의 나라를 만들고, 역사적으로 나빠진 민족성을 개조하여 진실 되고 말 없고 부지런한 국민을 만드는 동시에, 국민을 과학기술로 무장시킨다면 세계의 귀염을 받는 잘 먹고 잘사는 문화국가(文化国家)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으셨다.

해방 다음해인 4279년 5월에 경영하여 오시던 민중병원(현 낙원동 교 본관)에 사재를 털어 본 건대의 전신인 정치학관(政治学舘)을 설립하고 사회정책 교수로 일하셨으며, 80년에 동 학관장이 되시고, 82년 정치대학(政治大学)으로 승격하자 이사장이 되셨다. 83년 6 · 25동란 중에는 부산으로 피난하여 부산에서 단신 여관방 생활을 하면서 형무소장의 빈 사택을 빌려 37명의 학생을 모아 개학하였고, 동분서주하여 구덕산 하 천막교사를 만들어 84년에는 부산부민관에서 제1회로 학사를 배출하였다.

본교가 정치학관으로 출발하여 정치대학을 거쳐 다시 오늘날 장안동에 백만여 평의 기지를 가진 대건국대학교(大建国大学校)로 발전한 이면에는 유 총장의 피와 땀이 얽혀 쌓인 것이다. 적수공권으로 금일의 대건대를 성취한 주인공으로서의 그 인물과 열성, 그는 무(無)에서 유(有)를 창조하셨고, 개척자의 용기와 기백, 열의, 인내로 오늘을 이룩하였다. 견인불발(堅忍不拔)의 지조! 일제 36년간에 밟아온 유 총장의 역사는 이것을 증명하고 있다.

유 총장의 호는 '상허(常虛)'이다. 이 유래는 서산대사(西山大師)의 시구 중 "만국도성여의질(萬國都城如蟻垤) 천가호걸약혜계(千家豪傑若醯鷄) 일창명월청허침(一窓明月淸虛枕) 무한송풍운부제(無限松風韻不齊)"에서 따왔다 한다. 이 아호 자체가 유 총장의 인격 전부를 표현한다. 공(公)을 위해 사(私)를 버리고, 아무런 물욕 없이 허심탄회하고 담담한 인격이 여실히 표현되어 있기 때문이다. 청아한 사생활! 가회동 사택의 생활은 '청빈' 그대로요, '공과 사의 엄연한 구별'이 오늘의 부정 없고 비난받지 않는 건실한 사학의 전당—대건대를 이룩하였다.

퇴임 후의 여생을 어떻게 보내실 예정이냐고 묻자, "두 가지 길이 있어. 하나는 여전히 초지를 관철하여 이 건국대학교를 뒤에서 미는 일이요. 다른 하나는 전국 각 지방에 교육행각을 하면서 유위(有為)한 젊은이를 가르치면서 평생의 신념을 전달하는 일이야. 그러다가 길에 쓰러져 논둑을 베고 죽어도 한이 없겠지…"

유 총장님의 노안(老眼)에는 잠시 서글픈 만족감이 스쳤다.『건대신문』, 단기 4294년(1961) 10월 2일)

상허 선생은 총장직을 사임한 후 복직을 시도하지 않았다. 일정한 시간이 지난 후 법적으로도 얼마든지 다시 총장으로 돌아올 수 있었으나, 그는 끝내 총장직을 뒤돌아보지 않았다. "우리대학은 설립자나 학교법인 임원 몇 사람의 사유물(私有物)이 아니고, 그 육성에 정성과 노력을 기울인 모든 사람의 공유물(共有物)이요, 사회와 겨레의 공기(公器)이다"〔유석창, 「기념사」, 『학술지』 7, 건국학술연구원, 1966〕라고 하였듯이, 대학에 대한 그의 가치판단은 여느 사학관(私學觀)과는 다른 것이었다. 자신의 영혼이 담겨 있는 대학이었지만, 자신의 꿈이나 목적에 우선하는 가치였던 것이다.

상허 선생의 이임(離任)과 함께 신태수 이사장이 물러나고, 후임 이사장에 김진호 상무이사가 선임되었다. 이에 동문회 · 교수단 · 재학생들이 나서 상허 선생의 이사장 취임을 강력히 요청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상허 선생은 이를 간곡히 거절하였으나, '건국대학교의 대약진'을 위해 상허 선생의 리더십을 주문하는 요청을 물리치지 못하고, 제3대 이사장에 취임하기에 이르렀다. 곧이어 제2대 총장에는 정대위(鄭大爲) 박사가 취임하였다. 그는 이사장에 취임하는 소감을 다음과 같이 밝혔다.

"대학도 백척간두(百尺竿頭)에 놓여 있는 조국의 운명을 통찰하여 구국제민(救國濟民)의 일군을 배출하기에 최대의 노력을 다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진리에 국경이 없을지라도 대학에는 국적이 있습니다. 만연한 사회악과 빈곤 속에서 시대와 이 사회가 요구하는 건전한 일군의 양성에 협력하고 분발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 새로운 의욕과 기술을 지닌 새 일군이 교문으로부터 사회 각 부문에 뿌리 박혀서 점이 선으로, 선이 면으로 확대되는 동안에 조국재건은 기필코 그 풍성한 과실을 맺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대학재단도 단순히 식산재단(殖産財團)을 일삼는 단체가 아니라, 국가재건 사업의 원천의 일부임을 자처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나는 지금 우리 대학재단의 대표직에 취임하여 새삼 책임의 중대함을 통감합니다. 그러나 내 직책은 어디까지나 정비공에 불과합니다. 비행기를 몰고 하늘을 정복하는 것은 역시 학생 제군의 일입니다. 정비공의 노력 없이 비행사의 성공을 기대할 수 없는 것처럼 비행의 기약 없는 정비공의 노력은 무가치한 것입니다.

나는 기름 묻은 손을 닦으면서 학생 제군이 푸른 하늘을 달리는 힘찬 모습을 행복의 미소로써 바라 볼 날이 어서 바삐 오기를 고대할 뿐입니다.〔이사장 유석창, 「整備工의 심경으로」, 『건대학보(建大學報)』 12(창간 10주년 기념호), 건대사, 1962, 12~13쪽〕"

먼저 영리단체인 대학재단도 '국가재건'이라고 하는 5 · 16 쿠데타 직후 당시의 시대적 소명에 부응해야 한다는 사회적 책무에 충실해야 할 것이며, 이것이 곧 '국적(國籍) 있는 대학'으로서 소임을 다하는 길이라고 대학 경영자로서의 대학관(大學觀)을 피력하였다. 그리고 그는 재단이사장을 정비공으로 비견하였는데, 이는 그의 겸손하고 이타적인 일면을 뒷받침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재단이사장으로서 자신이 할 일을 '정비공(整備工)'으로 자임한 그는 정비공의 노력이 비행사의 성공을 기약할 수 있게 하는 관건이 되는 것이며, 동시에 하늘을 날 것이라는 기대와 기약이 없다면, 정비공의 존재와 역할은 가치와 보람이 없게 될 것이라고 하였다.

재단이사장인 자신의 역할은 학생들의 도약을 가능하게 지원하는 데 있는 것이고, 반대로 학생들이 오늘의 현실을 박차고 보다 밝은 내일을 향해 도약하리라는 기대를 가지지 못한다면 정비공 노릇을 통해 보람을 찾고자 하는 재단이사장의 꿈도 무산되리라는 의미였다.

이어서 상허 선생은 건국학술원을 건국학술연구원(建國學術研究院)으로 확대 개편하고 원장에 취임하여, 교수들의 학술연구를 뒷받침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는 한편, 재단 산하에 교육위원회 · 재경위원회 · 건설위원회를 설치하여 대학발전의 기반 강화와 함께, 수익재산의 확충에 심혈을 기울였다.

영종도 염전 · 대한발효공사 · 충무로빌딩 · 평화증권회사 · 건국배합사료공사 · 낙원동 건국빌딩 · 낙원극장 · 대한요업공사 · 건국우유 경영 등을 통해 재단 수익의 내실화를 위해 진력하였다. 1965년에는 건국학술연구원이 주관하는 학술상('저술' '공로' 부문)을 제정 시상하였는데, 상허 선생은 건국학술연구원을 모태로 건국한림원(建國翰林院)의 창설을 구상하기도 하였으나, 급작스런 서거로 결실을 맺지는 못하였다.

1962년 8월 15일 광복절을 맞이하여 정부는 상허 선생에게 공익포장증(公益褒章證)을 수여하였다. 1962년 8월 18일 대학 측에서 마련한 수상 축하연에서 상허 선생은 지나온 시간에 대한 회고와 앞으로의 포부를 밝혔다.

"여러분의 합심협력으로 이루어진 오늘의 기쁨을 감사히 생각한다. 오늘의 이 공익포상은 내 개인에게 주어지는 상이 아니라, 우리들 전체에게 주어진 상인 것이고, 같은 마음을 묶어 같은 일을 오늘까지 밀고나온 여러분들에게 꼭 같이 주어진 상으로 믿고 있다. 오늘까지는 참된 뜻에서의 결심의 준비시간이었음을 여기 밝혀 두려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준비단계의 계단을 올라온 토대의 시간이었고, 참 일은 오늘 이 시간부터 결심됨의 하나하나를 밀고나가는 정말 일하는 시간이 될 것이다.

나의 지난 단계를 제1차 20년의 계단에 있어서는 우리나라 빈곤을 쫓아 복지국가를 건설하려는 민중의 병원을 움직여 나온 의술로서의 민족갱생의 터전을 개척해보던 제1차적 20년의 계단과 제2차적으로는 해방 후 복잡한 세태 속에서 병들고 쇠태하고 스스로의 힘으로 일어나 이 나라 겨레를 바로잡고 꿋꿋이 이 민족 영원의 보존을 위해 밀고 나가야할 참된 일꾼이 요구됨을 알고, 이 겨레 새 역사의 주인공을 육성과 건국의 인재를 길러내는 일에 바친 20년 제2단계이다.

이번 공익포상은 이 제2차단계의 완성을 상준 것으로 알아 고맙게 여긴다. 그러나 이상의 제1차와 제2차의 단계는 정말 '잼핑 · 포인트'를 위한 두 번의 비약이었다는 것을 여기에 말해 두고자 한다. 참된 일과 민족사회를 위한 일이 정말의 출발지점은 오는 9월 1일부터인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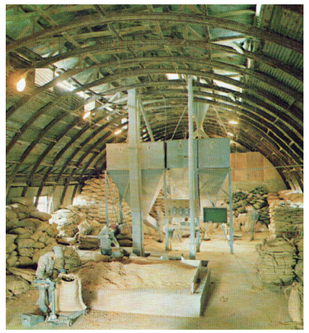
감격된 8 · 15 17주년 광복절을 맞이하여 이번 받은 상은 나에게는 하나의 진정한 일로의 신호탄인 것이다. 그 제3차 비약의 출발이란 것은 우리나라에서 빈곤을 쫓아내는 참된 복지국가로서의 농촌개발의 완성인 것이다. 이 일을 위해 육성되고 또 새 역사의 주인공들이 내 뒤와 앞에서 합심협력해주어 꼭 완성된 파라다이스 '코리어'가 되리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다. 이 제3의 출발에 있어 화려한 출발 축하탄으로 꽃 수놓아 준 정부당국과 이 일을 위해 앞으로 더욱 힘쓸 여러분께 여기 감사하며 힘찬 제3의 출발인사로 바꾸어둔다."〔「한국사회 발전에 크게 공헌한 초대 본교 총장, 현 본교 이사장 유석창 박사께 공익포상(公益褒賞)」, 『건대신문』 1962년 8월 25일〕

1950년대 영종도 염전

염전 배경 유석창 박사 등(연도 미상)

1960년 영종도 염전 원경

1961년 낙원극장(건대사진첩1 수록 사진)


건국배합사료공사(1972년 건대화보 2집 수록 사진)

대한발효공사(1976년 건대화보 15집 수록 사진)

1963년 평화증권회사(건대사진첩1 수록 사진)

대한요업공사(1976년 건대화보 15집 수록)

충무로빌딩(1960년)

민중병원을 통한 인술제민(仁術濟民)과 인술보국(仁術報國)의 20년〔제1단계〕과, 건국대학교를 통한 교육입국(敎育立國)과 육영보국(育英報國)의 20년〔제2단계〕, 그리고 구농보국(救農報國)〔제3단계〕으로 이어지는 발전구상을 제시했던 것이다.

그래서 그는 건국대학교 이사장으로서 편히 여생을 보내는 길을 피하고 고난과 부딪히게 되는 농촌개발운동의 길로 들어서게 된다.

유석창 박사 공익포상 수상을 축하함

신태수(申泰洙)

금번 8 · 15 17주년 경축절을 맞이하여 정부에서는 재단법인 건국대학원의 이사장이며 건국대학의 명예총장인 유석창 박사에게 '공익포상(公益褒賞)'의 시상이 있었다.

금번 공익포상은 정말 그 사람을 바로보고 그 시기를 옳게 가졌다 하겠다.

첫째 '덕불고야(德不孤也)요 필유린(必有隣)'이니, 유 박사의 그 업적이 국가에 알려지고 따라서 상 받게 되어 신상필벌의 본보기가 될 것이매 의의가 있고, 둘째 유 박사의 지조와 업적으로서 저 상이 돌아올 때 그밖의 사람으로 상을 받은 사람은 자신을 반성할 것이요, 상을 원하는 사람은 장래를 힘쓸 것이니 의의가 깊다 할 것이다.

선생은 경술합방에 굴욕적인 노예생활을 버리고 만주로 망명가는 양친을 따라갈 때가 11세였으며 수십명씩 몰려들 때 일면 국을 대접하며 일면 식사를 대접하며 또는 학교를 다니며 또는 그 선대인(先大人)이 독립운동에 분주하실 때 그의 10대의 감수성 있고 꿈이 많던 시절을 넘겼으니, 유 박사의 애국애족은 해방동이가 아니고 실로 살이 되고 피가 되어 그 양친을 비롯하여 그 당시 애국지사로부터 받은 것이다. 그 당시 고생한 흔적은 약을 달이고 밥을 하다가 추위 때문에 그 손이 동상에 걸리었든 일까지도 있었다.

일제의 침략은 하루 이틀에 격퇴될 것이 못되니 유박사에게 맡겨진 것은 의술을 통해 이 민족의 보건위생을 향상시키는 일이었다. 그러나 의사로서 개업을 해보니 혹은 밋슌병원에 취직을 해보아도 본래의 이상과는 판연히 틀리어 인술(仁術)이어야 하는 의술이 결국은 '돈벌이'꾼으로 전락할 우려가 많으며, 설사 하나의 시골개업의가 의업 본연의 상태로 돌아가서 빈한한 환자에게 인술을 베풀어보아도 그 영향이 너무나 적을 것은 명약관화했었다.

그리하여 개업 6개월 취직 1년만에 그 실태와 그 한계를 분명히 인식하고는 빈한에 쪼달린 지사의 가정에서 성장하여 겨우 안정된 생활기반이 설려는데 모든 것을 헌신짝같이 버리고 상경을 하니 30의 청년이었다.

조선 의업계의 혁신을 주창하고 기관지의 발행과 인술을 베풀기 위한 무료실비병원의 창설을 할려고 의료계의 원로며 각계각층을 접촉했다. 2차의 회합이며 말로 다 하기 어려운 갖은 고생을 겪고 비로소 민중병원은 무산대중의 의료기관으로서 탄생하였고, 사계(斯界)에 혁신의 봉화를 든 『보건시보(保健時報)』의 창간을 보게 되었으니, 그것이 유 박사의 32세 때였다.

일제시대에 서울에 살던 이면 누구나 다 민중병원은 무료, 혹은 실비병원으로서 빈한한 병든 사람을 위하여 꾸준히 인술 본연의 모습으로 병원을 해 왔다는 것은 다 아는 것이다.

해방이 되었다. 잃었던 나라를 찾는 것에 못지않게 나라를 지킴이 어려운 일이요, 그러기에 인재가 요구되고 동시에 교육기관이 요구되어 정치대학(政治大学)이요, 건국대학교(建国大学校)가 나타난 소이(所以)가 연(然)이다.

해방 후에 생긴 대학으로 아마 가장 견실한 곳이 우리대학일 것이며 지금도 당파(黨派)니 지방색채니 등등의 분규가 없는 곳 그리고 총장이나 혹은 이사장이 기밀비니 판공비니 하는 돈이 예산조차 세워 본 일이 없으며, 그의 사생활이 가장 가난한 곳도 우리대학일 것이다. 유 박사는 육순을 넘었으나, 그는 항상 민족의 일꾼으로 끝까지 계속할 것이다. 금번 수상의 기회를 임하여 유 박사의 모습을 여기 그려 그 과거를 축하하고 미래를 축복한다. 8월 15일(필자: 본 재단 명예이사장)

개교 20주년이 되는 1966년, 신년 호례회 석상에서 유석창 이사장은 올해를 '건대 혁신의 해'로 정하고, 금후 단계적으로 대학의 혁신을 추진하겠다고 선언하였다. 우선 재단과 대학에 기획조정실을 각각 설치하여 혁신 방안을 연구하고 건의하도록 하였다. 기획조정실 초대 실장에는 조일문 교수가 취임하였고, 3인의 간사와 3인의 직원이 배치되었다. 간사로는 윤경우 교수(정외과), 김정규 교수(교직과), 박영희 교수(행정학과)가 임명되었다.

기획조정실은 먼저 대학의 학사제도와 규정들을 정비하는 일에 착수하였고, 대학 홍보를 위하여 전국 고등학교 교장연수회를 연차적으로 개최하였다. 제1회 전국고교 교장연수회는 워커힐 호텔에서 1박 2일 일정으로 진행되었으므로 많은 예산이 소요되었으나, 이사장이 그 경비를 흔쾌히 지원하여 주어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었고, 언론계로부터도 많은 주목을 받았다. 상허 선생이 개인생활은 검소하게 하시면서 대학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은 아끼지 않는 것을 보고 교직원들은 감명을 받았다. 기획조정실은 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하면서 아울러 처음으로 교직원들에게 사무관리 기법 등의 교내 연수회도 개최하였다.〔박영희(건국대학교 정치대학 교수), 「장안동 캠퍼스의 첫 항공사진」, 『내가 본 상허 유석창』, 91쪽~92쪽〕

1968년도 개교 기념식의 이사장 치사에서 상허 선생은 교육의 생산화, 생산의 교육화, 그리고 교육의 생활화와 생활의 교육화를 강조하였다. 이사장의 치사는 다음과 같이 이어졌다.

> "교육이 생산화 되고 생산이 교육화 되기 위한 연구와 배움은 새 정치 사회의 건설과 새 문화 창조에 있어서 건실한 학풍으로 환기되어야 한다. 교육이 생산과 직결되기 위한 문제야말로 이 나라의 자연과학도에게 부과된 새로운 사명이다. 교육이 생활화되고 생활이 교육화 되는 2대 수레바퀴 속에서 건국대학교의 교수와 학생의 총 진행이 시작되어야 한다."

고 강조하고 있다. 아울러 '생산적인 사회복지'를 강조한 상허 선생은 "교수와 학생들이 함께 연구하는 리빙룸, 그리고 공부하는 가든"을 대학의 참 모습으로 제시하였다.〔박택규(건국대학교 이과대학 교수), 「상허 선생, 위대한 휴머니스트」, 『내가 본 상허 유석창』, 98쪽〕

7
민중병원의 건국대학교병원으로 발전

1931년 5월 12일 중앙전도관(YMCA) 옆인 종로 2정목(丁目) 67번지 한응수(韓應洙) 씨 소유 3층 벽돌건물에서 '사회영(社會營) 중앙실비진료원(中央實費診療院)'으로 시작하여, 1932년 7월 14일 화재로 건물이 전소되는 불의의 사고로, 천도교기념관(지금의 종로구 경운동 수운회관(水雲會館))을 거쳐 종로 2정목 12번지 YMCA 인접 건물로 옮겼다. 1939년 5월 병원 확장을 위하여 낙원동 282번지 옛 서북학회 건물을 구입하였으나, 곧바로 일제 당국에 의해 경성부청(京城府廳) 별관(別館)으로 징발당하여 병원이전 계획은 무산되었다.

해방 정국기에 이르러 원래 상허 선생은 옛 서북학회 건물인 낙원동 282번지의 협성실업학교 건물 안에 대학을 설립하려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해방 직후의 무질서한 틈을 타서 조직력이 뛰어났던 '조선공산당'이 불법으로 이 건물을 점거하였다. 그들은 1층은 사무실로, 지하실은 조선공산당 기관지의 인쇄공장으로 사용하면서 7~8대의 인쇄기를 설치하였다. 이렇게 되자, 이 건물을 무대로 좌우익의 충돌이 그칠 줄 몰랐다. 유 박사는 공산주의자들을 몰아내기 위하여 온갖 노력을 다하였고, 1945년 10월 공산주의자들은 다른 곳으로 옮겨 갔다.

그 후 유 박사는 이 건물을 민중병원으로 개조할 생각도 해 보았지만, 병원을 세워 민중을 구료하는 것은 일시적인 치료에 지나지 않지만, 민중의 무지를 영원히 고칠 수 있는 길은 역시 교육에 있다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일제하 의술로 민중을 구하고자 하였던 상허 선생의 생각이 '무지(無知)의 병'을 고치는 교육으로 발전한 것이다. 훗날 유 박사는 당시의 심경을 다음과 같이 회고하였다.

> "배고픈 사람에게 한 마리의 물고기를 주면, 그 사람은 하루를 먹고 견딜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물고기를 잡는 방법을 가르쳐 주면, 그 사람은 자기의 힘으로 고기를 잡아서 일생을 잘 살 수 있습니다.
>
>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유산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물질적인 재산이나 금전은 아닙니다. 자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자주독립의 정신과 능력을 키워 주는 것입니다. 즉 자기 갱생의 힘을 키워 주는 것입니다.
>
> 그러므로 우리가 후손들에게 남겨 주어야 할 최고의 유산은 바로 교육입니다. 우리가 지난날 겪었던 개인적이거나 국가적인 불행과 고난을 다시 겪게 하지 않는 것이 현세대의 우리에게 부여된 의무이자 명제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유 박사는 조국이 다시는 불행한 운명을 밟지 않고, 자유 · 민주 · 번영을 누릴 수 있는 길은 오로지 참된 복지문화국가를 건설하는 데에 있다고 생각하였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선도적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사업이 우선적으로 요구된다고 판단하고, 이를 위해 자신의 여생을 바치기로 결심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이종규(李鍾奎) 선생(후일 건국대학교 부총장 역임)은 다음과 같은 기록을 남겼다.

"36년간의 일제의 탄압에 시달리다가 자유를 찾은 그 감격도 잠시, 혼란한 조국의 장래를 위하여 내 개인을 희생해서라도 훌륭한 역사를 창조하려면 나부터 국가에 봉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다고 생각했다. 이 난국을 타개하고 건국의 초석이 되고 죽어서 거름이 될 각오를 분명히 하고 결심을 굳혔다.

우리는 각자의 의무와 책임을 다함으로써 건국에 이바지하고 과거의 허영심을 버리고 진정한 애국심으로 나라를 이룩하여야 하겠다고 생각했다. 이는 동지 유 박사와 논의 합의한 결심이었다.

국민들은 갈 길이 무엇인지 방황하기만 하는 현실에서, 동지 유 형은 옛날부터 품은 건국요원(建國要員) 양성의 교육에 열(熱)과 성(誠)을 다 하기로 결심하고, 나는 유 형의 출발점이었던 민중병원(民衆病院)을 계승하여 교육의 원동력이 될 옛 꿈을 이룩하기로 하였다.

민중병원에서 빈민층을 상대로 실비 내지 무료진료를 하는 병원으로 키움으로써, 국민보건을 위한 의료개혁정책에 이바지할 수 있는 보건역군이 되기를 맹세하는 출발점이었다.

나의 재산이란 옛날 사 놓은 살림집 밖에 없기 때문에 그 집을 담보로 은행에서 융자받아 종로에 있는 민중병원을 수리하고 의료기구를 보충하여 병원을 개업하였다.

1958년 옛 화양동 벌판에 위치했던 민중병원의 모습

화양동 97번지에 위치한 민중병원 모습(1960년)

아내도 동의했으며, 동지 몇 분(김세행)과 해방된 기분으로 열심히 일한 결과 옛날 민중병원 환자들이 많이 찾아왔으며 병원은 성황을 이루었다."(『동성 이종규 박사 회고록』, 19~20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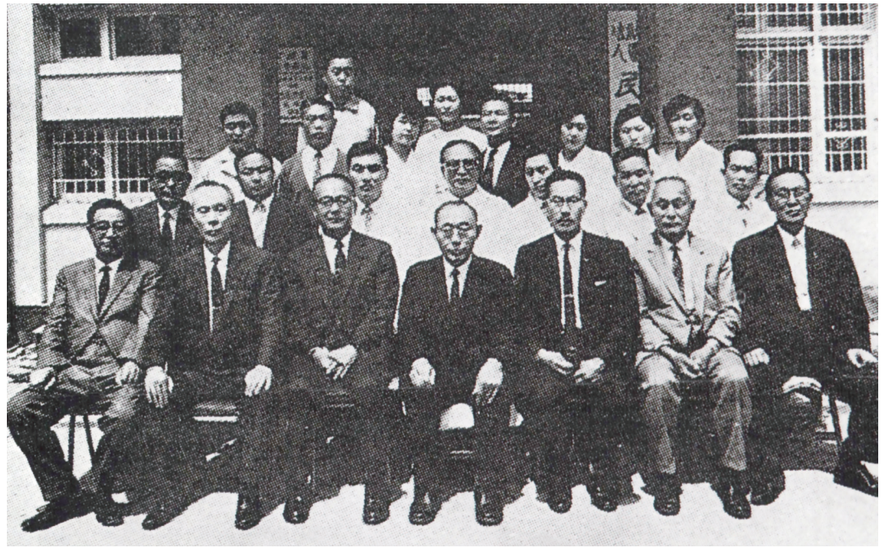
상허 선생은 "(경성의학)전문학교 4년 중 3년여를 같은 하숙을 하였"던 이종규 선생에게 민중병원(民衆病院)의 운영을 맡기고, 자신은 1931년 사회영 중앙실비진료원(中央實費診療院) 개원 이래 만난을 무릅쓰고 헤쳐온 '인술보국('仁術報國)과 '구료제민(救療濟民)'의 길에서 한 걸음 나아가, '건국인재(建國人才)' 양성의 길로 들어선 것이다.

1947년 1월 민중병원은 국민보건의 향상을 위하여 영세민과 근로자들을 위하여 야간진료를 시행하였다.(「民衆病院에서 夜間에도 施療」, 『獨立新報』 1947년 1월 12일.) 그러다가 1949년 5월에 이르러서는 "종로 2가에 있는 민중병원은 일찍이 기미년(己未年, 1919) 독립운동가 33인을 중심으로 설립되어, 빈곤한 환자에게 실비로 진료를 실시하고, 혹은 무료치료도 하여 사회에 공헌한 바 많았던 바, 이번에 다시 사업을 확장하기 위하여 사단법인(社團法人)의 인가를 받았다고 하는 데, 의료기관으로서 사단법인의 인가를 받은 것은 이것이 처음이라 하며, 이후로 빈곤한 자에게 무료 치료를 확대"하기로 하였다.(「社團法人民衆病院 診療事業 擴充」, 『東亞日報』 1949년 5월 14일)

다른 신문에서는 민중병원의 사단법인으로의 재발족을 "기미운동(己未運動, 3 · 1운동) 직후 당시의 33인을 중심으로 한 대표 45명이 창설한 후, 20년 동안 유석창(劉錫昶) 씨의 후원으로 육성되어 왔던 중앙실비진료원(中央實費診療院)의 취지"를 계승한 것으로 평가하였다.(「民衆病院 社團法人으로 發足」, 『朝鮮日報』 1949년 5월 16일) 유석창 박사의 헌신에 대한 평가가 사회적 합의를 확보하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설립 시에는 사회영을 표방했다가, 대한민국정부 수립 이후에는 다시 사단법인체가 된 것이다. 유석창 박사는 민중병원 설립 당시 사단법인 등록을 하고 싶었으나 일제강점기라는 당시 현실에서는 이루기 어려웠다. 이제 대한민국 정부도 수립되었으니 떳떳하게 사단법인을 등록하고 싶었고 드디어 뜻을 이룬 것이었다. 그리고 앞으로 병원을 좀더 확장 발전시키려면 사단법인으로 재출발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또 한 가지 이유는 이 병원이 설립 당시의 취지에 따라 사회공익사회단체로 끝까지 남겠다고 하는 일관된 정신을 새롭게 천명하겠다는 뜻도 내포되어 있었다. 그동안 해온대로 구료제민 사업을 계속할 것임을 확인하는 계기도 되었다.

이후 6 · 25전쟁 때 YMCA 옆에 있던 민중병원 건물이 심하게 파손되어 복구가 어렵게 되자 전쟁



1970년 병원 개원 40주년 기념 촬영

이 끝난 후에 임시로 을지로 4가 평화제재소 안의 한편으로 옮겨 개원하였다.

그러다가 1950년대 말 상허 선생은 장안동에 정치대학 캠퍼스를 조성하면서, 1958년 10월 민중병원을 캠퍼스 부지인 성동구 화양동 97번지로 옮겼다. 1971년 4월 12일부터 8월 20일까지 화양동 27번지 2호에 3층, 건평 400여 평의 병원을 신축하고, 같은 해 9월에 이전하였다. 이때 새로 병원을 신축한 곳은 현재 예술문화대학 옆의 쌈지공원자리이다.

1982년 8월 9일 학교법인 건국대학원이 민중병원을 인수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1982년 11월 16일에 관계 당국으로부터 '학교법인 건국대학원 부속 민중병원' 개설허가를 얻었다. 동시에 종합병원 승격이 이루어져 민중병원은 27실 85병상을 갖춘 현대식 종합병원으로 모습을 바꾸게 되었다. 1985년 10월 30일에는 문교부로부터 우리대학 충주캠퍼스에 의예과 40명의 모집 승인이 남에 따라, 1986년부터 신입생을 모집하였다. 1987년 독립된 단과대학으로서 의과대학이 설립되었다.

'건국대학원 부속 민중병원'은 숱한 어려움 속에서, 상허 선생의 구료제민(救療濟民) · 인술보국(仁術報國) 정신을 계승 · 발전시키겠다는 김경희 이사장의 결단으로 2001년 5월 15일 새로운 패러다임의 선진 병원으로 거듭나기 위한 공사가 시작되었다. 이후 4년여 간의 공사 끝에 2005년 5월 25일 준공되어, 2005년 8월 1일부터 진료를 시작하였다. '건국대학교병원의 시대'가 열린 것이다.

1971년 민중병원 신축 낙성식에서 축사 중인 유석창 박사의 모습(화양동 27번지)

1979년 건국대학교 부설 민중병원 개원식 광경. 학교법인 건국대학원 부속 민중병원으로의 인가와 종합병원으로의 승격이 이루어진 것은 1982년이었다

2001년 5월 15일 건국대학교 의료원 민중병원 신축공사 기공식 광경

8
전국농업기술자협회의 결성과 활동

1) 한국지역사회개발협회의 설립과 활동

1961년은 유석창 박사의 생애에 있어서도 분수령이 되는 해였다. 유 박사는 회갑을 맞이하면서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든 자기의 남은 인생을 바칠 보람 있는 일을 구상하였다. 그는 조국을 자유, 민주, 번영을 누릴 수 있는 참된 복지문화국가로 건설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무지'와 '가난'에 허덕이고 있는 농촌을 부흥시켜야만 한다고 확신하게 되었다.

유 박사는 이러한 농촌을 부흥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주곡(主穀) 생산'에만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농업구조를 유휴산야(遊休山野)를 개간하여 이용하는 '유축농업'으로 바꾸어야 한다고 믿었다. 그뿐만 아니라 유 박사는, 농촌은 사회구조의 뿌리에 해당하기 때문에 뿌리가 건전하지 않으면 땅 위의 식물체가 제대로 자랄 수 없듯이 병든 정치를 고치자면 그 뿌리가 되는 농민과 농업과 농촌을 튼튼하게 구축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

1961년 5 · 16 군사쿠데타 직후 군사정부의 「사립대학 정비안」 및 「교육에 관한 임시특례법」 등에 의해 상허 선생은 기꺼이 건국대학교 총장직에서 물러나게 되었는 바, 이는 그가 본격적으로 농촌개발운동에 뛰어드는 계기가 되었다. "여생을 농 · 축산업 발전과 농촌개발을 위한 농민운동에 바치다가 논두렁을 베고 죽는 죽음을 택하겠다"는 총장 이임식에서 밝힌 각오는 농민들이 잘 사는 복지문화국가(福祉文化國家) 건설에 발 벗고 나서겠다는 다짐이었다.

그리하여 1961년 10월 14일 건국대학교 낙원동교사 회의실에서는 한국지역사회개발협회(韓国地域社会開発協會) 발기인대회가 개최되었다. 개회 선언과 국민의례에 이어 발기인을 대표한 유 박사는 개회사를 통해, "우리민족의 7할을 차지하고 있는 농민을 빈곤과 무지와 질병 속으로부터 구출하는 데 성의와 노력을 기울여야"함을 강조하는 한편, 농촌개발 사업이 일조일석(一朝一夕)에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므로, 용두사미(龍頭蛇尾)가 되지 않도록 왕성하고 끈기 있는 노력과 굳은 의지로서 유종(有終)의 미(美)를 거둘 것을 다짐하였다.

경과보고에 이어 김건(金鍵) 임시의장의 사회로 정관을 심의 통과시켰으며, 이어서 만장일치로 유석창 박사를 회장에 선임하였다. 그리고 지역사회 개발사업에 관한 학술연구, 기술훈련, 지원 · 지도, 조사 · 평가, 보도 · 출판과 국제기구와의 상호협조 및 기술교류 등을 주요 활동목표로 설정하였다.〔『건대신문』 1961년 10월 22일〕

'지역사회 개발사업'은 지역사회의 경제적 · 문화적 · 사회적 · 정치적 수준을 향상시키는 과정을 통해 지역사회를 유지 · 발전시킬 수 있는 자체능력을 배양 · 보유하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서는 '주민에 대한 교육과 지도자훈련'이 중요하다. 지도자 육성 교육은 지역사회 개발의 성패를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작업이었다.

1958년 부흥부 산하에 지역사회개발중앙위원회가 설치되면서 농촌지역 개발사업이 시작되었다. 마을 지도원을 일선 마을에 주재시키며, 군 단위 전문 지도원(농업 · 가정 · 교육 · 위생 · 토목 등)의 지도하에 마을의 각종 사업과 교육에 종사토록 하였다.

86개 군 818개 자연촌락에서 시범사업이 실시되었으며, 지도원의 수효도 368명을 헤아렸다. 1962년 「농촌진흥법」이 공포되고 종전의 농사원이 농촌진흥청으로 확대 · 개편되면서 지역사회개발중앙위원회의 사업도 농촌진흥청으로 흡수되었다.

지역사회개발사업의 재원은 미국의 원조 물자와 대충자금으로 충당했다. 기술원조의 성격이 강했다. "마을 발전을 위하여 자신들을 조직화하고 지역사회가 갖는 자체자원을 최대한 활용하며, 원조가 필요할 때 지역사회의 자체자원을 보강하는 정도에서 이를 받아들여 발전을 추구하는 것"으로 정의되었다.

그러다가 1961년 5 · 16 군사쿠데타를 맞이하게 되었고, 군사정부는 1962년도 지역사회개발사업의 확대를 계획했다. 군사정부는 장면정부에서 작성한 제1차 5개년 계획(1961~1965)을 3개년으로 조정하고, 시작년도를 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에 맞추어 1962년으로 조정했다. 또 5개년 계획 하에서 책정된 1961년도 20개 군 380개 시범부락 지원을 60개 군 620개 부락으로 확대 실시하고, 1966년까지 전국 140개 군 11,800개 부락을 시범부락으로 지정 · 지원하겠다고 선전했다. 이는 전체 부락의 40%에 해당하는 수치였다.

미국정부의 지원기관인 유솜은 '국가안보와 국가단결' 방안으로서 지역사회개발사업이 갖는 의미를 군사정부가 이해했다고 평가하고 지원을 지속키로 결정했다. 그러나 미 원조당국이 주장했던 지역사회개발사업의 독자성은 군사정권에 의해 수용되지 않았고 지역사회개발 조직은 농촌진흥을 위한 기능적이며 부수적인 조직으로 격하되었다.

군사정부는 합리적인 농업경영을 통한 농가소득의 증대와 이를 바탕으로 한 농촌의 부흥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종래의 다원적인 농촌지도사업을 지양하고 효율적인 농촌지도사업을 전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군사정권의 농촌사회 개편 방향은 경제적 발전에 우선순위를 두었던 것이다. 또 '사상무장' 강화를 강조하며 국가 주도의 지역사회개발운동을 강조했다. 1971년부터 시작된 새마을운동도 지역사회개발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상허 선생이 지역사회개발사업에 착목하고, 이에 적극 참여한 것은 축산대학 졸업생들이 농촌에 투신하여 시범농가(示範農家)로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이들로 하여금 농촌운동을 선도해 나가도록 하려는 취지였다. 또 이 기구를 통해 농학협동체제(農學協同體制)를 구축하여, 농촌에 투신하는 대학 졸업생들에게 영농자금을 보조해 주는 등, 대학과 농촌사회가 상부상조(相扶相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구상이었다. 임원은 회장: 유석창, 부회장: 이종규 · 하상락, 상무이사: 김건, 이사: 이대위 · 김봉일 · 김진호 · 김석우 · 현규환 · 박동호 · 강만춘, 감사: 지용하였다.

한국지역사회개발협회는 1961년 12월 21일자로 법인 인가를 얻어 본격적으로 사업에 착수하였다. 우선 서울 부근에 3개 부락을 선정하여 각 부락마다 농한기 부업을 장려하기 위하여 제승기(製繩機), 입직기(叭織機)를 수십 대씩 기증하고, 농업 기술자를 파견하여 지역 진단을 하는 한편, 고등채소 재배를 위한 비닐하우스를 마련하여 주며, 고구마싹 재배를 장려하기 위하여 수십 섬의 고구마 종자를 대여하는 등 다양한 원조를 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이들 부락을 건국대의 자매부락으로 만들어 기술지도에도 나섰다.

그리하여 직접 농촌지역 사회개발을 수행하고자 대학교수와 독농가 2~3명을 대동하고 경기도 일원의 농촌을 순회하며 대상부락을 살핀 결과, 경기도 부천군 소사면 천왕리, 화성군 일왕면 이목리, 용인군 이동면 원촌리 3개 마을을 선정하였다.

그리하여 3개 부락에는 제승기(製繩機, 새끼 꼬는 기계)와 입직기(叭織機, 가마니 짜는 기계) 수십 대씩을 기증하여, 농한기를 이용한 부업을 장려하고 교수 · 기술자 · 독농가로 구성된 농업기술지도반을 이끌고 선정된 부락을 방문하여, 수익성이 높은 비닐하우스를 이용한 고등채소 재배 기술을 가르쳐주고, 고구마 종자를 무상으로 나누어 주는 등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했다.

또 충북 음성군과 자매결연을 하고 수년간에 걸쳐 기획 · 진단과 기술 원조를 해줌으로써, 음성군은 '전국 제1위의 모범군'으로 선정되어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이 밖에도 한국지역사회개발협회 목적의 하나인 우리대학 농과계 졸업생 또는 우리대학 출신으로 지역사회 개발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졸업생들을 물질적 · 기술적으로 지원하는 사업도 계속하였다.

1962년 11월 29일에는 경기도 일대에서 '시범부락'으로 선정된 소사읍의 천왕리 부락과 일왕(日旺)의 이목리(梨木里) 부락 용인의 원촌리(院村里) 부락과 우리대학이 자매결연을 맺었다. 지역사회개발협회(地域社會開發協會)가 이들 3개 부락을 시범적 부락으로 육성 발전시키기로 한 것이다. 자매결연식에서 회장인 상허 선생은

> "건대의 설립 목적과 높은 교육이념이 우리나라 빈일색(貧一色)의 농촌을 불러일으킨 일꾼들을 기르는 데 있는 것이다. 다른 대학과 달라서 우리 건대와 농촌부락과의 자매결연은 더욱 깊은 의의가 있는 것이다. 우리 건대가 방향잡고 있는 모든 시설과 시책이 농촌에 중점을 두고 있는 관계로, 농군사관(農軍士官)과 문인사관(文人士官)과를 아울러 파견할 뿐 아니라, 그들이 그 향토의 흙이 되어 조국건설의 참된 기초가 될 인재들을 육성하고 있는 것이다.
>
> 또한 이러한 자매결연은 뜻 깊은 일로서 앞으로 육성도장으로서 그 지닌 바 사명을 다할 것을 믿는 바이다. 특히 사단법인 한국지역사회개발협회로 하여금 농촌지역 사회개발 지도를 받아 3개 부락뿐 아니라 여러 부락을 지도 육성하기 위하여 전력을 다 기울일 것이다. 우선 전문가들에 의하여 교육훈련을 시켜 각 부락에 배치하여 매월 정기적으로 소집 회합을 갖는 등 지도체계가 확립되어 있는 것이다. 또한 동 협회에서는 각 부락 순회 지도자를 배치하고 있다. 오늘 이 3개 부락은 전국적으로 타기관과 맺고 있는 수천 다른 자매결연 부락과는 근본적으로 그 성격이 다르며, 오직 건대에서만이 달성시킬 수 있는 점이 있다는 것을 명시해 두는 바이다.
>
> 앞으로 재단과 학교 한국지역사회개발협회와 부락 이렇게 삼위가 일체되어 오늘 결연을 맺는 자매부락을 전국에서 가장 표본이 될 만한 시범부락으로 육성 발전시킬 것이다. 뿐만 아니라 전국의 어떤 부락이든 건대가 그 지도대상으로 맞이하게 되는 부락은 건대의 설립 목적과 교육이념의 구현을 위해 전력을 다해 노력할 것을 다시 강조해두는 바이다.
>
> 끝으로 자매결연식이 늦은 것은 형식과 말이 앞섬이 없이 실천부터 해나가는 것을 확실한 못토로 삼고 있기 때문이다. 여러 부락 대표들과 부락민들의 협조를 바라는 바 크다."〔『建大新聞』 1962년 12월 12일〕

고 격려하였다. 이후 상허 선생은 교수들로 구성된 기술전문위원들과 직접 3개 부락을 수차례 방문하여 자원지도자〔천왕리: 황근옥, 이목리: 이한옥, 원촌리: 이진수〕, 자체지도자〔천왕리: 윤병노, 이

경기도농촌자원지도자훈련소 1회 수료기념(1964년)

목리: 이동수, 원촌리: 이성무)의 교육훈련 배치, 과수목 구충작업, 어린이 놀이터 개설 운영, 특수작물 재배 장려, 농촌계몽영화 순회공연, 종자개량 알선, 무료진료, 초가를 기와로 개량, 입기계(叭機械)와 새끼기계 공급으로 농한기 부업 장려, 기와 공장 시설 지원, 부락민 건대농원 견습 등의 사업을 시행하였다. 그 결과 퇴비 증산으로 경기도 내에서 1등상을 받은 부락도 있고, 엔시레이지 시범부락, 신생활개선 시범부락으로 선정되는 등 부락민의 호응이 대단하였다.

2) 전국농업기술자협회의 설립 경과

이와 같이 유 박사는 건국대학교 안에 농축산 대학을 설치하여 농촌 지도자를 양성하는 한편, 직접 지역사회개발운동에 참여하였고, 한 걸음 나아가 전국적인 조직을 구성하여 대대적인 농촌개발운동을 전개하고자 전국농업기술자협회를 결성하기에 이르렀다.

전국농업기술자협회의 모체가 된 것은 전국농업기술자대회였다. 1956년 1월 1일 중앙종묘주식회사의 사보 편집장 정장섭 선생과 박갑숙 사장은『새농사』잡지를 창간하였고, 이어서 이 잡지의 애독자와 집필진을 중심으로 농업과 농촌의 발전을 주도할 독농가(篤農家) 모임을 주선한 다음, 이 모임을 전국적 차원으로 확대시킨 것이 전국농업기술자대회(全國農業技術者大會)였다.

그리하여 1960년 10월 22 · 23일『새농사』월간지의 주최로 부산원예고등학교에서 제1회 전국농업기술자대회가 개최되었다. 전국에서 농촌지도자와 중견농업기술자, 독농가 등 400여 명이 참석하였으며, 독농가 10여 명이 자신의 체험을 발표하고 토론하였다.

전국농업기술자대회 개최의 취지는 "우리농업의 근대화와 기술 보급을 통한 선도적 역할"에 두었기 때문에, 이 역할을 자임해 나아갈 선도농민을 조직화하는 일이 급선무였다고 하겠다. 그리하여 이 역할을 맡을 선도적 농민들을 모아 조직화하기 위해 전국적 차원의 대회를 소집하기에 이른 것이다.

제1회 전국농업기술자대회 취지문

우리나라는 자고로 산업의 주종이 농업이며 전 국민의 7할이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명실 공히 농업국가인 것이다. 농업의 발전과 농촌의 부흥 없이 어찌 국가의 육성을 바랄 것이며, 국가의 백년대계를 생각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우리농촌의 현상은 어떠한가? 산은 헐벗고 들판은 황폐하여 가며 날로 심각하여 가는 경제적인 빈곤은 질식 직전에 놓여 있다. 선진국가에서는 종자의 육종과 개량, 신 비료, 신 농약, 신 기자재 등 고도로 발달한 근대과학의 힘과 이기를 농업에다 적절히 이용함으로써, 농업을 자연에만 의존하여 오던 낡고 묵은 시대를 벗어나서 자연을 활용하고 정복하여 농업사에 찬란한 황금시대를 이루고 있지 않은가.

이에 비하여 우리 농촌은 영세하고 협소한 경지에서 호미와 괭이에 의한 원시적인 생산에 땀을 흘리고 허덕이고 있으니 한심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우리나라 농촌이 오늘날과 같이 경제적인 빈곤과 후진성에 얽매여 몸부림치는 원인이 도대체 어디에 있는가. 농촌을 가난에서 구제하고 부흥 시키자면, 그리고 국력을 부강시키자면 그 방법과 첩경은 무엇인가.

원시적인 영농방식을 버리고 과학기술의 터전 위에다 농업을 올려 세워 성장시키는 일이라 하겠다. 그러자면 먼저 농민의 낡은 정신부터 혁신시키는 동시 유능한 농촌지도자와 농업기술자를 육성하여 그들의 창의를 조장하고 생산의욕을 고무시켜주는 길이 있어야 할 것이다.

온갖 사회적인 악조건과 애로 가운데서도 굴하지 않고 농사를 과학적으로 경영하여 농촌부흥에 고전 분투하는 이들이야말로 농촌 재건의 역군이며, 캄캄한 우리 농촌을 밝히고 있는 횃불이라 아니할 수 없다.

이러한 농촌지도자와 농업기술자들이 일당에 모여서 그 노고를 위무하는 동시에 각자의 연구 업적과 산 체험을 서로 교환하고 토론함으로써 우리나라 농업기술의 진행을 꾀할 수 있고 농촌 부흥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오래전부터 계획하여 온 바 있는 제1회 전국농업기술자대회를 개최하게 된 것이다.

제2회 대회는 1961년 10월 22 · 23일 대구 청구대학(현 영남대학교의 전신)에서 개최되었다. 5 · 16군사쿠데타 직후 군사정부가 농어촌 고리채 정리, 농업은행과 조합의 통합 등을 제시하였고, 여기에 농업과 농촌의 획기적인 변화를 기대하는 농민들의 욕구가 더해져서 대회는 성황을 이루었다. 제3회 대회는 1962년 11월 15일부터 17일까지 3일간 대전 기독교농민학원에서 개최되었으며, 참가자도 700여 명으로 그 규모와 내용이 크게 확대되었다. 박갑수『새농사』지 사장은 1회부터 3회 대회에 이르기까지 경비를 부담하는 열의를 보여주었다.

그런데 제3회 대회 이후 전국적인 농민조직의 결성과 농민운동의 전개 방안을 구상하면서 전국농업기술자협회의 창설이 본격화하였다. 제3회 대회에 참가했던 한국지역사회개발협회의 한 간부가 한국지역사회개발협회 회장이면서 건국대학교의 설립자인 유석창 박사를 전국농업기술자대회 추진위원회에 소개하였고, 또 정장섭 선생을 한국지역사회개발협회의 주도조직인 농지회 회원으로 가입시킴으로써 전국농업기술자협회의 조직화 기반이 갖추어지게 되었다.

1963년 제4회 전국농업기술자대회 후 시가행진하는 유석창 박사

이러한 과정을 거쳐 제4회 대회가 1963년 10월

8일부터 3일간 서울 건국대학교에서 개최되었다. 1200여 명이 넘는 농민대표들이 모여 3일간의 열띤 발표와 토론회를 통해, 9개 부문 17개 조항의 대정부 정책건의안을 채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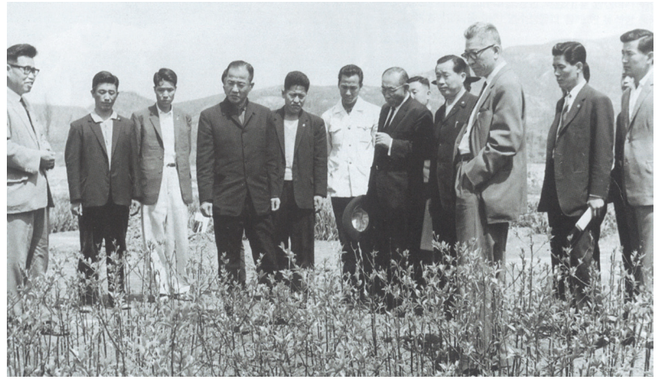
이를 토대로 네 차례의 전국농업기술자대회에 주도적으로 참여해 온 회원들을 기반으로, 사단법인 한국지역사회개발협회 및 농지회(農地會) 회원이 중심이 되어 1963년 9월 가칭 '한국농업기술자협회 발기위원회'가 결성되었고, 이어서 단체의 명칭은 전국농업기술자협회로 결정되었다.

전국농업기술자협회 결성 경과와 관련해서, 김성도 선생(전 전국농업기술자협회 지도위원)은 다음과 같이 회고하였다.

"나는 해방 이듬해부터 공진항 선생님을 중심으로 이호철 · 송석도 선배들과 경인 각지의 독농가들의 견학과 기술교류 및 친목을 도모하는 농지회(農志會)를 만들었다. 이 모임이 6 · 25사변으로 일시 중단되었다가 내가 귀경하여 건대에 근무하면서 재출발을 하였다. 이때 『새농사』 주간 정장섭, 지역사회개발협회 이진수 사무국장도 영입하고, 상허 선생님도 고문으로 추대하여 농지회는 성황을 이루었다.

중앙종묘가 제3회 대회를 대전에서 마치고 서울에서 제4회 대회를 개최할 계획이었으나, 여의치 않아 지연되고 있었다. 마침 농지회 임원회를 새천마목장 공 선생님 댁에서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서 『새농사』와 지역사회개발협회 공동개최안이 나와서 합의되어, 1963년 건국대학교에서 제4회 대회가 열렸다. 그 후 전국농업기술자협회가 탄생하고 상허 선생께서 제1대 총재로 추대되었다."〔김성도(전국농업기술자협회 지도위원), 「위대한 농민, 위대한 교육자」, 『내가 본 상허 유석창』, 43쪽〕

그리고 1963년 10월 10일 제4회 전국농업기술자대회의 참가자 1053명의 명의로 창립총회가 열렸으며, 10월 17일 제1차 이사회에서는 초대 회장에 유석창(劉錫昶) 박사, 부회장에 송석도(농지회 회장) · 박갑수(중앙종묘주식회사 사장) · 김정호(독농가) 씨, 전무이사에 김건, 상무이사에 정장섭 씨 등 11명의 이사와 2명의 감사, 사무국장(이진수), 36명의 평의회 의원 등을 선출하고, 전반적인 운영방향 등의 기본방침을 결정하였다.


관계자들과 함께 소득작목 시험포장을 둘러보는 유석창 박사

이어서 1964년 4월 1일자로 '농림부 등록 사회단체 제7호'로 전국농업기술자협회가 정식 발족하였다. 종로구 낙원동 282번지 건국대학교 교사 안에 사무실을 두었고, 부산시와 각 도청 소재지에 지방조직을 설치키로 하였다.

1964년 5월 6일 협회가 정식으로 사회단체로 등록된 후 처음 가진 3차 이사회에서는 도 단위 지부 등 지방조직요강과 기술교육 문제, 회보발간 문제, 5회 대회 개최 문제 등을 다루었다. 7월 20일 회보를 창간하였고, 7월 22일 인천지부, 9월 8일 서울지부 결성에 이어서 연말까지 11개 지부가 결성되었다.

1965년 전국농업기술자협회 이사회의를 마친 후 이사들과 함께 양계장에다 거적을 치고 조촐한 식사를 하는 유석창 박사 일행(경남 김해)

1960년부터 63년에 걸쳐 네 차례 개최된 전국농업기술자대회는 '농업기술자'들 간의 친목 도모와 정보 및 기술의 교환이라는 목적과제가 중요한 것이었기에, 대회기간 동안 각자의 기술 발표와 선진현장 견학 등이 실시되었고, 이와 같은 활동을 통해 "농업기술을 선도하고 농업증산에 기여하며 근대화된 농촌문화 창달"의 소임을 수행하였던 것이다.

이와 함께 네 차례 대회에 참석한 사람들이 대부분 독농가와 4-H 자원지도자, 시 · 군 농사교도소장의 추천을 받은 지역사회에서 선도적인 위치에 있는 농민들이었는데, 이들은 구국(救國) · 구농(救農)의 열기와 농업 발전에 대한 애착이 강했기에, 이들의 열정과 적극성이 전국농업기술자협회 결성을 가능케 한 인적기반 노릇을 하였던 것이다.

3) 전국농업기술자협회의 이념과 목표

전국농업기술자협회의 설립이념과 활동목표는 전근대적인 영농방식을 과학기술의 터전 위로 올려 세움으로써 농업기술의 진흥을 선도하고, 농민의 낡은 정신을 혁신시켜 농업의 증산과 농촌생활의 혁명적 개선을 추구하자는 데 있었다. 이는 전국농업기술자대회의 취지와 강령에서 밝혔던 바로써, 이를 계승하여 농업기술의 진흥과 농업 증산 및 농촌문화의 향상을 위해 그 선도적 역할을 다할 것을 명시하였다. 또 전국농업기술자대회를 통해 준비되고 창설되었기 때문에, 이념과 목표도 같고 구성원도 거의 동일하였다.

전국농업기술자협회 발기취지문

농촌 진흥을 부르짖고 농업의 발전을 꾀하며 몸부림치는 이유는 우리나라 산업에서 농업이 차지하는 절대적인 비중이나, 전국민의 대부분이 농민이라는 데에만 있지 않다. 농업의 낙후성을 지양하지 않고서는 전체산업의 균형 있는 성장을 이룰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는 경제부흥을 성취할 수 없기 때문이다.

우리 농촌이 원시적인 농업 생산체제에서 벗어나서 빈곤에서 해방이 되자면, 농민들의 자조자립정신에 입각하여 경영 기술과 경종 기술을 동시에 전개시켜 농업생산성을 높이는 데에 있다.

이제까지 모든 지도사업과 기술보급 사업이 정부에 의해서만 수행되어 왔다. 그리하여 농민들의 자조 · 자립정신을 저해시키기도 하고, 한편으로 의타심을 조장한 결과가 되기도 하였다.

정부의 농업정책이 아무리 훌륭한 것이라 할지라도 농민의 호응과 자발적인 협조가 없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없음은 너무나 상식적인 일이다. 그러므로 농민들의 자조 · 자립정신을 바탕으로 하는 순수한 민간운동으로서의 기술보급 사업의 필요성이 절실히 요구되어 왔고 성숙하여 왔다.

이러한 뜻에서 중앙종묘주식회사에서 발행하는 월간『새농사』지가 주동이 되어, 1960년부터 시작한 전국농업기술자대회는 회를 거듭할수록 전국적인 농업기술자 · 농촌지도자 · 독농가들의 농촌 진흥을 기필코 완수하겠다는 정열이 불타올라 오늘에 이른 것이다.

이번 제4회 전국농업기술자대회를 계기로 하여, 이 뜨거운 불길을 한데 뭉쳐 자주적이고 자발적인 민간 운동체를 구성하여, 전국농업기술자대회에 수반된 제사업을 이양 받아 영속 발전시키며, 농업기술 발전으로 농업 증산과 농촌복지 향상에 기여할 목적으로 가칭 전국농업기술자협회를 발기하는 바이다.

제1회 전국농업기술자대회 강령

1. 우리는 부단한 창의와 노력으로서 농업기술 진흥에 헌신하자.
1. 우리는 항상 지도자로서의 긍지를 지니고 농민의 선봉에 서서 농업 증산에 헌신하자.
1. 우리는 낡고 묵은 습속을 타파하고 생활 개선에 솔선수범하여, 농촌문화 향상에 헌신하자.

명칭에서 눈 여겨 봐야 할 것이 '농업기술자(農業技術者)'라는 단어에 함축되어 있는 의미이다. 상허 선생은 농업도 공업과 마찬가지로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이 필요하다는 생각이었다. 즉 단순히 자연환경에 순응하여 육체노동으로 짓는 농사가 아니라, 생산량 확대나 고품질의 작물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고도의 전문기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래서 농업의 발전과 농가경제의 향상을 위해서는 전문기술자로서 능력을 갖춘 농민을 육성해야 한다는 의지가 '농업기술자'라는 단어에 함축되어 있는 것이다. 그러면 상허 선생의 농촌 발전에 대한 생각과 구상을 담고 있는 글들을 몇 가지 살펴보기로 하겠다.

"우리 협회는 회세(會勢)를 증대하여 큰 힘으로 뭉쳐 어떠한 정치적인 운동에 이용하려는 것도 아니요, 또는 어떠한 영리적인 사업을 도모하려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한 취지는 이미 여러 회원들이 처음부터 자각하고 이 협회에 참가하고 있는 줄 알고 있으므로, 더 해명할 필요조차 없는 문제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부 결성이 끝나고 보고를 위한 이사회를 개최한 자리에서 본 협회의 취지와 목적을 다시 한 번 천명하는 동시에 나갈 바 진로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였던 것입니다.

즉 우리 협회 회원들은 농업기술을 더욱 연마하여 독농가(篤農家)다운 시범을 보이는 동시에, 자기가 거주하는 지역에서 자기 전문분야의 기술을 중심으로 소조합(小組合) 또는 소클럽을 조직하여 가지고 그들에게 기술과 경험을 전수함으로써, 수확을 높이며 시장가치(市場價値)를 높이는 운동을 전개하는 일입니다.

만일 우리 협회 회원이 앞으로 4 · 5만명이 된다고 가정한다면, 전국 각 자연부락에서 이러한 증산운동이 일시에 일어나 국가 중농정책에 막대한 협조가 될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농민 자체의 자발적 정신운동은 무엇보다도 큰 성과가 있을 것으로 자신하고 있는 바입니다."〔『회보(會報)』 2호, 1964년 10월 20일〕

"우리 협회의 목적이 증산에 대한 기술연마요, 우리 협회의 사업이 증산 · 복지 · 소조합운동이니 만큼 회원은 각기 자기 부락의 농민들과 더불어 소조합(小組合)을 결성하여 증산운동에 착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회보(會報)』 4호, 1965년 4월 1일〕

"농업기술자협회는 무엇을 하는 단체인가? 이 협회는 비배운동(肥培運動)을 하는, 살찌는 운동을 하는 모임입니다. 무엇이 살찌는가? 농민이, 농업이, 농촌이 살찌고 비대(肥大)하는 운동을 벌리는 것이 우리들 협회가 하는 일입니다. 정치가나 학자나 군인이나 관리가 살찌면 이 나라가 망합니다. 농업, 농민, 농촌이 살쪄야만 나라가 바로잡히고 잘 살게 되는 것입니다. … 발전 양상을 살펴보면 농업이 먼저 발달하여야 했다. 이는 왜냐하면 1차 산업이 경제 발전의 역사적인 제1단계를 치루었기 때문이다.

해방 후 20년 동안을 허송세월을 하고 아직도 경제자립의 기초를 닦지 못하고 있다. 그 이유는 바로 농업의 발달이 역사적인 제1단계를 치루지 못했기 때문이다. 어떻게 해서 우리 농촌과 농민을 살찌울 수 있나-.

첫째로 우리의 운동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지금까지의 우리나라 모든 정치운동이나 사회운동이 구심운동(求心運動)이었습니다. 말초(末梢)의 힘이 중심으로만 모이는 것이 통례였습니다.

우리의 운동은 이와 반대로 원심운동(遠心運動)인 것입니다. 중심의 힘이 말초를 향하여 말초를 살찌게 하는 운동인 것입니다. 5만 자연부락을 비대시키기 위하여 우리의 모든 조직이 움직이는 운동이므로

전혀 다른 것입니다.

둘째로 방향과 방법이 다릅니다. 힘을 모아서 기술을 이용하여 말초에 가서 기술조합을 움직여서 5만 고구마를 길러내자는 것입니다.

고구마의 잎줄기, 뿌리가 말라가면서 고구마를 살찌우자는 것입니다. 기술조합이 기술을 중심으로 증산운동을 이루자는 것입니다. 셋째로 … 독농가가 5만개의 고구마 하나를 받아서 살찌우고 기르는 사명이 있습니다. 독농가가 역사를 창조하는 중요한 임무를 지니고 있는 것입니다. 기술조합을 통하여 일 할 자리를 마련하는 일이 역사적 의무이기도 합니다."〔『회보(會報)』 5호, 1965년 5월 1일〕

"우리 회원들은 각기 거주하는 자연부락(自然部落)에서 먼저 신의(信義)를 되찾아야 하겠습니다. 제1차적으로 농민들에게서 정신적으로 신망(信望)을 받고 기술적으로 모범이 되어 현저한 증산 실적을 눈앞에 보여줌으로써 농민들로 하여금 자발적인 의욕을 불러 일으켜 기술을 알맹이로 하는 농사기술조합을 만들어 조직적인 증산운동을 일으키자는 것입니다. 이 일을 담당할 우리 회원들이야말로 역사의 주인공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농업기술회보(農業技術會報)』 8호, 1965년 7월 1일〕

"우리는 1년에 몇 번씩 만나는 친목회가 아니고, 기술을 통하여 전한국의 농업을 발전시키자는 데 그 목적이 있는데, … 우리는 결코 친목단체가 아니요, 실리단체(實利團體)입니다. 실리단체인 이상 어떻게 하면 회원들에게 실리를 줄 수 있는가를 깊이 연구해 보십시다."〔「제5차 상임이사회 격려사」, 『농업기술회보(農業技術會報)』 28호, 1966년 8월 1일〕

"여기 한 환자가 있다고 합시다. 의사가 진찰한 결과 투약으로는 고칠 수 없고 대수술을 해야 된다는 진단이 내렸다면 병을 고치고 생명을 구하고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서 수술을 해야 합니다. 우리 농촌도 마찬가지입니다. 혁명적인 과감한 수술을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농민에 대해서는 정신혁명(情神革命)을, 농업에 대해서는 기술혁명(技術革命)을, 농촌에 대해서는 생활혁명(生活革命)을 완수하였을 때, 우리 농촌은 진흥이 되고 잘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혁명적인 대수술 집도할 의사는 누구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선도농가((先導農家)인 여기 모인 회우 동지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칼을 든 것 같은 강한 결심으로 혁명적인 수술에 나서야 합니다. 여러분이야말로 이 나라 역사의 주인공이며, 선각자요, 지도자이며, 혁명대열의 선봉들이기 때문입니다."〔「제8회 대회사(요지), 혁명적인 과감한 수술의 집도의(執刀醫)는 선도농가」, 『농업기술회보(農業技術會報)』 52호, 1967년 11월 1일〕

"우리는 선도농가(先導農家)로서 먼저 자신부터 정신혁명 · 기술혁명 · 생활혁명을 완수하고 나아가 천6백만 농민의 선봉에 서서 조용한 혁명을 성취하여야 되겠습니다. 정부의 강력한 지원정책과 농민, 선도농가가 삼위일체가 되어 5단계로 이르는 우리들의 위대한 꿈을 실현해야겠습니다."〔「1968년 신년사」, 『농업기술회보(農業技術會報)』 54호, 1968년 1월 1일〕

"선도농가(先導農家)와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삼위일체가 된 농촌의 개발을 본인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주장하여 왔으며, 선도농가의 발굴과 육성, 선도농가의 집결체가 우리 협회의 사업인 것이며, 우리 협회가 존재하는 이유인 것입니다."〔「특별담화문: 농촌 진흥은 농민이 주도해야, 상허재단은 협회 운동의 초석」, 『농업기술회보(農業技術會報)』 96호, 1971년 7월 1일〕

4) 전국농업기술자협회의 활동과 유석창 총재의 리더십

1960년대 초반에는 오늘날과 같이 고속도로가 뚫리고 도로가 포장 정비되어 있지 않았다. 1964년 7월 22일부터 9월 8일까지 전국농업기술자협회 11개 시 · 도 지부를 결성할 때의 일이다. 가뭄으로 논밭이 갈라지고 폭염이 쏟아지는 무더운 여름이었다. 대구에서 자갈밭 길을 달려 진주까지 다섯 시간, 다음날 아침 삼천포시에서 열리는 경상남도지부 결성대회에 참석할 때의 일이다.

진주여관에서 밤사이에 병환이 났다. 한잠도 주무시지 못하고 뜬눈으로 아침을 맞았다. 박영룡 비서와 필자는 걱정이 되어 삼천포 행사에 참석하시지 말고 서울로 올라가실 것을 간절하게 권유하였다.

"논두렁을 베고 죽겠다는 내 맹세가 거짓말이 되겠군. 이제 좀 진정되었으니 가는 데까지 가보자"고 하시며 앞장을 선다. 장항선을 타고 예산에서 열리는 충남행사에 참석할 때의 일이다. 완행열차는 초만원이어서 객차에는 젊은 사람도 감히 올라탈 엄두도 못 낼 형편이었다.

쩔쩔매다 하는 수 없이 수화물 칸으로 가서 승무원에게 사정을 하여 짐칸에 겨우 올라탈 수 있었다. 너절한 짐짝위에 걸터앉아서 일행을 돌아보며 기차가 움직이자 "여기가 과연 특등석이군!"하며 좌중을 웃기는 것이었다.

농촌의 구석구석 삼복 무더위를 무릅쓰고 복지농촌 건설을 위한 3대혁명을 외치며 나서지만 지방의 기관장이 마중을 하거나 환영해 주는 이 없는 초라한 행차는 구도자의 고행을 방불케 하는 것이었다.〔정장섭, 「내가 만난 상허 선생」, 『건대신문』 1981년 5월 20일〕

1964년 완행열차 화물칸에서

"나는 농민운동을 하기 위해 가정도 버렸다. 승적(僧籍)도 없는 비구승(比丘僧)"이라고 외치면서, 농촌개발운동에 투신한 상허 선생은

전국 방방곡곡을 돌면서, 어떤 때는 털털거리는 시골 완행버스에서, 또 좌석도 없는 기차 화물칸 안에서, 여름철의 모기에 물어뜯기고 겨울철 추위에 떨면서 여관집 차디찬 방안에서 밤을 지새우다시피 했던 7년의 생활이 전국농업기술자협회 유석창 총재가 살다 간 모습이었다.

> 종일 격무에 시달리다가 늦게 귀가해서도 꼭 알코올 소독을 하다 보니, 늦도록 자리에 들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했지만, 농촌을 순방할 때 농민들과 밭두렁에서 만나면 그들의 흙 묻은 손을 덥석 잡아 격려하시곤 했다. 그럴 때면 저 어른이 언제 알코올 소독을 하던 분인가 하고 의아해 했다. 상허 선생의 농촌과 농민에 대한 사랑이 얼마나 크신가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설완(전 학교법인 건국대학교 이사장 비서실장), 「상허 선생과의 조그만 인연」, 『내가 본 상허 유석창』, 111쪽〕

최측근에서 상허 선생을 모신 인물의 눈에 '결벽증 환자'로 비칠 만큼 평소 위생에 민감하던 그였지만, 농민의 앞에만 서면 그들의 흙 묻은 손을 부여잡고 애정과 신뢰를 전하고자 애썼던 그의 모습이다. 이처럼 농민들에게 한 치라도 가까이 다가서려 한 겸손과 진정성이 있었기에, 농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었고, 이를 토대로 짧은 시간 내에 전국농업기술자협회의 조직화를 이룰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면 전국농업기술자협회가 주관한 전국농업기술자대회를 중심으로 상허 선생의 농업발전 · 농촌개발 · 농민계몽을 위한 헌신의 발자취를 추적해보기로 하겠다.

(1) 1963년 10월 8~10일 열린 제4회 서울대회(1963년)는 유석창 박사가 회장을 맡고 있는 한국지역사회개발협회가 적극 참여하면서 건국대학교에서 개최되었다. 『새농사』 잡지사가 홀로 주관하기엔 참가 규모 등이 크게 확대되었기에, 한국지역사회개발협회와 공동으로 주최하기에 이른 것이다. 대회장으로 한국지역사회개발협회장인 유석창 박사를 모시는 데 합의하였고, 한국지역사회개발협회가 대회를 주관하게 되었다.

개회식을 겸한 첫 날 대회는 유석창 대회장의 대회사, 유병현 농림부장관의 격려사, 현신규 농촌진흥청장의 격려사, 문방흠 농협중앙회장의 축사, 농업기술상 시상, 건의문 채택 순서로 진행되었다. 대회사에서 유 박사는 "국가의 흥망성쇠에 직결한 농업의 발전 진흥을 위해 농민도 이제는 낡은 농촌지도이념을 탈피해야 한다"고 말하였다. 제4회 대회부터는 기왕의 과수 · 채소 · 축산 분과에 일반농업 분과가 추가됨으로써 농업의 모든 분야에서 새로운 기술과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대회로 성장하게 됐다.

농업기술자 이외 농업관계 12개 회사의 직원들이 참가했는데, 이들은 건국대 신관 기숙사에 유숙하였으며, 축대생 80여 명이 안내 등 행사 진행을 도왔다. 9일 밤에는 축대 학생회에서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합창 · 농악 등을 공연하였다.

대회 마지막 날인 10일에는 참가자 전원이 건국대학교 장안동 교사에서 버스 편으로 낙원동 교사로 이동하여, 오후 1시부터 축대 농악대(農樂隊)를 앞세우고 종로 광화문 네거리를 거쳐 서울역까지 시가행진을 했다.

당시 전국농업기술자대회는 『새농사』 애독자와 관련 농민, 서울과 경기도 일원의 독농가와 농촌지도자로 구성된 농지회, 농촌지역사회 발전을 연구하는 지식인 그룹인 한국지역사회개발협회 회원들이 주축을 이루고 있었다. 이들은 제4회 대회를 준비하면서, 전국농업기술자협회의 창립을 위해 발기취지문을 마련하여, 학계와 농민대표들로 발기인(50인)을 구성했다.

그리하여 대회 마지막 날, 참가자 전원이 참석한 자리에서 전국농업기술자협회를 창립하게 된 것이다. 처음에는 명칭을 '한국농업기술자협회'로 정하였으나, '한국'을 '전국'으로 바꾸는 것이 참신하고 무게가 있다는 유석창 박사의 제의에 따라, '전국농업기술자협회'로 결정되었다. 회장에 유석창, 부회장에 박갑수(朴甲洙) · 송석도(宋錫度) · 김정호(金定鎬) 3인이 선출되었다.

월간 『새농사』사와 한국지역사회개발협회가 대회를 공동으로 주최한 사실은 전국농업기술자대회를 이끌어 온 박갑수 사장과 건국대학교 설립자이자 한국지역사회개발협회 회장인 유석창 박사가 손을 맞잡았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로써 전국농업기술자대회의 위상은 한층 높아지게 되었을 뿐 아니라, 전국농업기술자협회가 창립되는 결실까지 맺게 되었던 것이다.

이와 함께 유석창 박사가 처음으로 대회장을 맡아 치룬 제4회 전국농업기술자대회에 맞춰, 제3회 '농촌진흥전시회'가 1963년 10월 8일부터 14일까지 7일간 건국대학교 중앙도서관에서 열렸다.

전시내용은 크게 셋으로 나뉘었는데, 제1부 '농촌진흥전시관'에는 농촌진흥청 · 재건국민운동본부 · 농협중앙회 후원으로 정부의 농촌정책과 그 성과 및 목표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도표와 사진, 모형 등이 전시되었다. 제2부 '농산물전시관'은 과실류 및 채소류의 품종별 실물과 신품종 및 우량장려품종의 육성 경위에 대한 자료와 사진이 전시되었다. 제3부 '우량 농업자재 전시관'은 관련업체에서 출품한 농약 · 농기구 · 농업도서 · 축산약품 · 축산기구 등이 전시됨으로써, 농업박람회의 성격을 띠었다.

이 대회에 참가한 한 분이 대회의 경과와 의미를 서술한 글(유희훈(俞喜勳, 문화농촌건설조합장), 「제4회 전국농업기술자대회를 마치고– 건대의 위용(偉容)에 감탄(感嘆)했다」, 『건대신문』 1963년 10월 31일) 속에, 당시 장안벌 캠퍼스의 상황과 풍광, 그리고 우리대학에 대한 기대감이 배어 있기에 소개하고자 한다.

> '배워야 살고 아는 것이 힘이다'라는 철칙은 우리 한국에도 8 · 15 해방 이후 급진적으로 향학열이 많아지고 대학 풍년이 들었다. 영국과 비등한 대학생 수를 가지고 있다는 우리나라는 농업국이며 빈곤한 처지에 있으면서 인문학교에만 치중해 왔던 것이다.
>
> 서울 근교 광나루 연변에 80여 만 평의 광대한 부지에 자리 잡고 있는 건국대학교(建國大學校)는 우리나라 농업 개발과 지역사회 개발을 위한 독특한 대학으로 군림하고 있는 것은 참으로 다행한 일이라

아니할 수 없다. 농협대학(農協大學) · 지역사회대학(地域社會大學) · 축산대학(畜産大學), 이와 같은 과목의 학교는 국민 6할 이상의 농업국가로서 발전적 진취를 보게 될 것이라고 믿어지는 바이다. 바로 이 성스러운 터전에서 제4회 전국농업기술자대회를 개최케 되었다는 것은 그 의의가 심대하다고 감명하는 바이다.

이 대회의 연혁을 살펴보면, 4년 전 부산에서 독지가 박갑수(朴甲壽) 씨가 희생적으로 대회비를 전담하여 시작된 후, 금년도에는 한국지역사회개발협회장이시고 전 건국대 총장이시며, 우리나라 농촌개발의 거성(巨星)이신 유석창 씨의 공동주최로 개최케 된 것이다. 금년도에는 전국에서 집합된 회원 3천여 명이 한 강당에서 회의를 하고, 3일간이나 숙식을 하였다는 것은 건국대학교의 신세를 아니 지고는 불가능하였을 것이라 생각하여, 심심한 사의를 표하는 바이다.

제2일에는 축산 · 원예 · 일반농업 · 과수 4개 분과별로 강의를 마치고, 3일째는 우리나라에서 역사적인 전국농업기술자협회의 창립 발족을 보게 되었다. 일본에는 일찍이부터 이와 같은 단체가 있어 농촌을 지도해 왔던 것인데, 우리나라는 늦은 감이 많으나, 앞으로의 발전을 기대하는 바이다. 농업 개발에 여생을 바치겠다고 하시는 유석창 박사가 회장이 되셨으니 마음 든든하며, 필자도 이사의 한 사람으로 선출되었으나, 중차대한 책임을 느끼는 바이다.

전시장을 보기 위하여 학교 경내 일부를 순회하게 되었는데, 낙시터 연못이 2만여 평이나 있고, 양어장이 있고, 축대 계단교실은 이상적이며 신비롭게 생각되었다. 망망대야(茫茫大野) 한강변까지의 넓은 들에는 채소가 청파(青波)를 이루고 있고, 건너다보이는 축대 기숙사 건물은 화려하게 보였다.

하오에는 일행 전부가 낙원동 건대로 모여, 축대 농악대를 선두에 세우고, 보보(步步) 당당히 농민자주권을 과시하며 시가행진으로 종로 · 세종로 · 남대문으로 하여 서울역에 도착, 폐회식을 하였다. 1천여 명이라는 사람도 많았으며, 전국에서 농가 및 지도자가 모이여서 서울 장안 한복판에서 시가행진을 하였다는 것도 우리나라 역사상 최초의 일일 것이다.

1963년 10월 8일부터 10일까지의 3일 간의 일정을 마치고 하오에 이사회를 마치고 유 회장께 "건국대학교의 위용(偉容)을 보고 새삼스러이 다시 경의를 표하여 감사드립니다"하는 인사를 하였다. 건국대학의 장족의 발전으로 우리나라 농업지역 사회개발에 일대 서광이 있기를 기원하고, 그 위용을 경모(敬慕)하며, 전교 교수선생님 · 직원 · 전교생 제위가 금번 행사에 너무나 수고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하여 건투를 비는 바이다.

(2) 1964년에 들어 상허 선생은 전국농업기술자협회의 활동기반 강화를 위해 적극 나서, 7월 22일부터 9월 8일 사이에 전국 11개 시 · 도에 지부를 결성하는 조직력과 추진력을 과시하였다.

전국적 조직망 구축과 관련하여, 상허 선생은 이것이 회세(會勢)를 증대하여 큰 힘으로 뭉쳐 어떠한 정치적인 운동에 이용하려는 것도 아니요, 또는 어떠한 영리적인 사업을 도모하려는 것이 아니라, 전국의 전국농업기술자협회 회원들이 거주하는 지역에서 회원들의 전문기술을 중심으로 소조합(小組合) 또는 소클럽을 조직하여, 일반농민들에게 기술과 경험을 전수함으로써, 농업수확을 높이고 시

장가치(市場價値)를 높이는 운동을 전개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밝혔다. 나아가 그는 앞으로 회원이 4, 5만 명에 이르게 되면, 농민 자신의 자발적 정신운동이라는 측면에서 큰 성과가 있을 것이며, 아울러 전국 각 자연부락에서 이러한 증산운동이 동시에 전개된다면 국가 중농정책에도 큰 보탬이 될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7월 20일에는 기관지로 『회보(會報)』(후일 『농업기술회보(農業技術會報)』로 개칭) 창간호를 발간하였는데, 상허 선생은 창간호 「회보 발간에 즈음하여」라는 제목의 인사 글에서, 자신이 구상하고 있는 전국농업기술자협회의 사명과 과제, 향후 활동방향 등을 다음과 같이 언명하였다.

"우리 협회는 농업기술자(農業技術者)들의 모임인 만큼, 언제나 우리에게 부하된 사명을 완수함으로써 나라에 이바지할 것을 생각합니다. 우리는 좀 더 기술을 연마하고 경험을 축적하여 국가 중농정책(重農政策)의 선도적 역할을 할 것이며, 또한 우리 주위에 있는 농민들에게 우리 기술과 경험을 전달 시범함으로써 우리 농민들의 역량을 배가해야 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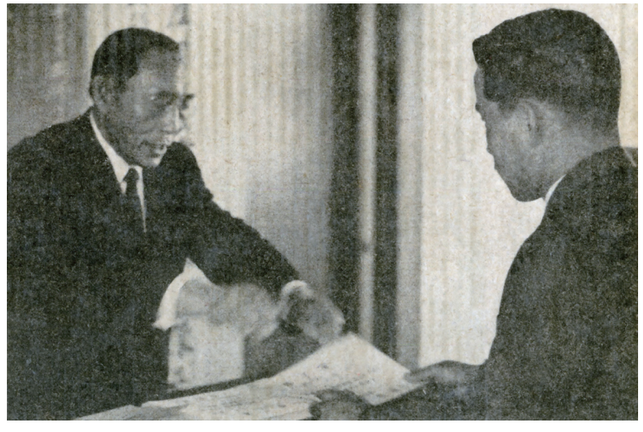
아무리 국가에서 중농정책을 실시코자 하여도 우리 농민이 호응할 태세를 갖추고 자발적으로 실천하지 않을 때에는 모든 시정(施政)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런 견지에서 볼 때, 우리 협회는 더욱 존재의 사명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협회원으로 볼 때는 국가의 중요한 지위에 처해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는 수의 중요성보다도, 선진국에 비하여 아직도 뒤떨어진 감은 있을망정 우리는 주위 사람보다 한 걸음 앞서 있으며, 또는 다른 농민들이 주의 깊게 우리의 동작을 살피고 있는 처지에 놓여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하여서 보다 다른 농민들의 지도적인 사명을 위하여서 가일층 노력해야 하겠으며, 따라서 기술이나 경험에서 뿐만 아니라 인간면에 있어서도 부지런하고 착실하며, 다른 사람에게 믿음을 주는 공신력(公信力)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조직적인 역량을 길러야 하겠습니다. 아무리 좋은 일이라 할지라도 혼자의 힘으로는 되는 것이 아닙니다. 협회도 지금 각 지역적으로 조직망을 넓히고 있거니와, 협회원 제위도 각 리동(里洞) 안에서도 무슨 일이나 공동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조직을 만들어서 혼자서 안 될 일을 합심하여 계획하고 연구하고 실천하는 일을 시도해 보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실천 못하던 일이라도 한번 마음먹고 다 같이 해보려고 약속하면 그 공약한 힘으로서 능히 실천하게 되는 것이 인간사회의 일입니다. 그러므로 덴마크 같은 나라에서는 지역마다 리동(里洞)마다 별의별 조합이 다 있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웅변조합까지 있어 혼자서는 해 볼 생각조차 없었던 것을 한번 그 조합에 들어 놓은 후에는 마지못해서도 가끔 웅변연습을 하게 된다 합니다. 그러니 자연히 그 나라에서는 체육조합 감자증산조합 등이 있어 모든 일을 공동으로 해나간다고 합니다."(「회보 발간에 즈음하여」, 『회보(會報)』 1호, 1964년 7월 20일)

라고 강조한 다음, 전국농업기술자협회를 '하나의 공동광장(公同廣場)'으로 삼아, "서로 힘을 합하여


1968년 농업기술연수원 수료식 광경

연마하고 또는 경험과 지식을 교류하는 일에 힘써" 보겠다고 피력하고, 이를 위해 '새로운 소조직 운동'을 전개할 수 있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 원고를 쓰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서 7월 29일에는 농업기술자연수원(農業技術者硏修院)을 개원하였다. "이 연수원은 농민을 이끌고 갈 선도자의 인격 도야와 기술 연마의 도량(道場)입니다. 인간 용광로입니다. 여러분은 짧은 일정이지만 돈오로써 새 사람이 되어 나가야 합니다"라고 강조한 상허 선생의 개원사(開院辭)에는 앞으로 농촌의 개발을 이끌 지도자로서 전국농업기술자협회 시도지부 간부 농업기술자들에 대한 총재로서의 각오와 교육목표가 녹아 있었다.

이어서 11월 2~4일 제5회 대회가 전국에서 상경한 1,800여 명의 독농가(篤農家)들이 참가한 가운데 서울 낙원동 건국대학교에서 개최되었다. 조선일보사와 농림신문사가 후원을 했다. 제5회 대회는 전년도에 창립된 전국농업기술자협회가 주최한 첫 번째 대회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남달랐다.

대회 첫날 개막식을 겸한 종합대회는 시민회관 대강당에서 진행되었다. 유석창 박사의 대회사와 유봉영 조선일보 부사장, 류달영 재건국민운동중앙회장의 격려사에 이어, 농업기술상 시상, 대정부 건의문 및 대회선언문 채택, 특별강연의 순서로 진행되었다.

참석자들은 '자주자립 정신으로 국가 중농정책 실천의 선봉이 된다' '농촌복지사회의 건설을 위하여 기술을 본위로 하는 농업증산정책의 역군이 된다' '모든 조직과 운동은 정치에 간여하지 않으며 영리사업도 할 수 없다'는 선언문을 채택했다. 저녁에는 KBS라디오 공개방송으로 인기가수들의 공연이 펼쳐져 참석자들의 노고를 위로했다.

둘째 날에는 건국대학교 낙원동 교사에서 일반농업 · 채소 · 과수 · 축산 4개 분과별로 영농기술 연수교육이 진행되었다. 5회 대회부터는 일반농업과 축산은 3개 소분과로, 채소와 과수는 2개 소분과로 연수내용을 크게 확충하였다. 셋째 날에는 건국대학교 대강당에서 전국농업기술자협회 창립총회를 개최하여 초대 총재에 유석창 박사를 만장일치로 추대한 뒤, 낙원동 교사로 이동하여 낙원동→인사동→중앙청→광화문→시청앞→서울역까지 시가행진을 했다.

우리 국민도 그들과 같이 먼저 국민의 덕을 닦아야 되겠습니다. 근면성, 소박성, 과학성이 덕으로 그들은 부흥하였습니다. 우리는 그 덕으로야 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니 나는 자연히 우리 동지들의 생각이 머리에 떠오릅니다. 우리 동지, 우리 독농가 동지들이야 말로 국가를 재건할 수 있는 덕을 구비한 국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동지들이야말로 하느님이 내리시는 복을 받을 만한 그릇을 준비한 사람들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야말로 누구보다도 근면하고 소박하고 과학적 영농기술을 찾고 있는 사람임에 틀림없을 것입니다. 현재 우리나라가 이만치라도 꾸려 나가는 것은 뉘 덕이냐 하면 두말할 것 없이 우리 농민의 덕이라고 스스로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신념으로 모든 고생을 참아가며 묵묵히 나라를 지켜가야 하겠습니다.

국가의 경제적 부흥은 결코 권력이나 협잡이나 잔재주를 가지고 돈을 긁어모아 가지고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필요한 물건을 생산하고 그 생산품을 절용(節用)하는 기본적 태도가 없이는 국가의 재건은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늘이 내려주는 복을 받기 위하여 온 국민이 다 같이 근면, 소박, 과학의 생활을 해야 하겠습니다. 이 한마디로 신년 축하를 대합니다.〔「1965년 새해인사」, 『회보(會報)』 3호, 1965년 2월 1일〕

(3) 제6회 대회는 시도별 대회와 농번기가 겹치는 10월과 11월을 피해 1965년 12월 12~13일 1,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건국대학교 장안동과 낙원동 교사에서 개최되었다. 이에 앞서 9월 18일 서울 · 경기를 시작으로 10월 8~9일(충남)까지 시 · 도별 대회가 지역별로 개최되었다. 전국농업기술자협회가 주최하였고, 농림부 · 농촌진흥청 · 농협중앙회 · 재건국민운동중앙회 · 서울특별시 · 건국대학교 · 중앙종묘주식회사가 후원을 했다.

제6회 대회부터는 전국대회 참석을 희망하는 독농가가 너무 많아 이를 감당키 어려워졌을 뿐 아니라 협회의 기반조직인 시 · 도별 지방조직의 활성화를 위해 각 시 · 도별로 농업기술자 대회를 개최하고, 전국대회는 3일에서 2일로 일정을 단축하였다.

개막식을 겸한 종합대회는 12월 12일 건국대학교 장안동 교사에서 개최되었다. 대회는 예년과 같이 오전엔 개막식 행사로 대회사와 축사 · 격려사, 제6회 농업기술상 시상, 축가, 건의문 및 선언문 채택이 있었고, 오후엔 특강과 종합연수로 초빙 강사의 주제발표가 있었다.

「제6회 전국농업기술자대회 대회사: 비약과 창조를 잊지 말자, 농업혁명의 선두에 서라」

(1965년) 12월 12일 제6회 전국농업기술자대회의 막이 열리자 대회장 유석창 박사는 천여 회우들에게 새로운 비약과 새로운 창조로 생산국가(生産國家) 건설의 선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우리 협회 회우들은 혁명의 선두에 서서 먼저 자신의 비대(肥大)와 5만 자연부락(自然部落)을 비대시키는 길만이 국가와 민족에 이바지하고 부흥 재건하는 단 하나의 방법이라고 강조하여, 만당의 회우에 깊은 감명과 결의와 각오를 새롭게 하여 주었다. 이에 그 전문을 옮기고 회우들에게 일독을 권한다.

각 도, 시, 군으로부터 대의원 여러분이 이처럼 많이 참석하여 주신 데 대해서 이 대회를 대표해서 감사의 뜻을 표하는 바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한 가지 유감된 것은 이번 이 대회에 전국으로부터 참가하기를 원하는 수천명의 우리 회우 동지가 있었는데, 장소관계와 기타 여러 가지 제약을 받아 그 수천 명 회우의 간절한 요청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각 도 · 시 · 군 대표만을 오시도록 하게 된 것을 가슴 아프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명년부터는 우리가 장소나 기타 다른 제약을 받음이 없이 많은 회원이 다 참석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여야 하겠다는 것을 절실히 느끼는 바입니다.

새로운 각오와 결심을 갖자

오늘 우리가 이 제6차 농업기술자대회를 개최함에 있어서 먼저 한마디 회우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것은 우리가 매년 한 번씩 개최한다고 하는 하나의 의례적인 생각으로써 오늘 이 회합을 가져서는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이 회합은 모처럼 1년에 한번 전국에서 동지들이 모이는 회합이니 만큼, 이번 이 회합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마음 가운데에 새로운 각오와 새로운 결심과 또는 우리가 앞날을 어떻게 하여야 되겠다는 새로운 계획과 방법이 이 대회를 맞는 가운데 각각 그만한 큰 얻는 게 있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하는 바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회우 동지들을 만난 이 시간에 몇 말씀 드리고자 하는데 우선 제목으로써 새로운 두 가지 명제를 걸고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는 농업혁명(農業革命)이라는 과제로 다른 또 하나는 농민자본주의(農民資本主義)라고 하는 명제입니다. 농업혁명과 농민자본주의라는 새로운 명제를 걸고 동지 여러분에게 말씀드려서 이것이 여러 회우 동지들에게 보람이 있어 새로운 각오의 계기가 되어주신다 할 것 같으면 매우 감사하겠습니다.

두 가지 명제에 대하여 말씀드리기 전에 전제로서 말씀드릴 것은 우리가 지금 무엇을 건설하려고 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우리 동지가 한번 이 자리에서 다시 생각해봐야 되겠습니다.

산업국가(産業國家) 건설의 선도를 서자

우리는 산업국가를 건설해 보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염원이며 목적입니다.

산업국가란 어떤 산업국가를 말하는 것이냐? 이 국가는 모든 국민의 생산장(生産場)이 되어야겠다는 것과, 이 나라의 사회는 모든 국민의 번영과 복지를 도모하는 생활장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이런 국가를 우리가 건설해보자, 이런 산업국가를 건설해보자 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로서 우리 운동이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있어서 우리가 오늘 특히 하나 생각할 게 뭐 있는가 하니 우리나라의 현실로서 두 가지의 조류와 경향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지적해 두겠습니다. 하나는 뭣인가 하니 산업국가 건설에 있어서 농업을 상업 및 공업의 선도적 역할로서 건설해야 되겠다 하는 조류와 경향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이 나라에 있어서는 농업이 산업국가 건설에 있어서는 농업이 선도적 역할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조류와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할 것 같으면 두말 할 것 없이 이 나라는 농업이 산업국가 건설에 있어서 선도적 역할을 하지 않으면 안되겠다고 하는 것을 확신하는 바입니다.

그럼 왜 그러냐? 이 나라는 지금 농업국가인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누구라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농업국가인 이 나라로서는 우리가 뜻하는 그런 산업국가로 갈려고 할 것 같으면 반드시 농업국가가 어떤 단계까지 발전해서 이런 단계까지 이르지 않고서는 그 산업국가 건설이 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근대국가가 다 밟은 길의 하나인 것입니다. 결코 예외가 있지 않습니다. 하물며 우리나라와 같은 전형적 농업국가로서는 마땅히 농업이 선도적 역할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중요한 문제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뜻하는 산업국가가 건설되어야 됩니다.

말하자면 이 농업기술자대회, 농업기술자협회의 뚜렷한 목표이며 이념이고, 우리의 지향하는 바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우리의 목표를 달성함에 있어서 이제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이 뭣인가 하니 놀라지 않을 수 없는 사실로서 최근 일본에 가서 혹은 대만(臺灣)에 가서 국가적 사명을 띠고 조사한 분들이 돌아와서 보고하는 것을 들어볼 것 같으면, 1945년 해방할 때에는 일본의 농민과 한국의 농민과의 연 생산 수익에 대한 차이는 2대1의 비율을 가졌다고 합니다. 우리농민 하나에 대해서 일본농민은 둘의 비율이었던 것이 해방된 지 20년이 지난 오늘에 와서는 8대1 즉 일본농민 8에 대해서 한국농민 1의 비율로 더 심한 차를 나타내게 된 것입니다.

해방 후 20년 뭣을 해 왔나

이것을 들을 때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가장 농업문제를 권위로서 연구하는 선생님의 관찰이고 연구인데, 일본엘 가보니까 분명히 50년의 차이는 가졌다고 하는 것을 그분이 지적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몇 가지 사실만 하더라도 왜 우리나라 농업은 과연 해방 후 20년간 뭣을 해왔느냐? 또 우리의 오늘의 상태가 어떠한 상태에 처해 있느냐? 하는 것이 분명히 증명이 되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게 무엇인가 하니 우리가 이런 형편으로서 한국의 농업이 발전되어 가지고 농업국가 건설의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불가능하다는 것을 우리는 인

정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남보다 더욱 빨리 전진을 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급한 템포로 나아갈 것 같으면, 반드시 혁명의 길 하나 밖에 없다는 것을 생각해서 아까 명제의 제1로 농업혁명이라는 것을 말한 것입니다.

혁명이라는 말이라면 아마 여러 동지께서는 놀라실는지 모르겠습니다. 놀라시는 게 사실입니다. 우리나라도 몇 번 혁명이 있었고, 또 세계 각국에 특히 후진국가들이 혁명을 많이 하기 때문에, 또 우리가 농업혁명이라는 문제에 가서 혹 의아히 생각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지금 우리가 주장하는 혁명은 그러한 총이나 칼을 들어 하는 혁명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농업에 있어서의 혁명은 정체(政體)나 정권에 대한 혁명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허나 혁명이라고 하는 것은 확실히 비약이요 창조라고 하는 것만은 기억해 두어야 하겠습니다.

혁명은 비약과 창조

우리 한국의 농업은 비약하고 창조가 없이는 이 농업이 우리가 뜻하는 방향으로 발전할 수 없다는 것은 우리는 확실히 깨닫고 있는 것입니다.

혁명! 어떠한 혁명을 해야 할 것이냐? 3대혁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는 농민에 대해서는 정신의 혁명, 또 하나는 농업에 기술의 혁명, 또 하나는 농촌에 대해서는 생활의 혁명을 말합니다. 농민에 대해서 정신의 혁명이란 뭣이냐? 정신의 혁명 가운데도 3대혁명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됩니다.

하나는 민주혁명(民主革命), 자주성을 확립하는 이 혁명이 필요합니다. 그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는 과학혁명(科學革命)입니다. 우리나라가 과학화되어야 되겠습니다. 또 하나는 자본화(資本化)의 혁명입니다. 나중에 농민자본주의(農民資本主義)를 설명할 때 재론되겠습니다마는 우리가 농민이 자본주의 과정이라는 특수한 과정을 밟지 않고서는 산업국가 건설의 선도적 역할을 못할 관계이기 때문에 자본화라고 하는 이 태세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정신 가운데 이 세 가지 면의 혁명이 필요한 것입니다.

또 기술면에 가서 볼 때 생산에 대한 혁명만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경영에 대한 합리성을 갖는다는 것도 혁명적으로 다루어져야 하고, 또 계획과 창의성에 있어서도 혁명적으로 다루어야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농사를 잘 지어 생산을 잘한다 하더라도 경영이 합리화되지 않는다 할 것 같으면 절대로 그 농사가 수입과 생산이 들어맞지 않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기술면에 있어서도 3대혁명이 같이 병행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것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또 생활면으로 볼 때 우리 농촌생활은 비합리적이고 비과학적이고 비경제적입니다, 이 모든 것이 전체에 걸쳐서 완전히 혁명과정을 통과시키지 않고서는 안 되겠다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이런 농업 · 농촌 · 농민에 있어서 각각 세 가지씩의 이런 3대혁명 과정을 치루지 않고서는, 또 그 길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새로운 비약과 창조가 나오지 않고서는 한국의 농업을 현대의 농업으로 만들어 낼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제6차 대회를 맞이해서 우리 동지들이 한번 여기에 대해서 생각해 봅시다 하는 것입니다.

자본의 축적이 나오게

둘째번 농업자본주의란 말은 우리가 농업혁명을 도모해서 생산면과 수입면에 있어서 여러 가지로 비약과 창조에 의해 달라지기 때문에, 지금까지 말하자면 부채, 생계농가로부터 안정농가로 올라가고, 안정농가가 다시 영리농가(營利農家), 기업농가(企業農家)에까지 올라갈 것 같으면, 여기서 비로소 자본의 축적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농민의 농업이 자본 축적 과정에 가지 않고서는 광대 재생산을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필연적인 사실이요,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 자본의 축적과정을 말하자면 국민적 자본주의 또는 국민자본주의(國民資本主義) 체제하에서 모든 나라들이 움직이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국민자본주의 가운데 있어서 특히 농민자본주의(農民資本主義)란 새로운 하나의 단계를 설정됨으로 말미암아서, 이것이 앞날에 산업국가 건설에 있어서 우리가 앞날 농공업 건설에 대한 광대 재생산에 중요한 앞날에 있어서 농공업(農工業)이란 말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 농산물이 공업의 원료가 되고 농민 자본이 투자가 되고, 농민의 노동력이 도입되는 그런 농업이 농공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우리 산업국가 건설에 있어서 중요한 선도적 역할을 할 공업입니다.

또 다른 공업은 공업대로 발전돼가려니와, 이 나라는 농업과 공업이 병진하는 그런 산업국가가 건설되는 이것을 우리가 목표로 나가야 합니다, 그 농공 병행할 산업국가가 되기까지에 우리 농업이 선도적 역할을 하려고 할 것 같으면, 이런 자본주의 과정을 겪어나가지 않을 것 같으면 될 수 없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어서 이와 같이 될 것 같으면, 잘되겠다고 하는, 또 우리가 앞날을 공부할 수 있다고 하는 또 우리가 꿈같은 환희를 가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하는 방법론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본인이 여기서 여러분 앞에 얘기하는 데 말만 앞세우는 게 아닙니다. 달성할 수 있는 방법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이 방법이란 결국 5만 독농가(篤農家)를 발굴해서 혁명가로서 개조시키는 문제입니다.

자기 비대(肥大)의 혁명으로부터

첫째 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 5만 독농가가 혁명의 대열에 나서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 특히 우리가 생각할 게 무엇이냐? 다른 혁명가는 다른 일반사회의 혁명가는 자기생명과 자기재산을 바치는 혁명가인 것입니다. 까딱 잘못하면 생명이 교수대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또 재산이 몰수됩니다. 일가가 전멸됩니다.

그러나 농업혁명가는 이와 정반대의 혁명가입니다, 농업혁명가로 나선다고 할 것 같으면, 이분은 자기가 더 비대 되고 자기가 더 발전되는 혁명가라 할 것입니다.

왜 그런고하니 농민의 앞에 서서 남을 지도하려 할 것 같으면 먼저 자기부터 자가(自家) 혁명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자가혁명(自家革命)을 일으킨다 할 것 같으면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하면, 자기의 생산면에서 상당한 축적을 일으키게 됩니다. 농민자본주의의 선구자가 되는 것입니다, 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부락 가운데서 이 농가는 시범농가가 되어서, 말하자면 한 부락 가운데 어떤 독농가 한 분은 이 혁명가가 되게 될 때는 그 이는 벌써 자기농사를 시범할 수 있는 모범농가가 되어 그 수입, 생산성이 모든 것이 남한테 부러움을 받을 수 있을 정도로서의 발전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지 않고서는 그 부락에 있어서 혁명의 선두에 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독농가가 혁명의 대열의 선두에 선다는 일은 대단히 훌륭한 일입니다.

자기부락의 선두에서 시범을

또 자기 자신만이 이런 혁명의 선두에 서는 혁명가가 자기 자신만이 잘사는 사람이 될 뿐만 아니라 그 부락의 농민들까지 지도해 줌으로 말미암아서 부락의 농민마저 훌륭하게 잘 살 수 있는 농민을 만든다고 하는 이런 것을 생각할 때 얼마나 의의가 큰지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 기술자대회, 기술자협회를 통해서 5만 독농가(篤農家)가 농민의 혁명대열에 나서는 혁명가들이 되어보자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농업기술자협회는 뭐냐? 할 것 같으면 이런 농업혁명가를 창조하는 창조기관입니다. 이런 혁명가를 길러서 5만 자연부락 붙잡고 앞날을 성공시킬 수 있는 혁명가를 만들어내는 창조기관입니다. 또 그런 기관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럼 협회의 이 창조기관이란 뭣을 하는 것이냐? 혁명가가 되리라는 그분을 우리가 선정해서 그이한테 혁명의 기술을 가르쳐 드릴 것입니다, 생활혁명(生活革命), 기술혁명(技術革命), 정신혁명(精神革命)에 대한 기술을 가르쳐 드릴 것입니다.

분명히 혁명기술을 받아가지고 자기부락에 들어가서 혁명의 선두에 서서 자기 자신을 혁명해가면서 동시에 부락을 지도하는 이런 혁명가들이 5만 명이 이 나라에 나온다 할 것 같으면 한국의 농업은 급속도로 발전되어 나갈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뜻하는 산업국가 건설의 선도적 역할을 충분히 잘 성공시킬 것입니다. 이것만이 이 나라 부흥, 재건을 시킬 수 있는 귀중한 방법이라 생각하는 것입니다.

비약과 창조를 잊지 말자

오늘 이 날을 계기로 해서 이런 새로운 비약과 창조, 이것을 잊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후 농사하실 때 내가 어떻게 하면 새로운 창조를 해볼 것인가 하는 비약, 창조! 비약, 창조! 이것을 외워가면서 농사해 봅시다, 우리의 생산에 대한 여러 가지 면에서 하나하나 연구해서 비약 창조하여 시간을 단축시키는 방향으로 노력합시다. 이게 바로 혁명이 수행되는 시간입니다.

농업혁명은 바로 이런 혁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틀 동안의 이 대회를 통해서 여러 회우 제현께서는 많은 재미와 수확을 보시기 바라고 또 댁으로 돌아가실 때에도 건강히 돌아가시고 또 댁에 가셔도 사업이 번영과 발전하기를 도모 있으시길 간절히 바라면서 인사 겸 하고 싶은 말만 그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농업기술회보(農業技術會報)』 17호, 1966년 1월 1일)

'위안의 밤' 행사에서는 국악예술학교의 협조로 흥겨운 국악 한마당이 펼쳐졌다. 이틀째인 13일은 오전에 분과연수회가 진행되었고, 오후에는 전국대의원대회를 끝으로 행사가 마무리되었다.

기술연수 발표도 종래의 학자 중심에서 각 시 · 도지부에서 선정한 회원 중심으로 했다. 종전과 같이 일반농업 · 채소 · 과수 · 축산 4개 분과로 기술연수가 진행됐으나, 분과별 소분과는 없앴다. 대회 마지막 날의 시가행진도 생략되었다.

(4) 1966년 봄 "자신이 비대(肥大)하는 비결을 알기 위해" 즉 농촌이 부유해 질 수 있는 방법을 살피고 배우기 위한 목적으로 선도농가(先導農家)로 선발된 농민대표들을 일본에 파견하였다. 이들을 파견하면서 유석창 총재는 "일본의 기술면보다 정신면과 생활면을— 그들의 내면을 깊이 파고들어 살피고 오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혁명은 비약과 창조에 성패가 있습니다. 선진국가보다 더 잘사는— 비약하는 방법을 정신면에서 알아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기술면에서 창조와 연구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무형(無形)의 자본을 구성하고 얻어 와서 혁명가로 나서는 각오와 결의가 서야 하겠습니다. 나 혼자만의 개인적인 이기주의적인 자세는 버리고 자신이 잘 되고 나아가 자기 이웃과 자기 마을을 개혁하는 힘을 길러야 합니다. 1년 동안 타국에서의 연수생활에 있어 특히 유의하고 노력할 것은 단결과 협조입니다. 생활규범을 철저히 잘 지켜서 건강한 모습으로 금의환향하기를 바라는 바입니다."(『농업기술회보(農業技術會報)』 22호, 1966년 5월 1일)라고 당부하였다.

10월 3~4일 사이 1박 2일의 일정으로 제7회 대회가 건국대학교 낙원동 교사에서 개최되었다. 전국에서 1,300여 명의 독농가가 참여한 제7회 대회의 특징은 참가 인원을 제한하지 않은 점이다. 그동안에는 많은 농가에서 대회 참가를 희망하였음에도 장소와 숙식, 예산 문제 등으로 인해 참가인원을 제한해 왔다.

하지만 협회 창립 이후에는 대의원 중심으로 대회를 개최하면서, 더 많은 농가에 기술교육의 기회를 균등하게 주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았기에, 참가인원을 제한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이었다. 대신 그 동안 주최 측이 부담해 온 참가자들의 숙박과 식대는 자부담을 원칙으로 하였다.

제7회 대회의 또 다른 특징은 대회 주제로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경제작물 개발'을 내걸고, 기술교육의 내용을 집중화한 점이다. 이는 쌀 · 보리 중심의 관행적인 농업으로는 농민의 생활향상을 기

대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기술연수 분과도 경제작물 중심으로 11개로 대폭 확대되었다.

대회 첫 날의 개막식은 예년과 비슷하게 대회사 · 축사 · 격려사에 이어 제7회 농업기술상 시상, 대정부 건의문 및 선언문 채택 순으로 진행되었다. 대회 선언문에서는 "알찬 농업기술과 농가 경영으로 농민들이 앞장서서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한 경제작물 개발에 총력을 집중"키로 다짐했다. 이어서 특강, 분과 연수회, 위안의 밤 행사 순서로 진행되었다. 둘째 날은 11개 분과별로 연수가 진행되었고, 대회 임원들은 육영수(陸英修) 여사의 초청을 받아 청와대에 가서 간담회를 겸한 다과 대접을 받았다.

전국농업기술자협회(총재 유석창)가 주최한 제7회 전국농업기술자대회가 8백여 명의 농촌지도자들이 모인 가운데 3일 오전 10시부터 건국대학교 교사(낙원동)에서 열렸다.

4일까지 계속될 이 대회는 첫날 종합대회에서 한종석 씨 등 3명의 영농가(營農家)에게 제7회 농업기술상을 수여하는 한편, 11개 조항으로 된 대정부 건의문을 채택했다.

이 건의문은 '농민들의 출혈을 일방적으로 강요 말고 농산물의 적정 가격을 보장할 것'과 '농협의 임시조치법을 철폐하여 명실공히 농민의 농협으로 개선할 것' 등을 주장하고, 경제작물에 대한 정책 지원을 요구했다.

종합대회에 이어 참가자들은 11개 분과로 나뉘어 110명의 농업 전문가가 지도하는 연수회에서 앙고라 · 밍크 · 양송이 등의 경제작물을 비롯한 농업 전반에 걸친 기술을 실제로 익히게 된다.

이 날 농업기술상 본상을 받은 3명은 다음과 같다.

▲ 한종석(韓宗錫, 서울 서대문구 수색동 291)

▲ 정양갑(鄭良甲, 전남 담양군 무정면 성도리 243)

▲ 고중덕(高重德, 충남 예산군 고덕면 석곡리 17) 「한종석 씨 등에 기술상 수여」, 『조선일보』 1966년 10월 4일」

(5) 제8회 대회는 1967년 10월 24일은 효자동 3 · 1당(진명여고 강당)에서 개막식을 겸한 종합대회와 '위안의 밤' 행사가 열렸고, 둘째 날인 25일에는 건국대학교 낙원동 교사에서 각 분과별 기술연수의 시간을 가졌다.

우리 전국농업기술자협회 회우 여러분은 1600만 농민을 이은 선도농가(先導農家)이며, 정신혁명(精神革命) 기술혁명(技術革命) 생활혁명(生活革命)을 앞장 서서 완수해야 할 혁명가이기도 합니다.

이제 우리는 주저하고 머뭇거릴 수 없습니다. 전국농업기술자대회와 우리 협회가 지금까지 걸어온 길을 반성해 볼 때, 이렇다 할 큰 업적이나 농촌진흥을 위해서 공헌한 바는 미약하다 하겠으나, 자조 자립하려는 순수한 기상과 작은 몸부림은 높이 평가되어야 하겠습니다. 이 작은 불씨는 커다란 힘의 원동력이 될 것으로 믿어 의심하지 않습니다.

시도별 농업기술자대회는 정치적인 시위를 위해서 열리는 군중대회도 아니며, 목전의 이익만을 추구해서 모이는 오합지중(烏合之衆)도 아닌 것입니다. 행사의 형태나 내용이 문제가 아니라 경제적으로 기술적으로 당면한 공통적인 난제를 해결하려는 공동의 광장으로서 참가하는 데에 커다란 의의가 있는 것입니다.「특별담화: 2천년대 미래상은 위대한 꿈, 제3회 시도 농업기술자대회에 부쳐」, 『농업기술회보(農業技術會報)』 48호, 1967년 9월 1일」

선도농가(先導農家)로서 1600만 농민의 앞장에 서서 정신혁명 기술혁명 생활혁명의 조용한 혁명 완수를 다짐하는 행사가 바로 전국농업기술자대회인 것입니다.「특별담화문: 새 진로와 전기 마련, 제8회 전국농업기술자대회에 부쳐」, 『농업기술회보(農業技術會報)』 51호, 1967년 10월 15일」

제8회 대회는 전국에서 상경한 농업기술자 · 독농가 · 농촌지도자 1,700여 명이 직접 참여하는 기회를 확대하는 데 역점을 두었다. 초빙강사의 강연을 대폭 줄이고 참가자들과 함께 하는 세미나 성격의 배심토론회(陪審討論會)와 참가자들의 기술과 경험을 발표하는 기회를 확대하였다.

24일 오후 6시부터 진행된 '위안의 밤' 행사에는 KBS 라디오의 '즐거운 유람선' 공개방송이 진행됐다. 당시는 TV가 본격적으로 보급되기 전이어서, 라디오 공개방송의 인기가 높았던 점을 감안하면, 위안의 밤 행사로 대회에 참가한 농민대표들을 위로 · 격려해 준 사실은 전국농업기술자대회의 위상을 뒷받침해주는 일이기도 했다.

「'유석창 총재 제안 설명' 요지」

농업기술의 향상과 농업증산을 부르짖고 순수 민간운동으로 전국농업기술자대회라는 이름의 연례행사를 가진지도 8년째이며, 농민들의 자주적인 증산운동의 추진체로써 이 대회가 바탕이 되어 협회로 발족한지도 4년이 되었다.

만일 우리 협회가 한국농업의 장래를 좌우할 만큼 커다란 업적과 성과가 없다면 우리 협회는 그 존재가치와 의의가 없다. 우리는 조용히 지나온 과거를 반성하고 현실을 냉혹히 주시하며 뚜렷한 방향과 지표를 설정하고 일사불란하게 새로운 각오와 결의로서 전진의 자세를 바로 잡아야 하겠다.

1초 1분의 시각이 흘러 해가 바뀔 때마다 총재라는 입장에서 조바심을 참을 수가 없었다. 어떻게 하면

우리농촌을 부흥재건 시킬 수 있을 것인가. 우리협회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결코 주먹구구식이 아닌 냉철한 이성에 판단하여 계획에 합리성을 가지고 발전시켜 나아가야한다. 본인은 2년 반 동안이란 시간이 걸려 국내외의 자료를 모으고 노력한 결과로 지금부터 3 · 4년 후인 2천년대의 한국농업의 미래상을 그려보았다.

이 계획은 실현성이 없는 탁상공론이나 단순한 그림이 아니다. 반드시 실현할 수 있는 과학적인 근거와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있다. 이 거창한 계획을 달성할 방법론이 삼위일체 개발론인 것이다.

정부에서 아무리 훌륭한 계획을 세운다 해도 농민들의 수용태세가 이에 따르지 않으면 헛된 일이며 농민들이 아무리 능동적으로 발버둥을 쳐도 강력한 정부의 지원정책이 없어서는 이루어질 수 없다. 지금까지는 정부 대 농민들의 직접 씨름이었기에 두 불균형된 존재가 악순환을 되풀이 하고 있었던 것이다.

여기에 역사의 주인공으로서의 선도농가가 등장하여 1,600만 농민들을 선도하고 정부의 강력한 지원정책을 끌어당겨 삼위일체가 되지 않고서는 진정한 이 나라 농업의 부흥재건을 달성할 수 없는 것이다.

오늘날 우리농촌이 이처럼 가난한 원인이 결코 농업기술이 뒤떨어져 있거나 농업생산이 낮은 데에만 있지 않다.

농업기술과 증산도 물론 중요하지만 정부의 강력한 지원정책을 받자면, 받게 할 힘이 있어야 한다. 알알이 흩어진 곳에 힘이 형성되지 않는다. 힘을 형성할 기둥이 반드시 있어야 하며 그 기둥이 바로 우리협회인 것이다. 정당한 힘이 필연적으로 요구되는 이 엄연한 역사적인 사실 앞에서 비겁하게 도주할 것인가, 후퇴할 것인가.

이 역사적인 과업의 첫 단계는 우리가 내건 3대 혁명을 완수하는 데 있다.

먼저 자기 자신부터 민주화하고 협동화하는 정신혁명을 해야 한다. 무지에서 자신을 발견하고 그리고 자기 잘살기 운동과 같이 잘살기 운동의 바탕이 되는 정신혁명을 해야 한다.

다음은 기술혁명이다. 경종기술, 경영기술을 과학화하고 전문화하는 기술혁명을 완수해야 하며 생활을 합리화하고 복지화하는 생활혁명, 이 3대 혁명을 선도농가가 일으키고 선도하여 완수해야 한다.〔『농업기술회보』 43호, 1967년 6월 15일〕

「'2000년대 한국농업의 미래상' 요지」

오늘 우리의 이 모임은 조국의 부름을 받은 조국의 마음이 바로 이 자리에 집결한 것입니다. 순진하고 진실하며 소박하고 성의를 가진 마음 이른바 농심(農心)들이 모인 이 자리에서 먼저 한 말씀 드릴 것은 여기 2천년대의 한국농업의 미래상을 이야기하겠지만 우리는 우리의 이 기대와 소망을 성취하고 잘사는 농촌을 이룩하기 위하여 어떻게 하든지 싸워 쟁취하지 않으면 안되겠다는 그런 확고한 결의와 결심을 가져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영토가 비슷하고 자연이 준 혜택은 오히려 우리가 훨씬 나은데 오늘 우리는 무엇 때문에 영국이나 일본의 농업생산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까? 축산에서 그러하고 과수에서 그러하며 누천년을 해온 곡류생산에서까지도 그러합니다. 이게 어떻게 된 것입니까? 비교해볼 때마다 야단났다는 생각이 앞섭니다. 이거 우리가 살았느냐? 같은 인류로서 왜 이렇게 못사는 민족이 되었느냐 안타까운가 하면 주먹이 쥐어지곤 합니다.

생산에서 이렇게 뒤지는 위에 농산물가격 또한 기대에 맞는 것은 아닙니다. 농업정책이라고 하면 보호정책이 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2천년대의 미래상은 바로 이러한 것들에 대한 희망적인 구상입니다. 금후 35년간 우리의 농업, 축산, 특용작물을 이렇게 해보자, 또 해보겠다고 하는 결의입니다.

그래서 2천년대에 가서는 우리가 잘사는 농촌을 이룩하여 세계의 다른 나라 농민과 어깨를 나란히 해보아야겠다는 것입니다. 말로서는 얼마든지 쉽고 또 아무렇게나 수자 조작으로 금방 잘사는 농촌을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오류를 범하지 않기 위하여 가장 근거 있는 통계상의 토대 위에 이 미래상을 만들었고 이 희망을 현실화 하는데 없지 못할 귀중한 존재로서 여러분의 결의가 따라야함을 강조합니다.

2천년대까지의 미래를 추론하기 이전에 가장 기본이 되고 전제가 되는 것은 인구성장에 대한 예측인데 오늘날 전국민의 55%를 차지하고 있는 농민이 산아제한과 한편으로 도시진출이 현저하여 2천년대에 가서는 농촌인구가 35%로서 2천만이 조금 넘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상대적 농촌 인구의 감소와 더불어 활발한 국토구조의 개조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경지가 늘고 목초지가 불어나며 임야가 울창한 산림으로 덮이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을 생각할 때 장차 우리 농촌이 사는 길은 아무래도 축산입국을 해봐야겠다는 것입니다. 130만 정보의 목초를 조성, 225만 두의 젖소를 길러 낙농제품을 세계시장에 내고 450만 두의 한우를 사육하며 협업경영으로서의 양계, 양돈, 산양, 면양의 사육이 가장 희망적입니다. 물론 경종농업도 성장을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이상 도표로 총 사육두수 예측 및 모델조직 설명) 이렇게 하여 현재 연간 87달러라는 농민소득을 2천년대에 가서는 569달러로 올려보자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우리의 소망은 삼위일체 개발로서 결코 무리한 것은 아닙니다. 삼위일체개발이란 곧 2천년대를 내다본 이와 같은 우리의 희망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방법론입니다. 삼위 곧 선도농가와 일체가 되어 다섯 단계로 개발해 갈 것 같으면 어려움 없이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선도농가라 하는 사람은 정해진 사람이 아니라 부락마다 농민 가운데 앞장서서 나가는 바로 그분입니다. 그렇다고 전국 5만 자연부락에 당장 선도농가가 나올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선 중요한 일은 부락마다 최소한 한사람씩의 5만 선도농가를 발굴 육성하는 일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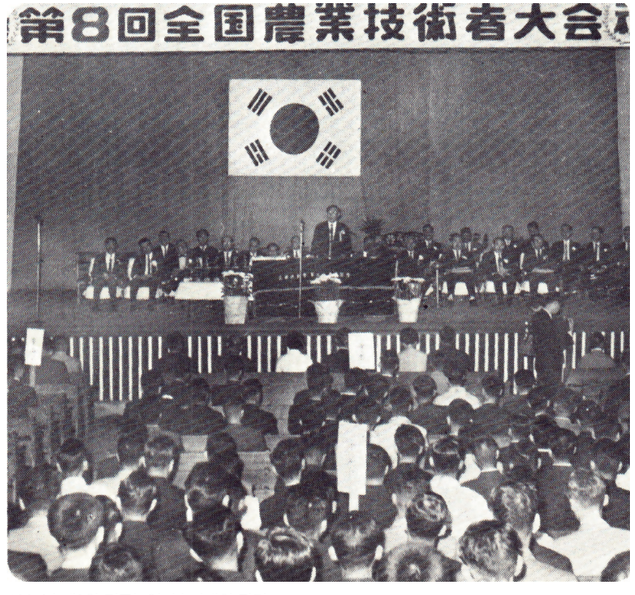
그리고나서는 다섯 단계로 개발해 나가는 것인데 정부의 지원정책과 농민, 선도농가 이렇게 셋이 한데 뭉쳐 밀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5단계란 농가의 다섯 가지 유형에 따른 상승과정을 말합니다. 제일단계의 운동은 오늘날 농민의 대다수를 점하는 적자부채 농가를 상대로 정신혁명, 기술혁명, 생활혁명의 삼대혁명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 많은 부채농가가 혁명을 일으키게 되면 다음 제2단계인 안정농가가 되는 것이고 이 안정농가를 상대로 제2단계 운동이 전개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단계는 영리농가입니다. 이렇게 제1단계 적자부채농가가 안정농가가 되고 제2단계 안정농가가 영리농가가 되며 제3단계 영리농가가 기업농가가 되는 동안에 자본이 축적되고 많은 농산물 가공공장이 서게 되어 농민의 손으로 움직여지는 제4단계 농촌공업화단계에 까지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 5단계에 가면 농공병진의 단계로서 곳곳에 주식농가 협업농가가 나타나 농과 공이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되는 것입니다. …

이렇게 선도농가가 앞장서 한편으로는 1500백만 농민을 끌고 다른 한편으로는 정부의 지원정책을 끌어들여 제1단계, 2, 3, 4, 5단계의 작업을 이룩하자는 것인데, 여기에 또 한 가지 선도농가의 자질이 문제가 되겠지만, 의욕적이고 정열적이며 희생 봉사의 정신을 갖춘 사람으로서 계획이 있고 기술이 있으며 자본이 있으면 훌륭한 선도농가가 될 수 있음을 확신합니다.〔『농업기술회보』 46호, 1967년 8월 1일〕

(6) 1968년 10월 11~12일 이틀 간 열린 제9회 대회는 전국에서 상경한 농업기술자 · 독농가 · 농촌지도자 1,500여 명이 참석하여, 첫째 날은 3 · 1당(진명여고 강당)에서, 둘째 날은 건국대학교 낙원동 교사에서 개최되었다. 제9회 대회의 주제는 정부의 획기적인 농업정책 전환 움직임과 때를 같이 하여, '농가소득 증대에 대한 정부지원 정책과 역할' '농업 근대화를 위한 축산 진흥의 방향'으로 정하였다. 제9회 대회는 대회 경비의 일부를 참가자들이 부담하였다.



1967년 제8회 전국농업기술자대회 광경

첫날은 개막식을 겸한 종합대회와 전국 대의원 총회와 '위안의 밤' 행사를 개최하였고, 둘째 날은 농업기술연수회와 분과별 공동토론으로 진행되었다.

개막식에서는 개회 선언과 국민의례에 이어 '우리는 선도 농가다. 농민의 정신혁명으로 민주적 협동화를 이룩하자.' '우리는 선도농가다. 농업의 기술혁명으로 과학적 전문화를 이룩하자.' '우리는 선도농가다. 농촌의 생활혁명으로 합리적 복지화를 이룩하자.'는 '우리의 목표(강령)' 선서가 있었다.

이어서 유석창 대회장의 대회사, 조시형 장관의 격려사 및 전휴상 국회 농림위원장의 축사, 제9회 농업기술상 시상, 대정부 건의문 및 선언문 채택의 순서로 진행되었다. 대회 선언문은 "정부의 곡가와 축산진흥정책 등 일련의 정책 전환의 시도를 만시지탄(晩時之歎)은 있으나 환영한다"고 밝히고, "선도농가(先導農家)와 농민과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삼위일체가 되지 않고서는 농업근대화는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어 "농민의 정신혁명, 농업의 기술혁명, 농촌의 생활혁명"을 완수할 것을 재천명했다. 제9회 농업기술상 본상은 윤신도 · 배선목 씨가, 특별상은 왕원식 씨가, 장려상은 신석우 · 원창구 · 정행봉 · 김구식 · 김수언 · 문채화 · 박종기 · 이시화 씨가 받았다.

오후 4시 30분부터 2시간 동안 진행된 배심토론회는 대회 주제인 '농가소득 증대에 대한 정부지원 정책의 역할'과 '농업 근대화를 위한 축산진흥의 방향'을 중심으로, 곡가 문제와 축산진흥 문제 등을 집중적으로 다뤘다. 배심토론회는 김병태 건국대 교수의 사회로, 김성두(조선일보 논설위원), 박근창(중앙대 교수), 최응상(농어촌개발공사 고문)과 남상돈(충북 음성 농민), 장지포(전북 익산 농민) 등이 열띤 토론을 벌였다.

저녁식사 후에 개최된 대의원총회에서는 유석창(劉錫昶) 총재를 재추대하고, 협회의 법인격을 '사회단체'에서 '사단법인'으로 변경하여 등록하기로 의결했다. 새로 발족되는 사단법인 체제에서도 유석창 총재가 유임할 것을 만장일치로 결정하고, 신임이사 18명도 선출하였다. 대회 둘째 날인 12일에는 7개 분과(특수분과 · 작물분과 · 소채분과 · 과수분과 · 양계분과 · 양돈분과 · 축우분과) 별로 농업기술 연수와 공동토론이 진행되었다.

"(전략) 연수생활을 통해서 개별적으로 불평도 있을 수 있고 불만도 많을 것으로 짐작이 갑니다. 그러나 그 불평과 불만스러움을 인내와 협동정신으로 이겨 나가는 그 자체가 바로 훌륭한 연수인 것입니다. 제군들이 떠날 때도 신신당부한 바 있거니와, 국제적인 친선이나 우호 증진은 외교관이 맡아서 하는 임무가 아닙니다. 제군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외교관이며 제군들의 일거수일투족에 한국농민들의 명예, 나아가서 국위가 걸려있음을 명심하여 주기 바랍니다. 우리 겨레는 개인 개인은 뛰어나지만 협동심과 단결력이 약하다는 단점을 흔히 들어온 일이 아닙니까?

우리 협회도 이제 조국근대화라는 역사적인 과업을 담당하고 있으며, 제군들의 귀국 후에 선도농가(先導農家)로서의 활약에 크게 기대를 거는 바입니다.

끝으로 제군들이 더욱 건강하여 얼마 남지 않은 연수를 영광스럽게 끝마치고 금의환향할 날을 기다리며 이만 붓을 멈춥니다."〔『농업기술회보(農業技術會報)』 65호, 1968년 12월 1일〕

(7) 제10회 대회는 1969년 10월 20~21일(토~일) 1박 2일의 일정으로, 첫 날은 시민회관에서, 둘째 날은 건국대학교 낙원동 교사에서 개최되었다. 첫날 개막식을 겸한 종합대회에는 대회 이래 가장 많은 규모인 3,500명이 참석하였고, 조시형 농림부장관과 전휴상 국회 농림위원장 등이 참석하

였고, KBS 라디오에서 개막식 현장을 실황중계 하는 등, 뜨거운 관심을 보여주었다. 정장섭 전무이사가 작사하고 김성태 서울대 음대학장이 작곡한 '회가(會歌)'가 처음으로 불렸고, '휘장'도 처음으로 사용되었다.

개막식은 개회선언, 국민의례와 국민교육헌장 낭독에 이어 우리의 목표(강령)선언, 대회사, 격려사, 선언문 채택, 제10회 농업기술상 시상, 유공자 표창 및 감사패 증정, 대정부 건의문 채택, 농정시책 설명, 특별 강연 순으로 진행되었다.

대회사에서 유석창(劉錫昶) 총재는 "선도농가 · 정부 · 농민이 삼위일체가 되어 농민의 정신혁명 · 농업의 기술혁명 · 농촌의 생활혁명을 완수하자"고 호소했다. 이어 조시형 농림부장관은 준비한 격려사 대신 대정부 건의에서 채택된 이중곡가제 실시에 대해 재정형편상 이를 실현하기 어렵다는 정부의 입장을 1시간 이상 설명하였다. '농지제도' '농산물 가격' '농협' '비료' '농자금 회수' '말단 농촌지도소의 기능 강화' 등 6개 분야에 걸쳐 10개항의 대정부 건의문을 채택했다.

제10회 농업기술상은 본상에 김선호(부산) · 이계조(서울) 씨, 특별상에 권태성(충북) · 최재식(경북) · 정희원(전남) · 이금판(경남) · 김종한(전남) · 이계오(충남) · 오인수(강원) 씨, 장려상에 이영모(경기) · 성석환(강원) · 신성준(충남) · 김성원(제주) · 서삼수(경북) 씨가 수상하였다. 또 전국농업기술자대회를 창설한 박갑수 중앙종묘사장과 정장섭 전국농업기술자협회 전무이사에게 감사패를 수여하였다.

점심시간에는 인기 연예인이 대거 참여한 'MBC 그랜드 쇼' 프로가 공개방송으로 진행되었다. 점심식사 후에는 농촌개발선도자 발표가 있었다. 각 도별로 1명씩 선정된 농민들은 농민이 당하는 푸대접과 울분을 토로하고, 농촌의 어려운 현실과 자신이 구상하는 농정의 방향을 소신껏 발표함으로써, 참가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대회 주제인 '고도 경제 성장과 농업의 낙후성'에 관한 배심토론회가 진행되었고, 저녁에는 '위안의 밤' 행사가 열렸다.

둘째 날에는 채란 양계, 브로일러, 소채, 과수, 양돈, 한우 낙농, 수도작, 전작, 특용작물, 약초 · 인삼 · 담배, 화훼 · 관상수, 경제림, 양잠, 양봉, 양어 등 16개 분과로 나눠 농업기술 개발 토론회를 진행하였다. 정회원에게는 사전에 열차 왕복 할인권이 배부되었고, 참가자 전원에게는 기념페넌트와 기념타월을 선사했다.

대회를 마친 다음날(22일)에는 협회 임원과 농업기술상 수상자 전원 등 20여 명이 청와대를 예방하고, 영부인 육영수(陸英修) 여사와 함께 농업 현안을 주제로 1시간 이상 환담하였다. 문화방송에서는 수상자들의 영농 체험담을 특집프로로 방송하였다. '농업 진흥'과 '농촌 부흥'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정부의 관심과 지원의 정도, 전국농업기술자협회에 대한 높은 기대감을 엿볼 수 있는 사실들이다.

(8) 1970년 봄 제4차 농업기술연수생 25명을 일본에 연수 파견하였다. 선도농가 육성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시행된 이들을 떠나보내면서 상허 선생은 "이미 연수를 마치고 와서 선도농가로서 크게 활약하는 회우들은 우리 협회의 자랑스러운 일입니다. 대한민국의 농민을 대표하여 낯선 타국에 큰 사명을 지고 1년 동안의 연수를 위해 떠나는 이들 회우들의 온갖 힘을 당부하거니와, 이들의 장도에 전국의 회우들도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해외파견 연수사업은 연수 자체에만 그치지 않고, 당사국과 경제협력면에서 새로운 방향이 모색되고 있음을 이 기회에 밝혀둡니다."「특별담화」, 『농업기술회보(農業技術會報)』 81호, 1970년 4월 1일)라고 의미와 가치를 평가하였다.

4월 20일 경기도 이천군 대월면 송라리 부락 뒷동산 잔디밭에서는 '송라리 협업농장의 창립 1주년 기념식'이 유석창 총재를 비롯하여 송석도 부총재와 전 경기도농촌진흥원장 이제현 박사, 그곳 관내 기관장 및 인근의 회원 다수와 부락민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송라협업농장은 1970년 3월 16일 전국농업기술자협회 부설연수원 특별반 제13기를 수료한 김경열(35 · 고졸 · 동 협업농장대표) 씨를 중심으로 구본창(34 · 고졸), 변광훈(32 · 대퇴), 박광운(32 · 대퇴), 이재윤(28 · 고졸) 등의 다섯 사람이 창설하여, 농촌의 온갖 불리한 여건을 오직 인내와 창의력으로 극복하고, 계사 65평에 1,400수의 산란계를 사육하여, 평균산란율을 70~73%로 올렸으며, 비닐하우스 100평에 배추와 고추 촉성재배를 성공적으로 이끌고 있었다.

앞으로 한우 비육사업, 청정채소 촉성 및 반촉성 재배, 양돈사업, 낙농사업을 비롯하여 회원소유지 45,000평의 전 농토를 협업 운영하게 되며, 수도작의 협업도 계획하고 있었다. 유석창 총재는 대형거울 1좌를 증정한 다음, 격려사에서

"우리나라는 53%가 농민이다. 근대화의 물결이 일어 도시에도 고층건물이 치솟고 있으나 우리 모든 사람이 잘살아야지 열사람 천 사람만이 잘살아서는 아무 소용이 없다. 그것은 그 사람만의 행복이고 영광일 따름이다.

얼마 전 신문통계에 의하면 농가의 가동수익이 연간 13만여 원인데 지출은 14만여 원으로 적자생계를 보여주었다. 이것은 연명에 연명을 거듭하는 슬픈 농촌의 현실을 입증하는 것이다.

나는 대학을 설립하고 총장을 지냈으나 서산귀객이 보월망망이라 여생을 뜻있게 보내기 위해 홀연히 총장직을 떠나며 "나는 이로부터 한국의 농촌을 다니며 농민과 더불어 일할 것이며 그러다가 논두렁을 베고 죽으면 그것이 가장 영광스런 죽음"이라고 다짐하였다.

한국에 유례없던 축산대학, 농공대학, 지역사회개발대학, 농협대학 등을 주변의 갖은 반대를 무릅쓰고 설립하였으나 이것들은 한낱 심볼에 불과한 것이었음에 이후 전국농업기술자협회의 일에 뛰어든 것이 아닙니까?

그러나 협회운동도 그동안 별일을 못해 왔다. 그런데 오늘 여기 와본 즉 이 열렬한 다섯 동지들을 봄에 이것 하나 큰 성과를 얻었구나 여겨진다. 협업농장을 이룩한 경과보고와 회장 김 동지의 말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삼위일체적 농촌개발은 현실적으로 가장 바람직한 방법론임을 확신한다.

우리 농촌이 잘 살기 위하여 농민이 아무리 애를 써도, 또 정부가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되며 여기에 선도농가가 앞장서서 정부의 지원과 농민의 창의적 참여를 끌어드리는 역할을 해야 한다. 김 동지가 비유한 바와 같이 콘크리트에 있어 자갈과 모래, 시멘트의 적절한 배합과 같은 것이며 선도농가는 바로 이 시멘트의 역할을 하여야 하는 것이다. 정신혁명, 기술혁명, 생활혁명의 완수도 선행되어야 한다.

지금까지 10년여의 긴 세월동안 농업기술자협회가 이렇다 할 큰일을 못했으나 금년부터는 꼭 거창한 일을 해야겠다고 다짐하고 있었는데 오늘 여기 다섯 동지의 피 끓는 의지를 볼 때 더욱 피가 끓어오르며 주먹이 힘차게 쥐어진다.

가까운 일본은 논농사 35%, 밭농사 9~10%, 축산 25.3%, 과수 14.8% 채소원예 11%, 양잠 3%인데, 우리나라는 이와는 너무 대조적으로 70%, 20%, 0.3%, 1.5%, 1.5%, 0.5% 구성비를 보이고 있다. 그리고서도 일본은 쌀이 남아 골치를 앓고 있으니 확실히 그 기술이 다른 것이다.

이곳을 오면서 나는 저 무진장의 유휴 야산에 낙농을 해봤으면 하고 생각했었다. 그런데 때때로 사람들은 뭘 하고 있느냐고 물으면 "돈이 있습니까? 기술이 있습니까? 놀고 있습니다"고 하기 일쑤다.

우리가 잘사는 길을 첫째로 사람, 둘째도 셋째도 사람이요 넷째 기술, 다섯째 돈임을 알아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위와 같은 말을 하는 사람은 맹목적으로 그에게 돈과 기술이 아무리 있어도 잘살 수는 없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이곳 다섯 동지는 눈에 불이 켰다. 이들에게 돈, 기술이 약간만 개선되면 당장 이루어낼 것이다.

나는 오늘 여기 와서 가장 만족한 것은 이들 다섯 동지가 있다는 것, 가장 귀중한 자원이 있음이다. 이곳 송라부락은 이로부터 살았구나 하는 생각을 하는 것이다. 모자라는 것은 정부의 지원과 부락민의 협조일 것이다. 남 하는 것을 보고 시기나 비방을 일삼고 방관하는 것까지도 금물이다. 분명히 확신하는 바는 이 다섯 동지가 멀지 않아 이 부락에 번영과 영광을 가져올 것이다.

이 불이 꺼지지 말아야 하며, 또 그렇지 않도록 우리 모든 사람이 밀어주어야 한다. 우리의 이 귀한 다섯 동지는 분명히 새로운 역사를 창조하는 선도자인 것이다. 이 순간이 길이 기억되며 이곳으로부터 전국의 부락부락에서 이 혁명의 봉화가 활활 타오르게 될 것을 바라는 바이다."(『농업기술회보(農業技術會報)』 92호, 1971년 3월 1일)

라고 역설하였다. 또 10월 31일과 11월 1일에는 3,500명의 농민이 참가한 가운데 제11회 대회가 열렸다. 첫날은 건국대학교 본교에서, 둘째 날 행사는 시민회관에서 진행되었다. 처음으로 농업기계 연시회(演試會)를 개최하였고, 개회식을 겸한 종합대회를 마지막 날에 진행하면서 모의국회를 열었다. 개회식에는 농림부장관과 청와대 경제담당 수석비서관도 참석하였는데, 정부의 관심을 읽을 수 있는 대목이다.

첫날 진행된 농업기술 발표회는 17개 분과(채란 양계, 브로일러 양계, 채소, 과수, 양돈, 한우 · 낙농, 수도작, 전작, 특용작물, 약초 · 인삼 · 담배, 중소가축, 화훼 · 관상수, 경제림, 양잠, 양봉, 양어, 농업기계)로 나뉘어 오전에 진행되었다. 오후에는 농업기계 연시(演試)가 열렸는데, 이는 우리나라 농기계 박람회의 효시가 되었다.

출품된 농기계는 트랙터와 부속 작업기, 경운기, 파종기, 동력분무기, 동력살분무기, 양수기, 미스트기, 스프링클러, 이앙기, 건조 절단기, 콤바인, 바인더, 예취기, 기계 낫, 자동 탈곡기, 조립식 하우스 철골, 하우스 가온기, 알미늄 시트, 동력 포도접목기 등으로, 본격적인 농기계시대가 열리고 있음을 실감케 한 행사였다.

둘째 날 종합대회는 KBS TV와 라디오, MBC 라디오가 전국에 생중계를 하는 등 뜨거운 관심이 집중되었다. 개회식에는 조시형 농림부장관, 정소영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 원용석 전 농림부장관, 전휴상 국회농림위원장을 비롯해 많은 내외귀빈이 참석하는 등, 10년의 연륜을 쌓아온 전국농업기술자대회의 위상을 실감케 했다.

개회식은 국민의례에 이어 우리의 목표(강령)선언, 대회사, 격려사, 축사, 선언문, 대정부 건의문 채택 순으로 진행되었다. 대정부 건의는 농협법 개정, 이중곡가제 실시 등 5개항이 채택되었다. 제11회 농업기술상은 본상에 최문환(경기 광주), 양만옥(전북 임실) 씨가, 장려상은 박수근(경북 금릉), 조정기(전남 광산), 오칠모(전남 보성) 씨가 각각 수상했다.

대회 사상 처음 시도된 모의국회는 172명의 국회의원을 위촉하였고, 국회의장, 부의장, 여야 원내총무도 선임했다. 또 대통령과 국무총리, 경제4부 장관(경제기획원 · 재무 · 상공 · 농림)을 출석시켰고, 대통령의 농정 특별교서 발표 순서에 이어 여야 의원의 날카로운 질의가 이어졌다.

(9) 1971년 12월 16일(목)~17일(금) 1박 2일의 일정으로 서울 시민회관과 건국대학교에서 제12회 대회가 열렸다. 전국에서 올라 온 3,000여 명의 농민회원이 참석하였고, 대회의 주제는 '만성적인 식량자급률의 저하와 그 대책'이었다. 농림부와 건국대학교가 후원하였다. 대회는 KBS 라디오와 TV로 중계 방송되는 가운데 성대하게 진행되었다.

공교롭게도 '국가비상사태' 선언이 내려진 가운데 열린 첫째 날 개회식에는 김종필 국무총리가 참석하여 치사를 하였고, 국회 농림분과위원 등 다수의 국회의원이 내빈석을 메워 격상된 대회의 권위를 실감케 하였다. 이어서 농림부 고위관리와 협회 중견회원이 마주 앉아 '식량자급률 문제'를 놓고 토론을 벌이는 '정부요로와의 대화' 순서가 진행되었고, 이어서 국회 농림분과위원과 참가 농민이 '현안농업문제의 제측면'이라는 주제로 농정대담도 하였다.

또 '격변하는 국제정세와 한국의 좌표' '만성적인 식량자급률의 저하와 그 좌표' '제3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과 농정의 방향' '농촌 현실의 직시와 농민의 사명' 등을 주제로 한 '시사 · 농업문제 대강연회'를 개최하였다.

제12회 농업기술상은 임종룡(경북 성주) · 박흥덕(전북 전주) · 이일환(경북 영일) 씨가 본상을, 김병문(경기 인천) · 심재석(강원 강릉) 씨가 장려상을, 김재곤(충남 논산) · 김형달(부산) · 박홍훈(경북 선산) · 서정득(충남 대덕) · 장상철(경북 금릉) · 최하철(강원 춘성) 씨가 특별상을 받았다.

그런데 제12회 대회는 유석창 박사가 입원 중 병상에서 대회 행사를 일일이 진두지휘하였다. 12월 16일에는 주치의와 주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추운 날씨를 무릅쓰고 직접 대회장에 나와 대회사를 하고, 참석자들과 일일이 작별의 인사를 나누며 만장의 박수 속에 병원으로 돌아갔다. 이것이 유 박사가 주재한 마지막 대회이자 공식 일정이 되고 말았다.

농업기술자대회 정부에 15개항 건의 "외미(外米) 도입 반감토록"

전국 5,000여 명의 일선 농촌지도자들은 16일 오전 서울시민회관에서 '제12회 전국농업기술자대회'를 열고 "순수한 농심(農心)과 전통적인 농민의 저력을 발휘, 자조 자립 협동의 정신혁명을 완수하여 농민총화를 이룩하며 건전하고 생산적인 사회기풍을 진작하겠다"고 선언했다.

'전국농업기술자협회'(사단법인 총재 유석창(劉錫昶))가 주최한 이 대회는 대정부건의문을 통해 "근래 심화되는 식량자립률의 저하와 막대한 양의 외곡도입이 경제자립과 근대화과업 추진에 커다란 암이 되고 있음을 볼 때 농민들은 더 이상 통분을 참을 수 없다"고 말하고, 72미곡연도 양곡도입계획 중 쌀 도입은 계획량 80만톤을 반으로 줄이고, 맥류 35만톤 도입 계획은 폐기할 것을 촉구했다.

이 건의문은 또 ㉠ 71년도 산 추곡에 대해 정부매상과는 별도로 500만 섬을 농업협동조합이 매취사업으로 사들이도록 할 것, ㉡ 72년도 하곡(보리 밀) 수매가격은 최열등지(最劣等地)의 생산비에 투하 자본의 이윤을 포함한 가격으로 책정하여, 이를 71년 내에 예시하고 이에 응하는 농민과는 계약을 체결, 수매자금 전액을 농협을 통해 사전 융자해 줄 것과, 72년도 추곡수매 가격도 같은 계산방법에 의해 책정, 72년 2월까지 수매량과 함께 예시할 것, ㉢ 양곡관리법 개정안 중 긴급사태에 정부가 농민소유 양곡을 강제판매토록 명령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삭제할 것, ㉣「농업협동조합 임직원 임명에 관한 임시조치법」을 즉시 폐기하고 농협의 민주화 및 운영 합리화를 실현할 것, ㉤ 도입외곡의 판매대금은 전액 농민을 위하여 사용할 것 등 15개 항을 정부에 건의했다.(『동아일보』 1971년 12월 16일, 2면)

(10) 1972년 1월 1일 유석창 총재가 돌아가셨고, 1월 7일 임시이사회에서 부총재인 송석도 씨가 총재 대행을 맡았고, 10월 30일 열린 이사회에서는 류달영 박사를 제13회 대회 대회장으로 추대키로 의결하였다.

제13회 대회가 12월 20 · 21일 건국대학교에서 개최되었다. 참가 인원은 1,500명으로 예년에 비해 행사 규모가 대폭 축소되었다. 이는 주최 측에서 부담해 온 대회 참여 경비의 일부를 전액 참가자 부담으로 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전액 자비로 대회에 참가함으로써 명실상부한 자주적인 농민행사로 전환하였음은 그 의미가 적지 않다고 할 것이다.

서울 시민회관의 화재로 개회식과 종합대회는 건국대학교 강당에서 개최되었다. 개회식에는 김보현 농림부 장관과 김현옥 내무부 장관이 참석하는 등, '10월 유신'의 경직된 사회 분위기 속에서도

유석창 박사가 돌아가시기 전 참석한 마지막 공식행사였던 1971년 12월 개최된 제12회 전국농업기술자대회

정부의 대회 지원은 여전하였다. 대회의 주제는 '새마을 운동의 성공적 추진과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한 농업기술개발'이었다.

종합대회에서는 청와대 · 내무부 · 농림부의 새마을운동 담당관과 학계 · 농산물 수출업체 농민이 참여한 '새마을운동 배심토론회'가 개최되었다. 또 '국제정세의 격변과 한국의 좌표' '10월 유신과업과 농민의 역할' '제3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과 농업정책의 방향' 등의 주제로 강연회가 진행되었다. 한편 첫날 소집된 대의원 총회에서는 류달영 박사를 총재로 선출하였다.

둘째 날 분과별 농업기술발표회는 9개 분과(양계, 양돈, 한우 낙농, 채소, 과수, 화훼 가정수, 약초, 특수농업, 일반작물)로 나뉘어 진행되었다. 제13회 농업기술상은 본상 수상자는 없이, 이윤형(전북 정읍) · 나원주(전남 나주) · 김종천(경북 예천) · 김영문(부산) 씨 4명이 장려상을 받았다.

5) 농업기술연수원 운영

1965년 7월 28일에는 부설 연수기관으로 건국대학교 캠퍼스 내에 농업기술연수원을 마련하고, 도지부 간부를 위시하여 군 · 면 단위로 매회 3, 4일씩 농한기를 이용하여 년간 20여 회의 단기강습을 통해 농업기술 교육을 시켰다. 134평 규모로 강당과 사무실 · 기숙사 · 식당 등을 갖추었다.

유석창 박사가 직접 정신훈육을 하였고, 건국대 농과 전공교수와 전국적으로 명망이 높은 독농가들을 초청하여 농업기술에 대한 비결을 공개, 전승시켰다. 사업 첫해에 두 차례에 걸쳐 10여 명씩

농업기술이 앞선 일본에 기술연수를 보냈다.

아울러 '5만 고구마 비대운동'의 구현을 목표로 국내연수 활동도 활발하게 진행하였다. 일례로 1968년 1월 4일부터 4월 4일까지 석 달 동안, 4박 5일의 일정으로 20여 차례에 걸쳐 천여 명을 연수시켰다. 이외 농촌진흥청과 '식량증산 연찬회', 서울시와 '서울식량대회', 부천군 4-H연합회와 '풀베기대회 협찬' 등의 사업을 벌였다.

> 우리 한국농민이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되는가 하는- 즉 부자가 되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부자가 되는 방법에는 3단계가 있습니다. 또 그 단계 단계마다에 각기 세 가지 층이 있는 것인데, 결국 부자가 되는- 말하자면 우리가 1단계가 된다면 2단계로- 2단계가 끝나면 3단계로 각각 이행할 것이지만, 우선 2단계 3단계를 말씀드리고 다음으로 1단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
> 그런데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것은 매우 평범한 원리인 것입니다. 그러나 평범한 가운데 진리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단계는 오늘날 세계 각국이나 동서고금을 통해서 잘사는 사람들은 이 범주 속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먼저 2단계, 이것은 여러 번 말씀한 것입니다. 우리 농민도 잘살려면 세 가지 혁명이를테면 우리 농민에 대해서는 정신혁명(精神革命)을, 농촌에 대해서는 생활혁명(生活革命)을 성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2단계의 세 가지 혁명을 꼭 이루어야겠습니다. 이것이 한국농촌 부흥의 가장 중요한 방법입니다.
>
> 이 2단계의 정신 · 기술 · 생활의 혁명이 일어났으면, 다음으로 3단계에 들어서게 됩니다. 그것은 첫째, 무(無)에서 유(有)로 창조 이행하며, 둘째, 하나에서 다원(多元)으로 전개되며, 셋째, 소(小)에서 대(大)로 발전하는 것입니다. 2단계의 세 가지 혁명이 이룩되면 이 3단계의 세 가지 변화와 발전은 분명히 일어납니다. 그러면 과연 이 세 가지 변화가 일어나고 무(無)에서 유(有)의 창조가 일어날 수 있을 것인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방법으로서 1단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
> 1단계에 있어서 첫째로 마음에 대한 결정입니다. 마음으로 결정이 되면 우리는 그것을 이루려고 합니다. 그러자니 자연 그 방법과 길을 찾는 것입니다. 이것이 1단계의 둘째 번의 일입니다. 그리고 애써 찾아 그 방법이나 길을 알게 되면 이제는 셋째의 일로 용기 있게 과감히 실천에 옮겨야 합니다. …
>
> 여기에서 무엇이 문제인가! 사람과 돈과 기술과 갖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사람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돈이 있고 기술이 있어도 사람이 없으면 안됩니다. 한국농업은 무(無)에서 유(有)를 창조해 내지 않으면 안됩니다. 보리밭을 보십시오, 십년 전의 보리밭이 십년 후에도 보리밭이 되어서는 결코 농업의 발전을 기대할 수 없는 것입니다. 무에서 유로, 하나에서 다(多)로, 소(小)에서 대(大)로 이행 변화하지 않으면 안됩니다.〔『농업기술회보(農業技術會報)』 35호, 1967년 2월 1일〕

그러나 연수원 건물이 건국대학교 '대학종합계획' 부지에 포함됨에 따라, 유석창 총재는 당시 건국대학교 이종규 총장 서리 명의로 '연수원을 지어주겠다'는 각서를 작성토록 하고, 1968년 5월 1일 전국농업기술자협회 사무국을 실습농장 사무실로 옮김으로써, 연수원은 문을 닫게 되었다.

이로써 전국농업기술자협회의 사무실은 건국대학교 캠퍼스를 떠났고, 1982년 5월 11일 서울특별시 용산구 동부이촌동 301-87번지 소재 대지 496.4평과 연건평 267.58평의 건물을 매입하여, 지금에 이르고 있다.

(1) 비록 자체 연수시설이 없어졌지만, 1968년 여름 8월 10일부터 전문농업 기술연수를 위한 '하계 단기 농업기술대학-하계 농업기술 연수회'를 실시하였다. 수강료는 수강자 본인이 부담하였으며, 기술반 연수인 '농민대학'의 시초가 되었다.

1968년 8월 10일부터 18일까지 전후 두 차례에 걸쳐, 3개년 계획으로 실시하는 전업농가를 위한 '하계 기술반 연수'에는 444명의 회원이 참가하였다. 하계연수회는 최초의 유료 농업기술강습회였다는데 의미가 있었다. 예상외의 많은 참가자와 학계 · 업계의 전문가들이 강의를 맡아 산학협동의 새로운 계기를 마련하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연수회는 4박 5일의 단기 과정으로 양계 · 양돈 · 한우 · 채소 · 과수 · 수도 · 양잠 등 8개 전문분과로 나누어 시행되었는데 전기(10~14일)는 축산관계 3개 과, 후기(15~18일)는 채소 · 과수 · 수도 · 양잠의 4개 과가 개설되었다.

연수내용은 농림부의 농정과 생산기술 · 유통 문제에 중점을 두었다. 특히 '재벌에 의한 기업축산 육성의 문제점'과 '외국자본의 도입과 국내 축산업계의 대응책'을 주제로 한 축산문제 배심토론회는 큰 관심을 끌었다.

유통 문제를 주제로 한 배심토론회는 '유통 혁신'을 주제로 고조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었다. 그리고 연수회와 병행한 축산 · 원예자재 전시회는 17개 회사에서 서적 · 사료 · 가축약품 · 양계기구 · 난상 · 양잠기구 · 약품 · 종계 등 156점을 출품하여, 참가자들의 관심을 끌었다.

(2) '3개년 계획'의 2차년도 연수계획에 따라, 동계 농업기술연수회가 1969년 1월 26일부터 2월 11일까지 건국대학교 축산대학 생활관에서 4박 5일 과정으로 실시되었다. 양계, 양돈 · 한우, 과수, 채소의 4개 반에 171명이 참가하였다. 50년 만의 폭설에도 불구하고, 참가자 중 몇 분은 12~20㎞의 눈길을 걸어 참가한 경우도 있었다.

양계반의 경우 경기불황의 타개책 모색에 역점을 두었으며, 양돈 · 한우반도 흑자경영 방안을 찾는데 비중을 두었다. 반면에 과수반에서는 저위 생산성을 지양하고 고질화된 유통과정의 모순과 대비책을 찾는데 주안을 두는 한편, 전지 및 전정 실습은 물론 포장 실습까지 실시한 것은 획기적인 기획이었다. 채소반은 또 시설원예뿐만 아니라 전국의 고등채소원예가 직면하고 있는 만성 경기불황의 타개책과, 새로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작목 선택에 관해 많은 정보를 제공하였다.

(3) 1969년 8월 1일부터 8월 9일까지 전 · 후기 하계 농업기술 연수회가 실시되었다. 건국대학교의 강당 및 실습장, 기숙사 등의 각종시설을 활용하여 4박 5일간 합숙교육으로 실시되었으며, 전국에서 179명(여성 3명 포함)이 참가하였다. 연수기간 동안 12개 회사에서 원예 및 축산자재들을 전시하였다.

(4) 1970년도 하계 농민대학은 7월 27일부터 8월 2일까지, 건국대학교 축산대학 성관 기숙사와 신관 기숙사에서 합숙하며 강의를 받았다. 7일 동안 6개학과에 500여 농민들이 새로운 농업기술을 개발하고 농업정보를 상호 교류하는 기회를 가졌다.

전기반 43기(채소과), 44기(과수과), 45기(정원수과 · 화훼과), 46기(약초 · 특작과) 수강생 연인원 327명은 전기반 수료일인 7월 30일 선진지 견학을 실시하였고, 8월 2일 후기반(47기) 양계과는 경기도 고양군 소재 한명복 씨 양계장을 견학했으며, 양돈 · 한우과는 인천시 소재 양돈가공센터를 견학하는 것으로 교육일정을 마쳤다.

> 건대에서는 지난 28일부터 전국농업기술자협회가 주관하는 하계농민대학이 개강되었는데, 수녀 2명이 참석, 이채를 띠고 있다. 올해로 4회째를 맞는 하계농민대학은 이미 1천여 명의 농업기술자가 거쳐 나갔으며 현재 162명의 농민들이 참가, 농촌근대화의 기수임을 자처하고 있다.
>
> 7월 28일부터 7월 31일까지는 채소, 과수, 정원수, 원예, 약용식물 재배 등의 강의가 있었으며, 8월 1일부터는 양계, 한우, 양돈에 관한 강의와 실험이 행해지리라 한다.
>
> 연수부장 송재덕(宋在德) 씨는 교육을 받는 수강생들은 이미 농업전문기술자들이기 때문에 사료문제, 병충해문제 등 최근 당면문제를 중점적으로 강의한다고 말했다.
>
> 한편 광주 '카리타'수녀원의 '시스터 · 리터' 수녀(27)는 수녀원에서 닭 1천 마리 계사를 지어 자기가 기르게 되었다면서 올해 처음으로 참석하기는 하나 강의내용이 훌륭해 하얀 수녀복 차림에도 덥지 않다고 흐뭇한 표정을 지었다. 교수진은 고대 교수 윤국병(尹國炳) 씨를 비롯, 농업전문가 80여 명이다.「修女 수강생도 2명—건국대」, 『한국일보』 1970년 8월 1일〕

(5) 1971년 2월 8일부터 26일까지 동계농민대학이 건국대학교 축산대학 강의실과 생활관 기숙사에서 열렸다. 375명이 참가한 가운데, 채소과 · 과수과 · 정원수과 · 화훼과 · 양계과 · 약초–특작과 · 양돈–축우과의 6개 과별로 3박 4일씩의 연수가 실시되었다.

과수과 수강 희망자가 140여 명이나 되어 집행부를 당황하게 만들었으며, 건국대학교 김성원 농과대학장의 슬라이드 강의는 인기가 높았다. 정원수 · 화훼과에는 도시근교의 정원수 재배 현황과 인기품목에 대한 강의가 있었다. 양계과에서는 경기불황과 '마렉씨 병'으로 인한 실망감이 반영된 듯 예년에 비해 참가자가 적어, 소득증대에 대한 농민들의 반응이 예민하였음을 실감케 하였다. 약초 · 특작과에는 여성 수강생이 참가하였으며, 양돈 · 축우과에는 현역군인이 참가함으로써 제대군인을 대상으로 하는 귀농교육의 가능성과 희망을 보여주었다. 효소농업에 관해 특강을 하기로 했던 야마다(山田英雄) 박사가 내한하지 못한 점은 아쉬움을 남겼다.

(6) 1971년 7월 28일부터 8월 3일까지 건국대학교 축산대학에서 326명이 참가하여, 전기반〔채소과 · 과수과 · 화훼–정원수과〕과 후기반〔양계–오리과 · 양돈–낙농한우과 · 약초–담수양어과〕으로 나누어 3박 4일 동안 연수하였다.

전기반 과수과에서는 건국대학교 김성원 농과대학장의 사과 밀식재배법과 왜성대목에 대한 강의가 있었고, 수원 원예시험장 김용구 연구관은 사과나무의 문제의 병인 부란병 방제법에 대해 발표하였다. 이와 함께 현장견학의 시간도 가졌다.

후기반 양계 · 오리과에서는 사료값 인상과 알값 저하 및 질병 확산에 대한 타개책과, 음식물쓰레기(殘飯) 이용, 웅덩이와 개울을 이용한 오리사육법 등에 대해 논의하였는데, 참가자들이 큰 관심을 보였다. 또 수산청 담당자의 담수 양어양식 및 정부 지원 등에 대한 소개에 수강자들이 큰 관심을 보였다.

(7) 1972년도 동계농민대학은 1월 29일부터 건국대학교 축산대학 기숙사에서 446명이 참가한 가운데 개설하였다. 숙소 사정으로 채소과는 1월 29일부터 2월 1일, 과수과는 2월 1일부터 2월 4일, 양계 · 양돈 · 한우낙농과는 2월 4일부터 2월 7일, 약초 · 특작 · 전작 · 수도작과는 2월 7일부터 2월 10일까지 연수를 실시하였다.

양계 · 양돈 · 낙농 · 한우 등 축산 분야를 통합 1개 과로 편성하는 등 유사한 분야를 묶어 편성하였기 때문에, 각 부문을 종합 비교해 가며 새로운 영농방안을 설계할 수 있었다. 각 과에 한두 가지 이상의 새로운 고수익 농업정보가 포함된 것도 특색이었다.

(8) 1972년 7월 29일부터 8월 5일까지 건국대학교에서 '농민대학 참가는 곧 소득 증대의 길' 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291명이 참가하여 전 · 후기로 나누어 실시되었다. 류달영 교수, 주석균 선생과 청와대 새마을운동 송은종 담당관을 초빙하여 일반 교양강좌도 실시하였다. 왕복 여비는 물론 숙식비 · 강사료 · 교재대 등 모든 비용이 자기부담이었다. 전기반〔7월 29일~8월 1일〕에 채소 · 화훼 · 정원수과, 양계 · 양돈 · 한우과가, 후기반〔8월 2~5일〕에 과수원예과, 약초 · 전답작 · 특작과가 개설되었다.

6) 농업기술회보의 발간

전국농업기술자협회의 기관지인 『농업기술회보』는 1964년 7월 20일 『회보(會報)』라는 제호로 창간되었다. 창간호에서 유석창 초대회장이 밝힌 것처럼, 회원들의 소식을 전하고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었다. 창간호의 판형은 타블로이드, 지면은 4면으로 총 2,000부를 발간했고, 발행인은 유석창, 편집인은 정장섭이었다. 제호는 전무이사 김건 선생이 썼다. 유석창(劉錫昶) 발행인은 창간사에서

> "이 적은 지면으로나마 정의가 통하여 회원 여러분의 소식도 연결하는 교차로가 되게 하겠습니다. 우리 협회는 농업기술자들의 모임인 만치, 언제나 우리에게 부하된 사명을 완수함으로서 나라에 이바지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보다 다른 농민들의 지도적인 사명을 위해 가일층 노력해야 하겠으며, 따라서 기술이나 경험에서 뿐만 아니라 인간 면에 있어서 부지런하고 착실하며 다른 사람에게 믿음을 주는 공신력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라고 밝히며, "조직의 역량을 키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7호부터 제호를 『회보(會報)』에서 『농업기술회보(農業技術會報)』로 바꾸고, 유석창 총재가 제호를 썼다. 1965년 6월 30일에 문화관광부 등록 라-528호로 정기간행물 월간으로 인가받았다. 1971년 11월 1일자로 100호를 발간했다. 그동안 발행부수도 무려 10배나 늘어 20,000부를 발행하여, 회원들의 눈과 귀 · 입의 역할을 수행했으며, 새로운 농업기술을 전달함으로써 농민들을 계도(啓導)하는

農業技術會報
新年辭
歷史의傍觀者가되지말고 大同結束하여前進하자
總裁 劉錫昶
新年事業計劃
第三次, 日本派
各部門二十一名
人選

『농업기술회보』에 게재된 유석창 총재의 신년사(『농업기술회보』 1967년 1월 1일)

데 앞장섰다. 유석창(劉錫昶) 발행인은 100호를 발간하며

> "우리 농민들도 우리 농민편에서 정당한 권익과 여론을 주장할 수 있는 그야말로 '농민의 대변지'가 아쉽습니다. 농민의 대변지는 농민의 힘으로 만들고 농민의 힘으로 육성하여 나가야 하겠습니다. … 『농업기술회보』가 지금까지 걸어온 길을 반성하여 볼 때, 지면 사정으로 회우들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일, 발행 기일을 철저히 지키지 못한 일과 행사 때는 광고 안내지의 구실밖에 하지 못하였음을 사과드립니다.
>
> 그리고 회우 동지들을 만나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먼저 회보 얘기가 나오는 것을 볼 때, 우리 동지들이 얼마나 회보에 대한 기대가 크며 회보에 지워진 사명이 무거운 것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라고 '농민의 참 대변지'로서 역할을 다하겠다는 약속과 함께, 애독자들의 사랑과 냉철한 지도편달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회원들이 모이면 회보 이야기가 먼저 나온다"는 유석창 총재의 표현을 보면, 회보에 대한 회원들의 높은 관심을 엿볼 수 있다. 또 당시 건국대학교 곽종원 총장은 농민을 위한 농촌, 농업을 대상으로 한 전문지가 거의 없는 상황에서 8년 동안 꾸준히 발간하여 100호를 맞이했을 뿐만 아니라, 총 백만 부가 넘게 발행 배포한 사실에 대해 경의를 표시했다.

1972년 1월 1일 초대 총재 유석창 박사가 서거함에 따라, 1972년 4월 18일자로 발행인을 송석도 총재 서리로 변경했다가, 1973년 7월 6일자로 류달영 총재로 바꿨다. 이후 1973년 1월자로 8면으로 증면하고 3만 부를 발간 · 배포했다.

7) 상허농촌복지재단의 설립

1963년 10월 10일 전국농업기술자협회 창립 이래 유석창 회장의 주도하에 '회세(會勢) 확장 3개년도 계획'이 추진되어, 농업기술 연수사업의 시행, 『농업기술회보』 발간, 부설 농업기술연구소 설치, 시 · 도별 지역조직의 확대, 지역단위 농업기술자대회의 개최 등 급속하게 조직과 활동영역이 확대되었다.

그리하여 지속적으로 농촌운동을 전개하고 발전시키려면 확고한 재정적 기반이 마련되어야 하리라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갔다. 그리하여 1968년 1월초 정장섭(鄭長燮) 전무이사를 중심으로 협회간부들이 주축이 되어 자립기반의 확충을 위해 재단 조직이 발의되었다. 이어서 상임이사회와 제9회 전국대회의 공론화 과정을 거쳐, 재단의 이름은 유석창 회장의 아호인 '상허(常虛)'를 따서 상허농촌복지재단으로 하기로 결정하였다. 이후 유석창 회장에게는 비밀로 하고, 시 · 도별로 10명 씩 100인의 발기인을 찾아 나섰다.

100인의 발기인 모집은 한 달 안에 끝냈다. 예상 외로 호응이 좋았고 기꺼이 자진 참여하는 데 용기를 얻어, 이후 9개월 동안 전국의 시 · 군 단위까지 370여 명을 방문하였다. 현금 또는 약정된 총액이 당시 돈으로 600만원을 넘었다. 서울 22명, 경기 66명, 경북 32명, 경남 28명, 부산 14명, 제주 14명 등 총 321명이 6,012,211원의 기금을 약정하였고, 이어서 13명이 합류하여 333명이 뜻을 같이 하였다. 그리하여 1969년 1월 1일 333명의 명의로 상허농촌복지재단의 발기를 선언하였다.

「상허농촌복지재단 발기 취지문」

우리의 조국은 지금 오랜 암흑과 굴욕의 역사를 박차고 민족중흥의 근대화 과업이 힘차게 이루어져가고 있다. 시원히 뻗어가는 국토의 대동맥인 경인 · 경부 고속도로! 북한괴뢰의 끊임없는 도전에 대처하면서도 우렁찬 건설의 망치 소리는 멈추지 않고 있으며, 고도의 경제 성장은 머지않아 우리도 후진 국가라는 명예롭지 못한 굴레를 벗어 던질 날이 다가 오고 있는 듯하다.

그러나 아직도 국민의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는 농민, 우리나라 산업의 주종인 농업, 우리들의 순수한 전통과 향토의 문화를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농촌은 어제도 오늘도 하나의 버림받은 고아로서 무지와 빈곤과 부채 속에서 허덕이고 있는 한심한 현실이다.

농민은 있으되 민주적으로 협동화된 힘이 없고, 농업은 있으되 과학적인 기술에 의한 획기적인 생산의 증대는 없고, 농촌은 있으되 전근대적인 낡고 묵은 폐습에서 한발자국의 전진도 없다.

아울러 농민단체의 간판은 있으되 농산업의 혁명을 주도하는 운동은 없었다. 이제 농민들이 주체가 되어 새로운 차원에서 혁명적인 일대 운동을 벌여야 할 시점에 놓여있다.

우리 전국농업기술자대회 운동은 60년대의 새로운 역사를 열게 한 저 4 · 19 혁명과 때를 같이 하여 전국의 뜻있는 전위농민들의 자조 · 자립적이며 자발적이요, 자생적인 순수한 구농구국의 운동이었다.

그동안 온갖 어려움을 무릅쓰고 꾸준히 성장하여 10년을 헤아리는 오늘에 이르렀다.

우리들의 운동을 영도하고 있는 상허 유석창 박사는 소년시절에 가친을 떠나서 만주벌에서 조국광복을 위해 독립투쟁에 바쳤고, 일제 암흑기에는 의술을 배워 3 · 1 운동의 민족대표 33인을 중심으로 사단법인 민중병원을 세우고 식민지 치하에서 신음하는 동포들의 치료사업에 청년기를 보냈다.

조국이 광복되자 새 나라를 건설함에 있어서는 고도의 복지문화국가를 세워야 한다는 신념 아래 먼저 육영사업에 뜻을 두고 건국대학교를 창립하여 오늘날과 같은 종합대학교로 육성시켰다.

우리나라가 고도로 복지문화국가가 되자면 산업국가를 건설하여야 하며, 산업국가를 건설함에 있어서는 먼저 농업이 선도산업으로서 발전되어야 한다는 주장 아래, 한 종합대학교 안에다 축산대학 · 농공대학 · 지역사회개발대학을 설치하였고, 농업협동조합대학을 설립하기도 하여, 농촌을 위한 역군을 불러내는데 힘써왔다.

그리고 그 후에 건국대학교 총장직을 정년퇴임하는 석상에서 "나는 여생을 농업발전과 농촌발전을 위한 농민운동에 다 바치기로 결심하고 내 죽음은 논두렁을 베고 죽는 죽음을 택하겠다"고 선언하고, 전국농업기술자협회를 영도하여 왔다.

상허 유석창 박사는 우리 운동을 영도함에 있어서 이념적으로는 농산업의 3대 혁명을 내어걸고 진두에서 지휘하였고, 물질적으로는 막대한 정재를 결척하여 오늘날과 같은 우리 운동의 기초를 다졌다.

바야흐로 정부에서는 산업 상호 간의 불균형을 시정하고자 농가소득 증대와 농업 증산, 축산 진흥 등, 전에 없이 의욕적이고 과감한 정책을 세워 진행 중임은 환영할 일이 아닐 수 없다.

미국 제37대 대통령 닉슨 씨는 취임연설에서 "국민의 참여 없이 우리는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며, 국민과 더불어 우리는 모든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이 과거의 쓰라린 교훈이다"라고 말했다.

정부의 계획과 사업이 아무리 훌륭한 것이라 할지라도 농민들의 자발적이며 자주적인 참여 없이는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없다.

그러므로 우리 운동의 역사적인 사명을 자부하는 소이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우리 운동을 계속 발전시키고 추진하자면 재정적인 확고한 뒷받침이 있어야 된다는 절실한 요청이 수삼 년 전부터 있는 회우 동지 간에 거론되어 왔다.

이제 우리는 상허 유석창 박사의 숭고한 농촌 복지화 운동의 정신과 실속을 길이 계승하며 우리 운동을 우리의 힘으로 성취하기 위하여 이에 상허농촌복지재단을 발기하는 바이다.

서기 1969년 1월 1일

상허농촌복지재단 발기인 일동

이어서 1969년 4월 14일 농림부 등록을 통해 전국농업기술자협회가 '사회단체'에서 '사단법인'의 법인체가 된 것을 계기로, "상허 유석창 박사의 숭고한 농촌복지화 운동의 정신과 활동을 길이 계승하며 우리 운동을 우리의 힘으로 성취하기 위한" 상허농촌복지재단의 발족을 위한 기금 모금운동이 시작되었다. 이는 우리역사상 처음으로 농민들의 자주적이고 자발적인 기금 모금운동이었다.

1969년 12월 19일 제10회 전국농업기술자대회 하루 전 날, 건국대학교 낙원동 교사에서 협회원과 농민대표, 농림부장관과 관련인사 등 3,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상허농촌복지재단 발기인 대회가 열렸다. 유석창 회장은 '상허'라는 자신의 아호를 재단 이름에 넣지 말도록 호소하였으나, 발기인들의 총의로 '상허농촌복지재단'으로 확정되었다.

상허농촌복지재단에서는 "서울에 '농민회관(農民會館)'을 건립하여, 선도농가 육성의 도량이 될 연수실로 사용한다. '농민의 광장'으로서 농업관계 각종 모임 및 행사를 위한 강당 시설을 갖춘다. 서울에 여행하는 농민들에게 숙박 및 후생시설을 제공한다. 농업전문도서관 · 농업박물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한다. 전국농업기술자협회에 재정지원을 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주요사업으로는 ① 선도농가의 육성과 선도부락 건설 지도 ② 농업기술의 교류와 연수개발 ③ 선진국에 연수생 파견 ④ 농산물의 국내외 시장조사와 판매 지도 ⑤ 농촌의 여론조사와 건의 ⑥ 농업

기술상 제정과 포상 ⑦ 농업기술자 연차대회 개최 ⑧ 농업기술회보 발행과 농업도서 출판 ⑨ 국제기구와의 교류 협조 ⑩ 기타 목적 달성을 위한 사업을 설정하였다.

발기인 대회에서 유석창 회장은 다음과 같이 감사의 뜻을 표시하였다.

"상허농촌복지재단은 뒤늦게 전국적으로 동지들 3백 수십 명이 발기인으로 서명을 마친 뒤에야 알았습니다. 모인 기금의 액수나 이 일 자체 즉 재단을 발기한 사실이 놀라운 것이 아니라, 동지 여러분들의 뜨거운 열의와 정성스러움에 놀랐습니다.

부끄럽게도 졸호(拙號)를 재단 명칭에 붙인 일은 여러 동지들의 뜻에 흠이 된다고 생각하여 즉시 이를 거절하였으나, 우리운동을 이끌어 준 자에 대한 농민들의 의리요, 선물이며, 명칭이야 뭐라고 하던 참뜻에 변함이 없다고 여기며, 이제 전국의 회우 동지들에게 알려지고 말았습니다.

인생 일대는 길고도 짧은 것입니다. 마음은 아직 청춘인데 나이 70을 헤아리게 되었습니다. 70 평생을 이렇다고 할 이루어 놓은 일 없이 '석양귀객(夕陽歸客)이 보보망망(步步茫茫)'이란 말과 같이 공연히 바쁘기만 합니다.

한 가지 소원이 있다면, 죽기 전에 우리 농촌이 복지화 되는 것을 보고 싶은 일이요, 또 전국의 회우 동지들과 뜻을 같이 하여 벌여 놓은 이 운동을 반석 위에 올려놓아야 하겠다는 일념뿐입니다. 서산에 기우는 해가 마지막 광열을 토하는 것과 같이, 얼마 남지 않은 내 여생을 있는 힘을 다 기울여 여러 동지들의 뜻에 보답하고자 새로운 용기와 결의를 밝히는 바입니다.

아마도 농촌복지운동을 위해 농민들이 발기하여 만드는 재단은 처음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엄청난 일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는 힘은 하루 이틀에 생긴 것이 아니며, 10년 동안 우리들이 걸어온 길이 한결같고 나갈 길이 분명한 데에 쏟은 순수한 농심(農心)과 신의(信義)의 결정(結晶)으로서 믿어 의심하지 않습니다."〔『농업기술회보(農業技術會報)』 76호, 1969년 11월 1일〕

생산 없는 농촌운동은 존재의 의의가 없고 경제행위를 수반하지 않는 생산운동도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모색하고 있는 새로운 진로—새로운 차원에서의 농촌운동은 생산운동과 경제운동을 어떻게 병립, 조화시켜 추진하느냐에 관건이 있다고 하겠습니다.〔「특별담화문: 농촌 진흥은 농민이 주도해야, 상허재단은 협회 운동의 초석」, 『농업기술회보(農業技術會報)』 96호, 1971년 7월 1일〕

「상허농촌복지재단 발기인 제위에 드리는 글, 농촌 진흥의 신념과 자신에 살아, 설립 후에 더욱 확충할 터」

존경하는 회우 동지 여러분, 살펴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무더운 여름철을 맞이하여 회우 동지 제위의 청녕(淸寧)하심과 댁내 두루 균경(均慶)하시옵길 멀리서 축원합니다. 회우 동지 여러분께서는 항상 염려하여 주시는 덕분으로 노구(老軀)에 별 탈 없사오니 안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오랫동안 소식 전하지 못하여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작년의 국내외 정세를 바라볼 때, 거센 역사의 수레바퀴 소리를 절실히 느끼게 하여 주고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가 지금까지 벌여온 농촌복지화운동의 사명이 더욱 중차대하고, 새로운 차원에서 우리들의 사업을 활발히 추진하여야 할 때가 왔음을 확신합니다.

다행히 우리 전국농업기술자협회는 빛나는 전통을 가지고 있으며, 뜻을 함께하는 믿음직한 회우 동지가 전국에 만여 명이 건재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 사업이 침체하고 부진하였음을 솔직히 시인하며, 회우 동지들의 앞장을 서온 본인의 능력과 재력이 이에 미치지 못하였음을 부끄럽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회우 동지 333인의 정성어린 발기로 추진되어 온 상허농촌복지재단(常虛農村福祉財團)이 3년 세월이 흐른 오늘날까지 마무리하지 못하고 끌어오면서 본인은 형언할 수 없는 고민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회원 동지들의 정성에 보답하고 우리 협회의 사업을 계속 발전시켜 나가자면 명분과 간판만의 재단이 아니라 제구실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재원이 확보되어야 하겠고, 그 무거운 책임이 본인에게 지워져 있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백방으로 힘을 써왔으나 여의치 못하고 시간만 흐르니 이대로 무한정 끌어나갈 수 없는 일이므로, 회우 동지들이 모은 성금과 그 동안에 증식된 이자를 합한 3백여 만 원과 여기에 약속된 성금을 더하여 4백만 원을 만들고, 본인이 6백만 원을 보태어 천만 원의 기금으로 금년도 제22회 전국농업기술자대회 이전에 우선 재단을 성립시키기로 지난 8월 24일에 정장섭(鄭長燮) 전무를 불러 결정하였던 것입니다.

회우 동지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또 천만 원의 재단으로 목적 달성을 위한 충분한 재원이 되지 않으나, 일단 이렇게 매듭을 지어 놓고 여러 동지들과 본인이 더욱 분발하고 힘을 합쳐 재단을 확충하여 나아갈 방침입니다.

이미 여러 차례 기회 있을 때마다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본인은 얼마 남지 않은 여생을 여러 동지들과 함께 농촌복지화운동을 위해서 바치겠으며, 논두렁을 베고 죽는 죽음을 영광스럽게 택할 각오와 결의에는 지금도 변함이 없음을 여기에 다시 한 번 밝혀둡니다.

회우 동지 여러분!

우리가 내건 농민의 정신혁명, 농업의 기술혁명, 농촌의 생활혁명의 푸른 깃발아래 굳게 뭉쳐서, 우리에게 주어진 역사적 사명을 다합시다. 사무국의 임직원들도 새로운 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온갖 어려움을 무릅쓰고 전진의 준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옥체 더욱 보중(保重)하시고 댁내에 언제나 신(神)의 가호 있으시길 빌면서 이만 멈춥니다.

서기 1971년 9월 10일

유석창(劉錫昶) 올림〔『농업기술회보(農業技術會報)』 97호, 1971년 8월 1일 1면 2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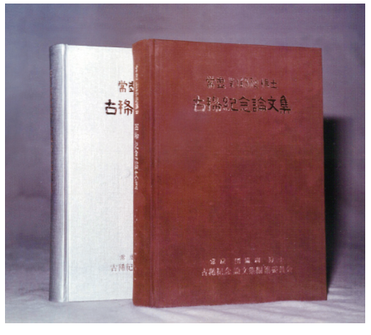
이러한 운동을 위해서는 자금이 필요합니다. 이 자금이야말로 자주독립성이 보장되어야 하겠습니다. 보조금에 의한 농촌운동과 남의 힘에 끌려 다니는 운동은 그 힘과 돈이 떨어질 때 그 수명이 다하는 것입니다.

철저한 이념으로 뭉치고 추진되어 온 재단의 일을 마무리해서 우리 운동의 반석으로 삼자는 것이 이 해의 가장 큰 과업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 밖에 다른 사업들은 대의원 총회에서 확립된 일은 내용의 충실을 기하여 알차게 그리고 조용히 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회우 동지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일은 용기와 신념입니다. 이것을 잃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언제나 희망과 미래를 약속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1972년 신년사: 상허재단은 자주농민의 반석, 용기와 신념으로 민주협동의 힘을 기르자」, 『농업기술회보(農業技術會報)』 102호, 1972년 1월 1일〕

한편 1970년 3월 24일 오후 5시부터 세종호텔 해금강홀에서 열린 상허 선생의 고희기념식은 유석창 박사의 일흔 번째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 마련되었는데, 본교의 교직원, 건국중고교 교직원, 학교법인 건국대학원 임원, 농업기술자협회, 연와공장(煉瓦工場), 사료공장, 민중병원, 동창회, 장학회, 함남도민회, 단천군민회, 박사학위수여자, 본교학생회, 관공서 및 거래은행, 시내 각 대학총장 및 학장 재단 이사장, 일반 친지 및 동창, 가족과 친척 등 600여의 인사(人士)가 참석하였으며, 아울러 『고희기념논문집』 증정식도 가졌다.

유석창 박사 고희연 케이크 커팅 모습



상허 유석창 박사 고희기념논문집

고희연에 참석한 재단 및 학교 인사들과 함께: 뒷줄 오른쪽 이대위 박사, 이우범 상무이사, 신태수 이사, 문희석 총장, 이종규 부총장. 1열 유석창 박사, 우측 부인 김계옥 여사

김서묵 건국대학교 기획실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행사는 문희석 건대 총장의 개회사로 시작하여, 이종규 부총장의 약력 소개, 김건 이부대학장의 축사, 김두헌 대학원장의 고희논문집 발간 경과 보고 및 증정, 기념품 증정 등의 순서로 이어졌다.

학교법인 건국대학원, 건국대학교, 재단이사, 감사 및 직원일동, 대학 및 중·고등학교 교직원일동, 건대동창회, 전국농업기술자협회, 민중병원, 건대 재학생 일동, 한국농촌문화연구회, 제일주정공업주식회사 등 11개 단체 등에서 기념품을 보내왔다.

이어서 건대 동문인 김현옥(金玄玉) 서울특별시장이 축사를 했고, 송석도(宋錫度) 전국농업기술자협회 부총재의 축사도 있었다. 이에 대해 유석창 이사장의 답사가 있었으며, 자녀친척들이 상허 선생의 건강과 소원 성취를 기원하는 헌배(獻杯)를 올렸다.

또 수도여자사범대학장 주영하 박사가 보내온 축하 케이크를 자름과 동시에 축배를 들었고, 국

전국농업기술자협회 회원들의 '상허 얼굴 부조' 기념선물

악이 연주되는 가운데 숭의보육대학 음악과 유경선 교수가 축가를 불렀고, 건국대학교 임옥인(林玉仁) 가정대학장이 축시 낭독에 이어 '전국농업기술자협회 회원' 명의의 놋쇠로 만든 '상허 얼굴' 부조(浮彫)를 고희 기념선물로 증정하였다.〔『건대신문』 1970년 3월 27일〕

이 자리를 빌어 '상허농촌복지재단 발기인들은 "우리 농민들의 위대한 영도자이신 상허 유석창 박사의 경농애국(敬農愛國)의 높은 뜻을 오래 오래 이 땅에 꽃 피우고 열매를 거두기 위하여 전국에 걸쳐 선도적인 농민으로 자처하는 우리 333인의 동지 회우들은 정성을 모아 이에 상허농촌복지재단을 발기하여 오늘 상허 유석창 박사의 고희(古稀) 날을 맞아 삼가 바치나이다"라고 상허 선생의 리더십과 업적을 기리고, 무병장수를 기원하는 헌사(獻詞)를 바쳤다. 상허 선생은 답사에서 "내 나이 비록 일흔이 되었으나, 내 마음은 항상 청장년 못지않은 정열과 불굴의 투지로 내 여생을 이 나라 농민운동에 바치련다"고 다짐했다.

「기념 축시(祝詩)」

한 그루의 나무로 섰다.
어린 가지에 부채질하는 손길이 있었다.
미운 지하수에 발목 적시고
불모의 가슴에 새싹이 자랐다.
호심(湖心)은 천심(天心)을 안고 누어있었다.
머언 바다의 포효도 들을 수 있었다.
깊은 지맥(地脈)의 고동도 울려왔다.
하늘도 감당 못할 무한한 꿈길에

여원(余遠)도 모자라는 염원이기에
고여 솟는 눈물의 뜻을 알까마는…
천 갈래 만 갈래로 갈라지는 가지에도
어버이의 사랑 한 줄기는 맺혀 있는 것.
인간식목의 삽을 들고 한 평생(平生)!
7년 홍수에도 오히려 목마르는
인간거목의 초조로움이여!
나무는 숲을 이루고 서 있다.
눈부신 태양을 이고
훈훈한 흙속에 뿌리는 드리우고
가슴을 맞대고, 소리를 가다듬어
우리 모두 산모의 노고와 사랑의 노래를
합창하자.
그리고 아름다운 기원을 드리자.

퍼져가리, 드높이 드높이.
새겨지리, 영원히 영원히.
창조와 건설의 주인이 있었다.
피와 땀의 역사가 있었다.

1970년 3월 24일

임옥인(林玉仁) 근작
〔『건대신문』 1970년 3월 27일〕

1972년 신년사에서 그가 강조한 "이러한 운동을 위해서는 자금이 필요합니다. 이 자금이야말로 자주독립성이 보장되어야 하겠습니다. 보조금에 의한 농촌운동과 남의 힘에 끌려 다니는 운동은 그 힘과 돈이 떨어질 때 그 수명이 다하는 것입니다. 철저한 이념으로 뭉치고 추진되어 온 재단의 일을 마무리해서 우리 운동의 반석으로 삼자는 것이 이 해의 가장 큰 과업이 아닐 수 없습니다."〔「1972년 신년사: 상허재단은 자주농민의 반석, 용기와 신념으로 민주협동의 힘을 기르자」, 『농업기술회보(農業技術會報)』 102호, 1972년 1월 1일〕는 내용은 상허농촌복지재단의 설립 취지와 목적을 알려준다.

정부의 재정지원은 결국 정부에 예속되는 결과로 귀결될 것임을 알고 있었기에, 홀로서기를 통한 재정기반의 확보를 위해 상허농촌복지재단을 설립코자 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모금 목표액을 달성하지 못한 채 3년이 지났다. 회우들의 성금 400만원과 유석창 총재의 출연금 600만원으로, 12회 전국농업기술자대회에서 발족하는 것을 목표로 계획을 재정비하였다. 그러나 1972년 1월 1일 상허 선생이 영면함에 따라, 상허농촌복지재단의 출범은 무산되고 말았다.

전국농업기술자협회를 기반으로 한 상허 선생의 농촌개발운동 과정에서 그의 리더십과 동지애(同志愛)의 실체를 알려주는 일화가 전한다.

전국농업기술자협회 정장섭 전무는 월급도 없이 유석창의 동지애에 감복되어 일하고 있는 사람이다. … 막내딸을 결혼시킬 때의 일이다.

낙원동으로 정 전무를 불러서 하는 말이, "실은 내가 딸을 시집보내는데,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양가 친척들만 모여 간소하게 식을 올리게 됐소. 나중에라도 정 전무가 알면 서운해할까봐서 그러니, 혼자만 알고 오시오" 하면서, 흰 봉투를 내어 놓는다.

정 전무가 이 봉투는 뭡니까 하고 물으니, "왜 결혼식 때 봉투를 들고 오도록 되어 있잖소? 이걸 가지고 오시오."

자기 딸 결혼식에 축의금을 주어 가며 초청하는 일도 어려운 동지에게 폐를 끼치지 않고 체면을 세워주려는 동지애의 발로에서이다.〔『상허 유석창 전기』 306쪽〕

이렇듯 뜨거운 동지애와 깊은 배려심을 가진 그였기에, "그는 사람을 포용하고 끌어들이는 마력"이 있는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았을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마력(魔力)'은 다름 아니라 자기가 아닌 동지, 단체, 사회, 국가를 우선시하는 이타적인 가치에서 비롯되었음을 가리킨다. 상허 선생의 별세에 직면하여 오랜 시간이 흐르도록 전국농업기술자협회 회원들이 비통해 하고 아쉬워한 배경을 이해할 수 있는 대목이다.

8) 상허 선생의 농촌사회 개발론과 새마을운동의 연관성

1960년대 공업발전을 위주로 한 경제적 고도성장은 농촌과 농업부문에 대한 현저한 개발 격차와 소득 격차를 안겨주었다. 소득 격차는 지속적인 고도성장의 장애요인으로 대두하였고, 국가는 농업부문의 집중개발로 국가경제의 고도성장을 가능케 하려 했다. 농촌을 어떻게 부흥시키고 발전시킬 것인가 하는 문제를 놓고 여러 방안을 모색하였는데, 그 중 가장 종합적이고 구체적이며 실천적인 농촌개발 방안을 제시한 인물이 상허 선생이었다.

1960년대 상허 선생은 우리나라 인구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농촌이 부강해지고 잘 살아야 된다는 흥농부강(興農富强)의 논리를 제시하였다. 그는 『조용한 혁명 –선도농가를 위하여–』와 『한국농업의 미래상 –서기 2000년대를 바라보며–』를 저술하여 낙후된 농촌의 발전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토록 하였다. 이 같은 상허 선생의 구상과 실천방안은 1960년대 전국농업기술자협회를 모체로 한 농촌개발사업을 거쳐 1970년대 정부 주도하에 전개된 새마을운동의 이념적 기반이 되었고, 이론적 토대를 제공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1959년 그는 건국대학교 내에 국내 유일의 축산대학을 만들었고, 1963년에는 현재 생명환경과학대학의 전신인 농림대학을, 1962년도에는 지역사회개발초급대학을 그리고 같은 해에 농업협동조합

초급대학을 설립하는 등 농업 발전과 농촌 부흥을 위한 구심점 역할을 할 조직기반을 마련함으로써, 건국대학교를 한국 농군의 성지이자 메카로 만들어 나갔다.

상허 선생은 농민교육기관을 설치 운영하면서 농촌개혁의 필요성을 강하게 역설하는 한편,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이미 그는 '새마을'이니 '새로운 마을 5개년 계획' 그리고 '잘 살기 대회' 등의 용어를 사용하였으며, 농촌사회의 의식주를 개선하고, 전통적 사회에서 자본가적 사회로의 전환을 주도하고, 농촌사회의 생활 모습이 도시문화생활과 동일하게 될 수 있게 개혁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농민 스스로가 자생력을 키우는 일이 곧 '새마을' '새로운 마을 5개년 계획' 그리고 '잘 살기'라고 하였다. 이것이 바로 1970년대 우리도 한번 잘 살아 보자고 전국적으로 요원의 불길처럼 타올랐던 새마을운동의 배경의 일단이라 할 수 있다.

상허 선생은 농촌지역의 사회개발을 목표로 '3대 혁명론'과 '농업발전 5단계론'을 제시하였다. 이 전략은 초창기 빈한한 농촌을 발전시키기 위한 것으로서, 낙후된 농촌의 발전과 개발에 크게 기여하였다. 그리고 이 전략이 발전하여 1970년대 새마을운동의 기틀을 마련했으며, 나아가 고도의 복지 · 문화국가 건설을 위한 초석이 되었다. 즉, 복지농촌 건설을 지향한 상허 선생의 농촌지역 사회개발 교육사상이 1970년대에 정부 차원으로 전개된 새마을운동으로 승화 · 발전되었다는 것이다. 새마을운동의 3대 영역인 '정신 개발', '소득 증대', '생활 개선' 또한 상허 선생의 3대 혁명인 정신혁명 · 기술혁명 · 생활혁명에서 비롯되었다.

뿐만 아니라 농촌공업의 육성을 통해 농외소득을 높이고, 농업경영의 현대화를 기하여 도시와 농촌간의 불균형을 완화하여, 도시화된 현대인의 문화적인 풍요로운 삶을 누리도록 하자는 구상은 상허 선생과 정부 양자가 공동으로 추구한 목표로 볼 수 있다. 양자가 지향한 목표는 궁극적으로 선진화된 민주 · 복지 · 문화국가를 만들자는 유사성과 공통점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상허 선생과 새마을운동의 연관성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상허 선생이 제창한 농촌지역 사회개발 교육사상은 순수 민간 주도형의 농민교육 운동으로서, 성 · 신 · 의를 근간으

1968년 유석창 박사 저서 출판기념회

1968년 유석창 박사 출판기념회장

1963년 농업협동조합대학

로 '3대 혁명' 정신운동과 함께 '삼위일체적 농업개발 5단계론'으로 발전하였다. 그리고 새마을운동은 '함께 잘 살아보자'는 조국근대화운동으로, 근면 · 자조 · 협동의 3대 정신을 바탕으로 추진된 국가주도형 국민정신교육운동이었다. 여기서 상허 선생의 3대 혁명과 새마을운동의 3대 정신은 유사함을 알 수 있다.

구체적으로 첫째, '성' 정신은 새마을운동의 '근면'과 연관이 있다. '성'은 성실하고 부지런함을 강조한 정신으로 '근면'과 같은 것이다. 둘째, '신' 정신은 '협동' 정신과 일맥상통한다. 인간관계에서 상호 믿음이 있음으로써 협동이 이루어 질 수 있기 때문이다. 셋째, '의' 정신은 '자조' 정신과 관련이 있다. 의로운 일에는 자발적으로 나선다는 행동윤리로,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했듯이, 정의로운 마음과 자세와 자조정신으로 행하면 이루고자 하는 일을 달성할 수 있는 법이다.

지역사회개발초급대학, 농림대학 건물 모습(1964년)

다음으로 상허 선생이 달성하고자 했던 복지 · 문화 농촌사회를 만들어 보겠다는 취지는 농촌지역사회 주민들이 도시인 못지않은 문화생활과 풍요롭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해 나가는 데 있다고 보았다. 그리고 새마을운동에서 지향한 목표는 '잘사는 마을을 가꾸자'는 것이다. 즉, 양자가 지향한 목표는 '복지농촌 건설'과 '잘사는 마을 가꾸기'로 정리할 수 있다. 풍요롭고 유복한 농촌지역사회를 만들자는 것으로, 이념적 지향과 목적을 공유하고 있는 셈이다.

구체적으로 첫째, 새마을운동의 '살기 좋은 고장 만들기'와 '보람 있는 일터를 만들자'는 지향목표는 상허 선생의 '성숙되고 발전된 농촌사회를 만들자'는 의미와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 왜냐하면 '살기 좋은 고장'이 곧 '성숙된 사회'이고, '보람 있는 일터'가 있어야 '발전된 사회'를 이룰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새마을운동의 '건강하고 자랑스런 사회를 조성하자'는 것은 상허 선생의 농촌지역사회개발 사상의 측면에서 농촌지역사회도 도시 못지않은 좋은 주거환경에서 건강한 문화생활을 영위할 수 있고, 또 건강한 삶을 추구하자는 주장과 동일한 취지로 해석할 수 있겠다. 셋째, '자랑스러운 국가를 건설하자'는 새마을운동의 지향목표는 상허 선생의 복지농촌을 건설하여 농촌지역 주민들도 국민의 일원으로서 자부심을 느끼고 살아가게 하자는 의미로 풀이할 수 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사업 계획 실시 방향에 있어서 상허 선생의 전략은 새마을운동이 추진한 전략과 상호 유사성이 있었다. 먼저 상허 선생이 구상한 사업은 농민들을 교육시키기 위해 정규교육기관인 건국대학교를 기본축으로 하여, 축산대학 · 농과대학 · 농협대학 · 지역사회개발대학을 운영하고, 민간 차원에서는 전국농업기술자협회를 설립하고 농업기술연수원을 부설하여, '농민대학'이라는 이름으로 농민들을 교육시키는 사업을 하였다. 새마을운동 전개 과정에서도 새마을연수원, 농촌진흥청연수원, 각 지방 행정기관 연수원과 가나안농군학교와 복지농도원 등 민간단체의 교육시설을 활용하여, 농민들의 민도(民度) 향상에 기여하였다. 농민교육을 중시하고 이바지한 점 등에서 유사성과 연관성이 있었다.

다음으로, 상허 선생이 추진한 주요 사업내용은 유기농업 시험장 운영을 통한 고등채소 재배기술 보급사업, 농산물 품평회 등을 통한 영농기술 보급 사업 등을 꼽을 수 있다. 이에 반하여 새마을운동 측면에서는 환경개선사업으로서 마을안길 확장, 공동빨래터 설치, 지붕 · 담장 · 부엌 · 변소개량 등을 추진하였고, '녹색혁명' 사업을 전개하여 주곡 자립을 추구하고 농업소득 증대를 도모하는 한편, 새마을공장을 통한 가내수공업으로 농외소득을 올린 사실이 주목된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볼 때, 양자 모두 영농기술 발전을 도모하고 지역주민들의 생활환경을 개선시키려 노력하였다는 점에서, 동일 선상에 있으며 서로 보완적인 관계였다고 하겠다.

마지막으로, 전국농업기술자협회에서 매년 시행하는 '농업기술상' 시상과, 건국대학교 내 상허문화재단의 '상허대상' 시상 등은 지금까지 이어져, 농민들의 사기를 앙양하고 삶의 활력과 의욕을 북돋아 주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새마을운동 측면에서도 새마을훈장 및 '새마을상' 수상식 등을 시행하고 있는데, 이념적으로 상호 긴밀한 연관성과 유사성이 발견된다.

새마을운동과 상허 선생의 전략이 갖는 연관성은 추진인력의 계기성으로도 뒷받침된다. 상허 선생은 농촌근대화에 기여할 '농군사관(農軍士官)'을 육성할 목적으로 건국대학교에 축산대학을 만들

1964년 일본 일진축산 본사로 파견되어 실습 중인 학생들

1964년 일본 일진축산 본사에 파견되어 강의에 집중하고 있는 학생들의 모습

었고, 입학생 전원을 교비장학생으로 선발하였다. 입학생 모두는 기숙사에서 특별교육을 받았으며, 이들 중 일부를 선발하여 농업선진국인 일본 · 덴마크 등지에 유학을 보내 선진 농업기술을 습득토록 하였다. 특히 상허 선생의 제자인 유태영은 생활관 관장에 기용되어 학생들에게 상허 선생의 농촌개발 교육사상을 직접 지도하였다. 그는 최측근에서 상허 선생의 정신과 사상을 직접 전수받았고, 나중에 청와대 대통령비서실의 초대 새마을운동 담당관으로 발탁되어 새마을운동에 상허 선생의 농촌개발사상을 접목하였다.

유태영은 새마을운동 추진 계획을 구체적으로 입안하여 추진한 장본인으로서, 1970년대 새마을운동 전개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다. 상허 선생 농촌개발 사상의 영향을 깊이 받은 유태영이 청와대에서 농촌발전을 위한 새마을운동 계획전략을 입안 추진할 때, 상허 선생의 농촌개발 사상을 박정희 대통령에게 보고하였고, 박정희 대통령은 이를 수용하여 새마을운동에 접목시켰던 것이다.

상허 선생→유태영 새마을운동 담당관→박정희 대통령 라인으로 정신과 맥락이 이어져 추진되었다고 볼 수 있겠다. 즉, 결과론적으로 상허 선생의 기본 교육사상인 성 · 신 · 의와 이에서 비롯된

'3대 혁명정신'은 박정희 대통령이 제창하여 전개한 새마을운동의 3대정신인 근면 · 자조 · 협동과 이념적으로 상호 계기성이 있었으며, 신념과 철학을 공유하고 있었던 것이다.

유태영 뿐만 아니라 건국대학교 동문 김현옥 서울시장도 있다. 1968년 2월 12일 YMCA 강당에서 상허 선생이 저술한『조용한 혁명』과『한국농업의 미래상: 서기2000년대를 바라보며』출판기념회가 개최되었는데, 이 자리에 서울특별시 김현옥 시장이 참석하였다. 그의 소개였는지 박정희 대통령도 두 책을 읽고, 국무회의 석상에서 국무위원들에게 이 책을 읽었는지를 묻고 이 책들에 대해 연구하도록 지시하였다. 김현옥은 국무위원들이 이 책을 읽고 연구하기에 앞서, '신 농촌 계획'이라는 제목으로 박정희 대통령에게 브리핑을 하였다. '신 농촌 계획'이라 함은 곧 '새마을운동'의 한자어 표현이었다.

이 두 권의 책은 새마을운동 시작의 단초가 되었고, 나아가 범국민 운동의 차원으로 전개되는 산파 역할을 했던 것이다. 1971년 김현옥 서울시장이 내무부장관에 기용되고, 새마을운동은 내무부장관의 소관으로 수행되었다. 같은 시기 유태영이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초대 새마을운동 담당관으로 발탁됨으로써, 상허 선생의 농촌개발사상은 새마을운동을 추진 전개하는 데 있어서 이론적 정신적 기본가치가 되었던 것이다.

"새마을운동에 상허 선생의 농촌개발사상이 100% 활용되었다"는 진술처럼, 유태영은 새마을운동 추진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며, 박정희 대통령과 빈번하게 접촉하며, 새마을운동의 구체적인 전개 방안과 방향을 마련하였던 것인데, 그의 증언에 따르면, 박정희 대통령은 상허 선생을 '농업혁명의 위대한 지도자'로 평가하며, 수차례 존경심을 표명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구체적인 사업 계획 실시 방향에 있어서 상허 선생의 전략은 새마을운동과 차별화되는 특징도 있었다. 먼저 상허 선생이 주창한 농촌지역 사회개발을 위한 추진전략은 '무(無)에서 유(有)에로의 창조'를 표방하며, 민간 차원 방식으로 추진된 반면에, 새마을운동은 관(官) 주도로 추진되었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이는 상반되는 개념으로 볼 수 있는 바, NGO 운동과 같은 민간차원의 운동조직이 활성화되고 있는 현재의 경향을 감안하면, 상허 선생은 1960년대에 이미 민간주도의 농촌개발사업을 시도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상허 선생의 추진전략은 'bottom-up approach' 즉 상향식 개발 방식을 채택하여 농촌지역사회 주민들의 의사를 존중해 주는 접근 방식의 추진전략이었으나, 새마을운동은 'top-down approach' 즉 하향식 개발 방식을 구사하였다는 점에서 구별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상허 선생이 주창한 추진전략의 주요 내용은 작목별 생산자조직 결성이나, 농공단지 육성과 농외소득개발, 농업노동력의 성력화, 농촌지도자의 육성, 농촌 정주권 개발을 통한 농촌 정주환경 개선, 유전공학 등 첨단 농업기술을 통한 농업의 기술혁신 등 농촌지역사회 주민들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실질적인 전략이었다.

물론 새마을운동은 농촌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농촌 지역사회의 산업화를 추구하고, 농촌 지

역사회 환경의 쾌적화를 이루며, 농업경제의 능률화와 농촌사회의 도시화를 이루는 것으로, 농촌사회의 개발과 발전에 초점을 맞추었다는 점에서 상호 유사성과 공통점이 있다.

요컨대 1960년대 초 상허 선생이 제창한 농촌지역 사회개발사상이 1970년대 정부에서 추진한 새마을운동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다. 즉 상허 선생의 농촌사회 개발이론이 새마을운동으로 전이 발전되었던 것이다. 이는 양자가 이념적인 측면에서 동일했기 때문이며, 지향하는 목적도 '잘살기 운동'으로, 상허 선생이 제창한 복지농촌 건설이념과 같았기 때문이었다.

9
급작스런 서거와 범사회적 애도 및 추모

1) 서거와 영결식 경과

고희를 맞이한 1970년을 전후하여 상허 선생의 건강이 두드러지게 악화되어 갔고, 병원 출입이 잦아졌다. 지병인 천식으로 세브란스병원에 입원했을 때의 일이란다. 입원실에 더운 물과 찬 물이 나오는 것을 보고는 박영룡(朴泳龍) 비서에게 "박 군 나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꼭 이런 방에서 살고 싶네"하고, 소박한 바람을 내비쳤다고 한다. 자택에서는 온수 보일러도 없이 무연탄 아궁이로 난방을 하던 그였다.

1971년 12월 16~17일 제12회 전국농업기술자대회가 서울 시민회관과 건국대학교에서 열렸다. 유석창 박사는 입원 중임에도 불구하고 병상에서 행사를 진두지휘하였다. 세종문화회관 3,300명의 좌석을 메운 제12회 전국농업기술자대회는 KBS 라디오와 텔레비전에서 중계하는 가운데 개회하였다. 식순에 따라 선도농가의 강령선서에 이어, 주치의와 주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추운 날씨를 무릅쓰고 직접 대회장에 나와 대회사를 하고, 참석자들과 일일이 작별인사를 나누고 병원으로 돌아왔다.

유 박사는 병세가 호전되어 12월 21일에는 일단 퇴원하였으나, 12월 25일 병세가 갑자기 악화되어 중환자실로 옮겨졌다. 그 후 1972년 1월 1일 새해 첫날 동틀 무렵인 오전 5시 30분 운명하였다. 실로 파란만장한 생애였다.

"끝으로 회우 동지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일은 용기와 신념입니다. 이것을 잃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언제나 희망과 미래를 약속받을 수 있는 것"(『농업기술회보(農業技術會報)』 102호, 1972년 1월 1일)이라는 신년인사는 그의 유언이 되었다. 1972년 1월 5일 전국농업기술자협회의 기관지 『농업기술회보』는 '호외'를 발간하여 다음과 같이 상허 선생의 서거를 기렸다.

'상허 유석창 박사의 서거는 결코 우리 운동의 종말이 아니라 새 출발이다'

'위대한 지도자의 육신은 잠자지만, 그 큰 뜻과 정신은 영원히 살아나리'

'상허농촌복지재단(常虛農村福祉財團)의 발기는 오직 그 뜻 기리고 받들려는 자주농심(自主農心)의 발로'

'민족의 양심 잠자던 농심(農心)을 일깨워 새 역사 창조의 주인 된 긍지를 선양하시고'

'전국 일선 농촌지도자들의 가슴마다에 점화한 조용한 혁명의 위대한 불씨'

'상허 유석창 박사의 농촌에 대한 사랑은 신앙이었으며, 신(神)의 의지였다'

"상허 유석창 박사는 서기 1900년 2월 17일(음력)에 나시어, 서기 1972년 1월 1일 오전 5시 30분에 영면(永眠)하시다.

70 평생을 오로지 나라와 겨레 사랑함으로 살으시니, 굵고 긴 생애에 영광 있으라.

소년시절에 나라 잃으니, 조국광복에 몸 바쳐 의연히 만주벌에 서셨고,

일제 식민치하 무산대중(無産大衆)을 위해 의술(医術)은 인술(仁術)임을 증명하셨도다.

육영입명(育英立命)하심에 오늘의 건국대학(建國大學)이 우뚝 섰고, 성(誠) · 신(信) · 의(義) 인간교육에 난세(亂世)의 영재(英才)들이 바르게 살도다.

지극히 영광된 조국 그늘진 반 얼굴은 농촌, 그래서 원망도 스러우나 태양을 몰아 빛을 보내야 하려니, 조국을 위한 기도의 시간에 홀연히 큰 별은 사라지고, 나목(裸木)의 아픔이 처절한 들녘, 목자(牧者) 잃은 양떼의 무리들은 아직도 아스라한 별빛을 찾는다."

유족들은 '대학교장(大學校葬)'이나 '가족장'을 바랬으나, 전국농업기술자협회 측에서는 '농민장'으로 모셔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유 박사의 생전의 업적이 건국대학교를 벗어나 사회 전체에 미쳤다는 지배적인 의견에 따라 '사회장(社會葬)'으로 치르기로 의견이 모아져 '7일장'으로 거행되었다. 위원장에 이인(李仁, 대한민국정부 초대 법무부장관 역임), 부위원장에 이우범 · 정일천 · 백철, 각계 지도급 인사 442명을 장의위원으로 하는 '상허 유석창 박사 장의위원회'가 결성되었다. 장의위원회는 아래와 같이 집행위원회를 구성하였다.

• 위원장: 곽종원(郭鍾元)

• 부위원장: 송석도(宋錫度) · 허훈도(許纁道)

• 총무부장: 조성환(趙誠煥)

• 위원: 구정회(具正會) · 박재우(朴在佑) · 유태영(柳泰永) · 윤형묵(尹亨默) · 이주범(李柱範) · 이대일(李大一) · 이두남(李斗南) · 이두성(李斗成) · 이인섭(李仁燮) · 이재영(李在榮) · 조선근(曺鮮根) · 함현빈(咸鉉彬)

• 재정부장: 김서묵(金書默)

• 위원: 김상립(金相立) · 손영주(孫永柱) · 연정열(延正悅) · 이용기(李龍基) · 이재근(李載根) · 이학규(李鶴揆) · 전년규(全年圭)

• 의전부장: 이정근(李正根)

• 위원: 곽종용(郭鍾用) · 김동욱(金東旭) · 김연수(金延洙) · 김용택(金龍澤) · 김진창(金進昌) · 김환기(金煥沂) · 도승규(都昇圭) · 박천봉(朴天鳳) · 박희수(朴熙洙) · 원상주(元常柱) · 유덕산(柳德山) · 유석봉(劉錫鳳) · 유봉성(劉鳳星) · 이광훈(李光勳) · 임 일(林 一) · 장창기(張彰起) · 장종권(張鍾權) · 정문영(鄭文永) · 한순용(韓順龍) · 황조연(黃租淵)

• 섭외부장: 김일주(金日柱)

• 위원: 김시명(金時明) · 이기원(李琪源) · 정국영(鄭國泳) · 정 혁(鄭 赫) · 차경철(車京哲) · 최기창(崔琪昌) · 현두정(玄斗正) · 홍기삼(洪起三)

• 경호부장: 한성균(韓成均)

• 위원: 강승대(姜勝大) · 고경수(高慶秀) · 곽무영(郭武榮) · 김동희(金東希) · 김용희(金龍熙) · 박영명(朴永命) · 손성우(孫成祐) · 유동원(劉東元) · 신동림(申東琳) · 유해성(柳海成) · 정원찬(鄭圓纂)

상허(常虛) 유석창(劉錫昶) 박사 사회장(社會葬) 공고

상허(常虛) 유석창(劉錫昶) 박사의 사회장을 다음과 같이 거행하겠사옵기에 이에 공고합니다.

◆ 일시: 1972년 1월 7일 상오 11시

◆ 장소: 서울특별시 성동구 모진동 93 건국대학교 대운동장

◆ 임원

• 장의위원장: 이 인(李 仁)

• 부 위 원 장: 이우범(李禹範) · 정일천(鄭壹千) · 백철(白鐵)

• 고문:

곽상훈(郭尙勳) 김명선(金鳴善) 김수환(金壽煥) 김종필(金鍾泌) 김현철(金顯哲) 김홍일(金弘壹)
박순천(朴順天) 박종화(朴鍾和) 백낙준(白樂濬) 백남억(白南檍) 백두진(白斗鎭) 송요찬(宋堯讚)
민복기(閔復基) 안호상(安浩相) 이갑성(李甲成) 이범석(李範奭) 이병도(李丙燾) 이용설(李容卨)
이은상(李殷相) 이응준(李應俊) 이 활(李 活) 이효상(李孝祥) 윤보선(尹潽善) 유진오(兪鎭午)

윤치영(尹致暎) 장리욱(張利郁) 전진한(錢鎭漢) 정일권(丁一權) 최덕신(崔德新) 최두선(崔斗善)
한경직(韓景職) 함석헌(咸錫憲) 허 정(許 政)

• 위원:

강경래(姜景來) 강경옥(康慶玉) 강근호(姜根鎬) 강병규(姜秉奎) 강석주(姜昔珠) 강성원(康誠元)
강신명(姜信明) 강재구(姜在邱) 강즉모(姜則模) 강필선(姜弼善) 강희구(姜羲求) 고우진(高禹鎭)
고재욱(高在旭) 고재필(高在珌) 고중덕(高重德) 고황경(高凰京) 고흥문(高興門) 공진항(孔鎭恒)
곽태진(郭泰珍) 구태회(具泰會) 권성기(權聖基) 권영찬(權寧贊) 권오병(權五柄) 권오익(權五翼)
권 일(權 逸) 권중돈(權仲敦) 길병흥(吉秉興) 길전식(吉典植) 김갑련(金甲鍊) 김 건(金 鍵)
김경인(金敬仁) 김기섭(金玘燮) 김기원(金杞沅) 김대중(金大中) 김덕보(金德寶) 김동익(金東益)
김두헌(金斗憲) 김봉일(金奉日) 김상연(金尙年) 김상영(金尙榮) 김상필(金相弼) 김상현(金相賢)
김상협(金相俠) 김성환(金聖煥) 김기석(金基錫) 김성은(金聖恩) 김병윤(金炳潤) 김보현(金甫炫)
김복영(金福永) 김봉환(金鳳煥) 김상기(金相琪) 김상진(金相鎭) 김석순(金錫淳) 김석환(金錫煥)
김선호(金先浩) 김성두(金聖斗) 김성원(金聲遠) 김성진(金晟鎭) 김성환(金聖煥) 김성도(金聖道)
김세배(金世培) 김세위(金世偉) 김승목(金承穆) 김수한(金守漢) 김숙현(金淑鉉) 김시원(金始源)
김 신(金 信) 김연수(金秊洙) 김연준(金連俊) 김영묵(金榮默) 김영병(金永昞) 김영삼(金泳三)
김옥길(金玉吉) 김옥자(金玉子) 김용성(金龍星) 김용식(金溶植) 김용우(金用雨) 김용완(金容完)
김용태(金龍泰) 김용호(金龍鎬) 김우종(金宇鍾) 김원만(金元萬) 김원용(金元容) 김원영(金元榮)
김유탁(金裕琸) 김윤덕(金胤德) 김은하(金殷夏) 김응주(金應柱) 김의택(金義澤) 김이권(金貳權)
김익형(金翼衡) 김 인(金 仁) 김임식(金任植) 김재광(金在光) 김재순(金在淳) 김재준(金在俊)
김재춘(金在春) 김재훈(金在訓) 김재화(金載華) 김정두(金正斗) 김정렬(金貞烈) 김제원(金濟源)
김 조(金 朝) 김종익(金鍾翊) 김종철(金鍾哲) 김준엽(金俊燁) 김준섭(金俊燮) 김중근(金重根)
김중태(金重泰) 김진만(金振晩) 김찬도(金燦道) 김창근(金昌槿) 김창환(金昌煥) 김태현(金台鉉)
김택수(金澤壽) 김학열(金鶴烈) 김한수(金漢洙) 김현기(金顯基) 김현옥(金玄玉) 김현숙(金賢淑)
김형남(金瀅楠) 김형욱(金炯旭) 김형일(金炯一) 나석호(羅碩昊) 나용균(羅容均) 나보현(羅甫鉉)
남덕우(南悳祐) 남상돈(南相敦) 노승환(盧承煥) 동태운(董胎芸) 모윤숙(毛允淑) 문창탁(文昌鐸)
문태준(文太俊) 문형태(文亨泰) 민관식(閔寬植) 민기식(閔璣植) 민병권(閔丙權) 박규회(朴奎會)
박남규(朴南圭) 박노성(朴魯聖) 박대선(朴大善) 박대진(朴大振) 박동묘(朴東昴) 박두병(朴斗秉)
박명근(朴命根) 박병배(朴炳培) 박성배(朴聖培) 박성수(朴性洙) 박성호(朴性浩) 박숙현(朴淑鉉)
박승규(朴升圭) 박승하(朴勝夏) 박영희(朴永熙) 박 일(朴 一) 박임련(朴林鍊) 박종진(朴鍾軫)
박종홍(朴鍾鴻) 박 준(朴 浚) 박준규(朴浚圭) 박준호(朴準浩) 박 철(朴 澈) 박철웅(朴哲雄)

박태원(朴泰元) 박한상(朴漢相) 박해충(朴海充) 박해수(朴海秀) 박호율(朴鎬律) 박홍식(朴弘植)
박흥식(朴興植) 방우영(方又榮) 방일영(方一榮) 배상명(裵祥明) 백선엽(白善燁) 서민호(徐珉濠)
서범석(徐範錫) 서병호(徐丙浩) 서봉균(徐奉均) 서상린(徐相潾) 서은숙(徐恩淑) 서일교(徐壹敎)
서재운(徐在運) 서준호(徐準鎬) 서종철(徐鍾喆) 서창균(徐昌均) 서화숙(徐和肅) 설도식(薛道植)
성좌경(成佐慶) 성낙서(成樂緖) 손재형(孫在馨) 손정순(孫貞順) 송두용(宋斗用) 송순용(宋順用)
송원영(宋元英) 송인상(宋仁相) 신광순(申光淳) 신기석(申基碩) 신동관(申東寬) 신범식(申範植)
신상철(申尙澈) 신직수(申稙秀) 신진욱(申鎭旭) 신태수(申泰洙) 신형식(申泂植) 심봉섭(沈鳳燮)
심상준(沈相俊) 심흥선(沈興善) 신도환(辛道煥) 신봉조(辛鳳祚) 신상우(辛相佑) 안봉승(安鳳承)
안영태(安永泰) 안재필(安在佖) 안재관(安在寬) 안호삼(安鎬三) 양일동(梁一東) 양찬우(楊燦宇)
양탁식(梁鐸植) 양해준(梁海焌) 엄기표(嚴基杓) 여운홍(呂運弘) 오세응(吳世應) 오수례(吳壽禮)
오위영(吳偉泳) 오재경(吳在暻) 오종식(吳宗植) 오준석(吳俊碩) 오중열(吳重烈) 오치성(吳致成)
오학진(吳學鎭) 오홍석(吳洪錫) 옥만호(玉滿鎬) 원용석(元容奭) 원흥균(元興均) 유갑종(柳甲鍾)
유광열(柳光烈) 유기정(柳琦諪) 유달영(柳達永) 유함범(柳咸範) 유승원(柳承源) 유제연(柳濟然)
유지수(柳智水) 유중열(柳重烈) 유진산(柳珍山) 유 청(柳 靑) 유재흥(劉載興) 유봉영(劉鳳榮)
유성범(劉聖範) 유옥우(劉沃祐) 유상근(兪尙根) 육인수(陸寅修) 윤기달(尹起達) 윤길중(尹吉重)
윤상원(尹相元) 윤인식(尹仁植) 윤일선(尹日善) 윤재명(尹在明) 윤제술(尹濟述) 윤주영(尹胄榮)
윤희섭(尹熙燮) 이경수(李庚洙) 이교선(李敎善) 이규수(李奎洙) 이기택(李基澤) 이낙선(李洛善)
이능가(李能嘉) 이달호(李達浩) 이대우(李大雨) 이대위(李大偉) 이덕봉(李德鳳) 이덕상(李德象)
이도선(李道先) 이동원(李東元) 이동환(李東煥) 이방석(李邦錫) 이병문(李丙文) 이병옥(李炳玉)
이병주(李炳主) 이병호(李秉鎬) 이병희(李秉禧) 이보영(李輔英) 이상신(李尙信) 이상은(李相殷)
이상익(李相翊) 이상조(李相祚) 이석제(李錫濟) 이선근(李瑄根) 이세규(李世圭) 이세정(李世禎)
이숙종(李淑鍾) 이신득(李辛得) 이 랑(李 樑) 이영생(李永生) 이영협(李英俠) 이우익(李佑益)
이우현(李宇鉉) 이원경(李源京) 이윤식(李允植) 이윤학(李允學) 이인기(李寅基) 이일구(李一球)
이정규(李丁奎) 이정석(李丁錫) 이정우(李玎雨) 이종규(李鍾奎) 이종남(李鍾南) 이종범(李鍾範)
이종상(李種相) 이종우(李鍾雨) 이중재(李重載) 이철승(李哲承) 이태영(李泰榮) 이춘록(李春綠)
이태현(李台現) 이택돈(李宅敦) 이택희(李宅熙) 이하영(李夏榮) 이학만(李鶴晩) 이한선(李韓善)
이항녕(李恒寧) 이해랑(李海浪) 이해원(李海元) 이형우(李亨雨) 이경호(李坰鎬) 이호철(李鎬喆)
이환의(李桓儀) 이후락(李厚洛) 이희승(李熙昇) 이흥배(李興培) 임광섭(任光燮) 임국립(任國立)
임영신(任永信) 임충식(任忠植) 임종기(林鍾基) 임옥인(林玉仁) 장기봉(張基鳳) 장기영(張基榮)
장덕진(張德鎭) 장덕진(張德鎭) 장승태(張承台) 장영순(張榮淳) 장용하(張龍河) 장지수(張志洙)
장충식(張忠植) 장경순(張坰淳) 전정구(全綎九) 전택보(全澤珤) 전택부(全澤甫) 전휴상(全烋相)

정간용(鄭幹鎔) 정구중(鄭求中) 정구충(鄭求忠) 정규헌(鄭圭憲) 정대교(鄭大敎) 정동석(鄭東錫)
정두화(鄭斗和) 정무식(鄭茂植) 정범석(鄭範錫) 정성태(鄭成太) 정세환(鄭世煥) 정영환(鄭榮煥)
정우식(鄭雨湜) 정우창(鄭遇昌) 정운갑(鄭雲甲) 정원진(鄭遠鎭) 정인승(鄭寅承) 정일형(鄭一亨)
정장섭(鄭長燮) 정재호(鄭載護) 정종원(鄭宗源) 정 준(鄭 濬) 정진화(鄭晋和) 정판국(鄭判局)
정해영(鄭海永) 정헌주(鄭憲柱) 조동필(趙東弼) 조연하(趙淵夏) 조영식(趙永植) 조용기(趙容基)
조윤형(趙尹衡) 조인형(趙寅衡) 조일문(趙一文) 조재봉(趙在鳳) 조정만(趙正萬) 조홍래(趙洪來)
조일환(曺逸煥) 조현목(趙顯牧) 죤듸 · 데일리 주영하(朱永夏) 주요한(朱耀翰) 진석오(陳錫五)
진승국(秦承國) 진의종(陳懿鍾) 진재량(陳載良) 차지철(車智澈) 채문식(蔡汶植) 천명기(千命基)
최규남(崔奎南) 최돈웅(崔燉雄) 최병길(崔秉吉) 최석채(崔錫采) 최세경(崔世卿) 최승만(崔承萬)
최영희(崔榮喜) 최용수(崔龍洙) 최용찬(崔龍贊) 최재구(崔載九) 최재유(崔在裕) 최정희(崔貞熙)
최종성(崔鍾聲) 최창봉(崔彰鳳) 최치환(崔致煥) 최형우(崔炯佑) 최형섭(崔亨燮) 태완선(太完善)
편용호(片鎔浩) 편정희(片貞姬) 한건수(韓建洙) 한격만(韓格晩) 한도룡(韓道龍) 한병기(韓丙起)
한병채(韓炳寀) 한 신(韓 信) 한심석(韓沁錫) 한인수(韓仁洙) 함국형(咸國衡) 함석훈(咸錫勳)
현오봉(玄梧鳳) 홍병철(洪炳喆) 홍순봉(洪淳鳳) 홍승만(洪承萬) 홍영기(洪英基) 홍용희(洪龍熹)
홍익표(洪翼杓) 홍종철(洪鍾哲) 홍진기(洪璡基) 홍창섭(洪滄燮) 홍현설(洪顯卨) 황낙주(黃珞周)
황신덕(黃信德) 황은환(黃銀煥) 황종률(黃鍾律) 황칠성(黃七星)『한국일보』 1972년 1월 5일 1면;
『대한일보』 1972년 1월 5일 2면)

사회장으로 진행된 유석창 박사의 영결식 광경

유석창 박사 사회장의 장의위원들

1월 6일 정부에서는 '국민훈장 모란장'(제174호)을 추서하였다. 1월 7일 금요일, 맑은 날씨였으나 몹시 추웠다. 오전 9시 상허 선생의 유해는 낙원동 캠퍼스에서 발인제를 지내고 장안동 캠퍼스로 운구하여, 오전 11시 영결식이 시작되었다. 영결식장에는 2,000여 명의 조객이 참여하였고, 430여 개의 만장과 200여 개의 조화(弔花)가 마지막 가는 길을 지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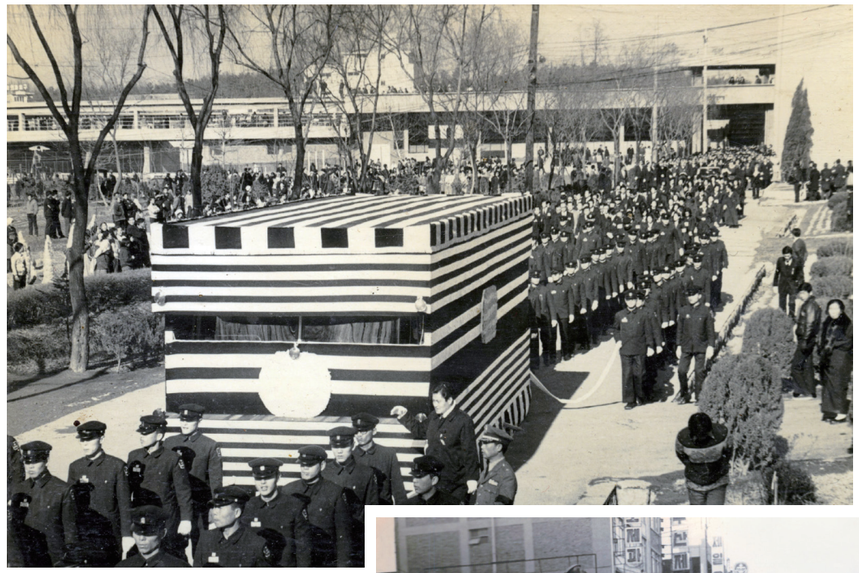
조포(弔砲)와 해병대 군악대의 주악이 울려 퍼지는 가운데 진행되었다. 민관식 문교부 장관, 곽종원 건국대 총장, 박동묘 성균관대 총장, 허훈도 건대 총동문회장, 송석도 전국농업기술자협회 부총재의 조사에 이어, 교육계 대표(김상협 고려대 총장), 행정부 대표(김현옥 내무부 장관), 언론계 대표(장기영 한국일보 사장) 등을 비롯하여 헌화와 분향을 하려는 조문객의 행렬이 1㎞ 넘게 이어졌다.

빈소가 마련된 낙원동 캠퍼스

낙원동 캠퍼스에 마련된 빈소

고 유석창 박사에게 추서된
국민훈장 모란장

낙원동 캠퍼스에서 진행된 발인제


장안동 캠퍼스에서의 운구 행렬

장안동 캠퍼스 영결식장으로 이동하는 차량 운구 행렬

이우범 상무이사의 장례진행

조문행렬

오후 1시 30분 건국중학교 합창단의 '고 상허 유석창 박사 조가(弔歌)'(박목월 작사, 김성태 작곡)가 울려 퍼지는 가운데, 유해는 장안동 캠퍼스 내 동쪽 언덕 위에 마련된 유택에 안장되었다.

고 상허 유석창 박사 조가

1. 나라를 건지려는 불같은 그 정열은
   만주벌 거센 바람에도 꺼질 줄 모르셨네
   겨레를 사랑하는 그 정성 그 사랑이
   가난한 동포의 앓는 가슴 쓰담아 주시었네

후렴: 겨레의 참사랑을 몸소 일깨워주신
   그리워라 그 이름 상허 선생님

2. 아직도 어둠속에 깊이 잠든 농민들을
   등불을 밝혀 들고서 타일러 깨우셨네
   선각자의 이 쓰라림 평생 동안 겪으시며
   밤이슬 비바람 온갖 고초 마다않고 참으셨네

3. 오로지 굳은 신념 그 하나를 밑천삼아서
   장안벌 너른 터전에 큰 배움터 이룩하셨네
   임의 뜻 반석위에 든든하게 터를 잡고
   그 정신 이어 이어서 영원토록 빛나리라

〔『건대학보』 25, 1972년 2월 25일〕

당시 신문에 실린 영결식 관련 기사의 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건국대학교 재단이사장인 상허(常虛) 유석창(劉錫昶) 박사가 1일 상오 5시 20분 숙환으로 별세했다. 향년(享年) 72세.

장례는 오는 7일 오전 11시 서울 성동구 장안동 건국대 교정에서 사회장으로 거행하는데, 장지는 동 대학 구내.

유 박사는 1910년 한일합방이 되자 만주로 건너가 광복운동에 참여, 3 · 1운동이 일어나던 해에는 남만주 군비단 참모에 취임하기까지 했다.

그 후 귀국한 유 박사는 경신중학과 경성의전(京城醫專)을 졸업하고, 30년 사단법인 민중병원을 세워 가난한 동포들을 위한 의료봉사활동을 벌였다.

유 박사는 또 해방 다음해인 46년 건국대 전신인 정치대학을 설립하여 학장을 역임했고, 종합대학으로 승격한 건국대 총장과 이사장을 역임, 후진양성에 진력했다. 유 박사는 특히 농업교육에 힘써 한국지역사회개발협회장과 전국농업기술자협회 총재도 겸임했고, 『한국 농업의 미래상』 · 『조용한 혁명』 등의 저서를 남겼다.

유족은 미망인 김계옥(金桂玉, 57세) 여사와 장남 일윤(一潤, 건국대 이사) 씨 등 2남 5녀.

〔『동아일보』 1972년 1월 4일 1면; 『서울신문』 1972년 1월 4일 7면; 『중앙일보』 1972년 1월 4일 7면; 『경향신문』 1972년 1월 4일 7면; 『대한일보』 1972년 1월 4일 7면; 『매일경제신문』 1972년 1월 4일 7면〕

건국대학교 재단이사장인 상허(常虛) 유석창(劉錫昶) 박사가 지난 1일 상오 5시 20분 숙환으로 별세했다.

향년(享年) 72세—.

건국대학교 설립자인 유 박사는 건국대 초대총장을 역임했고, 민중병원(民衆病院)을 세우는 등 교육 · 의학계에 많은 공헌을 남겼다.

영결식은 오는 7일 상오 11시 사회장으로 서울 성동구 장안동 건국대학교 교정에서 거행된다.

고 유 박사는 경성의전(京城醫專)을 졸업, 구료사업과 일반보건운동을 전개하기 위해 민중병원을 창립하고 원장을 역임하는 한편, 지역사회개발을 위해 농업협동조합대학 · 농과대학 · 축산대학 등을 설립했으며, 한국지역사회개발협회 회장과 전국농업기술자협회 총재 등을 역임했다.〔『신아일보』 1972년 1월 4일 1면〕

건국대학교 재단이사장인 상허(常虛) 유석창(劉錫昶) 박사가 1일 상오 5시 20분 숙환으로 별세했다. 향년(享年) 72세.

유 박사의 유해는 낙원동 재단사무소에 안치되어 있으며, 영결식은 7일 상오 11시 사회장으로 거행된다.

유 박사는 3 · 1운동 당시 만주에서 독립군 단기양성소 주임과 소년광복대 대장을 역임하는 등 독립운동에 참가했었다.〔『서울경제신문』 1972년 1월 4일 3면〕

건국대학교 재단이사장 상허(常虛) 유석창(劉錫昶) 박사가 1일 상오 5시 30분 숙환(宿患)으로 자택에서 별세했다. 향년(享年) 72세.

건국대학교의 설립자인 유 박사는 특히 농업교육에 힘써 한국지역사회개발협회장도 지냈다.

유 박사는 1910년 한일합방이 되자 만주로 건너가 광복운동에 참여했었다.

장례는 오는 7일 상오 11시. 서울 성동구 모진동 건국대학 교정에서 사회장으로 거행되며, 장지는 모진동 산6 학교 부지. 유족으로는 미망인 김계옥(金桂玉, 56세) 여사와 2남 1녀가 있다.〔『한국일보』 1972년 1월 5일 1면; 『조선일보』 1972년 1월 5일 조간 7면; 『한국경제일보』 1972년 1월 5일 4면〕

1일 별세한 유석창(劉錫昶) 박사의 일생은 농촌을 위한 봉사와 계몽으로 일관된 것이었다.

"우리 민족의 살길은 교육에 있고 교육은 국민의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농민을 일깨우는 것 이어야 한다"가 그의 신념이었다.

1900년 함북(咸北) 단천군(端川郡) 유신(維新)에서 출생한 유 박사는 10살 때 아버지를 따라 만주로 건너가, 봉천제일정몽학교(奉天第1正蒙學校)를 졸업하고 모교에 교원으로 남았다. 기미년에는 독립군 단기사관양성소 주무로도 활약했으며, 이듬해인 20년 귀국, 경신(儆新)중학을 거쳐, 경성의전(京城醫專)을 졸업했다.

의사가 된 유 박사는 함남(咸南) 장진(長津)의 공의로 부임하면서부터 병마와 무지에 허덕이는 겨레를 위해 일생을 바칠 것을 다짐, 기미독립선언대표와 언론기관 및 각계대표 45인의 후원을 얻어 민중병원(民衆病院)을 창설했다. 그로부터 조선사회문제연구회, 보건협회, 과학협회 등을 만들었으며, 『조선보건시보』라는 우리나라 최초의 의학전문지를 발행하기도 했다.

45년 해방 직전 그는 동경대학(東京大學)으로부터 의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해방이 되자 유 박사는 조국의 흥륭은 교육에 있다고 생각, 조선정치학관(朝鮮政治學館)을 설립, 온 정력을 다 기울여 정치대학(政治大學), 건국대학교(建國大學校)로 키워놓았다.

한국 최대의 캠퍼스(80만평)를 성동구 모진동에 자리 잡고, 한국 최초의 산업대학을 단과대학으로 독립시켜 농촌지도자 양성을 시작했다. 이어서 지역사회개발대학, 농업협동조합대학 등 전문적인 농업교육기관을 마련, 장학금을 주어가면서 일꾼을 길러냈다.

살아생전 유 박사는 낭비를 싫어했다. 아들도 중학교만 졸업하면 농장에서 일을 해서 용돈을 벌도록 교육시켰다.

건국대학교 2부대학 강당에 마련된 빈소에는 농촌의 일꾼으로 성장한 제자들이 계속 밀려들어 생전의 정을 되새겼다.〔『한국일보』 1972년 1월 5일 3면〕

본교 설립자이신 고(故) 상허(常虛) 유석창(劉錫昶) 이사장의 영결식을 거행하오니, 재학생은 전원 참석하기 바람

※ 일시: 1972년 1월 7일 9시 30분(장안동 본교)

건국대학교 총장
서울건국중학교 교장

제113 학훈단 소집 공고

제113 학훈단 후보생 전원을 소집함(정복 정모 착용)
※ 일시 및 장소: 1972년 1월 7일, 9시(학훈단본부)
제113 학훈단 단장
〔『한국일보』 1972년 1월 5일(1면)〕

정부는 6일 고 유석창(劉錫昶) 전 건대 재단 이사장에게 국민훈장 모란장을 추서(追叙)키로 했다.〔『조선일보』 1972년 1월 7일 조간 1면(공통: 『한국일보』 1972년 1월 7일 1면; 『서울신문』 1972년 1월 7일 7면; 『동아일보』 1972년 1월 7일 7면)〕

건국대학교 설립자인 고 상허(常虛) 유석창(劉錫昶) 박사의 사회장 영결식이 7일 오전 11시, 건국대 운동장에서 이인(李仁) 장의위원장을 비롯한 각계 저명인사와 고인의 유족 · 친지 · 건국대학생 등 2,000여 명의 조객이 참석한 가운데 엄수되었다.

해군 군악대의 조악으로 시작, 한 발의 조포가 울린 뒤, 약력보고와 고인의 교육계에 끼친 공로를 기리는 이인 위원장 등의 조사에 이어, 건국중학교 합창단의 조가 합창 · 분향 등의 순으로 진행된 이날, 영결식장에는 백두진(白斗鎭) 국회의장과 김종필(金鍾泌) 국무총리 · 김홍일(金弘壹) 신민당 당수 등 각계 인사들이 500여 개의 조화와 만장을 보내와 고인의 유덕을 기리고 명복을 빌었다.

고인의 유해는 식이 끝난 다음 약 1시간에 걸쳐 학교 구내를 돈 다음, 이날 낮 1시 반 동교 구내 폭포수산에 마련된 장지에서 강신명(姜信明) 목사의 집례로 하관되었다.〔『동아일보』 1972년 1월 7일 7면〕

건국대학교 설립자이며 전 총장인 고 상허(常虛) 유석창(劉錫昶) 박사의 영결식이 7일 상오 11시, 서울 성동구 장안동 동교 대운동장에서 교직원 · 학생 · 사회저명인사 등 1,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회장(장례위원장: 이인(李仁) 씨)으로 엄수됐다.

이날 식은 해군 군악대의 조악과 조포가 울려 퍼지는 가운데 시작되어, 문교부장관의 조사와 건국중학교 합창단의 조가합창이 있었다.

이날 식전에는 김종필(金鍾泌) 국무총리와 김홍일(金弘壹) 신민당 당수 등이 보낸 400여 장의 만장과 200여 개의 화환이 놓여졌다.

이날 상오 8시 30분 유 박사의 유해는 종로구 낙원동 분교에서 발인, 흰옷에 태극기를 든 건국대 여학생 30명과 해군 군악대의 에스코트로 동교에 도착했다.

식이 끝난 다음 유 박사의 유해는 이날 하오 1시, 유 박사가 생전에 심혈을 기울여 온 동교 일감호 옆 폭포수 산에 안치되었다.〔『중앙일보』 1972년 1월 7일 7면; 『서울신문』 1972년 1월 7일 7면; 『한국일보』 1972년 1월 7일 1면; 『대한일보』 1972년 1월 7일 7면; 『매일경제』 1972년 1월 7일 7면; 『서울경제』 1972년 1월 7일 7면〕

"겨레의 참사랑을 몸소 일깨워주신, 그리워라 그 이름 상허(常虛) 선생님"—건국중학교 학생들의 애도의 가락 속에 고 상허 유석창(劉錫昶) 박사의 영결식이 7일 상오 11시, 건국대학교 대운동장에서 학생 · 교직원 및 각계 인사 8,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회장으로 엄수됐다.

민관식(閔寬植) 문교부장관은 조사(오성식(吳聖植) 문교부 고등교육국장 대독)에서 유 박사가 생전에 남긴 교육의 업적을 높이 찬양했다. 이날 상오 8시 30분 유 박사 유해는 서울 종로구 낙원동 건국대학교 분교에 마련된 빈소에서 대형 영구차로 영결식장까지 옮겨졌다.

영결식은 유족들의 분향에 이어 장의위원장 이인(李仁) 박사, 곽종원(郭鍾元) 건대 총장 등의 분향재배로 끝났으며, 경찰 백차의 선도를 받은 고인의 유해는 이날 하오 1시 40분 장지에 도착, 안장됐다.〔『신아일보』 1972년 1월 7일 7면〕

상허(常虛) 유석창(劉錫昶) 박사의 사회장이 7일 상오 11시 건국대학교 대운동장에서 엄수됐다. 건국대학교 설립자인 고인은 영결식 뒤, 교정이 내려다보이는 서울 성동구 모진동 6 건국동산에 마련된 평안한 잠자리에 들었다.

이날 꽃으로 덮인 영구가 빈소(종로구 낙원동 교사)에서 식장으로 옮겨지고, 장의위원장 이인(李仁) 씨의 개식 선언에 이어 시작된 영결식은 조악과 조포가 울렸고, "선각자의 쓰라림 평생 동안 겪으시며 어둠 속에 깊이 잠든 농민들을 등불 밝혀들고 타일러 깨우셨네." 조가가 농촌 교육에 몸바쳐온 고인의 일생을 말해줬다.

곽종원(郭鍾元) 건국대 총장은 조사를 통해 "조국이 영원히 사는 길은 교육에 있고, 농민과 노동자 교육을 일으켜야 된다는 신념과 실천 속에 살아온 고인의 선각자적인 정신"을 추모했다.

식이 끝난 뒤 영구행렬은 고인이 평생을 가꾸어온 동교를 돌아본 뒤, 1,000여 조객들이 마지막 길을 지키는 가운데 유택에 들었다.〔『경향신문』 1972년 1월 7일 7면〕

상허 유석창 박사의 사회장이 7일 상오 11시, 건국대 운동장에서 이인(李仁) 장의위원장을 비롯한 유족, 건국대 교직원과 학생, 농업기술자협회원, 일반조객 등 1,500여 조객들의 애도 속에 엄수됐다.

200여 개의 조화와 430여 만장(輓章)이 영구(靈柩) 주위를 메운 가운데, 해군 군악대의 조악과 9발의 조포로 시작된 이날의 영결식에서 민관식(閔寬植) 문교부장관(대독), 박동묘(朴東昴) 성균관대 총장 등은 농촌사업과 육영사업에 평생을 바친 고인의 업적을 추모하는 조사를 했다.

이어 교육계 대표 김상협(金相浹) 고대 총장, 행정부 대표 김현옥(金玄玉) 내무장관, 언론계 대표 장기영(張基榮) 한국일보 사장의 순으로 각계 대표인사의 헌화와 분향이 올려졌으며, 건국중학교 합창단의 조가가 울려 퍼지는 가운데 영결식을 끝냈다.

하오 1시 태극기와 초상화를 앞세운 유해는 건국대 캠퍼스를 한 바퀴 돌아 일감호(一鑑湖) 옆 양지 바른 동산에 마련된 유택에 안장됐다.〔『한국일보』 1972년 1월 8일 7면〕

상허 유석창 박사 서거

상허 유석창 박사는 서기 1900년 2월 17일에 나시어, 서기 1972년 1월 1일 오전 5시 30분에 영면(永眠)하시다.

70 평생을 오로지 나라와 겨레 사랑함으로 살으시니, 굵고 긴 생애에 영광 있으라.

소년시절에 나라 잃으니, 조국광복에 몸 바쳐 의연히 만주벌에 서셨고,

일제 식민치하 무산대중(無産大衆)을 위해 의술(醫術)은 인술(仁術)임을 증명하셨도다.

육영입명(育英立命)하심에 오늘의 건국대학(建國大學)이 우뚝 섰고, 성(誠) · 신(信) · 의(義) 인간교육에 난세(亂世)의 영재(英才)들이 바르게 살도다.

지극히 영광된 조국 그늘진 반 얼굴은 농촌, 그래서 원망도 스러우나 태양을 몰아 빛을 보내야 하려니, 조국을 위한 기도의 시간에 홀연히 큰 별은 사라지고, 나목(裸木)의 아픔이 처절한 들녘, 목자(牧者) 잃은 양떼의 무리들은 아직도 아스라한 별빛을 찾는다.〔『농업기술회보』 102호, '호외', 1972년 1월 1일〕

제야의 종소리에 온갖 낡고 묵은 것, 슬픔과 기쁨이 과거의 장막으로 가리어지고, 서기 1972년, 임자년(壬子年)의 새해가 어두움을 헤치고 먼동이 트고 있었다. 희망에 넘치는 태양이 쏟고 있었다. 미처 온 누리에 찬란한 새아침의 햇살이 쏟아지기도 전에 반짝이던 큰 별이 북녘 하늘로 사라졌다.

큰 기둥이 쓰러지고 대들보가 무너졌다. 그것은 한 인간의 애통한 죽음만은 아니었다. 적막할 뿐이다.

우리들 1600만 농민의 영도자이신 상허 유석창 박사는 서기 1972년 1월 1일, 오전 5시 30분에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에서 숙환으로 가료 중, 약석(藥石)의 효(效)없이 영면하셨다.

햇수로는 작년이지만, 지난달 12월 16일 제12회 전국농업기술자대회 때 시민회관 단상에서의 모습이 마지막 생전의 모습이며, 대회사가 마지막 말씀이 될 줄은 꿈엔들 생각할 수 있었으랴. 그로부터 2주일만에 이처럼 유명(幽明)을 달리할 줄은 그 누가 알았으랴. 하늘도 너무나 무심하고 원통한 일이로다.

농업기술상(農業技術賞)을 수여하면서 뜨거운 악수로 격려하시던 그 모습을 이제 영원히 다시 뵐 수 없구나.

병상(病床)에 누워서 대회행사 준비를 하나하나 지휘하시며 국가비상사태가 선언되자 행사 강행의 결단을 내리시고 대회 당일에는 병상을 박차고 일어서신 초인간적인 기력(氣力)은 구농애국(救農愛國)의 단심(丹心)에서 우러나온 것이었다.

대회사에서 "이제 본인의 나이 70을 넘었습니다. 70 평생을 내 나름대로 나라와 겨레를 위해서 약간의 봉사나마 해 왔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는 나의 여생을 이 자리에 모이신 회우동지 여러분들과 함께 농촌부흥을 위해 바칠 것을 말씀드리며 …" 이 말씀이 마지막 유언이 될 줄이야. 우리 농촌을 이대로 두고는 눈을 감을 수 없다고 하시더니 …

태양처럼 밝게 우리들의 운동을 영도해 오신 상허 유석창 박사께서는 소년시절에 이미 가친(家親)을 따라 만주(滿洲)벌에서 조국광복을 위한 독립투쟁에 몸을 바쳤고 청장년시절에는 뜻한 바 있어 의술(醫術)을 배워 3 · 1운동의 민족대표 33인을 중심으로 사단법인 민중병원(民衆病院)을 세우시고 일제 식민지 치하에서 신음하는 동포들의 시료사업(施療事業)에 헌신하셨다.

조국이 광복하자 내 나라를 건설함에 있어서는 고도의 복지문화국가(福祉文化國家)를 세워야 한다는 신념 아래 육영사업에 뜻을 두시고 건국대학교(建國大學校)를 창설하여 오늘날과 같은 종합대학교로 육성하셨다.

상허 유석창 박사께서는 민족의 지도자 양성을 위해 성(誠) · 신(信) · 의(義)의 인간교육(人間敎育)에 전념하시면서, 한편으로 우리나라가 고도의 복지문화국가가 되려면 산업국가(産業國家)를 건설함에 있어서는 먼저 농업이 선도산업(先導産業)으로서 발전이 되어야 한다는 신념 아래 한 종합대학교 안에다 축산대학(畜産大學), 농공대학(農工大學), 지역사회개발대학(地域社会開發大學), 농업협동조합대학(農業協同組合大學) 등 4개의 농과계 단과대학을 설립하여 농촌 복구의 역군으로 길러내는 데 심혈을 기우렸다.

"우리가 오늘날 농민과 농업, 농촌 문제를 생각하는 것은 바로 조국을 위한 기도의 시간"이라고 하실 만큼 하나의 신앙으로 새 농촌 건설을 염원하였다. 그리하여 마침내 건국대학교 총장직을 정년퇴임하는 석상에서 "나는 여년(餘年)을 농업 발전과 농촌 개발을 위한 농민운동에 바쳐 논두렁을 베고 쓰러지는 영광된 죽음을 택하겠다"고 선언하고, 의연히 전국농업기술자협회(全國農業技術者協會)를 영도하기에 이르렀다.

상허 유석창 박사는 우리 운동을 진두지휘함에 있어 이념적으로는 농민의 정신혁명(精神革命) 농업의 기술혁명(技術革命) 농촌의 생활혁명(生活革命)을 내어걸고, 선도농가(先導農家)의 애국적 분기로 정부 정책적 지원과 농민의 삼위일체에 의한 다섯 단계 농촌개발론을 정립하는 한편, 물질적으로는 막대한 재정을 쾌척하여, 오늘과 같은 우리 운동의 기초를 다져 놓았다.

우리 농민들의 영도자는 너무나 드물었다. 우리들 스스로가 지도자를 만들어 내지 못하고, 지도자는 농민을 배신하였던 것이 슬픈 역사의 증언이 아니었던가. 몸과 마음과 이상과 가진 것 모두를 바쳐 농민들의 앞장을 서 준 지도자로 누구누구를 꼽아야 할 것 인가. 생각하면 할수록 안타깝고 설움이 북받쳐 애

통함을 금할 길 없다.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을 들어 허공을 우러러 봄에 생전의 모습이 선하다. 그 바쁜 집무에도 찾아온 회우동지들을 영접해 주시던 일, 연수원에서 밤을 새워가며 농민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시던 일, 행여나 불편한가 자상히도 침식을 돌아보시던 일, 야간열차 험한 시골길을 걸어 전국을 누비며 동지들을 찾아 일일이 격려하시던 일, 갖가지 행사에서도 대하의 웅변으로 우리들에게 용기와 신뢰를 심어주시던 일, 아 이제는 어디나 가서 그 모습 뵈올까.

마음 모아 손 모아 만수무강하심을 빌었다. 그러나 정성이 모자랐음엔지 홀연히 별이 지니 곡성이 이 강산 온 누리에 가득히 퍼진다.

그러나 육신은 영민하지만 사상과 정신은 영구히 불멸한다. 눈물을 거두고 조용히 지난날을 돌아보며 새로운 자세를 바로 잡을 제 가히 신성한 몸부림을 느끼며 우리는 결코 중단하지 않을 것임을 다짐한다.

이 엄청난 슬픔을 짓씹어 삼키며 유지(遺志)를 받들어 복지농촌 건설에 전진한다.

우리들 마음 마음마다 점화하여 주신 조용한 혁명(革命)의 불길은 영원히 활활 타오르리라. 심으신 그 뜻 전국 방방곡곡에서 요원의 불길처럼 타오를 때, 한국농촌의 새 역사의 문이 열리리라.(『농업기술회보』 102호, '호외', 1972년 1월 1일)

---

* 상허 유석창 박사의 서거는 결코 우리 운동의 종말이 아니라 새 출발이다.
* 위대한 지도자의 육신은 잠자지만, 그 큰 뜻과 정신은 영원히 살아나리.
* 상허농촌복지재단(常虛農村福祉財團)의 발기는 오직 그 뜻 기리고 받들려는 자주농심(自主農心)의 발로
* 민족의 양심 잠자던 농심(農心)을 일깨워 새 역사 창조의 주인 된 긍지를 선양하시고
* 전국 일선 농촌지도자들의 가슴마다에 점화한 조용한 혁명의 위대한 불씨
* 상허 유석창 박사의 농촌에 대한 사랑은 신앙이었으며, 신(神)의 의지였다.

〔『농업기술회보』 102호, '호외', 1972년 1월 1일〕

「조사(吊辭)」

제야의 종소리가 갑자기 조종(吊鐘)으로 울려 퍼지고, 새해 아침의 희망과 기대는 슬픔과 절망으로 화하여, 솟아오르던 태양도 그 빛을 잃었더이다.

큰 별이 지니 울음도 잊어버리고 허무하고 적막할 뿐입니다.

오호!

원통한 지고 이제는 목이 터져라 불러 봐도, 인자하시고 온후한 그 음성 다시 들을 수 없으며, 그 모습, 이 하늘 아래 어디서 다시 뵈오며, 따스한 그 손길 언제 다시 잡아볼 수 있으리오.

1600만 농민의 아버지이시며, 불세출의 위대한 영도자이신 상허 유석창 박사님!

우리들을 이처럼 하루아침에 고아를 만들어 놓으시고, 광야에 목자(牧者) 잃은 양떼들을 이대로 버려두고서 어디로 홀연히 가시었나이까?

이 농촌을 이대로 두고서 눈을 감으실 수 없으시다더니…

한없이 사랑스럽고, 한없이 원망스럽다던 조국의 통일을, 복지농촌의 건설사업을 누구에게 맡기시고 가셨습니까?

아 아!

큰 기둥이 쓰러지고 대들보가 무너졌나이다. 장차 이 일을 어찌할꼬, 어찌한단 말입니까?

의지할 곳 없는 농민, 버림받은 농민들을 그토록 정성스럽게 사랑하여 주시고 몸을 돌보지 않고 의연히 앞장서 준 지도자를 우리는 영원히 다시 섬길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요즈음 조국이 살기 싫다고 이민길을 떠나고 호사스러운 외국시찰 여행이 줄을 잇는 때에, 그토록 주위에서 해외시찰을 권유해도 "나는 내 사랑하는 조국을 한 시라도, 한 발자국도 떠날 수 없노라"고 하시며, 이 늙은 것이 귀한 돈 없애고 돌아다닐 것이 아니라, 젊은 학자들이 젊은이들이 배워서 조국 건설에 역군이 되라고 타이르시며, 그 흔한 외유시찰 한 번 못하시고, 이처럼 유명을 달리하시었습니까?

헤어진 양복 한 벌로 몇 해를 입으셨으며, 구두 한 켤레로 몇 몇 해를 신으셨으며, 정릉 산골짜기 여관 한 귀퉁이를 빌어 불원가사(不願家事)하시며 속진(俗塵)을 피해서 구농애국(救農愛國)의 수도(修道)와 명상생활을, 몇 몇 해를 하시었으며, 그 허술한 거처를, 그 소박한 생활을 아는 이 몇몇이나 되리오.

남을 탓하지 않으시고 몸소 실천하시며, 정겹게 들려주시던 그 훈화를 누구에게서 다시 들을 수 있겠습니까?

활명수와 영신환(靈神丸)과 뇌신(惱神)이 든 비닐 약봉지를 언제나 휴대하시고 저 강원도 산골에서 제주도에 이르기까지, 때로는 야간완행 장항선 열차에 좌석이 없어 소화물칸 짐짝 위에 걸터앉아 밤을 새워 동지들을 찾아서, 용기와 신념을 일구고 얼을 심던 그 일이 뼈에 사무치는 한스러운 추억이 되었습니다.

가시는 그 행차에 거창한 환영이나 환송이 있건 없건, 지방관서의 높고 낮은 벼슬아치들이 알아보건 말건 거들떠보건 말건, 5만 고구마를 찾아서 스스로 고행을 하셨습니다.

엄동설한에 특별반 연수 때는 한 번도 하루도 거르지 않고 겨울밤이 새도록 둘러 앉아 좌담하시며 이 부자리 속에 손을 넣어 춥지는 않는가? 밥이며 국물이 차지는 않는가? 자정(慈情)에 겨운 돌보심이며,

나는 결벽증 정신병자라고 스스로 말씀하시며, 알콜로 닦으시는 그 손으로 발바닥같은 농사꾼의 손을 어루만져 주셨지요.

회우동지(会友同志)가 찾아왔다면 딴 손님 물리치고, 시간가는 줄 모르게 농촌 건설의 웅지(雄志)를 펼치셨지요.

아 아!

그 모습이 마지막 모습이 될 줄이야.

그 말씀이 마지막 말씀이 될 줄이야!

총재님께서는 일생을 두고 벼슬감투 쓰지 않으셨으나 장관인재(長官人材)를 길러 내셨고, 농사를 직접 지으시지는 않으셨지만 참된 농사꾼을 오매불망 소원하셨습니다.

분하고 원통한 일이로다.

병상을 박차고 제12회 전국농업기술자대회 시민회관 단상에 서신 초인간적인 기력(氣力)은 진실로 구농애국(救農愛国)의 화신이었습니다.

그리고 논두렁을 베고 죽는 영광된 죽음으로 실천하시고 가셨습니다.

이제 불러도 대답 없는 유석창 총재님!

저기 나부끼는 만장(輓章)은 결코 슬픔에 젖은 눈물의 깃발이 아니라, 조용한 혁명의 창의(倡義) 깃발입니다.

고이고이 잠드시고 눈을 감으소서!

총재님의 육신은 잠드시지만, 사상과 정신은 영원히 영원히 살아계십니다.

아직도 농민의 정신혁명으로 민주적인 협동화를 이룩하라!

농업의 기술혁명으로 과학적 전문화를 이룩하라!

농촌의 생활혁명으로 합리적 복지화를 이룩하라!

선도농가(先導農家)여! 일어서라! 뭉쳐라!

그리고 앞서 나가라고 오른손을 치켜드시고 우람하게 외치는 말씀이 귓전을 울리고 있습니다.

그 부드러운 손길로 우리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슬퍼하지 말라, 나는 안 죽어! 죽은 게 아니야! 내 혼백이 이렇게 살아있지 않은가? 울지 말고 일을 하라고 달래주시며 웃고 계십니다.

풀 한 포기, 나무 한 그루, 발길에 채이는 돌멩이 하나에도 총재님의 얼은 살아계십니다.

한 장수가 잠이 드시고 5만의 장수가 잠이 깨어, 기치창검(旗幟槍劍)을 가다듬어 거룩한 유지와 유업을 기필코 완수하여, 구천(九泉)에 계시는 총재님을 기쁘게 하여 드릴 것을 맹서하나이다.

우리들 가슴마다에 켜 주신 조용한 혁명의 불씨는 꺼지지 않을 것이며, 구농애국(救農愛国)의 사상을 우리들의 신앙으로 하여, 감연히 전도(傳道)의 길에 나서겠습니다.

언제나 우리 위에 계시고, 우리를 지켜 주소서!

서기 1972년 정월 초이레

배곡(拜哭) 송석도(宋錫度)

〔『농업기술회보』 103호, 1972년 2월 1일〕

장안동캠퍼스 일감호 옆 동산에 마련된 유택으로 향하는 운구 행렬

하관식 거행 모습

2) 사회적 추모와 유지 계승

건국대학교 대운동장에서 거행된 영결식에 "학생 · 교직원 및 각계 인사 8,000여 명이 참석했다"는 신문기사나, "건국대학교 2부대학 강당에 마련된 빈소에는 농촌의 일꾼으로 성장한 제자들이 계속 밀려들어 생전의 정을 되새겼다"는 기사는 상허 선생 서거에 대한 비통함과 추모의 공감대가 컸음을 알려준다.

각계 지도급 인사 442명을 장의위원으로 하는 '상허 유석창 박사 장의위원회' 위원장에 선임된 이인(李仁, 1896~1979) 초대 법무부장관은 상허 선생의 인격과 업적을 기려

> "선생은 약관(弱冠) 시절부터 이 겨레가 잃었던 자유와 독립을 되찾기 위해서 일제의 삼엄한 탄압 아래서도 독립군의 양성 훈련과 교육 · 문화 · 사회사업에 혼신의 정력을 기울였던 것이니, 그것은 오늘날의 우리 독립의 기초작업이 되었고, 우리의 해방과 독립에 기여한 바 적지 않음을 생각할 때, 선생이 평생의 침식을 잊고 동분서주하던 생시 선생의 모습이 지금 이 순간에도 눈에 어려 슬픔을 더해주고 있습니다. …
>
> 유 박사의 노력은 겨레의 발전과 농촌부흥의 선구자적 의식의 표현이라 부를 수 있겠으나,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앞으로 다가올 국토통일의 기본작업이었다고 우리는 굳게 믿는 바입니다."〔李仁, 「常虛 劉錫昶 博士를 哀悼함」, 『朝鮮日報』 1972년 1월 6일〕

라고 추모하고 유업을 평가하였다. 이인 선생은 일제 식민지배 하에서 대표적인 민족주의 변호사로 활동하며, '의열단사건' '광주학생사건' '안창호사건' '수양동우회사건' '수원고농사건' '6 · 10만세사건' '경성제대학생사건' '만보산사건' 등 독립운동사에 남을 만한 큰 사건에는 거의 빠짐없이 관여하였다.

미군정기 수석대법관 · 검찰총장을 거쳐 대한민국 초대 법무부장관을 지낸 그의 애도와 추모의 글이기에, 그 무게감이 더 하다. 상허 선생과 비슷한 연배로 인간 유석창이 걸어 온 '인술'과 '건국'의 길을 지켜봐 왔을 것이기에, 기꺼이 '상허 유석창 박사 장의위원회' 위원장직도 떠맡았을 것이다.

이와 함께 해방정국기 김규식(金奎植) 박사의 비서로 좌우합작운동과 남북협상에 적극 참여한 이래, 일생을 민주화투쟁 및 통일운동에 헌신한 송남헌(宋南憲, 1914~2001) 선생은

> "독학으로 의학을 공부한 그는 서울 종로에 병원을 내고, 밖으로 드러나지 않게 민족운동을 후원하고 있었다. 돈을 많이 벌 수 있었는데도 이를 마다하고 언제나 고통 받는 동포들을 생각하며 자신을 낮추며 봉사하는 그와 같은 인물이 있다는 사실에 나는 크게 고무되었다."(우사연구회 엮음, 『송남헌회고록: 김규식과 함께 한 길』, 한울, 2000, 57~58쪽)

고 회고하였다. 송남헌 선생 역시 서울 재동초등학교 교사 겸 아동문학가로 활동하며 항일 독립운동을 펼치다가, 1943년 대한민국임시정부 및 광복군의 활동상황을 주위에 퍼뜨렸다는 혐의('경성방송국 라디오 단파방송 사건')로 옥고를 치루는 등, 상허 선생과 같은 시대를 헤쳐 나온 인물의 추모이기에 그 여운이 더 진하다.

또 1961년 건국대학교 총장직을 물러난 이후 그가 혼신의 열정과 꿈을 바쳤던 전국농업기술자협회 회원들도 상허 선생의 서거에 임하여 "세상 사람들은 유석창 박사와 우리 협회를 동일시하였고, 유 총재님이 서거하시자 전국농업기술자협회의 운명도 다한 것으로 내다보았다. 모든 것을 유 총재님에게 의지하고 믿고 따라가던 우리들이 영도자를 잃자 눈에 보이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며, 리더를 잃은 팔로워의 허탈감과 슬픔을 토로하였다. 그러고는 "눈에 보이는 유형적인 유산(遺産)은 아무것도 없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정신적인 유산이 우리로서는 더욱 더 소중한 것이었다. 정신적인 유산이 너무나 크고 깊기 때문에 이 유산을 간추리고 가려내어, 이를 원동력으로 삼아 진정한 농촌 복지화 운동을 힘차게 추진하여 나아가야겠다"고 하고 상허 선생의 공백을 딛고 다시 일어서려는 노력이야말로 상허 선생의 유업을 계승하는 일이 되리라고 다짐하였다.

이 같은 유지 계승의 다짐과 합의는 유족들에 의해 구체화되었다. 1972년 1월 13일 상허 선생의 장남인 유일윤(劉一潤)은 각계의 조위금 1,000만원을 기금으로 '상허기념사업회(常虛記念事業會)'를 설립했다. 재단법인으로 발족된 상허기념사업회는 학생들에 대한 장학사업을 벌이고, '농업 · 의료 분야에서 공이 많은 사람'에게 '상허의료상'과 '상허농촌문화상'을 수여한다는 구상을 밝혔다. 1972년 3월 29일에는 건대 장안동 캠퍼스 대강당에서 상허기념사업회 발기인 총회가 열렸다.

상허 선생에 대한 추모와 유지 계승의 움직임은 장의 기간 중인 1972년 1월 5일 허훈도 · 김갑련 · 정원찬 동문 등이 중심이 되어 '상허 유석창 박사 동상건립 발기위원회' 구성을 발의하였고, 2년 후인 1972년 5월 15일 건대 26주년 개교기념일에는 동문회 주관으로 동상 건립 기공식을 거행하였다.

기공식 상황을 전하는 신문기사에 따르면, 1972년 5월 15일 '개교 제26주년 기념식'이 끝난 후, 대학본부 왼쪽 원형잔디밭에서 유일윤 이사장, 곽종원 총장을 비롯하여 내외귀빈이 참석한 가운데, 상허기념사업회 주관으로 동상 기공식이 거행되었다.

허훈도 동문의 상허 선생 약력 소개와 김갑련 동문의 경과보고에 이어, 유일윤 이사장, 곽종훈 총장, 윤치영 박사, 이갑성 옹, 이우범 상무이사, 이광훈 동문회장 등이 동상 건립공사의 첫 삽을 떴다.

천여 만 원이 소요될 동상 건립은 재단 · 학교 · 동문회의 후원을 받아 상허기념사업회가 맡고, 공사 실무는 동상건립위원회에서 맡아 추진키로 하였다. 1973년 1월 1일 1주기에 맞춰 제막식을 거행할 예정이다.〔『건대신문』 1972년 5월 29일〕

1973년 1월 1일 12시, 일감호를 굽어 보는 유택(幽宅)에서 1주기 추도식이 거행되었다. 개식 선언과 개식사에 이어 김석순 목사의 집례로 추도예배가 진행되었는데, 김 목사는 설교에서 "애국자이시자 의사였고 교육자이시자 농촌지도자이신 상허 선생님은 생전에 노구를 이끌고 전국 방방곡곡을 누비며 애국 · 애족에 심혈을 쏟으셨다. 이제 육신은 하나님의 곁으로 가셨지만, 유덕(遺德)은 한없이 높아 우리로 하여금 이제 상허 선생님의 유언(遺言)을 받들어 유업(遺業)을 계승, 오늘에 이르게 했다. 앞으로 우리는 상허 선생님의 일생을 본받아, 참되고 성실한 생활로 내세(來世)에 대비해야 할 것이다"라고 세인의 분발을 촉구하였다.

추도예배를 마친 후 상허 선생의 약력이 소개되었으며, 류달영 박사, 이우범 상무이사, 이광훈 동문회장의 추도사가 있었다. 조가(吊歌)와 유족대표의 인사를 끝으로 종료한 다음, 이어서 묘비(墓碑) 제막식을 거행하였다.(『건대신문』 1973년 1월 3일)

이후 2주기가 되는 1974년 1월 1일 동상제막식을 거행하였다. 4.00m 높이의 좌대 위에 3.90m 높이의 전신상으로, 조각은 김영중(金泳仲)이 맡았고, 글씨("常虛劉錫昶博士像")는 김충현(金忠顯)이 썼다.

당시 신문에 실린 상허 선생에 대한 추모와 유지 계승 관련 기사의 내용을 정리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유석창(劉錫昶) 박사의 영전에, 멸사애족(滅私愛族)의 평생(平生)

곽종원(郭鍾元)

일을 위해 세상에 오셨다가 일만하고 떠나가신 유 박사님, 밤에 주무실 때도 머리맡에 메모지를 두고 떠오르는 생각을 기록하여 아침이면 3, 40장 메모지를 주머니에서 꺼내어 하나하나 실천에 옮기시던 유 박사님, 당신은 진실로 일만으로 한평생을 마치신 정열과 의지의 인간상(人間像)이었습니다.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꾸벅꾸벅 황소처럼 일만 하시던 당신에게 개인의 사생활은 너무나 없었습니다.

빼앗긴 나라를 도로 찾기 위하여 일찍이 소년의 몸으로 만주(滿洲) 벌판을 헤매면서, 독립군의 양성과 그 지도에 임하던 기개는 평생 동안 당신의 뇌리에서 사라지지 않아, 임종하는 순간까지도 그 투철한 애족혼(愛族魂)은 일관되셨습니다.

일제 하 자유를 뺏긴 암흑천지(暗黑天地)에서도 가난하고 굶주린 근로대중(勤勞大衆)들이 병고에 시달리는 것을 보다 못해, 이들을 구하기 위해 33인들을 설득하고 그 밖의 유지들을 설득하여, 이들의 발기로 민중병원(民衆病院)을 설립하고, 당신이 직접 원장에 취임하여 헐벗은 동족들을 무료로 시료하고, 해방이 되자 진정코 나라를 구하는 길은 애족혼을 불러일으키는 교육에 있다고 생각하여 학교를 창건하셨습니다.

당신은 건학정신(建學精神)을 해방된 조국이 다시는 불행한 운명을 밟지 않고, 영구히 자유와 번영을 누릴 수 있는 참된 민주적 문화국가를 건설하는 데 두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농(農)과 공(工)이 아울러 근대화된 산업국가 건설을 지상의 목표로 삼아, 그 일꾼을 기르기에 전념하셨습니다. 생각하면 먼 국가 장래를 내다보는 혜안(慧眼)이 남다르며, 또한 당신은 너무나 큰 이상을 추구하는 꿈의 화신이기도 했습니다.

유석창(劉錫昶) 박사님, 이제 다시 불러도 대답 없는 유 박사님, 당신은 그 원대한 꿈을 이 조국땅 위에 버려두고 어찌 눈을 감을 수 있었습니까. 공도(公道)는 무심하여 당신은 끝내 눈을 감으셨습니다마는 당신의 숭고한 그 정신만은 길이 후세에 남을 것이며, 그렇게 못내 애원하던 문화국가의 건설도 이룩되고야 말 것입니다. 유 박사님, 눈을 고요히 감으시고 길이 명복하소서.〈건대 총장〉(『동아일보』 1972년 1월 5일 6면)

내일에 산다(996)—고(故) 유석창(劉錫昶) 박사의 뜻 기려

상허(常虛) 유석창(劉錫昶) 박사는 풍운이 거센 조선시대 말엽 애국지사의 슬하에서 자라나 청운의 뜻을 의학에 두고, 인술을 통하여 민족운동에 정성을 바쳐오다가 조국이 광복된 후로 깨달은 바 있어, 이 나라의 교육계에 몸을 바치게 되었다. 불혹의 나이를 넘었을 때, 사재를 털어 현재의 낙원동 교사를 마련하여 정치학관(政治學館)을 창설하였다. 그 후로 정치대학관(政治大學館) · 정치대학(政治大學)을 거쳐 건국대학교(建國大學校)의 오늘에 이르렀고, 그동안 총장으로서, 재단이사장으로서의 대임을 완수하였다. 유 박사는 수천의 교직원과 수만의 문하생들이 진실로 숭앙, 경모하는 품격을 갖춘 사표(師表)이었다. 언제나 관대하고 온화한 후덕으로 그들을 선도하였다. 그의 사생활은 참으로 절약하여 검소하였고, 공익을 위하여 철저하게 봉사하였다. 기업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재화를 중시하였으나, 그것은 사욕에서가 아니라 공익재단을 육성하는 일이었다. 그런 중에도 사교의 친밀감은 두터웠건만 권세에 아부하는 일이 별로 없었다. 유 박사는 평생의 항로에서 폭넓은 시야와 투철한 식견을 갖추고, 국가 사회의 풍성한 발전을 기하여 모든 정성을 아낌없이 발휘하였다. 일찍이 민중병원(民衆病院)을 이끌고 대중의 보건에 기여한바 컸었거니와, 또한 이 나라 지역사회의 개발을 추진하였고, 전국농업기술자협회를 창설하여 영도하였다. 이는 조국의 근대화에 선봉이 되는 성인교육의 일환이었다. 상허 선생은 잠시도 쉴 새가 없이 근무에 정진하였다. 또한 세심하게 휘하의 인력을 독려하였다. 그러는 동안에 어언간 심신의 과로로 몸이 쇠약하게 되었다. 원래 의사이니만큼 평소 자활요양에 유념하였으나, 고희의 고령으로 여전히 활동을 계속하였으니 몸이 더 쇠약해질 수밖에 없었다. 의료에 갖은 힘을 기울였으나 '인명(人命)은 재천(在天)'이라 어찌하리오! 1972년을 맞이한 원단(元旦: 설날 아침)의 새벽에 드디어 운명하였으니, 슬픈 마음을 금할 도리가 없다.(김두헌(金斗憲, 건국대 대학원장)(『중앙일보』 1972년 1월 5일 7면)

교육의 선각 — 유석창 박사의 영전에

한격만(韓格晩)

상허(常虛) 유석창(劉錫昶) 박사는 주지하는 바와 같이 건국대학교 설립자요 초대총장을 역임하고, 재

단 이사장으로서 대학발전을 위하여 자나 깨나 노심초사(勞心焦思)하던 끝에, 1월 1일 상오 5시에 향년(享年) 72세를 일기로 심장마비로 급서(急逝)했다.

유 박사를 젊은 세대에서는 단순한 일개 교육자로서만 알고 있을 것이다. 결코 그렇지 않은 점이 그를 존경하게 한다. 상허는 한말(韓末)의 망명정객(亡命政客)인 엄친(嚴親)을 따라 1910년에 만주(滿洲) 봉천성(奉天省) 장백(長白) 관립(官立) 제일정몽학교(第一正蒙學校)에 입학, 고등과(高等科)를 졸업한 후에, 소년광복대장(少年光復隊長)으로서 소년광복운동을 하였고, 1919년에는 남만주(南滿洲) 군비단(軍備團) 참모부(參謀部) 참모로서 독립군단기양성소(獨立軍短期養成所) 주무(主務)에 노력하다가 귀국해서, 1927년에 경성의전(京城醫專)을 고학(苦學)으로 졸업하고는 1930년 봄에 의료사업의 혁신을 꾀하려는 목적으로 기미독립운동(己未獨立運動) 지도자 33인을 중심으로 각계대표 45인의 합의후원체의 조직 아래서 무산대중(無産大衆)의 구료사업(求療事業)의 시범기관으로 사단법인(社團法人) 민중병원(民衆病院)을 창설하여 실비치료(實費治療)를 하는 한편, 일반대중의 보건운동(保健運動)을 위하여 기관지(機關紙)까지 발간했다.

그는 해방과 동시에 교육사업에 눈 돌려 정치대학(政治大學)이란 색다른 대학을 창설하고 학장에 취임했다. 그러나 그가 교육하면서 느낀 것은 농민이 헐벗고 굶주려가지고는 부강한 나라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한 끝에, 정치대학을 건국대학교(建國大學校)로 승격시켜 초대총장에 취임함과 동시에, 처음으로 축산대학을 설립하고 학생 전원을 납입금 전면, 숙식까지 제공하는 교비생(校費生)으로 교육하고 있다는 것은 외국에서도 보기 드문 진실한 교육자로서의 존경하여 마지않을 점이며 '교육의 성자(聖者)'라고 말하고 싶다.

그런데 정열(情熱)의 인간! 유석창 박사는 앞으로 10년 동안에 우리나라에서 최대의 공과대학을 설립하겠다고 웅장한 계획을 세우고 착착 진행한다고 하던 상허! 신념의 인간! 그가 아호(雅號)대로 무상(無常)하고 허무하게 급서하였으니 어찌 무상하지 않으랴!

상허! 사회장(社會葬)으로 상허가 주소(晝宵)로 전심전력(全心全力)을 경주(傾注)하던 대학부지(大學敷地)의 전망 좋은 곳에 영원한 유택(幽宅)을 마련하였으니, 지하에서라도 대학발전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고이고이 잠드소서![『경향신문』 1972년 1월 5일 2면]

고(故) 낭산(朗山)과 상허(常虛)가 남긴 일화들

ㅁ…사회장을 이틀 앞둔 낭산(朗山) 김준연(金俊淵) 씨와 상허(常虛) 유석창(劉錫昶) 씨의 빈소에는 타계하고 닷새째가 되는 5일에도 조객들이 줄을 이어 찾아와 고인들을 기리었다. 빈소에는 각계 인사들로 낭산과 상허의 생전일화가 꽃피고 있었다.…ㅁ

김준연 씨
동료 선거자금 대주기도

국회프락치사건 맨 먼저 발설

김준연(金俊淵) 씨는 정치생활에서 엄격하고 날카롭기로 알려진 분이지만, 그가 데리고 쓰는 이들에게는 더없이 부드러운 인품이었다.

어느 날 술을 마시느라 자가용차를 잃어버려 새벽녘에 달려온 운전사에게 "해장술이나 들게"하며 위로를 해주더라는 얘기가 있다.

집이 없는 낭산은 초대 국회의원 선거 때 선거자금으로 돈을 모아놓은 것이 있었는데, 경쟁자가 없어 돈이 필요 없게 되자 어렵게 모은 그 돈으로 집 한간 장만하려 하지 않고, 동료 후보들에게 나누어 주어 선거자금으로 쓰도록 했다는 것.

정치생활에서 남긴 일화는 많으나, 그중 '국회프락치사건'과 '귀속재산문제'가 유명하다. 제헌국회 의원 중에 공산당이 있다고 낭산이 말해 경찰 수사로 상당수의 국회의원이 구속되었는데, 다른 사람들은 김 씨가 괜한 사람을 공산당으로 몰았다고 비난이 많았다.

낭산은 아무런 변명을 하지 않았는데, 6 · 25가 터지자 그때 구속된 사람들이 모두 풀려나와 공산당의 앞잡이가 됨으로써 낭산의 판단이 옳았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게 됐다.

또 2차 대전 후 미일강화조약서 초안 중에 "국유재산은 국가로 귀속되나 일본인 사유재산은 일본사람에게 귀속한다."는 조문을 낭산이 발견, 이승만(李承晩) 박사에게 말했으나 이 박사조차 몰랐다는 것. 결국 부랴부랴 알아본 결과 사실임이 드러나자, 그 조문인 4조 B항을 삭제한 일도 있다.

낭산이 언론계에 남긴 일화도 많지만 손기정(孫基禎) 선수 일장기 말소사건에 관련, 사표를 낸 일은 항일투쟁사에도 빛나기만.

유석창 박사
구두 한 켤레로 10년 신어
검소한 평생…농민 위해 바쳐

유석창(劉錫昶) 박사는 평생을 육영사업과 농민생활의 향상에 바친 분으로 그분의 상허(常虛)라는 호가 가리키듯 사생활은 끝까지 허허로웠다.

구두 한 켤레를 맞추면 보통 10년은 넘게 신었다는 유 박사가 최근까지 신고 있었던 흰 구두는 원래는 빨간색 구두였다는데, 빨간색이 하도 오래 돼 그만 탈색하고 만 것.

상허의 검소함은 평생을 덮고 잔 이불이 지금은 보기조차 힘든 아주 옛날의 세창직 이불이었다는 것과 살던 집이 문을 열기도 힘들만큼 낡아 빠진 선친의 집이었다는 것. 상허의 사생활은 검약했으나, 농민과 육영사업을 위해서는 모든 재산을 바쳤다.

평생 동안 그는 "국민의 53%를 차지하는 농민을 위해 일하다 논두렁을 베고 죽을지언정 병사는 할 수 없다."고 말하며, 그가 창설한 건국대학에 축산대학과 농공대학 · 지역사회개발대학 · 농협협동조합대학

등 우리나라에서는 유일한 농민을 위한 대학들을 건립했던 것이다.『경향신문』 1972년 1월 5일 7면〕

한국의 농(農)에 일생을 헌신, 곡(哭) 상허(常虛) 유석창(劉錫昶) 박사

이대위(李大偉)

인생이 한번 태어나 살아가는 동안에 커다란 두 가지 문제가 있으니, 그 하나는 어떻게 현세를 잘 살아가는가 하는 문제와 둘째는 어떻게 잘 죽는가하는 문제이다. 사람 중에는 하급동물들과도 같이 그날 그날 먹고 놀고 자는 일만 되풀이 하다가, 뜻 없이 났다가 뜻 없이 죽는 사람이 있는가하면, 어떤 사람은 자신의 입신양명(立身揚名)만을 위해 권력자에게 온갖 아첨을 다하고, 하급자에겐 별의별 협박과 기만을 자행하여 남의 생명과 재산까지 갈취하는 일을 능사로 삼는 사람도 많다.

고(故) 상허(常虛) 유석창(劉錫昶) 박사는 이런 이들과는 정반대로 가장 고귀하고 지순하고 아름다운 생활을 하다가 떠나신 분이다. 상허는 실로 위대한 분이라 이를 수 있다. 상허의 위대한 면모는 여러 가지로 나누어 생각된다. 그는 이 나라의 '페스탈로치(Pestalozzi, Johann Heinri, 스위스의 교육자 및 사회비평가)'요, 이 나라의 '그룬트비히(Nikolai Fredrik Severin Grundtvig, 민중교육의 창시자)'였다.

상허의 청년시대는 독립군이 되어 남 못지않은 독립투쟁도 했고, 그의 중년기는 의사생활로 보냈지만, 한국에서는 최초로 가난한 서민들을 무료나 실비로 치료해주는 민중병원(民衆病院)을 설립하여, 그야말로 손수 인술(仁術)의 도(道)를 실천궁행(實踐躬行)한 일도 있다. 그러나 더 훌륭한 일은 민주교육의 선봉에 서서 우리나라의 교육계에 새로운 양심과 기풍을 심어준 점이다.

선생은 본시 무(無)에서 유(有)를 만든다는 창조적 신념에 강한 분이지만, 뛰어난 기지와 성실한 지혜를 겸비한 창조적 천품(天稟)을 타고난 분이다.

상허 유석창 박사야말로 가장 고매한 교육계의 사표(師表)라 단언하고 싶다. 선생은 무지막지한 만주(滿洲)에서 자라 귀국한 뒤, 일생동안 외지(外地)라곤 구경조차 못한 분이지만, 선생만큼 세상지식에 통달한 이도 드물었다. 선생은 성실과 근면이라는 점에서도 후생(後生)의 귀감이 되기에 충분할 것이니, 학교내외의 일과 사회 다방면의 사업이 선생의 손길과 애정이 스치지 않은 적이 없으며, 중농사상(重農思想)과 실천적 농업교육 없이 국가의 발전은 도모하기 어렵다는 자각에 철저하여, 교육의 지침을 실천교육과 농업기술교육에 치중하였던 것이요, 명예와 지위와 안일을 헌신짝처럼 버리고 스스로 이 나라 농촌발전을 위해 일생을 헌신하였던 것이다. 선생은 평소에 말씀하시기를 농촌을 위해 일하다가 논두렁을 베고 세상을 떠나겠다고까지 장엄숭고(莊嚴崇高)한 의지로 말하시었고, 과연 선생의 기세(棄世: 돌아가심)는 그의 평소의 말씀과 잘 일치되었다고 생각되는 것이다.

그는 중병 중임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12월 16일 주치의의 간곡한 만류를 뿌리친 채, 제12회 전국농업기술자대회(全國農業技術者大會)에 참석하였으며, 그 뒤 병세가 더욱 악화, 마침내 선생이 사랑하던 농업기술자들과의 만남을 끝으로 그의 사랑을 받던 우리들로부터 그가 사랑하던 조국으로부터 영영 떠나시고 말았다.

이제 선생은 가셨다. 그러나 그의 정령(精靈)은 영원토록 이 민족사회와 함께 할 것으로 마음 한 끝에 믿어, 슬픔을 달래고 선생의 명복을 빌어마지 않을 뿐이다.

72년 정초『신아일보』 1972년 1월 5일 4면〕

농민이 본 유석창(劉錫昶) 선생

상허(常虛) 유석창(劉錫昶) 선생이 건국대학교 총장 또는 이사장으로서 교육계에 남긴 불후의 업적에 대해서는 천하가 다 알고 있는 바이므로 여기서는 다시 말할 필요를 느끼지 않거니와 농촌운동에 남긴 업적도 이에 못지않게 크고 영원히 불멸할 위대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선생은 일찍이 건국대학교를 창설한 후, 낙후하고 가난한 이 나라의 농촌을 구출하기 위하여는 무엇보다도 실천력 있는 농촌 선구자를 양성하는 것이 긴급한 과제라는 것을 깨닫고, 건국대학교에 농과대학과 축산대학을 설치하는 동시에, 축산대학은 전원을 장학생으로 하고, 또 기숙사에 수용하여 실습을 통해 실천력 있는 영재를 양성하는 누구도 박수(迫隨)할 수 없는 획기적인 방안을 채택함과 아울러, 축산대학 졸업생에 대해서는 자영할 수 있는 영농자금의 알선(斡旋) 등 그 지도에 정력을 기울인 결과, 농촌에 새로운 기풍을 불어넣을 수 있게 되었다.

또 1963년 농민의 중망에 의하여 전국농업기술자협회(全國農業技術者協會) 총재로 추대된 후에는 몸소 각도지부 연차대회에 참석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기회 있을 때마다 노구(老軀)를 이끌고 농촌 방방곡곡을 순방하는 데 여념이 없었는바, 순수한 민간단체인 동(同) 협회가 오늘까지 존속할 수 있었고, 또 유일한 선도농가 지도 단체로서의 구실을 하게 된 것은 오로지 선생의 불굴의 투지와 정열의 소산이라고 할 것이며, 만일 선생이 안 계셨더라면 동(同) 협회의 오늘은 없었을지도 모른다.

선생께서는 또 1967년『한국농업의 미래상』이란 대저(大著)를 발간하여, 서기 2000년대의 농민상을 제시하는 동시에 정신혁명 · 기술혁명 · 생활혁명의 3대혁명을 절규하면서 농민의 분기를 촉구하였는바, 이러한 고매한 선생의 철학은 금후의 한국농촌에서 반드시 개화하리라는 것을 믿어 의심하지 않는다.

이런 의미에서 상허 유석창 선생이 농민의 선두에 서서 농민들의 역량을 향상 단결시키고, 농민의 3대혁명을 통한 농촌재건을 기필하려던 거성(巨星) 유석창 선생을 잃게 된 것은 이 나라 농업의 전진을 위하여 참으로 슬픈 일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농업계에 투신한 한사람으로서 통곡하고 삼가 선생의 명복을 빈다.〔주석균(朱碩均),『한국일보』 1972년 1월 6일 6면〕

상허(常虛) 유석창(劉錫昶) 박사 영전에

임옥인(林玉仁, 작가)

즐거운 신년 호례(互禮)회가 청천벽력 같은 유석창(劉錫昶) 박사님의 부보(訃報)로 바뀔 줄이야 누구도 꿈엔들 생각했겠습니까. 예년과 같이 인자하고도 힘찬 격려의 말씀을 기대하면서 낙원동 재단사무실

앞에 다다랐을 때, 그것은 너무도 충격적이며 침통한 소식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망연자실, 그 자리에 굳어 버린 채 아무생각도, 할 말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바로 재작년 3월 24일에 고희(古稀) 잔치가 베풀어졌을 때, 저는 유 박사님의 창조와 건설의 발자취인 건국대의 성장과정을 상기하고 헌시(獻詩)를 엮은 일이 있습니다. "한 그루의 어린 나무로 섰다. 어린 가지에 부채질하는 손길이 있었다. 더운 지하수에 발목을 적시고, 이슬비 · 단비에 어깨를 축이며, 불모의 가슴에 새싹이 자랐다." 그것은 유 박사님의 학원성장에 대한 간원(懇願)의 말씀을 이 귀로 들었던 때문이고, 실지로 분명히 보아왔기 때문입니다. 황량하던 장안벌판에 어린나무를 심고 초급(焦急)한 심정에 부채질이라도 하여 나무를 키우고 싶다고 하신 것은, 곧 어린학원을 어서 속히 장정으로 키우고 싶다는 말씀이기도 했습니다.

메마른 땅을 파고 한강수를 끌어 크나큰 호수를 만들겠다던 벅찬 꿈을 누구도 실현성 있는 일로 믿을 수 없었을는지 모릅니다마는, 그러나 지금은 호심(湖心)이 천심(天心)을 안고, 먼 바다의 포효도, 깊은 지맥의 고동도 들을 수 있는 일감호(一鑑湖)로 건대의 얼을 담고 엄연히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곁의 등가(藤架)는 유 박사님의 20여 차례의 설계로 현재에 이르렀다고 하며, 찾아드는 누구에게나 안정과 미감(美感)을 선사하고 싶다는 말씀도 들었습니다.

유 박사님! 오늘 우리는 너무도 허전합니다. 따스하고 힘찬 격려와 밀어주시던 그 은고를 상실하여 진실로 허전합니다. 그러하오나 다시금 다짐합니다. 더운 지하수에 발목을 적시고 있는 나무는 거목으로 성장하기 마련입니다. 피와 땀의 산모의 노고는 모든 영광도 약속할 것을 믿습니다. 인제 떠나시는 영겁(永劫)에의 길도, 조국애와 한가지로 믿음과 보람으로 가시기 바라오며, 후사는 정직한 역사에 맡겨주시기 비옵니다.〔『서울신문』 1972년 1월 6일 6면〕

애도(哀悼) 상허(常虛) 유석창(劉錫昶) 박사

이종규(李鍾奎)

사람이 일생에 귀중한 친우(親友) 한사람을 가진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나는 비록 정치가는 아니지만 천하를 잃은 것보다 귀중한 친우 한사람을 잃는 것이 더 서럽고, 더욱 애절하기만 하다. 더구나 나 한사람에게만 귀중한 분이 아니라 민족과 사회에 필요한 분이라면, 그 슬픔은 더욱 통절(痛絕)하지 않을 수 없다.

사생활을 전적으로 희생하고 민족국가를 위하여 일생을 바친 이가 있다면, 과연 애국애족(愛國愛族)하는 이라 아니할 수 없다. 내 귀중한 벗 상허(常虛) 유석창(劉錫昶) 박사가 바로 그런 분이다.

유년기부터 상허는 그의 선친(先親)인 일우(一憂, 오직 나라 하나만을 걱정한다는) 선생을 따라 만주땅 이역(異域)으로 갔다. 상허는 망국(亡國)의 슬픔과 중국인의 천대 속에서 자라났고, 소년의용독립군(少年義勇獨立軍)에 가담하여 몸소 항일전선에 참전, 생명을 걸고 투쟁대열의 선봉에 섰던 것이다. 그러나 상허는 깊이 깨달은 바 있어, 승산 없는 투쟁에 시간을 허비하기보다도 농민의 건강을 돕고, 민중의 정신을 계몽하는 간접투쟁의 방법을 취하였으나, 역시 호의호식하는 의사의 풍요한 생활에 회의를 느껴 청산하고 상경한 뒤, 당시 애국자(즉 33인)들을 역방(歷訪)하며 가난한 서민대중을 무료로 치료,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을 논의한 끝에, 마침내 민중병원(民衆病院)을 창설하기에 이르렀던 것이다. 민족 비극과 독립의 말만 들어도 양안(兩眼)에 눈물이 괴는 상허의 사람됨을, 이러한 그의 투쟁경력만 보더라도 미루어 짐작할 수 있으리라.

상허는 당시 장안에 화제와 충격을 주었지만, 일제당국은 민중병원이 민족독립운동의 거점이 되려하자 온갖 방해와 압력을 가하였지만, 상허는 굴하지 않고 온갖 방법으로 자주독립의 기틀을 마련하는 데 실로 초인적인 힘을 기울여 진력하였던 것이다.

해방 후 정당 활동에도 뜻을 두었으나, 민족의 참된 진로와 국가의 급선무가 교육에 있음을 느낀 나머지 정치학관(政治學館)을 세웠고, 이것이 오늘날의 건국대학교로 성장하게 된 남상(濫觴: 기원)이 되었던 것이다.

상허의 경국제세(經國濟世)의 이념은 무(無)에서 유(有)를 만들어낸다는 굳센 창조적 이념이오, 농민의 부(富)와 발전 없이 국가의 발전이 있을 수 없다는 치국(治國)의 지도자적 이념에 성실 확고하였다. 상허는 그의 이러한 이념을 구체화하기 위하여 건국대학교에 축산대학과 농과대학을 설치, 농업발전의 실천적 능력과 역군의 배양에 치중하고, 전국농업기술자협회(全國農業技術者協會)와 지역사회개발협회(地域社會開發協會) 등의 사회단체를 창립, 그 총재로 일선에서 눈부시게 활약하시면서 항상 말씀하시기를, 논두렁을 베개 삼아 죽더라도 농촌부흥은 어떻게 하든지 이룩하고야 말겠다는 굳은 의지로 초지일관하시던 상허였다.

상허 형! 명실상부한 민족의 거성(巨星)이여!

우리는 이제도 살아남아 그대가 남긴 크고 깊은 뜻을 어떻게 이어받고, 어떻게 이뤄 나가야할지 실로 아득하고 눈앞이 캄캄하오! 그대의 전 생애가 새겨진 저 대(大) 건대의 많은 일과 동지와 어린 후배가 어떻게 이 어려운 일을 해나가야 한단 말이오. 그대는 그런 말 몇 마디 더 가르쳐주고, 일깨워주고 가야했을 것이오.

상허 형! 우리 건대인뿐만이 아니라 그대 잃은 우리 민족 뜻 깊은 그대의 후배들은 슬픔 속에 그대의 명복을 거듭 빌면서, 이승에서 못다 이룬 그대의 웅지(雄志)와 이념이 저승에서 이뤄지기를 빌며, 저 먼 곳에서라도 우리 민족의 비극과 시련을 헤쳐 나가기 위한 힘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바라오.

상허! 오호통재(嗚呼痛哉)라! 통재(痛哉)라!

1972년 정월 초

〈전 건대 부총장 · 의학박사〉

〔『대한일보』 1972년 1월 6일 4면〕

횡설수설

◆ 새해에 들면서 우리가 평소부터 아끼고 소중하게 여겼던 두 분의 선배(先輩)가 이 세상을 하직했다. 두 분의 선배는 낭산(朗山) 김준연(金俊淵) 선생과 유석창(劉錫昶) 선생이다. 우선 두 분의 비보(悲報)를 들었을 때 따가운 눈물이 하염없이 흐르는 것을 참을 길이 없었다. 사람이란 한번 오면 한번은 가는 법이련만 세상을 하직했다는 비보가 한번 전하여질 때 이를 슬퍼하는 종류도 여러 가지다. 한 고을, 한 나라, 세계적인 슬픔을 받는 분이 있다면 두 분의 선생은 국가적인 슬픔을 받는 분이라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 두 분의 선배가 다함께 민족의 시련기인 어려운 때에 태어나 민족의 일에만 열중하다가 돌아간 것은 어쩌면 동공이곡(同工異曲: 재주나 솜씨는 같지만 표현된 내용이나 맛이 다름)이란 말이 가장 적합할 수도 있다. 민족에게 이바지하고 사회적인 봉사를 한다고 해서 반드시 화려한 무대에서만 활약해야 한다는 것만이 아니기 때문이다. 각자가 타고난 천부(天賦)의 소질과 천직(天職)을 다하면, 이것이 바로 사회적인 존경과 아낌을 받는다는 것은 두말할 것도 없다. 사람의 눈에 띄지 않는 그늘진 구석에서도 자기의 천직을 잘했을 때는 이것이 참다운 애국의 길이요, 국가에 충성을 다하는 길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 낭산 김준연 선생은 일찍이 청운(青雲)의 뜻을 품고, 이때만 해도 우리민족으로서는 갖기 어려웠던 화려한 학력을 가진 분이다. 그분의 재질(才質: 재주와 기질)이 벌써 탁월했던 것이지만, 일본과 독일의 명문대학을 모조리 거침으로써 누구나 이를 부러워하지 않는 사람이 없었다. 그분의 정계활동은 반드시 그의 소지(素志: 평소에 늘 지니던 생각)를 충족시켰다고는 볼 수 없으나, 그분의 성격은 너무도 심플했고 가식이 없었고 지나칠 만큼 간결했고 명백했다. "군자일수록 간결하고 소인일수록 복잡하다."는 말이 있듯이, 이는 인간 낭산의 풍모(風貌)를 그대로 말해준 것이나 다름이 없겠다.

◆ 유석창 박사는 어려서부터 민족적인 실의(失意)를 참다못해 독립전선에 몸을 담았지만, 뜻한바 있어 의학을 전공했다. 말하자면 그는 인술(仁術)로써 이 나라의 창생을 구제하겠다는 뜻을 품고, 이를 몸소 실천에 옮겼다. 당시 33인과 뜻 있는 인사들을 설득해 민중병원(民衆病院)을 설립하고, 자기 자신이 원장의 자리에 앉아 헐벗고 굶주린 동족들을 무료로 치료했다. 해방이 되자 민족의 재기(再起)는 교육에 있음을 역설하고 건학정신(建學精神)을 확립시키는 데 한결같이 노력했다. 그는 어디까지나 민주적인 문화국가를 이룩하는 데 그의 이상과 목표를 둔 분이라고 말할 수 있다.

◆ 우리는 이제 민족과 사회를 이처럼 사랑하고 아꼈던 두 분의 선배를 다시 만날 수가 없게 됐다. 그러나 우리가 이 두 분을 존경해 마지않는 이유는 그들이 거쳐 나온 발자취가 이렇듯 빛나고 거룩하기 때문만은 아니다. 두 분은 다함께 일신의 영화만을 노리고 있었다면 이를 얼마든지 얻을 수 있었을 터이지만, 이를 하나의 헌신짝처럼 여겨왔기 때문이다. 역시 이 두 분은 인간으로서 인간다운 사명과 생애를 다한 분들이라고 말할 수 있다. 두 분의 명복을 빌어마지 않는다.〔『동아일보』 1972년 1월 6일 3면〕

'상허기념사업회' 창설, 유족들, 조위금 등 1,000만원 기금

지난 1일 서거한 고 상허(常虛) 유석창(劉錫昶) 박사의 유족(대표: 장남 유일윤(劉一潤))들은 13일 고인의 장례식 때 각계에서 보내온 조위금과 친족회에서 각출한 부위금 등 1,000만 원을 기금으로 상허기념사업회를 창설했다.

재단법인으로 된 이 사업회는 앞으로 상허의료봉사상 · 농촌문화상 · 장학제도 등의 사업을 벌여, 교육계 · 의료계 · 문화계 등에서 헌신하는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기로 했다.〔『조선일보』 1972년 1월 14일 7면〕

장남 유일윤(劉一潤) 씨, 조위금 1,000만원으로 상허기념사업회 설립

지난 1일 서거한 고 상허 유석창(劉錫昶, 전 건국대 재단이사장) 박사의 장남 유일윤(劉一潤, 27세) 씨는 사회장으로 거행된 유 박사 장례식 때 각계에서 보내온 조위금 1,000만 원을 기금으로 13일 '상허기념사업회'를 설립했다.

재단법인으로 발족된 이 기념사업회는 앞으로 학생들에 대한 장학사업을 벌이고, 이와 함께 농업 · 의료 분야에서 공이 많은 사람에게 '상허의료상' · '상허농촌문화상'을 줄 계획이다.〔『동아일보』 1972년 1월 13일 7면; 『한국일보』 1972년 1월 14일 6면; 『중앙일보』 1972년 1월 13일 7면; 『경향신문』 1972년 1월 13일 7면〕

모임—상허기념사업회(常虛記念事業會) 발기인 총회

상허기념사업회(가칭) 발기인 총회: 하오 2시, 건대 대강당(장안동)〔『한국일보』 1972년 3월 29일 8면〕

추도사

이우범(재단 상무이사, 法博)

오늘 상허 선생님 1주기 추도식을 엄수함에 있어서 영령 앞에 삼가 아뢰나이다.

세월 흐름이 참으로 빨라서 선생님이 유명을 달리하신지 어언 1년이 되었습니다. 날이 가고 달이 갈수록 선생님의 위덕(偉德)을 추모하는 마음 한결 더 심절(深切)해짐을 금할 수 없습니다.

상허 선생님 이 자리에는 생존 시에 극진히 사랑하시며 돌보시던 유족과 친지 그리고, 건국대학원 산하 각급 학교 사업체 등의 임원과 교직원, 또 수많은 동문들과 여러 인사들께서 선생님이 27년 동안 하루같이 가꾸어 오신 장안캠퍼스 건대 경내에 말없이 고요히 누워계신 묘소 앞에 모두가 경건한 마음으로 숙연히 머리 숙여 모여 있습니다.

선생(先生)님이 70평생을 이 나라 민족과 국가(國家)를 위하여 경의전(京醫專)을 졸업(卒業)하신 뒤

에는 빈궁한 환자들에 인술(仁術)을 베풀어 구료(救療)해 오셨고 조국의 광복(光復)이 되자 인재양성(人材養成)을 위하여 교육사업(敎育事業)에 전심(專心) 치력(致力)하시어 우리 건국대학교(建國大學校)를 이와 같이 기반을 공고(鞏固)히 마련하셨고, 또 만년(晩年)에는 한국농촌중흥사업(韓國農村中興事業)의 선도적 선구자로서 겨레의 스승이시며 구원(久遠)의 본보기로서 만인(萬人)의 가슴속에 지도적(指導的) 사표(師表)로서 새겨져 있는 상허 선생(常虛先生)님. 만근(挽近) 경향각지(京鄕各地)에서 활발(活潑)히 실천되고 있는 '새마을'운동도 일찍이 선생님께서 역설(力說)하신 『이천년대(二千年代)의 한국농업(韓國農業)의 미래상(未來像)』이나 『조용한 혁명(革命)』 저서중(著書中)에 그 원리(原理)가 저술(著術)되어 있는 것으로서 선견지명(先見之明)과 원대(遠大)하신 포부에 대하여 다시금 찬사(讚辭)를 아끼지 않는 바입니다.

오호(嗚呼)라. 인생(人生)이 이 세상(世上)에 생(生)을 받은 시간(時間)부터 이른바 인간고해(人間苦海)에서 각자(各自) 맡은 바 직책(職責)과 사명(使命)을 다하려고 동분서주(東奔西走)하다가 끝으로 무정(無情)이 닥쳐오면 생자필멸(生者必滅)이 인생상도(人生常道)라고 하였지만 곰곰이 생각하면 이 춘몽(春夢)과 같은 허무감(虛無感)이 가슴에 복바쳐 비통(悲痛)을 금할 바 없습니다.

선생님 춘추(春秋)를 일컬어 고희(古稀)라 하셨지만 이 땅에 아직도 하실 일이 태산(泰山)같고 선생님의 가르치심이 한층 더 아쉬운 이때인 만큼 저희들의 슬픔은 한층 더 하오며 따라서 추모(追慕)하는 심정(心情)도 더욱 간절(懇切)합니다.

선생님께서 혈육(血肉) 못지않게 돌보시던 우리 건국(建國)대학교는 오는 5월 15일로 창립(創立) 27주년을 맞이하며 1968년 봄에 개교한 건국(建國)중학교는 6개년의 순조로운 성장을 보아 제3회 졸업생을 불일내(不日內)에 배출하게 됩니다.

대학교는 물론이고 중학교에 있어서도 금춘(今春) 졸업반 학생들은 선생님 생존시에 말씀하신 훈화(訓話)와 교시(校是) 성신의(成信義)의 뜻을 받들어 졸업 후에 사회에서 봉사하거나 상급학교에 진학하거나 간(間)에 선생님의 유훈을 가슴에 깊이 간직하고 교문을 나가리라 믿습니다.

상허 선생(常虛先生)님. 선생님께서 생존시(生存時)에 수립(樹立)하신 학교발전(學校發展)을 위한 단기계획 · 중기계획 내지는 장기계획까지를 말씀하신 시책(施策)에 대하여는 재정계획(財政計劃)을 감안하면서 하나씩 들썩 실천(實踐)에 옮겨가고 있습니다.

① 선생(先生)님 생존시(生存時)에 착공했던 실내체육관 연 9백여 평 건물(建物)이 지난봄에 준공(竣工)되어 유용(有用)하게 활용(活用)되어 가고 있어 체육인(體育人)의 찬사가 많으며

② 평소(平素)에 말씀하시던 공과대학 교사(工科大學校舍) 증축공사도 연건평 약 7백여 평의 설계(設計)로서 제1차공사(第1次工事) 시공(施工)은 오는 4 · 5월경에 준공사용케 될 줄 압니다.

다음으로,

③ 종합농장(綜合農場) 후보지(後補地)의 물색을 위하여 여러 해 두고 저희들과 함께 변두리 여러 곳을 돌아보시면서 적지(適地)를 구(求)하기 어려워서 애쓰시던 농장설치(農場設置)는 파주군 천현면 소재(坡州郡泉峴面所在) 목장지대(牧場地帶)가 그후 교통면(交通面)에서나 그 지방(地方)의 안전지대화(安全地帶化)됨에 따라 여건이 호전되어 이곳을 종합농장(綜合農場)으로 확정(確定)하고 지난 6월 7월 2개(個)월여에 걸쳐서 기본(基本) 삼각측량(三角測量)이 완료(完了)되었고 제반도면(諸般圖面)이 작성(作成)되었기에 금춘(今春)에 일부(一部) 도로망(道路網)과 정지작업 등(整地作業等)을 시행하여 금추(今秋)까지에는 목장(牧場)을 비롯하여 축산대학(畜産大學)과 농과대학(農科大學)의 실습단지(實習團地)와 지상시설(地上施設)을 갖추어 종합농장(綜合農場)으로서 면상(面像)을 구비(具備)시키되 면적(面積)도 더 확장(擴張)시켜 약(約) 60만 평(坪) 내외(內外)로 하여 기본재산(基本財産) 가치증식면(價値增殖面)도 아울러 계획중(計劃中)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④ 학생기숙사(學生寄宿舍)의 신축을 계획(計劃)하여 우선 약 9백평 연건평규모로 설계 중에 있습니다. 재정면(財政面)의 전환이 추진(推進) 되는대로 건설하려 합니다. 부지는 이사장(理事長)님 총장(總長)님과 함께 현지답사(現地踏査)하여 내정(內定)했습니다.

⑤ 73학년도(七三學年度)의 대학교(大學校) 학과(學科) 편제에 있어서는 선생(先生)님 생존시(生存時)에 뜻하신 바를 감안(勘案)하여 지난 9월(九月)에 감독관청(監督官廳)에 신청했던 바 결과적(結果的)으로 이부대학(二部大學)에 무역학과(貿易學科)가 신설(新設)되었고 가정대학(家政大學)에 음악과(音樂科) 신설 등이 용인(容認)되었으며 신규정원(新規定員) 30명(三十名)의 증원(增員)을 받았으며 농과대학(農科大學)의 농업토목학과(農業土木學科)의 부활(復活)을 보았고 축산대학(畜産大學)의 사료학과(飼料學科)를 축산경영학과(畜産經營學科)로 개편하는 외에 한 두 학과(學科)의 종합개편이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⑥ 재단산하(財團傘下)의 각사업장(各事業場)에 있어서는 작년(昨年) 전반재계(全般財界)의 금융경색(金融哽塞)으로 인하여 자금(資金)회전에 애로(隘路)가 컸습니다만 관계직원(關係職員)들이 성의(誠意)를 다하여 운영(運營)에 노력(努力)했음으로 하여 큰 지장(支障)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묘소(墓所) 앞에 모신 존영(尊影)에 지척(咫尺)함에 올리고 싶은 사연(事緣)이 많습니다마는 다음 식순절차(式順節次)도 있기에 이만 끝이려합니다.

끝으로 우리 건대인(建大人)들과 선생(先生)님의 동지(同志) 여러분 그리고 관계인사(關係人士)들은 힘을 모아 상허 선생(常虛先生)님의 거룩하신 유지(遺志)를 받들어 장안(長安)동산을 더욱 알차게 가꾸며 교육시책(敎育施策)을 충실(充實)히 확충신장(擴充伸長)되도록 총화(總和)로서 매진(邁進)할 것을 일동(一同)을 대신(代身)하여 경건한 마음으로 영전(靈前)에 다짐하오니 재천(在天)하신 영령(英靈)이시어 굽어 살펴주옵소서.

삼가 상허 선생(常虛先生)님의 끝없는 명복을 비나이다.

1973년 1월 1일

〔『건대신문』 1973년 1월 3일〕

추도사(追悼辭)

유달영(柳達永, 농업기술자협회총재, 農博)

오늘 신정(新正) 첫날에 선생을 가까이 뫼셔온 친지들이 추모(追慕)의 정을 누를 길이 없어 여기 이렇게 모여 명복을 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들이 서있는 이 넓은 지대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황무한 언덕과 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선생의 탁월한 예지와 정열에 의해서 수많은 영재를 길러내는 웅대한 학원으로 바뀌었습니다. 앞으로 연년세세(年年歲歲) 이 나라와 세계의 번영을 위해서 공헌할 인재들이 배출(輩出)될 것을 생각하면서 자못 감개가 무량합니다.

선생은 우리나라 5천년 역사에서도 가장 험난한 고비에서 한 생을 사는 동안에 가지가지의 시련으로 정련된 인격이었습니다. 선생의 먼 앞날을 내다보는 슬기와 소신에 따라 줄기차게 나아가는 용기와 친지들에 대한 깊은 신의는 모두다 이 민족이 나라를 사랑하는 성실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선생은 다정다감(多情多感)하고 자애에 넘치는 가장(家長)으로 또 자비로운 인술자(仁術者)로 그리고 뜨겁고도 폭넓은 교육자(敎育者)로 전국민중(全國民衆)의 존경을 받았습니다. 더욱이 저는 선생을 농촌(農村)운동의 둘도 없는 동지로 가까이 모셔왔고 또 깊이 존경해온 것이었습니다.

재건국민운동이 민간운동의 사단법인체(社團法人體)로 바뀐 다음에 제가 첫 번째의 책임을 맡게 되었을 때에 물심(物心)양면으로 극심한 신고(辛苦)을 겪으면서 동분서주하고 있을 무렵에도 선생은 우월(友月) 김활란(金活蘭) 박사와 함께 운영을 함께 맡아서 끊임없이 격려해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오늘에 전국적으로 놀라운 성과를 거두고 있는 농촌신용조합인 마을금고와 농촌에서 진학하지 못하는 수십만 소년소녀들의 교육기관인 재건학교를 궤도에 올릴 수가 있었습니다.

선생(先生)이 전국(全國)의 중견농민(中堅農民)들로 구성된 전국농업기술자협회(全國農業技術者協會)의 총재로 추대되어 8년(八年) 동안 정열(情熱)을 기우려 가실 때에도 저는 선생(先生)의 특별한 아낌을 받아서 지기(知己)의 한 사람으로 함께 걱정하고 함께 뛰어다니고 했던 것입니다.

만년(晩年)에 선생(先生)의 확고(確固)한 신념(信念)은 복지농촌(福祉農村)을 성취하는 길이가 나라의 번영의 바탕이며 통일(統一)의 초석(礎石)이라는데 집약(集約)되어 있었습니다. 농민(農民)의 정신(精神)혁명, 기술혁명, 생활(生活)혁명의 삼대(三大)혁명을 완수하고자 만여(萬餘)의 협회원(協會員)을 선도적 정예(精銳)로 육성(育成)하기에 전력(全力)을 기우렸습니다. 오늘의 건국대학교(建國大學校)의 축산대학(畜産大學) 농과대학(農科大學)이 두드러진 이름을 얻게 된 연유(緣由)도 상허(常虛) 선생의 이러한 신념(信念)에 의한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나라의 역사(歷史)의 전개(展開)되는 방향을 바라볼 때에 선생(先生)의 소신(所信)의 명철(明哲)함을 다시 한번 되씹게 됩니다. 그리고 선생(先生)이 오늘 생존(生存)해 계신다면 농촌복지화(農村福祉化) 사업에 더욱 뜨거운 정열(情熱)을 불태울 것이 분명합니다. 불초(不肖) 본인(本人)은 선생의 뒤를 이어 전국농업기술자협회(全國農業技術者協會)의 중책(重責)을 맡게 되어 자신의 무력함을 탄식하면서 선생의 큰 역량(力量)을 더욱 우러러봅니다.

인생(人生)은 아침 이슬처럼 무상(無常)한 것이지마는 숭고(崇高)한 이념(理念)은 영원히 살아서 자라는 것입니다. 선생의 육체는 한줌 흙으로 쓰러졌지만 선생(先生)의 정신은 더욱 뚜렷하게 힘차게 선생의 사업을 이어받은 동지(同志)들의 가슴속에 살아서 자라고 있습니다. 선생(先生)의 사업(事業)을 계승한 사람들의 최대(最大)의 책임(責任)과 의무(義務)는 선생의 이념을 최대한으로 살려서 발전(發展)시키는데 성실(誠實)을 다하는 일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세월(歲月)도 흐르고 역사(歷史)도 흐릅니다. 선생(先生)의 큰 유업(遺業)은 세월이 흐를수록 역사(歷史)가 흐를수록 강(江)물처럼 불어나서 이 나라의 번영을 뒷받침할 것이 틀림없습니다. 선생(先生)의 첫 기일(忌日)을 맞아서 친지(親知)들과 함께 다할 수 없는 추모(追慕)의 정(情)의 일단(一端)을 선생(先生)의 영전(靈前)에 사뢰면서 합장(合掌)하여 명복(冥福)을 빕니다.『건대신문』 1973년 1월 3일)

추도사(追悼辭)

건국대학교 동문회장 이광훈(李光勳)

불초(不肖) 소생(小生) 이광훈(李光勳)은 2만(萬) 동문(同門)을 대신하여 삼가 읍(泣)하며 선생님의 영전(靈前)에 아뢰옵나이다. 지난 해 오늘 선생님의 영전(靈前)에 엎드려 호곡(呼哭)하던 것이 어제와 같은데 이제 1주기 추도식을 갖게 되니 추모의 정(情) 다시 새로워지며 흐르는 눈물을 금할 수 없나이다.

평생(平生)을 함께 지내던 사이일지라도 유명을 달리 하면 정(情)이 멀어지다고 하거늘 이제 선생님을 여읜지 1년(年)이 지난 오늘에는 오히려 선생님의 부음을 들었을 때보다 더 애통함을 느끼오니 그 이유가 무엇이옵니까?

이제 소생(小生)은 선생님의 충의(忠義)를 추모하옵나니 일찍이 왜군의 총칼을 두려워하지 않으셨으며, 선생님의 대의(大義)를 추모하옵나니 가산(家産)을 돌보지 않으시고 공리(公利)를 위하여 헌신(獻身)하셨으며, 선생님의 인술(仁術)을 추모하옵나니 가난한 형제(兄弟)를 병마(病魔)로부터 구하여 주시었으며, 선생님의 문재(文才)를 추모하옵나니 제세안민(濟世安民)의 글을 써서 농민을 깨우치셨으며, 선생님의 초지(礁志)를 추모하옵나니 장안벌에 이 학원(學園)을 건설하시었습니다. 비록 수(壽)는 70에 마치시었으나 그 이름은 죽백(竹帛)에 드리워 백세(百世)에 남기셨으니 선생님을 추모하는 마음 더욱 애끓는 듯 하옵나이다.

이제 1주기를 당하옴에 온 천하가 흐느끼는 듯하오이다. 유족(遺族)들은 애타게 울고 2만여 동문은 옷깃을 적시옵나이다.

돌이켜 생각하면 선생님께서 살다가신 그 일생(一生)은 저희 문하생(門下生)에게는 너무도 깊은 교훈을 남겨주시었습니다. 청소년(靑少年) 시절에는 남만주(南滿洲)의 찬바람, 눈서리 속에서 조국의 광복을 위하여 싸우시다가 장년(長年)에는 국민보건(國民保健)을 위하여 헌신하시었으니 애국지사의 생활

이 오죽이나 험난하시었습니까? 해방과 더불어 이 민족은 이제 아늑한 평화(平和)가 찾아오고 선생님 또한 그 고난의 짐을 벗으리라 믿었사오니 오히려 교육(教育)의 고달픔이 전보다 더 하였으니 이는 국민교육을 발흥(勃興)시키려던 선생님의 끝없는 정열 때문이었습니다.

해방이 되던 이듬해 그 혼란 속에서도 조선정치학관(朝鮮政治學館)을 설립하시어 대건국(大建國)의 터전을 마련하시었으며, 6 · 25의 혼란 중에는 찬바람 몰아치는 구덕산(九德山) 기슭에서 몇 장의 담요로써 추위를 이기시며 후학(後學)을 가르치시던 선생님의 건학정신(建學精神)을 어이 잊으오리까? 수복(收復) 이후에는 건국대학교(建國大學校)의 승격과 함께 쏟으신 정열이며, 농촌지역사회(農村地域社會)의 복지향상(向上)을 위하여 주야로 노심초사(勞心焦思)하시던 그 고난의 칠십평생(七十平生)을 생각함에 불초(不肖) 소생(小生)들은 송구한 마음이 앞을 가려 차마 고개를 들지 못하겠나이다.

선생님께오서 그 뜻을 모두 펴시지 못하시고 중도(中途)에서 타계(他界)하시었으니 그 여한(餘恨)인들 오죽하리오마는, 선생님이시여, 지하(地下)에서나마 고이 잠드소서. 선생님을 여읜 저희는 그 추모의 정을 모아 대건국(大建國)의 발전을 위하여 분골쇄신(粉骨碎身)하고 있아오며, 유족(遺族)들은 선생님의 유업(遺業)을 잇기 위하여 한마음, 한뜻으로 일하고 있아옵나이다. 이러한 모든 일들은 이 터전의 덕(德)이 아니오라 오로지 선생님께오서 생전(生前) 끼치신 그 가르치심의 열매 임을 어이 한시라도 잊으오리까?

생전에 그토록 걱정하시던 약진건대(躍進建大)의 꿈은 저희 후학(後學)들의 가슴 속 깊이 연면(連綿)히 흐르고 있어오며 후진적(後進的) 농촌(農村)을 부흥시키려던 뜻이며 가난한 이웃을 보살피시던 구료(救療)의 정신(情神)은 각기 맡은 바 후학(後學)들의 손에 의하여 쉬임이 없이 이어지고 있사오니 이 어찌 미쁜 일이 아니오리까?

인생(人生)이 한번 나서 헤어짐이 정리(定理)이거늘 선생님의 영전에 엎드려 흐느끼는 이 2만(萬) 후학(後學)들의 가슴은 날이 갈수록 애틋함을 금할 수 없아옵나이다.

어버이를 잃은 저희들의 마음을 헤아리사 저 세상에서나마 저희들의 가는 길을 지켜 보옵소서. 이제 선생님의 영전에 분향(焚香)하고 이토록 슬피 조문(吊門)함에 눈물이 앞을 가려 더 이상 아뢸 바를 모르겠나이다. 바라옵건데 영령이시여 고히 잠드소서.〔『건대신문』 1973년 1월 3일〕

추도사(追悼辭)

총학생회장 안승갑(安承甲)

박사(博士)님 영면(永眠)하신지 1년(年)
날이 갈수록 영원(永遠)한 유훈(遺訓)

이 땅에 오시어 뜻을 세우시고 세우신 뜻 펴시기에 70여(餘) 성상(星霜)을 다 바치시고 이제 막 그 꽃이 피려 할 때 홀연히 타계(他界)하시어 저희 가슴에 애틋하고 안타까운 심정(心情) 걷잡을 수 없게 하시더니 어느새 1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이 1년은 예사로운 1년의 시간은 아니었습니다. 물론 어느 누구

에겐들 1년이라는 시간들이 예사롭겠습니까마는 선생님이 가신 뒤의 1년은 또 다른 의미를 저희에게 주는 것이었습니다. 선생님이 가심은 저희 건국(建國)의 공기인 건학정신(建學精神)의 감인 듯 싶었으며 성(誠) · 신(信) · 의(義)의 사표(師表)이신 선생님의 가심은 성(誠) · 신(信) · 의(義)가 전혀 미달된 저희들에게 내리신 형벌 같았습니다.

이렇듯 죄(罪)스러움고 송구스러운 심정(心情)은 때로는 미거한 저희들을 두고 가신 선생님께 대한 원망으로도 변하고 때로는 저희들의 불만에 대한 선생님의 질책으로도 바뀌고 하는 번민과 불면의 밤으로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번민과 불면의 밤을 계속하던 어느날 선생님께서의 가심이 건학정신(建學精神)의 사라짐이 아니오, 선생님이 주신 '성 · 신 · 의' 교훈을 앗아감이 아니라 성 · 신 · 의로 가꾸고 다듬어 건학정신(建學精神)을 더욱 찬란히 빛나게 하여 영원히 지지 않는 태양(太陽)으로 만들라는 더욱 큰 교훈(教訓)이시며 저희들에게 베푸신 자랑스럽고도 영광된 과업임을 알겠습니다.

그리하여 제법 부지런한 척도 해보고 성실한 척도 해보았습니다만 상허 선생님 어찌하면 되겠습니까. 선생님께 떳떳한 일 한 가지도 변변히 사뢸 수 없으니, 그러나 선생님! 저희들을 더욱 더 보살펴주십시오. 저희들은 아직도 선생님께 괴로움을 끼쳐야만 될 것 같습니다. 선생님의 보살핌이 끊이지 않으시는 한 저희들 모두 합심협력하여 분골쇄신하여 선생님의 뜻을 기리며 길이 보존하겠습니다. 상허 선생님! 마음 편하시도록 할만한 일도 제대로 못하여 송구스러운 마음 금할 수 없으나 그렇더라도 너그러이 여기시어 부디 평안(平安)하소서.〔『건대신문』 1973년 1월 3일〕

추도사

오늘 서기 1972년 12월 20일은 구력으로 동지달 보름날입니다. 금년 정월 초하룻날이 구력으로 작년 동지달 보름날이며, 청천벽력과 같은 총재님의 부보를 듣고 땅을 치며 통곡한 일이 엊그제 같사온데 벌써 1주기를 맞이하였습니다.

오호! 세월은 빠르고 무상하기도 합니다.

유석창(劉錫昶) 총재님! 진정으로 흔백이 있어 이 자리를 지켜보고 계시옵니까?

1600만 농민을 대표하여 제12회 전국농업기술자대회의 이름아래 여기 회우동지들은 다시 모였습니다. 어이하여 총재님은 이 자리에 함께 계시지 않사옵니까? 어디 가야 그 인자하신 모습을 다시 뵈올 수 있사옵니까?

아무리 마음을 다시 가다듬어도 우리는 총재님의 서거를 믿을 수가 없습니다. 이 시각에도 저 뒷문으로 만면에 웃음을 머금고 손을 흔들어 보이시며 성큼 들어서실 것만 같사옵니다.

유석창 총재님께서는 1년 전 이맘때 비상사태의 선언아래에서 제12회 전국농업기술자대회의 행사준

비를 입원 중에 계시면서 진두지휘하시고, 대회 당일은 병상을 박차고 일어나 시민회관 단상에 의연히 서시어 조금 전에 녹음으로 들은 대회사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로부터 열흘 뒤에 작고(作故)하실 줄 누가 꿈엔들 상상할 수 있었으며 그 대회사가 마지막 연설이 될 줄이야 누가 미리 짐작을 하였으리오.

상허 선생님! 그 모습은 사진으로 저기 계시고 육성(肉声)은 녹음으로 들을 수가 있습니다만, 불러도 불러도 어찌 대답이 없으시옵니까? 하필이면 설날 아침에 세배도 안 받으시고 홀연히 그처럼 가시었사옵니까? 작년 그믐에 펴낸 우리 보(報)에다 신년사를 미리 내놓으시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새해를 맞이하면서 지난 역사를 반성하고 현실을 응시할 때, 국민 모두가 그야말로 총화의 힘을 길러서 나라와 겨레를 보위하여야 할 때 가 왔습니다. 국민의 힘이 무력하고 총화를 발휘하지 못하였을 때 역사는 오도되었고 슬픈 비극이 되풀이되었음을 역사는 교훈으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역사 속의 농민은 무력하였고 소외되어 왔으나 결코 오늘날의 농민은 역사의 고아가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들이 뜻을 함께하여 이 운동에 참여하여 왔고 나아가려는 것은 특정한 개인의 영달이나 정치적인 야욕을 채우기 위한 수단이 되어서는 안되겠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이제까지 벌여온 운동을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야 할 것인가를 새해를 맞는 오늘 전국의 회우동지들과 함께 조용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말씀은 결코 우리 운동의 방향전환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내건 우리들의 기치는 때를 만나 더욱 선명하게 빛나고 있으니, 조용한 가운데 전진만이 오직 우리들의 할 일입니다. 전진을 위해서 대오를 정열하고 좌절된 일군에게는 용기와 희망을 불어넣어 참여시켜 생산운동을 통한 자조자립과 민주협동의 힘을 길러 가야 하겠습니다.

먼저 이러한 운동을 위해서는 자금이 필요합니다. 이 자금이야말로 자주독립성이 보장되어야 하겠습니다. 보조금에 의한 농촌운동과 남의 힘에 끌려 다니는 운동은 그 힘과 돈이 떨어질 때 그 수명이 다하는 것입니다. 철저한 이념으로 뭉치고 추진되어온 재단의 일을 마무리해서 우리 운동의 반석으로 삼자는 것이 이해의 가장 큰 과업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제 새삼스레 인용하여 되새겨본 총재님의 신년사의 몇 귀절입니다. 우리 운동의 반석이 될 재단의 일은 이제 다시 원점에서 혼미를 되풀이하고 있으며 제 다리로, 제 힘으로 서지 못하고 떠받치고 있던 기둥이 무너지니 망연자실 할 뿐이었습니다.

밝아 오든 새해아침의 벅찬 희망은 절망으로 변하고 소망과 기쁨은 슬픔으로 화하여 하루 아침에 우리들은 목자 잃은 광야의 양떼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상허 유석창 총재님!

이제 유명을 달리한지 1주기를 맞아 영전에 서니 오직 부끄러울 뿐입니다. 우리는 어디로 가야하며 서

야 할 땅이 어디인지 분명히 좀 일러주십시오. 어이하여 아무 말이 없으십니까? 우리들의 현실은 너무나 절박합니다. 1년 동안 크고 작은 일에 부딪칠 때마다 총재님께서 이끌어 오신 영도의 힘이 얼마나 컸던가를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총재님의 품안에 있으면 먹지 않아도 배고픔을 모르며 총재님 그늘에서는 흉허물도 가리어지더니, 이제 설렁한 사무실에 찌그러진 책상(冊床)만이 초라합니다.

10년 전에 전국농업기술자대회 운동을 함께 하자고 나서실 때, 저는 학교 기업가로 성공하신 분으로밖에는 알지 못하였습니다. 전국농업기술자협회를 조직하고 앞장서실 때 처음에는 참뜻을 아무도 잘알지 못하였습니다. 10년 공들여 그 뜻이 온 강산에 겨우 퍼지고, 우리들 가슴마다에 불을 켜주시고 그 불들이 모여 타오르기도 전에 가시었으니, 분하고 원통한 일이옵니다.

도 지부(道支部)를 만든다. 도 대회(道大会)를 연다. 강연회를 베푼다 하여 하루도 평안하신 날이 없이 엄동설한이건 6월 염천(炎天)이건 비바람을 가리지 않으시고, 구도자(求道者)의 고행을 기쁜 마음으로 실천하시며 내 몸을 돌보지 않으셨습니다.

벌써 몇 해 전 일이 옵니까. 대구에서 진주에 이르는 험한 길, 자정이 가까워 당도하시어 설사로 잠 한 잠 못 주무시고, 새벽 같이 삼천포 행사에 임석(臨席)하시고, 그날로 삼천포에서 마산으로 부산에 이르니, 통행금지 시간이 넘어 자동차가 없어서, 동래 숙소에 가지 못하고 부산진경찰서를 찾아가서 사정사정하며 고생하신 일을 아는 이 몇몇이며, 제주도 서귀포 여사에서 회우동지들과 어울려 노래를 불러주신 일도 있었습니다. 이제는 아름다운 추억이 되었습니다.

누가 알아주건 말건, 거들떠보건 말건 온갖 정성과 정열을 우리 운동을 위해서 쏟아 주시고, 이념을 함께 한다는 일, 동지의 의리와 사랑이 어떠하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가르치고 기르신 제자들의 결혼주례는 사양하시며, 회우동지들 자제의 결혼주례는 기꺼이 맡으셔서 강원도 춘천에까지 달려가시기도 하시며, 회우동지들이 찾아왔다면 다른 손님 물리치고 따뜻하게 맞아주시며 신념과 용기를 일깨워주시던 그 모습, 이제 어디 가서 다시 뵈올 수 있사옵니까?

자나 깨나 우리 운동을 위한 자금 마련 걱정을 하시다가, 상허농촌복지재단(常虛農村福祉財團) 발기의 일을 뒤늦게 아시고 크게 출발할 것을 벼르고 벼르시다 시일 도과되니 작게라도 일단 마무리해서 이소성대(以小成大)하자고 친서(親書)로 약속(約束)주신 600만원의 기금도 재단 마무리도 허공에 떠있지만, 우리는 추호도 서운하게 생각하지 않사오며, 그 누구를 원망하지도 않사옵니다.

구천(九泉)에 계시어 이 일만은 더 염려하시지 말아주십시오. 유 총재님께서 우리를 영도하시어 남겨주신 물질적인 유산은 아무것도 없다고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정신적인 유산은 측량키 어려울 만큼 크고 많으며, 세월이 흐를수록 이 강산 마을 마을에 꽃피어 날것입니다. 이번 제13회 전국대회는 그야말로 우리 힘만으로 행사준비를 하였사오며, 총재님의 유업과 유지를 받들고 이어가자고 전국에서 모인 동지들이 이처럼 영전(靈前)에 도열(徒列)하여 있습니다.

이제 목이 터져라 불러 봐도 대답없는 유 총재님! 상허 선생님! 가신지 1년 동안에 한없이 사랑스럽고 한없이 원망스럽다던 조국은 새로운 역사의 장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토록 기원하시던 평화적인 남북통일을 향한 대화가 시작되었고 10월유신 과업이 한창 추진되고 있습니다. 국제정세에도 많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이처럼 국가적으로 어려운 때에 유 총재님께서 살아계셨더라면 얼마나 든든하고 미더울까 하는 아쉬운 마음 참을 수 없습니다.

특히 새마을운동은 이미 10년 전, 아니 그 이전부터 총재님께서 주장하신 바이며, 이념이요 사상이었습니다. 총재님께서 남기고 가신 저서인『서기 2천년대를 바라보는 한국농업의 미래상』과『조용한 혁명』은 오늘날 새마을운동의 금과옥조와 같은 경전이 되었습니다. 새마을운동의 성패는 총재님께서 가르치신 삼위일체적인 개발을 올바르게 실천하느냐에 달려있다고 믿습니다.

지금도 우리들의 귓전을 울리고 있습니다.

농민의 정신혁명으로 민주적인 협동화를 이룩하라!

농업의 기술혁명으로 과학적인 전문화를 이룩하라!

농촌의 생활혁명으로 합리적인 복지화를 이룩하라!

선도농가들이여 일어서라!

뭉쳐라!

앞서나가라고 오른손을 치켜드시고 우람하게 외치는 말씀이 귓전을 울리고 있습니다.

유석창 총재님은 죽어서 죽은 것이 아니라 죽어서 우리들 가슴속에 영원히 살아계십니다. 우리는 결코 중단하지 않을 것이며 굳게 뭉쳐서 그 뜻 받들고 가르치신 그길로 나아갈 것입니다. 조용한 혁명을 기필코 완수할 것입니다.

상허 유석창 총재님! 언제나 우리 위에 계시며 우리를 지켜주시고 고이고이 잠드소서.

〈강경래(姜景来) 배곡(拜哭)〉

〔『농업기술회보』115호, 1973년 2월 11일〕

상허 유석창 박사 1주기 추도식

72년 12월 20일 하오 2시에 건국대학교 대강당에 제단을 마련하고 생전의 모습도 생생한 영정을 모시고 전국의 회우동지 1,500명이 숙연하게 도열하였다. 송재득 사무국장의 사회로 개식이 선언되고 배문고등학교 악대의 진혼곡이 은은히 울려 퍼지는 가운데 고인의 명복을 비는 묵념을 올렸다.

묵념에 이어서 슬픔을 자아내는 조악에 이어 송석도 총재서리는 "13회 전국대회에 즈음에서 우리 천육백만 농민들의 위대한 영도자이셨던 상허 유석창 박사님의 유지와 유업과 유덕을 다시 한 번 되새기며 복받쳐 오르는 슬픔을 참을 길 없으며, 그 뜻과 정신을 길이 이어 받을 것을 전국에서 오신 회우동지들과 함께 다시 한 번 각오와 결의를 새롭게 하는 바입니다."라는 요지의 개식사가 있었고, 이호철(李鎬喆) 부총재는 고인의 70 평생을 통하여 독립운동, 사회사업, 교육사업과 농촌복지화운동에 바친 빛나는 약력보고가 있었다.

기억도 새로운 제12회 전국농업기술자대회 때 서거하시기 불과 두주일 전에 시민회관 단상에 병상을 박차고 나서서 우람하게 외친 대회사의 육성 녹음을 들을 때 장내에는 흐느낌이 번지기 시작하였다.

전국의 회우동지들을 대표하여 전북의 강경래(姜景来) 이사가 울부짖으며 애끊는 추도사를 영전에 올릴 때 온 장내는 울음바다를 이루었다.

사회를 맡은 송재득 국장은 슬픔에 말을 잇지 못하고, 건국대학교 가정대학의 여학생들로 구성된 합창단에 의하여 조가가 불러졌다.

"아직도 깊이 잠든 농민들을 등불을 밝혀들고서 타일러 깨우셨네. … 밤이슬 비바람 온갖 고초마다 않고 참으셨네. 겨레의 참사랑을 몸소 일깨워주신 그리워라, 그 이름 상허 선생님"

헌화에 이어 유족대표 인사는 고인의 장자인 학교법인 건국대학원 유일윤 이사장이 눈물로 전국의 회우동지들에게 간곡한 감사의 인사말이 있었고, 이사들의 분향, 건국대학원의 관계자들의 분향으로 일주기 추도식이 엄수되었다.〔『농업기술회보』115호, 1973년 2월 1일〕

불멸의 구농애국사상(救農愛國思想): 위대한 영도자 상허 유석창 박사 2주기에 붙여

전국농업기술자협회 부총재 송석도(宋錫度)

우리 협회의 창립자이며 우리 농민들의 위대한 영도자, 전 총재 상허 유석창 박사께서 유명(幽明)을 달리한 기일(忌日)을 두 번째 맞이한다.

1972년 설날 아침에 청천벽력과 같은 부보(訃報)에 비통한 몸부림을 치던 일이 엊그제 일 같은데 벌써 730일이란 세월이 흘렀다.

경건한 마음으로 고인의 명복을 빌면서 이제 우리는 영도자를 잃은 슬픔만을 되씹거나 거룩한 유덕(遺德)을 추모만 할 때는 아니다. 우리 모두들의 가슴에 불 켜주신 사명을 재인식하고 고인의 못다 하고 가신 복지농촌 건설의 이상을 기필코 실현하겠다는 각오와 결의를 다짐하는 날로서 2주기를 맞이해야겠다.

유석창 박사의 빛나는 생애와 이루어 놓으신 업적은 오래토록 세대를 이어가면서 귀감이 되어야 하며 나아가서 고인의 전생애를 통한 인생관, 그리고 사상, 철학이 학문적으로 연구되고 정리 기록되는 일이 그 어떤 기념적인 사업보다도 우선되어야 할 줄로 믿는다.

유 총재님의 생애를 간추려 돌이켜 보면 소년시절에 나라 잃은 백성의 설음을 가슴에 못 박고, 가군(家君)을 따라 망명지인 만주벌에서 독립운동에 참가하였고, 일제식민지 치하에서 의학을 전공하여 가난과 질병에 신음하는 동포들의 구료(救療)사업에 청장년기를 보냈으며, 조국 광복의 해방이 되자 모든 지도자들이 파당을 지어 정치권력 투쟁을 벌리고 있을 때도 진정한 지도자의 양성으로 고도의 문화국가를 건설하는 바탕이 될 교육사업을 일으켰다.

교육사업에 있어서도 특히 낙후된 농촌을 부흥시킬 목적으로, 한 대학교 안에 축산대학, 농공대학, 지

역사회개발대학, 농협대학을 두기도 하였었다. 그리하여 오늘날과 같은 명문, 건국대학교를 이루어 국가사회에 동량(棟樑)인 많은 영재를 길러냈다.

인생에 있어서 황혼기라 할 수 있는 60대에 접어들면서 필생의 사업으로서 농촌운동에 앞장 선 것이다. 유석창 박사님의 전생애를 통해서 우리 농민들을 이끌고 농촌운동에 바친 기간이 다른 사업에 비해서 시간적으로는 짧다고 하겠으나, 쏟아 넣은 정력의 분량은 측량하기 어려운 것이다. 그 좋은 실증은 저 유명한 말씀 한마디로 잘 알 수 있다.

"내 여생은 이 나라 농촌의 부흥재건을 위해서 바치며 논두렁을 베고 죽는 영광된 죽음을 택하겠다"고 …….

이 말씀을 또한 바로 실천하고 가셨으니 1971년 12월, 제12회 전국농업기술자대회의 준비과정에 비상사태가 선포되었다. 대회를 하느냐, 못 하느냐—로 모두 당황할 때 병상에서 결연히 대회강행을 지시하시고 모든 행사를 진두에서 지휘하시고, 대회 당일에는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의 병실에서 시민회관 단상에 서시어 대회장으로서 최후가 된 대회사를 하였다.

누구인들 이날로부터 10여 일 뒤에 서거하실 줄 알았으랴.

농업기술자대회를 연다, 시 · 도대회다, 시 · 도지부, 시 · 군지회를 결성한다, 전국의 독농가들을 불러다 특별교육을 시킨다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색안경을 끼고 유석창 박사를 주시하였다. 심지어 측근에서도 이미 이룩해 놓은 많은 일을 든든한 반석 위에 다지고 가꾸며 여생을 편안하게 보내실 일이지, 늘그막에 무슨 농촌부흥이다 하고 지나친 정력을 소모하는 것을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이도 있다고 들었다.

그러나 누가 뭐라고 하건, 색안경을 끼고 보건 말건, 자나 깨나 우리 농민들 잘사는 일과 우리 농촌이 잘 되는 길이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고 앞장서시었다.

상허 유석창 박사를 조국애의 화신이라고 해서 조금도 외람된 표현은 아니다. 함께 회의를 하다가도 '조국'이란 말만 나오면 "한없이 원망스럽고 한없이 사랑스럽다"면서 목이 메이곤 하였다.

70평생을 두고 저토록 많은 일, 자랑스러운 일 이루고 훌륭한 제자를 헤아릴 수 없이 길러냈으나 정치나 권력에 간여하거나 벼슬길에 나서지 않으시고 일생을 오로지 조국과 겨레 사랑으로 일관하셨다.

농촌운동은 한마디로 외로운 몸부림이다. 자주적인 순수한 민주적 농민운동은 구두선(口頭禪)에 불과하다. 천하가 떠들썩하든 농민을 위한, 농촌을 위한 그 많은 운동들은 귀결점이 모두 어디에 이르렀는가. 어떤 특정인이나 파당의 세력구축에 이용당하거나 희생되었다.

우리 협회는 지금까지 세력다툼이나 감투싸움이 없었다. 비창조적이고 비민주적이라고 비웃음을 살지도 모른다. 진실하고 위대한 영도자 아래서는 파쟁이 일어날 수도 있을 수도 없었고 흉허물도 없었다. 그리하여 세상 사람들은 유석창 박사와 우리 협회를 동일시하였고, 유 총재님이 서거하시자 전국농업기술자협회의 운명도 다한 것으로 내다보았다.

모든 것을 유 총재님에게 의지하고 믿고 따라가던 우리들이 영도자를 잃자 눈에 보이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눈에 보이는 유형적인 유산은 아무것도 없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정신적인 유산이 우리로서는 더욱 더 소중한 것이었다.

정신적인 유산이 너무나 크고 깊기 때문에 이 유산을 간추리고 가려내어 이를 원동력으로 삼아 진정한 농촌복지화운동을 힘차게 추진하여 나아가야겠다.

유석창 박사가 생전에 내거신 3대혁명은 시대가 바뀌고 역사는 흘러도 영원히 변치 않을 우리 농민들의 나아갈 길이며 진리인 것이다.

농민의 정신혁명으로 민족적 협동화를 이룩하고

농업의 기술혁명으로 과학적 전문화를 이룩하고

농촌의 생활혁명으로 합리적 복지화를 이룩하자.

그리고 삼위일체적 개발 5단계론과 함께 작금 양년(兩年)에 전국적으로 펼쳐지고 있는 새마을운동이 바로 유 총재님이 주창하신 이른바 '조용한 혁명'이 아니고 무엇인가.

우리는 이제 유석창 박사가 남기고 가신 저서 『서기 2,000년대를 바라보는 한국농업의 미래상』과 『선도농가를 위한 조용한 혁명』을 다시 읽고, 여기에서 우리들의 행동강령을 찾아야 하겠다. 전국에 걸쳐 얽혀 있는 회우 동지들 가슴마다에 켜주신 불은 영원히 꺼지지 않을 것이다. 지난 1년 동안 우리는 유석창 총재님의 살아 생전보다 더 많은 일을 하여 업적을 쌓아올렸다. 이는 바로 유 박사의 신념과 쏟아 넣은 정열이 결코 헛된 것이 아닌 증좌인 것이다.

2주기에 즈음해 건국대학교 구내에 유 총재님의 동상이 동문회가 중심이 되어 유지들의 성금으로 제막되었다. 장한 일로써 선금을 내고 또 애써주신 관계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축하하면서 감사를 드린다. 전국의 회우동지들이 동상 건립에 적극 참여치 못한 것을 서운하게 생각한다. 그리고 죄송하기 그지없다.

유석창 총재님께서 생전에, 그러니깐 1969년에 전국의 뜻있는 회우 동지 333인이 상허농촌복지재단을 발기한 바 있었다. 우리들의 정성과 힘이 모자라서 지금까지 재단을 구성하여 제구실을 못하는 상태에 머물러있음은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이 일에 참여하신 수많은 동지들에게도 미안한 일이다.

그러나 우리는 당장 어려운 살림살이와 사업을 유지 발전시키는 일에 허덕인 나머지 다른 여력이나 여념이 있을 수 없었다. 두 해 동안 버티어 온 일도 대견스럽거니와 모든 사업을 더욱 확충 발전시켰음은 자랑할 만한 일이다. 이는 오직 신임 류달영 총재님께서 힘써 이끌어 주신 덕분이며 구천(九泉)에 계신 유석창 박사님도 흐뭇해하실 줄로 믿는다.

이제 멀지 않아서 우리 협회의 살림살이도 완전 자립이 될 것이며, 상허농촌복지재단도 구성될 것이다. 다양한 사업을 활발하게 버리면서 우리집, 우리회관 건립계획도 추진 중이므로 실현은 시간문제로 남아있다. 성패는 유석창 박사의 유덕과 유업을 유지 계승하여 류달영 총재님을 중심으로 전국의 회우 동지들이 굳게 뭉쳐 전진하는 일뿐이다.

유석창 박사님의 아호가 '상허(常虛)'이다. 지금도 회원들에게서 '상허'의 뜻을 질문 받는 일이 있다. 글자 그래도 해석을 하면 '항상 비어있다'는 말이다. 언젠가 정릉에 기획위원회가 열리었을 때, 기획위원

일동은 '상허'를 호로 하신 유래를 화제로 하였다. 이때 유석창 박사는 먼저 한시(漢時) 한 수를 읊고, 이 시가 이조시대 호국의 승려 서산(西山) 청허대사(淸虛大師)의 시이며, 이 시에서 따왔다고 설명하신다.

만고도성여의질(萬古都成如蟻蛭)
천가호걸약혜계(千家豪傑若醯鷄)
일창명월청허침(一窓明月淸虛枕)
무한송풍운불제(無限松風韻不齊)

"만고의 도성은 개미와 거머리집 같고, 천가의 호걸들은 초혜와 같다. 창가에 청허의 베개에 명월이 비치니, 무한한 솔바람은 그 운이 다르더라"

어설프게나마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다. 이 시 한수에서 우리는 상허 유석창 박사의 우주관과 인생관을 엿볼 수 있다.

그리고 연수 때마다 돈오(頓悟) · 점수(漸修)라는 불교의 말을 곧잘 인용하기도 하였다.

우리들이 벌리고 있는 이 운동은 결코 시류에 편승한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농민대중과 더불어 복지농촌을 실현하는 그 날까지 줄기차게 영원히 이어져 나갈 것이다.(『농업기술회보』 126호, 1974년 1월 1일)

상허(常虛) 선생 2주기(二周忌)에 부쳐

애산(愛山) 이인(李仁)

내가 철이 난지 60여 년을 통해서 선배와 동년배 후배와의 알음과 교분이 많은 애국자가 많았다. 하지만 내가 상허(常虛)선생을 알게 된 것은 종로2가 YMCA 옆에 있는 후락한 건물에서 민중병원을 발기해서 설립할 때부터이다.

가혹한 일제 식민지정책 아래서 한민족이 시달리고 신음하며 호곡이 진천하던 때에 더구나 가열한 일제의 착취로 말미암아 무산대중의 경제적 고통은 경향(京鄕)을 막론하고 가장 심각하였던 때였다.

이 무산대중은 끼니조차 구할 길 없는데다가 질병이 있을 때에는 돈 없이는 치료할 길이 막연해서 원통하게 불구자가 되거나 비명에 횡사하는 일이 허다하였다.

상허(常虛)는 다행이 당시 도규계(刀圭界)의 한사람으로서 국내에서 가장 이름이 높았고 소시때부터 환경적으로도 그러거니와 가장 다정다감하고 의협심이 풍부하였던 분으로 참혹한 국민대중의 눈물겨운 정경을 보고 눈물을 항시 거두지 못하였다.

상허(常虛)는 이 다급한 정경을 보다 못해 민중병원(民衆病院)을 무료 또는 실비로서 국민대중의 질병을 구하기 위하여 팔걷고 나섰던 것이다.

말인즉 당시 서울에서 저명인사들을 망라해서 이 무료구호의 병원을 설립할 것 같이 되었지만 저명인사가 말로는 다소 성원이 없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이렇다 할 도움을 주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상허(常虛)는 침식을 전폐하다시피하면서 무산대중의 치료에 심혈을 기울였던 것이다.

이로 말미암아 많은 무산대중이 구료를 받았고, 이사회의 칭송이 드높았으며 때아닌 활불(活佛)이 다시 나타난 듯한 느낌을 대중은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였다.

사회적으로 아무 도움을 받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일제의 탄압과 시기심이 강렬했던 일제는 민족의식이 풍기는 상허(常虛) 구료사업에 직접 간접 음해와 탄압을 거듭했다. 이점에도 불구하고 상허(常虛)는 갖은 애로와 난관을 극복하면서도 이 사업을 꾸준히 계속하였던 것이다.

나는 상허(常虛)를 민중병원 발기 때부터 교분을 갖고 드문드문 접촉을 가졌으며, 말 안하는 가운데 존경의 도가 드높았던 것이다.

그 몸서리치고 악몽같은 일제의 학정은 지금으로부터 28년 전 물러가자 당시 원만한 인사들은 빈 터전인 이 근역에서 정치적 움직임과 정당 발족에만 여념이 없었건만 상허(常虛)는 그 무엇보다 급한 것은 사람을 구하고 얻는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삼천만 대중 중에 어찌 사람이 없겠는가만은 사람다운 사람 특히 양심 있는 인물, 유능한 인재로서 민족대업(民族大業)에 참여할 이 과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인물을 찾기 힘들었음을 통감하였다.

그렇다고 인물을 찾고 구하지 않을 수 없는 처지이기 하나 속담에 '삼년중병(三年重病)에 칠년(七年) 묵은 쑥'을 구하러 다니는 동안 어느덧 3년 4년, 7, 8년을 허송하고 말아서 결국 중병환자는 치유되지 못하고 불귀의 객이 되었다는 말이 있듯이 묵은 쑥을 구하러 다니는 동안 시간은 낭비되고 현실은 멀어지고 30년 멀어져 이 빈터소리는 영영 황량한 터전이 되고 말 것을 통감한 상허(常虛)는 생각하고 구하러 다니는 것보다는 쑥씨를 파종하는 것이 가장 현명하다고 생각하였다. 결국 이 빈터의 역군을 배양하기 시작하였던 것도 이에 연유한 것이었을 것이다.

앞에서도 말한바와 같이 정치적으로 많은 사람이 활약하는 것을 보고 들었건마는 오직 영재 배양의 일단으로서 정치학관을 창설하여 혼신의 정력과 부단한 노력으로 오늘과 같은 국내유수의 건국(建國)학원을 이룩하기에 이르렀다. 그동안 중첩한 애로난관은 말할 것도 없을 것이거니와 고심, 참담, 침식을 전폐한 것은 물론 일신일가(一身一家)를 전연 돌보지 아니하였다. 이 건대(建大)의 그간에 배출한 수많은 영재는 이 나라 각 분야에서 눈부신 활약을 보이고 있음은 자타가 공인하는 바이고 해방 이래 28년간 이 나라 건설에 커다란 공헌을 하고 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상허(常虛)의 부단한 노력과 고심, 남이 알지 못할 눈물겨운 정경도 항시 떠나지 않았었던 결과라고 보아야 마땅할 것이다.

상허(常虛)가 서거한 몇해 전만해도 농공병진이 이 나라의 앞서야 할 일임을 뜻있는 사람은 다 말하고 있으나 이것을 말에 그치지 않고 실천적으로 구현하기 위해 이 나라 농촌에 유능한 독농가와 일꾼을 배출하기 위해서 한국농업기술자 협회를 창설해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건설도상국가에 커다란 업적을 남기게 하였던 것이다.

흔히 애국애족은 정신적으로만 하는 것같이 일반사회가 인식을 하고 있다. 정신적 애국애족도 없어서는 안될 것이지마는 애국애족을 말로만 앞세우고 구두선이 되어서는 안되는 것이 아닐까. 상허(常虛)는 정신적 뿐만 아니라 실천적으로 실제로 애국애족을 구현했던 것이고 가장 의지적이고 정열적이었다. 하나님은 이 불우한 우리겨레에 상허를 일하러 오라고 내보낸 것이 아니었을까. 그래서인지 상허(常虛)는 70여 평생을 일만하다가 간 분이라고 단언할 수 있다.

이 우리 근역에서 참다운 애국자를 찾는다면 그 누구보다 앞서거니 뒤서거니 간 많은 애국자 중에서도 가장 참답고도 위대한 애국자였으며 우리 3천만 대중의 가슴에 새겨져 잊혀지지 못할 애국자는 상허(常虛) 선생임을 서슴치 않고 말할 수 있다. 국내외적으로 다사다난한 이때 상허(常虛)를 우리 민족에서 잃어버린 지 2년을 맞이하게 됨에 둥지였던 상허(常虛)의 가슴을 다시 생각하지 않을 수 있으랴...

상허(常虛)가 더 좀 살았더라면 우리가 이다지 고단하고 가난하지 아니하였을 것을 상도하자 일층 추모의 정이 간절하다. 〔『건대신문』 1974년 1월 2일〕

고 상허(常虛) 유석창(劉錫昶) 박사 추념사(追念辭)

윤치영(尹致暎)

고(故) 상허(常虛) 유석창(劉錫昶) 박사 2주기(二周忌)를 맞이하여 다시 한 번 더 고인을 추모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사람이 한 번 나서 다시 가는 것은 대자연의 섭리이지만 상허(常虛) 유석창(劉錫昶) 박사를 잘 알고 있는 우리로서는 선생같은 훌륭한 반려자(伴侶者)를 잃었고 젊은 학생(學生)들은 존경하는 스승을 잃어버리게 된 것을 매우 슬프게 생각하였던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갔지만 우리나라의 이러한 여건에 이러한 훌륭한 일꾼을 좀 더 오래도록 나라와 겨레를 위하여 우리와 함께 머무르게 하여 주시지 않은 자연의 섭리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 간절합니다.

오늘을 맞아 새삼 상허 선생(常虛先生)의 걸어오신 발자취를 더듬어 보건대 어떤 말의 형식으로도 갖출 수 없는 인간으로서 가장 숭고(崇高)한 사명감을 가지시고 고원한 이상을 향하여 힘차게 또 부지런히 전진 노력하신 결과 보람있는 많은 업적을 쌓으셨습니다.

일찍이 나라와 겨레의 앞날을 위하여 허틀어진 사회에서도 인간의 존엄성을 지킬 줄 알고 가장 참되게 살아가는 인간을 길러내고 있는 건국학원(建國學園)을 창설하시어 우리나라의 만년대계를 위하여 후세(後世) 교육(敎育)에 전념하신 높은 선견과 어지러운 이 형편에 진리를 찾고 배우는 사람다운 사람을 만들어 내는 사람의 공장(工場)을 만드셨습니다.

인간(人間)이 세상에 나서 자아를 인식하고 자기의 분수를 깨닫고 할 일을 다 하고 간 사람이 그 몇이나 되겠습니까? 지극히 어려운 일이요, 하고자 하나 되어지지 않는 일인 것입니다.

동서고금(東西古今)을 통하여 많은 사람이 오고 갔으나 자기의 사명을 다한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큰일을 이룩하려는 순간에 큰 일꾼이 돌아가셨다는 허전한 마음 비할 길이 없으나 우리가 한 가지 위로받고자 하는 것은 고(故) 상허 선생(常虛先生)으로 하여금 이 세상에 오셨던 보람이 있으시고 무수한 인간들이 이루려하나 이루지 못하였고 모두가 미완성으로 돌아갔지만 선생(先生)이야말로 그 할 바를 다 하셨고 또한 나라와 겨레를 위하여 선생(先生)의 고원한 이상과 위대하신 자아의 인식으로서 사람을 가르치고 배우는 참사람이 되는 진리의 거대한 건국학원(建國學園)을 이만큼 이루어 놓으시고 먼저 가셨습니다.

이 땅에 농촌(農村), 도시 할 것 없이 새마을운동이 퍼져 나가고 있는 이때 이 운동을 이끌어 갈 역군을 양성하는데 건국학원(建國學園)이 큰 힘이 되고 있음을 볼 때 상허 선생(常虛先生) 생전에 심혈을 기우려 세운 건국(建國)은 선생(先生)의 보람이요 곧 우리의 보람인 것입니다.

15년 전 벌써 우리나라 농업발전(農業發展)에 시급(時急)문제의 하나인 주축영농(主畜營農)을 건설하기 위하여 학사농부를 길러 낼 터전을 마련했으며 여생을 이 나라 농촌의 재건 부흥에 바치신 것을 볼 때 여러 가지로 형식을 갖추어 부언하는 것보다도 상허(常虛)선생의 인품을 잘 알고 있는 우리는 존경하고, 사랑하고, 그리워하면 할수록 한없이 허전하고 섭섭함이 앞을 가립니다.

세월은 덧없이 흘러 어언 2주기를 맞이하게 되었고 다시금 학원의 이상이 이룩하여 가는 이때에 우리는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위대한 일꾼을 잃었다고 생각 말고 선생이 우리에게 익혀주신 그 인격과 덕성을 본받아 건국대학의 번영 발전을 위하여 일치단결하여 부지런히 일하는 것이 선생을 생각하는 우리의 도리요 책임이리라 생각합니다.

우리는 새삼스러이 슬픔과 공허감에 사로잡힐 것이 아니라 고인(故人)이 되신 상허(常虛)선생을 간절히 생각하며 마음껏 정(情)과 예(禮)를 다하여 결심을 새로이 하면서 힘차게 일하는 것이 상허(常虛)선생을 존경하고 사랑하고 위하여 선생의 높으신 뜻을 받들어 길이길이 이 땅에 심어지기를 바라는 것이 우리들의 당연한 책임이요 또한 당연히 해야 할 일이 아닌가 생각하는 바입니다.

간단하나마 이상으로써 고(故) 상허(常虛) 유석창(劉錫昶) 박사의 2주기에 임하여 추모하는 간절한 마음을 억제하면서 이에 예(禮)를 바치는 바입니다.〔『건대신문』 1974년 1월 2일〕

상허 선생(常虛先生)을 추모하며: 고 유석창 박사 3주기에 부쳐

이우범(李禹範, 재단 상무이사)

오늘은 상허 선생(常虛先生)의 3주기를 맞는 날이다. 삼가 명복을 비는 바이다.

세월의 흐름은 매우 빨라 선생이 유명을 달리하신지 어언 만 3년. 그러나 달이 가고 날이 갈수록 선생의 유덕(遺德)을 추모하는 마음 한결 더 심절해짐을 금할 길이 없다.

선생께서 그렇게도 극진히 사랑하시고 돌보시던 유족, 친지 그리고 건국대학원 산하 각급학교 및 사업체 등의 임원과 교직원을 비롯, 수많은 문하생들과 유지 등 여러 인사들께서는 선생께서 27년 동안 하루같이 가꾸어 오신 장안캠퍼스에 오늘도 고요히 누워계신 묘소 앞에 모두가 겸허한 마음으로 숙연히 명

복을 빌고 있다.

선생은 함경남도 단천(端川)이라는 산명수려(山明水麗)하고 해융물산(海隆物産)이 풍부하며 특히 지하보고(地下寶庫)를 많이 지닌 곳에서 태어나셨다. 선생의 아버지 일우(一憂)선생은 일제침략에 반기(反旗)를 든 혁명투사이며 한 · 일합병과 더불어 망명의 길을 떠나 북만(北滿)의 쓸쓸한 타방(他邦)에서 여생을 조국광복운동에 바친 분이었다. 이에 따라 선생은 소학, 중학을 중국에서 다니셨으며, 20미만의 약관부터 독립군(獨立軍)에 참가하여 조국광복운동에 투신하셨던 것이다.

그 후 대세가 만부득이함에 선생은 귀국하여 당시 장로교에서 경영하던 경신학교에 적(籍)을 두고 면학(勉學)의 길을 닦았다. 이 학교를 졸업 후 선생은 뜻한 바 있어 경성의학전문학교(京城醫學專門學校)에 입학하게 되었다.

당시 우리의 사회는 3 · 1운동 이후 일제의 탄압이 심한 폭정 하에서 정치와 법률을 공부하여도 그 능력을 발휘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잘못하면 그들의 노예적 지배와 시달림을 받게 될 것임을 깨달아 선생은 의학을 택해 의술을 배워서 불쌍한 식민지 백성으로서 굶주리고 헐벗은 병고에 신음하는 농민이나 빈민을 위해 그들을 돕고 계몽하여 때를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는 비장한 결의하에 있었던 것이다.

학생시대를 통하여 선생은 기독청년회를 중심으로 다른 동료들과 더불어 애국운동에 부심하였던 것이다. 그리하여 각 전문학교에서 몇 명씩 뜻을 같이 하는 학생들과 공모(共謀)하여 표면엔 성경학교라 하고 내면적으로는 '동우구락부(同友俱樂部)'라고 비밀단체를 조직 민족주의사상을 고취하였던바 여기에도 선생은 선두에서 활약하였던 것이다. 그리하여 한때는 비밀히 여러 가지 학생운동을 일으켜 일제시에 감히 생각도 못했던 「생존(生存)」이라는 소잡지(小雜誌)를 발행하였던 일도 있다.

선생(先生)은 경성의전(京城醫專)을 마친 후 함남 장진(長津)이라는 압록강 상류 산간벽지의 소읍고의(小邑公醫)로 부임했다. 얼마 후 선생은 이 자리가 어려운 환자를 상대로 돈을 버는 미미한 위치라는 생각에 분연히 그 직을 사임하고 상경하고 말았다.

빈손으로 상경하신 선생은 그때 서울역에 도착하여 선생이 타고오신 기차를 향하여 "내가 뜻한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아니하면 다시 죽어도 이 기차를 타지 않겠다."고 맹세하였다고 한다.

그 후 선생은 서울에서 물심양면으로 어려움을 겪어가며 당시 사회유지 등 주로 3 · 1운동 시 33인을 중심으로 '민중병원(民衆病院)'을 창설하여 헐벗고 가난한 병고(病苦)에 시달리는 불쌍한 사람들을 실비나 무료로 치료하여주었던 것이다. 이 때문에 의료자 사이에 많은 비난과 모함을 받았고 일(日) 관헌으로부터 사상이 불온하다는 취급을 받아가면서도 그는 꾸준히 사회사업을 계속하여 사상적으로 주목을 받은 선생은 경찰의 탄압을 당하기도 여러 차례였으나 시종 초지(初志)를 굽히지 않았다.

그러던 차에 8 · 15해방을 맞이하게 되어 선생(先生)은 조국의 광복과 더불어 이 나라를 위해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깊이 생각한 끝에 병원보다는 육영기관(育英機關)을 설립하여 특히 자유(自由)에 굶주린 이 겨레에서 학문(學問)을 가르쳐 훌륭한 인재(人材)를 양성하는 것만이 다시는 남의 나라에 짓밟히지 않는다는 신념에서 정치학관(政治學館)으로부터 시발하여 오늘의 순수민족(民族)의 사학(私學)인 '대건대(大建大)'를 이룩해 놓았던 것이다. 이와 같이 대 건국대학교(大建國大學校)로 발전한 이면에는 선생의 피와 땀이 얽혀져 있음을 잊을 수 없다.

선생이 서거한 몇 년 전만 하더라도 농공병진(農工竝進)이 이 나라에서 앞서야 할 일임을 뜻하는 사람은 다 말하고 있었으나 이 점을 말에 그치지 않고 실천적으로 구현하기 위해 이 나라 농촌(農村)에 유능한 독농가와 일꾼을 배출하기 위해서 건국대학교(建國大學校)에 축산대학(畜産大學)과 농과대학(農科大學) 등(等)을 설치(設置)하였고 또 전국농업기술자협회 총재(全國農業技術者協會總裁)에 취임하여 오늘에 이르기까지 우리나라에 커다란 업적을 남기게 하였던 것이다. 뿐만 아니라 선생의 역저(力著) 『2천년대의 한국농업의 미래상(2千年代의 韓國農業의 未來像)』이나 『조용한 혁명(革命)』 등은 우리나라 농업발전(農業發展)의 청사진을 밝히신 것으로 한국농촌부흥사(韓國農村復興史)에 길이 빛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는 바이다.

한 마디로 말해서 선생(先生)의 생애는 "무(無)에서 유(有)를 창조하셨으며 어떤 부문에서든지 개척자(開拓者)가 되어 맡은바 소업(所業)을 성취할 수 있는 용기와 기백(氣魄)과 열의(熱意)를 가져야 한다."하였으니 이것이 그의 지론인 동시에 생(生)의 목표였다고 할 수 있다.

청아(淸雅)한 그 사생활(私生活)은 선생(先生)의 가회동 사택(私宅)의 정경(情景)을 짐작할 것이다. 참으로 선비의 '청빈(淸貧)' 그대로이다. "민족(民族)이나 국가(國家)가 고난에 처해있는 이런 때일수록 우리가 개인(個人)의 안일을 생각할 수 있을 것이냐"라고 말하는 그에게는 조금도 거짓이 없다.

'공(公)과 사(私)의 엄연한 구별(區別)'이것이 오늘의 '대건대(大建大)'건설의 주초적(柱礎的) 역할을 하였으며, 누구나 따르기 어려운 고결청빈(高潔淸貧)을 신조로 삼았던 것이다. 잡음(雜音)이 많은 소연한 오늘날의 우리 사회에서 가정적 분위기(雰圍氣)속에 소리없이 발전하고 있는 건대(建大)의 모습은 선생의 공정하고 결백한 인격의 반영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성(誠) · 신(信) · 의(義)'의 신념은 선생의 몸에 배인 철두철미한 인생관(人生觀)이었다.

이제 선생께서 세상을 떠나신지 3주기(周忌)에 즈음하여 우리는 새삼스럽게 슬픔과 공허감에만 사로잡힐 것이 아니라 고인(故人)이 되신 상허(常虛)선생을 간절히 생각하며 마음껏 정(情)과 예(禮)를 다하여 결심을 새로이 하면서 앞으로 매진하는 것이 선생을 존경하며, 높으신 뜻이 이땅에 길이 심어지기를 바라는 것이 우리들의 당연한 실무(實務)이요, 또한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는 바이다.

삼가 상허(常虛)선생의 끝없는 명복을 비는 바이다.

1975년 1월 1일

〔『건대신문』 1975년 1월 1일〕

고 상허 유석창 박사 3주기를 맞이하여

전국농업기술자협회 부총재 이호철(李鎬喆)

세월의 빠름을 절실히 느끼게 된다.

벌써 전 총재 고 상허(常虛) 유석창(劉錫昶) 박사의 3주기를 맞는다. 양력으로는 설날이기 때문에 전국 회우동지들뿐만 아니라 잊을래야 잊을 수 없는 날이지만, 음력으로는 동짓날 보름날로서 74년은 내일 28일이 기일이다. 옛 풍습에 따른다면 소상, 대상을 지내고 금년은 첫 제사를 모시게 된다.

이제 다시금 전국의 동지들과 함께 고인의 위대한 업적과 유덕을 추모하면서 명복을 빈다.

사람은 누구나 한번 태어나서 한번 죽는다. 죽으면 기억에서 멀어지고 잊혀지는 것이 인지상정(人之常情)이다. 그러나 상허 선생은 세월이 흐를수록 우리들 가슴마다에 더욱 뚜렷이 되새겨지는 것이다.

지난 19일과 20일 이틀 동안 제15회 전국대회가 유관순기념관과 건국대학교 낙원동 분교에서 성대하게 열리었다.

유석창 박사께서 서거하신 후로는 가장 규모가 크고 알차게 행사를 마쳤다. 이번 대회를 치르고 나서 모두들 우리 운동의 성장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

상허 선생은 제4회 대회부터 서거하시기 10여 일 전인 제12회 대회까지 10년 동안 아홉 차례의 행사를 통하여 생전에 오늘날의 기반을 다져 놓았기 때문에 우리 협회 회우동지들은 흩어지지 않고 굳게 뭉쳐 전진할 수 있었다고 믿는 바이다.

상허 선생 생전에 누구든지 우리 운동과 유석창 박사를 일체시하였고 갑자기 유명을 달리하시자, 본인도 물론 앞일이 캄캄하였지만 우리 운동도 좌절될 것이라고 모두들 내다보았다.

72년 한 해 동안은 그야말로 혼미 속에서 몸부림 쳤다. 당장 사무실 유지도 어려운 형편이었다. 그러던 중 생전의 상허 선생과 동지였으며 우리 농업계의 원로 지도자이신 민천(民泉) 류달영(柳達永) 박사를 새 영도자로 추대하고 일사불란하게 재출발하였다. 그동안 누적되었던 빚도 금년도 결산에서 깨끗이 청산되었고, 이제 90% 이상 자립할 수 있는 단계에까지 도달하였다.

뿐만 아니다. 상허 선생 생전에 이루지 못한 재단 설립의 일도 금년 봄에 배호원 동지와 박덕준 동지가 엄청난 정성을 쏟아놓아, 이를 계기로 1천 5백만 원의 기본재산을 확보하고 농업기술진흥관 건설운동을 벌여 놀라우리만치 성공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명년도에는 우리 모든 농민들의 꿈인 '우리집=농업기술진흥관'을 기공하고, 서둘러 준공의 날을 앞당겨 맞이해야 하겠다. 이 일은 우리 전국 회우동지들의 솔선 참여는 물론 전국 뜻 있는 농민들이 대거 참여함으로써 이루어질 일이다. 그 뿐만 아니라 동계 · 하계 농민대학도 계획인원의 배 이상의 실적을 올렸고 파일연수사업, 농업기술회보와 도서출판 사업도 차츰 알차게 발전하고 있음은 크나큰 우리들의 자랑이다.

유석창 박사 서거 이후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큰 임무는 우리 운동을 계속 유지 발전시키는 일이었다. 이제 본 궤도에 오르려 하고 있다. 이처럼 좌절을 딛고 힘차게 전진할 수 있었던 것은 10년을 두고 상허 선생께서 씨 뿌리고 온갖 정성을 기울여 가꾸신 일이 바탕이 되었고, 류달영 총재님이 뒤이어 훌륭하게 영도하여 주신 힘이라 의심치 않는다.

15년이란 세월은 결코 짧은 것이 아니다. 반 세대에 해당되는 시간이다. 이제 우리 모두들 현재의 나

이에서 15년을 빼고 지나온 세월을 돌이켜보자. 국가의 발전상에 비추어 보든지, 우리 개개인의 사생활이나 우리 협회의 성장에 비추어 볼 때 얼마나 보람 있는 역사이었던가.

지금 구천(九泉)에 계시어도 우리 협회의 일을 걱정하고 계실 상허 유석창 박사님, 크게 기뻐할 것이며 흐뭇해하실 줄로 믿는다.

74년은 실로 다사다난한 한 해였다. 우리 협회는 농업기술진흥관 건립운동을 일으킨 역사에 기록될 한 해였다. 국내외의 어려운 제정세에 비추어 우리 전국 회우동지들은 더욱 결속을 강화하고 이미 10여 년 전에 상허 유석창 박사께서 내거신 새마을운동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 매진하여야 하겠다.

논두렁을 베고 죽겠다고 하시던 유지를 이어 그 심오한 철학과 사상을 체계적으로, 이론적으로 정리하는 일도 착수되어야 하겠다.

상허 유석창 박사의 3주기를 맞아 전국 동지들과 함께 머리 숙여 고인의 유덕을 되새기고 명복을 비는 바이다.(『농업기술회보』 138호, 1975년 1월 1일)

상허 선생(常虛先生)을 추모(追慕)하며

한신(韓信, 전 합참의장 · 현 아시아자동차 사장)

삼가 고(故) 상허(常虛) 유석창 박사(劉錫昶博士)님의 영전(靈前)에 추모(追慕)의 향(香)을 피워 저희의 간절한 뜻을 바치옵니다.

생각되옵건대 선생님께서 저희들을 돕고 떠나신지 어느덧 4개 성상(星霜)이 흘렀습니다. 인간사(人間事)에서 세월이 덧없다고들 하지만 정말 이토록 세월이 빨리 갈 줄은 생각지도 못하였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세월을 의식할수록 더욱 선생님께 대한 추모(追慕)의 정(情)은 더할 뿐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보여주신 선생님의 생애 전체가 그토록 의(義)롭고 고귀하며 정열적이고 헌신적이며 진실하였다고 하는 사실이며 그 사실이 선생님 계신 생전에는 우리를 크게 강화시켰고 또 유명(幽明)을 달리하시고도 계속해서 그 정신이 우리 마음속에 살아있으며 깊이 간직되고 있어서 우리들의 삶의 방향이 되어있기 때문입니다.

참으로 선생님의 생애는 경이로운 생애였습니다. 일찍이 선생님께서 초년기(初年期)에 지각(知覺)의 눈을 뜨었을 때 이 나라와 이 겨레가 일제(日帝)의 침략으로 유린되는 것을 목도하게 되면서 그 후 줄곧 애국(愛國) 애족(愛族)은 선생님의 삶의 전체가 되어왔던 것입니다.

선생님께서 가족을 따라 만주로 망명하셨을 때도 비록 나이는 어리셨지만 독립군(獨立軍)의 뒷바라지를 하면서 애국(愛國) 애족(愛族)의 길을 익히셨으며 그 후 소년광복대 대장(少年光復隊隊長)으로 취임하여 소년광복운동(少年光復運動)을 지도하시게 되면서 이 애국(愛國) 애족(愛族)의 사상은 그 기초를 확고하게 다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선생님께서 의학(醫學)을 공부하시게 된 것 또한 이 나라와 이 겨레의 병(病)을 고치기 위한 그 하나의 한결같은 뜻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선생님께선 가난하고 고달프

고 나라 잃어 실의(失意)에 빠진 우리민중의 아픔을 치료하기 위하여 민중병원(民衆病院)을 설립하시고 그 운영을 통해서 애국(愛國) 애족(愛族)의 사상을 몸소 실천해 보이신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 민족이 일제(日帝)의 사슬에서 풀려나고 이 나라가 다시 독립을 얻게 되었을 때 선생님께선 이 겨레의 영광스러운 새 역사와 새 시대를 창건하고 이를 유지 발전시키려면 각계(各界)에 유능한 지도자가 있어야 할 것이라는 신념에 따라 국가와 민족의 간성(干城)을 키우고 배출하는 고등교육기관(高等教育機關)을 설립, 이를 육성하는데 혼신의 정력을 아낌없이 바치셨던 것입니다. 결국 선생님의 그 불굴의 노력은 오늘의 대(大) 건국학원(建國學園)을 이룩할 수 있게끔 되었던 것입니다.

이 얼마나 의롭고 고귀한 생애입니까. 이 얼마나 애국애족으로 일관된 삶입니까. 진실로 사심(私心)없는 대의(大義)의 성실한 생애였다고 할 것입니다.

선생님.

선생님의 이상과 의지는 선생님의 신념과 헌신은 그리고 선생님의 애국 애족하는 진실하고 고귀한 마음은 여기 이렇게 활짝 피어 굳굳하게 자라고 있는 것입니다. 선생님께서 성(誠) · 신(信) · 의(義)로 키우신 수많은 건국학원의 아들 딸들이 이제 전진하는 이 역사의 중요한 역군(役軍)들이 되어 이 나라의 발전과 민족의 번영된 내일을 위해서 용진분투(勇進奮鬪)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생님께서도 이를 보시고 마음 든든하게 여기시리라 믿습니다.

선생님, 비록 우리 모두가 선생님과 떨어져 있다 할지라도 선생님의 뜻이, 선생님의 사랑이, 선생님의 가르치심이, 선생님의 미소와 손길이,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생생하게 아직도 살아있어 우리는 결코 불안해하거나 당황하지 않으며 나약하거나 좌절하지 않으며 거짓되거나 비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추호도 애국(愛國) 애족(愛族)의 길에서 결단코 벗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부디 이를 기뻐하여 주시고 앞으로도 계속 우리 모두를 보살펴 주시기를 비옵니다.

1976년 정월(正月) 초일(初日)

〔『건대신문』 1975년 12월 31일〕

상허 선생(常虛先生)을 추모(追慕)하며
고(故) 유석창 박사(劉錫昶博士) 5주기(周忌)에 붙여

이대위(李大偉)

이 땅에서 생을 받아 우리 교육계(敎育界)와 농촌부흥(農村復興) 그리고 의학계(醫學界)에 평생을 바치신 다음 이 땅에서 고이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신 고(故) 상허(常虛) 유석창 박사(劉錫昶博士)께서 세상을 떠나신 지 5주기(周忌). 이 날을 맞아 새삼스러이 추모(追慕)의 정(情)을 한결 더 억누를 길이 없습니다. 선생께서는 혁명투사(革命鬪士)이시며 한일합병(韓日合併)과 더불어 망명(亡命)의 길을 떠나 조국광복(祖國光復)운동에 일생을 바치신 선친(先親)을 따라 소년시절(少年時節)을 중국(中國)에서 보내시었으며, 20 미만의 약관(弱冠)에 독립군(獨立軍)에 참가하여 조국광복에 투신하셨던 것입니다.

선생(先生)은 그 후 경성의전(京城醫專)을 마친 후 여러 가지 어려운 역경 속에서도 당시 사회유지(社會有志) 등 주로 3 · 1운동시(運動時)의 33인을 중심으로 '민중병원(民衆病院)' 을 창설하여 헐벗고 가난하여 병고(病苦)에 시달리는 영세민을 실비나 무료로 치료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더욱 선생께서는 8 · 15 해방을 맞이하자 해방된 조국(祖國)이 다시는 불행한 운명을 밟지 않고 영구히 자유 · 민주 · 번영을 누릴 수 있는 길은 오로지 참된 복지국가를 건설하는 데에 있다고 생각하시고 이를 위해서는 널리 인재(人才)를 모아 영재(英才)를 양성(養成)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일임을 선각(先覺)하시어 정치학관(政治學館)을 창설한 이래 이를 발전시켜 우리나라 순수민족 사학(私學)인 건국대학교(建國大學校)를 이룩해 놓으셨던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선생께서는 우리나라가 선진국(先進國)과 어깨를 나란히 하여 발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농촌(農村)이 부흥(復興)해야 하며, 단순한 농촌의 발전만이 조국(祖國)의 번영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이를 위해서는 농공(農工)을 병진(倂進)시켜 산업국가를 건설해야 한다는 신념아래 한국 최초의 축산대학(畜産大學)을 세우셨으며, 또 전국농업기술자협회(全國農業技術者協會)를 창설하여 총재(總裁)로 취임, 오늘날의 새마을운동의 선도적 사명을 몸소 실천하셨으며, 선생의 역저(力著) 『2천년대(千年代)의 한국농업(韓國農業)의 미래상(未來像)』이나 『조용한 혁명(革命)』 등은 선생의 사상(思想)과 농업발전(農業發展)의 청사진을 밝힌 것으로 이는 우리나라 농촌발전사(農村發展史)의 밑거름이 될 빛나는 유산(遺産)이라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선생의 일생(一生)은 한마디로 말해서 자기희생(自己犧牲)의 생활이었으며, 그의 생(生)의 목적은 '무(無)에서 유(有)를 창조하고 공(公)과 사(私)를 엄히 구별하고, 맡은 일에 대해서는 용기와 기백과 열의(熱意)를 가져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나를 돌보지 않는 그의 사생활(私生活)은 참으로 선비의 〈청빈(淸貧)〉이었으며, 고결청빈(高潔淸貧)을 삶의 신조로 살았던 것입니다.

오늘날 건국대학원(建國大學園)이 민족(民族) 속에서 그 역사적 사명을 다하고, 내외적(內外的)으로 날로 충실하게 발전을 거듭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말 많은 사회 속에서 화평(和平)한 분위기를 이루어 날로 새로워지고 있음은 선생의 청아(淸雅)하고 고결한 정신의 반영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선생의 뜻은 이미 이러하였으니 그 높은 뜻 아래서 크고 작은 은택(恩澤)이 얼마나 멀리 베풀어졌으리라는 것은 가히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선생의 그 웅도(雄圖)는 이제 건국대학(建國大學)의 이름으로 영글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선생이 쏟으셨던 열정(熱情)의 터전 위에서 조국(祖國)의 새 역사를 창조한 영재(英才)들이 씩씩하게 자라고 있습니다. 선생의 뜻이 매일같이 거듭거듭 빛을 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건국인(建國人)들은 선생의 거룩한 유지이신 성(誠) · 신(信) · 의(義) 정신을 떠받들고 선생의 유업이신 건국동산(建國東山)을 가꾸어서 대건대(大建大)의 건설의 발걸음을 맞추어 전진할 것을 거듭 맹세하며 삼가 추도사에 대신하는 바입니다. 〔『건대신문』 1976년 12월 29일〕

살아있는 사표(師表), 유석창(劉錫昶) 박사 7주기(週忌)에 붙임

조일문(趙一文, 행정대학원장)

아무리 훌륭한 사람, 큰 업적이라도 대개는 시간의 흐름과 더불어 망각(忘却)의 풍벽(風壁) 속에 사라져 버리기 마련이다. 그러나 본교 설립자 유석창(劉錫昶) 박사는 타계(他界)하신지 7개 성상이 되었는데도 그에 대한 존경과 추모(追慕)의 정은 날이 갈수록 더해가고 있다. 그것은 두말할 것이 없이 그의 고매(高邁)한 인격(人格), 공고히 다져놓은 건학(建學)의 초석, 구료(救療)와 농촌복지(農村福祉)사업에 바친 뜨거운 정열 때문일 것이다.

유(劉) 박사는 일찍이 황막한 만주(滿洲)광야를 전전하면서 독립운동(獨立運動)에 헌신하였다. 그동안 그 자신이 겪은 기한(飢寒)과 박해(迫害)의 쓰라림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이민(移民) 교포(僑胞)의 무지(無智), 빈곤(貧困), 질병(疾病)이 빚은 참상은 그의 뇌리에 가장 심각한 영상으로 비쳐졌으며, 그 해결을 〈인생애(人生涯)의 과제(課題)〉로 삼기로 결정하였다. 즉 그는 독립(獨立)의 명목(名目)보다는 자주(自主)의 내실(內實)을 기하고자 한 것이다.

그가 맨 처음에 착수한 일은 널리 인술(仁術)을 베풀어 병들고 가난한 동포를 구제하고자 한 구료사업(求療事業)이었으니, 그 결실은 민중병원(民衆病院)의 창설로 나타났다. 해방과 더불어 그는 개인의 병보다 민족의 병을 고치는 것이 급선무(急先務)임을 깨닫고 '메스' 대신에 '쵸크'를 잡았다. 그는 교육의 최우선적 과제를 '인격(人格)의 배양'에 두고 그 위에 과학(科學)과 기술(技術)의 무장을 갖춘 건국인재(建國人材)를 양성하고자 하였다. 이것이 건국대학교(建國大學校) 설립의 기본목표이며, 그 이정표를 향하여 건대(建大)는 오늘도 꾸준히 전진하고 있다.

유(劉) 박사가 마지막으로 심혈을 기울인 일은 농촌근대화(農村近代化)와 농민복지(農民福祉) 사업이었다. 그는 서기 2천년대의 한국농업의 미래상(未來像)을 정립하고, 그것을 향한 농민(農民)의 정신혁명(精神革命) · 농업(農業)의 기술혁명(技術革命) · 농촌(農村)의 생활혁명(生活革命)을 강력히 추진하였다.

유(劉) 박사가 의료(醫療) · 교육(敎育) · 농민운동(農民運動) 등에서 이룩한 많은 일들은 결국 국가(國家)의 발전, 민족(民族)의 번영에 이어진다. 그는 자주 '어떤 부(富)와 권력(權力)도 진리(眞理)와 싸울 수는 없다.'는 싸이라스의 말을 인용하였다. 그러나 그는 진리의 국경(國境)이 없을지라도 대학(大學)에는 국적(國籍)이 있음을 강조하고, '국가(國家) 있은 연후의 대학(大學)', '국가(國家) 안의 대학(大學)'이라는 인식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고 역설하였다.

그는 노경에 많은 병을 지니고 있었다. 천식(喘息), 이명(耳鳴), 결백증(潔白症), 심장판막증(心臟瓣膜症) 등 그러나 그의 가장 큰 병은 동포애(同胞愛), 조국애(祖國愛)의 고질이었다. 그는 끝내 거기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그 속에서 숨을 거두었다. 그 자신이 원하였던 것처럼 '조국 대한(大韓)의 머슴'으로서 순국한 것이다.

유(劉) 박사가 남긴 가지가지의 빛나는 업적은 단지 유적(遺跡)으로서의 박물관적 가치를 지니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생동하는 활력소로서 끊임없이 후진(後進)을 격려하고 민중을 지도하는 살아있는 사표(師表)라는 데에 큰 뜻이 있다.

유(劉) 박사는 자신에 대해서는 추상처럼 엄격하였지만 남에게는 춘풍처럼 부드러웠다. 책임은 스스로 짊어지되 영광은 남에게 돌렸다. 자신을 위해서는 조금도 욕심을 부리지 않았으나 공적인 일에서 과욕(過慾)할 만큼 많은 것을 구상하고 많은 활동을 벌여왔다.

만년에 그에게 휴식을 권고하는 많은 친구들이 있었으나 그는 '일하다가 쓰러지면 그만이지 음풍농월(吟風弄月)로 허송세월하면 무얼 하겠나'하고 거절하였다.

그는 원대한 이상을 내세우면서도 비근한 현실을 소홀히 하지 않았다. 능굴능신(能屈能伸)하면서도 꾸준히 목표를 추구하는 실천가였다. 장애물이 있으면 한걸음 후퇴하지만 그것을 제거하면서 다음에는 반드시 두 걸음 전진하는 끈질긴 의지의 인(人)이었다. 그가 닦은 터전, 남긴 일의 어느 한 구석에 그의 혈한(血汗)이 스미지 않는 곳이 있었던가?

오늘 우리 사회의 각 분야에 성실하고 유능한 재건인재(再建人材)를 배출하고 있는 건국대학교(建國大學校)와 그 캠퍼스 일각에 새 모습으로 등장한 민중병원, 그리고 전국 방방곡곡에서 새농촌 · 새농민 · 새농업의 기틀을 마련하고 있는 농업기술자협회(農業技術者協會)의 줄기찬 발전상을 바라보며 우리는 새삼 유(劉)박사의 숨결을 느끼는 동시에 이 나라 이 겨레에 끼친 그의 위업을 되새긴다.〔『건대신문』 1978년 12월 27일〕

상허 선생을 추모하며, 고 유석창 박사 8주기에 붙여

정범석(鄭範錫)

나는 지난 8월 31일 건국대학교(建國大學校) 대학원장직(大學院長職)을 사임하고 국민대학(國民大學) 학장직(學長職)에 취임했다. 27년 5개월 동안 몸담은 건대(建大)를 떠남에 있어서 8월 30일 저녁 나를 환송(歡送)하는 모임이 있었는데 그 때 나는 답사(答辭)를 하다가 눈물이 앞서고 말문이 막혀서 잠시나마 말을 계속할 수 없었다.

내가 쫓겨나는 것도 아니며 영전(榮轉)됐다고 모두들 크게 축하하고 석별의 정(情)을 나누는 터이지만 막상 떠나려고 하니 감회가 한이 없었다. 더욱이 한일협정(韓日協定) 당시 나는 이른바 정치교수(政治敎授)로 몰려 신변에 위협을 느끼게 되었고 전도(前途)를 예측할 수 없게 되었다. 그 때 상허 선생(常虛先生)과 석포 선생(石浦先生)이 끝까지 돌보아주시던 일들이 주마등(走馬燈)같이 나타났기 때문에 더욱 눈시울이 뜨거워졌던 것이다. 건대(建大)를 떠난 지 어언 수삼개월(數三個月)이 지난 지금 이른바 10 · 26 사태(事態)가 있었고 또한 12 · 12 의 쇼오킹한 뉴우스를 접하게 됨에 정말 국가(國家)가 비상시기에 처해있음을 통감하게 되었다.

이럴 경우 상허 선생(常虛先生)이 생존하고 계신다면 어떻게 하실까 하고 생각하곤 한다. 그러나 상허 선생(常虛先生)은 작고(作故)하셔서, 이제 8주기(八周忌)를 맞이하게 됐다. 이러한 난국(難局)일수록 선생(先生)을 그리는 마음을 전 건국인(建國人)은, 아니 상허 선생(常虛先生)을 아는 분은 다 가질듯하다.

사람을 보는 눈, 사람을 평하는 척도는 그 입장에 따라, 그 동기나 목적에 따라 천차만별일 것이다.

상허 선생(常虛先生)은 1900년(年)부터 1972년(年)까지 생존하셨고 유년시절과 소년시대를 만주(滿洲)에서 보냈으며 그 이후에는 주로 국내(國內)에 계셨고, 해방 전(解放前)부터 서울에서 계속 활동하셨다.

상허 선생(常虛先生)의 주변 사람들이 상허(常虛)선생의 평소 생활을 중심으로 지금 선생에 대한 이야기를 하라고 한다면, 어떤 말을 할까 하고 간혹 생각해 보곤 한다.

사람은 못났든지 잘났든지, 불행하든지 행복하든지, 그 시대 그 지역의 영향을 무시할 수는 없는 것이다. 상허(常虛)선생도 예외일수는 없었다. 식사(食事)는 해야 하고, 가족생활을 해야 하고, 좋은 물건이 있으면 때로는 같이 사려고 하고, 술도 하시고 농담도 하셨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시대적인, 장소적(場所的)인,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된 것을 표준으로 하여 선생을 바라볼 때 선생은 지극히 평범한, 모나지 않은, 겸손한 사람으로 기억될 줄 안다. 그러므로 평범한 입장에서 상허(常虛)선생을 바라보는 분은 상허(常虛)선생의 훌륭함을 처음부터 알 수 없을 듯하다.

그러나 만일 문제의 소재를 발견하고 그것의 해결이 민족(民族)과 국가(國家)를 위해서 필수불가결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위해서, 그러한 최고가치를 위해서, 속세적인 것을 경시(輕視) 내지는 무시하고 일이관지(一以貫之) 최후까지 노력하는 사람을 훌륭하다고 한다면 정녕 상허(常虛) 선생이야말로 훌륭한 분임을 알 수 있다.

일제(日帝)의 대륙침략정책(大陸侵略政策)이 근시안적으로 보아 일본측(日本側)에 성공적으로 정착되어가는 듯할 때, 그리하여 적지 않은 유명무명인사(有名無名人事)가 민족적 반항심이 고조되지 못하고 생업(生業)에 치중하려고 할 때, 선생(先生)은 깊이 장래의 앞길을 검토하지 않을 수 없었다.

국외(國外)에서 항일(抗日) 무력투쟁하는 것은 물론 바람직한 일, 거룩한 일이지만 민족의 생활향상, 문화향상도 이에 못지않게 중요한 일이라 판단하고, 선생(先生)은 의사(醫師)가 되었다. 공의(公醫)나 개업의(開業醫)로서 안온한 생활을 하는 것을 일축하고 민중병원(民衆病院)을 창립하게 되었다. 그 당시 사정으로는 이러한 꿈은 하나의 이상에 불과한 것이고, 실현하기에는 너무나 애로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선생은 이 일을 해내고 말았다.

해방이 되고 대학(大學)이 많이 서고 독립이 되었다.

시대의 혼란도 걱정되거니와 농촌(農村)의 피폐는 날로 더해갔다.

재래식(在來式)의 농촌지도, 재래식의 농과대학교육(農科大學敎育)으로서는 이 일의 해결을 위하여 크게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선생은 축산대학(畜産大學)을 설립했다. 종합대학내(綜合大學內)에 축산대학이란 전례(前例)가 없고 엄청난 예산이 필요한 축산대학 설립에는 여러 가지 애로가 수반되었다.

그러나 재래식 농업방식으로는 농촌진흥(農村振興)이 기대되기 어렵고, 농축(農畜) 기타의 종합적인 농업방식이 아니고는 안되기 때문에 관리양성(官吏養成)을 목적하지 않고 진정한 농촌의 지도자를 양성하기 위한 축대교육(畜大敎育)을 시작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발전도상국의 공통적인 현상이기는 하나 우리나라도 농공병진(農工倂進)이 쉽지 않고, 그러나 그것은 꼭 실현되어야 하고, 다시 말하면 농촌진흥은 꼭 있어야 하는데 축산대학의 교육만으로는 만족하지 못함을 선생은 먼저 깨닫게 되셨다.

그리하여 전국농촌기술자협회(全國農村技術者協會)를 조직하여 기술적으로 정신적으로 농촌의 발전향상을 위하여 전국(全國) 농촌(農村)의 새운동을 전개시켰다.

오늘날 너무나 유명한 새마을 운동을 여러 해 앞당겨서 상허 선생(常虛先生)은 이미 시작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건대(建大)에서 전국농촌기술자대회를 추진했다는 것도, 늘 문제의 소재를 미리 아는 상허 선생(常虛先生)이기에 가능했고 또한 큰 뜻이 있는 것이 아닐 수 없다.

선생은 일신(日新)하고 우일신(又日新)하는 분이다. 식사시간, 잡담시간, 취침시간 할 것 없이 선생의 머리 속에는 항상 해결하여야 할 문제가 있고 그에 대한 해결안이 나타나곤 했다. 오전 일찍 회의(會議)를 할 때면 선생의 웃옷 호주머니 속에서는 소독된 백지쪽지가 몇 개 나오기 마련이다. 자다가 잠이 깨면 생각하고, 생각하다가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오면 적고 하여 쪽지는 햇수를 더하여가는 것이다.

민족과 국가를 위하는 그 정성, 국내국제정세(國內國際情勢)의 변천에 민감하며, 용출(聳出)한 식견으로 언제나 문제의 소재를 파악하는 그 실력, 그리고 신중에 신중을 더하여 그 대책을 짜내는 그 열성, 이러한 것을 구비한 분이 바로 상허 선생이시다.

우리는 국내국외의 난구에 처하게 되었다. 이럴 때일수록 선생을 추모하는 마음 간절하다. 선생의 유지(遺志)를 받들어 건대(建大)와 국가의 발전을 이룩할 것을 간절히 바란다.〔『건대신문』 1980년 1월 2일〕

상허 선생을 추모함 –고 유석창 박사 10주기에 붙여

총장 조일문(趙一文)

상허 선생! 선생이 타계하신지 어언 10개 성상이 흘렀습니다. 지나간 세월의 무상을 느끼기보다는, 응어리진 '나이테'에서 모진 풍상, 높은 파고를 어루만질 뿐입니다. 지금 선생이 이승에 계시면 춘추 82세, 그 인자스러운 풍모와 명민한 지도력이 새삼 그립습니다.

우리는 지금 선생이 손수 파서 만드신 일감호반에서 선생을 추모하며 그 옛날 기수변(沂水邊)에 입립(立立)하여, 장자방(張子房)과 황석공(黃石公)을 회상하던 이백(李白)의 시구를 읊조려 봅니다.

"아래이교상(我來圮橋上)에 회고흠영풍(懷古欽英風)이나, 유견벽수류(唯見壁水流)하니 증무황석공(曾無黃石公)이라, 탄식차인거(嘆息此人去)요 소조조사공(蕭條條泗空)이라."

〔"내 여기 이교(圮橋)에 서 있노니, 그립고뇨 지난날의 그 영풍(英風)이여! 발아래 보이노니 푸른 물결뿐이로다. 황석공(黃石公)은 벌써 세상(世上)을 떠났으니, 일찌기 그대 스승의 가슴을 슬퍼하노라. 이제 넓은 땅 조사(條泗)는 비어 있음이런가."〕

돌이켜 보면 선생은 이 나라의 국운이 이미 기울어져 붙들 길 없는 20세기의 개막과 더불어,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소년시절 만주의 황량한 벌판, 눈보라치는 산마루에서 고생하시던 가지가지 일들은 멀리 흘러간 전설이라기보다는 너무도 생생한 아픔이었습니다.

도규계(刀圭界)에 투신하신 선생님은 한 환자의 병을 고치기보다는 만인의 병을 고치는데 힘을 기울였습니다. 의술을 치부의 수단으로 삼기보다는 그 혜택을 널리 가난한 대중에게 확신시키는 데 정성을 쏟았습니다. 오늘의 민중병원이 선생의 그와 같은 구료제민(救療濟民) 의지의 결정이었음은 두 말할 나위도 없습니다.

해방 후 선생은 소용돌이치는 환희와 혼란 속에서 조용히 뜻을 가다듬고 건국역군(建國役軍)의 양성에 전력을 경주하였습니다.

그러나 육영의 길 또한 평탄한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학교와 가정이 시위의 물결에 휩싸이기도 하고, 전란 속에서 남의누페(襤衣褸敝)를 걸치고 각지를 전전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선생은 모든 고난을 꿋꿋이 딛고 일어서서, 한 그루의 작은 묘목, 조선정치학관(朝鮮政治學館)을, 오늘의 우람한 거목, 건국대학교(建國大學校)로 발전시켰습니다.

거기에 쏟은 선생의 열정이 얼마나 뜨거웠으며, 바친 혈한(血汗)은 얼마나 짙었겠습니까? 우리는 지금도 장안 캠퍼스의 구석구석에서 선생의 입김이 서려있음을 느끼며 벽돌 한 장, 나무 한그루에도 선생의 비원이 맺혀있음을 감지할 수 있습니다.

선생은 평소에 과학과 기술의 발전 없이는 한국사회의 정체는 타개될 수 없다고 주장하였으며, 대학은 마땅히 과학입국의 선도적 기능을 다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그러나 선생은 과학과 기술의 밑바닥에 선량한 인간성과 바른 도덕률(道德律)이 깔리지 않을진대, 그것은 한낱 사상누각에 불과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선생이 표방하신 본교 건학이념과 교시에서, 우리는 그 깊은 뜻을 헤아립시다.

선생이 가신 뒤 10년 동안, 건국대학교는 더욱 큰 규모로 발전하였습니다. 몇 차례의 세찬 비바람 속에서도 수목은 울울창창해지고, 본관, 학생회관을 비롯한 각종 건조물이 빽빽이 들어차고, 따로 충주분교가 생겼습니다. 교직원, 학생 수는 10년 전에 비하여 배 이상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러나, 선생이 가장 역점을 두시던 인간교육과 도의질서의 확립은 나아지기는커녕 오히려 퇴락하고 있음을 자회 · 자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선생은 만년에 전국농업기술자협회를 창립하시어 농민의 정신혁명, 농업의 기술혁명, 농촌의 생활혁명을 제창하였습니다.

선생은 농민운동을 이끌어나감에 있어서 탁상에서 빈 이론을 내세우신 것이 아니라, 스스로 팔을 걷어붙이고 흙탕물에 들어가 모내기를 하시고, 소에게 여물을 주시고, 산야를 편답하시며 나무를 가꾸셨습니다.

선생이 가장 존경받는 '농민의 아버지'로 불리게 된 것은,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는 동안, 선생은 숨이 차고 기력이 쇠약해졌지만 "내 비록 논두렁에 쓰러지는 한이 있어도, 농민을 위한 봉사는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또 그렇게 실천하였습니다. 그 논두렁에 지금은 황금의 물결이 일고, 경운기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힘차게 뛰던 메뚜기는 이제 '농촌의 순박'과 더불어 점점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선생은 일찍이 우리 민족의 가장 큰 불행은 오랜 학정에 시달리는 동안, 민심이 파탄 나고, 사랑이 고갈된 데 기인한다고 판단하시어, 국민성 재순화를 역설하였습니다. 그 말씀을 되새기면서 우리는 급속히 성장한 농촌의 현황이, 선생이 꿈꾸시던 아름답고 현상적인 농촌의 미래상에 도달하기까지에는, 아직도 많은 과제를 안고 있다는 것을 절감하게 됩니다.

저는 대학의 교육 · 행정의 책임을 맡은 이래, 난항에 부딪칠 때마다 "매신래과악풍회(海神來過惡風廻)요, 낭타천문석벽개(浪打天門石壁開)라. 절강풍월하여차(浙江風月何如此)인고 도사운산(濤似運山) 분설래(噴雪來)"라고 한 '횡강사(橫江詞)'의 한 구절을 되뇌이며, 고산준령(高山峻嶺) 첩첩 형극(荊棘)에 직면하고서도, 의연(毅然)히 대처하시던 선생의 고매한 인격, 굳은 의지, 탁월한 지도력을 돌이켜 봅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선생을 더욱 추모하게 되는 것은, 제가 너무 미력한 탓도 있겠습니다만, 사실은 선생이 너무 위대했기 때문이라고 믿어집니다.

이제 선생과 같이 학원을 경영하시던 교육동지들은 대부분 떠났습니다. 교수나 학생들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선생의 숨결은 건국대학교와 더불어 영원히 남을 것입니다. 선생의 재천(在天)의 영(靈)이시어.

학교법인이나 대학이 어떤 비바람 속에서도 항상 정도(正道)를 꿋꿋이 걸어 나가는 가운데서 무궁한 발전을 이룩할 수 있도록 굽어 살펴주소서.『건대신문』 1981년 12월 30일〕

상허 선생 추도사

전국농업기술자협회 부총재 송석도(宋錫度)

상허 유석창 총재님! 오늘 이처럼 제단을 마련하고 10주기를 맞이하여 추도사를 올리게 되니 감개가 무량합니다.

1971년 12월 16일 서울시민회관에서 제12회 전국농업기술자대회가 열렸을 때,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에 입원 중이신 몸을 일으켜 대회장에 나오셔서 개회식전을 주재하시고 다시 입원하시어 두 주일 후인 1972년 정월 초하룻날 아침 5시 30분에 서거하셨습니다.

설날 아침에 비보를 받고 땅을 치며 통곡하던 일이 어제만 같은데 벌써 1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 옛날 그대로 세상은 너무도 많이 변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오직 한 가지 변하지 않는 것이 있으니, 그것은 일찍이 상허 유석창 박사님께서 내거신 농민의 정신혁명으로 민주적 협동화를, 농업의 기술혁명으로 과학적 전문화를, 농촌의 생활혁명으로 합리적 복

지화를 이룩하자는 우리들의 이념인 것입니다.

10년 동안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많은 인물들이 유전하여 망각의 늪으로 사라져 버렸지만, 상허 선생님은 우리들 가슴 속에 영원히 살아계시고 건국대학교 캠퍼스 일초일목에 깃들여 숨 쉬고 있으십니다.

선생님께서는 이미 국운이 기울던 1900년에 나시어 10살의 어린 나이에 망국의 설움을 안고 망명정객인 선친 유일우 선생을 따라 만주로 망명하여 19세까지 독립운동에 몸 바쳐 일하셨습니다.

식민지 치하에서 큰 뜻을 품고 귀국하여 경신학교와 경성의학전문학교에서 수학하시고, 개인의 영달이나 돈벌이에 뜻이 있는 당시 청년들의 사고방식에 환멸과 분노를 느껴 동포들의 구료를 위해 민중병원을 세우신 것이 1930년의 일이었습니다.

조국이 해방되자 우리나라를 다시 남의 나라에 빼앗기지 않고 자주독립국가로 영속 발전시키자면 먼저 건국의 영재를 길러내야 된다고 믿으시고, 오늘의 대건국대학교를 세우신 것입니다.

건국대학교를 경영함에 있어서도 우리나라의 경제와 문화의 뿌리인 농촌부흥을 위하여 한 종합대학 안에 축산대학, 지역사회개발대학, 농업협동조합대학, 농공대학 등 4개의 농축산계 대학을 둔 일도 있었습니다.

학사농군을 길러서 농촌에 정착을 하자면 오랜 시일이 걸리지만 농촌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독농가를 발굴해서 3대혁명으로 무장시켜 선도농가로 내세우면 우리 농촌이 바로 좋아질 것이라고 굳게 믿으시고, 건국대학교 총장직을 사임하는 자리에서 "나는 이제 내 얼마 남지 않은 여생을 이 나라의 농촌을 위해서 일하다가 논두렁을 베고 죽는 죽음을 영광스럽게 택하겠다"고 선언하시고 농촌운동에 투신하신 것입니다.

우리 협회를 만드시고 전국에 11개 시 · 도지부를 두고 지방대회를 열면서 농민들의 선봉에 서시자 정치적으로도 많은 오해를 받았습니다. 상허 유석창 총재님께서는 남들이 정치적으로 오해를 하거나 노망을 한다고 수군거려도 아랑곳 하지 않고 시가행진의 선봉에 늠름하게 앞장을 서기도 하고, 삼복 무더위에 지방대회에 온갖 고초를 견디시며 참석하실 때, 저도 함께 수행을 하였습니다.

아무 것도 모르는 일개 농사군에 지나지 않는 송석도를 부총재로서가 아니라 피가 통하는 동지로 항상 대해주신 일은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병적이라 할 만큼 알콜로 손을 닦으시면서 우리 회우동지들이 낙원동 집무실을 찾아뵈면 뜨거운 악수로 맞이하여 주셨습니다.

1965년부터 우리 협회의 교육사업이 실시되었습니다. 축산대학의 부화장을 개축하셔서 연수원을 짓고 이곳이 새 역사의 산실이고 선도농가를 만들어 내는 인간 용광로라면서 회우동지들과 좌담회를 할 때면 통행금지시간을 넘기가 예사였습니다.

1968년 1월 30일부터 4월 4일까지 4박 5일간씩 20회에 걸쳐 읍 · 면 대표 회우 특별반 연수가 열렸을 때는 석 달 동안을 이틀 쉬고 이틀을 계속 나오셔서 개강식과 수료식과 특강과 좌담회를 주재 하셨습니다.

엄동설한에 농촌문제를 주제로 좌담회를 열 때는 밤이 깊어가는 줄도 모르셨습니다. 일일이 악수를 나누며 이불 속에 손을 넣어 "방이 차지 않느냐" "국물이 뜨거우냐, 밥과 반찬이 충분하냐"며 살피시는 그 자정을 어찌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지방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나서는 행차가 초라하기 그지없는 것이었습니다. 지방관서의 나으리들이 성대하게 마중해 줄 리도 없으며 한번은 완행열차의 자리를 잡을 수 없어서 승무원에게 사정을 하여 수화물을 싣는 짐칸에 겨우 탈 수가 있었습니다. 짐짝 위에 걸터앉은 상허 선생은 "여기가 과연 특등석이군" 하시며, 좌중을 웃기시던 그 모습이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10년 동안 선생님을 모시고 농촌운동을 하던 때가 저의 일생을 통해서 가장 보람 있는 시절이었습니다.

당시 우리 협회의 모든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혼자서 독부담하고 계셨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궁색한 빛을 보이지 않으시고 모든 책임은 내가 질 것이고 돈도 몇 10억 원이 곧 마련될 터이니 염려 말고 일만 잘하라는 말씀이 지금도 귀에 쟁쟁하게 들려옵니다.

상허 유석창 박사님! 이제 유명을 달리하시고 구천에 계시어도 우리 협회의 사업이 이만큼 알차게 자라고 있음을 지켜보실 때 흐뭇한 마음을 가지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영전에 서는 저희들도 떳떳합니다.

선생님께서 서거하시던 1972년 1월 1일은 하늘이 무너지듯 슬픔도 컸지만, 우리 협회는 간판을 내려야 할 존폐의 기로에서 있었습니다. 협회의 살림살이란 상허 선생의 호주머니에 매달려 있었고 빚과 다 찌그러진 책상과 의자 몇 개뿐이었습니다.

우리는 항상 말씀하신 바와 같이 무에서 재출발하였습니다. 우리에게 없는 것은 물질과 돈이 없지마는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의 정신적 유산은 컸습니다.

오늘의 우리 협회가 있기까지 성천 류달영 박사의 은공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상허 선생이 뿌리고 가신 씨앗을 싹틔우고 훌륭하게 가꾸고 키워주신 영도자는 성천 류달영 총재이십니다. 우리 협회는 상허 선생님은 창업의 영도자이시며 성천선생은 중흥의 영도자이십니다.

두 위대하신 영도자께서 10년간씩 우리를 잘 키워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비바람에도 쓰러지지 않는 큰 나무로 성장하였고 사람에게 비유해도 청년기로 접어들었습니다.

상허 유석창 박사님! 우리는 어제 제22회 전국농업기술자대회를 성대하게 마쳤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0년 전인 1971년 12월 16일 제12회 전국대회 때의 일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생애에서 최후의 대회사를 녹음으로 경청하고 추모의 정을 억누를 길이 없습니다.

상허 선생께서 내거신 3대혁명은 멀지 않아 완수될 것이며, 남겨두고 가신 유업과 유덕을 잇고 더욱 빛내고 발전시켜 갈 것을 영전에 굳게 다짐하는 바입니다.

상허 선생님! 고히 잠드소서.

그리고 우리의 나아갈 앞날을 지켜주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981년 12월 3일)(『농업기술회보』 222호, 1982년 1월 1일)

고 상허 유석창 박사 10주기 추도식 열어

본 협회의 설립자이며 초대총재였던 고 상허 유석창 박사 10주기 추도식이 지난 12월 3일(목) 제22회

전국농업기술자대회 2일째 행사에 앞서 오전 10시 정각에 건국대학교 학생회관 중강당에서 본회 류달영 총재를 비롯, 유족들과 전국의 1천여 회우가 참석한 가운데 엄숙히 거행되었다.

돌이켜 보면 우리 협회의 힘겨운 탄생과 초창기의 어려웠던 일들을 오로지 혼자 도맡아 집념을 불태우시던 일이 아직도 눈에 선하기만 한데, 벌써 10주기 추도식을 갖게 되었으니 정말 세월이 빠르다는 것을 실감케 한다.

본회 정장섭 전무이사의 사회로 시작된 이날 추도식에서, 본회 류달영 총재는 개식사를 통해 "상허 선생은 전국농업기술자협회를 창립 전국의 농민들에게 3대혁명을 제시함으로써 우리 농업사에 지울 수 없는 커다란 업적을 남겼다"고 말하고, "우리는 그분의 농촌과 농민을 위한 지극하고도 숭고한 뜻의 진의를 알고 유지를 받들어 3대혁명을 기필코 완수하겠다는 결의를 굳게 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이어서 본회 김성도 부총재의 약력보고가 있은 후, 제12회 전국농업기술자대회 때 대회사를 녹음한 고인의 육성녹음을 들었다. 약 4분간에 걸쳐 확성기를 통해 육성녹음이 흘러나오자 장내는 숙연한 분위기로 변하였다. 특히 부인 김계옥 여사와 2남 유승윤 이사장은 얼굴을 떨구었고, 정장섭 전무이사의 침통한 표정도 남달랐다. 고인의 생존 시 비서로 있던 박영용 교수는 시종 눈물을 감추지 못했다.

이어서 본회 송석도 부총재의 추도사가 있은 후, 건국고등학교 합창단의 조가가 울려퍼졌다. 식순에 따른 분향에서는 참석자들이 너무 많아 시간 관계로 본회 총재단, 유족들 그리고 생존 시 전국11개 시·도지부장들 순으로 분향을 하였다.

유족대표로 나온 유승윤 이사장(본회 부총재)은 인사말을 통해 "죽더라도 논두렁을 베고 죽겠다고 하시던 고인께서 여러분들이 베푸신 이 성대한 10주기 추도식이 열린데 대하여 고인의 유덕도 있겠지만 전국농업기술자협회 회원 여러분의 정성스러운 추모의 정이 더욱 값진 것"이라고 말하고, "나는 생애에 오늘과 같은 감동스러운 날이 기억에 없다면서, 고인의 3대 유업 중 사단법인 민중병원과 건국대학교만제가 정신을 쏟아 왔습니다만, 그 외 하나인 전국농업기술자협회는 여러분들의 정성으로 이룩됨으로써 저로서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만 고인의 유지를 받들지 못한 죄송함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여러분에게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날 고 상허 유석창 박사 묘소에는 참배객이 끊이지 않았고, 10~20명씩 묘소 앞 잔디에 모여 앉아 지난 이야기를 나누는 농민들도 다수 있었다.〔『농업기술회보』 222호, 1982년 1월 1일〕

논두렁 베고 죽겠다던 농촌사랑, 상허(常虛) 유석창(劉錫昶) 박사 20주기에 붙여

류달영 (상허문화재단 이사장)

20세기의 손꼽히는 역사철학자인 영국의 E. H. 카는 『역사란 무엇인가』라는 그의 저서에서 '역사란 현재와 과거와의 대화'라고 전제하고, '자기 시대보다도 너무 앞섰기 때문에 그 위대성이 후대에 가서야 겨우 인정받게 된 위인들이 있다. 이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된다'고 갈파하였다.

상허(常虛) 유석창(劉錫昶) 박사야 말로 나라와 겨레사랑으로 시대를 앞질러 살다 간 훌륭한 선각적 지도자이다. 세월이 흐를수록 그의 생전에 이루지 못하였던 뜻과 업적이 되살아나고 있음을 느끼게 된다.

1992년 정월 초하룻날은 상허 선생이 유명을 달리한지 20주년이 되는 날이다. 우리는 그의 유지와 유덕을 되새겨 추모함으로써 격동기를 살고 있는 오늘의 우리들이 나아갈 바를 살펴보고자 한다.

상허 선생의 나라사랑 정신은 선친 유일우(劉一憂) 선생을 따라서 망명지인 만주벌에서 독립운동을 하던 소년시절에 뼈에 사무치도록 길러졌다.

일제식민지에서 해방이 되자 상허는 즉시 뜻있는 동지들을 규합하여 '조국의 밤'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으로 취임하여 우리나라가 영원히 망하지 않는 복지문화국가를 건설하자면 교육을 일으켜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그리하여 대학설립 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장에 취임하였다.

이듬해인 46년에 조선정치학관을 설립, 49년에 정치대학으로 승격, 59년에 종합대학으로서의 건국대학교로 발전에 발전을 거듭하여 오늘날 민족을 생각하는 학원, 국제화를 지향하는 대학으로 성장을 하였다.

상허는 1961년 건국대학교 총장직을 물러나는 자리에서 "나는 얼마 남지 않은 여생을 농촌 부흥에 바칠 것이며, 논두렁을 베고 죽을 것을 결심하였다"고 선언하고, 농촌운동에 전념하였다. 마치 석양의 노을이 더욱 찬란하게 불 타 오르듯이 전국의 선도농가들을 한데 뭉쳐서 전국농업기술자협회를 조직하고 농민의 정신혁명, 농업의 기술혁명, 농촌의 생활혁명의 깃발을 높이 들고 농민들의 앞장에 서서 복지농촌운동에 헌신하였다.

21세기를 눈앞에 둔 오늘, 우리나라 농촌에는 큰 시련이 닥쳐오고 있다. 우리는 냉철한 이성으로 '자주독립'과 '평화통일' '나라와 겨레사랑' 등의 참뜻을 되새겨 보아야 하겠다. 그리고 이러한 때에 우리는 선인들의 정신을 더듬어 보아야 할 것 같다.

인간은 누구나 단 한 번의 삶을 살게 마련이어서 죽음 후에 곧 잊어지는 인물이 대부분이지만, 반대로 그 정신과 업적이 더욱 빛을 발하는 인물들이 있다. 이런 이들이 우리들의 참 지도자들이라고 하겠다.

상허 유석창 박사는 의심할 수 없는 후자에 속하는 인물로 우리들의 귀감이 될 지도자의 한 분이다. 이 분의 20주기를 맞이하여 새삼 그의 높은 정신과 업적을 기린다.〔『한국일보』 1991년 12월 28일〕

상허 유석창 박사 서거 20주기 추모사

안용교 총장

상허 선생님! 겨레의 존경을 받아 오시던 선생님께서는 독립지사의 후손으로서, 애국 애족하는 일념으로 민중병원과 본교를 창립하시고 농촌근대화(농민의 정신혁명, 농업의 기술혁명, 농촌의 생활혁명)

를 선도한 선각자로서, 구료, 교육, 농촌혁명을 위하여 일생을 헌신하시다가 타계하신지 20년이 된 오늘, 선생님을 추모하는 유족, 건국인, 사회유지 등이 모여 삼가 선생님이 생전에 우리 모두에게 베푸신 공덕과 은혜에 감사하고 유덕을 기리고자 추모와 제례(祭禮)를 올립니다.

본인으로서는 평생 동안 본교에 봉사케 하시고 상허 선생님의 그늘 밑에 밥먹고 살고 자식 낳아 키우게 하시고 대학 책임자로까지 애호하여 주셨으니 부모 다음가는 은인이며 이 세상 떠날 때 까지 그 은혜에 감사할 것입니다.

나무 한 그루, 꽃 한 송이, 벽돌 한 장도 상허 선생님의 손길과 정성, 땀이 담기지 않는 것이 없는 장안벌 모습도 이제 무성이 자라 일감호의 정경과 함께 번영하는 대학의 모습을 갖추기 시작했습니다. 상허 선생님의 민족정신과 건학정신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내 최대의 상허도서관이 건립되었고 상허문화재단도 창립하여 한민족 문화 창달은 물론 상허대상도 수여하고 있으며, 매년 상허사상을 흠모하고 발전시키는 학술발표회도 있습니다.

상허 선생님의 귀한 아들인 유승윤(劉承潤) 이사장님은 선친의 유지를 계승하여, 의과대학 창립, 중원문화의 요람인 충주캠퍼스도 건립하여 현재 7개 대학원과, 15대 단과대학, 2만 재학생, 7만 동문을 배출하는 큰 대학으로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유승윤 이사장님은 '민족을 생각하는 학원, 국제화를 지향하는 대학'이라는 현대적 교육지표를 세워 그 성취를 위해 온갖 정력을 바쳐 실천하고 있습니다. 상허 선생님의 투철한 민족정신의 구현과 인류공영에 이바지할 인재양성의 꿈은 꼭 실현될 것입니다.

아뢰옵기 황송하오나 지난해는 온 건국가족이 감내하기 어려운 아픔과 시련도 겪었습니다. 상허 선생님의 건학정신을 이어받아 온 건국인은 인내와 이해로서 그 난국을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 어려움 속에서도 상허도서관에는 새벽부터 공부하는 학생들로 꽉 매웠고 강의는 더 충실히 진행되었습니다. 교직원은 자생적 구교적(救校的) 애교심을 발휘하였습니다. 그것은 영광스러운 미래를 기약하는 우리의 저력을 과시한 것이었고 또한 자랑임을 확인시켰습니다. 뿌리 깊은 나무는 흔들리지 않으며, 깊은 우물은 마르지 않는다는 옛말처럼, 상허사상은 깊은 뿌리, 마르지 않는 맑은 물이 되어 그 난국을 극복하는 정신적 지주가 되었습니다.

존경하옵던 상허 선생님!

새 역사는 시련 속에서 꽃피고 고통의 과정 속에서 영광과 기쁨을 체험할 수 있다는 교훈을 되새겨 우리 건국가족은 끊임없이 자기쇄신에 힘 쓸 것이며, 새로운 도약을 위한 발전적 변화의 창출을 위하여 온갖 정성을 바치겠습니다.

유승윤 이사장님을 중심으로 온 건국가족이 선진대학 건설이라는 역사적 과제를 무난히 달성할 수 있도록 지혜와 용기 그리고 능력을 갖게 도와주시옵소서, 상허 선생님의 유일한 후계자인 유승윤 이사장이 상허 선생님의 염원과 꿈을 계승 발전시키고 선진대학을 건설하는 역사적 소명을 다하여 훗날 사랑과 존경받은 영광을 누리게 살펴주시옵소서, 삼가 추모의 제례에 복백(伏白)하옵니다.

1992년 1월 1일
총장 안용교 배복(拜伏)
〔『건대신문』 1992년 1월 1일〕

상허정신으로 '건국 도약의 2002'
고 상허 유석창 박사 서거 30주기 추모식 열려

오늘 이른 11시 고 상허 유석창 박사 30주기 추모식이 열렸다. 고 상허 유석창 박사 묘소에서 열린 추모식에는 김경희 이사장, 맹원재 총장, 홍순정 총동문회장, 민관식 상허문화재단 이사장, 유승윤 전 이사장 등이 참석해 고인을 기렸고 강신성일 의원 등 동문과 교직원들도 참석했다.

이번 추모식은 류제창 상허문화재단 상임이사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사범대학 음악교육과 합창단 · 관현악단의 연주로 추모 묵념과 조가 제창이 이어졌다.

곧 이어 민관식 상허문화재단 이사장과 맹원재 총장, 홍순정 동문회장의 추모사가 이어졌다. 민관식 이사장은 추모사에서 '오늘 상허 유석창 박사 서거 제 30주기를 맞이하는 우리는 선생의 숭고한 사상과 정신을 더욱 계승 발전시켜 나가 조국의 영원한 발전을 꾀하는 디딤돌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맹원재 총장은 "우리는, 민족의 광복과 번영을 위하여 한평생 애국애족 정신으로 일관하여 오신 상허 선생님께서 건국대학교의 설립자이심을 크나 큰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다"며 고인을 기렸다. 김경희 이사장은 고인의 며느리인 관계로 추모사를 사양했다.

현화 및 분양을 끝으로 묘소에서의 추모식 행사는 마무리 됐으며 박물관으로 자리를 옮겨 고 상허 유석창 박사 흉상 제막식이 진행됐다. 박물관에 세운 흉상은 우리대학 공예학과 주해준 교수가 제작한 것으로, 이와 똑같은 흉상을 신축될 민중병원에도 배치할 예정이다.

상허 유석창 박사는 1900년 2월 17일 함경남도 단천군 이중면에서 출생했고 1972년 1월 1일 이른 5시 30분 경에 향년 72세로 별세했다.

한편 오는 2일 새천년관 대공연장에서는 대학 및 부속 중고등학교의 임직원이 참여하는 가운데 이사장과 총장, 총동문회장이 신년사를 연설하는 자리인 신년하례식이 진행된다.〔『건대신문』 2002년 1월 1일〕

3) 상허기념사업회의 결성과 활동

1972년 3월 31일 오후 2시부터 2시간동안 장안동 건국대학교 대강당에서는 '고 상허 유석창 박사 기념사업회' 발기총회가 각계 인사, 유족대표 등 2백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 사업회에

서는 정관심의, 임원선출 등을 마치고 앞으로 구체적인 사업안을 마련, 추진할 것을 다짐하였다.

우리나라의 교육 진흥, 의료 봉사, 농업 발전에 전생애를 바치신 고 상허 유석창 박사의 유덕을 받들어 조국의 문화발전, 민주주의 교육향상, 보건 사업과 농업진흥을 권장(勸奬)하고 후진인재를 배출시키기 위한 사업을 실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표방하였다.

이대위(李大偉) 박사가 임시의장으로 선출되어 정관심의, 임원선출 등을 진행하였으며, 발기총회는 유박사 생전의 육성을 듣는 것으로 끝났다. 개회에 앞서 일감호 동편 폭포언덕에 자리한 고 유박사 묘소를 참배하였다.

(1) 상허대상 시상

'학술' '교육' '의료' '농촌' '법률(2008년 이후)' 부문에 걸쳐, 1990년(1회)부터 2012년(22회)까지, 중국 길림성 연변대학 한국학연구소(학술) · Pacific States Univ., LA, U.S.A(교육) · 건국대학교 의과대학(의료) · (사)전국농업기술자협회(농촌, 이상 제1회 수상자) 등, 67개 기관 · 단체 · 개인에게 시상하였다.

참고로 '제1회 상허문화대상 시상식' 장면을 전하는 신문기사를 살펴보면, 건국대학교의 설립자인 상허(常虛) 유석창(劉錫昶) 선생의 구료제민과 복지농촌건설에 일생을 바친 뜻을 계승, 발전코자 상허문화재단에서 주관한 제1회 상허문화대상 시상식이 1990년 3월 17일 오전 10시 상허기념도서관 6층 대회의실에서 300여 명의 내외귀빈이 모인 가운데 진행되었다.

이날 개회사에서 유승윤 이사장은 "본교가 출발한 이래 최근까지 계속된 근대사의 험난한 대변혁과 중첩된 난관 속에서도 결코 좌절하거나 정지하지 않고 줄기차게 전진하면서 민족과 국가의 소명에 부응할 수 있었던 것은 본교의 대학운영과 교육의 근저에 상허 선생의 투철한 애국심과 이 민족에 대한 지극한 사랑, 그리고 위대한 교육철학이 흐르고 있기 때문"이라며 설립자의 업적을 기리었다.

1989년 10월 20일부터 2개월간 추천기간을 거쳐 학술, 교육, 의료, 농촌 분야별로 문화상을 수여하게 되었는데, 문화대상 곽종원 심사위원장은 2월 중순 12인의 심사위원들이 위촉받아 2월 24일 1차 심사위원회를 거쳐 3월 8일 부문별로 수상자를 결정하게 되었다고 보고 했다. 이날 수상자들은 각 분야별로 1천만 원의 상금 · 상패를 받았는데, 수상자와 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학술 부문: 연변대학 한국학연구소/ 한국과 중국 간의 학술교류를 위해 중추적 역할을 했으며 독립운동가 유일우 선생의 자료를 수집 정리하는 등 대한민국 독립운동사 연구에 기여한 바 큼.
- 교육 부문: PUS/ 본교 해외캠퍼스로서 해외동포들에게 조국에 대한 자부심을 심어주었고 특히 전자공학 및 경영학 분야에서 우수인력을 배출.
- 의료 부문: 건국대학교 의과대학/ 인술요원 양성에 기여한 바 지대하고 특히 심장질환 및 장애자 재활교육에 중점을 두어 시대적 요청에 부응한 바 큼.
- 농촌 부문: 전국농업기술자협회/ 새로운 영농기술을 시현하고 유기농업시험장을 운영해 오는 등 농업분야 공헌도가 뛰어남.

한편 김용한 총장은 축사에서 "오늘 우리나라의 근대사에 불멸의 공적을 남기신 상허 유석창 박사님의 유덕을 기리고, 그 유지의 계승을 확인함과 아울러, 상허정신의 구현을 위하여 지대한 공로를 쌓으신 여러분에게 경의의 뜻을 표하는 행사를 가지게 되었음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라고 했다.(『건대신문』 1990년 3월 19일)

(2) 세계 언어문자 조형물 설치

이 사업은 1989년부터 2009년까지 세계 160여 개 나라의 '특산돌(1.5m×1.5m×0.3m)'을 기증받아 그 국가의 상징적인 문구와 그 나라 언어의 알파벳을 새겨 넣어 세우는 것으로, 설립자인 상허 선생의 유지를 받들고 학생들의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상허기념도서관을 신축하고 그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상허기념도서관 정문 좌우에 "세계언어 조형문자 기념비" 공원을 조성하려는 계획이었다. 그리하여 대한민국과 기증국가 간의 이해와 문화교류의 폭을 확대하고, 문화적 · 학문적 교류를 확대함으로써, 우리대학의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기증 업무는 주한 각국 대사관이나 미수교국 및 주한 대사관이 없는 나라는 외무부나 문교부에 의뢰 혹은 각국의 대학 및 연구기관을 통해 추진하였으며, 운송비용은 학교법인이 부담하거나, 선박운송회사가 부담하였다.

전면에는 기증국가의 문자나 상징적인 문구를 조각하고, 이면에는 국 · 영문으로 전면의 글자내용에 대한 해석 및 기증 국가 · 일시 · 조각자 · 운송비 부담자 등을 새겼다.

1988년 10월 10일 이관옥(일천만 이산가족 L.A. 지역 협의회 회장)이 기증한 훈민정음 자모문자를 새긴 '한국 포천석'을 세운 것을 시작으로, 1989년 8월 8일 이스라엘 외무성이 기증한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라"(마가4:2)는 내용을 새긴 이스라엘 예루살렘 돌로 만든 조형물을 비롯하여, 주한 아르헨티나 대사관, 주한 스웨덴 대사관, 주한 칠레 대사관, 베를린 시장, 스리랑카 교육부, 가나공화국 전직 대통령, 덴마크 농업협동조합, 유승윤 이사장, 건국대 15 · 16 · 21회 동문회와 교직원 및 동문 등이 동참하였다.

(3) 상허사상 학생 연구논문 발표회 개최

1990년 11월부터 2004년 11월까지 15차례에 걸쳐, 「지역사회에서의 대학의 역할과 상허사상 실현 방안」(강병규), 「상허사상에 입각한 농촌 고령화 문제의 해결 방안 모색」(고나영), 「상허사상에 입각한 건국대학교 신문광고 Visual Message 제안」(김병규 · 박종원 · 박상권 · 황종한), 「미래지향적인 상허사상 구현을 위한 건국대학교의 이미지 제고 방안 연구」(김일환 · 최윤희), 「상허사상의 구현 및 실천방안에 관한 연구」(박윤완 · 최재영), 「상허의 애국애족 사상에 입각, 역사왜곡에 대한 대응방안 모색」(석진아), 「상허사상 구현을 위한 전문 농업인 최고경영자과정 개선 방안」(송민호 · 윤재열), 「지식기반 시대에 따른 상허도서관의 새로운 비전과 도전」(송소진), 「상허사상에 입각한 건국대학교 유아교육과의 발전방향과 설계」(왕은영 · 이지우), 「상허사상을 바탕으로 한 Biotechnology의 실현 가능성 연구」(유치호), 「상허사상의 구현 및 실천방안을 통한 현 대학교육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윤은혜), 「상허사상에 기초한 창의적 · 비판적 인재 양성」(정민지, 이상 2004년 발표논문) 등, 216편의 논문이 발표되었다.

韓國農業의 未來像

劉錫昶 著

巨視的 五段階發展의 理論化 體系化

技術·理論

韓國農業의發展을위해노력해온著者가이번에西曆二、〇〇〇年代의韓國農業을그려보는「韓國農業의未來像」이란大作을發表했다。第一部의韓國農業現況分析에서第二部의農業開發段階論그리고第三部의農民資本主義의脫皮에이르는農業綜合書다。이著書는農業의歷史的인發展過程을例리하게分析하고韓國農業의現實을정확하게파악하였으며批判하였다。앞으로의韓國農業의갈길을明示했다。劉氏의立論에는農業經營技術과經濟理論이혼합되어一元的인體系化가미흡하지만韓國農業의전진한未來像을구상하는巨視的眼目은우리農學界에바람직한일이다。

〈建國大學校出版部刊·六百五十七面·一千二百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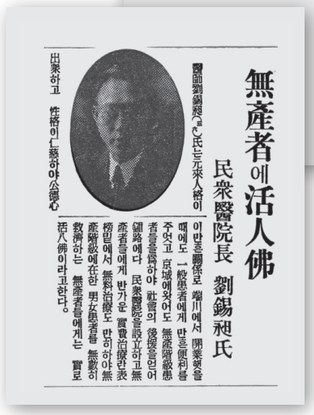
다는點에서農學徒에게큰도움이될수있는指針書가될줄안다。또한本書는農政관계자에게필요한理論과現實分析을廣範圍하게다루고있다。

著者가主張하는「三位一體농업開發第五段階」의內容을한句節만紹介하면서이册子의槪要를摘示해볼까한다。

농업의發展의第五段階는農業의三大革命이완수되어가는단계인동시에농업경영의현대화가이룩되어가는時期인것이다。이제五段階에서의特徵을들어본다면㈀法人農場내지株式農場의등장㈁農工並進과農業機械化㈂農民資本家의出現㈃農業經營의現代化등이다。

劉氏의立論에는農業농업의갈길을明示했다。

韓國農業의發展을위해노력해온著者가이번에西曆二、〇〇〇年代의韓國農業을그려보는「韓國農業의未來像」이란大作을發表했다。第一部의韓國農業現況分析에서第二部의農業開發段階論그리고第三部의農民資本主義의脫皮에이르는農業綜合書다。이著書는農業의歷史的인發展過程을例리하게分析하고韓國農業의現實을정확하게파악하였으며批判하였다。앞으로의韓國農業의갈길을明示했다。劉氏의立論에는農業經營技術과經濟理論이혼



無産者에 活人佛

民衆醫院長 劉錫昶氏

出衆하고 性格이仁愛하야公德心

醫師劉錫昶氏는 仁氏三方來人士이

이와같은關係로 瀋川에서 開業하였을때에도 一般貧者에게 많은恩惠를주었고 原地에있어도 無産階級의 患者들을 救援하여 社會의 後援者로있다。民衆醫院을 設立하고 無料治療도 많이하여 貧困階級에있는 男女患者를 無數히 救援하는 無産者들에게는 實로 活人佛이라고한다。

教育의 先覺

劉錫昶박사의 靈前에…韓格晩

常盧 劉錫昶博士는 周知하는바와같이 建國大學校 設立者요 初代總長을 歷任하고 財團理事長으로 서나 大學發展을위하여 나게나 勞心焦思하면 에 1월1일 상오5시에 癌腫으로 急逝했다。

劉博士를 잃은 世代에 서는 偉大한 一個 教育者로서만은 아니다。

결코 그렇지 않은點이 事을 苦學으로 卒業하고 그는 해방과동시에 教育入金全英、宿食까지 提供 보면서고이고이찾드소서!

享年72세를 一期로 心臟

南滿洲 軍備擴張期에 滿洲立軍短期講習所主 務에 努力하다가 關係해 機關紙까지 發刊했다。第一 部의 韓國 農業現況分 二部의農業 開發段階論 三部의農 民資本主義 의脫皮에 七百而에이 르는 農業 綜合書다。 이著書는 農業의歷史 的인 發展 過程을 例 리하게 分析 하고 韓國農業의 現實을 정확하게 파악 하였으며 批判하였 다。앞으로의 韓國 農業의 갈길을 明示했 다。劉氏의 立論에는 農業 經營技術과 經濟理論이혼 합되어 一元的인 體系化 가 미흡하지만 韓國農業 의전진한 未來像을구상하 는 巨視的眼目은 우리農 學界에 바람직한일이다。

〈建國大學校出版部刊·六百五十七面·一千二百원〉

다는點에서農學徒에게 큰 도움이 될수있는 指針書 가 될줄안다。또한 本書 는 農政관계자에게 필요 한 理論과 現實分析을廣 範圍하게 다루고있다。

著者가 主張하는「三位一體농업開發第五段階」의 內容을 한句節만 紹介하 면서 이册子의 槪要를摘 示해볼까한다。

농업의 發展의 第五段 階는農業 의三大革 命이완 수되어가는 단계인 동시 에농업 경영의 현대화가 이룩되어가는 時期인것이 다。이제 五段階에서의特 徵을들어 본다면 ㈀法人 農場내지 株式農場의 등 장 ㈁農工並進과 農業機 械化 ㈂農民資本家의出現 ㈃農業 經營의 現代化등이 다。

劉氏의 立論에는 農業 농업의 갈길을 明示했 다。劉博士의 靈前에 삼가 그 일곱을 기르기에 專念하셨습니다。 다보는 혜안, 慧眼이 남다르며 또한 당신은 너무나 큰 理 想을 追求하는 꿈의 化身이기도 했읍니다。 대담없는 劉博士님, 이제 다시 볼 수는 없읍니까。 그 遠大한 꿈을 이 祖 國땅위에 버려두고 어찌 눈을 감을수 있었읍니까。 道는 無心하여 당신은 끝내 눈을 감으셨읍니다마는 당신의 後世에 남을 것이며 그렇게 못내 애석하면 文化國家의 建 設도 이룩되고야 말 것입니 다。劉博士님, 눈을 고요히 감 으시고 길이 명복하소서。

〈建大總長〉

元鍾郭

제2편

상허 사상의 내용과 가치

– 교육 · 의학 · 농업의 발전을 통한 복지문화국가 건설론 –

1. 인간에 대한 신뢰와 이타적인 삶의 철학
2. 애족 · 애국 사상: 복지문화국가 건설 사상
3. 건국인재 양성 교육사상
4. 의료제민 사상
5. 농업의 근대화와 농촌 발전 사상
6. 새마을운동 이념 및 한국현대농업사상으로의 발전
7. 상허 사상의 의미와 가치

제2편

상허 사상의 내용과 가치

– 교육 · 의학 · 농업의 발전을 통한
복지문화국가 건설론 –

1
인간에 대한 신뢰와 이타적인 삶의 철학

상허 선생의 인간에 대한 신뢰와 휴머니스트적인 측면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례가 있다. 1966년 5월 어느 회의석상에서 그가 농촌개발운동의 주역으로서 '선도농가' 양성을 제안하였는데, 이에 대해 재정적 뒷받침의 불가능 등을 들어 반대하는 입장이 제기되자, 그는

> "우리는 무(無)에서 유(有)를 창조해야 합니다.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열립니다. 우리가 돈이 없다고 해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수수방관만 하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첫째도 사람, 둘째도 사람, 셋째도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계획이 뒤따르고, 그 다음 다음에 돈이 필한 것입니다."(『상허 유석창 전기』, 315쪽)

라는 논리를 펼치면서 자신의 신념을 강조하였다. 여기에는 '사람'에 대한 믿음이 묻어난다. 그가 말하는 '사람'은 열정과 긍정적인 마음 · 자신감 등을 갖춘 사람으로, 이들의 열정과 성실성, 긍정적인 마음과 자발성과 자신감 등이 곧 '무(無)'에서 '유(有)'를 창조할 수 있는 에너지가 되리라는 의미이다. 교육을 통한 정치엘리트 양성 및 농촌엘리트의 양성을 통해, 궁극적으로 국가의 발전과 부강을 이끌겠다는 생각의 저변에는 이 같은 인본주의적(人本主義的) 가치가 자리하고 있었던 것이다.

상허 선생의 이타적인 삶은 '상허(常虛)'라는 아호에 고스란히 담겨 있다. 경성의전(京城醫專) 재학 시절, 노장철학(老莊哲學)에 심취하여, 자신의 인생행로를 결정하게 될 이타적인 삶의 깨달음에 이르렀다고 한다. 『장자(莊子)』 '인간세(人間世)' 편에 실린, 공자(孔子)의 "기(氣)라는 것은 텅 빈 채로 사물을 맞아들이는 것이다. 도(道)라는 것은 이러한 빈 상태에 모이는 것이다. 이처럼 비우는 것이 곧 마음의 집〔氣也者, 虛而待物者也. 唯道集虛. 虛者, 心齋也〕"이라는 말은 이후 그의 운명을 가늠하는 잣대가 되었다.

그는 '허(虛)가 만물을 받아들이는 바탕'이라는 대목에 공감하고, 자신의 호를 '상허'로 지었다. 상허 선생에게 '늘 비어 있는 마음'은 새 것을 담을 수 있는 준비 상태, 즉 새 것을 받아들이고, 담기 위한 비움이라 할 수 있다. '늘 비어 있음'은 영원히 비어 있는 것이 아니고, 비어 있기에 새 것을 담을 수 있는 것임을 의미한다. 가득 차 있으면 더 이상 담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상허'란 새 것을 담을 수 있는 동시에 새 것을 담기 위해 늘 비워 둠을 의미한다. 비워 두어야 새로운 것들을 담을 수 있다는 아주 깊고 오묘한 이치인 것이다. 이처럼 상대를 배려하고 이해하려는 이타적(利他的)인 겸

허함과, 모든 사람을 포용하는 넓은 도량을 가진 선생의 인격이 '상허'라는 아호에 잘 반영되어 있다고 하겠다.

그의 평소 삶의 태도를 염두에 둔다면, '상허'는 겸손하고 검소한 생활 태도가 몸에 배어 있어야 한다는 의미일 것이다. 『노자』「허기심(虛其心)」에 따르면, 항상된 이치는 텅 비어 있는 듯하면서도 끊임없이 만물이 거듭나도록 하는 작용이 있다. 그러하였기 때문에 '상허'라는 호에 담겨져 있는 의미를 계승함에 있어서, 후학들은 '항상 나라를 바로 세우는 것을 생각하고(常念建國)' '사사로운 마음을 비우고 나라를 위해야 한다(虛心爲國)'는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다.

이처럼 상허 선생은 '늘 비어 있는 마음'인 무욕청정(無慾淸淨)에 있었기에 5 · 16 군사쿠데타 직후 정년 단축 조처로 인해 건국대 총장직을 물러날 때에도 어떠한 마음의 동요나 집착 없이 이를 받아들였고, 주위의 회갑연 준비도 물리칠 수 있었을 것이다.

그의 이타적이고 헌신적인 삶의 모습을 전하는 일화들을 살펴보면, 8살 되던 해 늦여름 무렵 소나기로 물이 불은 냇물을 건너다 이웃동네의 노인이 물에 빠졌을 때 물에 뛰어들어 노인을 구출했다. 그리고 경신학교 재학 시절 곤경에 처한 친구를 위해 새로 산 외투를 전당포에 맡기고, 자신은 추위와 친구들의 놀림을 묵묵히 견뎌냈다. 또 건국대학교 총장 재임 시기 수차례 총장공관 건축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나, 그는 끝내 이를 제지하고 20평 정도 되는 자신의 구옥에서 그나마 저당 잡힌 상태로 세상을 떠날 때까지 살았다. 지극히 검소했던 그의 삶의 모습을 읽을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이타적인 휴머니즘이 동지애, 나아가 민족애와 조국애로 발전하였던 것이다. '나' 자신이 아닌 '남'을 위한 삶이었고, '남'의 외연이 '민족'과 '국가'라는 범주로 확대되어 간 것이 그의 일생이었던 것이다.

2
애족 · 애국 사상: 복지문화국가 건설 사상

상허 선생이 설립하고 운영한 사업체 · 단체 · 교육기관으로는 '민중병원(民衆病院)' '조선과학자협회(朝鮮科學者協會)' '건국의숙(建國義塾)' '조선정치학관(朝鮮政治學館)' '조선정치대학관(朝鮮政治大學館)' '정치대학(政治大學)' '건국대학교(建國大學校)' '흥국공사(興國公社)' '흥농공사(興農公社)' '흥국약업사(興國藥業社)' '전국농업기술자협회(全國農業技術者協會)' 등이 있다. 하나같이 '나라 사랑' '겨레 사랑'의 염원이 묻어나는 명칭들로, 국가와 민족의 부흥과 발전을 염원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

1961년 9월 30일 건국대학교 총장직에서 물러날 때 이임사에서 "여생의 프로그램은 오히려 다채로울지 모르나 중심은 오로지 조국이요, 그 재건임에 틀림없을 것을 스스로 다짐"한 사실에서 알 수 있듯이 그의 삶을 지탱해 준 중심 가치는 '가난하고 헐벗은 조국'을 재건하여 부강하고 아름다운 나라로 만드는 일이었다.

이타적인 그의 삶의 철학은 애족(愛族) · 애국(愛國) 사상으로 발현되었다. 그가 이루고자 했던 삶의 목표는 자신의 이익이나 의로움이라는 차원을 넘어서서, 민족과 국가의 안정과 발전이라는 가치였다. 이는 그가 소년시절 장백현(長白縣)에서 부친 유일우(劉一憂) 선생의 독립운동을 도우며 성장했던 사실과, 귀국 후 청 · 장년기를 일제 식민통치 하에서 신음하는 민중의 힘든 삶을 구제하기 위한 의술구민(醫術救民)의 길을 걸었던 인생역정(人生歷程)에서 비롯되었다.

그리고 장백현에서 보낸 소년 시절의 기억은 그의 민족의식의 밑거름이 되었다. 상허 선생의 민족의식을 보여주는 일화가 있다. 1965년 건국대 축산대 학생들의 해외연수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일본 지바현(千葉縣)에 있는 육종농장(育種農場) 측과 협약을 체결하고 학생들을 파견하였다. 1 · 2차 연수교육이 끝난 후 일본 측이 더 이상의 연수생 파견을 꺼리자, 그는 농장주 후나쿠시(船串)를 낙원동 총장실로 불러 자신의 항일투쟁 경력을 들려주고, 다음과 같이 말했다.

> "나는 농업연수단의 파견을 매우 중요한 것으로 여기고 있지만, 솔직하게 말한다면 당신네 나라를 좋게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세계정세의 흐름으로 볼 때 두 나라는 친선과 우호를 돈독히 해야 합니다. 기술을 가르치고 배우는 일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두 나라의 농민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더 참된 우정을 나누는 것이 중요하다고 여기고 있습니다. 귀하의 목장에서 연수생을 잘 대접하여 보내는 것은 사람 씨

앗을 한국에 뿌리는 것과 같습니다. 이 씨앗이 자라는 모습을 보는 일이 얼마나 즐거운 노릇입니까?"(『조용한 혁명을 위하여』, 214~215쪽)

상허 선생의 논리에 감동한 일본인 농장주는 "저는 이번에 한국에 와서 훌륭한 스승을 모시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선생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이라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고 승복하였으며, 이어지는 연수과정 프로그램도 순조롭게 진행되었다고 한다.

1961년 9월 30일, 건국대학교 총장직을 물러나면서 심정의 일단을 토로한 내용도 상허 선생의 애국 · 애족 사상을 이해하는 데에 도움을 준다.

"조국에 대한 사랑이 누구에게나 범연(泛然)하랴마는, 나는 아마도 조국애(祖國愛)에 사로잡혀 병든 몸이 되었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국운(國運)이 기울어진 구한말, 혁명투사였던 가친(家親)을 따라 망명의 길을 떠났던 것이며, 삭막한 만주(滿洲) 일대를 헤매이던 소년 시절에 이역(異域)에서 받은 망국민(亡國民)의 설움은 어린 나에게 조국에 대한 그리움을 뼈 속까지 사무치게 하였으며, 이제는 비록 이 몸이 백골이 되고 진토가 된들 가실 수가 없을 것입니다. …

조국이 없으면 부귀도 없으며, 조국이 없이는 너도 나도 없다는 신념에서 나의 잔뼈가 굵어 왔으며, 총칼을 들고 반제(反帝) 대열에 따랐던 나로서는 지금도 조국이라는 말만 들어도 가슴이 뭉클해지며 눈시울이 뜨거워집니다. 내가 조국 안에 있고 조국이 내 안에 있는 듯 조국이 나요, 내가 곧 조국인 양 조국과 나는 결코 둘이 아니라는 신념에서, 나는 한 평생 그 조국과 나를 위하여 미성(微誠)이나마 몸과 마음을 바쳐 살아왔으니, 이러한 심정이 이른바 '사랑'인가 합니다."(「건국대학교 총장 이임사」, 『건대학보』 11호, 1961. 9. 30, 18~19쪽)

라고 했듯이, 조국의 발전과 번영을 담당할 젊은이를 키워내겠다는 것이 그의 교육철학의 핵심이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 같은 애족 · 애국 의식은 국가 발전을 목표로 하는 비전의 제시로 이어졌다.

"배고픈 사람에게 한 마리의 물고기를 주면, 그 사람은 하루를 먹고 견딜 수 있다. 그러나 그에게 물고기를 잡는 방법을 가르쳐 주면, 그 사람은 자기의 힘으로 고기를 잡아서 일생을 잘 살 수 있다.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유산(遺産)은 무엇인가? … 자력(自力)으로 살아갈 수 있는 자주독립(自主獨立)의 정신과 능력을 키워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후손들에게 남겨줄 최고의 유산은 바로 교육(敎育)입니다."(「상허 유석창 전기」, 167쪽)

이렇듯 상허 선생의 교육관은 자신의 능력으로 자조 · 자립할 수 있는 건강하고 건전한 시민, 나아가 복지문화국가를 건설할 역군을 양성하고자 했다. 그리고 이를 위한 교육의 둥지로서 건국대학교를 설립했다. 그는 "참된 민중의 지도자가 되고, 국가와 민족에게 이익을 줄 수 있고, 신임을 받을 수 있는 충실한 일꾼은 일조일석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하면서, 이러한 인재 육성이 곧 우리 건국대학교의 설립 목적"이라고 하였다. 그런 점에서 건국대의 건학 이념은 "애국애족에 불타는 지도자의 육성"에 있으며, 학교 이름 역시 건학 이념에서 유래한 것임을 알 수 있다.(「상허 유석창 전기」, 235쪽)

"우리 대학은 설립자나 학교법인 임원 몇 개인의 사유물이 아니고, 그 육성에 정성과 노력을 기울인 모든 사람의 공유물이요, 사회와 겨레의 공기(公器)이다."(「기념사」, 『학술지』 7, 건국학술연구원, 1966)라는 상허 선생의 발언은 건국대학교의 설립이 개인인 자신의 영예와 꿈의 실현이라는 차원을 넘어서서, 사회와 국가 발전에 기여하겠다는 의지와 염원에서 구상된 것임을 보여준다. 일찍이 사회가 운영하는 가난한 이들을 위한 의료기관으로서 민중병원을 설립했던 정신과 그 맥을 같이 하고 있는 것이다.

국가 발전과 사회 번영이라는 공적 가치를 우선시하는 상허 선생의 선공후사(先公後私)의 정신은 산업의 근대화를 통한 부강한 사회를 건설하는 과제로 이어졌다. 먼저 "우리나라를 근대화된 산업국가로 건설하자면 농업과 공업이 아울러 발달해야 한다. 산업국가(産業國家)는 모름지기 농업에 바탕을 두고 그 기초 위에 공업화를 추진해야 한다."(「상허 유석창 전기」, 231쪽)고 주장한 그의 궁극적인 목표는 '고도로 발달된 복지문화국가(福祉文化國家)'의 건설이었다.

그가 꿈 꾼 복지국가의 청사진은 첫째, 민주정치제도 하에서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민주화되고, 과학과 기술이 발달한 나라, 둘째, 국민성이 참 되고 아름다워 협조와 인화가 잘 되고, 항구평화가 이룩되는 나라, 셋째, 모든 국민의 생활수준이 높을 뿐만 아니라, 균형 잡힌 경제성장을 이룩하고 있는 복지사회가 구현되는 나라, 넷째, 도의적인 질서가 서 있는 자유국가로서 자기네 한 나라만 잘 사는 데 그치지 않고, 세계 인류문화에도 공헌하는 나라를 건설하는 일이었다.

이러한 그의 꿈은 "우리 (한)반도 민족은 하늘이 주신 고유한 재능과 슬기를 최고도로 발휘시킴으로써 과학의 나라, 기술의 나라로서의 현대적 문화국가를 만드는 동시에, 다시 역사적으로 결함을 가진 민족성을 개조하여 참하고 부지런하며 말없는 민족을 만들어, 덴마크나 스위스와 같이 자력자활(自力自活)하는 아담한 국가로 육성함으로써 하나의 유족한 귀염둥이 나라가 되면 자신도 아름답게 잘 살 것이며, 또한 인류문화에 크게 공헌하는 국가가 될 것"이라고 한 1961년 9월 30일 총장 이임사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자기 민족만의 틀 안에 갇힌 '폐쇄적인' 민족주의가 아니라, 세계 · 인류 문화 발전에 기여하고 공영할 수 있는 '열린' 민족주의에 토대한 복지문화국가, "덴마크나 스위스와 같이 자력자활(自力自活)하는 아담한 국가" 영토는 작고 인구는 적지만 경제력 문화창조력이 뛰어난 '강소국(强小國)'이 그가 그린 조국, 대한민국의 모습이었다.

요컨대 "고도의 문화국가(文化國家), 즉 국민성을 개조하여 진실하고 부지런하고 용기있는 인간을 만드는 한편, 모든 생산을 기술화하고 생활을 과학화함으로써, 아름다운 문화와 고루 번영하는 복지국가를 건설하는"〔一中 金忠顯 붓글씨, '권두' 뒷면, 『상허 유석창 전기』〕 데 필요한 리더십을 갖춘 역군을 길러내자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가 제시한 '복지문화국가'는 농업 발전의 기초 위에 공업이 발전하는 즉, 농업과 공업이 함께 발전함으로써 이룩될 수 있는 나라였다. 그는 현대국가의 경제 발전이 농업을 희생시키는 전제 위에서 공업화가 추진되고 있어, 농업은 상대적으로 쇠퇴되고 있는 바, 농업의 발전을 돌아볼 여유를 가지지 못한 채 공업입국(工業立國)만을 시도한다면, 이는 크나큰 과오가 될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그러기에 그는 먼저 농업을 발전시키고 그 기반 위에서 산업국가를 건설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던 것이다.〔유석창, 『한국농업의 미래상』, 1967, 1~2쪽〕

그가 국가건설을 위해 중시한 또 다른 방안은 과학 · 기술 교육의 강화를 통한 '과학입국론'이다. 1963년 9월 그는「조국의 살 길」이라는 글에서

> "군사력이나 정치력이나 일시적인 것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었고, 우선 과학교육과 높은 기술의 육성으로는 스웨덴이나 덴마크 같이 고도로 발달된 아름답고 귀여운 나라로 존재할 수 있으리라. …
>
> 그렇게 됨으로써 자손만대에 다시는 망국민족의 치욕을 끼치지 않는 굳건한 나라로 발전해야 한다는 것을 뼈아프게 느꼈던 것입니다. 그러한 이상국가를 건설함에 있어서 첫째, 그 일을 담당할 인간성의 문제와, 둘째는 과학화된 생활기술 문제라는 것이 제기되었습니다."〔『상허 유석창 전기』, 252~253쪽〕

이렇듯 공업기술의 과학화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고방식을 합리화 · 과학화시켜야 하고, 생산기술을 과학화해야 하고, 영농기술을 과학화함으로서, 궁극적으로는 생활의 과학화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꿈에도 그리던 조국을 도로 찾은 우리는 어찌하면 다시는 외국의 침범을 받지 않고 평화스럽고 만족하고 행복된 생활을 영원히 누릴 수 있는 아름다운 나라를 만들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을 유일한 염원으로 하고 공통한 명제로 삼아왔던 것이다. 이 목적 달성과 숙제 해결을 위하여서는 … 우리 한국을 '과학의 나라'로 만드는 것 외에 다른 방도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다. … 사고나 생활방식을 합리화하고 과학화하는 원동력을 어디서 구하여야 할 것인가. 이것은 두말 할 것도 없이 '교육의 힘'에 의거해야 할 것이다."〔『政大』 창간호, 1956년 2월 25일〕라고 회고하면서, "여러 선배 동지들과 의논한 끝에 우리가 겪어야 할 근대화 과정 내지 과학국가 건설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선행조건이 지도적 역군의 양성임을 통감하고 우선 그 출발로서 조선정치학관을 개설"하였다고〔『건대신문』 147호, 1963년 5월 10일〕 밝혔다.

동시에 그는 고도의 문화국가 건설과, 그 전 단계로서의 산업국가의 건설에 있어서의 최대공적을 '태만'이라고 하면서, 우리 국민의 뱃속 깊이 박혀 있는 태만을 추방하지 않고서는 산업국가와 그에 잇따른 문화국가의 건설은 한낱 공염불에 지나지 않는다고 단정하였다. 그는 부지런한 국민성의 함양만이 모든 건설의 어머니요, 모든 발전의 기초라고 확신하였던 것이다.〔趙一文, 『建學精神 풀이』, 건국대학교출판부, 1981, 30쪽〕

이 같은 이타적인 삶은 민중병원을 통한 '인술제민(仁術濟民)'과 '인술보국(仁術報國)', 건국대학교를 통한 '교육입국(教育立國)'과 '육영보국(育英報國)', 전국농업기술자협회를 중심으로 한 '구농보국(救農報國)'의 도정(道程)을 통해 구현되었다. 즉 민중병원을 통해 보다 나은 의술(醫術)로써 민족갱생(民族更生)의 터전을 개척하는 1단계, 우리나라와 겨레를 바로잡고, 우리민족의 보존을 위해 꿋꿋이 밀고 나아갈 참된 일꾼을 육성하고 건국인재(建國人才)를 길러내는 2단계, 빈곤을 쫓아내고 농촌 개발을 통해 참된 복지국가를 건설하는 3단계가 그것이었다.

그는 해방 조국이 다시는 불행한 운명을 밟지 않고, 영구히 자주 · 독립 · 번영을 누릴 수 있는 길은, 오직 산업국가를 통한 문화국가를 건설하는 데 있다고 믿었다. 그와 동시에 자신의 뜻을 펴나가기 위해서는, 올바른 인생관 · 가치관을 심는 인간교육과, 민족 · 국가 의식을 깨우치는 국민교육이 선행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절실히 느꼈다. 유 박사는 한민족의 불행은, 우리가 오랜 학정(虐政)에 시달리는 동안 인격과 도덕이 파탄되고, 사랑과 애국심이 고갈된 데에 기인한다고 판단하여, 우선 교육을 통한 인간성의 순화와 민족의식의 배양으로 중흥의 기틀을 잡아야 하겠다고 결심하였다.

인간으로서 갖추어야 할 여러 가지 덕목 가운데에서도 상허 선생은 성 · 신 · 의를 가장 상징적 덕목으로 꼽아, 뒷날 건국대학교의 교시로 설정하였다. 동시에 성 · 신 · 의의 덕성을 갖춘 인간의 사회적 유대, 즉 그러한 덕성을 갖춘 사람들 사이의 협동과 단결을 중시하여, 부지런하고 협조적인 민족성의 함양에 전력을 경주하였다.〔조일문(전 건국대학교 제8대 총장), 「건학정신 맥맥히 이어져」, 『내가 본 상허 유석창』, 215쪽〕

이러한 바탕 위에서 그는 산업국가 건설의 첫 단계로서 농산업을 선도적 사업으로 들었다. 건국대가 최초의 산업대학으로 축산대학을 세우고, 이어서 농과대학을 세운 것도 그 때문이었다. 더 나아가 상허 선생은 입학하는 모든 학생들에게 일하면서 배우고, 배우면서 일하는 습관을 체화(體化)시킴으로써 교육과 생산, 생산과 교육이 직결되도록 힘썼다.

그의 이러한 사상은 백범 김구가 "나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라가 되기를 원한다. 가장 부강한 나라가 되기를 원하는 것은 아니다. 내가 남의 침략에 가슴이 아팠으니, 내 나라가 남을 침략하는 것을 원치 아니한다. 우리의 부력은 우리의 생활을 풍족히 할 만하고, 우리의 강력은 남의 침략을 막을 만하면 족하다. 오직 한 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이다. 문화의 힘은 우리 자신을 행복 되게 하고, 나아가서 남에게 행복을 주겠기 때문이다. … 나는 우리나라가 남의 것을 모방하는 나라가 되지 말고, 이러한 높고 새로운 문화의 근원이 되고, 목표가 되고, 모범이 되기

를 원한다. … 최고 문화 건설의 사명을 달할 민족은 일언이폐지하면, 모두 성인을 만드는 데 있다. 대한 사람이라면 간 데마다 신용을 받고 대접을 받아야 한다.…〔김구, 「내가 원하는 우리나라」, 『백범김구선생언론집』(하), 나남출판, 2004, 173~174쪽〕"고 한 것과도 일맥상통한다.

상허 선생은 "식량의 자급자족은 경제자립의 기초가 되며, 공업 입국을 목표로 하더라도 먼저 농업이 선도산업으로 발전하여야 된다."〔「1970년 신년사」, 『농업기술회보(農業技術會報)』 78호, 1970년 1월 1일〕는 신념을 가지고 있었다. 동시에 "근대화된 산업국가로 건설하자면, 농업과 공업이 아울러 발달해야 한다. 산업국가는 모름지기 농업에 바탕을 두고 그 기초 위에 공업화를 추진해야 한다. … 이제 구태의연한 농업 생산의 양식을 전화하여 축산 · 낙농의 다각적 영농양식을 도입하여 근대화를 성취해야 할 것"〔『상허 유석창 전기』 231쪽〕이라고 말하였다. 농공병진(農工竝進)을 통해 산업의 발전을 이끌어내고, 이 같은 기반 위에 공업화를 추진해야 할 것이며, 농업 분야에서는 노동집약적인 전통적인 생산 양식을 탈피하여 축산업과 낙농업을 적극 도입함으로써 농업의 생산을 다각화하고 농가의 소득 증대를 위해 노력하자는 것이었다. 말하자면 공업입국(工業立國)을 장기목표로 하면서도 공업화를 위한 선도산업으로서 먼저 농업 발전에 총력을 집중하여야 된다는 것이 그의 신념이었다.〔「농업기술회보(農業技術會報)」 62호, 1968년 9월 1일〕

상허 선생이 생각한 진정한 조국의 근대화는 고도의 복지문화국가 단계를 거쳐야만 이룩된다는 것이었으며, 이러한 농업발전을 선행조건으로 하는 산업국가 건설을 항상 주창하였다.〔「농업기술회보(農業技術會報)」 58호, 1968년 5월 1일〕

도시와 농촌이 균형을 이루는 성장만이 진정한 조국근대화이며 공업입국(工業立國)을 장기목표로 하면서 공업화를 위한 선도산업으로서 먼저 농업개발에 총력을 집중하여야 된다는 것이 그의 신념이었다. 그러므로 농업개발은 정부의 지원과 투자, 농민과 선도농가가 삼위일체가 되지 않고서는 불가능하기에 먼저 선도농가(先導農家)가 자아혁명(自我革命)을 완수하고 앞장서 농민에 대해서는 정신혁명, 농업에 대해서는 기술혁명, 농촌에 대해서는 생활혁명을 이루자는 것이 바로 그가 내세운 조용한 혁명이며 자주적으로 완수해야 할 과업이었던 것이다.〔「특별담화」, 『농업기술회보(農業技術會報)』 75호, 1969년 10월 1일〕

한편 상허 선생은 건학정신의 실천 강령에서 학생들에게 "정열과 용기와 창의로써 새 시대를 이끄는 개척자가 되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슬픔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 현실이 낙후되었다는 사실이 아니라, 낙후된 현실을 바로잡으려는 노력의 부족이라고 진단하였다. 그렇기에 청년들의 가슴 속에 굳건한 의지와 꾸준한 노력, 그리고 왕성한 개척정신이 있는 한, 오십보백보의 뒤떨어짐은 아무런 문제가 될 수 없다고 하였다.

그는 성 · 신 · 의를 지향하는 인간 교육과 더불어 창조와 개척정신으로써 우리 앞에 가로막힌 험준한 고개를 넘고 가시밭길을 헤쳐 나갈 것을 강조하였다. 이를 위해서 육체적 노력의 반복만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새로운 이론과 지식을 도입하고 선진기술을 습득하여 산업발전과 생활

혁명에 이바지할 것을 강조하였다.〔趙一文, 『建學精神 풀이』, 건국대학교출판부, 1981, 39~40쪽〕

그는 현대 세계에서는 누가 더 과학적이냐, 누구의 기술이 더 뛰어났는가가 빈부를 가름하고, 역사의 주종(主從)을 결정하는 바로미터라고 하면서, 한국을 가장 강대한 나라로 세우는 것 보다는 가장 과학적이고 문화의 향기 드높은 아름다운 나라로 성장시켜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말하자면 과학을 숭상하고 기술의 발전을 촉구하였지만, 과학 만능 · 기술 지상을 신봉하지는 않았던 것이다.〔趙一文, 『建學精神 풀이』, 건국대학교출판부, 1981,41~43쪽〕

상허 선생이 고도의 과학과 기술로 무장한 새 시대의 개척자를 양성하기 위하여 건국대를 설립할 때 성 · 신 · 의의 덕성을 갖추어야 한다고 강조한 것은, 바로 과학과 휴머니즘의 한국적 재현이라 할 수 있다. 그래서 그는 건대 교육의 실천 강령에서 끊임없이 새 지식과 새 기술을 습득하라고 당부하면서, 그 첫머리에는 진실과 지성으로써 건전한 인격을 도야하고, 신의와 협동으로써 도의질서를 세우고 악(惡)을 깨뜨리고 의(義)를 빛내어 나라와 겨레에 공헌하라고 명시했던 것이다.

"다섯 바다 물을 길어 먹을 갈아라."로 시작되는 건국의 교가는 오대양 · 육대주로부터 널리 지식을 흡수하되, 이를 피보다도 진한 '성', 불보다도 뜨거운 '신', 칼보다도 푸른 '의'로 승화시켜 겨레와 나라를 위한 지식이 되고, 나아가서는 온 누리의 행복과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설립자의 뜻한 바를 반영한 것이었다.〔趙一文, 『建學精神 풀이』, 건국대학교출판부,1981, 45~46쪽〕

3
건국인재 양성 교육사상

자신을 '인간 제일주의자(人間第一主義者)'로 이름 붙인 상허 선생은 모든 일의 성패가 사람에 의해 결정되며, 사람은 올바른 인격의 기초가 갖추어져 있을 때 그가 지닌 능력과 기술이 올바른 방향으로 유용하게 발휘될 수 있다고 믿었다. 건국대학교 총장으로 있을 때 신입생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필기시험을 배제하고 학장과 자신이 직접 면접을 통해서 뽑은 사실은 그가 인격과 사람됨을 중시했음을 뒷받침한다. 이 인격의 요소는 성 · 신 · 의로 집약된다.

이러한 상허 선생의 교육사상은 일제의 식민 지배로부터 갓 벗어난 조국을 새롭게 건설하고 가꾸어 나가는 데에서 비롯되었다. "꿈에도 그리던 조국을 도로 찾은 우리는 어찌하면 다시는 외국의 침범을 받지 않고 평화스럽고 만족하고 행복한 생활을 누릴 수 있는 아름다운 나라로 만들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을 유일한 염원으로 하고 공통된 명제로 삼아 왔다"(『상허 유석창 전기』, 218쪽)고 토로하였듯이 그의 꿈은 평화스럽고 만족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아름다운 나라를 만드는 일이었다.

그리고 이런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과학의 발전을 통해 국가의 발전을 이룩해야 한다는, 말하자면 '과학입국(科學立國)'의 교육철학을 아래와 같이 제시하였다.

상허 선생이 직접 쓴 교시 성 · 신 · 의

"우리나라의 위치와 여러 가지 환경조건으로 보아 우리 한국을 과학의 나라로 만드는 것 외에 다른 방도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다. 우리가 흔히 과거를 추켜들고 역사를 자랑함은 거기에서 쌓아올린 경험의 축적이 새로운 발전에의 토대를 형성한다는 것 외에는 아무 의미도 없는 것이다. 결코 과거나 역사 그 자체가 현재의 우리 생활을 풍부하게 하고 미래의 희망을 밝혀주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헛되이 역사의 길을 빙자하여 실속 없는 외형을 찾고 알맹이 없는 소절에 구애되어 비과학적 인습 속에 허다한 시간을 낭비하여 왔던 것이다. 이제 이 허식의 껍질을 벗기고 내용이 충실한 현대적 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는 무엇보다도 우리의 생활을 과학화하고 우리 정신을 과학적으로 무장하고 우리의 국가적 운명을 과학적으로 해결하는 데 있다 할 것이다."(『상허 유석창 전기』, 218쪽)

과학의 발전을 통해 생활의 과학화가 이루어질 것이고, 나아가 우리의 정신도 과학적으로 무장되며, 이러한 토대에서 국가의 운명도 과학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 그가 제시한 '과학입국'의 핵심이다. 생활의 과학화를 통해 산업경제의 발전을 이끌고, 또 이를 통해 우리의 의식과 가치관의 제고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며, 산업기반과 국민들의 의식수준이 향상됨으로써 비로소 국가와 사회의 발전도 가능해지리라는 생각이었다.

그리하여 그는 주변의 여러 사람들과 의논한 끝에 우리가 나아가야 할 근대화 즉, 과학국가 건설에서 가장 중요한 선행 조건이 지도적 역군의 양성임을 통감하고, 무엇보다도 먼저 '조선정치학관'을 개설하였다.(『건대신문』 147호, 1963년 5월 10일) 해방된 조국이 다시는 불행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 성 · 신 · 의의 교시 아래 진실하고 부지런하고 용기 있는 국민성, 아름다운 문화, 과학 하는 생활, 바른 정치, 고루 번영하는 경제의 씨를 가꾸고 그 지도적 역군을 기르기 위하여 '조선정치학관'을 창립했던 것이다.(『건대신문』 236호, 1966년 5월 15일) 아래에 제시한 상허 선생의 1969년 개교 건국대학교 23주년 기념사를 보면, 보다 분명하게 알 수 있다.

"돌이켜 보면, 1946년 봄 본인이 뜻을 같이 하는 교육동지와 더불어 본교를 창립한 것은 해방된 조국이 다시는 불행한 전철을 밟지 않고 영구적인 자유 · 민주 · 번영을 누릴 수 있는 참된 문화국가를 건설하기 위해서였습니다."(『건대신문』 1969년 5월 13일)

이상에서 제시한 상허 선생의 발언을 통해 보면, 해방된 조국이 불행한 전철을 밟지 않고 자유 · 민주 · 번영을 누릴 수 있는 길은 오직 '산업과학국가'를 거쳐 참된 '복지문화국가'를 건설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 초석이 될 지도적 역군을 육성해야 하며, 그 같은 애국충정에 근거하여 그는 조국광복과 함께 건국대학교의 전신인 건국의숙 · 조선정치학관 등을 창립했다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상허 선생이 제시한 성 · 신 · 의는 건국대학교의 기초적이고도 기본적인 교육 방침이자 건학이념

이다. 동시에 국가와 사회 발전의 원동력으로서, 또 인간생활의 규범적 개념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상허 선생의 교육사상은 건국대학교의 교시인 성 · 신 · 의에 함축적으로 표현되어 있다. "성은 하늘의 길이요, 성실하려고 하는 것은 사람의 길〔誠者, 天之道也. 誠之者. 人之道也/『中庸』〕", "믿음은 덕의 기초〔信者, 德之固也/『左傳』〕", "정의는 인간만사의 근본〔義者, 人之大本也/『淮南子』〕"이라고 한 데에서 알 수 있듯이 '성'은 곧 참되고 거짓 없는 순수한 바탕을, '신'은 곧 믿음을 뜻하며, '의'는 정의(正義) 또는 대의(大義)를 가리킨다.

요컨대 성 · 신 · 의는 인간 생활의 이상이자 목적인 '참되고' '착하고' '아름다운' 인격을 갖추기 위한 전인교육(全人敎育)의 실천 강령인 것이다. 상허 선생은 이러한 교육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교육의 장(場)으로서 건국대학교를 설립하였다. 성 · 신 · 의에 기초한 상허 선생의 교육사상은 다음의 글에 압축되어 있다.

> "성(誠)은 위(僞)의 반대개념이다. 인류가 타 동물과 구별되는 특이한 요소는 역사(歷史)를 가졌다는 것이다. 역사는 실로 성심(誠心)의 연쇄이기는 하나, 위(僞)의 계속으로는 성립될 수 없다. 옛사람들은 인 · 의 · 예 · 지(仁義禮智)를 소중히 여겼다.
>
> 이를 나는 성(誠)이라는 말로 표현한다. 실로 성심(誠心)은 천심(天心)이니, 모든 심정은 이것을 근간으로 하여 발로하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세계는 우리의 이목구비를 매개로 하여 광명의 성(誠)을 흐리게 한다. 옛사람이 이르되, '성(誠)은 하늘의 길이요, 성실하려고 하는 것은 사람의 길'이라고 하였다.
>
> 신(信)은 우리 인간의 천부의 선심(善心)인 성(誠)이 언행으로 나타나서 사회적인 대인 관계에 미칠 때, 이를 신(信)이라 한다. 따라서 성(誠)과 신(信)은 같은 범주에 속한 개념이다. 성(誠)하면 신(信)할 수 있으며, 신(信)하면 성(誠)이 빛날 것이다. 내 천부(天賦)의 성(誠)과 신(信)이 그 본연의 자태를 잃지 않으려면 의(義)가 아니면 안 된다.
>
> 의(義)는 의(宜)이다. 성(誠)이 사물에 미쳐서 그 마땅함을 잃지 않는 것이 의(義)이다. 예를 들면 자식을 사랑하는 것은 성(誠)이지만, 악(惡)을 보고 꾸짖는 것은 의(義)이다. 따라서 의(義)는 성(誠)을 조절하여 중용(中庸)을 잃지 않게 하는 덕(德)이다. 그러므로 의(義)는 성(誠)의 담장이다. 성(誠)으로 하여금 함부로 담을 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
> 이 성 · 신 · 의를 우리의 생활과 관련시켜 생각해 보면, 성(誠)과 신(信)이 사람의 도덕생활의 원동력이라고 하면, 이 동력을 알맞게 이끌고 나가서 과부족(過不足)이 없게 하는 것이 의(義)이다. 그러므로 우리의 교시(校是) 세 자는 인류의 이상과 현실생활에 대한 최고목표를 제시한 것이다. 따라서 성 · 신 · 의는 제군의 학구생활의 최고목표가 아닐 수 없다."〔유석창, 「성 · 신 · 의」, 『건대학보』 8, 1960. 7〕

상허 선생은 '성(誠)'을 그의 교육사상의 첫머리에 두었다. 그는 "'성'은 글자 그대로 사람의 말〔言〕을 이룸〔成〕이다. 이것은 사람에게 있어서 내면적인 것이요, 주체성"이라고 역설하면서, 스스로 '성'

을 이루어 나가는 주체적인 존재로서 생활하고자 했다. 그는 "정성(精誠)이 이르는 곳에는 금석(金石)이라도 뚫을 수 있다. 세파(世波)의 거침이 아무리 거세다 할지라도 어찌 정성을 가로막고 노력을 굽힐 수 있겠는가? 정성이 굳건한 믿음의 터전 위에 서서 정의의 지침을 향한다."고 했다.

인간에게는 누구나 성취해야 할 목표가 있는 법이고, 그것을 위해 부단히 노력한다. 그리고 그 일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는 성심(誠心) 성의(誠意)를 다하여 노력한다는 점이 중요하다. 아무리 학식이 있고 지능이 높고 또 돈이나 경험이나 재주가 많다고 할지라도,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에 성심이 없으면 실패하게 마련이다. "배움이 부족한 지경이면 부지런함이 그 부족함을 메운다. 인류 역사에 광명(光明)을 떨치고 있는 선철(先哲)들의 발자취를 살펴보면, 그들은 성심이 흐려짐을 막으려고 부단히 노력한 사람들이었다. 학문의 길도 오직 성심의 빛을 흐리지 않게 빛내려는 노력임을 알아야 한다. 지식의 성취도 각 전문분야에 걸쳐 그 보고(寶庫)를 열고 힘껏 파고 들어가야만 가능하다"고 했다.

상허 선생은 상거래에서는 요행이 있을 수 있지만, 진리의 세계에서는 횡재가 허용되지 않고 쏟은 만큼의 정성과 노력이 필연의 결과를 얻는다고 하였다. 또 항상 '성'을 잃지 말아야 한다고 했으며, '성'은 지성과 진실을 말하는 것으로, 모든 일의 처음과 끝이 여기에서 이루어진다고 했다.〔유석창, 「성 · 신 · 의」, 『건대학보』 8, 1960. 7〕

그는 '성'을 국민 생활의 기초적 요소로 보고, 모든 일에 '성'으로 출발하였고, 모든 일에 '성'으로 감내했고, 모든 일을 '성'으로 끝맺었다. 그 자신 '성의 인간'이 되려고 노력하며, '인간의 됨됨이'를 중시한 것은 성심으로 일하는 인간을 구하고 싶은 까닭이었다. 그러나 그런 사람은 흔하지 않은 법이다. 다른 면에서는 다소 미흡할지라도, 성실성을 갖추고 있다면 그 사람은 틀림없이 성공한다고 확신하였다.

그러기에 그는 자나 깨나 자기가 맡은 일에 전념하는 인간을 만들어 보고자 했다. 하지만 이러한 지성(至誠)의 인간이 되기란 참으로 어려운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성실함에 대한 중요성을 자각하고 꾸준히 수련하여 성실성이 생활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성'의 중요성을 절감하였기에, '성'을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기본적인 핵이라고 하였고, 개인이나 기관이나 국가나 "성(誠)하면 성공하고 발전한다."고 평가하였다〔김건, 「건학정신의 음미」, 『건대문화』 창간호, 1971〕

다음으로 상허 선생은 '신(信)'을 강조했다. '신'이란 무엇인가? '신'은 사람〔人〕과 말〔言〕의 합자로서 '말을 믿을 수 있다'는 의미이며, 인간의 인격을 이루는 근본인 것이다. 올바른 인간관계와 올바른 사회의 정립은 믿음에서 출발한다. 믿음이 없는 인격은 치장에 불과하다고 했다. 인간이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선심인 '성'이 언행으로 나타나서 사회적인 대인 관계에 미칠 때 이것을 '신'이라고 부를 수 있다.

상허 선생은 '성'이 자신에게 충실한 것이라면, '신'은 남에게 충실한 것이라고 생각했다. '성(誠)하

면 신(信)할 수 있으며, 신(信)하면 성(誠)이 빛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천부의 성과 신이 그 본연의 자태를 잃지 않으려면, 의가 아니면 안 된다고 했다.〔유석창, 「성 · 신 · 의」, 『건대학보』 8, 1960. 7〕

이런 점에서 본다면, '성'과 '신'은 표리관계라고 할 수 있다. '성'이 내면적인 것이라면 '신'은 대외적이요, 사회적인 것이었다. 그러므로 '신'은 사회생활에서 첫 번째 자산이다. 사람은 어차피 혼자서 살 수 없고 함께 살아야 하는 법인데, 이를 위해서는 서로의 신의(信義)가 중요하며, 이것이 없다면 더불어 살아 갈 수 있는 삶의 기반을 잃게 되는 셈이다.

그는 '신'은 사회생활의 근간으로, 단결과 협조가 여기에서 비롯된다고 했다. 사회나 국가는 인간의 결합체이므로, 국가건설의 성패는 구성하고 있는 인간들의 마음 즉 신심(信心)의 의지 여하에 달려 있다고 보았던 것이다. 나아가 개인과 개인, 개인과 국가, 국가와 국가 사이에 '신', 즉 믿음이 있음으로써 사회 정의와 인류 평화가 구현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는 자신이 살아오는 과정에서 신의 없는 사람 때문에 입은 상처의 뼈저림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럴수록 그는 성실한 인간과 신의의 인간을 갈망했다. 그러나 그러한 사람은 나타나지 않았기에 자신이 그러한 사람을 양성해 보겠노라고 결심했다. 그들을 키워 국가와 민족 앞에 바치기 위함이었다.〔손인수, 「상허 유석창의 교육이념」, 『상허 유석창 사상의 재조명』 Ⅱ, 상허기념사업회, 1988〕

세 번째로 상허 선생은 '의(義)'를 언급하였다. '의'라 함은 대체로 정의(正義)를 의미하는 것이나, 상허에게는 대의(大義) 쪽에 가까웠다고 할 수 있다. '의'는 '성(誠)'을 조절하여 중용을 잃지 않게 하는 덕목이다. '의'를 잃으면 '성'의 가치가 상실된다고 보는 것은, 마치 음식이 우리의 굶주린 배를 채워서 즐겁게 해 주지만, 너무 많이 먹으면 먹지 않음만 못한 결과를 초래 할 수 있는 것과 같다. 이렇게 지나치지 않게 조절하여, 마땅함을 유지하는 것이 '의'인 것이다. 그러기에 상허 선생은 '의'를 도의(道義) · 정의(正義) · 대의(大義)로 인식하였고, '의'를 인간 만사의 근본으로 받아 들였다.〔조일문, 『건학정신풀이』, 건국대학교출판부, 1981〕

또 '의'는 상허 자신의 정신생활의 지주이며 주종이었다. 스스로 자신은 대의를 위해서 살았고, 또 나머지 일생도 대의를 위해 바치겠노라고 입버릇처럼 말했는데, 이는 그가 흙먼지 휘몰아치는 만주 벌판에서, 경성의전에서, 그리고 해방 정국의 소용돌이 속에서, 민족과 국가의 운명을 직시하면서 살아온 소산이었다.

상허 선생은 자신이 대의를 위해서 산다는 것을 결코 자만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그것은 자신의 생활화된 철학이라고 믿었다. '성'도 좋고 '신'도 좋지만 민족과 국가를 위하는 '대의'의 정신이 있어야, '성'도 '신'도 빛나며 가치가 있는 것이라 했다. 그러기에 모든 일에서 '의'와 '불의'를 생각하여 의로운 일에 투자하였으며, 의로운 일을 무리하지 않고 전개해 나가는 '조용한 혁명'의 주도자로서 민족과 국가의 현재와 미래를 염려했다.〔한기언, 「상허의 교육정신」, 『상허사상의 조명』 Ⅰ, 상허기념사업회, 1985〕

한편 상허 선생은 교육의 목표를 '독립군 양성'이라는 말로도 표현했는데, 이는 그가 만주 시절에

목격하고 참여했던 독립군의 정신을 잊을 수 없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그는 조국이 해방되어 새로운 공화국을 수립했지만, 정치적 · 경제적인 면에서 완전한 독립을 이룩하지는 못했다고 생각했다. 따라서 모든 면에서 완전 독립이 이룩되는 날까지는 대의에 입각한 '독립군 정신'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고, 이는 독립을 이룬 이후에도 변함이 없었다. 소아(小我)보다는 대아(大我)를 위하고, 개인보다는 전체를 위하는 대의를 건국대학교 교시의 마지막으로 삼은 것은 삶의 마침이 여기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또한 상허 선생은 '의'는 정의와 용기라고 강조하며, 인간 생활의 정(正)과 사(邪) 즉 '의'와 '불의'를 구분할 때를 잘 판단해야 한다고 했다. 사람은 누구든지 불의와 유혹에 약한 존재인데, '의'를 지키는 것은 어려우나 '의'를 지켰을 때 정의롭고 용기 있는 사람이 된다고 하였다. 그리고 '의'를 말하기는 쉬우나, '의'를 실천하기는 어려운 법이라 했다.

또한 성 · 신 · 의는 각기 독립적으로 분리된 개념이 아니라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즉 성과 신이 도덕 생활의 원동력이라고 하면, 이 동력을 이끌고 나가서 넘치거나 부족하지 않게 하는 것이 의이다. 성이 자신에게 충실한 것이라면, 신은 타인에게 충실한 것이다. 그리고 성이 내면적인 것이라면 신은 대외적이고 사회적인 것이다. 따라서 성과 신은 표리관계에 있는 것으로, 성이 곧 신이며, 신이 곧 의의 바탕이며, 의는 또한 성에 통합되는 것이다.〔조일문, 『건학정신 풀이』, 건대출판부, 1981, 20~25쪽〕

상허 선생은 이러한 바탕 위에서 성 · 신 · 의에 입각한 교육철학을 다음과 같이 설파하였다.

> "학생 제군들은 첫째 '정성(精誠)' '지성(至誠)'이 학업을 지속하는 데 정신적 지주가 되어야 하고, 둘째 '신(信)'을 생명과 같이 생각하지 않으면 사회생활에서 타인과 상교(相交)할 때 어려움이 많을 것이고 지도적 위치에 설 수 없으며, 셋째 '의(義)'는 용기와 정의를 말함이니, 이것은 제군의 앞길을 개척하는 원동력이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제군은 교시인 성 · 신 · 의를 항상 마음 깊이 간직하고, 본교의 교육목표인 '인간교육' '기초교육' '실천교육'에 순응하여, 앞날에 승리와 행복이 깃들기를 바랍니다."〔『건대신문』 1961년 4월 8일〕

상허 선생은 이상의 세 가지 교육정신이 별개의 것이 아니라, 상호 보완적 관계를 가진 강령으로 제시하였다. 즉 '성'이 곧 '신'이고, '신'은 '의'의 바탕이며, '의' 또한 '성'과 통하는 것이었다. 무릇 정성스럽고 거짓 없는 곳에 믿음이 있고, 믿음이 있는 곳에 정성이 깃든다고 하였다. 교시인 성 · 신 · 의를 통한 중후하고 침착한 인간성의 육성과 기술교육으로 무장함으로써 민중 속에서 민중을 위해 민중을 이끌고 나가는 인재를 많이 육성해 내자는 것이었다.

상허 선생의 교육정신은 건국대학교의 '건학정신' 속에도 잘 표현되어 있다.

"본교의 설립자 유석창 박사는 해방된 조국이 다시는 불행한 운명을 밟지 않고 영구히 자유, 민주, 번영을 누릴 수 있는 길은 오로지 참된 복지문화국가(福祉文化國家)를 건설하는 데에 있다고 생각하였다. 고도의 문화국가를 건설하기 위하여서는 그 첫 단계로 농업과 공업이 아울러 현대화된 산업국가(産業國家)가 건설되어야 하고, 다음으로는 모든 국민이 골고루 잘살 수 있는 경제국가(經濟國家)로 전환되어야 한다. 그때에는 우리가 염원하는 복지문화국가(福祉文化國家)로 손쉽게 옮아가게 될 수 있다는 신념을 가지게 되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여러 단계를 거쳐 고도의 문화국가(文化國家)를 이룩하여 나아감에는 반드시 처음부터 갖추어야 할 몇 가지 요인이 있다. 그 첫째는 진실하고 부지런하고 용기 있는 국민성(國民性)의 함양이요, 그 둘째는 과학(科學)과 기술(技術)의 비약적인 발전이라고 생각하였다. 모든 국민이 이러한 기본적인 요인을 갖추게 되는 데에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그 사명을 수행할 선도적 인재(人才) 양성의 필요성을 느낀 유석창 박사는 그러한 교육사업에 그의 여생을 바치기로 결심하였다.

영재를 모아 인간교육에 치중하여 성(誠)과 신(信)과 의(義)의 덕성(德性)을 기르며 진실하고 부지런하고 용기 있는 개척자적 정신을 가진 인격(人格)을 배양하는 동시에, 고도의 과학과 기술로 무장하여 새로운 시대의 역사적 사명을 걸머지는 유능한 선도자(先導者)를 배출하고자 하는 것이 이 대학의 건학정신(建學精神)인 것이다."

이러한 그의 교육사상이 주목받는 것은 상허 선생이 성 · 신 · 의의 덕목을 개념이나 언어로 가르친 것이 아니라, 몸소 실천하여 모범을 보여주었기에 공허한 죽은 말의 잔치가 아닌 감동과 동감을 불러냈다는 점이다. 상허 선생은 대학은 지식인의 도량(道場)이므로 학생들이 한 민족의 지성의 정수로서 현실을 정시하고 진리를 탐구하는 학구적인 열의로써 자기의 충실을 기하는 상아탑의 주인공이 한다고 강조하였다. 동시에 이론에 따르는 실험실습을 중시하였다. 그는 지식이 지식으로만 그치고 교육이 교육으로만 그치면 아무런 의미도 없고, 그것이 실험에 연결되고 구국의 길에 통할 때 비로소 값어치가 있다고 강조하였다.〔「개교 18주년 기념사」, 『建大新聞』 1964년 5월 15일 1면〕

조국의 미래상인 복지문화국가를 건설하기 위해서 인간을 근본으로 하는 철학과 청사진을 가지는 계획과 그 설계대로 건설할 수 있는 기술과 과학화된 기계를 조작할 수 있는 기능을 아울러 체득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했기 때문에 조국의 미래상을 실천해 갈 창조적 인간상은 내적으로는 의욕과 정열 · 희생과 봉사를 위한 정신적인 인간의 자질과 한편으로는 계획성과 기술 · 자본적인 6대 요소가 구비되지 않고서는 창조적 인간이 될 수 없다고 하였다.〔「축사 이공대학 학보 창간에 즈음하여」, 『이공학보(理工學報)』 창간호, 이공대학 학생회, 1968〕

이러한 신념에 투철하였기 때문에 상허 선생은 대학재단도 단순히 식산재단(殖産財團)을 일삼는 단체가 아니라 국가재건 사업의 원천의 일부임을 분명히 밝혔다. 건국대 재단의 대표직에 취임하면서 자신의 직책은 정비공에 지나지 않으며, 실제로 비행기를 몰고 하늘을 정복하는 것은 학생들이 해야 할 책무임을 강조하였다. 아울러 정비공의 노력 없이 비행사의 성공을 기대할 수 없는 것처럼 비행의 기약 없는 정비공의 노력은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점을 지적하였다.〔「건대학보(建大學報)」 12, 창간 10주년 기념호, 1962〕

4
의료제민 사상

상허 선생은 1920년대 후반 경성의학전문학교에 재학할 때, 그리고 졸업한 뒤 제동병원(濟東病院)에 근무하면서 치료 중심의 상업화한 의료계의 현실을 목도하면서, '실비진료(實費診療)'라는 단어로 상징되는 그의 의료제민(醫療濟民) 사상이 형성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의료비를 감당할 수 없는 가난한 사람들을 질병으로부터 보호하고,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권리와 품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어야 한다는 생각이었다.

'질병 치료의 대중화'라는 과제의 실행을 위해 설립된 기관이 민중병원(民衆病院)이었다. 그는 사회경제적으로 소외된 사람들이 최소한의 의료비를 부담하면서도 충분한 의료 혜택을 많이 누리는 의료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의술(醫術)은 상술(商術)이 아닌 인술(仁術)을 바탕으로 하여야 함을 몸소 보여주었던 것이다.

요컨대 상허 선생의 의료사상은 자기희생과 헌신을 통해 민족과 민중을 구하고자 했던 이타적인 삶이었다고 하겠다. 소외받는 민중들에게 의료 혜택을 주고자 하는 마음은 순수한 인도주의(人道主義) 정신의 발현이며, 타인의 아픔을 자신의 아픔으로 승화시킨 인간애의 숭고함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1931년 3월 중앙실비진료원(中央實費診療院) 설립 취지문에서 선생은

> "현대에 있어서 사회적 불행을 말하면, 맨 먼저 빈궁과 질병을 들 수 밖에 없고, 또한 문명의 결함이란 이런 불행한 자를 구체하지 못하는 것이라 하겠다. … 수를 헤아리기 어려울 만큼 많은 병원이 있으되, 이 병원을 이용할만한 자력이 부족함에야 어찌하랴. 본인 등이 원래 여기에 대한 일념이 간절하지 아니함이 아니었지만은, 이것을 실현함에는 적지않은 난관으로 인하여 성취를 보지 못하다가 다행히 이번에 독지가로부터의 물질 및 기술 · 노력 등의 제공을 기초로 하여, 장래 이 사업의 성취를 기하고자 하는 의미에서 이에 실비진료기성회를 발기하게"〔『사단법인 민중병원 연혁 및 정관』, 1~2쪽〕

되었다고, 자신의 의료제민관(醫療濟民觀)을 밝혔다. 병원 진료비조차 지불할 여력이 없는 사회적 소외계층을 위해서 실비로 진료 받을 수 있는 병원을 설립하겠다는 뜻을 분명하게 밝혔던 것이다.

그리고는 사회적 모금을 통해 병원 설립의 재정기반을 마련하고자, 대중강연회를 개최하였다. 종로의 YMCA 강당에서 열린 강연회에서 그는「대아(大我)의 눈물」이라는 연제로 1시간 20분 동안 청중의 마음을 휘어잡았다.

> "경제적 능력이 있는 사람에게는 실비를 받고, 없는 사람에게는 무료로 진료해 드릴 것입니다. … 결코 불쌍한 환자의 진료를 미끼로 치부하거나 매명하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오직 형제자매를 위하여 봉사하고 헌신하고자 할 따름입니다. … 가난하고 병든 동포를 구제하는 사회의 공기(公器)가 되도록 힘껏 밀어주시기 바랍니다."〔『상허 유석창 전기』, 141쪽〕

결코 개인적 이익과 경제적 이윤을 획득하기 위한 병원의 개업이 아니라, 가난하고 병든 동포를 구제하는 '사회공공재(社會公共財)' 역할을 수행하려는 것이라고 외쳤던 것이다.

이러한 상허 선생의 의료관이 결실을 거두어 '사회영 중앙실비진료원'이 출범하였고, 3년 후인 1934년에는 '사회영 민중의원'으로 발전했다. 여기에서 '사회영(社會營)'을 표방한 상허 선생의 애민(愛民) · 애족(愛族)의 공인의식(公人意識)이 무엇보다도 주목된다. '국영(國營)' '공영(公營)' '민영(民營)' '사영(私營)'과 구별되는 '사회영'이라는 명칭 속에서 사적인 영리 추구가 아닌 공익(公益)과 공리(公利)를 우선시했던 그의 경세관(經世觀)을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다.

그랬기에 그는 병원 운영을 통해 이익이 발생하는 사실에 대해 거부감을 갖고 있었다. 그만큼 사리(私利)와 사익(私益)의 추구가 아닌 공익과 공리라는 가치를 스스로 지켜 나가는 일이 중요했던 것이다. 이와 같은 의사로서의 인생 신조는 자신의 최후가 다가오는 순간까지 견지되었다. 1971년 9월 25일 민중병원 신축 낙성식에서 한 다음의 말은 사실상 유언이 되었다.

> "민중병원이 운영 면에서 수익을 올린다면 이는 애국선열(愛國先烈)들이 이 병원을 설립할 때 지녔던 근본 취지에 위배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나는 그 분들 앞에 무서운 죄를 짓게 됩니다. 치료 상의 과오를 제외하고는 내가 살아 있는 한 이러한 득죄(得罪)는 아직까지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입니다.
>
> 다만 내가 죽은 뒤가 문제입니다. … 만일 민중병원이 수익을 올린다면 여러분이 민중병원의 문을 닫아 주십시오. 그리하여 지하에 계신 애국선열 앞에 당할 나의 욕됨을 막아주십시오. 여러분은 내 말의 증인들입니다."〔박기용, 『조용한 혁명을 위하여』, 224쪽〕

상허 선생은 주변에서 의과대학의 설립을 거론하면 의과대학보다 간호대학(看護大學)을 먼저 세워야 한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그의 지론은 의사를 대신할 수 있는 남녀 간호원(看護員)을 육성하여 벽촌(僻村)과 낙도(落島)에 파견하여 일정기간 의무적으로 근무토록 함으로써 무의촌(無醫村)을 없애겠다는 것이었다. 간호원이 감당할 수 없는 위급 환자는 헬리콥터로 민중병원으로 이송하여 치료

1959년 민중병원 개원 28주년 기념. 맨 오른쪽이 유석창 박사

한다는 방안이었다.〔박기용, 『조용한 혁명을 위하여』, 나라기획, 1987, 183쪽〕

상허 선생은 단기간 내에 전국적인 의료봉사 체제를 구축할 수 없었던 1960년대 한국사회의 실정을 감안하여, 간호원 인력을 통하여 일차적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지역적 · 계층적 범주를 최대한 확대하고자 했던 것이다. 이 사례에서 가난하고 어려운 처지에 있는 민중들에게 '실비진료' 서비스를 베풀고자 했던 그의 의료제민 사상을 보다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다.

상허 선생이 함경북도 성진의 제동병원을 사직하고 서울로 올라온 것은 암울한 일제 강점기에 인술로써 민중의 육체적 치료뿐만 아니라, 정신적 치료까지 함으로써 독립정신과 민족정기를 불어 넣기 위해서였다. 마침내 상허 선생은 서울에 민중병원을 설립하였지만, 여기에 머무르지 않았다. 그는 더 나아가 의료기관이 부족한 농촌에 의료기관을 건설하고 의료혜택을 받지 못한 농민에게 구료사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여, 이에 대한 원대한 계획을 세웠던 것이다.

그는 가장 가난하고 병들고 혜택 받지 못한 민중에게 육체적인 건강과 함께 정신적 건강을 불어넣고자 했으며, 이것이 '보국의 정신'이라 하겠다. 그는 단순히 베푼다는 차원을 넘어서 자신을 있게 해 준 나라에 보답한다는 정신을 가졌던 것이다. 그래서 보국의 역할 가운데 하나로 의술을 통한 구료사업을 택했던 것이고, 이 길을 통하여 분명히 보국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고 믿었다.

5
농업의 근대화와 농촌 발전 사상

상허 선생의 의료제민 사상은 일제 패망 후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 구제의 대상을 농촌과 농민으로 확대한 농촌계몽 및 개발사상으로 발전하였다. 일제의 식민지배로부터 벗어난 조국이 당면한 최우선적인 과제는 농업 · 농촌 · 농민의 재건과 부강을 통한 근대조국의 건설이었다. 보건 위생에 대한 의식이 미흡하였고, 의료 설비가 부족한 농촌의 현실을 개선하는 일은 곧 실비의료를 통해 민중을 구제하고자 했던 의료구민 사상의 또 다른 형태였다. 말하자면 치료 중심의 의료구제 사상이 예방 중심으로 변화해 간 것이다. 아래 상허 선생의 말들이 이를 잘 보여주고 있다.

"이 나라 산업의 주종(主宗)은 농업이며, 이 나라의 주인은 농민임을 아무도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지금 막대한 자금을 투입하여 중공업 발전에 힘쓰고 있으나, 자연적인 조건으로 보나 어느 모로 보나 우리나라는 농업이 먼저 발전하여 다른 산업의 선도적 역할을 해야만 됩니다. … 기술혁명으로 우리 농산물이 해외시장으로 진출하여 외자를 획득해야 합니다. 정신혁명에서 인간 개조와 주체성을 가지고 정부의 시책을 받아들이는 자세를 갖추어야만 합니다.

우리들의 혁명은 자기와 가족을 희생시키는 사회혁명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잘 되며 자기 자신이 부자가 되는 혁명입니다."〔『농업기술회보(農業技術會報)』 23호, 1966년 5월 15일〕

"생산 없는 농촌운동은 존재의 의의가 없고 경제행위를 수반하지 않는 생산운동도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모색하고 있는 새로운 진로-새로운 차원에서의 농촌운동은 생산운동과 경제운동을 어떻게 병립(竝立), 조화(調和)시켜 추진(推進)하느냐에 관건이 있다고 하겠습니다."〔「특별담화문: 농촌 진흥은 농민이 주도해야, 상허재단은 협회 운동의 초석」, 『농업기술회보(農業技術會報)』 96호, 1971년 7월 1일〕

상허 선생은 기회 있을 때마다, "구태의연한 농업생산의 양식을 전환하여 축산 · 낙농의 다각적 양식을 도입하여 근대화를 성취"하자고 강조하였다.〔정태영(건국대학교 농축산생명과학대학 교수), 「앞을 내다볼 줄 아는 상허」, 『내가 본 상허 유석창』, 2001, 203쪽〕 조국 근대화에 대한 이러한 비전을 가지고 있었기에 1964년 11월 30일 건국대학교 축산대학 제1기 졸업반 학생들과의 간담회에서

"우리 현실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농촌 문제의 해결입니다. 국민의 70%인 1천 5백만 농민이고, … 인간 제일주의자(人間第一主義者)인 나는 이러한 문제의 해결도 바로 인간의 힘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나와 학교, 그리고 법인은 제군에게 무엇을 요구하는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인격, 둘째는 기술입니다. 이 두 가지가 갖추어지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며, 이 두 가지가 바로 여러분의 자본입니다."

라고 하였다. 1968년 2월 12일에 있은 저서 출판기념회에서도 상허 선생은 "영광된 조국의 장래를 위하여 1600만 농민이 잘 살게 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나는 논두렁을 베고 쓰러지는 날까지 투쟁하겠습니다."라고 하였다. 이러한 데에서 농촌 문제의 해결을 문화복지사회 건설을 위한 선결과제로 꼽고 있던 그의 농촌개발개혁사상의 참모습을 잘 보여준다.

당시 우리사회가 당면한 최대의 과제는 '농촌문제'의 해결, 즉 농촌의 근대화였다. 이 과제의 해결은 국민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농민의 삶의 질의 향상으로 이어지는 문제였다. 그러기에 대학교육의 목적 또한 농촌문제의 해결을 담당할 주역을 양성하는 데 있었다. 그리고 그는 이 주역은 인격과 전문적 기술을 겸비해야 하는 것이었다.

그리하여 농촌과 농업의 발전을 선도할 지도자를 양성하기 위한 기반으로 한국지역사회개발협회(1961. 10. 14)가 결성되었고, 이어서 그의 리더십 하에 1963년 10월 전국농업기술자협회(全國農業技術者協會)가 탄생되기에 이르렀다. 1963년 10월 10일 발표한 '발기취지문'에서는 "농업의 낙후성을 지양하지 않고서는 전체산업의 균형 있는 성장을 이룰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는 경제부흥을 성취할 수 없"다고 전제한 다음, "우리 농촌이 원시적인 농업생산체제에서 벗어나서 빈곤에서 해방이 되자면 농민들의 자조 · 자립정신에 입각하여 경영기술과 경종(耕種)기술을 동시에 전개시켜 농업생산성을 높이는 데에 있다"고 진단하였다.

그리고는 "농민들의 자조 · 자립정신을 바탕으로 하는 순수한 민간운동으로서의 기술보급 사업의 필요성이 절실히 요구되어"온 과제 해결을 자임하는 동시에, "농업기술 발전으로 농업 증산과 농촌복지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정하였다.

여기에서 눈 여겨 봐야 할 것이 '농업기술자'라는 단어에 함축되어 있는 의미이다. 상허 선생은 농업도 공업과 마찬가지로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이 필요하다는 생각이었다. 즉 단순히 자연환경에 순응하여 육체노동으로 짓는 농사가 아니라, 생산량 확대나 고품질의 작물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고도의 전문기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래서 농업의 발전과 농가경제의 향상을 위해서는 전문기술자로서 능력을 갖춘 농민을 육성해야 한다는 의지가 '농업기술자'라는 단어에 담겨져 있는 것이다. 즉 육체노동을 골간으로 한 전통적인 농업이 아니라, 농업에 대한 전문지식과 미래지향적인 비전을 갖춘 농민의 양성을 목표로 하였다고 하겠다.

다음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상허 선생은 전국농업기술자협회의 주도 아래 농업국가의 면모를 갖

추기 위한 발전 단계를 10년 동안 다섯 단계로 나누어 추진할 것을 제한하였다.

(1) 제1단계는 농업증산 단계이다.

① 정부가 요청하는 식량증산 단계이며, 최종 년간인 71년에 가서는 492,886천 석(石)의 양곡(糧穀)을 생산하여 총 수요량의 5.3%의 식량 잉여에 의하여 미(美) 잉여양곡의 도입을 지양하고, 일보 전진하여 530만 석의 미곡수출 톤당 50불(弗)을 하게 된다면 식량의 자급은 물론, 농업이 경제 안정의 제1조건을 해결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경제적 자립은 우선 농업증산에 의한 식량의 자급자족)이 그의 제1보가 되지 않을 수 없다.

② 산업의 형태를 바꾸어야하며 생산구조의 전환에 의하여 5단보(段步) 미만의 영세농가 인구를 타산업에 전이(轉移)케 하는 토대를 구축하도록 해야 하며, 중소도시 주변에다 농촌 유휴노동력을 흡수할 수 있는 중소공업단지를 조성해야만 한다.

③ 주산지(主産地)의 설정을 도별로 하고 장차로 국내시장은 물론 국제시장에까지 진출할 수 있게 도별 군별 주산지를 설정해야 한다. 이러한 주산지운동이야말로 우리들의 농업소득 향상을 위한 가장 중대한 목표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독농가인 여러분은 100년지대계(百年之大計)를 가지고 도지사보다도 더 중한 책임을 부하했다고 자부하셔야 되며, 자자손손(子子孫孫) 잘 살 수 있는 터전을 닦는데 있어서 주인공인 것이다.

그리하여 적자 부채의 생계농업(生計農業)에서 탈피하여 흑자 저축 영리농업(營利農業)으로의 이행이 가능해야 된다. 이로서 자조(自助) 자립(自立) 자활(自活)하는 안정농가(安定農家)가 자연부락(自然部落) 내에서 과반수 이상을 점유하게 돼야만 한다.

(2) 제2단계는 농업정책 · 경제정책상으로 농업 발전을 위하여 강력하게 정부에 대한 요구를 할 수 있는 단계이다. 곧 독농가를 중심으로 굳게 뭉쳐서 전국적으로 단결하여 농가소득 향상을 위한 정책상의 요구점을 강력히 주장한다면 정부도 이에 응하게 될 것이다.

(3) 제3단계는 농민이 국가에 대하여 봉사할 수 있는 단계이다. 이는 곧 국가주권이 국민에게 있는 한 비로소 주인으로서 국가에 대한 뒷받침을 농민들이 해야 할 단계라고 할 것이다. 이와 같이 하여 농민의 흑자 · 저축 · 생계로 농가 모두 경제적 자립을 할 수 있게 된다면 곧 국민적 자립에 의하여 국가적 자립의 밑바탕이 될 수 있으며 민주국민으로서의 역량 증대로 토대를 바로 잡아야 하며, 이른바 농민이 주인이 될 수 있는 단계이다.

(4) 제4단계는 농업의 발전적 토대에 의하여 공업국가(工業國家)로 발전하는 단계이다. 다시 말하자면 농민의 잉여자본이 투여되어 농촌의 공업화가 실현되도록, 곧 농민이 주체가 되어 적극 참여할 수 있게 되어야 한다. 이와 같이 농민의 지위 향상으로 농촌의 자본 형성에 의하여 농업경영은 기계화가 실현

됨으로써 농업의 현대화가 완수되는 것이다.

(5) 제5단계는 농업과 공업이 병진하는 단계이다. 이와 같이 하여 제1차 대단원으로 성취될 때에는 10년 동안에 이 나라는 바로 살아날 수 있다고 확신한다. 1천 6백만 농민이 경제적 자립을 하고 경제권을 장악하게 된다면, 비로소 우리 국가는 경제적으로 완전독립이 된다고 할 것이다.〔「제2차 상임이사회 격려사」, 『회보(會報)』 6호, 1965년 6월 1일〕

그리고 상허 선생은 자신의 저서 『한국농업의 미래상: 서기 2000년대를 바라보며』(건대출판부, 1967)과 『조용한 혁명: 선도농가를 위하여』(건대출판부, 1967)에서 '3대 혁명' 즉, 농민의 정신혁명, 농업의 기술혁명, 농촌의 생활혁명을 주장하였다.

"상허 선생은 평소 한국의 선진화는 농업의 근대화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상허 선생은 이러한 생각을 실천에 옮기기 위하여 그리고 이 나라에 훌륭한 농업 일꾼을 키우기 위해 1967년에 『한국농업의 미래상 – 서기 2000년을 바라보며』 그리고 『조용한 혁명: 선도농가를 위하여』라는 두 권의 책을 출간하였다.

요지발췌

二〇〇〇年代 韓國農業의 未來像

2000년대 한국농업의 미래상을 설명하는 유석창 총재(「농업기술회보」 1967년 8월 1일)

이 책에서는 농민의 정신혁명, 농업의 기술혁명, 그리고 농촌의 생활혁명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들을 제시하였고 아울러 농업을 발달시키는 5단계 과정 등을 담고 있다. 상허 선생이 저술한 이 두 권의 책은 한국의 농촌 근대화를 촉진시킨 '새마을운동'의 기초가 되었다. 특히 상허 선생의 농업혁명운동의 원칙은 '새마을운동'에 그대로 수용되어 이 운동이 성공을 거둘 수 있는 밑거름이 되었다. 상허 선생은 '새마을운동'의 철학과 이론을 제공했다. 뿐만 아니라, 농업혁명을 이룩하기 위하여 독농가를 발굴하고 육성하였으며, 또 건국대학교 축산대학 출신들을 선진 농업국에 유학시키고 전국농업기술자협회 회원들에게 첨단 농업기술을 습득시키기 위해 이들을 일본에 보내어 농업기술을 배우도록 하였다. 상허 선생이 한국의 농업혁명을 위해 육성한 인재들은 훗날 '새마을운동'을 성공시키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 상허 선생의 이와 같은 선각자로서의 혜안은 한국의 농촌혁명 그리고 '새마을운동' 성공의 초석이었다."〔송영우, 「참 삶의 본보기」, 『내가 본 상허 유석창』, 116~117쪽〕

『한국농업의 미래상』은 무려 675면에 달하는 방대한 저술로, 크게 3부로 구성되어 있다. 제1부에서는 한국농업의 현황 분석, 한국농업의 장기계획과 전망, 세계 주요국가의 농업과 정책에 대해 검토하였다 제2부에서는 삼위일체 농업개발의 5단계론, 즉 3대혁명 개시의 4단계, 경영안정화 단계, 자본형성화 단계, 농업공업화 단계, 농공병진과 균형성장 단계를 서술하였다. 제3부에서는 한국자본주의체제를 분석하여 농민이 빈곤한 원인을 살피고, 농민도 자본주의체제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우선 국민자본주의의 일환으로 '농민자본주의'라는 경제적 이념이 정립되어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를 위해서 그는 '농민의 정신혁명'을 강조하였다. 농촌복지의 꽃을 피우게 하자면 자주적이고 자조 자립의 힘이 버금하게 농촌 내부에서 용솟음쳐 나와야 하는데, 우리나라의 농촌운동은 농민들의 힘에 의해서 농촌에 뿌리박아 굳세게 자라지 못했다고 진단하였다. 그리고 농촌운동을 바로하자고 몸부림치는 이유는 농민 · 농업 · 농촌만 잘되자는 욕심에서가 아니라 '농민의 정신혁명'으로 민주적 협동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우리나라 전체의 민주주의가 바로 설 바탕을 잃게 되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아무리 공장이 많이 서고 치달리는 공업화에 농업이 뒤쳐진다면 우리나라 전체 경제의 균형이 무너질 것이며, 도시와 농촌의 지역적인, 문화적인, 사회적인 격차가 차츰 더 벌어진다면 조국근대화의 참모습을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가 없기 때문에 '농민의 정신혁명'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던 것이다.〔「특별담화」, 『농업기술회보(農業技術會報)』 81호, 1970년 4월 1일〕 상허 선생의 가르침을 받았던 인물들은 다음과 같이 기억하고 체화하고 있었다.

"이제 '조용한 혁명' 엘리트로서 농산업 3대 혁명의 대열에 앞장서려는 선도농가 제위께서는 자기 스스로가 기업농이 되고, 시범영농을 하여, 자기 일개인만 잘사는 데에 그쳐서는 아니 됩니다. 부락 내의 모든 농가가 잘살게 될 수 있도록 복지농촌 건설에 있어서의 선구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곡수농업(穀樹農業)과 경제림 조성, 상전 과수원 목야지 조성 등등을 위한 산지 자원화와 우리나라 농업에 적응하는 협업농 문제에 대하여도 각별히 선도농가 제위께서는 연구하여 주시길 바랍니다."〔김병태(전 건국대학교 상경대학 교수), 「남정(南庭)의 선물」, 『내가 본 상허 유석창』, 35쪽〕

"나의 학창시절 상허 선생님께서 자주 들려주시던 말씀 중의 하나이다. 혁명이란 말은 변화와 개혁이라는 것보다 과격한 행동운동의 표현어라고 본다. 4 · 19와 5 · 16을 몸소 겪은 나로서는 조용한 혁명이라는 말이 잘 이해가 되지 않지만 선생님의 이 말씀을 조용히 음미해 보면 이것은 인간의 실천교육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가 싶다. 옳고 바른 일을 실천함에 있어서 그 방법을 가르쳐 주신 것이라고 본다. 옳고 가치 있는 일이라고 믿고 행하고자 할 때는 아무리 논리 정연하게 입으로만 떠든다고 해서 될 것이 아니라 꼭 해내고야 말겠다는 굳은 마음가짐을 가지고 몸소 실천해야 할 것이다. 실천함에 있어서도 누가 인정해 주지 않는다고 해도, 누가 당장 자랑스럽게 알아주지 않는다고 해도 묵묵히 하나하나 이루어 나가

야만 된다는 가르침이었다고 생각된다."〔김창한(건국대학교 농축산생명과학대학 교수), 「세 가지 교육철학」, 『내가 본 상허 유석창』, 60쪽~61쪽〕

그가 주장하는 혁명은 유혈혁명이 아니라, 농민들의 정신혁명, 농업의 기술혁명, 농촌의 생활혁명이라는 세 가지의 조용한 혁명을 말하는 것이고, 혁명의 목표는 농민자본주의(農民資本主義)에 있었다. 농민자본주의란 적자 부채농가에서 안정농가로, 안정농가에서 기업농가로 발전하여, 나아가 농민들의 자본으로 산업국가로서의 기반을 닦아야 하는 것이었다.〔『농업기술회보(農業技術會報)』 22호, 1966년 5월 1일〕 아래의 글에서도 그 내용을 잘 알 수 있다.

"그는 정신혁명으로 민주적 협동화를 이룩하고 기술혁명으로 과학화하고 전문화하여 생산성을 높여 보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활은 농촌의 생활혁명을 이룩하여 합리화하고 복지화하자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삼대혁명인 것으로 우리 모두가 다 같이 이룩하지 않으면 안 될 막중한 사명인 것입니다. 그런데 혁명의 의미는 무엇인가? 그것은 곧 비약과 창조를 말합니다.

그러나 혁명은 혁명이란 말을 단상에서 부르짖는다고 하여 곧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 모인 여러 동지와 농민들이 스스로 혁명가로서 선도농가로서 앞장서서 나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것이 첫째 요건입니다. 새 역사창조의 주인공이 없이는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둘째 요건으로는 혁명을 위한 조직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조직은 꼭 필요한 것입니다. 셋째는 혁명을 위한 실천요강입니다. 요강을 구체화해서 혁명의 조직을 통하여 밀고 나가면 일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삼위일체(三位一體)란 말을 많이 합니다만, 이는 우리 농민과 농민을 지도해 나갈 선도농가와 또 정부의 지원정책, 이 세 가지가 합하게 될 때 우리의 낙후된 농업을 개혁하고 앞날을 발전시킬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농업기술회보(農業技術會報)』 64호, 1968년 11월 1일〕

그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작은 사업의 성패도 사람에 달려있는 것"이라고 강조하였으며, 그런 면에서 '조용한 혁명'을 완수하고 새 역사를 창조하기 위해서는 "첫째도 사람이며, 둘째도 사람이며, 셋째도 사람"이며, 그러한 역사의 주인공이 될 사람의 발굴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임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고 하였다.〔'1967년 신년사', 『농업기술회보(農業技術會報)』 34호, 1967년 1일 1일〕

그리고 이 같은 혁명을 이끌어 갈 견인차로서 건국대학교 축산 · 농과대학 및 농협대학에서 '농군사관(農軍士官)'을 양성하고, 전국 5만 자연 촌락에 선도농가(先導農家)를 육성하여, 이들을 농촌개발과 부흥의 주역으로 삼는다는 구상을 하였다. 여기에서 말하는 '선도농가'란 정신혁명에 의하여 새로운 농민이 된 농업경영자를 뜻하는 바, 구체적으로는 '성실한 농민' '근면한 농민' '용감한 농민' 즉 성(誠) · 근(勤) · 용(勇)으로 젊어지는 농민, 꿈을 가지는 농민, 자기혁명을 하는 농민을 가리킨다. 따라서 선도농가는

"성 · 근 · 용의 새 농민이 되어 농업을 주업으로 영위해야 한다. 농업기술에 있어서 다른 사람의 모범이 되고 새 기술의 도입과 연수에 의욕적으로 앞장서야 한다. 인격과 신망이 두터우며, 부락 전체에 대한 봉사를 위하여 전념해야 한다. 농산업혁명가로서 정신 · 기술 · 생활의 3대 혁명을 완수해야 하는 역사적인 사명감에 투철함으로써 그 지역민에게 늘 존경받을 수 있어야 한다. 이 혁명으로써 민주적 협동화와 과학적 전문화 내지 합리적 복지화의 3대 원칙에 기하여 빈(貧)에서 부(富)에로의 창조를 하여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조용한 혁명』, 19쪽〕

는 사명감과 소명의식으로 무장하고 새로운 형태의 농민상(農民像)을 창출해야 하는 솔선수범의 지도력을 가져야 한다고 요구하였다.

"농공병진(農工竝進)에 앞서 물질적인 근대화와 정신적인 근대화가 병진 균형을 이룩하여야겠습니다. 정신혁명의 바탕 위에 기술혁명을 성취하고 그리고 생활혁명까지 완수함으로서 비로소 복지농촌을 건설할 수 있는 것입니다. 농민 · 농업 · 농촌의 근대화 없는 조국근대화란 존재하지 않으며, 농산업의 회원, 선도농가의 역사적인 사명인 것입니다. 농산업의 혁명은 엘리트인 선도농가의 힘으로 추진되고 쟁취되어야 하겠습니다."〔『농업기술회보(農業技術會報)』 76호, 1969년 11월 1일 1면 2단〕

즉 선도농가란 '무(無)에서 유(有)로의 비약' '일(一)에서 다(多)로의 전개' '소(小)에서 대(大)로의 발전을 유도' '빈(貧)에서 부(富)의 창조'를 이룩하는 '새농민'을 의미하였다. 그리고 이들 선도농가가 중심이 되어 '5만 고구마운동'을 전개하자는 것인데, 상허 선생이 제창한 '3대 혁명'의 기수(旗手), 즉 농업혁명 엘리트를 가리키는 것이었다.

1967년 7월 15 · 16일에 개최된 전국농업기술자협회 제6차 상임이사회에서 밝힌 '2000년대 한국농업의 미래상'이란 제목의 제안 설명을 통해, 상허 선생은 농업발전과 농촌 개발을 위한 비전을 다음과 같이 종합적으로 제시하였다.

"오늘 우리의 이 모임은 조국의 부름을 받은 조국의 마음이 바로 이 자리에 집결한 것입니다. 순진하고 진실하며 소박하고 성의를 가진 마음, 이른바 '농심'들이 모인 이 자리에서 먼저 한 말씀 드릴 것은 여기 2천 년대의 한국농업의 미래상을 이야기하겠지만, 우리는 우리의 이 기대와 소망을 성취하고, 잘 사는 농촌을 이룩하기 위하여 어떻게 하든지 싸워 쟁취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그런 확고한 결의와 결심을 가져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영토가 비슷하고 자연이 준 혜택은 오히려 우리가 훨씬 나은데 오늘 우리는 무엇 때문에 영국이나 일

본의 농업생산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까? 축산에서 그러하고 과수에서 그러하며 누천년을 해 온 곡류 생산에서까지도 그러합니다. 이게 어떻게 된 것입니까? 비교해 볼 때마다 야단났다는 생각이 앞섭니다. 이거 우리가 살았느냐?"(『농업기술회보』 1967년 8월 1일자)

이와 함께 상허 선생은 농업의 근대화를 이룩하기 위한 발전 전략으로 '농업개발 5단계론'과 '4대 결실운동'을 제창하였다. 5단계론은 3대혁명 개시 단계→경제 안정화단계→자본형성화 단계→농촌공업화 단계→농공병진과 균형성장 단계로 설정되었고, '4대 결실운동'은 선도농가의 발굴 운동, 기술 교류와 기술 연수를 위한 농업기술의 조합운동, 원심적인 운동에 의하여 중심이 아닌, 일선농가를 의미하는 '말초'가 강화되는 말초증대운동, 농촌 발전의 선도 역할을 담당할 '5만 고구마(선도농가)' 육성 · 강화운동을 전개하겠다는 구상이었다.

상허 유석창 박사의 저서 『조용한 혁명』과 『한국농업의 미래상』

상허 선생이 제시한 농촌개발에 요구되는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사상의 요체는 '3대 혁명론'과 '삼위일체적 농업발전 5단계론'으로 체계화되었다. 그는 농업의 성공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농민 자신의 주체적인 자각과 분발, 농산업혁명가로서 선도농가의 등장과 3대혁명의 전개,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농업발전의 5단계 과정을 이룰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렇게 함으로써 삼위일체적 농업 발전은 농업생산이 증대되고, 투자가 증대되며, 농업소득이 배가되는 3대 효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유석창, 『조용한 혁명』, 건국대학교출판부, 1967)

1) 3대 혁명론의 내용

먼저 상허 선생은 '혁명'이란 개념을 "농민들인 우리가 우리들에게 주어진 숙명을 우리들 스스로의 힘으로 전화(轉化)시켜 가는 일"(『조용한 혁명』, 11쪽)이라고 정의하였다. 그러기에 이 혁명은 농민이 잘 살 수 있어야 할 자유 때문에 농민도 잘 살 수 있게 되어야 할 일이며, 농민이 스스로 잘 살게 되기 위하여 농민들 스스로가 해야 할 삶의 혁명이며, 땅의 혁명이며, 흙의 혁명이며, 일의 혁명으로서, 어느 누구도 대신 해 줄 수 없는 나 자신의 혁명이요, 요란하고 떠들썩하게 하는 혁명이 아닌 '조용한 혁명'이었다.

그리고 '조용한 혁명'이라 함은 농민들의 정신혁명과 농업의 기술혁명 내지 농촌의 생활혁명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혁명인 동시에, 농민들 스스로의 생활 개선을 위한 혁명이며, 영농법의 혁명이요, 농촌사회에 존재하는 경제적 문화혁명이라고 정의하였다. 여기에서 말하는 '3대 혁명'이라 함은 '농민의 정신혁명' '농업의 기술혁명' '농촌의 생활혁명'을 가리킨다.

(1) 농민의 정신혁명

농촌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농민의 지식과 의식을 향상시키는 데부터 시작되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무지로부터 해방되어 유식한 농민으로 변화시키는 일이 우선과제인 바, 빈곤에서 벗어난다는 목표 하에, 항상 연구하고 생각하는 자세를 가진 농민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것이 정신혁명의 첫 번째 요지였다.

지식은 무(無)에서 유(有)를 창조하는 힘이 되고, 새로운 영농법과 과학적인 신기술 등을 다루는 기술혁명의 밑바탕이 된다. 지식은 곧 힘이라고 말 할 수 있고, 힘은 또한 젊음과 패기에서 비롯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지식을 갖게 된다는 것은 젊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젊은 농민은 밝은 미래를 열어 갈 수 있으며, '무에서 유로' '빈곤에서 풍요'로의 전환을 이룰 수 있는 것이다.

한 걸음 나아가 정신혁명의 두 번째 임무는 협동정신을 가질 수 있도록 농민을 계몽하는 일이다. 하나의 힘 보다는 다수의 힘이, 나 보다는 우리가 유리하다는 인식을 갖도록 하여, 모든 농촌의 협동화를 이루어야 정신혁명이 창조와 발전의 모체가 될 수 있다는 의미이다.

여기에서 말하는 협동화는 '노동의 협동화' '토지의 협동화' '자본의 협동화' '기술의 협동화' '경영의 협동화' '생활의 협동화'를 가리키는 것으로, 농민들이 자발의식을 갖고, 너와 내가 아닌 '우리'라는 인식을 가져야 하며, 또 창의를 존중하여 각자 개인의 자유의식을 존중하고 개성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다.

즉 협업(協業)은 민주정신의 바탕 위에서 형성되고, 정신혁명은 창조와 인간 개선을 통하여 이루어진다고 했다. 상허 선생은 농민들 자신의 정신바탕 위에서, 자발적 의지와 자신감으로써 농민 스스로의 자세와 가치 변화를 유발함으로써 농민의 사회 · 경제적 지위를 향상시켜야 한다고 강조하였다고 하겠다.

(2) 농업의 기술혁명

이는 농업 소득과 직결되는 농업 생산기술의 혁명을 가리키는 것으로, 농업 경영의 과학화뿐만 아니라 '+α 농업'을 실시하여 농업소득을 증대시키자는 것이다. 정신혁명이 질적인 변화를 목적으로 한다면, 기술혁명은 양적인 전환을 뜻한다. 상허 선생은 기술적인 요인으로 '경영 기술' · '재배 기술' ·

'사육 기술' · '기계조작 기술' · '가공저장 기술'을 제시했다.

상허 선생은 이를 바탕으로 농업의 기술혁명 부문으로 첫째, 새로운 기술에 의한 농업기술혁명, 둘째, 농업경영의 과학화와 전문화, 셋째, '+α 농업'을 제시했다. "오늘의 세계는 모든 분야에서 기술혁명의 시대로 돌입했다. 농업분야의 기술도 예외가 될 수 없다"고 강조하였으며, 복지농촌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이 같은 농업의 기술혁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역설하였다.

여기에서 말하는 농업의 기술혁명이란 농업생산기술의 혁명을 의미하는 것으로, 재배기술 · 사육기술 · 저장기술 · 가공기술 · 기계조작기술 등 농산물의 생산과 이용에 관한 기술의 혁명적 · 비약적 발전을 요구하고 있는 셈이다.

또 농업의 기술혁명은 농업 경영기술의 혁명을 의미한다. 즉 농업경영의 과학화와 전문화를 뜻한다. 다시 '과학화'란 기계화 · 화학화 · 분석화 · 합성화 · 동계화를 의미하며, '전문화'란 단일화 · 분업화 · 부분화 · 집중화 · 수량화의 단계로 나아가야 한다는 뜻이다. 그러기에 농업의 기술혁명이란 곧 경영혁명을 의미하는 것이었고, 이를 통해 선도농가들은 '중점화 농업' '겸업화 농업' '전업화 농업' '과학화 농업'이라는 경영 형태를 확립할 수 있게 된다는 논리이다.

(3) 농촌의 생활혁명

상허 선생은 사회적 차원의 생활혁명을 강조했는데, 이는 구습(舊習)과 악습(惡習)의 제거와 극복을 통한 '생활의 과학화'를 의미하였다. 즉 농촌의 복지화를 이룩하기 위한 경제 · 문화적 측면에서의 생활혁명이었다.

오랫동안 인류의 생활은 농업에 의존하여 왔으나, 현대에 이르러서는 공업 부문의 비중이 커져 감에 따라, 농촌의 도시화와 도시의 전원화가 병진되어 가는 상황으로 전개되었다. 이 과정에서 경제적 생활 향상으로 인한 자본의 축적이 이루어졌으며, 자본의 축적은 곧 문화의 발전으로 이어진다고 할 수 있다. 이는 농민도 자본가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말하며, 이는 농촌의 생활혁명을 통해 합리적인 복지농촌의 단계에 이르렀음을 뜻한다.

합리주의에 입각한 생활혁명은 예로부터 전해 내려온 피폐된 환경을 제거하고 새로운 생활환경을 창출함으로써, 농민들 스스로 자각을 통해 과학적인 혁명정신을 가져야 한다는 의미였다.

생활혁명을 이루기 위해서는 먼저 모든 농가를 부채로부터 해방시켜야 했다. 생활혁명을 실천하기 위한 과제로는 첫째, 모든 농가가 적자부채생계로부터 탈피하는 일이었다. 부채에 시달리는 농가가 생활혁명을 이룩할 수는 없는 일이었다. 둘째, 저축생활을 장려하는 것이었다. 농가의 재정구조를 소득증대→저축증대→부채상환→흑자 · 잉여확대→자본축적→저축이라는 순환구조로 이끈다는 구상이었다. 셋째, 소비를 억제하고, 절약 생활을 실천하는 일이었다. 일상생활뿐만 아니라 농업경영에 있어서도 초과 지출을 억제하고 가계 지출에 있어서도 과잉 소비가 일어나지 않도록 힘써야 할 일이었다. 넷째, 자본 형성에 의한 부를 창조해야 할 일이었다. 자본의 형성 · 축적이 없는 생활혁명은 소비를 과시하는 만용에 지나지 않을 것이므로, 항상 자본의 형성과 축적에 진력하여 농민도 자본가가 될 수 있다는 희망과 가능성을 제시하고자 했던 것이다.

상허 선생의 '정신혁명'은 새마을운동 정신으로, '기술혁명'은 유전공학 및 첨단농업기술로, '생활혁명' 정신은 농촌정주생활권(農村定住生活圈) 개발을 통한 농촌주민의 정주환경(定住環境)의 개선과 삶의 질 향상으로 발전하였다.

"상허 선생의 농촌개발 사상에서 중시되는 조용한 혁명에서 농민의 정신혁명, 농업의 기술혁명, 농촌의 생활혁명을 이루어 빈곤에서의 자본화를 형성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정신혁명'이란 농민들은 가난을 운명으로 돌리고 잘 살아 보려는 의지조차 보이지 않아서 상허 선생님은 이러한 나약한 생각을 정신혁명을 통해서 극복하고 자본을 형성해서 농민 자본가가 되어야 하고 선도농가는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상허 선생님의 정신혁명 사상은 지금의 근면 · 자조 · 협동의 정신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기술혁명'이란 새로운 영농법과 과학적인 신기술을 체득하는 것을 말합니다. 기술혁명은 농업생산 기술을 혁명하고 농업 실시하여 농업 소득을 증진시키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방법은 UR타결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촌에서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요구 사항으로 상허 선생의 선견지명의 식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생활혁명'이란 농촌의 열악한 환경을 극복하고 궁극적으로 복지문화를 건설하는 필수조건으로 "소에서 대로의 비약"을 실현하는 것이며 사회발전의 원리인 동시에 창조의 원리입니다. 또한 이것은 축적의 원리이며, 확대의 원리라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빈곤에서 해방되고 저축생활을 하여 농업자본을 축적하고 자본 형성화를 이루어 부를 창조하는 것입니다."

"상허 선생님은 건국대학교의 건국 정신의 하나로 농촌개발을 강조하여 생존 당시 낙후된 농업을 일으키는 데 있어 축산 진흥이 요구된다고 하면서 최초로 축산대학을 설립하였고, 후에 농공대학, 지역사회 초급대학, 농업협동조합 초급대학을 설립하였으며 그는 농촌 지도자가 갖추어야 할 요건으로 우수한 두뇌와 아울러 자질과 성취동기를 중시하였습니다.

1963년에는 전국농업기술자협회를 설립하고 농촌 발전을 위해 진력하였고, 1967년에는 『한국농업의 미래상』과 『 조용한 혁명 』의 두 권의 저서를 발간하여 그 분의 농촌개발사상을 세상에 알리게 되었습니다."(백수봉(건국대학교 농축산생명과학대학 명예교수), 「상허 유석창 선생님의 농민 · 농촌 · 농업의 사랑」, 『내가 본 상허 유석창』, 105~107쪽)

2) 농업 발전 5단계론의 내용

(1) 제1단계: 3대혁명의 개시 단계

상허 선생은 우리나라 전체농가의 2/3가 영세소농으로 빈곤의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현실을 3대 혁명의 시작 단계로 파악하고, 자연촌락 단위로 '5만 선도농가'를 발굴 육성하는 사업을 계획 실행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그리하여 '5만 선도농가'를 매개체로 3대혁명 정신을 보급하여 농민의 자각과 분발을 이끌어 내고, 빈곤의 악순환에서 탈피할 수 있도록 정신무장을 시키고, 아울러 생산기술 협동체의 조직화를 통해 적자 · 부채형의 생계농업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선도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2) 제2단계: 경제의 안정화 단계

2단계는 자급적 생산 영농을 주축으로 농업 경영이 안정화되어 가는 시기로, 생계농가(生計農家)에서 안정농가(安定農家)로 전환, 농업 부문의 집중적인 발전, 농업 경영의 흑자 잉여로 전환하는 단계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농가가 비자립적 생계농업에서 탈피하여, 잉여소득을 축적하고 자립경영을 할 수 있는 안정농가로 전환한다. 둘째, 적자 · 부채에서의 탈피와 경지(耕地) 확대를 통한 농가경제의 수익을 높여 자립적이고 안정적인 농가로 만든다. 셋째, 중점적인 농업 부문의 집중적인 발전과 농업경제의 흑자 잉여로 전환한다.

(3) 제3단계: 자본의 형성화 단계

이 시기는 안정농가가 잉여농가로 성장하여, 적자–부채에서 탈피하고 경영의 안정화에서 일보 전진하여 이윤의 극대화를 위한 영리화로 발전되어 가며, 이익을 축적하여 자본 형성으로 나아가는 단계이다.

그런데 안정농가에서 영리농가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경영 부분에서의 협업화, 특정작업상의 협동화 등을 통해 정신혁명에 따르는 민주주의적인 농업 경영의 협업화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시장의 가격 변화에 대응하여 시장 개척 및 농산물 저장법의 발전이 이루어지고, 농산물의 출하와 판매가 합리적으로 이루어져, 농민의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 이때는 축산업의 성장 발전과 주산단지 조성을 통해 농가소득이 증진되어 자본이 형성되는 단계이다.

(4) 제4단계: 영리농가에서 기업농가로 전환하는 단계

영리농가에서 기업농가로 향상하는 때로써 수요의 변화, 시장경제의 발달, 농산물 가격수준의 적정화 등을 통해 기업 형태의 농업경영 유형을 띤다. 또한 상품화한 원료농업의 발전으로 인해 농산물의 가공식품 공업화를 촉진시킬 수 있는 시기로, 농촌의 공업화를 구현할 수 있다. 이 시기는 농업경영이 기업화 단계로 이행됨과 동시에, 농산물과 연관된 농촌공업이 농촌지역에 유치되어 농가소득 향상에 크게 이바지 하는 단계이다. 그리고 농업경영이 기업화되어 상업적 농업으로 이행하는 시기이다.

(5) 제5단계: 기업농이 법인화하고 농업경영이 현대화하는 단계

5단계는 농업경영이 법인형 · 협동조합형 · 기업형 중심으로 현대화되는 시기이다. 농촌은 농공병진(農工竝進)과 더불어 현대화 · 기계화되고, 농민자본가가 출현한다. 또 법인농장 · 주식농장으로 발전하고, 자본가적 법인 기업농 형태를 띠게 된다. 이런 자본가적 법인 기업농은 외국에 농산물을 수출하고, 고도의 첨단기술을 도입하여 영농의 체계화를 이룩한다. 농업생산성과 농가소득을 향상시켜 구매력을 높이고 현대화된 문화–복지생활을 지향한다.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상허 선생은 농촌지역사회개발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3대혁명과 농업발전 5단계론을 제시했다. 이는 농공병진을 통한 농촌의 현대화, 농업의 기계화, 농민자본가의 출현 등과 같은 성숙되고 발전된 농촌사회화를 지향했다.

그는 농업발전 5단계론의 목표를 완수하기 위해 3대 선행조건과 4대 결실운동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3대 선행조건이라 함은 첫째, 독농가들의 동지적 규합이 모체가 되는 5만 개의 자연 촌락 결속, 둘째, 전국 리(里) · 동(洞)의 조직적인 정비, 셋째, 기술의 수련과 지도자의 양성을 가리킨다.

그는 이와 같은 선행조건이 이루어지면 4대 결실운동을 전개해야 한다고 했다. '4대 결실운동'이라 함은 첫째, 국가 부흥의 원동력이 되고, 이에 앞장 설 독농가(篤農家)의 발굴, 둘째 기술교류와 기술연수를 위한 농사기술조합운동, 셋째 중앙이 비대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부조직을 강화하자는 '말초비대운동', 넷째, '5만 고구마운동' 등을 가리킨다.

> 본인은 최근 두 가지의 큰 발견을 하였습니다. 그 하나는 전혀 색다른 소조합운동(小組合運動)을 일으키는 일입니다. 기술 중심의 특수한 작은 조합운동을 일으켜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독농가(篤農家)를 발견하는 일입니다. 독농가는 특이한 존재성이 있습니다. 독농가의 체험과 기술의 내용은

그것이 바로 증산의 열쇠이기 때문입니다. 독농가를 붙잡는 것이 농촌부흥의 가장 중요한 첩경이 됩니다. 이 독농가들을 모시고 농촌부흥의 선봉장으로 삼아서, 역사적인 사명인 증산운동을 완수하자는 것입니다.〔『회보(會報)』 2호, 1964년 10월 20일〕

특히 '5만 고구마운동'이라 함은 5만 여 개의 자연 촌락에서 독농가를 1명씩 발굴 또는 배출한다는 운동이다. 고구마 씨가 고구마 넝쿨을 이루고 결실을 맺듯이, 독농가가 선도자가 되어 자연부락이 부유해지도록 함으로써 농촌의 모습과 농업의 형태를 바꾸는 운동을 말한다.〔유석창, 『조용한 혁명』, 건국대학교출판부, 1967〕

상허 선생이 지향한 목표는 궁극적으로 복지 · 문화 농촌사회를 만들어 보겠다는 것이었으며, 이를 위해서는 농촌지역 주민들이 도시인 못지않은 문화생활과 풍요롭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하는 데 있다고 보았다. 그리고 복지농촌을 건설하려면 농민정신의 현대화와 농촌경제의 활성화, 농촌 환경의 도시화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었다.

더불어 첨단농업 기술을 도입하고, 고품질의 농산물을 생산하고, 농업의 구조 개선을 도모하고, 생산 · 유통 · 가공 산업을 발전시켜 농가소득을 향상시키는 데 있다고 역설했다. 또한 농촌 공업화를 통해 농외소득을 높이고, 농업경영의 현대화를 기하여 도시와 농촌 간의 불균형을 완화하여, 도시화된 현대인으로서 문화적인 삶을 누릴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자는 요지였다.

"그의 구료제민사상 · 교육입국 사상 · 농촌개발 사상은 상허 선생의 애국 · 애족정신에 뿌리를 둔 하나의 사상 체계로서 궁극적으로는 인류 평화와 복지 증진으로 이어지는 지상낙원의 건설로 완결된다. 그 중에서 특히 주목할 것은 앞에서 말한 것처럼 그의 조용한 농촌혁명 사상으로서 복지농촌 건설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대학을 세우고 농촌혁명의 기수를 양성해야 한다는 결단이 그것이다. 이 나라 농축업의 선구적 지도자와 뛰어난 관련 학자들의 다수가 상허 선생의 직접적인 훈도를 받았음은 너무나 당연하다.

상허 선생이 생각하는 바, 농촌혁명의 완성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농민의 정신혁명과 농업의 기술혁명 그리고 농촌의 생활혁명의 상승효과를 기대하지 않으면 안 된다. 정신과 기술과 생활의 혁명은 곧 사람의 혁명이며 조용한 혁명이다. 그러므로 그의 조용한 혁명의 성공을 위해서는 선도 농가가 앞장서서 자기 혁명을 일으키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 상허 선생의 신념이다. 상허 선생은 바로 건국대학교를 그러한 조용한 혁명의 기지로 삼으려 했던 것이 분명하다."

"그런 점을 생각한다면 조용한 혁명이야말로 함성도 포성도 곡성도 없는, 그러면서도 인간의 삶을 뿌리부터 바꿔 놓는 진정한 혁명이라 하겠다. 그 성과는 실로 포괄적이며 종합적이며 지속적이다. 18, 19세기의 스위스의 페스탈로치를 통한 교육혁명이 그러했고, 같은 무렵 덴마크의 그룬트비히의 인간혁명이 그러하며, 한국 세종대왕과 주시경의 문자혁명이 그러하다. 조용한 혁명을 통해서 인간은 새로운 패러다임을 받아들이게 될 뿐만 아니라 새로운 세계와 만나게 된다. 상허 선생의 조용한 혁명이 바로 그것이다."〔윤형섭(건국대학교 제14대 총장), 「조용한 혁명」, 『내가 본 상허 유석창』, 153~155쪽〕

6
새마을운동 이념 및 한국현대농업사상으로의 발전

상허 선생은 농촌 · 농민 · 농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농민의 정신혁명' '농업의 기술혁명' '농촌의 생활혁명'이 필요하다고 역설하였다. 그는 이 세 가지 요소를 '3대 혁명'이라고 명명하고, 농민교육의 기본주제로 삼았다. 이를 통해 복지농촌을 이루어 문화국가를 건설하고자 하였는데, 1970년대 정부가 낙후된 농촌지역사회를 잘사는 농촌지역사회로 변화시켜 보자고 시작한 새마을운동과 일맥상통하는 것이었다.

그는 복지농촌 건설을 위해 농민들이 정부로부터 지원받을 생각을 하기 전에, 스스로 정신혁명 · 기술혁명 · 생활혁명을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선도농가'를 새로운 각성과 분발에 의해 잘살아 보겠다는 정신무장이 갖춰진 자생적인 농촌지도자를 지칭한다고 했다. '선도농가(先導農家)'가 앞장서서 전체 농민을 이끌어 나가고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뒷받침 할 때, 잘 사는 새마을 복지농촌을 이룩할 수 있다고 여겼던 것이다.

더 나아가 상허 선생은 '선도농가'의 역할로 마을 개발에 관한 청사진을 제시하였다. 선도농가가 혁신적인 기술교육의 보급자 · 전달자가 되어 기술 혁신을 마을 농민들에게 시범적으로 실시함으로써 마을의 발전과 모든 농가의 개발을 위하여 희생 · 봉사해야 한다고 했다. 그리고 마을 농민들을 설득시켜 생산협동조합을 만들어, 생산수단의 협동화 내지 경영수단의 합리화를 이룩해야 한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농촌사회의 소통을 담당하는 미디어 구실을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바로 이러한 '선도농가'가 '새마을운동 지도자'로 맥이 이어졌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상허 선생이 추구한 농촌지역 사회개발의 추진전략인 '삼위일체적 농업발전 5단계론'과 '3대 혁명론'은 1960년대 범사회적으로 시도된 농촌지역사회 발전을 목표로 한 민간 차원에서 상향식 접근 방식으로 전개된 논리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적지 않다.

그가 '독농인(篤農人)' '선도농가(先導農家)'로 표현한 농촌개발운동의 지도자 양성을 위한 교육사상의 원리는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을 것이다.〔임채식, 「상허 유석창의 인간교육론」, 『교육학연구』 제30권 4호, 1992〕 첫째, 인재(人才) 제일주의 원리이다. 새 농촌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농촌을 건설할 새 역군을 교육 · 양성하는 작업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이는 학교교육과 성인교육을 통해 건전한 의식구조를 갖추도록 하는 교육을 의미하였다. 특히 농촌 개혁을 위한 인재는 성(誠) · 근(勤) · 용(勇)으로 무장한 새 농민이어야 하며, 그러한 농민을 양성하기 위한 체계적인 교육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둘째, '5만 고구마〔선도농가〕 운동'을 들 수 있다. 고구마가 뿌리 하나로 많이 번식하며, 어려운 환경을 이겨내고 많은 생산량을 안겨주듯이, 농촌의 발전을 이끌 '고구마' 즉, 선도농가를 양성하자는 내용이다. 상허 선생은 당시 자연 촌락의 규모를 5만여 개로 파악하고, 이 자연 촌락의 발전을 선도적으로 이끌 역군의 양성을 주장하였는데, 이것이 바로 '5만 고구마 운동'인 것이다. 인재를 자연부락에 배치하여, 지역농민들을 교육시켜 생산 활동을 강화한다는 구상이었다.

셋째, 기술교육의 원리인데, 농촌 개혁을 위해서는 이론과 병행한 기술교육의 강화가 중요하다는 뜻이다. 관례적으로 내려 온 전통농법에 의존한 생산 활동을 넘어서서 새로운 농사기술의 도입 및 농기구의 개선 등을 통해, 자본 · 노동 · 토지에 대한 생산성을 강화하자는 뜻으로, 이는 '농촌자본'을 형성할 수 있는 기틀이 될 것이며, 나아가 복지농촌을 건설해 가는 과정이 될 것이라고 평가하였다.

넷째, 창업(創業)의 원리이다. 창업이 고통스럽고 어려운 일이지만 농촌의 구조 개선을 통한 개혁을 위해서는 새로운 창업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의미이다. 이 원리는 '무(無)에서 유(有)에로의 비약' → '일(一)에서 다(多)에로의 전개' → '소(小)에서 대(大)에로의 발전' → '빈(貧)에서 부(富)에로의 창조' 과정으로 이루어졌다.

박정희 전 대통령에 의해 제창된 근면 · 자조 · 협동 정신에 근거한 새마을운동은 상허 사상과 철학의 계승 내지 부활이었음은 1960년대 중반 상허 선생이 농촌개발 · 발전 논리를 전개하는 가운데 제시 · 사용한 '새마을' '새로운 마을 5개년 계획' '농민 잘 살기 대회' 등의 개념으로도 뒷받침된다.

1960년대는 정부 차원에서 수출주도형의 공업근대화가 추진되던 시기로, 상허 선생이 제시한 농촌개발이론은 선구적 안목이었다고 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이러한 평가는 이어지는 1970년대에 들어 본격화된 새마을운동의 이념적 원류 역할을 했던 사실로도 뒷받침된다 하겠다.

"1972년 박정희 대통령을 도와 청와대에서 농촌 새마을운동을 전개할 때도 상허 선생에게서 배운 사상과 그 정신이 크게 작용했음은 굳이 말할 필요가 없다."〔「상허 선생과 나」, 『내가 본 상허 유석창』, 81쪽〕는 류태영(전 건국대학교 사범대학) 교수의 회고를 통해 보다 분명하게 알 수 있다.

> "상허 선생이 한국의 농업혁명을 위해 육성한 인재들은 훗날 '새마을운동'을 성공시키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 상허 선생의 이와 같은 선각자로서의 혜안은 한국의 농촌 혁명 그리고 '새마을운동' 성공의 초석이었다."〔송영우(전 건국대 교수), 「참 삶의 본보기」, 『내가 본 상허 유석창』, 116~117쪽〕

> "상허께서 박정희 대통령으로부터 신촌운동 계획에 관해 김현옥과 더불어 자문을 요청받은 것이 1968년 일이며, 이 나라에 새마을 운동이 시작된 것이 1972년 4월 곧 상허 서거 후 100일 만의 일이었다."〔윤형섭(건국대학교 제14대 총장), 「조용한 혁명」, 『내가 본 상허 유석창』, 152쪽〕

"5 · 16 이후에 박정희 대통령의 소위 '인간 개조', 의식구조의 변화 없이는 이 나라의 중흥을 가져올 수 없다는 주장도 또 오늘날의 제5공화국의 '새 시대 새 복지국가' 건설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모든 문제도 이 분의 선구적인 주장과 정성이 많이 반영된 것을 본인은 알고 있다.

5 · 16 이후에, 박정희 대통령이 유석창 박사를 모시고 자주 이 나라 장래 문제에 대해서 많은 자문을 받았다. 특히 농촌 근대화를 위해서 오늘의 새마을운동이 농촌으로부터 확산되어 도시로 번져가야 한다는 주장에 박 대통령은 깊은 감명을 받았고, 오늘날의 새마을지도자 양성도 건대가 최초로 도맡아서 하였고, 곡물 위주의 주식이 점차 육류주식으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정책적으로 과감히 반영시킨 것도 바로 유 박사였던 것이다."〔김재춘(전 국회의원), 「내가 본 상허 선생」, 『상허 유석창 전기』, 398~399쪽〕

"5 · 16 후 어느 날 서울시내 대학 관계자 모임에 건대를 대표한 일원으로 반도호텔 로비에 참석했을 때, 건대 학생과장인 나는 당시 국가재건최고회의 의장인 박정희 대통령으로부터 재단 이사장 유 박사에 대한 안부와 칭찬을 전언받으면서 건대 발전을 격려해 주시었던 기억을 잊을 수 없다.

이러한 사실로 미루어 보아, 70년대를 시발점으로 한 박 대통령의 새마을운동이란 경이적인 치적은 선구적 농촌운동에 남다른 집념의 소유자였던 상허 유 박사와의 교분에서 연유된 것으로 짐작된다."〔이방석(전 건대 정법대학장), 「내가 본 상허 선생」, 『상허 유석창 전기』, 402~403쪽〕

다음으로 상허 선생의 농촌 개발을 위한 추진전략은 크게 첫째, 농업구조개선을 위한 기업농 및 협업농 육성 전략, 둘째, 작목별 생산자조직을 통한 유통체계 확립, 셋째, 농공단지육성과 농외소득 개발 전략, 넷째, 농업기계화와 농업노동력의 성력화, 다섯째, 농촌지도자의 육성, 여섯째, 농촌 정주권 개발을 통한 농촌 정주환경 개선, 일곱째, 유전공학 등 첨단농업기술을 통한 농업기술의 혁신 등으로 정리될 수 있다.

이 전략이 발전하여 1970년대 새마을운동의 기틀을 마련했으며, 나아가 고도의 복지-문화국가 건설을 위한 초석이 되었다고 하겠다. 즉 복지농촌 건설을 지향한 상허 선생의 농촌지역 사회개발 교육사상이 1970년대에 정부 차원으로 전개된 새마을운동으로 승화 발전되었던 바, 새마을운동의 3대 영역인 '정신 개발' '소득 증대' '생활 개선'은 모두 상허 선생이 주창한 3대 혁명인 정신혁명 · 기술혁명 · 생활혁명에서 비롯되었던 것이다.

그의 농촌개발 교육사상과 새마을운동 정신의 연관성을 살펴보면, 먼저 인구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농촌이 부강해지고 잘 살아야 국가가 부강해진다고 판단하였고, 이를 위해 농촌 개혁의 필요성을 역설하며, 농업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리하여 1959년 건국대학교에 축산대학을 설립하였고, 1962년에는 지역사회개발초급대학(地域社會開發初級大學)과 농업협동조합초급대학(農業協同組合初級大學)을, 1963년에는 농림대학(農林大學)을 설립하였다. 또 농촌의 발전과 부흥을 주도할 지도자를 양성할 목적으로 전국농업기술자협회(全國農業技術者協會)를 창립하였다.

그의 저술 『조용한 혁명: 선도농가를 위하여』와 『한국농업의 미래상: 서기 2000년대를 바라보며』에서는 '새마을' '새로운 마을 5개년 계획' '잘 살기 대회' 등의 용어가 등장하는데, 이는 1970년대 정부 주도로 시행된 새마을운동에 앞선 선구적인 논리였다. 그의 농촌지역사회 개발 · 교육 사상이 새마을운동의 효시가 된 셈이다.

또 농촌공업의 육성을 통해 농외소득을 높이고, 농업 경영의 현대화를 기하여 도시와 농촌간의 불균형을 완화하여, 도시화된 현대인의 문화적인 풍요로운 삶을 누리도록 하자는 구상은 양자가 공동으로 추구한 목표로 볼 수 있다. 이렇듯 양자가 지향한 목표는 궁극적으로 선진화된 민주-복지-문화국가를 만들자는 의미로써, 상호 유사성과 공통점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가 제창한 농촌지역 사회개발 교육사상은 순수 민간 주도형의 농민교육 운동으로서, 성 · 신 · 의를 근간으로 '3대 혁명' 정신운동과 함께 '삼위일체적 농업개발 5단계론'으로 발전하여, 농촌지역 사회발전을 목표로 선도농가(5만 고구마) 운동으로 전개되었다. 그리고 새마을운동은 '함께 잘 살아보자'는 조국근대화운동으로, 근면(勤勉) · 자조(自助) · 협동(協同)의 3대 정신을 바탕으로 추진된 국가주도형 국민정신교육운동이었다.

그가 제시한 '3대 정신(성 · 신 · 의)'과 새마을운동의 '3대 정신(근면 · 자조 · 협동)'을 비교해 보면, 첫째, '성' 정신은 새마을운동의 '근면'과 연관이 있다. '성'은 성실하고 부지런함을 강조한 정신으로 '근면'과 같은 것이다. 둘째, '신' 정신은 '협동' 정신과 일맥상통한다. 인간관계에서 상호 믿음이 있음으로써 협동이 이루어 질 수 있기 때문이다. 셋째, '의' 정신은 '자조' 정신과 관련이 있다. 의로운 일에는 자발적으로 나선다는 행동윤리로,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했듯이, 정의로운 마음과 자세와 자조정신으로 행하면 이루고자 하는 일을 달성할 수 있는 법이다.

상허 선생이 이루고자 했던 복지-문화 농촌사회를 만들어 보겠다는 취지는 농촌지역사회 주민들이 도시인 못지않은 문화생활과 풍요롭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해 나가는데 있다고 보았다. 새마을운동에서 지향한 목표는 '잘사는 마을을 가꾸자'는 것으로, 양자가 지향한 목표는 '복지농촌 건설'과 '잘사는 마을 가꾸기'로 정리할 수 있는데, 이는 풍요롭고 유복한 농촌지역사회를 만들자는 것으로, 이념적 지향과 목적을 공유하고 있는 셈이다.

양자의 이념적 관련성을 살펴보면, 첫째, 새마을운동의 '살기 좋은 고장 만들기'와 '보람 있는 일터를 만들자'는 지향목표는 그의 '성숙되고 발전된 농촌사회를 만들자'는 의미와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 왜냐하면 '살기 좋은 고장'이 곧 '성숙된 사회'이고, '보람 있는 일터'가 있어야 '발전된 사회'를 이룰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새마을운동의 '건강하고 자랑스런 사회를 조성하자'는 것은 그의 농촌지역사회개발 사상의 측면에서 농촌지역사회도 도시 못지않은 좋은 주거환경에서 건강한 문화생활을 영위할 수 있고, 또 건강한 삶을 추구하자는 주장과 동일한 취지로 해석할 수 있겠다. 셋째, '자랑

스러운 국가를 건설하자'는 새마을운동의 지향목표는 그가 제시하였던 복지농촌을 건설하여 농촌지역 주민들도 국민의 일원으로서 자부심을 느끼고 살아가게 하자는 의미로 풀이할 수 있을 것이다.

요컨대 1960년대 초 상허 선생이 제창한 농촌지역 사회개발사상이 1970년대 정부에서 추진한 새마을운동에 영향을 미쳤던 것이다. 그의 농촌사회 개발이론이 새마을운동으로 전이 발전되었던 것이다. 이는 양자가 이념적인 측면에서 동일했기 때문이며, 지향하는 목적도 '잘살기 운동'으로, 그가 제창한 복지농촌 건설이념과 같았기 때문이었다.

7
상허 사상의 의미와 가치

상허 선생의 삶은 민중병원을 통한 '인술제민(仁術濟民)'과 '인술보국(仁術報國)', 건국대학교를 통한 '교육입국(敎育立國)'과 '육영보국(育英報國)', 전국농업기술자협회가 중심이 된 3대 농촌혁명을 통한 '구농보국(救農報國)'의 도정(道程)이었다.

민중병원을 통해 보다 나은 의술(醫術)로써 민족갱생(民族更生)의 터전을 개척하는 1단계, 우리나라와 겨레를 바로잡고, 우리민족의 보존을 위해 꿋꿋이 밀고 나아갈 참된 일꾼을 육성하고, 건국인재(建國人才)를 길러내는 2단계, 빈곤을 쫓아내고 농촌 개발을 통해 참된 복지국가를 건설하는 3단계가 그것이었다.

이 같은 그의 삶을 지탱해 준 사상체계는 민족의식과 사회의식을 함께 갖추고 있었던 점이 남다르다. 단순히 일제 식민지배로부터의 '독립'만을 추구한 게 아니라, '민중병원' 설립에 배태되어 있듯이, '민중에게 따뜻한 나라'를 만들려 하였고, 나라를 되찾은 후에는 농민이 즉 민중이 잘 사는 문화복지국가 건설 주장으로 이어진 사실을 주목해야 할 것이다.

특히 상허 선생이 꿈꾸었던 '열린' 민족주의에 토대한 복지문화국가, "덴마크나 스위스와 같이 자력자활(自力自活)하는 아담한 국가", 영토는 작고 인구는 적지만 경제력 · 문화창조력이 뛰어난 '강소국(强小國)'은 2016년 지금의 시점에서도 시사하는 바가 큰 '바람직한 미래 국가상(國家像)'이라고 하겠다.

다음으로 성 · 신 · 의로 대표되는 상허 선생의 교육사상은 건국대학교 건학이념의 초석이 되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한 농촌지역 사회개발 교육사상은 낙후된 농촌 및 농업 발전에 크게 공헌하였다. 그의 농촌지역 사회개발 교육사상은 농민의 정신혁명, 농업의 기술혁명, 농민의 생활혁명으로 구성되는 '3대 혁명'과 더불어, 이 3대혁명의 개시 단계(제1단계)→경제의 안정화 단계(제2단계)→자본의 형성화 단계(제3단계)→영리농가에서 기업농가로 전환하는 단계(제4단계)→기업농이 법인화하고 농업경영이 현대화하는 단계(제5단계)로 이어지는 '5단계 농업 발전론'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이러한 농촌지역 사회개발 이론은 새마을운동의 단초를 제공하였다는 측면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그런데 상허 선생이 농촌과 농민의 '민주적 협동화'를 중시하고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우리나라 전체의 민주주의가 바로 설 바탕을 잃게" 될 것이라고 강조한 사실은 상허 사상의 진수를 보여주는 것으로 평가된다. 즉 1960년대 시점에서 그는 한국농업이 나아가야 할 길로 '소농(小農)의 협

동화를 통한 대경영의 실현'을 꿈꾸었다. 그리고 이를 위해 그가 설정한 발전주체가 '선도농가'였다.

그래서 "이제 '조용한 혁명' 엘리트로서 농산업 3대 혁명의 대열에 앞장서려는 선도농가 제위께서는 자기 스스로가 기업농이 되고, 시범영농을 하여, 자기 일개인만 잘사는 데에 그쳐서는 아니 됩니다. 부락 내의 모든 농가가 잘살게 될 수 있도록 복지농촌 건설에 있어서의 선구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곡수농업(穀樹農業)과 경제림 조성, 상전 과수 원 목야지 조성 등등을 위한 산지 자원화와 우리나라 농업에 적응하는 협업농 문제에 대하여도 각별히 선도농가 제위께서는 연구하여 주시길 바랍니다."〔유석창, 「서문」, 『조용한 혁명: 선도농가를 위하여』, 건국대학교출판부, 1967〕라고 당부했던 것이다.

그렇기에 그는 농촌과 농민의 발전과 안정이 국가발전의 기반을 조성하는 작업이며, 농민들의 자각과 의지가 중요하다고 지적하여, "아무리 공장이 많이 서고 치달리는 공업화에 농업이 뒤쳐진다면 우리나라 전체 경제의 균형이 무너질 것이며, 도시와 농촌의 지역적인, 문화적인, 사회적인 격차가 차츰 더 벌어진다면 조국근대화의 참모습을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가 없기 때문에 '농민의 정신혁명'이 중요하다"〔유석창 총재, 「특별담화」, 『농업기술회보(農業技術會報)』 81호, 1970년 4월 1일〕고 강조했던 것이다.

이렇듯 복지문화국가의 기초단위로서 농촌사회를 자립 · 부유하게 만들고자 했던 상허 선생의 사상 중 한 갈래가 제3공화국 정부의 농촌개발정책과 어우러져 새마을운동의 이념적 · 방법론적 가치를 제공하였고, 다른 한 갈래는 1960년대 농업문제연구회를 중심으로 새마을운동과는 다른 방향에서 "소농이 자기 소유의 토지를 출자, 여럿이 어울려 경영을 대형화하고 기계화를 추진해 가야한다"는 논리를 바탕으로 '농촌회생의 길'을 찾았던 흐름으로 이어졌다.

그가 떠난 지 반세기가 지난 지금 '국제화' 라는 국제정치 환경 하에서, 외국 농산물에 대한 시장개방으로 인해 국내 농업이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고, 경쟁력이 약회되어 가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 볼 경우, 상허 선생의 농촌지역 사회개발 추진전략은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새마을운동은 현재 중국을 비롯하여 동남아시아 등 제3세계권에서 크게 각광받고 있는 사실을 인지하고, 이를 재조명하고 계승 발전시키는 과제의 필요성을 재인식할 필요가 있다. 이들 나라에서는 새마을운동을 자국의 개발 · 발전 전략과 접목시켜 자국의 실정에 맞는 지역사회 개발사업으로 운용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사실도 주목해야 할 것이다.

그가 지향한 목표는 헐벗고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고, 새로운 국가 건설의 주역을 양성하며, 농업의 근대화와 농촌경제의 발전을 통한 근대국가의 건설로 요약될 수 있다. 상허 선생이 추구했던 가치는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국가적 · 사회적 과제 해결에도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첫째, 민중병원을 개원하여, 치료비조차 부담하기 어려운 빈곤층의 병마를 치료해준 사실은 현재 우리사회의 화두가 되고 있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빈부의 차 극복을 통한 사회적 통합 노력의 선행사례로써도 연구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건국대학교 설립을 통한 근대국가 건설의 주역을 양성하고자 한 교육입국 사상은 중견 강소국으로 재도약하기 위해 현재 우리가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국가위상 제고 노력에도 여전히 유효하다고 할 것이다. 즉 국가와 민족사회의 발전과 번영을 위해 선공후사할 수 있는 젊은 인재를 많이 배출하여, 이들로 하여금 국가발전의 선도적 역할을 하도록 하는 일이 선결과제이고, 이는 대학교육이 '제2의 건국교육' 차원에서 시행될 때 비로소 가능해질 것이다.

셋째, 농촌경제의 발전과 농민의 복지 향상을 통해 우리사회의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했던 그의 '구농입국(救農立國)'사상은 FTA 체결을 통해 우리나라가 나아가야 하는 앞길을 능동적으로 개척하려 하고 있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농산물 개방시대에 직면한 농촌사회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지혜를 발견해야 할 것이다.

즉 공업 위주의 근대화 과정에서, 농업과 공업을 배척하고 충돌하는 관계가 아닌 순기능적이고 상생적인 상대로서 받아들이고, 전통농업을 근대적인 구조로 개편해 나갔던 사실은 우리 농업의 경쟁력을 확보 강화해 가는 데 적지 않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

제3편

대학교육의 현실 진단과 미래 비전을 담은 글들

–‘축하’와 ‘당부’ 속에 담긴 비전과 리더십–

1. 교육 관련 글
2. 면학 격려의 글

제3편

대학교육의 현실 진단과

미래 비전을 담은 글들

–'축하'와 '당부' 속에 담긴 비전과 리더십–

목차

1. 교육 관련 글

1) 개교 기념사

(1)「개교 12주년 학장 기념사: 바야흐로 이상 구현의 단계」, 『정대(政大)』 1958년 5월 15일
(2)「개교 16주년 이사장 기념사: 민족요람 진리의 터 건대 창립 16주년 기념」, 『건대신문(建大新聞)』 1962년 5월 16일
(3)「개교 17주년 이사장 기념사: 신념의 씨를 뿌리자」, 『건대신문(建大新聞)』 1963년 5월 10일
(4)「개교 18주년 이사장 기념사: 새 진군의 자세를」, 『건대신문(建大新聞)』 1964년 5월 15일
(5)「개교 19주년 이사장 기념사: 청년건대의 전도 양양, 덕성의 바탕 과학의 무장」, 『건대신문(建大新聞)』 1965년 5월 13일
(6)「개교 20주년 이사장 기념사: 조국 근대화의 주축 되어 성장」, 『건대신문(建大新聞)』 1966년 5월 15일
(7)「개교 21주년 이사장 기념사: 창업을 위한 미래상을 가지라」, 『건대신문(建大新聞)』 1967년 5월 13일
(8)「개교 22주년 이사장 기념사: 교육의 생산화와 생산의 교육화, 교육의 생활화와 생활의 교육화」, 『건대신문(建大新聞)』 1968년 5월 13일
(9)「개교 23주년 이사장 기념사: 줄기찬 전진을 촉구한다」, 『건대신문(建大新聞)』 1969년 5월 13일
(10)「개교 24주년 이사장 기념사: 청년건대의 발전 영광을 기원함」, 『건대신문(建大新聞)』 1970년 5월 15일
(11)「개교 25주년 이사장 기념사: 대학의 발전은 시간의 누적, 전통은 피나는 노력의 소산」, 『건대신문(建大新聞)』, 1971년 5월 24일

2) 입학식사

(1)「1957년 입학식 학장 훈사: 역사의 주인되라, 학전(學田)은 제군의 개척 고대」, 『정대(政大)』 1957년 4월 1일
(2)「1958년 입학식 학장 훈화」, 『정대(政大)』 1958년 4월 27일
(3)「1961년 입학식 총장 훈사(요지): '자기'가 '자기'를 '자기'로서 만들자」, 『건대신문(建大新聞)』 1961년 4월 8일
(4)「1962년 입학식 이사장 고사(告辭)」, 『건대신문(建大新聞)』 1962년 3월 24일
(5)「1962년 지역사회개발대학 입학식 이사장 고사(告辭)」, 『건대신문(建大新聞)』 1962년 4월 6일
(6)「1967년 입학식 이사장 훈사: 인류에 기여할 높은 건학정신 성 · 신 · 의의 기치 승리 밝히기를」, 『건대신문(建大新聞)』 1967년 3월 18일
(7)「1971년 입학식 이사장 훈사: 진실과 성실로 알찬 생활」, 『건대신문(建大新聞)』 1971년 3월 15일

3) 졸업식사

(1)「5회 졸업식 학장 훈사: 성 · 신 · 의의 실천, 생활에 혁명성을 갖도록」, 『정대(政大) 1956년 3월 29일
(2)「6회 졸업식 학장 훈사: 국민의 기대에 보답하라, 졸업의 영예는 제군들 것만이 아니다」, 『정대(政大)』 1957년 3월 30일
(3)「7회 졸업식 학장 훈사: 불안과 암흑을 밀고 세대의 샛별 되라」, 『정대(政大)』 1958년 3월 31일
(4)「8회 졸업식 총장 훈사: 자기를 찾자」, 『정대(政大)』 1959년 3월 28일
(5)「9회 졸업식 총장 훈사: 성공의 비결은 인생관의 확립에 있다」, 『건대신보(建大新報)』 1960년 3월 28일
(6)「10회 졸업식 총장 훈사(요지): 인격 형성은 주체요 학문 · 기술은 부수물」, 『건대신문(建大新聞)』 1961년 3월 28일
(7)「11회 졸업식 이사장 치사(요지)」, 『건대신문(建大新聞)』 1962년 1월 18일
(8)「12회 졸업식 이사장 치사: 새 기원의 창조를 기대한다」, 『건대신문(建大新聞)』 1963년 2월 27일
(9)「13회 졸업식 이사장 치사: 남다른 바탕을 이루기 위하여」, 『건대신문(建大新聞)』 1964년 2월 27일
(10)「14회 졸업식 이사장 치사: 성실, 노력, 책임」, 『건대신문(建大新聞)』 1965년 2월 27일

(11) 「15회 졸업식 이사장 치사: 근대화 역군 기대」, 『건대신문(建大新聞)』 1966년 3월 1일
(12) 「16회 졸업식 이사장 치사(요지): 무성한 새 가지 펴는 건국의 거목, 세계인류에 기여하라」, 『건대신문(建大新聞)』 1967년 2월 27일
(13) 「17회 졸업식 이사장 치사: 복지문화국가에의 선도자 되시라」, 『건대신문(建大新聞)』 1968년 2월 27일
(14) 「18회 졸업식 이사장 고사(告辭): 성 · 신 · 의 건학정신으로 모든 분야에서 충실을」, 『건대신문(建大新聞)』 1969년 2월 27일
(15) 「행정대학원 1회 졸업식 이사장 치사: 학리(學理)와 체험으로 값진 인생 수록」, 『건대신문(建大新聞)』 1969년 2월 27일
(16) 「19회 졸업식 이사장 치사: 이상과 현실의 조화를, 정력과 노력 바치고 혼연일체의 노력 긴요」, 『건대신문(建大新聞)』 1970년 2월 27일
(17) 「20회 졸업식 이사장 치사: 영광 있을 내일을 믿는다」, 『건대신문(建大新聞)』 1971년 2월 27일

4) 신년사

(1) 「1957년 학장 신년사: 지난 10년을 거울삼아 백년대계를 꾸미자」, 『정대시평(政大時評)』 1957년 1월 1일
(2) 「1960년 총장 년두사: 건설에 병행한 내용 충실에 주력」, 『건대신보(建大新報)』 1960년 1월 1일
(3) 「1963년 이사장 신년사: 새해 새 희망 새 설계, 웅비의 계묘(癸卯) 아침에 부친다」, 『건대신문(建大新聞)』 1963년 1월 10일
(4) 「1970년 이사장 신년사: 70년은 약진의 해, 불굴의 의지와 힘찬 정열로 대단원의 목표 향해 나가리」, 『건대신문(建大新聞)』 1970년 1월 20일
(5) 「1971년 이사장 신년사: 힘찬 전진, 긴밀한 협조를」, 『건대신문(建大新聞)』 1971년 1월 15일

5) 송년사

(1) 「1955년 학장 송년사: 을미년은 저무러지다」, 『정대(政大)』 1955년 12월 22일
(2) 「1956년 학장 송년사: 창립 10주년을 보내면서」, 『정대(政大)』 1956년 12월 25일
(3) 「1957년 학장 송년사」, 『정대(政大)』 1957년 12월 15일

6) 담화 및 격려사

(1) 「우리 대학의 앞날」, 『정대(政大)』 1956년 2월 25일
(2) 「학문의 자기 주장: 획선을 긋는 시대의 각광 띄고서」, 『정대(政大)』 1956년 9월 25일
(3) 「학장 담화: 학구(學究)의 해이와 안일을 경계」, 『정대(政大)』 1957년 11월 20일
(4) 「학장 위문서신: 전후방의 견고한 유대를」, 『정대(政大)』 1958년 6월 15일
(5) 「담화: 학생 본분은 학업 전심(專心)」, 『정대(政大)』 1958년 9월 15일
(6) 「큰 대학보다 좋은 대학되기를: 종합대학교 발족에 즈음하여」, 『건대신보』 1959년 4월 28일
(7) 「제1회 교회시간 이사장 담화(요지)」, 『건대신문(建大新聞)』 1963년 9월 17일
(8) 「조국의 두 병환(病患)에 '메스'를……」, 『학생신문(學生新聞)』 1964년 5월 18일: (『건대신문(建大新聞)』 1964년 5월 29일 전재)
(9) 「제3회 건대축전에 붙임: 발랄한 젊음의 잔치 되기를!」, 『건대신문(建大新聞)』 1964년 10월 1일

7) 기타

(1) 「정대위 총장 취임식에서 유 이사장의 인사(요지)」, 『건대신문(建大新聞)』 1962년 1월 18일
(2) 「총장 이임사」, 『건대신문(建大新聞)』 1961년 10월 2일

8) 『정대』 및 『건대신문』 기념사

(1) 「'정대' 창간사: 정대의 등불을 밝히고자」, 『정대(政大)』 창간호, 1955년 7월 16일
(2) 「'건대신보' 61호 기념사: 지륜(紙輪) 61회와 새로운 결의」, 『건대신보(建大新報)』 1959년 12월 1일
(3) 「건대신문 지령(紙齡) 100호 기념사: 학문과 진리의 등대, 세계교육사에 공헌하는 전통」, 『건대신문(建大新聞)』 1961년 7월 14일
(4) 「건대신문 지령 200호 기념 축사」, 『건대신문(建大新聞)』 1965년 3월 18일
(5) 「건대신문 지령 300호 기념 축사: 건국신문은 상아탑 속에 살아 있는 역사의 증인, 건국정신과 개척자 정신의 기수」, 『건대신문(建大新聞)』 1968년 11월 2일

2. 면학 격려의 글

1) 「정치대학의 역사적 사명」, 『정대(政大)』 1호(졸업기념호), 1952년 4월
2) 「자유세계와 공산세계는 공존할 수 있는 것인가?」, 『정대(政大)』 2호, 정치대학 학도호국단, 1953년.
3) 「권두사(卷頭辭)」, 『정대학보(政大學報)』 5호, 1958년 9월 1일
4) 「권학문(勸學文): 독서에 앞서는 입지(立志)를!」, 『건대신보(建大新報)』 1959년 9월 20일
5) 「성 · 신 · 의」, 『건대학보(建大學報)』 8호, 1960년 2월 1일
6) 「학향(學鄕)으로 돌아오라」, 『건대학보(建大學報)』 9호, 1960년.
7) 「『행정학회지』 창간사: 진실한 결실을 위하여」, 『행정학회지(行政學會誌)』 창간호, 건국대학교 행정학회, 1961년.
8) 「정비공(整備工)의 심경으로」, 『건대학보(建大學報)』 12, 창간 10주년 기념호, 1962년.
9) 「격려사: 착실한 정지작업을 – 이부대학 『연합학회지』의 창간에 붙임 –」, 『연합학회지(聯合學會誌)』 창간호, 건국대학교 이부대학 연합학회, 1963년 7월 4일
10) 「건국학회에 당부 – 학문적 영향력 과시하라 –」, 『건대신문(建大新聞)』 1964년 4월 10일
11) 「격려사: 드높은 이상 꾸준한 노력」, 『연합학회지(聯合學會誌)』 2호, 1964년 9월 25일
12) 「격려사: 그 성실 길이 지키라 – 『축우(畜友)』 창간에 부쳐 –」, 『축우(畜友)』 창간호, 건국대학교 축산대학 연합학회, 1965년 1월 15일
13) 「격려사: 힘찬 출범 – 경상휘집(經商彙集) 창간에 부침 –」, 『경상휘집(經商彙集)』 창간호, 건국대학교 경상대학, 1965년 12월 31일
14) 「서문」, 박형표 저, 『국사통론(國史通論)』, 동명사, 1965년.
15) 「'개발'지 창간 축사: 힘찬 출범을」, 『개발(開發)』 창간호, 건국대학교 지역사회개발초급대학 연합학회, 1966년 3월
16) 「격려사: 더욱 넓게 더욱 깊게」, 『법정연구지(法政硏究誌)』 창간호, 건국대학교 법정대학 연합학회, 1966년.
17) 「격려사: 슬기와 근면을」, 『축우(畜友)』 2, 건국대학교 축산대학 연합학회, 1966년.
18) 「기념사: 밝음을 늘리는 그릇이 되자」, 『건대학보(建大學報)』 20(창립 20주년 기념), 건국대학교 건대신문사, 1966년.
19) 「생활의 과학화를 위하여」, 『여대학보(女大學報)』 창간호, 건국대학교 여자초급대학, 1967년 2월 1일
20) 「격려사: 창간에 즈음하여 – 농업현대화에 기여되기를 바라며 –」, 『건농(建農)』 창간호, 건국대학교 농공대학, 1967년.
21) 「격려사: 영광의 미래를 위하여」, 『축우(畜友)』 3, 건국대학교 축산대학 연합학회, 1967년.
22) 「권두언(卷頭言)」, 『개발』 2호, 건국대학교 지역사회개발초급대학 연합학회, 1967년.
23) 「축사: 이공대학 학보 창간에 즈음하여」, 『이공학보(理工學報)』 창간호, 이공대학 학생회, 1968년.
24) 「힘찬 출범: 『행정학보』의 창간에 부침」, 『행정학보(行政學報)』, 창간호,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1968년 11월

1
교육 관련 글

1) 개교 기념사

(1)「개교 12주년 학장 기념사: 바야흐로 이상 구현의 단계」

오늘은 본교가 만 12년 전 낙원동에서 고고의 탄생을 한 바로 그날입니다.

회고하건대, 일제의 기반(羈絆)에서 벗어나 해방(解放)의 감격이 무르익던 때였습니다만, 다른 한편 정치적 혼란이 파생됨으로서 민족 장래에 뜻하지 않은 암운이 가로놓여짐을 간과할 수 없는 때이기도 하였습니다.

이때에 있어 우리들 몇몇 동지들은 일제의 독소를 소탕하고 민족의 영원한 행복을 가져다 줄 기본적인 토대는 오로지 교육, 특히 중견지도층을 양성할 대학교육임을 통감하고, 본교 설립과 동시에 일로매진(一路邁進) 그 육성 강화에 헌신적 노력을 경주함으로서 오늘날과 같은 실로 괄목할 일대 비약기에 도달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길은 결코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12년 동안의 본교의 발자취는 이 민족이 겪은 수난에서 예외일 수는 없었습니다. 본교 역시 민족과 더불어 온갖 수난을 겪으면서도 백절불굴의 정신을 가다듬어 그 본래의 사명을 다하기에만 전심전력을 다하였던 것입니다. 따라서 본교는 무엇보담도 인화(人和)를 중시하여 학원 내에 추호의 분쟁도 없이 오늘에 이르게 된 것은 본교의 큰 자랑의 하나이라고 자부하는 바입니다마는, 그렇다고 하여 지만의득(至滿意得)하는 건 결코 아닙니다.

그것보담도 본교는 과거의 쓰라린 체험을 경(經)으로 하고, 꿋꿋한 신념을 위(緯)로 하여 쉼 없는 전진만을 위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본교는 종합대학교의 승격을 앞두고 수도의 동쪽, 장안동(長安洞)에 72만평이란 광대한 교지를 마련하여 시설면에 있어서는 물론, 학생들의 질적 향상을 위하는 과외교육 등을 실시함으로서 머지않은 장래, 명실 공히 최고학부로서 그 면목을 일신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허장성세(虛張聲勢)가 아니라 예정대로 착착 모든 게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현상을 목격함으로써 충분히 규지(窺知)할 수 있으며, 자조자(自助者)는 하늘이 돕는다는 것을 깊이 믿어 본교는 그 최종목표의 달성을 완수할 것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는 바입니다.

그동안 만난(萬難)을 극복하여 오늘의 이 단계에까지 도달한 것을 상도(想到)하면 실로 감개무량한 바가 있습니다. 이것은 신(申) 이사장을 비롯한 재단 여러분은 물론이요, 교직원 여러분 그리고 학생 제군들의 애교심에 연유하는 바 크다고 치하하는 바입니다.

원컨대 이 앞으로도 재단 · 학교 당국 · 학생제군의 삼위일체가 교시(校是)인 성(誠) · 신(信) · 의(義)의 정신에 투철하여 우리들의 이상이 하루빨리 구현되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뜻 깊은 개교 12주년을 맞이하여 소감의 일단을 피력하는 바입니다.〔『정대(政大)』 1958년 5월 15일〕

(2) 「개교 16주년 이사장 기념사: 민족요람 진리의 터 건대 창립 16주년 기념」

오늘은 우리 대학 창립 16주년 되는 기념일일 뿐 아니라 위대한 과업을 이룩한 군사혁명 1주년을 맞이하는 기념식이기도 하다. 따라서 오늘 이 식과 기념체육대회로 말하자면 두 가지 중대한 의의가 있다.

우리나라가 지난 만 1년 통하여서 이루어놓은 5 · 16 군사혁명정부의 업적을 보면 실로 눈부신 바 크다. 이러한 비약과 약진의 만 1년을 우리 학교 창립기념일과 시간을 같이 하여 기념하게 되었다는 것은 퍽 큰 감격과 기쁨 넘치는 일이다.

국가적으로 감격과 기쁨으로 이날을 맞이할 뿐 아니라, 감사와 감격으로 앞날의 설계를 더욱 크고 벅차게 수놓아 참된 뜻에서의 '건국의 이상'을 살찌게 해야 될 것이다. 건대가 16년 전에 출발한 후 한 달 일 년 다시 일 년 커지고 더 강해져서, 오늘의 강한 신념 밑에 위대한 꿈을 이룩하게 된 것이다.

오늘은 다른 때와 달라 이렇게 기쁜 두 기념일을 겸하여 맞이하여 제군들이 이 푸른 장안동 뜰에서 마음껏 뛰며 달릴 수 있는 앞날 역사의 주인공들로써의 축복을 또한 기쁘게 여긴다. 건대가 지닌 위대한 꿈을 이룩하여 앞으로의 다가오는 역사의 주인공들이 되기를 거듭 바라는 것이다.

오늘 경기에 있어서도 마음껏 뛰고 달려 굳은 신념과 용기를 나타내주기 바란다. 오늘 하루 마음껏 승리의 신념과 용기를 가지고 날뛰라!〔『건대신문(建大新聞)』 1962년 5월 16일〕

(3) 「개교 17주년 이사장 기념사: 신념의 씨를 뿌리자」

'조선정치학관(朝鮮政治學館)'의 이름으로써 본교가 그 역사의 막을 올리게 된 것은 지금으로부터 17년 전의 일이었습니다.

당시 우리 민족은 일제의 사슬에서 벗어나기는 하였습니다만, 피폐와 혼돈 속에 갈 길을 정하지 못하고 서성거리고 있었습니다.

나는 여러 선배동지들과 논의한 끝에 우리가 겪어야 할 근대화 과정 내지 과학국가 건설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선행조건이 지도적 역군의 양성임을 통감하고 우선 그 첫 출발로서 전기(前記) 학관(學館)을 개설하였던 것입니다.

그로부터 17년간 때로는 눈보라에 휩쓸리고 때로는 전쟁의 화염에 온 재산을 태워버리기도 하였습니다만, 그 속에서도 재단과 학교는 나날이 커 가고 발전되어 왔습니다.

이제 우리는 낙원동 옛터와 장안동 넓은 벌에 4개 단과대학(單科大學) 1개 초급대학(初級大學) 및 대학원(大學院)을 세웠으며, 따로 농업협동조합초급대학(農業協同組合初級大學)을 경영하게 되었으니, 개교 당시를 돌이켜 보면 그야말로 금석지감(今昔之感)이 있습니다.

이것이 결코 우연의 산물이 아님은 더 말할 나위도 없습니다.

칠전팔기(七轉八起) 끈기와 노력으로써 재단의 확충과 학교의 경영 유지에 헌신한 재단임원은 물론이려니와, 온갖 고난 속에서도 꾸준히 진리의 불을 밝혀주신 교수 직원 제위와 학생 제군의 노고에 대하여서도 눈물 없이는 나의 뜨거운 사의를 표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할 일이 이것으로 끝난 것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의 겉모양이 전보다는 많이 달라졌다 하더라도, 성(誠) · 신(信) · 의(義)를 기둥으로 삼는 건학이념은 변함없는 숙제로 남아있으며, 보다 훌륭하고 보다 충실한 내용의 학부를 만들겠다는 우리의 꿈은 예나 지금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대학의 자랑이 높은 집 넓은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랜 학문의 전통과 거기에서 발산되는 그윽한 문화적 향기에 있는 것이라면 우리의 앞길은 아직도 요원한 것입니다.

지금 우리 국민은 국내외의 복잡한 정세로 인하여 불안과 혼선에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대학은 혼연 부동의 자세로서 정의와 신념을 지켜나가야 할 것입니다.

해방 후 이 땅에는 수십만의 학사(學士)가 배출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직도 번영과 부흥의 발판을 이룩하지 못한 것은 그들의 지식의 부족이라기보다도, 그들이 지녀야 할 인생관(人生觀) 내지 사회관(社會觀)의 취약 때문입니다.

천자만흥(千滋萬興)의 공허한 이론을 펼치느니, 차라니 한 알의 신념을 씨 뿌리고 가꾸었던들 우리 사회가 이렇게 메마르고 어지럽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점점이 수놓은 바늘구멍이 모여서 선을 이루고, 그 선이 다시 면을 형성하여 생기가 약동하는 한 폭의 그림이 되었다는 것을 명심하여야 할 것입니다.

나는 다시 한 번 17년 전을 회상하며, 학생 제군이 가슴마다 우리의 건학이념을 새겨 국난 타개에 이바지하고 나아가서는 이 땅에 르네상스를 일으키는 원동력이 되어 주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건대신문(建大新聞)』 1963년 5월 10일〕

(4)「개교 18주년 이사장 기념사: 새 진군의 자세를」

오늘 우리는 건국대학교의 창립 18주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개교기념일을 당할 때마다 개교 당시의 일이 생각 키워 감개무량합니다.

회고하건데 그때는 일제의 기반에서 벗어나 해방의 감격이 무르익을 즈음이었습니다만, 또 한편으로는 정치적 혼란이 파생되어 민족 장래에 뜻하지 않은 암운이 가로놓여 있었습니다.

이에 우리 몇몇 동지들은 일제의 독소를 소탕하고 민족의 영원한 지향을 심각히 논의한 끝에, 그 길은 우리의 이지러진 민족성을 진실하고 용감하고 부지런하게 바로잡는 동시에, 그 위에 과학과 기술의 무장을 갖추도록 하는데 있다는 결론을 얻게 되어, 그 첫 출발로서 건국의숙(建國義熟)을 세웠던 것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빈약하기 짝이 없는 것이었습니다만, 그 열성과 의욕은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근 20년 동안에 우리 학교의 체재와 모습은 크게 바뀌어졌습니다만, 건교(建校)의 본뜻은 그때나 지금이나 여일(如一)합니다.

오늘 우리는 70여 만 평의 광대한 교지(校地) 위에 9개 대학(大學)을 옹유(擁有)하는 대학원(大學園)을 건설하였습니다만, 그 동안의 본교의 발자취는 결코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역사의 변천 과정에 따라 본교도 숱한 곤란과 신고(辛苦)를 당하였습니다. 때로는 세파에 부딪혀 몸부림치고 때로는 전화(戰火)에 온 재산을 불사르고 망연자실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나와 뜻을 같이 한 재단 동지 · 교직원 · 동문 및 학생 제군은 역경에 처할 때마다 더욱 굳게 합심협력하여 일곱 번 꺾인 뜻을 여덟 번 세우는데 성공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건대는 결코 우연의 산물이 아니라, 전기한 여러분들의 혈한(血汗)의 결정(結晶)입니다. 그것은 어느 누구의 사유물(私有物)이 아닙니다. 오직 이 민족, 이 사회의 공기(公器)일 따름입니다.

이제 우리가 오늘의 창립기념일을 맞아 현상에 만족하여 거드름을 부리거나 지난날을 감상적으로 회상하는 것만으로 그친다면 큰 앞날의 진보와 발전을 기약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20세기 후반기의 역사적 진행 속도는 적응하기에 겨울만치 너무나도 빠릅니다. 환경풍조의 변천은 시간을 다투고 그에 따른 제 현상의 변화는 분 · 초를 다투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면에서는 자칫하면 시대착오자가 아니면 부박(浮薄)한 유행병자가 되기 쉽습니다. 현대적 상황에 관한 통찰력과 비판력이 없을 때 특히 그렇게 되기 쉽습니다.

우리는 모름지기 시대환경의 변천에 촉각을 날카롭게 하는 동시에, 우리가 당초에 품었던 의지와 신념을 견지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대학은 지식인의 도량(道場)입니다. 한 민족의 지성의 정수로서 현실을 정시하고 진리를 탐구하는 학구적인 열의로써 자기의 충실을 기하는 상아탑의 주인공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와 동시에 우리는 이론에 따르는 실험실습을 중시하여야 하겠습니다. 나는 지식이 지식으로만 그치고 교육이 교육으로만 그치는데 의의를 발견하지 못합니다. 그것은 실험에 연결되고 구국의 길에 통할 때 비로소 값어치가 있는 것입니다.

나는 학생 제군의 좀 더 야심적이고 창의성이 있는 노력이 건국의 대역사를 짊어지고 나갈 기둥이 될 것을 바랍니다. 피나는 인내와 희생의 정신 앞에는 반드시 하나님도 미소와 은총을 보낼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다시 한 번 우리의 건학정신이요, 교시인 성(誠) · 신(信) · 의(義)를 마음에 새겨 새로운 진군의 자세를 갖춥시다. 앞으로 학교법인 · 학교 · 학생 제군의 삼위일체가 우리의 이상을 향하여 매진한다면, 그것은 비단 우리 대학의 흥륭(興隆)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구국제민(救國濟民)의 길을 밝히는 데도 또한 불멸의 등탑(燈塔)이 될 것을 확신하는 바입니다.〔『건대신문(建大新聞)』 1964년 5월 15일〕

(5)「개교 19주년 이사장 기념사: 청년건대의 전도 양양, 덕성의 바탕 과학의 무장」

조선정치학관(朝鮮政治學館)의 이름으로 건국대학교(建國大學校)의 주춧돌을 세운지 어언 19주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 주춧돌을 손수 깎아 세운 석수(石手)의 감개가 어찌 깊다 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창립 당시의 자그마한 모습을 오늘의 거창한 현실에 비추어 보면 참으로 괄목상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동안 피땀을 흘리시면서 터를 넓히고 학교를 세우고 이를 관리 경영하여 오신 학교법인 임원 여러분과 갖은 고난을 극복하시고 교육을 맡아 오신 교수 및 이를 뒷받침하여 오신 직원 여러분에게 새삼 존경과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단순히 교육을 받는 객체로서가 아니라, 건대의 큰 수레바퀴를 밀고 가는 주체의 일원으로서 휴척(休戚)을 같이하여 온 동창생 재학생 제군에 대하여서도 뜨거운 사의를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생각할 때 우리 대학은 결코 그 창설자나 학교법인 이사 몇몇 사람의 사유물이 아니라, 이에 관련된 모든 사람의 공유물이요, 나아가서는 동포의 핏줄과 운명이 연결된 사회의 공기(公器)입니다.

현대교육은 나날이 분화되고 전문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복잡다기합니다만 그 조류를 한 마디로 요약하면 현대교육은 과학의 세계를 향하여 줄기찬 행진을 거듭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찍이 측우기 금속활자를 만들고 영롱한 청자를 구어 낸 뛰어난 천품을 지니고도, 우리는 이것을 신장치 못하고 오랫동안 후진의 구렁 속에서 헤매고 있었습니다.

현대교육이 불합리한 인습의 기반(羈絆)을 끊어버리고, 미지에 대한 과감한 도전, 진리에 대한 열렬한 탐구를 그 주제로 삼게 된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 대학에서도 그동안 과학교육을

중시하여 왔으며, 특히 생활과학 · 기술교육에 힘을 기울였습니다. 더욱이 이론과 실제의 유리(遊離)를 막기 위하여 '배우며 일하고' '일하며 배우고' '생각하며 실험하고' '실험하며 생각하고' '연구하며 실습하고' '실습하며 연구하는' 교육에 전력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과학이 우리의 모든 것을 지배하고 교육의 전부를 차지할 수는 없습니다. 과학이 우리를 계발하고 향상시킨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과학을 중히 하여 왔고 앞으로도 과학발전에 힘을 다할 것입니다. 그러나 과학은 어디까지나 우리를 위하여 있는 것입니다. 과학은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 수단입니다.

과학이 아무리 위대한 힘을 발휘한다 하더라도 가치의 주체는 사람이요, 가치를 저울질 하는 표준도 사람에게 있는 것입니다. 인격이 갖추어지지 않은 사람에게 부여된 과학지식은 무가치하다기 보다도 오히려 위험한 것입니다. 인류가 지금 핵무기의 공포에 떨어야 하는 것도 그 때문입니다. 따라서 과학의 열매는 덕성(德性)의 나무에 맺힐 때 비로소 인류의 광명을 약속하고 행복을 살찌울 수 있습니다.

건국대학교 건학의 동기는 이 땅 위에 고도의 문화국가(文化國家), 즉 국민성을 개조하여 진실하고 부지런하고 용기 있는 인간을 만드는 한편, 모든 생산을 기술화함으로써 아름다운 문화와 고루 번영하는 복지국가(福祉國家) 건설에 기여하고자 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지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교시(校是)를 성(誠) · 신(信) · 의(義)로 정하고 정치대학(政治大學)을 거쳐 오늘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이를 꾸준히 지켜온 것입니다.

앞으로도 우리는 정성을 다하여 이를 간직하고 단결과 협동으로서 이를 부위하고, 정의와 용기로써 이를 빛낼 것입니다. 성(誠) · 신(信) · 의(義)를 바탕으로 한 인간교육이 이루어지고 그 위에 과학기술의 무장이 갖추어질 때 건국대학은 필시 겨레의 운명을 짊어지고 나갈 힘찬 일군의 산실이 될 것입니다. 19돌을 맞는 한창 나이에 청년 건국대학의 희망이 부풀고 정열이 용솟음치고 줄기찬 전진이 있기를 바랄 뿐입니다.『건대신문(建大新聞)』 1965년 5월 13일〕

(6)「개교 20주년 이사장 기념사: 조국 근대화의 주축 되어 성장」

1946년 5월 15일 해방된 이 땅 위에 다시는 불행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하여 성 · 신 · 의의 교시 아래 진실하고 부지런하고 용기 있는 국민성 · 아름다운 문화 · 과학 하는 생활 · 바른 정치 · 고루 번영하는 경제의 씨를 가꾸고, 그 지도적 역군을 길러내기 위하여 조선정치학관(朝鮮政治學館)을 창립 개교한지 어언 20년이 되었습니다.

그 뜻을 실현하고자 우리 대학이 걸어온 역정은 매우 험준하고 다난하였습니다. 때로는 사상적 갈등에 몸부림치고 때로는 탄우초연(彈雨硝煙) 속에 잠기고, 때로는 정치의 소용돌이 속에 휩쓸리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역경에 처할 때마다 더욱 굳건히 초지(初志)를 가다듬고 힘을 모아

난관을 돌파하였습니다.

오늘의 우리 대학의 발전상을 20년 전의 모습에 비교하면, 그야말로 괄목상대할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코 우연의 산물이 아닙니다. 넓디넓은 벌 수많은 교실의 구석구석에는 학교법인 이사 · 교직원 · 동창생 및 재학생들의 혈한(血汗)이 맺혀있고 얼이 스며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대학은 설립자나 학교법인 임원 기개인(幾個人)의 사유물이 아니라, 그 육성에 온갖 정성과 노력을 기울인 모든 사람의 공유물이요, 사회와 겨레의 공기(公器)입니다.

우리가 이제 건국대학교 창립 20주년의 마루턱에 서서, 과거를 돌이켜 생각하고 현실을 바라볼 때 감개무량함을 금할 수 없습니다만, 만일 우리가 오늘의 소성(小成)에 만족하여 미래의 지향을 잊어버린다면, 현재의 감격은 내일의 실망으로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아직도 시설의 확장이나 기구의 정비에 있어서 계속적인 발전을 이룩하여야 하겠습니다만, 이 단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질의 충실입니다.

짓눌렸던 지각을 뚫고 모진 풍상 속에서 자라온 한 그루의 성수(成樹)는 이제 개화 결실의 시기에 당도하였습니다. 물론 그것이 일조일석에 이루어지리라고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치부나 상거래에는 요행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진리의 세계에는 횡재란 허용되지 않습니다. 들인 만큼의 정성 노력이 심연(心然)의 결과를 제래(齊來)할 따름입니다.

건대신문은 교수 및 학생들에게 발표의 기회를 마련해 드리고 교내외의 중요한 소식을 전달하는 데도 물론 목적이 있지만, 나아가서 건대신문이 지향하는 바는 현대사회에 있어서 매쓰콤뮤니케이

개교20주년 기념식에서 연설하는 유석창 이사장

숀(대량전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건실하고 올바른 공보활동을 전개함으로서 모범적인 신문을 연구 발간하여 일반사회의 신문에 대하여도 귀감이 되게 하고자 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우리 건대신문이 『정대(政大)』라는 제호로써 정치대학 시절에 창간호를 발행한 이래, 『정대평론(政大評論)』→『건대신보(建大新報)』→『건대신문(建大新聞)』으로 그 제호를 변경하면서 창립 20주년(周年)을 맞는 금일 지령(紙齡) 제236호로써 기념 특집호를 내는 당당한 주간지가 되었음은 실로 뜻깊은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창간호로부터 금번 제236호까지의 건대신문에는 20년을 자라온 건국대학교의 역사와 그 발자취가 아로 새겨져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건국대학교 창립 20주년 기념 특집호'를 발간하는 이 자리에서 단지 과거를 회상하고 추억하는 데 의의가 있는 것이 아니라, 236호까지의 우리 학교 신문을 성찰과 비판의 재료로 삼고, 앞날의 줄기찬 전진의 발판이 되도록 하는데 참다운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건국대학교와 건대신문사의 장래에 더욱 우람하고 알찬 발전이 있고 그것이 곧 우리나라의 번영과 온 사회의 문화 향상에 기여되기를 바라는 바입니다.(『건대신문(建大新聞)』 1966년 5월 15일)

(7) 「개교 21주년 이사장 기념사: 창업을 위한 미래상을 가지라」

5월은 빛나는 태양의 달, 청천광양(靑天光陽)의 대지에 서서 젊은이들이 꿈을 꾸어야 하는 달이오, 닥쳐올 미래를 위한 창업을 예료(豫料)해야 할 달이오, 나 스스로와 가정과 그 이웃을 위하여 민족과 국가를 위하여 그리고 세계를 위하여, 오늘의 나라를 위하기보다도 내일을 위하여 또한 1년 후 5년 후 10년 … 30년의 앞날을 내다보고 씨를 뿌려야 하고 꽃을 피게 해야만 하는 달이오.

또 5월은 젊은이가 사랑하는 달이어야 하오. 지혜를 사랑하고 진리를 위하여 학문을 사랑하고 발전을 위한 전진을 해야 할 나를 내 스스로가 사랑(자중자애(自重自愛))하여 또 그 이웃과 함께 번창을 위하여 서로가 사랑하고 산간초목 · 일수일석(一水一石) · 일엽일수(一葉一樹) · 일초일화(一草一花)를 사랑하고 봉접의어(蜂蝶蟻魚) · 비조축생(飛鳥畜生)에 이르기까지, 모든 자연을 지극히 사랑하고 아껴서 기르고 고르게 해야만 하는 달이오.

그러므로 젊은이들은 5월을 사랑해야 하오. 더구나 우리가 우리들의 고장인 전원과 흙을 사람하고 울과 뜰을 사랑하고 또 학원에서 교우가 교우를 사랑하고, 우리가 인간애에 의하여 신(信)으로 맺어 의(義)에서 살고 성(誠)으로써 땀 흘려 일을 해야만 할 창업에의 달이 또한 5월인 것이오.

이처럼 우리가 창업을 위하여 사랑과 성(誠)으로써 미래상을 이상 하고 실천에 옮겨야 할 달, 5월에 제21주년 개교기념일을 맞이하게 된 것을 우리는 기뻐하지 않을 수 없소.

지난 66년의 20년 기념일은 우리 대학 '혁신 제1년'이었으며, 또 올해에도 혁신 제2주년을 맞이하게 됨에 있어서, 우리는 보다 새로운 혁신을 하기 위하여 서기 2000년을 내다보고 창업에의 목표 설정을 하여 설계를 하고 계획을 세우는 젊은이가 되어야 하겠소.

창업은 곧 내가 자립하기 위한 창업이어야 하며, 가정을 꾸며 한 가족이 번성하기 위한 창업일 뿐 아니라 한 마을과 한 골이 잘 살게 되고, 이 겨레 이 나라가 더불어 번영과 복지를 누려 5천년의 유구한 문화전승을 보다 높게 쌓아가야 할 창업이어야만 하겠소.

이것이 우리가 이 학원에서 진리 애호와 학리도야(學理陶冶)와 기술연수를 삼위일체로 해야 할 성실된 배움에의 길인 것이오. 이것이 또한 우리가 이 대학을 세움으로서 이 나라 건국에 이바지할 수 있는 인물들에게 좁은 문을 열어드리게 하려는 뜻인 것이오.

그러므로 젊은이여!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 모여서 각자가 이상 하는 바 자유의지(自由意志)를 서로 존중히 하며 각자의 전공하는 바 분야에 알맞은 창업의 길을 택해야만 하겠소. 그리고 '창업을 위한 미래상'을 가지고 '창업의 원리'를 실행으로 옮겨야만 하겠소.

무(無)에서 유(有)로의 비약
일(一)에서 다(多)로의 전개
소(小)에서 대(大)로의 발전
분(分)에서 합(合)으로의 협동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창업의 미래상'을 실천해 가는 원리임을 이사장으로써 젊은 학생 제위에게 밝혀두면서 기념사를 대신하겠소.(『건대신문(建大新聞)』 1967년 5월 13일)

(8) 「개교 22주년 이사장 기념사: 교육의 생산화와 생산의 교육화, 교육의 생활화와 생활의 교육화」

①

5월의 하늘 빛나는 태양!

만유(萬有)가 생동하고 창조가 시동하는 계절입니다. 성(誠) · 신(信) · 의(義)로써 굳게 언약한 젊은이들의 가슴 속에 희망은 싹터나고 청운의 뜻이 만발하는 건학의 캠퍼스에는 우리 대학 개교를 기념하는 5월 축제를 22회째 거듭하게 되었습니다.

청년학도들이여!

언제나 늙을 줄 모르는 교수들이여!

우리가 쌍수(雙手)를 맞잡고 굳게 악수한 채 저기 일감호반을 아름답게 진선미로 꾸며보지 않겠습니까? 생(生)에서 사(死)로 달려가는 불안의 인간을 초극(超克)하고 상호애(相互愛)와 소망(所望)으로써 뭉쳐 창조적 생으로만 줄달음질하는 건학의 학풍을 이 나라의 방방곡곡에 불러일으키지 않으

렵니까? 빈곤한 땅에서 치부를 발견해내는 보람찬 자유를 가지고 정력을 기울여 드높은 이상의 탑을 쌓아보지 않으시렵니까?

이처럼 불안과 빈곤의 현실 속에서 박차고 일어난 용기 있는 젊은이들에게 희망과 복지가 약속된 2천년대의 미래를 또한 새로이 그려보지 않으시렵니까?

②

그러나 우리는 저기 붉은 장미꽃 피어나는 아름다운 화원 속에서라도 진리를 위한 명상으로만 그쳐서는 아니 됩니다.

잔잔한 파문이 천만사(千萬糸)로 정동(靜動)하는 명경지수(明鏡止水)에서도 어족(魚族)과 나누는 영혼의 도취 속에서도 앞날에 우리가 할 일만은 잊어서는 아니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연구하는 교수와 공부하는 학도가 할 일들인 것입니다. 연구는 학자 생애의 생활신조이어야 하며, 배움은 공부하는 학도들의 성실된 생활태도이어야 합니다.

배움은 정신적 영양의 비축인 것이며, 연구는 창조적 생으로 통하는 최단거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연구와 그 공부의 학풍이 학(學)이 학을 위하고, 기(技)가 기를 위하는 나머지에 소수나일 개인적인 '플레이'에 그쳐서도 아니 됩니다. 그것은 게슈탈트적인 전체적 체제화가 결여되지 않는 협동이 없이는 큰 성과를 기대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 이 건학(建學)의 문(門) 안에서 연구하시는 교수와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항상 유의하셔야 할 점이 체제화된 협동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 학원 안에서 협동이 없는 연구나 체제화가 되지 않는 배움은 금지되어야 하겠습니다. 학벌의 분립, 분파와 지연관계에서 파생되는 어떠한 분쟁이 존재해서도 아니 되겠습니다.

이러한 분쟁 분립이야말로 이 나라에서 발전과 성장과 진보를 가로막는 정신적 낭비라 하겠습니다. 아직도 잔재한 이러한 구습에서 탈피하여 현대화로의 지름길로 접어들어야 할 방향 제시는 이 나라 이 사회의 고질화된 정치풍토와 사회풍조를 일신케 할 우리들의 당면과제이기도 합니다.

③

그러기에 교육이 생산화 되고 생산이 교육화 되기 위한 연구와 배움은 새 정치사회의 건설과 새 문화재 창조에 있어서 건실한 학풍으로서 환기되어야 합니다.

교육이 생산과 직결되기 위한 문제야말로 이 나라의 자연과학자가 부하(負荷)한 새로운 사명이기도 한 것입니다. 우리가 자연현상에 대하여 학문 하고 연구함에 있어서 언제나 생산하는 자연에 대하여 세심한 관찰과 인식을 가져야 할 줄로 압니다. 자연은 소여(所與)되어진 모든 그대로는 가지가지 현상으로만 의식될 뿐입니다. 그 모두가 사(事)와 물(物)로써 분열된 하나하나의 독립 자존하는 항존체(恒存體)로 파악되어 올 따름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자연에게도 인간적 자유가 기능적인 작용을 하게 된다면 비로소 그 자연적 소재는 생산적 자연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대자연에 대한 인간 지력(知力)의 관여가 이와 같이 '자유변경(自由變更)'을 가감제 될 때에는, 여기에 생산적 관계가 성립됩니다. 이처럼 대자연과 인간적 자유는 상호관련 속에서 생산적 자연을 창조적 생산으로 자유 변경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지혜가 저질러 놓은 이러한 결과가 어떠한 생산적인 것으로 사건화되려면 여기에는 교육적인 '장인(場因)'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교육은 인간에게 자연을 자유 변경케 하는 생산적 방향의 지시(Indikate)가 된다고 하겠습니다. 교육이 생산화된다는 것은 자연을 구명하여 그 자연의 소여(所與)되어진 소재와 작용을 이용하여 자연적 생산을 시공간적으로 단축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생산이 교육화될 수 있는 환경의 조성과 자유변경법(自由變更法)의 전파에 의하여 학원과 생산장(농장(農場)과 공장(工場))이 직결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실로 자연과학적 연구와 연수가 교육이 생산화 되고, 또한 생산이 교육화 되는 것이 아니라 한다면 그것이 진리에의 탐구는 될 수 있을지언정, 진리를 위한 진리의 추구 만에 그치고 말 것이오, 사회적 생산관계와는 소외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현실적 사회가 우리에게 희구하는 바 제문제에의 해답은 곧 생산적인 사회복지에 존재합니다. 그것은 개별적인 생산관계에서 사회적 생산성으로 역정해왔습니다.

④

현대적 인간은 사회적 동물인 것이오, 결코 개별적 인간만이 아닙니다. 사회적) 체제화 속에서 '리빙(생활)'해 가는 실존체(實存體)입니다. 그러므로 원자적으로 흩어진 인간 하나하나가 그 개별적 존재로서의 나(일인자(一人者))를 사회적 생산성에 참여와 그 생활관계를 지속케 하는 교육의 생활화가 또한 우리들에게 요청이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또한 생활의 교육화 내지 교육의 생활화가 이 나라 이 사회의 문화 창조에 있어서도 새로운 지표가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도 학원은 곧 교수들의 '생활장(生活場)'이며 학생들의 생활장입니다. 이는 곧 연구실이 '리빙 룸'인 동시에 리빙 하는 어디서라도 연구가 지속될 수 있어야만 함을 뜻합니다. 그러므로 연구실은 가정과 직결되어야 하고, 교실은 또한 학생들의 거실과도 직결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처럼 연구와 생활, 공부와 생활의 '게슈탈트'적인 일체화에서 우리들은 교육의 보다 나은 발전적인 생활이 교육화로 접근하는 관계성을 인식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러한 건학의 '캠퍼스'는 교수와 학생들의 연구하는 리빙 룸이며 공부하는 '가든'입니다.

우리들은 과거에 학원을 진리의 상아탑이라고도 말하고, 사상의 꽃을 피우는 온실과 같이 비유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교수들이 사상적 생산과 기능적 생산의 산실(産室)로서 뭇 학생들

에게 작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교수와 학생은 교육과 연구를 통하여 보다 더 친밀해져야 하겠으며, 보다 더 가까운 생활을 친근히 해야겠습니다.

⑤

5월이 가기 전에 생명이 약동하는 청선(靑線)으로 물들어야 할 그린 플랜을 세워야 합니다. 2천년대의 '비젼'을 가지고 창조적 학풍에 돛을 달아야 하겠습니다.

해마다 개교기념의 달인 5월은 순환되지만, 올해의 이 달만은 연구하는 교수와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생산이 교육화 되고 교육이 생활화되는 관계 속에서 첫 출범을 해야 하겠습니다.

교육이 생산화 되고 생산이 교육화 되고, 교육이 생활화 되고 생활이 교육화 되는 2대 수레바퀴 속에서 건국대학교의 교수 · 학생의 총진행이 시작되어야 하겠습니다. 학원은 모든 것의 기원입니다. 더구나 생산과 생활을 위한 기원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들에게도 노고에 대한 「레크레이션」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5월의 축제를 더 한층 흥겹게 보냅시다.〔『건대신문(建大新聞)』 1968년 5월 13일〕

(9) 「개교 23주년 이사장 기념사: 줄기찬 전진을 촉구한다」

본교 창립 23주년을 맞이하여 본교에 관계된 여러분과 더불어 지난날을 되새기고 앞날을 전망함은 참으로 감개무량한 일입니다.

돌이켜 보면 1946년 본인이 뜻을 같이하는 교육동지와 더불어 본교를 창립한 것은, 해방된 조국이 다시는 불행한 전철을 밟지 않고 영구적인 자유, 민주, 번영을 누릴 수 있는 참된 문화국가를 건설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문화는 우리의 삶을 보람 있게 하기 위한 정신적, 물질적 노력의 종합적 표현입니다. 문화가 인간의 줄기찬 삶과 아름다운 꿈의 표현이라면, 그것은 인간의 가장 자유롭고 순박한 본성에서 우러나와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문화의 현저한 특색은 기계에서 생산되는 상품과 같은 획일성이 아니라, 각자의 개성이 충분히 표현되는 다양성에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복지사회의 문화 기능은 단지 문화의 '레세 페에르'로써 만족할 것이 아니라, 문화대열에서 낙후된 일부 국민의 보호 향상에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임과 동시에 보다 높은 향상을 위하여 국민의 열의를 바칠 수 있는 소지를 배양하는 데 있습니다.

그것은 또 현대 문화가 개인의 창조물인 동시에 협동의 소산이라는 점과 깊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제 '에디슨'의 천재나 '뉴턴'의 영감에 의하여 새로운 진리를 계발하고 새로운 문화를 창조할 시대는 지났습니다. '스타인백'의 시조차도 지난날의 수많은 시인의 정서와 그에 대한 비판의 토대 위에 세워진 것이라는 사실은 현대문화의 창조가 의식, 또는 무의식중에 얼마나 많이 협동에 힘입어 왔는

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현대문화는 현대 사회와의 유기적 관계를 떠나서 생각할 수 없으며, 현대 사회도 또한 문화의 영향을 벗어나서 생존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선조들의 위대한 문화적 업적을 이어받고 그것을 계승, 발전시키는 역사적 사명은 교육이라는 촉매를 통하여 비로소 효과적으로 이룩될 수 있습니다. 특히 대학교육은 퇴색한 우리 민족문화에 새로운 '르네쌍스'를 가져오고 소침한 국민정신을 불러일으켜 민족중흥의 대행렬을 선도할 '엘리뜨'를 양성한다는 점에서 가장 중요한 역사적 기능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피히테'가 '나폴레온'에게 유린된 독일의 혼란을 수습하기 위하여 국민에게 보낸 글 가운데서 "독일의 통일과 부흥은 교육의 힘으로 이룩하여야 한다. 독일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투철한 자각과 책임만이 독일의 운명을 개척할 것"이라고 한 귀절을 감개 깊게 되새겨 봅니다.

지금으로부터 23년 전에 본인이 교육사업에 헌신한 까닭도 본인의 성심과 노력을 조국의 미래에 직결시키려는 미충(微忠)의 발로였습니다. 개교 이래 본 대학이 더듬어 온 길은 조국이 겪지 않을 수 없었던 피어린 역경과 같이 험준하였습니다. 그 동안 학교법인 이사, 대학 교직원, 중 · 고등학교 교직원, 동창제위 및 학생제군의 협심, 노력으로 갖은 난관을 극복하여 오늘의 발전을 이룩하였음은 우리 모두의 한결같은 기쁨입니다. 이제 건국대학교나 건국중 · 고등학교는 그 창립자나 학교법인의 전유물이 아니라, 이 학원을 한 마음, 한 뜻으로 키워온 여러분의 공유물이며 또 우리 사회의 공기입니다. 유한한 인간의 생명은 다할지라도 문화의 창조와 조국발전에 이바지할 민족적 '엘리뜨'의 산실로서의 건국대학교는 영원히 이어가고 끊임없이 발전할 것입니다.

우리는 교내 각 단과대학이, 그리고 대학 내의 각 학과가 저마다의 특색과 사명을 충분히 인식하여 개성적이고 다양적인 발전을 이룩하기를 기원합니다. 물론 그 다양성은 각개 분산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로서의 국가사회의 발전과 민족중흥의 역사적 과제에 연결되는 것이어야 할 것입니다. 마치 축산대학이 수척한 이 땅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의 기적을 창조하고, 이공대학이 우리의 어둡고 몽매한 인습을 파헤쳐 합리적 사고와 과학 하는 생활의 씨를 심듯이, 각 대학, 각 학과가 모두 그 독특한 사명의 뿌리를 내리고 교직원, 동창 및 재학생이 힘을 모아 그 싹을 가꾸고 꽃을 피운다면, 머지않은 장래에 풍성한 수확을 거둘 날이 있을 것을 확신합니다.

앞에서도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교육은 문화발전의 한 촉매입니다만, 교육 그 자체가 문화를 창조하고 국가를 부흥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교육을 받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자각과 분발이 하나의 지표에 응결되어 민족적 이상을 형성하고 공통된 의욕의 불길로 화할 때 비로소 새 역사의 문은 열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교육자나 피교육자에게 내재된 요건이며, 형식적인 외재적 조건에 의하여 좌우되는 것은 아닙니다.

'옥스퍼드'나 '하아버어드'에 대한 존경은 결코 그 대학의 화려한 대리석 기둥이나 번쩍거리는 시설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끼 낀 연구실에서 끊임없이 갈고 다듬은 예리한 지성에 있는 것입니다. 시설이 학문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학문이 시설을 요구하는 대학의 기풍이 조성되어야 할 것입니다.

창립 이래 오늘에 이르기까지 건국대학교와 건국 중 · 고등학교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신 관계자 제위의 노고에 거듭 사의를 표명하며 금후의 보다 큰 발전을 위하여 더욱 많은 성원과 협조가 있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건대신문(建大新聞)』 1969년 5월 13일〕

(10)「개교 24주년 이사장 기념사: 청년건대의 발전 영광을 기원함」

우리 대학이 창립된 지 어언 24주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주춧돌을 놓고 기둥을 세운 사람의 하나인 나로서는 감개무량함을 금할 수 없습니다. 더욱이 칠순의 노경에 접어든 자연인 유석창으로서 의기와 힘이 넘치는 청년 건대의 오늘의 모습을 바라볼 때 대견하고 마음 든든함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돌이켜 창립당시를 회고하건대, 본교의 전신인 조선정치학관을 설립할 당시의 발기인 제위의 기개는 장대하였지만 재단의 기초는 결코 풍족한 것이 못되었습니다. 그 후 관계자 제위의 불철주야의 노력은 학교와 재단으로 하여금 일취월장의 생장을 가져오도록 하였습니다만 뜻하지 않은 동란은 알알이 모아놓은 우리의 정성과 재산을 하루아침에 잿더미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뜻이 일곱 번 꺾일지라도 여덟 번 고쳐 세우기를 서슴치 않았습니다.

서울 수복 후 우리는 다시 대건국대학교 건설의 꿈을 장안 벌 위에 펼쳐 보고자 하였습니다. 그때의 장안동은 거친 벌, 물 구렁창으로서 어디에서부터 손을 대야 할 지 분간하기조차 어려운 황무지였습니다. 거기에 오늘의 캠퍼스가 들어앉기까지에 재단임원이나 학교의 역대 총장, 교직원, 동창 및 사회유지들이 바친 정성어린 노력과 뜨거운 후원은 말로써 다 할 수 없을 만큼 큰 것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심은 어린 나무들은 이제 모두 성목이 되어 제법 큰 그늘을 지게 하고 도서관 서가에는 서책이 꽉 들어 찾습니다. 외형과 양의 변화에 따라 내용과 질의 향상이 수반되었음은 물론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정도 만족하고 앞날의 대성을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한다면 우리는 힘찬 전진의 대열에서 낙후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유전하는 세계사 위에서는 오직 전진과 후퇴만이 있을 뿐입니다. 현상유지라는 안락의자에 주저앉아 고식과 안일에 묻힌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한때의 발전에 도취되어 자존자대하던 중국, 그리스, 잉카제국 등의 말로가 모두 그것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뼈저린 반성위에 자신을 채찍질하여 일치단결 재기의 몸부림을 친 민족에게는 기회의 신은 다시 중흥의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일본과 독일 민족이 바로 이 문을 밀고 들어간 재기의 역군들입니다. 우리에게도 영광의 과거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회상의 고향으로서가 아니라 전진을 위한 의욕의 샘으로 활용될 때 비로소 가치의 재생산으로 연결됩니다.

대체로 동양적인 질서와 사고방식은 동태적인 것보다도 정태적인 것에 치중되어왔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선조들은 자연과 불합리에 도전하여 미래를 개척하느니 보다 자연이 베푼 혜택 속에서 현상을 유지하는 데에 만족하였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우리가 이토록 고루한 사고방식을 가지고서는 약진하는 시대의 변화에 대처할 수 없다는 것은 '토인비'의 교훈을 빌지 않아도 자명한 일입니다.

20세기 이래 70년 동안의 변화는 과거의 700년보다도 더 드높은 발전을 기록하게 될 것입니다. 이때에 우리겨레가 100년을 하루같이 음풍영월로 보내거나 겨레를 이끌고 나아가야 할 대학이 소극퇴영의 자세를 버리지 못한다면 어찌 약진하는 세계문화의 대열에서 낙후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물론 재단은 재단대로 학교교육을 뒷받침하기 위한 재원의 확충과 시설 · 기재의 확보에 노력할 것입니다. 그러나 학교에 있어서 그 어느 것보다도 중요한 것은 돈이나 연구시설이 아니라, 교수 학생들의 불타는 연구열과 면학태도입니다.

25세의 한창 때를 맞은 청년 건대에 어찌 한 가닥의 낭만인들 없을 것이며, 한 폭의 서정인들 없으리오만, 그것이 우리의 창립 정신을 흐리게 하거나 의지의 표적을 가리는 것이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본교 창립 기념일에 즈음하여 학생자치단체의 주관 하에 일감호반의 축제가 벌어지는 것을 나도 총장 · 교직원 · 내빈 · 동창 · 학부형 및 재학생 제군과 함께 기꺼이 바라볼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행사들이 소비적이고 유흥적인 것으로 흐르지 말고 전진과 건설에 이어지는 보람 있는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과 더불어 건국대학교 및 건국중고등학교의 앞날에 무한한 발전과 영광이 있기를 원합니다.〔『건대신문(建大新聞)』 1970년 5월 15일〕

(11)「개교 25주년 이사장 기념사: 대학의 발전은 시간의 누적, 전통은 피나는 노력의 소산」

우리 건국대학교가 창립된 지 어언 25주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사람으로 말하면 25세는 정열이 넘치는 한창 때입니다. 우리가 25주년의 마루턱에 서서, 지난 어린 시절의 일들을 회고하며 앞으로 펼쳐질 장엄한 미래를 전망할 때, 가슴 벅찬 감개를 누를 길이 없습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우리 대학의 건학정신은 성 · 신 · 의의 덕성을 함양하여 진실하고, 부지런하고, 용기 있는 새 시대의 개척자를 기르는 동시에 그들로 하여금 정밀한 과학과 숙달된 기술의 무장을 갖추도록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해방 직후 및 건국 초기의 사회환경은 우리가 교육과 연구에 몰두하기에는 너무도 혼돈하고 불안하였습니다. 특히 6 · 25동란에 의하여 온 강산에 초연이 가득함으로부터 4 · 19의거에 이르기까지의 우리의 정치 · 사회정세는 더할 수 없는 격동과 침울의 소용돌이 속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이러한 역경 속에서도 재단과 학교 및 동창회 관계 인사들은 한결같은 마음으로 우리 건국대학교의 육성, 발전에 헌신적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이제 우리는 2개의 대학원, 7개의 단과대학, 24개의 연구소, 1개 중학 및 그것을 뒷받침하는 대규모의 재단을 옹유하게 되었으니, 이 현실을 25년 전에 비하면 참으로 금석지감이 없이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에서 오늘에 이르기까지의 우리 대학의 급격한 팽창에 만족하거나 도취할 수는 없습니다. 국내에도 우리보다 더 나은 시설과 조건을 갖춘 대학이 있으며, 더욱이 눈을 해외로 돌린 때에는 우리의 현실은 너무도 빈약한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토인비는 현대인의 중요한 특생의 하나를 나날이 무지의 구렁텅이로 빠져들어 가는데 있다고 하였는데, 그것은 우리가 지니고 있는 지식의 절대량이 부족하다는 의미에서가 아니라, 20세기의 급격한 진보가 우리로 하여금, 수많은 것을 배우고 익히지 않으면, 시대와 더불어 호흡을 같이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데, 우리는 미처 그것을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25년 동안에 해놓은 일은 아무도 우리의 선조들이 250년 동안에 한 일보다는 더 많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선진제국을 따라고, 다시 그들을 능가하는 문화민족이 되기 위해서는 그들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훨씬 더 많은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만일 그것을 다하지 못할 때에는 우리는 여전히 토인비의 이른바 상대적 무지 속에 머물러 있어야 하고, 후진의 수모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언제나 일의 성과는 그것을 맡은 사람이 얼마만큼 성의와 노력을 기울였는가에 의하여 평가될 것입니다. 학문의 성취나 민족적 과업의 성취에 기적을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설혹 어떤 기적이 이루어졌다고 가정하더라도, 그것을 결코 우리가 의도하는 높은 가치에 연결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흔히 영국이나 미국, 또는 유럽의 저명한 대학이 인류문화에 끼친 공헌을 생각할 때, 그 대학들이 지녀 온 장구한 전통을 회고합니다. 그러나 대학의 장구한 전통은 결코 무위도송(無爲徒送)한 시간의 누적이 아닙니다. 그것은 보다 높은 가치, 보다 나은 미래를 개척하기 위한 피나는 노력의 연속이었다는 것을 기억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 이 시절에서 내가 특히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현대적인 과학과 대사업은 그에 관계된 여러 사람의 협동과 단결의 소산이라는 것을 명심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현대적인 과학에서는 이미 자연인 뉴톤의 총명이나 에디슨의 기지에 의존하던 시대는 지났습니다. 우주나 생명의 신비에 도전하는 것과 같은 새로운 과학사의 개척은, 그 이름을 내세우지 않은 수천수만 명의 현대적 뉴톤과 에디슨의 합심 협력에 의하여 진행되고 있습니다.

건국대학교에 있어서의 내 자신이 위치나 존재에 의의가 있다면, 그것은 단지 우리 대학의 창립에 있어서 정치 작업을 한 일꾼으로서의 기념적 의의가 있을 뿐입니다. 그 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이 학교를 키우고 발전시킨 것이 나와 뜻을 같이 하는 여러 동지들이었으며, 그에 호응한 교수 · 학생 · 동창 · 이사회 제인사들이었을진대, 오늘의 우리 대학은 이미 그들의 공유물이요, 사회의 공기입니다. 더욱이 우리 대학이 장차 수행하여야 할 거창한 대사업을 전망할 때 이들의 불굴의 의지와 공동의 노력 없이는 아무 것도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거듭 강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재단 임직원, 대학과 중학의 교직원 학생 및 동문제위들의 건투 속에서 우리 대학과 중학의 장래에 더욱 힘찬 발전과 영광이 있기를 기원합니다.〔『건대신문(建大新聞)』, 1971년 5월 24일〕

2) 입학식사

(1) 「1957년 입학식 학장 훈사: 역사의 주인되라, 학전(學田)은 제군의 개척 고대」

본 대학 학장 유석창 박사께서는 4월 8일 장안동 본교사 신축강당에서 거행된 제1부 신입생 입학식전과 4월 12일 낙원동 교사에서 열린 바의 제2부 신입생 입학식 석상에서 다음과 같은 간곡한 훈사의 말씀을 하시었다.

오늘부터 제군이 최고학부의 일원으로서 새로운 학적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음을 축하한다. 또 우리 대학이 이곳에 벌려놓은 새 환경 속에 제군과 같은 유능한 새 주인공을 맞이하게 되었음은 크게 기쁜 일이 아닐 수 없다.

앞으로 제군이 개척하여야 할 학문의 세계는 무한히 길고 무한히 깊다. 이것은 제군이 대학에 있는 동안에 다할 수 없는 숙제일 뿐만 아니라 한평생을 두고 해결할 수 없는 원대한 과제다.

그러나 이 과제의 토대는 이미 여러분이 지내온 중등이나 고등학교 시절에서 그리고 앞으로의 대학과정에서 완벽히 닦여져야 할 것이다. 만약 이 기간에 공백이 생기고 태만이 있을진대 평생의 학문적 토대는 무너지거나 흔들리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당면한 20 전후의 대학시절이야말로 일생을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시기임을 자각하고 각고면려(刻苦勉勵)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 동시에 여러분이 대학의 사명에 대하여 깊은 인식을 가져야 할 또 하나의 중요사항은 대학생활에서 여러분 하나하나가 지식을 더하고 진리를 탐색하는 역군이 될 뿐만 아니라, 거칠고 가난한 이 민족의 지도적 역할을 담당하고 국가동량(國家棟樑)의 임무를 수행할 만한 힘을 길러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가 이처럼 협착하고 빈한한 나라에서 수차의 비극을 겪으면서도 전국에서 백개의 대학을 경영하고 있다는 것은 국가적으로 너무 지나친 부담이며, 또 대학에 재학하는 학생이나 이를 보내는 학부형에게도 과중한 부담이 아니 될 수 없다.

다시 말하면 학생제군은 제군 자신이나 가정이나 국가 · 사회에 과분한 부담을 시키면서 대학에 진학한 것이다.

그럴진대 제군은 제군 자신의 연학(研學)이나 영달만으로 그 소임을 다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부모형제와 국가민족에 보답하는 사회적 임무를 함께 할 용의를 가져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대학에서 공부하는 학문의 질과 양은 이 양면의 폭과 깊이를 동시에 가져야 할 것이다.

살펴보건대 우리 사회의 오늘의 빈곤과 타락은 정치나 경제의 힘만으로는 구제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니, 여기에는 반드시 여러분과 같은 양식을 가지고 여러분과 같은 정열을 지닌 젊은이의 희생적

노력을 필요로 하는 것이다.

이에 감(鑑)하여 우리 대학은 일찍이 성 · 신 · 의의 교시를 내걸고 이의 실천궁행(實踐躬行)에 힘써왔으며, 또 금후에도 그 지표를 향하여 계속 노력할 것이다.

성(誠)은 인간 본연의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것이니, 우리의 왼 몸이 수족의 말단에 이르기까지 이로써 충만되고, 신(信)은 일관된 진실의 토대 위에 이루어진 것이니, 우리 정대인(政大人)의 몸가짐의 기반이 되어야 할 것이요, 의(義)는 바른 것의 지남이니, 우리의 지향하는 목표가 되어야할 것이다.

즉 우리는 '의'의 머리, '성'의 몸을 가지고 '신'의 토대 위에 서 있는 인간형으로써, 우리 교육의 상징을 삼는 것이다.

이것이 구체적으로 실현되기 위하여서는 각자의 각양 노력이 경주되어야 할 것이나, 우리는 이에 대한 하나의 기준으로서 진실한 사람됨과 노력을 제시하는 것이다.

진실(眞實)은 표리나 시간이나 상대를 가리지 않고 언제나 꾸준히 바쳐지는 우리의 정성이다.

이것이 한 사람으로부터 상실되지 않는다면, 한 때의 경쟁에 있어서 다소의 선후우열(先後優劣)이 생기는 것쯤은 긴 생애나 긴 역사에 있어서 그다지 큰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 긴 세월에 걸쳐서 진실한 노력으로 치룬 값은 언제나 돌아오는 것이다.

우리 대학은 오래 전부터 생긴 다른 대학에 비하면 전통이나 선배나 시설의 면에 있어서 다소의 손색이 있음을 면할 수 없다.

그러나 여기에서 여러분이 공부하는 것은 다른 대학에서 관례에 따르는 반복행위를 되풀이하는 것보다 오히려 새로운 개척과 건설의 역사적 의의를 가지는 것이라 할 것이다.

여러분의 안전에 전개되는 이 광활한 환경과 시설은 이것을 만든 재단이나 학장의 사유물이 아니라 여러분의 학구와 노력을 위하여 제공된 공기(公器)인 것이다.

여러분이 이것을 열심이 이용하고 개척할 때 여러분은 이곳의 당당한 주인공이 될 것이요, 우리 한국에 새로운 '루네스싼쓰'를 가져오는 원동력이 될 것이다.

아무쪼록 끝까지 건강과 의지를 굽히지 말고 꾸준한 노력으로 형설의 공을 쌓기를 바라 마지 않는다.(『정대(政大)』 1957년 4월 1일)

(2) 「1958년 입학식 학장 훈화」

학생제군이 주위의 모든 난관을 극복하며 학업에 정진하고 있음에 대하여 크게 치하하고 격려하여 마지않는 바입니다. 학교당국에서는 그동안 제군의 희망과 기대에 부응코자 학구시설과 환경정비에 힘쓰는 동시에, 정규 교육과정의 재검토와 재편성을 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는 우리 대학만이 가지는 특수 교육방법으로서 제군의 개성과 능력을 각 방면으로 신장 발휘하여 실사회에 진출함에 있어서 낙오됨이 없이 소임을 다하도록 하기 위하여 정치, 경제, 법률, 문화교양 등 각 분야에 걸쳐서 활발한 과외교육을 실시할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즉 종(縱)으로 정치외교학도를 중심으로 하는 정치생활연구실, 경제학도를 중심으로 하는 경상연구실, 법학도를 중심으로 하는 법학연구실을 설치하는 한편, 횡(橫)으로 외국어연구부, 변론연구부, 신문연구부, 농촌연구부 등을 설치하고 각 실 각 부를 개별적으로 분담 지도할 권위자를 상임지도교수로서 초청하여 개실(開室)에 필요한 제반준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제군의 연구와 활동이 더 깊어가고 늘어감에 따라 거기에 해당되는 시설과 지도교수가 더 확장되고 증원될 것입니다.

무릇 대학교육의 의의는 교수가 강단에서 전수하는 지식의 수수(授受)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학생 자신의 적극적 연구와 진취적 노력 여하에 의하여 좌우되는 것이며, 특히 과외교육에 있어서는 제군의 정성과 노력만이 그 성과를 결정하는 요소가 될 것이니, 제군은 각기 가슴 속에 품고 있는 웅지를 가다듬기 위하여, 또는 학교 당국이 제군의 장래를 위하는 교육적 관용을 헛되이 하지 않기 위하여 전기 각 분야에 적극 참가하여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를 간절히 요망하는 바입니다.(『정대(政大)』 1958년 4월 27일)

(3) 「1961년 입학식 총장 훈사(요지): '자기'가 '자기'를 '자기'로서 만들자」

청운(靑雲)의 뜻을 품고 본 대학에 입학한 신입생 제군에게 대학생활의 앞날을 축하하여 마지않으며, 경제적 사정이나 어려운 난관을 물리치고 관문(關門)을 돌파한 여러분의 '배워보겠다는' 갸륵한 뜻에 찬사를 드리는 바이다.

이 시간으로부터 제군은 4년간의 대학생활을 통해서 학문과 기술을 기르고 완전한 인격을 연마해야 하는 것이다. 국가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물질 · 정신 모든 면에서 불우한 처지에 있는 한국의 청년학도인 제군이 4년이란 긴 세월 동안에 무난히 학업을 마칠 수 있느냐는 오직 노력에 달려 있다고 믿는다. 앞으로의 시간을 오늘 출발하는 이 시간과 같이, 어떠한 난관에 봉착할지라도 굽힘없이 목적 달성에 한층 더 분발해야 할 것이다.

특히 신입하는 제군이 명심해야 할 것은 우리 건국대학교는 자기 자신이 공부해야 하는 곳이다. 중고등학교처럼 좋은 환경 속에서 공부하는 것과는 달리, '자기'가 '자기'를 '자기'로서 만들어야 하는 곳이다. 이것은 '링컨'이 민주정치의 원리로서 말한 '국민'의 '국민'을 위한 '국민'이와 마찬가지로 볼 수 있다.

자기 자신이 자기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자기를 완성해 갈 때 참된 기쁨을 얻을 수 있는 것이다. 자기의 정성과 자기의 정열이 모든 욕구를 경과할 때 자기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것이다. 제군이 학교에서 교수로부터 수강한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자기 자신이 많은 참고자료를 찾아 학리(學理)를

깊게 넓게 사색해야 하는 것이다.

자기가 자기를 만드는 또 한 가지 문제 인격 형성 문제다. 특히 본 대학교는 교시(校是) '성(誠)' '신(信)' '의(義)'에 입각해서 학생을 교육하고 있다. 첫째, '정성(精誠)' '지성(至誠)'은 제군이 오늘 이후 4년간의 학업을 지속하는 데 정신적 지주가 될 것이다.

둘째, '신(信)'을 생명과 같이 생각하지 않는다면, 사회생활에서 타인과 상교(相交)하거나 지도적 위치에 설 수 없다.

끝으로 '의(義)'는 용기와 정의를 말함이니, 이것은 제군의 전도(前途) 개척에 원동력이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제군은 교시 '성' '신' '의'를 항상 마음 깊이 간직하고, 본교의 교육목표인 인간교육 · 인격교육 · 기술교육 · 실천교육에 순응하여, 앞날에 승리와 행복이 깃들기를 바라는 바이다.〔『건대신문(建大新聞)』 1961년 4월 8일〕

(4) 「1962년 입학식 이사장 고사(告辭)」

제군들이 건국의 터전을 찾아준데 대하여 두 가지 뜻에서 축하를 올립니다. 첫째는 수많은 사람들과 경쟁하여 우수한 성적으로 국가고시를 돌파하고 온 승리자들에게 국가적인 견지에서 먼저 축하(祝賀)하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수많은 학교 가운데서 우리 건국대학교를 선택하여 이 터전에 제일보를 디디게 된 제군에게 또한 축하합니다.

오늘은 제군에게 건국대학교의 창립과 오늘까지에 이른 이야기 하나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1945년 우리나라가 일제(日帝)의 쇠사슬에서 해방되던 그날 저녁 8시경 어느 요리집에서 저녁식사를 나누던 자리에서부터 이야기의 실마리가 시작됩니다. 그 자리에는 33인이시던 분도 있었고, 여러 우리나라 지도층의 분들이 있었습니다. 이때 우리들이 이야기를 나누는 가운데 "다시 찾은 조국을 어떻게 하며는 다시는 잃지 않고 길이길이 보존해나갈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이 초점이 되었습니다. 무력(武力)으로나 과학(科學)으로나 여러모로 생각해 보았지만, 우리나라가 살 길은 새로운 역사의 주인공들을 길러냄으로서 세계문화에 기여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하는 데만 희망이 있다고 결론짓게 된 것입니다. 자손만대에 다시는 억울한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들은 그 결심을 굳게 했던 것입니다.

아까 정(鄭) 박사도 말씀이 계셨듯이, 이러한 인재 양성을 위하여서 단련을 시키는 대장간이 곧 건국대학교입니다. 두드려 연마시키는 가장 우수한 대장장이가 정 박사고, 그 일을 위하여 함마를 대고 철판과 바탕을 대어주는 역할을 하는 일을 나는 맡고 있습니다.

선두에 앞장서 계신 여러 선생들과 제군들이 합심노력(合心努力)하여 이 나라 새 역사의 주인공들 모다 될 때만이 대건국(大建國)의 이상은 살고 8월 15일 저녁 8시에 있었던 옛 이야기의 꿈은 완

전히 실현되는 것입니다.

한발 한발 자기의 힘을 다하여 조국에 이바지한 주인공들 되기를 간곡히 부탁하며, 다시 한 번 건국(建國)의 이 터전을 시금석의 터로 찾아 조국의 역사에 크게 이바지하려는 첫발을 힘차게 내디디는 제군들 앞에 심심한 축하를 여기 보내는 것입니다.〔『건대신문(建大新聞)』 1962년 3월 24일〕

(5) 「1962년 지역사회개발대학 입학식 이사장 고사(告辭)」

먼저 제군이 9:1, 8:1 등의 격렬한 시험을 극복하고 승리자로서 오늘 이 자리에 입학하게 된데 대하여 축하를 보낸다. 부지런하고 끊임없는 노력으로 앞으로도 일생 승리로의 길만을 달음질 쳐주길 바란다. 세 가지 우리의 교육정신과 두 가지 지역사회개발대학의 목표를 여기 밝혀두고자 한다.

두 가지 목표의 하나는 첫째, 자활(自活)의 인간을 만들어 남의 도움 없이 스스로 몸과 손에 기술이 익어서 우리나라 지역을 개발해 나간다는 점과, 둘째는 지역사회를 위해 혼자만이 사는 것이 아니라, 봉사할 수 있고 일생 남을 위한 봉사에 이바지할 수 있는 굳건한 인간 완성을 이루어 나가야 된다는 점이다.

세 가지 교육정신으로는 ① 인간교육 ② 기술교육 ③ 생활교육이다. 이 중에서도 특히 성(誠)과 신(信)과 의(義)의 인간을 완성하는 점이다. 썩은 인격으로서는 사회에 해(害)는 되어도 이(利)는 없는 썩은 사회를 만들게 된다. 청사(靑史)에 빛난 일을 한 분들은 굳건한 성과 신과 의의 일꾼들이었다.

제군은 축대(畜大)에서 도야지를 가슴에 안고 거친 손을 들고 이 나라 이 땅 이 강토를 개척해주어야 하는 중대한 주인공들인 것이다.

만일에 이러한 중대한 사명을 한시라도 망각한다면, 지금 그만두는 것이 좋은 것이다. 출발했으니 우수한 기술연마와 실천으로 끝내 완전한 승리자들 되어주기를 당부한다. 우렁찬 제군들의 출발에 마음껏 축하를 보내며 오늘부터 더욱 굳은 결심으로 용왕매진(勇往邁進) 있기를 바라는 것이다.〔『건대신문(建大新聞)』 1962년 4월 6일〕

(6) 「1967년 입학식 이사장 훈사: 인류에 기여할 높은 건학정신 성 · 신 · 의의 기치 승리 밝히기를」

여러분의 영광된 입학을 먼저 축하드립니다. 여러분은 치열한 경쟁시험을 뚫고 승리자로서의 타인이 맛보지 못한 영광을 안고 이 입학식의 자리에 같이 앉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피나는 노력의 결과로 얻어진 성스러운 영광인 것입니다. 이러한 기쁨은 비단 오늘 이 자리에서 맛보는 영광의 기쁨으로만 그쳐서는 안되며, 이 노력의 결과에 대한 여러분의 기쁨은 앞으로 대학생활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하나의 비타민제로서의 역할을 삼아야 될 것입니다. 환언

하면 나는 여러분에게 이러한 기쁨을 앞으로도 노력하는 대학생으로서의 양식으로 삼고 이러한 결과가 국가와 나아가서는 전세계 인류에 공헌할 수 있는 인물이 될 것을 강조하는 바입니다.

우리 학교의 교시(校是)는 성(誠)과 신(信), 의(義)로써 건학정신(建學精神)을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교훈은 그것을 다만 하나의 글자 그대로의 교훈으로만 삼는 것이 아니라, 대학생활을 해나가는데 있어서 이를 그대로 실천하는 목표로 삼아야 될 것입니다. 이를 실천하고 행하고 그 위에 하나의 창조를 위해 노력하는 것은 곧 우리 학교가 해야 할 책임이며, 이것이 곧 인류에 기여할 수 있는 자질을 형성하는 근본 바탕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선 여러분은 오늘의 영광과 기쁨을 성, 신, 의 교시 아래 다시 가다듬어서 잘 공부하고 철저히 연구하는 대학생이 되어 노력하는 결과의 기쁨이 앞으로도 계속 되길 바라는 바입니다.〔『건대신문(建大新聞)』 1967년 3월 18일〕

(7) 「1971년 입학식 이사장 훈사: 진실과 성실로 알찬 생활」

오늘의 이 영광스러운 입학식에 자리를 같이한 총장님 이하 여러 교수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부터 4년간 이 건국대학교에서 교육 받을 신입생 제군을 바라볼 때 한층 마음 든든함을 느끼며, 앞으로 이 학교에 자랑스러운 주인이 될 여러 신입생 제군들에게 우선 무한한 축복을 보내고 싶습니다. 오늘의 이 영광스러운 보람을 쟁취하기까지에는 신입생 제군의 온갖 열과 성의 노력이 항상 있었을 것입니다.

지금부터 건국대학교의 새로운 주인이 된 신입생 여러분은 마냥 부풀었던 꿈의 실현을 달성하는데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신입생 각자가 자기 자신의 능력을 충분히 개발시킴으로써 떳떳한 건국의 가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신입생 여러분의 자기완성과 인격 도야가 한층 다져질 수 있도록 총장님을 비롯하여 교수 및 전교직원은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며 또한 우리 재단도 힘껏 뒷받침하는데 절대로 게을리 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무쪼록 신입생 제군은 진실과 성실을 바탕으로서 그 커다란 꿈을 이루어나가길 바랍니다.

신입생 제군들의 아름답고 알찬 꿈을 달성하도록 하는 데는 교수님들의 훌륭한 강의가 중요하겠습니다. 교직원 및 재단은 힘써 여러분의 일을 언제나 보살피며 이끌 것임을 확언 드리면서 제군들의 꾸준한 노력을 바랍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이 광활한 캠퍼스에서 또한 충분한 낭만을 키우고 마음을 넓히어 진리탐구에도 힘써 노력할 때만 비로소 여러분의 앞날은 더욱 밝을 것이며 성장일로의 제군은 무한한 목표에 일진일보(一進一步) 다가설 것입니다.

제군들이 앞으로 생활하면서 어려운 문제나 잘 모르는 문제들이 일어날 때는 언제든지 여러분의

해결을 해줄 교수님들이나 교직원들이 항상 대기하고 있을 것이며, 여러분이 캠퍼스 안에서 원만한 생활을 누리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이러한 제군들과 교수 및 교직원들의 충실한 협조와 관계로서 앞으로 4년 후에 졸업하여 여러분이 사회의 여러 분야에 진출할 때는 능력 있고 참된 인간으로서 활동 할 수 있을 것이며, 또 그렇게 되길 믿고 싶습니다.

아무쪼록 오늘의 이 영광을 뜻 깊게 가지시고 앞으로 시작될 대학생활을 통해 여러분의 건강과 건투를 빌며 이만 축사에 대합니다.〔『건대신문(建大新聞)』 1971년 3월 15일〕

3) 졸업식사

(1) 「5회 졸업식 학장 훈사: 성 · 신 · 의의 실천, 생활에 혁명성을 갖도록」

졸업생 제군!

그대들아. 이제 4년간의 형설(螢雪)의 공(功)을 쌓고, 졸업과 더불어 영예의 학위를 얻게 되었음을 진심으로 축복하는 바입니다. 특히 동란 후의 허다한 파란과 준령을 헤치고 넘으며 부산서 서울로 전전 유학하던 제군의 재학 4년간을 회고할 때 실로 감개무량한 것이 있으니, 이는 또한 제군의 오늘을 크게 빛내며 더욱 의의 깊게 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군은 오늘의 졸업으로써 닦을 것을 다 닦고 알 것을 다 안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학교도 제군이 장차 필요로 하는 지식의 전부를 제공한 것이 아닙니다. 이 졸업장은 제군이 금후 새로운 길을 개척하는 데 필요한 모든 지식을 저장한 서고(書庫)의 '열쇠'를 가지게 하는 정도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정말 자기의 앞날에 필요한 각 전문분야에 걸쳐 그 서고를 열고 힘껏 파고들어야만 비로소 학인(學人)으로서의 지식이 완성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다음에 나는 제군을 이 창파만경(蒼波萬境)의 사회로 떠나보내는데 있어서 그동안 제군이 연마 육성한 지성과 교양이 제군 자신의 항로를 결정하는 지침이 될 것을 믿고 기대하는 바입니다만, 노파심으로서 몇 가지를 더 부탁하여 제군의 장도를 축하하는 말로 삼고자 합니다. 그 첫째는 생활전(生活戰)에 있어서의 '에네르기' 발사에 대한 것입니다.

인생의 일대란 하나의 예술작품이며 어느 면으로 보면 투쟁의 기록이라고도 할 것입니다. 이 작품이나 기록에 있어서 특히 우리 대학의 교훈인 성 · 신 · 의가 그 발광체가 되고 이 발광체에서 발사한 '에네르기'량이 그 얼마만한 부분을 이 작품이나 기록에 남겼느냐 하는 문제가 생활전에서의 승리의 결정점이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성'은 진실과 지성이니, 창의와 완성이 여기서 이루어지고, '신'은 사회생활의 근간이니 단결과 협

동이 이에서 나오며, '의'는 정의와 용기의 원천이니 청사에 길이 남은 큰 인물들은 모다 의를 위하여 싸운 이들입니다.

다음으로는 생활에 '혁명성'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생활 내용의 확충 발전 비약을 위하여서는 가끔 자기생활에 혁명의 '메스'를 대일 줄 알아야 합니다. 한결같은 생활이 그대로 죽 계속되어 가지고는 보수와 고루에 빠져 더 발전하기 어렵게 됩니다.

같은 일을 하면서도 어느 때나 새로운 각도로 새로운 세계를 창조하며 발견하기 위하여 더욱 높고 넓은 지혜와 사고가 끊임없이 움직이어야 하고, 여기에 따르는 계획과 행동이 또한 함께 되어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시발과 전통을 가졌다 하더라도 이를 무비판으로 만연히 연장 계속하는 날에는 퇴보 타락이 기다리고 있을 뿐이라 함은 우생학 상으로나 역사학 상으로 밝히 증명된 바이거늘, 하물며 녹슨 전통과 어지러운 현실에 당면하고 있는 우리로서 혁신 개선에의 노력을 게을리 하는 날에는 국민 개개인뿐만 아니라 전체 조국의 운명도 암담비참의 구렁으로부터 건져지기 어려울 것입니다. 개혁은 확실히 현실의 무풍지대에서 졸고 있는 수구(守舊) 안일(安逸)의 생활보다는 괴롭고 쓰라린 것입니다. 그러나 보다 나은 내일을 위하여 오늘의 고통을 극복 감내함은 대학을 졸업하는 제군의 이성의 책임이요, 천혜(天惠)의 정열과 용기를 이어 받은 청년세대의 역사적 사명이라 아니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어 졸업생 제군의 양양한 전도(前途)와 꿋꿋한 전진을 축원하면서 이만 끝입니다.〔『정대(政大)』 1956년 3월 29일〕

(2) 「6회 졸업식 학장 훈사: 국민의 기대에 보답하라, 졸업의 영예는 제군들 것만이 아니다」

졸업생 제군이 자면려(孜勉勵)하여 4년간의 형설의 공을 쌓고, 오늘의 영광스러운 졸업과 학사학위를 받게 되었음을 충심으로 경하하는 바이다.

더욱이 오늘과 같이 무지가 횡행하고 탁류가 범람하는 우리 사회에 제군처럼 높은 지식과 교양을 지닌 새 일꾼을 배출하게 되었음은 우리 대학뿐만 아니라 국가사회 전체를 위하여 크게 기쁘고 다행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더군다나 제6회 졸업생 제군은 전화(戰火)의 세례를 받고 부산 구덕산(九德山) 하의 가교사(假校舍)에 입학하여 수많은 어려운 고개를 넘고 사나운 비탈길을 지나서 오늘에 이르렀으니, 그간의 고난의 역정을 돌이켜 볼 때 석별의 감회 한층 더 깊은 바 있으며, 또 이 시련을 극복한 제군에 대한 기대는 한층 더 큰 것이 있다.

우리 대학은 금번 제군의 졸업과 함께 지난날의 피난살이 칩복생활(蟄伏生活)을 청산하고, 광활한 무대에서 새살림을 시작하게 되었으나, 이는 결코 우연의 조화가 아니라 그간 제군과 함께 흘려

온 피눈물이 맺혀서 오늘을 이룩한 것이며, 금후 제군의 사회적 활동 여하는 또 명일의 모교의 성가를 좌우하게 될 것이다.

그동안 믿음의 터전에서 의(義)의 지침 아래 정성의 몸을 가다듬어 온 제군의 사회 진출을 우리는 온 겨레와 더불어 목마르게 기다리고 있으며, 커다란 희망을 걸고 주시할 것이다. 해방 후 많은 대학이 설치되고 고등교육이 보편화하는 경향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국민 가운데서 대학교육을 전부 마칠 수 있는 사람이란 지능으로나 경제면으로나 극히 제한된 일부에 지나지 않으니, 제군이 오늘 차지할 수 있는 이 영예는 모든 국민의 기대와 선망의 초점에서 이루어진 것임을 깨달아야 할 것이며, 국민의 이러한 기대와 선망에 대하여 제군도 또한 보람 있는 보답과 대상을 지불하여야 할 것이다.

그것은 제군이 자격을 자랑하거나 지식을 파는데 있는 것이 아니라, 겸허한 노력을 꾸준히 계속하는 데서 성취될 것이며, 또 제군들 개인 개인의 우열성패도 지금까지의 성적이나 순위보다도 오히려 금후의 활동과 노력 여하에 달려있음을 알아야 할 것이다.

사실상 제군이 오늘까지 배워온 과정은 만경창파(萬頃蒼波)의 학해(學海)에 일엽편주(一片葉舟)를 띄워놓은 정도에 불과한 것이니, 이 넓고 깊은 학해를 정복하기 위한 제군의 학문의 전도(前途)는 실로 양양하고 망망한 것이 있다. 어찌 오늘에 만족하고 여기에 그치랴! 수유(須臾)의 안일을 탐함이 없이 돛을 달고 노를 저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 항행(航行) 과정에는 언제나 순풍만을 기대할 수 없으니, 때로는 비바람이 치고 격랑이 일 때도 있을 것이다. 이에 본인은 제군의 장도를 축하함과 아울러 일말의 불안감을 금할 수 없어 석일(昔日)의 제갈량(諸葛亮)이 전장에 나가는 장수에게 금낭(錦囊)을 주던 고사(故事)를 생각하면서, 제군의 다난한 앞길을 타개하는 하나의 약방문(藥方文)을 적어서 제군과의 이별의 선물로 삼고자 한다.

그 처방은 일왈(一曰) 고상한 인격이니 이로써 '군(君)'을 삼고, 이왈(二曰) 빛나는 지성이요, 삼왈(三曰) 탁월한 창의(創意)요, 사왈(四曰) 주도한 계획이요, 오왈(五曰) 눈부신 활동이니, 이상으로써 '신(臣)' '좌(佐)'를 삼을 것이다.

이 처방에 부(附)하여, 제군의 주의를 촉구하고자 함은 약효는 약방문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양약(良藥)을 구하여 이를 몸에 맞도록 전용(煎用)함에 있으니, 이는 오로지 제군의 노력과 작량(酌量)과 정성 여하에 달려있는 것이다.

졸업생 제군의 건강과 행복을 빌면서.〔『정대(政大)』 1957년 3월 30일〕

(3) 「7회 졸업식 학장 훈사: 불안과 암흑을 밀고 세대의 샛별 되라」

졸업생 제군! 제군이 지난 4년 동안 형설(螢雪)의 공(功)을 쌓은 보람 있어, 이제 영예의 졸업과 학사학위를 취득하게 되었음을 충심으로 경하하는 바입니다. 특히 제군이 체험하고 겪어온 지난날의

생활환경이 험난하고 어지러웠음을 생각할 때 오늘의 영광은 한층 더 빛나고 값진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제군은 이 영광과 기쁨이 곧 짐이요 부채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제군의 인격을 기르고 지식을 넣어주신 교수 강사 제위(諸位)와 제군의 뒤를 밀어주신 부형 각위(各位)의 은공(恩功)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음으로 양으로 제군을 도와주고 제군의 장래에 커다란 희망과 기대를 걸고 있는 사회 전체에 대하여서도 제군은 많은 빚을 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빚을 갚는 것은 제군이 그 체득한 지식을 뽐내고 자격을 자랑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겸허한 태도와 노력으로써 사회에 봉사하고 국사(國事)에 이바지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제군이 그동안 대학에서 수득(修得)한 학문은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결코 빈약한 것이 아니었습니다만 양양(洋洋)한 학해(學海)의 깊고 넓음에 비하면 그야말로 창해일속(滄海一粟)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군은 학창을 떠난 이후에 있어서도 수유(須臾)의 해이(解弛)를 엄계(嚴戒)하고 학구와 실천면에 있어서 꾸준한 노력과 정성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제군이 앞으로 나아갈 길과 자리 잡을 처소(處所)는 다기다양(多岐多樣)일 것입니다만, 어느 때 어느 곳에서나 불변(不變)의 정성과 노력은 성공의 모체가 될 것입니다. 고훈(古訓)에 '정성이 이르는 곳에는 금석이라도 가히 뚫을 수 있으리라' 하였으니 세파(世波)의 거침이 제아무리 거세다 할지라도 어찌 정성을 가로막고 노력을 굽힐 수 있겠습니까. 하물며 그 정성이 굳건한 믿음의 터전 위에서서 정의의 지침을 향하여 매진함에 있어서랴!

우리 대학이 그 창립사(創立史)의 첫 장에서부터 성(誠) · 신(信) · 의(義)의 3대 문자를 기록하여 이것이 제군의 인격 속에 스며들도록 힘써온 것은 제군의 오늘에 대비하기 위함이요, 또 앞으로의 제군의 기나긴 인생항로에 있어서 불멸의 지남(指南)이 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학원으로부터 사회에 진출하는 제군의 앞날에는 이미 탄탄대로가 약속되어 있는 행운의 동창도 없지 않겠으나, 이후의 대부분은 눈앞에 형극(荊棘)과 준령(峻嶺)을 바라보며 떠나지 않을 수 없는 시대의 불행아들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실망하지 않고 냉정한 이성(理性)으로써 한 걸음 한 걸음 이상(理想)의 세계를 개척한다는 것은 제군이 몸소 대학교육의 가치를 입증하고 우리의 교훈을 살리는 것이 될 것입니다.

우리 대학은 앞으로 장안동 일대의 건설에 더욱 박차를 가하여, 불원(不遠)에 정치대학과 문리과대학 · 축산대학을 포함하는 종합대학으로 발전하게 될 것으로 믿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졸업 후 얼마만한 시간이 경과된 다음에야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그 열매 속에는 제군이 재학 중에 남겨놓은 피눈물의 정성이 어려 있을 것이며, 또 금후의 제군의 사회적 활동 여하는 명일의 모교의 성가(聲價)를 좌우할 것임을 명심하여야 할 것입니다.

'토인비' 교수는 현대의 특색은 불안과 절망으로써 상징되리라고 하였습니다. 세계가 최근에 경험한 수차의 전란과 긴장상태는 과연 이 말을 수긍하기에 넉넉한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불안과 절망 속에서도 생(生)을 영위하고 최후의 희망을 버리지 않고 있음은 제군과 같은 신진학사(新進學士)들이 진리와 정열의 새 사명을 짊어지고 부단히 사회에 진출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졸업생 제군!

제군은 그 지닌 바 교양과 지식을 더욱 연마하여 오늘의 불안과 암흑의 세대를 밝히는 빛나는 샛별이 되어주시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정대(政大) 1958년 3월 31일)

(4) 「8회 졸업식 총장 훈사: 자기를 찾자」

정치대학(政治大學) 제8회 졸업생 제군!

제군이 이제 본 대학 소정의 과정을 마치고 학사학위와 졸업의 영예를 차지하게 되었음을 충심으로 축하하는 바입니다. 특히 제군 중에는 주경야독(晝耕夜讀)하여 형설(螢雪)의 공(功)을 쌓은 사람도 적지 않으니, 그 과정이 험난하였으니만큼 그 성과에 대한 기쁨도 또한 클 것으로 믿는 바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결코 여러분만의 기쁨이요 영광이 아닙니다. 여러분을 직접 가르치고 돌보아주신 스승이나 부형의 은덕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여러모로 편달후원(鞭撻後援)하여 주신 관계기관이나 사회인사에 힘입은 바도 큰 것입니다.

따라서 제군의 기쁨은 곧 부채요, 제군의 영광은 곧 짐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짐을 짊어지고 제군이 사회에 진출하는 길은 다기다양(多岐多樣)일 것입니다. 혹은 학계에 머물러 진리의 탑을 더 높이 쌓을 사람도 있을 것이오, 혹은 관청이나 지방자치기관에 들어가 공무(公務)를 담당할 사람도 있을 것이오, 또는 정계나 실업계에서 눈부신 활약을 할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처(處)하는 장소가 어디든지, 그 맡은 직책이 무엇이든지, 제군은 처신의 근본태도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먼저 '자기를 바로 찾아야 할 것입니다.' 아무런 사회관(社會觀)도 인생관(人生觀)도 없이 바람이 동으로 불면 동으로 기울어지고, 서로 불면 서로 쓰러지는 따위의 무정견(無定見)한 태도로써는 항상 사회풍조에 휩쓸리고 남을 추종하는 피동적 지위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입니다.

중세기의 암흑이 수백 년 동안 인류사회를 지배하여 온 것은 이러한 무자각(無自覺)과 추종이 당시의 생활습성으로 화(化)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루쏘' '몽테스큐-' '루터' 등에 의하여 제창된 '개아(個我)의 발견'은 드디어

졸업생에게 졸업증서를 수여하는 유석창 박사. 사진은 1959년 졸업식 장면으로 추정된다

민주혁명의 도화선에 점화하고 누천년(累千年) 동안의 봉건 중압에서도 능히 버티어 낼 수 있는 근대시민사회의 기둥을 이룩하였던 것입니다.

졸업생 제군!

오늘의 우리 사회에도 여러 가지 사고와 생활과 학문의 조류가 물결치고 있으며, 거기에 따르는 각색 사회현상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이때에 제군이 마음을 가다듬고 자기자신의 인식과 발견에 노력하지 않는다면, 제군은 필경 바람결에 밀려오고 밀려가다 부평초(浮萍草)의 신세를 면치 못하게 될 것입니다.

바라건대 제군은 어떠한 역경과 고난에 처할지라도 자아(自我)의 존재와 지향을 잊지 말고 꾸준한 노력을 다하여, 오늘의 우리나라와 겨레의 동량(棟樑)이 될 뿐만 아니라 내일의 새 역사를 창조하는 크고 작은 주인공이 되기를 염원하는 바입니다.

제군의 전도(前途)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같이 있기를 기원하면서.〔『정대(政大) 1959년 3월 28일〕

(5) 「9회 졸업식 총장 훈사: 성공의 비결은 인생관의 확립에 있다」

졸업생 제군을 위하여 무엇인가 써달라는 건대신보 편집자의 청탁을 받았다. 하고 싶은 말이야 한두 가지이겠는가만은 좀 더 자세한 것은 졸업식전(卒業式典)에서 훈사(訓辭)로 줄 것이고, 여기서는 지면이 허(許)하는 범위에서 한 가지만을 써주는 것이니, 제군의 사회생활의 첫 출발에 있어서 적으나마 도움이 된다고 하면 이 이상 다행한 일이 없다.

내가 주고자 하는 말은 건전한 인생관을 확립해서 이에 따라 현실생활면에서 실천궁행(實踐躬行)하는 것만이 제군의 장래를 빛나게 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소위 취생몽사(醉生夢死)하는 하찮은 사람으로 초로(草露)와 같이 허무하게 살아질 것은 명약관화한 일이다. 대저 생(生)을 얻은 자, 그 누가 보람있는 삶을 싫어하며 사람다운 사람이 되기를 원(願)치 않으리오마는, 원한다고 되는게 아니고, 우리의 참다운 갈 길이 무엇인가 사람으로서 마땅히 행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밝혀서 확호부동(確乎不動)한 토대를 세워야 할 것이니, 이것이 내가 말하는 건전한 인생관의 확립이라는 것이다.

제군으로 말하면 최고학부를 나와서 지성으로 보나 인격으로 보나 남의 지도자로서 이러한 인생관을 수립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제군들이 궁핍과 싸워가며 형설(螢雪)의 공(功)을 쌓아온 이유도 실로 이 인생문제를 해결할 준비 때문이 아니었던가.

그렇다고 하면 지금 학원을 등지고 나가는 제군들은 바야흐로 인생항로에 첫걸음을 내디디는 항해사라고 나는 부르고 싶다. 인생항로는 노도광파(怒濤狂波)가 때와 곳을 가리지 않고 밀려오는 괴로운 길이다. 이러한 고해(苦海)에 나서는 항해사가 자기의 갈 바 방향도 정하지 못한다고 하면 그 결과가 어찌될 것인가는 짐작하고 남음이 있을 것이다. 자기가 가야할 방향을 정확히 판단하는 일

즉 확호(確乎)한 인생관 수립만이 항해사로서 먼저 해야 할 일이 아니겠는가.

다음은 자기의 갈 바 방향이 확정되면 힘껏 노를 잡고 용감히 출발해야 할 것이며, 출발한 이상 거센 풍랑과 싸울 각오도 있어야 할 것이고, 죽음으로 만난(萬難)을 배제할 기개도 있어야 한다. 장애가 있다고 정지하거나 중도에서 자포자기하거나, 처음에 정한 방향을 변동하게 되면 그는 벌써 인생항해사로서 패배자인 것이다.

보라. 인류가 이 지구상에 생성한 이래 헤아릴 수 없으리만치 무한한 사람이 나고 죽었건만 참다운 삶을 산 사람이 과연 기허(幾許)나 될 것인가. 대부분의 사람이 풀끝의 이슬과 같이 살아지고 말았으며 오직 몇몇 분만이 암야(暗夜)의 명성(明星)과 같이 빛나고 있지 않은가. 그것은 무슨 까닭인가. 다름 아니다. 확호한 인생관을 세워서 그것을 끊임없이 실천궁행하였기 때문이다.

인도 카비라성(城) 정반왕(淨飯王)의 아들로 태어나서 부귀와 영화를 일신에 가지고 있던 석가(釋迦)를 생각해 보라. 정반왕은 카비라성을 계승할 왕자 석가를 위여 호화찬란한 궁전을 마련하고 만고절색(萬古絕色)을 그의 아내로 삼아주고, 육산포림(肉山脯林)에 고량진미(膏粱珍味)를 다 갖추어 주었건만, 석가는 부왕의 기대와는 정반대로 부귀영화가 과연 인생의 진리냐. 아니다. 석가의 번민은 날이 갈수록 도가 심하다.

궁전 담 위에서 시가지를 내려다본 그는 무릎을 치고 울었다. 영구(靈柩)에 실려 가는 주검을 보고 권력의 쟁탈에 광분하는 무리, 탐욕에 눈이 어둔 시민들의 아우성. 만일 이것이 인생의 진리라고 하면 인류가 금수와 무엇이 다르랴. 내가 사람이라고 하면 이 부귀에 탐취(耽醉)할 수 없다. 이 영화를 누릴 수 없다. 나는 가야겠다. 위(僞)의 껍질을 벗어야 겠다 하고, 궁전도 미희(美姬)도 진미(珍味)도 헌신짝처럼 팽개치고 설산□처(雪山□處)에 은신하고 말았다. 그는 기아와 싸워가며 6년의 고행을 거듭한 결과, 보리수하(菩提樹下)에서 인생의 광명을 얻었으니– 가로되 자비(慈悲)라.

제군은 들으라. 이것이 석가의 인생관이다. 그는 2천 5백 년 동안 인류의 구제자(救濟者)로서 오늘에 살아있다. 왜 오늘뿐이랴. 우주와 같이 영원히 불멸하리라. 예수도 그렇고 공자(孔子)도 그렇다. 우리 시조 단군(檀君) 한배검도 그러시다. 민족이동의 선봉이 되셔서 밝은 곳을 찾으려는 일편단심이 동(東)으로 동으로 옮아오신 동기다. 고산준령(高山峻嶺)이 이 분의 애족지□(愛族至□)을 꺾을 수 없으며, 광명이세(光明理世)의 지공무사(至公無私)한 신념이 한민족으로 하여금 유구 반만년 이 땅을 향유케 한 것이리라.

졸업생 제군, 일에는 대소광협(大小廣狹)이 있다. 그러나 그런 것은 우리가 가릴 바 아니니, 오직 확호한 인생관을 지금에 세워서 백절불굴의 용기로 일보일보(一步一步) 나아감이 있을 뿐이나, 젊음이 그대들의 지고최선(至高最善)의 자랑이니, 부디 나의 부탁을 잃지 말아다오.〔『건대신보(建大新報)』 1960년 3월 28일〕

(6) 「10회 졸업식 총장 훈사(요지): 인격 형성은 주체요 학문 · 기술은 부수물」

4년간 소정의 대학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사회를 향하여 교문을 나서는 졸업생 제군에게 훈사(訓辭)를 주고자 한다.

교육의 가치는 인격을 형성하는 데 있는 것이다. 그 이유는 새 세대를 담당할 새 역사의 주인공을 찾아볼수록 우리가 바라는 인격이 형성된 사람이 아니고서는 될 수 없다는 것을 확실히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면 우리가 바라는 인격 형성이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참다운 인격 형성이라는 것은 지(知) · 정(情) · 의(意) 3면으로서 볼 때, 이 3면이 고르게 발달된 사람을 말하는 것인데 그 중에서도 특히 우리가 찾는 인간이란 창의성(創意性)이 풍부하고 가장 진실하며 부지런하고 용기있는 인간이다.

그러므로 4년간 제군을 교육시킨 결과가 단지 전문과목을 이수함으로써 얻은 학문이나 기술만으로써 만족을 느낀다거나, 또한 이것이면 넉넉히 앞날의 자기길을 개척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것은 큰 잘못이다.

이러한 학문이나 기술은 위의 말한 바와 같은 인격을 형성한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하나의 무기가 될 따름이요, 정말 앞날의 새 세대를 담당할 새 역사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느냐 없느냐의 판결점은 위에서 말한 인격 형성이 되었으냐 못되었느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인격 형성이 주체요, 학문이나 기술이란 여기의 부수물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그러니 학사 및 석사학위를 받은 제군은 교문을 나선 후라도 어느 때나 인격을 완성하기 위해서 1초라도 게을리 하지 말고 교시의 성 · 신 · 의를 거울삼아 더욱 노력해주기 바란다.〔『건대신문(建大新聞)』 1961년 3월 28일〕

(7) 「11회 졸업식 이사장 치사(요지)」

11회 졸업식인 이번의 수료식을 맞이해서 감개무량한 느낌을 가지는 바이다. 이전 10회까지는 총장(總長)으로서 이 자리에 임하였지만, 나는 현재 이사장(理事長)이라는 직책으로서 이 자리에 임하게 된 것이다. 나는 작년 9월에 정년으로 총장직을 물러났으나, 다행히도 고매하신 학식과 덕성 높은 정대위(鄭大爲) 박사를 총장으로 모시고 이번 수료식을 거행하게 된 것은 나 스스로의 기쁨뿐만이 아니라 건대(建大)의 행복으로 여기는 바이다.

재단의 이사장으로서 여러 수료생들 앞에 나설 때 미안한 생각을 금할 수 없다. 본래 재단은 시설과 교육의 뒷받침을 하는 것이 그 사명이나, 우리 재단이 한국에 있어서 제일류의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고 하나, 우리가 모두 만족한 느낌을 가질 수 있도록 모든 것이 완비하지는 못하였다. 그러나 나는 이 자리에서 여러분 앞에 말하고 싶은 것은 앞으로는 있는 힘을 다하여 만족감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이제 졸업하는 제군들에게 한 가지 부탁하고 싶은 것은 "자아 확충(自我擴充)으로서 타에 유익을 주라"는 말이다. 제군은 자립(自立) · 자활(自活) · 자영(自営) · 자개(自開)의 노력을 다 해야 한다. 그러기 위하여는 여러분은 풍부한 창의력과 계획성을 가져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전문적 지식과 기술은 자본이 될 것이요, 진실과 근면과 신념과 용기는 여러분이 개척해 나아가는 데 있어서 무기가 될 것이다. 이 자본과 무기로 마음껏 자기를 확충하는 동시에 타인에게도 같은 이익을 준다면, 여러분은 이 민족의 이 나라 역사의 주인공이 될 것이다.

우리 건대의 교육이념은 이러한 주인공을 기르는데 목표가 있는 것이다. 여러분은 이러한 목표를 위하여 성(誠) · 신(信) · 의(義)의 교시(校是)에서 닦은 바 신념과 용기로 건투해 주기를 바란다.

끝으로 여러분의 변함 없는 건강을 빈다.〔『건대신문(建大新聞)』 1962년 1월 18일〕

(8) 「12회 졸업식 이사장 치사: 새 기원의 창조를 기대한다」

일찌기 독일의 'W. Humboldt'는 '독일제국의 부흥은 백림대학(伯林大學)에서 시작된다'고 갈파한 바 있거니와, 참말로 한 나라의 건전한 앞날은 그 나라의 최고학부인 대학에서부터 비롯한다고 하여도 과언(過言)이 아닐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그동안 근 20개 성상(星霜)을 오로지 학문의 길에 정진하여 왔고 또한 그 형설(螢雪)의 공(功)이 열매를 맺어 오늘 드디어 대학의 문을 나서게 되는 '학사' '석사' 제군이야말로 이 나라의 앞날을 두 어깨에 걸머진 조국 재건의 참다운 역군이라고 믿어 의심(疑心)치 않으며, 우선 여러분의 영광된 '졸업'과 더불어 그 빛나는 장도(壯途)를 축하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그리고 교육의 책임을 맡으신 총장 및 교수 제위의 그간의 노고에 심심한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또 오늘에 이르기까지 갖은 난관을 극복하고 여러분의 뒤를 밀어드림으로써 여러분으로 하여금 대학과정을 무난히 끝마치게 하여주신 학부형 제위에게 삼가 구로(劬勞)의 공(功)을 치하하고 경축의 뜻을 표하여 마지않는 바입니다.

그러나 졸업의 '기쁨'과 더불어 여러분이 잊어서는 안 될 것은 지성인(知性人)으로서의 '책임'입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졸업'은 결코 '완성'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학이나 대학원이 진리탐구의 전당임에는 틀림없지만, 거기를 졸업하는 '학사'나 '석사'가 인격면으로나 기술면에 있어서 반드시 고매한 존재라고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대학교육이란 그 학위수여식이 'commencement'로 불려지다싶이 어디까지나 끝없이 발전하여 나아가는 앞날을 위한 하나의 주춧돌이 될 따름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의 손에 쥐어지는 학위증은 과거를 보증하는 데 뜻이 있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격려하는 데 더 큰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즉 제군은 앞으로의 노력 여하에 따라 고도의 학문적 소양과 체계적 지식을 체득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

졌다는 것을 뜻할 따름입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여러분의 전도(前途)는 양양하고 또 사회적으로 존경과 선망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지적 수준이 비교적 높은 선진 제국에 있어서도 대학의 문을 나오는 학사나 석사는 문화의 창조자로서 크게 기대되어 왔거든, 하물며 지성이 아쉬운 우리 사회에 있어서는 제군의 진출은 그야말로 혜성과 같이 귀한 것이라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어떠합니까. 십 수 년간 끊임없이 배출된 귀염둥이 학 · 석사의 존재는 사회의 귀염둥이는커녕 오히려 골치 아픈 문제꺼리가 되고 귀염둥이지 않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사회의 몰지각으로만 돌리기에는 너무나도 심각한 문제입니다. 물론 거기에는 우리네 사회의 경제적 사회적 후진성 내지 폐쇄성이라는 타고난 여건의 탓도 있겠고, 문교당국이나 학교경영자의 책임도 없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대학의 문을 나선 제군의 선배들의 행적 여하에 달려 있습니다. 서두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제군에 대한 선망은 제군이 상아탑에서 닦은 지식과 인격을 토대로 하여 졸업 후 사회의 각 분야에 퍼져 끊임없는 노력과 연구를 거듭하고, 이것을 응용함으로써 일반 사회에 혜택을 주는 보람 있는 존재가 되리라는 미래에 대한 기대에서 비롯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나 해방 후의 이 나라 대학 출신의 대부분은 그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였던 것이 사실입니다. 선배들의 책임까지 여러분이 부담하여야 한다는 것은 너무나 과중한 짐이라 하겠습니다만, 앞으로 계속하여 나올 여러분의 후배를 위하여서라도 차제에 여러분은 크게 깨닫고 반성하여 학 · 석사의 명예를 회복하고, 나아가서는 국가와 사회에 새로운 창조와 공헌이 있기를 간망하는 바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 땅 위에는 여러분을 전위(前衛)로 하는 새 역사가 창조될 것이며, 그것을 계기로 새로운 시대적 기원이 마련될 것을 확신합니다. 여러분의 전도(前途)에 광명이 깃들고 여러분의 모교 건국대학(建國大學)에 무한한 발전이 있기를 축원한다.〔『건대신문(建大新聞)』 1963년 2월 27일〕

(9) 「13회 졸업식 이사장 치사: 남다른 바탕을 이루기 위하여」

금년에 본교가 정치대학(政治大學)(이부대학 포함) 제13회, 문리과대학 제13회, 지역사회개발초급대학 제1회 졸업생을 내게 된 것은 참으로 경사스러운 일입니다.

졸업생 제군은 4년 또는 2년간 악랄한 제조건을 물리치고 자자영영(孜孜營營)히 형설(螢雪)의 공(功)을 쌓아올려 오늘의 영예를 차지하였으니, 이는 제군의 고귀한 노력의 값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배후에는 꾸준히 제군을 뒷바라지 하여주신 부형의 헌신과 제군을 지도 육성하신 총장 · 학장 및 교직원 제위의 은공(恩功)과 제군의 장래를 촉망하는 사회의 협력이 있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더욱이 제군이 4월의 총부리 아래서 정의(正義)의 함성을 올리고, 5월의 물결 속에서 진리를 지켜, 오늘의 결실을 보게 된 것을 생각하면 참으로 감개무량합니다.

졸업은 제군이 소정의 대학과정을 끝맺었음을 뜻하는 것입니다만, 그것이 학문의 종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님은 물론입니다. 제군이 대학을 나오기까지의 14년 내지 16년의 수학과정을 돌아볼 때, 그것이 결코 평탄하고 짧은 길이 아니었음을 느낄 것입니다만, 망망대해와 같은 장래에 비하면 그것은 한 올의 실개천에 불과합니다. 그러기에 제군은 지금 종착점에 서 있다기보다도 새로운 세계로 향하는 시발점에 서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제군의 교육을 전담하신 교수나 학부형은 물론 제군의 교육과 장래에 깊은 관심을 기울여온 본인으로서 제군의 성업(成業)의 일 단계를 축복함과 동시에 불안과 초조로써 제군의 장래를 지켜보지 않을 수 없는 것은 불가피한 심정이라 하겠습니다.

다만 본인이 제군을 위하여 한 가지 마음 튼튼하게 여기는 점은 본교 교육이 남다른 인격의 바탕을 이루기 위하여 특별한 힘을 기울여 왔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誠), 신(信), 의(義)의 덕기(德器)를 만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성(誠)은 사욕(私慾) 사곡(邪曲)을 떨친 순정한 마음이요, 신(信)은 거짓과 의심이 없는 사회의 바탕이요, 의(義)는 이해 안위를 돌보지 않고 정도(正道)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것이 제군의 수학기간 중에 완성되었으리라고 믿어지지는 않습니다만, 어느 정도의 틀과 소지는 마련되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의 지식과 기능은 매우 다양다채(多樣多彩)로운 것입니다만, 그것은 담는 그릇 여하에 따라 이렇게도 변하고 저렇게도 화(化)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올바른 덕(德)의 바탕 위에 서지 않은 지식이 그 자신에 비익(裨益)됨이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사회를 위험과 불안에 몰아넣었던 일은 비일비재입니다.

지금 제군은 다사다난한 사회생활의 각 부면에 적응하리만큼 충분한 지식과 기술을 체득하지는 못하였습니다만, 그것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을 또는 그 그릇의 틀을 마음 속에 지니고 갑니다. 앞으로 제군이 그 그릇을 더욱 크고 튼튼하게 하는 동시에 더 연구하여 얻은 지식과 사회에서 겪은 체험을 그 그릇에 담는다면 제군의 지식과 경험은 한층 빛나고, 사회를 위하여 값진 공헌을 하게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제군은 갖은 사회악(社會惡)이 난무하는 오늘의 이 세태 가운데서도 건국대학(建國大學)이 제군의 마음 속에 길러준 덕기(德器)를 지니고 간다는 긍지를 잊지 말고 그 보람을 사회의 구석구석에 심어주기를 바랍니다.

싹은 자라서 가지를 뻗고 꽃을 피워 마침내 풍성한 열매를 맺을 날이 올 것입니다.

졸업생 제군의 양양한 미래를 축복하며 제군의 가는 곳마다 건강과 행복이 같이 있기를 기원합니다.〔『건대신문(建大新聞)』 1964년 2월 27일〕

(10)「14회 졸업식 이사장 치사: 성실, 노력, 책임」

정치대학 문리과대학 축산대학 지역사회개발초급대학 여자초급대학의 전 과정을 마친 본교 제14회 졸업생 제군! 그리고 대학원 각 과정에서 보다 심오한 연구를 이룩한 석사 제군!

제군의 오늘의 영광을 축하하며 양양한 전도에 대하여 더 큰 축복을 보내는 바입니다. 그리고 교육의 책임을 맡으신 총장 및 교수 제위의 다년간의 노고에 깊은 존경과 감사를 드림과 아울러, 오늘에 이르기까지 근 20년 동안이나 갖은 풍우(風雨)를 무릅쓰고 제군의 뒤를 밀어주신 학부형 제위에게 삼가 노고의 공을 치하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제군이 힘입은 것이 어찌 이뿐이겠습니까? 혈성(血城)으로써 국토를 보위한 국군장병을 비롯하여 온 사회의 협력과 뒷받침 없이 어찌 오늘이 있기를 기약할 수 있었겠습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제군은 영예에 도취할 잠시의 겨를도 없이 보답과 책임이라는 점을 짊어지고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제군이 앞으로 나아갈 길은 제군이 지금까지 걸어온 길보다 더 험준하고 가파러울 것입니다. 제군의 지금까지의 길은 앞으로의 긴 생애에 비하면 대해(大海)의 일엽편주(一葉片舟)에 불과합니다. 금후의 항해는 더 모진 바람 더 높은 파도를 헤치고 나아가야 할 것을 각오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졸업생 제군!

졸업은 결코 완성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학이나 대학원을 진리 탐구의 전당임에는 틀림없지만, 거기를 나오는 학사나 석사가 인격적으로나 학술적으로 필요한 모든 것을 갖추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졸업은 단지 더 깊고 넓은 진리의 세계에 들어가는 길잡이요 열쇠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이 손에 쥔 졸업장이나 학위증은 과거를 보증하는데 뜻이 있다기보다도, 미래를 격려하는데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졸업생 제군!

지금 우리 사회는 말할 수 없는 곤란과 격동 속에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해방 후 20년 동안 끊임없이 배출되어 온 대학 졸업생은 사회의 크나큰 선망과 기대를 받으면서도 이렇다 할 성과를 거두지 못한 채 만연히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때로는 대학 졸업생이 매우 골치 아픈 문제거리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그것을 단순히 우리 사회의 후진성 내지 폐쇄성으로 돌리기에는 너무도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 책임은 학교나 사회가 공감하여야 할 것입니다만, 무엇보다도 졸업생 제군이 깊이 반성하고 각성하여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졸업은 종착점이 아니라 새로운 사회의 시발점입니다. 참으로 풍성한 인생의 열매를 거두어들이는 것은 금후의 제군의 노력 여하에 달려있습니다. 요행이나 기적이 통하는 시대는 멀리 지나가 버렸습니다. 조금도 허위 사악의 티가 끼지 않은 성실한 노력만이 제군의 성공을 약속할 것입니다. 그것은 하루아침에 제군의 머리 위에 승리의 월계관을 씌워주지는 못할 것입니다만,

한층 또 한층 차근차근히 성공의 탑을 쌓아올릴 것입니다. 그것이 비록 작은 성공이오 작은 범위에 국한된 것이라 하더라도, 그와 같은 착실한 토대가 제군이 이르는 곳마다 점점(點點)이 이루어진다면 그 점은 선(線)으로 연결되고, 선은 다시 면(面)으로 확대되어 이 땅 위에는 제군을 전위(前衛)로 하는 새 역사가 창조될 것이며, 그것을 계기로 새로운 시대적 기원이 마련될 것을 확신하는 바입니다.

제군이 혁명의 소용돌이 속에서 몸을 닦고 학업에 정진하여온 지난날을 돌이켜 볼 때 오늘의 감개는 더욱 깊습니다. 제군의 전도에 무한한 광명이 깃들기를 바라며, 제군과 제군의 모교 건국대학교(建國大學校)에 영원한 발전이 있기를 축원합니다.『건대신문(建大新聞)』 1965년 2월 27일)

(11)「15회 졸업식 이사장 치사: 근대화 역군 기대」

제15회 졸업생 여러분!

4년 또는 그 이상의 긴 시간을 학구(學究)에 바치고, 이제 빛나는 석사학위와 학사학위를 받으시는 여러분의 오늘의 영광과 양양한 전도(前途)를 축복합니다.

동시에 여러분에게 오늘의 영광을 가져오도록 꾸준히 지도편달하시고 후원하여 주신 교강사 직원 동창생 및 사회유지 제위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새 학생이 들어오고 졸업생이 나가고 거기에 따른 의식을 거행하는 것은 해마다 되풀이되는 학교의 연중행사이지만, 제15회 졸업생 여러분을 내보내면서 유달리 깊은 감회를 가지게 되는 것은 한편으로는 여러분이 재학하는 동안 너무나 거센 파도가 학원에 밀려오고 너무나 사나운 비바람이 여러분의 신변에 휘몰아쳤기 때문입니다.

추억은 모든 것을 미화한다고 하지만, 여러분은 그것을 옛 이야기의 한 토막으로서 과거에 묻어버리지 말고 여러분의 미래를 개척하는 산 교훈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 여러분에게 특별한 감회를 자아내게 하는 것은 조국근대화(祖國近代化) 역군(役軍)으로서의 여러분에 대한 벅찬 기대 때문입니다.

한국의 정치체제나 주권의 소재는 이미 바뀐 지 오랩니다. 그러나 한국 백성은 수천년을 하루같이 몽매와 인습 속에 살아왔습니다. 민족중추의 일부에서 주권의 임자로서의 각성을 새로이 하고 세계 문명국가와 발을 맞추어 나가기 위하여 스스로의 탈바꿈을 하여야 하겠다는 결심을 한 것은 극히 최근의 일입니다.

여기에 여러분과 같은 일군이 배출된다는 것은 큰 빛이요 힘이 아니 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단지 여러분이 대학과정에서 배운 지식 때문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성 · 신 · 의의 정신적 바탕 위에서 몸을 닦고 지식과 기능을 길렀기 때문입니다.

졸업생 여러분!

여러분이 이르는 곳마다 여러분의 뜻을 심고 여러분의 지능을 보급한다면, 여러분은 한낱 점적(點的) 존재에 그치지 않고 그 인격과 능력을 선(線)으로 뻗고 다시 면(面)으로 확대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행여 여러분의 졸업장이 완성품의 증명서인 것처럼 착각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인생은 영원히 미완품이라 하거늘, 어찌 대학과정의 졸업이 인격이나 지식의 완성을 뜻할 수 있겠습니까?

망망한 대해(大海)에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머나먼 완성의 항구를 향하여 노 저어 가게 하는 것은 오직 여러분 자신의 겸허한 노력뿐입니다. 그 노력이 보람의 열매를 맺는 날을 기대하며 여러분의 힘찬 전진을 축원합니다.〔『건대신문(建大新聞)』 1966년 3월 1일〕

(12) 「16회 졸업식 이사장 치사(요지): 무성한 새 가지 펴는 건국의 거목, 세계인류에 기여하라」

오늘은 우리대학 제16회 졸업식의 날입니다. 다년간의 형설(螢雪)의 공(功)을 닦고 사회로 진출하게 된 졸업생 여러분의 앞날에 영광이 깃들기를 축하합니다.

또 여러분 각 가정에도 큰 기쁨과 경복(慶福)이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이제 조국은 여러분의 학예와 기능과 공덕을 새로이 쌓기 위한 '일자리'를 장만해 놓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일자리는 매우 비좁은 문으로 들어가야만 됩니다. 그러므로 일하기 위한 길은 고난의 길이요, 봉사와 희생에의 길입니다. 그나마 또한 격심한 경쟁에의 길이도 합니다.

이제까지 건학정신(建學精神)에 의하여 성(誠) · 신(信) · 의(義)로서 학업을 연수하고 나선 여러분은 각자의 역량에 따라서 여러분 개개인의 뜻을 살리기 위한 조국의 미래상을 그리는 설계도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 스스로 해야 할 일을 '비전'이어야만 하는 동시에, 이 민족과 이 국가의 번영을 위한 청사진이어야 하며, 또 세계인류에게도 기여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의 영광된 이 자리는 졸업생 여러분이 학업을 필(畢)하여 제각기 학위를 획득하는 자리가 되기도 하지만, 또한 그것은 여러분의 가정과 사회와 국가에다가 복지와 번영을 구현화해 놓기 위하여 조국의 '역사 창조'에 직접 발 벗고 나서게 된 자리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교문을 나서는 오늘부터 여러분에게는 조국의 미래를 책임져야만 할 창업이 있어야 하겠으며, 생애를 바쳐 각자가 지향하는 바 창업을 완수해야 할 의무가 있어야 할 것으로 믿습니다.

오늘의 이 자리는 졸업생 여러분의 학식과 기술의 전공한 바에 따라서 창업에의 길을 자유선택하는 자리가 되어야하겠으며, 그리하여 내일부터도 용기와 근면으로서 쉴 줄을 모르는 창조에의 길로 일로매진(一路邁進)해야 할 새로운 결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그 창조를 위한 원리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무(無)에서 유(有)로의 비약'이오, 둘째는 '일(一)에서 다(多)로의 전개'이며, 셋째는 '소(小)에서 대(大)로의 발전'인 것입니다. 이러한 비약과 전개와 발전의 3대 원리를 앞날의 창업을 위한 이념으로 삼아서 무실역행(務實力行) 해주신다면 조국의 번영을 위하여 여러분께서는 내일 이 나라의 주인공이 될 수 있으리라고 확신합니다.

이것이 오늘의 이 기쁘고도 섭섭한 석별의 정을 나누어야만 하는 이 자리에서 졸업생 제위에게 보내는 이사장으로서의 선물인 동시에 또한 간절한 부탁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앞날의 여러분의 건강을 빕니다. 감사합니다.〔『건대신문(建大新聞)』 1967년 2월 27일〕

(13) 「17회 졸업식 이사장 치사: 복지문화국가에의 선도자 되시라」

다년간 건학(建學)의 '캠퍼스' 안에서 형설의 공을 닦고 이제 사회에 진출하게 된 제17회 졸업생 여러분의 전도(前途)에 영광과 큰 성공이 깃들기를 바라며, 아울러 졸업생 여러분의 각 가정에도 큰 경복이 있을 것을 축원합니다.

이제 조국은 복지문화국가(福祉文化國家) 건설의 역군으로서 여러분의 창업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학구(學究)한 지식과 연수한 기술을 제공받을 일자리가 고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일자리는 의욕과 정열에 불타는 용기의 인사만이 뚫고 나아갈 수 있는 고난의 역사(役事)이며, 또 한편 희생과 봉사를 요구하는 어려운 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정의의 투사들만이 즐겨하기에 합당한 길들인 것입니다.

이제까지 졸업생 여러분이 성(誠) · 신(信) · 의(義)로써 도야한 인격과 그 전공한 바 학식은 이처럼 험준한 조국의 미래를 개척하는 데에 기여됨으로써 역사 창업의 주인공이 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졸업생 여러분의 앞날에는 모든 난관을 오로지 '성(誠)'으로써 돌파해 나아갈 각오를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굳게 다짐하여주기를 바랍니다.

이제 졸업생 여러분이 각자의 전공한 바 분야대로 학위를 획득하는 이 자리에서 여러분에게는 조국의 미래상을 책임져야만 할 창업의 완수와 또 한편으로는 다복하고도 번창하는 가정을 이룩해야만 되는 국민적 의무가 여러분의 두 어깨 위에 부하되어 있음을 자각하면서 교문을 나서 주어야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졸업생 여러분이 자유로 선택해야 할 그 창업에의 길은 항상 용기와 근면에 의하여 창조와 비약이 뒤따라야만 합니다. 고난의 극복이 있은 다음에는 반드시 비약이 있는 것이며, 또한 창

1967학년도 학위수여식에서 치사하는 유석창 이사장

조의 보람찬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이제 새 희망과 새 설계에 부푼 꿈을 가지면서 교문을 나서게 되는 졸업생 제군에게 이사장으로서 간절한 부탁의 말씀을 제언하고자 합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조국에 기여되기 위한 이념으로서 다음과 같은 '창업의 원리'를 늘 마음속에 간직하여 두시라는 것입니다.

첫째는 '무(無)에서 중유(中有)로의 비약'이오, 둘째는 '일(一)에서 중다(中多)로의 전개'이며, 세째는 '소(小)에서 중대(中大)로의 발전'이오, 네째는 '분(分)에서 중합(中合)으로의 협동'입니다.

이러한 비약과 전개, 발전과 협동의 4대원칙은 창업의 기본원리가 되는 것입니다. 졸업생 여러분이 이 기본원리를 이념으로 삼아서 '성(誠)'으로써 지켜 나아가신다면 반드시 조국을 복지문화국가로 건설해 놓을 수 있는 역군(役軍)이 될 수 있을 것이며, 뿐만 아니라 여러분 개개인의 앞날에도 빛나는 성공이 약속될 수 있으리라고 확신하는 바입니다.

이것이 제17회 졸업생 제군에게 석별의 정을 나누게 된 이 자리에서 이사장으로서 부탁하는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앞날의 건투를 빕니다.〔『건대신문(建大新聞)』 1968년 2월 27일〕

(14)「18회 졸업식 이사장 고사(告辭): 성 · 신 · 의 건학정신으로 모든 분야에서 충실을」

오늘은 우리 대학의 제18회 졸업식을 맞이하게 된 날입니다.

금년에도 1400여 명의 졸업생을 사회로 내보내게 됨에 있어서 보내는 마음의 한편에는 섭섭함을 어찌할 수 없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다년간 학문과 기술을 아울러 연수하기에 피땀을 흘려 공을 들인 보람이 있어서 영예의 학위를 받게 된 것은 여러분이나 또한 여러분의 가족이 손꼽아 기다리던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졸업생 제위가 비록 우리 학원을 떠난다고 하더라도 성(誠) · 신(信) · 의(義)의 건학정신(建學精神)만은 사회의 어떠한 분야에 가서라도 잊지 말 것을 굳게 다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실로 여러분은 이제부터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지니고 있는 자질과 전문적인 학식 및 기능을 가지고 여러분이 희망하시는 일자리를 여러분 스스로가 개척하여 나아가야 할 새로운 생(生)의 경쟁을 시작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 엄청난 사회적 생활경쟁 속에서 낙오되지 않고 성공할 수 있는 마음의 바탕이 곧 성 · 신 · 의의 건학정신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하는 바입니다.

직장에서나 생산장(生産場)에서나 가정에서나 어디를 가더라도 상부상조하는 우의와 신임받는 자세를 가지고 일개인의 복지나 가정의 번창만이 아니라 사회적 선(善)과 국가애(國家愛)와 공익 증대를 위하여 봉사자로서의 정의감을 꾸준히 간직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보람있는 인생이란 고난과 분투와 역경에서 승리한 용기의 성과입니다. 또한 그것은 무(無)에서 유(有)를 남겨놓고 황무지를 개간하여 창조의 씨를 심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졸업생 여러분!

이 나라가 다시는 불행하게 되지 않고 고도의 복지문화국가가 되어 이 세대에서 이루어지지 못한 민족통일이 달성되어 우리의 자손에게 자유번영의 생활장(生活場)을 건설하여 준다고 하는 희망을 가지고 앞날의 생활설계에 지표로 하여 주십시오.

여러분이 그것을 향하여 꾸준히 나아갈 때, 여러분의 전진을 가로막는 모든 장애는 극복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장래에 무한한 영광이 깃들기를 축복하며 여러분의 오늘을 가져다주기 위하여 바친 학부형, 교수, 직원, 동문 및 사회) 제현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건대신문(建大新聞)』 1969년 2월 27일〕

(15)「행정대학원 1회 졸업식 이사장 치사: 학리(學理)와 체험으로 값진 인생 수록」

본교 행정대학원이 생긴 것이 엊그제 같은데 그 짧은 시일 안에 눈부신 발전을 거듭하여 이제 그 제1회 수료생을 내고 아울러 석사학위를 수여하게 된 것은 매우 반갑고 흐뭇한 일입니다. 더욱이 이 기회에 행정대학원의 소식과 연구에 관한 신문을 따로 엮어 내게 된 것은 참으로 경하할 만한 일입니다.

낮이면 직장에서 맡은 일을 하고, 밤이면 공부하는 여러분의 처지에서 쓴 글이기에, 시간과 고달픔에 쫓긴 일면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만, 그 대신 학리, 생활 및 체험을 통하여 얻은 값지고 생생한 자료가 수록되었으리라고 확신합니다.

오늘의 학문이 현실을 떠난 공허한 이론에 그치지 말고 현실에 적응하면서도 현실을 끌어올릴 수 있는 것이라야 한다는 것은 한국의 실정으로서는 더욱 절실한 요청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여러분의 논문은 단순한 기념품이나 장식품이 아니라, 우리 사회와 현실에 직접적으로 이바지할 수 있는 귀중한 값어치를 지닌 것이라 생각합니다. 특히 작금의 행정학이 국가 기능의 통합적 경향과 더불어 그 폭을 넓히고 무게를 더하였음에 비추어 볼 때 여러분의 연구 활동은 더욱 큰 의의를 가지게 될 것으로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여기에 만족하지 말고 끊임없이 문제를 제기하여 보다 나은 해결방안, 보다 높은 발전단계로 도달해야 한다는 '지향성'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뒤를 이을 후배들에게 지워진 과제이기도 하지만, 여러분도 자신의 학문적 활동이 여기에 그쳤다고 생각하지 말고 발전으로 치닫는 걸음을 계속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이 신문은 여러분의 지난날의 희구나 기록에 그치지 않고 여러분의 미래와 연결되는 한 과정이요, 여러분의 끊임없는 발전을 기약하는 발판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과 행정대학원의 장래에 양양한 발전이 있기를 거듭 축원합니다.〔『건대신문(建大新聞)』 1969년 2월 27일

(16) 「19회 졸업식 이사장 치사: 이상과 현실의 조화를, 정력과 노력 바치고 혼연일체의 노력 긴요」

졸업생 제군!

제군이 형설의 공을 쌓고 영예의 졸업을 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동시에 20여 년간 여러분의 뒷바라지를 하여주신 학부형 제위, 여러분을 직접 지도 편달하여주신 교강사 여러 선생님 및 음으로 양으로 여러분을 돌보아주신 사회제현의 노고에 대하여 새삼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졸업은 해마다 되풀이되는 연중행사요 본 대학의 문을 통하여 배출한 졸업생만도 1만 8천여 명에 달하건만, 19회 졸업생 제군에게 특별한 기대와 관심을 가지는 것은 우리 사회가 여러분과 같은 일꾼을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히 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바야흐로 오랜 곤욕과 낙후의 역사를 씻고 민족중흥의 대행진을 벌이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우리는 장기간에 걸쳐 답보하여 온 저개발상태에서 벗어나 중진 상단계를 향하여 발돋움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역사적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강력한 '리더십'이 요청되는 것은 물론입니다만 "순종이 없는 곳에는 지배가 없다"는 '막스 웨버'의 말과 같이, 우리의 공동 목표를 향하여 꾸준히 일하고 따르는 대중의 노력 없이 지도는 무의미한 것입니다. 그러나 대중은 지도자의 구령만으로 추종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도자의 비전을 이해하고 공명하고 나아가서는 거기에 정열과 노력을 바치는 혼연일치이므로 우리의 비전이 그것을 수행할 수 있는 국민의 의욕의 초점으로서 나타나고 그 비전이 우리의 노력을 집결시키고 보람 있는 결실을 맺어줄 때에 비로소 우리겨레의 중흥의 역사는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한 막중한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여러분은 우리의 이상과 국민대중의 현실을 연결시키는 촉매로서의 기능을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행히 여러분은 배움 속에서 현실을 개척하고 현실 속에서 배우는 우리대학의 특수한 교육환경 속에서 자라왔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은 우리의 현실을 타개함에 있어서 이상에 치우치거나 현실에만 집착함이 없이 양자를 조화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나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졸업생 제군!

대학과 현실의 여건은 판이한 점이 많을 것입니다만 대학에서 터득한 진리가 현실에서 적용될 수 없는 공론일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의 인내와 노력으로써 정성이 정성으로 받아들여지고 믿음과 정의가 그대로 통용되고 진리가 현실을 지배할 때 우리 사회의 어둠은 걷히고 찬란한 빛과 번영이 찾아올 것입니다.

졸업생 제군의 건강과 양양한 전도를 축복합니다.〔『건대신문(建大新聞)』 1970년 2월 27일〕

(17) 「20회 졸업식 이사장 치사: 영광 있을 내일을 믿는다.」

오늘 제20회 졸업식을 맞이하여 본 학원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축하드리는 바입니다.

친애하는 1천여 졸업생 여러분.

여러분은 본교 교시인 성 · 신 · 의 정신 하에 진리탐구를 해왔고 오랫동안 끊임없는 노력으로 늘 성대한 졸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일감호의 여울이 여러분들의 졸업장을 더욱 빛내 줄 것이며, 광활한 캠퍼스의 구석구석에 여러분들의 발자취가 담겨져 있으며, 그 남긴 자취가 영원한 건대의 전통이 될 것을 확신합니다.

지난 4년 동안 돌이켜 보면 우리는 여러 졸업생들과 같이 학구면에서나 건설면에 있어서나 그리고 졸업생의 사회 진출면에 있어서 다른 어느 때보다 빛나는 업적과 장족의 발전을 보였습니다.

학교운영의 책임을 맡은 재원으로서도 여러 가지의 시련을 극복하면서 학교교사의 신축을 비롯하여 교직원들의 처우개선 및 장학제도의 확충 등에 총력을 경주하였습니다. 물론 이는 모두 영재를 키우기 위한 교육행정적인 노력이었음은 두말할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교수 · 학생의 끊임없는 연구와 정진을 위해 재단은 학교 당국과 긴밀한 협조로 모든 일을 협의 진행시켜 왔습니다만 혹시라도 미비점이 있다면 앞으로의 발전을 위해 많은 참고가 될 것입니다.

졸업생 제군!

해마다 졸업식에 임한 때면 아쉽고 벅찬 가슴이 새로운 감회에 젖게 합니다. 본인은 학교 설립 후 19번의 2만여 학사군들이 건국대학원의 문턱을 넘어 가는 광경을 보아왔습니다. 사랑하는 제자를 떠나보내는 듯한 심정은 가슴이 텅 비는 공허감을 남겨놓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쓸쓸한 마음은 사회의 각계각층으로 나아가 국가 · 사회에 유능한 역군으로 충실하고 있는 졸업생의 뒷모습에서 보람찬 심정을 만들어 주곤 했습니다. 본인은 믿습니다. 이번 졸업하는 제군 역시 사회가 필요로 하는 훌륭한 인물이 될 것을, 그렇기에 떠나보내는 아쉬움을 장래의 기대로 달래는 것입니다.

언제나 성실하고 믿음의 반석 위에서 의를 실천해 나갈 것을 본인은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교문을 나서는 제군들에게 일일이 악수를 청합니다. 건강이 깃들고 신의 가호 아래 모든 일이 뜻있게 이루어지길 기원합니다. 성 · 신 · 의의 교시는 항상 여러분의 지침이 될 것이며, 일감호 푸른 물은 여러분의 모습을 비쳐줄 것입니다.〔『건대신문(建大新聞)』 1971년 2월 27일〕

4) 신년사

(1)「1957년 학장 신년사: 지난 10년을 거울삼아 백년대계를 꾸미자」

우리가 이번에 새로 맞이하는 정유년은 단지 해를 바꾸고 계절을 달리한다는 데 그 의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일단 지난 10년의 묵은 책장을 덮어놓고 이로부터 새로이 백년의 대계를 세우는 동시에 그 첫걸음을 내어디디는데 큰 뜻이 있는 것이다.

우리 정대(政大)는 과거 10년의 세월을 통하여 조국 대한이 당하여 온 수난의 역정과 더불어 첩첩히 쌓인 눈물의 고개를 넘고 피의 넝쿨을 헤쳐 왔던 것이다. 그 피가 맺혀서 오늘의 정대를 이룩하고 그 눈물이 어려서 내일의 정대를 만들 것임을 새겨볼 제 그동안 많은 선배 동지 및 동학 제위의 바친 정성과 노력에 대하여 우리는 무한의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10년의 전통 속에는 빛나는 광채와 함께 이를 가리는 구름이 없지 않았으며 찬양한 공로와 더불어 개선하여야 할 병폐도 적지 않았다. 비록 그것이 의식적으로 저지른 과오가 아니고 만연히 되풀이 하여 온 습성에 지나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차제에 자아(自我)를 냉혹히 비판하고 반성하여 허물을 뜯어고침에 서슴지 말아야 할 것이다.

언제나 하나의 새로운 진리가 출현하고 혁신세력이 대두할 때에는 이를 조해하는 반동과의 알력이 없지 않았다. 그러하거늘 우리가 오늘 사소한 마찰을 두려워하고 꺼려서 이를 회피한다면 결국은 대사를 이루지 못하고 시대에 뒤떨어진 낙오자가 되고 말 것이다.

확실히 혁신(革新)은 무풍 안전의 수구생활보다 아프고 쓰라린 것이지만, 이를 극복하고 못하는 것은 우리의 사업을 성패의 관두에서 저울질 하는 '바로미터'가 될 것이다. 우리가 여기에서 독한 마음을 먹고 과거의 모든 정의(情誼)나 습성을 돌보지 않고 혁신의 메스를 들 때에는 거기에 반드시 출혈이 따를 것도 각오하여야 할 것이나, 이것은 결코 적폐의 씨를 그냥 남겨두고 고름(膿)을 덮어두는 위험에 비할 바는 아닐 것이다.

더욱이 우리가 조국의 재건을 국민교육의 터전 위에 세워야 할 것을 주장하고 우리가 이 사회의 모든 정치 경제 문화 군사 등 상층구조가 될 것을 자처하는 이 마당에서 티끌만한 사정(私情)이 흐르고 촌분의 해이가 개재함을 묵과할진데 그 결과는 우리들 자신의 파멸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모든 상부구조의 균열을 초래하고 말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의 교육과 건설의 지적인 "새 인간의 도장"이나 "생활교육의 실천장"도 하나의 공염불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독일의 석학 '피히테'가 독일의 재건 부흥을 독일국민의 재교육에서부터 시작하라고 외친 것은 비단 독일국민에게만 향한 것이 아니라, 오늘의 우리의 입장으로도 허심탄회하게 받아드려야 할 교훈일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역사적 명제를 앞에 놓고 무엇을 주저하고 무엇을 순준하랴. 선철(先哲)은 의(義)를 죽음으로 바꿨거던 이제 우리가 우리 대학과 우리 겨레의 원대한 목표를 앞에 두고 목전의 투안(偸安)을 탐하거나 인습을 답습하는 편리주의를 버리지 못한다면, 우리 교육은 스스로 10년의 탑을 헐어버리고 출발점에 되돌아가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서 여하한 간난(艱難)이 닥쳐올지라도 여하한 장애가 가로막힐 지라도 이를 과감히 박차고 나가서 혁신의 대사업을 완수하여야 하겠다는 굳은 결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다행히 나의 이러한 신념은 재단이사 제위의 적극적 지지를 얻었으며, 또 교직원 제씨의 열렬한 찬동을 얻어 새해부터 경영이나 교육면에 있어서 활발한 혁신의 움직임을 보여줄 것으로 믿는 바이다.

그러나 이 계획은 학생 제군의 협력없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동안에도 학생 제군은 학교 당국과 호흡을 같이 하고 힘을 합하여 허다한 난관을 개척하여 왔으나, 이로부터 더욱 마음을 가다듬고 지향을 같이하여, 우리 대학과 우리나라의 부흥 발전에 이바지하는 힘찬 역군이 되어주기를 바라는 바이다.

혁신 건설의 정유 신춘에 대학관계 제위의 건강과 자중을 빌며.(『정대시평(政大時評)』 1957년 1월 1일)

(2)「1960년 총장 년두사: 건설에 병행한 내용 충실에 주력」

경자(庚子) 신정(新正)을 맞이하면서 지난 1년을 회고하여 보건대 나로서는 참으로 감개무량한 바 많습니다.

본교가 해방 직후에 탄생하여 15개 성상을 지나는 동안에 파란곡절이 많았으나, 교육보국(敎育報國)의 성의를 수유(須臾)도 버리지 않고 노력한 결과, 지난 2월에는 종합대학교(정치대학, 문리과대학, 축산대학, 이부대학)의 승격을 보게 된 것이며, 건설면에 있어서도 괄목할만한 진보를 보았으니, 서울의 심장지대인 낙원동 한복판에 천여 평의 교사를 건축하여 학생들의 강의실로 사용케 하였고, 또 별도로 동관(東館) 5층을 증축하여 교수연구실 · 도서관 등으로 쓰게 되었습니다.

따로이 서울 동편에 자리잡은 장안동 72만평의 교지에는 축산대학을 위하여 7동의 건물을 완성하였고, 다시 그 웅대하고(1500평) 외관의 미려(美麗)함에 있어서 세계적 대표라고도 할 만한 중앙도서관은 현재 건설 도상에 있으나, 신년도에 들어가서 완성이 되는 날에는 백만 장서(藏書)를 가진 학문의 보고(寶庫)를 만들도록 예의 노력할 작정입니다.

건설면에 있어서 문교당국이 지시한 대학기준령(大學基準令)을 배 이상 초과한 실정입니다. 내 스스로 지난해의 자취를 바라보고 기쁨을 금치 못하거니와, 다가오는 경자년(庚子年)의 경륜과 포부를 말하여 둠도 무의미하지 않을까 하여 간단히 피력하여 보려고 합니다.

건설에 병행하여 내용의 혁기적(革期的)인 충실을 도모하려는 것이 이 해의 최고목표라고 하겠습니다. 내용 충실을 위한 개략(槪略)을 말하면, 정치대학 문리과대학 이부대학에 적(籍)을 둔 학생에게는 2대 특수교육을 실시할 작정입니다.

첫째는 내외국 교수의 책임지도하에 특수교육을 실시하여 외국어교육을 강화하자는 것입니다. 적어도 대학 4년을 이수하는 날에는 1개 국어에는 능숙토록 할 것이니, 내가 이것을 강조하는 이유는 앞으로 우리 젊은 세대의 사람들은 적어도 세계를 무대로 활약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대학교육의 본령이 심오한 학문연구에 있음은 말할 것도 없지마는, 실사회와의 연속이 없는 학문이라고 하면 오늘날 우리나라가 요구하는 대학교육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므로 과외활동을 적극 추진하여 학리(學理)를 응용화하고 졸업 후 실사회에 나가서 자기의 진로를 개척함에 필요한 기술을 연마토록 하는데 노력할 것입니다.

다음은 유능한 인재를 많이 배출하는 것이 교육보국(敎育報國)의 길이므로, 특히 명석한 두뇌를 가지고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에게는 장학제를 더욱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2대 장학제도를 실시하려는 것이니

첫째는 종래 있던 성(誠) · 신(信) · 의(義) 삼급의 장학제를 개편하여 9급으로 하였으니, 이것은 많은 장학생을 포섭하려는 것입니다.

둘째는 교비생제도(校費生制度)이니, 이것은 축산대학에 적을 둔 전원에게 실시되는 것이며, 축산대 학생들은 입학금 · 등록금의 전면(全免)은 물론이요, 재학 중 생활비까지 지급하고, 4학년에 가서는 6개월간 정말(丁抹, 덴마크)에 파견하여 실지견학을 시키기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국토의 협착(狹窄)에서 오는 한국농촌의 경제적 불리를 극복할 수 있는 길은 오직 축산에 있다는 나의 지론을 구현화하려는데 있습니다.

건설면에 있어서도 중앙도서관의 준공은 물론이요, 15동의 건축을 마련하여 축산대 학생의 실습시설을 완비할 것입니다.

끝으로 내가 늘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대학은 너무나 딱딱한 분위기에 있지 않나 – 물론 교지의 협소로 인함이지마는– 하는 것을 생각하고 우리 학교는 실로 72만평이나 되는 광활한 교지를 갖고 있으므로, 이런 좋은 입지적 조건을 이용하여 학교야말로 나의 생활도량이라는 신념을 갖도록 하기 위하여, 학교요 농장이요 공원이라는 이상적 교육도량을 만들어 보자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므로써 소음과 압박감에 시달리는 학생들에게 대자연과 호흡을 같이 하며 연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으로서 새로 맞이하는 경자(庚子) 신년에 내가 해보려는 몇 가지를 들어서 연두의 인사말로 하려는 바입니다.〔『건대신보(建大新報)』 1960년 1월 1일〕

(3) 「1963년 이사장 신년사: 새해 새 희망 새 설계, 웅비의 계묘(癸卯) 아침에 부친다」

63년이야말로 우리 학교의 중대한 약진의 계기를 마련하고 결정짓는 해라 아니 할 수 없다. 금년에 12개 학과가 증설되고 농업협동조합대학(農業協同組合大學)이 증설되어, 총 52개 학과로 확충되었다.

그러나 규모의 확충에 비해 정원수는 비례적으로 감소되어, 경영면에 큰 애로를 예기치 않을 수 없다. 그러므로 건곤일척(乾坤一擲)의 과감한 운영을 해야 할 것이며, 친애하는 재단 · 학교 교직원은 전원이 혼연히 일치단결하는 것이 이 난관을 돌파하는 첩경일 것이다.

재단을 더욱 견고히 하여 학교운영의 뒷받침을 위하여 온갖 정성과 노력을 경주할 것이다. 재단으로서 학교에 요청하는 것은 지금까지의 구습적 시책을 타파하고 새 기풍을 진작시켜 줄 것이다. 즉 학장을 중심으로 소속 교강사는 모든 힘을 집중시켜 학생지도에 당해야 한다.

입학 시부터 졸업할 때까지 수업은 물론 과외생활에까지 성심껏 지도하여 우수한 학생을 육성시키는 책임을 다져야 한다. 강의시간에만 나왔다가 그대로 돌아가는 것으로 책임을 다했다고 생각해서는 안될 것이며, 만일 철저한 교육을 몸소 실천해보겠다는 열성을 가진 주인공인 교수가 없는 학과가 있다면 그 학과는 부득이 폐과하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이다. 지성과 책임감에 투철한 사람만이 우리 대학 교단에 설 수 있다.

각 학과 중심으로 사계(斯界)의 권위학자를 더 많이 초빙을 하고 융화단결로서 명실상부한 교육실현에 최대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유명무실한 교육이란 절대로 우리 대학 내에서는 허용될 수 없다. 이와 같은 목적 달성을 위하여 현재 교강사진을 엄중히 검토 중에 있다.

우리 대학이 최근부터 대내외로 신망을 받기 시작했으므로, 이 비상시를 극복한다면 전도(前途)에 서광(瑞光)이 비치리라고 확신한다.

계묘년(癸卯年) 이 해가 우리 대학이 한국교육계에 군림하느냐, 불연(不然)이면 그대로 '만네리즘'에 빠진 채 후퇴하느냐 하는 중대한 시련기에 놓여있음으로 교직원 제위와 학생 제군은 이 점 깊이 명심하고 가일층의 분발 있기를 희망해 두며 새해맞이 소감으로 다짐해둔다.〔『건대신문(建大新聞)』 1963년 1월 10일〕

(4) 「1970년 이사장 신년사: 70년은 약진의 해, 불굴의 의지와 힘찬 정열로 대단원의 목표 향해 나가리」

친애하는 건국대학교 교직원, 학생 및 동창생 여러분!

나는 금년을 비약의 해로 생각하고 여러분과 더불어 더 높이, 더 멀리뛸 것을 다짐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다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나는 올해 벌써 70의 고령에 이르렀습니다. 공자는 '칠십이종심

소욕불유구(七十而從心所欲不踰矩)'라 하였지만, 나는 여러분의 대열에서 뒤떨어지지 않기 위하여 남보다 더욱 기운을 내고 힘차게 달려야 할 것을 결심하였습니다. 늙었으니까 이제는 점잔을 빼고 갈지자 걸음을 걷자는 것이 아니라, 늙으면 늙을수록 더욱 부지런히 일하고 빨리 달려야만 이 시대의 낙오자가 되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한편, 우리 건국대학교는 금년에 개교 24주년을 맞는 발랄한 청년기에 접어들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이끼 낀 전통, 곰팡이 내 나는 인습은 없을지라도 굽힐 줄 모르는 의지와 힘찬 정열이 있습니다. 갈등과 방황 속에 지새던 유년시절을 먼 날의 추억으로 돌리고, 이제 우리는 주어진 막중한 사명과 선명한 지표를 향하여 돌진하지 않으면 안 될 시점에 다다랐습니다. 사소한 장애나 자질구레한 정실은 우리가 설정한 대단원의 목표와 용솟음치는 정열 앞에서 한낱 '당랑지부(螳螂之斧)'에 지나지 않습니다. 하물며 우리가 수행하여야 할 앞으로의 2년의 과제가 지난날의 20년의 과제보다도 더 어렵고 무거운 것일진대, 언제 좌고우면 하고 주저 방황할 겨를 있겠습니까?

다시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은 오랜 침체와 후진의 구렁에서 헤어나 바야흐로 중진 상 단계를 향하여 약진의 발돋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쫓아가려 하는 선진국, 우리를 쫓아오는 후진국인들 어찌 전진을 멈추고 우리의 걸음을 바라보고만 있겠습니까? 치열한 경쟁과 각축하는 세력의 틈바구니에서 우리가 뒤떨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남보다도 더욱 열심히 일하고 피눈물 나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토인비가 지적한 바와 같이 유전하는 현대 생활 속에서 우리가 탐하는 소안(小安)은 결과적으로 그 몇 갑절 되는 대실(大失)을 가져올 것입니다. 달음박질 쳐도 따라가기 어려운 현대의 변천 속에서 우리가 만일 수주대토(守株待兎)의 어리석음을 범한다면 우리는 현상유지의 보수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전진하는 문화대열에서 멀리 떨어진 후진의 고아가 되고 말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북괴와의 대치 상태에서 그들의 침략을 봉쇄하고 대망의 통일 과업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향상은 단지 고급주택이나 비단 옷과 같은 소비 성향 만의 상승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국력을 배양하여 그들로 하여금 감히 침범의 오산을 범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1970년대는 우리 국민 각 개인이나 우리 대학이나 우리 민족 전체에 있어서 환골탈태(換骨奪胎)의 중요한 시기가 될 것이며, 그 웅장한 첫걸음은 바로 금년에 내딛어야 한다는 점에서 1970년이야말로 우리 민족 사상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전진하는 우리 민족의 대열에서 훌륭한 길잡이가 될 것을 확신하며 나는 비록 노구일망정 그 대열에서 북을 치는 고수가 되고자 합니다.

800년 알프스의 준령을 넘는 프랑스 군대의 사기를 돋우기 위하여 천인만장(千仞萬丈) 계곡에서도 북을 치던 한 소년처럼, 내 비록 눈구덩이 속에 묻힐지라도 이 목숨 다하기 전에 북치는 손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건대신문(建大新聞)』 1970년 1월 20일〕

(5) 「1971년 이사장 신년사: 힘찬 전진, 긴밀한 협조를」

다사다난 하였던 1970년을 보내고 더욱 큰 발전을 기약하는 1971년을 맞이하게 된 것을 경하합니다. 말할 것도 없이 현재는 과거의 연속이요, 미래 역시 현재의 토대 위에 구축될 것입니다. 따라서 1971년은 1970년과 단절된 것이 아니라 그 연장이요, 그 기초위에 이룩될 발전의 시간입니다. 돌이켜보면 지난 1년 동안 우리는 학구 면에 있어서나 건설 면에 있어서나 졸업생의 사회진출 면에 있어서, 다른 어느 때보다도 빛나는 업적과 장족의 발전을 보였습니다. 그것은 총장님을 비롯한 교직원 제위의 뛰어난 지도력과 이에 호응하는 학생제군의 비상한 노력의 결과로서 깊이 감명하여 마지않는 바입니다.

한편 학교 경영 유지의 책임을 맡은 재단으로서도 여러 가지의 시련을 극복하여 학교의 시설이나 교직원의 처우 및 장학제도의 확충에 필요한 재원의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여기에 직접 참여하신 이사나 각 기업체 직원은 물론, 이들을 음으로 양으로 돌아보아주신 관계인사 제위에 대하여도 심심한 사의를 하는 표하는 바입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1971년 중 우리는 양대 선거를 치러야 하며,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사태에 대처하여야 할 것입니다. 동시에 70년대를 무력통일의 결정적 시기로 잡고 있는 북괴의 빈번한 도발 내지 침략 행위에 대하여서도 충분한 대비책을 마련하여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북괴, 중공 및 소련의 삼각관계와 '닉슨 독트린'의 작용에 따를 우리들의 대응책도 아울러 강구되지 않을 수 없는 복잡다다한 시점에 다다랐습니다.

이러한 국내의 정세 속에서도 우리 대학은 1971년을 가장 알찬 발전의 해로 설정하고, 우리의 목표달성을 향하여 일치단결하는 노력을 경주하지 않으면 안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미 오래 전에 설립하여 상당한 전통을 쌓아온 법경대학, 이부대학, 문리과대학, 축산대학, 농과대학은 각각 사계의 권위자를 초청하여 훌륭한 교수진을 정비하였을 뿐만 아니라, 내부시설도 상당히 갖추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급격히 발전하는 세계의 조류에 발맞추어 나가기 위해서는 더욱 방대하고 정밀한 연구, 실습, 시설을 갖추어야 할 것이며, 또 교수의 해외 교류도 더 활발히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특히 신설 대학 공과대학과 가정대학에 있어서는 거의 전면적이며 대표적인 시설 확충과 교수초빙을 단행하지 않으면 안 될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대학원에 있어서도 더욱 힘찬 전진을 위한 제반 준비가 갖추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행히 공과대학과 문리과대학이 이학부에 소용되는 상당량의 실험 실습 기재가 외국으로부터 도입되었으며, 앞으로도 더 많은 시설과 기재의 도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가정대학은 목하 총 건평 1천 7백평에 달하는 웅장한 건물을 신축 중에 있으며, 71년 5월까지는 외곽시설과 내부시설이 함께 모두 갖추어질 것입니다.

재단이 제아무리 학교 경영에 발분망식(發憤忘食)하고 총장이하 전 교수 진영이 교육에 열중할지

라도, 학교 시설물을 이용하고 교육을 받아들이는 학생제군이 스스로 연구와 학술에 노력하지 않는다면, 우리들이 지불한 모든 노력은 물거품과 같이 허무한 것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그동안 학생 제군은 면학의 자세를 바로 잡고 건대 중흥의 기치 아래 비상한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학생 제군이 발표한 논문이나 세미나, 심포지움 등을 통하여 우리는 학생들의 진지한 학구적 노력을 볼 수 있었으며, 이것은 1970년도 졸업생들의 은행, 회사, 관공서의 대량 진출에 있어서도 역력히 나타났습니다. 또 체육, 농촌 봉사, 정서 활동, 종교 활동 및 기타 자치 활동에 있어서도 학생 제군의 활약은 눈부신 바였으며, 그 전통은 후배들에 의하여 더욱 발전적으로 계승될 것을 확신합니다.

재단이나 학교 당국이나 학생제군의 이러한 노력이 집대성하여 한 대학교의 발전을 이룩하는 것일진대, 여기에서 가장 절실히 요청되는 것은 각 부분의 개별적 행동보다, 전체로서의 유기적 발전이며, 상호협력이라고 믿습니다. 새삼 단결의 필요성을 역설하는 것은 쑥스러울 만큼 진부한 이야기입니다만, 오늘처럼 긴박한 정세 하에서는 그것이 아무리 강조되어도 지나치다고는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순수한 학문적인 면에서 볼지라도, 오늘의 과학상의 성취는 '뉴턴'이나 '에디슨'의 개인적 총명에 기대하던 시대와는 전적으로 사정이 달라졌습니다.

방대한 시설과 수많은 두뇌와 수 천 수 만의 손과 그것을 뒷받침하는 더 많은 사람의 경제적 지원 없이는 오늘의 과학적 진전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바라건대, 1971년은 지금까지 우리가 알알이 쌓아 올린 업적을 더욱 보람 있게 계승 발전시킬 것이며, 그것을 위하여 재단 임직원, 학교 교직원 및 학생 제위의 긴밀한 협조와 노력이 있기를 기원합니다.『건대신문(建大新聞)』 1971년 1월 15일〕

5) 송년사

(1)「1955년 학장 송년사: 을미년은 저무러지다」

을미년(乙未年)이 저물어 간다. 또한 해방 10년의 막이 닫쳐진다.

그동안 인류세계는 사상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극도의 혼돈과 착종(錯綜) 속에서 때로는 반동야욕의 화염 위에 귀중한 진보를 불살라 버리고, 때로는 침략마수의 칼날 앞에 고귀한 자유의 출혈을 강요당하면서 바야흐로 또 하나의 연륜을 금 긋고 있다.

한국은 이 역사의 '스테지' 위에서 만신에 각광을 받으면서 창이(創痍)의 쓰라린 몸을 비극의 주인공으로 허(許)하여 왔다. 이 시대환경 속에서 호흡하여 온 우리 대학의 처지는 어떠하였던가. 학문에 국경이 없다 하더라도 대학에 조국이 없을 수 없다. 정치대학의 운명이 역사와 조국의 거센 풍랑

속에서 혹은 앞서고 혹은 뒤서면서 그 걸음을 같이 하고, 부침소장(浮沈消長)을 함께 하여 왔음은 또한 당연한 일이다. '8 · 15' '6 · 25' '9 · 28' '1 · 4'의 높고 낮은 파도가 물결 쳐 오는 동안에 자자영영(孜孜營營)히 쌓고 모은 우리의 문화재는 대부분 상실되고 학문은 굶주리고 헐벗은 채 값싼 상품시장에서 '담핑'되고 있었다.

우리 문화사상 일찍이 보지 못하던 깊은 밤 눈보라 치는 겨울이 학원을 엄습한 것이다. 그러나 "자연은 언제나 돌아가는 것이라"고 '호라튜-스'는 말하였다. 과연 그럴진대 밤은 새벽을 위하여 겨울은 봄을 위하여 없을 수 없는 하나의 과정일 것이다.

우리 한국이 6 · 25를 가지지 않았던들 우리는 자유를 이렇게 사랑하고 자유를 위하여 이렇게도 굳게 결속하지 못하였을 것이다. 한때 이 땅에 무지와 폭행이 그렇게 횡행하지 않았던들 우리는 양식(良識)의 귀하고 진리의 중함을 그다지도 뼈저리게 느끼지 않았을 것이다. 혹자는 말하여 오늘의 사태의 암담 혼미함은 우리 민족성의 결함에 기인한 것이라고 하나, 이 한 마디로 규정짓기에는 현재의 우리들의 입지조건은 너무도 복잡하고 다원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다 할 것이다.

멀리 고구려의 강성과 신라의 문화를 가졌고, 가까이 세종의 치(治)를 자랑하던 우리 민족이 이제 하필 여기에서 차질되고 전도될 리 없거늘 객관의 책임을 억지로 주관에 의하여 설명하려 함은 그 이유의 상당함을 발견하기에 어려울 뿐만 아니라, 자칫하면 사관(史觀)의 그릇된 표준으로써 중대한 '아나크로니즘'에 빠질 염려도 없지 않다 할 것이다.

그러나 나는 이렇게 말함으로써 우리들 자신의 모든 책임을 해소하고 초연히 역사의 흐름을 방관하려는 것은 아니다. 여기에 이르른 책임이 누구에게 있든지 간에 이것을 숙정(肅正)하고 곽청(廓淸)할 책임은 우리 자신에게 있는 것이다. 우리는 오늘의 한국의 무지와 혼란을 부끄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바로잡겠다는 정성과 노력의 부족을 부끄러워 할 따름이다. 우리나라의 경제적 건설이 남의 원조만으로써 이루워질 수 없는 것처럼 우리의 학문과 문화는 더 한층 우리 자신의 소재와 노력으로 결합 성취를 절실히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다행히 만근(輓近)의 우리 대학의 학풍은 소극으로부터 적극으로 피동으로부터 능동으로 청년학도의 정열을 기울여 과학의 밭을 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성실을 다하여 진리의 문을 두드리는 소리를 듣게 한다. 나는 이들의 진지한 태도를 바라볼 때 감감하고 숨가쁜 현실 속에서도 빛과 산소의 용기를 얻는다. 또 최근 우리 대학의 학도호국단이나 학회의 활발한 자치활동에 대하여 커다란 흔희(欣喜)와 기대를 금치 못하는 바이다.

이와 때를 같이하여 우리 재단에서는 장안동 일대의 광야에 대학의 새 터를 닦고 새 뜻 새 집을 세워 작금의 엄동 속에서도 매일같이 한 그루 또 한 그루의 나무를 심고 한 장 또 한 장의 벽돌을 쌓아 올리고 있다. 이것은 바로 일층 일층 학생제군의 지식의 탑을 높이는 것이요, 일촉일촉(一燭一燭) 진리의 등불을 밝히는 것이 될 것이다. 이리하여 이곳에는 문화의 성림(聖林)이 우거지고 과학의 전당이 들어 찰 것이다. 머지않아 우리에게는 위축과 국척(跼蹐)의 낙원동 고소로부터 두 활개를 펴고

마음껏 날아 갈 비약의 신년이 올 것이다. 그러나 제군의 비상의 고도를 안정시키는 것은 건물의 넓이나 높이가 아니라, 오직 학생들 자신의 학구와 노력의 분량에 비례할 것이다.〔『정대(政大)』 1955년 12월 22일〕

(2) 「1956년 학장 송년사: 창립 10주년을 보내면서」

병신년(丙申年)도 어느덧 저물어 간다. 또한 우리 대학 창립 만10주년의 기록이 일기(一期)를 금 그어 새 페-지로 옮겨가고 있다. 유원(幽遠)한 시간에서 인간이 한 토막 금 그어 이름 지은 이 병신년이 그리 독별(獨別)한 존재는 아니련만, 그래도 우리 대학에 있어서는 10년의 임신기를 치러 다시 앞날의 대몽(大夢)을 낳은 산실로써 진통과 피 · 땀이 어린 자취가 역력히 묻어있는 한 '해'라는 것을 생각할 때 이 '해'의 고갯마루에서 서로 갈라지는 설음이 결코 적지 아니하다.

이제 우리 대학은 만 10주년을 일기(一期)로 하여 또한 역사적 유서 깊은 서울 성시(城市) 아차산 앞 기슭 한복판에 자리 잡아 말없이 천고(千古)의 신비를 감춘 채 유유히 구비쳐 흐르는 한강수에 둘러싸인 장안동 새 터에서 새 집 새 살림을 시작하는 이 대몽이 깃들인 시공점(時空點)을 계기로 하여, 우리는 지난날을 회고하며 다시 앞날을 위한 새로운 준비를 마음껏 가지게 되었다.

그리하여 이제 교육 · 건설 · 재단의 세 갈래로 나누어, 지난날의 업적에 대한 총결산과 더불어 앞날의 진로에 대하여 또한 새로운 각도로 그 주축을 돌리고 있다. 이것은 우리 대학에 있어서 하나의 귀중한 전환기이며 또한 혁신을 감행할 좋은 '찬-스'로서, 우리는 이때에 이런 '메-스'를 대고 많은 출혈을 보이지 않고서는 결코 앞날 새로운 비약과 진보를 기도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 대학이 걸머진 조국 흥패(興敗)의 역사적 사명을 완수할 수 없기 때문이다.

첫째로 우리 대학은 앞날 '새 교육'을 지향하는 제1차 혁신의 봉화로서 "허물고 다시 짓자"의 새 표어를 내걸고 만 10년간을 자라난 우리 대학의 교육내용 각부 각과 지도자 및 교강사 진용 기타 인사관계 모든 제도 온갖 풍습 학습태도 과외활동 그리고 이미 자리 잡은 사고방식에 이르기까지를 통틀어 허물어버리고, 이 모든 것을 새로 쌓아올리기 시작하였다.

그리하여 한편으로는 교육연구기관의 창설과 더불어 새 교육을 지향하는 모든 내용이 새로운 편성 모든 진용의 새로운 정비를 단행하는 등, 실로 앞날의 준비를 여러 각도로 급급히 하고 있다. 이것은 현재 단순한 사회과학대학 정치대학의 앞날을 위하여서만이 그러는 것이 아니고, 우리 대학의 교육을 크게 넓혀 안으로는 우리 대학의 장래 할 인문계 및 자연계의 학문에 대한 모든 준비를 행하는 것과, 밖으로는 다시 앞날 일반국민에게 재교육을 실시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모든 태세를 갖추는 데에 그 뜻이 있는 것이다.

그 중에서도 특히 우리 대학의 교훈인 '성 · 신 · 의' 3자를 정신으로 한 도의교육과 우리 대학의 교육계획인 생활교육을 본체로 한 인문 및 자연계의 교육을 완성하는 데 있어서 각별한 정력을 기울이

고 있다는 것을 여기에 미리 말하여둔다. 그 다음 둘째로서는 그동안 장안동에 건설하고 있는 우리 대학의 건설상인데, 이 건설면에 있어서도 또한 두 가지 지표 즉 '새 인간의 도량(道場)으로서'와 '생활교육의 실천장으로서'의 두 목표를 내걸고 이런 교육이 저절로 되어 지도록 이런 도량 저런 시설을 꾸며 올리기에 이 곳 저 곳에서 '함마' 소리가 요란하게 들리고 있는 것이다.

그러기에 이 지대의 여기저기에 심어지는 한 그루 한 그루의 나무, 이곳저곳에 우뚝우뚝 솟아오른 하나하나의 건물, 이런저런 모양으로 만들어지는 하나하나의 정원 · 농원 · 풍경물 · 토목건조물 등은 다같이 이런 교육목표에 들어맞도록 만들어지는 것이다. 그리하여 여기에 이런 모든 시설과 환경이 갖추어질 때에는 우리는 여기를 교육총부(敎育摠部)로 하여 우리 대학 학생에게 그런 모든 교육을 실시할 것은 두말할 것도 없고, 다시 나아가 전국민에 걸쳐서 우리가 뜻하는 재교육을 남김없이 실시함으로써, 한편으로는 국민의 생활토대를 고루 닦고 다른 한편으로는 국민의 문화수준을 이끌어 올려 이런 국민을 만들어 놓은 그 위에 정치 경제 문화 군사 등의 상층구조를 받들어 올리게 될 때, 이 나라 이 사회는 비로소 바로 서고 명랑해지고 또한 번영을 가져 올 것은 두말할 여지조차 없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 대학이 뜻하는 교육계획으로서, 우리나라는 그 자체가 가진 수많은 병통(病痛)과 결함 때문에 아무리 위대한 정치가가 등장한다 하더라도, 이 병원(病源)부터 손 댈 줄 모른다면 한갓 도로(徒勞)에 그치고 말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앞날을 바라보며 우리의 뜻을 가다듬고 새 희망과 온갖 열정과 갖은 정성을 다하여 이 모든 건설을 하루 바삐 힘차게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 우선 제1차 계획으로 70만 평의 지대에 걸쳐 건설하고 있으나 우리가 뜻하는 교육총본산으로는 너무나 척수(尺數)가 모자라서 잣대를 댈 때마다 많은 고충을 느끼고 있다.

그 다음 셋째로는 우리 재단의 '힘'을 더욱 크게 만드는 일이다. 10년을 하루같이 쌓아올린 우리 재단은 이제 병신년을 보내고 정유년을 맞이함에 있어서 다시 새로운 표어로 "보다 더 큰 재단을 만들자"를 내걸고, 지금까지 쌓아올린 토대 위에 다시 더 고층을 쌓아올려 막강의 재단을 만들어보자는 것이다.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단의 힘만 하더라도 남부럽지 않은 여력을 가지고 있으나 이것만으로는 우리가 뜻하고 있는 우리의 대몽(大夢)을 달성하기에는 많은 불급(不及)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또한 이 재단 확충에 다함께 우리의 정력과 성의를 모아야 한다. 이상이 저물어가는 병신년의 우리 대학의 움직이는 모습 그대로이다.〔『정대(政大)』 1956년 12월 25일〕

(3) 「1957년 학장 송년사」

다사다난하던 정유년(丁酉年)이 저물어갑니다. 이 해는 동탕(動蕩)하는 세계사의 흐름 속에 중대

한 일석(一石)을 던지는 계기를 조성하였을 뿐만 아니라 우리 정치대학(政治大學)의 역사 위에서는 영원히 지워질 수 없는 획기적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즉 우리는 지난 1년 동안에 우리 대학의 5개년 건설계획의 제2차 년도 계획을 완수하여 '대학 설치 기준령'에 규정된 각 부문의 표준을 훨씬 초과하였으며, 나아가서는 3개 대학 12과를 포함하는 종합대학의 시설기준에도 무난히 통과되었던 것입니다.

대학의 시설과 외양에 있어서 서상(叙上)의 진보 발전을 이룩하였을 뿐만 아니라 교육내용에 있어서도 우리는 연두에 기약하였던 '혁신'의 목표를 향하여 꾸준한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습성이 편리하다고 해서 합리 합당한 새 원칙의 채택을 주저하지 않았으며, 출혈을 겁내서 '메쓰'를 포기치 않았던 것입니다.

그 결과 성(誠) · 신(信) · 의(義)의 정대 인간형을 중심으로 하는 도의교육(道義教育)의 강조, 교수법에 있어서의 연역법 치중에 대한 귀납법의 병용, 개성 발전을 위한 '그룹'활동의 강화, 교재 출판의 민속(敏速), 학생 자치활동(活動)의 명랑화 등, 여러 분야에 걸쳐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코 완선완미(完善完美)한 것이 아닙니다. 아직도 목표에 도달하기까지에는 요원한 거리가 있으며, 이상에 비하면 창해일속(滄海一粟)과 같이 적은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도 이것이 우리 대학의 역사를 창조하여 나가는 데 있어서의 획기적 시간이었다고 믿는 것은 그 동안에 우리가 성취한 일의 양보다도 앞으로 성취하고자 하는 의욕과 발판이 굳건히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신라나 로마의 문화는 그 맺힌 과실의 아름다움보다도 그 싹과 이것을 가꾼 노력의 귀중함에 더욱 큰 가치가 있고 불멸의 향기가 풍기는 것입니다. 정치대학(政治大學)이 또한 영세에 빛나는 문화재를 남길 수 있을진대, 그것은 지금 여러분의 손으로 개척되고 있는 허허벌판 속에 배양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현실을 국내 굴지의 몇몇 기성대학에 비교하여 볼 때, 어떤 특수부문을 제외하고는 일반적 시설이나 업적에 있어서 손색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만, 우리가 여기에 조금도 실망하거나 긍지를 잃지 않고 있다는 것은 우리는 현실 속에 사느니보다 미래에 살고 또는 그 의욕에 노를 젓는 노력 속에 살고 있기 까닭입니다.

학생 여러분! 다시 시야를 조국과 세계 국면에 돌려보십시오.

국제간에는 불합리한 무장평화 상태가 간신히 유지되고 있으나, 그 파탄은 언제 어디서 일어날지 예기할 수 없으며, 자유는 곳곳에서 막대한 출혈 시련을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국토 통일과 주권 완정의 전도(前途)는 암담한 것이 있으며, 민생과 부흥 문제도 낙관을 불허하는 형편에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대학이나 대학생이 만연히 지난날의 인습을 답습한다는 것은 민족의 선구 국가의 동량으로서의 시대적 사명을 망각한 소이(所以)이며, 후일의 생존경쟁의 마당에서 낙오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이에 우리는 과거의 타성을 준열히 비판 반성하고 숙연히 옷깃을 여미어 새해를 맞는 준비를 갖추는 동시에, 새 시대의 새 일꾼이 되도록 심신을 가다듬어야 할 것입니다.

지어(至於) 나 개인의 심경으로서는 인생의 황혼을 독촉하는 제야(除夜)의 종성(鐘聲)이 한없이 서글피 들려옵니다만, 계기하는 정치대학의 생명은 이 한 금의 연륜의 증가로 말미암아 더욱 신진대사를 왕성히 하고 생성 발전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내 개인의 석양의 적막보다도 우리 대학의 눈부신 아침햇살 속에 무한한 환희와 만족을 느끼는 것입니다.

정유(丁酉)의 종언을 고하는 제야의 종소리와 함께 '불도-쟈'의 우렁찬 '엔진'소리를 들으며 나는 지난 1년 동안 학생 여러분이 겪어온 노고와 협력에 대하여 충심으로부터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신년에는 더욱 큰 발전이 우리 대학과 여러분 위에 같이 있기를 바라 마지않습니다.『정대(政大)』 1957년 12월 15일)

6) 담화 및 격려사

(1)「우리 대학의 앞날」

우리는 우리의 앞날을 말함에 앞서 지난날을 돌이켜보고, 우리 대학의 창립정신을 회상하여 거기에서부터 미래를 더듬어 나가 보기로 한다.

꿈에도 그리던 조국을 도로 찾은 우리는 어찌하면 다시는 외국의 침범을 받지 않고 평화스럽고 만족하고 행복된 생활을 영원히 누릴 수 있는 아름다운 나라를 만들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을 유일한 염원으로 하고 공통한 명제로 삼아왔던 것이다.

이 목적 달성과 숙제 해결을 위하여서는 우리나라의 위치와 여러 가지 환경조건으로 보아 우리 한국을 '과학의 나라'로 만드는 것 외에 다른 방도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다. 우리가 흔히 과거를 치켜들고 역사를 자랑함은 거기에서 쌓아올린 경험의 축적이 새로운 발전에의 토대를 형성한다는 것 외에는 아무 의미도 없는 것이다.

결코 과거나 역사 그 자체가 현재의 우리 생활을 풍부하게 하고 미래의 희망을 밝혀주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헛되이 역사의 길을 빙자하여 실속 없는 외형을 찾고 알맹이 없는 소절(小節)에 구애되어 비과학적인 인습 속에 허다한 시간을 낭비하여 왔던 것이다. 이제 이 허식의 껍질을 벗기고 내용이 충실한 현대적 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서는 무엇보다도 우리의 생활을 과학화하고 우리 정신을 과학적으로 무장하고, 우리의 국가적 운명을 과학적으로 해결하는 데 있다할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과거에 타성적으로 답습 연장하여 온 사고나 생활방식을 합리화하고 과학화하는 원동력을 어디에서 구하여야 할 것인가. 이것은 두말할 것도 없이 '교육의 힘'에 의거하여야 할 것이다. 그것도 종전의 주입식 교육의 만연한 연장이 아니라, 어떤 목적의식적인 새롭고도 특수한 방법

에 의하지 아니하고서는 우리의 염원을 달성하기 곤란할 것이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새롭고 특수한 방법이란 무엇인가. 그것을 설명하기 위하여 우리의 의도하는 교육의 내용과 종류를 고찰하여 보기로 하자. 첫째 교육의 내용은 3단계로 나누워져야 할 것이니 그 제1단계는 정신교육 즉 입지교육(立志敎育)인 것이다. 이것은 재래의 동양식 낭만주의의 '그날 그날 식' 취생적(醉生的) 인생관을 청산하고 국가사회의 생성과 발전에 개체의 운명을 결부시키는 공적 인생관 내지 사회관을 확립케 하는 것이다.

제2단계의 교육내용은 우리의 산만한 사고방식과 생활행동을 조직화하고 과학화하는 것이다. 그리하기 위하여는 우리 두뇌의 조직화와 과학화를 위한 교육이 반드시 필요한 소이이며, 겸하여 경제적 머리까지 여기에 붙여주어야 한다. 제3단계는 각자가 지망하는 전문기술교육을 그 위에 받게 하여주는 것이다.

둘째로, 교육의 종류는 학생을 상대로 하는 학교교육과 일반국민에게 새 지식, 새 기술을 고루 부여하기 위한 대(對)성인교육 즉 일반사회교육의 두 가지를 말하는 것이니, 이 두 교육이 유리 독립하여 파행함이 없이 대학교육의 확대로서 서로 관련 병진하게 될 때 교육의 효과는 비로소 크고 넓게 될 것이며, 이리함으로써만이 이 나라 이 국민을 고루 새로운 생활로 옮기게 할 수 있는 것이다.

이상에서 약술한 것이 바로 우리 대학의 설립정신이며, 이 정신을 관철하기 위하여는 이런 광범위의 교육을 행할 수 있는 방대(尨大)한 교육시설이 소요되고, 그 다음으로는 질 · 량 공히 높고 많은 내외국인의 교수진, 기술진이 정비되어야 되게 된다.

여기에서 우리는 이 뜻을 이루기 위하여 제1단계로서 재단의 확충 강화에 전력을 기울이게 되었다. 그리하여 낙원동 고소(古巢)를 근거로 하여 와신상담 10개 성상에 길러온 우리 살림은 국내굴지의 대재단을 이루었으며, 앞으로도 계속 확대 강화될 확실한 전망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되자 우리는 작년부터는 다시 교육시설의 확충에 힘을 기울이게 되어 우선 제1차 계획으로서 장안동 일대에 약 70만평의 기지를 건설터전으로 하여 작년부터 제반 토목 · 건축 및 조림에 착수하여 앞으로 수년 내에는 중앙도서관, 본관, 대강당, 대학원본부, 인문계의 3개 대학과 자연계의 5개 대학의 교사 및 각 단과대학원, 기숙사, 체육관, 기타 수많은 건물이 건조될 것이며, 육상경기장, 야구장, 호수, 기타 각종 운동장 등이 만들어질 것이다. 여기에 대한 자세한 설계는 본 대학 건설사무소에 비치된 계획 기능도를 참조하면 요연할 것이다.

그리고 특히 한 가지 부기할 것은 전기 각 대학에 부설될 실험실 · 공장 · 목장 · 농장 · 임업시험장 등은 그 하나하나를 단위로 하는 '도장'으로 건설하게 되는 것이다. 그리하여 여기서는 교수와 학생이 숙식을 함께하며 연구와 작업을 같이 하여 교실에서 배운 이론이 실험될 뿐만 아니라 그 원리를 몸소 체득하여 각자의 생활 속에 젖어 들어가게 함과 아울러 정신의 수련까지 받게 되어 장래할 조국건설의 각 분야에 걸쳐 진실하고도 억센 일꾼으로서 일할 수 있는 인간을 길러내자는 데에 그 뜻이 있는 것이다.

그리고 교수진의 강화 문제에 있어서는 국내의 우수한 학자를 초빙하여 집현취수(集賢聚首)의 전당을 만들 것이며, 또 선진국가의 훌륭한 학자나 기술자를 빙청(聘請)하여 내외 학자 간의 상호연마 합작으로써 명실상부한 이 나라의 지식의 '브레인'을 만들려는 것이다.

이것으로써 나는 본 대학 경영자의 입장에서 우리 대학의 앞날에 대한 약간의 의견과 계획의 일단을 개진하였다. 그러나 우리 대학이 금후 면목을 새로이 하여 한국사회와 교육계에 커다란 걸음을 내어 디디려함에 있어서는 위에서 말한 건설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고, 보다 더 학생제군이 학교당국과 호흡을 같이 하고 보조를 맞춰 나가는 데 있을 것이며, 한 걸음 더 나가서는 학생제군의 넘치는 학구열이 학교 당국자로 하여금 거기에 맞는 새로운 환경을 조성 제공하지 않을 수 없는 정도에 이르도록 하는 것이다.

이렇게 될 때 나는 이 대학을 이끌어가는 주인되기보다도 학생제군에게 이끌려 가는 나그네 됨을 더욱 만족하여 갈 것이다.(『정대(政大)』 1956년 2월 25일)

(2) 「학문의 자기 주장: 획선을 긋는 시대의 각광 띄고서」

간난(艱難)과 신고(辛苦)의 인생행로 위에 만화방창(萬化方暢)의 학문의 성시(盛時)를 개척한 선인들의 노고의 결과를 총비판하고 정리하고 포섭한 단계에 처한 시대적 혜택이 호수와 같이 밀려오고 밀려가는 감각의 중심점에 섰으니, 한 걸음을 내디디는 것은 그대로 새 시대의 전개를 의미하고, 그 고민에서의 극복을 기대할뿐 아니라 새로운 경지가 우리의 호흡 속에 들어오리라는 갈급(渴急)한 세인들에게 참된 생활의 지침이 되어야할 것도 이 또한 운명적 필연이라 아니할 수 없다.

전 시대는 후 시대에 조건과 자료를 제공하는 준비적 역할을 하는 것이 역사이므로, 오늘이라는 시간과 역사의 조류에 씻겨 나온 공간은 그대로 오랜 모든 과거의 업적의 총재(總財)를 어느 의미로서 그 유산을 거름으로 한 전토(田土) 위에 그 모든 것을 토대와 발판으로 한 위에 건설의 사명이 부과된 요청이 아닐 수 없다.

우리는 우리 조상들이 지어놓고 입다가 벗고 간 옷을 입고서 그들이 만들어놓은 환경 속에서 호흡하며 그들이 만든 생활양식 속에 생을 유지하도록 상속되어 있으니, 평면적으로 보나 또는 영원이라는 무한궤도 위에서 그 주축을 이끌고 가는 입체면에서 보나, 나가서는 선인들이 이 기대를 이루지 못하고 간 인간세계의 기본적인 문제를 저상(阻上)에 놓고 그것을 과제로 하여 아직도 한 번도 가보지 못하고 찾아 만져보지도 못하고, 또 그 속에 생활해 보지도 못하였으나, 염원 속에서 편시(片時)도 떠나지 못하는 그 목표를 이제는 찾아서 우리 생활 속에다 제공해주리라는 그 벅찬 희망을 남기고 간 그것을 이제는 희망으로서가 아니고 현실로서 실증하는 체험으로서 완전히 인류의 공동의 소유가 되고 살림살이가 되도록 하여야할 때가 온 것이다.

이상은 그 실현을 보는 때까지의 존재가치가 있고, 여기에 온갖 피땀이 제공되고서도 여전히 이상

은 이상대로 구름 속에서 인류를 부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주고서 나려온 것이 모든 사승(史乘)이다. '산외(山外)에 유산(有山)하니'하던 선인의 말이 그대로 '노중(路中)에 다로(多路)하니'로 되어 '태산(泰山)이 높다 하되'하는 선각자들의 안타까운 심정을 채찍질 하여 더듬고 헤매고 찾고 보니 그 밖에 또 있고 만남에 보다 나은 경지(境地)가 있어 여전히 불만의 안개가 앞을 횡행하고 있으니 '예술은 길고 인생은 짧다'는 말로서, 또는 인생의 무상을 노래하고 간 또는 이 안타까운 정경을 그대로 시로 예술로 음악으로 그리고 이것이 종교로 나가서는 퇴폐적인 행동철학으로서 자포자기하는 것으로 사편(史片)을 수놓아 온 것이니, 이것이 그대로 인생이오, 이것이 그대로 인간생활이고, 그것대로 학문의 구극(究極)이 되는가 하고서 나왔으니, 어느 것이 속는 것인가, 어느 것이 바른 것인가, 어느 것이 밝은 세계인가하는 회의가 곧 전체의 맘을 지배하게까지 되어졌다.

학(學)의 세계에서 어느 한 줄거리를 붙들고서 더듬어 들어가도 이 지경에 부딪히고 우리의 생활한 토막을 시험대에 놓아도 역시 그 결과인지라, 윤회하는 것인가. 결과가 원인이 되고 또 그것이 되풀이되니 변증법은 결과로서 극히 짧은 일면을 보여준 단편의 논증에 불과한 방식인가. 따라서 이러한 기대(基臺) 위에서 건설된 그 이론체계 역시 무너질 이론으로 후래 이론의 비과적 역할을 하는 것인가. 결국은 제문(題問)을 풀렸다고 하여 그 풀은 것이 한 개의 제문(題問)으로 되어, 다음에 그 의문을 키워가는 의문에서 또 의문으로 의문의 반복이 마치 자연계의 계절순환과 같은 것인가 하는 자탄을 가질만큼 되었다.

어쨌든 이 터전 위에 세우지 않으면 안 될 단계에 왔으니, 우리의 행로는 이 시대적 또는 천지의 운세에 합일되는 행위라고 판단하고서 건설로 들어가야 될 것이다. 건설의 기초공사는 깊이 파고서 굳히니 과거가 모두 낡고 부적당하여 '황혼'이니 '몰락'이니 하는 용어로써 표현되었으니, 그것을 그대로 입기에는 때가 용인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가을의 선들바람이 겨울을 가져올 연상 아래 봄에 부딪치는데 여름을 즐기던 잠자리 날개 같은 감으로 된 여름의 옷을 그대로 포개 입는 것으로서 될 법한 일이 아니다. 여기에 청산이라는 문제가 나오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그 청산은 어느 부분적인 것으로서 전체의 구조에는 변함이 없는 것인가, 또는 그 청산이 근본적인 면에만 관여되고, 지엽에는 상관없는 것인가 하는 문제도 건축하겠다는 결정을 짓는 오늘에는 당연히 설계 도상에서 논의될 것이다. 무엇 때문에 새로 짓는가하는 문제에서 개시된 우리의 구상은 완성된 건축의 결과에까지 그 자체가 심각한 과학적인 논거 위에서 실제적인 설계가 좌우상하의 각 면에서 검토되어야할 것이니, 이것조차 한 개의 혁명적 요소가 되고 여건이 되는 것이다.

천년은 오랜 세월이다. 백세를 산다 해도 일생은 짧은 것이다. 오늘이라는 지점 위에서 문자로 된 사승(史乘)에서 자기와 그 환경의 그 모든 문화적 유산과 제도적 유적을 더듬어 보면 극히 길기도 하고 오랜 듯도 할뿐 아니라 미래의 상상의 한계 외의 금후는 어데서 종국될 것인지 모르나, 여기에 종합해 보아서 학문의 세계에서 오늘의 시대를 귀납할 수 있는 것이 있으니, 그것은 그 모든 학문이 그 자체로서 주장을 관철하려는 때 또는 관철치 않을 수 없는 경우에 다다른 것이다. 이것은 그 담

당한 학자가 또는 그 학문의 분야 자체 내에서의 요구가 이렇게 주장을 관철하도록 자기를 변명하고 주장하고 따라서 타(他)와 분별시키고 자랑하고 결말을 짓는 오늘인 것이다.

이것이 시대적 요구 또는 천지의 세(勢)의 연행이 그렇게 만든 것인지는 여기에 논단치 않으나 어쨌던 맘으로부터 행동에 이르고 이것이 고금과 동서를 관류하는 체계로서 완성시키지 않을 수 없는 단계에 도달하였다. 문명이라는 용어로 불리어지는 모든 학문의 분야가 모두 이러한 범주 속에 포섭되지 않는 것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내적 외적 환경 속에서 그 각자의 자기주장으로의 관철이 극을 향하여 돌진을 계속하고 있다.

이것이 오늘이라는 시기적 현상이니, 무서운 정도로 생존경쟁과 같은 학문의 무자비한 비판과 투쟁과 염치(廉恥) 없는 모략까지도 가진 또는 오랜 세월 배워온 모든 수단까지 동원되어 격전을 전개하고 있다. 이 주장의 관철장 안에서 승패가 명백히 들어나기 때문에 어설프게 그 입론이 주장되다가는 환경 중에서 그 형적조차 찾기 어려운 결과가 된다. 이것이 자연계에 있어서 가을을 의미하는 긴 세계관에서 오는 시대적 청산인 것 같다.

학(學)의 세계에서의 그 자란 터전 우에 자기 각개의 결실을 가지고서 이 시대상 위에 등장해야 되는 것이 열매로서 표현치 않을 수 없기에, 도의(道義)의 세계에서 선(善)과 악(惡)도 중간도 다 이 요청에 답하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윤리도 철학도 역사도 법이나 정치 또는 경제, 문학 등 사회과학에서 뿐만 아니라 자연계에서 보는 과학에까지 인간의 인식의 모든 세계가 또 그 각 분야가 다음의 세계, 명일의 시대에 출품하기 위하여 철저하게 판단을 받아 적자(適者)로서의 생존을 유지할 필사적인 노력이 되풀이되지만은 봄과 여름의 생장(生長)의 과정이 충분한 결실에까지 이르지 못했을진대, 아무리 발돋움을 해도 아무리 상대자를 혹평하고 자기주장을 윤색하고 동조자를 규합하고 할지라도, 생장의 도정(道程)에 또 파종의 과정 위에 노보(路步)하고 있을진대, '후목(朽木)은 불가조야(不可彫也)'가 될 것이다.

결실은 그 정도가 따를 것이고, 무법실(無法實)에서도 차등이 있을 것이니, 이 무자비한 시대사적 비판 아닌 심여(審餘)가 허락되지 않으니, 여기에는 다수결적인 타협이나 운동을 통한 조성여론으로서 이 판단이 좌우되지 않는 단면에 임한 것이다. 이리하여 모든 학문은 다 같이 대열에서 자기의 모든 것을 준비한 채 획선을 긋는 시대의 각광을 띠고서 새로운 흥망을 담당해 보리라고 대기태세에 섰다. 그러나 이미 때는 왔다. 명백한 전환같은 추축이 사정(私情)없이 추상(秋霜)으로 임했으니 몇 개의 분야가 어떠한 형태로서 그 결실이 다음 시대에로 혁명적인 시험을 거쳐 넘어가겠는가 하는 것은 현대가 가진 크나큰 고민인 동시에, 또한 지대한 관심사며 흥미가 아닐 수 없다.

'오랜 전통에서' 그 빛을 발하고 있는 우리들의 사승(史乘)에서 더듬어 볼 것은 무엇인가. 우리는 우리로서 이 세기적 출품장(出品場)에다 무엇을 내놓고서 주장할 것인가. 오늘까지 동서와 고금의 모든 학문이 종합적으로 판단을 받는데, 그 면포(綿布) 위에 차지한 것은 우리로서 어느 문채(紋彩)

였던가.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별도로 무심사의 입선이 될 것인가. 경우에 따라서는 이러한 격렬한 투쟁장 안에서 제외되어 있는 것인가. 우리는 이러한 모든 조류의 권외에서 우리의 가진 학문이 그대로 표준이 되어 다른 사람들이 가진 것을 모두 심판할 그러한 단계에 이르러 있는가.

어쨌든 최후의 장면에 임한 총결산의 시기를 당한 것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로서 나타났다. 이 모면(毛面)으로도 사(私)를 허(許)치 않고, 추상(秋霜)의 판정 위에 남을 것을 우리는 심판자의 의도 위에서 검토해야 할 것이니, 총결산자가 타인이 아닌 우리들이 될 수 있다는 것도 이 또한 자신만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 위축 일로를 생활로 하여온 우리들의 과거가 이렇게 시들어질 운명적인 존재가 아니라는 자신은 자기들의 말보다도 세인들의 말을 듣고서 자성하는 데서 얻는 지각이니, 여기에 젊은 세대를 만들겠다는 우리들은 냉철한 삼상(三想)이 있어야 한다. '거기혼지자이청자현(去其混之者而淸自現)'으로 '반구제기(反求諸己)' 해야 할 것이 아닌가. 길이 멀고 진리란 먼 데 있는 것이 아닌 것이다.〔『정대(政大)』 1956년 9월 25일〕

(3) 「학장 담화: 학구(學究)의 해이와 안일을 경계」

학생 제군에게!

제군이 이미 품은 청운(靑雲)의 뜻을 기필코 이루도록 하기 위하여 이 글을 제군에게 전하는 바입니다. 나는 제군이 온갖 고난을 극복하며 학구의 길에 정진하고 있음을 크게 치하합니다.

그러나 근래 각 대학 출신자들의 사회 진출이 저조 부진 상태에 있으며, 심지어는 낙오자로서 사회의 버림을 받는 자가 적지 않음을 바라볼 때, 나는 교육에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의 하나로서 매우 가슴 아프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우리 대학은 제군의 앞날에 그와 같은 불행이 오지 아니하도록 할 뿐만 아니라 제군이 장래의 대 정치대학(政治大學)을 이룩하는 주인공으로서 부끄럽지 않는 실력을 배양하고 사회경쟁의 마당에 있어서 승리자가 되도록 하기 위하여 제군의 끊임없는 면학(勉學)과 출석(出席)을 간절히 부탁하는 동시에, 학교 측으로도 금번 시험 종료 후로부터 학년 말까지 사이에 부족된 교수 시수를 보충할 목적으로 교수진도(敎授進度)를 촉진하고 교수내용을 한층 더 충실히 하며, 제군의 개성과 희망에 맞는 과외활동 분야의 확충 및 지도의 면밀 적정을 기하고자 모든 준비를 가추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이상의 성과를 검토 파악하기 위하여 12월 중에는 학과에 따라 특정고사를 행할 것이며, 3월 초순에는 다시 전과목에 걸쳐 기말고사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누차의 시험과 그에 따르는 준비가 제군에게 일시적 고통을 주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이는 제군에게 해이와 안일을 찰계(察戒)하고, 학업에 일로매진(一路邁進)할 것을 간망하는 권학(勸學)의 애정에서 나온 것이니, 제군은 학교당국의 의도를 충분히 이해하고 협력하여 제군의 앞길에 광명이 오도록 절차탁마(切磋琢磨)하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정대(政大)』 1957년 11월 20일〕

(4) 「학장 위문서신: 전후방의 견고한 유대를」

친애하는 학보병(學保兵) 제군!

녹음이 짙어가고 뭉게구름이 곱게 구름이 피어오르는 요즈음 조국의 방패로 정성을 다하는 제군의 건강을 축복합니다.

지난해 몇 차례로 모교 소식 전한 바 있거니와, 제군이 처음 교문을 떠난 지 만 1년 이제 약속된 귀휴(歸休)의 날이 가까워 옴을 느낄 때 감개무량 합니다. 그동안 수많은 학보병들이 모교를 방문하여 반가웠고, 또 수백 통에 달하는 서신으로 소식을 알게 되어 기쁨과 만족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지금 우리 대학은 여러 가지 애로를 헤쳐 가며 성, 신, 의의 교시를 목표로 학생과 교수와 재단이 혼연일체가 되어 꾸준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 대가는 명일의 새 역사를 창조함에 많은 공헌이 있을 것을 확신하고 기대하는 바입니다.

지금 제군의 뒤에 남은 학우들은 8월 중에 있을 국가고시에 대비하여 주야 면학하는 법학연구실을 위시하여 정치생활연구회 · 경제연구회 등, 13종 연구부 · 회에서 각자의 개성을 따라 명일의 등용문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계휴가가 오면 향리에 돌아가서 불우한 향우들과 몽매한 동포를 계몽한다는 등 다채로운 설계로 의기양양들 하답니다. 7월 7일부터는 1학기의 학력을 저울질하는 고사에 대비해서 녹화된 학원의 그늘에는 처처(處處)에서 책을 편 학도들의 진지한 모습들이 더욱 많이 보여집니다.

전방과 후방의 견고한 유대는 조국의 앞날을 반석지안(盤石之安)에 놓게 하는 것입니다. 시간이 있는 대로 오고 가는 모교와의 소식 교환은 보다 향상과 발전을 초래할 줄 믿습니다. 끝으로 제군의 건강과 행운을 다시 한 번 빌면서 이만 그칩니다.〔『정대(政大)』 1958년 6월 15일〕

(5) 「담화: 학생 본분은 학업 전심(專心)」

학생 제군!

이제 본교가 일대 비약을 가기(可期)하는 단계에 있어서 모든 시설면은 예정대로 착착 진척되고 있거니와, 다른 한편 교육의 본질적 사명인 학생 제군의 실력 향상을 위하여 종래보다 더 강력한 태세를 갖추어야 할 것을 통감하는 바입니다. 생각건대 해방이후 교육열이 왕성해진 것은 물론 경하할 일입니다마는, 자제의 교육에 심혈을 경주하여 학부형들이 얼마나 경제적인 곤경을 당했고 또한 당하고 있는 실정을 우리들은 간과할 수가 없는 바입니다. 즉 고리채를 얻고 농사에 불가결한 가축과 농토를 팔고 심지어는 가대(家垈)까지 팔아 파산지경에 이른 사례는 일일이 매거(枚擧)할 수 없을 정도로 수많은 것입니다.

이처럼 피와 땀으로 또는 모든 희생의 뒷받침으로 얻어진 학생 제군의 영예의 '학사호(學士號)'가

과연 그 실력과 동등한 질적 내용을 갖는 것인가 어딘가 적이 의문이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적어도 대학은 국가의 중견인물을 양성하는 기관이요, 따라서 대학생 제군은 일가(一家) 일국가(一國家)의 흥망의 관건을 걸머진 장래의 역군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사호'가 바로 '고등유민(高等遊民)'의 렛텔이 되고만 현 실정에 있어서는 다른 이유도 있긴 하지만 학생 제군의 주체적인 노력과 각성이 또한 부족함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바입니다.

학교 당국에서는 일찍부터 이 점에 유의하여 가능한 방법을 연구하고 검토하여 왔습니다마는 진일보 강력한 조치를 강구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즉 지난 6월부터 이 문제에 대하여 전체교수회를 7회나 거듭하였고, 또한 분과위원회를 10여 개 개최함으로써 예의 신중하고도 가능성 있는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해 왔던 것입니다.

구체적인 성안에 대해서는 따로 발표할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마는, 요약하면, 첫째로 시험제도가 한낱 형식적이 아닌 정당한 실력경쟁의 올바른 척도가 되게 하며, 둘째는 10명 내지 20명을 단위로 한 교수의 개별지도를 가일층 강화하여 학력뿐만 아니라 인격의 도야면까지도 유의하게 하고, 셋째로 장학생의 범위를 확장하는 것과, 넷째로 출석 여부를 엄격하게 하는 것 등입니다.

이러한 학교 당국의 처사는 어디까지나 학생 제군을 위한 방안이요, 또한 학부형님들의 노고에 대한 보답이요, 나아가서는 국가민족에 대한 당연한 의무라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학생 제군은 학교 당국의 의도하는 바 열의를 깊이 명심하여 학교 당국–교수–학생–이렇게 혼연한 삼위일체가 되어 이 방안의 유종의 미를 걷을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바입니다.『정대(政大)』 1958년 9월 15일〕

(6)「큰 대학보다 좋은 대학되기를: 종합대학교 발족에 즈음하여」

구 정치대학(政治大學)이 종합대학 '건국대학교(建國大學校)'로 격을 높이고 규모를 넓히게 되었음을 학생제군과 더불어 경하하여 마지않는 바입니다. 본인은 이번 우리 대학의 역사적 재출발에 제하여 초대 총장의 직책을 맡게 되었음을 분에 넘치는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비재박식(菲才博識)한 몸으로 그와 같은 중책을 감당할 수 있을까 매우 두려운 바입니다만, 우리의 현실과 중첩된 과제는 본인으로 하여금 그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게 한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오늘의 우리 대학 현황을 해방 직후 '정치학관(政治學館)' 이 창립되던 때에 비교하여 보면, 점유한 교지의 넓이로나 수립한 학적 체계의 정비 정도로나 웅유한 교직원 학생들의 질과 양의 면으로나 실로 금석의 느낌을 자아내기에 넉넉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본 대학을 직접 경영하여 온 재단이사 제위의 눈물겨운 노력의 결정임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만, 그와 동시에 문교 당국이나 본 대학의 교직원 동창생 재학생 및 사회유지의 아낌없는 협력과

성원에 힘입은 것임을 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들에게 만강(滿腔)의 경의와 감사를 드려마지 않습니다.

이렇듯 우리의 오늘을 지난날에 비하여보면 적지 않은 발전을 보였다 하겠습니다만, 우리의 지향하는 내일이나 선진국가의 제 대학 실정에 비추어 볼 때 아직도 현격한 거리가 있음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보다 더 광대한 '캠퍼스', 보다 더 정비된 시설, 보다 더 우수한 학자와 기술자, 보다 더 풍부한 도서, 그리고 이런 것을 충분히 마련할 수 있는 넉넉한 재정 등이 절실히 요청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결코 건국대학교의 앞날을 위하여서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정치 · 사회생활을 바른 궤도에 올려놓기 위하여 우리의 메마른 이성과 감성을 계발하기 위하여, 농촌부흥과 자유경제체제의 확립을 위하여 필요 불가결한 민족적 요청이며 국가적 사명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유석창 박사가 교수회의를 주재하고 있는 모습

그러나 우리는 일조일석에 영국의 '옥스포드'나 미국의 '콜롬비아'가 되기를 염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는 수백 년 또는 그 이상의 피어린 전통의 역사가 흐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귀중한 시간의 축적을 가지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신생 한국의 입지조건이 여러 가지 점에서 그들과 같지 않습니다. 이러한 여건을 무시하고 뱁새가 황새걸음을 흉내 내려 할진대 그 결과는 오히려 자신의 파멸을 독촉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주관적 욕구와 객관적 조건의 타협 위에서 한 걸음 한 걸음 건실하고 꾸준한 진보의 길을 걸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원대한 곳에 착안하되 비근한 곳에서부터 착수하여 부단한 전진을 계속할 것입니다. 논리의 비약이 모순을 내포하듯이 건설의 비약도 왕왕 기초의 불건전을 내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당장 '제일 큰 대학교가 되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오직 좋은' 대학이 되기 위하여 노력할 따름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대학을 경영하는 재단 관계자의 노력에 대한 기대보다도 교수 학생들의 노력에 기대하는 바 한층 더 큽니다.『건대신보』 1959년 4월 28일〕

(7) 「제1회 교회시간 이사장 담화(요지)」

오늘(9월 11일) 우리학교 교회시간을 이용하여 여러 학생제군들과 한자리에서 이야기할 수 있게 된 것을 무척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건국대학교의 교육이념과 설립 목적에 대(對)하여 몇 마디 밝혀 두고자 합니다.

우리 건국대학교가 설립된지 벌써 18년이나 되었다. 19년 전 해방을 맞던 날 밤 본교 설립의 꿈이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1945년 8월 15일 12시에 일본의 무조건 항복이 전세계에 전파를 타고 전해지자, 우리나라 모든 애국동포들은 마치 미친 사람들 같이 감격과 기쁨 속에 눈물을 닦고 기뻐했습니다. 36년간의 몸서리치던 밤이 지나고 새벽이 온 것이었습니다.

이 새벽을 기점으로 하여 본 대학교는 달음질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날 저녁 8시에 축하'파티'에서 다시는 우리가 망국의 서러움을 받지 않고 여러 강대국 사이에서 잘 살아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하여 진지하게 논의되었습니다. 중공, 일본, 북괴 이러한 3대 강국 틈에 끼여 어떻게 하면 잘살 수 있는 국가형성을 해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가능성을 살펴본 것입니다. 군사력이나 정치력이나 일시적인 것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우선 과학과 높은 기술교육 육성으로 '스웨덴'이나 '덴마크'같이 고도로 발달된 아름답고 귀여운 나라들의 존재가 될 수 있으리라는 것을 꿈꾸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됨으로서 자손만대에 다시는 망국민족의 치욕을 끼치지 않는 굳건한 나라로 발전해야 한다는 것을 뼈아프게 느꼈던 것입니다. 그러한 이상적 국가를 건설함에 있어서는 첫째 그 일을 담당할 인간성 문제와, 둘째로는 과학화된 생활기술 문제라는 것이 문제되게 됩니다. 이러한 경제기술의 생활이 이룩되어 갈 때 그 곳에는 새로운 나라가 건설되고, 그 터전에 고도의 문화를 섭취한 문화국가를 이룩하게 될 것을 꿈꾸게 된 것입니다. 그 길은 오로지 교육을 통하여서 훌륭한 인재를 육성하니, 국가와 온겨레가 참되게 요구하는 새로운 형의 일꾼을 길러 내주어야만 한다는 각성에서 건국대학교는 일보일보를 그 목적을 향해 걸어 나온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지난 19년 동안 위에서 아래로 만들어져 나왔습니다. 농업협동조합의 예를 보아도, 생산과 소비를 담당하고 있는 이동조합을 중요시해서 보다 원활한 운영으로 합리적인 육성이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또한 지난 19년간 귀중하고 오랜 세월이 흘러갔는데도 별다르게 향상된 것이 도무지 없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기술, 과학 등등 무엇 하나 제대로 발전을 보인 것이 없었습니다. 외국사람들의 18년의 실로 눈부신 바 있어, 각 분야에 놀라운 발전을 보이고 있을 때 우리나라는 제 자리 걸음을 계속해온 셈입니다.

정치가들은 감투싸움에 바빴을 뿐이고, 외형적인 삼팔선은 삼팔선대로 남아있고 하나도 대발전을 할 수 있는 길이 없이 귀한 세월만 흘러갔습니다. 이승만 정권의 많은 시간 민주당 정권의 무능 그리고 혁명정부의 한때 등 삼단계로 우리는 살아오는 동안 참된 구국 사명의 굳건한 방향을 민중을 위해 던져줄 수 있는 여러 기회를 그저 허송세월한 느낌이 듭니다.

참된 구국정신은 다방이나 한가로운 데서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참된 민중의 지도자가 되고 국가 · 민족에게 이익을 줄 수 있고 신임을 받을 수 있는 충실한 일꾼은 일조일석에 이루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이러한 인재 육성이 곧 우리 건국대학교의 교육목적인 것입니다. 교시인 성(誠)과 신(信) 그리고 의(義)를 통한 중후하고 침착한 인간성 육성과 기술교육 무장으로서 민중 속에서 민중을 위해 민중을 이끌고 나가는 인재를 많이 육성해내자는 것이 본 대학의 교육이념이고 또한 설립 목적인 것입니다.

어언 18년의 역사와 전통 속에 우리는 꾸준히 자라 올라왔습니다. 우리들의 꿈은 지금 완숙하게 익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새롭고 고도로 발달된 새 문화 창조의 책임을 완수해 나가는 것이 학생제군의 중책인 동시에, 우리 건국대학교의 빛나는 오늘과 내일의 영광된 모습이기도 합니다.

학생 제군들은 이 뜻 깊은 우리학교의 방향을 굳건히 잘 파악하고, 일진월보(日進月步) 쉬지 않는 노력을 다 기울여주기를 바라며, 앞날의 우리나라 참된 주인공으로 훌륭한 인격적 감화를 많은 민중 속에서 두드러지게 들어 내주는 날이 오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우리 민족영원의 복지국가의 새로운 역사를 힘차게 창조해 나가는 하나하나의 유능한 주인공이 되기를 크게 기대하며, 오늘은 이만 끝입니다.(『건대신문(建大新聞)』 1963년 9월 17일)

(8) 「조국의 두 병환(病患)에 '메스'를……」

자기가 걸어온 옛 학생 시절을 더듬어 본다는 것은 하나의 즐거운 추억일 수도 있으니, 다만 내가 처해온 학생시대는 너무도 파란곡절이 심하고 복잡다난한 민족수난의 시기였습니다. 따라서 나의 학생시절의 회고는 한 마디로 말해서 비분의 반추요, 고뇌의 기록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나는 1910년 망명의 길을 밟으신 선친을 따라 만주(滿州) 봉천성(奉天省)에 들어가 장백관립정몽학교(長白官立正蒙學校)에 입학하였습니다.

낯선 이국에서 빈곤 혹한과 싸우면서 공부를 한다는 것은 10대의 나이어린 몸으로 더구나 주권(主權)을 잃은 백성으로서 너무나도 견디기 어려운 고통이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빼앗긴 우리에게 할 일이 무엇이 있었겠습니까? 나는 권리 진리를 체득하는 것만이 오직 하나의 광명이요, 통치자의 강압으로부터 우리가 찾을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나는 만주의 삭풍에 시달린지 7년 만에 다시 조국에 돌아와 경신학교(儆新學校)에 입학하였습니다. 일본어를 전혀 모르는 것이 나의 가장 큰 고통이었으나, 나는 여기에서 인간의 성실 근면을 송두리째 짓밟아버릴 만큼 그렇게 짓궂은 운명의 신(神)은 없다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그것은 지금까지도 변함없는 나의 인생관의 한 기둥이 되고 있습니다.

내가 경성의학전문대학교(京城醫學專門大學敎)에 입학한 것은 1922년의 일이었습니다.

3 · 1의 불은 이미 꺼지고 내우외환(內憂外患)에 나라와 겨레는 병들었습니다. 그때 내가 절실히 느낀 것은 두 가지의 병을 고쳐야 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는 나라를 좀먹는 정신적인 병이요, 또 하나는 가난한 동포들의 육체적인 병이었습니다. 병원이 있고 약이 있어도 가난한 사람들은 인술(仁術)의 혜택을 입을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인술(仁術)이 아니라 돈의 마술(魔術)에 불과하였습니다. 학교를 졸업한 이후에도 나는 꾸준히 이 두 병을 향하여 '메스'를 들었습니다만, 오늘날까지 이렇다 할 성과를 거두지 못한 것이 매우 한스럽습니다.〔『학생신문(學生新聞)』 1964년 5월 18일 ; 『건대신문(建大新聞)』 1964년 5월 29일 전재〕

(9) 「제3회 건대축전에 붙임: 발랄한 젊음의 잔치 되기를!」

가을의 물속처럼 맑은 이성(理性)!

횃불처럼 활활 타오르는 정열(情熱)!

이것이 알맞게 조화되어 우리 건국대학교 제3회 축전을 아름답고 빛나게 꾸미리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장안벌에 축전이라는 이름의 잔치를 벌인 것은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만, 그것은 개교 이래 20년의 배양 과정을 거쳐서 개화한 것입니다.

거기에 이르기까지에는 수많은 교직원 동문들의 피맺힌 노력이 쌓여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축전에 참가하는 학생 제군은 우리 대학의 역사의 기수로서의 자각과 긍지를 가지고 임해주기 바랍니다.

친애하는 학생 제군!

아차산 기슭 넓은 벌에 여러분의 약동하는 젊음을 마음껏 나타내시오. 일감호반에 여러분의 낭만을 구김 없이 펴시오. 그러나 그것은 결코 유희나 흥행이어서는 안됩니다. 평소에 여러분이 갈고 다듬은 지식과 이론이 구슬 지고, 역사와 전통에 대한 책임이 전체의 질서를 자율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 학생 한 사람 한 사람이나 각 학과 각 대학의 특기 특색이 충분히 발휘되는 동시에, 건국대학교 전체로서의 조화 협력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나는 이번 제3회 건대축전이 지난 1 · 2회보다 더욱 빛나는 자취를 남길 것을 기대하여, 회수가 거듭되고 발전이 쌓이는 동안에 건국대학교와 학생 제군의 장래에 끝없는 향상과 축복이 이어지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건대신문(建大新聞)』 1964년 10월 1일〕

7) 기타

(1) 「정대위 총장 취임식에서 유 이사장의 인사(요지)」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내빈 여러분, 이사 여러분, 교직원 여러분, 동문 여러분, 학생 제군!

추운 날씨에 이처럼 우리 총장의 취임식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히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총장으로 취임하시는 정대위(鄭大爲) 박사(博士)를 말하면, 일찍이 일본 동지사대학(同志社大學)과 가내타(加奈陀)의 토론토대학(大學)을 거쳐, 미국의 예일대학에서 철학박사 학위를 받은 분이며, 과거 한국에서 유네스코기관을 창설하시는 데 중추활동을 하셨고, 훌륭한 목사로서 또한 신학교수로 다년간 활약하셨으며, 그외 사회사업도 많이 하신 분입니다.

이러한 훌륭한 분을 우리 대학에서 총장으로 맞이함에 있어서는 이사회 반수와 단과대학장으로 구성된 특별인사위원회에서 만장일치의 가결과 다시 이사회에 상정되어 만장일치로 가결을 보아 총장으로 추대한 것입니다.

한 기관의 흥쇠(興衰) 여부는 훌륭한 지도자의 유무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대학에서 재덕(才德)을 겸비한 훌륭한 지도자를 맞이하게 됨으로써, 우리 건국대학교는 창성을 기하게 되었음은 마음 기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제 새삼스러운 말이긴 하지만, 신임하는 총장에게 한 가지 요망하고자 하는 바는 인화(人和)의 문제입니다. 총장 스스로는 인화의 덕 갖추고 있으므로 아무런 우려되는 바가 없지마는, 총장을 위요하는 모든 교직원 사이에 서로 인화가 있도록 밝게 살펴주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다음으로 당부드리고자 하는 것은 자가혁신(自家革新)에 유의해 줄 것입니다. 이 말은 모든 것을 새로이 발전시키려는 오늘날에 있어서 보수적이며 고루한 모든 인습적인 것을 과감히 타파해버리고 적극적이며 발전적인 정책을 실천해 달라는 것입니다.

끝으로 여러 교직원이나 동문들이나 재학생들은 동심협력(同心協力)해서 이 총장을 받들어, 이 총장으로 하여금 공(功)을 세우게 하며 따라서 건대의 발전에 이바지하도록 부탁드리는 바입니다.〔『건대신문(建大新聞)』 1962년 1월 18일〕

(2) 「총장 이임사」

오늘 우리를 보내주기 위해 이처럼 성대한 이임식을 베풀어준 제 이사 교강사 교직원과 동문 및 학생 제군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 자리에 서고 보매 창립 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16년간 무능한 자신이 여러분 앞에서 일해 온 것이 프러스보다 마이너스가 많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물러나는 이 시간이 혹 슬픈 일이라고 생각할지 모르나, 자신은 만족하게 생각합니다. 본교를 위

해 낡은 총장이 물러나는 것이 마땅하다고 믿습니다. 여러분이 모인 이 가운데 교육에서 물러나는 이 자리는 죽기 전에 유언할 수 있는 장소인 것 같습니다.

저의 과거의 계획과 앞으로의 할 일들을 건아(健兒) 앞에 호소하려는 것이니 여러분이 이것을 명심하고 실천하여 큰 수확을 거둘 수 있다면 만족하겠습니다.

현재 나는 이 대학을 떠날 수밖에 없는 형편에 봉착하였으나, 나의 마음은 건국(建國)이라고 명명한 이 대학을 떠날 수가 없는 동시에, 더욱이 조국재건의 뜻을 가진 건국에 대한 생각은 영원히 내 생활에서 떼어버릴 수 없습니다. 조국에 대한 사랑이 누구에게나 범연(泛然)하랴만, 나는 아마도 조국애(祖國愛)에 사로잡히어 병든 몸이 되었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국운이 기울어진 구한말 망명의 길을 떠나 광복운동(光復運動)에 일생을 바치신 가친(家親)을 따라 삭막한 만주(滿洲) 일대를 헤메던 나의 소년시절에 망국민(亡國民)의 서러운 조국의 그리움이 뼈 속까지 사무쳐 비록 이 몸이 백골(白骨)이 되고 진토(塵土)가 된들 가실 수 없을 것입니다.

조국 없이 부(富)도 귀(貴)도 없으며 조국 없이 너도나도 없다는 생각에서 나의 잔뼈가 굵었으며, 총칼을 들고 반제대열(反帝隊列)에 따랐던 것입니다. 지금도 조국이라는 말만 들어도 가슴이 뭉클하여지며 눈시울이 뜨거워집니다. 내가 조국 안에 있고, 조국이 내 안에 있는 듯 조국이 나요 내가 조국인양, 조국과 나는 둘이 아니요 하나라는 이념에서 나는 일평생 그 조국을 위하여 그날을 위하여 미성(微誠)이나마 몸과 마음을 바쳐 살아왔으니, 이러한 심경이 이른바 '사랑'인가 합니다.

천우신조로 급기야 오매불망하던 그 조국은 광복의 날을 맞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환희는 겨레들의 가슴에 벅찼고 환호는 강산에 넘쳐 흘렀습니다. 그러나 의외에도 그 다시 찾은 조국은 어려운 까닭이 많았습니다. 당면한 난관들도 극복하여야 하였거니와 백년대계의 건국방안을 세워 조국안전의 보장책도 실천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모든 혼란 중에서도 교육계는 꾸준히 성장의 일로(一路)를 밟았습니다. 그것만이 민족번영의 기본이 된다고 믿었던 까닭입니다. 나도 그 대열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러나 교육의 행진도 그 대열을 정돈하는 때는 왔었습니다. 나는 솔선하여 방향전환을 꾀하였던 것이니, 그것은 바로 장안(長安) 일대를 점유한 거대한 건대(建大) 캠퍼스입니다. 나는 여기에서 새로운 꿈을 실현하기 시작하였으니, 이곳으로 하여금 과학과 기술을 연마할 수 있는 학원을 삼는 동시에 조국애를 주입하는 도량(道場)으로 삼고자 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조국 재건에 이바지 할 수 있는 인물들에겐 언제나 수련의 기회를 주는 훈련센터로 삼고자 하였습니다.

생각건대 우리나라는 지정학적으로 보나 역사적 관계로 보나, 병력(兵力)과 부력(富力)을 가지고는 용이하게 타에 능가하기 힘들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민족은 천부고유의 재능과 예지(叡智)를 최고도로 발휘시켜 과학의 나라 기술의 나라 신의(信義)의 나라를 만들어 덴마크나 스위스와 같이 자력자활(自力自活)의 아담한 국가로 육성하게 되면 하나의 유족한 귀염둥이가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꿈과 지성으로 앞날을 기약하고 돌진하는 도중 의외에도 퇴진의 한을 품게 되나, 노장은 조국재건의 초지를 조금도 굽힘없이 일로매진(一路邁進)할 것을 다시금 마음먹습니다.

건대(建大)는 이로부터입니다. 나는 건대의 발전을 위하여 배후의 힘이 될 것을 약속합니다. 후계자를 도와 건대육성의 비료가 됨으로써, 우리가 세워놓은 이념을 꿋꿋이 살려 조국재건의 등불이 되게 하렵니다. 나는 때로 조국재건의 방략과 조국애를 부르짖는 교육행각자(敎育行脚者)로서 전국 농산어촌을 편답(遍踏)할 뜻도 있습니다. 여생의 '푸로'는 오히려 다채로울지 모르나, 중심은 오로지 조국이요, 재건임에 틀림없을 것을 스스로 다짐합니다. 1회 졸업생이 커서 장년이 된 것은 만족하나, 장안동 나무들이 아직 어리고 약한 것이 섭섭합니다. 빨리 자라 무성하고 벌레 먹은 고목이 되길 바랍니다.〔『건대신문(建大新聞)』 1961년 10월 2일〕

8) 『정대』 및 『건대신문』 기념사

(1) 「『정대』 창간사: 정대의 등불을 밝히고자」

인류의 역사는 여러 갈래로 막다른 골목에 다다라 있다. 이러고선 그대로의 전진을 바랄 수는 없게 되어있다. 그러기에 모든 인류는 '새로운 길'을 뚫어보려고 무척 애를 쓰고 있다. 아마 요새같이 국제흥정이 빈긴(頻緊)한 때는 드물 것 같이 보이나, 이런 정치흥정 속으로는 아무 성과도 거두지 못할 것이다.

정말 이 길을 여는 방법은 무엇보다도 역사의 원동력인 문화에서 구하여야 할 것이다. 모든 인류에게 새로운 인생관과 새로운 생활방식을 줄 수 있는 새 문화의 창조에서 구하여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기에 지금 세계의 많은 선각자들은 모두 이 새 문화의 창조를 위하여 모든 힘을 다하고 있다.

이제 돌이켜 생각하여 볼 때, 우리나라와 같이 오랜 역사를 가진 국가들의 고유한 문화는 지난날 인류의 역사에 거대한 족적을 남겨놓았건만, 사회의 진화와 더불어 시대성을 띤 새로운 발전을 갖지 못한 채 현대의 문화에 부닥치게 될 때 많은 혼란과 비애를 느끼게 되었고, 급기야는 자기 회의 자기 불신에 빠지게 되어 문화로서의 가치와 생을 무시당하게 되자 하는 수 없이 현대의 생존경쟁에서 후퇴에 후퇴를 거듭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고, 현대의 문화는 짧은 기간에 의연한 성장과 성숙을 가져왔지만, 그 발전 과정에 있어서 한편으로는 자유주의(自由主義)가 가진 자기모순에서 수많은 과오를 낳아놓았을 뿐만 아니라 급기야는 자유주의의 반동으로서의 공산주의(共産主義)라는 반역자마저 생겨나오게 되어, 전인류에게 무서운 파괴와 공포의 적을 만들어놓았고, 또 한편으로는 장족 진보라는 자연과학의 발달과 더불어 인류의 살해와 파괴를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온갖 기계와 무기 더욱 원자탄 수소탄까지 터져 나와 인류는 이제 자기 위기 자기 공포에 사로잡히어 비명과 전율을 계

속, 그리하여 지금 인류의 역사는 확실히 이런저런 곳에서 막다른 골목에 다다라 있다.

이제 여기에서 이 역사의 수레바퀴를 새로운 각도로 돌림으로 해서 우리 인류를 파멸에서 구출한다는 것은 가장 시급을 요하는 문제일 뿐만 아니라 이 시대의 운명을 담당한 우리로서는 면할 수 없는 하나의 역사적 사명이 되게 된다. 그러면 무슨 방법으로 이것을 구출할 것인가는 이미 서두에서도 말한 바와 같거니와, 이 역사의 원동력이 되는 새 문화의 창조에서만이 구할 수 있는 것이다.

문화란 널리 말하면 한 민족 또는 여러 민족의 집단적인 생활표현과 그 생활 결과의 총체를 말하는 것으로써 정치, 경제, 법률, 철학, 종교, 도덕, 예의, 교육, 과학, 언어, 예술, 기술, 군사 등등의 방식으로 창조한 가치의 총집합이 곧 문화체계를 이루는 것이므로, 새 문화의 창조라면 이런 모든 것에 대한 계속 창조의 뜻도 될 수 있을 것이나, 이 중에서도 특히 여기에 부르짖고자 하는 것은 우리 인류에게 새로운 인생관과 새로운 생활방식을 줄 수 있는 새 문화의 창조를 가져옴으로 말미암아 지금 막다른 골목에 서있는 인류의 역사를 다른 각도로 돌림으로 해서 새로운 광명의 세대를 맞이하여 보자는 데에 그 뜻이 있는 것이다. 이리 될 때에는 전기한 모든 문화도 여기에 따라서 새로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러기에 세계의 모든 선각자들은 이런 깨달음에 따라 지금 새 문화의 창조를 위하여 서로 경쟁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대통령 아이젠하워도 인류의 살벌에 쓰려고 만들어낸 원자력을 평화적 산업전사로 전용함으로써, 제2차로 세계적인 산업혁명을 단행하여 보려고 온갖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새로운 생산수단에 의하여 고루 잘 살 수 있는 생활방식을 찾아냄으로 해서 인류를 위기에서 구출하고 나아가 번영의 길을 열어보려는 데에 대한 새 역사의 모색의 하나임에 틀림없다.

이처럼 다른 사람들은 '새로운 길'을 찾아보려고 새 문화의 창조를 위하여 경쟁하고 있는데 우리 민족만이 이 경쟁에서 낙오한다면 우리는 영원히 인간의 자유와 평등과 번영을 얻지 못하고 말 것이다. 그러지 않아도 오늘 생존경쟁에서 멀리 뒤떨어진 우리민족으로서는 얼마나 급하게 달음박질 쳐야 다른 민족이나 다른 국가와 함께 어깨를 나란히 하여 나아갈 것이냐를 생각하여 볼 때에 앞길이 바쁘기 한이 없다.

그러므로 우리대학은 이런 모든 일에 있어서 이 민족의 명예와 운명을 두 어깨에 걸머지고 이 민족이 나아갈 '길'을 열어주려고 온갖 '길 닦기'를 준비하고 있거니와, 동시에 이런 새 문화의 창조로서 우리민족을 영원히 살리고 나아가 세계의 운명을 바로잡는 이런 국제 문화경쟁장에 또한 이 민족의 이름으로써 나아가 씩씩하게 싸우지 않으면 안 될 필연적 사명을 띄고 있는 것이다.

이런 중차대한 역사적 과업을 두 어깨에 벅차도록 걸머진 우리대학인지라 그 걸음거리가 결코 평탄할 수 없고, 여기 응부하는 그 준비와 움직임이 결코 평범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기에 우리대학은 이런 모든 차림을 급급히 하고 있거니와 동시에 우리 학도들이 또한 하여야 할 그 진리탐구에 있어서 진지한 사명완수를 가져야할 것은 말할 것도 없고, 다시 과외활동을 통하여 자기개성의 발전과 자치능력의 배양 그리고 자기 순정을 받치는 애국운동과 사회봉사의 실행을 기하는 것이 모다 우리대학이 앞날 조국의 구출에 있어서 또는 문화의 창조전에 있어서의 최후의 승리를 거둘 수 있는 총체적인 성과가 되게 될 것이라는 것은 두 번 말할 여지조차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번 창간되는 『정대(政大)』신문도 이런 모든 '움직임'의 하나로 나오는 것이며, 이는 앞날 우리대학의 정신과 그 걸머진 역사적 사명의 관철을 위하여 또는 학도호국의 정신과 그 사업의 창달을 위하여 우리대학 발전의 맨 선두에 서서 자기의 이기인 날낸 붓끝을 놀리어 그 모든 '움직임'과 '사실'을 정확 기민하게 보도함으로써, 우리 승리를 하루바삐 촉구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어느 때나 새 시대의 선봉으로서 정대의 횃불로서 정의의 지침으로서 진리탐구의 등불로서 끝까지 자기 사명 완수를 위하여 싸워 나아갈 것이다.〔『정대(政大)』 창간호, 1955년 7월 16일〕

(2) 「『건대신보』 61호 기념사: 지륜(紙輪) 61회와 새로운 결의」

본지가 61호의 회갑호를 발간함에 즈음하여 유 사장께서는 다음과 같은 담화를 발표하여 그동안 본지 발전에 물심으로 협조하여 주신 여러분께 친의를 표하시는 동시에, 금후 가일층의 지도편달을 요망하셨다.

본보가 이번 호로서 지륜(紙輪) 61을 산(算)하게 되었다. 본보의 사명에 대하여서는 이제 새삼스러이 재론할 필요가 없거니와, 원래 신문이란 그 사회의 목탁이 되어서 정당한 여론을 환기시키고 정치 경제 교육 문화 등 각 부문에 걸쳐서 지도적 교화적 역할을 가져야 할 것이다.

범위를 좁혀서 한 학교의 교내신문을 논할지라도, 그 학교 학생들의 이목이 되어서 그들이 듣고 싶은 것을 들려 주어야함은 물론이려니와, 하고 싶은 것을 말해주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국가 만년의 앞날을 쌍견(雙肩)에 지고 있는 학도들을 기자로 하고 있는 학교신문이 일반 일간신문에 비하여 기자층 범위의 광협(廣狹)은 있을지라도, 교화면으로 볼진대 조금도 못지않다고 생각한다.

이제 본보는 파란곡절이 많은 60의 고개를 넘어서 양양한 앞날의 희망을 가지게 되었다. 이때에 즈음하여 내가 특히 강조하고 싶은 것이 있으니– 교강사 여러분은 학생들의 지성 함양과 덕성 훈도에 있어서 본보를 많이 활용하시도록 부탁하는 것이며, 학생 제군은 이목구비로 알고 좋은 생각이 있으면 본보의 지상을 통하여 지(知) · 정(情) · 의(意)의 확충을 도모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학우끼리의 인화를 형성하는 동시에 제군의 장래를 위하여 끊임없이 본보에 힘입는 바 되기를 바라 마지않는다.

특히 편집을 맡아보는 여러분은 신문의 사명이 중요함을 통감하고, 일자(一字) 일구(一句)를 소홀히 하지 않을 것은 물론이려니와, 한 줄의 기사나 논설이 학생들에게 중대한 영향을 끼친다는 책무를 절실히 인식하고 성 · 신 · 의의 교시를 밑바탕으로 하여 취재에 힘쓰고 노력하여 주기를 바라는 바이다.〔『건대신보(建大新報)』 1959년 12월 1일〕

(3) 「『건대신문』 지령(紙齡) 100호 기념사: 학문과 진리의 등대, 세계교육사에 공헌하는 전통」

본지가 벌써 지령 100호를 발간하게 되었으니, 세월이 빠르다기보다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이성이란 위대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느껴 마지않는다. 8 · 15해방과 더불어 우후죽순처럼 군소신문 · 잡지 · 통신기관 등이 상쟁 난립 상태를 이루고 있을 때부터, 일반민중은 한국의 Journalism에 관한 관심은 거의 갖지 않는 것같이 보였다.

하물며 일반 사회지도 아닌 본지 전신『정대학보(政大學報)』가 건국대학교의 전신 정치대학(政治大學)의 일우(一偶)에서 순간지(旬刊紙)로 발족한다고 하였을 때는 일반사회는 물론이요, 우리 교육사회에 있어서는 여기에 직접 관계하지 않는 사람들까지 마치 피안의 불구경처럼 흥행극의 관람자처럼의 태도 이상을 벗어나지 못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외부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든 간에 오불관격(吾不關格)으로 이 신문에 위촉을 받은 소수의 사원들은 거의 아무런 시설도 없이 이 거룩한 사업의 이념을 먼저 이해하고 용감하게 착수하였던 것이다. 이것이 바로 6년 전의 일이다.

신문사 규모가 적고 인원수가 부족하다 하여서 신문 제작 과정을 생략한다거나 간행물을 자기 멋대로 중단 연기 발행할 수는 없는 철칙이며, 상식으로 되어 있다. 그들은 일정한 방침 하에서 일정한 시일에 제한을 받고 일정한 원고를 작성하고 수집하고 이것을 편집하여서 이곳저곳 값싼 인쇄공장을 찾아다니면서 조판을 구걸하고 인쇄기를 움직이고, 이것을 각급 독자에게 각각의 방법으로 배부함으로써 1회분의 제작 과정이 끝나는 것이며, 이로써 비로소 지령 1호의 자격이 가산하게 되는 것이다.

본지는 이 같이 하여 일정량의 노고를 백번 되풀이하여서 여기 지령 제100호를 맞이하게 된 것이다. 그리고 이 신문은 세월이 흘러갔기 때문에 100호에 달한 것이 아니고 여기에 직접 종사하고 또 여기에 직접 간접으로 성원하여 주는 뒷받침이 없었던들, 이 같은 결과는 꿈에도 생각할 수 없는 일이라고 굳게 믿어마지 않는다.

이런 의미에서 본지 100호 발간에 있어서 역대의 신 · 구 사원들과 좋은 옥고를 베풀어주신 여러 선생님들 그리고 직접 간접으로 본지발전을 위하여 경험과 지혜를 제공해 주신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는 의의가 있는 것이다.

지령 제100호를 맞이하는 오늘날에 있어서 본지의 책임은 더욱 중차대하다 함을 다시 한 번 느껴마지않는다. 그 이유로는 우리나라에 있어서 거의 때를 같이하여 발족한 대학신문들은 대체적으로 그들 자신들이 운영하는 대학에 국한하여 News와 Views를 전달하는 것만으로 대학신문의 의의를 생각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학신문이 상대하여야 할 그 영역은 이것만으로 만족하여서는 아니된다. 일면에 있어서는 물론 각 대학이 가진 내부 교육 상태를 외부로 masscom 하는데 그 의의가 있지만, 타면에 있어서는 그 대학이외의 전문교육 학문의 세계의 사정과 견해를 대학신문을 통하여 반영시키는데 또한 큰 의의가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아니된다. 제한되어있는 하나의 대학에서 외부의 학문을 배척한다거나 혹은 그들의 대학생들에게만 국한하여 전달하여야 된다는 것만으로 그들 대학의 권위를 간직한다는 생각은 이미 버려야 할 때에 도달하고만 것이다.

대학은 학문의 자유다. 높은 학리(學理)는 어느 곳에서나 받아드릴 아량이 있어야 하고, 그 반면에 대학은 학문과 진리를 국가적으로 세계적으로 널리 전달하는 자유스러운 입장에 처하여 있어야 된다는 것을 생각할 때, 이것의 실현의 역할은 오로지 대학의 신문에 그 임무가 부여되어 있다는 것을 차제에 강조하는 바이다. 이런 의미에 있어서 일반대학의 신문들이 맡은바 이러한 임무를 본지가 솔선수범하여 그 이념을 지면에 반영시켜서 앞날에 건대신문의 인식을 새롭게 하고 나아가서는 건국대학교의 전형적인 대학교육의 발전과 보조를 같이 함으로써 국내적으로나 국제적으로 크게 공헌할 수 있는 좋은 전통과 역사를 창조하는 주인공이 되고, 금자탑을 이루어 주기를 충심으로 빌어마지 않는다.

본지(本紙)가 지령 제100호를 발간함에 있어서 불굴불요 개척의 정신을 갖는 것은 이제부터 더욱 필요하다는 것을 서슴치 않고 여기에 강조하고자 한다. 왜냐하면 건대신문은 출발 시부터 가진 고충과 애로를 거쳐 왔지만, 그것은 상기한바 있고 대학신문의 사명을 건대신문이 먼저 실천하여야 된다는 점에서 볼 때 100호 발간의 역사는 사실상 앞으로 하여야할 본래의 사명을 하기 위한 토태에 불과할 뿐이라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100호를 맞이하였으니 이 신문은 뿌리가 뻗었다 꺾어질 수 없다느니 하는 통속적인 관념이나 주관적 사고방식은 우리는 삼가야 할 것이다.

본지는 어디까지나 내용에 있어서 객관적으로 호평을 더 받을 수 있고 국가 사회적으로 좀 더 공헌할 수 있는 더 좋은 대학신문이 되는 제2의 역사적 단계를 구획짓는데 본지 제100호 기념호를 맞이하는 참다운 의의가 있다고 생각된다. 이런 의미에 있어서 지령 제100호를 맞이하여 먼저 과거의 노력과 건투에 대하여 충심으로 경의를 표하는 동시에, 앞날의 역사건설에 가일층의 노력과 건투 있기를 비러 마지않는다.『건대신문(建大新聞)』 1961년 7월 14일〕

(4) 「『건대신문』 지령 200호 기념 축사」

진리 · 정의의 촉광을 더욱 높이…

건대신문 창간호가 나온지 어언 만 10년의 세월이 흘러 이제 지령 200호를 헤아리게 되었습니다. 창간 당시의 학장이요 발행인이었던 본인으로서는 벅찬 심회와 더불어 금석지감을 억제할 바 없습니다.

수복된 당시의 서울거리에는 아직도 초연이 가시지 않았으며, 우리 대학은 낙원동 고소(古巢)에서 불과 수십여 명의 교직원 수백 명의 학생과 함께 비약의 내일을 위한 큰 알(大卵)을 품고 있을 때였습니다. 제반사회적 여건의 제약으로 말미암아 창간 당시의 대학신문은 체재나 발행부수에 있어서는 결코 호화롭고 풍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만, '진리의 길잡이' '정의의 수호자'로서의 기본 정신

은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변함없는 등불이었으며 찬란한 광탑(光塔)이었습니다.

그 후 우리 앞에는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준령과 격랑이 밀려왔습니다만, 우리 신문에게 약속된 길은 오직 전진과 향상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코 우연지사가 아니었습니다. 취재 편집 교정 사진 등 각 부분을 담당하여 주야 진력하여 온 학생기자와 지도책임을 맡으신 교수 제위의 노고 없이 어찌 오늘의 성장을 기할 수 있었겠습니까. 더욱이 독자와 사회 제현의 성원 편달 없이 어찌 오늘의 대발전을 기대할 수 있었겠습니까.

이제 건대신문은 건국대학교 재학생만을 위한 기관지가 아니라, 우리 겨레의 발자취를 비쳐주는 거울이요 우리겨레가 나아갈 앞길을 밝혀주는 이정표의 하나입니다. 그만큼 건대신문의 사명은 무거워졌으며 책임은 가중되었습니다.

여기에서 건대신문은 다시 한 번 성 · 신 · 의의 창간정신을 가다듬고, '진리의 길잡이' '정의의 수호자'로서의 사명을 되새겨서, 그 촉광(燭光)을 더욱 돋우어 주기를 갈망합니다.

200의 촉광이 다시 천배 2천배로 늘어날 때 이 땅에는 무지와 빈곤과 암흑이 일소될 것이며, 그 대신 슬기와 번영과 행복이 가득 찬 세대가 올 것입니다.

그날을 위하여 건대신문의 줄기찬 발전이 있기를 바라며 건대신문 관계자 제위의 끊임없는 건투를 빕니다.〔『건대신문(建大新聞)』 1965년 3월 18일〕

(5) 「『건대신문』 지령 300호 기념 축사: 건국신문은 상아탑 속에 살아 있는 역사의 증인, 건국정신과 개척자 정신의 기수」

건대신문이 이제 지령 300호를 맞이하게 되었으니, 참으로 대견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창간 이래 10개 성상, 문자 그대로 형극의 역정을 더듬어 오면서도 결코 왜곡되거나 굴함이 없이 오늘의 영광된 마루터기까지 이끌어 올리는 데에 있어서 한결같이 애써주신 역대의 관계 교직원 및 학생들에게 우선 이 지면을 통하여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대학신문은 그 대학의 축소도이다'라고 합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본다면, 300호의 지령을 헤아리게 되는 건대신문은 바로 우리대학의 오늘까지의 발전과정을 말하여 주는 생생한 역사의 증인이라고 하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0여 년 전 낙원동 교사의 한 구석에서 태어나 첫 선을 보여줄 때의 감격은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제대로 갖추어지지 못한 여건 하서 갖은 고초를 무릅쓰고 한 장 한 장 지령을 쌓은 건국신문은 나열된 문자로 가득 찼다기보다 정성어린 혈한(血汗)으로 점철되어 있었습니다. 비록 그 체재나 형식에 있어서 미숙 · 불비점이 없지 않았다 하더라도, 무(無)에서 유(有)에로의 창조적 발전 과정에서 지령 300호의 이정표를 세울 수 있었다는 것은 참으로 높이 평가되지 않을 수 없는 일입니다.

초창기의 감격을 이어받은 건대신문은 선배들이 닦아놓은 토대를 발판으로 하여 월간(月刊)에서 순간(旬刊)으로, 순간에서 다시 주간(週刊)으로 비약하는 동안, 정대(政大) · 정대시평(政大時評) · 건대신보(建大新報) · 건대신문(建大新聞) 등으로 제호를 바꾸면서 발전을 거듭한 결과, 오늘에 이르러서는 10,000부에 가까운 발행부수를 가지는 거창한 '대학신문'으로 성장한 것입니다. '대학신문」의 사명이 일반신문의 그것과는 다를진대, 마땅히 제 나름대로의 특징을 지녀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우리 '건국대신문'은 다른 어느 대학신문보다도 앞섰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것은 우리 '건국대신문'은 그 어느 구석에나 우리 대학의 건학정신을 가득히 담고 스스로 새 나라 새 시대의 개척자적인 기수임을 자처하고 나섰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대외적으로는 우리대학을 올바르게 인식시키고 널리 알리는 사명을 꾸준히 완수할 수 있었으며, 또 대내적으로는 학원 내의 그때그때의 새로운 소식을 바르고 신속하게 전달하는 기능을 다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교수나 학생들에게 연구발표를 위한 토론의 광장을 마련하여 줌으로써 우리 대학의 연구적 차원을 높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숙기에 접어든 이 시점에서는 이와 같은 지난날의 소성(小成)에만 도취하지 말고 보다 나은 앞날을 위하여 현실에 대한 냉철한 반성과 분석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사회민심을 흥분과 선풍의 소용돌이 속에 몰아넣는 일이 있는 일반신문의 작풍을 모방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저널리즘'에 터 잡은 사회악들이 대학사회에서 재생되는 일이 없도록 엄히 경계하여야 할 것입니다.

대학신문은 어디까지나 교육적인 차원에서 다루어져야만 합니다. 대학신문은 존재하는 사회의 지침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언제나 새롭고 진진한 국제적 학계의 연구결과나 소식을 신속히 보도하여줌으로써 대학사회의 학구열을 북돋아주는 데에 앞장서야 하겠습니다.

따라서 대학신문은 모든 초점을 있는 상태를 있어야할 상태로 전환시키는 교육적 차원에 맞추어 가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에 비로소 대학신문은 일반신문의 복사판적 인상을 말끔히 씻어버릴 수 있으며, 나아가서 더욱 참신하고 아카데믹한 주체성을 확립함으로써 도리어 일반신문의 선구자가 되어 목탁 구실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건대신문은 우리대학의 민주적 학구 분위기의 지주인 만큼, 300호 지령을 고비로 이와 같은 격조 높은 차원에서 다시금 다듬어져 힘찬 새 출발을 하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우리 건대신문의 앞날에 끝없는 발전과 영광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건대신문(建大新聞)』 1968년 11월 2일〕

2
면학 격려의 글

1) 「정치대학의 역사적 사명」

인식의 세계는 더한층 열리어 18세기 지성이 찾아낸 개성과 19세기 지성이 찾아낸 사회의 두 산물은 다 같이 위대한 발견임에 틀림없다. 이들은 모두가 인격완성의 요소로서 절대성의 가치를 가진 것이나 그 발달과정에 있어서 서로 치우친 면이 많은 사상 · 주의 · 철학을 낳게 되었으니, 먼저 귀족사회 · 전제사회에서 자아를 잃어버린 모든 인류가 개성을 발견하여 인권을 회복하고 자유를 찾아낸 것은 위대한 소득이라 할 것이다.

그러나 개성만의 발달은 결국 개인주의 · 자유주의 · 자본주의의 새 사상과 주의로 흘러 인류사회는 공존공영의 실(實)을 잃어버리고 진보는 파행하며 통제와 질서는 문란하여지고 자유경쟁 속에서 약육강식이 심하여져서 모든 인류는 새로운 고민에 잠겨있을 때 지성은 다시 사회란 위대한 존재를 발견하게 되었다.

사회란 의의가 천명되고 그 정신과 조직이 구현됨에 따라 인류사회는 새로운 진보를 보이며 모든 생의 철학은 다시 이 길로 쏠리었으나 이어 파생하는 많은 주의 주장은 또다시 인류의 머리를 흐리게 하였으며, 점차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회주의 · 전체주의 등은 전체를 중시하고 개인을 무시하며 조직의 기계화와 더불어 개인의 자유와 권리는 이속으로 묶어들고 과도한 통제와 지배아래 개인의 활동과 창조력은 질식되며 사회의 진보에 필요한 적도(適度)의 각자 투쟁과 인간 발전의 상호자극과 작용이 마비되어, 마침내 모든 인류는 또다시 이 고민 속으로 휩쓸려 들어가게 되었다.

그러나 전술한 주의 · 주장 · 사상들은 서로 대립 · 분열을 일으키어 이제는 완전히 주관화한 두 생의 철학 두 생활양식을 가지게 되었으며, 이것은 다시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는 상극과 투쟁으로 벌어져 인류는 이 수라장 속에서 공포와 전율에 싸이게 되었으며 여기에 그렇지 않아도 병들 때로 병든 우리민족이 또한 이 두세계의 싸움 틈에 끼어들어 이중의 고민과 참상을 빚어내고 있으니 슬프다!! 오늘날 우리는 이 인류역사의 무서운 심판대 앞에서 과연 무엇을 생각할 것인가? 반만년 역사의 결전장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하여야 될 것인가?

역사의 수레바퀴를 바로 돌리고 인류의 새 운명을 개척할 자는 오직 교육밖엔 없다. 교육은 인간의 제이의 생명이며 세계의 생명이다. 교육만이 새 인간 새 사회를 만들어 낼 수 있고 새 세대 새 방향을 결정할 수 있다.

전술한 두 세계가 다 같이 오늘 인간생존에 적자(適者)가 아니라면, 다음 적자란 무엇이 될 것인가. 이 적자를 골라서 오늘 이 모순과 상극이 가득 찬 두 세계의 역사에 종지부를 찍고 새로운 세계로 이끌어나가게 하는 것도 오로지 교육이 할 일이다.

정치대학이란 그 이름부터가 남달리 이 사명을 걸머진 이름이며 걸머지기 위하여 지은 이름이다. 모든 사회현상을 연구 파악하여 새 인간 새 사회 새 학문을 발견하여 보자는 데에 그 의의가 있다.

그러므로 우리대학은 현재 이런 일반교양학과 이외에 다시 정치 · 경제 · 사회 · 외교 · 행정 · 법률 등 사회과학의 각 부문에 걸쳐 학술의 심오한 이론과 그 광범하고도 정치한 응용방법 등을 교수 연구하여 (1) 인격을 완성하고 (2) 자율적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기술을 무장하며 (3) 공민으로서 조국과 인류를 위하여 봉사하기에 적응할 자격을 함양하는 데에 필요한 모든 지식을 공급하는 한편, 다시 나아가 우리 대학에 부과된 시대적 명제에 대하여 또한 연구와 노력을 쌓고 있는 바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이 민족의 비극이며 인류의 고민인 모든 문제를 연구하기 위한 전제로서, 다음 세 가지의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이 과제는 우리대학이 계속하여 연구할 '테-마'의 하나이다.

(1) 학문의 연구

새 인간 새 사회를 연구하려면 먼저 이에 적응할 학문의 연구가 필요하게 된다.

무릇 '학(學)'에는 규범학과 기술학의 두 형(型)을 가리게 되며, 이 규범학에서 다시 선험과학을 제외한 철학계통을 추리고 기술학에서 다시 자연과학을 제외한 사회과학계통을 뽑아서 이 두 계통을 배 맞추어 다음의 연구를 하여보려는 것인데, 먼저 우리는 사회과학연구에서는 어느 때나 정치현상을 중심으로 모든 사회현상을 연구하려 한다.

이것은 정치는 모든 사회현상의 집중적 표현일 뿐만 아니라 그 구심적 존재로 역사적 산물이며, 역사는 그 기록이 되기 때문에 인간을 알며 사회를 알고 또 그 관계를 파악하며 또는 그 사실과 진리를 탐구하고, 이론과 법칙을 세우는데 있어서 어느 때나 여기에 초점을 두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정치적 현상에서 연구를 시작하여 연역적으로 모든 사회현상에 이르되 이를 객관적 몰가치적 · 과학적 입장에서 취급하여 그 현상을 현상 그대로 파악하고 진리와 사실을 탐구한 다음, 이번에는 이것을 일반 사회현상으로부터 귀납적으로 정치현상에 이르는 연구방법을 취하는 동안 주관적 · 가치적 · 철학적 입장에서 기탄없는 비판을 가하여 인간 대 사회의 인과관계를 완전히 규명하는 동시에, 여기에는 모두 윤리성을 부과하여 참된 인간의 새 사회를 구분함으로써 새 인간 새 사회를 낳도록 하는 데까지 귀착하게 된다. 그러면 참된 것의 표준은 무엇인가? 이것이 우

리가 금후 연구 · 규정하려는 시대성을 띤 인간형과 사회형이 되게 될 것이다.

그 다음 제2의 연구로서 현대교육은 지적(知的) 교육에 편중하고 덕육(德育) 교육을 경시한 까닭으로 인격완성에 지장을 준다. 인격은 개성과 사회성의 이중성질로 된 것인데, 지적 교육에서 개성의 면은 잘 발달되나 사회성의 면이 이지러져서 마침내 파행 인격자를 내게 된다. 그리하여 일종의 기술적 · 기계화한 인간에 지내지 않으며, 이중의 인격자를 만들어낸다. 이것이 오늘 사회를 병들게 한 원인의 하나이다.

그러므로 전술한 현상연구에서 모든 것을 주관화 · 가치화하여 연구하는 태도는 동시에 덕성교육을 복선화하는 방법이 되게 된다. 대학교육에서는 실제로 간접적 덕성 교육이 유효한 방법으로서 모든 객관적 현상을 주관적 가치화(이것은 사회과학을 철학화할 때는 그리되게 됨) 할 때, 비로소 이해와 증오와 동정이 성립되어 지금까지 과학적 태도에서 냉연(冷然)하던 자신이 열중화 하여 곧 그 현상 속에 뛰어들어 예리한 메스로 비판과 해부를 하여 그 자신이 느끼는 흥분상태는 결국 새로운 세계에 부닥치게 된다.

이 세계야말로 바로 우리가 뜻하는 정조(情操)를 포함한 세계이다. 정조는 사회의 흥분상태이며, 정서의 바로 윗 계단이요, 감정의 최고 형태이다. 정조 가운데서도 동정과 박애의 두 면은 다 같이 인격이 사회화를 이루는 중심계단이 되게 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학문연구에서 한편으로는 지식을 연마하는 동시에 인격 완성을 위하여 덕성(德性)을 함께 연마하여야 한다. 이 연구가 바로 다음에 연구하려는 인간과 사회의 모체가 되는 것이다.

(2) 인간의 연구

우리가 모색하는 인간이라는 것은 인격을 완성한 인간을 말하는 것이다. 인격은 개인의 주격이자 사회의 주역이다.

무릇 사람은 선천적 · 본능적 소질과 후천적 환경의 두 속에서 교통 · 충돌 · 제시 · 토의 · 적응 · 동화 · 사회화 등의 복잡한 과정을 통하여 개성과 사회성의 두 면을 나타내게 되며, 이 두 면을 고루 완성하게 되는 것인데, 이 자연적 요소와 사회적 환경의 두 길에서도 여러 가지 영향을 받을 것이나, 전술한 바와 같이 현대교육이 주는 영향이 막대한 지장을 주고 있다. 지적 교육의 편중은 확실히 파행인격자를 만들며 이중인격자를 형성한다. 하나는 개인화한 인격자요, 다른 하나는 사회적 인격자이다. 이 사회적 인격자라는 것은 사회화한 인격자와는 판이한 것으로서 파렴치범도 이 인격은 가졌다.

오늘날 개인도 사회도 국가도 세계도 다 같이 이기주의증에 걸린 것도 요는 사회적 인격을 간판으로 한 개인화한 인격자 때문이다. 보라! 정권 유지 · 획득 투쟁과 거기에 부수한 명예, 지위, 이권욕에 눈이 빨간 사람들이며, 하다 못하여 그대로 깨끗하여야 할 종교가나, 교육자마저 사리사욕의 주구가 되는 판이니 슬프다! 이러고도 바로 될 수 있을까?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이중인격자들을 바로잡아서 정말 사회화한 인격자를 만드는 것이 오늘 이 민족이나 인류의 고민하는 주증(主症)을 퇴치하는 첩경이 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대학은 이 자연적 요소와 사회적 환경에 대하여 특별한 연구와 고찰을 요하며, 또한 전술한 학문연구의 이론과 실천에 의하여 개성과 사회성의 두 면을 고루 완성하여 사회화한 인격자를 만들어 보자는 것이다. 인격을 등한시하고는 사회를 바로잡을 길이 없다. 인격은 사회의 주역이며 사회는 인간으로써 지은 집이다. 인간이 부패하면 사회가 부패할 것만은 틀림없다. 사회화한 인격자란 자기를 위하여 살기도 하지만 남을 위하여 사는 인격자다. 다른 사람의 생 속으로 뛰어 들어 정의를 위하여 싸우고 남을 생각하고 남을 돕고 동정하며, 박애로 사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의 가슴속에는 동포나 인류의 심장이 뛰놀고 그 맥박이 온몸에서 느껴지는 사람이다. 우리가 찾는 인간형이 바로 이 인격자가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우리대학의 정신이 실로 이 나라 지도자 양성에 있느니만치, 우리는 이 지도자로서의 가질 인격에 있어서 남다른 유의를 하지 않을 수 없는 바이다.

무릇 지도자로서의 유형을 든다면 (1) 봉사형의 지도자 (2) 영웅형의 지도자 (3) 지적형의 지도자 (4) 실행형의 지도자로 나눌 수 있고, 이를 달리 분류한다면 (1) 건설자 (2) 조종자 (3) 발기자 (4) 대표자 등으로 나눌 수 있다.

① 건설적 지도자, 이는 그 사회의 최대이익을 찾아 그 방면으로 지도하려고 노력한다. 이기적 욕망은 금물이며, 그 전 관심은 오로지 그 사회의 복리에 있고 공존공영을 돕는 데 있다. 그리고 그 사회를 구하기 위해서는 자기 명(命)을 바치기를 주저하지 않으며 일단 그 사회에 알력과 불의와 침체가 있을 때에는 그 원인을 가리어 부흥의 길을 열어주고, 적대자에게 대하여서도 사회적 정신을 흐리지 않도록 인도하며 어느 때나 상대자에게 무시 대신 이해를 악의 대신 호의를 투쟁 대신 조직을 앞세우는 등의 모든 이상을 그 생활에 구현하는 지도자이다.

② 조종적 지도자, 이는 그 사회의 감정에 예민하며 그 사회의 요구를 잘 표현하는 능력을 가졌다. 그는 웅변 혹은 기타의 능한 솜씨로 인기를 끌며 정치적 지위와 금력까지 얻게 된다. 그러나 일단 그 사회의 신뢰를 얻은 다음에는 이어 이를 강제하여 자기개인의 뜻을 수행시키며 급기야 모든 것을 이기주의화 시키고 만다. 그 결과, 멀지 않아 자기 자신도 파멸을 당하며 사회도 파괴의 운명을 면치 못하는 것이 보통이다.

③ 발기적 지도자, 이는 위대한 사상의 생산자거나 또는 사상의 소지자다. 그는 이 사상에 입각하여 모든 사회를 조직하기도 하며 사상과 주의로 인도하기도 한다. 이런 지도자는 다시 많은 지도자를 만들어내기도 하며, 그 인격에 크고 풍부한 발전을 주기도 한다. 그리하여 한 사회의 구세주도 되며, 한 사회의 혼돈과 대립의 장본인도 된다.

④ 대표적 지도자, 이는 그 사회의 구성분자의 공식 표시된 의견과 또한 표시되지 않은 감정의 구상인 동시에 그들의 의견의 대변자다. 그러나 일반민중이 특수한 전문적 지식을 가지지 않은 한 그들의 태도를 일일이 표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리하여 이런 대표자는 흔히 명색 대변자에 불과하고, 일종의 조종자로서 질이 떨어져 한 사회의 걱정거리가 되는 일이 많다.

이상 네 가지 유형 중 우리대학은 두 말 할 것도 없이 전술한 건설적 지도자를 목표로 하여 그 인격 도야에 대한 연구를 지금 쌓고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우에 다시 어느 때나 ① 솔선의 기상 ② 확고한 자기주장 ③ 견인불발(堅忍不拔)의 인내력 ④ 민활한 두뇌와 정력의 소지 ⑤ 부단한 주의집중 등의 다섯 가지를 또한 그 인격에 보태, 참 되고도 유능한 건설적 지도자를 만들어 내려고 노력하는 것이다.

(3) 사회의 연구

인간은 집단생활의 산물이기 때문에 자연히 사회적 자극에 반응하며 호상 작용한다. 그리고 이것은 필연적으로 사회생활로 옮기며, 새 사회로 발전한다. 그러므로 사람은 사회를 떠나서 살 수 없다. 사회는 인간의 집〔家〕이며, 인간은 자기 손으로 이를 짓고 또 자기가 산다.

이처럼 불가분의 관계를 가진 사회를 우리는 어떻게 지어야 꼭 들어맞는 집〔家〕이 될 것인가. 여기에는 적당한 요소와 조건과 균형이 필요하게 된다. 그런데 사회 발생 과정에서 볼 때, 자타의 구분에서 개성이 생기고, 자타의 공통에서 사회가 생겼다. 그러면 전기 요소와 조건과 균형은 공통을 포함하면서도 개성과 사회성의 양면이 또한 균형 · 조화 · 발전을 얻는 사회의 건축이 오늘 우리의 연구대상이 되는 사회가 되게 될 것이다. 오늘 세계는 혹은 개성에 혹은 사회에 편중하여 이 요소와 조건과 균형이 맞지 않는데서 병들었다

① 자유와 평등의 사회

자유와 평등은 새 사회 건설의 원칙이며, 우리의 기본정신이다. 그러나 양자를 잘 조화하며 균형을 취하는 데에 우리의 연구가 필요하다. 원래 개성을 주로 하는 사회는 자유를 원칙으로 하고, 사회성을 주로 하는 사회는 평등을 원칙으로 한다. 그런데 자유의 세계에는 우열에 불평이 있고, 평등의 세계에는 똑같이 하자는 데에 불평이 있다.

이 두 불평을 해결하는 방법이 자유와 평등을 한 사회의 건축재로 쓸 수 있는 요점이 되게 된다. 위에 말한 자유의 평등은 또한 한 개인의 인격구성의 요소인 개성과 사회성의 대외적 발전의 양면이다. 즉 개성이 자유를 낳고 사회성이 평등을 낳았다. 그러므로 한 인격이 개성과 사회성의 두 면으로 성립한 것과 같이 사회도 자유와 평등의 양 면으로 성립하여야 될 것이며, 우리가 위에서 인격완성을 고루하기 위하여 논한 것과 마찬가지로 사회완성을 고루하기 위하여 가장 힘써야 한다. 인격요소〔개성과 사회성〕와 사회구성 요소〔자유와 평등〕와 서로 일치하는 곳에 우리는 특히 연구의 가치를 두어야 한다.

② 사회의 지배력

사회의 지배력 또는 통제력에 대하여 집단정신은 인간성의 원칙이다. 그러므로 그 정신이 곧 지배자가 된다. 개인은 누구를 지배 할 수도 없고 지배를 받지도 않는다. 그러나 사회에는 자연적으로 지배력이 발생한다. 이 지배나 통제는 사회의 진보에 절대 필요한 조건이다. 자체를 보호하고 개체의 정력이 사회 파양의 방면으로 낭비를 막기 위하여 필요하다.

그러나 문제는 적도(適度)에 있다. 너무 엄혹한 통제는 개인의 창조력과 활동이 질식되고 진보가 마비되며, 너무 이완한 통제는 집단의 통일이 위험하고 질서가 문란해진다. 그리고 통제가 기계화하여서는 안 되고, 어느 때나 건설적이며 의식적으로 사회화되어야 한다. 오늘 인류의 고민이 여기에 있고 가장 미해결 과제의 하나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연구할 것은 (1) 통제의 정도 (2) 통제의 방법 (3) 통제의 수단 (4) 통제의 량 외에 질과 시간 등이다.

현재 일반통제 요소로서 (1) 인습 풍속 (2) 신념 도덕 종교 (3) 법률 (4) 정부 (5) 교육 (6) 예술 (7) 여론 등인데, 특히 새 사회의 건설, 민족성의 개조 등에 있어 가장 주목할 곳이다.

③ 치안 정책

이것도 역시 통제의 한 종목이나, 특히 집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사회의 안전과 보장에 대한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안전과 보장이 확립되지 않고서는 경제생활을 위시하여 모든 생활이 불가능하다. 치안의 사회화에 대한 문제가 그 초점이다. 그러므로 우리대학은 금후 치안 연구에 대한 특별한 연구 부문을 설치하여 보려고 한다.

④ 경제 문제

이 문제야 바로 오늘 인류의 고민이며 새 사회건설의 표주(標柱)가 된다. 각인의 생활이 현재 가능할 뿐만 아니라, 어느 때나 유지 · 발전하여야 한다. 오늘 모든 사회문제는 여기서 발단되며 모든 혼란과 위기를 또한 빚어내고 있다.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여야 될 것인가. 여기 대하여 여러 가지 주의 · 주장도 있으며, 사상과 정책도 많으나 우리로서 우선 생각하여 볼 것은 두 가지 길이 있다.

하나는 경제 사회의 균형 문제이고, 다른 하나는 경제 사회의 발전 문제이다. 전자는 사회 정책적 입장에서 연구하여 보려는 것이며, 후자는 문화 정책적 입장에서 연구하여 보려는 것이다. 사회정책에서 계급 대립의 문제와 사회적 결함 및 노동 문제 등을 연구하여 사회적 균형을 맞추기에 힘쓰고 문화정책에서 경제의 내적발전을 위하여 교육 이외에 특히 과학의 원리를 실지화 · 응용화하여 적은

곳부터라도 우리 생활을 재건하도록 하는데서 경제사회의 발전을 도모하여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 사회정책이나 문화정책 실시에 있어서, 이것은 일반 국민이 자발적으로 행하여지지는 않는다. 반드시 지도자를 필요로 한다. 지도자에 있어서도 기술적 지도자는 제2의 지도자가 될 것이며, 정책적 지도자가 가장 필요하다. 그러므로 우리대학은 이 정책적 지도자 양성을 위하여 금후 사회정책과 문화정책에 걸쳐 특별한 연구를 해보려 한다. 나도 여기 대하여 약간 생각한 것이 있으나, 이것은 후일 논급하기로 한다.

⑤ 조직과 통일

'19세기는 조직의 시대라'고들 세인은 말하였다. 그렇다면 우리는 20세기를 통일의 시대라고 말하고 싶다. 조직과 통일은 다 같이 사회 완성의 두 요소로서 조직에 의하여 통일이 완성하고, 통일에 의하여 조직이 작용한다. 그러므로 이 두 가지는 불가분의 동체이면(同體異面)임에 틀림없다. 그런데 굳이 조직의 시대와 통일의 시대를 나누어 말하는 것은 무슨 까닭인가? 이것은 우리 개념에 움직이는 경향을 말하는 것으로서 19세기는 주로 조직에 힘썼고, 20세기는 주로 통일에 힘쓴 까닭이다. 아닌 게 아니라 사회가 발견된 이래 이 경향은 세계적으로 되며 19세기에는 수많은 조직이 생겨났고, 20세기에 와서는 정리 · 통일에 분망하고 있다.

그러면 이제 두 현상 가운데서 우리가 생각하여 볼 것은 무엇인가? 문제는 조직과 통일의 합리화에 있다. 한쪽으로의 경향은 사회의 완성에 지장을 준다. 오늘 UN의 이상을 보라. 조직은 완성하였으나, 통일은 완성하지 못하였다. 이것은 그 조직과 통일이 합리화를 얻지 못한 까닭이다.

우리는 한국 내에 있어서도 이 조직과 통일의 문제는 우리의 운명과 발전을 좌우하는 중대한 과제를 주고 있다. 우리는 여기에 대한 새로운 연구를 쌓아야 될 것이며, 기술한 (가)(나)(다)(라) 각 요소와 조건의 합리화적 조직에 의한 통일된 사회연구에 또한 심심한 고민을 가져야 한다.

⑥ 결론

우리대학은 전술한 학문과 인간과 사회의 연구에 있어 강당을 통한 이론교육과 연구실을 통한 각 목적연구에 다시 사회과학의 실험연구를 목적으로 교육도장과 연구실 · 숙사를 병치하고자 계획한다. 이것은 집단생활을 통하여 있는 기회와 실련(實練)을 주자는 데 있다.

이것은 앞날 이 민족을 다시 살리고 인류의 고민을 해결할 거룩한 투사를 배양하며, 새 국가의 '집'을 짓고 인류의 '집'을 지을 거장을 만들어 낼 역사적 사명을 다하기 위한 모든 준비라고 볼 것이다.

이상이 우리대학의 역사적 사명의 개관이다. 이제 끝으로 이번 졸업생 제군에게 나는 '마음으로의 선물' 하나 씩을 주고자 한다. 이것은 인격 측정기로서 여기에는 개성과 사회성의 두 수은주가 서 있다. 개성에 치우칠 때에는 개성의 수은주가 높아질 것이며, 사회성에 치우칠 때에는 그와 반대될 것

이다. 그런데 우리대학의 표준도수는 어느 때나 사회성의 쪽이 높은 사회화한 인격도수가 되지 않으면 안 된다.(『정대(政大) 1호(졸업기념호), 1952년 4월)

2) 「자유세계와 공산세계는 공존할 수 있는 것인가?」

객년(客年)에 '스타린'은 말하기를 두 세계는 공존할 수 있다 하였다. 그러나 우리가 찾아본 공산세계의 지도이념 가운데서는 이를 발견할 수 없다. 일찌기 106년 전 '칼 · 맑스'가 「공산당선언(共産黨宣言)」을 발표한 이래 그 이념은 다시 실천으로 자유세계를 전복시키기 위한 모든 싸움은 날로 심하여져 갔으니, 그 동안 국내적으로는 투쟁과 혁명의 과정을 거쳐 발전하여 왔고, 국제적으로는 선전과 조직작전을 통하여 침투하여 왔으며, 근년에 이르러서는 미인(美人) '빠나도, 빡크' 박사가 말한 소위 '냉전(冷戰)'과 긴장의 세계에서 다시 열전(熱戰)의 한 단계로서 오늘 한국의 동란마저 보게 된 것이다. 이것이 이른바 세계혁명(世界革命)의 한 과정으로서, 제2차대전 전까지는 '제3인터내쇼날'(국제공산당)의 지도아래 행하여졌고, 2차대전 중 미국의 요청(미국이 유럽 참전의 대가로)에 의하여 일시 폐지하였다가, 근년에 와서는 다시 콤민포름의 이름으로 세계혁명을 지도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 무슨 까닭으로 이와 같이 세계혁명을 완수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는 것인가? 원래 자유세계와 공산세계는 그 사회적 구조에 있어서 발판으로부터 상층에 이르기까지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니, 자유세계를 전복하지 않고서는 공산세계를 건설할 수 없는 까닭이다.

이제 우리는 106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맑스'가 세계혁명을 기도하게 된 사상적 고찰부터 하여 보기로 하자. 1848년 불란서 제3차 혁명운동에 참가하기 위하여 그 전년에 독일로부터 파리에 오게 된 '칼 맑스'는 이해 11월에 '공산주의동맹(共産主義同盟)'으로부터 선출되어, 그 우인 '엔겔스'와 더불어 「공산당선언」을 기초하게 되었으며, 그 다음해 1월에 이를 세상에 내 놓게 된 것이다. 이 「공산당선언」은 저 유명한 유물사관(唯物史觀)의 구체적 형(形)을 이룬 것으로서, '맑-스'의 국가관을 보인 것이며, 또한 노동자 단결의 철학이 되며, 나아가 노동국가 건설의 설계 또는 강령이라 볼 수 있다.

이제 이 「공산당선언」에서 '맑스'가 보인 국가관의 1절을 보면 "우리는 현존 사회 내에서의 숨은(隱) 내란으로부터 공공연한 혁명을 거쳐 푸로레타리아가 기존사회를 폭력적 수단으로 전복하고 자기의 지배를 수립하기까지에 이르렀다가, 우리는 노동자계급의 제1계단이 '데모크라시'를 극복하고 자본계급로부터 자본의 전부를 탈취하기 위하여 지배계급으로서 조직된 푸로레타리아 국가를 가지는 일과 생산의 모든 기관을 그 장중(掌中)에다 넣어 생산력을 증가하기 위하여 정치적 우월을 사용하는 일들이 되게 된다."

그리고 다시 한 구절 더 쓰면 "푸로레타리아야 말로 유일한 혁명적 계급이다. 현존 지배권을 완전

히 환치(換置)하기 위하여 노동자 및 피착취자는 단결하여 투쟁할 유일의 계급인 것이다"라고 또한 말하였다.

이상은 모두 맑스의 국가관 · 노동자 단결 · 노동국가 건설강령 등의 일반(一斑)을 보인 것이다. 이것이 바로 맑스가 자유세계를 전복하고 푸로레타리아 독재국 수립의 관념을 선명히 공식화한 일절이 되게 된다.

그런데 이 국가관은 '맑스'가 그『철학의 빈곤』에서 보인 제계급의 소멸과 동시에 국가도 소멸한다는 설과, 그 우인 '엔겔스'가 국가기관은 공산사회의 박물관에서 '문레'나 청동도끼 옆에 놓여져 있으리라고 한 국가관과는 시간적으로도 확실히 그 이후 일이 되는 데서 우리는 특히 주목을 끌게 되는 바이다.

그 후 '맑스'는 다시 그 이듬해(1849) 벨기에(白義耳)를 거쳐 영국의 수도 런던(倫敦)에 가서, 유럽의 역사와 경제 상태를 관망하면서 20년간을 연구생활을 조직하는 동안, 기자(旣者)인「공산당선언」이외에 다시『경제학비판』『자본론』등의 대저(大著)를 내어 자유세계에 대한 무서운 배전(排轉)을 가하게 된 것이다.

그러면 이제 '맑스'가 이런 사상을 낳게 된 동인은 과연 무엇일까? 우리는 여기서 한 번 다시 그때 그 사상의 시대적 배경을 일순(一瞬)함으로써 두 세계의 사상적 발원지를 밝히어두는 동시에, 또한 우리 민주주의의 개선을 위한 연구에 참고재료로 하자.

즉 그때의 자유세계는 한창 '자연법학설(自然法學說)'에 입각한 '천부인권설(天賦人權說)'과 '사회계약설(社會契約說)' 등의 자유이념을 발판으로 한 자유주의 · 입헌주의 · 인민주권 등의 정치운동의 결과로서 구라파의 모든 국민은 정치적 자유를 획득하게 되었으며, 독일 관념론철학은 여기에 발을 맞추어 모든 알맞는 이론을 제공하여 쌓아올린 정치 · 경제 · 법률 등의 새 제도 · 새 구조를 가진 이 자유의 세계는 한때 찬란한 발전을 기하였으니, 즉 개성에 눈뜬 모든 사람은 개성의 신장과 더불어 개인주의 · 이기주의로 내달아 자유경쟁 속에서 우승열패를 일삼으며, 고립적 우립성(優立性)과 주관적 의사의 편중은 더욱 개인의 완성에 박차를 가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결국 제1의적 존재와 근원적 가치를 개인에게서 구하게 되며, 국가는 하나의 수직(守直)의 기능임에 불과하였다.〔이것이 위위(謂爲) 번견주의(番犬主義) 야경국가(夜警國家) 운운하는 것〕 이러한 정치체재 하에서 모든 국민은 자유로운 자기발전 또는 경제적 활동을 행하게 되었으며, 각자의 창의와 노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게 되었고, 더욱 학문의 자유에서 나오는 자연과학의 발흥은 모든 기계의 발명을 촉진하게 되었고, 이 기계를 생산에 응용함으로써 갑자기 생산의 대변화 · 대격증을 가져오게 되었으니, 이것이 소위 유명한 산업혁명(産業革命)이며, 그 결과 많은 공장의 시설과 더불어 생산은 기업화하여 대자본을 요하게 되니, 이것이 소위 자본주의경제를 형성하게 된 소이(所以)이며, 경쟁은 날로 심하여지어 대규모 공장의 시설과 더불어 대자본만이 발전할 수 있는 반면, 수공업이나 소자본은 이 경쟁에서 자연 낙오하지 않을 수 없게 되니, 이것이 소위 독점경제를 형성하게 된 소이이며, 부익부가 되게 되니 여기서 소위 부(富)의 집중을 가져오게 된 것이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일반대중은 도리어 무산자(無産者)로 전락하게 되었으며, 생산과잉에 따르는 공장 스톱과 더불어 실업과 공황은 날로 심하여져 가게 되니, 모든 국민의 정치적 자유와 법률적 평등도 이런 불평등한 경제적 사실의 앞에는 그 실질적 의의를 상실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그리하여 이 사회에는 갖은 불균형 불투명성을 가져오게 되었으며, 이것은 기타 유산자와 무산자의 계급의식마저 발생하게 되었다. 이것이 근대 자유주의가 낳은 사회적 결함이었으며, 이 결함은 18세기를 거쳐 19세기 중엽에 이르러 더욱 절정에 달하였으니, 이 시기에 바로 실업과 공황에 허덕이는 노동자군을 그 안전에 바라보는 '칼 맑스'는 딴 사상을 가지게 되었으니, 즉 자본주의를 토대로 한 자유주의국가는 유산계급의 조국은 될지언정 노동자의 조국은 아니라는 견해에서 노동자의 조국을 설계하게 된 것이 바로 과학적 사회주의가 되게 된 것이다.

그리하여 개인 본위사상 · 사유재산제도 · 자유경쟁 등의 모든 제도를 내포한 자유세계를 그 발판으로부터 상층에 이르기까지 완전히 전복하고 그 터전에 다시 새로운 세계를 건설하되 종래식의 이상적이나 개조식의 사회주의가 아니고, 아주 과학적인 사회주의를 건설함으로써 노동대중의 영원한 과학적 지상천국을 만들어보려는 것이었다.

그리하여 과학적 사회주의 건설에 절대한 부심을 한 결과, 봄이 가면 여름이 오고 여름이 가면 가을이 오는 자연과학적 필연적 법칙을 사회의 필연적 진화론에 적용하여 이를 꾸며 올리게 되었고, 이 법칙을 증명하며 설명하기 위하여 유물변증법(唯物辨證法)과 유물사관(唯物史觀)을 내놓게 된 것이다.

위선 유물변증법부터 잠간 설명하고자 한다. 이 변증법은 마치 우리 인간의 운명을 감정하는 사주(四柱)와도 마찬가지로 인류역사의 운명을 판정하는 데 쓰여졌다. 이 법이 오늘 공산주의의 공식화에 전역군(全役軍) 노릇을 하고 있는 것이다. 변증법은 고대에도 있었으나, 근대에 와서 '헤-겔'을 거쳐 '맑스'에 이르러 동적(動的) 유물주의를 토대로 한 유물변증법으로 된 것인데, 이 법의 논거는 우주의 모든 존재는 동적 상태로 본 것이다.

'헤-겔'은 "만유(萬有)를 영구의 발전으로 보았고" '맑스'는 "사회를 영구의 발전으로 보았다." 전자는 유심(唯心)이며, 후자는 유물(唯物)이다. 그러면 동적 요소란 무엇인가? 한 개의 존재는 반드시 긍정적 요소와 부정적 요소의 통일체로 된 것인데, 시간의 경과와 더불어 부정적 요소가 점차 발로하여 이것이 어느 한계에 도달하면 지금까지 양적 변화로 되던 것이 질적 변화까지 일으켜 소위 비약하여 긍정적 요소를 극복하고 별개의 존재로 전화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고대의 사회(긍정)에서 봉건사회(부정)가 생겨 나왔고, 고대사회는 소멸되며 봉건사회(긍정)에서 자본주의사회(부정)가 생겨 나왔으며, 봉건사회는 소멸되는 등의 부정에서 부정으로 발전하여 간다는 것이다.

이것이 이른바 정반합(正反合)의 법칙이다. '맑스'의『자본론의 서문』에서 "나의 변증법적 방법은

'헤-겔'의 것과는 근본적으로 상이할 뿐만 아니라 전혀 상반하는 것으로서 '헤-겔'은 사유과정(그는 과정을 '관념'이라 칭하여, 독립적 존재물로 함)은 현실세계의 창조주가 되며, 현실은 단지 이 사유과정의 외적현상에 불과하다 하였으나, 나는 이와 반대로 관념세계라는 것은 필경 물질세계가 인간의 두뇌 속에서 변화되고 번역된 것에 불과하다 하였으니" 전자는 유심(唯心)에 의하여, 후자는 유물(唯物)에 의하여 각각 변증법적 방법을 달리하는 것을 말한 것이다.

그리고 '맑스'는 "이 변증법은 뿌르죠아에 대하여는 고민 공포의 표적이 된다. 왜냐하면 현존사태의 긍정적 이해 중에서 현존사태에 대한 부정적 이해 즉 필연적 소멸이 내포된 까닭이다" 라고 말하였다. 다시 말하면 뿌르죠아는 필연적으로 소멸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이어 이 변증법은 역사적으로 발전한 모든 형식을 부단히 활동하는 것으로 하여, 과정적 방면으로 고찰할 때, 그 자신이 비판적이며 혁명적이라고"까지 말하였다. 그리하여 '맑스'는 이 유물변증법적 이론을 사관(史觀)에 적용하여 구주의 역사를 설명한 유물주의 역사철학이 바로 유물사관이다. 물론 '맑스'를 위시하여 '데포링' '부하링' 등은 이것은 철학이 아니고 과학이라고 변명한 기록이 많다. 철학이 될 때에는 한 개인의 신념이 되고, 과학이 될 때에는 만인에게 공통이 되기 때문이다.

유물사관에서 사회진화론을 자연과학적 법칙에 의거하여 증명하였으니, 즉 겨울이 가고 봄이 오며 봄이 가고 여름이 오는 것과 같이 봉건시대가 자본주의시대로 되고 자본주의시대가 사회주의시대로 되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막을 수 없다고 말하였다. 이것을 사회진화의 필연성이라고 일컬었다.

이 유물사관은 두 가지 형(形)으로 나타났으니, 그 하나는 추상적 형이요, 다른 하나는 구체적 형이다. 전자는 경제학 비판의 서문이 되게 되며, 후자는 바로 공산당선언이 되게 된다. 전자는 법칙의 형으로서 사회진보의 순서를 말하였고, 후자는 이 법칙을 구주의 역사에 적용시킨 것이다.

여기서 인류의 역사(구주)를 4기로 구분하였으니, 제1기는 아세아시대(바비론, 앗시리아, 에집트 등의 시대) 제2기는 고대(희랍, 로-마 시대) 제3기는 봉건시대, 제4기는 자본주의시대이다. 그리하여 슬프나마 인류의 전사(前史)는 이 사회조직으로써 종언을 고하게 된다는 것이며, 후사(後史)의 전개가 바로 사회주의세계가 되게 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공산당선언」에서 계급투쟁사를 말하였으니 "즉 유사 이래 사회의 역사는 계급투쟁의 역사이다. 자유인과 노예 로-마의 귀족과, 평민영주와 농노, 억압자와 피억압자가 반대의 지위에서 혹은 비밀히 혹은 공공연하게 투쟁하여 왔으며, 이 투쟁은 결국 사회의 혁명적 개조를 가져 오거나 불연이면 투쟁계급 전체의 공멸이 되는 것이 보통이다.

그런데 금일의 투쟁은 뿌르죠아 대 푸로레타리아 투쟁인데, 이 투쟁에서 푸로레타리아 승리로 되어 계급이 소멸한 자유의 사회가 되는 것이다"라고 말하였고, 다음 '맑스'의 경제학비판에서 "생산관계의 총화는 사회의 경제적 구조" 즉 진실한 기초를 구성하며, 그 위에 법제상 · 정치상의 상층건축이 서게 되며, 또한 여기에 일정한 사회적 의식형태가 적응하게 된다. 그리하여 물질적 생활을 위한

생산방법은 일반적으로 사회적 · 정치적 · 정신적인 생활과정을 조건지우며 지배한다. 즉 사회적 존재가 인간의 의식을 규정한다"라고 말하였고, 다시 "사회의 물질적 생산력은 발달의 일정단계에서 현존의 생산관계 또는 소유관계와 충돌한다. 이때에 사회혁명의 시대가 오는 것이다. 그리될 때에는 지금까지의 경제적 기초의 변동과 더불어 거대한 상층건축은 모두 서서히 혹은 급격히 무너진다. 그러나 한 사회조직 내에 생산력이 여지있는 한 발전하여 끝나기 까지는 결코 멸망하지 않는다."(이것이 '스타린'이 말한 아직 두 세계 공존설인지는 모른다)

"그리고 이 생산관계의 진보단계는 아세아적 고대적 · 봉건적 · 근대자본주의적 생산방법으로써 되게 되며, 이 자본주의적 생산관계는 사회적 생산방법과의 반목적적 형태를 취하게 될 때 최후가 된다. 이 사회조직으로써 인류사회의 전사는 종언을 고하게 된다."

"이상과 같이 인류역사는 발전하여 제4기인 자본주의 사회조직으로써 인류의 전사가 종언되고 그 다음은 사회주의시대로 되어 모든 계급대립도 착취도 없는, 그리고 국가도 법률도 독재도 필요치 않으며, 노동은 예술화하여 각인의 능력에 의하여 일하며 각인의 필요에 응하여 분배가 보장되는 사회로 되어, 모든 인류는 필연의 세계에서 자유의 세계로 비약하게 된다. 그리하여 인류의 역사는 이것으로써 대단원이 되고 만다"라고 하였다. 이것이 바로 '맑스'의 노동국가건설의 이상이며 공산주의의 미래상이다.

이상은 공산주의 신봉자들의 절대한 신념이며, 유물사관은 일종의 성서로 받들고 있고, 이 신념을 위하여 생명을 가볍게 바치는 것이며, 이 이상의 실천을 위하여 투쟁 또는 혁명적 수단을 취하게 된다. 원래 유물사관적 목적은 경제적인 것이었으나,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는 어느 때나 정치적인 것이 된다. 그러므로 금일의 공산주의를 혁명적 사회주의라고 별칭하는 소이도 여기 있다.

그러므로 이 유물사관적 필연적 공식에 의하여 본다면, 오늘 한국의 동란도 다른 지역의 동란도 필연적 진화과정의 하나이다. 자유세계에서는 무서운 침략으로 보지마는 저네들로 볼 때에는 필연적 혁명과정인 것이다.

그러면 과연 인류의 전사는 종언이 되고, 자유의 세계는 자연과학적 필연적 진화론에 의한 일정한 공식적 법칙에 의거하여 소멸되고 말 것인가? 물론 유물사관적 변증법에 의한다면, 자유세계는 두말 할 것 없이 소멸되고 말 것이니, 공산세계 측에서 볼 때에는 제아무리 덤벼도 별 수 없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을 것이며, 작년 '스타린'이 말한 두 세계 공존설은 상술한 물질적 생산관계가 자유세계에 남아있는 한 끝나기까지는 아직 당분간 버틸 것이라는 '맑스 저' 경제학비판의 해석에서 나온 것이라고 믿어진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여기서 냉찰(冷察)하여 보자.

과연 인류의 역사는 유물사관이 가르친 자연과학적 필연적 진화론에 의한 일정한 공식적 법칙에 의거한 유물변증법적 방법에 의하여서 만이 유동되며 발전하는 것인가? 무릇 사회현상의 지배적 물소(物素)가 세 가지 있으니 ① 과학적 법칙 ② 인위(人爲) 즉 기술 ③ 우연이 그것이다.

① 과학적 법칙에도 자연과학적 법칙과 사회과학적 법칙이 있으며, 또한 이 법칙의 성질에는 보편성(普遍性)과 개별성(個別性)이 있고, 일정 가변성과 고정 불변성이 있는 것인데, '맑스'는 사회현상에 대한 과학적 법칙의 관찰에 있어서 자연과학적 태도로서 임한 곳에 많은 이의를 가지게 하는 것이니, 즉 맑스는 사회현상이 주로 가진 개별성이나 고정 불변성의 부분은 이를 부정하고 모두 보편성적이며 가변성적으로만 보아서 "역사는 전체적으로 볼 때, 인성(人性)의 계속적 수정이라 하여" 역사는 일정한 법칙 내지 공식적으로 필연적 단계로서 신진대사적 투쟁으로만 유동 전개한다고 보았다. 다시 말하면 사회의 유물변증법적 전개는 보편적 유동적 객관적이며 또는 불가피적 필연적인 일정한 공식에 의하여서 진화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우리는 모든 역사를 통찰하여 볼 때, 이런 사실만을 실증하기는 어렵다. 영국 · 미국 · 불국 · 로서아 · 독일 · 이태리 등 각국의 역사가 이런 일정한 보편성적 가변성적의 공식에 의하여 전개된 일이 있다고는 할 수 없다. 혹은 말하기를 현재 지속(遲速)의 차는 있어도, 조만간 동일장태에 도달하리라고 말할는지 모르나, 이것은 각국의 역사적 전통과 같은 사회현상의 개별성을 부인하는 말이며, 발전과정에서 나타난 사실을 부정하는 말이고, 또한 인위적 우연적 사태를 총찰 못하는 말이 되게 된다.

러시아나 중공이 오늘 공산주의 경제조직으로 옮긴 것은 맑스가 말한 "자본주의적 생산관계가 일정단계에서 사회적 생산방법에 반목적적 형태를 취하게 될 때 최후가 되게 된다"라는 공식적 전개에 의한 것이 아니고, 러시아는 1차대전, 중공 기타는 2차대전의 우연적 소산으로서 그때나 지금이나 다같이 농업적인 국가형태를 가지고 있는 것이며, 영 · 미 · 불 기타 제국은 구 자본주의 형태에서 공산주의와는 반대되는 사회화 민주주의 형태로 옮기어 나가는 사실 등을 우리는 잘 알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 모두 개별적으로 부정형으로 진화하고 있는 사실을 가리키는 것이다. 그러므로 사회는 맑스가 말하는 그런 과학적 법칙에 의한 일정한 공식적으로 보편적으로 유동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가있다.

② 인위(人爲) 즉 기술이 또한 역사의 전개에 공식적 지배를 허하지 않는 사실로서 몇 가지 예를 든다면, 비스마륵크와 구 독일의 변혁관계, 이등박문(伊藤博文)과 일본 명치유신, 힛틀러와 뭇소리니가 일으킨 자국 또는 세계역사의 변혁관계, 루-즈벨트가 '얄타' '포스탐'협정에 의하여 세계역사에 변혁을 준 관계이며, 오늘 원자탄 · 수소탄 · 항공술, 기타 기계가 세계사를 지배하게 되는 사실 등은 맑스의 공식에서는 어긋나는 사실이 되게 되며,

그 다음 ③ 우연이 또한 그러하니 전쟁의 폭력이나 빈곤상태 또는 악역(惡疫) 유행 악천후 다년계속하는 등이 역사 변혁을 가져온 예가 적지 않으며, 주요인물의 생사나 또한 일국의 정치세계의 역사에 거대한 영향을 끼치는 일이 적지 않은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 러시아의 사회주의 변혁도 1차대전의 소산이라는 우연의 사실을 위에서 이미 지적하였다.

그러므로 우리는 맑스가 말한 불가피적 · 필연적 · 진화론적 · 과학적 법칙 내지 공식에 의한 자유

세계 소멸설은 이를 완전히 부정하는 동시에, 도리어 이 공식에 사로잡히지 않는 자유세계야말로 과학적 · 기술적 진보에 의하여 얼마든지 새로운 비약을 가기(可期)할 것을 확신하여 마지않는 바이다.

그 다음 생산적 사고의 세계와 공식적 사고의 세계에 대하여 또 하나 크게 다른 것이 있으니, 이것이 금후 두 세계의 승부를 결단할 요건의 하나인 줄 안다.

자유세계는 생산적 사고와 행동에 의하여 진화한다. 시대적 진보에 따라 여기 순응할 줄 알며, 모든 세력균형 조절에 민활하며, 정신적 · 물질적 문명의 생산을 개방함으로써, 정신적으로 위대한 생산을 할 수 있고, 물질적으로도 거대한 생산을 할 수 있다. 그리하여 새 역사를 창조하고 또한 이를 능히 지배할 줄 안다. 그러나 공산세계는 일정한 공식적 사고와 행동 만에 지배를 받기 때문에 물질적 생산관계가 인간사회를 지배하는 범위 안에서 만이 모든 제도가 수립되며 문물이 만들어지며 또한 공식적 진화론에 의한 역사의 하나 집행자가 되고 만다.

그 다음 끝으로 한 가지 더 쓰고자 하는 것은 "인류의 전사가 종언되고 사회주의세계가 됨으로써 인류의 역사는 이것으로써 대단원이 되고 만다는" 학설인데, 여기에 있어서는 대단한 이의와 모순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으니, 첫째는 '칼 맑스'의 주장인 자연과학적 필연적 진화론적 법칙에 모순되고, 둘째는 일정 가변성으로 유동하며 발전한다는 역사의 발전적 법칙에 모순이 되고, 셋째로는 동적 유물주의 변증법적 방법에 모순이 생기고 마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칼 맑스'의 이런 학설에는 많은 합리설 또는 이상주의설이 들어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이상의 서술로써 공산세계가 자유세계를 소멸시키지 않고서는 안 된다는 이론적 근거를 우리가 알게 되었으며, 또한 자유세계는 이와 반대로 공산세계의 이론적 근거를 완전히 정복하고 얼마든지 진보하며 발전할 수 있다는 이론적 근거를 또한 알게 되었다. 그러므로 이 두 세계의 싸움은 이제 앞날 전개되는 인류의 역사가 판정하여 줄 것이다.『정대(政大)』 2호, 정치대학 학도호국단, 1953년)

3) 「권두사(卷頭辭)」

우리대학이 낙원의 옛 터로부터 장안 신지(新址)로 옮겨와, 넓은 벌판에 생명의 뿌리를 내리기 시작한지, 벌써 3년이 됩니다.

그동안 우리는 생소한 풍토에서, 생명력을 보호 육성하기에 전력을 기울여 왔으며, 따라서 지상(枝上)의 찬란한 개화와 성숙한 과실을 충분히 얻지 못하였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결코 우리대학이 그동안 학문연구를 소홀히 하거나, 소극 침체의 답보생활을 하여 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그동안 명일의 보다 나은 향상을 준비하고 있었으며, 미래의 줄기찬 전진의 토대를 구축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눈앞의 이익을 취하여 백년의 대계를 돌보지 않고, 구육(狗肉)을 팔기 위하여 양두(羊頭)를 내걸고도 꺼리지 않는 오늘이 현실 속에서,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땅 속의 뿌리를 북돋아 주었으며, 어린 싹들을 가꾸어 왔던 것입니다.

거기에 바쳐진 정성과 인내는 우리로 하여금 그 날 그 날의 생활을 화사(華奢)하게 만들어 주지는 못하였습니다만, 어제를 오늘의 희망 속에, 오늘을 내일의 기약 속에 살 수 있도록 하였으며, 마침내 민족의 다난한 항로의 불멸의 등대가 되도록 할 날이 올 것으로 믿는 바입니다.

『정대(政大)』지가 그 창간 당시에 선포하였던 바와 같이, 학생들의 연찬 노력에 대한 아름다운 꽃이요 귀중한 열매일진대, 년년세세(年年歲歲) 이를 피우고 거두어야 할 것이었습니다 만, 한동안 그 발간이 중단되었음은 서상(敍上)의 연유에 기인하는 것입니다.

즉 대학의 역사가 전환되는 과도기에 있어서, 한때의 현란한 꽃송이를 탐내어 허울 좋은 모습을 꾸미느니, 차라리 은인자중하여 근간을 충실히 하고, 비약하는 내일의 생명의 원천을 마련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조숙한 과실로서 일찍이 떨어지게 하느니 보다, 만성(晩成)한 대과(大果)로서 오래도록 묵향(墨香)을 떨치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본 지를 속간함에 즈음하여, 우리대학의 내용은 이미 근간의 충실을 자과(自誇)할 수 있으며, 학생들의 실력은 이미 대계(大界)의 긍지를 자처할 수 있을 정도로 확충되었다고 생각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다만 그것을 지향하는 과정의 한 도표(道標)로서, 또는 그것을 촉성하는 자극 고무의 자료로서, 다소의 도움이 될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본 지는 그 지닌바 시대적 사명을 다하였다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강호 제위의 많은 지도편달이 있으시고, 학생 제군의 끊임없는 연마정진(鍊磨精進)이 있기를 바라 마지않습니다.〔『정대학보(政大學報)』 5호, 1958년 9월 1일〕

4) 「권학문(勸學文): 독서에 앞서는 입지(立志)를!」

차츰 밤이 길어가고 날이 선선하여져서 공부하기에 좋은 계절이 되었습니다. 누구나 이때면 등불을 가까이하고 깊은 사색에 잠기기를 좋아합니다. 하물며 공부를 본업으로 삼는 학생으로서 이때를 당하여 한층 더 면학(勉學)에 힘써야 할 것은 두말할 나위도 없습니다.

해마다 가을이 오고, 가을이 올 때마다 독서를 권장함은 뭇 학원과 사회의 연중행사 같이 되었습니다만, 아직도 많은 학생들이 학업을 게을리 하고, 또 시험이나 그밖의 일시적 필요에 의하여 책을 들었다가도 그것이 끝나면 곧 책을 놓아버리는 일이 많으니 이는 학생 제군이나 제군의 앞날에 커다란 기대를 걸고 있는 우리 사회를 위하여 매우 한심한 일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까닭은 제군의 공부가 마지못해 하는 것이요, 독서를 위한 독서에 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시험에 붙는다던지 '리포-트'를 작성한다든지 하는 따위의 일시적 목표를 위하여 시작한 공부는 그것이 끝나는 날 공부도 자연히 끝나게 될 것입니다. 여기에서는 공부가 시험을 뒤따르게 될 것이요 연구가 학점취득의 수단으로 전락될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목적과 수단은 완전히 뒤바뀌게 됩니다.

물론 독서나 연구는 맹목적일 수 없습니다. 거기에 상당한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한 때의 공리주의(功利主義)적인 것이 아니라, 보다 영원하고 보다 숭고한 것이라야 합니다. 즉 자기의 인생관, 사회관, 국가관에 결부되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하여서는 독서에 앞서는 입지(立志)가 있어야 할 것이요 연구의 목표인 인생관이 확립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없이는 애써 공부한 보람이 없게 될 뿐만 아니라 때로는 국가와 사회에 해독을 끼치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릇된 사상을 품고 사회질서를 파괴하거나 지능적 범죄를 감행하는 일이 빈번히 일어난다는 것은 그처럼 인생관이 확립되지 못하거나 올바른 사회관을 가지지 못한 자들에 의하여 남용된 지식의 폐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름지기 독서에 선행하는 인생관의 정립에 힘쓰고 그것으로써 연학(硏學)생활의 지표를 삼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의 독서는 우리의 몸에 배고 생활에 젖어 삶의 한 부분이 되고 끊임없이 밟아가야 할 인생의 노정이 될 것입니다.

우리대학은 그동안 여러 방면에 걸쳐서 적지 않은 진보 발전을 보았습니다. 교지 · 시설 · 건물이 확충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밑받침이 되어야 할 재단의 역량도 부쩍 늘었습니다. 교수진용과 교육행정기구도 정비 강화될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의 이상이나 외국의 우수한 대학의 현실에 비교하여 보면 아직도 많은 거리가 있습니다만, 지난날의 우리 형편을 돌이켜 본다면 괄목상대할 정도의 발전을 보았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학생의 질과 학업성적에 있어서는 그렇게 큰 진전을 나타내지 못하였음을 유감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축산대학과 대학원 학생의 대부분이 자자영영(孜孜營營) 연학(硏學)의 터전을 닦고 정치대학과 이부대학에 재학하는 일부 법학도들이 밤낮을 가리지 않고 열심히 공부하고 있으나, 그 밖의 많은 학생들의 태만은 눈살을 찌푸릴 정도로 현저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래가지고는 학교당국이 피땀을 흘려서 만들어놓은 시설도 아무 실속 없는 공루허각(空樓虛閣)에 지나지 않을 것이요 교수들이 온갖 정렬과 지식을 다하여 베푼 강의라 할지라도 아무 소용없는 공염불이 되고 말 것입니다.

영국의 시인 부라우닝은 "인간을 향상시키는 것은 그가 행하는 바가 아니라 행하고자 하는 의욕에 있다"고 말하였으며, 중국의 정치가 손문(孫文)도 "아는 것이 행하는 것보다 힘들다"고 하였습니다. 참으로 굳건하고 왕성한 의욕 참되고 바른 지식은 과감한 실천의 어머니입니다.

제군이 학업을 닦는 기간 중 주위의 모든 유혹을 뿌리치고 간난신고(艱難辛苦)를 극복하여 바른 뜻을 세우고 참된 지식을 습득하게 된다면, 그것은 벌써 행동화할 제군의 장래를 광명으로 인도하는 것이며 조국과 민족은 제군의 어깨 위에 그 운명을 마끼게 될 것입니다.〔『건대신보(建大新報)』 1959년 9월 20일〕

5)「성 · 신 · 의」

성(誠)은 진실과 지성이니 모든 일의 창조와 시종(始終)이 여기서 이루어진다.

신(信)은 사회생활의 근간이니 단결과 협조가 여기서 이루어진다.

의(義)는 정의와 용기의 원천이니 청사에 길이 남을 사람들의 모든 싸움은 오직 의(義)의 기록이다.

학생 여러분이 과연 이 교시(校是)의 정신을 생활의 신조로 하고 있는지 자못 의심스런바 많기에 새삼스러운 것 같으나 교시에 대한 소회의 일단을 평이한 말로 풀이해 주려고 한다. 여러분은 인간의 객체성(지식 · 기능)에 눈이 팔려 자신의 주체성(인격)을 돌보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인간의 최후의 성공은 오직 주체성이라는 것을 잊지 않고 나간다면 여러분의 성공률은 백발백중이 될 것이라는 것을 나는 서슴치 않고 단언할 수 있다. 성 · 신 · 의의 3자는 적게 말하면 우리 학교의 교시이지마는 범위를 넓혀보면 실로 인류생활의 전부가 이 세 개념의 구현에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좀 진부한 문자인 것 같기도 하나 만물 가운데 인생이 가장 귀한 근원도 오직 이 3자가 있음으로 해서다.

성(誠)은 알기 쉽게 말하면 거짓(僞)의 반대개념이다. 만일 이 우주를 거짓이 지배한다고 가정해 보라 그 결과의 무서움은 상상조차 못할 일이 아니냐. 인류가 다른 동물과 구별되는 특이한 요소는 역사를 가졌다는 것이다. 역사는 실로 성심의 연속이기는 하나 거짓의 계속으로서는 성립할 수 없다. 옛사람이 말하기를—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것은 인(仁)이며 잘못을 부끄러워하는 것은 의(義)이며, 남을 공경하는 것은 예(禮)이며,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하는 것은 지(智)라고 하였다. 그러나 이 인 · 의 · 예 · 지가 이같이 따로따로 분리되어서 있는 것이 아니고 한 덩어리로 되어 있는 것을 비교적 강한 어떤 면을 들어서 말하면 이렇게 구분할 수 있다는데 지나지 않는다. 이 모든 개념을 한 덩어리로 해서 나는 성(誠)이라는 문자로 표현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성(誠)하고서 어질지 않은 이 없을 것이며 의리를 지키지 않을 이 없고 예의와 지혜롭지 않을 이가 있겠는가. 실로 성심은 곧 천심이니 모든 심정은 이것을 근간으로 하여 발로하는 것이라고 믿는다. 그러나 오늘날 너무나 많은 거짓이 우리의 환경을 구성하고 있다. 이 거짓의 세계는 부단히 이목구비(耳目口鼻)를 매개로 하여 광명의 성(誠)을 흐리게 한다. 그러므로 외부에서 들어오는 불순한 자극에 물들지 않으려면 지극한 인내를 필요로 한다. 인류 역사에 광명을 던지고 있는 선철(先哲)들의 자취를 살펴 볼 때 성심의 흐려짐을 막으려고 무한히 애쓴 사람들임에 틀림없다. 학문의 길도 오직 성심의 빛을 흐리지 않게 빛내려는 노력임을 깊이 명심하여야 한다. 옛사람이 '성실한 것(誠者)은 하늘의 이치요, 성실하려는 것(誠之者)은 인간의 이치이니라'라고 하였다. 사람마다 성실한 것이지마는 성실을 방해하는 인간의 욕심이 있으니 이것을 인내와 노력으로 막고 천부(天賦)의 성심을 빛내야 한다는 뜻이다. 우리는 성(誠)을 잃지 않도록 힘써야 한다.

다음 신(信)은 무엇이냐. 우리의 천부의 선심인 성(誠)이 언행으로 나타나서 사회적인 대인관계에 미칠 때 이것을 신(信)이라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성(誠)과 신(信)은 같은 범주에 속한 개념이다. 성(誠)하면 곧 신(信)할 수 있으며 신(信)하면 성(誠)이 빛날 것이다. 내 천부의 성(誠)과 신(信)이 그 본연의 자태를 잃지 않으려면 의(義)가 아니면 안 된다. 의(義)는 의(宜)다. 성(誠)이 사물에 미쳐서 그 마땅함을 잃지 않는 것이 의(義)이다. 예를 들면 춘하지절(春夏之節)에 우순풍난(雨順風暖)해서 만물을 생육케 하는 것은 성(誠)이지마는, 추동지절(秋冬之節)에 이것을 거두어서 간직하는 것은 의(義)라고 할 수 있다. 자식을 사랑하는 것은 성(誠)이지마는 악(惡)을 보고 꾸짖는 것은 의(義)이다. 의(義)는 성(誠)을 조절하여 중용을 잃지 않게 하는 덕(德)이다. 성(誠)이 그 윤윤(潤潤) 힘으로서 모든 것을 생성하여 기르게 하지마는 의(義)를 잃으면 성(誠)의 가치를 상실하는 것은 흡사 음식이 우리의 주린 입과 배를 채워서 즐겁게 하지마는 너무 많이 먹으면 오히려 먹지 않은 것만 같지 못한 결과를 내는 것이다. 이 너무 많이 먹지 않게 해서 마땅함을 유지하는 것이 곧 의(義)이다. 그러므로 의(義)는 성(誠)의 방패막이다. 성(誠)으로 하여금 함부로 담을 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친진(親陳) · 원근(遠近) · 후박(厚薄) 등등의 한도를 규정하는 것이 의(義)이다.

이상으로서 성 · 신 · 의의 상식적인 해석을 써보았거니와 이것을 우리 생활과 연관시켜서 생각할 때 성(誠)과 신(信)이 사람의 도덕생활의 원동력이라고 하면 이 동력을 알맞게 이끌고 나가서 과부족이 없게 하는 것이 의(義)이다. 그러고 보면 우리의 교시 3자는 인류의 이상과 현실생활에 대한 최고목표를 제시한 것이다. 그러므로 성 · 신 · 의는 여러분의 학구생활의 최고지표가 아닐 수 없다. 모름지기 살신성인(殺身成仁)의 노력만이 여러분의 장래를 빛나게 할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건대학보(建大學報)』8호, 1960년 2월 1일〕

6)「학향(學鄕)으로 돌아오라」

(1)

망국 십 년에 3 · 1운동이 일어났고 그 후 십 년에 다시 광주학생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 정권이 집권한 지 10여 년 만에 또 4월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일제와 이승만 정권 하에서 이러한 일들이 없었다면 우리는 칠흑과 같은 어둠 속에서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왔으며 질식할 탄압 속에서 어떻게 숨쉴 수 있었겠습니까. 또 우리 민족은 굴종과 치욕에 무슨 낯으로 고개를 들 수 있었겠습니까. 다행히 학생을 중심으로 한 국민정신의 떨침은 시들어 가는 우리 민족의 정기를 북돋아 주었으며 고갈된 민주주의에 새 봄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특히 일제하의 민족적 의거는 왜경의 총부리 아래 진압되고 말았으나 금번의 학생 의거는 이정권의 폭압에 굽히지 아니하고 마침내 성사를 보게 되었으니 여기에 흘린 학생의 피가 얼마나 뜨거웠으며 그들에 호응한 국민의 지원이 얼마나 열렬하였던 가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2)

금번 학생의거의 원인은 말할 것도 없이 이승만 정권의 독재와 폭정에 항거하는 젊은이들의 울분의 폭발이었습니다.

지난날의 이 박사의 지위는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아니라 이 박사의 대한민국이었던 것입니다. 군주주의 시대의 어느 제왕도 갖지 못하였으리만한 대권을 한 몸에 장악하고 국사를 농단하였던 것입니다.

그 위에 매관매직, 부정축재, 부정선거 등 이루 헤아릴 수 없는 부패의 독소가 그들의 주위에 감돌고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은 순결, 정의의 화신인 학도들의 궐기와 더불어 그 자체에 내포된 운명적 파멸을 변증법적으로 촉구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3)

4월 혁명의 요인이 이승만 정권의 부패와 독재에 있었다면 그것을 제거하는 것이 우리들의 선결 과제임은 물론입니다.

그래서 국회는 헌법을 수정하여 국민의 기본권력을 확대 강화하고 정부의 권력구조를 전적으로 뜯어 고쳤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방법에 의한 새로운 대표를 뽑고 새 정부를 세우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 모든 것이 해결된 것은 아닙니다.

이완된 질서를 바로잡고 국민의 복지향상을 위한 경제정책을 실천하고 국민의 도의심을 앙양하는 등 허다한 문제가 우리의 앞에 가로 놓여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정돈하고 바로잡지 않고서는 4월의 꽃잎으로 진 학생들의 희생은 훌륭한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또 나는 지난 혁명에서 쓰러진 학생들의 모습을 살펴 볼 때 그들의 대부분이 지방출신의 학생이었고 가난한 농어촌의 아들이었음을 보았고 따라서 그들의 피에 보답하는 길은 다만 소극적으로 정권을 교체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그들의 향토를 부흥하고 그들의 형제를 복되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느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름에 따라 우리에게는 차차 4월의 열의가 식어지고 도시나 일부 계층에서는 여전히 고식적 안일을 탐하고 유흥에 도취하는 경향이 없지 않으니 이 어찌 가슴 아프고 유감스러운 일이라 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학생들이 교실과 책을 버리고 다시 가두의 계몽부대로 나서지 않을 수 없는 긴박한 사정은 실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비록 일부의 지나침이 있었다 하더라도 학생들의 본의는 나라의 장래를 근심하고 겨레의 앞날을

생각하는 순정의 발로였음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4월 혁명 정신의 연장이며 높이 찬양되어야 할 일이라 하겠습니다.

(4)

그러나 이것이 어찌 학생들만의 일이겠습니까. 또 학생들이 오래도록 책을 버리고 이런 일에만 골몰한다면 학업은 누가 담당할 것이며 조국의 내일은 누가 걸머질 것입니까. 근시안적으로 본다면 여러 가지로 복잡한 생활경험을 가진 노장층이나 기성정치인보다는 사회악에 물들지 아니한 청소년 학도들이 이런 과단성 있고 혁신적인 사업을 추진하는 데 적당하리라고 생각하지만 거시적인 견해로 본다면 학도는 역시 그 본분인 학업에 돌아가 내일의 조국의 터전을 굳건하게 닦아 놓아야 할 것입니다. 이 정권을 무너뜨리고 학창으로 돌아갔듯이 국민의 가슴에 신생활의 불을 지른 학생들은 그들의 고향인 학문으로 돌아가야 할 것입니다. 일반국민도 이제 그러한 일에 대한 방관적 내지 냉담적 태도를 버리고 적극적, 주동적 역할을 담당하여 그들의 자제인 학생으로 하여금 이 이상 더 학업을 희생시키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요컨대 학생은 4월 혁명이나 그 후의 질서유지나 또는 근자의 계몽운동에서 보여 준 바 애국적 정열의 핸들을 이제 학업의 본궤도로 돌이켜 진지한 학문의 사도가 되기를 바라 마지 않는 바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원대한 애국의 도표이며 혁명의 완숙한 결실을 가져오는 길일 것입니다.

그들의 용기로써 성취한 혁명이 그들의 학문으로써 이룩하는 르네상스를 이 땅에 가져오기를 기원합니다.『건대학보(建大學報)』 9호, 1960년〕

7) 『행정학회지』 창간사: 진실한 결실을 위하여」

만시(晩時)의 감(感)은 있습니다만, 이제 우리대학의 『행정학회지』가 학생제군의 청순한 의욕을 표현하고 제군의 정성어린 손으로 엮어지게 되었음은 참으로 기쁜 일이다. 돌이켜보면 지난날의 이 땅의 학풍은 너무나 메마르고 거칠었다. '곡학' '아세' '어용'이 난무하여 진실은 오히려 그 빛을 잃고 고개를 숙이지 않을 수 없었으며, 때로서 교단이 독재의 선전무대로 화한 일도 있고, 각종 출판물은 그들의 권세를 찬미하기에 바빴었다.

'앙상 · 레지움'의 철제 하에 신음하던 지난 12년 동안 세상은 얼마나 어두웠으며, 우리의 삶은 얼마나 고달팠는지! 4월이 없었던들, 학생제군의 의혈이 용솟음치지 않았던들, 이 땅의 혼미는 갈피를 잡을 수 없었을 것이며, 우리들은 나락의 구렁에서 헤어날 수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혁명은 이것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학생들의 거룩한 희생은 오늘이 있음으로써 완전히

보답된 것은 아닙니다. 신생 공화국의 성립과 새 헌법의 선포가 곧 민주혁명의 결실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양양한 희망의 서곡이요, 민주생활의 거창한 프로그램임에는 틀림없으나, 그것이 민주적 결실의 전부를 의미할 수는 없을 것이다.

지금 행정학회 회원인 학생 제군이 그간의 고심과 노력으로써 알알이 모은 구슬을 실에 꿰어 한 권의 책으로 엮어내게 되었으니, 이런 종류의 학적(學績)이야말로 진실한 의미의 '4월의 결실(結實)'이며, 거룩한 '경자(庚子)의 결정(結晶)'일 것이다.

그것이 비록 방대(尨大)한 내용과 화려한 장정을 갖추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거기에는 학생 제군의 매운 뜻 순결한 지성이 거침없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진리 앞에 두려움이 없고, 신념 앞에 거리낌이 없는 청년학도의 기개가 약동하고 있다.

이 한 알의 열매가 우리사회의 양심과 지식의 기갈을 충족시키기에 넉넉한 것은 아니지만, 그와 같은 종류의 크고 작은 열매를 이제 각기 수많은 씨를 뿌리고 거기에서 다시 싹이 나고 꽃이 피어 새 열매를 맺게 될 때, 우리사회에는 비로소 학생 제군이 심은 혁명의 얼이 찬란한 빛을 발하고, 그윽한 훈향(薰香)을 떨칠 것이다.

그러므로 제군은 이 학회지가 발행된 역사적 의의를 깊이 깨닫고 상호간의 비판과 이해를 통하여 새 나라 새 터전을 닦는 역군의 소임을 착실히 수행하여야 할 것이다. 행여 자신의 역량을 지나치게 평가하여 자만자대(自慢自大)하지 말 것이며, 또 필요 이상으로 과소평가하여 사회적 책임과 기대를 스스로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이상이 없는 현실미봉이 가치 없는 것처럼, 현실에 발붙이지 아니한 이상도 부질없는 남가(南柯)의 꿈에 지나지 않으며, 원대한 이상에 불타면서도 비근한 현실을 직시하고 뜨거운 정열에 불타면서도 차가운 이성을 잃지 말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요소가 서로 타협하고 조화하는 가운데서, 제군의 학구와 그 열매인 본 회지가 한 걸음 한 걸음 꾸준한 전진을 이룩하여 내일의 조국과 사회의 충실한 길손이 되어 주기를 간망한다.〔『행정학회지(行政學會誌)』 창간호, 건국대학교 행정학회, 1961년〕

8) 「정비공(整備工)의 심경으로」

부족한 이 사람이 우리 대학 재단을 대표하는 중요한 자리에 앉게 되었음을 매우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더욱이 전임자인 신태수 이사장의 고결한 인격과 혁혁한 공적을 돌이켜 볼 때 나의 비재박덕을 자괴하는 마음 한 층 더 큽니다. 그러나 재단 일을 돌보시는 모든 임원의 정성이 한결 같고 교육의 책임을 맡으신 정 총장 및 교수 제위의 노력이 지대함을 볼 때, 나는 내일의 우리 대학과 재단을 위하여 흔쾌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회고하건대, 우리 학원은 1946년 각종 사조와 단체가 난무하는 황량한 벌판 위에 성 · 신 · 의의 주춧돌을 놓았습니다. 이래 춘풍추우(春風秋雨) 10유여(有餘) 성상(星霜)에 걸쳐 재단과 관계교직원 및 동창제군이 걸어 온 과정은 그야말로 형극과 준령의 험한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고난에 부딪칠 때마다 더욱 굳건히 초지를 가다듬고 옷깃을 여미어 의연히 난관을 돌파하였던 것입니다. 다섯 번 허물어진 벽돌을 여섯 번 쌓고, 일곱 번 넘어진 몸을 여덟 번 일으켰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재단이 차지한 90여 만 평의 땅과 6천여 평의 집은 결코 우연의 산물이 아닙니다. 거기에는 우리 재단을 경영하는 여러 동지들의 피와 땀이 맺혀 있고 교직원, 학생들의 단심이 어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이 재산의 법적 소유가 어디에 귀속되어 있든지 간에 실질적으로는 이 모든 것이 육영의 공기(公器)요, 사회의 공유물임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우리가 공동한 노력으로 자자영영(孜孜盈盈)히 쌓아 올린 재단의 현황을 바라볼 때 초창기에 비해 괄목상대할 발전이 있었고 또 이것을 국내굴지의 타 대학재단에 비교하더라도 결코 손색이 없을 정도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이를 다시 선진제국이나 우리의 이상에 비추어 볼 때에는 아직도 요원한 감을 금할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미 건설한 분야에 있어서도 양에 치우쳐 질을 소홀히 하고 졸속에 흘러 정밀한 내용의 검토를 게을리 한 점이 불무함을 솔직히 시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점을 바로잡기 위하여 금후 우리 재단은 시설의 확충 강화와 아울러 내용의 충실 및 질의 정비에 더욱 큰 노력을 경주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재단은 재단 자체의 발전이나 교육시설만을 위하여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재단이 아무리 충실하다 하더라도, 그 설립목적인 교육이 제대로 되지 않을 때에는 그것은 한낱 허울 좋은 장식품에 지나지 않습니다. 재단의 모든 활동과 시설은 대학교 교육의 뒷받침이 되고 대학교육은 보다 온축 깊은 진리를 탐구하는 데 그 의의가 있음은 췌언을 요하지 않습니다.

"온갖 부와 권력도 진리와 싸울 수는 없다"고 '사이라스'는 말하였습니다. 나는 지금 우리와 우리 정부가 짊어지고 나아가는 광고 미증유의 대과업도 끝까지 진리에 어긋남이 없이 온 겨레의 양심과 지성의 호응을 받아야만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으리라고 믿는 바입니다.

한편 대학도 백척간두에 놓여 있는 조국의 운명을 통찰하여 구국제민(救國濟民)의 일군을 배출하기에 최대의 노력을 다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진리에 국경이 없을지라도 대학에는 국적이 있습니다. 만연한 사회악과 빈곤 속에서 시대와 이 사회가 요구하는 건전한 일군의 양성에 협력하고 분발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 새로운 의욕과 기술을 지닌 새 일군이 교문으로부터 사회 각 부문에 뿌리 박혀서 점이 선으로, 선이 면으로 확대되는 동안에 조국재건은 기필코 그 풍성한 과실을 맺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대학재단도 단순히 식산재단(殖産財團)을 일삼는 단체가 아니라 국가재건 사업의 원천의 일부임을 자처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나는 지금 우리 대학재단의 대표직에 취임하여 새삼 책임의 중대함을 통감합니다. 그러나 내 직책은 어디까지나 정비공에 불과합니다. 비행기를 몰고 하늘을 정복하는 것은 역시 학생 제군의 일입니

다. 정비공의 노력 없이 비행사의 성공을 기대할 수 없는 것처럼 비행의 기약 없는 정비공의 노력은 무가치한 것입니다.

나는 기름 묻은 손을 닦으면서 학생 제군이 푸른 하늘을 달리는 힘찬 모습을 행복의 미소로써 바라 볼 날이 어서 바삐 오기를 고대할 뿐입니다.〔『건대학보(建大學報)』 12(창간 10주년 기념호), 1962년〕

9) 「격려사: 착실한 정지작업을 – 이부대학 『연합학회지』의 창간에 붙임 –」

이부대학 『연합학회지』의 창간을 축하합니다. 이부대학 재학생 제군이 주경야독하는 어려운 형편에서 이 책을 내게 된 것은 부자의 백 등(燈)에 비길 만큼 값지고 빛나는 빈자의 일 등(燈)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무릇, 학문의 길은 험난한 것입니다. 학문의 세계는 대해와 같이 넓으나, 거기에 이르는 길은 좁습니다. 진리는 혜성처럼 빛나지만 그것을 찾는 길은 어둡고 침침합니다. 이 어둡고 괴로운 과정을 거치지 않고 단번에 별을 따려는 것은 망상입니다. 학문처럼 비약을 싫어하고 기적을 배척하는 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흔히 선인(先人)의 빛나는 학문적 업적에 도취하면서도 그들이 걸어온 형극의 역정을 무시합니다. 그들의 위대한 발명을 찬양하면서도 그들이 꾸준히 지켜온 전통을 망각하기 쉽습니다.

말할 것도 없이, 우리는 낡은 인습을 지양하고, 새 시대, 새 역사를 창조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학문의 세계에 있어서는 전통을 습득하고, 정리하고, 비판하지 아니한 창조란 거의 있을 수 없습니다. 과거를 무시한 기상천외의 창작은 한 낱 사상누각이라 하여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기 때문에, 새 시대에 알맞은 새 집을 세우기 위하여서는 우리는 무엇보다도 먼저 튼튼한 기초와 정지공사(整地工事)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남의 눈에 띄지 않은 이 정지작업에 바치는 꾸준한 신고(辛苦)와 노력은 그 위에 세워질 화사(華奢)한 건물 못지않게 귀중하고 값진 것입니다. 2부대학생 제군의 학회지가 출발에 있어서 좀 늦었다 하더라도 여러분은 그 의견을 활자화하는데 조급하지 말고, 보다 더 건전하고 창조적인 의견이 우러나올 수 있는 실력의 배양에 힘써 줄 것을 당부합니다.

나는 여러분의 학회지가 더욱 향상 발전되기를 바랍니다. 화려한 체재보다도 충실한 내용에, 빠른 걸음보다도 무거운 보조에 중점을 두고 힘차게 나아가기를 기원합니다.〔『연합학회지(聯合學會誌)』 창간호, 건국대학교 이부대학 연합학회, 1963년 7월 4일〕

10) 「건국학회에 당부 – 학문적 영향력 과시하라 –」

건국학회(建國學會)가 건국대학교를 졸업한 동문들이 중심이 되어 발족한 데는 의의가 깊다고 생각한다. 우리 건국 출신의 동문들이 한데 뭉쳐 '아카데믹'한 학풍을 자기의 힘으로 등 밀고 나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은 대단히 뜻 깊은 귀한 일이다. 앞으로 이 건국학회의 나갈 길에 대하여 평소 느끼고 있는 소감을 차제에 밝혀두려는 것이다.

첫째, 건국학회는 깊은 진리에 뿌리를 내린 아카데믹한 학회가 되라는 점이다. 학회 활동이란 학문에 대한 열렬한 정열과 포부를 마음껏 살려 나가는데 그 본뜻이 있는 것이다. 그런 뜻에서 어느 누구보다도 더 깊고 바른 진리를 파악하는데, 동문들은 합심하여 상호협조의 미덕을 꽃피워 주어야 할 것이다.

우리 대학이 출발 성장한지도 어언 20년 가까운 세월이 지났다. 건국의 문을 나선 이들이 지금 한데 뭉쳐 건국학파(建國學派)를 완성하게 될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는 것은 시기에 알맞은 일이다. 이 학회를 통하여서 이미 교문을 나선 동문들끼리 지덕(智德)을 계속 배양해 나갈 수 있는 큰 모태가 되어주기를 바라는 것이다.

그럼으로써 건국학회 회원은 일생의 목표를 보다 더 드높은 인격 완성에 두어 끊임없는 인격 도야에 전심전력을 경주해 주어야겠다. 그럼으로써 건국대학교의 내적 사회는 물론 대한민국 사회에 있어서 시범이 되고 본이 될 수 있는 뚜렷한 학적 인격자가 하나하나 완성되기를 기대하는 것이다.

끝으로 이 학회를 통하여 우리 건국대학교가 한국 온 사회에 학문적으로 끼치는 영향력이 지대하기를 바라는 것이다.

건국학회에서 설계하고 움직여 나가는 일거일동이 앞으로의 건대사회를 뒷받침 해주는 힘의 하나가 될 뿐 아니다. 더 나가서는 한국 모든 사회면에 학문적인 '리더십'을 필 수 있는 움직임이 되어 주기를 당부해 둔다. 그러한 목표 완성을 위하여서는 회장될 한 사람 한 사람이 비상한 결심과 마음가짐을 지니고 일로(一路)의 목표 완성을 위해 매진 있어야겠다.

우리나라의 많은 학회가 용두사미 격으로 되는 현상에 비춰 건국학회는 모든 학문 제분야의 전위역할을 다하여 뜻한 바 유종의 미를 충분히 거두는 명실이 꼭 같이 갖춰진 이름 그대로의 건국학회의 앞날이 되기를 당부해둔다.〔『건대신문(建大新聞)』 1964년 4월 10일〕

11) 「격려사: 드높은 이상 꾸준한 노력」

비상계엄을 선포하리만큼 심한 격동과 혼란 속에서도 이부대학 재학생 제군이 학문의 열매를 소복이 달아 이 한권의 책을 내놓게 된 것은 참으로 대견스럽고 기쁜 일입니다.

우리가 외적의 침입을 받아 강산이 유린되고 유혈이 낭자한 가운데서도 우리의 先人들은 세계에 빛나는 영롱한 도자기를 구어내고 팔만대장경을 한 자 한 자 정성스러이 새겼던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날까지도 꺼지지 않는 민족의 얼이 되고 문화의 등불이 되었습니다.

제군이 때로 격앙하는 감정의 파도에 휩쓸리면서도 이성을 잃지 않고 그것을 키우고 다듬어 나가는데 우리가 조국의 내일에 희망을 걸고 살아나가는 까닭이 있습니다.

제군이 직업전선에서 시달린 몸을 다시 수학과 연구를 위하여 받치고 거기서 연구한 것을 이렇게 엮어 나가는데 고난의 역정 속에서도 광명의 앞날이 있을 것을 확신합니다.

물론 나는 제군의 논문이 절대 진(眞), 절대 선(善), 절대 미(美)의 완전무결한 것으로 생각지 않습니다. 거기에는 아직도 허다한 미숙과 부족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좀 더 훌륭하고 좀 더 깊이 있는 것으로 향상 발전시키는 것은 제군과 교육자의 한결같은 노력에 의하여서만 성취될 것입니다.

제군은 현실의 이해나 눈앞의 훼예(毁譽)에 지나치게 구해됨이 없이 드높은 이상 원대한 목표를 향하여 지난날의 도공(陶工)이나 각공(刻工)이 바쳤던 바와 같은 숭고한 노력을 다해 줄 것을 간절히 바랍니다.『연합학회지(聯合學會誌)』 2호, 1964년 9월 25일)

12)「격려사: 그 성실 길이 지키라 –『축우(畜友)』 창간에 부쳐 –」

우리 대학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장차 이 겨레의 운명을 짊어지고 나갈 축산 대학생 제군이 애써 가꾼 노력의 열매를 한데 모아 학회지『축우(畜友)』를 창간하게 된 것은 참 기쁘고 반가운 일입니다.

축산대학생 제군의 평소의 공부나 실습이나 생활태도를 잘 알고 있는 나로서는『축우』라는 이름에서부터 벌써 흐뭇한 실감을 느낍니다. 거기에는 어떤 거짓이나 꾸밈이 없는 성실 · 근면 · 신의가 맥박 치는 것을 감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축우는 성실 · 근면 · 신의만으로 거친 이 땅을 고루 갈고 메마른 우리의 삶을 살찌울 수 없습니다.

거기에는 슬기, 특히 과학적 지식이 따라야 합니다. 영국의 정치학자 짐먼(A. Zimmern)은『현대 정치의 위기는 18세기의 도구로써 20세기의 일을 하려는 데 있다』고 말하였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새 시대에 알맞은 새 방법을 연구하고 다시 한걸음 더 나아가 새 시대 새 기원을 개척하기 위한 창조의 사명을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

황소의 잔등에서 유한한 노래를 부르고『이랴 낄낄』하던 시대는 지났습니다. 오늘의 축산은 과학에 의하여 살찌고 과학에 의하여 발전하는 새 시대의 경제적 역군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여 과학이나 역사에 '비약'을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끈기 있는 인내와 꾸준한 노력으로써만 과학의 세계는 한걸음씩 개척되고 부흥 · 재건의 날은 한발자국씩 다가올 것입니다. 그것은 역시 축우의 본성에 귀착되는 이야깁니다. 축우의 본성을 떠나서 새 시대의 축우가 우연히 만들어질 수는 없습니다.『축우』의 걸음이 비록 더딜지라도 그 성실은 꾸준히 지켜 나간다면 십년 후의『축우』는 기필코 시대의 선구자가 될 것입니다. 오늘의『축우』가 비록 화려한 단장을 하지 않았더라도 그 노력을 하루같이 계속한다면, 십년 후의『축우』는 반드시 영롱(玲瓏)한 진리의 글발로 가득 찰 것이요 어둠을 밝혀주는 불멸의 빛이 될 것입니다.

나는 오늘의『축우』지의 창간에 즈음하여 그 힘찬 출발을 축하하느니보다 그 앞날에 대한 희망과 기대에 더욱 많은 축복을 보냅니다.『축우(畜友)』 창간호, 건국대학교 축산대학 연합학회, 1965년 1월 15일)

13)「격려사: 힘찬 출범 –『경상휘집(經商彙集)』 창간에 부침 –」

본교 경상대학 학생들이 평소에 공부하고 닦은 지식과 사색의 열매를 한데 엮어 이에『경상휘집』 창간호를 내게 된 것은 참으로 경사스러운 일입니다.

우리 학교에 경상대학이 생긴 것은 금년 봄의 일이요, 따라서『경상휘집』도 이제야 창간된 것으로 압니다만, 그 내원은 멀리 정치 학관의 창립시절로 거슬러 올라가야 할 것입니다. 즉 경상대학의 모체인 경제학과는 정치외교학과, 법학과와 더불어 정치학관 및 초기의 정치대학을 이룩하는 세 기둥의 하나이었습니다. 거기에 다시 상학과, 무역학과가 증설되어 오늘과 같이 하나의 단과대학이 이룩된 것입니다. 말할 것도 없이 여기에는 단순한 양적 증가 외에 많은 선배들의 혈한(血汗)이 얽히고 알찬 내용이 담겨져 질적 충실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할 때『경상휘집』의 창간은 현재의 경상대학 재학생의 금춘 이래의 짧은 발자취라기보다도 우리 대학교의 20년래의 전통과 긍지의 축적이라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군은 이『경상휘집』을 통하여 남이 오랜 시일에 걸쳐 해 놓은 일들을 최단기간에 달성하고, 다시 그것을 능가할 만한 왕성한 의욕과 비상한 노력을 보여 주어야 할 것입니다.

물론 학문에 비약은 허용될 수 없습니다. 차근차근 기초를 다지고 원리를 체득한 연후에야 비로소 비바람에 흔들리지 않고 고루거각(高樓巨閣)을 세울 수 있습니다. 그것은 떠들썩한 굿질이나 화려한 겉치레만으로 이룩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찍이 '죤 · 러스킨'이 지적한 바와 같이 진리는 오직 근로와 성찰(省察)에 의해서만 얻어지는 것입니다. 발명이나 발견이 '우연의 신'으로부터 선사된 것이라는 맹구우목(盲龜遇木)의 전설은 낡아빠진 시대착오나 게으름뱅이의 허황한 꿈에 지나지 않습니다.

또 여기에서 한 가지 더 강조하고 싶은 것은 우리의 연구와 노력이 국가나 인류사회의 이익에 직결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매국하는 유식'이나 몰가치 · 몰개성의 '파괴적 과학'을 배격할 뿐만 아니라, 지식의 장황한 우회나 부질없이 시간의 낭비도 경계하여야 한다는 뜻입니다. 바닷가의 모래알을 세는 것도 진실을 추구하는 일의 하나요, 간접의 간접으로 따지면 인류사회에 발전에 이바지하는 일이라고 할 수 있을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객관적 판단이야 어떻든 적어도 그렇게 자위(自慰)할 수 있는 것만은 사실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다급한 현실은 그러한 우회 내지 자위 과정에서 준순(浚巡)할 때는 아닙니다. 당연한 현실에서 바쳐져야 할 우리의 학문적 노력은 국가사회의 이익이나 인류문화의 향상에 직선적으로 연결되는 것이어야 합니다. 옛날엔 학부가 사회와 격리된 상아의 탑 속에 묻혀 있는 것으로써 스스로의 권리와 자랑을 삼아 왔습니다만, 이제 대학은 그 문호를 현실에 개방하고 보다 훌륭한 내일을 가져 오기 위한 책임을 짊어져야 할 때입니다.

아직 수련 중에 있는 제군에게 지나치게 무거운 책임을 맡기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됩니다. 『경상휘집』은 적어도 그러한 목표와 지침 아래 힘차고 건실하게 나아가기를 바라는 바입니다.〔『경상휘집(經商彙集)』 창간호, 건국대학교 경상대학, 1965년 12월 31일〕

14) 「서문」

우리 한국사는 우리 민족 흥망성쇠의 거울이요, 인과법칙의 결산이다. 한국인이 한국을 걱정하고, 한국을 위하여 민족 장래를 영원히 보호하려면, 국사교육을 소중히 하여, 우리 민족의 장단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밖에 없다.

특히 국사교육은 국민교육의 기본이요, 학교교육의 본질이다. 하물며 국토가 양단된 이 마당에, 민족정기와 경제적 자립정신(自立精神)을 앙양시켜야 하는 시급한 이때에, 국사교육의 절대성은 새삼 논할 필요도 없다.

생각하면, 이 땅에 벌써 나라가 생긴지 반만년이요, 역사의 기록이 생긴지도 벌써 2천여년이 되었다. 그동안, 수많은 학자가 나왔고, 또 수많은 사서(史書)도 나왔다. 그러나 아직 상고(上古) 3천년간 동아(東亞)의 대족(大族)으로 활동하던, 우리 민족의 빛나는 역사를 아무도 찾아내지를 못하고 있다. 더욱이 국가적 자존심과, 민족적 주체성을 망실하고, 민족자망(民族自亡)의 순간에서, 헤매고 있는 이 겨레에게, 재생의 희망과 생명을 주는 학자가 아직 없다.

이러한 시기를 당하여, 민족정신 개조문제에, 다년간 연구해 온, 본학(本學) 박형표(朴亨杓) 교수가, 혁명적 사관을 가지고, 전인미답(前人未踏)의 사료를 개척하여 발간된 국사통론(國史通論)은, 학계에 새로운 방향을 가리키고, 민족의 앞날에, 빛나는 등불이 되기를 바라마지 않는다.〔박형표 저, 『국사통론(國史通論)』, 동명사, 1965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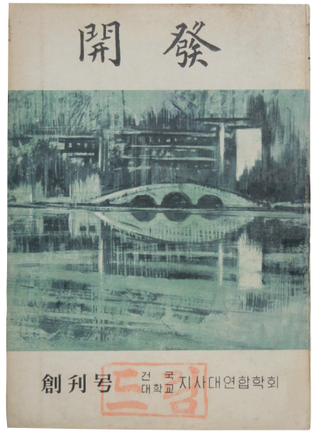
15) 「『개발』지 창간 축사: 힘찬 출범을」

본교 지역사회개발대학 재학생의 벗인 『개발(開發)』이 창간된 것을 축하합니다.

적은 수의 학생, 부족한 시간과 경비로써 이만한 책을 꾸며낸 이면에는 제군의 눈물겨운 정성과 노력이 스며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세상에는 이보다 몇 곱 화려하고 방대한 책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 어느 것 보다도 여러분의 『개발』이 값지다고 생각하는 것은 거기에 제군의 높은 정신과 귀한 땀이 배여 있기 때문입니다.

본 학교법인이 지역사회개발대학을 세운 것은 장황한 이론이나 막연한 관념을 주입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제군으로 하여금 산업발전과 생활개선에 직결될 수 있는 실기를 가장 짧은 기간에 가장 효과적으로 습득하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지역사회개발초급대학 연합학회가 발행한 『개발(開發)』 창간호(1966)

그러기 위하여 '배우며 일하고, 일하며 배우는' 교육방안이 세워진 것입니다. 이러한 방법은 지역사회개발대학 뿐만 아니라 단기일내에 모든 후진성을 극복해야할 우리 사회의 모든 면에서 적용되어야 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우리의 과업이 급할지라도, 인간의 바탕에 있어서 쌓아야 할 수양을 소홀히 할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정교한 과학기술이라 할지라도 이를 원만한 인격의 기초위에 세우지 않는다면, 그것은 사상누각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인간이 스스로 만든 원자핵의 위협에 떨고 있는 오늘의 현실이 바로 그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본교 교육이 그 어느 것보다도 성 · 신 · 의를 바탕으로 하는 인간교육을 제일주의적으로 중시하는 것은 그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제군의 벗인 『개발』도 그러한 정신 밑에 제군의 인격과 교양을 높이고 학문과 기술을 발표하거나 상호 비판하는 미디어가 될 것을 당부하는 바입니다. 『개발』의 꾸준한 발전을 빌며 그 힘찬 출범을 축복합니다.〔『개발(開發)』 창간호, 건국대학교 지역사회개발초급대학 연합학회, 1966년 3월〕

16) 「격려사: 더욱 넓게 더욱 깊게」

이번에 본교 법정대학생들의 손으로 엮어진 『법정연구지(法政研究誌)』가 새로 나오게 된 것을 축하합니다.

본교 법정대학의 전신은 정치대학으로서 이는 본교의 가장 전통 깊은 종주(宗主)대학이라 하여도 과언이 아닙니다. 『법정연구지』의 이름으로 창간되는 학회지는 이번이 처음이라 하더라도 그 실질적

인 역사는 매우 오래된 것입니다. 학문에 있어서 전통을 찾는 것은 진리가 길가에서 주운 우연의 습득물(拾得物)이 아니고 한걸음 한걸음 차근차근히 쌓아 올려야 하는 역사의 산물이요 노력의 결정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여기서 우리가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의 침체된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역사의 수레바퀴는 그 지표를 향하여 급회전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입니다. 그러기 위하여 우리는 과거와 전통의 토대 위에 서면서도 미래를 향하여 힘차게 구보하지 않을 수 없는 시점에 처해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학문이 현실과 유리된 담장 속에서 관념의 유희를 일삼을 때는 멀리 지나갔습니다. 우리의 면학과 연구는 모름지기 조국의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고 국민적 생활과 이익에 직결되는 것이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에 내가 여러분에게 당부하고자 하는 것은 여러분은 제각기 전공하는 사회과학 분야를 더욱 깊이 파고 들어가야 하겠습니다만 그에 앞서서 여러분의 도덕적 바탕을 건실히 구축하기 위하여 인격수양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현대는 어떤 의미에서는 지식의 과잉시대요 과학의 공포시대입니다. 지식이나 과학이 사람에게 봉사하지 않고 오히려 오만한 자세로써 사람위에 군림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바로잡는 길은 지식의 억제나 과학의 후퇴가 아니라 인간이 인간으로서의 '휴머니티'를 갖추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성 · 신 · 의의 교시를 표방하여 도의교육에 힘을 기울이고 있는 것도 그 까닭입니다. 여러분은 비록 이 시간이 전문지식의 섭취와 연마에 바쁜 때라 하더라도 행여 인간적 바탕의 수련을 경시하거나 소홀히 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만 지식은 인간의 복지와 번영을 위하여 봉사하는 선량한 시녀가 될 것입니다.

또 여기서 한 가지 더 부언하고자 하는 것은 사회과학과 자연과학은 그 탐구대상이 다를지라도 그들이 모두 일정한 인식목적(認識目的)과 합리적 방법에 의하여 세워진 계통적 지식이라는 점에 있어서 다 같이 과학의 테두리 안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과학이 그리이스인의 합리적 정신태도에서 발달하여 철학의 사유(思惟)에서 해방됨으로써 '베이컨'이래 관찰 · 귀납 · 연역 · 실험 등의 방법으로 근대문명의 기둥이 되어 온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입니다. 특히 자연과학의 발달이 인류생활에 커다란 변화를 일으키고 그의 낙후가 곧 문명의 낙후인 것처럼 생각되었다는 것은 우리의 현실 속에서 뼈저리게 느껴지는 바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의 우리 학계에서는 자연과학의 급속한 발달이 촉구되고 있거니와 사회과학도 그 방법론에 있어서는 자연과학에서 많은 것을 참고하고 배워야 할 것으로 믿습니다. 다행이 여러분은 종합대학의 한 울타리 안에서 이공대학 · 농공대학 · 축산대학 등 많은 자연과학계 학생과 함께 공부하고 접촉하고 있습니다. 그들로부터 필요한 지식과 방법을 배우고 또 그들에게 여러분의 지식을 배워주고 하는 가운데서 여러분의 교양은 더욱 그 폭을 넓히고 여러분의 학식은 더욱 그 깊이를 더할 것으로 기대하는 바입니다.

여러분의 『법정연구지』가 여러분의 사람됨과 폭넓은 교양과 깊은 전문지식을 충실히 반영할 뿐만 아니라 금후 호수(號數)를 거듭함에 따라 더욱 발전하고 알찬 성과를 거두기를 바랍니다.〔『법정연구지(法政硏究誌)』 창간호, 건국대학교 법정대학 연합학회, 1966년〕

17) 「격려사: 슬기와 근면을」

벅찬 희망과 기대 속에 출발한 『축우』가 이제 제2호를 내게 된 것은 더욱 기쁘고 대견한 일입니다. 그것은 단지 『축우』가 홋수를 거듭하게 되었음을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창간 당시의 '미숙'과 '고난'을 거울삼아 이번에는 더욱 정성스레 갈고 가다듬어서 그 빛과 무게를 더하였기 때문입니다.

내가 축산대학 재학생 제군에게 부치고 싶은 말은 이미 창간호에서 언급한 바와 같습니다. 즉 한국의 재건이 농촌의 부흥 없이 이룩될 수 없는 것이라면, 농촌부흥의 종주 기능을 담당하여야 할 제군의 건전한 성장에 기대하지 않고서는 한국의 내일을 바라볼 수 없습니다. 그것은 제군의 가장 영광스러운 명에 이기도 하지만 또한 가장 무거운 책임이기도 합니다.

책임에 태만한 자에게 결코 영예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군이 공작의 화려한 날개보다 축우의 고달픈 등을 택한 것은 매우 건실하고 믿음직한 일입니다.

그러나 제군의 『축우』는 고삐에 끌려 다니는 피종체(被從體)가 아니라 스스로 멍에를 짊어지고 국가의 운명을 개척하는 주동체(主動體)입니다. 그러기 위하여 제군은 부지런하면서도 슬기롭고 지성적이면서도 실천적이어야 할 것입니다.

제군의 학습과 연구의 결정인 『축우』가 한층 더 충실해질 때, 제군이 국민의 앞날에 비취는 희망의 빛은 더욱 밝아질 것입니다.

『축우』의 무한한 발전과 더불어 제군의 힘찬 전진을 …〔『축우(畜友)』 2, 건국대학교 축산대학 연합학회, 1966년〕

18) 「기념사: 밝음을 늘리는 그릇이 되자」

창립 20주년 기념행사의 일환으로서는 너무나도 뒤늦게 착수된 발간사업인지라, 여러 가지 기우(杞憂)가 앞서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불과 일삭(一朔)이라는 짧은 시한을 앞두고 관계자들의 열의에 찬 강행군이 주효되어 늠름한 『건대학보(建大學報)』 제20호'가 드디어 햇빛을 보게 됨으로써 오늘의 스무 돐 잔치에 순조롭게 한 몫 끼게 되었음은 무엇보다도 반가운 일이라 하겠습니다.

거기에는 성관(成冠)하는 우리대학의 알찬 저력이 엿보여 더욱 마음이 든든하여집니다. 지령(誌

齡) 20년을 맞는 우리의 학보를 창간호부터 낱낱이 더듬어 본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대학의 성장과정을 말하여 주는 생생한 역사적 증인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동안 비록 편집진이나 체제에는 많은 변동이 있었을망정, 20권 가운데 담겨진 수많은 글발에는 저마다 성 · 신 · 의의 건학정신이 극명하게 아로새겨져 있고, 줄기찬 발전의 자취가 역력히 드러나 있습니다.

이제 오늘로써 우리대학은 성년기에 접어들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코 완숙한 자세를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이 시점이야말로 우리에게 기쁨과 아울러 커다란 각오를 요구하게 됩니다. 지나온 발자국을 되새겨 보고 그것을 거울삼아 보다 풍성한 앞날에 대한 설계에 온갖 힘을 기울여야 할 때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이미 우리는 조용한 혁신의 깃발을 들고 대학사의 새로운 챕터에 돌입하였습니다. 학교법인이나 학교가 졸업생 및 재학생과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초비상적인 태세를 마련함으로써만이 이와 같은 우리의 대과업을 무난히 완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는 또한 이사진이나 교직원에 못지않게 학생제군에게 짊어져 있는 임무도 크다고 봅니다. 학생제군은 지난날의 타성을 과감히 삼제(芟除)하고 심기일전하여 혁신의 대열에 참여하여야만 하겠습니다.

대학은 어디까지나 진리탐구의 전당입니다. 따라서 연구의 업적이 쌓아지지 않는 상아탑은 결코 대학이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혁신의 초점은 궁극적으로 이와 같은 본연의 자세의 확립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볼 때 '『건대학보』 제20호'는 우리의 노정(路程)에 또 하나의 이정표가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거기에는 교수와 학생들의 연구논문들이 듬뿍 담겨져 우리의 굳건한 모습을 널리 과시하여 줄 것으로 믿는 바입니다. 이와 같은 이정표가 세워질 때마다 비로소 우리의 혁신 노정의 목표도 한 걸음 한 걸음 다가오게 된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본인이 노파심으로써 일언코자 하는 바는 학생제군의 연구와 발표가 연구를 위한 연구, 발표를 위한 발표에 그치지 말고 유용한 응용에 직결되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관념의 유희를 지양하여 실용 · 실천의 기수가 되기를 간망(懇望)합니다. 조국의 대과업이 제군의 인격, 지식, 기능의 투자를 목마르게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학교와 재단은 제군의 이와 같은 작업을 뒷받침하는데 조금도 인색하지 않을 것이니 제군은 참다운 상아탑의 주인공으로서 '밝음을 늘리는 그릇'이 되어 누리를 빛냄으로써, 우리 건국학원의 참 모습을 널리 과시하여 주기를 바라 마지않습니다.〔『건대학보(建大學報)』 20(창립 20주년 기념), 건국대학교 건대신문사, 1966〕

19) 「생활의 과학화를 위하여」

본교 여자대학 학생들이 그 섬세한 손으로 『여대학보(女大學報)』 창간호를 엮어 내게 된 것은 참으로 기쁘고 대견스러운 일입니다.

돌이켜보면 우리나라의 여성들은 오랜 전통 속에서 부덕(婦德)을 길러 왔습니다. 본교 교육도 성 · 신 · 의의 지침 아래 그러한 덕을 갈고 다듬어서 더욱 빛내기에 힘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래의 부덕은 미덕임에는 틀림이 없으나, 그것을 오늘과 같은 격동기에 적응시키기 위해서는 종래의 소극 · 피동의 자세를 과감히 탈피하고 적극적으로 개인이나 국가의 운명을 개척하는 역사의 주인이 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하여 무엇보다 절실히 요청되는 것은 여러분의 사고나 생활이 과학화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여러 가지의 어려운 사정을 무릅쓰고 대학의 문을 두드리게 된 것도 또 사회가 여러분을 후원하고 촉망하는 주요 원인도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과학의 세계는 결코 평탄하지 않습니다. 과학의 세계는 망망대해와 같이 넓으나, 거기에 이르는 길은 매우 좁습니다. 그 좁고 험한 길을 뚫지 않고서는 과학의 열매는 딸 수 없습니다. 과학처럼 비약을 싫어하고 기적을 배척하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는 흔히 선인의 빛나는 학문적 업적에 도취하면서도 그들이 걸어 온 형극의 역정을 무시합니다. 그들의 위대한 발견을 찬양하면서도 그들이 꾸준히 지켜 온 원칙을 망각하기 쉽습니다.

여러분은 지상에 높이 솟은 웅장한 건물을 짓기 위하여 먼저 튼튼한 기초공사와 꾸준한 정지작업(整地作業)을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여대학보』도 그러한 정지작업의 한 자료로서 여러분을 살찌우고 비판하고 전진시키는 데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대학보』의 힘찬 출범과 꾸준한 발전을 축복합니다.〔『여대학보(女大學報)』 창간호, 건국대학교 여자초급대학, 1967년 2월 1일〕

20) 「격려사: 창간에 즈음하여 – 농업현대화에 기여되기를 바라며 –」

농공대학 연합학회지가 창간됨에 즈음하여, 이사장으로서 축하의 글을 쓰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국제연합 식량농업기구가 밝힌 바에 의하면, 현세계의 인구는 1965년 현재 약 33억 명으로 집계되고 있으나, 앞으로 35년 후인 서기 2000년대 초에는 세계인구가 53억 내지 68억으로 증가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국제연합 식량농업기구 「제3차 세계식량조사」에 의하면, 세계인구의 10~15%가 영양부족에 있으며, 16~50%는 기아나 또는 영양실조 상태에 있다는 점을 밝히고, 후진국에서의 전체 식량수요를 포함하여 서기 2000년대 초에는 식량이 현수준의 4배, 동물 생산은 6배가 증가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농업은 최근에 눈부신 경제성장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연간 60~100만 톤의 외국곡식을 도입해야만 합니다. 1966년 말 현재 농림수산물 수입액은 2억 416만 6,879달러인데 대하여, 농림수산물 수출액은 9,883만 330달러에 지나지 않으며, 1억 633만 6,549달러의 농산물 수입 초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나라는 농업국가임에도 불구하고 농산물 수입 국가로 낙후되고 있으며, 연간 국민식량 수요량에 대한 곡물생산량은 약 10%의 부족을 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1966년 농업연감에 의하면 1965년 말 현재 우리나라 전체 농가의 약 93%가 적자부채 농가로 경영상의 불합리에 직면하고 있음을 파악할 때, 농업에 종사하는 농민 및 농학계나 농업기술자에 속하는 인사들에게는 농산업의 혁명을 일으켜야만 된다는 점을 자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20대~30대의 젊은 세대는 서기 2000년대의 한국농업의 미래상을 그리면서 우리나라가 조속한 시일 안에 곡물의 자급자족과 잉여농산물의 수출국가가 될 수 있어야 하겠고, 조국이 근대화에서 현대화로 비약 발전하여 복지국가로 건설됨으로써, 우리들의 농촌이 복지문화의 마을로 살기 좋게 되도록 노력해야만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조국의 농업발전과 현대화에다 뜻을 두고, 100년 앞을 내다보는 큰 계획을 세워야 할 오늘날의 농학도는 농 · 공 균형성장을 목표로 하여 분발하고, 농민의 정신혁명과 농업의 기술혁명과 농지의 생활혁명, 곧 삼대혁명을 완수하여 농촌현대화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와 같은 농업발전의 대사명을 떠안은 농업기술자들에게 과학적인 전문화에 좋은 자료가 되고, 기술적인 연수의 계기가 되고, 또 경영상 안정화나 합리화에 지표가 될 수 있으며, 연구에 귀중한 자료가 될 수 있게끔 농공대학 연합학회가 창간하는 학회지에 발전이 있기를 거듭 바랍니다.

감사합니다.〔『건농(建農)』 창간호, 건국대학교 농공대학, 1967년〕

21) 「격려사: 영광의 미래를 위하여」

재작년에 창간된 본교 축산대학생의 벗인 『축우』가 호를 거듭하여 금년에 다시 제3호를 발간하게 된 것을 축하하고 또 믿음직스럽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나의 축산대학생 여러분에 대한 기대는 전에도 여러 번 이야기한 바와 같이, 황소와 같은 근면 성실로써 이 나라의 농촌을 재건하고, 농민의 생활을 개선하며 나아가서는 민족 · 국가의 부흥에 이바지하는 알찬 일꾼이 되어 달라는 것입니다.

축산대학생 여러분의 손으로 엮어 낸 『축우』지도 단지 여러분의 한 때의 낭만을 펴거나 대학 생활의 장식품 구실을 하는 데 그치지 말고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은 일을 하는데 있어서 여러분을 보조하고 고무하고 비판하는 자극제가 되기를 바랐던 것입니다.

다행히 여러분의 지향과 노력은 그러한 기대에 부응(副應)하는 훌륭한 성과를 보였습니다만 여러분을 둘러싸고 있는 한국의 현실은 여전히 어둡고 침체된 여러 가지 악조건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일찍이 한국을 방문한 윌리엄 막스웰 씨는 말하여

"한국 사람은 오랜 과거에 걸쳐서 한국 자체의 가치에 대하여 마음속으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한국의 장래를 위해서 일할 한국 학생들은 낡은 관념에 맹종하여서는 안된다. 그들은 무엇보다 자신의 정신적인 개혁을 단행하여야 한다. … 한국 학생들이 저항하고 싸워야 할 것은 농업과 결부된 유교사상을 지양하고 급속히 서양 문명의 적극성을 그들의 수중에 넣는 일이다."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윌리엄 · 막스웰씨의 말에 전적으로 그리고 아무 조건 없이 동조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그가 한국의 근대화를 위하여 농업과 유교사상을 지양하여야 하겠다고 한 점에 대하여는 많은 회의를 가지는 바입니다.

그러나 그가 한국의 젊은이들로 하여금 낡은 가치관의 속박에서 벗어나 적극 합리의 세계를 개척하도록 하기 위하여 희망과 용기를 불러일으킨 점에 대하여는 깊은 감명을 받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과연 우리의 현실은 젊은이들의 용기 없이는 타개될 수 없습니다. 특히 여러분과 같이 지성과 실천력을 겸비한 엘리트들이 낡은 인습에 대하여 과감히 도전하고 영광의 미래를 위하여 줄기차게 노력하지 않을진대 우리의 운명은 전환되기 어려울 것으로 믿습니다.

나는 여기에서 세네카 씨의 운명론의 단편을 소개함으로써 여러분이 자신과 조국의 빛나는 장래를 위하여 한층 더 분발하고, 힘차게 전진하기를 당부하는 바입니다.

"운명이란 외부에서 오는 것 같지만 알고 보면 여러분 스스로가 만들고 있는 것이다. 자신의 약한 마음, 게으른 마음, 성급한 버릇, 이런 것들이 나약한 운명을 만드는 요소이다. 어진 마음 부지런한 습관, 남을 돕는 기풍, 이런 것들은 행운을 개척하는 열쇠이다. 언제나 운명이란 용기 있는 자 앞에선 약하고 비겁한 자 앞에선 강하다."〔『축우(畜友)』 3, 건국대학교 축산대학 연합학회, 1967년〕

22) 「권두언(卷頭言)」

현재 우리나라는 공업입국을 목표로 의욕적인 경제성장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 나라의 산업국가 건설은 균형 잡힌 지역사회의 개발이 없이는 그 앞날이 매우 걱정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도시중심적인 공업 발전책에만 중점을 둘 것이 아니라, 후진된 농촌사회에서도 현대화된 경제성장에의 기반이 조성되도록 더욱 힘써야 될 것입니다. 도시사회는 하루하루가 새로워져 가고 있으나, 농촌사회의 발전은 지지부진하여 구각(舊殼)을 탈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점에 있어서 우리나라의 지역사회개발운동은 농촌지역사회개발운동부터 시작해야 되겠습니다. 이 개발운동에 있어서 무엇보다 시간적으로 빠르고 정확한 성과를 거둘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조용한 혁명 과정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조용한 혁명이란 ①농민의 정신혁명 ②농업의 기술혁명 ③농촌의 생활혁명 등으로, 이런 농산업

의 3대혁명을 시작하여 우리가 뜻하는 복지문화 농촌의 새마을을 건설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조용한 혁명은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 혁명을 위하여 발벗고 나서는 수많은 열혈 애국청년에 의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대는 지역사회개발대학과 같은 자기본연의 사명인 지역사회 혁명을 기도할 개발일꾼이 많이 나와야 될 것입니다.

이번 발행하는 학회지 제2호가 이상에서 제시한 3대혁명의 일꾼을 길러내는 데 고무적이고 또는 지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기관지가 되어주기를 충심으로 기원하는 바입니다.(『개발』 2호, 건국대학교 지역사회개발초급대학 연합학회, 1967년)

23) 「축사: 이공대학 학보 창간에 즈음하여」

(1)

이공대학 학보를 창간함에 즈음하여 축사를 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성 · 신 · 의의 건학정신으로서 과학과 기술(테크놀로지)을 아울러 연수하게 된 이공대 학생 제위에게 이사장으로서 간곡히 부탁하고자 함은 조국의 미래상을 가지는 창조적 인간이 될 수 있도록 힘써 달라는 것입니다.

그 조국의 미래상은 우리나라도 복지문화국가로 건설되어야 한다는 것이오, 이를 위해서는 인간을 근본으로 하는 철학과 청사진을 가지는 계획과 그 설계대로 건설할 수 있는 기술과 과학화된 기계를 조작할 수 있는 기능을 아울러 체득하지 않고서는 아니 됩니다.

이처럼 조국의 미래상을 실천해 갈 창조적 인간상은 내적으로는 의욕과 정열 · 희생과 봉사를 위한 정신적인 인간의 자질과 한편으로는 계획성과 기술 · 자본적인 6대 요소가 구비되지 않고서는 창조적 인간이 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세기를 말하여 문명비평가들은 기술문명의 시대라고 말하고 있느니 만큼, 우리나라가 산업발전의 후진성을 시급히 탈피하고 공업화 과정을 거침으로써 고도한 복지문화국가로 번영할 수 있는 길은 오로지 과학화를 위한 선행조건의 충족이어야만 한다고 하겠습니다. 그러기에 조국의 현대화를 위한 이 선행조건 충족을 위하여 본 학보가 기여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

장안동'캠퍼스' 안에 다가 이공대학의 설립을 보게 된 것은 비록 연천(年淺)하다고 하겠으나 이공대학 학보의 창간의 의의는 크다고 하겠습니다.

20세기의 경이적인 원자력문명은 세계내적 존재인 인류로 하여금 우주개발의 시대로 돌진해 들어가는 도상에 있게끔 되었습니다. 이는 분명히 현대가 기술혁명의 시대임을 말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이 기술혁명에서 촌보도 비약을 하지 못하고 있는 형편에 놓여 있습니다. 조국의 과학화와 기계화에 있어서 이 나라의 이공학계가 걸머져야 할 사명은 너무나 크고 또한 무거운 것임을 자각해야 합니다. 이는 곧 이 부문에 있어서는 모든 것이 첫 출발점에 놓여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선진국가의 이론과 기술을 아울러 받아들여서, 이를 완전히 소화하여 우리들의 것으로 숙달케 됨에 있어서 게을리 해서는 아니 되겠으며 또한 그 속에서 우리의 독자적인 창조를 위하여도 진력하지 않아서는 아니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조국의 현대화를 위한 선행원리가 '기술혁명'에 있음을 중시하여 본 학보가 이에 공헌하기를 바랍니다.

(3)

"현재 사람들은 기술의 방법을 자꾸 만들어 내면서 그 기술의 이념은 만들어 내지 않는다."

이는 지난 11월 13일 일본 교토산업대학(京都産業大學)이 마련한 강연회에서 영국의 문명비평가인 '아놀드 · 토인비' 박사가 지적한 말입니다.

'토인비' 박사의 이와 같은 말은 과학과 기술에 전념해야 할 우리나라의 이공학도들에게 들려 드리고 싶은 명언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념이 없는 기술은 괴뢰와 같은 기술이 될 것이며, 목적이 없는 '로봇트'의 기술일 것입니다.

우리들은 조국이 고도의 복지문화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산업이 발전한 국가가 되어야 할 것이며, 이 산업국가발전을 위해서는 앞으로 이 나라가 농촌공업화에 따르는 농공병진(農工竝進) 단계를 거쳐야만 공업화단계로 이행되어 갈 수 있다는 것을 도외시해서는 아니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배우고 익힌 기술이 조국의 산업화에 기여될 수 있는 이념이 없이 체득된 기술이라고 한다면, 민족문화의 창조와 인류문화 창조에 기여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일개인의 치부책을 위한 기술이나 또는 사회악의 원인을 자아내는바, 악화(惡貨)에의 기술이 되기 쉬우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런 까닭에 우리는 기술의 연마와 과학이론의 연구가 민족문화와 인류문화의 창업에도 기여되어야만 된다는 것을 명심하여 본 학보의 창간이 기술적 방법뿐 아니라 기술적 체념(體念)에도 유의하여 줄 것을 거듭 바라마지 않습니다.(『이공학보(理工學報)』 창간호, 이공대학 학생회, 1968년)

24) 「힘찬 출범: 『행정학보』의 창간에 부침」

본교 행정대학원 교수 및 학생들의 그 많지 않은 손을 모아서 이번에 『행정학보』를 창간하게 된 것을 경하하고 또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행정대학원은 행정의 이론에 관한 연구와 더불어 행정 각 분야의 실제적 응용 능력을 배양하고, 또 이미 사회의 각계각층에서 활약하고 있는 유능한 인재와 행정실무가들에게 고도의 행정 및 관리 기술을 터득하도록 하기 위하여 세워진 특수대학원입니다.

행정대학원이 지향하는 거창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학교 당국과 교직원 제위 및 학생 제군은 꾸준한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만, 학문의 내적 충실은 일조일석에 이룩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일 년 반 남짓한 원력(院歷)밖에 갖지 못한 행정대학원이 벌써 그 연구의 결실을 한 권의 책으로 엮어 내게 된 것은 참으로 놀랍고도 대견스러운 일입니다.

한 편 한 편의 글을 일일이 검토할 시간과 자격을 갖지 못한 나로서, 책의 내용을 운위할 수는 없으나, 그 중에는 필시 주옥같은 논문도 있을 것이요, 또는 채 여물지 못한 미숙한 글도 있으리라고 짐작됩니다. 설혹 미완 불비한 점이 있어서, 비판과 검토를 받는 한이 있더라도, 그것은 그것대로 뜻있는 일이라 생각됩니다.

여러분이 다 아시는 바와 같이, 과학의 세계는 망망대해와 같이 크고 넓으나, 거기에 이르는 길은 좁고 험난합니다. 때로는 준령과 고산을 넘고, 때로는 험악한 비탈길을 걸어가야 하는 수도 있습니다. 과학의 열매는 그 험로를 뚫고 나온 상처 위에서만 맺혀지는 영광입니다. 과학처럼 비약을 염오(厭惡)하고 기적을 배척하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는 가끔 선인의 찬란한 문화적 업적을 찬양하면서도 그들이 걸어온 형극의 역정을 망각합니다. 여러분은 지상에 높이 솟은 웅장한 건물을 바라보기 전에 그 밑바닥에 깔린 정지작업과 기초공사에 주목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행정학보』도 일약 창공에 솟은 고층건물이 되고자 하느니보다, 착실하고 견고한 기초작업 위에서 한 층 한 층 학문의 탑을 쌓아 올리는 건실한 노력의 소산이 되어 주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행정학보』의 힘찬 출범을 축하하며, 그 양양한 발전과 보람찬 결실이 있기를 기원하는 바입니다.(『행정학보(行政學報)』 창간호,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1968년 11월)

오늘뜻깊은開校12周年記念日

理想具現의 段階

學長 劉錫祉

힘찬 出帆을

理事長 劉錫祉

제4편

내가 기억하는 상허 선생

– 유석창 박사의 인간적 면모 –

1. 가족들이 기억하는 상허 선생
2. 학계 인사들이 기억하는 상허 선생
3. 농업계 인사들이 기억하는 상허 선생
4. 정치계 인사들이 기억하는 상허 선생
5. 내가 알고 있는 상허 선생의 삶과 의식세계
6. 전국농업기술자협회 회원들의 기억

제4편

내가 기억하는 상허 선생

– 유석창 박사의 인간적 면모 –

목차

1. 가족들이 기억하는 상허 선생 (성함 가나다 순서, 이하 같음)

1) 김경희(金敬姬, 큰 자부, 제21대 학교법인 건국대학교 이사장) / 「나의 시아버님! 당신의 분신은 바로 건국대학교입니다」, 『내가 본 상허 유석창』, 2001, 13~17쪽

2) 김계옥(金桂玉, 상허 선생 부인) / 『建大文化』 편집부, 「故 常虛 劉錫昶博士 生活 片片相」, 『建大文化』 3집, 1973, 126쪽

3) 미망인 김계옥 이사가 회고하는 상허 선생 / 「청빈한 생활 속에 안빈(安貧)의 도(道)가–김계옥(金桂玉) 이사님과 함께」, 『건대신문』, 1977년 12월 28일

4) 유승윤(劉承潤, 차남, 전 학교법인 이사장) / 『建大文化』 편집부, 「고 상허 유석창 박사 생활 편편상(片片相)」, 『建大文化』 3집, 건국대학교총학생회, 1973년 9월 1일

5) 유승윤(전 학교법인 건국대학교 이사장) / 「상념건국(常念建國) 허심위족(虛心爲族)」, 『내가 본 상허 유석창』, 2001, 142~145쪽

2. 학계 인사들이 기억하는 상허 선생

1) 김건(金鍵, 건국대학교 명예교수) / 「내가 본 유석창 박사」, 『建大學報』 11, 1961, 35~36쪽

2) 김건(金鍵, 건국대학교 이부대학장) / 「'고희연 축사' 김건 학장이 말하는 인간, 유석창: 독립군 속에서 성장하고 온화하면서도 굳은 의지」, 『건대신문』 1970년 3월 27일

3) 김교갑(전 건국대학교 상허기념도서관 부관장) / 「상허 유석창 박사 탄신 백주년을 기리며」, 『내가 본 상허 유석창』, 2001, 21쪽

4) 김기수(金琦洙, 건국대학교 부교수) / 「내가 본 유석창 박사」, 『建大學報』 11, 1961, 37쪽

5) 김동욱(金東旭, 전 건국대학교 사무처장) / 「상허 유석창 박사님의 신인과 제자 사랑」, 『내가 본 상허 유석창』, 2001, 26쪽

6) 김두헌(金斗憲, 전 건국대학교 대학원장) / 「내가 본 유석창 박사」, 『建大學報』 11, 1961, 34쪽

7) 김두헌(金斗憲, 전 건국대학교 대학원장, 현 명예교수) / 「내가 본 常虛 先生」, 『상허 유석창 전기』, 1981년.

8) 김병태(전 건국대학교 상경대학 교수) / 「남정(南庭)의 선물」, 『내가 본 상허 유석창』, 2001, 33~34쪽

9) 김봉일(金奉日, 현 건국대학원 이사) / 「내가 본 常虛 先生」, 『상허 유석창 전기』, 1981년.

10) 김사익(金士翼) / 「내가 본 常虛 先生」, 『상허 유석창 전기』, 1981년.

11) 김서묵(金書默, 건국대학교 서무과장) / 「내가 본 유석창 박사」, 『建大學報』 11, 1961, 38쪽

12) 김서묵(金書默, 학교법인 건국대학원 감사) / 「내가 본 常虛 先生」, 『상허 유석창 전기』, 1981년.

13) 김성원(金聲遠, 전 건국대학교 농과대학장) / 「내가 본 常虛 先生」, 『상허 유석창 전기』, 1981년.

14) 김승곤(金勝坤, 건국대학교 문과대학 대우교수) / 「상허 선생은 위대한 애국자요, 사상가였다」, 『내가 본 상허 유석창』, 2001, 49~50쪽

15) 김연수(金延洙, 건국대학교 총무과장) / 「내가 본 유석창 박사」, 『建大學報』 11, 1961, 38쪽

16) 김일근(金一根, 건국대학교 문과대학 명예교수) / 「상허 선생 가신 지 30년」, 『내가 본 상허 유석창』, 2001, 52~53쪽

17) 김임식(전 건국대학교 총동문회장) / 「우국지사 상허 선생」, 『내가 본 상허 유석창』, 2001, 57~58쪽

18) 김정실(金正實, 건국대학교 교수) / 「내가 본 유석창 박사」, 『建大學報』 11, 1961, 34~35쪽

19) 김창한(건국대학교 농축산생명과학대학 교수) / 「세 가지 교육철학」, 『내가 본 상허 유석창』, 2001, 59~61쪽
20) 김현룡(金鉉龍, 건국대학교 문과대학 명예교수) / 「상허 선생에 대한 추념」, 『내가 본 상허 유석창』, 2001, 65~66쪽
21) 류제창(건국대학교 농축산생명과학대학 교수) / 「민족의 위대하신 스승 상허 선생님」, 『내가 본 상허 유석창』, 2001, 73쪽
22) 류태영(건국대학교 사범대학 교수) / 「상허 선생과 나」, 『내가 본 상허 유석창』, 2001, 78~79쪽
23) 맹원재(건국대학교 총장) / 「축산대학의 태동」, 『내가 본 상허 유석창』, 2001, 82쪽~87쪽
24) 박승하(朴勝夏, 건국대학교 정법대학 명예교수) / 「내가 본 常虛 先生」, 『상허 유석창 전기』, 1981년.
25) 박승훈(朴承薰, 현 건국대학교 문리과대학 교수, 출판부장) / 「내가 본 常虛 先生」, 『상허 유석창 전기』, 1981년.
26) 박영룡(朴泳龍, 전 상허 선생 총무 비서, 현 건국대학교 상경대학 조교수) / 「내가 본 常虛 先生」, 『상허 유석창 전기』, 1981년.
27) 박택규(건국대학교 이과대학 교수) / 「상허 선생, 위대한 휴머니스트」, 『내가 본 상허 유석창』, 2001, 103~104쪽
28) 백수봉(건국대학교 농축산생명과학대학 명예교수) / 「상허 유석창 선생님의 농민 · 농촌 · 농업의 사랑」, 『내가 본 상허 유석창』, 2001, 107~108쪽
29) 새먼(B. H Saman, 주한 USOM 대학교육과장) / 「건대의 아버지께 박수를」, 『건대신문』 1961년 10월 12일
30) 설완(전 학교법인 건국대학교 이사장 비서실장) / 「상허 선생과의 조그만 인연」, 『내가 본 상허 유석창』, 2001, 111쪽
31) 송영우(건국대학교 정치대학 교수) / 「참 삶의 본보기」, 『내가 본 상허 유석창』, 2001, 114~116쪽
32) 송희영(宋熹永, 건국대학교 상경대학 교수) / 「귀중한 유업」, 『내가 본 상허 유석창』, 2001, 118~120쪽
33) 안상원(安商元, 건국대학교 교수) / 「상허 유석창의 생애와 정신」, 『상허사상의 조명』 1, 상허기념사업회 주관 '제1회 상허사상연구발표회' 발표논문, 1985. 11. 23, 건국대학교 학생회관 중강당, 68~69쪽
34) 양재모(연세대학교 명예교수) / 「상허 유석창 선생」, 『내가 본 상허 유석창』, 2001, 122 · 127쪽
35) 원종세(元鍾世, 건국대학교 사범대학 교수) / 「나의 친구 아버지」, 『내가 본 상허 유석창』, 2001, 131~132쪽
36) 유덕산(柳德山, 건국대학교 원로동문) / 「상허 선생을 그리워하며」, 『내가 본 상허 유석창』, 2001, 135~141쪽
37) 윤정길(건국대학교 정치대학 교수) / 「나의 선택 그리고 상허 선생님과의 인연」, 『내가 본 상허 유석창』, 2001, 148~149쪽
38) 윤형섭(전 건국대학교 제14대 총장) / 「조용한 혁명」, 『내가 본 상허 유석창』, 2001, 152~155쪽
39) 윤희섭(건국대학교 농축산생명과학대학 명예교수) / 「상허 선생님의 결벽증 해명」, 『내가 본 상허 유석창』, 2001, 157~159쪽
40) 이광전(李廣田, 건국대학교 농축산생명과학대학 교수) / 「유석창 총장님과 꿈」, 『내가 본 상허 유석창』, 2001, 161~162쪽
41) 이기원(전 학교법인 건국대학원 재단이사장 비서실장) / 「상허 유석창 박사의 일상생활에서의 일화들」, 『건대신문』 1989년 5월 15일
42) 이기원(전 건국대학교 총무처장) / 「상허 선생의 사진에 담긴 이야기」, 『내가 본 상허 유석창』, 2001, 165~167쪽
43) 이대위(李大偉, 건국대학교 명예교수) / 「내가 본 유석창 박사」, 『建大學報』 11, 1961, 35쪽
44) 이대위(李大偉, 건국대학교 명예교수) / 「36년 건대사의 산증인」, 『건대신문』 1982년 5월 12일
45) 이방석(李邦錫, 건국대학교 부교수) / 「내가 본 유석창 박사」, 『建大學報』 11, 1961, 36쪽
46) 이방석(李邦錫, 현 건국대학교 정법대학장) / 「내가 본 常虛 先生」, 『상허 유석창 전기』, 1981년.
47) 이여하(건국대학교 농축산생명과학대학 명예교수) / 「유 박사의 교육 철학」, 『내가 본 상허 유석창』, 2001, 169~172쪽
48) 이영협(李英俠, 건국대학교 교수) / 「내가 본 유석창 박사」, 『建大學報』 11, 1961, 36쪽
49) 이종규(李鍾奎, 전 건국대학교 부총장) / 「상허 유석창 박사 추모사」, 『내가 본 상허 유석창』, 2001, 179~185쪽
50) 이항녕(李恒寧, 전 홍익대학교 총장) / 「내가 본 常虛 先生」, 『상허 유석창 전기』, 1981년.
51) 이훈종(전 건국대학교 문과대학 교수) / 「모든 영광를 바치며」, 『내가 본 상허 유석창』, 2001, 189~190쪽
52) 장영철(張永哲, 전 건국대학교 축산대학장) / 「내가 본 常虛 先生」, 『상허 유석창 전기』, 1981년.
53) 정대교(건국대학교 농축산생명과학대학 명예교수) / 「논두렁의 의미」, 『내가 본 상허 유석창』, 2001, 197 · 199쪽
54) 정대위(전 건국대학교 제2, 3대 총장) / 박기용 저, 『조용한 혁명을 위하여』(나라기획, 1987) '서문'의 일부 ; 「상허 선생의 은덕을 기리며」, 『내가 본 상허 유석창』, 2001, 200쪽
55) 정범석(鄭範錫, 건국대학교 교수) / 「내가 본 유석창 박사」, 『建大學報』 11, 1961, 36~37쪽
56) 정범석(鄭範錫, 현 국민대학교 총장, 대한교육연합회 회장) / 「내가 본 常虛 先生」, 『상허 유석창 전기』, 1981년.
57) 정인승(鄭寅承, 전 전북대학교 총장, 현 건국대학교 문리과대학 대우교수) / 「내가 본 常虛 先生」, 『상허 유석창 전기』, 1981년.
58) 정호권(전 건국대학교 제13대 총장) / 「검소한 상허」, 『내가 본 상허 유석창』, 2001, 211쪽
59) 조성환(趙誠煥, 현 건국대학교 총장 비서실장) / 「내가 본 常虛 先生」, 『상허 유석창 전기』, 1981년.
60) 조일문(趙一文, 건국대학교 제8대 총장) / 「건학정신 맥맥히 이어져」, 『내가 본 상허 유석창』, 2001, 215~221쪽
61) 주권(朱權, 현 건국대학교 농과대학 명예교수) / 「내가 본 常虛 先生」, 『상허 유석창 전기』, 1981년.
62) 주영하(현 세종대학교 재단이사장) / 「내가 본 常虛 先生」, 『상허 유석창 전기』, 1981년.
63) 차석기(車錫基, 고려대 의대교수) / 「상허의 인술정신」, 『상허사상의 조명』 1, 상허기념사업회 주관 '제1회 상허사상연구발표회' 발표 논문, 1985. 11. 23, 건국대학교 학생회관 중강당, 151쪽
64) 최무장(건국대학교 문과대학 교수) / 「칠피구두」, 『내가 본 상허 유석창』, 2001, 226~227쪽
65) 채의숭(蔡義崇, 전 건국대학교 총동문회 회장) / 「내가 다니던 그때 우리 대학」, 『내가 본 상허 유석창』, 2001, 223쪽
66) 피세진(건국대학교 문과대학 교수) / 「Speed를 좋아하는 상허 선생님」, 『내가 본 상허 유석창』, 2001, 230~231쪽
67) 한기언(韓基彦,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 「상허의 밝은 눈, 찬 머리, 뜨거운 가슴」, 『내가 본 상허 유석창』, 2001, 234~238쪽
68) 한정일(한정일, 건국대학교 정치대학 교수) / 「인본주의자인 상허 선생」, 『내가 본 상허 유석창』, 2001, 239쪽
69) 황명찬(黃明燦, 건국대학교 정치대학 교수) / 「24시간 건국대학교만을 생각해 주시오」, 『내가 본 상허 유석창』, 2001, 243~244쪽
70) 황상익(서울대 의대교수) / 「의사로서의 상허 유석창」, 『醫史學』 제9권 제1호, 통권 제16호, 2000년 6월
71) 황조연(건국대학교 원로동문) / 「유석창 박사의 유덕을 추모하며」, 『내가 본 상허 유석창』, 2001, 248~249쪽)
72) 황칠성(黃七星, 건국대학교 부교수) / 「내가 본 유석창 박사」, 『建大學報』 11, 1961, 37~38쪽
73) 황칠성(黃七星, 현 건국대학교 충주대학장) / 「내가 본 常虛 先生」, 『상허 유석창 전기』, 1981년.

3. 농업계 인사들이 기억하는 상허 선생

1) 김선호(金先浩, 전 농업기술자협회 부산지부장) / 「내가 본 常虛 先生」, 『상허 유석창 전기』, 1981년.
2) 김성도(선린협동촌 운영위원장) / 「내가 본 常虛 先生」, 『상허 유석창 전기』, 1981년.

3) 이호철(李鎬喆, 전 농업기술자협회 부총재, 인천후생농장 농장장) / 「내가 본 常虛 先生」, 『상허 유석창 전기』, 1981년.

4) 임국립(任國立, 현 농업기술자 협회 이사 겸 제주도지부장) / 「내가 본 常虛 先生」, 『상허 유석창 전기』, 1981년.

5) 한도룡(韓道龍, 현 영남농원 사장) / 「내가 본 常虛 先生」, 『상허 유석창 전기』, 1981년.

4. 정치계 인사들이 기억하는 상허 선생

1) 김재춘(金在春, 전 국회의원) / 「내가 본 常虛 先生」, 『상허 유석창 전기』, 1981년.

2) 안호상(전 문교부장관) / 「내가 본 常虛 先生」, 『상허 유석창 전기』, 1981년.

3) 이인(李仁, 초대 법무부장관) / 「常虛 劉錫昶 博士를 哀悼함」, 『朝鮮日報』 1972년 1월 6일 조간 6면

4) 송남헌(전 대통령자문기관단체인, 전 사회기관단체인) / 우사연구회 엮음, 「송남헌 회고록: 김규식과 함께 한 길」, 한울, 2000, 57~58쪽

5. 내가 알고 있는 상허 선생의 삶과 의식세계

1) 경신중고등학교 동창들이 기억하는 '유석창 동문(1923년도 제17회 졸업)' / 경신사편찬위원회, 『儆新史』, 경신중고등학교, 1991, 1129~1132쪽

2) 동아일보 '인물평' / 「훈육 50년, 유석창 박사 : 「건대」 세운 숨은 기둥」, 『동아일보』 1961년 11월 17일

3) 이종규(李鍾奎, 건국대 재단이사) / 「총장 '유석창'론」, 『건대학보』 7호, 건대사, 1959

4) 김건(문리대 명예교수 · 윤리학) / 「상허정신의 이념적 정립」, 『건대학보』 제29집, '특집 · 1 본교 창립 30주년 기념논단', 1976년.

5) 정범석(鄭範錫) / 「常虛先生의 片貌」, 『학술지』 20(건국대학교 창립 30주년 기념), 건국대학교 학술연구원, 1976년 5월

6) 김두헌(金斗憲) / 「常虛 劉錫昶博士 追慕記」, 『학술지』 20, 건국대학교 창립 30주년 기념, 건국대학교 학술연구원, 1976년 5월

7) 안호상(安浩相, 철학박사 · 초대 문교부장관 / 「자유(自由) · 평화(平和) 번영의 큰 뜻 심어」, 『건대신문』 1977년 12월 28일 3면

8) 김일주(동문회장) / 「상허 유석창 전기(傳記)」 발간(發刊)에 즈음하여」, 『건대신문』 1981년 12월 30일

9) 상허(常虛) 선생 사학인의 귀감(龜鑑)으로 『사학연금』 사학설립(私學設立) 백돌기념 / 『건대신문』 1985년 5월 20일

10) 고(故) 상허(常虛) 선생, 근세교육가 30인에 선정 한국 근세교육사상가 선정위원회에서 / 『건대신문』 1987년 9월 7일

11) 한기언(서울대학교 명예교수 · 한국정신문화연구원 객원교수) / 「상허 유석창 박사 서거 20주년에 즈음하여, 인재 양성의지 사학 설립으로 열매 맺어」, 『건대신문』 1992년 1월 1일

6. 전국농업기술자협회 회원들의 기억

1) 전국농업기술자협회 50년사 / 전국농업기술자협회, 『전국농업기술자협회 50년사, 1963~2013』, 2013, 393~397쪽

2) 정장섭(鄭長燮, 전국농업기술자협회 전무이사) / 「내가 만난 상허 선생」, 『건대신문』 1981년 5월 20일

1
가족들이 기억하는 상허 선생

(성함 가나다 순서, 이하 같음)

1) 김경희(金敬姬, 큰 자부, 제21대 학교법인 건국대학교 이사장)

1969년 화창한 어느 봄날, 나는 시부모님이 되실 어른들을 뵙기 위해 가회동을 찾았다. 집의 위치를 잘 몰라 훗날 나의 남편이 된 유일윤 씨(상허 유석창 박사님의 큰아들)가 가르쳐 준대로 좁다란 가회동 길을 걸어 올라가 매우 웅장하고 근사한 집 앞에서 "이 집이겠지"하고 멈춰 섰다. 초인종을 누르려는 찰나에 그 큰집의 담벼락에 붙은 초라하고 허술한 옆집 담 너머로 일윤 씨가 내다보며 "어이, 그 집이 아니야, 여기야 여기, 빨리 이리와"하고 나를 불러 세웠다.

그의 뒤를 쫓아 들어간 집은 뜻밖에도 너무나 초라하고 낡아 있었다. 부엌을 들여다보니 시멘트 바닥에 연탄화덕이 있고 피우는 부뚜막에는 금새라도 떨어져 내릴 것 같은 낡은 찬물만 나오는 수도꼭지가 있었다. 나는 너무나도 놀라운 현실 앞에 "아니, 이럴 수가, 사실이 아니겠지"하고 내심 강한 부정을 하며 "아, 이 집 말고 또 다른 곳 어딘가에 진짜 이사장님 댁이 있겠지. 이사장이라는 분의 집이 이렇게 초라할 리가 있나?"하고 어리둥절한 느낌이었으며, 바로 이날 처음으로 시부모님을 뵙고 큰절을 올렸다.

그날, 무겁게 입을 여신 아버님의 첫 말씀은 "눈을 아래로 내리뜨고 내숭떠는 여자는 몹쓸 여자다. 무릇 여자는 행동이 바르고 정신상태가 건강해서 상대방을 바로 보고 예의를 지키면서도 당당하게 대화해야 한다"고 하시며, 부녀자(婦女子)가 지킬 언어 표현의 좌표를 설정해 주셨다. …

결혼 후 첫 번째 맞은 나의 생일날 일이었다. 아버님께서는 만면에 미소를 머금으시고 말씀하시길 "아가야! 지금 무엇이 제일 갖고 싶으냐?"하고 물으셨다. 나는 카메라를 갖고 싶다고 대답했다. 아버님은 나의 제안(?)을 흔쾌히 받아들이셔서 그 시절에 명품 카메라로 널리 알려진 일제(日製) 아사히 펜탁스 카메라를 선물로 사주셨다. 그만한 집안에 카메라가 없어서 불편했던 것은 사실이지만 나중에 생각해보니 당시, 대가족의 일개 가장으로서 상허 선생님 집안의 가계(家計) 형편으로는 엄청나게 큰 부담이 되는 선물이었다. 돌이켜보면 나는 그 시절에 그야말로 철없는 며느리였던 셈이다. 아버님은 맏며느리인 내가 귀여워서 그 좋은 선물을 주셨지만 그 카메라가 "우리 집안에서 제일 갚나가는 재산 목록 1호"라고 하시면서 잘 간수하라고 말씀하시던 모습이 지금도 기억에 생생하다. …

아버님의 자상함은 거기에 그치지 않았다. 당시 재단 이사장 사무실은 낙원동 교사에 있었는데 아

버님께서는 매일 퇴근하실 때 마다 깨끗하게 소독한 수건에다 건국우유 한 병을 싸가지고 손수 들고 오셔서 "우리 집 맏며느리, 이 우유 마시고 더욱 건강해야지"하고 직접 내게 건네주시면서 빙그레 웃으시던 모습이 지금도 눈에 선하다. 또 낡은 한옥집이어서 욕실이 없었기에 집안에 그것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씀 드렸더니 그렇게 깨끗함을 좋아하시는 어른께서 뒤뜰 수도를 가리키시며 "목욕할 곳은 저기도 있고 여기도(부엌 수돗가) 있다"고 하시면서 집안에서의 불편쯤은 참아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이처럼 그분은 멸사봉공(滅私奉公) 그 자체였다.

시어른께서는 집안에 있는 것 중에서도 학교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만한 것이 있으면 모두 학교로 가지고 가셔서 건국대학교 가족이나 사회를 위해 쓰셨고, 마당에 심어 놓은 한 그루의 나무까지도 건국대학교가 필요로 하면 학교에 다 옮겨 심으시는 분이셨다.

그 분은 소탈한 옷차림에 값싼 구두를 신으셨지만, 그러나 늘 깨끗하고 단정한 옷매무새로 모든 사람들을 압도하는 당당함을 가지셨다.「나의 시아버님! 당신의 분신은 바로 건국대학교입니다」,『내가 본 상허 유석창』, 2001, 13~17쪽〕

2) 김계옥(金桂玉, 상허 선생 부인)

"한번은 저녁 늦게 퇴근하려는 데 환자 하나가 피를 흘리며 병원 문을 두드렸다. 중상은 아니었지만, 수술을 요하는 상처였다. 중년남자인 환자는 유 박사에게 수술비가 없다면서 자신의 사정을 털어 놓았다. 유 박사는 기꺼이 수술을 끝내고 웃으며 귀가했다.

그런데 6 · 25가 민족의 비극을 싣고 서울에 붉은 손을 닿게 했을 때, 노년의 유 박사에게 보은을 받게 했다. 전시의 식량난은 극심했다. 유 박사는 피난을 가지 않은 채 가회동에 머무르고 있었다. 저녁 때 쯤이었다. 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부인 김계옥 여사는 유 박사로부터 그 수술환자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 김 여사는 예감에 바로 그 사람일 것이라고 생각했다.

때문에 누구인가도 묻지 않고 문을 열었다. 밖엔 왼쪽 어깨에 자루를 멘 사나이가 서 있었다. 그 안에는 쌀 두어 말과 북어 한 궤가 들어있었다. 그는 아무 소리도 없이 그 자루를 놓고 돌아갔다. 김 여사는 그를 주의 깊게 관찰한 후 유 박사께 말씀드렸다. 유 박사는 그가 바로 무료로 수술한 사람임을 알았다. 그 후 많은 사람들이 유 박사의 신변을 보호해준 예는 허다했다. …

언젠가는 퇴근 도중, 어느 한 사람이 서너 명에게 몰매를 맞는 광경을 목도하고는 이에 분개하여 비굴하게 한 사람을 매질하는 사람들에게 달려들어 실컷 두들겨 주고, 쏜살같이 집에 와보니 옷에 피 자국이 여기저기 묻어 있었다고 한다. …

한번은 부인 김계옥 여사와 함께 서대문 영천에서 전차를 타고 종로 2가에서 내렸다. 그런데 승객이 많아 미처 승차권을 차장에게 주지 못하고 내려야 했다. 전차가 멈추자, 유 박사는 매표구로 달려가 5전으로 승차권을 사서 차장에게 주었다. 옆에서 바라보고 있는 부인에게 하신 말씀이 왈, "차를 탔으니 당연히 차비를 지불해야 돼, 내가 5전 짜리는 아니잖아!"라고 하셨더란다.『建大文化』 편집부, 「故 常虛 劉錫昶博士 生活 片片相」,『建大文化』 3집, 1973, 126쪽〕

3) 미망인 김계옥 이사가 회고하는 상허 선생

군자(君子)는 청빈한 생활 가운데서 오히려 안빈(安貧)의 도(道)를 즐길 수 있다고 했다. 이처럼 참되고 바른 삶의 자세를 오늘날 우리의 주변에서 실제로 찾아보고 확인할 수 있었다는 사실은 탐방 기자의 커다란 즐거움이었다.

서울에서도 이러다할 중산층들이 자리 잡고 있는 종로구 가회동, 짜임새 있게 꾸며진 주택가 한 모퉁이에 위치한 김계옥 이사(金桂玉理事)님의 자택은 누가보아도 우리나라 유수의 명문 사학 건국대학교의 설립자이신 상허(常虛)선생의 생활 터전이었으며 현(現) 이사장의 자택이라고는 선뜻 받아들여지지 않을 만큼 평범하고 꾸밈새 없는 가옥이었다.

작은 철문을 밀고 들어서니 조그마한 뜨락에 몇 그루의 나무가 겨울 추위에 앙상한 가지를 드러내 놓은 채 말없이 서있을 뿐, 이렇듯 평범하고 검소한 분위기에 어리둥절해 있는 기자를 소박(素朴)한 한복차림의 김 이사장님께서 맞아주신다.

"벌써 그분의 6주기예요. 그동안 온 건국가족이 끊임없이 노력하여 오늘과 같은 눈부신 발전을 이룩하고 명실상부한 사학(私學)의 명문 건국대학교를 건설하였으니, 지하에 계신 당신께서도 기뻐하실 것입니다."

상허 선생님의 6주기를 맞아 당신을 잃으신 슬픔보다는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해 가는 오늘의 건국을 지켜보는 기쁨이 더 크고, 그러한 건국이 못내 자랑스럽다고 말씀하시는 김 이사님. 상허 선생님의 체취와 숨결이 곳곳에 살아 숨쉬고 있는 듯한 뜨락을 내려다 보시며 생전(生前)의 상허 선생님을 회상하신다.

"그 분께서는 누구보다도 이 나라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 건국대학교를 설립하신 것도 그분의 뜨거운 나라사랑하는 마음에서였지요."

유석창 박사와 김계옥 여사

우리나라가 일제의 압박으로부터 해방되던 날, 김 이사님은 상허 선생님께서 우시는 것을 처음 보았다고 하신다.

"나라가 독립이 된 소식을 들으시고는 기쁨에 겨워 그만 흐느껴 우시는 거였어요."

그 당시 조국독립의 기쁨에 겨워 흐느껴 우시던 상허 선생님의 모습이 아직도 기억에 생생하다고 하신다.

상허 선생님께서는 무척 청빈한 생활을 하셨다고 한다. 언제나 자신의 분수에 알맞은 생활을 강조하셨다고. 이러한 상허 선생님의 뜻을 그대로 이어 받으신 듯, 김 이사님과 이사장님의 생활 역시 검소함 그것 뿐임을 한 눈에 알 수 있다.

"주위의 사람들이 저와 저의 식구들의 생활이 검소하다고들 하지요. 하지만 저는 검소한 생활이 무엇인지 모르고 있답니다."

말하자면 세인(世人)이 말하는 검소함과 화려함의 판단기준부터 의식하지 않고 생활해 왔기 때문에 스스로 그것을 느끼지 못하신다는 것.

이러한 김 이사님의 생활태도를 가장 잘 엿볼 수 있는 것이 다름 아닌 자택(自宅)의 구조, 김 이사님 택의 구조는 특기할만 하다. 한마디로 일본식과 한식 그리고 양식이 복합된 것.

상허 선생님께서 일제 강점기 때부터 유명을 달리하실 때까지 몸담아 오신 이집은 그동안 50여년의 세월을 지나오면서 필요할 때마다 구조의 일부를 변경, 또는 보완해 왔기 때문.

낡은 일본식 가옥의 일부를 뜯어내고 한식의 기와집을 잇대어 짓는 등 해서 가옥 양식이 복합된 구조를 지니게 된 것. 오직 검소하게 살겠다는 굳은 생활신조의 결과라 믿어진다.

"민족사학(民族私學) 건국대학교를 설립하시던 시절에 그분께서는 피눈물나는 일을 숱하게 겪으셨지요."

정치학관 설립시절부터 종합대학교로 승격하기까지 상허 선생님께서 겪으신 고초는 수없이 많았다고. 그 많은 역경을 이기고 오늘의 건국(建國)을 이룩할 수 있었던 것은 오로지 독립된 조국의 앞날을 이끌 영재를 모아 교육함으로써 조국의 무궁한 발전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 이념과 열성이 결실을 보게 되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시는 김 이사님은 캠퍼스를 장안벌로 이전할 무렵의 상허 선생님의 모습을 회상하신다.

"언제나 머리맡에 펜과 메모지를 마련하시고서야 잠자리에 드시곤 하셨어요. 한밤중이라도 학교에 관한 구상이 떠오르면 그것을 구체화하시느라 밤을 새시곤 하셨지요."

자나깨나 학교만을 생각하시는 바람에 학교 설립후에는 상허 선생님은 아예 학교에 빼앗아 버렸다고 스스로 체념하신 듯 마음의 위안을 삼으시기도 하셨다 한다. 한번은 뜨락에 심어져 있는 아카시아 나무를 상허 선생님과 상의없이 베어버리셨다가 "그 나무를 학교 캠퍼스에 옮겨심었으면 얼마나 좋았을 것인지 생각도 못했느냐"는 호된 꾸중을 들으시기도 하였다고.

학내의 건설사업이 한창 진행되고 있을 때 일감호를 파는데 대해 투자효과와 우선순위 등을 고려하여 호수를 파는 것이 급선무가 아니라는 일부의견들이 있었으나 상허 선생님께서는 "젊은 학생들에게는 꿈과 이상이 있어야 한다. 이 원대한 꿈과 이상을 키워주고 펼쳐주기 위해서 힘찬 젊음이 영원이 약동할 시원한 호수를 파는 것이다." 라시며 일감호의 조성을 강조하셨다고 우리 건국가족의 자랑인 일감호 조성에 얽힌 이야기를 조용히 들려주신다.

김 이사님께서는 건국인들이 성실하고 근면하며 참된 학생들임을 자랑스럽게 여기신다고. 젊고 패기에 찬 그들에게서 생전의 상허 선생님의 모습을 느끼시는 때가 한 두번이 아니시라며 미소를 지어 보이신다.

이러한 김 이사님은 건국대학교의 교육은 단순한 학문의 전달이 아닌 인간완성, 인격함양에 중점을 둔 교육이 되어야 할 것임을 강조하신다. 국가와 민족을 위해 몸과 마음을 아낌없이 바칠 수 있는 사람이야말로 참된 건국인이며 이상적(理想的)인 건국인상(建國人像)이라고 힘주어 말씀하시는 것이다.

"우리 대학이 이렇듯 눈부시게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모든 건국가족의 총화로 이룩된 건국인의 저력이 크게 작용했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 전국을 제패한 축구부의 개가도 이러한 건국인의 저력을 유감없이 보여준 쾌거라고 말씀하신다. 앞으로도 우리건국가족이 단합된 힘을 지니고 계속 배전의 노력을 경주, 명실상부한 사학의 명문, 민족의 대학으로 커 나가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이 김 이사님의 간절한 바램이라고.

특히 김 이사님은 "우리 여학생들은 진실하고 아름다운 여성, 덕성있는 여성이 되어주기를 바란다"고 하신다.

"새해를 맞아 우리건국가족 여러분의 댁내에 만복이 깃드시기를, 새해에는 보다 알찬결실을 거두어 30여년 건국의 역사에 찬란한 영광의 장(章)을 장식하기를 손모아 빌겠다"는 김 이사님. 그분의 자애로운 모습과 소박한 생활에서 그 지닌 바를 남에게 나타내 자랑하지 않는 겸손과 스스로 업(業)을 이루되 오로지 참되고 덕스러운 삶을 이룩하기 위해 모든 영광을 남에게 돌리는 인간미 넘치는 자애롭고 따스한 어머니상(像)을 볼 수 있었다.「청빈한 생활 속에 안빈(安貧)의 도(道)가—김계옥(金桂玉) 이사님과 함께」, 『건대신문』 1977년 12월 28일)

4) 유승윤(劉承潤, 차남, 전 학교법인 이사장)

저의 선친은 한 마디로 저희들에겐 조금은 원망스러운 아버지셨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에게 부정을 주실 수 있는 시간을 너무 잃으셨기 때문입니다. 아버님께서 저희들에게 돈을 주실 때는 꼭 필요한가? 또 사야 할 물건이 있을 때에는 그 물건의 용도와 가져야 할 필요성을 명료하고 타당하게 설명을 드려야 했습니다.

언젠가는 제 생일이었습니다. 아버님은 제 생일을 기억하시고 사무실로 오라고 하셨습니다. 제 딴에는 큰 기대를 걸고 뵈러 갔죠. 생일선물이나 용돈을 푸짐히 주실거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막상 아버님께서는 돈 천 원을 주시며 네 마음대로 쓰라시더군요. 저는 조금 적은 것 같은 표정을 지었나 봐요. 아버님은 "적으냐? 무엇에 쓸 건데?"하셨어요. 저는 "아닙니다. 아버님이 오랜 만에 주신 것이라 어떻게 써야 뜻있는 것인지 생각하는 중입니다"라고 얼떨결에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아버님께선 흐뭇하신 표정을 지셨어요. 대학 때 일인데, 지금도 잊어지지 않습니다.〔『建大文化』 편집부, 「고 상허 유석창 박사 생활 편편상(片片相)」, 『建大文化』 3집, 건국대학교총학생회, 1973년 9월 1일〕

5) 유승윤(전 학교법인 건국대학교 이사장)

아버님께서는 생각이 크고 사물을 있는 그대로 순수하게 보셨다. 그 한 예로서 그 당시 진흙벌을 파내고 한반도와 중국 대륙의 일부까지 포함된 모양의 –광개토대왕의 영토– 인공호수인 일감호를 만드셨던 일을 들 수 있다. 일감호의 물도 한강까지 10여 킬로미터를 동파이프를 묻어 끌어내신 것은 아마 웬만한 범인으로서는 상상조차 못할 일이었을 것이다. …

유언도 없으셨으며, 오직 '나는 죽더라도 논두렁을 베고 죽겠다'라는 이 말씀 한 마디만을 남기셨고, 가회동 집도 채무담보로 빚만 덩그러니 남게 되었다. …

인내를 기본으로 상대방이 진실을 느낄 때까지 또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리라고 하신 말씀과 간디의 무저항주의를 담은 사상이며, 건국대학교의 역사 속에서 자신과 등을 돌렸던 또 배신하고 단국대학교로 옮겼다가 돌아온 김○○ 교수를 축산대학 학장에 임명하셨던 일은 그 유명한 일화 중의 하나이다. …

고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고 엄민영 주일대사의 후임으로 독립운동가의 후예이니, 한일 외교문제를 맡아달라는 데 있어서도 사양하시는 등 명예나 권력을 탐하지 않으셨다. 그러한 예는 이종규 부총장 시절 독일차관을 들여 의과대학 부속병원을 건립하자는 것도 접어놓으셨다는 것에서도 알 수 있는 것이다.〔「상념건국(常念建國) 허심위족(虛心爲族)」, 『내가 본 상허 유석창』, 2001, 142~145쪽〕

2
학계 인사들이 기억하는 상허 선생

1) 김건(金鍵, 건국대학교 명예교수)

인간 유석창 – 그는 한 가지 뚜렷한 특징을 가진 분이다. 다른 사람은 도저히 따를 수 없는 질과 양을 가진 천품을 소유한 것이 특징일 것이다. 그것은 지성(至誠)이라는 두 글자로 표현할 수밖에 없는 품성이다. 조국에 대한 지성! 그는 그 지성이 극하여 조국애에 병든 인간이다. 우리는 그 인간 앞에서는 머리를 숙이지 않을 수 없다. 넘쳐흐르는 지성을 감내해 낼 수가 없어 머리를 숙이고 마는 것이다.

그가 이룩해 놓은 모든 업적은 오로지 그의 본성에서 우러나오는 지성의 결정이다. 비록 한 시각이라도 그와 접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진 사람은 누구나 그의 지성에 감염되지 않을 수 없다. 그의 지성으로 건대도 육성되었거니와, 이제 이사장으로서의 그는 또한 대건대를 이루어 놓고야 말 것이다.〔「내가 본 유석창 박사」, 『建大學報』 11, 1961, 35~36쪽〕

2) 김건(金鍵, 건국대학교 이부대학장)

이사장 유석창 박사와는 동갑으로 15년을 한결같이 생활해 온 2부대 김건 학장은 유 이사장의 가정환경을 이렇게 말했다.

한말 구국지사인 선친 유일우(劉一憂)씨는 '오직 한 근심이 있을 따름'이라는 이름의 뜻과같이 '나라와 겨레를 근심하는 것'뿐이었다고 덧붙였다. 선친은 한말 기독교 초창기의 장로로서 자기 집에 교회를 지어 교인들의 집합소로 이용하며 거기서 동지들이 모여 애국운동을 전개하는 때에, '을사보호조약'이 체결되어 매일같이 동지들이 모여 땅을 치며 울어 연일 통곡소리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서 유 박사는 자라났다.

그러던 중 경술합방(庚戌合邦)으로 인하여 아버지를 따라 만주로 갔다. 유 박사는 만주벌판에서 독립군 속에서 자라났으므로 누구보다도 망국의 설움을 몸소 체험했으며, 독립은 투쟁하여 조국을 찾아야 한다는 마음과 정신이 뼈에 사무치도록 깊어만 갔다.

유 박사는 '한 마디로 말해서 의지의 인간으로서 일생을 한 가지 목표를 향해 매진하는 애국 투사의 표본'이며, '자신이 하고자 하는 일은 목숨을 걸고라도 성취하는' 보통사람으로서는 상상조차 할 수없는 굳은 신념의 소유자라고 한다.

유 박사의 일생을 한마디로 표현해서 4기로 분류할 수 있다 하며, 제1기는 만주(滿洲)에서 독립을 위한 무력 투쟁기간이며, 2기는 서울에서 경성의전(京城醫專)을 졸업한 후 민중병원(民衆病院)을 지어 20년 동안 가난한 사람을 위해 무료 실비의 의료사업을 한 시기, 제3기는 성 · 신 · 의의 교시(校是)로 설립된 건국대학교(建國大學校) 건설 시기며, 4기로는 한국 농촌 근대화를 위한 농민운동의 시기라고 말한다.

이 4기를 통털어 마지막 시기는 유 박사의 생애를 통하여 오로지 조국을 위한 지성에서 우러나온 일관된 정신의 표현이라고 김건 학장은 간경하게 말한다.

또한 학장이 지적한 지성의 의미는 죽음을 걸고 일선에 나서는 유 박사의 성격이 바로 그것이라고.〔"고희연 축사' 김건 학장이 말하는 인간, 유석창: 독립군 속에서 성장하고 온화하면서도 굳은 의지」, 『건대신문』 1970년 3월 27일〕

3) 김교갑(전 건국대학교 상허기념도서관 부관장)

명절이라도 갈 곳이 없는 나를 가회동으로 오라 하시어 선생님 내외분 상머리에 앉게 하시고 "내가 학교에서 가장 아끼는 학생"이라며 격려하여 주셨던 일도 나만이 홀로 간직한 선생님의 사랑이었다.〔「상허 유석창 박사 탄신 백주년을 기리며」, 『내가 본 상허 유석창』, 2001, 21쪽〕

4) 김기수(金琦洙, 건국대학교 부교수)

모신 연륜이 어리나, 지난날의 학교에서 일어났던 많은 사건을 처리하시던 것으로 유 박사의 단편적 모습을 좀 알 수 있다고 믿는다. 우리에게 주는 모습은 인자하신 마음씨의 분이시다. 사건 처리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인자한 마음에서부터 출발하시던 여러 가지의 경험을 나는 보았다.

그러고 우리가 그 분을 대할 적에는 우선 친밀감을 갖게 되어서 무슨 의견이든지 손쉽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분이시다. 그러면서도 박사는 일에 있어서의 진취성과 결단성을 잘 보여주신다. 즉 인자하신 마음의 기틀에 의(義)의 정확한 모습이 엿보인다. 그리하여 진정에 대한 고집과 확고부동한 의지를 여러 가지 일에서 보여주시는 분이다.

그러면서도 박사는 일에 있어서의 진취성과 결단성을 잘 보여 주신다. 즉 인자하신 마음의 기틀에 의(義)의 정확한 모습이 엿보인다. 여러 가지 일에서 보여 주시는 분이다. 그러면서도 의(義) 자체가 지니고 있는 강인성을 부드럽게 해주시는 휴머니티와 휴모아를 갖고 계신 분이다.〔「내가 본 유석창 박사」, 『建大學報』 11, 1961, 37쪽〕

5) 김동욱(金東旭, 전 건국대학교 사무처장)

2학기 개강이 된 어느 날, 학생대의원회의에서 정한 과외활동을 실행코자 소요예산을 신청했던 바, 자치회 경리담당자는 낙원동 2부(야간)대학과 장안동(현 서울캠퍼스) 주간대학 간 운행용 스쿨버스를 사는 데 자치회비 전액을 전용했으니, 이해해 달라는 설득력 없는 말로 일관했다.

너무나 어이가 없는 말에 학생대의원들이 세차게 불만을 토로하는 가운데, 필자는 학장실을 노크했다. 필자는 개인 자격으로 찾은 것이 아니어서 정중히 인사를 드린 다음, "대학의 예산도 아닌 학생 자치회비인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라고 말하면서, 원상태로 돌려주실 것을 항의성 어조로 요구했다. 잠시 거북한 분위기가 흐른 뒤, 유 학장님은 필요한 예산을 자부담한다면서, 학생들의 과외활동비를 보장해 주셨다.

그런데 필자가 졸업을 하고 모교에 근무하게 된 후, 그 '자치회비 버스 구입 전용설'은 사실이 아니고, 그 당시 경리 담당자가 횡령을 하고 행방을 감춘 데 기인했음을 처음으로 알게 됐다.〔「상허 유석창 박사님의 신인과 제자 사랑」, 『내가 본 상허 유석창』, 2001, 26쪽〕

6) 김두헌(金斗憲, 전 건국대학교 대학원장)

유 박사라기보다는 유 총장, 유 총장이라기보다는 상허 선생이라 하는 데에 좀더 친근감이 있는 상 싶다. 의학자로서보다는 대학행정가로서 더 많은 공을 이루었고, 대학총장으로서 항상 겸허한 모습은 아호(雅號)로 잘 나타나 있기 때문이다.

선생은 돈후온화(敦厚溫和))하고 관인유아(寬仁柔雅)의 덕이 타고난 품격인가 한다. 거기에다 견인불발(堅忍不拔)의 실천력을 겸비하였다. 그리고 그 이면에는 심사숙고의 지성으로 건설의 기획을 즐기는데, 선견지명으로써 특이한 방안을 포지하고, 일단 작정하면 요지부동이다.

아마도 정치대학과 축산대학의 창건은 그 좋은 실증이리라. 이는 또한 선생의 조국애의 순정에서 우러나온 것이요, 그럼으로 인하여 사생활을 돌보지 않고 공(公)을 받드는 데 지극한 정성을 다하였다. 그런데 한 가지 딱한 것은 선생의 위생 상 결벽증이다. 아마도 선생 자신의 혐오증인 듯도 하다. 그도 보건 상 불치의 증세라면 할 수 없으니, 그대로 자중자애하시어 대성을 기하소서.〔「내가 본 유석

창 박사」, 『建大學報』 11, 1961, 34쪽〕

7) 김두헌(金斗憲, 전 건국대학교 대학원장, 현 명예교수)

고 상허 선생은 본래 의사였건만, 우리 민족의 앞날을 내다보시는 원대한 사상을 갖추고 계셨다. 그 중에도 교육에 관심이 깊었기에 학원을 차리었다가 드디어 건국대학교를 이룩하시었다.

6 · 25사변이 끝날 무렵에, 현 교지 70만평을 농지가격으로 사들이셨으니, 이는 보통 상식으로는 생각도 못 할 일이었다.

고 상허 선생은 언제나 원대한 포부를 가지면서도 함부로 발표한 바 없이 묵묵히 실행에 옮기셨다.

선생의 성격으로는 외유내강이라 할까 외면으로는 언제나 유순한 면이 있으나 일단 뜻한 바 있는 대로 꾸준이 실천하는 편이었으며, 그 강인한 태도야말로 이루 말할 수 없는 바이었다. 과연 건국대학교의 창설자로서 위대한 공을 세웠다.

그러기에 날이 갈수록 선생을 추모하는 마음 간절하다.〔「내가 본 常虛 先生」, 『상허 유석창 전기』, 1981〕

8) 김병태(전 건국대학교 상경대학 교수)

(상허 선생은) 나를 대동하여 당시 총장 이종규 선생께 갔다. 그 자리에서 나를 소개하면서, 그간의 경과를 얘기하고 강좌 배정을 위해 당시의 경제학과장 진세인 교수를 총장실로 불렀다. 나와 진세인 교수와는 면식이 두터운 사이였다 … (유석창) 이사장은 진 교수에게 나를 소개하고 강좌 배정을 지시하자, 뜻밖에도 진 교수는 그럴 수 없다는 대답이다.

"이미 학기가 시작되어 교강사 과목 배정이 다 끝나 지금 수업이 시작됐으니, 이번 학기에는 어찌할 도리가 없다"는 얘기였다. 이사장은 이 말을 듣고 그렇다면 할 수 없으니, 강의는 2학기부터 하고 1학기는 수업하지 말고 연구소에만 전념토록 하라는 지시를 받고, 23일 후인 1968년 5월 9일부로 부교수 발령을 받았다.

이사장과 총장 앞에서 그리고 나와의 친분관계를 떠나서 자신의 직분을 지키는 데 당당하였던 진 교수의 태도가 존경스러웠고, 진 교수의 그 같은 태도에 이사장 총장이 승복하는 대학의 질서에 감탄할 뿐이었다. 역시 상허 선생은 대인이었다.〔「남정(南庭)의 선물」, 『내가 본 상허 유석창』, 2001, 33~34쪽〕

9) 김봉일(金奉日, 현 건국대학원 이사)

우리 건국대학교의 오늘의 발전의 초석은 상허 선생의, 그 원대한 교육입국의 꿈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것은 누구나가 다 아는 바와 같다. 선생께서 그 원대한 꿈을 펼쳐 나가시는 동안 가까이서 모셨던 나로서는 그 분의 생활 어느 한 구석도 인상 깊게 새겨지지 않은 것이 없지마는, 여기에서 특별히 되새기고자 하는 바는 그 분의 학교 발전을 위한 사려가 어떠하셨던가 하는 것이다.

내가 뵙기에 선생은 하루 스물 네 시간을 학교만을 생각하며 사시는 어른이셨다. 학교에 나오셔서 집무하시는 동안은 말할 것도 없지마는, 주무시는 동안에도 학교 생각만을 하셨던 것으로 생각된다. 나는 여러 번 선생께서 이 주머니 저 주머니에서 작은 종이 쪽지들을 꺼내어 펴보시면서 학교 발전 계획에 대하여 말씀하시던 것을 아직도 기억하고 있다. 이 종이 쪽지들은 선생께서 진지를 드시다가, 때로는 볼 일을 보러 가시는 차중에서, 또는 한밤중 깊은 잠에서 깨셨을 때, 문득문득 떠오른 학교 발전을 위한 아이디어들을 그때그때 적으신 것들이었던 것이다. 참으로 상허 선생은 온 몸으로 모든 생활을 우리 건국대학교를 위해 사신 어른이시다.〔「내가 본 常虛 先生」, 『상허 유석창 전기』, 1981〕

10) 김사익(金士翼)

그는 남달리 민족과 국가를 위하는 마음과 세상을 돕고 유익케 하려는 심정으로 꽉 차 있었던 분이었다. 그의 모든 사업과 업적은 다 이로 말미암은 것인 줄로 믿는다.

그는 중후한 덕성과 정의감과 굳센 실천력과 진실, 풍부한 우정의 인간이었다. 그는 어느 모로 보나 굵고 투철한 성격의 인간이었다. 그는 유모어가 풍성했고, 또 유모어를 잘 받아들이는 인간이었다.

그의 곁에 있으면, 언제나 춘풍이 태탕하고 따스함과 흐뭇함을 느껴 마지않는다. 그리하여, 언제나 그의 곁에 있고 싶을 정도이다.

그와 유명을 달리한 지 이미 오래지만 지금도 그를 생각 할 때 마다 흐뭇한 정애(情愛)를 느끼곤 한다.

그는 갔지마는 그가 이 땅 위에 심어 놓은 심혈의 씨앗은 영원히 번영할 것으로 믿어 마지않는다.〔「내가 본 常虛 先生」, 『상허 유석창 전기』, 1981〕

11) 김서묵(金書默, 건국대학교 서무과장)

유 총장님 문하에서 4년을 배우고, 또 교직장에서 6년을 섬기기까지 10년간을 모시는 동안, 나는 그의 사색과 실천에서 완전히 도취되고 말았다. 첫째, 원대한 포부와 무변대해와 같은 이상을 추구하는 그의 사색과 실천은 오늘의 대건대를 이룩하였다.

그러나 그의 목표는 여기에 그치지 않을 것을 나는 확신한다. 사(私)을 버리고 공(公)을 받드시는 정신은 그의 검소한 사생활에서 규지할 수 있고, 치밀 주도한 계획성은 탄탄대로를 활주하여 소기의 목표를 무난히 지향할 것이고, 어머니와 같은 인자하신 성품은 3,000건아는 물론, 전민족의 어머니가 될 것이다.

사물에 임하시어 지성을 다하시는 그이는 반드시 감천의 은총을 받으실 것이다. 흔히 그 분을 세평하기를 '무욕(無慾)'이라 한다. 그러나 내가 보기에는 과욕(過慾) 아니면 다욕(多慾)이다. 사욕(私慾)이라곤 터럭만큼도 없는 반면에 공욕(公慾)이 크다는 것을 말한다.

이렇듯 내가 본 유 박사님은 포부와 이상이 충천하신데, 검소 · 치밀 · 인자 · 지성을 겸비하셨고 공욕이 크시니, 그의 사색과 실천은 앞날에 대성을 이룩하여, 이 나라 이 민족에게 혜성같이 빛이 날 때가 멀지 않았을 것 같다.〔「내가 본 유석창 박사」, 『建大學報』 11, 1961, 38쪽〕

12) 김서묵(金書默, 학교법인 건국대학원 감사)

상허 선생은 공욕(公慾)이 많고 사욕(私慾)이 없는 분이다. 건국대학교를 비롯하여 사회에 많은 공기(公器)를 이룩하여 놓은 것은 공욕이 넘쳤기 때문이며, 지성(至誠)이면 감천(感天)이란 말 그대로라 하겠다. 그러나 선생의 사생활은 어떠하였는가! 가희동의 조촐한 주택이나 정능의 우거(寓居)나 단벌인 옷과 구두, 검소한 소지품 등(건대 박물관 소장)은 선생의 소박한 생활을 연상하기에 앞서 정신적으로 사욕이 전무한 분임을 가히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다.

또 선생은 공사(公私)를 분명히 하신 분이다. 필자는 수 십 년간 측근에서 뫼시고 있는 동안 공용으로 금액(來客點心接待 등)을 임시 융통해 드리면 영수증과 비록 소액이라도 남은 돈을 직접 가지고 와서 기장을 잘 해 두라고 당부하셨다. 그리고 사용(私用)으로 필요할 때엔 그의 집무실에 가져오라 하든가 아니면 사환을 시키는 일이 없이 손수 저의 집무실에 내려와 미안한 표정을 지으시면서 가불차용을 청탁하시곤 하였다.

선생은 부정(不正)을 가장 증오한 분이시다. 여러 번 겪어본 일이지만〔구체적 실례는 약함〕 직위고하나 친불친을 가리지 않고 부정한 처사를 저지른 사람에 대하여는 가차 없이 엄히 다스렸다. 선생은 모든 사람에게 지극히 인자하셨고 겸손하고 친절하신 천사와 같은 어른이었다. 운전기사 최모씨를 '최공'이라 불렀는가 하면, 낙원동 수위 조모 씨, 모진동 청소장 조모 씨 등은 연만한 분들이기에 '영감' 또는 '부장'이라 부르면서 존칭하였다.

뿐만 아니라, 아무리 연소한 직원이라도 '자네'라 하지 않고 꼭 직함으로 대해 주었다. 졸업생이 방문하면 아무리 바쁜 일이 있어도 우선하여 가장 귀한 손님으로 접견하여 주었다.

이와 같이 우리 후인들에게 어버이 같은 사랑을 베풀어 주신 위대하고 영명하신 어른이었다. 필자는 1971년 제야의 종이 울릴 때 연세대 부속병원 중환자실 병상 기원하였으나, 1972년 새해의 여명이 동 터 오를 때 이 나라의 큰 별은 그만 빛을 잃고 영원히 가셨다.〔「내가 본 常虛 先生」, 『상허 유석창 전기』, 1981〕

13) 김성원(金聲遠, 전 건국대학교 농과대학장)

내가 상허 선생을 처음 뵌 것 은 나의 학창 시절인 1928년대에 서울 종로에 있었던 민중병원에서였다. 그 당시 특히 상허 선생께서 의료봉사 사업에 헌신하고 계시다는 소문을 듣고 병원에 찾아가서 그 친절하고 자애에 넘치는 치료를 받고 감격적인 인상을 금치 못하였던 바, 해방 후 선생께서 서울에서 정치대학을 창설하시고 크게 교육사업에 헌신하고 계시다는 신문 보도에 접할 때마다 경모(敬慕)의 정을 금치 못하고 있었으나, 직접 찾아뵈올 기회를 가지지 못하고 있었던 바, 1962년 내가 대구에 있는 경상북도 농사원장으로 재직 중 뜻밖에 건국대학원에서 김봉일 선생이 찾아와서 유 상허 선생께서 한 번 만나기를 원하신다는 전갈을 받고, 아무 예감도 없이 낙원동 건국 대학원에서 상허 선생과 면대하게 되었다.

그때 상허 선생은 한국 앞날의 진정한 발전을 위하여서는 농촌지역 개발에 대한 교육과 여러 가지 적절한 사업의 실천이 절대로 필요하다는 점을 역설하시고, 이를 위하여 이미 지역사회 개발대학이 설립되어 있으니 그 학장에 취임하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나로서는 지역사회 개발에 대한 예비지식조차 너무 없는 처지였으므로 확답치 못하였으나, 수차 면담하는 가운데 선생께서 한국 농촌개발에 대한 지극한 정성과 크신 포부에 감복되어 결국 학장 취임을 승낙하였던 것이며, 그 후 상허 선생의 변치 않는 성의와 노력으로써 농과대학까지 병설되어, 1972년 나의 정년퇴임 시까지 정히 10년간 부족하나마 선생을 도와서 미력(微力)이나마 바쳐왔던 것이다.

생각하면, 상허 선생께서는 대 건국대학원이라는 종합적인 위대한 교육사업을 창건하여 가시는 가운데도 특히 축대, 농대, 지사대(지역사회개발대학)를 통한 진정한 농촌 개발에 가장 위대한 공훈을 남기신 선구자의 한 분이었다는 사실만은 누구도 부인치 못할 것이라고 확신하는 바이다.〔「내가 본 常虛 先生」, 『상허 유석창 전기』, 1981〕

14) 김승곤(金勝坤, 건국대학교 문과대학 대우교수)

일제 때의 일을 한번 되새겨 보자, 부자들은 자기 재산 보호를 위하여 친일 노릇을 하였고, 어떤 이는 일제에 붙어서 저 혼자 잘 살기 위하여 갖은 추잡한 일을 다 하였는데, 선생만은 오직 농촌의 애국지사의 아들로 태어나, 나라를 살리고 민족을 살리기 위하여 일신은 돌보지 아니하고 모든 일을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몸 바쳐 왔으니, 상허 선생이야말로 민족의 사표라 하여도 지나친 말이 아니라고 생각한다.〔'상허 선생은 위대한 애국자요, 사상가였다'』내가 본 상허 유석창』, 2001, 49~50쪽〕

15) 김연수(金延洙, 건국대학교 총무과장)

원고 2매에 유 박사 그 분의 평을 가하라니, 문장이 서툰 나로서 그저 송구스럽기만 하다. 이제 그 분의 위인을 한 마디로 말하면, 그분은 아직 40대의 청년을 리드하고도 남는 열정과 성의와 능력을 가지고 있는 교육혁명가이시다. 아니 그 분의 평생은 일선교육에 바쳐야 할 역사와 민족이 요청하는 구국창의적인 교육가이시다.

세인이 아는 바 그 분의 청년시대의 비원(悲願)은 오직 조국광복의 일념뿐이었지, 현실과 타협을 즐겨하는 시대인은 아니었다. 그러한 단심이기에 총검을 베개 삼는 독립운동에서도 각성된 바가 많았다. 이씨왕조의 멸망의 원인이며, 주권을 유지할 능력이 없는 민족의 독립가치성이며, 조국광복이 총검의 전매품만이 아니며, 민족정신의 개조와 그 확립에 더 큰 힘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될 때, 그 분은 곧 동지들과 타합하고 민족운동의 깃발을 바꾸어 잡았다.

8 · 15 해방 후에도 박사의 지향하는 길이 결코 평탄한 코스만이 아니었다. 다만 독립정신을 발휘하는 그 분의 전도이기에 마침내 온갖 애로와 수난을 극복하고, 이제 비로소 거대한 대건대의 기치가 휘날리게 되었다. 이 교육의 취지 · 방법 · 목표는 조국역사가 시작된 이래 아직 실천된 바 없고, 국가와 정부의 힘으로도 구상조차 하지 못한 일을 오직 유석창 박사 그 분만이 실현하고야 말았던 것이다. 한국의 크린트위이, 이 위대한 민족지도자의 후계자가 속히 나오기를 기원하며 이만 그친다.〔'내가 본 유석창 박사', 『建大學報』 11, 1961, 38쪽〕

16) 김일근(金一根, 건국대학교 문과대학 명예교수)

필자의 저서인 『이조어필언간집(李朝御筆諺簡集)』의 서문을 친히 써 주셨는데, … '총장'이란 직함을 일부러 뺀 것은 나로서는 유감이지만, 겸손을 철학으로 삼는 당신의 뜻을 평소에 잘 알고 있었기

에 그대로 승복할 수 밖에 없었다.〔'상허 선생 가신 지 30년', 『내가 본 상허 유석창』, 2001, 52~53쪽〕

17) 김임식(전 건국대학교 총동문회장)

선생의 일생을 다시 회고하건대, 지학(志學)의 시절부터 고희(古稀)에 이르기까지 모든 행적이 오로지 나라를 위하고 겨레를 염려하는 데서 한 발짝도 비켜서지 않는 무실역행(務實力行)의 연속이었다. 말하기는 쉬워도 실천하기는 어려운 우국지사의 삶이다.〔'우국지사 상허 선생', 『내가 본 상허 유석창』, 2001, 57~58쪽〕

18) 김정실(金正實, 건국대학교 교수)

해방 이듬해 5월 15일 정치학관(조선정치학관)이 개교되던 날, 그 개관식사에 "나는 이 학교를 통하여 한국의 문인사관을 양성한다."고 확언하던 그 태도로 총장의 자리를 물러서면서 "전국 각 지방을 돌면서 교육전도사가 되겠노라."하고 9월 30일 끝을 맺던 두 자리에 나는 다 참석할 기회가 있었다.

정치대학을 대학교로 승격시키는 마당에 그 명칭을 어떻게 하느냐에 대해 기어이 '건국'이라는 이름을 고집하던 일. 나는 역시 늦게 전문학교 학생이 된 것이 보성전문학교 법과, 그때 — 지금부터 30년 전 각 전문고등학교 재학생 중에서 두 명씩 모여 비밀결사 '기독동우구락부'의 멤버로 모일 때 그를 보았고, 그때부터 오늘날까지 담담한 교분을 가져온다. 뼈에 사무친 망국의 원한을 길이 풀어오고, 오는 후대에 다시는 이 실국자(失國者)라는 누명을 남기지 말자는 것.

이상(理想)은 높고 내친 걸음은 후퇴할 줄 모르는 억센 이 나라의 큰 머슴, 그 속에 무엇이 들고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조차 알기 어려운 그다. 백두산 천지가 만주와 한반도를 길이 먹여 줄 원천으로서, 또 그 유래와 깊이와 미래를 모르는 것 같이. 만나면 속이 후련해지는 그 넓은 가슴에, 나는 이 강토 위에 출생한 불출세의 사명자의 모습을 본다. 나는 그를 통하여 이 국가의 새 역사가 더욱 빛날 수 있다고 믿고 또 바란다.〔'내가 본 유석창 박사', 『建大學報』 11, 1961, 34~35쪽〕

19) 김창한(건국대학교 농축산생명과학대학 교수)

나의 기억으로는 1962년도 상허 선생님께서 본교 축산대학 생활관에 오셔서 특강을 하시면서 강

조하시던 말씀이었다. 당시 나는 대학 초년생이었으며 그 말씀의 높은 뜻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다만 심훈의 『상록수』에 나오는 주인공처럼 되어주기를 바라는 것이 아닐까 하고 생각했으며, 대학을 졸업하고 나면 바로 농촌으로 돌아가 괭이와 삽을 들고, 가진 것은 없지만 맨주먹으로라도 농민의 앞장에 서서 자갈밭을 옥토로 일구며, 대학에서 배우고 직접 체험한 영농기술로서 낙후된 농촌을 잘 살게 할 수 있는 선도적 역군이 되어야 한다는 것으로만 받아들였다. …

내가 상허 선생님의 일상생활을 본 바로는 대학 캠퍼스의 나무 한 그루 한 그루가 제자리에서 잘 자라고 있는지 항상 신경을 쓰시고 이곳저곳에 떨어져 있는 쓰레기를 몸소 치우시고 정리 정돈하시던 선생님이었으며, 이는 결코 결벽증이 아니라 우리도 반드시 본받아야 할 위생과 질서가 몸에 밴 선생님의 한 생활 단면이라고 할 것이다. 이와 같이 선생님께서 청결과 질서를 지키시고 중요시하신 것은 인간의 생활교육을 보이신 가르침이었다고 생각한다.〔「세 가지 교육철학」, 『내가 본 상허 유석창』, 2001, 59~61쪽〕

20) 김현룡(金鉉龍, 건국대학교 문과대학 명예교수)

1950년대 후반에는 우리민족의 산업 발전과 식량 자급 문제가 가장 큰 관심의 대상이었다. 상허 선생은 우리 학교를 기반으로 하여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농축 계열 교육에 열과 성을 다하셨는데, 농축산 산업 육성과 함께 수산업의 발전을 또한 염두에 두셨던 것이다.

그래서 학교 발전 계획에 수산부를 포함시켰고, 이 호수〔일감호〕에 물고기를 기르고 또 한강에서 물고기를 잡아 여러 가지 수산업 발전의 연구 자료로 삼으려고 구상하였다. 그 물고기가 지금도 호수 물속에서 뛰놀고 있으니, 비록 수산업 발전에 관한 꿈은 이루어지지 못했지만, 그 숭고한 정신을 말해주는 것 같아 깊은 감회에 젖게 한다.

상허 선생은 이 호수에 맑은 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멀리 한강으로부터 물길을 만들어 호수로 흘러들게 했으며, 그 끝에 물레방아 바퀴가 돌아가게 하였으니, 오늘날 전기로 호수 물을 자아올려 흘러내리게 하여 물레방아를 돌리는 것과는 차원을 달리 한다고 하겠다. …

이 일감호의 크고 작은 두 호수 사이에 놓인 무지개다리는 당시 상허 선생의 이상을 표현한 것이었다. 상허 선생은 어린 시절 먼 산의 무지개를 보고 그것을 잡겠다고 온 산을 헤맨 적이 있어서, 그 의지의 표현으로 이 무지개다리를 만든 것으로 전해져 있다.〔「상허 선생에 대한 추념」, 『내가 본 상허 유석창』, 2001, 65~66쪽〕

21) 류제창(건국대학교 농축산생명과학대학 교수)

근검의 생활관과 공공성의 교육이념을 들 수 있다. 근검이란 부지런하고 검소함을 뜻한다. 상허 유석창 박사님께서는 양복 한 벌을 10년 이상 입으시고, 구두 한 켤레를 10년이나 신으시며 근검절약하는 생활을 하셨다. 그리고 가정과 자신을 위해서는 검소하게, 학교나 교육을 위해서는 모든 것을 베푸신 분이었다.〔「민족의 위대하신 스승 상허 선생님」, 『내가 본 상허 유석창』, 2001, 73쪽〕

22) 류태영(건국대학교 사범대학 교수)

어느 날 상허 선생이 찾는다는 전갈을 받고 낙원동 비서실에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사장실 안에서 고함소리가 들려왔다, 그 때 상허 선생 방에는 대학교 총장과 상무이사 등 대학교의 임원 몇 사람이 들어가 있었다.

나중에 화를 낸 이유를 들어보니 더욱 존경스러워졌다. 당시 상허 선생은 종로구 가회동에 있는 작은 한옥에 거주하고 있었다. 20여 평 남짓한 이 가옥은 들어가는 입구도 좁은 골목이거니와 생활공간이 좁아서 대학교 임원들이 세배를 가면 앉을 데가 없을 정도로 협소했다. 그래서 임원들이 현재 대학 캠퍼스에 이사장 공관을 짓는 계획안을 만들어 가지고 설명을 하고 재가를 받기 위해서 상허 선생을 찾아간 것이다.

상허 선생은 그 이야기가 채 끝나기도 전에 "이 사람들 정신 없구만!"하며 큰소리로 화를 내고 꾸짖었다. "도서관을 지어 놓고 책도 채우지 못하고 있으며, 학교에 교육시설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무슨 놈의 관사며 공관이냐?"는 것이다.〔「상허 선생과 나」, 『내가 본 상허 유석창』, 2001, 78~79쪽〕

23) 맹원재(건국대학교 총장)

1959년 3월, 축산대학의 역사가 시작되는 제1기생의 신입생 선발이 있었다. 그때만 해도 가난과 굶주림, 그리고 전쟁의 상처가 아직 완전히 치유되지 않은 때였다. 축산대학 제1기 신입생들은 팔도 사투리에 햇볕에 그을린 모습, 농촌현실에 뼈아픈 고통을 몸소 체험한 각도 각지에서 모여든 인재들이었다. 그 당시 18 대 1이라는 높은 경쟁률이 말해주듯이, 본교 설립자이신 상허 유석창 박사님의 정열과 혼이 담긴 축산대학은 초창기부터 인기가 많았고 우수한 두뇌의 집결지였다.

유석창 박사님께서는 면접 시험장에서 스스로의 소신과 포부를 밝히는 수험생들에게 고개를 끄덕여 보이시며 흐뭇한 모습으로 그들을 바라보셨다. 일일이 수험생들의 손바닥에 박힌 근육살을 만지

면서 감개에 젖어 계시던 그분의 모습을 우리 모두는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다. 유 박사님의 마음 속에는 이 정도의 학생들이면 당신이 구상하고 계시는 농촌부흥을 위한 기수들을 충분히 길러낼 수 있다는 생각과 이들의 어깨에 헐벗고 가난한 농촌의 장래를 올려놓아도 손색이 없다는 자신감에 젖어 계셨으리라 생각된다.

신입생들은 우선 정원의 2배수를 성적순으로 선발한 다음, 최종 합격자 77명은 순전히 인물에 치중하여 각 도와 군에 따라 일정수의 비율을 두어 선발하였고, 또 그들은 우리나라 전국 지도상에 핀침으로 표시가 되어 학장실에 비치되었다.

축산대학의 출발은 상허 선생님이 아니면 감히 생각조차 할 수 없는 것이었다. 77명의 신입생 전원을 기숙사에 입사시켜 숙식과 등록금 일체를 졸업 때까지 제공해 주는 교비장학의 혜택을 부여한 것은, 그 당시의 우리나라 경제 여건과 대학 재정으로 보아 어느 누구도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일이었고, 오직 무에서 유를 창조하고 신념과 소신으로 일생을 살아오신 상허 선생님만이 생각하시고 실행에 옮길 수 있던 것이었다.

동대문에서 매 30분마다 발차하는 기동차나 을지로 6가에서 발차하는 버스를 타고 인분냄새가 진동하는 뚝섬 벌판을 지나면 이내 건국대학교 정문에 이른다. 넓고 넓은 캠퍼스와 일감호, 그리고 인공 폭포,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한, 서울 시내에서도 유명한 Y자형 도서관, 우사, 돈사, 양계장 그리고 채소밭이 우리의 생활 터전이었고, 심신을 단련하는 배움터이자 우리들의 일터였다.

낙원동의 교사를 떠나 넓은 장안벌에서 종합대학 승격과 동시에 최초로 맞은 신입생이 축산대학 제 1기생이었고, 우리들은 완전히 장안벌의 주인 행세를 하였다. …

기숙사의 아침 기상은 오전 6시였다. 침대 정리와 청소가 끝나면 세면장에서 세수를 하고 옥상에 올라가 태권도 연습을 한다. 그리고 일감호 주변을 따라 신선한 공기를 마시면서 산책과 독서를 즐긴다. 7시 30분에 식당에서 일제히 식사를 하고 9시에 강의를 듣는다.

참으로 꿈같은 생활이었다. 강의 시작 5분전에는 모두가 제자리에서 조용히 교수님을 기다렸고, 강의 시작과 동시에 끝나는 시간까지 숨소리도 안 들릴 정도로 열심히 공부하였다. 이것이 축산대학 제 1회 졸업생 총 62명 중에서 16명이 박사학위를 받는 원동력이 되었다고 생각한다.

학생들은 축산장, 농장, 그리고 임산장으로 순번에 따라 배치되었고, 축산장에서는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소젖을 짜고 돈사, 양계장을 청소하면서 축산기술을 현장에서 몸소 익혔다. 농장에서는 삽을 들고 땅을 1m 깊이로 갈아엎으면서, 인내심과 땅에 대한 애착심을 길렀다. 오늘날 많이 보급된 비닐하우스 채소 재배는 그때 우리 농장에서 최초로 시작되었으며, 오이 참외 수박 등의 야채와 과일의 재배 기술을 이웃농장에 보급하였다. 임산장에서는 묘목 가꾸기와 사과 배 접붙이기 등의 기술을 터득했다.

이처럼 장안벌은 작업복과 모자를 눌러쓴 축산대학생들의 의젓하고 자랑스러운 모습으로 가득 차 있었고, 스스로 붙인 농군사광생도라는 별명은 모든 축산대학생들의 자부심이기도 하였다.

기숙사 생활은 축산대학생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또 잊을 수 없는 추억을 남겨주고 있으며, 강의실 못지않게 인격 도야와 단결심, 그리고 우정을 깊이 심어주는 도장이기도 하였다. 매 학기마다 입실생을 바꾸어 축산대학생 모두에게 같은 방에서 생활하여 더욱 친해질 기회를 주었고, 코고는 소리, 잠버릇과 생활습관 등을 모두 보고 듣고 겪으면서 새긴 우정은 어른이 된 지금도 남들이 따를 수 없을 정도로 두터운 것이다.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옷을 주워 입는 모양, 세수하는 모습, 밥 먹는 습관, 걸음걸이, 공부하는 자세, 운동, 그리고 대화할 때의 얼굴 표정, 웃는 모습, 잠자리에 들어 자는 모습까지, 모든 것을 지켜보면서 대학 4년간을 같이 지냈으니 그것은 한 집안 식구나 다를 바가 없었고, 여기서 싹튼 우애와 이해심 그리고 협동 정신은 어느 누구도 감히 흉내낼 수 없는 것이었다. 이것이 캠퍼스 내의 체육대회에서 수적으로는 열세인 데도 불구하고 항상 우승하도록 하는 원동력이 되었고, 응원할 때에도 우리에게는 여유가 있었다.

특히 2학년을 마치고 축산대학 제1기생 전원이 똑같이 군에 입대하여 군대생활을 함께 한 것도 평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들의 연결고리를 튼튼하게 해주는 데 커다란 몫을 하였다. 상허 유석창 박사님은 축산대학 제1기생들에게 너무나 큰 것을 남겨 주셨다. 그분과 종종 가졌던 '꿈의 밤', 즉 대화의 시간은 매우 귀중한 것이었다.

어릴 적부터 만주의 허허벌판에서 키웠던 독립정신과 조국에의 불타는 사랑을 들려주실 때면 우리 모두는 숙연해지곤 하였다. 우리의 마음 속 깊이 뚜렷한 국가관과 애국애족의 커다란 혼이 생겨난 것도 그 분의 영향 때문이었다. 조국이라는 단어를 입에 담으실 때마다 흘리시던 눈물을 가까이에서 보고 공부한 축산대학 제1기생들은 지금도 그 분의 눈물의 참뜻을 되새기며 살아가고 있다. 국가와 농촌과 농민에 대한 유 박사님의 사랑은 그렇게 지극할 수가 없었다. 그리고 그 커다란 사랑을 우리 축산대학 제 1기생들에게 쏟아주셨다.

인물 점수, 그것은 축산대학 제 1기생들에게 가장 중요한 평가 항목 중의 하나였다. 77명의 신입생 중 1학기가 끝나자 9명이 인물 점수의 미달로 퇴교를 당할 정도로 이 인물 점수는 중시되었고, 지금도 교비장학생 선발에 있어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학과 성적이 좋으면 우수한 학생으로 평가받으나, 축산대학 제 1기생에게는 성적보다도 인물 점수가 더 중요시되었다.

이처럼 축산대학의 교육이념은 특별한 것이었고, 그 이유는 인간교육, 생활교육, 기술교육을 통해서 어려운 농촌 현실에 부딪칠 수 있는 인재 양성에 중점을 두었기 때문이다. 첫째도 사람, 둘째도 사람, 그리고 셋째도 사람이라고 강조하셨던 바와 같이, 상허 유석창 박사님께서는 인물을 가장 최우선에 두셨고, 이러한 사상이 축산대학에서 인재를 양성하는 데에 실현되었던 것이다. 축산대학 제 1기생들은 지금까지도 이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다.〔'축산대학의 태동」『내가 본 상허 유석창』, 2001, 82쪽~87쪽〕

24) 박승하(朴勝夏, 건국대학교 정법대학 명예교수)

건국대학교의 최초 전신인 조선정치학관이 개강된 지 1년 후인 1947년 초 봄이었다. 어느 날 필자는 우연히 전 부산대학교 총장 신기석 학우의 소개로 낙원동 구교사에서 상허 유석창 박사와 송두용 박사를 알게 되었다. 그 후 1972년 상허 선생이 별세하실 때까지 26년간 석포(石浦) 신태수 박사와 같이 네 사람은 반평생을 줄곧 우리 대학에서만 동고동락하였다. 이제 유 박사와 송 박사는 고인이 되고, 신 박사는 연만하시어 두문불출하시니 감개무량하다. 회고하면 쓰고 싶은 것은 한이 없다. 그러나 지면에 제한이 있다니 특히 감명 깊었던 사소한 사실을 두어 가지만 쓰기로 하겠다.

선생은 한마디로 말해서 사생활은 지극히 근엄하고 공생활은 애국 · 애교 그것이었다. 사생활에 대해서는 학교 도서관 2층에 있는 선생의 유품실에 가서 생전에 많이 모아 두었던 쓰지 못할 안전면도날과 부산 피난 시에 구덕산려 가교사 내 공동기숙 판자 마루방에서 사용하던 양치물그릇을 보면 가히 짐작할 수 있을 것이기에, 더 이상 언급하지 않겠다.

공생활에 대해서는 언젠가 선생은 필자에게 말하기를 "나는 아무래도 선고(先考)만 못해 ! 가회동 집을 3년 걸려서 지은 후에 선고를 모시려고 하니(백씨 생존 시였음), 선고께서는 '아직 우리나라가 이 꼴인데 내가 언제 이런 집에서 호강하려고 살았느냐.' 하시고 거절하셨다." 하셨고, 또 언젠가는 다소 급히 상의할 일이 있었는데, 교전 김승현 병원에 장자 일윤을 데리고 가면서 잠깐 기다려 달라 하고 갔다 와서는 "선고는 일평생 자식들의 장래보다 민족과 국가를 걱정하셨는데 나는 그렇지 못해!"하시기에, 필자는 "일윤이는 만득 장자가 아닙니까?"하고 위로하였다.

이상은 선생이 26년간 필자에게 행동으로 보여 준 진담의 일부이었다. 후계 재단 제위와 학교 제현께서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내가 본 常虛 先生」, 『상허 유석창 전기』, 1981〕

25) 박승훈(朴承薰, 현 건국대학교 문리과대학 교수, 출판부장)

1961년 5월, 나는 홍익대학교 신문학부 조교수 일을 보면서, 홍대주보 주간으로 있었다. 내가 신세진 미국 한인재단 이사장 김호 선생의 서신을 받으셨다고 신문학과로 직접 전화를 주셔서 만나 뵙게 되었다. 그 자리에는 김건 선생도 동석이었다.

그 후 내 작품이 외설 시비로 법정으로 번졌다. 그런데도 상허 선생은 대학교란 유니버시티를 뜻한다 고로 너 같은 사람 문학도 마음껏 이곳에서 발휘해도 된다고 커버해 주셨다. 그래서 나는 마음 놓고 내 붓대를 세울 수 있게 되었던 거다. 그 분이 나 같은 형편무인지경의 무뢰한도 포섭해 주셨기 때문에 서서히나마 거듭 나 새 사람이 되는 길을 걸을 수 있었다고 고맙게 생각한다. 그리고 그분이 지니고 계시던 대학교란 진짜 유니버설한 우주를 죄다 포함하는 크기를 지니고 계셨다고 늘 생각하게 된다.〔「내가 본 常虛 先生」, 『상허 유석창 전기』, 1981〕

26) 박영룡(朴泳龍, 전 상허 선생 총무 비서, 현 건국대학교 상경대학 조교수)

상허 선생은 생활은 검소하게, 이상은 높게 사시다 가신 분이다. 그 분이 1970년 천식으로 세브란스병원 특실에 입원하고 있을 때, 방안에 있는 세면대에서 더운물과 찬물이 나오는 것을 보고, "박군 나는 더도 덜도 말고 꼭 요런 방에서 살고 싶네." 하고 아주 소박하고 인간적인 욕망을 비친 일이 있었다.

그 후 상허 선생께 학교에 아담한 공관 하나를 지으면 어떻겠느냐고 하였더니, "안 돼, 교육은 백년대계인데 내가 편하자고 집 하나 잘못 지어 놓으면 앞으로의 계획에 큰 차질을 가져올 수도 있어." 한 마디로 일축하셨다. 교육을 위하여는 수백 억을 쓸 계획을 하면서도, 자신을 위해서는 병적이리만큼 근검하시던 분이다.

마지막 병상에서까지 건국한림원(建國翰林院)의 청사진을 놓고, 교수 · 학생에게는 장학금을 넉넉히 주어 학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장학대학을 만들 계획을 세우시던 상허 선생의 모습이 눈에 선하다.

지금도 마음 아픈 것은 인간적으로는 원하면서도 그 흔한 보일러 집에 살아 보지 못하고 가신 일이다.〔「내가 본 常虛 先生」, 『상허 유석창 전기』, 1981〕

27) 박택규(건국대학교 이과대학 교수)

가회동 집 안마당에 심어 놓은 나무가 수십 년 지난 뒤 멋지게 자란 것을 출근길에 보시고는 나무를 당장 장안동 캠퍼스로 옮기도록 하였고, 당신 자신은 한 번도 외국 나들이를 하지 않으면서, 기회가 올 때마다 장래가 촉망되는 학생들이나 연구에 몰두하고 있는 교수들이 해외로 나가 선진 과학기술을 연마할 기회를 주었던 것은 그 분의 학교 발전을 위한 정성과 소망을 깨닫게 해주는 대목이라 생각된다.〔「상허 선생, 위대한 휴머니스트」, 『내가 본 상허 유석창』, 2001, 103~104쪽〕

28) 백수봉(건국대학교 농축산생명과학대학 명예교수)

또한 남에게 일하라고 시키고 자신은 가만히 들어앉아서 보고만 있는 그런 사역형의 지도자가

아니고 스스로 팔을 걷어붙이고 흙탕물에 빠지면서 모내기를 하고 나무를 심고 소에게 여물을 주는 실천형의 지도자였습니다. 그러기에 그는 한국 '농민의 절친한 벗'이었으며 가장 존경받는 '농민의 아버지'로 불리었습니다.〔「상허 유석창 선생님의 농민 · 농촌 · 농업의 사랑」, 『내가 본 상허 유석창』, 2001, 107~108쪽〕

29) 새먼(B. H Saman, 주한 USOM 대학교육과장)

세계에서 한국 교육자같이 성스럽다는 이름을 붙일 만한 교육자들을 가진 나라도 드물다고 본다. 이번 60세 정년이 되어 나가시는 여러 교육자들을 대할 때 자연히 머리가 숙여지는 느낌을 깊이 느낀다. 특히 건대의 터를 반석 위에 닦아 올린 유 총장 같으신 분의 땀과 연이 뭉친 결정탑(結晶塔)을 볼 때 더욱 그러하다.

참된 '공(功)든' 이며 '참된 건국(建國)의 사표(師標)'인 것이다. 많은 의학박사들이 自己 일신의 안이 만을 위해 급급한 것이 고금동서를 막론하고 공통된 인술(仁術) 아닌 의술(醫術)에 종사하는 분들의 상례 사(事)인 것이다. 그런데 여기 한 분이 있으니, 그의 사재와 정력과 땀 한 방울까지도 모두 건국의 굳건한 초석이 될 인재육성이라는 거룩한 국가천년지계(國家千年之計)를 '타겥'으로 잡아 놓은 분이 곧 유 총장이라고 늘 경의를 표해 왔다.

인간의 능력은 사실 육십부터 시작되는 것이라고 나는 믿고 있다. 나뿐 아니라 많은 서구 사람들이 나와 꼭 같은 생각을 지니고 있는 것이다. 육십, 칠십, 그리고 팔십, 이 세 단계야말로 인간이 지닌 이상과 포부의 날개를 완전히 전개시키고 멋을 부릴 수 있는 연령이라고 나는 보고 있다. 인간의 능력이 연령으로 담을 막느니보다는 개인 개인의 능력과 '힘'의 척도로 재어내는 것이 더 정확한 것이고, 삼십도 못되어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팔십 늙은이가 된 자도 꽤 많고 팔십이 되어서도 아직 삼십대 이상의 '힘'을 지니고 밀고 나가며 '경험의 지(智)'를 더욱더 살리는 이도 많다고 보아야 한다.

한국의 교육자들이 걸어온 지난날의 형로(荊路)는 컸다. 지금 또한 그들 앞에 놓인 '삶'의 '타겥' 역시 대단히 중대한 기점에 놓이게 된 것이고, 나의 생각으로는 이 분들의 방향이 다시 정열의 정화된 기점으로 삼아 한국 교육의 영원한 기름이 되어 세계만방에 타오르는 횃불의 역할 되어 주리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다.

'건국(建國)' 두 자 속에 숨 쉬고 있는 거대한 포부를 한반도 일각에 세우고 역사의 초(秒)를 열어 올리는 일은 용이한 일이 아니다. 이 일을 학교 · 학생 · 교수 삼박자가 합치어 달음질 쳐야 할 거룩한 길이기도 하다. 내가 보아온 많은 한국의 교육자들의 인상과 언행 그리고 실천과 창조성은 그 어느 부문보다도 월등히 뛰어나 있다.

한국교육자 예찬으로 가득찬 글을 자세한 '테터'를 얻어 꼭 만들어 보려는 것이지만, '하리골텐'의 『온리– 인 아메리카』 같은 저서를 기회가 온다면 나는 「연극은 계속되어야 한다」에 나오는 '삶에 대한 박수'를! 보내듯이 한국 교육자들에게 박수를 보내야 한다는 일문(一文)으로서 용기를 고무시켜 주고 싶다.

한국 교육자들에게 아낌없는 박수를! 그러나 그것은 빈 박수 소리가 아니라, 참된 뜻에서의 인생의 건설 승리자로서의 축하와 아울러 앞으로의 더욱 더 끈기있는 건투를 비는 뜻에서의 박수이어야 할 것이다.

나는 '죠지 · 워싱톤대학교'에서 오래 교육학을 강의해 왔고, 지금도 교수로서의 직책의 한 목 일을 보고 있다. 인류의 연령은 백세까지 줄기찬 '일'을 계속할 수 있다는 것은 많은 의학자들의 공동된 의견이라고 본다. 지금 건국의 상아탑을 정치학관 · 정대 등의 진통기를 모두 지나 높이 쌓아 올린 수술대의 '메스'와 '창조'의 굵은 손은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출발! 새로운 또 하나의 나아감이라고 보아 또한 힘찬 박수를 여기 보내는 것이다.

활자를 통한 박수가 '마스 · 콤'시대에 있어서는 가장 정확한 박수소리가 되리라고 믿어, 아낌없는 박수를 유 총장 이하 축대 김건 학장 그리고 이대위 이부대학장 제위에게 보내는 것이다. 건대의 아버지 유석창 박사의 앞날에 더욱 건투 있기를 빈다.〔「건대의 아버지께 박수를」, 『건대신문』 1961년 10월 12일〕

30) 설완(전 학교법인 건국대학교 이사장 비서실장)

선생님은 청년시절 가까운 주면에서 일어난 결핵균으로 인한 불행을 보시고, 청결에 대한 습관으로 알코올 살균 소독을 일과로 하심에 따른 힘들어 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청결은 건강을 위하여 필수적이라 생각하였으나 절대 쉬운 일이 아니었다. 선생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한 가지 예로 돈(지폐)은 참 소중한 것이지만, 모든 사람들 사이에서 유통되다 보니 온갖 병균이 가득 묻어 있어 함부로 사용하지 말라고 주의를 주시기도 하셨다. 또한 종일 격무에 시달리시다 늦게 귀가하셔서도 꼭 알코올 소독을 하시다 보니 늦도록 주무시지 못하시는 것을 뵌 경우가 허다했다.

여자초급대학 생활미술과 미술전 개막테이프를 커팅하는 유석창 이사장

그러나 농촌을 순방하실 때는 농민들과 밭두렁에서 만나면 그들의 흙 묻은 손을 덥석 잡아 격려하시곤 하셨다. 그럴 때면 저 어른이 언제 알코올 소독을

하시던 분인가 하고 의아해 했다. 또한 선생님의 농촌과 농민에 대한 사랑이 얼마나 크신가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상허 선생과의 조그만 인연」, 『내가 본 상허 유석창』, 2001, 111쪽〕

31) 송영우(건국대학교 정치대학 교수)

상허 선생은 아픈 사람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민중병원을 설립하였고, 가난한 사람을 배부르게 하기 위하여 전국농업기술자협회를 설립하고 이 나라의 농업 발전을 도모하였으며 지식에 굶주린 사람에게 가르침을 주기 위해 건국대학교를 설립하였다. 가난하고 어려웠던 시기에 선생께서 마음을 비우고 나를 버릴 수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민족적인 사업들을 추진할 수 있었다. 만일 선생께서 개인의 영화만을 추구하며 살려고 했다면 의사로서 안락하고 여유 있는 생활을 영위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상허 선생 나 자신보다 또 나의 가족보다 국가를 위해 그리고 민족의 장래를 위해 개인의 모든 욕심을 버리고 살아왔다. 이러한 그의 삶은 우리에게 참다운 삶이 무엇인지를 가르치고 있다.

1960년 4 · 19 의거 이후 건국대학교 학생들은 혼란스럽고 들뜬 사회 분위기를 편승하여 집단 시위를 벌이면서 등록금을 인하시켜 줄 것을 요구하며 농성을 벌였다. 상허 선생은 학생들의 농성장을 떠나지 않고 그들과 자리를 함께 하였다.

며칠이 지난 후 상허 선생은 내가 살고 있는 모습을 학생들에게 보여줄 터이니 학생 대표를 선발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마침내 학생 대표들은 상허 선생의 사저를 방문하여 청빈한 삶의 모습을 보고 크게 감명을 받았다고 한다.

이러한 상허 선생의 참모습을 보고 돌아온 학생 대표들은 농성장으로 돌아와 그들이 목격한 것을 농성 학생들에게 소상히 전해 주었다. 이러한 사실을 전해들은 학생들은 상허 선생의 청빈함에 탄복하여 농성을 풀고 등록금 인하 요구도 철회하고 그를 참 스승으로 받들고 따랐다고 한다.〔「참 삶의 본 보기」, 『내가 본 상허 유석창』, 2001, 114~116쪽〕

32) 송희영(宋熹永, 건국대학교 상경대학 교수)

나에게는 나의 친조부 외에 종조부〔작은할아버지〕가 두 분이 계시었다. 그 중에 한 분은 나의 아버님과 함께 고향에서 1940년대 말에 교육기관을 설립하셨고, 건국대학교의 초대 이사를 지내신 송순용 선생님이신데, 이 분이 상허 선생님과 사돈을 맺으셨다. 그러나 이보다 더 일찍이 우리 건국대학교 설립에 큰 기여를 하신 한 분이 계신데, 그 분이 바로 본교 법학과 교수이신 송두용 박사님이시다. 이 분은 우리 건국대학교에서 교학처장 · 학장 · 행정대학원장 · 학술원원장을 역임하셨다. …

내가 생각하기로는 상허 선생님은 현실에 바탕을 둔 이상주의자이시다. 선생님이 실현하고자 한 이상은 그 어느 누구도 감히 따라 갈 수 없는 이상이 아니었나 라고 생각한다. 상허 선생님의 장녀이신 나의 당숙모님의 말씀에서 느낄 수 있었던 것은 그 분은 의사이셨지만, 본래에 의사의 직분에 크게 만족하지 않았다고 한다. 의사라는 직분을 통해서 미래의 건국학원을 머리에 그리고 있었다고 본다. …

오래 전에 상허문화재단의 상허사상연구회의 지도교수를 맡아 본 적이 있었다. 이때에도 학생 논문을 지도하면서 느낀 점은 상허 선생님은 성과 신과 의를 몸소 실천하신 분이라는 것을 느꼈다. 지저분한 부를 추구하지 않으셨고, 평생 교육을 통한 국가와 사회 발전에 헌신하신 분이었다고 생각한다. 또 상허 선생님은 옛것을 존중하면서 새로운 것을 추구하는 지킬 것을 지키는 보수를 추구하셨고, 또 변화를 추구해야 할 때에는 변화를 먼저 받아들이는 홀륭함도 지니고 있었다.

상허 선생님의 장녀로부터 들은 이야기이지만, 가정교육에서는 꽤나 엄격하셨다고 하셨다. 집안의 청소나 빨래 등 집안일은 꼭 딸들에게 시켰을 정도로 유교적인 가르침을 중히 여기셨다고 듣고 있다.〔「귀중한 유업」, 『내가 본 상허 유석창』, 2001, 118~120쪽〕

33) 안상원(安商元, 건국대학교 교수)

상허의 우거(寓居)는 가회동에 있다. 그가 35세 때 민중병원을 경영하던 시절에 손수 지은 집이다. 지금도〔1985년 시점〕 이 집은 전 이사장 김계옥(金桂玉)이 큰며느리〔유일윤 전 이사장의 부인 김경희(金敬姬)〕와 더불어 생활하다가 김계옥은 1983년에 작고하였다. 상허의 가회동 집은 시대 변천에 따라 부분적으로 조금씩 개수하는 사이, 지금은 한식 · 일식 · 양식의 3형식이 뒤섞인 기형구조의 집이 되고 있다.

그 기형의 골격 구조는 아직도 구식 형태의 집 모양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는 "나라 없는 백성이 집칸을 꾸며서 무슨 소용이 있나"라고 회고한 주영하(朱永夏 세종대 이사장)의 지적대로, 그는 집 한 칸 반반히 장만하지 않았던 선친의 가훈(家訓)에 따라 모든 영역에서 근검 · 절약하는 생활태도와 생활습관이 몸에 배인 것으로 풀이된다. 어느 누군가가 그의 성품의 서민성과 대중성을 지적하고 있는 바, 이를 두고 한 말인 것 같다. …

삼검(三儉) 또는 삼원(三元)이란 사치스럽게 입지 않는 것〔검소하게 입고, 儉衣〕을, 호화스럽게 먹지 않음〔검소하게 먹고, 儉食〕을, 지나치게 쓰지〔소비〕 않음〔儉約〕을 으뜸〔元〕으로 한 상허의 성품 또는 생활습관에서 연유한 명칭이다.

상허의 이러한 삼검주의(三儉主義 또는 三元主義)의 생활태도는 조성환(趙誠煥, 현(1985년 당시) 법인의 상임감사)의 회고대로, 구두 한 켤레를 사면 10년이 넘도록 신으시는 철저한 검약주의자

였다. 더욱이 그가 서세(逝世)할 때 유일한 유산으로 남긴 것이 앞서 언급한 가회동 기형구조의 20평 남짓한 집 한 채였다. 이것마저 은행에 저당 잡힌 채.

더욱 그의 삼검주의의 검약한 생활태도는 세브란스 병원에서의 담당의사 이보영이 병 치료 차 그의 우거(寓居)를 찾았을 때, 깜짝 놀라면서 "한 대학의 설립자로서 총장을 지낸 재단이사장이, 또 전국농업기술자협회의 총재가 어떻게 이런 곳에서 …"라고 한탄 섞인 감탄을 하면서 말끝을 맺지 못했다는 일화가 이를 너무나도 잘 입증해 주고 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장안동의 넓은 교지(校地)에 조경을 할 때 가회동 집의 나무를 뽑아 교정으로 옮겨 심었다는 일화는 지금도 한 입 두 입 건너 여러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고 있다. 이는 그의 생활이 사생활(私生活)은 검소하고 공생활(公生活)은 애국(愛國) · 애족(愛族) · 애교(愛校), 그것이었음을 말해준다.

따라서 상허는 생활은 지극히 검소하게, 이상은 지극히 높게 사시다 가신 분으로서 대인지풍(大人之風)을 지닌 지사(志士)요, 선견지명(先見之明)의 혜안(慧眼)을 지닌 경륜가(經綸家)였음을 알 수 있다.

상허는 지병(持病)으로 천식과 결벽증 두통 그리고 알레르기성 가려움증으로 평상 시 무척 고생하였다. 이 중 결벽증과 두통은 더욱 심했다. 유석창의 결벽증은 그 당시 천하가 아는 고질적인 병이었고, 두통에 대비, 그는 상용으로 언제나 '뇌신'을 가지고 다녔다. 뇌신 복용은 거의 중독 상태에 가까웠다. 그 외의 약은 그 자신이 의사이므로 스스로 조제하여 복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이런 병들이 그의 임종을 재촉한 병인(病因)이 아니었음은 말할 것도 없다.〔「상허 유석창의 생애와 정신」, 『상허사상의 조명』 1, 상허기념사업회 주관 '제1회 상허사상연구 발표회' 발표논문, 1985. 11. 23, 건국대학교 학생회관 중강당, 68~69쪽〕

34) 양재모(연세대학교 명예교수)

옛말에 소의(小醫)는 치병(治病)하고 중의(中醫)는 치인(治人)하고 대의(大醫)는 치국(治國)한다고 하였는데, 상허 선생님은 소 · 중 · 대를 다 겸하신 위대한 의료인이셨습니다.

제 소견으로는 19세기 말엽 우리나라에서 출생하여 현대의학을 수학하신 분 중에서 대의로 받들어 모실 분으로 세분의 꼽으라면 송재(松齋) 서재필(徐載弼) 박사님과 해관(海觀) 오긍선(吳兢善) 박사님과 상허(常虛) 유석창(劉錫昶) 박사님인데 송재, 해관, 상허 세 어른에게 몇 가지 공통되는 점이 있는데, 첫째가 젊은 시절 즉 의학도가 되시기 전에 독립애국운동에 가담하셨던 경력이 있고, 둘째로는 의사가 되려고 한 이유가 구국활동을 계속하기 위한 방편으로 생각하셨다는 점입니다.

부유층 환자들에게서 들어온 진료 수입을 가지고 가난한 환자들에게는 무료 또는 실비로 진료해

주는 동시에 그들에게 보건 교육을 통하여 가난한 동포들이 가진 유일의 재산으로 볼 수 있는 건강을 보존하고 증진시켜 주는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일제 치하에서는 그 관료들의 간섭이나 감시를 피하면서 할 수 있는 구민애족(救民愛族)의 가장 좋은 방편이었다. …

1970년에 천식으로 세브란스 병원에 입원하셨을 적에 입원실에 더운 물과 찬 물이 나오는 것을 보시고 박영룡 비서에게 "박 군 나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꼭 이런 방에서 살고 싶네" 하시면서 아주 소박하고 인간적인 욕망을 비치신 일이 있었다 함은 자택에서는 온수 보일러도 없이 무연탄 아궁이로 난방을 하는 정도라는 것을 알 수 있게 했다. 또한, 학교 구내에 이사장 공관을 건립하자는 제의를 거절하셨고 해외시찰이나 관광여행이라고는 일절 안하셨음은 사생활의 편의와 안락을 억제하고 오직 공(公)을 위하여 모든 것을 바치신 분이었음을 증명하고도 남는다.〔「상허 유석창 선생」, 『내가 본 상허 유석창』, 2001, 122 · 127쪽〕

35) 원종세(元鍾世, 건국대학교 사범대학 교수)

상허 선생님께서는 청결에 유난히 주의를 하던 습관을 가지고 계셨고, 항시 물과 알코올로 손을 씻으셨다. 그럼에도 어느 때는 금방 손을 닦고 난 후인데도 우리들을 맞아들이면서 악수를 청하셨다.

그때마다 비서(박영룡 전 교수)가 기쁨으로 이렇게 말을 전해 준 것이 기억난다. "상허 선생님께서 방금 손을 씻으셨는데, 자네들이기에 악수를 하였지 다른 사람이면 어림도 없네." 상허 선생님께서는 그만큼 우리들 육상선수를 사랑하였고, 자랑스럽게 여겼던 것 같다.

또 한 번은 육상경기 시합을 하고 있는 데 갑작스럽게 상허 선생님께서 서울 운동장에 나타나셨다. 깜짝 놀라 경기가 끝나자마자 땀을 뻘뻘 흘리며 선생님께 달려가서 인사를 드렸더니, "우리 대학에 운동장을 만들려고 한다. 그래서 한번 운동장에 들렀다"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이 열심히 경기에 임하는 태도를 보니 정말 기쁘구나" 하셨다.〔「나의 친구 아버지」, 『내가 본 상허 유석창』, 2001, 131~132쪽〕

36) 유덕산(柳德山, 건국대학교 원로동문)

유 박사님은 자애롭고 온화하신 분이었으며 언제나 다정다감하시고 정이 넘쳐흐르는 우리들의 스승이셨다. 평소의 생활은 검소하셔서 명주옷보다는 무명옷을 찾으시고 모시옷보다는 베옷을 즐기셨다. 양복 한 벌을 가지고 하도 오래 입고 많이 다려서 옷이 낡아도 개의치 않고 청결하게만 차리셨다. 우리들은 새 양복을 맞추어 입으셨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했지만, 유 박사님께서는 새 옷을 사서

입는 일이 없으셨다. …

그 분은 말씀에만 그치는 성격이 절대 아니어서 꼭 당신이 하신 말씀은 실행에 옮기셨다. 평범한 우리들이 보기에 불가능한 일도 강한 신념으로 실행하시어 결국은 훌륭히 이루고야 마는 분이었다. 당신께서 땀과 정열을 다 바치고 굳은 의지와 인내로써 일을 완성시키면 그때서야 우리들은 유 박사님의 생각이 옳고 훌륭하다고 인정하는 것이다. …

내가 정치대학을 다닐 때에 오하영 선생님과 유석창 박사님께서 우리 집까지 오셔서 하룻밤을 주무시고 가신 적이 있다. 그때 오하영 선생님께서 3 · 1운동 당시 선생님이 겪으셨던 일들을 말씀해 주셨고, 유 박사님께서는 자신에게 주어진 운명이 어떻든 간에 부단히 노력하며 연구하는 자가 반드시 성공하게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

유 박사님의 돈에 대한 철학은 세인들과 특별히 달랐다. 한마디로 돈에 초월하신 분이라고밖에 말할 수 없겠다. 돈을 금기시하여 다른 사람들에게도 돈에 눈멀지 않도록 가르치셨다.

돈을 가까이 하면 안 된다. 그리고 내 돈이 아니면 절대 가지지 마라. 돈이란 쓰게 마련이어서 남의 돈을 함부로 쓰게 되면 이게 바로 자신을 멸망에 빠뜨리고 마는 법이다.

유 박사님께서는 평생 동안 버신 돈을 학교와 병원, 농촌 계몽을 위해서는 조금도 아낌없이 쓰셨지만, 당신과 당신의 가족을 위해서는 쓰시는 법이 없었다. 다른 사람이 당신을 위해 돈을 쓰는 것도 엄격히 막았다. 식구는 많고 월급은 적어 그렇게 고생하시면서도 돈에 대해서는 철저하셨다.

가회동의 자택은 오래되고 낡은 집이라 지붕이 새어 비만 오면 무너질까 걱정이 태산 같았고, 아무리 청소하고 소독하여도 빈대가 돌아다녔다. 결벽증이 심하신 그 분이 그래도 참고 견디시며 청빈한 생활을 고집하시는 것에 모두가 놀라워하였다. 나는 자주 그 댁을 찾아갔고 잠을 잔 적도 꽤 많았기에, 유 박사님의 생활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유 박사님 당신께서도 '거지꼴'이라 하시면서 멋쩍어 하시기도 했다. …

유 박사님은 병적이라 할 수 있을 정도로 지독한 결벽증을 갖고 계셨다. 유 박사님은 비서실에 항상 알코올과 거즈를 준비해 두고, 외출하다 돌아오거나 악수를 하고 난 후에는 거즈를 알코올에 담가 두었다가 손, 옷, 심지어는 신발까지 알코올로 닦은 후에 다른 일을 하시곤 하셨다.

이런 결벽증 치료를 위하여 몇몇 분들이 상의하여 치료차 유 박사님의 영국 방문을 추진하였던 모양이다. 한창 수속을 밟고 있던 중 이 사실을 안 유 박사님께서는 관계자들을 불러 꾸짖으시며,

> "나는 나를 위해 그 귀한 달러를 쓸 수 없소. 그런 돈이 있으면 외국서적을 구입하여 도서관에 비치해 두고 교수들이 연구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할 거요. 이 일은 그만 없었던 것으로 합시다."

라며 극구 사양하셨던 것이다. 유 박사님께서는 이렇게 자신은 결벽증으로 큰 고통을 받았지만, 항

상 대의를 생각하며 자신에게는 냉정했던 분이신 것이었다. …

학교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도 학생들이 자신이 원하는 바를 거리낌 없이 말할 수 있도록 그러한 자리를 늘 마련해 주시고 다른 사람들의 의견에 항상 귀 기울이셨다. 또한 유 박사님은 교수들과 제자들에게 먼저 만나자고 하여 식사를 대접하면서 그들의 말을 귀담아 들으셨다. 박봉의 그 분이 식사를 대접하느라고 1, 2만원씩 돈을 빌려 쓸 수밖에 없었는데, 여기에서 생긴 빚이 제법 커졌다는 사실은 널리 알려진 이야기이다.〔「상허 선생을 그리워하며」, 『내가 본 상허 유석창』, 2001, 135~141쪽〕

37) 윤정길(건국대학교 정치대학 교수)

나는 '건국대학교 정치대학'보다는 '정치대학 건국대학교'로 여길 정도로 '정치대학'이란 명칭이 주는 마력에 푹 빠져 있던 터라, 너무나 큰 기대를 안고 대학생활에 임했는데 불의와 폭력이 난무하고 부실한 교육환경에 실망해서, 상허 선생님께 정치대학에 대한 기대와 실망이란 내용의 서신과 더불어 자퇴 의사를 전달하였다. 물론 편지지 한 장, 한 줄 마다 눈물이 떨어져 얼룩이 진 그런 편지를 송부하고 하숙집에 남아서 앞으로의 새로운 진로를 생각하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당시 차순종 학생과장님으로부터 방문을 받게 되었는데, 나를 만나기 위해서 그 전에도 이미 세 번이나 연락을 했었는데 그 날에서야 만날 수 있었다는 것과 상허 선생님의 말씀을 전해 주기 위해 나를 찾았노라는 말을 들었다.

그 내용인 즉, "자네 같은 학생이야말로 정치대학이 필요로 하는 학생이며, 자네가 요구하는 불만사항을 모두 수용해서 좋은 교육환경을 만들어 주시겠다"는 내용이 그것이었다. 그 말씀을 위안삼아 그 후 나는 자퇴서를 철회해서 졸업했고, 이젠 정치대학의 교수로서 봉직하고 있다.〔「나의 선택 그리고 상허 선생님과의 인연」, 『내가 본 상허 유석창』, 2001, 148~149쪽〕

38) 윤형섭(전 건국대학교 제14대 총장)

상허께서 박정희 대통령으로부터 신촌운동 계획에 관해 김현옥과 더불어 자문을 요청받은 것이 1968년 일이며, 이 나라에 새마을 운동이 시작된 것이 1972년 4월 곧 상허 서거 후 100일 만의 일이었다. …

그의 구료제민사상 · 교육입국사상 · 농촌개발사상은 상허의 애국 · 애족정신에 뿌리를 둔 하나의 사상 체계로서 궁극적으로는 인류 평화와 복지 증진으로 이어지는 지상낙원의 건설로 완결된다. 그 중에서 특히 주목할 것은 앞에서 말한 것처럼, 그의 조용한 농촌혁명사상으로서 복지농촌 건설의 목

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대학을 세우고 농촌혁명의 기수를 양성해야 한다는 결단이 그것이다. 이 나라 농축업의 선구적 지도자와 뛰어난 관련 학자들의 다수가 상허의 직접적인 훈도를 받았음은 너무나 당연하다.

상허가 생각하는 바, 농촌혁명의 완성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농민의 정신혁명과 농업의 기술혁명 그리고 농촌의 생활혁명의 상승효과를 기대하지 않으면 안 된다. 정신과 기술과 생활의 혁명은 곧 사람의 혁명이며 조용한 혁명이다. 그러므로 그의 조용한 혁명의 성공을 위해서는 선도농가가 앞장서서 자기 혁명을 일으키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 상허의 신념이다. 상허는 바로 건국대학교를 그러한 조용한 혁명의 기지로 삼으려 했던 것이 분명하다. …

그런 점을 생각한다면 조용한 혁명이야말로 함성도 포성도 곡성도 없는, 그러면서도 인간의 삶을 뿌리부터 바꿔 놓는 진정한 혁명이라 하겠다. 그 성과는 실로 포괄적이며 종합적이며 지속적이다. 18, 19세기의 스위스의 페스탈로치를 통한 교육혁명이 그러했고, 같은 무렵 덴마크의 그룬트비히의 인간혁명이 그러하며, 한국 세종대왕과 주시경의 문자혁명이 그러하다. 조용한 혁명을 통해서 인간은 새로운 패러다임을 받아들이게 될 뿐만 아니라 새로운 세계와 만나게 된다. 상허의 조용한 혁명이 바로 그것이다.〔「조용한 혁명」, 『내가 본 상허 유석창』, 152~155쪽〕

39) 윤희섭(건국대학교 농축산생명과학대학 명예교수)

축산대학 초창기에 부임하여 선생님을 가까이 모시게 되었다. 선생님을 모시고 전국을 순회하는 동안 나는 선생님의 손 씻는 결벽증에 대한 많은 의구심을 갖게 되었다. 처음에는 그저 의사들의 흔한 직업병이라고 말이다.

1960년대 초만 하더라도 농촌은 전기는 물론 상수도 · 교통 등 생활환경이 무척 불편한 시기였다. 선생님을 모시고 시골 농가에서 유숙하는 경우가 여러 번 있었다. 높으신 분에다 결벽증 환자를 모시고 다니는 나의 입장은 늘 송구스럽고 난처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다.

그런데 어디를 가시거나 농가에서 변변치 않게 차려 내온 식사를 어두운 등잔 불 밑에서도 아무 거리낌 없이 맛있게 잘 잡수시지 않는가. 뿐만 아니라 시골 농가의 사랑방에서 농민들과 환담을 하시며 막걸리 잔을 주고받곤 하셨다. 선생님은 "농촌이 잘 사는 것을 보고 논두렁을 베고 죽는 것이 나의 소원이요"하고 항상 말씀하셨다. 그리고 시골 사랑방에서 보잘것없는 식사와 잠자리에서 아무 불평 없이 견디시는 것을 여러 번 보아왔다.

선생님을 모시고 다니는 동안 선생님의 손 씻는 결벽증과 실지 생활하시는 것과는 크게 모순된다는 점을 나는 또한번 의심하게 되었다. 한번은 상허(常虛) 선생님, 김건(金鍵) 학장님, 김봉일(金奉日) 학장님 세 분을 모시고 전북, 충남 등지로 순회강연을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온양 온천에서 유숙하게 되었다. 아침에 식사를 하신 후 여종업원에게 미안하지만 바늘과 실을 갖다 달라고 하시기에, 같이 앉아 있는 세 사람은 아무 영문도 모르고 그저 보고만 있었다. 여종업원이 바늘과 실을 갖다 드리니 양복바지 뒷주머니에 항상 가지고 다니시는 소독지로 바늘과 실을 여러 번 소독한 다음 양말이 흘러내리지 않도록 내복과 양말을 꿰매시는 것이 아닌가. 옆에서 보고 있던 여종업원이 하도 딱한지 제가 꿰매드리겠다고 바늘을 뺏으려 하자, 선생님께서는 두 손을 저으시며 나는 산에서 내려온 중입니다. 부처님께서 크게 노하시니 '썩 물러가라'고 하시지 않는가, 앞자리에 앉아 그 광경을 유심히 지켜보시던 김건 학장님이 심각한 표정으로,

> "총재님 그래 바늘과 실에 무슨 병균이 있다고 그리 소독을 하십니까? 이제 그 손 씻는 결벽증과 양복 주머니에 넣고 다니시는 소독지는 없애야 합니다. 하루에 수십 번씩 손을 씻고 심지어 바늘, 실까지 소독하는 결벽증 환자를 누가 따르고 존경하겠습니까? 충고가 아니고 동갑내기의 솔직한 진언입니다."

두 분은 동갑내기로 우정이 돈독하시었고 김건 학장님은 당시 지역사회개발협회의의 실무 책임을 맡고 계셨다. 잠시 후 선생님께서는 정색을 하시며,

> "나처럼 불행한 의사도 없을 거요. 소위 '의사'라는 내가 사랑하는 아내를 둘이나 결핵병으로 저 세상을 보냈으니 말이요. 의사로서 자책감은 물론 그 당시 그렇게도 화려했던 의사라는 직업마저 회의를 느끼고 심지어 의사 직을 포기하려고까지 했습니다. 그러니 병균과 싸워야 할 의사가 병균 공포증 환자가 됐으니, 어찌 손 씻는 버릇이 안 생기겠소. 그저 불행한 의사의 버릇과 직업병이려니 치부하고 너그럽게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선생님의 이 말씀을 듣고 가슴이 뭉클하고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그렇다. 상허 선생님은 결벽증 환자는 결코 아니다. 다만 의사로서의 버릇과 직업병에 또다른 말 못할 변수가 가세한 버릇이란 사실을 알고 보니 내가 가졌던 의구심이 풀렸으며, 선생님을 오해하고 계시던 많은 분들께 이 사연을 꼭 해명하고 싶었다.〔「상허 선생님의 결벽증 해명」, 『내가 본 상허 유석창』, 2001, 157~159쪽〕

40) 이광전(李廣田, 건국대학교 농축산생명과학대학 교수)

때는 1961년 늦은 11월의 어느 오후 8시경, 불씨도 없는 썰렁한 강당(구 문과대학 2층)에서 축산대학 학생들을 휘한 교양강좌가 있었다. 연사는 건국대학교 총장님이시던 유석창 박사님. 허름한 검정색 양복을 입으시고(언제나 똑같은 양복을 입으셨던 것으로 기억됨)을 입으시고 연단에 서신 총장

님은 한국농촌에 대한 그의 원대한 꿈을 말씀하셨다.

우렁차시면서도 날카롭지 않은 음성에 자연스러운 몸가짐, 근엄하시기보다는 친근감과 인자함이 넘쳤다. 비록 꿈에 관한 말씀이었으나, 꾸밈이나 교언영색(巧言令色)은 찾아 볼 수가 없었다. 헐벗고, 가난한 농촌부흥을 위해 우리 함께 도전해 보자고, 두 주먹을 불끈 쥐시던 모습이 아직도 기억에 생생하다. …

"가난의 굴레에서 허덕이는 농촌을 외면하지 말고, 여러분들의 땀과 희생에 의해 풍요로운 농촌을 만들어야 한다"는 너무나도 진솔한 강연에 나는 마음속으로 '졸업 후 농촌으로 돌아가서 그들과 삶의 애환을 같이 하면서, 농촌혁명의 기수가 되어야 겠다'고 다짐을 하였다.〔「유석창 총장님과 꿈」, 『내가 본 상허 유석창』, 2001, 161 · 162쪽〕

41) 이기원(전 학교법인 건국대학원 재단이사장 비서실장)

본교 설립자이신 고 상허 유석창 박사님의 사상이나 교육이념, 행적 등에 대하여서는 그 동한 사계(斯界)의 석학들의 연구 발표 등이 아니더라도 교육계나 사회적으로 널리 알려져 있고 또 추앙받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본인은 상허 선생님께서 생존해 계시던 20여 년 전, 넓은 도량과 깊은 혜안을 지니신 그 분을 가까이에서 모실 수 있었음을 행운으로 여기고 있으며, 지금도 아주 소중한 추억으로 간직하고 있다.

그 분 곁에서 듣고 보고 느꼈던, 그냥 지나치기에는 너무나 값진 깨달음과 가르침을 주신 몇몇 단편적인 기억들을 근자에 이르러 정리해 두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다.

흔히 한 인물을 평가하거나 발자취를 기록함에는 지나친 과장이나 미화에 이르기 쉽고, 또한 편견없이 객관성을 추대한다는 것이 무척이나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는 본인으로서는 본교 창업세대들이 생존하고 있는 이 시점이야말로 이러한 사실들을 증언하고 뒷받침할 수 있는 적기라고 믿고 졸필이지만 용기를 내어 정리하였다.

이 글이 혹시나 숭고한 상허 선생님의 뜻을 왜곡하거나, 이 글로 인해 그 분과 주위사람들에게 폐를 끼치지나 않을까 염려스럽지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젊은 건국인들에게 조그마한 교훈이라도 줄 수 있다면 큰 보람이겠다.

「교시 성 · 신 · 의에 대한 또 다른 설명」

1. 성(誠)은 자기생활을 함에 있어
   성실한 자세로 생활을 하여야 하며 자기 성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을 말하는 것이다.
2. 신(信)은 사회생활을 함에 있어서

먼저 자기 자신을 믿고, 자신을 믿는 마음으로 남을 믿을 것이며, 남을 믿는 그 마음으로 사회의 공인이 되어야 함을 말하는 것이며,

3. 의(義)는 국가에 대한 국민으로서의 생활을 함에 있어서
   국가와 사회 그리고 부모로부터 받은 혜택에 대하여 감사한 마음으로 국가를 위해 봉사해야 함을 말한다.

「파주 농장의 도로 개설」

1967 · 8년으로 기억된다.

당시 이사장으로 계시던 상허 선생님께서 총장님(정대위 박사)에게 파주농장에 같이 가자고 하셨다. 극히 드문 일이다.

그때는 학교 업무를 총장님께 일임하시고, 가급적이면 총장님의 시간을 뺏지 않으셨기 때문이다.

그날 김진호(金鎭浩) 전무이사(작고), 이종규(李鍾奎) 부총장님(현재 미국 거주), 장창기(張昌基) 건설담당(현 충주 총무과장), 박천봉(朴天鳳) 시설담당(현 자양동 거주), 그리고 본인이 동행하였다.

파주농장에 도착하여, 입구 쪽 산등성이에서 목장 쪽을 내려다보시면서, 상허 선생님께서

"장 기사, 여기에서부터 우사(牛舍)까지 직선도로를 만들도록 하시오"하고 지시하셨다.

"이사장님,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렇게 도로를 만들려면, 도로공사비가 이 농장을 산 값보다 더 들것으로 생각됩니다"라면서, 장 선생은 정색을 하고 답변했다.

당시 그 농장의 길은 산과 골짜기를 따라 꾸불꾸불하고 험한 좁은 너덜길이었으며, 당시의 건설장비는 보잘 것 없었고 구하기도 힘들었다.

설령, 구한다고 하더라도 불도저의 앞 쟁기가 초등학교 책상판 정도였으므로, 그런 장비를 가지고 산을 깎고 험한 골짜기를 메워 직선도로를 만든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기 때문에 장 선생의 답변에 모두 수긍하였다.

상허 선생님께서는 그 답변을 들으시고,

"그래도 먼 훗날을 위해 그렇게 길을 내지 않으면 안 돼" 하시고는 일행에게

"자, 그만 학교로 돌아갑시다" 하셨다.

그날 장 선생 이외에는 어느 누구도 도로 건설에 관해서는 이사장님과 대화를 하지 않았다.

학교로 돌아온 총장님께서는 본인을 불러,

"임자, 오늘 왜 이사장님께서 나에게 같이 가자고 하셨을까? 더구나 나에게는 아무 말씀도 없으시면서 말이야"하고 의아해 하셨다.

나는 적당한 답변이 생각나지 않아 머뭇거리다가,

"혹시 해결할 수 있는 방도를 찾아보라고 총장님께 숙제를 던진게 아닐까요"하고 어정쩡하게 말씀드렸다.

그러자 총장님께서는,

"맞아, 숙제였어. 그와 같은 도로를 만든다는 것은 나 같은 문외한이 생각해도 우리나라 건설장비로는 어림없는 일이야. 그렇다면 건설 가능한 장비는 어디에 있지?"

하고 잠시 생각하시던 총장님은 싱긋이 웃으시면서 말씀하셨다.

"방법이 있어. 역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어른이라 다르군. 임자! 내일 나하고 미2사단에 들러 교섭해봐야겠어"하셨다.

그리하여 미2사단 사령부를 방문하여 교섭한 결과, 대민지원사업의 일환으로 그 크고 육중한 공병대의 건설 중장비들이 동원되어 도로건설에 따른 기본공사를 마무리 하였다.

이와 같이 상허 선생님께서는 항상 어떤 목표만 제시하고 그 목표에 이르는 구체적인 방법이나 해결책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으셨다.

만일 기대하셨던 해결책이 상대방으로부터 나오면 싱긋이 웃으시고, 선생님의 생각과 다르면,

"그렇게 하는 것도 좋지. 하지만 나 같으면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느 방법이 좋을지는 지금 당장 대답하지 말고 내일 나에게 대답해 줘" 하시면서, 스스로 창의력을 창출하도록 하여 해결하셨다.

「농과대학 건물부지 결정과정에 있어서 산림에 대한 애정」

농과대학 건물 위치에 대해서는 요즈음도 몇몇 분들이 그 위치의 부적합함을 지적하곤 한다.

여기에도 상허 선생님의 깊은 뜻이 숨어있다.

농과대학의 건물 주위의 환경은 현재와는 전혀 판이하였다.

당시 현 농과대학 주변의 화양리 일대는 띄엄띄엄 농가가 서 있는 들판이었으며, 농과대학 부지 주위에는 조그마한 민중병원 하나만 덩그렇게 있는 온통 수렁이었음을 많은 분들은 알고 있으리라 생각된다.

농공대학(당시 대학명) 부지를 선정함에 있어서 현재 위치에 건설해야 한다는 상허 선생님의 의견과 지금의 온실 자리가 적합하다는 다른 이사님들의 주장이 있었다.

수렁이라 지반이 약해 공사비가 많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들판 가운데 위치하게 되어 전체 캠퍼스와도 조화가 잘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이사님들의 주장과는 달리 상허 선생님께서는,

"머지않은 장래에 이곳 주위에도 주택지가 형성될 것인 바, 산을 허물고 건물을 지으면, 학생들이나 주민들이 산과 숲을 볼 수가 없게 되어 정서가 메마르게 된다. 건물이야 낡으면 헐고 다시 건설하는데 1~2년이면 족하지만, 산은 다시 만들고 나무를 심으려면 몇십년이 걸린다"고 역설하셨다.

그리고 다시 말씀하시기를,

"도서관을 저 산속에 지은 것은 대학이 학문연구의 산실이기 때문이다"라고 하셨다.

이 부지 결정 문제로 5~6차례 이사회가 열린 것으로 기억된다.

그러면, 왜 5~6차례의 이사회를 개최하였는가? 상허 선생님의 성품을 아시는 분은 이해하시리라 믿는다. 상허 선생님께는 어떤 일에 대한 결정을 하실 때에는 상대방에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설득하여 상대가 완전히 뜻을 이해하고 그 결정에 이의가 없다고 판단될 때까지 결정을 서두르지 않으셨다. 그때도 농공대학 건립 부지의 위치 결정에 있어서 반대의견에 대한 완전한 이해를 얻기 위하여 이사회를 여러 번 개최하였었다.

이와 같이 장안벌 캠퍼스는 어느 한구석이라도 상허 선생님의 애정 어린 손길이 닿지 않은 곳이 없다.

지금은 캠퍼스 곳곳에 아름드리 나무들이 많이 있어서 숲을 이루고 있지만, 초창기에는 허허벌판이었다. 상허 선생님께는 손수 나무를 정성껏 심으시고 밤에는 누가 뽑아갈 것을 우려하여 순찰하시곤 하며 키운 나무들이다.

이처럼 산과 나무에 쏟은 정성은 각별하였다. 본교에는 몇 개의 낮으막한 산봉우리들이 있는데, 이곳에는 지금 보듯이 건물이나 구조물이 거의 없다. 다만 대학의 심장인 중앙도서관만 이 산속에 자리하여 정숙한 분위기를 유지하고 있을 뿐이다.

현재 건설 중인 상허기념도서관도 이런 맥락에서 보면, 그 위치 선정에 있어서 상허 선생님의 유지를 받들어 나가고 있는 것이다.

「외국 방문」

여러 방면으로 상허 선생님의 외국 방문을 주선하셨던 분들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한번은 상허 선생님의 결벽증 치료를 위하여 여권수속을 한 적이 있었다.

상허 선생님의 결벽증은 아는 분은 다 알고 있었고, 상허 선생님께서도 스스럼없이 털어놓으시던 증증이셨다.

비서실에는 항상 알콜과 가아제를 준비해 두고 가아제를 알콜에 담가 두었다가 손 · 얼굴 · 옷 심지어 신발까지 알콜로 닦으신 후에야 다른 일을 하시곤 하셨다.

이 결벽증 치료를 위하여 몇몇 분들이 상의하여 상허 선생님의 영국 방문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정대위 총장님, 김건 교무처장님이 주선하셨는데, 상허 선생님 몰래 추진하되, 여권 수속이 끝난 후 여러 이사님들과 공동으로 설득하여 보내드리기로 합의하고, 그 수속절차를 맡아 처리하기로 하였다. 그런데 여권사진이 문제가 되었다. 낙원동 이사장 비서실로 연락해본 결과 오래된 증명판 필름을 입수하고는 이사장님께,

"이사장님, 제가 일처리를 잘못한 것이 있습니다. 사실은 학교에서 이사장님의 사진이 필요하여 낙원동 비서실에서 필름을 받아왔는데 그만 잃어버렸습니다"라고 말씀드렸더니,

"허, 그래. 그러면 내가 오랜만에 신식사진을 찍게 되었구만"하고 웃으셨다.

다음날 사진사(광화문 소재 파리사진관 이재훈)를 총장실(현 문과대학장실)로 불러 사진을 찍을

수 있었다. 이 사진이 지금 학교에 있는 유일한 사진이 되었다.

한참 수속을 밟고 있던 중이었는데, 상허 선생님께서 이 사실을 아시고는 총장님과 김 교수님을 크게 꾸중하셨다.

"내 명색이 의사요. 내 병에 대해 내 자신도 지나치다고 생각하면서도 고치지 못함을 고민도 하였소. 오죽하면 김 교수께 "당신이 최면술을 걸어 이 병을 낫게 할 수는 없소"하고 부탁까지 한 내가 아니오. 하지만 나는 나를 위해 그 귀한 달러를 쓸 수 없소. 그런 돈이 있으면 학교 도서관에 외국서적을 구입하여 비치하고, 두고두고 연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할거요. 여러분들의 그 뜻을 고맙게 받아들이겠소. 이 일은 그만 없었던 일로 합시다."

이어서 본인에게는,

"이 군 덕에 내가 현대판 사진을 하나 찍었으니 허사만은 아니구먼" 하시고는 너털웃음을 터트렸다.

여러 방면의 분들이 여러 가지 방안으로 상허 선생님의 외국 방문을 주선하였지만, 그 뜻을 이룬 분은 결국 아무도 없었다.

「메모지」

본인이 총장 비서실에 근무할 때 상허 선생님은 거의 매일 총장실에 들리셨다.

총장실에 들러 제일 먼저 하시는 일이 이 호주머니, 저 호주머니를 뒤져 메모지를 잔뜩 꺼내 주시는 일이었다.

16절지 크기 작은 종이조각, 심지어는 담배갑의 은박지 등 각양각색이었으며, 그 메모지를 정리하여, 메모된 애용에 따라 일을 처리하시곤 하였다.

선생님께선

"이 군, 인간의 기억력에는 한계가 있는 법이야. 늙어 기억을 못해서 메모한다고 생각 말게. 얼핏 스쳐 지나가는 좋은 생각들을 포착할 수 있는 방법도 강구되는 것이니, 이 군도 메모하는 습관을 길러야 하네. 살아가는 데 큰 도움이 되고, 항상 남보다 앞서가는 사람이 될 것일세" 하는 당부를 잊지 않으셨다.〔「상허 유석창 박사의 일상생활에서의 일화들」, 『건대신문』 1989년 5월 15일〕

42) 이기원(전 건국대학교 총무처장)

1960년대 중반 그때에는 상허 선생께서 일주일에 4~5일은 장안동 캠퍼스에서 일을 보셨기에 총장비서실에는 항상 가제를 알코올에 담가 준비하여 두었다. 상허 선생님께서는 수시로 비서실에 들러 알코올에 젖은 가제로 손, 얼굴 그리고 옷을 닦으신 후에야 다른 업무를 하셨다.

1965년, 이 결벽증을 치료해 드리기 위하여 정대위 총장께서는 김건 교무처장과 나에게 결벽증

치료의 권위 있는 의사가 영국에 있다는 기사를 보고, 상허 선생님을 영국으로 보내 드리기 위한 출국 수속을 밟으라고 지시하였다.

다만 이 일은 상허 선생님 모르게 추진하고, 수속이 끝난 후 여러 사람이 모여 상허 선생님을 설득하기로 하고 그 소속 절차의 일은 내가 맡아 처리하기로 하였다.

그런데 상허 선생님의 여권 사진이 없어서 문제였다. 낙원동 이사장 비서실에 보관중인 사진은 증명판 사진의 필름 하나뿐이었다. 그것을 입수하고, 다음날 "이사장님 제가 일을 잘못한 것이 있습니다. 사실은 학교 신문사에서 이사장님 사진이 필요하다고 하여 낙원동 비서실에 보관 중인 필름을 받아왔는데 그만 그 필름을 잃어버렸습니다."라고 말씀드렸더니 "허 그래, 그러면 어쩔 수 없지, 오랜만에 신식 사진 하나 찍어 볼까"하고 웃으셨다. 다음날 광화문 소재 파리 사진관 이재훈 사장에게 연락하여 총장실(구 문과대학 학장실)에서 사진을 찍게 되었다 – 이때 찍은 이 사진이 학교에서 현재 사용되고 있는 유일한 상허 선생님의 사진이다.

그 후 수속을 밟고 있는 중이었는데, 민간인 신원진술서(당시 외국 출국 시 필요한 서류) 때문에 해당 기관에서 가회동 이사장님 댁으로 방문하였기에 상허 선생께서 이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 일의 과정을 알고는 이사장께서 총장과 교무처장을 꾸중하셨다.

"내가 명색이 의사요, 내 병에 대하여 나도 너무 지나치다고 생각하면서도 고치지 못함을 고민하고 있음을 여러분도 잘 알고 있지 않소, 오죽하면 김 교수 당신에게 '최면술의 대가 아니오, 당신의 최면술로 이 나의 병을 고칠 방법은 없소' 하고 부탁까지 해보지 않았소."

하고 한참 망설이다가,

"하지만 나는 어려운 우리들의 형편에 내 자신을 위해 그 귀한 달러를 쓸 수는 없소. 그렇게 쓸 수 있는 돈이 있다면 외국 서적을 구입하여 학교 도서관에 비치하여, 우리 교수들과 학생들이 연구하고 공부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더 값지게 사용하는 거요. 여러분의 뜻은 고맙지만 이 일은 이제 없었던 것으로 합시다."

그리고는 "그렇지 않아도 새로 사진 하나 찍어야 하는데 하고 생각해 왔는데, 이군 임자 덕에 그 문제 하나는 해결되었구만, 고맙네" 하시면서 웃으셨다.〔「상허 선생의 사진에 담긴 이야기」, 『내가 본 상허 유석창』, 2001, 165~167쪽〕

43) 이대위(李大偉, 건국대학교 명예교수)

보통 사람들이 선생을 보기를, 그는 소년기에는 독립운동도 해보았고, 또 그는 한동안 의사도 해보았고, 그리고는 최종으론 교육가로 줄곧 내려오는 분이라고 피상적으로 알고 지나가는 이도 있을 것이다. 과연 그렇다. 그는 과거에 무엇 무엇을 하였든지 그의 평생사업은 교육이었다.

그러나 그는 교육가이면서도 그의 교육이념은 보통 교육가와는 전연 다르다는 것을 알 필요가 있다. 그의 교육이념은 인간이 70%이고 학문이 30%라는 것이다. 즉 말하자면 '인간다운 인간 위에다가 과학의 전당을 세우라는' 것이 그의 교육이념이다.

더구나 최근에는 정년이란 의외의 선고를 받았기 때문에 그의 심경은 한층 더 정중하다. 그의 소유의 노력과 시간을 인간개조운동에 바쳤다는 것을 나는 분명히 알고 있다. 인간성, 특히 한국인으로 과거 300여 년 동안이나 지니고 오면서 그것이 살이 되고 피가 된, 갖은 악성일랑 교육을 통하여 고쳐야지 그렇지 않으면 무슨 산업이고 무슨 재건이고 도저히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서양사회에 끄런드빅 같은 훌륭한 선생이 있었다고 하면, 동양사회에 있어서 한국의 유석창 박사가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 민족으로서의 일대광영이라 아니할 수 없다.〔「내가 본 유석창 박사」, 『建大學報』 11, 1961, 35쪽〕

44) 이대위(李大偉, 건국대학교 명예교수)

상허 선생은 한국농촌 교육에 대해서는 철저한 사람이었습니다. 농촌이 살아야 국민이 살고, 농촌이 살아야 국가가 산다는 투철한 사고로써 무지한 백성을 깨우치려고 노력했습니다. 또 상허 선생은 정치를 흔히들 생각하는 정치가 아닌 일하는 것이 정치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학교 설립 당시, 첫째는 장학금 대학을 만들고, 둘째는 세계적인 의과대학을 설립하며, 셋째는 교수들이 연구에 우선적으로 정진할 수 있도록 하여 진정한 건국대학교의 가족이 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36년 건대사의 산증인」, 『건대신문』 1982년 5월 12일〕

45) 이방석(李邦錫, 건국대학교 부교수)

나는 유 박사님을 뵐 때마다 그의 과묵한 풍모에 사람을 이끄는 매력이 있지 않나 생각해 보는 때가 많다. 지나칠 정도로 표현한다면, 내가 본 유 박사님은 항상 수 십 척 심연 속을 들여다보는 듯한 그러한 인상을 받게 된다. 물론 그 어른 옆에서 일상적으로 가까이 모셔 본 일이 없는지라 아기자기한 친숙감을 경험하여 보지 못한 탓도 있겠지만, 그분에게서 나는 백절불굴의 투지를 느끼게 하고, 한량없는 인내력을 발견케 한다.

교수회의 때 사회하시는 것을 종종 보게 되는데, 어떤 안건에 대해서 갑론을박, 회의가 난맥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시종일관, 사견과 독단을 강요하시는 일이 없이 회의를 결말짓도록 최선의 노력을 중재하시는 것이었다.

결과로 보아서는 유 박사님의 의도하신 바와 대동소이한 귀추를 가져오는 경우가 있다 할지라도, 그의 온후묵중하신 성품이 건국대학교의 교육을 위한 모든 요원으로 하여금 그의 영도 하에서 상호 합심 갈력케 할 수 있는 요소가 아닌가 생각되는 것이다.〔「내가 본 유석창 박사」, 『建大學報』 11, 1961, 36쪽〕

46) 이방석(李邦錫, 현 건국대학교 정법대학장)

회고컨대, 27년 전 정치대학 낙원동 불은 벽돌집 유서 깊은 건물 아래층 학장실에서, 상허 선생을 처음 대면하였을 때 약관 30대의 풋내기 대학강사인 나로서는 그분의 은근 정녕한 대접과 억양이 특이한 언변 및 주작에 금방 매료되었던 것이다. 그 후 그를 비교적 가깝게 접촉할 수 있었던 건대 교직생활을 통하여 지난날의 이모저모를 새삼 돌이켜보아 한마디로 상허 선생은 대안 지풍을 지닌 지사요, 경륜가였었구나 하는 것을 오늘에 와서 더더우기 뇌리에서 지울 수 없다.

그분은 이른바 '사학 경영자'라는 우리나라 특유의 막강한 위치에 있으면서도 결코 부당하게 자기의 힘을 행사하지 않았을 뿐더러 오랜 궁리와 화합을 통해서 매사를 처리하려고 애썼던 인격의 소유자였다.

5 · 16 후 어느 날 서울시내 대학 관계자 모임에 건대를 대표한 일원으로 반도호텔 로비에 참석했을 때, 건대 학생과장인 나는 당시 국가재건최고회의 의장인 박정희 대통령으로부터 재단 이사장 유 박사에 대한 안부와 칭찬을 전언받으면서 건대 발전을 격려해 주시었던 기억을 잊을 수 없다. 이러한 사실로 미루어 보아, 70년대를 시발점으로 한 박 대통령의 새마을운동이란 경이적인 치적은 선구적 농촌운동에 남다른 집념의 소유자였던 상허 유 박사와의 교분에서 연유된 것으로 짐작된다.

상허 선생은 확실히 창의력이 뛰어난 분이었고, 무에서 유를 생산하자는 그의 입버릇 같은 진지한 외침 속에서 때로는 비합리적 카리스마를 연상하는 것이었다. 지난날 사학에 대한 '우골탑' '학원기업' 등 그 수많은 불명예스러운 대명사의 난무 속에서 교육계 일반으로부터 상허 유 박사를 가리켜 '참다운 사학 경영자' '진실한 교육자'로서 넓이 추앙받았다는 사실은 오늘날 건대 정신의 지주임에 틀림이 없이리라.

나는 가끔 캠퍼스의 이곳저곳을 거닐 때마다 스탠드식 경기장 마련을 위하여 상허를 모시고 육사 등 각종 체육시설을 둘러보던 그의 정력적인 제스츄어를 회상하곤 한다. 그는 유달리 대학 캠퍼스

조성에 역점을 두었고, 일초일목에 이르기까지 그의 손길과 숨결이 닿지 않는 곳이 없다. 건대의 오늘과 내일을 걱정하는 모든 인사들의 가슴마다 이러한 상허의 이미지가 살아있는 한, 건대는 분명히 민족대학의 중추적 일익을 담당할 수 있을 것이다.〔「내가 본 常虛 先生」, 『상허 유석창 전기』, 1981〕

47) 이여하(건국대학교 농축산생명과학대학 명예교수)

당시 개교기념 행사의 일환으로 농과대학에서는 농산물 전시회가 개최되고 있었는데 이사장이신 유 박사님이 식품 전시회를 참관하시고 이에 감탄 격려하시면서 농공 병진이라는 말씀을 통하여 대학도 농과대학이 아닌 농공대학으로 설립한 취지를 말씀하신 것을 기억한다. 농과대학은 농산물의 1차생산과 더불어 2처의 가공생산을 동시에 해나갈 수 있는 대학이 농공대학이라 하시며 농공대학이란 교명으로 그 교육을 깊이 강조하신 것을 기억한다. …

60년대를 거쳐 70년대 초반에 이르기까지는 캠퍼스가 넓다는 것밖에 자랑할 것이 없고 시설을 갖추지 않아 불편이 많았다. 특히 운동장은 배수가 되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어 운동장 정리와 스탠드 설치 문제는 대학의 숙원사업이기도 한 때가 있었다. 그러나 재정이 어려운 가운데서 스탠드 건설 사업이 이루어지고 이 때, 많은 교직원이 모인 가운데 유 박사님의 연설이 시작되었다.

"무(無)에서 유(有)를 창조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두자"는 말씀이었다. 나는 그 뜻을 처음에는 깨닫지 못했다. 그러나 이러한 정신으로 오늘의 장안동 캠퍼스가 하나하나 정리 건설되고 이어졌음을 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정신은 상허의 호에서도 나타나거니와 순수히 비어있는 마음은 새로움을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가 되어있는 것이라 생각된다.

당시 서울 특히 동부지역에는 이만한 시설을 갖춘 운동장이 없었다. 정부의 큰 행사가 이곳에서 이루어졌을 뿐 아니라, 일반 사회단체도 우리 대운동장을 많이 이용하여 우리 대학의 발전상을 여러모로 알리는 계기가 되어 자랑스럽게 생각되었던 때도 있었다. …

상허 선생님은 평소 원고 없이 준비된 말씀을 통해 연설하시는 것을 보아왔다. 이 날도 말씀하시는 가운데 양손을 높이 들고 신입생을 환영하는 말씀을 통하여 축하하는 축사가 있었다. 축사로는 '포용의 교육'을 강조하시고, 교육의 기본은 '사랑을 베푸는 참교육'이라는 말씀을 하셨다.〔「유 박사의 교육 철학」, 『내가 본 상허 유석창』, 2001, 169~172쪽〕

48) 이영협(李英俠, 건국대학교 교수)

내가 유 박사님을 알게 된 것은 건국대학교의 모체인 정치대학관 창립 당시부터이다. 그 당시 유

박사는 민중병원을 경영하고 계시는 단순한 의사의 한 사람으로서만 짐작하였는데, 그 후 대학설립 관계로 접촉이 빈번하는 데 따라, 유 박사의 인품에 대해서 새로이 느끼게 되었다.

내가 오늘날까지 16년간 유 박사에 대하여 느낀 것은 첫째, 인자하신 분이라는 점이고, 둘째로는 의사로서는 부적당한 분이라는 것이다. 왜냐하면 유 박사는 극히 감격적이시며 그 가지고 계시는 포부 · 이상과 스케일이 깊고도 넓어, 하나의 의사로서 만족할 분이 아니라는 것을 느끼었기 때문이다.

오늘날 건대가 이 정도까지 발전한 것도 이와 같은 유 박사의 인품에 의한 것이라고 하겠다. 셋째로는 현 세태에 보기 드문 청렴한 분이라는 것이다. 이 점은 유 박사의 가정을 방문해 보면 누구나 긍정할 것이다.〔「내가 본 유석창 박사」, 『建大學報』 11, 1961, 36쪽〕

49) 이종규(李鍾奎, 전 건국대학교 부총장)

학창시절 때 고고학 강연을 한다기에 최남선 선생의 강연장에 간 적이 있었다. 두 고학생은 강연이 끝나고 최 선생을 중국집으로 모셨다. 그리고 졸업 후 대학을 설립하면 선생 같은 훌륭한 학자를 모시겠다고 하였고, 선생은 학생들의 애국적 꿈에 깊이 감사한다며 한바탕 웃은 기억이 있다. 마침내 해방 후 건국대학교를 설립하고 최 선생을 강사로 모시기도 하였다. …

의사 개업 때 역시 상허는 독특한 구상을 하여 3 · 1운동 33인의 생존자를 발기인으로 민중영 실비병원을 개업하기로 하여, 젊은 의사가 가상한 이상으로 애국적 사업을 벌인 꿈을 칭찬받았다. 그런데 그중 한 분이 끝까지 믿음직하지 못하다고 거절하였는데, 상허가 생명이 있는 최후의 일각까지 하겠다고 하자 쾌히 승낙을 하였다고 한다. 시작하면 끝까지 이루는 꾸준하고 끈기 있는 성격이었기에 민중병원을 소기의 희망대로 이루었다. 사회사업가이신 원용덕 · 문덕상 씨가 사업 일체를 찬성하여 종로 기독교전도관을 얻어 주어 본격적인 실비(무료에 가까운) 의원을 경영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낙원동에서 박흥식 씨가 경영하는 상업고등학교를 신축 · 이전하여 교사를 처분하다는 내용을 듣고 박씨에게 문의하였다. 고가로 매각할 수도 있었지만, 상허의 애국적 사업에 찬성하여 계약금 일부만 받고 10년 연부로 하기로 하였다.

하지만 대동아전쟁 당시였기에 건물징용법으로 종로구청 청사를 물색하던 중 이 건물이 징용대상이 되었다. 그리고 종로구청이 이전하자 또 박춘삼이라는 친일파 거두가 전시보국단본부로 쓰겠다고 경기도청에 교섭하여 또 징용당했다.

그러다 천운으로 8 · 15 해방이 되어 자동적으로 자기 건물로 들어가게 되었다. 그러나 순탄치 않아 해방 후 권력가이신 유동렬(독립운동가이며 군부대표격) 씨가 이 건물은 이조 말 이북 5도민 공공물이라는 압력을 넣어왔다. 다행히 박흥식 씨가 그 건물은 자기가 경영하던 상업학교 소유이며, 법적으로 민중병원에 매각하였다는 강력한 주장을 하여 무사히 해결되었다.

박홍식 씨는 큰 은인이었다. 해방 후 친일파로 몰렸으나, 그는 친일파가 아니라 애국자였다. 건물 관계로 친하게 사석을 여러 번 가졌는데, 농담 삼아 일제 때 비행장 건설에 거액을 기부하였다고 힐문한 즉, 우리나라가 독립하면 비행장이 있어야 할 것 아니냐고 하기에 우리는 애국자임을 알았고, 유동렬 씨 사건 때에도 그 어마어마한 권력에 대항하여 당당하게 법적 주장을 하여 애국자 상허를 옹호하였다.

그런 이유로 일제전시의 무시무시한 경계 속에 주목을 받는 요시찰인이었다 한다. 지금은 사단법인 건립이 쉽지만 그 시절의 조선인에게는 허락되지 않았기에 할 수 없이 상허가 창안적으로 '민주영 민중병원'이라고 하여 겨우 허가를 받았다.

젊은 의사로서 개업하여, 그 진의를 알게 된 민중들이 호의를 가지고 매일 성황을 이루는 서울 시내의 명물병원이 되어 서울시내 의사들은 상허가 관철동에서 요술하는 병원이라고까지 소문이 났을 정도이다. …

청년시절 꿈꾸어 오던 숙원을 이루어 학교로 출발하자고 결심하여 '정치학관'이란 간판을 우선 붙이고 모든 열성을 쏟기로 하여 33인 중 한 분이신 오하영 선생을 모시고 재단법인 정치학원을 출범하였다. 그 시절 재단법인 설립요건은 토지나 부동산을 기본요건을 하였기 때문에 고학생 출신 상허에게는 큰 벽에 부딪쳤다.

그러나 좋은 일하는 상허에게 행운이 돌아오기 시작하였다. 당시 학관에 선생으로 있던 송두용 씨가 자기 재산의 일부를 기증하였고, 황해도 부호(김상인)가 농지개혁에 걸린 지가증권을 쾌척하여 사실상 재단요건을 갖춘 재단법인으로 학교신청을 하였다. 상허는 꿈을 버리지 않고 남모르게 고난을 극복하고 용기있는 추진력으로 일념전심(一念傳心)한 결과 전문학관 정치대학 즉 건국대학의 기초가 섰다. …

뜻하지 않게 6 · 25전쟁으로 모든 기관이 부산으로 이동하지 않으면 안 될 불운을 만났다. 그 와중에 상허도 대학을 부산으로 옮기고 광야에 막을 치고 개강하였다. 그때 상허의 모든 움직임은 태연하였고 그 인품이 한 나라라도 감히 움직일 수 있는 모습을 보여 모든 관계자들의 존경을 받았다. 지도력과 관리능력으로 부산에서도 확고한 대학 운영이 예상대로 진행되었고, 전란이 끝나고 서울 본교로 복귀하게 되었다.

서울에 복귀하기 전에 상허는 임시 학교기지 장만을 위하여 토지 매수에 착념하여 서울에 장래의 꿈을 실현할 수 있는 넓고 훌륭한 후보지를 물망하였다. 현 건대캠퍼스는 쓰레기로 뒤덮힌 불모지였다. 교통은 기동차가 겨우 다니는 서울에서 동쪽으로 10리 떨어진 곳이었다. 이사와 그 땅 관계자들은 다 반대하였으나 선견이 있는 상허는 확신을 가지고 그들을 설득하여 매수를 단행하여 넓고 훌륭한 오늘날의 건대캠퍼스를 이루게 되었다.

종합대학 승격 시에도 에피소드가 있었다. 그때 문교부장관 안호상 박사는 일제 때의 애국자로서 고려대학 교수로 있을 당시 안 박사를 방문하여 최남선 선생에게 말한 것처럼 상허가 설명하기를 일제 말 우리가 대학을 만들면 안 선생을 교수로 모시겠다고 하여 안 박사가 학생들의 애국심과 고견을 칭송하였다. 그러던 안 박사가 문교부 장관이요 허가권을 자진 분이기에 옛날 고려대학에 방문했던 이야기를 하시며 쾌히 여러 가지 도움을 주셔서 종합대학 허가를 받았다.

종합대학 신청 시 '정치대학' 교명을 '건국대학'으로 변경할 때에도 상허의 주장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그는 애국적인 발상에서 세계에 명성을 떨치는 국가를 건설하기 위하여 건국에 필요한 인재를 만들고자 이러한 인재를 양성하는 대학이라는 뜻에서 '건국대학'으로 하여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의 이 주장은 만장일치로 이사회에서 결정되었다. 이사장으로 학장으로 일심전념하여 호화로운 생활과는 생활철학이 다른 상허는 오늘의 대건국대학교를 육성하였던 것이다.

건국대학교의 넓은(약 100만 평) 교지와 시설물들에는 상허의 얼이 담겨 있으니, 앞날에도 반드시 우리나라에 필요한 인재가 속출할 것을 확신하여 마지않는다.

교시인 성 · 신 · 의도 상허의 철학적 신념으로 장래 나라의 일꾼들에게 신념을 주기 위한 그의 숭고한 발상에서 제정되었다.

캠퍼스의 계획도도 그의 기발한 창의력으로 구상 · 실현되어 오늘의 건국대학교가 자리잡게 된 것이다. 그의 집념과 추진력은 일조일석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일생을 꿈에 담았던 것이기에 전문인에 못지않는 특유의 작품인 것이다. 특히 캠퍼스 안에 호수를 구상하여 한강에서 동력으로 물을 끌어와 일감호를 만듦으로써, 허허벌판처럼 넓기만 하던 캠퍼스가 훌륭한 장관을 이루게 되었다. 그 후 유명지사들과 각 학교 경영자들이 견학하여 상허의 창의력과 계획에 대하여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

호수의 이름은 유명한 철학가(凡夫 선생)가 명명하였는데, 앞으로 이 호수를 거울로 삼아 깨끗하고 명랑한 지사를 속출하라는 뜻에서 일감호로 하였다. 일감호 중앙에 섬이 만들어졌는데(상허의 기상), 그 이름은 내가 지었는데 상허의 지구력 있는 성격을 상징하여 와우도(臥牛島)라 하고 크고 무게 있는 암석을 중앙에 놓았다.〔「상허 유석창 박사 추모사」, 『내가 본 상허 유석창』, 2001, 179~185쪽〕

50) 이항녕(李恒寧, 전 홍익대학교 총장)

내가 상허 선생을 뵈 온 것은 건국대학교가 아직 정치대학으로 있으면서 서울 낙원동 교사에 있을 무렵이다. 그때 김병문〔김범부의 착오〕 선생께서 동양문화연구소를 이 학교에 설치하시고 주역 강좌를 베푸실 때에 나는 그 청강생의 하나였다. 그 무렵에 김범문〔김범부의 착오〕 선생의 소개로 상허 선생을 알게 되었는데, 성실하시고 겸허한 분이었다.

일제 강점기로부터 매우 어렵게 꾸려 나오신 민중병원은 어려운 사람들에 대한 선생의 사랑을 그대로 입증하였고, 대학도 화려하기보다는 착실하게 한 걸음 한 걸음 토대로 닦아 나가셨는데, 큰 사

업을 일으켜 이름을 남긴다는 명예보다는 작은 일이나마 겨레에게 도움을 주겠다는 정성이 많은 사람을 감동시켰다.

세상에는 조그마한 일을 하여도 그것을 크게 과대 선전하는 사람이 많은데, 선생은 당신의 하시는 일을 드러내시기를 원치 않는 것처럼 보였다. 이러한 묵묵 실천의 정신이 오늘의 대건국을 이루게 한 모태라고 생각된다.〔내가 본 常虛 先生」, 『상허 유석창 전기』, 1981〕

51) 이훈종(전 건국대학교 문과대학 교수)

경성사범을 졸업하고 초 · 중등학교에서 20년을 근속하는 사이, 지방에서 가르친 제자들과 옛 친구들의 성화에 못 이겨 본교에 편입학하여 과정을 마쳤다. 이어 강사직을 맡은 것이 1960년의 일이다. 그리고 48세에 전임이 되어 불려갔을 때 상허 선생이 자리에서 일어나 걸어 나오시기에, 얼른 나아가 허리를 굽히려는 데, 그냥 손을 내밀어 내 손을 덥석 잡은 위로 왼손을 덮어 쥐셨다.

그리고 그 독특한 굵은 음성으로 "본교 출신을 전임으로 모시기는 처음이니, 우리 한번 잘 해 봅시다" 하신다. 전부터 듣기에 이사장님은 의사 출신답게 위생에 까다로워서, 누구와 악수를 하고 나면 유난스럽게 손을 씻으셨다던데, 내 손을 그렇게 부여잡았으니 얼마나 씻으셨을까?

그런데 몇 해 뒤 나는 또 한번 선생께 손을 잡혔다. "연세도 있는데, 참 용하게 결심하셨습니다. 그러면 부디 …" 내가 54세라는 초로의 나이로 대만에 유학을 떠나기에 앞서, 인사차 집무실로 찾아뵈었을 때 일이다. 그런데 그것을 마지막으로 다시는 뵐 수 없게 되었다. 귀국하기 전에 별세하셨기 때문이다.〔모든 영광을 바치며」, 『내가 본 상허 유석창』, 2001, 189~190쪽〕

52) 장영철(張永哲, 전 건국대학교 축산대학장)

상허 선생은 위대한 교육자요, 남이 아는 애국자이시다. 그러기에 그는 나라의 앞날을 누구보다 먼저 내다보는 선견지명이 뛰어난 데, 나는 선생을 더욱 존경한다. 선생은 나라의 앞날을 내다보셨는지라 건국대학 안에 농촌개발의 역군을 양성할 축산대학과 농과대학을 설립하시어 온 정성을 쏟으셨고, 따라서 많은 농촌의 역군을 배출하여 이들이 농촌 발전에 이바지하고 있음을 필자는 알고 있다.

선생께서 만년에는 농업기술자협회에 투신하시어 오늘날의 새마을운동이나 복지농촌운동의 선구적 업적을 남기신 것은 역사에 길이 남을 것으로 생각한다. 선생은 자나 깨나 구국일념에 살다 가신 진실한 애국자임에, 필자는 깊이 고개 숙여 경의를 표하는 바이다.〔내가 본 常虛 先生」, 『상허 유석창 전기』, 1981〕

53) 정대교(건국대학교 농축산생명과학대학 명예교수)

가끔 명동 입구 지금의 미도파백화점 부근이었다고 기억되는데, 레스토랑 '호수 그릴'이란 양식당이 있었는데, 특별히 대학 행사가 있을 때는 이곳에서 전체 교수와 더불어 휴식을 즐기던 기억이 새로우며 고 송주용 교수, 정범석 교수의 학위 축하모임도 대학에서 주관하시어 챙겨주신 일, 교수들의 회갑잔치도 베풀어 주시던 일들이 주마등처럼 떠오른다. …

나는 사십대 초반에 당시 농대 학장 김성원 박사 뒤를 이어 농과대학 학장의 발령을 받았는데, 이 자리에서 "정 교수는 우리 대학 창설 이래 가장 젊은 학장이니, 그 젊음을 대학 발전과 학생 지도 나아가 농촌문제에 정열적으로 힘써 달라"고 간곡한 말씀을 하셨으며, 책임의 중차대함을 새삼 느끼게 되었다.

그 즈음부터 상허 선생께서는 병원 출입이 자주 있었던 것으로 기억되며, "나의 숙소는 세브란스 병원이야"라고 언뜻 하시던 말씀이 지금 귓가에 어린다.〔논두렁의 의미」, 『내가 본 상허 유석창』, 2001, 197 · 199쪽〕

54) 정대위(전 건국대학교 제2, 3대 총장)

그는 도자기처럼 화려하게 번쩍거리는 어른이 아니었다. 오히려 질그릇처럼 질박하고 투박하며 매우 성실, 중후하고 게다가 무서울 정도로 인내심이 꿋꿋한 어른이었다. …

우리의 잘못 된 풍조 가운데 한 가지는 사학 설립자들에 대한 동일한 시각이다. 그러나 상허 선생은 너무도 독특하고 너무도 유별난 분이었기 때문에, 덩달아 그렇게 평가되지 않기를 오직 바란다. 그의 진면목이 그대로 드러나는 세상이 되어야만 만사가 올바로 될 것으로 여겨진다. …

그는 개인적으로 불행과 재난, 민족적으로 압제와 수난 가운데 일생을 살았다. 이를 착한 의지와 굳센 용기 그리고 놀라운 인내로써 이겨내고 큰일을 이루었다.〔박기용 저, 『조용한 혁명을 위하여』(나라기획, 1987) '서문'의 일부 ; 「상허 선생의 은덕을 기리며」, 『내가 본 상허 유석창』, 2001, 200쪽〕

1960년대 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 정대위 총장 등과 함께 한 유석창 박사

55) 정범석(鄭範錫, 건국대학교 교수)

유 총장님 타화상(他畵像)의 부조의 공동작업? 그러나 분업 지시가 없으니, 점을 쳐서 나에게 부과된다고 생각하는 부분만 그려 볼 수 박게 방법이 없군요!

1. 총장과 '멋' — 장안동 광활한 교지를 저렇게 조화되도록 훌륭하게 꾸미시는 것을 보면, 우리 총장님은 멋진 분, 멋을 아는 분이다 라고 탄복하지요. 그뿐이겠어요. 고전 민속예술의 지행일치하심을 볼 때, 소시 때 장안 인테리 여성의 동경의 적이나 아니었을까 하고 궁금도 합니다.

2. 총장과 세수 — 의학박사에, 환자 취급에, 이유야 많겠지요. 그러나 세수를 자주 하시는 하나의 원인을 성격에서 발견해 봅니다. 물체의 불결을 아시기에 세수를, 식욕의 불결을 아시기에 빈한(貧寒)–아는 이는 알겠지만–을, 왜적의 불결을 아시기에 민족을 찾는 것, 그러기에 그 성격에 그 세수지요.〔「내가 본 유석창 박사」, 『建大學報』 11, 1961, 36~37쪽〕

56) 정범석(鄭範錫, 현 국민대학교 총장, 대한교육연합회 회장)

그 사람을 알려면, 그 분이 걸어온 업적을 먼저 참고하면 된다. 그러나 사람의 업적만 가지고는 그를 이해하기에 불충분할 듯하다. 예컨대, 그이의 학설이 어떻게 해서 그러했으며, 그이가 치중한 사업이 어떻게 해서 그것이어야 했는가를 알 수 없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을 알기 위하여는 그 사람됨, 특히 그의 유년시절을 알아야 한다.

을사보호조약 때인 듯하다. 부모가 통곡하고 머리를 벽에 부딪치고 동네 사람들이 모여서 같이 울고 걱정하고 위로하는 모습을 본 6세 아이가 있었는데, 이 아이가 바로 상허 선생이다. 이런 유년기의 충격이 상허 성생의 전생애를 지배한 것으로 사료된다.

그 뿐만이 아니다. 계속 망국의 한을 안고, 만주에서 고생을 하면서 민족운동을 하시는 부모님을 모시어야 했다. 상허 선생은 정녕 훌륭한 애국자요, 교육가이다. 상허 선생을 아는 분, 상허 선생과 친교가 있는 분마다 헤아릴 수 없는 이야기가 있을 것이다.

선생에 관한 여러 사람들의 말이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을지 모른다. 그러나 선생의 유년시절 소년시절을 알고 선생의 사상의 뿌리를 알면 성생을 더 깊게 이해할 수 있는 듯하다.〔「내가 본 常虛 先生」, 『상허 유석창 전기』, 1981〕

57) 정인승(鄭寅承, 전 전북대학교 총장, 현 건국대학교 문리과대학 대우교수)

내가 상허 선생을 비록 조석상봉은 못했을망정, 나를 일찍부터 뜻 있게 소개해 준 신태수 형을 통하여, 또 그 후로 선생의 일하는 활동과 업적들을 통하여, 선생의 인간성이나 사상, 포부 등을 대개 짐작할 수 있었으니, ① 우선 해방 직후에 복지국가 건설부터 계획한 데서 선생의 불타는 애국심과 서견지명을 볼 수 있었고 ② 그 실천으로 처음부터 농업운동과 교육운동을 병행한 데서 선생의 원대한 포부와 면밀한 계획성을 볼 수 있었으며, ③ 사업 추진의 과정에서 많은 애로와 난관을 극복해 가면서 초지를 조금도 굽힘이 없이 꿋꿋하게 여생을 마친 데서 선생의 고결한 지조와 장엄한 충국정신을 볼 수가 있었다.〔「내가 본 常虛 先生」, 『상허 유석창 전기』, 1981〕

58) 정호권(전 건국대학교 제13대 총장)

상허 선생은 늘 겸손하고 검소했으며 낭비나 겉치레는 참 싫어하셨다. 낙원동 이사장실도 검소한 분위기였지만 그 당시 정릉에 별장이 있다고 해서 젊은 우리는 호화스런 큰 집을 상상했는데 지나다가 실체를 보니 방 두 칸의 작은 전셋집이었으며, 기거하던 가회동 집도 작은 한옥이었다.〔「검소한 상허」, 『내가 본 상허 유석창』, 2001, 211쪽〕

59) 조성환(趙誠煥, 현 건국대학교 총장 비서실장)

선생님은 철저한 애국자였습니다. 유년시부터 우국지사의 가문에서 나라 없는 서러움을 몸소 체험하셨기 때문에, 일생 동안 펴 오신 제민구료사업, 육영사업, 농촌운동 등 한결 같이 사심없는, 국가와 민족만을 위한 봉사와 희생이었습니다. 어려운 사람을 위한 민중병원의 설립 운영이라든가, 해방된 조국의 건설 역군을 양성하기 위한 정치대학과 건국대학교에 축산대학, 농업협동조합대학, 지역사회개발대학 등을 설립하여 학비는 물론 기숙사비까지 전교 학생에게 전액을 면제하며 특수 교육을 실시한 일들은 그 교명이 말하듯 애국자가 아니고서는 생각지도 못할 일들입니다.

선생님은 선견지명과 강한 의지력을 겸비하신 분이었습니다. 선생님은 밤새워 연구하고 구상하신 메모 쪽지를 손에 들고 출근하시면 임원진이나 실무진을 모아 토의하고 이를 실천하는 데 주저하지 않아, 무에서 유를 구하는 집념으로 어려운 큰일들을 이룩하곤 하였습니다.

민중병원을 설립할 때에도 그러했지만, 동대문 밖에서 기동차를 타고 한 시간이 넘어 걸리던 장안벌 황무지에 건국대학교를 건설할 때에도 세인들의 빈축을 샀으나, 결국 기적을 이루고야 말았습니다. 또한 그 분은 67년에 『2000년대 한국 농업의 미래상』과 『선도농가를 위한 조용한 혁명』이라는 저서를 펴내어 농촌 새마을운동을 선도한 시조적 역할을 하신 분입니다. 이 모두가 보통사람으로서는

이루기 어려운 역사적 업적들입니다.

선생님은 검소하고 인자하신 스승이었습니다. 구두 한 켤레를 사시면 10년이 넘도록 신으시는 검소한 분으로, 사택이라야 일식도 한식도 아닌 20평 남짓한 기와집에서 20여 년을 사시다가 그나마도 은행에 저당 잡힌 채 유일한 유산으로 남기신 분입니다. 원래 공금이라면 단 한 푼도 사적으로 쓰시지 않는 철저한 분이면서도, 불우한 학생이나 좋은 뜻을 펴 보겠다는 졸업생이 있으면, 빚을 내서라도 도와주시던 인자하신 스승이기에 사택을 저당 잡혔던 것입니다.

또한 의학박사이신 선생님은 병원균에 대한 결벽증이 심하시어 약물소독으로 한 달에 한 말 이상의 알코올을 소독하시면서도 전국 농촌 방방곡곡을 순회하시며 농민들과 어울려 농촌운동을 실천하신 것은 하고자 결심하신 일은 신명을 받쳐 추진하시는 분이었음을 증명하기에 충분할 것입니다.〔내가 본 常虛 先生」, 『상허 유석창 전기』, 1981〕

60) 조일문(趙一文, 건국대학교 제8대 총장)

유 박사는 해방 조국이 다시는 불행한 운명을 밟지 않고, 영구히 자주 · 독립 · 번영을 누릴 수 있는 길은, 오직 산업국가를 통한 문화국가를 건설하는 데 있다고 믿었다. 그와 동시에 자신의 뜻을 펴나가기 위해서는, 올바른 인생관 · 가치관을 심는 인간교육과, 민족 · 국가 의식을 깨우치는 국민교육이 선행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절실히 느꼈다. 유 박사는 한민족의 불행은, 우리가 오랜 학정(虐政)에 시달리는 동안 인격과 도덕이 파탄되고, 사랑과 애국심이 고갈된 데에 기인한다고 판단하여, 우선 교육을 통한 인간성의 순화와 민족의식의 배양으로 중흥의 기틀을 잡아야 하겠다고 결심하였다.

인간으로서 갖추어야 할 덕목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유 박사는 그 중에서 성 · 신 · 의를 상징적 덕목으로 꼽아, 뒷날 건국대학교의 교시로 설정하였다. 이와 동시에, 유 박사는 성 · 신 · 의의 덕성을 갖춘 인간의 사회적 유대, 즉 그러한 인간 상호간의 협동과 단결을 중시하여, 부지런하고 협조적인 민족성의 함양에 전력을 경주하였다. …

유 박사는 산업국가 건설의 첫 단계로서 농산업을 선도적 사업으로 들었다. 본교가 최초의 산업대학으로 축산대학을 세우고, 이어서 농과대학을 세운 것도 그 때문이었다. 유 박사는 여기에 입학하는 모든 학생으로 하여금, 일하며 배우고, 배우며 일하는 습성을 기르게 하고, 교육과 생산, 생산과 교육이 직결되도록 힘썼다.

유 박사가 건국대학교의 상징적 동물로서 '황소'를 택한 것은, 황소의 끈질긴 의지와 활력과 인내를 건국인재 양성의 본보기로 삼기 위해서였다.

> 산을 옮길 힘을 가졌으나, 어린 아이처럼 유순하고, 어떤 어려움도 성실과 근면으로 이겨내는 그의 인
> 내가 불의 앞에서는 불꽃처럼 활활 타는 황소!

이것은 시인 박목월 선생이 지은 '황소 예찬'의 한 구절이다. 유 박사는 이 시구에 황소처럼 꾸준히 일하고 참으면서도, 필요할 때에는 분연히 일어서는 건대의 기상이 단적으로 표현되어 있다고 하여, 즐겨 읊었다. …

유 박사는 건학정신의 실천강령에서 이르기를, "열정과 용기와 창의로써 새 시대를 이끄는 개척자가 되라"고 하였다. 이어서, 유 박사는 우리에게 당면한 고충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현실이 낙후되었다는 사실이 아니라, 낙후된 현실을 바로잡으려는 노력의 부족이라고 깨우쳤다. …

유 박사는 한국의 장래를 가장 넓은 영토 위에 세워진 가장 강대한 나라로 키우기보다는, 가장 과학적이고 문화의 향기 그윽한 나라로 키우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하였다. 우리 대학도 외모만 덩그렇게 큰 학교로 성장하기보다는 그 내용이 알차고 장차 인류문화의 창조발전에 기여하는 보람찬 대학으로 나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역설하였다. …

유 박사가 과학과 기술로 무장한 새 시대의 개척자를 양성하기 위하여 본교를 설립하면서도, 그 바탕에는 성 · 신 · 의의 덕성을 갖춘 인격이 깔려 있어야 한다고 역설한 것은, 바로 위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과학과 휴머니즘의 한국적 재현을 기대하는 간절한 소망에서 우러나온 것이다. 따라서 유 박사는 건대 교육의 실천 강령에서 끊임없이 새 지식의 도입과 새 기술의 연마를 강조하면서도, 그 첫머리에는

> 진실과 지성으로써 건전한 인격을 도야하고, 신의와 협동으로써 도의질서를 세우고, 악을 깨뜨리고 의를 빛내어, 나라와 겨레에 공헌하라.

고 가르쳤다.

유 박사는 평생을 통하여 팔자나 운명을 믿지 않았다. 스스로 운명을 개척할지언정, 운명의 지배에 굴복하지는 않았다. 무릇, 운명이란 약한 자 앞에서는 강하지만, 강한 자 앞에서는 오히려 굽신거린다. 유 박사는 누구에게나 부드럽고 겸손하였으나, 운명 앞에서는 의연부동의 자세로써 호령하는 것이었다. "운명아, 저리 비켜라! 내 길은 내가 헤치고, 내 발로 걸어 나갈 것이다"라고 말이다.

진정 유 박사는 운명의 노예가 아니라, 운명의 주인이었다. 유 박사는 운명의 고삐를 꽉 잡고 비탈길을 지나 산봉우리를 넘어서 오늘에 이르렀던 선각자이며 개척자였다.〔「건학정신 맥맥히 이어져」, 『내가 본 상허 유석창』, 2001, 215~221쪽〕

61) 주권(朱權, 현 건국대학교 농과대학 명예교수)

1962년 건국대학교에 지역사회개발초급대학이 설치되었다. 건국의 초석을 절대다수의 민중 속에 뿌리를 내려야 한다는 상허 선생의 신념의 실천이다. 농민을 아꼈으며 농촌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서는 선도적 농군사관(農軍士官)을 양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당시 지역사회개발 초급대학 교수였던 나는 상허 선생의 원대한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초급대학 과정으로는 불충분하므로 정규 4년제 대학과 더불어 대학원 과정을 설치할 것을 진언했다.

1969년 지역사회개발 정규 대학 및 all scholarship에 의한 지역사회개발학과 설치안이 문교부에 제출되었으나, 문교부의 단견으로 이 안은 부결되고 초급대학은 없어지고 말았다.

그 후 내가 낙원동 유 박사 사무실로 찾아뵈었을 때, 상허 선생은 비통한 표정으로 국가 만년 대계를 즉흥적으로 처결하는 문교부의 처사도 못마땅하지만, 대학 내부의 불협화음은 더욱 곤란한 일이라고 개탄하면서 지역사회개발대학 설치를 둘러싸고 나에게 사표를 내겠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고 덧붙였다.

1972년 새마을운동이 본격화 했을 때, 나는 새마을 교수연구회 회장단에 속해 있었는데, 문교부가 이 일을 몹시 아쉬워함을 보았다.〔「내가 본 常虛 先生」, 『상허 유석창 전기』, 1981〕

62) 주영하(현 세종대학교 재단이사장)

상허 선생님! 비바람 치는 세대(일제시대)에 나서 갖은 어둠을 뚫고서 빛을 보내신 선생님!

"나라 없는 백성이 집칸을 꾸며서 무슨 소용이 있나."하면서 집 한 채 반반히 장만을 안 하셨던 선친(한의사)의 가훈을 따라 항상 애국애족만이 삶의 길임을 알고 자라신 선생은 이미 고뇌에 찬 이 겨레와 운명을 같이 하셨던 것입니다.

의학 공부하던 시절, 동지들과 같이 그리고 선배요, 정신적 지도자였던 이대위(李大偉) 목사 주재하에 YMCA의 지하실에서 겨레에게 봉사하기 위해서는 의학을 해야 한다는 가치관을 세우고, 졸업 후 뜻한 바대로 '겨레를 위한 의료, 강건한 국민체질은 나라의 기초'라는 이념으로 민중병원을 설립하였습니다. 라디오를 통해서, 인쇄물을 통해서, 강연을 통해서 불 뿜는 정열의 의학도로, "한국의 장래는 강건한 정신과 육체의 보존에 있고, 이것만이 장래에 희망이 있다."고 외치고 다녔습니다. 이 병원은 이름 그대로 민중을 위해서 민중의 힘으로 경영되었습니다.

많은 애국자를 이 병원 협조자의 명단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참으로 그의 선친이 인술로써 겨레에게 봉사하였고, 자제인 상허 선생은 더욱 횃불을 드높여서 내 백성의 건강은 내가 맡고 아울러 애국의 정신도 키운다는 뜻에서 이 민중병원의 사명은 컸습니다.

누가 단지 병원의 봉사만을 평가하겠습니까! 종로에 세워진 당시이 병원은 또한 구국항일의 센타였습니다. 나라 없는 울분과 절망에 허덕이며 종로거리를 거닐다가도 상허 선생이 계신 민중병원에 들르기만 하면 먼 미래를 보는 듯 용기와 기운찬 음성으로 "주 선생, 기운을 내시오."하면서 손을 내밀던 선생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유명을 달리하였군요. 너무 일찍 가셨습니다. 할 일이 너무나 많은데 …

언젠가는 해방을 예견하시고, 푼푼이 모은 돈으로 낙원동 교사를 마련하시고서, 독립되는 날부터 애국애족의 기초는 올바른 교육에 있다하시고 정치대학관을 창립하시어, 교육구국의 올바른 교육에 있다 하시고 정치대학관을 창립하시어, 교육구국의 기치를 높이셨습니다. 또한 먼 장래를 예견하시고서 산수 좋고 교통이 편리한 서울의 동부 옛 유릉(裕陵)(오늘의 어린이대공원)아래 장안 벌판에 광대한 교지를 정하고 이름도 거룩한 건국대학교로 확대 격상하였습니다.

아, 이 교문을 드나드는 젊은 학도들이 교정에 우뚝 솟은 상허 선생의 그 높은 건국이상과 교육이념을 항시 마음에 새기고 있을 때, 그들은 훌륭한 창립자의 아들딸이요, 건국대학의 참(眞)자녀가 될 것입니다. 오직 이 나라의 발전을 위하는 일이라면 잠시도 쉬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저 이준(李儁) 열사의 유해도 선생님의 피나는 노력이 아니었더라면 아마 모셔온다 해도 훨씬 후가 되었을 것입니다. 나라가 어지럽고 공산당이 들끓을 때에도 사재를 털어서 『이준 열사 전기』를 출판하여 온 겨레가 죽도록 조국에 바친 위대한 선배를 기리어서 만백성에게 실지로 그 얼을 보여 주셨습니다.

교육 가운데에도 이 나라의 실학 증진을 위해서 농축학에 만년에 심혈을 경주하시었고, 농학에 대한 새 이론을 책으로 엮었고, 지도자 양성으로 선진국에 유학도 보내고 특별장학금을 지불하는 등 특별한 열의를 보였습니다.

"나는 농민과 일하다 그 어느 논두렁 밭두렁에서 마지막 숨을 거둠이 내 소원이라." 말씀하시던 그 애족의 모습이 선합니다. 선생님의 그 뜨거우신 높은 얼은 장안동과 낙원동 안의 '건국인'들만이 아니라 온 백성이 만대에 걸쳐 칭송하오리이다. 인간의 육신의 한정된 시간 위에 살거니와, 선생님의 높으신 뜻은 영원하게 빛나며 이 나라를 지키오리다.〔「내가 본 常虛 先生」, 『상허 유석창 전기』, 1981〕

63) 차석기(車錫基, 고려대 의대교수)

애국애족의 일념이신 유석창
그는 가셨지만
장진에서는 가난한 민중의 의사
모든 것을 남을 위해 봉사하고

자신의 영달을 원치 않았으니
그의 인술과 보국의 애국정신은
모든 이에게 남아 있으리니
축복이 있을지라
민중의 이름 앞에

〔「상허의 인술정신」, 『상허사상의 조명』 1, 상허기념사업회 주관 '제1회 상허사상연구 발표회' 발표논문, 1985. 11. 23, 건국대학교 학생회관 중강당, 151쪽〕

64) 최무장(건국대학교 문과대학 교수)

선생님의 유품은 양복 세 벌, 오바 세벌, 서양식 잠옷(가운) 한 벌, 목도장 한 개, 안경 세 개, 가위, 면도기, 거울 등이다. 모든 유품은 대단히 평범한 것들이다. 어느 하나 값진 사치품이 없다. 당시에 시계는 모두 외제였다. 롤렉스, 오메가, 부로바 등등. 선생님의 시계는 론진(Longines) 한 개다. 사치품이라면 엽총 한 자루, 기타 유품은 식기(食器), 수저, 담뱃갑, 주사기 등을 들 수 있다. 당시에 은수저 등은 생활이 여유 있는 집에 갖추어져 있었지만 그러한 사치품은 아무 것도 없었다. 당시의 양복과 시계, 구두는 부의 상징과 마음의 거울 등으로 표현되고 있었다. …

선생님의 마음은 항상 '청빈낙도(淸貧樂道)'하신 것으로 생각된다. 모든 것을 초월하신 분으로 생각된다. 그래서 선생의 모습은 "Behind this great man, there was a good nature."라고 표현할 수 있다. 정말 순수한 사고(思考)를 가지셨다고 생각된다.〔「칠피구두」, 『내가 본 상허 유석창』, 2001, 226~227쪽〕

65) 채의숭(蔡義崇, 전 건국대학교 총동문회 회장)

상허 선생은 대학의 발전을 위한 노력은 다음 네 가지를 이루는 데 중점을 두겠다고 하신 말씀이 기억난다. 이것은 교육환경의 개선, 연구 분위기 조성, 학사행정의 자율화, 운영의 민주화라고 하면서, 대학은 많은 세월이 지난 후에야 그 참된 가치가 역사에 기록된다. 그러므로 느리더라도 민주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하였다.〔「내가 다니던 그때 우리 대학」, 『내가 본 상허 유석창』, 2001, 223쪽〕

66) 피세진(건국대학교 문과대학 교수)

발령을 받는 날 아침에 나는 상허 선생님을 처음 뵙게 되었다. 인자스러운 눈빛이 매우 인상적이었다. 일 잘 하라고 말씀하시며 악수를 청하셨는데, 그 손이 매우 거칠었다. 마치 시골에서 농사일을 많이 한 농부의 손과 같다는 느낌을 받았다.

또 하나는 이사장님께서 출타하실 때에는 비서실과 재단 관계자들이 마당으로 내려가서 인사를 하는 경우기 종종 있게 되는데, 상허 선생님께서는 차에 오르시면 갑자기 차가 급발진을 하는 것이었다. 나중에 운전기사에게 위험하지 않겠는가라고 물어 보았더니, 이사장님께서는 차가 빨리 달리는 것을 매우 좋아하신다는 대답이다. 평소에 온화하신 성격 한편에는 과감하고 급진적인 또 다른 성격의 일면이 있으며, 이것이 그처럼 박력 있게 큰일을 추진하는 원동력이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비서일을 하다 보면 가끔 가회동 댁에 볼일이 있게 되는 데 그 집은 아담한 전통 한옥으로 지금도 그렇지만 그 당시에도 서울의 종합대학교 이사장의 자택으로는 검소하기 이를 데 없었다. 그 집에 갈 때마다 근검절약의 정신이 배어 있는 집주인의 인격을 보는 듯했다.〔「Speed를 좋아하는 상허 선생님」, 『내가 본 상허 유석창』, 2001, 230~231쪽〕

67) 한기언(韓基彦,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그는 굳은 신념을 가진 사람이었다. 건대 부지 선정을 하는 가운데, 어느 미군 장교가 얘기를 듣고 피식 웃었다고 하거니와, 그와는 아랑 곳 없이 착착 건대 건물이 마스터 플랜을 따라 들어섰던 것이다. 그런데 몇 년 뒤 이 광경을 보게 된 미군 장교가 탄복하여 협조를 제의해 왔다는 것이다. 남이 보기에 불가능해 보이는 캠퍼스 건설도 그에게 있어서는 이미 눈앞에 보였던 것이다. …

건대 총장 시절이나 이사장 시절에도 항상 포켓에서 작은 종이쪽지를 꺼내서, 그때그때 생각난 일들을 메모해 잊지 않도록 한 세심한 마음 쓰기 하나만 보아도 그가 찬 머리의 소유자였음을 짐작케 한다. …

초기에 축산대학 입학에 특단을 보여, 많은 숨은 인재를 그의 밝은 눈으로써 발굴해 내고 키웠다. 그 결과 큰 인물들로 성장한 인재를 갖게 되었는데, 이 역시 상허의 뜨거운 가슴 아니고는 그만한 큰 일을 해내지 못했을 것이다. …

상허의 밝은 눈, 찬 머리, 뜨거운 가슴의 발로가 의료사업 · 교육사업 · 농촌사업이요, 민중병원 · 건국대학교 · 전국농업기술자협회로 꽃피고 있다고 하겠다.〔「상허의 밝은 눈, 찬 머리, 뜨거운 가슴」, 『내가 본 상허 유석창』, 2001, 234~238쪽〕

68) 한정일(건국대학교 정치대학 교수)

새마을운동보다 앞서 어려운 농촌 부흥을 이룩하고자 대학생 전체를 교비생을 모집하였던 축산대학, 그리고 성신의를 교시로 종합대학교로서의 건국대학교, 이 모든 것들을 생각해 보면 상허 선생의 사상과 정신이 어디에 담겨 있는지를 짐작케 한다.

왜 하필이면 민중병원이며, 정치대학인가, 또한 축산대학이며, 건국대학교란 말인가. 분명코 시대를 앞질러간 선각자로서의 인본주의 면모를 돋보이게 한다.〔「인본주의자인 상허 선생」, 『내가 본 상허 유석창』, 2001, 239쪽〕

69) 황명찬(黃明燦, 건국대학교 정치대학 교수)

오로지 좋은 대학을 만드시기 위하여 대학 내의 교수들로부터 여러 가지 좋은 아이디어를 얻고자 무척 애쓰시는 모습을 보고 대학에서 후진 양성과 학문 연마에 젊을 바칠 각오를 다지고 있던 나는 큰 감명을 받았음이 사실이다.

연령으로나 사회적 경험으로나 또는 학교 경영의 경륜으로나 상허 선생님을 따를 사람이 없는 상황에서 보통사람 같으면 무엇이든지 곧단으로 결정하고 처리하기 쉬운 터에 폭넓게 고견을 구하고 그러한 의견을 학교 경영에 반영하는 것은 생각처럼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24시간 건국대학교만을 생각해 주시오」, 『내가 본 상허 유석창』, 2001, 243~244쪽〕

70) 황상익(서울대 의대교수)

이미 사후 30년이 다 되어 가는 오늘, 의사로서의 유석창(劉錫昶)을 새삼 언급하는 까닭은 그가 흔히 볼 수 있는 의사들의 모습을 뛰어넘는 활동을 하였다는 점이며, 또 그러한 점이 신자유주의적 사조가 팽배한 오늘날에 더욱 요청되기 때문일 터이다.

오늘날 우리사회의 실상이 어떻든 의료는 사적(私的)인 영역을 뛰어넘어 공적(公的)인 성격을 지녀야 함은 이미 상식이 되었다. 다시 말해 의료는 개인의 능력과 재부(財富)에 따라 불균등하게 분포되어도 무방한 것이 아니라, 인간이라면 누구나 충분히 향유해야 할 공공재(公共財)인 것이다.

그러나 유석창이 의사로서 활발한 활동을 벌이던 일제 강점기에 이러한 진보적 생각을 갖는 의사는 별로 없었다.〔「의사로서의 상허 유석창」, 『醫史學』 제9권 제1호, 통권 제16호, 2000. 6〕

71) 황조연(건국대학교 원로동문)

부산 피난교사에서 졸업식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으니 그 감회가 무량하였다. 나는 피난생활 중에도 면학에 열중하였던 덕분이었는지, 졸업 당시에 제2회 졸업준비위원장을 맡게 되어 사은회의 개최, 학보 제2집의 편집이며, 졸업앨범의 제작과 모교에 대한 기념품 마련 등에 이르기까지 많은 일을 하느라고 매우 바빴다. 이때만 해도 모든 여건이 모교의 경제적인 도움 없이도 자체적으로 해결이 가능하였던 것이 다행스러웠다.

이것을 보고 당시 모교 경리과에서는 대단하다고 칭찬의 말을 하며 격려해 주던 기억도 생생하다. 졸업 직후 학보가 완성되었음을 아시고 유 박사께서의 모 음식점에서 만나자는 연락이 있어 나가 뵈었는데, 새로 된 학보를 보시고 노고가 많았다면서 기뻐하시던 넉넉한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하다. 그날 저녁은 유 박사의 환대를 받았으니, 생애에 있어 광영이 아닐 수 없었다.

드디어 1953년 3월 25일 졸업식 날, 부산 구덕산 및 피난교사 내에서의 첫 졸업식이어서 유 박사의 애정과 관심이 유달랐다고 한다. 나는 재학생 대표 김진창의 송별사에 대한 졸업생 대표로의 고별사를 하였고, 식이 끝난 후 졸업기념 사진을 찍을 때 정들었던 모교를 떠나는 심정은 만학의 나로서는 남다른 감회를 억누르기 어려웠다.〔「유석창 박사의 유덕을 추모하며」, 『내가 본 상허 유석창』, 2001, 248~249쪽〕

72) 황칠성(黃七星, 건국대학교 부교수)

날더러 전임 총장의 평을 하라니 참 힘든 글이다. 잘 쓰면 아첨이라 할 것이고, 못 쓰면 필화라도 입을 터이니 역시 걱정이기도 하다. 그러나 워낙 인자스러우신 상사였기에 너그럽게 웃어 넘겨주실 것으로 믿고 감히 이 글을 쓰기로 하였다. 나는 그 분을 평하여 단적으로 한국의 달가스나 껀 · 비히로 부르고도 싶고, 교육자라기보다 열혈의 구국 재건의 선각자라고 부르고 싶다.

혹자는 말하기를 너무 일에 욕심이 많고 돈에는 절도가 없으시다고 하니, 역시 적중한 말이기도 하다. 그러나 우국지심에서 나오는 일, 욕심에 한계가 있을 리 없고, 금욕을 벗어난 그 무아경을 무어라 탓할 수 있으랴!

한번 칼을 뽑으면 굽힐 줄 모르고 불복 맥진하는 그 모습이야 뭇 인간들의 폐부를 찌르고도 남음이 있다. 때로는 침도 튀시고 거품도 이는가 하면, 그 큰 주먹으로 손바닥도 가볍게 치신다. 또 도량이 넓으시고 이상에 사시는 다정다감한 인품이기에, 그 주위는 여러 가지 사람들로 늘 만물상을 이룬다. 그러나 누구의 손목을 잡으시고도 꼭 그때마다 세수 대야에 손수건을 잊으실 줄 모르시니, 그 까닭은 수수께끼로 남기고 이 글을 맺기로 한다.〔「내가 본 유석창 박사」, 『建大學報』 11, 1961, 37~38쪽〕

73) 황칠성(黃七星, 현 건국대학교 충주대학장)

1960년 내가 이 학교에 부임한지 며칠 안 되는 봄날로 기억된다. 아침 일찍이 동대문에서 헛간 같은 구식 기동차를 타고 화양리역에 내려서 민중병원 옆의 진흙길을 밟으며 도서관 언덕길에서 신에 묻은 흙을 털고 있을 때, 멀지 않은 곳에서 방한모에 헌 외투차림의 상허 선생께서 말똥을 싼 신문지를 풀어서 어린 리기다소나무 밑을 나무 작대기로 파고 묻고 있었다.

나는 머뭇거리다가 인사를 드리니 그 인자한 웃음을 지으시며 " 이 나무들이 빨리 자라야 할 텐데, 황 교수도 내일 아침부터 이곳에서 용변을 보면 어때."하셨다.

또 사방을 돌아보시면서 "저기는 공대, 저기는 축대, 저기는 수산대 등 … " 그 원대한 꿈을 말씀하셨다. 나는 그 분의 진지한 방향 제시와 그분의 선각(先覺)을 눈감고 생각하여 본다. 그분은 위대한 교육자이시다. 이 나라의 먼 앞날을 예측하시고 이에 대처할 백년 후의 문화국가를 위하여 도량을 키우시기로 작정하셨다.

또 그 분은 언행이 일치하시는 분이시기에, 무슨 일이든 착수하시기 전에 몇 번이고 생각하시고 계획을 수정하셨다. 그 분은 우리 앞을 앞질러 생각하시고 우리보다 훨씬 젊으신 분이시기에 정신혁명, 기술혁명, 생활혁명의 기수로서 우리 건국인의 가슴 속에 영원히 살아 계신다.〔「내가 본 常虛 先生」, 『상허 유석창 전기』, 1981〕

3
농업계 인사들이 기억하는 상허 선생

1) 김선호(金先浩, 전 농업기술자협회 부산지부장)

1965년 선생님의 정릉 별장에서 임원회를 개최하니 참석하라는 통지가 와서, 이제 총재님의 별장마저 구경하게 되는구나 하는 부푼 기대를 가지고 상경하여 시간에 쫓기어 정릉 별장으로 직행하였다. 막상 그 근처까지 가서 보니, 그럴만한 집이 없고 인적도 드물어서 망설이고 있는데 마침 지나가는 사람이 있어 물어 보니, 바로 내가 서 있는 그 윗집이었다. 나는 그 별장이 하도 초라한데 놀라지 않을 수 없었으며, 총재님의 인격에 감복하지 않을 수 없었다.

검소하고 질박하게 생활하면서도 우리 농민을 위하여 많은 금액과 일신을 바쳐 농촌 복지사회 건설을 위하여 희생하시며, 우리들 농민들과는 그 사무실을 개방하면서까지 친밀히 대해 주시는 데 대하여, 나는 총재님의 애국충정이 남보다 뛰어났을 뿐 아니라, 참된 의미에 있어서 진실한 애국자인 총재님의 일면을 엿볼 수가 있어, 나는 더욱 깊은 감명을 받고 농촌운동에 더 힘쓰게 되었다.〔「내가 본 常虛 先生」, 『상허 유석창 전기』, 1981〕

2) 김성도(선린협동촌 운영위원장)

상허 선생은 문화농촌의 건설이야말로 복지국가 건설의 근간이 된다고 확신하고 계셨다. 이 일을 위해서는 새 농촌 건설의 지도자를 양성하는 것이 첩경이라고 믿고 실천 하셨던 것이다.

1954년 가을, 화양리 뒷동산(현 중앙도서관 자리) 마루터기에 서신 상허 선생은 손을 들어 뚝섬 벌판을 가리키면서, 저기 절반을 잘라 여기 농과대학을 세우고 시험장을 만들어 한국 농촌 발전의 총본산을 만든다고 원대한 꿈을 피력하셨다.

나는 그때 동래 원예시험장에서 우장춘 박사를 모시고 채소 육종사업에 몰두하고 있던 때였으며, 동래 시험장에서 같이 일보셨던 김봉일 선생님께서 건대 이사로 오시면서 앞으로 같이 일하자고 안내하여 주셨던 것이다. 나는 깊은 감명과 동시에 너무나 큰 구상에〔봉이 김선달을 생각하면서〕 구름을 잡는 듯한 공상이 아닌가 반신반의했던 것이다.

이듬해 2월 장안동 건설사업이 시작되었으니 속히 올라오라는 전보가 왔다. 나는 사표를 내지도 않고 상경한 것이 상허 선생을 모시고 일하게 된 출발이 되었으며, 나중 안 일이지만 장안동에 건대의 터전을 잡게 된 동기가 우장춘 박사의 권유였다고 한다. 상허 선생의 역작 '한국 농업의 미래상'에는 이상농촌의 유형별 설계가 구체적으로 그려져 있다.

나는 상허 선생과의 약속 10년 건대 근무를 끝내고, 1967년 오랜 꿈이던 이상촌 건설에 투신하게 되었다. 경기도 광주군 동부면에 세운 선린촌 건설의 멤버로 참가했다. 상허 선생은 비상한 관심을 가지시고 직접 건설 현장에 오셔서 격려하시고, 주변에 심을 수목도 학교 조림지에서 나누어 주셨다.

그 때 심어진 느티나무는 이제 줄기차게 자라나고 있다. 상허 선생의 큰 뜻과 같이 거대한 정자나무가 될 것으로 믿어진다. 나는 상허 선생께 2000년대의 한국 농촌의 미래상을 앞당겨 이룩합니다 라고 보고 드리는 것을 큰 기쁨으로 생각하고 있었다.〔내가 본 常虛 先生」, 『상허 유석창 전기』, 1981〕

3) 이호철(李鎬喆, 전 농업기술자협회 부총재, 인천후생농장 농장장)

유 석창 박사는 낙원동 이사장실에서 아무리 바쁜 일이 있어도 우리들이라면 만사를 제쳐 놓으시고 우선적으로 만나주셨을 뿐 아니라, 그 뛰어난 동지애를 필자는 아직 다른 데서 찾아 볼수 없었으며, 연만하신데도 지방협회 사업을 위해서는 직접 참가하시어 회원들을 격려하셨고, 각별히 농촌과 농민을 아끼고 사랑하시던 일은 잊을 수 없으며, 더구나 병환 중에 계실 때도 일신을 돌보지 않고 오직 농촌운동을 위해서 헌신하시던 일은 두고두고 잊을 수가 없다.

구국애민에 대한 집념과 교육과 농촌을 위한 정열을 불태우시던 상허 선생은 자신의 창의와 실천력을 최대한으로 발휘하시던 우리 조국의 큰 별로서 영원히 빛날 것임을 확신하는 바이다.〔내가 본 常虛 先生」, 『상허 유석창 전기』, 1981〕

4) 임국립(任國立, 현 농업기술자 협회 이사 겸 제주도지부장)

선생님의 도의는 세인이 공지하는 바이기에 재론을 생략하고 내가 본 가장 감격적인 일례만 적어 봅니다. 1964년 8월 19일 농업기술자협회 제주도지부 창립총회에 임석 차 하제 시(下濟時), 총회를 마친 후 서귀포에서 일박하시고 다음 날 정장섭 전무의 안내로 나의 집에 왕림하시게 됐는데, 그 당시는 삼십여 리의 산간험로에 차조차 불편한 것이 겹치고, 처서 전후의 찌는 듯한 무더위로 차안에 계신 선생님의 얼굴과 셔츠엔 닦아도 닦아도 흘러내리는 땀방울에, 나는 너무 죄송스러워 위로 말씀을 드렸으나, 개의치 않으시고 희색만면으로 말씀하셨다.

그러다 보니 차는 산간오지인 나의 고향 청수리에 도착, 때는 정오쯤 나의 집이란 농장 내의 어두컴컴한 구식 기와집, 안팎은 그을음과 먼지투성이, 나는 더욱 마음이 죄어졌지만 별 수 없어 마루에 모셔 앉히고 땀에 흠뻑 젖은 셔츠를 물에 빨아드리고, 점심 땐 선생님의 철저한 위생관념 때문에 한 수저 드실는지 걱정이 되었는데, 환경의 불비에도 꺼림없이 드시면서 진짜 고기 맛이라고 과찬하실 때, 나는 고기 맛이 아니라 동지애로서의 구미라고 느끼면서, 이런 환경의 업소 음식이면 아예 손도 대지 않으실 텐데 깊이 감동했으며, 우리가 선생님의 집무실을 방문했을 때도 비서가 이름만 아뢰면 비서실까지 나오셔서 흙 때 묻은 우리 손을 정답게 잡아 주시는 자애심, 논두렁을 베개 삼겠다는 구국단심, 건국대학의 초지(初志), 그러나 만사유정(萬事有定)이라, 포부와 기회의 교차로 생전 미성사(未成事) 혹자의 오해도 있었으나 만부득이었음을 모두가 시인하는 일, 후계자와 후배들은 미성(未成) 부분을 보완하여 선생님의 성스런 뜻을 영원토록 받들어야 하리라. 옛적의 성인군자인들 후자의 보완이 없었더라면 금일에 누가 그를 알았으리오.〔내가 본 常虛 先生」, 『상허 유석창 전기』, 1981〕

5) 한도룡(韓道龍, 현 영남농원 사장)

나는 전국농업기술자협회 창립 당시부터 지난 제21회까지 21년간을 개근한 자이며, 상허 선생님을 처음 뵈옵기는 1963년이다. 그리고 그 때부터 1972년 타계하실 때까지 근 10년간 매년 수차 접견하여 상호 의견을 나누며, 이 나라 농촌 근대화에 역점을 두자고 외쳐온 한 사람으로서 나이의 차이는 많으나, 마음만은 다정한 친구 격으로 사귀어 온 참농군으로서 금차 선생님의 전기를 발간함에 있어, 내가 본 상허 선생님을 말씀 드린다면, 상허 선생님은 참 애국자이시고 혁명군이지만, 특히 형편이 어렵고 미개한 농민에 대하여는 인자하시고 정신혁명의 선봉자로서 진두지휘에 온 정열을 바치셨고, 흙냄새와 구수한 농민의 순정에 미치신 분이라 해도 욕되지 않을 것이다.

10년간 협회 일을 맡으시고, 노구에도 남한 각지 아랑곳없이 누비시며 농민의 정신을 바로 잡다가 논두렁이나 밭두렁을 베고 죽겠다 하시던 굳은 신념에는 무지한 우리 농군의 마음인들 감각이 없을 수야 있었겠는가! 동지적 입장에서 촌민에 대하여는 너그러운 마음씨로 대하셨고, 내가 사는 강원도 산골에도, 산 넘고 물 건너기 마다시지 않고 왕래하시며 기술혁명을 일으켜 주셨고, 결혼 주례까지 맡아 주시어 식장 없는 노천 과수원 내에서 생활혁명을 외치시던 말씀 귀에 쟁쟁하다.

5만 자연부락 내에 고구마〔농민〕가 선생님을 만남으로써 농민관이 달라졌고 기술이 향상되었으며 생활 방식이 판이해졌음을 확신하며, 건대 캠퍼스 안의 동상 앞에 인사드리고 묘소 앞에서 명복을 빌며 천국에 영생하심을 확신하옵고, 나의 책꽂이에 『조용한 혁명』『한국 농업의 미래상』『고희 기념 논문집』이 항상 나를 채찍질함을 자랑으로 여기며, 상허 선생님의 명예를 훼손시켜드리지 않기 위해 오늘도 내일도 맡은 바, 농업을 성직으로 감사히 생활하고 있다.〔내가 본 常虛 先生」, 『상허 유석창 전기』, 1981〕

4
정치계 인사들이 기억하는 상허 선생

1) 김재춘(金在春, 전 국회의원)

내가 유 박사님을 처음 뵈온 것은 군에 복무 시 6관구사령부 재직 시절, 군의 여가를 이용하여 만학이기는 하나 정치대학(야간) 재학 시였다. 선생님으로부터 받은 인상은 학자라기보다는 철학을 가진 고매한 지도자상, 그리고 열렬한 애국자라는 인상을 받았다. 항상 그분은 농촌이 전원적 낭만에서 탈피하여 근대화된 농촌, 도시에지지 않는 부흥된 농촌을 지향하였고, 곡물 주식에서 육류로의 전환을 제창하였다. 또 농촌이 발전되어야 공업도시가 발전할 수 있다는 주장을 강조하시었다.

5 · 16 이후에 박정희 대통령의 소위 '인간 개조', 의식구조의 변화 없이는 이 나라의 중흥을 가져올 수 없다는 주장도 또 오늘날의 제5공화국의 '새 시대 새 복지국가' 건설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모든 문제도 이 분의 선구적인 주장과 정성이 많이 반영된 것을 본인은 알고 있다. 5 · 16 이후에, 박정희 대통령이 유석창 박사를 모시고 자주 이 나라 장래 문제에 대해서 많은 자문을 받았다. 특히 농촌 근대화를 위해서 오늘의 새마을 운동이 농촌으로부터 확산되어 도시로 번져가야 한다는 주장에 박 대통령은 깊은 감명을 받았고, 오늘날의 새마을지도자 양성도 건대가 최초로 도맡아서 하였고, 곡물 위주의 주식이 점차 육류주식으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정책적으로 과감히 반영시킨 것도 바로 유 박사였던 것이다.

당시 박 정희 대통령은 육영사업을 한다는 사람들이 말로는 인재 양성이다, 국가 백년대계를 위해서 많은 지도자와 기술자를 배출한다고 하면서도 돈 안 들고 연구시설과 제 비용이 안 드는 인문계로 많은 학생을 뽑아 소위 '학원 모리배'적 운영을 서슴지 않고 자행한 데 반하여, 이 분은 연구시설과 설비 조성에 몰두하여 명실공히 이 나라의 역군 양성에 치중하는 데서 높이 평가받고 존경을 받아 왔던 것이다.

그 분에 대하여 하고 싶을 말 또는 인상 깊었던 이야기를 많이 하고 싶지마는 제한된 지면으로 이루 다 이야기할 수 없으나, 다만 그분이 이 나라의 백년대계를 위해서 후진 양성과 국가를 위해서 일생을 바친 분으로, 이 분의 정신이 길이길이 빛나기를 바라며, 동시에 이미 뿌려진 이 분의 씨를 건국대학에서 가꾸어 꽃을 피워 결실을 거둘 수 있도록 여러 젊은 후배 학도들이 노력하여 주기를 바랄 뿐이다.〔「내가 본 常虛 先生」, 『상허 유석창 전기』, 1981〕

2) 안호상(전 문교부장관)

내가 1941년 보성전문학교(현 고려대학교) 교수 시절에 상허 선생을 한번 인사한 적이 있었다. 나의 연구실에서 잠깐 동안 이야기 하였지만, 늘 그 분은 첫눈에 퍽 성실하고 믿음직해 보였다. 의사이시면서도 한문과 철학에 큰 관심을 가진 데 대해 나는 퍽 놀랐었다. 서로 헤어진 뒤에는 다시 만나지도 못하고 또 이름조차 기억하지 못하였다. 문교부 장관 때 건국대학을 승인하고도 재단이사장 상허 선생이 전문학교에서 인사한 분인 줄도 나는 몰랐었다.

1955년에 나는 건국대학에 봉직하게 되어, 그때에 비로소 그 사이 심정을 들어 알게 되었다. 상허 선생은 15년 앞에 처음 볼 때의 그 성실성과 믿음성은 더욱 깊게 풍기었었다. 나는 그때 정치적으로 바람 맞자 형무소까지 끌려 간 적이 있었으나, 상허 선생은 나를 흔연히 채용하고 또 학술원 책임자까지 맡겼었다.

상허 선생의 성실성과 믿음성과 의리는 누구도 따라갈 수 없을 만큼 강하셨다. 선생은 자기의 성격과 신념과 실천의 표적인 성(誠)과 신(信)과 의(義)를 건국대학의 상징으로 삼은 것만 보더라도, 그 분의 일생 생활이 성 · 신 · 의에 얼마만큼 충실하셨는가를 잘 알 수 있다.〔「내가 본 常虛 先生」, 『상허 유석창 전기』, 1981〕

3) 이인(李仁, 초대 법무부장관)

선생은 약관(弱冠) 시절부터 이 겨레가 잃었던 자유와 독립을 되찾기 위해서 일제의 삼엄한 탄압 아래서도 독립군의 양성훈련과 교육 · 문화 · 사회사업에 혼신의 정력을 기울였던 것이니, 그것은 오늘날의 우리 독립의 기초작업이 되었고, 우리의 해방과 독립에 기여한 바 적지 않음을 생각할 때, 선생이 평생의 침식을 잊고 동분서주하던 생시 선생의 모습이 지금 이 순간에도 눈에 어려 슬픔을 더해주고 있습니다. … 유 박사의 노력은 겨레의 발전과 농촌부흥의 선구자적 의식의 표현이라 부를 수 있겠으나,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앞으로 다가올 국토통일의 기본작업이었다고 우리는 굳게 믿는 바입니다.〔「常虛 劉錫昶 博士를 哀悼함」, 『朝鮮日報』 1972년 1월 6일 조간 6면〕

4) 송남헌(전 대통령자문기관단체인, 전 사회기관단체인)

독학으로 의학을 공부한 그는 서울 종로에 병원을 내고, 밖으로 드러나지 않게 민족운동을 후원하고 있었다. 돈을 많이 벌 수 있었는데도 이를 마다하고 언제나 고통 받는 동포들을 생각하며 자신을

낮추며 봉사하는 그와 같은 인물이 있다는 사실에 나는 크게 고무되었다. 〔우사연구회 엮음, 『송남헌 회고록: 김규식과 함께 한 길』, 한울, 2000, 57~58쪽〕

5
내가 알고 있는 상허 선생의 삶과 의식세계

1) 경신중고등학교 동창들이 기억하는 '유석창 동문(1923년도 제17회 졸업)'

상허 유석창 동문은 1900년 3월 17일 함남 단천군 수하면 용원리 망상골에서 독립운동가이며 교육자인 유승표(균의 오자)의 둘째 아들로 태어났다. 1906년 서당에 들어가 수학하고, 1912년 10월 망명하는 아버지를 따라 만주 서간도 장백으로 가서 소학교를 거쳐 정몽학교 고등과에서 수학, 1916년 수석으로 졸업과 동시에 교사로 부임하다. 1918년 소년광복대를 조직하여 대장으로 활동하고, 1919년 남만주군비단 참모 및 단기사관양성소 주무에 임하다.

1921년 2월 귀국하여 3월 경신학교 3학년 청강을 거쳐 9월 정식으로 편입하다. 청강생인 까닭은 편입시험에서 일본어 점수가 열등해서였는데, 이로써 시험에 낙방하자 매일 아침 교문 옆에 서서 출근길의 선생들에게 정중히 인사, 이를 유심히 지켜 본 군예빈 교장의 배려에 따라 2학기 재시험 조건으로 청강허락을 받다.

그 후 확고한 신념과 근면으로 일본어를 완전히 습득하고 모든 과목에서 우등을 해 이듬해 졸업반 4학년이 되면서 급장(반장)으로 선출되다. 고학생을 위한 경신수공부에서 학비를 조달하고 학교 기숙사 생활을 하며 열심히 공부한 이 기간 학교의 제도 및 시설 등을 눈여겨 두어, 훗날 건국대학교를 설립하고 근로학생을 위한 장학제도와 기숙사를 설치하는 계기를 마련하다.

이 무렵 조선학생기독청년연합전도단에 들어가 활동하고, 1923년 3월 24일 경신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하다. 졸업 후 군예빈 교장의 권면에도 불구하고 일반 전문학교 진학을 거부, 1년간 시험준비를 하면서 함양 신흥학교 학감 겸 교원을 지낸 뒤 1924년 4월 경성의학전문학교에 입학하다. 군예빈 교장은 이때 학교사택에 입주하게 됨을 기화로 합격선물로 유석창이 새겨진 문패와 함께 교장의 집(한옥)을 빌려주어 그 방세를 받아 학비를 충당, 1928년 3월 경성의전을 무난히 졸업하다.

그 후 함남 장진군 공의를 거쳐 함북 성진군 제동병원 외과의사로 근무하던 중 1929년 11월 아내가 폐병으로 사망하자 대중 의료기관의 설립 포부를 품다. 그래서 1931년 민족지도자(오하영, 한용운, 권동진, 최린 등) 45인의 발기 하에 오늘의 건국대 의과대학 부설 민중병원의 모체를 설립, 원장에 취임하다. 민중병원은 제동병원의 설립자인 구례선이 행하던 실비 진료방침에서 운영방식의 모형을 찾아 의료비 부담 능력자에게서 얻는 차액 이윤을 불능자의 무료진료에 전용하다.

1934년 조선보건협회 회장에 취임하고, 1937년 경성제국대학 의학부에 들어가 의학연구에 정진, 1945년 의학박사 학위를 받다. 이 기간 민족중흥의 길이 농업 생산성 제고와 농촌부흥에 있다 판단하고 동분서주하다.

1946년 민주정치를 담당할 정치학도를 기르기 위해 조선정치학관을 설립하고, 1949년 정치대학으로 승격과 함께 이사장에 취임하다. 1950년 정치대학 직영 흥국공사 및 흥농공사를 설립하고, 1951년 부산 피난지에서 정치대학 학장에 취임하다.

1957년 사단법인 민중병원 이사장에 취임하고 1959년 종합대학교 승격과 함께 건국대학교 초대총장에 취임, '농자천하지대본'에 의거 축산대학, 지역사회개발대학, 농업협동초급대학, 농과대학에 역점을 두다.

1961년 건국대학교 명예총장 겸 이사장으로 추대되자 여력을 학교 밖으로 돌려 한국지역사회개발협회, 1963년 전국농업기술자협회를 각각 설립해 공히 회장으로 활동하다. 아울러 농업기술연수원을 설치하고 농업기술회보를 발간하는 한편, 영농인으로 하여금 첨단 영농기술을 익히도록 농업선진국에 파견하고 학생들로 하여금 농촌 연구반을 조직해 농활의 효시를 이룩하다.

영농의 성공사례를 접하면 그 주인공을 직접 찾아가 그 비결을 수집하는데 골몰하였으며, 농촌부락과 건국대학교 사이에 자매결연을 맺어 우수농촌으로 탈바꿈시키다. 또한 선도농가 5만호를 조성하는 농촌 부흥책을 세워 전국을 누볐고 서울 한복판에서 농민 시가행진을 주선해 몸소 앞장서다.

1967년부터 저술에 몰두하여 『한국농업의 미래상-서기 2천년대를 바라보며』와 『조용한 혁명』을 저술 발간하다. 이 두 책자는 민족중흥의 3대 혁명으로 1. 농민정신 혁명 2. 농업기술혁명 3. 농촌생활 혁명을 설정해 새마을운동의 근간으로 활용되었고 이미 길러낸 농축계열 이론가 및 영농 기술자와 함께 새마을운동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는데 이바지하다.

1968년 건국중학교 및 서울상업고등학교를 설립하는 등 여력을 불태우며 조금도 쉬지 않다가, 1972년 1월 1일 서거하다. 장례는 사회장으로 치른 뒤 건국대학교 교정에 안장되고 동년에 국민훈장 모란장이 추서되다.〔경신사편찬위원회, 『儆新史』, 경신중고등학교, 1991, 1129~1132쪽〕

2) 동아일보 '인물평'

학자나 푸로펫서로서 보다도 오로지 애국심으로 평생을 꾸준히 숨어 노력하여 오늘의 뻔대 있는 대학교〔건국대학〕를 만들었고, 그 대학교의 총장으로 일보아 오다가 이번의 정년으로 물러난 의학박사 유석창(62)씨는 최근 학교와 학생들의 요망으로 그 학교의 재단이사장이 되었다.

●…의학박사 상허 유석창 씨는 그의 면모로 느껴지는 것은 물론, 그의 음성에서 그리고 손 모양 등에서까지 암석같이 믿음직한 노력형의 인간이다.

그와 더불어 수긍되고도 남는 것은, 세상의 숱한 매명도배(賣名徒輩)-실적보다도 구호와 명성을 노리어 날렵하게 날뛰는 그러한 처세배들에 반하여 도리어 그러한 것을 도외시하고 내실적으로 역행하여 오는 숨은 일꾼인 점이다.

●…오늘의 '건국대학교'를 이룬 기둥 역할을 하여온 그는 이른바 세상의 저명인사적 명성에서 먼 곳에 있는 현 재단이사장(교육임시조치법으로 학장에서 정년사퇴된) 유석창씨가 바로 그분이다. 그는 의학박사로서의 소위 '도규(刀圭)의 사(士)'이거나, 촛가락 같이 하아얀 손목과 손가락을 가진 서재인(書齋人)적 연구가이기보다 선이 굵은, 야적일만큼 고산준령(高山峻嶺)을 넘어 온 신념 두터운 가운데 돈후온화(敦厚溫和)함을 배접(背接)하여 주고, 그같이 걸어온 족적(足蹟)이 있다.

●…그는 일찌기 한말의 우국투사인 유일우 님의 어린 아들로 삭막한 만주일대에서 망국민의 설움을 조심각골(彫心刻骨)하게 맛보며 자랐다. 그리하여 그 남의 땅, 남의 주선 아래인 망명이역에서 구걸, 중학을 마친 것이 18세. 그리고 곧 동포들의 자녀들을 위한 교육에 종사하게 되었다. 그것이 지금으로부터 45년 전인 장작림(張作霖) 치하의 봉천(奉天)에서 정몽학교(正蒙學校) 교원이 되었고 한편 '소년광복대(少年光復隊)'의 대장으로 소년광복운동을 지도하기 시작하였다.

뒤이어 사립학교의 순학(巡學, 視學)과 조국광복운동의 한 조직체였던 만주군비단(滿洲軍備團)의 참모로 단기사관양성소(短期士官養成所)의 주무 등 망명동포 지질(子姪)의 계몽과 그들에게 독립정신의 싹을 파종하기에 바쁘다가 국내로 들어와 함남 신흥학교(新興學校) 학감 겸 교원을 하기 1년(1922년). 그러다가 그는 자기 장래의 계단적 실천을 위하여 '경의전(京醫專)'에 입학하였다.

●…그 다음부터 유석창씨는 새 出發의 중요한 활동 기반을 닦게 되었다. 즉 '경의전'을 졸업한(1930, 31세) 그는 역시 '숨은 공헌'의 정신으로 구료(救療)를 통한 애국운동을 하였으니, 속세 간의 개업의들의 반인술(反仁術)은 물론 돈벌이 위주의 의사들의 상황이 증오스러웠다. 의사 유석창 씨는 송진우 · 오하영 · 권동진 · 이광수 · 유석준 · 최린 등 당시의 독립운동 지도자 45인의 합의발기로 후원체를 조직, 헐벗은 대중의 구료사업과 일반 보건운동을 위한 『민중병원(民衆病院)』(사단법인)을 창설, 그 일에 이바지하여 왔다.

동시에 그는 뜻하는 바를 널리 꾀기 위하여 한편 『보건시보(保健時報)』(保健協會 기관지)를 만들어 구호사업과 보건운동을 통한 독립사상을 불어넣어 왔다.

만학의 유석창 씨는 38세로 '성대(城大)' 의학부 연구과에 입학, 1945년에 『비장(脾臟) 랑겔한스씨 도(嶋)의 발생학적 지견(知見) 보유(補遺)에 관한 연구』 논문으로 의학박사의 학위를 받았다.

오늘날 '건국대학'(전 정치대학)의 전신인 '조선정치학관'을 설립하게 된 동기를 유 박사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몽매에도 잊지 못하던 조국이 천우신조로 드디어 광복은 되었다. 환희는 겨레의 가슴에 마다 벅찼고, 환호는 조국강산에 넘쳐흘렀다. 그러나 뜻밖에도 다시 찾은 조국은 어려운 까닭이 많다.

당면한 난관들도 극복하여야 하겠거니와, 백년대계의 건국방안을 세워 조국안전의 보장책도 실천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나라는 지정학적으로 보아서나 역사적 관련으로 볼 때, 병력과 부력으로서는 도저히 타국을 능가할 수 없다.

그러므로 우리 겨레와 나라로 하여금 우리의 천부의 재능과 슬기를 최고도로 발휘시키는 과학과 기술로서 현대적 문화국가를 만드는 동시에 역사적으로 결함을 가진 민족성을 개조하여 참되고 무언(無言)히 부지런한 민족으로서 덴마크나 스위스같이 자력 · 자활하는 아담한 국가로 육성함으로써 조국과 인류문화에 이바지하겠다."

그리하여 그 교시는 성 · 신 · 의이고, 그의 의연하고 견인불발(緊忍不拔)한 실천력은 오늘날 광대한 교지를 확보한 본방(本邦) 유일의 축산대학 · 농과대학으로서의 '건국대학'의 기반을 닦았다.

●…그렇다고 유석창 박사는 숨은 부자도 아니었다. 근검절약한 돈으로 해방 전 전 해에 소유하게 된 낙원동의 옛 협성실업학교(協成實業學校) 건물— 유서깊은 이북 5도인사의 협성(協成)의 관(館)을 터전 삼아 동지들을 잘 규합하여 발족하여 온 것이다.

즉 고향(함경도) 출신의 실업가 또는 동지(오하영, 강기덕, 신태수, 이종규, 정세환 씨 등)들과 굳은 단결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한다.

●…지극히 평범한 진리이지만 "외국에 나가 고생하여 보아야만 조국을 알고, 망국민의 설움을 맛보아야만 조국의 품이 그리움을 안다"고, 유석창 박사의 골수에는 조국, 조국, 조국 …이 사무쳐 있다. 그러므로 '정치대학'이 대학교로 승격할 때 유 박사는 '건국대학'의 '건국」 명칭을 고집하였는데, 그것은 지금으로부터 30년 전 각 전문학교 재학 중인 동지들이 모여 비밀결사 '기독동우클럽」으로 모일 때 뼈에 사무친 망국의 원한을 풀을 길이 없어 뒤로 오는 세대에게 실국자(失國者)의 누명을 남기지 말자는 뜻에서라고 한다.

'건대'는 어느 학교재단보다도 건실한 산업기관을 가지고 있어서 튼튼히 그 뒷받침을 하고 있다.

●…한마디로 말하여 유석창 박사는 견인불발의 투지와 선견지명으로 숨어 꾸준히 일하여 오고 있으며 모든 불결(부정)을 혐오하는 인격의 교육행정가다.

그는 "여생을 농촌문화 행정을 하다가 그 자리에서 쓰러진다면 얼마나 영광이겠느냐"고 말한다.〔훈육 50년, 유석창 박사 : '건대' 세운 숨은 기둥」『동아일보』 1961년 11월 17일〕

3) 이종규(李鍾奎, 건국대 재단이사)

'건국사'에서 '유 총장론(總長論)'을 써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나는 그와 전문학교 동창생의 한 사람이요, 또 다년간 친구로서 지내 온 관계로 이런 부탁을 하는 줄 안다.

그래서 붓을 들기는 하였으나 나의 졸필을 가지고 과연 유 총장을 충분히 그려 낼 수 있을 런지 대단히 의심스럽다. 그러나 생각컨대 미문여구(美文麗句)로써 허장성세하여 없는 사실을 있는 것 같이 쓰는 것보다는 있는 사실 그대로, 또는 인물 그대로를 그려보는 것도 의의 있는 일일 것 같다.

일전에 정릉으로 그를 찾아 하루의 주말을 함께 즐기며 이야기하는 동안에 이제부터 각기 직명을 부르지 말고 아호를 부르자고 하였다.

그것은 상호간에 친밀감을 더 두터이 하려는 나의 제안에 의한 것이었다. 유 총장의 호는 '상허(常虛)'이다. 이 유래는 서산대사(西山大師)의 시구 중의 "만국도성여의대(萬國都城如蟻臺), 천마호걸사혜계(千家豪傑似醯鷄), 일창명월청허심(一窓明月淸虛枕), 무한송풍운불제(無限松風韻不齊)"에서 따 왔다는 것이었다.

이 아호 자체가 유 총장의 인격 전부를 표현하는 것이라고 나는 보고 있다. 공(公)을 위하여 사(私)를 희생하고 아무 물욕이 없이 허심탄회하고 담담한 그의 인격이 여실히 표현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는 함경남도 단천이라는 산고수려하고 험준산령이 중첩하였으며 가진 보광(寶鑛)를 지닌 고장에서 출생하였다.

'인걸(人傑)은 지령(地嶺)'이라는 고어(古語)도 있거니와, 훌륭한 인물이 나는 곳은 산천도 좋은 법이라 한다. 일세의 풍운아였던 성재(誠齊) 이동휘(李東輝) 선생이 또한 이곳 출신이라는 것도 우연한 일이 아닌 것 같다.

그의 아버지 일우(一憂, 호 後樂堂) 씨는 일제침략에 반기를 든 혁명투사이며, 합병과 더불어 망명의 길을 떠나 북만의 쓸쓸한 타방(他邦)에서 여생을 조국광복운동에 바치신 분이었다. 따라서 유 총장은 소학 · 중학을 중국교육을 받았으며, 20미만의 약관부터 독립군에 참가하여 일제의 강압에 항거하였던 것이었다. 저 유명한 청산리전투에는 실전투사로서 참전하여 구사일생으로 생명을 보존하였었다.

그 후 대세가 만부득이함에 그는 귀국하여 당시 장로교에서 경영하는 경신학교(儆新學校)에 적을 두고 면학의 길을 닦았다. 경신졸업 후 그는 뜻한 바 있어 의학전문학교에 들어갔다.

여기에서 필자와 같은 반에 있으면서 인간적으로, 사상적으로, 상통한 바 있어 하숙생활도 같이하고 학생단체에도 함께 가담하여 항시 행동을 같이하여 왔다.

당시의 우리의 사회는 3 · 1운동 이후 강압이 심한 일제의 폭정 하에서 정치와 법률을 공부하여도 그 능력을 발휘할 수 없었을 뿐 아니라, 잘못하면 그들의 노예적 지배와 시달림을 받게 되었던 것이었다. 차라리 의술(醫術)이라는 자유로운 기술을 배워서 불쌍한 식민지 백성으로서 굶주리고 헐벗고 병고에 신음하는 농민이나 상대하여 그들을 돕고 계몽하여 때를 기다리는 수 밖에 없다는 비장한 결심 하에 의학도가 된 사람이 많았었다.

학생시대를 통하여 우리는 기독교청년회의 조직을 중심으로 다른 전문학교 학생과의 연락이나 사회단체와의 연관성을 맺어 왔다. 기독교단체만은 당시의 조선총독정치가 이를 용허하여 주었기 때

문이었다. 의학공부엔 그리 열이 없고 뜻은 딴 곳에 쏠렸던 탓인지, 그의 행동이나 언어에 있어서 동급생들 간에서도 '알지 못할 존재'의 한 사람이라고 지칭을 받아 왔다. 우물우물 하는 유석창의 책 보따리 속에는 무엇이 들어있나 하고 모두들 의아심을 가졌고, 동급 일본인들은 더우기 이상한 시선을 던졌다.

당시 조선기독교청년회 청년부 지도자로 계셨고 청년운동의 맹장이었던 현 제2부 대학장 이대위(李大偉) 박사[北京大學을 졸업하고 또 미국 예일대학을 졸업한 애국심에 불타는 청년지사]는 각 전문학교에서 뜻 있는 학생 두 명씩을 선발하여 표면엔 '성경반'이라 하고, 내면엔 '동우구락부(同友俱樂部)'라는 비밀단체를 조직하여 민족주의사상을 고취하였던 바, 경의전(京醫專)에선 유 총장과 필자가 이에 참가하게 되었다. 그것이 기연을 맺어 금일의 건대에는 김정실(金正實) 교수까지 4명의 동우구락부원이 일하게 되었다. 또는 지금엔 고인이 되었지만, 유상규(劉相奎)라고 3 · 1운동 당시에 학생운동으로 말미암아 상해(上海)에 망명하여 安島山 선생의 애제자로서 활약하던 분이 경의전에서 공부하고 있었는데, 우리는 이 유씨와 제휴하여 비밀히 여러 가지 학생운동을 일으켜 일제 시엔 있기 어려운 우리나라 말로 된 『생존(生存)』이라는 소잡지를 발행하였었다.

그는 경의전 졸업 후 함남 장진이라는 압록강상류 산간벽지의 소읍 공의(公醫)로 갔다. 얼마 후 그는 이 자리가 어려운 환자를 상대로 소금(小金)을 축재하여 안일한 생활을 식(食)하는 것임을 깨닫게 되어 분연히 그 직을 사(辭)하고 서울로 올라 왔다.

적수단신으로 상경한 그는 그때의 경성역에 하차하여 자기가 타고 온 기차에 향하여 "내가 뜻한 바 소기 목적을 달성하지 아니하면 다시 죽어도 이 기차를 타지 아니 하겠다"고 맹서하였다 한다.

그후 그는 서울에서 물심양면으로 가진 고초를 겪어 가면서 당시의 사회유지 주로 3 · 1운동 시의 33인을 중심으로 사회영(社會營) '민중병원(民衆病院)'을 창설하여 돈이 없어 병고에 신음하면서도 치료하지 못하는 불쌍한 사람들을 실비 내지는 무료로 치료하도록 하였다. 이 때문에 의료업자 간에서는 비난과 모함을 받았고, 일제관헌으로부터 사상이 불온한 '불령선인' 취급을 받아 가면서도, 그는 꾸준히 이 사회사업을 계속하였다. 사상적으로 주목을 받은 그는 경찰의 탄압을 당하기도 여러 차례였으나, 그는 시종일관 초지를 굽히지 않았다.

그 후 민중병원은 해가 가고 달이 감에 더욱 지반이 굳어져 현 낙원동 교사(그때의 협성실업학교 교사)를 매수하여 그 규모를 확장하려 하였다.

그러던 차에 8 · 15라는 해방이 우리 민족에게 내리게 됨에, 눌리고 눌렸던 그의 가슴 속의 원한은 풀려서 병원보다 학교 특히 자유에 굶주렸던 이 겨레에게 정치를 가르쳐 훌륭한 인재를 양성하여 건국에 이바지하여야 되겠다는 평소의 웅지를 실현단계에 옮기게 되었다.

본교가 정치대학관으로부터 출발하여 정치대학으로, 그로부터 다시 장안동 벌판에 70여만 평의 기지를 가진 대 건국대학교로 발전한 이면에는 유 총장의 피와 땀이 얽혀져 있음을 잊을 수 없다. 재단을 쌓아 놓고 모든 조건이 구비한 학교를 운영함에도 수완과 기술이 필요하거던, 하물며 적수공권

으로 금일의 대 건국대학교를 성취한 주인공의 인물과 열성과 노력에 있어서랴! 이제 졸렬한 필치로써 그의 인물평을 더 쓸 필요조차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의학에 있어서도 인류학을 연구하여 일제 시에 이미 의학박사의 학위를 획득한 그는 개인의 병을 치료하는 작은 의자(醫者)가 아니고, 민족이나 국가나 인류의 전체에 좀 먹어 가는 큰 병을 치료함에 뜻을 기울이고 있었던 것이다.

특히 우리 민족에게 역사적으로 오랫동안 깊이 뿌리박힌 고질을 근치(根治)하려면 보통의술이나 서투른 수술을 하여서는 도저히 불가능한 것이라고 생각하여, 그는 특수한 의사 즉 이 겨레의 만성 고질을 능히 치료하고 일보 나아가서는 그 체질과 영양을 개조할 수 있는 의사를 양성하여 앞날의 행복을 약속하여 주려는 결심을 한 것이다.

유 총장이 뜻하는 건국대학교는 이러한 남다른 의사의 양성소요, 일꾼들이 배태되어 나아 갈 터전이다. 건국대학이라는 큰 병원은 성 · 신 · 의의 약을 가지고 민족 전체의 병을 고칠 수 있는 기술을 습득시켜 주는 곳이라고 알면, 유 총장의 뜻하는 바를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항언(恒言)에 '무(無)에서 유(有)를 낼 수 있는 창의성을 가져야 한다' 또는 '어떤 부문에서든지 개척자가 되어, 맡은 바 소업(所業)을 성취할 수 있는 용기와 기백과 열의를 가져야 한다'하였으니, 이것이 그의 지론인 동시에 자기 자신이 스스로 실천하여 온 목표이다.

견인불발(堅忍不拔)의 그의 지조, 일제 36년에 밟아 온 그의 역사가 이것을 그대로 나타내고 있다. '동지'라고 하며 '친우'라고 하는 필자는 마음 스스로 부끄러운 '영합적 생활'을 하여 왔으되, 그는 백절불굴의 깨끗한 생애 그대로를 지켜왔다. 내가 아는 사람 중 가까운 친우 중에 이런 결백한 애국지사가 있다는 것을 스스로 자랑으로 생각하지 아니할 수 없다. 그의 선친 일우(一憂) 선생은 오직 하나의 염원이 '조국독립'이라 하여 이름조차 '일우'라 하셨는데, 그가 심어 놓은 그 '근심의 씨'는 그의 아들에 이르러 꽃이 피고 잎이 달려, 조국을 빛내게 될 것으로 굳게 믿어 맞이 아니한다.

청아한 그의 사생활! 아는 사람은 그의 가회동 사택의 정경을 짐작할 것이다. 참으로 선비의 '청빈' 그대로이다. "민족이나 국가가 고난에 빠져있는 이런 때에 어찌 우리가 개인의 안일을 생각할 수 있을 것이냐"라고 말하는 그에게는 조금도 거짓이 없다.

'공과 사의 엄연한 구별'이것이 오늘의 대 건국 대 건설의 주초적(柱礎的) 역할을 하였으며, 누구나 따르기 어려운 그의 고결 청빈을 유지하게 한 것이다. 잡음이 많고 소연(騷然)한 금일의 우리 사회에서 가정적 분위기 속에 소리 없이 자라가고 있는 건대의 모습은 그의 공정하고 결백한 인격의 반영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의리에 살고 의리에 죽을 수 있는 신념은 그의 몸에 밴 철두철미한 인생관이다. 공죄의 구별이 엄연한 그는 신상필벌(信賞必罰)의 원칙에서 십년을 하루같이 지켜 왔으며 대의에 어그러지지 아니한 사람이 그와 사귐을 끊었다 함을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였다.

또 그는 계획성이 풍부하여 주야를 헤아리지 않고 한 가지 일을 끝까지 파고들어 설계 실천토록

한다.

오늘의 건대를 꿈꾸고 그 기지를 마련함에 있어서, 서울 근교 어디나 그의 발자욱이 가지 아니 한 곳이 없을 정도였다.

9 · 28수복 직후 세상사람은 갈팡질팡 할 때에 그는 일찍 돌아와서 학교기지 얻기에 분망하였고 자기집의 황폐는 돌보지도 아니하였다. 선견의 혜안으로 주위가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장안동 터전을 마련하였던 것이다.

그의 학문과 연구가 토목건축과는 숟혀 인연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가 이 방면에 있어서 전공자 이상의 기술과 계획이 있다는 것은 금일의 장안동 전체의 토목과 건축이 모두 그의 두뇌 속에서 울어 나왔다는 것으로써 넉넉히 짐작될 수 있을 것이다.

과로한 결과로 그는 현재 건강에 해를 보고 있다. 의사의 친우인 필자로서 수차 휴양을 권고하였으나 그는 대답하기를 "일하다 쓰러지면 고만 이라"고 고집하며 한가히 지내기를 원하지 아니한다. 그 불타는 의욕 강한 책임감에는 저절로 머리가 숙으러질 따름이다. 그러면서도 그는 자기가 바친 노력의 대가를 요구하지 않는다.

그는 명예욕이 없는 사람이다.

누구나 세상사람은 물욕이나 명예욕이 없는 사람은 없다.

그러나 유 총장은 묵묵한 가운데 일하고 그 공적이 나타나는 것을 원하는 것보다도 자기가 한 업적이 거름이 되여 후일에 공은 다른 사람이 이룰 것을 목표로 일하고 있다.

해방 후 그에게 모 고관에 취임하기를 권고한 일이 있었다. 그때 그는 자기의 임무가 학교를 완성함에 있지, 개인의 영예나 입신을 위한 것이 아님을 말하고, 그것을 고사하였던 것이다.

인간은 역사의 일환인 것만큼, 그 연쇄의 일환적 역할만 다한다면 누구나 그 맡은 바 역사적 사명을 다하는 것이다.

이 임무를 마치기 위하여 부여된 능력의 전부를 발산한다면 그것이 지상의 명령에 복종함이오, 인류사회에 끼치는 보람일 것이라는 굳은 신념에 살고 있는 유 총장의 의도는 반드시 앞으로 건대생에게 침투되어 진실한 개척자가 나오고, 의리에 살며 신실(信實)하게 믿어지는 민족의 지도자가 되어 성화같이 민족에게 비쳐질 줄 믿는 바이다.

썩은 청어(靑魚)의 무력한 눈동자의 소유자가 되지 말고 우리 건대 일감호에 뛰놀고 있는 잉어(鯉魚)의 광채롭고 생생한 눈의 소유자가 되어, 이 세상을 똑바로 판단하고 정시(正視)할 수 있는 일꾼이 나오기를 바라는 바이다.〔「총장 '유석창'론」, 『건대학보』 7호, 건대사, 1959〕

4) 김건(문리대 명예교수 · 윤리학)

(1) 해제

주어진 제목이 「상허정신의 이념적 정립」인데, 아마도 상허 선생의 정신을 체계적으로 서술해 주기를 바라는 것 같이 생각된다.

그러나 상허 선생은 철학자나 사상가는 아니다. 우리가 그분을 존경하는 것은 그분의 인간성이다. 나는 그분을 모시고 15년 동안 일을 같이 해왔는데 내가 탄복한 것은 그의 계획성이나 선견지명이나 그의 업적이나 모든 면에 있어서 그 우월성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아니나, 그런 것들은 다른 사람에게서도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으나 내 일평생 직접 인간을 접촉할 때 한 번도 상허 선생에게서 받은 것과 같은 인상을 받은 일이 없는 그런 인간성을 발견한 것이다.

언젠가 그분에 대하여 나 개인의 인상을 쓰라 할 때 나는 서슴치 않고, "나는 그분의 지성심(至誠心)을 감내할 수가 없었다."고 표현하였던 것이다. 그 인상은 그와 더불어 같이 일을 해보지 않으면 발견할 수 없는 그의 인간성이다. 앞으로 구체적으로 설명하겠거니와 그 일이 비록 적은 일일지라도 옳은 일이오, 유익한 일이면 목숨을 걸고라도 끝장을 보려는 데는 나는 견디어 낼 수가 없었다는 뜻이다.

그의 인간성의 정점은 조국을 위하여 일생을 바치겠다는 생각뿐이다. 그것뿐이다. 이것을 상허의 정신이라고 하든지, 사상이라 하든지, 그의 인생철학의 전부라 하든지, 그의 윤리관의 근거라 하든지, 그의 철학적 이념이라 하든지 어떻게 표현하여도 무방하다. 왜냐하면 그분에게서 그 생각 하나를 제외하면 그의 인생은 공허해질 것이다.

그는 언제나 나에게 이런 말로 겁을 주었다.

"내가 하고 싶은 그 일을 못하게 하면 나는 오늘부터 밥숟가락을 놓고 말겠으니 그리 아소."

이러한 사람이니 어찌 그 지성심(至誠心)을 견디어 낼 수 있겠는가.

그러므로 이 「상허 정신(常虛精神)의 이념적 정립(理念的定立)」이라는 주어진 제목에 적합할는지 않을는지는 몰라도, 어떠한 사상적 이념의 체계의 정립이라는 학문적인 서술보다도 그의 정신의 정점이 무엇이었으며, 그 정신으로부터 연역(演繹)된 실천윤리사상을 깊이 파헤쳐 보려 한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그는 애국자다. 그러나 그는 어떠한 성격을 띤 애국자인가 생각해 보면, 애국하는 길에도 여러 가지 유형이 있을 줄 안다.

(2) 애국의 유형

오늘 조간(朝刊)(1975. 11. 21)에 「독립유공 김XX 옹(翁) 별세」라는 기사가 사진을 곁들여 보도되어 있는 것을 보고 다시 느낀 바 있다.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이 이런 사람뿐일까. 3천만 민족이 어느 누가 애국하는 마음이 없을까. 그런데 어찌하여 이런 사람만이 보도의 기사거리가 될까. 아무래도

애국하는 일에도 등급이 없지 않은가 보다, 하고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다.

이 김 옹(翁) 같은 사람은 국가에서 표창한 독립유공자의 한 사람일 것이다. 제일급의 애국한 사람, 이러한 유형 속에 넣을 사람들을 애국의사, 투사, 용사, 전사 등으로 표현할 수 있어 한 목숨 던져 죽음을 각호하고 조국을 위하여 몸을 바친 분들이다.

다음으로 우리는 흔히 애국자라는 존칭을 붙여 존경할 수 있는 분들도 많다. 일생을 나라와 겨레를 위하는 마음으로 개인이나 가족보다도 공(公)을 위하여 일생애(一生涯)를 바치는 사람이 없지 않다. 이는 쉬운 일이 아니다. 과연 애국자의 존칭을 받을 만하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애국적 생활을 꾸준히 하고 있는 일반국민이 있다. 공사(公私)를 명확히 분간하여 국가의 법질서와 사회의 도덕규범을 준수하면서 생활하는, 그야말로 정당한 위치에 서서 일생을 마치므로 양심적인 시민의 생활을 하는 사람—이러한 자세의 국민이 많을 때는 그 나라는 부강해질 것이다. 틀림없이 그들도 애국적 국민이다. 그것은 애국이라고 호칭할 수 있는 한계점일 것이다. 그러한 균형을 파괴하고 사리사욕에 치중한다면 그들은 비(非)애국자 유형에 속한다고 아니할 수 없다.

(3) 상허는 어떠한 유형의 애국자인가

상허 선생은 위에서 말한 모든 애국자유형에 속하는 것이 특징이다. 하나의 인간으로서 아무리 그 생애가 길다하여도 그 모든 유형을 한 몸으로 실천하기는 힘들 줄 안다. 상허가 70의 생애를 지속한 것은 그의 본의(本意)는 아니었다는 것을, 나는 그와 더불어 15년이라는 긴 세월을 같이 살아오면서 느낀 결론이다.

그는 자기의 생명을 송두리째 걸고 독립군에 가담하였던 소년 · 청년시대로부터 일평생 그 생명을 아낌없이 던져놓고 하루하루를 살아 왔으나, 뜻밖에도 70평생을 기적적으로 유지해왔으니 본의 아닌 70평생이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는 애국투사 · 애국지사, 그리고 애국자 · 애국적 시민 등의 모든 존칭을 한 몸에 받아도 지나친 표현이 아니라는 실증을 나는 이곳에서 몇 마디 밝혀보려 한다. 비록 짧은 글이나마 그 실례(實例)의 한두 마디로도 그의 인품과 인간성을 엿볼 수가 있을 줄 믿는다. 나는 그를 어떤 불세출의 영웅이나 다른데서 찾아 볼 수 없는 유일무이한 애국투사로 표현하고자 하는 뜻은 없다. 그는 하나의 애국자임에는 틀림이 없으나 나 개인적 입장에서 말하고 싶은 상허는 그의 애국적인 언론이나 애국적인 운동이나 업적에서 발견된 상허가 아니라, 그러한 애국적 활동을 하고 있는 상허의 인간성을 밝히려는 데 있다. 왜 그러냐하면, 나는 그의 말과 그의 업적에서 그를 존경하는 것보다 그의 인간성을 접해보는 데서 어디서나 누구에게서나 찾아볼 수 없는 감격을 받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의 사상적 체계나 업적의 평가보다도 그의 인간성을 밝히는 것이 그의 정신의 전모(全貌), 아니 그 인생의 전모가 될 것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는 어떠한 유형의 애국자냐 하는 말의 대답은 간단하다. 그는 일생을 하루같이 생명을 걸고 조국을 위하여 봉사의 정신을 발휘하신 분이다. 그 결과 나타난 것이 그의 업적일 것이나 그 업적의 평가보다도 나는 오히려 누구나 가질 수 없는 그의 '하루같이 생명을 걸고'하는 그의 조국애의 지성(至誠)을 높이 평가하고 싶은 것을 알아주기 바란다. 그것은 나 개인이 그와 더불어 15년간 일하면서 그의 인간성에 접촉함으로써 얻는 체험의 결과다. 물론 그를 둘러싼 모든 인사들도 대강은 짐작할 수 있으나, 누구나 깊은 곳과 세밀하고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알지 못하고 그를 영원히 작별했을 것이다. 인간의 정신은 유전성도 있겠으나 대개 사회 환경에서 구성된다.

(4) 상허의 의식구조 분석

나에게는 상허 선생의 의식구조를 분석하기에 적당한 재료를 한 가지 가지고 있다. 그것은 상허 선생이 친히 취임한 녹음테이프다. 나는『건대 25년사』편집의 책임을 지고 수년간 원고를 작성 또는 정리할 때 설립자의 전기(傳記)를『교지(校誌)』첫머리에 자세히 써넣기 위하여 상허 선생으로 하여금 자기의 일생의 지난 일을 말로 서술케 하고 나는 녹음기에 넣어 참고했던 것이다. 나는 그 녹음테이프를 그의 아드님에게 드렸으니 보관되어 있을 줄 안다.

그 녹음의 첫머리는 그의 어린 시절을 회상하며 그의 가정에서 일어난 일의 정경을 묘사한 대목이다. 그 정경은 그야말로 일평생 잊을 수 없는 인상이오, 언제나 그 정신배후에 자리 잡고 그의 정신적 성격의 중추가 되어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 심리학으로 보아도 인간의 정신적 성격의 구성은 10세 미만에서 이루어진다고 하거니와 그는 11세에 부형(父兄)을 따라 만주로 망명하기까지 그의 가정환경은 그 자신이 녹음기 앞에서 서술하신 대로 "그때 우리 집안은 날마다 초상난 집과 같았지요." 하고 말씀하셨던 것이다. 왜 상갓집 같다고 했을까.

한말 일제의 강압에 못 이겨서 침략의 첫발걸음이 을사보호조약으로 시작되었고, 마지막 망국이 1910년 8월 19일에 이르러 소위 경술합병이다. 그동안 상허의 나이는 6세로부터 11세이다. 이 11세에 이르러 만주로 망명의 길을 떠날 때까지 그의 가정은 상갓집 모양이라고 말한 것이다. 그때 그의 집은 함남(咸南) 단천(端川) 신동촌(新東村)이었고, 그의 부친은 일우(一憂)라고 아호(雅號)를 지어 개칭하시고 항일투쟁을 하니만치 애국투사이시다. 기독교 장로의 직을 받고 자기의 사가(私家)를 예배당으로 겸용하였으므로 더욱이 을사보호조약이 체결된 이후로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예배당으로 모여 유일우 장로를 중심으로 국가의 앞날을 개탄하며 민족의 울분을 터트리며 방바닥을 치며 벽을 주먹으로 두드리며 통곡하는 처참한 광경을 날마다 밤마다 목격하게 된 상허소년은 처음에는 영문을 잘 모르면서도 같이 울었고, 몇 해를 지내는 동안에 철이 들면서는 민족이니 조국이니 하는 낱말이 가슴에 배고 뼈에 사무치게 되었던 것이다. 그 민족이니 조국이니 하는 낱말의 개념이 그냥 소학교나 중학교의 교과서에나 나올 때에 학생들이 받아들이는 인상과는 달랐을 것이다.

상허 선생께서는 언제나 어디서나 조국이라는 말을 자기 입으로 말할 때나 또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들을 때나 항상 가슴이 뭉클하여지며 눈물이 핑 도는 격정을 금할 수가 없다고 말씀하셨다. 그러한 정경을 나도 수십 번 목도한 일이 있다. 사업에 대한 실천적 의지가 얼마나 강하냐 하는 문제는 그 사업을 해야 하겠다는 동기가 얼마나 강하였나 하는 것에 정비례한다는 말이 있거니와, 상허의 목숨을 거는 사업열(事業熱)의 의지력은 그 어린 시절의 뼈에 사무친 조국애의 강한 동기가 그의 의식구조에 깊이 뿌리박힌 까닭으로 해석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조국애의 강력한 인상이 그의 일평생을 지배했거니와 이제 한마디 더 그의 의식구조에 강한 인상을 남기게 된 사건을 한 가지만 더 말해본다.

1932년경으로 들은 듯하다. 그의 나이 서른 두 셋 때 상허는 천신만고로 후원회를 조직하고 현재 민중병원의 전신인 중앙실비진료원을 종로 YMCA 옆에 설립하고 그의 뜻대로 무산동포(無産同胞)를 위하여 실비와 무료로 의료사업이 본격화되었을 무렵 단천(端川) 고향으로부터 부친께서 상경하신다는 소식이 왔다. 부친께서는 오랫동안 옥고를 치루고 출감하시었으나 아직 몸이 쇠약한데 상경의 소식은 천만 뜻밖이었던 것이다.

밤중에 역(驛)으로 나가 반갑게 만나 모시고, 지금까지도 그 자리에 계셨지만 가회동 그 집으로 와서 "여기가 제 집입니다. 어서 들어가십시다." 하였더니 부친께서는 컴컴한 한밤중이라 잘 살펴볼 형편도 못되지만,

"이것이 네 집이냐?"

"그렇습니다."

"이거 기와집이 아니냐?"

"네, 조그마한 기와집이기는 합니다만…"

하고 대답했더니만 그 자리에서 돌아서시며 하시는 말씀이,

"나는 도로 단천 집으로 돌아가련다."

하신다. 상허 선생은 그 부친의 말하시는 뜻을 얼른 알아차릴 수가 없어 왜 그러시냐고 물으니, 부친은 노발대발하시어,

"너, 내 뜻을 몰라서 묻느냐? 네가 서울 오더니 사람이 변해 버렸구나. 우리 민족이 다 못사는데 네가 먼저 기와집에서 살아서는 안 되는 법이야. 서울장안에 초가집이 다 없어지면 너도 기와집에 살아도 무방하다. 나는 지금 기와집 쓰고 사는 너의 집에는 들어갈 수가 없으니 여관집으로 안내해라."

그때 상허 선생은 손이 발이 되도록 빌었다. 그리고 잘못했다고 빌기도 했다. 또한, 지금은 자정이 넘어 여관도 찾을 수 없으니 내일 밝는 대로 곧 여관으로 모시고 갔다가 고향집으로 내려가시도록 하겠다고 겨우 진정시켜서 집으로 들어가시는 승낙을 받았던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그것으로 낙착이 되지 않았던 것이다. 병약하신 몸에 상경하기까지의 고생과, 밤새도록 대문 밖에서 추위로 떨며 고생한 동티가 나서 그 이튿날 아침부터 일어나시지 못하시고 시름시름 앓으시다가 별세하시고 말았으니 상허 유 박사의 가슴은 얼마나 아프셨으며, 따라 그 선친의 유언 아닌 유지가 얼마나 뼈에 사무치셨는가를 우리는 짐작할 수 있다.

이러한 상허 선생이 어떻게 그냥 애국하는 척하는 심정을 가질 수 있으며, 그 애국지성(愛國至誠)으로 진행되는 일에 대하여 애국자연(愛國者然)하는 건성 치레나 하고 말 수 있었을까. 그의 조국에 대한 사랑은 그의 생명보다도 더 사랑하는 정신이 아닐 수 없게 된 깊은 동기가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그는 나라와 겨레를 위한 충성심(忠誠心)과 부모에 대한 효성심(孝誠心)이 아울러 그의 애국적 심정을 깊이 뿌리박게 되었으니 그의 일생의 모든 업적은 크거나 적거나 그 지성(至誠)의 발로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다음으로 내가 그분을 모시고 직접 경험한 몇 가지 이야기를 적음으로써 그분의 지성(至誠)이 어느 정도인가를 말해보고자 한다.

(5) 죽음보다 강한 지성

상허 유 박사의 생전의 업적은 이미 세인(世人)이 주지하는 바이다. 그분의 장례식의 광경을 보아도 그의 인덕(人德)이 얼마나 고귀하였던 것을 짐작할 수 있었을 것이다. 국가에서는 표장의 훈장(勳章)을 내리고, 수천 명의 조객(吊客)이 운집하였고, 경향각도군(京鄕各道郡)에서 농업기술자대표가 수백 개의 조기(吊旗)를 들고 나와 장안벌판에 인산인해를 이루었으니 그가 교육계 의료계 또는 농민들을 위하여 얼마나 큰 업적을 남겨 놓았는가를 능히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나는 처음부터 이 글을 쓸 때 그의 업적의 크고 적음을 논할 생각보다도 그분의 생활을 뒷받침한 그분의 정신이 어떠한 것인가를 밝혀보려는 데 있었던 것이다.

이제 나는 그를 참된 애국정신을 가진 지성(至誠)의 애국자라고 했다. 그러면 그는 과연 어느 정도의 지성(至誠)을 가진 애국자인가. 그것을 밝히기 위하여 그와 더불어 일하는 동안 수십 번 수백 번 나 스스로 당한 일을 하나의 적은 일화 격으로 몇 가지만 발표하려 한다. 그러나 이러한 이야기를 발표함으로써 도리어 그분의 어떤 약점을 들추어내는 결과가 되지 않을까 심이 송구하나 나의 본뜻이 그의 지극한 민족애를 표한코자 하는 데 있다는 뜻을 아신다면 지하에서도 용서해 주시리라고 믿고 이 글을 쓴다.

그 분의 측근자는 누구나 대강 짐작하고 있을 것이다. 그는 수십 년 전부터 염오병(厭汚病)이 있다. 그는 의학박사로 균에 대한 지식이 풍부한 까닭에 균에 대한 공포증이 생긴 것이다. 그렇게 된 원인도 잘 알고 있으나 그 원인은 밝힐 필요가 없으므로 그만둔다. 하여간 유 박사는 균이 포위한 세계 속에서 생존하고 있다는 공포심 속에서 일생을 마치셨던 것이다.

그분이 학교에 나오시는 길로 세면소로 직행하여 손을 완전히 닦고서야 집무실로 들어오시고, 또는 손님이 오셨다가 돌아가면 그 즉시로 나가 또 손을 닦는 그러한 습관이 있는 것쯤은 누구나 다 알

고 있는 사실이다.

그러나 그런 정도라면 다른 사람에게도 흔히 있는 일로서 그리 대단한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할는지 모르나, 유 박사의 문제는 그런 정도가 아니다.

유 박사는 수십 년간 가정을 떠나 정릉 산속 외딴 집을 마련하고 거기서 혼자 지내셨다. 나는 공사간(公私間) 그의 집을 꽤 많이 출입한 셈이다. 그러나 그분의 방에는 한 번도 들어가 본 적이 없다. 여름에도 출입문 외에는 문틈까지 바르고 외풍이 통하지 못하게 한다. 한번은 마루에 선채로 그 방 속을 구경한 일이 있다. 그 방안에는 이부자리가 한 벌 장판방 한 구석에 놓여있고, 입으셨던 양복 한 벌이 벽에 걸려 있을 뿐 그 외에는 읽던 책 한 권이 놓여있는 외에 아무것도 없다. 그러나 놀란 것은 그런 문제가 아니다. 구석구석에 쓰다버린 종잇조각이 수두룩하니 그냥 쌓여있고, 또는 먼지 같은 쓰레기가 벽 옆으로 상당히 쌓여있다. 나는 그분에게 물었다. 저 쓰레기는 어쩐 셈이오 하니까 유 박사의 답이 걸작이다.

"걱정 마시오, 저 방안에는 세균이란 놈은 한 놈도 침범 못합니다. 저 지저분한 종잇조각들은 처음부터 충분히 소독되어 있는 물건들입니다. 한 주일에 한 번씩 온몸을 소독한 분이 들어와 청소하니까 염려할 것 없소. 자! 저리 마룻방으로 나가 일이나 합시다."

그에게는 손을 깨끗이 닦는 것쯤으로 안심할 수 없는 모양이다. 문으로 들어오는 공기도 소독을 해 놓아야 밤새도록 안심하고 호흡을 할 수 있는 정도라면 그가 문밖에 나와 공기 중에서 호흡하는 것조차 큰 모험이오 사생(死生)을 결단하는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이러한 그의 심정은 그야말로 아무도 짐작할 수 없는 그분의 사생활이다.

이러한 괴로운 심정을 가지고 어떻게 일생을 보냈는지 참으로 알 수 없는 일이다. 그러나 이미 착수한 민중병원일이나 우리 건대의 일은 학장으로, 이사장으로 또는 총장으로의 직책은 목숨을 걸고라도 그의 성격으로 보아 태연한 자세로 집무를 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정신적 고통을 겪으면서 어찌하여 그 고달픈 사회사업을 그렇게도 크고 넓게 벌여 놓았는가 하는 까닭은 그 자신의 정신상태 아니고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그의 저서 『한국농업의 미래상』 또는 『조용한 혁명』 등에서 보인 바와 같이 그는 남은 여생을 한국농촌의 근대화에 바치겠다는 결심으로 하고 한국지역사회개발협회와 전국농민기술자협회를 창설하고 그 회장과 총재로 활동할 때 나는 비록 학장을 연임하면서도 그의 사업을 협조하기 위하여 그 협회의 상무, 부회장, 부총재의 직을 맡아 그분을 모시고 전국을 방방곡곡 누비고 다니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그러나 보통 같으면 그런 정도의 활동은 웬만한 정열만 가지면 누구나 감당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유 박사에게 있어서는 문제가 다르다. 지방순회 할 때 마다 꼭 같은 문제가 열 번 백번 되풀이 되는 고역을 한결같이 치루어야 했다. 한마디로 말해서 유 박사는 한 번도 빠짐없이 완전히 목숨을 걸고 지방순회의 길에 나섰던 것이다.

한번은 제주도에 모시고 갔다. 비행기에서 내리는 길로 호텔에 들어가 가장 정결한 방을 골라 드렸다. 유 박사는 문을 꼭 잠그고 저녁 식사 때까지 꼭 두 시간 동안 가지고 온 알콜통을 열어놓고 소독을 했다. 담벼락 · 문창 · 침대 · 담요 · 마룻바닥 · 슬리퍼 할 것 없이 그 방속에 있는 모든 것을 알코올로 닦고 그때부터 자기 옷과 구두 그리고 온몸을 닦아낸 것이다.

저녁밥이 올라왔다. 나와 마주앉아 식사를 했다. 유 박사는 수저를 알코올로 소독을 해서 들고 앉았으나 자! 어디다가 수저를 대나하고 망설일 뿐, 그러나 할 수 없는 일이다. 밥그릇 복판을 헤치고 밥을 한술 떠 입에 넣기는 했으나 찬을 집을 수 없다. 할 수 없이 생선토막을 헤치고 속으로 한 점 뜯어서 입에 넣었다. 하여간 이런 식으로 식사를 마치었다. 이런 말을 내가 말하면 그분을 아는 친근자들은 너무 과장한 표현으로 알 것이다. 왜냐하면 그와 같이 식사를 한 경험이 있는 분은 별로 그런 모양으로 식사하는 정경을 보지 못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유 박사는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까지 심각한 표정을 보이지 아니하는 것은 여러 사람 앞에서는 그 음식을 먹고 그 자리에서 죽는다 해도 남에게 불안을 주고 싶지 않은 생각에서 그렇게 태연한 모습을 보이셨던 것이다. 그러나 서로 이미 자기를 이해하고 오해하지 않을 사람과 단 둘이 있을 때는 최대한 세균에 대한 방어책을 쓰는 것이다.

그때 제주 읍에서 하룻밤을 지내고 이튿날 아침 서귀포로 가게 되었다. 떠날 때 오늘밤은 어디서 자느냐고 묻기에 서귀포 호텔이라 하니까, 유 박사의 말씀이 잠은 여기 와서 자고 다른 데로 갈 수 없겠느냐고 하신다. 왜 그러시냐고 하니 유 박사의 말씀이, 거기 가면 또 그 방을 소독해야 할 터이니 소독약이 부족할 것 같다고 하신다. 나는 그때 서귀포에서 일 보고 그날 밤 호텔에서 같은 방을 사용하면서 당한 고생은 잊을 수가 없다. 여전히 소독의 절차는 끝나고 더운 8월 달이나 할 수 없이 문을 꼭꼭 닫고 자리에 누웠는데, 난데없이 모기가 한 마리 앵앵 소리치며 나타났다. 일어나 불을 켜고 파리약 펌프로 잡고 다시 불을 끄고 누워 잠이 들려하면 또 그 소리가 난다. 잡고 눕고 잡고 눕고 하기를 몇 차례 한 후에야 커튼으로 가리운 들창의 유리가 한 장 빠진 것을 발견하고 커튼으로 틀어막기는 했으나 이미 날은 밝아 아침이 되고 말았던 것이다.

제주서 돌아오는 비행기는 오후 4시경에 하나, 그리고 6시경에 하나 있었다. 나는 6시 비행기로, 그는 4시 비행기로 서로 의견이 맞지 않았다. 서로 고집을 하다가 최후에는 4시로 결말을 본 것은 그분의 심정을 솔직하니 토로한 데 기인했다. 그분의 말씀이 "여보시우, 내 사정을 좀 봐주시오. 나는 집에 가면 이렇게 긴 여행을 한 후에는 내 방의 소독과 내 몸의 소독을 하는 시간이 적어도 세 시간이 걸릴 터인데, 내가 늦게 집에 도착하면 소독으로 밤을 새우게 되니 내일 일은 어떻게 하란 말이오. 다만 두 시간이라도 자야하지 않겠소. 내 사정 좀 봐 주시우." 하시는 데야 어찌 내 고집을 내세울 수가 있겠는가.

위에 든 여행 한 가지 예로써 능히 짐작이 갈 줄 안다. 그분은 죽음을 각오하고 일을 했으며, 죽음을 각오하고 악수를 했으며, 죽음을 각오하고 농촌순회를 했다.

나는 이따금 농담 비슷이 그분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 꼭 가셔야 할 곳만 가시고 웬만한 일은 모른 척해 달라고. 그러나 막무가내다. 한번은 이 부총재 집에서 부친상을 당했다. 인천 근처 농가다. 내가 대리로 문상을 하겠다하나 듣지 않으신다. 나는 화를 내면서 그런 고역을 당하면서 왜 이러시느냐고, 상허가 살아있어야 할 일을 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고 음성까지 높인 일이 있다.

그 때 하시는 말씀이,

"딱한 친구, 내말 좀 들어보우. 사람이 저할 노름 다 못하면서 목숨만 부지하면 그것이 사람이랄 수 있겠소. 죽는 것은 내 몸일는지 몰라도 죽일 수 없는 것은 내 정신이 아니겠소. 자 어서 같이 갑시다."

하신다. 내가 처음 말한 바와 같이 나는 그의 지성심(至誠心)을 감당해 낼 수 없었다는 뜻을 대개 짐작이 갈 줄 안다.

그분은 그러한 균에 대한 공포에 싸여 생활을 지속한 까닭에 신경성 질환으로 여러 가지 병이 몸에 배이게 되어 그분의 포켓 속에는 언제나 5, 6종의 약이 들어 있었고, 하루에도 수없이 약을 입에 넣지 않을 수 없었다. 그의 애국지성(愛國至誠) 때문에 스스로 사서 고생하면서 일생을 마치신 상허 유 박사를 생각할 때 애국한다는 그 정신은 참으로 힘든 일이로구나 하고 항상 생각한다. 상허정신의 이념적 정립이라는 학문적인 논술을 할 수 없는 바는 아니나 그의 인품의 고결한 모습을 추모하는 나의 센티한 심정으로서 아! 참된 애국자여! 하는 감탄사 외에 무슨 말을 더 중언부언 하리오.(「상허정신의 이념적 정립」, 『건대학보』 제29집, '특집 · 1 본교 창립 30주년 기념논단', 1976)

5) 정범석(鄭範錫)

상허 선생이 세종시대에 태어났다면? 위대한 세종시대라 치적(治績)이 크게 올라 국민생활은 질서가 유지되고, 문화가 향상되어 젊은이의 청운(靑雲)의 꿈을 크게 자극하고 있으니 아마 있는 정성을 다하여 상허 선생은 집현전 학사(學士)가 되고, 세종대왕의 지우(知遇)를 받아 역사에 남는 문화의 창조에 이바지를 했음즉 하다.

상허 선생이 19세기에 영국에 태어났다면? 영국의 문화에 자기도취(自己陶醉)만 하지 않고 방대한 영국 식민지를 돌아다니면서 서구문화의 수출 그리고 영국의 식민정책의 개혁을 위해 동분서주하는 사회사업가 이였음 즉 하다.

그러나 선생은 세종시대에 우리나라에 태어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세계를 지배하던 19세기 영국산도 아니며, 구한말 20세기 초 한국의 선각자 애국자의 가정에서 태어났다.

선생은 운명은 이러한 시대적 배경, 민족적 배경에서 결정되어진 것이다. 선생의 모든 업적은 이러한 환경을 사상(捨象)하고는 잘 이해할 수 가 없을 듯하다.

건대 창립을 둘러싼 갖가지 비화 내지는 일화도 이러한 배경을 전제하고서 비로소 그 뜻을 이해할 수 있을 듯하다.

이하 몇 가지 선생의 행적에 역사적 배경을 투사(投寫)시켜 그 뜻을 음미해 본다.

(1) 태자(太子) 호(虎)의 여운(餘韻)

운장(雲長)의 옛 이야기는 선생의 인생향로(向路)를 결정하게 된 연유(緣由)를 이해시킬 듯하다.

조조가 관운장과 혼사를 청한 일이 있었다. 1세(世)의 풍운아 조조가 가장 존경하고, 그 인간성에 그야말로 홀딱 반하여 극진한 대우를 한 분은 관우일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조조가 청혼을 한 것이다. 부귀를 겸할 정도가 아니고 장차는 중화천지(中華天地)의 정권을 잡게 됨이 목전에 임박한 조조이건만, 운장은 "태자호녀(太子虎女)"가 혼인할 수 있느냐고 대갈일성(大喝一聲)으로 거절하고 말았다. 이것의 사실여부는 아는 바가 없다.

다만 사람의 자손은 사람이지 개새키도 아니고 호랑이 새키도 될 수 없다.

그러나 삼세지습(三歲之習)이 지우팔십(至于八十)이란 말이 있다. 유년 소년시대의 교육은 평생을 지배한다는 것도 진리가 아닐 수 없다.

상허 선생과 같은 빼어난 소질을 가진 이가 만일 간상모리배(奸商謀利輩)의 가정에 태어났으면 오늘의 안동김씨 세도가로 내일은 민비(閔妃)의 친정푼이기에 아부하면서, 벼슬아치로 세월을 보냈을 것이요, 또는 일세(日勢)가 도도할 때라면 하루 속히 그 문을 두드리고 일어(日語)를 배워 일제 36년간 부귀를 누리다가 해방과 더불어 자작애국자(自作愛國者)가 되어 자유당 민주당 공화당으로 동가숙 서가식(東家宿西家食)할 듯하다.

그러나 선생은 1905년 11월 17일 을사보호조약이 체결되며 실신상태가 되며 벽에 머리를 찧고 몸부림치는 유일우 선생, 땅을 치며 방성통곡(放聲痛哭)하는 애국자의 가정에 태어났다. 6세 된 아이가 무엇이 무엇인지 알 턱이 없지만, 하여간 평소에 그리도 근엄하던 아버지 인자하신 어머니가 통곡하고 한마을 남녀노소의 추앙을 받는 아버지를 찾아와 그들이 같이 통곡하는 것을 보고 자꾸만 울고 있었다.

총명과 용기를 유달리 품부 받은 6세의 유아는 이런 가정에서, 한 평생 통해서 변치 않고 항상 새로운 기운을 내는 애국심을 갖고 인생을 다할 때까지 애국을 떠나서는 살 수 없게 되었다.

호랑이의 자식은 호랑이가 되고, 애국자의 자손은 애국자가 되기 마련인 듯하다.

마치 애국지사 안태훈 선생의 가정에서 안중근의사가 태어났듯이!

(2) 대지(大知)와 하우(下愚)는 불이야(不移也)니라

공자님의 위대하심으로도 교육에 한계가 있다는 것을 절감(絕感)하셨으리라고 추측된다.

천하의 영재가 공문을 두드렸건만, 대성(大成)을 한 분은 그렇게 많다고 할 수 없다. 흔히들 10대 제자론도 들을 수 있고, 72현(賢)도 나오는 것이다. 아무리 훌륭한 성인이 가르치더라도 본 자질이 허무해서야 어찌할 수 없는 것 아니겠는가. 그렇기 때문에 아주 훌륭한 사람은 생이지지(生而知之)를 하는 것이니 반드시 그 선생이 훌륭하지 않더라도 대성할 수 있다. 그와는 반대로 썩은 나무에는 아로새기지 못하는 법이다.

상지하우론(上知下遇論)으로 볼 때, 상허 선생은 정말 총명했고, 놀랄 정도로 용감했다.

선생은 어릴 때 대단히 발육이 좋았다고 한다. 생후 1년 만에 돌떡을 가지고서 제법 5리 길이나 되는 일가친척을 찾아 갔다고 선생의 백씨장(伯氏丈)께서 말씀하신 일이 있다.

1년의 유아! 겨우 몇 걸음 걸어도 장하다고 칭찬을 하는 것이다.

만일 말이라도 몇 말하고 그것이 제법 소견 있는 소리라면 한 가정에 큰 경사나 난듯하게 떠들고, 신혼가정의 첫 아이일 경우, 육아일기에 대서특필(大書特記)하게 될 듯하다. 다시 말하면 오늘날과 같이 영양이 충분하고, 위생시설이 고도로 되어 있고, 육아법이 보급된 수도 서울의 상류가정에서도 그러하다.

그런데 70여 년 전 산촌의 넉넉지 못한 지사(志士)의 가정에서 이러한 아이가 태어났다니!

5리 길을 물론 어린 아이가 혼자서 찾아갔다는 말은 아닐 듯하다. 대개 업혀서 가다가는 피로해서 잠이 깊이 들어 어찌된 줄 모르는 것이 보통 아이들의 모습일 것인데, 자기의 돌떡을 알고 그것을 갖다 준다고 좋아하고 그리고는 그곳까지 가서 그쪽 어른들을 알아보았다는 뜻인 듯하다. 하나의 경탄(驚嘆)할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런 이야기를 회상해 보면서 상허 선생을 대한 일이 한 두 번이 아니다.

비록 키가 그렇게 크시지 않고 체중이 과중하지 않고, 정상적이기는 하나 전신이 빈틈없이 균형 맞고 특히 골격이 유난스럽게 빼어남을 느끼곤 했다.

상허 선생은 분명히 의학을 전공하셨고 의학박사이었다.

그러나 상허 선생과 대화를 할 때 사회과학을 하는 사람으로서 늘 놀라울 정도의 사회과학에 관한 말씀을 하시며, 정말 식은땀이 등골에 배여 내림을 느낌은 나 하나뿐이 아닌 줄 안다. 선생의 글, 선생의 강연은 말할 것도 없고 평소의 말씀은 높은 식견이 엿보이는데 그것이 그저 상식적인 것, 이른바 들은풍월이 아니고 몇 십 년 전 아무의 저서는 이러 했고, 몇 년 전 아무의 논문에는 저러했는데, 우리나라의 실정이 이러하니,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는 식으로 논리를 전개하신다.

일제의 식민정책은 이라지도 말고, 근세사에 있어서, 식민정책의 발전, 식민정책의 일반이론에 관하여는 일가(一家)를 이루고 계심을 피부에 느낄 수 있었다. 특히 현대의 고민인 민족문제, 빈부문제에 관하여서는 노후까지, 신지식의 흡수에 게으름이 없으셨던 것으로 알고 있다.

상허 선생의 해박한 지식, 탁월한 식견은, 노력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그 풍부한 총명 때문이고, 총명만 가지고 될 것이 아니고, 민족을 구하고 사회를 인도하려고 할 때, 가로막는 애로를 극복하기 위하여 노력했기 때문이라고 이해된다.

(3) 견의불위(見義不爲)는 무용야(無勇也)라

학자에게 만일 결점이 있다면 무엇일까? 첫째 용기가 없다든지 무기력하다드니……이러한 답이 많이 나올 듯하다. 관념의 유희만으로 잘난 체 하면서 실제에는 조그마한 실행도 못하는 이가 있다면, 그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장안 벌판에 유구한 역사를 자랑할 건대의 터전을 마련한 분! 민중병원도 세우고 건국대학을 세운 분! 그분이, 지식이 있다고 해서, 애국심이 뛰어난다고 해서, 이러한 큰 사업을 할 수 없는 것이다. 거기에는 용기가 수반되어야 한다.

상허 선생의 9세 때의 일이다. 부친의 심부름으로 20리나 되는 이웃 동리(洞里)로 가야 했다.

가다가 한 노인을 만났다. 아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인사도 아니하고 갈까하다가, 그 표정이 너무나 수심기가 많았다. 사연인즉, 그 안날 폭우가 내리어, 다리가 떠내려갔고, 노인은 소를 몰고 그 냇물을 건너가야 하는데, 도저히 할 도리가 없어서……9세의 아이가 소를 몰아 냇물을 건너게 하였다고 말을 했다.

될상 싶은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본다고, 노인은 어린아이의 장래가 대단할 것을 미리 짐작되기도 했으나, 불안해서 말리지 않을 수가 없었다. 그러나 9세 아이일망정, 그 야무지고도 굵은 골격이 나타나고 말이 어른다워서 고삐를 못이기는 듯이 내주었다.

고삐를 허리에 거뜬히 매고 풍덩 물속으로 뛰어 들었다. 소도 어슬렁 뒤를 따랐다. 노인은 불안초조에 좌불안석이었다. 처음 얼마동안은 순조롭게 가는 듯하더니, 아차 하는 순간에 소년은 물살에 휩쓸려 허우적거리기 시작했다!

냇가 전답에서 일하던 농부들에 의해서, 수난을 겨우 면하게 되었다.

아마 백 사람, 만 사람의 9세 아동들에게 이런 일 하라 해도 한 사람도 하지 못했을 것이다. 이것은, 지식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오직 자연이건 사람이건 자기의 가는 길에서 방해를 하고 도전할 때, 최후의 일각까지 응전하려는 용기가 없이는 하지 못할 일이다.

상허 선생은의 한 평생은 실로 안정을 무시하고, 끊임없이 신개지(新開地)를 개척하신 분이다.

상허 선생의 이러한 역사를 이해하는데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어떠한 도전에도 응전해서 승리하려는 용기가 있었음을 알아야 한다. 일찍이 역사학자 토인비는 도전에 대해서 응전하고 승리할 때, 민족의 발전은 약속된다고 했거니와 선생의 역사는 토인비의 이 주장을 증명하는 것만 같다.

1910년 경술합병! 일제하의 노예생활을 견딜 수 없어, 어버이를 따라 만주 봉천성의 장백에서 망명생활을 시작한 것이 선생의 11세시(歲時)!

이때부터 기구한 운명의 도전을 받게 되었다. 선대부인(先大夫人)께서 수토불복(水土不服)으로 도착 5일 만에 병석에 누우시고, 선장(先丈)께서 동분서주 독립지사 종교인들이 20명 전후하여 수시로 밀려드니, 11세 이후 몇 년 동안, 병환 구료, 손님 치다꺼리를 해야 했고, 그것도 정성껏 해야 했으며, 그 위에 학숙(學塾)에 다녀야 했고, 나아가서는 소년광복수장으로 혹은 남만주군비단 참모로 분골쇄신 활동하지 않을 수 없었다.

선생은 기한(飢寒)에 쪼들리고 선대부인 병석에 선장(先丈)의 신변위험에! 하루도 편하고 안정할 날이 없으며, 마침내 손등에 동상까지 입었다. 그러나 젊을 때 고생은 은을 주고 산다고 했거니와, 선생은 이 시련을 이겨냈다.

첫째 일제가 단시일에 패주할 것 같지 않다. 둘째 그렇다면, 물가에서 고기를 맨손으로 잡으려는 어리석음을 범할 것이 아니고 그물을 만들어야 한다. 즉 학문을 하여 장구지책(長久之策)을 마련해야 한다고 결심했다. 이런 계획으로 피나는 노력을 했기 때문에 그러한 불우한 환경에서 학교에서 수석을 할 수 있었고, 조선인으로서 경성의학전문학교도 입학할 수 있었다.

그리하여 공의가 되고 밋숀병원 의사가 되었으며, 생활이 안정되고, 민족보건에 이바지할 수 있었으니, 안착할 수 있었건만, 이것을 헌신짝같이 버리고, 적수공권(赤手空拳)으로 서울로 올라와서 마침내 민중병원을 설립하고야 말았다.

해방이 되어 최고훈장을 받고, 정부의 높은 자리의 교섭이 있었으니, 그야말로 입신양명! 의료계의 대원로(大元老) 대노학자(大老學者) 대공로자(大功勞者) 그리고는 최대의 병원 그리고는 장학국회의원 등이 마음대로 하고자하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할 터인데, 이런걸 다 싫다 하시고, 정치대학을 세우고……말할 수 없는 애를 써서, 정치대학이 잘 되어가니 그로써 만족해야 할 것인데, 이것으로 끝이지 않고, 또 축산대학, 전국농업기술자협회……무리한 발전……

어느 의미로서는 무모에 가까울 정도로 대담무쌍(大膽無雙)하다고 세인은 평하였다.

그러나 9세 아이가 수심에 가득찬 노인을 위해, 물을 건너던 그 용기는, 마침내 이해(利害)를 돌보지 않고, 세론(世論)을 두려워하지 않고,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좋은 것이면 두려움 없이 달려드는 용기가 오늘날의 건대……를 만들게 했다고 할까!

(4) 배수지진(背水之陣)

평범한 사람의 한 평생을 살펴보면, 그 공통점으로서 전력을 다하지 않는 점에 있지 않을까?

출세를 위주로 하는 사람의 속성에는 타산(打算)이 빠르고, 매사에 주산(珠算)을 재빠르게 놓아, 위험성 없는, 확률이 높은 일을 찾아다니는 것이 아닐까?

그러나 의를 위하고 민족을 위하는 마음으로 일관되어 있으면, 이와는 정반대인 것을 알 수 있다. 하지 않으면 안 되니, 할 따름이지, 그것이 자기에게 유리하고 불리하고를 계산해서 하는 것이 아니다.

안중근 의사가 고향에 부모 처자(妻子)를 두고, 겨우 29세로 생리사별(生離死別)을 하여 만주로 떠날 때, 부를 귀를 명예를 위해서는 못하는 일이다. 오로지 나라를 침략했던 원흉을 없애며 민족의 운명을 바로 잡기 위해서이다. 그때 안 의사의 마음속에 성공하리라고는 차라리 1%도 기대하지 못했지 않았을까? 그러나, 자기가 희생하더라도 이토(伊藤)의 살해를 시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간 것이 아닐까? 상허 선생과 안 의사를 비교하려는 생각은 없다. 다만 일제하의 의사로서의 상허 선생의 심경을 추측해 본다. 혹은 개업의(開業醫)로, 혹은 밋숀병원에 의사로서 한 평생 일해보아도, 민족을 위한 영향이 대단치 못할 것을 잘 알고 있었고, 그 당시에 요구되는 것이, 무료병원이요 실비병원임을 확신했다. 일개 청년의사로서, 이런 생각은 이상을 넘어서 공상에 가까울지 모른다. 그러나 그 당시의 자기가 해야 할 일이 그 길이니 하는 것뿐이다. 그리고 해야 하니 전력을 다할 뿐이다. 전력을 다하는 길은 배수진을 치는 것이다. 허위로 병을 일으키고, 또는 거짓 편지라도 시켜서 적당한 구실을 만들어 직장에 휴가를 얻어서, 그 일을 시작할 수 있는 것이다. 서울 올라와서 일이 잘되면, 실비의원을 설립하고, 여의치 않으면 그 직장에 되돌아가고! 합리적인 영리한,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얄미운 사고방식일 듯하다.

서울역에 기차가 도착했을 때, 승객은 앞을 다투어 나가는데 홀로 남은 선생은 기관차를 향해, 혼잣말로 맹서를 하는 것이다. "자기는 절대로 자기의 목적이 성공될 때 까지는 기차를 타지 않겠다고!"

상대방은, 청중은, 화자(話者)의, 연사(演士)의, 결심에 따라 감격 동조의 도(度)가 달라진다.

선생의 이러한 결사불퇴전(決死不退轉)의 결심은 마침내 뜻있는 분의 호응을 받게 되고 전 매스-콤의 협력을 얻게 되었다.

(5) 구일신(苟日新), 일일신(日日新), 우일신(又日新)

진실로 날마다 새롭고, 날마다 날마다 새롭고, 또한 날마다 새로워야 한다.

정말로 중국의 은(殷)시대 탕제(湯帝)의 세숫대야에 이런 것이 쓰여져 있었느냐를 따지려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수양 목표로서 가장 멋진 것 중의 하나가 아닐 수 없다.

대학교수의 이미지를 생각해 본다. 학기마다 같은 강좌의 강의건만, 강의의 내용에 변화가 있고, 진전이 있어야 한다. 학기마다 학년마다 새 연구가 나타나니 말이다. 한 시대의 통설이라 하더라도, 시대가 변천되고 사회가 상이할 때, 차라리 새 학설이 나옴이 너무나 당연하다.

구미의 선진대학에서는 대학교수가 정당한 이유 없이 1년이나 2년을 두고 논문을 발표하지 않으면 어찌될까? 설령 논문을 발표했다 하더라도, 그 논문이 빈약하다면 어찌될까? 두말할 것 없이 교단을 물러서야 하지나 않을까? 가사 사직을 겨우 면한다 하더라도, 학계나 학생들 사이에 손가락질을 면치 못할 듯하다.

상허 선생이 병원을 그리고 학교를 세우며 농촌진흥에 주력하지 않고, 만일 순수하게 학자생활 연

구생활을 했다면, 어떠했을까 하고 간혹 나는 생각한 일이 있었다.

"정말(丁抹, 덴마크)이 비록 면적과 인구, 또는 자연자원이 풍부하다 할 수 없어도, 노벨상을 받은 사람이 10명을 상하(上下)합니다……"

우리 건대 교수 중에서 천하의 대학자가 배출되기를 염원해서 이런 말씀을 더러 하셨다.

"적당한 사람 있으면 학교를 맡기고 내가 연구실에 들어갈까?"하고 몇 번이고 걱정하셨는지 모른다. 만일 선생이 학구생활에 전염하셨으면, 시대에 앞서는 소수설(小數說)을 계속 발표했을 것은 틀림없는듯하다. 특히 사회과학을 하셨더라면, 틀림없이 그랬을 듯하다. 그 사회에는 그 법이 있고, 그 학설이 있는 것이다. 사회나 법이나 학설이 연관성 없이 존재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A사회 A시대에 A학설이 있었건만, A사회가 시대의 흐름에 따라 변하건만, 학자가 미처 깨닫지 못한다면 구태의연한 학설이 신시대(新時代)에 맞지 않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에 변천을 빨리 알고, 그것에 상립(相立)한 이론을 전개할 수 있어야 훌륭한 학자이라 할 수 있다.

상허 선생의 한 평생의 업적을 조심스럽게 보면, 항상 시대의 변천, 시대의 요구를 다른 사람보다 먼저 직감하는 듯하다. 때문에 학자로서의 상허 선생을 그려볼 수 있다.

선생의 날마다 새로워지는 면은 다른 곳에서도 우리는 엿볼 수 있다. 선생의 호주머니에는 늘 종이 쪼가리가 여러 개 있었고, 그 종이마다 무엇이 적혀 있다. 회의를 시작하거나, 지시할 때에는 그 종이의 메모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 혼자 계실 때, 저녁, 밤 중 새벽, 할 것 없이 시간만 있으면 늘 어떤 일을 구상하시고, 구상하시다보면, 새 지혜, 새 현상이 나타나니, 그때마다 그것에 상응해서 구상을 하는 것이다.

장안동 넓은 벌판에 건물이 자꾸 들어설 때이다. 지금 정문에서 시계탑으로 뻗치는 대로의 자리가 정착될 때까지는 아마 여러 차례 변경을 거듭했을지 모른다. 이런 것은 한번 두 번이 아니다. 이런 것을 선생의 일일신(日日新)하는 그 천성(天性)을 이해못하고서는 올바르게 이해할 수 없는듯하다.

(6) 언제나 젊은 분

청년은 꿈을 가진다. 꿈을 가진 사람을 청년이라 한다. 그렇기 때문에 호적연령(戶籍年齡)으로 젊다고 해서 반드시 청년이 아니고, 육체가 늙었다고 해서 무조건 노인으로 취급할 것이 아니다. 꿈 가진 사람만이 청년이다. 꿈이란 가능성에 대한 정열이라고 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볼 때, 상허 선생이야 말로 영원한 청년이라고 할 수 있다.

여러해 전의 일이다

비서가 "어떤 할머니가 찾아왔습니다. 명함이 …이랍니다"하고 보고를 했다.

상허 선생은 들은 듯도 하고 안들은 듯도 하여 하여간 만나기로 했다.

"아이고, 선생님……" 하고 절하는 안노인을 보고, 선생이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젊을 때 밋숀병원에 함께 있던 간호원을 여러 10년 후에 만났으니……

"이렇게나 큰 사업을 할 분을?"

간호원 할머니의 여운을 남긴 말에 주위에서 의심적스러워서 묻지 않을 수 없었다.

상허 선생은 밋숀병원 재직시절에 세인과 다른 모습이 뚜렷이 있었다고 한다.

음악을 논하거나 미술을 애호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스포츠를 즐기거나 오락에 몸을 바치는 것도 아니고 그저 환자 없는 오후면, 의례히 병원 유리창 너머의 먼 산이나 바라보고, 무엇인가 생각에 잠겨 있는 것이 통례(通例)이어서, "저이가 실연했나봐" 하는 풍설까지 돌았다고 했다. 선생이 실비병원 무료병원을 설립한다는 그 꿈을 꾸고 계신 줄, 그리하여 조국의 변천에 따라 헤아릴 수 없는 꿈이 움트고 있을 것을 미처 몰랐다는 것이다.

(7) 군맹(群盲)의 망발(妄發)

상허 선생은 끝까지 교육자이었다. 정말 정열적이며, 쉬지 않는 그리고 어떠한 사람이건 은악양선(隱惡揚善)하는 교육자이었다. 갑을 대해서는 갑의 감정을 부각시켜 갑이 그 장점을 충분히 발휘할 때 갑의 장래는 이러이러 하리라고 격려하심을 잊지 않으셨다. 그러나 갑이 우둔하고, 갑이 삐뚤어져 있을 때, 거두절미하고 자기는 훌륭한 사람, 적어도 천하의 상허서생이 이러이러 하게 칭찬한 사람으로 오해할는지 모른다. 그러나 조심스럽게 살펴보면, 결코 그런 것이 아니고, 간접적으로 여러 가지 암시를 하여 그 사람의 소질을 최후의 일각(一刻)까지 키워보려는 지성(至誠)에서 나오는 말임을 알 수 있다.

흔히, 상허 선생은 "무에서 유를…" 하고 말을 하신다.

세상일이란 꼭 자기가 지위를 가지고 자력을 가져야 되는 것이 아니고 오직 사람이요, 정성이 필요하다는 뜻이다. 그러나 이 뜻을 실감하는 사람은 의외로 그렇게 많지 않을지 모른다. 사회를 위하고, 국가에 유리한 일이면 오직 그것을 일깨워주고 조직하고 움직이게 하면 된다. 제아무리 권력이 있고 돈이 있다 해도 정의에 어긋난 일을 오래할 수는 없는 것이다. 이 일은 상허 선생의 생활의 신조이요, 한 평생 실천해 온 일인 듯하다

이상 상허 선생을 뫼시고 수십 년 있던 사람으로 그 편모를 그려보려고 했으나 역부족임을 통감하지 않을 수 없다. 군맹(群盲)이 코끼리를 그리려는 전철(前轍)을 다시 한 번 본의 아니게 밟고 말았다. 죄스러움이 크다.「常虛先生의 片貌」,『학술지』 20(건국대학교 창립 30주년 기념), 건국대학교 학술연구원, 1976. 5]

6) 김두헌(金斗憲)

(1) 친근(親近)의 시종(始終)

건국대학교 창건 30주년을 맞이하여, 그 후반의 15년간 본교 교직에 재임 중인 본인으로서, 이 나라 고등교육계에 위대한 훈공(勳功)을 남기신 고 유석창 박사를 추모하는 심회(心懷)는 진실로 간절하다. 여기에 지나간 날을 회상하면서 건국대학교의 끈임 없는 발전상을 전망하는 것은 그다지 의의(意義)없는 일이 아닐까 한다. 그런 중에는 혹시 미비한 점이 있을까 두려워하나, 이는 자세히 알지 못한 점도 있고 또한 지면(紙面)도 한정되어 있어, 이루 다 말할 수 없다는 점을 양해해주시기 바랄 뿐이다.

지나간 날을 회고하건데, 6 · 25사변의 당시 서울에 있던 여러 대학들이 부산에로 피난 중, 가진 고난을 무릅쓰고 그대로 강의를 계속하고 있었음은 새삼 말할 것도 없는 일인가 한다. 마침 그 무렵 본인이 국립 서울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는데, 정치대학 가교사(假校舍)에서 본인에 대한 축하의 의미로 학생들에게 시국에 관한 교양강연을 해달라는 청탁이 있었다.

그 당시의 실정으로는 국내의 박사학위수여가 처음 일이었느니 만치 세인의 이목도 희귀했거니와, 피난중이라 무슨 축하를 할 만한 처지도 아니었는데, 그러한 초청을 받은 본인으로서는 무척 기쁜 일이었다. 그리고 강연이 끝난 즉석에서 유석창 학장이 기념패(트로피)를 증여해 주셨다.

그 당시 본인은 문교부 고등교육국장 겸 서울대학교 총장대행으로 있었고, 정치대학과의 특별한 관련도 없었는데, 이러한 후의(厚誼)를 베푸신 것은 무슨 관직자라 해서가 아니라, 학위수여에 대한 유 박사의 진정한 축의에 다름 아니었으니, 본인으로서는 길이길이 감사의 뜻을 버리지 않고 왔었다. 여기에 유 박사와의 친분이 맺어진 시초(始初)의 인연인가 했다. 그런데도 나는 거기에 대한 아무런 답례도 하지 못했었다. 휴전도 되기 전에 나는 지방의 C대학교의 총장으로 전임되어 자주 만나 볼 기회가 없었기 때문이기도 했었다.

그 후로 4 · 19의거가 일어날 무렵, 나는 서울 S여자대학교 총장직에 재임 중이었는데, 문교부 주최로 서울소재 여러 대학의 총 · 학장회의가 개최되었을 때, 그 자리에서 담화를 나눌 기회가 없었기에 그저 유 박사와는 바라다보면서 고소(苦笑)를 나누었던 생각도 떠오른다.

그 당시의 실정으로서는 대학행정의 적임자들이 대체로 불의의 변동으로 인하여 어쩔 줄을 몰라 추세를 관망하면서 혼란의 수습에 분망(奔忙)하던 참이었다. 그러던 중에도 유 박사께서는 난국을 잘 극복하여 대학의 정상화를 기(期)하였건만, 나는 한동안 고초를 겪어오다가 미구(未久)에 S대학에서 퇴임하고 말았다.

우울한 수개월을 외롭게 지나다가 T대학교 교수로 초청을 받고 한 학기를 지나고 난 동계휴학(冬季休學) 중(中)에, 건국대학교의 유석창 총장께서 새로 된 대학원의 학장을 모색하다가, 때마침 서울대학교 대학원장으로 재임 중이던 R박사의 추천으로 나를 선정하기로 했었다. 나로서는 의외의 일이오, 재임 중이던 T대학교에 대해서 미안하게 되었지만, 유 박사의 간곡하신 권고도 있었고 장래의 포부도 존경할 만하였기에, 드디어 응낙하고 말았으니, 이제 건국대학교의 한 교직원으로서 인연을 맺게 되었고, 특히 유 총장의 애호와 은혜를 입게 되었다.

지나간 15년간 나의 건대 교직생활을 회상할 때, 상허 선생의 능숙한 행정을 견문하고서, 나 자신 교육행정가로서의 자격이 미급(未及)했다는 점을 새삼스럽게 자각한 바 있었다. 그래서 학처장회의(學處長會議)에 임석(臨席)할 때나, 그 밖의 다른 기회에 당(當)해서도, 나의 책임인 대학원에 관한 문제밖에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그다지 관여하지 않겠다는 태도를 취했었다. 하기야 때로는 기왕의 경험에 비추어 무슨 견해가 없는 것도 아니었건만, 유 총장 또는 유 이사장께서 의당 잘하시리라고 믿고 될 수 있는 대로 함구의 자세이었다.

그러는 반면에 나로서는 학구(學究)에 정진하겠다는 결의로 나서서, 그동안 8권의 저서를 냈었다. 이는 오로지 상허 선생의 은덕으로 알고 있으며, 거의 반세기에 걸쳐 온 나의 교직생활에 유종의 광영(光榮)을 얻게 된 셈이다.

그런데, 나로서는 좀 께름칙한 점이 있다. 내 딴에는 책임을 맡은 이상 대학원의 학칙을 엄수하려던 것인데, 일부 교직원이나 대학원 학생들 사이에 나를 까다로운 분이라고 평(評)했기에 말이다. 애당초 내가 재미(在美) 1년 동안 거기 대학원 교육이 아주 엄격하였던 점을 견학한 바에 비하면 우리나라 여러 대학원 전반에 걸쳐 매양 강의가 소홀히 되어있는 점을 시정해야겠다는 각오가 절실했다.

그래서 강의도 제 시간대로 착실히 하고 규칙도 잘 지켜가자는 것인데, 이를 까다롭다 하니, 그것이 지나친 점으로서 상허 선생에게 와전(訛傳)되지나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남아 있다. 쓸데없는 변명일지 모르지만, 규칙을 엄수하자는 일을 까다롭다 함은 이해가 잘 안 간다는 점을 말해둘 뿐이다.

그러한 점은 고사하고, 상허 선생은 건대를 위한 희생의 정성을 다 바친 나머지, 노년기에 들어서 매양 복약(服藥)을 하고 계시던 모습이 나로서는 좀 걱정스러웠다. 의사이시니 의당 알아서 하실 일이지하고 생각하면서도, 건대의 건설과 발전을 위한 과로의 소치(所致)라는 나의 심경이었다.

이제 상허 선생에 대한 추모의 심정은 절실하지만, 선생의 남겨 놓으신 유업(遺業)과 공덕은 구원(久遠)의 광영(光榮)으로 전해갈 것을 확신하는 바이다. 여기에 나의 상허 선생에 대한 사모(思慕)의 정의(情誼)는 더욱 간절하다.

(2) 고매(高邁)한 인품(人品)

전해들은 바에 의하면, 상허 선생은 한말 애국지사 유일우 선생의 차남으로서, 부친의 한일합병에 대한 항일 망명에 따라 만주에 가서 수학(修學)의 소년시절을 지냈고, 청춘의 의기(意氣)로 광복운동에 참여하기도 했었다. 그런 중에 기미년 독립운동이 일어나자 재만독립군(在滿獨立軍)의 선도

(先導)에 나서기도 했었다.

우국애족(憂國愛族)의 벅찬 심정을 가슴에 안고 뜻한 바 있어 이윽고 귀국하여, 경신학교에서 중등교육을 보완한 후에, 경성의학전문학교에서 수학(修學)의 기회를 갖추었다. 의사의 자격을 얻어 금의환향의 기쁨으로 인군(隣郡) 내(內)에서 인술(仁術)을 베풀었고, 한동안 카나다 밋션계(系)의 병원에서 근무하면서 여러 가지 뜻있는 인상을 받기도 했다 한다. 그러다가 다시 서울로 돌아와 경성제대 의학부에서 연구를 깊이 하여 의학박사의 영예(榮譽)를 갖추게 되었다. 이미 종로 YMCA회관 아래층에서 민중병원을 개설하고 실비(實費) 그대로의 인술(仁術)을 베푸시었다. 그리고 그동안에는 조선보건협회장, 조선보건시보 사장, 조선과학협회장을 역임하셨고, 또한 여러 우국지사들과도 교분을 두터이 하시었다.

8 · 15해방 후로 상허 선생은 깊이 뜻한 바 있어 이 나라 교육계에 투신하기로 결의했었다. 그것은 바야흐로 애국심의 발로(發露)임에 다름이 아니었으니, 정말 비범한 착상(着想)이었다. 거기에는 또한 정치교육에 깊은 관심을 갖추었으니, 이는 곧 지나간 날 국권을 상실하고 일제치하의 애원(哀怨)을 회상하여 정치의 정도를 일으키려는 심후한 견식이었다. 게다가 해방직후의 정치적 혼란이 또한 심회(心懷)의 자극을 더했을 것이다. 거기에는 진실로 원시적(遠視的)인 포부의 발동(發動)이 열렬(熱烈)했을 것이다.

새로운 발족의 낙원동교사(校舍)는 애당초 구한말의 서북학회가 신축(新築)하였고, 이어 오성학교, 협성학교가 자리 잡았던 유서 깊은 벽돌집이었다. 여기에 유석창 박사께서 정치학관을 창설한 것은 참으로 바람직한 일이었다. 그 당시 일반적으로 대학의 한 학과로서 정치학과란 예사로 생각한 바 이었지만, 식자(識者) 중(中)에 혹은 좀 기이하게 보는 사람도 없지 않았으나, 상허 선생 자신으로서는 확고한 결단이 서 있었던 것이다.

상허 선생은 매사에 진중한 태도를 갖추시었고, 대화에 있어서 언제나 온후겸양(溫厚謙讓)한 자세이었다. 설사 자기 자신의 견해가 있을 때에도 그것을 앞서 내세우지 않고 매양 원만한 어조로써 상대방과의 의사를 화해(和解)하는 데에 능숙한 편이었다. 말하자면 외유내강의 품격이었기에 속되게 말해서 능소능대(能小能大)하다고나 할만도 했다. 경우에 따라서는 강변(强辯)으로 소신을 밝힌 바 없지도 않았겠지만, 학처장회의(學處長會議) 또는 교직원회의에 임하여서는 온화한 의장의 태세로서 자유로운 토의를 하도록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조성하였다. 이로써 언제나 원만한 회합의 성과를 거둔 대화의 명수이었다. 거기에는 우유부단의 결말로 그친 바 없었고, 일시적인 편법에 빠진 바도 없이, 공정무사(公正無私)한 결론으로 끝을 맺었었다. 이는 진실로 고명한 처사라 하겠다.

사적인 좌담(座談)이나 연석(宴席)에 임하여, 상허 선생은 언제나 유화(柔和)의 자세로 농담(弄談)도 즐기시었고, 모두가 흥취(興趣)를 이루게 하는 점에 유의하셨다. 이러한 경우에 상허 선생의 허허웃음이야 일품이었다. 여기에서 집무상의 과로는 해소되었을 것이다.

그런데 한 가지 기이한 몸가짐이 있었다. 때로는 방문객이나 친지와의 악수를 매양 기피하는 경향이었고, 경우에 따라서는 자택에 내방(來訪)한 객(客)이 나간 후에 그 사실(私室)을 소독한다는 말도 들렸다. 공직사무실의 문잡이도 간혹 소독하고 자주 손을 씻는 모습도 보였다. 이러한 점은 모두가 위생관에서 생긴 일인데, 의학자로서 '박테리아'가 너무 많이 보였기 때문이었겠다. 선생 자신도 오히려 괴롭게 생각하는 점이라 하셨는데 어쨌든 매우 딱한 일이었고, 일반인으로서는 웃을만한 일이기도 했었지만, 무슨 그릇된 일이라고 할 수는 없었다.

상허 선생의 사생활은 아주 검소했었다. 의식주의 일상생활에 사치스러운 모습이 전연 없었다. 그만한 지위에 있으면서도 호화로운 기색은 조금도 없었다. 공공의 건설 면에 있어서도 어떤 형식에만 흐르지 않고, 실질적인 면을 중시하는 편이었다. 말하자면 세칭(世稱)의 호걸이라기보다 고결한 지사(志士)이었다. 이 나라 고등교육에 헌신하게 된 동기도 바로 여기에 있을 것이다.

인간대사(人間大事)에 성쇠성패(盛衰成敗)란 없을 수 없는 일인가 한다. 상허 선생의 소위(所爲)에 또한 그런 점을 벗어나지 못했을 것이다. 여러 가지 훌륭한 성사(成事)야 이루 말할 수 없이 굉장했으나, 때로는 또한 불의의 실패도 겪었을까 한다. 그러나 거기에 낙망(落望)하지 않고 견인불발(堅忍不拔)의 정신으로 난경(難境)을 극복하여 재생의 의기는 충만하였다.

(3) 영광(榮光)의 업적(業績)

이미 언급한 낙원동교사(校舍)는 1945년 해방직후의 건국의숙으로서 시작되었고, 이어 조선정치학원이라는 재단법인이 설치되기까지에는 여러 가지 애로(隘路)가 많았으나, 유 박사의 끈덕진 백절불굴의 정성(精誠)에 의하여 정식으로 인가를 얻은 조선정치학관의 개강은 1946년 5월 15일이었다. 그래서 5월 15일은 건국대학교의 개교기념일로 되었거니와, 이어 5년 만에 정치대학이 창설되기까지의 초창기는 말할 수 없는 고난이 많았다가 또 6 · 25동란(動亂)을 치렀으니, 그 난관을 극복한 것은 참으로 장쾌(壯快)한 일이었다. 창업에는 수난이 따르기 마련이라 하겠으나, 그동안 유 박사의 노고야 이루 형언할 수 없는 일이었다.

정치학관이니 정치대학이니 하는 명칭은 유 박사의 심오한 정신이 잠겨있다. 이미 언급한 바도 있거니와, 우리나라의 국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조국의 광복을 맞이하고서도 정계는 혼란을 거듭하여, 정당(政黨)의 난립(亂立), 정견(政見)의 미숙(未熟), 공산당(共産黨)의 횡행(橫行), 외세로 인한 남북한의 분열 등등이 우국지사의 가슴을 아프게 하였다. 이제 유 박사는 바로 이러한 점을 뼈아프게 절감하고 청년층의 교학(敎學)으로써 치국의 정도를 일으키려는 결심으로 나선 것이었다. 그리하여 드디어는 건국의 기반(基盤)을 이루어냈다.

6 · 25동란(動亂)의 고난을 치르고 나서 유 박사는 민족융흥(民族隆興)의 백년대계를 수행하려는 결단이 더욱 굳어졌다. 그래서 이제는 종합대학으로 발전시키고자, 그러기 위한 교지(校地)의 확장과 재단의 강화에 온갖 열성(熱誠)을 기울였다.

새로운 교지(校地)를 이모저모로 모색하던 나머지, 마침내는 장안동에 그렇게도 광활한 지대를 잡게 된 것은 선견의 명(明)으로 이루어낸 영단(英斷)이었다. 그 당시의 실정으로서는 도심지대와 너무나 떨어져있는 허허벌판이었기에 측근자(側近者)들은 오히려 어색하게 생각할 정도이었다.

그런 중에도 유 박사는 원대한 포부로 교사건축(校舍建築)의 차분차분한 분포도를 구상하였고, 2만여 평이나 되는 인조지(人造池)를 마련하여 한강수(漢江水)를 끌어들인 일감호(一鑑湖)는 두드러진 하나의 명물로 되었다. 지나간 20여 년 동안 해마다 늘어나는 교사(校舍)의 증축, 교정(校庭)의 녹화(綠化), 대규모의 운동장, 희귀한 농축장(農畜場) 등등은 건국대학교의 무궁한 발전상을 그대로 나타내고 있다. 근래에는 서울특별시가 확장됨에 따라 강남구가 생겨나고 보니, 이제 서울의 변두리라는 견식(見識)은 사라지고 말았다.

건국대학교 재단의 육성을 위하여 유 박사의 고심혈성(苦心血誠)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거기에 감동하여 협조로 나선 분도 있었거니와, 그 중에도 정치대학으로 승격하던 당시 전라북도 고창의 명사 정계원씨(鄭桂源氏) (현(現) 재단이사 정세환씨(鄭世煥氏) 조부)의 거대한 소유지(전답(田畓)·임야(林野) 등 50수 만평) 기증은 지중(至中)한 협력이었다. 거기에는 유 박사의 막역한 향우(鄕友)인 석포 신태수 박사의 공로가 지대하였다.

사학의 법인재단으로서 수익을 도모하는 기업(企業)을 경영(經營)함은 당연하거니와, 일반세태(一般世態)로 보아서는 설립자의 사리(私利)에 편향하는 모습도 없지 않은 점에 비하여, 유 박사는 그러한 사욕이란 추호도 없었다. 건대설립재단으로서는 기업체(企業體)를 매우 다각적(多角的)으로 퍼져냈었다. 일찍이 흥국공사(興國公社)를 일으켜 증권수익사업, 목재소(木村所), 주정공장(酒精工場), 염전을 비롯하여, 요업(窯業), 배합사료공장(配合飼料工場), 양계(養鷄), 양돈(養豚), 낙농가공(酪農加工), 식품가공(食品加工) 등등이었다. 거기에 자세히는 몰라도 성패(成敗)와 득실(得失)이 있었음직 하거니와, 어쨌든 대학의 건설을 위한 정성(精誠)에서 이루어진 일들임에 틀림없었을 것이다.

교학(敎學)에 관하여 유 총장은 당초부터 농축(農畜)에 깊은 관심을 가지셨고, 특히 축산학과생 전원을 교비생(校費生)으로 하여 납입금 면제와 동시에 무료의 숙식을 제공하였으니, 이는 정말 희귀한 일이었다. 이어 농공병진(農工並進)의 견지에서 농공대학을 설치했다가 나중에 농대와 공대로 분리하였거니와, 또한 지역사회개발을 위하여 초급대학을 병설(併設)하였으니, 이도 조국근대화의 선도적인 견식의 구현이었다.

이와 동시에 여자초급대학을 병설하였다가 이어 가정대학으로 개편된 점은 새삼 말할 것도 없지만, 유 박사께서 이 나라 여자고등교육의 필요성을 절감하였다는 점을 또한 간과할 수 없을 것이다.

교학(敎學)과 아울러 교수들의 학술 진흥에 대하여 유 박사께서는 또한 성의(誠意)가 대단했었다. 이미 정치대학 시절에 10주년기념으로 창간된 학술지의 간행사에 유 박사는 그 당시의 심각한 회포(懷抱)를 다음과 같이 피력(披瀝)하셨다.

(상략(上略)) "우리가 정치대학창립 10주년에 즈음하여 이 '학술지'를 간행하게 되었음은 물론 집필하신 교수 여러분의 귀중한 연구와 노력의 결실이라 하겠지만, 전체로서는 역시 우리 대학이 걸어온 이러한 10년 속의 시간적 제약과 공간의 테두리 밖에 설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 논총 속에서 시련기의 허다한 고난의 자취가 아로새겨져 있으며 초창기의 수많은 미숙이 남아 있음을 면할 수 없다.

그러나 우리가 이에 대한 아무런 수정이나 개도(改塗)를 가(加)함이 없이 우리의 실재 그대로의 모습으로 이 책을 내놓게 되었음은 여기에서 우리의 지난날의 학구생활(學究生活)을 스스로의 비판대(批判臺) 위에 올려놓고 회고 반성의 재료로 삼으려는 것이며 다시 이를 '아우프헤벤'함으로써 새로운 10년의 나아갈 방향을 잡아보려는데 그 의의가 있는 것이다."(하략(下略))

과연 유 박사는 10년이라는 세월을 발전의 한 단계로 보는 원시적(遠視的)인 견식을 갖추어 있다 하겠다. 5·16군사혁명에 의하여 교육계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혁신이 진행되던 그 당시, 건국대학교의 쇄신작업도 여러 면에서 이루어졌었고, 교무행정도 변동을 일으키었다. 이에 대하여 새삼 말할 것도 없거니와, 정년제의 개정에 따라 유 박사는 총장직을 사퇴하게 되었는데, 그 사임사(辭任辭)에서, "앞으로 남은여생을 농축산업발전과 농촌개발을 위한 농민운동에 바치기 위하여 논두렁에서 죽는 죽음을 택하겠다."고 하셨다. 이제 명예총장으로 추대되었고, 이어 재단이사장으로 취임하게 되어, 교무의 일선에서 물러서자 전국의 농촌개발운동에 나섰다.

이미 1961년 10월에 한국지역사회개발협회를 사단법인으로 창설하고 그 회장으로서 그 선도자가 되었다. 그리고 또 전국농업기술자협회를 결성하여 그 총재로서 농민의 정신혁명, 농업의 기술혁명, 농촌의 생활혁명이라는 3대 기본이념을 내세우고, 전국적으로 그 운동을 전개하였다. 이에 따라 장안동 교지(校地) 내(內)에 농업기술훈련원을 설치하고 매년에 걸쳐 전국 농업기술자대회를 개최하여 독농가(篤農家)들을 격려하셨다.

이러한 공로에 대하여 정부에서 유 박사에게 공익포장(公益褒章)을 수여한 것은 정말 반가운 일이었다.

어쨌든 이러한 농업 진흥의 운동은 농민의 각성을 촉진하는 계몽의 의향이므로 그것은 필경 교육의 일단(一端)이라 하겠다. 여러모로 보아서 후진성을 면치 못한 농촌의 현대화는 중요한 일일 것이다. 그래서 유 박사는 이러한 점에 대한 저술(著述)을 마련하는 데에 유의하였으니, 이는 흥농사상(興農思想)의 구현이었다.

(4) 흥농(興農)의 특지(特志)

1967년 11월 유 박사는 『한국농업의 미래상』이라는 방대한 저서를 발간하셨다. 그 부제에 '서기

2000년대를 바라보며'라고 되어있으니, 앞날을 전망하면서 한국농업의 진흥을 촉성(促成)하려는 것이겠다. 그 서문의 첫머리에 "일제의 질곡(桎梏)으로부터 해방된 한국이 다시는 불행하게 되지 않고 영구히 잘 살게 되기 위해서는 고도로 발달된 복지문화국가를 건설하는 길이 그 유일한 방법이라는 지론을 필자는 다년간 생각하여 왔다"는 심회(心懷)를 그대로 표명하고 나서, 고도의 복지문화국이란 다음 4개항에 있다고 지적하였다.

"첫째, 민주정치제도하에서 국민의 한 사람 한 사람이 민주화되고 과학과 기술이 발달된 나아이오,
둘째, 국민성이 참되고 아름다워 협조와 인화(人和)가 잘 되고 항구평화(恒久平和)가 이룩되어 있고,
셋째, 모든 국민의 생활수준이 높을 뿐만 아니라, 균형 잡힌 경제성장을 이룩하고 있는 복지사회를 구현하고 있으며,
넷째, 도의적인 질서가 서 있는 자유국가로서 자기네 한 나라만 잘 사는 데에 그치지 않고 세계인류 문화에도 공헌하고 있는 문화국가를 말한다."

여기에는 복지를 누리는 문화국민으로서의 정신자세를 먼저 갖추어야 한다는 점을 내세웠다. 그리고 현하(現下)의 정세로 보건데, 경제발전을 기하여 농업을 무시하고 공업만을 중시함은 불가함을 지적하면서, 농업발전을 선행조건으로 하는 산업국가 건설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따라서 공업화를 위한 선도 산업으로서의 농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우리나라에서는 아직도 절대적이기 때문에 현 단계에 있어서는 공업입국(工業立國)을 장기목표로 하면서, 우선 농업개발에다 중점적인 총력을 집중해야만 된다.』고, 투철한 자신(自信)을 피력하였다. 이 점에서 유 박사는 농공병진(農工竝進)의 선도자라 할 만하다 하겠다. 이는 또한 1970년대에 시작된 새마을운동의 선구이기도 하다.

유 박사는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농업발전을 위하여 농민의 정신혁명, 농업의 기술혁명, 농촌의 생활혁명 등 3대 혁명을 제창한 바 있거니와, 본 저서는 이를 근본정신으로 삼고, 다음과 같은 순서로 논술하였다

제1부에서는 ① 한국농업의 현황분석, ② 한국농업의 장기계획과 그 전망, ③ 세계주요국가의 농업과 정책 등 서론적인 서술에 그쳤고,

제2부에서는 본서의 핵심이 되는 한국농업의 미래상을 완수하기 위한 방법론적인 서술로서 농업개발의 5단계론을 다루었다. 즉 제1단계는 위에 말한 3대 혁명개시의 단계요, 제2단계는 경영안정화의 단계, 제3단계는 자본형성화의 단계, 제4단계는 농촌공업화의 단계, 제5단계는 농공병진(農工竝進)과 성장균형의 단계로 구분하여 다루고, 이를 선도농가들이 3대 혁명을 실천하여 가야할 청사진으로 삼았다.

제3부에서는 한국자본주의체제를 분석하여 농민의 빈곤의 원인을 구명하고, 농민도 자본주의체제에 참여해야겠다는 점을 결론으로 끝맺었다.

여기에 그 내용을 상세히 소개할 겨를이 없거니와, 요컨대 서기 2000년대를 바라보는 한국농업의 미래상을 달성하는 방법론으로서 경제적 발전의 고차원적인 견해를 제창한 것이니, 거기에 본저의 주지(主旨)가 있다 하겠다.

유 박사는 본래 농학의 전문가가 아니었건만, 농업의 중요성을 절감한 나머지에 이러한 고명한 卓見을 제창한 것은 경탄할만한 일이거니와, 거기에 또한 열렬한 애국의 정성(精誠)이 잠겨 있다는 점을 더욱 경모(敬慕)하여 마지않는 바이다.

위와 같은 명저(名著)를 내신 그해 연말에 유 박사는 다시 생각한 나머지, 선도농가(先導農家)를 위하여 위에서 말한 농산업 3대 혁명을 알기 쉽게 『조용한 혁명』이라는 저서로 또 간행하였다. 여기에서는 앞으로의 농업개발이 농민 스스로가 자생 · 자립 · 자주 · 자발적인 정신혁명부터 감행하는 데에서만이 이룩된다 하여, 위에서 말한 3대 혁명의 정신을 알기 쉽게 부연한 저술이다. 그리고 마지막 결론에 선도농가들이 농민자본가로 될 것을 염원하면서, 농민자본주의란 곧, ① 농산업 혁명의 경제이념이 된다. ② 농민도 자본가가 될 수 있도록 경제체제가 조성되어야 한다. ③ 따라서 절대다수의 농민이 복지문화생활을 누리게 될 수 있어야 한다고 되어있고, "이 역사적 창업의 주인공들이야말로 바로 다름 아닌 조국이 부르고 있고 찾고 바라고 있는 오늘날의 선도농(先導農)들인 것입니다"라고 결론을 맺었다.

이와 같이 보건데, 농업 진흥에 관한 사상체계가 두드러지게 이루어졌다. 그야말로 한국농업의 미래상은 조용한 3대 혁명의 정신으로써 이루어질 것을 온 국민과 더불어 기대하여 마지않는다. 고래(古來)로 우리나라에서는 농자천하지대본(農者天下之大本)이라 해왔건만, 이는 그저 구래(舊來)의 전통(傳統)이라고만 볼 것이 아니라, 인간생업의 기반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여기에서 유 박사는 이 점을 중시하면서도 영농방식(營農方式)을 현대화 · 과학화 · 기계화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선진국인 서구의 중농주의 사상을 연상케 한다. 민주주의의 선진 프랑스에서는 산업 혁명에 따르는 중산주의에 편향하지 않고 중농주의를 내세운 선각자가 있었으니, 그는 곧 케네(Francois Quesnay)이었다. 그는 본래 의학자이었기에 병을 치료하자면 인체에 잘 진찰해야 하듯이, 병든 사회를 정상화하자면 자연의 지배를 본위(本位)로 삼는 중농주의(Physcocratie)라야 한다는 것이다. 의학자로서의 유 박사는 바야흐로 우리나라의 병든 후진상황(後進狀況)을 혁신하자면 중농사상으로 나서야만 되겠다고 간파한 것이었다.

그러한 사상적 근거에서 농업생산을 증강하기 위하여 기술혁명을 역설하면서도, 거기에 또한 성실 · 근면 · 용기의 도의적인 정신무장을 강조하고, 새로운 농민상을 『조용한 혁명』의 첫머리에 다음과 같이 명시하였다.

"국가의 장래는 그 나라의 젊은 국민의 근면한 기상으로써 점칠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성실된 국민성은 아름다운 인간성의 바탕이오, 이는 인화(人和)의 원본(原本)인 동시에, 사회발전의 정신적 모태가 될뿐더러 용감한 기질은 국난을 극복하여 세세무궁(歲歲 無窮)하도록 민족 번영을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誠) · 근(勤) · 용(勇)의 국민성이야말로 우리나라가 앞으로 길이 함양하여야 할 정신적 자세라고 하겠습니다."

과연 중농사상의 근제에는 도의적인 정신이 잠겨있음을 잘 알 수 있는데, 건국대학교의 건학정신에 근(勤)과 용(勇)이 추가된 셈이다.

(5) 교학(敎學)의 정신(精神)

"성 · 신 · 의의 교시 아래, 건대 전신 조선정치학관을 창립한지 어언 20년이 되었습니다.

건학의 동기는 일제의 사슬에서 벗어난 이땅 위에, 진실하고 부지런하고 용기 있는 국민성, 아름다운 문화, 과학 하는 생활, 바른 정치, 고루 번영하는 경제의 씨를 심기 위해서 이었습니다."

이는 건대창립 20주년 기념의『학술지』(제7집)에 전한 바, 그 당시 재단이사장 겸 건국학술연구원장 유석창 박사의 기념사의 일단(一端)이니, 여기에 건대의 건학정신이 잘 나타나 있다. 그리고 또 개교 25주년을 기념하는『교지(校誌)』(제1집)의 첫머리에 건학정신으로서 이렇게 되어있다.

"영재를 모아 인간교육에 치중하여 성(誠)과 신(信)과 의(義)의 덕성을 기르며, 진실하고 부지런하고 용기 있는 개척적 정신을 가진 인격을 배양하는 동시에, 고도의 과학과 기술을 무장하여 새로운 시대의 역사적 사명을 걸머지는 유능한 선도자를 배출하고자 하는 것이 이 대학의 건학정신인 것이다."

이와 같이 성 · 신 · 의는 건대의 교시로서 유 박사의 건학정신 그대로 이었다. 성 · 신 · 의라는 교시는 도의상으로 또한 교육상으로 지극히 존중한 교학의 기본정신이라 하겠다. 이제 그 실천 강령으로서 다음 12개항으로 되어 있다.

1. 진실과 지성(至誠)으로써 건전한 인격을 도야(陶冶)한다.
2. 신의와 협동으로서 도의질서를 세운다.
3. 악을 물리치고 의를 세워, 나라와 겨레에 공헌하는 새로운 기풍을 일으킨다.
4. 정성과 용기와 창의로써 새 시대를 이끄는 개척자가 된다.
5. 남의 인격과 의견을 존중하여, 협조와 단결에 힘쓴다.

6. 자유와 민주질서의 조화로써 실천의 기준을 삼는다.
7. 민족주체의식을 바탕으로, 인류사회의 향상(向上)과 발전에 기여한다.
8. 성공의 문은 불굴의 의지와 꾸준한 노력에 의하여서만 열린다는 것을 명심한다.
9. 널리 경서와 고전을 읽어 마음의 자세와 교양을 높인다.
10. 끊임없이 새 지식과 새 기술을 습득하여, 산업발전과 생활혁명에 이바지한다.
11. 허영과 사행심(射倖心)을 배격하고, 역사적 현실을 타개(打開)할 수 있는 실력을 기른다.
12. 배우며 일하고, 일하고 배움으로써 지식과 경험을 아울러 쌓아, 복지문화국가 건설의 선도자가 된다.

이상은 모두가 성 · 신 · 의의 교시를 실천궁행(實踐躬行)하는 데에 필수적인 요항(要項)임에 틀림없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 성 · 신 · 의의 자의(字義)를 따로 따로 풀이해 볼만도 하다.

성(誠)이란 글자는 공경할 성(敬), 살필 성(審), 진실성(眞實)이라 하며 정성(精誠)이라는 본뜻을 가지고 순일무위(純一無僞)를 표명하기도 한다.『중용』에는 성자 천지도야(誠者天之道也) 성지자 인지도야(誠之者人之道也)라 하였고,『대학』에는 욕정기심자(欲正其心者) 선성기의(先誠其意)라 하였고, 우리나라 국민들은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통용하여 왔었다. 이러한 정신에 터잡아서 성실 · 성심 · 성의를 비롯하여 정성 · 지성 · 충성이란 말을 상용하고 있다.

신(信)이란 글자는 믿을 신(不疑), 참될 신(眞), 밝힐 신(明), 징엄할 신(驗), 도장 신(印), 맡길 신(任) 등등 여러 가지 뜻을 가지고 있으며, 동양 전래의 오륜(五倫)에 붕우유신(朋友有信)의 한 가지도 끼어있다. 그래서 우리의 일상생활에는 신뢰 · 신임 · 신망 · 신실이란 말이 많이 쓰이고, 사회적으로 신용 · 신탁 · 신의가 중시되어 있으며, 종교적으로 신념 · 신앙 · 신도 등등 널리 쓰여져 있다.

의(義)라는 글자는 옳을 의(由仁得宜), 의리 의(人所可行道理), 뜻 의(意味) 등등으로 알려져 있는데, '역경(易經)'에는 입인지도(立人之道) 왈인여의(曰仁與義)라 하여 인(仁)과 불가분의 관계로 되어 있고, 역시 오륜(五倫)의 한가지로서 군신유의(君臣有義)라 하였다. 다시 말해서 일반으로 의리 · 의무 · 의기 · 의형제라고 하지만, 특히 정의를 의미하는 점에서 의분(義憤), 의협(義俠)이라 하고, 또 의거 · 의병 · 의사라고도 쓰여져 있다.

이와 같이 성 · 신 · 의는 심오하고도 광범(廣汎)한 뜻을 갖추어 있는 덕목들이다. 상허 선생이 과연 이러한 점을 절실하게 느끼는 나머지에, 이를 교시로서 내세운 것이니, 인륜(人倫) 도덕의 근본원리를 몸소 체득하신 것이었겠다. 그러므로 건국대학교의 건학정신은 바로 여기에서 구원(久遠)히 성취될 것이오, 찬연(燦然)한 영광을 발휘할 것이다.

(6) 결어(結語)

건대는 창건의 초창기와 6 · 25동란(動亂)의 수난에서 벗어나는 재건기를 지났고, 장안동교사의 신축 이래로 발전기에 들어섰다. 종합대학교로서의 면목(面目)은 날로 달라져 갔었다. 각 분야의 대학별 건축을 비롯하여 도서관 · 박물관 · 학생관 · 생활관 · 종합운동장 · 체육관 등등 이루 다 헤아릴 수 없이 증설일로(增設一路)에 나선 것이었다. 그 밖에 보건소 · 상조회(相助會) · 장학회 · 시민법률상담소도 간과할 수 없을 것이다. 그래서 1970년대에는 거의 성숙기에 들어섰다.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 의아하게 생각되는 점이 있는데,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의과대학이나 약학대학의 개설이 없다는 일이다. 약대는 고사하고 의대만은 유 박사의 착안하고 있을 만한 문제인데, 이를 아직 세우지 않은 것은 전문적인 견지에서 그 규모가 너무나 방대하기에, 그 계획을 세우기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이 아닌가. 추측될 뿐이다. 아마도 미구(未久)에는 이루어질 줄로 안다.

유 박사는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정치학관 시절부터 교수들의 학술연구를 격려하셨다. 1958년에는 정치대학학술원을 창설하였고, 익년(翌年)에는 건국학술원으로 개칭했다가, 1963년에는 건국학술연구원으로 개칭한 이래로 매년 학술지가 발간되었다. 그동안 연구보조비 · 학술상 등이 실시되어 교수들의 연구에 아주 고무적이었고, 널리 학계에 공헌한바 컸었다.

그러던 중에 유 박사께서 1973년 초 뜻밖에 타계하시니, 건대인뿐만이 아니라 온 국민의 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인생의 무상을 새삼 느끼게 되었거니와, 고인의 영혼과 유지는 그대로 살아서 지켜보고 계신다.

교육기관이란 일조일석(一朝一夕)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거기에는 장기적인 계획으로 꾸준한 노력으로 전진해야 할 것이다. 여기에는 교정(校庭)에 상허 유석창 박사 동상이 존엄하게 서 계시는데, 그 앞에 세워진 황우상(黃牛像)은 건대의 꾸준한 전진의 모습을 상징하고 있다. 그것은 농우(農牛)로서 뿐만 아니라 황우(黃牛)로서의 정신적인 면을 잘 나타내고 있다. 원래 황우(黃牛)란 강인한 저력을 갖추고 꾸준히 노작(勞作)하다가도 일단 유사(有事)할 때에는 무시무시한 투력을 발동한다. 이제 그 우상(牛像)에는 다음과 같은 '황소의 예찬'이 새겨져 있다.

어진 눈에 하늘이 담겨지고
엄숙한 뿔이 의기를 상징하는
슬기롭고 부지런한 황소여
산을, 옮길 힘을 가졌으나
어린 아기처럼 유순하고
어떤 어려움도
성실과 근면으로 이겨내는
그의 인내가
불의 앞에서는
불꽃처럼 활활 타는 황소
확고한 신념으로 한결같이
제길을 가는 그의 앞길엔
영광의 무지개가 뻐친
이슬 맺힌 풀밭이 열려온다

박목월 지음

이는 바야흐로 상허 선생이 간직하시던 건학의 정신을 황소의 모습으로 잘 나타내고 있어 보인다. 건대의 무궁한 발전은 이러한 정신으로 끊임없이 나아갈 것이다.

오늘날 창건 30주년을 맞이하여 교내의 발전이 굉장함은 더 말할 것도 없거니와, 재학생이 6,000여 명이요, 졸업생이 벌써 3만여 명이니, 그들이 이 나라에 기여한 공적이 또한 지대하다 하겠다.

동문회헌장에 의하면, 첫째로 성 · 신 · 의의 교시를 받들어 일상생활의 교조(教條)로 삼는다 하였고, 또한 자질향상(資質向上)에 부단(不斷)의 노력으로 모교의 명예와 그 발전에 공헌한다 하였으니, 각계각층에서 활약하고 있는 동문 제위(諸位)에게 기대한바 지대한 것이다.

세간에는 서울에 있는 여러 대학들을 일류니 이류니 삼류니 하는 등으로 등급을 찾는 풍조가 있는데, 창설의 연대로 보아서 그럼직도 하지만, 이제 건국대학교는 여러모로 보아서 일류에 속하게끔 되었다. 그리고 국제적으로 위신(威信)을 널리 떨치고 있다. 여기에 다음 30년을 지나고 나면, 그야

1956년 경제학회 회원들과 함께 한 유석창 학장

말로 세계적인 명문의 건대가 될 것이다. 그러기 위하여 모든 건대인들은 성 · 신 · 의의 정신을 다하여 총화매진(總和 邁進)하는 길이 있을 뿐이겠다.

마지막으로 상허 선생의 후계자인 재단이사장 유일윤 박사의 건투를 촉망하고, 상허 선생의 명복을 기원하면서 유가족의 만복을 축원(祝願)하는 바이다.「常虛 劉錫昶博士 追慕記」,『학술지』 20(건국대학교 창립 30주년 기념), 건국대학교 학술연구원, 1976. 5)

7) 안호상(安浩相, 철학박사 · 초대 문교부장관)

청빈고결(淸貧高潔)한 자기(自己)희생의 생애(生涯), 발전건대(發展建大) 속에 선생(先生)의 숨결이…

이 땅에서 가난을 추방하고 농민들의 낙원인 복지국가, 문화국가를 건설하겠다는 일념으로 심혈을 바쳐 오신 상허(常虛) 선생이 가신지 문득 찬 6년이 되었다. 우리 모두의 가슴속에 메아리치는 고인의 카랑카랑한 목소리와 인자한 모습이 잊을 수 없는 추모의 정을 새삼 억누를 길 없게 된다.

인술의 참다운 길을 깨우쳐 주시고 몸소 실천하신 의사(醫師), 애국애족의 정신으로 무장한 유능한 인재양성을 위해 교육에 열과 성을 다한 뛰어난 교육자(敎育者), 농촌근대화의 청사진을 밝히고 주야로 농민들의 복지향상을 위해 진력하신 선각자(先覺者)로서의 일생을 마치신 선생의 생전의 업적들은 모든 사람들의 추앙하는 표적이었고, 경모의 정은 해가 거듭할수록 더욱 짙어지고 있다.

선생께서는 일찍이 함남 단천에서 태어나 독립운동가이신 엄친 일우(一憂) 선생을 따라 소년시절을 북만(北滿)에서 보냈으며, 그곳에서 소학과 중학의 과정을 마치시고 20미만의 약관(弱冠)부터 독립군에 참가하여 조국광복운동에 투신하셨다.

그 뒤 뜻하신 바 있어 상경하여 경신학교(儆新學校)를 거쳐 경성의학전문학교(京城醫學專門學校)를 졸업하셨다. 선생께서 의학을 공부하시게 된 것은 오직 혹독한 일제의 폭정아래서 신음하는 헐벗고 굶주린 가난한 동포들을 질병의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고, 그들을 계몽하려는 간절한 소망에서 비롯되었다.

이리하여 경의전(京醫專)을 졸업하신 뒤에 3 · 1운동시의 33인을 중심으로 한 당시의 사회유지들을 설득하여 민중병원(民衆病院)을 창설하고, 병고에 시달리는 가난한 동포들을 실비나 무료로 치료하였다. 병원운영의 여러 가지 어려움을 무릅쓰고 당초의 설립목적을 살렸으며, 사회사업의 일환으로 그 높은 뜻을 굽히지 않았다.

그 뒤 8 · 15광복을 맞자 노예의 쇠사슬에서 해방된 조국이 다시는 오욕으로 점철될 불행한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고 자주독립된 국가로서 자유(自由)와 평화(平和)와 번영(繁榮)을 영구히 구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이러한 사명감에 투철한 영재의 양성에 있다고 깨달으신 선생께서는 육영기관의 설립을 주도하시게 되었다.

이리하여 1946년 5월 15일에 정치학관을 창설, 꾸준히 성장과 발전을 거듭하여 오늘 이처럼 비약발전하여 독특한 전통을 확립한 명문사학 건국대학교(建國大學校)로 키워놓으신 것이다.

그뿐 아니라 선생님께서는 우리나라가 선진국의 대열에 끼고 복지문화국가로 발돋음 하는 데는 무엇보다도 농촌부흥, 농촌근대화가 선행되어야함을 깨달으시고 이를 위해 헌신하셨다.

우리나라의 농업개발은 농민들 스스로가 자생(自生) · 자립(自立) · 자주(自主) · 자발적(自發的)인 정신혁명부터 이룩하는 데서만이 이루어지고, 농업발전은 농민의 기술혁명과 농촌의 생활혁명으로 비롯된다고 역설하셨다. 농업의 과학화와 농공병진(農工竝進)의 신념으로 일관하신 선생의 원대한 이상은 역저『2천년대(年代)의 한국 농업의 미래상』,『조용한 혁명』 등에 펼쳐져있으며, 이 책은 오늘날 우리나라 농업발전의 청사진을 밝힌 명저로 기록되고 있다.

선생께서는 농촌부흥을 가속화시키기 위해서 한국최초로 축산대학을 설립하셨고, 지역사회개발협회를 창립하셨으며, 전국농업기술자협회를 창설하여, 초대 총재로 취임함으로써 선도적 농촌지도자 양성에 앞장섰으며, 오늘날의 새마을 운동의 선도적 사명을 몸소 실천하셨다. 참으로 선생의 일생은 사회사업가, 교육자, 농촌운동가로서의 신념과 의지에 가득 찬 선각자의 피눈물 나는 생애였으며, 없음에서 있음을 창조하신 자기희생의 생애였다.

그 일생을 통해 청빈한 선비의 생활규범을 보여주셨고, 맡은 일에는 열과 성을 다해 꼭 성취시키고야 마는 굳센 의지와 실천력을 가르쳐 주셨다. 이제 균형 있는 발전을 거듭하여, 내외에 교세(敎勢)를 떨치고 있는 건국대학교(建國大學校)의 생동감 넘치는 모습 속에서 상허 유석창(常虛 劉錫昶) 박사의 숨결을 느낄 수 있음도 오직 선생의 고매한 인격과 탁월한 지도력이 길이 그 빛을 더해가고 있음을 뜻하는 것이며, 이 학원에서 배출된 근 3만여 명의 인재들과 7천 건국가족들이 오직 고인의 남기신 뜻을 받들어 꿋꿋이 나아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믿는다.

나아가서 앞으로도 계속 성(誠) · 신(信) · 의(義)의 교시를 생활신조로 삼은 유능한 인재들이 계속 배출되어 이 나라 곳곳에서 상허(常虛)정신의 참다움을 깨우쳐주고 펼쳐 나갈 것을 다짐하는 바이다.

이제 선생께서 타계하신지 여섯돌을 맞아 우리 모두가 경건한 마음으로, 선생의 명복을 빌고 그 높으신 뜻을 길이 되새겨 힘을 합쳐 나아갈 것을 맹세하면서 추도사에 대신 하는 바이다.「자유(自由) · 평화(平和) 번영의 큰 뜻 심어」,『건대신문』 1977년 12월 28일 3면)

8) 김일주(동문회장)

이번 상허(常虛) 기념사업회의 노력과 건대(建大)출판부의 진력의 결정으로 호화판 전기(傳記)를 우리들 모두의 손에 쥐게 된 일은 참으로 경사다. 10여년을 벼르기만 하고 그 실천을 좀처럼 못보던

일이 하나의 알찬 열매로 완성된 것을 보니 실로 감개가 무량하다.

8 · 15해방 후 한때 많은 애국자가 출세하였으나 그 중에는 일제(日帝)에 협력하던 자까지 애국자의 분을 바르기도 하였다.

유 박사님은 일제시대에 조용히 독립운동자와 결친하여 지하운동에 참여하였다. 권력에 추종하는 세칭 애국자가 아니고 일제의 압박에 저항한 진정한 애국자이시다. 그러나 애국에는 여러 방향이 있다.

정치적 애국, 경제적 애국, 문화적 애국이 있다.

정권을 국민의 문화수준에 따라서 출현한다.

국민의 문화수준이 높으면 높은 정권이 수립된다. 또한 경제건설도 문화운동을 전제로 한다. 근대 서구(西歐)가 문예부흥운동을 바탕으로 경제를 건설하였다. 그러므로 문화적 애국이 정치적 애국, 경제적 애국보다 중요하다. 유 박사님은 정치대학 건국대학 등 학원을 중심으로 문화적 애국에 종사하였다. 그러므로 그분은 문화적으로 중요한 애국자이시다.

또한 문화운동에는 문폐가 따르는 것이다. 송사 유□전에 "문인은 기식(器識)이 없으므로 쓸모가 없다"고 하였다. 즉, 그릇이 크지 못하면 큰 일을 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또 논어(論語)에서 자장(子張)이 문인은 문칙(文飾)의 폐해가 있다고 하였다. 즉 허위, 허례, 허식으로 과오를 은폐하는 폐단이 있다고 하였다. 또한 문약(文弱)의 폐해가 있다. 즉 너무 유순 유약하여 실천(實踐), 궁행(躬行)치 못하는 폐해가 있다. 오직 유 박사님은 문화운동을 하면서 성(誠) 신(信) 의(義)를 내세웠다.

성(誠)은 성심성의(誠心誠意)를 다하여 허위허식을 배제하는 것이요, 신(信)은 실천(實踐)궁행(躬行)하는 것이요, 의(義)는 정의를 위하여 투쟁하는 용(勇)이다. 즉, 유 박사님은 문폐가 없는 애국자이셨다. 실로 유 박사님은 진정한 애국자(愛國者)요, 존경한 애국자(愛國者)이시다.

내가 이 글을 쓰는 것은 유 박사님 일(一) 개인(個人)을 위하는 것이 아니고 민족 전체를 위하는 것이다. 즉 오늘날 한국(韓國)은 비상한 국난(國難)에 처해있다. 국토가 양단되어 동포가 서로 총을 겨누고 백주에 살인강도가 대로에서 출현하는 실정이다. 이 국난(國難)을 극복할 방법은 오직 국가를 사랑하고 민족을 존중하는 애국운동을 크게 전개하는 일이다. 그러므로 진정한 애국자 존경할 애국자를 숭배하는 것은 애국운동을 위하여 요청되는 것이다.

애국운동을 크게 전개해야 할 오늘의 실정에서 유 박사(劉博士)님을 숭배하는 것은 한민족(韓民族)을 위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오늘의 국난을 극복치 못한 한민족은 망하는 것이다. 국난을 극복하자면 애국적 국민운동을 일으켜야 하고 애국적 국민운동을 일으키는 방법은 오직 진정한 애국자, 존경할 애국자를 숭배하는 기풍을 일으켜야 한다. 마지막으로 일언(一言)을 가(加)할 것은 8 · 15 해방 후 가장 많은 자도 애국자요, 가장 적은 자도 애국자였다. 이러한 현실에 처하여 더욱 이 글을 쓰는 뜻이 있다. 따라서 상허기념사업회(常虛記念事業會)에서 원고를 작성하여 모교출판부에서 발간한『상허 유석창 박사 전기(常虛劉錫昶博士傳記)』가 나온 것을 진심으로 축하한다. 특히 대

학생 제군과 동문그리고 전교직원들 뿐 아니라, 널리 우리나라 많은 청소년들에게 꼭 일독(一讀)있기를 권한다.

그리고 애국자(愛國者) 상허(常虛) 선생님 10주기(周忌)를 맞아 이런 기념탑적(記念塔的)인 훌륭한 책을 펴낸 상허기념사업회(常虛記念事業會) 여러분과 모교 출판부 여러분의 헌신적인 노력(努力)의 결정(結晶)에 충심(忠心)으로 감사한다.〔「상허 유석창 전기(傳記) 발간(發刊)에 즈음하여」,『건대신문』 1981년 12월 30일〕

9) 상허(常虛) 선생 사학인의 귀감(龜鑑)으로『사학연금』사학설립(私學設立) 백돌기념

건학이념과 교육과 높이 평가

본교 설립자이자 초대총장을 지냈던 고(故) 상허(常虛) 유석창(劉錫昶) 박사가 월간『사학연금』에서 뽑은 우리나라 사학인증의 귀감이 되는 사학설립자로 선정되었다.

사립학교교원연금관리공단에서 발행하는『사학연금』은 5월호에서「사학 전 100년 사학 후 100년」이란 제목의 창간 한 돌 기념 특별기획을 마련하면서 우리나라 사학이 100년동안 역사를 거치는 동안 사학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남달리 큰 사학인을 선정했는데 수많은 사학인 가운데에서 유(劉) 박사가 남궁억, 윤치호, 안창호씨 등과 함께 '사학인 중의 사학인' 13인(人) 중의 한사람으로 선정되어 상허(常虛) 선생의 건학이념과 교육관이 대외적으로 높이 평가받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는 본교(本校)가 민족사학(民族私學)이라는 긍지와 함께 큰 자랑이 아닐 수 없다.

한편,『사학연금』은 근대사학 백돌기념 특별기획으로 이번에 선정된 사학인 13인(人)의 인생관과 교육관, 관계했던 사학의 면모 등으로 활동상과 일화를 중심으로 하여 연대순으로 매월 게재할 예정이다.〔『건대신문』 1985년 5월 20일〕

10) 고(故) 상허(常虛) 선생, 근세교육가 30인에 선정 한국 근세교육사상가 선정위원회에서

본교 설립자인 고(故) 상허(常虛) 유석창(劉錫昶) 박사가 우리나라 교육사상가 30인 중 한사람으로 선정됐다.

대한교육공제회의 교원복지신보사 주최로 개화기에서 8 · 15광복까지의 교육 사상가들을 대상으로 한 이번 선정은 한국근세교육사상가 선정위원회에서 한 것이다.

앞으로 교원복지신보에 게재될 근세이후 교육사상가 중에는 유길준, 박은식, 민영환, 이승훈, 김구, 안창호, 신채호 등 근세이후 우리나라 교육을 이끌어 온 선각자들이 망라되고 있는데, 이중 상허(常虛)선생은 투철한 독립정신과 교육사상, 그리고 민족 교육기관을 설립, 후세 양성에 진력한 업적이 높이 인정돼 선정된 것이다.『건대신문』1987년 9월 7일)

11) 한기언(서울대학교 명예교수 · 한국정신문화연구원 객원교수)

상허 유석창 박사는 국가의 장래를 생각하여 건국학원을 설립하여 인재양성에 힘썼으며 지역사회 개발운동 뿐 아니라 농촌운동에 투신했다.

이와 같은 상허의 생전 업적과 성 · 신 · 의 정신이 바탕이 된 상허사상과 인격세계를 고찰해 보기 위해 서거 20주년에 즈음하여 한기언 교수의 기념논문을 게재한다. 〈편집자 풀이〉

(1) 상허의 인격세계

우리의 존경하는 민족의 스승 상허 유석창(1900-1972) 박사님의 서거 20주년에 즈음하여 이 기념논문을 쓰게 된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자는 시 300편을 추리고 나서, 한 마디로 이를 '사무사(思無邪)'라 하였다고 하지만, 상허 유석창 선생의 전기를 읽고 한 마디로 표현한다면, 그는 '겸손한 능력인'이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의 생애를 통하여 추구한 사업의 귀결점은 인재 배양이요, '건국인의 양성'에 있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의 생애를 통하여 추구한 사업의 귀결점은 인재 배양이요, '건국인의 양성'에 있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모든 일의 중심을 교육사업에 두었고, 이를 모든 사업의 근원이요, 원천으로 삼았음을 알게 합니다. 이것을 곧 그의 역사의식의 단적인 표현이요, 민족의 장래를 내다보는 형안의 번득임을 느끼게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일시적인 단견에서가아니라, 그의 민족애에 뿌리를 지닌 원체험의 결론이요, 일대신념이요, 철학적 통찰에서 오는 장엄한 자기표현이었던 것입니다.

그를 가리켜 '겸손한 능력인'이라고 먼저 말씀드렸습니다. 이러한 그의 면모는 아호인 '상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항상 비워둔다는 것이 '상허(常虛)'의 뜻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비워두기 때문에 가득 채울 수가 있다는 역설적인 깊은 뜻이 담겨져 있는 아호라고 하겠습니다.

'상허'라는 아호가 정해진 것은 선생이 경성의학전문학교 학생으로서 당시 노장사상에 탐닉하게 된 때와 시기를 같이하고 있습니다. 그는 당시 우리민족의 장래를 깊이 생각하고 그 방략을 세우기에 노심초사하던 때였습니다. 그의 가슴에는 망국의 설움을 한시 빨리 벗고 건국의 날이 오기를 기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상허의 우리 민족 장래에 대한 깊은 생각은 역사의 창조자 배양, 인재 배양의 소신으로 나타났습니다. 상허의 우리 민족 장래에 대한 깊은 생각은 역사의 창조자 배양, 인재 배양의 소신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기에 상허를 '사람 제일주의 철학'을 지닌 분이었다고 말합니다. 즉 상허는 평소에 "나는 왜 교육을 하나? 하나의 일꾼을 얻기 위해서이다. 10년에 한 사람이라도 역사적 인물을 키울 수만 있다면 …"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 순서를, 사람, 계획, 기술, 돈이라 하여, '사람'을 첫째로 꼽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란, 의욕과 정열이 있는 사람, 용기가 있는 사람, 헌신하고 봉사 정신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선생은 개교 10주년에 즈음하여 그가 배양코자 한 인재의 인간적 특성을 1. 대학인으로서의 교양 높은 지식인을 만들자 2. 이 나라의 앞날을 바로 잡는 지도자를 만들자 3. 이 나라를 과학의 나라로 만들어 모든 사람을 잘 살게 하는 역군을 만들자라고 했었던 것인데, 이런 일들에서 알 수 있듯이 그는 우리나라의 무궁한 발전을 위해서는 오직 사람다운 사람을 키우는 길밖에 없다고 굳건한 소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2) 상허사상의 이해

상허사상을 이해하는데 있어서는 그가 어린 나이로 부모 따라 망명길에 나서 만주 땅 간도에서 지낸 소년시절의 절실하게 체험한 일들에 주목해야 되리라고 봅니다. 이것을 나는 세 가지로 보았기에, 상허의 원체험이라 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체험이 그 후 그의 사업으로 꽃피게 되고 열매로 맺어져 갔던 것입니다.

첫째는 병고로부터의 탈해(脫解)입니다. 어머니가 병고로 몹시 시달리게 되었을 때 어린 시절의 상허 선생은 어떻게 하면 병약한 어머니를 병고로부터 탈출 해방케 해드릴 수는 없을까 하는 생각뿐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훗날의 민중병원이요, 그런 의미에서의 의료 사업이었던 것입니다.

둘째는 무지로부터의 탈해입니다. 소년 상허는 망명생활에 있어서 배우고 싶어도 마음껏 배울만한 학교가 없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낀 바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훌륭한 교육기관을 세워서 배움에 굶주린 이 나라 젊은이들을 구해야겠다고 마음 속 싶이 다짐케 하였던 것입니다. 그것이 훗날 대학 건설에 나서게 하였고 그것은 오늘의 건국대학교로 현실화되기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셋째는 기아로부터의 탈해입니다. 소년 상허의 체험 중 또 하나의 고통이 굶주림이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기에 그가 훗날 농촌개발 사업에 크게 이바지하게 되어 새마을 운동의 선각자로 꼽히기에 이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상허 선생의 훗날 이룩한 세 가지 큰 사업은 실은 어렸을 때 겪은 세 가지 체험과 무관한

것이 아니라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세 가지 사업에는 언제나 세 가지 이념이 일관되게 있어 지탱해 오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세 가지 이념이란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은 건국인이면 누구나 알고 있는 '성 · 신 · 의'의 세 이념인 것입니다. 이제 이에 관하여 몇 마디로 표현해 보겠습니다.

첫째는, 성(誠)의 이념입니다.

선생은 어려서 조국애에 눈뜨게 되고 교육의 중요성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의 입지와 꿈은 '성'의 이념에 의하여 키워졌고 마침내 그 실현을 보게 되었습니다. 실로, 상허가 이룩한 사업들은 그 모두가 그의 입지와 꿈의 실현으로서 '성'의 전제가 된 것으로 봅니다. 만사에 '성의 · 성심 · 성실'로 대한 결과가 많은 사람을 감동시킨 것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둘째는 신(信)의 이념입니다. 선생은 모든 일의 근본이 인재 배양에 있다고 굳게 믿은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그는 교육 사업에 남달리 정성을 쏟았고 그 단적인 표현이 장학제도의 충실화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축산대학의 장학제도는 획기적인 것이었습니다.

셋째는 의(義)의 이념입니다.

선생은 스스로가 '의'를 추구한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그의 행동에는 독창정신이 있고, 그것은 '의'가 준거가 되어있었습니다. 그것은 이를테면 건국의숙 운영자금 조달 시말의 예화(例話)를 통해서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심한 재정난에 처했어도 의인가 아닌가가 판단의 분기점이 되었고, '의'쪽을 택하였던 것입니다.

상허 선생이 이룩한 세 가지 큰 사업이란 의료사업, 교육사업, 농촌사업인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그 중핵을 이루는 것이 교육 사업입니다.

이 말의 뜻은 세 가지 사업 중 교육 이외의 의료사업이나 농촌사업이 중요치 않다는 뜻이 아님은 물론입니다. 다만 유독 교육 사업을 중핵사업이라고 하는 까닭은, 의료사업도 농촌사업도 제대로 된 인재 없이는 추진해갈 수 없음을 알고서 하는 말인 것입니다.

다행히 오늘날 상허 선생의 인재 배양의 뜻은, 이를테면 건국대학교 안에 의과대학이 있어 유능한 의료인이 해마다 배출될 수 있게 되어 있는 것이고, 하물며 농촌사업에 이르러서는 선생 당신께서 생존 시에 이미 농축업 관계 대학을 여럿이나 설치 운영해 오셨기에, 이 방면에 있어서도 유능한 후계자들이 해마다 양산되고 있는 실정인 것입니다.

여기서는 지면관계도 있고 해서 선생이 이룩하신 세 가지 큰 사업의 실제적 열매인 민중병원이라든가, 건국대학교, 그리고 전국농업기술자협회 등 각 기관의 설립 및 발전 과정 등에 대해서 설명치 않기로 하겠습니다.

(3) 복지문화국가의 건설

생각건대, 상허 선생의 입지요, 꿈인즉 그것은 나라 찾기였으니 '건국'에 있었다고 해야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세우게 된 나라의 모습이란 다름 아닌 모든 사람들이 풍요롭게 문화인으로서 살 수 있는 '복지문화국가' 건설에 있었다고 해야 하겠습니다. 사실, 그는 위대한 꿈을 꿈꾸었으며 그 실현을 실지로 보면서 이 세상을 떠났던 것입니다. 완전한 문자 그대로의 복지문화국가는 아닐망정 그곳에로 가게 되는 도상의 여러 희망적인 징후를 보면서 영면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선생은 대단히 설득력이 강한 분으로 보입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이면 해내지 못할 것으로 보인 일들이 많은 사람들의 동조로써 이루어 진 것을 보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힘은 결코 변설력(辨舌力)이 아닐 것입니다. 신의 성심, 그리고 성실함이 있어서 비로소 가능한 것입니다. 선생이 '성'을 으뜸으로 들어 '신', '의'와 함께 강조하는 것도 당신의 체험이 뒷받침해서 오는 확신이 아닐까 합니다.

선생이 행한 바 꿈과 설득력의 대표적인 예는 '실비병원' 설립 때의 경우라고 하겠습니다. 그의 그칠 줄 모르는 끈기와 그가 지닌 민족애에 바탕을 둔 지금의 민중병원의 원형인 '실비병원'설립의 꿈은 마침내 달성되고야 말았던 것입니다.

상허 선생의 위대함은 여러 가지 점이 있지만 특히 그가 지닌 투철한 역사적 안목이야말로 가장 두드러진 위대한 점이 아닐까 합니다.

무엇을 가지고 그의 투철한 역사적 안목이라고 하는 것이겠습니까? 다른 수많은 사업이 있건만 상허 선생은 민족광복을 계기로 대학설립에 나섰고, 인재 배양에 힘썼다는 점인 것입니다. 교육을 가리켜 '국가백년지대계'라고 하지만, 그는 말로만이 아니라 실제로 여기에 착수하여 지난 약 반세기에 걸쳐 위대한 인재들을 배양해 왔으며, 앞으로도 계속 그의 유지를 따라 배출할 수 있게 건국대학교를 굳건하게 세워놓고 가셨던 것입니다.

사실 광대한 현 캠퍼스 선정 하나만 하여도 이 역시 상허 선생의 밝은 안목의 소치라 하겠습니다. 이것 역시 투철한 역사적 안목의 번득임이라 해야 옳을 것입니다. 그에게 있어서는 무리수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상허 선생의 꿈은 세 가지 원체험(原體驗)을 딛고서 마침내 의료사업, 교육사업, 농촌사업이라는 세 가지 큰 사업으로 성공리에 실현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업들이 오늘날까지 번창일로로 성공을 거듭하고 있는 데에는, 선생이 지니셨고 후학들에게 가르침으로 제시하신 '성' '신' '의' 라는 세 가지 이념이 항상 작용하고 있어서라고 하겠습니다.

선생께서 가장 아끼시던 건국대학교는 '민족을 생각하는 학원, 국제화를 지향하는 대학'이라는 기치를 내걸고, 국내에 있어서는 자질 높은 대학이 되고자 힘쓰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계 여러 저명대학들과 자매결연을 함으로써 국제화에 힘쓰고 있습니다.

상허 선생께서도 이 모든 것을 지켜보고 계실 것입니다. 선생의 유덕을 더욱 빛내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상허 유석창 박사 서거 20주년에 즈음하여, 인재 양성 의지 사학 설립으로 열매 맺어」, 『건대신문』 1992년 1월 1일〕

6
전국농업기술자협회 회원들의 기억

1) 전국농업기술자협회 50년사

일찍이 유석창 박사는 조국이 자유, 민주, 번영을 누릴 수 있는 참된 복지 문화 국가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먼저 무지와 가난에 시달리고 있는 농촌을 부흥시켜야 한다고 믿고 있었다.

이러한 구상을 구체화하게 된 동기는, 유석창은 어린시절 농촌의 가난을 뼈저리게 체험하였고, 만주에서 독립운동을 하면서 조국을 잃은 농민들의 참상을 목격하였고, 일제치하에서의 농촌의 피폐상은 1945년 8월 15일 해방 이후에도 계속되었고, 1948년 정부수립 이후 12년 동안 조금도 나아지지 않고 있는 것을 보고 느끼고 있었다. 이러한 우리의 농촌을 부흥시키는 길은 주곡생산(主穀生産)에만 의존하고 있는 농업구조를 유휴야산(遊休野山)을 개발하고, 유축농업(有畜農業)으로 바꾸어야 한다고 믿고 있었다.

또한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나무의 밑동이나, 가지, 잎새와 그리고 꽃과 열매에 비유한다면 농촌을 뿌리라고 보았다. 뿌리가 건전하지 않으면 나무가 자랄 수 없듯이 병든 정치를 고치자면 뿌리인 농민과 농업과 농촌을 튼튼하게 길러야 한다는 결론을 얻게 되고 농업의 미래를 열기 위해서는 인재양성이 필수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다.

이에 해방이후 정치학관을 설립하였으며 6 · 25 이후 정치대학을 1959년 종합대학인 건국대학교로 승격시켜 그 안에 축산대학, 농협대학, 지역사회개발대학, 농공대학을 설립하여 농촌부흥을 위한 농업인재양성을 시작하였다.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설립된 축산대학은 모든 입학생에게 교비생(校費生, 현재의 장학생)으로서 무료교육을 실시하였다.

논두렁을 베고 죽을 결심으로

1961년 5월 16일 군사혁명 정부가 들어서고 대학교 총장의 정년을 60세로 정함으로서 유석창은 그해 9월에 건국대학교 총장직을 퇴임하고 11월에 재단 이사장에 취임을 하였다. 총장 퇴임식에서 유석창 박사는 "나는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여생은 농축산업에 발전과 농촌 개발을 위한 농민 운동에 바칠 것이며 논두렁을 베고 죽을 것을 결심하였다."고 선언하였다.

총장 퇴임과 함께 양성된 인재들이 농촌으로 돌아가 부흥운동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사단법인 한국지역사회개발협회(韓國地域社會開發協會)를 발족시켜 당시 정부가 주도하던 지역사회개발사업을 순수한 민간운동으로 추진하였다. 협회는 전국의 3개 부락을 선정하여 농업기술 및 영농기술 등을 지도하여 농가소득증대에 많은 기여를 하였다. 하지만, 유석창 박사는 한정된 지역사회 몇 개의 부락을 지도하는 것만으로는 복지농촌 건설이라는 큰 포부를 이룰 수 없었다.

이에 새로운 방법을 모색하였는데, 바로 전국의 모범적인 독농가(篤農家)를 찾는 일이었다. 이 독농가로 하여금 지역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진 것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첫째, 독농가를 발견하는 것이고, 둘째, 독농가를 길러내는 것이고, 셋째, 독농가에게 정신과 기술을 연수, 교류, 보급, 향상시키는 것이고, 넷째, 이들 독농가가 궐기하여 자기고장의 농업발전과 농촌개발로 복지국가 건설을 위하여 선진농가로서 발 벗고 나서게 하는 것이고, 다섯째, 이와 같은 애국적인 정열을 가진 선도농가의 등장에 의하여 농산업혁명을 일으키는 엘리트가 되게 하려는 것이며, 여섯째, 이들 선도농가가 5만 여개 자연부락에서 자발적으로 농민의 정신혁명과 농업의 기술혁명, 농촌의 생활혁명이라는 3대 혁명을 개시하여, 전체 농민을 이끌고 정부의 정책적 지원을 받아들여 선도농가 · 농민 · 정책적 지원의 삼위일체(三位一體)적인 농업개발 5단계를 실천하게 하는 것이며, 일곱째, 3대혁명을 완수하고 농민자본가로 등장하여 농업의 현대화를 구현함으로서 복지문화국가의 건설을 달성한다는 것이다.

전국농업기술자대회와 농기협과의 만남

1962년 제3회 전국농업기술자대회 주최 측은 한국 지역사회개발협회 유석창 앞으로 초청장을 보냈다. 유석창은 자주적이고 순수한 전국의 독농가이며 농업기술자들의 대회의 깊은 관심을 갖고 직원을 참석하게 하였다. 이 때 참석한 직원의 말을 듣고 농민조직과 농민운동에 더 큰 관심을 갖게 되었다.

1963년 제4회 전국농업기술자대회는 서울에서 개최를 하기로 하였으나 새농사 지는 대회 규모가 커져 단독주최는 부담스러워 공동주최를 할 수 있는 단체를 찾고 있던 중이었다. 1963년 3월 초 경기도 양주 천마목장(공진항)에서 경인지방 독농가 모임인 농지회(農志會) 총회가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는데 송석도 · 이호철 · 김성도 · 김주항 · 김봉국 · 황인웅 · 김성제 등 많은 독농가와 함께 한국지역사회개발협회 이진수 사무국장과 새농사의 정장섭 선생이 참석, 농업기술자대회주최 측과 농지회, 지역사회개발협회 관계자 등이 한자리에서 의기투합 하였다. 그 후 수차례의 낙원동 건국대 이사장실에서 준비회의 후 농기협이 출범하게 되었다.

한국지역사회개발협회와 전국농업기술자대회 주최측은 많은 논의를 거쳐, 대회장에 유석창, 부대회장에 중앙종묘주식회사 사장이며 월간『새농사』발행인인 박갑수 씨로 하고 비용은 양측이 반반씩 부담하기로 하고, 단순히 대회에 그치지 말고 항구적인 협회를 조직하여 한국농업발전에 기여를 하기로 하였다. 전국농업기술자협회를 설립하는 데는 합의를 하였으나, 회장을 누구로 하느냐에 많은

논란이 있었다. 전국농업기술자대회 주최측은 농민들의 협회이므로 농민이 회장이 되어야 한다는 주장과, 한국지역사회개발협회는 건국대학교를 통해 농촌지도자를 교육하고 농민운동을 하고 있어 농민을 대표할 자격이 있다고 하면서 유석창 박사를 주장하여, 결국 대회준비위원회 협의를 통하여 유석창 박사를 대회장으로 모시기로 하였다.

1963년 10월 8, 9, 10일 3일간 제4회 전국농업기술자대회를 장안동 건국대학교에서 개최하고 마지막 날인 10월 10일 전국농업기술자협회 창립총회를 열어 회장에 유석창 박사, 부회장은 송석도, 박갑수, 김정호, 그리고 이사는 11명, 감사 2명 등의 임원을 선출하였다. 이렇게 본격적으로 유석창 박사는 전국농업기술자협회를 이끌게 되고 자신이 만들고자 하는 복지농촌건설에 한 발짝 다가서게 되었다. 회장이 된 후, 가장 먼저 추진한 일은 지방조직을 활성화 하는 일이었다.

약 1년 후인 1964년 9월 전국에 11개 시도지부를 결성하게 된다. 또한 1964년 7월에는 회원들에게 선진농업기술을 전파하기 위해, 매월 1회 현재 격월간으로 발간하고 있는 "전국농업기술회보"를 창간하여 오늘(2013년 10월 현 통권548)에 이르고 있다. 인재양성을 평생의 숙원으로 생각할 만큼 적극적이어서 건국대학교를 설립하고, 1965년 3월에 농민들의 교육의 산실인 협회부설 농업기술연수원을 개원하며 한국농업기술교육의 메카로 이용하였다.

그리고 농업기술연수를 위한 농민대학 과정을 개설하여 여름과 겨울 두 차례 농민교육에 힘을 쏟았으며 오늘의 한국농업발전의 밑거름이 되었다. 1968년 10월에 사회단체였던 협회는 사단법인으로 재창립함과 동시에 이듬해에는 농업기술진흥관을 건립하기 위해 1969년 1월 1일 334인의 발기인이 건립운동을 시작하여 많은 액수의 기금을 모금하였으며, 이 운동이 모태가 되어 현재의 강일동 교육농장(1974년 4월)과 용산구 이촌동의 농업기술진흥관(1982년)을 세워 연 인원 6만여 명의 교육생을 배출하였다.

한국 농업의 미래상 2000년대를 바라보며

유석창이 회심의 정력을 쏟아서 쓴 저서인『한국 농업의 미래상: 2천년대를 바라보며』와『조용한 혁명: 선도농가를 위하여』는 신중에 신중을 기해 출판되었다. 일생을 통하여 조국을 사랑하는 마음 한길로 살아오면서 조국을 구하자면 농촌을 부흥시켜야 된다고 믿어 왔다. 농촌운동에 직접 투신한 지 7년만에 그의 철학과 이념을 집대성하였을 뿐만 아니라 국내외의 방대한 자료와 통계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서술한 것이다. 유석창의 위대한 꿈이 활자가 되어 책으로 나온 것이다.

유석창은 한국농업의 미래상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농업개발 5단계론을 역설하였다. 즉 제1단계는 3대혁명(농민의 정신혁명, 농업의 기술혁명, 농촌의 생활혁명)의 시작, 제2단계는 경영안정화, 제3단계는 자본의 형성화, 제4단계는 농촌공업화, 제5단계는 농공병진과 균형성장의 단계로 구분하고 있다. 1967년 이미 유석창은 50년 후인 2000년의 우리나라 농업의 발전상을 예견 한 것이다. 실로 선견지명이 탁월하다고 할 수 있으며, 일생을 국가의 미래와 농업의 미래를 그리고 농민들의 미래를 걱정한 논고라고 할 수 있다.(전국농업기술자협회,『전국농업기술자협회 50년사, 1963~2013』, 2013, 393~397쪽)

2) 정장섭(鄭長燮, 전국농업기술자협회 전무이사)의 회고

개교 35주년을 맞는 건국대학교의 캠퍼스는 5월의 푸르름이 싱그럽다. 사철 내내 우뚝 서 있는 상허 선생의 동상도 개교기념일에는 만면에 웃음 짓는 듯 바라다 보인다.

상허 선생 가신지 어느덧 10년의 세월이 흘렀다. 건국대학교의 교직원과 만 명을 헤아리는 재학생들 가운데 상허 유석창 박사께서 농민의 정신혁명으로 과학적 전문화, 농촌의 생활혁명으로 민주적 협동화, 농업의 기술혁명으로 합리적 복지화의 기치를 내걸고 농민들의 앞장을 서서 농촌운동을 벌인 사실을 아는 이 몇 사람이나 될는지.

상허 선생이 일생동안 이룩한 업적은 크게 네 가지를 들 수 있다. 망국의 설움을 안고 우국지사인 선친을 따라 만주에서 독립운동에 몸바친 일, 의학을 공부하여 민중병원을 세우고 일제식민지 치하에서 병고로 신음하는 동포들에게 구료사업을 펴신 일, 조국이 해방되자 새 나라 건국의 일군을 길러내고자 대학교를 설립한 일들을 들 수 있다. 그리고 네 번째가 한국지역사회개발협회와 전국농업기술자협회를 통한 농촌운동이다.

유석창 박사께서 농촌운동에 온갖 정열을 쏟은 기간은 1960년부터 서거하신 때인 1972년 1월 1일까지의 만년에 해당된다. 이미 벌여놓은 건국대학교와 민중병원 등의 많은 일들을 제쳐놓다시피 하고 인생의 황혼기에 농촌운동에 투신한 동기를 한마디로 설명할 수 없다. 몇 가지 일화와 제세시의 어록을 소개하여 상허 유석창 박사의 인간적인 면모를 더듬어 보고자 한다.

> 금년 1965년이 을사년이지요. 61년 전에 을사보호조약이 체결될 때 내 나이 여섯 살이었습니다. 을사보호조약이 체결되었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우리집에 어른들이 몰려와서 아버지와 함께 통곡을 하며 슬퍼하는 광경을 목격하고 어린 마음에 초상이 난 줄 알고 따라 울었습니다. 1910년 경술합방 후 아버지를 따라서 만주로 망명을 하였습니다. 만주에 조국 없는 백성이 얼마나 서러운가를 뼈저리게 느끼며 자랐습니다. 망국종으로 괄시를 받고 심지어 매춘부도 조선사람에게는 웃음을 팔지 않았으며 발각되면 기적에서 제명을 시켰습니다.
>
> 개인이 아무리 잘살고 훌륭해도 조국이 동포의 공동운명체로서 얼마나 존귀한가를 이 때 깨달았습니다.

상허 선생의 이 말씀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나라와 겨레사랑의 마음은 소년시절에 이미 골수에 심어진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60년대 초반에는 오늘날과 같이 고속도로가 뚫리고 도로가 포장 정비되어 있지 않았다.

1964년 7월 22일부터 9월 8일까지 전국농업기술자협회 11개 시 · 도 지부를 결성할 때의 일이다. 가뭄으로 논밭이 갈라지고 폭염이 쏟아지는 무더운 여름이었다. 대구에서 자갈밭길을 달려 진주까지 다섯시간, 다음날 아침 삼천포시에서 열리는 경상남도지부 결성대회에 참석할 때의 일이다.

진주여관에서 밤새에 병환이 났다. 한잠도 주무시지 못하고 뜬눈으로 아침을 맞았다. 박영룡 비서와 필자는 걱정이 되어 삼천포행사에 참석하시지 말고 서울로 올라가실 것을 간절하게 권유하였다.

"논두렁을 베고 죽겠다는 내 맹세가 거짓말이 되겠군. 이제 좀 진정되었으니 가는 데까지 가보자"고 하시며 앞장을 선다. 장항선을 타고 예산에서 열리는 충남행사에 참석할 때의 일이다. 완행열차는 초만원이어서 객차에는 젊은 사람도 감히 올라탈 엄두도 못낼 형편이었다.

쩔쩔매다 하는 수 없이 수화물 칸으로 가서 승무원에게 사정을 하여 짐칸에 겨우 올라탈 수 있었다. 너절한 짐짝위에 걸터앉아서 일행을 돌아보며 기차가 움직이자 "여기가 과연 특등석이군!" 하며 좌중을 웃기는 것이었다.

농촌의 구석구석 삼복 무더위를 무릅쓰고 복지농촌 건설을 위한 3대혁명을 외치며 나서지만 지방의 기관장이 마중을 하거나 환영해 주는 이 없는 초라한 행차는 구도자의 고행을 방불케 하는 것이었다.

한번은 이런 일도 있었다. 필자를 부르신다기에 낙원동 집무실로 상허 선생을 찾아뵈었다.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양가의 친지들만 모여서 따님의 결혼식을 올리는데 나중에라도 정전무가 알면 서운해 할까봐서 그러니 혼자만 오라고 한다. 일시와 장소를 일러주시고 흰봉투를 내놓으신다. 이게 뭡니까— 하고 물으니 "왜 결혼식 때 봉투를 들고 오도록 돼 있잖아요. 이걸 가지고 오시요" 하신다.

자기 딸 결혼식에 축의금을 미리 주어서 초대하는 상허 유석창 박사의 자상한 인정이 세월이 지날수록 더욱 뜨겁게 느껴진다.

학교를 경영하는 사람이 농촌운동을 한다니까 정치적으로 오해가 많은 것 같아요. 왜 내가 목숨을 걸고 나섰는가— 그 이유를 밝히겠습니다. 조국이 종노릇을 하지 않고 영원히 살아갈 수 있는 길은 군사력이나 경제력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덴마크는 4백20만 인구에 노벨상 수상자가 아홉 명이나 나왔습니다. 세계의 귀염둥이, 아름다운 문화국가를 건설해야 합니다. 문화국가에 도달하자면 산업국가와 경제국가의 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산업국가는 농민을 내세워 농민들로 하여금 건설하면 된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산업국가 건설의 역군을 길러 내고자 축산대학, 농공대학, 지역사회 개발초급대학, 농업협동조합대학을 설립하였습니다.

농촌을 다녀보면 산이 울창하고 잘사는 마을에는 반드시 핵심적인 독농가가 숨어있는 사실을 발견하였습니다. 학생들을 길러서 독농가로서의 제구실을 하자면 장구한 시일이 걸리지만 독농가를 전국의 5만

자연부락에서 한사람씩만 찾아내어 붙잡으면 당장 우리들의 이상을 실천에 옮길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1965년 9월 3일 연수반 교육 제5기 개강식 때 상허 선생의 말씀입니다.

유석창 박사의 큰 포부는 범속한 사람이 상상도 할 수 없다. 농촌운동에는 막대한 자금이 필요하였다. 자금마련을 위해서 10년 동안을 노심초사 하다가 끝내 그 뜻을 펴보지 못한 채 영면하였다. 아무리 돈이 없어도 궁색한 빛을 보이거나 낙담이나 실망하는 일이 없었다. 오로지 무에서 유를 창조한다는 신념만을 가지고 복지 농촌건설을 위하여 석양의 노을처럼 불탔던 것이다.

1971년 12월 16일. 지금의 세종문화회관(당시 서울 시민회관)에서 제12회 전국농업기술자대회가 열렸다. 상허 선생께서 서거하시기 불과 2주일 전에 마지막으로 주재하신 대회행사였다. 유난히 추운 겨울이었다. 상허 선생은 연세대학교 부속병원에 입원 중이었다. 병상에서 대회행사의 준비를 지휘하다가 대회 당일에는 병상을 박차고 일어나 개회식전이 열리는 11시 10분전에 의연한 모습으로 만장한 농민들의 박수를 받으며 등단하였다.

한 시간 동안에 진행된 개회식전에서 대회사를 하고, 농업기술상을 시상하고 폐회 때까지 자리를 지켰다. 단상의 내빈들과 임원들과 굳은 악수를 나눌 때 그 악수가, 그 미소가 이 세상에서 다시 뵐 수 없는 영이별의 장면임을 누가 감히 알았으랴. 입원 중인 환자가 병상에서 대회장에 나오신 일을 몇 사람이나 알고 있었으며, 그날로부터 두 주일 후에 서거하실 줄이야 꿈엔들 생각할 수 있었으랴. 누구나 제 한 몸은 지구보다도 소중한 것이다. 죽음을 앞에 둔 병상에서 그 추운 겨울날 대회석상에 나선 신념과 용기를 이제 다시 되새겨 본다. 상허는 죽어서 영원히 살아있다. 사람은 누구나 한번 나서 한번 죽는다. 만고불변의 법칙이다. 그러나 모든 사람은 죽어서 그 날로 망각의 늪으로 사라진다. 그러나 상허 유석창 박사는 건국대학교 캠퍼스 풀 한 포기, 나무 한 그루에도, 발길에 채이는 돌 하나하나에도 상허는 영원히 살아있다.

필자가 건국대학교 캠퍼스에 발을 들여 놓은지도 벌써 18년이란 시간이 흘렀다. 발랄한 젊음을 대할 때 한없이 부럽다.

건국대학교 재학생 제군들이 동상으로나 사진으로밖에 대할 수 없는 상허 유석창 박사를 생전에 농촌운동의 동지로서 10년 동안이나 모시고 함께 일하였다는 사실을 내 일생의 가장 큰 보람으로, 그리고 자랑으로 간직하고 있다.

유석창 박사께서 만년에 그토록 정열을 쏟아 영도하시던 전국농업기술자협회의 모든 사업도 서거하신지 10년 동안에 장족의 발전을 하여왔고, 멀지 않아 상허 선생 묘소 앞에서 떳떳하게 보고 드릴 날이 다가오고 있다.(「내가 만난 상허 선생」, 『건대신문』 1981년 5월 20일)

제5편

상허 선생이 남긴 말의 향기

1. 상허 선생의 말과 글 속에 녹아 있는 깨우침
2. 농업 · 농촌 · 농민에 대한 애착과 사랑이 담긴 글들

제5편

상허 선생이 남긴

말의 향기

목차

1. 상허 선생의 말과 글 속에 녹아 있는 깨우침

1) '사람 중심과 사람 존중'에 관한 깨우침

2) '통찰력'에 관한 깨우침

3) '자아의 확립'에 관한 깨우침

4) '단결과 협동'에 관한 깨우침

5) '리더십'에 관한 깨우침

6) '나라사랑'에 관한 깨우침

7) '교육'에 관한 깨우침

8) '대학 · 대학인의 사명'에 관한 깨우침

9) '농촌의 부흥과 발전'에 관한 깨우침

2. 농업 · 농촌 · 농민에 대한 애착과 사랑이 담긴 글들

1) 「회보(농업기술회보) 발간에 즈음하여」, 『회보(會報)』 1호, 1964년 7월 20일

2) 「시 · 도 지부 결성을 마치고: 정치 · 영리를 떠난 증산 시범으로 보다 나은 기술과 경험을 전수」, 『회보(會報)』 2호, 1964년 10월 20일

3) 「각 시 · 도 지부 결성대회 격려사(抄): 증산은 구국이다, 농촌 진흥의 열쇠, 기술본위의 소조합운동을 펼쳐」, 『회보(會報)』 2호,1964년 10월 20일

4) 「1965년 새해인사: 선진국 번영은 기적이 아니다, 덕성(德性)과 근면(勤勉)으로 복을 누리자」, 『회보(會報)』 3호, 1965년 2월 1일

5) 「지회 결성 격려사: 조직의 힘으로 국난 타개하자」, 『회보(會報)』 4호, 1965년 4월 1일

6) 「전주 강연회 요지: 농업기술자협회의 역사적인 사명, 우리의 운동은 원심운동(遠心運動)으로 말초(末梢)를 살찌게 하는 것」, 『회보(會報)』 5호, 1965년 5월 1일

7) 「제2차 상임이사회 격려사: 농업근대화의 단계, 새 역사를 창조하자!! 3대 선행조건과 4대 결실운동」, 『회보(會報)』 6호, 1965년 6월 1일

8) 「한해(旱害)에 대한 총재 격려사: 홍수 때에 한해 대비, 인내와 용기로 극복」, 『농업기술회보(農業技術會報)』 7호, 1965년 6월 20일

9) 「역사에는 기적이나 비약은 없다」, 『농업기술회보(農業技術會報)』 8호, 1965년 7월 1일

10) 「농업기술로 무장」, 『농업기술회보(農業技術會報)』 9호, 1965년 8월 1일

11) 「명예대회장 격려사: 정신혁명, 기술혁명, 생활혁명」, 『농업기술회보(農業技術會報)』 14호, 1965년 11월 1일

12) 「제6회 전국농업기술자대회 대회사: 비약과 창조를 잊지 말자, 농업혁명의 선두에 서라」, 『농업기술회보(農業技術會報)』 17호, 1966년 1월 1일

13) 「일본 파견 농업기술 연구생에 대한 총재 격려사: 한국의 국민된 긍지를 지켜 연수하고 와서 선봉 되라」, 『농업기술회보(農業技術會報)』 22호, 1966년 5월 1일

14) 「농업문제 대강연회 강연(抄): 5만의 성좌가 빛을 발산케, 회우 여러분은 농업혁명의 기수이다」, 『농업기술회보(農業技術會報)』 23호, 1966년 5월 15일

15) 「제5차 상임이사회 격려사: 정체서 분발하자, 회원에게 실리 주는 운동으로 전환 모색」, 『농업기술회보(農業技術會報)』 28호, 1966년 8월 1일

16) 「격려사: 전진을 위한 자조자립의 자세, 제7회 전국농업기술자대회를 열면서」, 『농업기술회보(農業技術會報)』 29호, 1966년 9월 1일

17) 「특별담화: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경제작물 개발, 알찬 기술자 되어 조국근대화에 이바지하자」, 『농업기술회보(農業技術會報)』 31호, 1966년 10월 1일

18) 「제7회 전국농업기술자대회 대회사: 우리들에게 지워진 역사적인 의무와 사명」, 『농업기술회보(農業技術會報)』 32호, 1966년 11월 1일

19) 「1967년 신년사: 역사의 방관자가 되지 말고 대동결속 하여 전진하자」, 『농업기술회보(農業技術會報)』 34호, 1967년 1일 1일

20) 「격려사(발췌): 마음의 결정과 행동만이 남았다」, 『농업기술회보(農業技術會報)』 35호, 1967년 2월 1일

21) 「위대한 대전쟁의 승리를 위하여, 하나의 자연부락을 살리는 창조적 인간상」, 『농업기술회보(農業技術會報)』 38호, 1967년 4월 1일

22) 「특별담화: 2천년대 미래상은 위대한 꿈, 제3회 시도 농업기술자대회에 부쳐」, 『농업기술회보(農業技術會報)』 48호, 1967년 9월 1일

23) 「한재(旱災)와 싸우는 전남 회우 제위, 인내와 끈기로 한재를 이깁시다」, 『농업기술회보(農業技術會報)』 49호, 1967년 9월 15일

24) 「특별담화문: 새 진로와 전기 마련, 제8회 전국농업기술자대회에 부쳐」, 『농업기술회보(農業技術會報)』 51호, 1967년 10월 15일

25) 「제8회 대회사(요지): 혁명적인 과감한 수술의 집도의(執刀醫)는 선도농가」, 『농업기술회보(農業技術會報)』 52호, 1967년 11월 1일

26) 「1968년 신년사: 농민의 선도농가 되어 3대혁명을 완수하자」, 『농업기술회보(農業技術會報)』 54호, 1968년 1월 1일

27) 「특별담화: 도약을 위한 발전적 계기 모색, 선도농가의 긍지로 전진하자」, 『농업기술회보(農業技術會報)』 58호, 1968년 5월 1일

28) 「특별담화: 과감한 정책적 지원을, 전남의 한재(旱災)는 우리들 전체의 재난이며, 축산진흥은 농민들이 주체 돼야」, 『농업기술회 보(農業技術會報)』 61호, 1968년 8월 1일

29) 「특별담화: 제9회 전국농업기술자대회에 즈음하여, 행동하는 농민의 역량을 과시, 대회운동의 새 전기를 이루자」, 『농업기술회보(農業技術會報)』 62호, 1968년 9월 1일

30) 「결혼(結魂)의 동지 연수원 출신 회우, 대회 통해 전진의 계기로 삼자」, 『농업기술회보(農業技術會報)』 63호, 1968년 10월 1일)

31) 「제9회 대회 대회사」, 『농업기술회보(農業技術會報)』 64호, 1968년 11월 1일

32) 「농민의 외교관으로 연수 분야에 충실」, 『농업기술회보(農業技術會報)』 65호, 1968년 12월 1일

33) 「1969년 신년사: 역사의 전진을 직시, 농산업 혁명을 이룩하자」, 『농업기술회보(農業技術會報)』 66호, 1969년 1월 1일

34) 「동계 연수에 부치는 담화: 동계 연수 목적은 불황 타개와 경영 합리화에, 역경 처해 있을수록 공동으로 해결책 찾아야」, 『농업기술회보(農業技術會報)』 67호, 1969년 2월 1일

35) 「특별담화: 제10회 대회에 앞선 우리의 각오, 농민은 살아있는 민족의 양심, 한데 묶어 거대한 농촌의 잠재력을 활성화하자」, 『농업기술회보(農業技術會報)』 74호, 1969년 9월 1일

36) 「특별담화: 제10회 대회는 70년대 웅비의 시발, 선도농가의 긍지로 이 광장에 나서자」, 『농업기술회보(農業技術會報)』 75호, 1969년 10월 1일

37) 「농민과 신의(信義)의 결정(結晶), 땀의 진실 심으면 복지의 열매 맺으리」, 『농업기술회보(農業技術會報)』 76호, 1969년 11월 1일

38) 「특별담화: 조국근대화 대열의 낙오자 되지 말자, 푸른 깃발 아래 대오를 정비, 질서 정연한 알찬 행사 되길」, 『농업기술회보(農業技術會報)』 77호, 1969년 12월 1일

39) 「1970년 신년사: 도약의 발판 위에 웅비의 날개 펼 70년대, 도시와 농촌의 균형된 발전을 성취하자」, 『농업기술회보(農業技術會報)』 78호, 1970년 1월 1일

40) 「특별담화: 대오를 정비하여 전진, 새 결의와 각오로 회원 정비에 협조하길」, 『농업기술회보(農業技術會報)』 81호, 1970년 4월 1일

41) 「격려사: 이국땅이라 어려움 많겠지만 사명 완수하여 금의환향 하길」, 『농업기술회보(農業技術會報)』 82호, 1970년 5월 1일 2면 1단

42) 「특별담화: 회세 확장에 총력을 경주, 이 줄기찬 농민대열에 적극 참여하길」, 『농업기술회보(農業技術會報)』 84호, 1970년 7월 1일

43) 「특별담화: 사명감 충일한 힘의 총화로, 자기개발과 농산업혁명의 계기를 이룩하자」, 『농업기술회보(農業技術會報)』 86호, 1970년 9월 1일

44) 「제11회 전국농업기술자대회 대회사: 10년 전통 위에 이룩될 농산업 혁명, 선도농가 앞장 서 농민을 주도하자」, 『농업기술회보(農業技術會報)』 89호, 1970년 12월 1일

45) 「1971년 신년사: 71년은 선거의 해, 정치세력에 기생하는 사이비 농촌지도자를 엄중 경계하자」, 『농업기술회보(農業技術會報)』 90호, 1971년 1월 1일

46) 「차원 높은 운동 전개 있을 터, 지혜와 용기로 착실한 전진을 계속하자」, 『농업기술회보(農業技術會報)』 95호, 1971년 6월 1일

47) 「특별담화문: 농촌 진흥은 농민이 주도해야, 상허재단은 협회 운동의 초석」, 『농업기술회보(農業技術會報)』 96호, 1971년 7월 1일

48) 「상허농촌복지재단 발기인 제위에 드리는 글: 농촌 진흥의 신념과 자신에 살아, 설립 후에 더욱 확충할 터」, 『농업기술회보(農業技術會報)』 97호, 1971년 8월 1일

49) 「대회 특별담화: 대회는 자주 · 민주 농심의 발로, 식량 증산에 총진군하자」, 『농업기술회보(農業技術會報)』 98호, 1971년 9월 1일

50) 「대회 주제에 부쳐: 결코 중단할 수 없는 장한 거사, 낯익은 동지 여러분 대회 때 만납시다」, 『농업기술회보(農業技術會報)』 99호, 1971년 10월 1일

51) 「지령 100호를 자축함: 농민의 참된 대변자로서 농촌 발전의 길잡이 될 터, 사회정의 구현의 능동적 역량 발휘에 역점」, 『농업기술회보(農業技術會報)』 100호, 1971년 11월 1일

52) 「제12회 전국농업기술자대회를 앞두고 국가비상사태 선언에 따른 특별성명서: 농민총화로 국민총화를 선도, 구농애국(救農愛國)에 총궐기 전진하자」, 『농업기술회보(農業技術會報)』 101호, 1971년 12월 1일

53) 「1972년 신년사: 상허재단은 자주농민의 반석, 용기와 신념으로 민주협동의 힘을 기르자」, 『농업기술회보(農業技術會報)』 102호, 1972년 1월 1일

54) 「제12회 전국농업기술자대회 대회사: 농민은 자주국방과 경제자립의 주역, 3대혁명 완수로 복지농촌 건설하자」, 『농업기술회보(農業技術會報)』 102호, 1972년 1월 1일

1
상허 선생의 말과 글 속에 녹아 있는 깨우침

1) '사람 중심과 사람 존중'에 관한 깨우침

우리 는 무(無)에서 유(有)를 창조해야 합니다. 뜻이 있는 곳에서 길이 열립니다.
우리가 돈이 없다고 해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수수방관만 하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첫째도 사람, 둘째도 사람, 셋째도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계획이 뒤따르고 그 다음, 다음에 돈이 필요한 것입니다.
〔전국농업기술자협회 기획위원회에서, 1966. 5. 27〕

인류가 타 동물과 구분되는 특이한 요소는 역사를 가졌다는 것이다.
역사는 실로 성심의 연쇄이기는 하나, 위(僞)의 계속으로서는 성립할 수 없다.
〔『건대학보』 8호, 1960〕

역사나 전통은 단순히 시간이 지난다든지, 같은 일을 여러 번 되풀이하는데 뜻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지난날의 경험을 전진의 발판으로 삼는 데 의의가 있다.
〔『정대연합학회지』 제3호, 1964〕

우리의 역사는 거짓이 하나도 없습니다.
어떤 국가나 어떤 민족이 변경하는 데는 위대한 지도자의 힘이 작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농업기술회보』 32호, 1966년 11월 1일〕

역사에는 요행이나 기적이나 비약이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경제자립을 성취하자면 역사적인 단계를 밟아야 하며
그 제1단계가 농업 증산인 것입니다.
〔『농업기술회보』 90호, 1971년 1월 1일〕

아무리 우리의 과업이 급할지라도 인간의 바탕에 있어서 쌓아야 할 수양을 소홀히 할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정교한 과학기술이라 할지라도 이를 원만한 인격이 기초위에 세우지 않는다면, 그것은 사상누각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인간이 스스로 만든 원자핵의 위협에 떨고 있는 오늘의 현실이 바로 그것을 말해 주는 것입니다.

〔『개발』 창간호, 지역사회개발초급대학 연합학회, 1966〕

인간의 최후의 성공은 오직 주체성〔인격〕이라는 것을 잊지 않고 나간다면
제군의 성공률을 백중이 될 것이라는 것을 나는 서슴치 않고 단언할 수 있다.

〔『건대학보』 8호, 1960〕

신(信)은 우리의 천부(天賦)의 선심(善心)인 성(誠)이 언행으로 나타나서
사회적인 대인 관계에 미칠 때, 이것은 '신'이라고 할 것이다.
의(義)는 성(誠)을 조절하여 중용(中庸)을 잃지 않게 하는 덕(德)이다.

〔『건대학보』 8호, 1960〕

조숙한 과실로서 일찍이 떨어지게 하느니 보다,
만성(晩成)한 대과(大果)로서 오래도록 훈향(薰香)을 떨치게 하는 것이 낫습니다.

〔『정대』 5호, 1958〕

복(福)은 하느님으로부터 내리는 은혜입니다.
우리 인간은 복을 주십사 하고 하느님께 기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느님의 입장에서 보면 복은 만인에게 공평하게 내리는 것입니다.
마치 우로(雨露)와 같이 온 천하에 골고루 나리는 것입니다.
그 복을 많이 받고 적게 받는 것은 그 복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이 준비한
그릇의 대소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적은 그릇을 준비한 사람은 복을 적게 받고 큰 그릇을 준비한 사람은 복을 많이 받게 됩니다.
그러면 그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 인간이 지니고 있는 덕성(德性)이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덕성을 많이 지니고 있는 사람은 좋은 복을 많이 받게 되고,
좋은 덕성을 많이 받고 있는 국민은 좋은 복을 많이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개인으로나 복을 원하면 먼저 덕성을 함양해야 할 줄로 압니다.

〔『회보』 3호, 전국농업기술자협회, 1965년 2월 1일〕

독일의 부흥, 소위 '라인 강의 기적'은 결코 기적이 아니고
그들의 근면성과 소박성과 과학성에서 온 것입니다.

〔『회보』 3호, 전국농업기술자협회, 1965년 2월 1일〕

우리는 하늘이 내려 주는 복을 받기 위하여,
온 국민이 다 같이 근면 · 소박 · 과학의 생활을 해야 하겠습니다.

〔『회보』 3호, 전국농업기술자협회, 1965년 2월 1일〕

헐벗고 굶주리고 병고에 허덕이는 동포의 가난은 곧 나의 가난이며,
이들의 아픔은 곧 나의 아픔이다.

〔'사회영 중앙실비진료원' 설립에 동참을 호소하는 강연회에서, 1931. 4〕

민중병원이 운영 면에서 수익을 올린다면
이는 애국선열들이 이 병원을 설립할 때 지녔던 근본 취지에 위배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나는 그분들 앞에 무서운 죄를 짓게 됩니다.
다만 내가 죽은 뒤가 문제입니다.
만일 민중병원이 수익을 올린다면, 여러분이 민중병원의 문을 닫아 주십시오.
그리하여 지하에 계신 애국선열 앞에 당할 나의 욕됨을 막아주십시오.
여러분은 내 말의 증인들입니다.

〔'민중병원'의 신축 낙성식에서, 1971. 9. 25〕

2) '통찰력'에 관한 깨우침

과거를 무시한 현재가 존재할 수 없는 것과 같이 현재에서 유리된 미래란 있을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하여야 할 것이다.

〔『건대학보』 24호, 1971〕

언제나 그제는 지나간 과거로 흘려보낼 것이 아니라,
취장사단(取長捨短)하여 오늘을 더 높게 하고 더 빛나게 하는 토대가 되어야 할 것이다.

〔『정대연합학회지』 제3호, 1964〕

모든 일에는 선(先)과 후(後)가 있고, 또 그 출발과 과정이 중요한 것입니다.
〔『농업기술회보』 90호, 1971년 1월 1일〕

정신과 인내는 우리로 하여금 그 날 그 날의 생활을 화사(華奢)하게 만들어 두지는 못하였습니만,
어제는 오늘의 희망 속에 오늘은 내일의 기약 속에 살 수 있도록 하였으며,
마침내 민족의 다난한 항로에 불멸의 등대가 되도록 할 날이 올 것으로 믿는 바입니다.
〔『정대』 5호, 1958〕

3) '자아의 확립'에 관한 깨우침

고래의 부덕(婦德)은 미덕임에는 틀림이 없으나, 그것을 오늘 다 같은 격동기에 적응시키기 위해서는 종래의 소극 · 피동의 자세를 과감히 탈피하고, 적극적으로 개인이나 국가의 운명을 개척하는 역사의 주인이 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여대학보』 창간호, 1967〕

우리 농촌은, 혹은 대부분의 농민모임은 대부분이 피동적이고 그래서 무기력하기 일쑤입니다. 춘래불사춘(春來不似春)이란 말과 같이 분명히 내재한 힘은 있건만, 그것이 발휘되지 못하고 있는 것을 흔히 보아 오는 터입니다.
〔『농업기술회보』 86호, 1970년 9월 1일〕

이 나라의 바탕은 농촌이요, 농민인 것입니다. 생산 면으로나 인구구성 면으로 보아도 그렇고, 순수한 국민성을 지니고 있는 것도 우리들 농민이며 농촌인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 농촌은 너무나 가난하여 농민이 이 나라의 주인으로서 행세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회보』 8호, 1965년 7월 1일〕

역사 속의 농민은 무력하였고 소외되어 있었으나, 결코 오늘날의 농민은 역사의 고아가 될 수는 없습니다.
〔『농업기술회보』 102호, 1972년 1월 1일〕

국제정세에 대처해서 요즈음 국민총화(國民總和)라는 말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국민총화에 있어서 과연 그 주체는 사회의 어느 계층이겠습니까? 바로 농민이 국민총화의 구심세력이며 주체들인 것입니다. 우리 농민들은 정신혁명을 완수하여 민주적인 협동화의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면 민주주의를 바탕으로 하는 국민총화가 성립될 수 없는 것입니다.
〔『농업기술회보』 98호, 1971년 9월 1일〕

4) '단결과 협동'에 관한 깨우침

단결은 곧 조직에서 시작됩니다.
〔『회보』 3호, 전국농업기술자협회, 1965년 2월 1일〕

민주사회의 번영은 단결과 협조라는 정신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개인적 차원에서 한걸음 높이 올라가, 사회니 민족이니 국가니 하는 전체적 고차원의 태세를 갖추지 않고서는 도저히 사회문제로 걸려있는 난관을 극복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회보』 제4호, 전국농업기술자협회, 1965년 4월 1일〕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는 말과 같이 서로 협동하는 힘과 묘를 발휘하여 우리들의 목표를 달성하도록 힘써야 할 줄 압니다.
〔『회보』 제4호, 전국농업기술자협회, 1965년 4월 1일〕

창조는 인간의 결합관계에서 구상화되어 나옵니다. 그러므로 너와 나의 협동은 창조를 가져 오는 근원이요, 너와 나의 협동적인 결합관계는 '가(家)'를 조성하기도 하지만, 너와 나의 남이 우리라는 협동사회를 구성하게 되는 사회적 집단의 단위가 되기도 합니다. 〔유석창, 『조용한 혁명』〕

각 리동(里洞)으로 실천할 수 있는 조직을 만들어서 혼자서 안 될 일을 합심하여 계획하고 연구하고 실천하는 일을 시도해 보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유석창, 『조용한 혁명』〕

사회 발전의 본질적인 해명은 인간의 결합적 요소와 그 인간적 결합에 의거한 협동적인 현상에서 일어나는 창업에서 유래된다고 함을 우리는 인식하여야만 합니다.
〔유석창, 『조용한 혁명』〕

5) '리더십'에 관한 깨우침

참된 지도자가 되려면 먼저 민중의 속으로 뛰어 들어가라.
그리하여 거기서 민중과 더불어 고락을 함께 하며,
모든 문제의 지도와 해결에 직면하여 새로운 발전으로 이끌어 나아가라.
무릇 사회의 발전이란 이런 지도자들의 능동적인 창조력에 의거하게 되고, 그리하여 모든 역사는 전진하고, 새 역사의 주인공은 발견되는 것이다.
〔'아시아에 있어서 자유 · 공산 두 세력의 균형관계와 한국의 대비' 중에서, 『정대』 제3 · 4합병호, 1955〕

무(無)에서 유(有)를 낼 수 있는 창의성을 가져야 한다.
〔총장「유석창」론' 중에서, 『건대학보』 제7호, 1959〕

어떤 부문에서 개척자가 되어,
맡은 바 소업(所業)을 성취할 수 있는 용기와 기백과 열의를 가져야 한다.
〔총장「유석창」론' 중에서, 『건대학보』 제7호, 1959〕

어떤 부문에서든지 개척자가 되어 맡은 바 소업(所業)을 성취할 수 있는 용기와 기백과 열의를 가져야 한다.
〔총장「유석창」론' 중에서, 『건대학보』 제7호, 1959〕

무(無)에서 유(有)를 낼 수 있는 창의성을 가져야 한다.
〔총장「유석창」론' 중에서, 『건대학보』 제7호, 1959〕

'젊음'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비전'을 갖는 사람의 특징인 것이요,
이는 곧 꿈을 꿀 줄 아는 이상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유석창, 『조용한 혁명』〕

현실 속에서 빈곤의 모순을 초극하기 위하여 미래로 '전신 투입(全身投入)'을 하는 용기를 자랑할 수 있는 것은 젊은이의 이상이요, 또는 기질이어야만 합니다.
〔유석창, 『조용한 혁명』〕

곤란의 땅을 내려다보기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저 하늘 높이 역경의 난관을 뛰어 넘을 정복의 눈을 밝히는 사람이야말로 젊은이가 아니고 누구이겠습니까?
〔유석창, 『조용한 혁명』〕

해방 20년 역사가 공전하는 동안에 조장된 것이 불신입니다.
불신 때문에 조직과 단결력이 없고 그러니 힘이 없습니다. 뿔뿔이 흩어져서 서로 불신하는 가운데서 역사적인 과업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우리 회원은 각기 거주하는 자연부락에서 먼저 신의를 되찾아야 하겠습니다.
제1차적으로 농민들에게서 정신적으로 신망을 받고 기술적으로 모범이 되어 현저한 증산 실적을 눈앞에 보여줌으로써, 농민들로 하여금 자발적인 의욕을 불러일으켜 기술을 알맹이로 하는 농사기술조합을 만들어 조직적인 증산운동을 일으키자는 것입니다.
〔『농업기술회보』 14호, 1965년 11월 1일〕

나는 최근 농촌부흥을 위한 두 가지의 큰 발견을 하였습니다.
기술 중심의 전혀 색다른 소조합운동의 전개와 특이한 존재성을 지닌 선도농가(先導農家)를 발견하는 일입니다.
〔『회보』 2호, 전국농업기술자협회, 1964년 10월 20일〕

오늘 우리가 농업에 관한 제 문제를 토의함은 형식이 아니라,
진실로 조국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독농가(篤農家)들의 동지적인 규합 5만 자연부락의 조직적인 정비 기술의 수련과 지도자의 자질 함량이 선행조건이며, '독농가의 발견' '기술조합운동의 전개' '말초비대운동' '5만 자연부락 비대운동'의 4대 결실운동을 전개해야 합니다.
〔『회보』 6호, 전국농업기술자협회, 1965년 6월 1일〕

눈부시게 발달하는 정보수단-매스컴이 얼마나 농민 편에서 농촌과 농업문제를 다루고 있는가를 살펴볼 때 탄식이 저절로 납니다. 넘쳐흐르는 퇴폐풍조와 외국에서 직수입된 망측스러운 유행은 공서양속(公序良俗) 기풍을 해친다하여 도시에서도 말썽이 되고 있거니와,
특히 우리 농촌에까지 전염병처럼 만연하여 근로정신을 해치며 내일에의 농촌을 이끌어나갈 농촌 청년들을 이농(離農)케 하고 있음을 그냥 보아 넘길 수 없습니다.
민주주의는 여론의 정치이며, 여론은 국민의 의사이고
그 의사는 신문, 잡지 등 언론으로 표현됩니다.

언론의 자유는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입니다.

언론기관은 사시(社是)에 따라서 대중의 의사를 전달하고 사회의 실상을 올바르게 보도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흔히 보아오는 일은 생산자인 농민과 소비자인 도시인의 이해가 상반될 때 언론의 표현은 과연 누구 편에 서서 그 권익을 대변하고 있는가를 냉철히 판단하면,

때로는 서운한 마음을 참을 수 없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농민들도 우리 농민들 편에서 농민들의 정당한 권익과 여론을 주장할 수 있는 그야말로 농민의 대변지(代辯紙)가 아쉽습니다.

그리고 이농민의 대변지는 우리 농민들의 힘으로 육성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어찌 농민의 대변지뿐이겠습니까?

라디오 방송국도, 텔레비전 방송국도 농민의 힘으로 운영해 갈 역량이 있을 때가 바로 농업근대화가 이루어지는 때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농업기술회보』 100호, 1971년 11월 1일〕

농민운동을 위해서는 자금이 필요합니다.

이 자금이야말로 자주독립성이 보장되어야 하겠습니다.

보조금에 의한 농민운동과 남의 힘에 끌려 다니는 농민운동은 그 힘과 돈이 끊어질 때 그 수명을 다하는 것입니다.

〔『농업기술회보』 102호, 1972년 1월 1일〕

'기업농(企業農) 육성'이란 미명 아래 대자본가를 끌어들이고,

그 결과 대다수 농민들이 희생의 제물이 되어서는 안되겠습니다.

〔『농업기술회보』 61호, 1968년 8월 1일〕

6) '나라사랑'에 관한 깨우침

조국이 없이는 부귀도 없으며, 조국이 없이는 너도나도 없다는 신념에서 나의 잔뼈가 굵어 왔으며, 총칼을 들고 반제(反帝) 대열에 따랐던 나로서는 지금도 '조국'이라는 말만 들어도 가슴이 뭉클해지며, 눈시울이 뜨거워집니다.

〔'총장 이임사' 중에서, 『건대학보』 11, 1961〕

내가 '조국'안에 있고, '조국'이 내 안에 있는 듯, '조국'이 나요,

내가 곧 '조국'인 양 '조국'과 나는 결코 둘이 아니라는 신념에서,

나는 한 평생 그 '조국'과 그 '나'를 위하여 작은 정성이나마 몸과 마음을 바쳐 살아왔으니,

이러한 심경이 이른바 '사랑'인가 합니다.

〔'총장 이임사' 중에서, 『건대학보』 11, 1961〕

우리는 개인주의자도 아니요, '코스모폴리탄'도 아니다.

국가와 민족이 부를 때에는 언제든지 개아(個我)를 초월하여 일치단결할 것이며,

진리의 사도(使徒)이기 전에, 국민으로서의 의무를 다할 것이다.

〔『건대학보』 24호, 1971〕

나의 생활화된 조국애의 감정, 지극히 아끼고 사랑하는 조국의 앞날에 다소라도 이바지 하려는 염원에서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전국농업기술자협회 운동에 나선 것입니다.

〔『농업기술회보』 28호, 1966년 8월 1일〕

쌀 한 톨이라도 더 생산하는 것이 애국운동이며 애국자입니다.

도시 중심의 가장행렬로는 나라가 안 됩니다.

〔『회보』 2호, 전국농업기술자협회, 1964년 10월 20일〕

한 집안을 두고 볼 때에는 성실과 근면 없이 남의 빚과 의타심만으로는 성가(成家)한 일은 보지 못함과 같이, 한 나라도 땀을 흘리지 않고 외채만으로 경제자립을 이룩한 나라를 동서고금을 두고 찾아볼 수 없습니다.

〔『농업기술회보』 76호, 1969년 11월 1일〕

현하 우리나라는 공업입국(工業立國)을 목표로 의욕적인 경제성장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 나라의 산업국가 건설은 균형 잡힌 지역사회의 개발이 없이는 그 전도(前途)가 매우 걱정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개발』 2호, 1967〕

7) '교육'에 관한 깨우침

사학(私學)은 그 대학 특유의 이상과 전통, 그리고 기풍을 가져야 하며,
거기에서 각자 발휘된 개성이 함양되어야 한다.
〔'건대 10주년 계획안' 중에서, 『건대학보』 24, 1971〕

우리 대학은 성(誠) · 신(信) · 의(義)의 교시가 밝혀주듯이,
무엇보다도 먼저 진실하고, 부지런하고,
신의 있는 인격자의 배양에 힘쓸 것이다.
동시에 정열과 용기와 창의로써 새 시대를 이끄는 개척자 정신의 함양에 노력할 것이다.
〔'건대 10주년 계획안' 중에서, 『건대학보』 24, 1971〕

학문이 현실과 유리된 담장 속에서 관념의 유희를 일삼을 때는 멀리 지나갔습니다.
우리의 면학과 연구는 모름지기 조국의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고,
국민의 생활과 이익에 직결되는 것이어야 할 것입니다.
〔'격려사, 더욱 넓게 더욱 깊게' 중에서, 『법정연구지』 창간호, 1966〕

아무리 우리의 과업이 급할지라도,
인간의 바탕에 있어서 쌓아야 할 수양을 소홀히 할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정교한 과학기술이라 할지라도 이를 원만한 인격의 기초위에 세우지 않는다면,
그것은 사상누각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본교 교육이 그 어느 것보다도 성 · 신 · 의를 바탕으로 하는 인간교육을 제일로 중시하는 것은 그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힘찬 출발을' 중에서 , 『개발』 창간호, 1966〕

대학의 역사가 전환되는 과도기에 있어서, 한때의 현란한 꽃송이를 탐내어 허울 좋은 모습을 꾸미기 보다는, 은인자중(隱忍自重)하여 뿌리와 줄기를 충실히 하고, 비약하는 내일의 생명의 원천을 마련해야 합니다.
〔'책의 머리말' 중에서, 『정대』 제5호, 1958〕

나의 마음은 '건국'이라고 명명한 이 학원을 여전히 감돌고 있으며,
더욱이 조국재건의 뜻을 가진 건국에 대한 일념은 영원히 나의 생활에서 떼어낼 수가 없습니다.
〔'총장 이임사' 중에서, 『건대학보』 11, 1961〕

건대는 이제부터입니다.
나는 퇴진 후에도 건대의 발전을 위하여 배후의 힘이 될 것이며,
후계자를 도와 그 육성을 위한 비료가 됨으로써 우리가 세워 놓은 이념을 꿋꿋이 살려
건대로 하여금 '조국재건의' 등불이 되게 하겠습니다.
〔'총장 이임사' 중에서, 『건대학보』 11, 1961〕

성(誠)은 진실과 지성의 말함이니, 모든 일의 시작과 끝은 여기에서 이루어진다.
신(信)은 사회생활의 근간이니, 모든 단결과 협동이 여기에서 이루어진다.
의(義)는 정의와 용기의 원천이니, 청사에 빛나는 인물들의 업적은 모두 의(義)의 기록이다.
〔'성 · 신 · 의' 중에서, 『건대학보』 8, 1960〕

조선의 중견 남녀에게 정치 및 사회에 대한 학술을 주로 교수하며,
동시에 조국 의식의 함양 및 인격의 도야에 치중하여,
장래 조선의 지도자들로서의 역할을 다하기에 족할 만한 대들보의 재목을 양성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조선정치학관의 설립 신청서에 기록된 교육 목적, 1946. 2. 15〕

8) '대학 · 대학인의 사명'에 관한 깨우침

현실에서 바쳐져야 할 우리의 학문적 노력은 국가 · 사회의 이익이나 인류문화의 향상에 직선적으로 연결되는 것이어야 합니다.〔『경상휘집』 창간호, 1965〕

옛날엔 학부가 사회와 격리된 상아의 탑 속에 묻혀 있는 것으로써
스스로의 원리와 자랑을 삼아 왔습니다만,
이제 대학은 그 문호를 현실에 개방하고 보다 훌륭한 내일을 가져 오기 위한 책임을 짊어져야 할 때입니다.〔『경상휘집』 창간호, 1965〕

우리의 연구와 노력이 국가나 인류사회의 이익에 직결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경상휘집』 창간호, 1965〕

바닷가의 모래알을 세는 것도 진실을 추구하는 일의 하나요,
간접으로 따지면 인류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일이라고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객관적 판단이야 어떻든 적어도 그렇게 자위(自慰)할 수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다급한 현실은 그러한 우회 내지 자위 과정에서 준순(浚巡)할 때는 아닙니다.
〔『경상휘집』 창간호, 1965〕

국가가 있는 연후의 대학, 국가 안의 대학이라는 인식을 바로 가진다면
우리도 종래의 타성을 과감히 삼제(芟除)하여,
이 시대와 이 사회가 요구하는 건전한 일군의 양성에 협력하고 분발하여야 할 것입니다.
〔『건대학보』 8호, 1960〕

대학이 배출하고자 하는 '엘리트'는 모든 부속품을 가동케 하고
기계 전체에 생명력을 불어 넣는 엔진이며,
뚜렷한 자각과 목적의식을 가지지 않으면 안 된다.
〔『건대학보』 24호, 1971〕

과학처럼 비약을 싫어하고 기적을 배척하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는 흔히 선인(先人)의 빛나는 학문적 업적에 도취하면서도,
그들의 걸어온 형극의 역정을 무시합니다.
그들의 위대한 발견을 찬양하면서도,
그들이 꾸준히 지켜온 원칙을 망각하기 쉽습니다.
〔『여대학보』 창간호, 1967〕

과학의 세계는 망망대해와 같이 넓으나, 거기에 이르는 길은 매우 좁습니다.
〔『여대학보』 창간호, 1967〕

발명이나 발견이 '우연의 신'으로부터 선사된 것이라는 맹귀우목(盲龜遇木)의 전설은 낡아빠진 시대착오나 게으름뱅이의 허황한 꿈에 지나지 않습니다.
〔『경상휘집』 창간호, 1965〕

학문에 비약은 허용될 수 없습니다.
차근차근 기초를 다지고 원리를 체득한 연후에야 비로소 비바람에 흔들리지 않고 고루거각(高樓巨閣)을 세울 수 있습니다.
그것은 떠들썩한 굿질이나 화려한 겉치레만으로 이룩되는 것은 아닙니다.
〔『경상휘집』 창간호, 1965〕

오늘의 축우(畜牛)는 과학에 의하여 살찌고 과학에 의하여 발전하는 새 시대의 경제적 역군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여 과학이나 역사의 '비약'을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끈기 있는 인내와 꾸준한 노력으로써만 과학의 세계는 한걸음씩 개척되고 부흥 · 재건의 날은 한 발자국씩 다가올 것입니다.
〔『축우』 창간호, 1965〕

나는 여기에서 새로운 꿈을 실현코자 하였으니,
이곳으로 하여금 과학과 기술을 연마될 수 있는 학원을 삼는 동시에,
조국애를 증입(證入)하는 도량으로 만들고자 한 것입니다.
〔『건대학보』 7호, 1959〕

생을 중심으로 한 국민정신의 떨침은 시들어 가는 우리 민족의 정기를 북돋아 주었으며,
고갈된 민주주의에 새봄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건대학보』 8호, 1960〕

비록 일부의 지나침이 있었다 하더라도,
학생들의 본의는 나라의 장래를 근심하고 겨레의 앞날을 생각하는 순정(純情)의 발로(發露)이었음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건대학보』 8호, 1960〕

학생은 4월 혁명이나 그 후의 질서 유지나 또는 근자의 계몽운동에서 보여준 바,
애국적 정열의 '핸들'을 이제 학업의 본궤도로 돌이켜
진지한 학문의 사도가 되기를 바라마지 않는 바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원대한 애국의 도표(道標)이며, 혁명의 완숙한 결실을 가져 오는 길입니다.
〔『건대학보』 8호, 1960〕

9) '농촌의 부흥과 발전'에 관한 깨우침

한국의 재건이 농촌의 부흥 없이 이룩될 수 없는 것이라면,
농춘 부흥의 중추적인 기능을 담당하여야 할 제군의 건전한 성장에 기대하지 않고서는,
한국의 내일을 바라볼 수 없습니다.
〔'슬기와 근면을' 중에서, 『축우』 2, 1966〕

조용한 혁명이란 농민의 정신혁명, 농업의 기술혁명, 농촌의 생활혁명으로, 이런 농업의 3대 혁명을 이루어 우리가 뜻하는 복지문화 농촌의 새마을을 건설하는 것이 그 목표입니다.
그러나 조용한 혁명은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 혁명을 위하여 발 벗고 나서는 수많은 열혈 애국청년에 의해서만 이루어 질 수 있는 것입니다.
〔'책의 머리말' 중에서, 『개발』 제2호, 1967〕

나는 이제 여생을 농축산업 발전과 농촌 개발을 위한 농민운동에 바치다가 논두렁을 베고 죽을 것을 결심하였습니다.
〔건국대학교 총장 퇴임식에서, 1961. 9. 30〕

문화국가를 만들기 전에 먼저 경제국가를 건설해야 하며,
또 경제 국가를 건설하기 전에 산업국가를 만들어야 합니다.
산업국가는 말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농민을 붙잡아 농민으로 하여금 건설하면 된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국농업기술자협회 제2차 이사회에서, 1963〕

쌀 한 톨이라도 더 생산하는 것이 애국운동이며 애국자입니다.
도시 중심의 가장행렬로는 나라가 안 됩니다.
체조선생이 되어 증산운동에 앞장섭시다.
〔전국농업기술자협회 경남지부 결성대회에서, 1964. 8. 7〕

나는 최근 농촌부흥을 위한 두 가지의 큰 발견을 하였습니다.
기술 중심의 전혀 색다른 소조합운동의 전개와 특이한 존재성을 지닌 독농가를 발견하는 일입니다.
〔전국농업기술자협회 서울시지부 결성대회에서, 1964. 9. 8〕

오늘 우리가 농업에 관한 제문제를 토의함은 형식이 아니라
진실로 조국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독농가들의 동지적인 규합, 5만 자연부락의 조직적인 정비,
기술의 수련과 지도자의 자질함양이 선행조건이며,
독농가의 발견, 기술조합운동의 전개, 말초비대운동, 5만 자연부락 비대운동의 4대 결실운동을 전개해야 합니다.
〔제2차 전국농업기술자협회 상임이사회에서, 1965. 5. 17〕

나의 생활화된 조국애의 감정, 지극히 아끼고 사랑하는 조국의 앞날에 다소라도 이바지하려는 염원에서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전국농업기술자협회 운동에 나선 것이다.
〔전국농업기술자협회 제5차 상임이사회에서, 1966. 7. 25〕

우리의 3대혁명은 농민의 정신혁명으로 민주적 협동화를 이룩하고,
농업의 기술혁명으로 과학적 전문화를 이룩하고,
농촌의 생활혁명으로 합리적 복지화를 이룩하는 일입니다.
〔제9회 전국농업기술자대회에서, 1968. 10. 11〕

의사가 창자를 잘라내는 대수술을 해야 고칠 수 있는 중병이 있듯이,
우리나라의 농업도 대수술을 않고서는 고칠 수 없는 고질적인 중병을 앓고 있습니다.
이 수술이 곧 우리가 하자는 3대혁명입니다.
〔전국농업기술자협회 주최 '농업문제 대강연회'에서, 1966. 5. 4〕

농촌의 개발에는 5단계의 농가 유형에 따른 과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은 선도농가가 앞장서서 정부의 정책적 지원과 농민을 끌어들인 삼위일체적 개발이어야 합니다. 〔전국농업기술자협회 이사 및 시 · 군지회장 합동회의에서, 1967. 7. 20〕

국민경제의 발전과 국민의 식량공급을 위하여 기나긴 역사의 시련 속에서 정치의 빈곤, 천농사상(賤農思想)의 일반화, 배농사조(排農思潮)의 물결 등 온갖 고역 속에도 불요불굴의 정신으로 꾸준히 이 나라를 지켜온 사람은 바로 우리나라 농민들이다.
이제까지 바쳐 놓은 흙에의 애정을 더욱더 보람 있게 꽃피우자.
〔전국농업기술자협회 주최 제3회 풀베기대회에서, 1964. 6. 21〕

때때로 사람들은 뭘 하고 있느냐고 물으면
"돈이 있습니까? 기술이 있습니까? 그래서 놀고 있습니다"고 한다.
우리가 잘 사는 길은 첫째도 사람, 둘째도 사람, 셋째도 사람이며,
넷째 기술이고, 다섯째 계획, 그리고 맨 마지막에 '돈'입니다.
〔경기도 이천군 송라협업농장 창립1주년 기념식에서, 1971. 4. 20〕

조국의 농업발전과 현대화에 뜻을 두고 백년지대계(百年之大計)를 세워야 할
오늘날의 농학도는 농 · 공 균형 성장을 목표로 하여 분기하고,
농민의 정신혁명과 농업의 기술혁명과 농촌의 생활혁명 곧 3대혁명을 완수하여 농촌 현대화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건농』 창간호, 1967〕

젊은 세대는 서기 2000년대의 한국농업의 미래상을 그리면서
우리나라가 조속한 시일 안에 곡물의 자급자족과 잉여 농산물의 수출국가로 건설됨으로써,
우리들의 농촌이 복지화의 마을로 살기 좋게 되도록 노력 해야만 하겠습니다.
〔『건농』 창간호, 1967〕

나는 일상생활 전부를 어떻게 하면 농민이 잘 살 수 있을까 하는 데에 쏟고 있습니다.
농민이 잘 살 수 있는 자구운동(自求運動)을 일으켜야 하겠습니다.
나는 내 생명을 이 운동에 바칠 각오입니다.
논두렁에 쓰러지는 한이 있어도 이 운동에 몸을 바치겠습니다.
〔『농업기술회보』 14호, 1965년 11월 1일〕

인생 일대(一代)는 길고도 짧은 것, 마음은 아직 청춘이지만 나이 칠십을 헤아리게 되었습니다.
칠십 평생을 이렇다 할 이루어 놓은 일 없이 '석양귀객(夕陽歸客)이 보보망망(步步亡亡)'이란 말과 같이 공연히 바쁘기만 하다.
한 가지 소원이 있다면 죽기 전에 우리 농촌이 복지화되는 것을 보고 싶은 것이요,
또 전국의 회우(會友) 동지들과 마음과 뜻을 합하여 벌려놓은 이 운동을 반석위에 올려놓겠다는 일념뿐입니다.
〔『농업기술회보』 76호, 1969년 11월 1일〕

한 나라의 경제기초가 닦아지려면 농민의 생활이 향상되어야 하며,

그렇지 못하면 정치 · 사회 · 문화도 바로서지 못한다.
〔『농업기술회보』 14호, 1965년 11월 1일〕

10년 동안의 서울의 변한 모습은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투어 치솟고 있는 고층건물군(群), 거리를 메운 자동차의 홍수, 사치스런 낭비성향 등
이러한 현상이 진정한 조국근대화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농업기술회보』 75호, 1969년 10월 1일〕

퇴폐적인 사회풍조와 악성적인 소비성향을 가지고 풍요한 사회로 설명될 수 있으며,
도시의 이상비대와 고층건물이 진정한 조국근대화의 상징이 될 수 있겠습니까?
〔『농업기술회보』 75호, 1969년 10월 1일〕

도시중심적인 공업발전책에만 중점을 둘 것이 아니라,
후진된 농촌사회에서도 현하화(現下化)된
경제성장에의 기반이 조성되도록 더욱 힘써야 될 것입니다.
도시사회는 하루하루가 새로워져 가고 있으나,
농촌사회의 발전은 지지부진하여 구각(舊殼)을 탈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개발』 2호, 1967〕

농민들의 자발적인 증산활동의 의욕과 재정적인 뒷받침 없이는 식량자족이란 어렵다.
소비 극대화와 인구증가는 농업위기에 압박을 가하고 있으며,
외국의 자본만으로 공업화를 기대한다는 것이 지난하지 않을 수 없다.
〔『회보』 6호, 전국농업기술자협회, 1965년 6월 1일〕

조용한 혁명이란 ①농민의 정신혁명 ②농업의 기술혁명 ③농촌의 생활혁명 등으로써,
이런 농산업의 3대 혁명을 개시하여,
우리가 뜻하는 복지문화농촌의 새마을을 건설하는데 있는 것입니다.
〔유석창, 『조용한 혁명』〕

의사가 창자를 잘라내는 데 수술을 해야 고칠 수 있는 중병이 있듯이,
우리나라의 농업도 대수술을 않고서는 고칠 수 없는 고질적인 중병을 앓고 있습니다.
이 수술이 곧 우리가 하자는 3대 혁명입니다.

〔『농업기술회보』 23호, 1966년 5월 15일〕

하나의 예로 농민의 정신혁명으로 민주협동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우리나라 전체 민주주의가 바로 설 바탕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농업기술회보』 89호, 1970년 12월 1일〕

2
농업 · 농촌 · 농민에 대한 애착과 사랑이 담긴 글들

1) 「회보(농업기술회보) 발간에 즈음하여」

우리 협회의 기관지로 회보(會報)를 발간하게 된 것을 매우 기뻐합니다. 또한 동지 여러분께서도 기뻐하실 줄 압니다. 지금은 비록 적은 지면으로 출발하나, 머지않은 장래에 여러분께서 볼만한 기관지를 내볼까 하는 계획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 적은 지면으로나마 떠나 있는 정의(情誼)를 통하며, 또한 협회원 여러분의 소식도 연결하는 교차로가 되게 하겠습니다.

우리 협회는 농업기술자(農業技術者)들의 모임인 만큼 언제나 우리에게 부하된 사명을 완수함으로써 나라에 이바지할 것을 생각합니다. 우리는 좀 더 기술을 연마하고 경험을 축적하여 국가 중농정책(重農政策)의 선도적 역할을 할 것이며, 또한 우리 주위에 있는 농민들에게 우리 기술과 경험을 전달 시범함으로써 우리 농민들의 역량을 배가해야 하겠습니다.

아무리 국가에서 중농정책을 실시코자 하여도 우리 농민이 호응할 태세를 갖추고 자발적으로 실천하지 않을 때에는 모든 시정(施政)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런 견지에서 볼 때, 우리 협회는 더욱 존재의 사명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협회원으로 볼 때는 국가의 중요한 지위에 처해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과반수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는 수의 중요성보다도, 선진국에 비하여 아직도 뒤떨어진 감은 있을망정 우리는 주위 사람보다 한 걸음 앞서 있으며, 또는 다른 농민들이 주의 깊게 우리의 동작을 살피고 있는 처지에 놓여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하여서 보다 다른 농민들의 지도적인 사명을 위하여서 가일층 노력해야 하겠으며, 따라서 기술이나 경험에서 뿐만 아니라 인간면에 있어서도 부지런하고 착실하며, 다른 사람에게 믿음을 주는 공신력(公信力)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조직적인 역량을 길러야 하겠습니다. 아무리 좋은 일이라 할지라도 혼자의 힘으로는 되는 것이 아닙니다. 협회도 지금 각 지역적으로 조직망을 넓히고 있거니와, 협회원 제위도 각 리 · 동(里洞) 안에서도 무슨 일이나 공동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조직을 만들어서 혼자서 안 될 일을 합심하여 계획하고 연구하고 실천하는 일을 시도해 보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실천 못하던 일이라도 한번 마음먹고 다 같이 해보려고 약속하면 그 공약한 힘으

로서 능히 실천하게 되는 것이 인간사회의 일입니다. 그러므로 덴마크같은 나라에서는 지역마다 리 · 동 마다 별의별 조합이 다 있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웅변조합까지 있어 혼자서는 해 볼 생각조차 없었던 것을 한번 그 조합에 들어 놓은 후에는 마지못해서도 가끔 웅변연습을 하게 된다 합니다. 그러니 자연히 그 나라에서는 체육조합 · 감자증산조합 등이 있어 모든 일을 공동으로 해나간다고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 협회도 하나의 공동광장(公同廣場)으로 생각하여, 서로 힘을 합하여 연마하고 또는 경험과 지식을 교류하는 일에 힘써 보려합니다. 저는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새로운 소조직 운동을 전개할 수 있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창하는 책자를 내 놓기 위하여 집필하고 있거니와, 어쨌든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는 말과 같이 서로 협동하는 힘과 묘를 발휘하여 우리들의 목표를 달성하도록 힘써야할 줄 압니다.

좁은 지면이므로 이곳에서는 회보 간행의 기쁨을 자축하며, 아울러 전국 회원 동지의 건강과 분투를 빕니다.〔『회보(會報)』 1호, 1964년 7월 20일〕

2) 「시 · 도 지부 결성을 마치고: 정치 · 영리를 떠난 증산 시범으로 보다 나은 기술과 경험을 전수」

지난 7월 22일부터 9월 8일 어간, 서울을 위시하여 제주도에 이르기까지 전국 11개 시도지부가 전부 결성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예상보다도 빨리 그리고 곳곳마다 성황리에 결성되어 회세(會勢)를 드높인 일은 우리 다 같이 경하해 마지않을 일입니다. 따라서 이 시도지부 결성대회 행사를 계기로 하여 각처에서 수고하고 계시는 회원 동지 여러분을 직접 면대하여 만나 볼 수 있었던 나의 기쁨은 영원토록 잊을 수 없는 일이며, 지부 결성을 위하여 수고를 아끼지 아니한 준비위원 동지들과 원근 각 군에서 참석하여 대회의 성황을 이루게 한 회원 동지들에게 위로와 찬사의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시 · 도 지부 결성을 위하여 음으로 양으로 편의와 협조를 베풀어 주시고, 축사와 격려의 말씀을 보내 주신 관계 여러 관서장(官署長) 제위와 유지(有志) 제위께도 협회를 대표하여 심심한 사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앞으로도 협회의 육성과 농촌의 복지 향상을 위하여 지도와 편달이 있으시기를 믿으며 마음 든든히 생각합니다.

이제 오는 11월 2일을 기하여 연3일에 걸쳐 예년 행사로 되어있는 협회 주최 전국농업기술자대회(全國農業技術者大會)를 서울에서 열리게 되어 수천의 회원들이 참가케 될 것이며, 따라서 우리 협회의 정기총회도 개최될 터이니, 또 한번 여러 동지들의 얼굴을 대할 수 있는 기쁨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거리 관계로 참석하지 못할 회원도 있겠고, 또는 참가를 신청하고도 준비 인수(人數) 관

계로 어떠한 제한도 있게 될 우려도 없지 않아 전 회원을 다 모시지 못하는 한이 없지 않겠으나, 대회 참석 여부는 막론하고 우리 협회 회원동지 여러분께서는 우리 협회의 정신이나 대회의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고 계실 것이며, 따라서 언제나 몸소 그 뜻을 실천 여행(勵行)하고 계실 줄 믿고 있으므로 섭섭한 마음을 스스로 위로 합니다.

앞으로 대회를 마치고 총회가 끝나면 즉시 군 · 면 분회(郡面分會) 결성에 착수하려 합니다. 그리하여 본 협회가 지향하는 기본사업에 착수하려 합니다. 본인은 저번 시도지부 결성 대회 시에도 본 협회의 나아갈 바 진로를 명시한 바 있거니와, 우리 협회는 회세(會勢)를 증대하여 큰 힘으로 뭉쳐 어떠한 정치적인 운동에 이용하려는 것도 아니요, 또는 어떠한 영리적인 사업을 도모하려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한 취지는 이미 여러 회원들이 처음부터 자각하고 이 협회에 참가하고 있는 줄 알고 있으므로, 더 해명할 필요조차 없는 문제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부 결성이 끝나고 보고를 위한 이사회를 개최한 자리에서 본 협회의 취지와 목적을 다시 한 번 천명하는 동시에 나갈 바 진로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였던 것입니다.

즉 우리 협회 회원들은 농업기술을 더욱 연마하여 독농가(篤農家)다운 시범을 보이는 동시에, 자기가 거주하는 지역에서 자기 전문분야의 기술을 중심으로 소조합(小組合) 또는 소클럽을 조직하여 가지고 그들에게 기술과 경험을 전수함으로써, 수확을 높이며 시장가치(市場價値)를 높이는 운동을 전개하는 일입니다.

만일 우리 협회 회원이 앞으로 4,5만명이 된다고 가정한다면, 전국 각 자연부락에서 이러한 증산운동이 일시에 일어나 국가 중농정책에 막대한 협조가 될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농민 자체의 자발적 정신운동은 무엇보다도 큰 성과가 있을 것으로 자신하고 있는 바입니다.

그리고 중앙본부나 시 · 도 지부나 군 · 면 분회는 총력을 경주하여 어떠한 활동을 전개하든지 간에 다 이 회원들의 증산운동을 뒷받침 하는 일에 전력할 것입니다. 이러한 집중운동만이 성과를 거둘 수 있다는 것을 믿어 마지않습니다. 회원 제위의 애국적 정열을 이 한 일에 집결되기를 바라며 인사로 대신합니다.〔『회보(會報)』 2호, 1964년 10월 20일〕

3) 「각 시 · 도 지부 결성대회 격려사(抄): 증산은 구국이다, 농촌 진흥의 열쇠, 기술본위의 소조합운동을 펼쳐」

● '내가' 운동으로 이 나라를 재건하자〔7.22. 경기도지부 결성대회에서〕

오늘 결성대회를 여는데 있어서 준비위원 여러분의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이 모임을 성원하여 주신 관계당국과 사회 각계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농번기임에도 불구하고 교통이 불편한 이곳까지 많은 회원이 참석해 주신데 대해서는 감사를 드리며, 우리 전국농업기술자협회(全國農業技術者協會)는 회원 여러분의 불타는 열의로서 앞날이 양양함을 믿어 의심치 않는 바입니다.

민주방식 의해서 여러 회원이 임원을 선출는 광경을 목도할 때 미덥고, 이 경기도지부가 전국적으로 모범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이 기회에 우리 전국농업기술자협회의 사명과 목적을 다시 밝혀두는 일이 의의 있을 줄 압니다.

우리나라는 농업국가(農業國家)요, 농민(農民)의 나라입니다. 그 이유는 생산면에서 볼 때 농업생산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인구 구성면으로 보면 농민이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노동력도 농민이 갖고 있습니다.

국방력을 봅시다. 나라의 방패인 국군도 농민이나 농민의 아들들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뿐입니까, 이 나라의 순수한 국민성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것도 농민인 것입니다. 농민은 이 나라의 주인으로서 모든 요소를 지니고 있고 모든 것을 농민이 가지고 있습니다.

해방이후 20년이란 세월은 역사가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민족자본 형성의 기반이 농업에 있고, 경제자립을 하자면 이 기반 위에서 역사의 수레바퀴를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 역사적 과정 치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경제적 자립이 안 되는 것입니다. 경제자립이 되어야만 정치의 안정, 문화의 발전도 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농민은 아직 창의성(創意性), 조직성(組織性), 계획성(計劃性)에 결함이 있기 때문에 역사적인 수레바퀴를 돌리지 못했던 것입니다.

정부에서 식량증산 7개년 계획이 발표되었는데, 신문을 보니까 내자(內資)로 447억원, 외자(外資)로 4억 7천만 불이 필요하다는 것을 지적하고, 이 재원(財源)이 어디에 있는가? 하고 돈 문제를 걱정하였습니다. 돈이 있다고 해서 과연 정부의 식량증산계획을 수행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정신문제가 앞서고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들 농민은 역사의 주인공으로서 역사적인 사명을 완수해야 합니다. 전국적으로 힘을 합쳐서 뭉쳐서 역사적인 과업을 담당해야 합니다.

역사적인 사명, 역사적인 과업을 완수하자면 자신이 주격(主格)이 되는 일이 중요합니다. 내가 아니면 안 된다는 주인(主人)으로서의 긍지를 갖는 '내가 운동'을 펼쳐야 하겠습니다. 1,500만 농민이 내가 하겠다는 불붙는 정열이 없이는 안 됩니다. 이 운동은 바로 구국의 사업이며, 구국의 운동인 것입니다.

우리 회원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나라의 배양토(培養土)가 됩시다. 배양토가 되어서 이 나라의 모종을 키웁시다. 이 나라가 바로 되자면 오직 여러분이 체조선생과 같이 일선 지휘관과 같이 여러분들의 지혜, 여러분들의 일거수일투족에 따라 농민들이 호응해서 역사적인 사명을 완수해야 합니다.

정치의 불안이나, 경제의 불안도 농업에 매달려 있습니다. '내가 운동'을 벌려 경제자립의 터전을

닦읍시다. 주체의식에서 나온 '내가 운동'으로 이 나라를 재건하길 여러 회원동지들에게 호소합니다

● 농업기술 보급이 농촌 진흥의 열쇠(7.30. 강원도지부 결성대회에서)

해방이 되던 날 밤에 동지들이 모여 「조국의 밤」을 갖고 해방이 된 조국의 앞날을 생각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아름다운 문화국가(文化國家)로 건설해야 하며, 문화국가를 건설하자면 국민성을 개조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리하여 본인은 교육사업을 시작하였던 것입니다. 국민성 개조도 농촌에 뿌리를 박아야만 하며 이 나라가 하루 속히 부흥되자면 농촌과 농민이 중심이 되어 민족자본(民族資本)을 형성하고 경제자립을 이루어야만 정치의 안정, 사회의 안정을 기할 수 있다고 확신한 나머지 농촌의 인재를 양성하고자 축산대학을 세웠습니다.

축산대학(畜産大學)은 주곡농업(主穀農業)을 지양하고 유축농업(有畜農業)으로 전환시키는 일군을 양성할 목적으로 전원을 교비학생(校費學生)으로 해서, 학생들에게는 한 푼도 부담을 시키지 않고 교육을 시키며, 이밖에도 농림대학(農林大學), 농협대학(農協大學), 지역사회개발대학(地域社會開發大學)을 세워서 농촌의 일군을 양성하는 학교교육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또 지역사회개발협회(地域社會開發協會)를 조직해서 시범부락을 선정하고 학자들을 모시고 가서 처방을 받아 보았습니다. 이 고명한 학자 선생님들의 처방이 이론적으로는 좋은 처방이나 비현실적인 수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협회의 부회장으로 계시는 송석도(宋錫度) 선생을 모시고 가서 처방을 얻어 보면, 이게 과연 명처방인 것입니다. 그래서 산 경험과 지식에서 얻은 농민들의 독농기술(篤農技術)의 보급이 이 나라 농촌진흥의 열쇠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애국 · 애족의 지사가 나서면 수효의 문제가 아닙니다. 학자의 이론보다 농민의 산 경험과 지식이 농촌진흥의 열쇠입니다. 계획이나 말로만 하지 말고 실천으로 앞장서서 시범을 하여 스스로 증산을 하는 애국애족정신이 바로 우리 전국농업기술자협회의 이념인 것입니다.

● 체조선생이 되어 증산 체조운동을(8.7. 경남지부 결성대회에서)

해방 이후 이제까지 20년 동안의 우리나라 형편은 마치 고장 난 자동차와 같았습니다.

덜렁덜렁 조금 움직이다가는 서고 도무지 앞으로 나갈 수 없는 고장 난 자동차와 같은 것이 우리나라 형편입니다.

민족자본의 형성– 경제자립의 과정에 있어서 귀중한 역사의 수레바퀴를 농민이 돌려야 합니다. 이 역사의 필연적인 사실을 무시하였기 때문에 마치 고장 난 자동차 꼴이 되고 만 것입니다.

오직 이 나라를 기사회생시킬 수 있는 길은 독농가(篤農家) · 농업기술자(農業技術者) 여러분에게 달려있습니다. 독농가 · 농업기술자 여러분이 체조선생이 되어서 증산체조운동을 벌여야 합니다.

쌀 한 톨이라도 더 생산하는 것이 애국운동이며 애국자입니다.

도시 중심의 가장행렬로는 나라가 안 됩니다.

여러분이 체조선생이 되어 증산운동에 앞장서는 역사적인 사명감에서 울어 나온 구국운동임을 호소합니다.

● 전혀 색다른 소조합운동을(9.8. 서울시지부 결성대회에서)

본인은 최근 두 가지의 큰 발견을 하였습니다. 그 하나는 전혀 색다른 소조합운동(小組合運動)을 일으키는 일입니다. 기술 중심의 특수한 작은 조합운동을 일으켜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독농가(篤農家)를 발견하는 일입니다. 독농가는 특이한 존재성이 있습니다. 독농가의 체험과 기술의 내용은 그것이 바로 증산의 열쇠이기 때문입니다. 독농가를 붙잡는 것이 농촌부흥의 가장 중요한 첩경이 됩니다. 이 독농가들을 모시고 농촌부흥의 선봉장으로 삼아서, 역사적인 사명인 증산운동을 완수하자는 것입니다.〔『회보(會報)』 2호, 1964년 10월 20일〕

4) 「1965년 새해인사: 선진국 번영은 기적이 아니다, 덕성(德性)과 근면(勤勉)으로 복을 누리자」

새해를 맞이하여 동지 여러분에게 인사를 드리며 복 많이 받으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신년을 맞을 때마다 서로 손을 잡고 축복합니다. 참으로 아름다운 일이며 또한 의미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오랫동안 관습으로 내려오는 형식적 예절로 되어버려서 그 참뜻을 깊이 생각해보지 않기 쉽습니다.

복은 하느님으로부터 내리는 은혜입니다. 우리 인간은 복을 주십사 하고 하느님께 기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느님의 입장에서 보면 복을 만인(萬人)에게 공평하게 내리는 것입니다. 마치 우로(雨露)와 같이 온 천하에 골고루 내리는 것입니다.

그 복을 많이 받고 적게 받는 것은 그 복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이 준비한 그릇의 대소에 달려있다고 봅니다. 적은 그릇을 준비한 사람은 복을 적게 받고, 큰 그릇을 준비한 사람은 복을 많이 받게 됩니다. 그러면 그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 인간이 지니고 있는 마음의 덕성(德性)이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덕성을 많이 지니고 있는 사람은 좋은 복을 많이 받게 되고, 좋은 덕성을 많이 지니고 있는 국민은 좋은 복을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개인으로나 국가로나 복을 원하면 먼저 덕성을 함양해야 할 줄로 압니다.

이러한 의미로 볼 때, 우리는 현재 온 국민으로서 반드시 지녀야 할 덕성이 무엇일가 하고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생각이 이에 이르고 보니 생각나는 일이 있습니다. 근일 독일을 방문하고 돌아온 분들의 보고를 여러 번 들은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의 말을 종합하여 보면 독일의 부흥 소위

라인강의 기적은 결코 기적이 아니고, 오직 그들의 근면성과 소박성과 과학성에서 온 것이라고 뚜렷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국민의 덕성은 독일 재건의 요소가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은 덕성이 없이 신의 축복을 받겠다고 하는 것은 허사일 것입니다.

우리 국민도 그들과 같이 먼저 국민의 덕을 닦아야 되겠습니다. 근면성, 소박성, 과학성이 덕으로 그들은 부흥하였습니다. 우리는 그 덕으로야 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니 나는 자연히 우리 동지들의 생각이 머리에 떠오릅니다. 우리 동지, 우리 독농가 동지들이야 말로 국가를 재건할 수 있는 덕을 구비한 국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동지들이야말로 하느님이 내리시는 복을 받을만한 그릇을 준비한 사람들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야 말로 누구보다도 근면하고 소박하고 과학적 영농기술을 찾고 있는 사람임에 틀림없을 것입니다. 현재 우리나라가 이만치라도 꾸려 나가는 것은 뉘 덕이냐 하면 두말할 것 없이 우리 농민의 덕이라고 스스로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신념으로 모든 고생을 참아가며 묵묵히 나라를 지켜 가야 하겠습니다.

국가의 경제적 부흥은 결코 권력이나 협잡이나 잔재주를 가지고 돈을 긁어모아 가지고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필요한 물건을 생산하고 그 생산품을 절용(節用)하는 기본적 태도가 없이는 국가의 재건은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늘이 내려주는 복을 받기 위하여 온 국민이 다같이 근면, 소박, 과학의 생활을 해야 하겠습니다. 이 한마디로 신년 축하를 대합니다.〔『회보(會報)』 3호, 1965년 2월 1일〕

5) 「지회 결성 격려사: 조직의 힘으로 국난 타개하자」

우리 앞에는 여러 가지 난관이 가로놓여 있습니다. 이 난관을 타개하지 않고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금년은 일하는 해라고 하거니와, 모든 일은 다 난관에 봉착하여 있는 일들입니다. 그러므로 쉽게 이루어 질 일은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 농민들의 앞에 놓여있는 일만 생각해보아도 수월한 일은 아닙니다. 국가적 운명을 걸어놓고 우리에게 힘에 넘치는 증산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보통의 힘으로는 도저히 감내할 수 없는 요청입니다. 그리고 이 민족적 요청은 회피할 수도 없으며 거부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농민은 여러 가지 불리한 여건을 극복하면서도 이 요청을 받아들일 뿐 아니라 적극적으로 이 요청에 순응할 태세를 갖추고 있습니다. 이 순응의 태세는 개인적으로 볼 때는 우리의 굳은 결심에 있습니다.

증산의 노력은 나 자신의 유익이요, 나아가서는 국가 민족의 번영임을 알고 있는 우리는 필사의 노력을 경주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또한 이 순응의 태세는 전체적으로 볼 때는 우리의 굳은 단결에 있습니다. 민주사회의 번영은 단결과 협조라는 정신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개인적 차원에

서 한걸음 높이 올라가 사회니 민족이니 국가니 하는 전체적 고차원의 태세를 갖추지 않고서는 도저히 사회문제로 걸려있는 난관을 극복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흔히 우리민족의 약점을 지적하여 개인으로는 우수하나, 단결력이 부족하다고 평하는 말을 듣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협회를 조직하여 증산운동을 전개코자 함도 개인의 역량이 전체에 맞도록 힘써 보는데 있습니다.

단결은 곧 조직에서 시작됩니다. 지금 불과 4천여 명의 회원으로 각 시도 조직의 힘을 가지고도 국가 농정(農政)에 적지않은 반응을 일으키고 있거니와, 이제 군(郡) 이하의 조직이 끝내 우리 순수한 독농가(篤農家)들의 힘이 뭉치는 날에는 대외적으로도 막대한 중력(重力)이 되겠거니와, 우리 회원 전체가 부락민으로 더불어 증산운동을 전개할 때는 그 효과는 눈앞에 보이듯 증산의 서광이 환합니다. 우리의 일은 시급합니다. 만난(萬難)을 무릅쓰고 하루속히 조직을 끝냅시다.

그리고 뭉치어 일합시다. 우리 협회의 목적이 증산에 대한 기술연마요, 우리 협회의 사업이 증산 · 복지 · 소조합운동이니 만큼 회원은 각기 자기 부락의 농민들과 더불어 소조합(小組合)을 결성하여 증산운동에 착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회원의 정신은 그야말로 다른 사람보다 한 차원 높은 국민입니다. 경험으로 기술로 차원이 높고 또는 다른 사람을 지도하여 복지운동을 전개할 수 있는 정신의 차원으로도 한걸음 높은 국민입니다. 이미 이러한 차원에서 일하고 있으므로 동민들 앞에 공신력을 가진 여러분은 일하는 해 이 시점을 맞이하여 가일층 분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회보(會報)』 4호, 1965년 4월 1일)

6) 「전주 강연회 요지: 농업기술자협회의 역사적인 사명, 우리의 운동은 원심운동(遠心運動)으로 말초(末梢)를 살찌게 하는 것」

이번 우리들 협회 전북지부에서 주최한 농업문제 대강연회를 여는 데 있어서 도지부의 간부 여러분들과 회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더욱 이번 지방 관계단체 사회각계의 협조에 감사합니다. 회원 여러분께서는 지금 농사철 일 준비에 바쁘실 텐데도 불구하고 이곳에 만장을 이루어 주어서 감명 깊습니다.

우리나라 농사문제의 최고권위자들이신 주석균(朱碩均) 선생 조동필(趙東弼) 박사 정현준(鄭顯準) 선생이 바쁘신 데도 서울에서 여기까지 와주셔서 회원동지 여러분을 대신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뿐 만 아니라 평소 우리 협회 일을 도와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립니다.

농업기술자협회의 역사적인 사명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농업기술자협회는 무엇을 하는 단체인가 이 협회는 비배운동(肥培運動)을 하는, 살찌는 운동을 하는 모임입니다. 무엇이 살찌는가? 농민이, 농업이, 농촌이 살찌고 비대(肥大)하는 운동을 벌리는 것이 우리들 협회가 하는 일입니다. 정치가나 학자나 군인이나 관리가 살찌면 이 나라가 망합니다. 농업, 농민, 농촌이 살쪄야만 나라가 바로잡히고 잘 살게 되는 것입니다. (불명) 발전 양상을 살펴보면 농업이 먼저 발달하여야 했다. 이는 왜냐하면 1차 산업이 경제 발전의 역사적인 제1단계를 치루었기 때문이다.

해방 후 20년 동안을 허송세월을 하고 아직도 경제자립의 기초를 닦지 못하고 있다. 그 이유는 바로 농업의 발달이 역사적인 제1단계를 치루지 못했기 때문이다. 어떻게 해서 우리 농촌과 농민을 살찌울 수 있나-.

첫째로 우리의 운동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지금까지의 우리나라 모든 정치운동이나 사회운동이 구심운동(求心運動)이었습니다. 말초(末梢)의 힘이 중심으로만 모이는 것이 통례였습니다.

우리의 운동은 이와 반대로 원심운동(遠心運動)인 것입니다. 중심의 힘이 말초를 향하여 말초를 살찌게 하는 운동인 것입니다. 5만 자연부락을 비대시키기 위하여 우리의 모든 조직이 움직이는 운동이므로 전혀 다른 것입니다.

둘째로 방향과 방법이 다릅니다. 힘을 모아서 기술을 이용하여 말초에 가서 기술조합을 움직여서 5만 고구마를 길러내자는 것입니다.

고구마의 잎줄기, 뿌리가 말라가면서 고구마를 살찌우자는 것입니다. 기술조합이 기술을 중심으로 증산운동을 이루자는 것입니다. 셋째로 (불명)은 독농가(篤農家)를 (불명)가의 (불명)하는 데 역사적인 의의가 큰 것입니다. 독농가가 5만개의 고구마 하나를 받아서 살찌우고 기르는 사명이 있습니다. 독농가가 역사를 창조하는 중요한 임무를 지니고 있는 것입니다.

기술조합을 통하여 일 할 자리를 마련하는 일이 역사적 의무이기도 합니다. 5만 개 고구마=5만 개의 자연부락을 만드는 이 역사적인 과업(課業)을 수행하는 데 손을 맞잡고 일을 해봅시다. 내가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결의와 각오만이 이 나라를 건설하는 길입니다.

우리야, 내야 하는 생각은 버려야 하겠습니다. 동지 여러분이 역사 창조의 주인공이 되길 바랍니다.(『회보(會報)』 5호, 1965년 5월 1일)

7) 「제2차 상임이사회 격려사: 농업근대화의 단계, 새 역사를 창조하자!! 3대 선행조건과 4대 결실운동」

박해수(朴海秀) 지부장께서 '농업의 수도'인 이 자리를 허용하여 지부장회의를 겸한 제2차 상임이사회를 갖게 된 데 대하여 감사드린다. 더구나 전국에서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해주신 것은 영원히 기억에 남을 경사이며, 그 정성과 열의에 대해서는 조국이 여러분에게 감사할 것으로 믿는다.

도지부장 한 분 한 분은 전도의 대표로 무거운 비중을 차지한다는 의미에서도 각별히 이번 회합에

대하는 그 열망과 기대한 바가 컸던 것이다.

그런데 오늘 5월 17일에 이러한 시간을 갖게 된 것은 역사적 회합의 하나로서 김해가 바로 역사적 산지가 될 것이며, 박 지부장 댁이야말로 역사적 산실이 될 것이다.

우리가 이 자리에서 농업에 관한 제문제를 토의함은 형식이 아니라 진실로 조국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이며, 조국의 앞날을 위하여 기탄없는 비판과 상호 의견 및 구국방안을 토의하여 오늘 하룻밤을 조국을 위한 기도의 밤으로 갖자는 데 있는 것이다.

우리는 과거를 돌보아 언제까지나 정부의 중농정책(重農政策)에만 기대할 순 없다. 농업 · 농민 · 농촌에 관한 모든 문제를 우리 협회에서 맡아서 우리가 당면한 역사적 과업을 자인하고 또한 그것을 완수해야만 될 것이다.

그런데 근대국가(近代國家)의 발전을 경제면에서 볼 때에 절대로 비약이란 없으며, 한 단계 한 단계를 치러놓고 나가야만 된다. 봉건사회에서 근대국가로 발전한 것은 농업이 경제적인 한 단계를 치뤘기 때문이다. 따라서 농업국가(農業國家)로서의 경제적 단계를 경유하지 않는다면 그 다음의 공업화 단계로 이행해 나갈 수는 없다.

정부는 식량 증산 7개년계획을 수행해서 공업국가(工業國家)로 발전할 기본태세를 갖추고 있다. 그러나 농민들의 자발적인 증산활동의 의욕과 재정적인 뒷받침 없이는 식량 자급자족책이란 어렵다. 소비 극대화와 인구 증가는 농업위기에 압박을 가하고 있으며, 외국의 자본만으로 공업화를 기대한다는 것이 지난하지 않을 수 없다.

왜냐하면 미구에 외자도입액이 5억불이 될 것인데, 연리 6% 15년 상환하자면 연간 평균 6,500만 불씩 수출 아닌 외화를 해외로 내보내야만 한다. 이는 분명히 1차 산업에 종사하는 우리 농민의 큰 부담이 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므로 농민이 농업국가로서의 면모를 갖추기 위한 역사적 과업을 독농가(篤農家)의 모임인 우리 협회가 담당하여 그 발전단계를 앞으로 10년간으로 보고 다음과 같이 5단계로 나누어 생각해 보려 한다.

(1) 제1단계는 농업증산 단계이다.

① 정부가 요청하는 식량증산 단계이며, 최종 년간인 71년에 가서는 49.2886천 석(石)의 양곡(糧穀)을 생산하여 총 수요량의 5.3%의 식량 잉여에 의하여 미(美) 잉여양곡의 도입을 지양하고, 일보 전진하여 530만 석의 미곡수출 톤당 50불(弗)을 하게 된다면 식량의 자급은 물론, 농업이 경제 안정의 제1조건을 해결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경제적 자립은 우선 농업증산에 의한 식량의 자급자족)이 그의 제1보가 되지 않을 수 없다.

② 산업의 형태를 바꾸어야하며 생산구조의 전환에 의하여 5단보(段步) 미만의 영세농가 인구를 타산업에 전이(轉移)케 하는 토대를 구축하도록 해야 하며, 중소도시 주변에다 농촌 유휴노동력을 흡수할 수 있는 중소공업단지를 조성해야만 한다.

③ 주산지(主産地)의 설정을 도별로 하고 장차로 국내시장은 물론 국제시장에까지 진출할 수 있게 도별 군별 주산지를 설정해야 한다. 이러한 주산지운동이야말로 우리들의 농업소득 향상을 위한 가장 중대한 목표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독농가인 여러분은 100년지대계(百年之大計)를 가지고 도지사보다도 더 중한 책임을 부하했다고 자부하셔야 되며, 자자손손(子子孫孫) 잘 살 수 있는 터전을 닦는데 있어서 주인공인 것이다.

그리하여 적자 부채의 생계농업(生計農業)에서 탈피하여 흑자 저축 영리농업(營利農業)으로의 이행이 가능해야 된다. 이로서 자조(自助) 자립(自立) 자활(自活)하는 안정농가(安定農家)가 자연부락(自然部落) 내에서 과반수 이상을 점유하게 돼야만 한다.

(2) 제2단계는 농업정책 · 경제정책상으로 농업 발전을 위하여 강력하게 정부에 대한 요구를 할 수 있는 단계이다.

곧 독농가를 중심으로 굳게 뭉쳐서 전국적으로 단결하여 농가소득 향상을 위한 정책상의 요구점을 강력히 주장한다면 정부도 이에 응하게 될 것이다.

(3) 제3단계는 농민이 국가에 대하여 봉사할 수 있는 단계이다.

이는 곧 국가주권이 국민에게 있는 한 비로소 주인으로서 국가에 대한 뒷받침을 농민들이 해야 할 단계라고 할 것이다. 이와 같이 하여 농민의 흑자 · 저축 · 생계로 농가 모두 경제적 자립을 할 수 있게 된다면 곧 국민적 자립에 의하여 국가적 자립의 밑바탕이 될 수 있으며 민주국민으로서의 역량 증대로 토대를 바로 잡아야 하며, 이른바 농민이 주인이 될 수 있는 단계이다.

(4) 제4단계는 농업의 발전적 토대에 의하여 공업국가(工業國家)로 발전하는 단계이다.

다시말하자면 농민의 잉여자본이 투여되어 농촌의 공업화가 실현되도록, 곧 농민이 주체가 되어 적극 참여할 수 있게 되어야 한다. 이와 같이 농민의 지위 향상으로 농촌의 자본 형성에 의하여 농업경영은 기계화가 실현됨으로써 농업의 현대화가 완수되는 것이다.

(5) 제5단계는 농업과 공업이 병진하는 단계이다.

이와 같이 하여 제1차 대단원으로 성취될 때에는 10년 동안에 이 나라는 바로 살아날 수 있다고 확신한다. 1천 6백만 농민이 경제적 자립을 하고 경제권을 장악하게 된다면, 비로소 우리 국가는 경제적으로 완전독립이 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우리의 목표를 완성하기 위하여는 3대 선행조건이 필요하다. 첫째, 독농가(篤農家)들의 동지적인 규합이 모체가 되어, 5만개 자연부락을 결합시켜야만 되며, 둘째, 전국 리동(里洞)에 이르기까지 조직적인 정비가 되어야 하며, 셋째, 기술의 수련과 지도자의 수련이 중요하다고 하겠다.

이러한 선행조건이 이루어진다면 우리 협회의 목표인 5대 역사적 과업을 수행할 수가 있다.

이와 같은 농업발전을 위한 5단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우리는 농업기술자의 단결과 기술연수 및 교류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4대 결실운동을 전개해야만 된다.

① 독농가의 발견

새 역사를 창조하는 이 시점에서 우리들은 독농가를 발견해야만 된다. 곧 박해수(朴海秀)씨 같은 분의 발견이야말로 국가 부흥과 재건의 위치에서 피눈물 나는 노력으로 이끌고 나갈 분에 대한 발견인 것이다.

② 기술조합운동

우리는 리동(里洞)에서 독농가가 중심이 되어 기술교류와 기술연수를 위한 농가기술조합운동을 일으켜야만 한다.

③ 말초(末梢) 비대운동(肥大運動)

우리는 중앙(中央) 비대운동이 아니라 말초가 비대해지는 운동을 일으켜야 할 것이다. 이는 우리나라에는 처음 있는 일이며, 원심적인 운동에 의하여 말초가 살찌게 되면 저절로 중심부도 비대해지게 되기 때문이다.

④ 5만 고구마 비대운동

우리는 농가기술조합으로 5만 자연부락을 살찌게 하기 위하여 고구마의 잎과 줄기가 되어 고구마가 자연부락의 부유화를 위하여 독농가가 기술체조의 선도자가 되어 농가 형태의 개량에 발 벗고 나서야만 될 것이다.

이러한 운동을 전개하기 위하여 이번 김해회담은 역사적 의의가 있다. 그러므로 오늘 이후 도를 책임지고 일으키는 역사적인 책임을 부하하였음을 여러분 도지부장)은 자인해야 하며, 우리 농민이 죽고 사는 투쟁을 하여 봅시다.

전국농업기술자협회 제2차 상임이사회기념(1965. 5. 17)

우리들은 백절불굴의 투쟁으로서 새 역사를 창조하기 위하여 자진해서 나서야 된다. 이러한 결심을 가지시고 지금 우리가 모인 이 장소는 닭집(병아리가 길러진)이었지만, 앞날의 역사의 산실이 될 것이다.

'자조자천이지조(自助者天而之助)'한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회보(會報)』6호, 1965년 6월 1일)

8)「한해(旱害)에 대한 총재 격려사: 홍수 때에 한해 대비, 인내와 용기로 극복」

전국의 회원 여러분!

우리가 이토록 애타게 빌고 기다리는 비는 오늘도 내리지 않고 있습니다. 중앙관상대에서는 최근간에 흡족할 만큼 비가 올 가망이 없다는 비관적인 예보입니다. 1907년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통감부 기상대가 설치되어 과학적인 기상관측이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그 후 60년 동안 1939년과 43년에 심한 가뭄이 닥쳤지만 금년과 같은 혹심한 한발(旱魃)은 처음이라고 합니다.

정부에서는 금년을 '일 하는 해'로 정하고, 제1목표를 '증산(增産)'에 두고 있고 식량증산 7개년계획의 1차 년도이기도 합니다. 관(官) · 민(民)은 물론 군(軍)까지 총동원이 되어 한해를 물리치는 데 전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 천재(天災)를 몸소 겪고 불철주야로 한해와 맞서 싸우고 계시는 회원

을 두루 찾아 노고를 함께 나누지 못하고, 적극적인 지원을 해드리지 못하면서 지면으로 회원 여러분을 대할 때 송구한 마음을 가눌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지방적으로 정도의 차이는 있을망정 한(旱) · 수해(水害)를 연례행사처럼 당하고 있습니다. 비가 조금만 오면 홍수로 아우성이고 날씨가 개였는가—하면 한해(旱害)로 소란을 피웁니다. 한해 대책을 세웠다가 비가 오면 흐지부지되어 버리고, 홍수대책이니 방수대책으로 떠들석하다가 날씨만 개이면 잠잠해집니다. 120만 정(町)의 답(畓) 면적 가운데에서 수리불안전답(畓)과 천수답(天水畓)이 아직도 58%나 차지하고 있어, 그해 그해의 풍흉(豊凶)을 좌우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풍년이 들면 우순풍조(雨順風調)한 자연의 덕분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나라의 농업생산은 너무나 자연의 제약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한 · 수재를 이겨내자면 근본적으로 치산치수(治山治水) 사업, 저수지 관개사업 등 항구적인 대책은 물론, 지하수 개발에 있어서도 적극적인 대책이 수립되어야 하겠습니다.

이처럼 천재(天災)에 대한 농업 생산의 기반이 약해서는 아무리 훌륭한 증산계획도 실효를 거두지 못하는 것입니다. 해마다의 농업생산고에 대한 기복이 심한 원인도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국내의 모든 강과 하천은 흘러 버려지는 물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바싹 바싹 타들어가는 농작물에 물 한 방울은 천금(千金)에 비길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물이 너무 흔했기 때문에 아낄 줄 모르며, 물이 귀한 줄을 몰랐습니다. 물은 귀한 자원입니다. 이제 이 절박한 시점에서 책임의 소재를 따지고 누구를 원망하거나 탓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비가 오지 않는다고 해서 하늘만 쳐다보는 안이한 생각은 버려야 하겠습니다. 한해작전(旱害作戰)이라고 까지 이름하여 총동원이 된 저 귀한 노력이 일시적인 것이어서는 안 되겠으며, 이가 다행히 온다고 해서 중단해서도 안 되겠습니다.

회원 여러분! 우리는 하늘이 주는 이 고된 시련을 헛되이 하지 맙시다. 그리고 한재를 당했을 때 홍수 대비를 해야겠고, 홍수가 났을 때에 한재 대비를 해야겠습니다. 오직 이 시련을 인내와 노력으로 극복합시다. 우리의 모든 지혜와 힘을 다해서 한해를 물리치고 우리에게 부하된 국가적인 대임(大任)인 증산을 완수합시다. 모든 농민들은 우리 회원들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자연을 정복하는 지혜와 힘과 용기를 저들에게 보여줍시다.〔『농업기술회보(農業技術會報)』 7호, 1965년 6월 20일〕

9) 「역사에는 기적이나 비약은 없다」

60년래의 대한발(大旱魃)로 전전긍긍하던 중에 때 늦기는 하였으나 흡족한 비가 내려 모내기가 전국적으로 거의 끝내게 되었다는 소식은 우리 전국회원들과 함께 기뻐할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모만 내면 평년은 거둘 것이라니 우리 농민들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큰 시름을 놓았다고 하겠습니다.

지금 한 · 일협정의 국회 비준을 둘러싸고 조야(朝野)가 소용돌이치고 있습니다. 본인은 여기에서 협정 내용의 시비나 찬부를 개진하지 않기로 하겠습니다. 오로지 이 비상한 시국을 응시하면서 옷깃을 여미고 우리가 해야 할 일과 조국이 우리에게 지워준 임무와 책임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 번 되새겨 보자는 것입니다.

이 나라의 국기(國基), 나라의 근본과 바탕이 어디에 있습니까? 기회 있을 때마다 본인이 주창하였지만, 이 나라의 바탕은 농촌인 것입니다. 생산면으로나 인구 구성면으로 보아도 그렇고, 순수한 국민성과 주체성을 지니고 있는 것도 우리들 농민인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 농촌은 너무나 가난하며 농민이 나라의 주인으로서 행세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역사에는 요행이나 기적이나 비약이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경제자립을 성취하자면 역사적인 단계를 밟아야 하며, 그 제1단계가 농업증산인 것입니다. 이 역사적인 첫 단계를 치루지 않는다면 경제자립의 터전을 닦을 수 없습니다.

이 무거운 과업이 우리 농민들에게 지워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 농민들이 자주 · 자립정신에 입각한 역사적인 사명감을 깨닫고 자발적으로 증산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정부의 계획과 시책이 좋고 자금이 쓰인다 해도 도로(徒勞)에 그치고 말 것입니다. 이 역사적인 제1단계를 무시하고 가난한 우리가 남의 나라의 돈을 빌어다 공장을 세워서 경제자립을 꾀한다는 것은 보리를 심어두고 달러나 황금이 열릴 것을 기다리는 거와 같다고 하겠습니다.

해방 20년 역사가 공전하는 동안에 조장된 것이 불신입니다. 우리 농촌이 불신 때문에 조직과 단결력이 없고 그러니 힘이 없습니다. 뿔뿔이 흩어져서 서로 불신하는 가운데 역사적인 과업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우리 회원들은 각기 거주하는 자연부락(自然部落)에서 먼저 신의(信義)를 되찾아야 하겠습니다. 제1차적으로 농민들에게서 정신적으로 신망(信望)을 받고 기술적으로 모범이 되어 현저한 증산 실적을 눈앞에 보여줌으로써 농민들로 하여금 자발적인 의욕을 불러 일으켜 기술을 알맹이로 하는 농사기술조합을 만들어 조직적인 증산운동을 일으키자는 것입니다. 이 일을 담당할 우리 회원들이야말로 역사의 주인공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본회에 이 역사의 주인공이 될 독농가(篤農家)를 발굴하여 정신무장과 기술무장을 시킬 연수원(研修院)을 최근간에 개원하게 될 것입니다. 농업이란 낙후된 원시생업이며 이에 숙명적으로 종사한다는 퇴패적인 절망감을 버리고 한 톨의 쌀 한 포기의 채소라도 더 증산하는 일이 곧 구국의 길이며, 조국이 우리에게 지워준 소망스런 사명임을 재확인하고자 합니다.〔『농업기술회보(農業技術會報)』 8호, 1965년 7월 1일〕

10) 「농업기술로 무장」

한해(旱害)에 겹친 수해(水害) 설상가상으로 밀어닥친 천재(天災)와 싸우면서 증산에 힘쓰고 계시는 전국 회우 여러분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천재를 겪을 때마다 느껴지는 것은 우리나라 농업생산의 바탕이 너무나 자연의 제약을 많이 받고 취약하다는 점입니다. 농업생산이란 자연을 이용한 자연과 투쟁이라고 한다면, 우리나라 농업은 항상 자연의 지배하에 놓여 있고 패배를 거듭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자연은 부동(不動) 불변(不變)이고 불가항력이라고 체념하는 사고방식을 버려야 하겠습니다. 자연을 농업생산에 유리한 형태로 개변(改變)시키고 불리한 자연조건이라도 농업기술의 힘으로 농업생산을 가능케 할 수 있다는 각오와 결의가 먼저 앞서야 합니다.

농업기술의 힘으로 자연조건을 극복하여 농업생산을 가능케 하는 간단한 실례를 하나 들어봅시다. 엄동설한에 비닐하우스 안에서 오이며 토마토와 같은 과채류를 생산해 내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농업기술이며, 생산자는 훌륭한 농업기술자(農業技術者)라고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농업의 후진성을 한마디로 규정짓기를 '호미와 괭이 농사'라고도 하고, '5천년 묵은 농사'라고도 합니다. 우리나라의 거의 모든 농민들이 농업이 얼마나 중요한 생업이며, 농업생산자인 농민이 얼마나 훌륭한 직업인이며 경영자인가— 하는 인식이 없습니다. 가장 못난 사람이 숙명적으로 이어받은 직업으로만 알고 있고, 농업에 무슨 기술이 필요한가 할 태도입니다.

농업기술이란 말이 흔히 쓰이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은 무엇인가— 는 누구나가 상식적으로 아는 바와 같이 토지와 자본재와 노동력을 이용해서 농작물이나 축산물을 보다 더 많이 생산하는 수단이라고 하겠습니다. 이것을 경종(耕種)이나 양축(養畜)기술이라고 한다면, 생산물을 유리하게 이용 가공 처리하여 수익을 올리는 것을 경영기술이라 하면 양축(養畜) 경종(耕種) 등 생산기술만을 상기하나, 경영기술도 함께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나라 농업이 근대화하고 경제자립의 기반이 이루어지려면 무엇보다 급한 일이 농민들의 사명감의 자각과 농업기술의 무장이라고 하겠습니다. 농업기술로 무장이 되면 농업생산에 있어서 우리에게 불리한 자연조건을 정복하여 생산자원으로서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협회가 하는 일은 농민들로 하여금 농업기술로 무장시키는 데 있습니다.〔『농업기술회보(農業技術會報)』 9호, 1965년 8월 1일〕

11) 「명예대회장 격려사: 정신혁명, 기술혁명, 생활혁명」

전국농업기술자협회 총재이시며 이번 각 시 · 도별 농업기술자대회 명예대회장이신 유석창 박사는 하루도 쉴 사이 없는 꽉 짜인 일정에도 노익장 한 모습으로 충북을 제외하고 전국적으로 참석하여 회원을 격려하여 주셨다. 이 글은 각도대회에서 행한 격려사를 종합하여 가려 모은 것임을 밝혀둔다.〔편자 주〕

바쁘신 중에도 이처럼 많이 모여주신 데 대하여 감사하는 바입니다. 오늘의 이 농업기술자대회를 나는 달리 말해서 '농민 잘살기 대회'라고 하겠습니다.

1600만 농민이 잘살게 되지 않으면 우리나라는 일어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나라뿐이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공통된 것입니다.

농업의 발전이 앞서야 경제의 자립과 민족국가가 번영하는 것입니다.

농민이 잘살도록 하는 것은 관(官)이나 농협(農協)이 아닙니다.

농민 하나하나가 자각하고 분발 궐기해서 발 벗고 나서지 않으면 안 됩니다.

나는 일상생활 전부를 어떻게 하면 농민이 잘 살 수 있을까 하는데 쏟고 있습니다. 농민이 잘 살 수 있는 자구운동(自救運動)을 일으켜야 되겠습니다.

나는 내 생명을 이 운동에 바칠 각오입니다. 논두렁에 쓰러지는 한이 있어도, 이 운동에 몸을 바치겠습니다.

20년간에 일본의 국민소득의 대비(對比)가 1대2가 1대8이 되었습니다. 이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한 나라의 경제기초가 닦아지려면 농민의 생활이 향상되어야 하며, 그렇지 못하면 정치 · 사회 · 문화도 바로 서지 못합니다. 1,600만의 농민의 자본이 축적되어서 확대 재생산을 하여야 국기(國基)가 이룩되는 것입니다. 농민이 자본을 축적할 수 있게 하려면 단단한 각오와 인내가 필요합니다. 전국 5만의 자연부락(自然部落)에 5만의 독농가(篤農家)를 발굴하여 이 독농가가 지사(志士)로 등장해서 말로가 아닌 실천으로 자기 자신의 농장부터 잘 만들어 남이 자연 따라올 수 있게끔 생산기술을 선두에 서서 시범하여야 합니다. 이스라엘은 열두 사람으로 낙원을 이루어놓았습니다. 우리는 독농가의 인력을 개발하여야 합니다. 자기 자신부터 생산기술 · 경영기술에 모범을 보여 부락을 이끌 인력을 개발하여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이 운동은 하루 이틀 1년 2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혁명을 하여야 하겠습니다. 세 가지 혁명 그 첫째는 정신혁명(精神革命)입니다. 농민이 분발하는 정신, 자신이 일어서서 살아보겠다는 혁명입니다. 둘째는 기술혁명(技術革命)입니다. 새로운 기술을 도입 연마하여 생산성을 올리게 하는 기술혁명입니다. 셋째는 생활혁명(生活革命)입니다. 우리네 생활은 어딘가 잘못된 데가 있습니다. 과감하게 생활을 혁명하여야 하겠습니다.

이러한 혁명 과정은 10년은 걸릴 것입니다. 우리 협회는 자각과 분발을 하여 서로가 선도자(先導者)가 되어 하나하나 건설해 나가야 합니다.

이것만이 우리나라 부강(富强) 길이요, 우리의 살길입니다.

정부가 애써도 농민이 자발적으로 이에 호응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생활기술(生活技術) 경영기술(經營技術) 계획기술(計劃技術)의 향상 발전이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농민의 앞에서 일하겠다는 각오, 기술무장으로 시범농가를 만들어 장구한 싸움을 벌려 보다 나은 살림을 쟁취하여야 합니다.

오늘 이 모임이 마음을 결정짓는 중요한 계기와 결정짓는 순간이 되어지길 바라고 앞날 뜻하는 목적 달성을 위해 매진 있으시길 바랍니다.『농업기술회보(農業技術會報)』 14호, 1965년 11월 1일)

12) 「제6회 전국농업기술자대회 대회사: 비약과 창조를 잊지 말자, 농업혁명의 선두에 서라」

(1965년) 12월 12일 제6회 전국농업기술자대회의 막이 열리자 대회장 유석창 박사는 천여 회우들에게 새로운 비약과 새로운 창조로 생산국가(生産國家) 건설의 선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우리 협회 회우들은 혁명의 선두에 서서 먼저 자신의 비대(肥大)와 5만 자연부락(自然部落)을 비대시키는 길 만이 국가와 민족에 이바지하고 부흥 재건하는 단 하나의 방법이라고 강조하여, 만당의 회우에 깊은 감명과 결의와 각오를 새롭게 하여 주었다. 이에 그 전문을 옮기고 회우들에게 일독을 권한다.

각 도, 시, 군으로부터 대의원 여러분이 이처럼 많이 참석하여 주신 데 대해서 이 대회를 대표해서 감사의 뜻을 표하는 바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한 가지 유감된 것은 이번 이 대회에 전국으로부터 참가하기를 원하는 수 천명의 우리 회우 동지가 있었는데, 장소관계와 기타 여러 가지 제약을 받아 그 수천 명 회우의 간절한 요청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각 도 · 시 · 군 대표만을 오시도록 하게 된 것을 가슴 아프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명년부터는 우리가 장소나 기타 다른 제약을 받음이 없이 많은 회원이 다 참석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여야 하겠다는 것을 절실히 느끼는 바입니다.

● 새로운 각오와 결심을 갖자

오늘 우리가 이 제6차 농업기술자대회를 개최함에 있어서 먼저 한마디 회우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것은 우리가 매년 한번 씩 개최한다고 하는 하나의 의례적인 생각으로써 오늘 이 회합을 가져서는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이 회합은 모처럼 1년에 한번 전국에서 동지들이 모이는 회합이니만큼, 이번 이 회합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마음 가운데에 새로운 각오와 새로운 결심과 또는 우리가

앞날을 어떻게 하여야 되겠다는 새로운 계획과 방법이 이 대회를 맞는 가운데 각각 그만한 큰 얻는 게 있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하는 바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회우 동지들을 만난 이 시간에 몇 말씀 드리고자 하는데 우선 제목으로써 새로운 두 가지 명제를 걸고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는 농업혁명(農業革命)이라는 과제로 다른 또 하나는 농민자본주의(農民資本主義)라고 하는 명제입니다. 농업혁명과 농민자본주의라는 새로운 명제를 걸고 동지 여러분에게 말씀드려서 이것이 여러 회우 동지들에게 보람이 있어 새로운 각오의 계기가 되어주신다 할 것 같으면 매우 감사하겠습니다.

두 가지 명제에 대하여 말씀드리기 전에 전제로서 말씀드릴 것은 우리가 지금 무엇을 건설하려고 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우리 동지가 한번 이 자리에서 다시 생각해봐야 되겠습니다.

● 산업국가(産業國家) 건설의 선도를 서자

우리는 산업국가를 건설해 보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염원이며 목적입니다.

산업국가란 어떤 산업국가를 말하는 것이냐? 이 국가는 모든 국민의 생산장(生産場)이 되어야겠다는 것과, 이 나라의 사회는 모든 국민의 번영과 복지를 도모하는 생활장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이런 국가를 우리가 건설해보자, 이런 산업국가를 건설해보자 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로서 우리 운동이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있어서 우리가 오늘 특히 하나 생각할 게 뭐 있는가 하니 우리나라의 현실로서 두 가지의 조류와 경향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지적해 두겠습니다. 하나는 뭣인가 하니 산업국가 건설에 있어서 농업을 상업 및 공업의 선도적 역할로서 건설해야 되겠다 하는 조류와 경향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이 나라에 있어서는 농업이 산업국가 건설에 있어서는 농업이 선도적 역할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조류와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할 것 같으면 두말 할 것 없이 이 나라는 농업이 산업국가 건설에 있어서 선도적 역할을 하지 않으면 안되겠다고 하는 것을 확신하는 바입니다.

그럼 왜 그러냐? 이 나라는 지금 농업국가인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누구라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농업국가인 이 나라로서는 우리가 뜻하는 그런 산업국가로 갈려고 할 것 같으면 반드시 농업국가가 어떤 단계까지 발전해서 이런 단계까지 이르지 않고서는 그 산업국가 건설이 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근대국가가 다 밟은 길의 하나인 것입니다. 결코 예외가 있지 않습니다. 하물며 우리나라와 같은 전형적 농업국가로서는 마땅히 농업이 선도적 역할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중요한 문제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뜻하는 산업국가가 건설되어야 됩니다.

말하자면 이 농업기술자대회, 농업기술자협회의 뚜렷한 목표이며 이념이고, 우리의 지향하는 바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우리의 목표를 달성함에 있어서 이제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이 뭣인가 하니 놀

라지 않을 수 없는 사실로서 최근 일본에 가서 혹은 대만(臺灣)에 가서 국가적 사명을 띠고 조사한 분들이 돌아와서 보고하는 것을 들어볼 것 같으면, 1945년 해방할 때에는 일본의 농민과 한국의 농민과의 연 생산수익에 대한 차이는 2대1의 비율을 가졌다고 합니다. 우리농민 하나에 대해서 일본농민은 둘의 비율이었던 것이 해방된 지 20년이 지난 오늘에 와서는 8대1 즉 일본농민 8에 대해서 한국농민 1의 비율로 더 심한 차를 나타내게 된 것입니다.

● 해방 후 20년 뭣을 해 왔나

이것을 들을 때 뿐 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가장 농업문를 권위로서 연구하는 선생님의 관찰이고 연구인데, 일본엘 가보니까 분명히 50년의 차이는 가졌다고 하는 것을 그분이 지적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몇 가지 사실만 하더라도 왜 우리나라 농업은 과연 해방 후 20년간 뭣을 해왔느냐? 또 우리의 오늘의 상태가 어떠한 상태에 처해 있느냐? 하는 것이 분명히 증명이 되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게 무엇인가 하니 우리가 이런 형편으로서 한국의 농업이 발전되어 가지고 농업국가 건설의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불가능하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남보다 더욱 빨리 전진을 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급한 템포로 나아 갈 것 같으면, 반드시 혁명의 길 하나 밖에 없다는 것을 생각해서 아까 명제의 제1로 농업혁명이라는 것을 말한 것입니다.

혁명이라는 말이라면 아마 여러 동지께서는 놀라실는지 모르겠습니다, 놀라시는 게 사실입니다. 우리나라도 몇 번 혁명이 있었고, 또 세계 각국에 특히 후진국가들이 혁명을 많이 하기 때문에, 또 우리가 농업혁명이라는 문제에 가서 혹 의아히 생각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지금 우리가 주장하는 혁명은 그러한 총이나 칼을 들어 하는 혁명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농업에 있어서의 혁명은 정체(政體)나 정권에 대한 혁명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허나 혁명이라고 하는 것은 확실히 비약이요 창조라고 하는 것만은 기억해 두어야 하겠습니다.

● 혁명은 비약과 창조

우리 한국의 농업은 비약하고 창조가 없이는 이 농업이 우리가 뜻하는 방향으로 발전할 수 없다는 것은 우리는 확실히 깨닫고 있는 것입니다.

혁명! 어떠한 혁명을 해야 할 것이냐? 3대혁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는 농민에 대해서는 정신의 혁명, 또 하나는 농업에 기술의 혁명, 또 하나는 농촌에 대해서는 생활의 혁명을 말합니다. 농민에 대해서 정신의 혁명이란 뭣이냐? 정신의 혁명 가운데도 3대혁명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됩니다.

하나는 민주혁명(民主革命), 자주성을 확립하는 이 혁명이 필요합니다. 그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는 과학혁명(科學革命)입니다, 우리나라가 과학화되어야 되겠습니다. 또 하나는 자본화(資本化)의 혁명입니다. 나중에 농민자본주의(農民資本主義)를 설명할 때 재론되겠습니다마는 우리가 농민이 자본주의 과정이라는 특수한 과정을 밟지 않고서는 산업국가 건설의 선도적 역할을 못할 관계이기 때문에 자본화라고 하는 이 태세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정신 가운데 이 세 가지 면의 혁명이 필요한 것입니다.

또 기술면에 가서 볼 때 생산에 대한 혁명만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경영에 대한 합리성을 갖는다는 것도 혁명적으로 다루어져야 하고, 또 계획과 창의성에 있어서도 혁명적으로 다루어야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농사를 잘 지어 생산을 잘한다 하더라도 경영이 합리화되지 않는다 할 것 같으면 절대로 그 농사가 수입과 생산이 들어맞지 않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기술면에 있어서도 3대혁명이 같이 병행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것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또 생활면으로 볼 때 우리 농촌생활은 비합리적이고 비과학적이고 비경제적입니다, 이 모든 것이 전체에 걸쳐서 완전히 혁명과정을 통과시키지 않고서는 안 되겠다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이런 농업 · 농촌 · 농민에 있어서 각각 세 가지씩의 이런 3대혁명 과정을 치루지 않고서는, 또 그 길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새로운 비약과 창조가 나오지 않고서는 한국의 농업을 현대의 농업으로 만들어 낼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제6차 대회를 맞이해서 우리 동지들이 한번 여기에 대해서 생각해 봅시다 하는 것입니다.

● 자본의 축적이 나오게

둘째번 농업자본주의란 말은 우리가 농업혁명을 도모해서 생산면과 수입면에 있어서 여러 가지로 비약과 창조에 의해 달라지기 때문에, 지금까지 말하자면 부채, 생계농가로부터 안정농가로 올라가고, 안정농가가 다시 영리농가(營利農家), 기업농가(企業農家)에까지 올라갈 것 같으면, 여기서 비로소 자본의 축적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농민의 농업이 자본 축적 과정에 가지 않고서는 광대 재생산을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필연적인 사실이요,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 자본의 축적과정을 말하자면 국민적 자본주의 또는 국민자본주의(國民資本主義) 체제하에서 모든 나라들이 움직이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국민자본주의 가운데 있어서 특히 농민자본주의(農民資本主義)란 새로운 하나의 단계를 설정됨으로 말미암아서, 이것이 앞날에 산업국가 건설에 있어서 우리가 앞날 농공업 건설에 대한 광대 재생산에 중요한 앞날에 있어서 농공업(農工業)이란 말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 농산물이 공업의 원료가 되고 농민 자본이 투자가 되고, 농민의 노동력이 도입되는 그런 농업이 농공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우리 산업국가 건설에 있어서 중요한 선도적 역할을 할 공업입니다.

또 다른 공업은 공업대로 발전돼가려니와, 이 나라는 농업과 공업이 병진하는 그런 산업국가가 건설되는 이것을 우리가 목표로 나가야 합니다, 그 농공 병행할 산업국가가 되기까지에 우리 농업이 선도적 역할을 하려고 할 것 같으면, 이런 자본주의 과정을 겪어나가지 않을 것 같으면 될 수 없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어서 이와 같이 될 것 같으면, 잘되겠다고 하는, 또 우리가 앞날을 공부할 수 있다고 하는 또 우리가 꿈같은 환희를 가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하는 방법론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본인이 여기서 여러분 앞에 얘기하는 데 말만 앞세우는 게 아닙니다. 달성할 수 있는 방법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이 방법이란 결국 5만 독농가(篤農家)를 발굴해서 혁명가로서 개조시키는 문제입니다.

● 자기 비대(肥大)의 혁명으로부터

첫째 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 5만 독농가가 혁명의 대열에 나서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 특히 우리가 생각할 게 무엇이냐? 다른 혁명가는 다른 일반사회의 혁명가는 자기생명과 자기재산을 바치는 혁명가인 것입니다, 까딱 잘못하면 생명이 교수대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또 재산이 몰수됩니다. 일가가 전멸됩니다.

그러나 농업혁명가는 이와 정반대의 혁명가입니다, 농업혁명가로 나선다고 할 것 같으면, 이분은 자기가 더 비대 되고 자기가 더 발전되는 혁명가라 할 것입니다.

왜 그런고하니 농민의 앞에 서서 남을 지도하려 할 것 같으면 먼저 자기부터 자가(自家) 혁명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자가혁명(自家革命)을 일으킨다 할 것 같으면 어떤 결과 나오느냐 하면, 자기의 생산면에서 상당한 축적을 일으키게 됩니다. 농민자본주의의 선구자가 되는 것입니다, 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부락 가운데서 이 농가는 시범농가가 되어서, 말하자면 한 부락 가운데 어떤 독농가 한 분은 이 혁명가가 되게 될 때는 그 이는 벌써 자기농사를 시범할 수 있는 모범농가가 되어 그 수입, 생산성이 모든 것이 남한테 부러움을 받을 수 있을 정도로서의 발전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지 않고서는 그 부락에 있어서 혁명의 선두에 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때문에 우리가 독농가가 혁명의 대열의 선두에 선다는 일은 대단히 훌륭한 일입니다.

● 자기부락의 선두에서 시범을

또 자기 자신만이 이런 혁명의 선두에 서는 혁명가가 자기 자신만이 잘사는 사람이 될 뿐만 아니라 그 부락의 농민들까지 지도해 줌으로 말미암아서 부락의 농민마저 훌륭하게 잘 살 수 있는 농민을 만든다고 하는 이런 것을 생각할 때 얼마나 의의가 큰지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 기술자대회, 기술자협회를 통해서 5만 독농가(篤農家)가 농민의 혁명대열에 나서는 혁명가들이 되어보자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농업기술자협회는 뭐냐? 할 것 같으면 이런 농업혁명가를 창조하는 창조기관입니다. 이런 혁명가를 길러서 5만 자연부락 붙잡고 앞날을 성공시킬 수 있는 혁명가를 만들어내는 창조기관입니다. 또 그런 기관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럼 협회의 이 창조기관이란 뭣을 하는 것이냐? 혁명가가 되리라는 그분을 우리가 선정해서 그 이한테 혁명의 기술을 가르쳐 드릴 것입니다, 생활혁명(生活革命), 기술혁명(技術革命), 정신혁명(精神革命)에 대한 기술을 가르쳐 드릴 것입니다.

분명히 혁명기술을 받아가지고 자기부락에 들어가서 혁명의 선두에 서서 자기 자신을 혁명해가면서 동시에 부락을 지도하는 이런 혁명가들이 5만 명이 이 나라에 나온다 할 것 같으면 한국의 농업은 급속도로 발전되어 나갈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뜻하는 산업국가 건설의 선도적 역할을 충분히 잘 성공시킬 것입니다. 이것만이 이 나라 부흥, 재건을 시킬 수 있는 귀중한 방법이라 생각하는 것입니다.

● 비약과 창조를 잊지 말자

오늘 이 날을 계기로 해서 이런 새로운 비약과 창조, 이것을 잊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후 농사하실 때 내가 어떻게 하면 새로운 창조를 해볼 것인가 하는 비약, 창조! 비약, 창조! 이것을 외워가면서 농사해 봅시다, 우리의 생산에 대한 여러 가지 면에서 하나하나 연구해서 비약 창조하여 시간을 단축시키는 방향으로 노력합시다. 이게 바로 혁명이 수행되는 시간입니다.

농업혁명은 바로 이런 혁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틀 동안의 이 대회를 통해서 여러 회우 제현께서는 많은 재미와 수확을 보시기 바라고 또 댁으로 돌아가실 때에도 건강히 돌아가시고 또 댁에 가셔도 사업이 번영과 발전하기를 도모 있으시길 간절히 바라면서 인사 겸 하고 싶은 말만 그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회보(農業技術會報)』 17호, 1966년 1월 1일〕

13) 「일본 파견 농업기술 연구생에 대한 총재 격려사: 한국의 국민된 긍지를 지켜 연수하고 와서 선봉 되라」

이번 파일(派日) 연수생은 본 협회에서 독자적으로 추진하는 처음 일이니 만큼, 연수생들의 사명이 클 뿐만 아니라 전국의 회우들의 기대 또한 큽니다. 유 총재님의 격려사 또한 간곡한 바 있다. 본고는 유석창 총재께서 일본 파답(派踏) 농업기술 연수생에 대한 사전교육의 개강식(4월 18일)과 결단식(4월 22일) 때에 행한 격려의 말을 추려서 초(草)한 것입니다. 〔편집자 주〕

우리 전국농업기술자협회에서 각 도별로 한 사람씩 선발된 여러분이 일본으로 농업기술연수차 떠나는 붕정만리(鵬程萬里)의 장도를 축하합니다.

지금 어려운 시기에 자기 자신은 물론 민족과 국가를 위해서 무거운 짐이 여러분에게 지워져 있습

니다. 장도에 오르는 여러분께 본인은 두 가지 말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긍지와 명예를 지키기 바랍니다. 일본과 우리나라와의 관계는 역사적으로 정치적으로 복잡 미묘한 바가 있습니다. 한 · 일 국교를 정상화한 오늘날 새삼스레 지난 일을 들추어 언짢게 응대할 것은 없습니다. 어디까지나 대등한 위치에서 저들과 기술적으로 정신적으로 교류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일본사람과 우리나라 사람은 모양이 비슷하게 생겼으나 국민성이나 개성이 다른 점이 많습니다. 이번 기회에 무엇보다도 여러분은 일본사람들로 하여금 '한국사람은 평화를 사랑하며 진실하고 근면하며 용기가 있고 창의와 계획성에서 훌륭하다'는 인식을 바로잡아 주어야겠습니다. 한 사람의 불미스러운 행동으로 인하여 전체 국민과 국가를 욕되게 한 일을 얼마든지 보아왔습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내 개인이라 생각지 말고 내가 대한민국이며, 3천만이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둘째로 여러분은 일본에서 농업기술을 연수하고 와서는 혁명가가 되어주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장하는 혁명은 유혈혁명이 아니라, 농민들의 정신혁명(精神革命), 농업의 기술혁명(技術革命), 농촌의 생활혁명(生活革命)— 세 가지의 조용한 혁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혁명의 목표는 농민자본주의(農民資本主義)에 있습니다. 농민자본주의란 현재와 같은 적자 부채농가에서 안정농가로, 안정농가에서 기업농가로 발전하여, 나아가 농민들의 자본으로 산업국가로서의 기반을 닦아야 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 덴마크에서 온 엘슨 교수의 강연을 들으니, 덴마크는 정부의 힘에 의해서 된 것이 아니라, 민중의 힘으로 이루어졌다고 하며, 협동조합도 농민들 스스로의 힘으로 되었고 농산물의 3분의 2가 해외시장으로 나간다고 합니다. 우리도 우리의 힘으로 이루어 나가야 합니다. 그러자면 선구자 · 선도자가 있어야 하며, 이들이 바로 혁명가인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혁명가 상(像)은 패가망신하고 희생하는 것이나 우리가 말하는 농민혁명가는 먼저 자신이 더 잘 살아야 합니다. 시범농가로서 자신이 부자가 되는, 자기 비대(肥大)를 먼저 하는 혁명가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자신이 비대하는 비결을 알기 위해서 일본에 가는 것입니다. 일본의 기술면보다 정신면과 생활면을— 그들의 내면을 깊이 파고들어 살피고 오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혁명은 비약과 창조에 성패가 있습니다. 선진국가보다 더 잘사는— 비약하는 방법을 정신면에서 알아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기술면에서 창조와 연구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무형(無形)의 자본을 구성하고 얻어 와서 혁명가로 나서는 각오와 결의가 서야 하겠습니다. 나 혼자만의 개인적인 이기주의적인 자세는 버리고 자신이 잘 되고 나아가 자기 이웃과 자기 마을을 개혁하는 힘을 길러야 합니다.

1년 동안 타국에서의 연수생활에 있어 특히 유의하고 노력할 것은 단결과 협조입니다. 생활규범을 철저히 잘 지켜서 건강한 모습으로 금의환향하기를 바라는 바입니다.(『농업기술회보(農業技術會報)』 22호, 1966년 5월 1일)

14) 「농업문제 대강연회 강연(抄): 5만의 성좌가 빛을 발산케, 회우 여러분은 농업혁명의 기수이다」

바쁜 철인데도 불구하고 먼 지방에서 이렇게 많이 참석하여 주셔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본인은 회우 여러분들을 대할 때 마다 마음으로의 결속을 호소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모두 함께 이 나라 농업혁명의 기수임을 각성하고 전생애를 바치자는 데 있어서 몇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의사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병을 고칩니다. 주사 한 대로 병을 고치기도 하고, 약 한 첩으로 간단히 고치는 수도 있습니다만, 배를 가르고 창자를 잘라내는 대수술을 하지 않고서는 고칠 수 없는 중병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농업도 대수술을 하지 않아서는 고칠 수 없는 중병을 앓고 있습니다. 농업의 대수술을 하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자는 혁명은 칼을 들고 총(銃)을 들고 수술(手術)을 하자는 것이 아니고 조용한 혁명(革命)을 하자는 것입니다.

이 나라 산업의 주종(主宗)은 농업이며, 이 나라의 주인은 농민임을 아무도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지금 막대한 자금을 투입하여 중공업 발전에 힘쓰고 있으나, 자연적인 조건으로 보나 어느 모로 보나 우리나라는 농업이 먼저 발전하여 다른 산업의 선도적 역할을 해야만 됩니다.

우리가 주창하는 첫째 혁명은 정신혁명(精神革命)입니다. 정신혁명은 곧 인간 개조혁명입니다. 모든 것은 인간이 기본이며 무엇보다도 인간됨이 중요한 것입니다. 한 사람의 힘은 무한한 것이며 위대한 힘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한 자연부락(自然部落)이나 국가 사회가 한 사람의 위대한 지도자의 힘으로 변혁을 가져오고 새 역사를 창조하는 사실을 세계사에서, 또는 우리 주위에서 얼마든지 보아오는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5만개의 자연부락에서 우리 협회의 5만 회우들이 반짝이는 별이 된다면 우리나라도 잘 살게 될 것입니다. 본인은 5만 개의 별을 얻고 그 별로 하여금 빛나게 하고 싶습니다. 혁명의 별을 빛나게 해야겠습니다. 우리들의 목표는 5만의 성좌(星座)가 빛을 발산하도록 해보자는 것입니다. 정신혁명에서 인간을 개조하고 주체의식을 가진 인간형을 만드는 일이 급선무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5만 중 하나의 기수이며 별이라는 것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농업의 기술혁명과 농촌의 생활혁명을 완수해야 합니다. 이러한 혁명의 과업을 치루지 않고서는 조국이 근대화할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농정 담당자와 대화의 광장을 마련했습니다. 지금 이 장소에서 얼마 전에 덴마크의 오늘은 정부나 기관에서 만들어 낸 것이 아니고, 농민들 스스로의 힘으로 되었다고 합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덴마크는 그 나라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의 3분의 2가 해외로 수출되었기 때문에 부흥했다고 합니다.

우리도 기술혁명으로 우리 농산물이 해외시장으로 진출하여 외자를 획득해야 합니다. 정신혁명에

서 인간 개조와 주체성을 가지고 정부의 시책을 받아들이는 자세를 갖추어야만 합니다.

우리들의 혁명은 자기와 가족을 희생시키는 사회혁명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잘 되며 자기 자신이 부자가 되는 혁명입니다. 적자 부채농가에서 안정농가로, 그리고 영리농가(營利農家)로 발전하여 해외로 진출할 바탕을 만들어야 합니다. 끝으로 이 기회를 통해서 여러분이 빛나는 하나의 별이 되어 주기를 바랍니다.(『농업기술회보(農業技術會報)』 23호, 1966년 5월 15일)

15) 「제5차 상임이사회 격려사: 정체서 분발하자, 회원에게 실리 주는 운동으로 전환 모색」

장마가 심한 가운데 농사일에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각 시도 지부장님께서 이와 같이 한 자리를 같이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합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이 모임은 우리 협회의 굳건한 결속을 말하는 것이니, 더욱 기쁜 마음 한이 없습니다. 다만 장마로 인한 교통두절로 해서 이영순(李榮淳) 지부장님께서 불참하셨고, 김도우(金禱右) 전남지부장께서 유고로 불참하신 것을 매우 섭섭하고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오늘 이 제5차 상임이사회를 당하여 존경하는 각 지부장님 그리고 양 부총재님을 모신 이 자리에서 이 시간 이 장소를 빌려 우리 협회의 앞날을 연구하게 된 것을 또한 기쁘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우리는 1년에 몇 번씩 만나는 친목회가 아니고, 기술을 통하여 전한국의 농업을 발전시키자는 데 그 목적이 있는데, 지난 1년간 본회에서도 연수사업 등 소기의 사업을 다하지 못한 데 대하여 자책을 느끼고 있습니다. 또 각 지부에서도 그 사업 업적을 들을 때 좀 더 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우리 협회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출발 당시의 그 목적을 꼭 달성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정부의 모든 시책을 볼 때에 슬프게도 식량보급을 위한 정책에 불과하니 마음 아픈 바 있습니다.

여하간 농업이 어느 정도까지 발전돼서 농민의 생활수준이 정상궤도에 달하지 않고는 공업의 발전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경제발전상에 있어서의 원칙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이제2단계인 중공업 면에만 적극성을 띠고 있는 사정이니 한심하기만 합니다.

대일 청구자금 배당만을 보아도 중공업 면에 치중하고 농사에는 극소액을 배당한 현실입니다. 이렇게 농업을 경시하고야 어찌 국가경제의 정상적인 발전을 바랄 수 있겠습니까? 지극히 가슴 아프고 국가 백년대계를 바라 볼 때, 정말 슬픈 일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우리 협회는 농민과 더불어 존재하고 농민의 생활수준을 현대수준 이끌어 올리는 지도에 나선 만큼 오늘 이전 어떠한 사업을 전개해야만 이 나라에 특히 농사 발전과 농민생활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을 지금 이 자리에서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농업 실태를 볼 때 주곡(主穀)이 91.7% 기타 경제작물이 8.3%밖에 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즉 정부의 입장에서 볼 때는 주곡의 증산에만 만족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협회의 입장에서 볼 때는 경제작물 8.3%를 어떻게 증대시키느냐 하는 것을 가지고 정부와 싸워야 할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농민의 생활 향상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뻔한 사실이 아니겠습니까.

얼마 전에 동아일보(東亞日報)에 주곡과 경제작물의 가격 상승 비율과 곡가(穀價)와 다른 물가 비율은 대만(台灣)과는 너무도 대조적이었습니다. 이런 문제를 우리 자신이 개척하여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힘을 더 가해야 되겠습니다. 그리하여 역사적 가치를 높여야 되겠습니다. 여기에 우리 협회는 특히 힘을 써봐야 되겠습니다.

협회에서 1년에 몇 백만 원씩, 큰돈은 아니지만 그래도 농민에게 다소라도 도움을 줄려고 돈을 쓰고 있으니 진실로 농민에게 플러스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나는 나의 생활화된 조국의 감정화 때문인지, 때로는 나의 조국이 한 없이 원망스러운 때도 있습니다만, 지극히 아끼고 사랑하는 조국의 앞날에 다소라도 이바지 하려는 것이 나의 염원입니다. 이것은 일조일석(一朝一夕)에 이루어지리라고 볼 수 없지만 그래도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협회가 나서야 합니다.

나는 책임상 겁이 납니다. 그동안 대관절 우리는 무엇을 했습니까. 우리가 회원들에게 회원을 위해 무엇을 했다고 하겠습니까. 농민의 권익 옹호의 배경이 바로 업적에 달려있는데, 그 업적표가 어디 있습니까. 나는 시간이 갈수록 점점 책임이 무거워짐을 느낍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우리는 기탄없이 의논해서 좋은 계획의 수립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결코 친목단체가 아니요, 실리단체(實利團體)입니다. 실리단체인 이상 어떻게 하면 회원들에게 실리를 줄 수 있는가를 깊이 연구해 보십시다. 이것이 우리의 당면한 과제인 것입니다.(『농업기술회보(農業技術會報)』 28호, 1966년 8월 1일)

16) 「격려사: 전진을 위한 자조자립의 자세, 제7회 전국농업기술자대회를 열면서」

전국의 회우 여러분!

찌는 듯한 태양 아래 무럭무럭 자라는 농작물을 바라볼 때 올해도 풍년에 틀림없다고 생각합니다. 피땀 흘려 지은 농사가 풍작이니 이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그러나 풍작을 기뻐할 겨를도 없이 우리는 한숨부터 지어야 하니 그것은 애써 지은 농사가 생산비도 안 되기 때문입니다.

본인은 일전 상임이사회 석상에서 제주도 지부장으로부터 제주도 한 회우의 농사 결산이 3단보에서 실수(實收) 7백 원이었다는 보고를 받은 바 있습니다. 이 얼마나 비참한 이야깁니까. 이것은 결코 제주도 한 회우의 실정이 아니요, 우리나라 전농민의 현실인 것입니다. 지금 우리 농민들은 막바지

절벽에 부닥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렇다고 이 비참한 우리의 현실을 누구를 탓하겠습니까? 자조 자립의 정신으로 모인 우리이기에 우리는 비장한 각오와 결의로써 우리들 농민에게 지워진 역사적인 사명감을 재인식하고 새로운 자세를 가다듬어야 되겠습니다. 본인은 우리 농민들은 증산 구국의 혁명가로서의 정신혁명(精神革命)과 기술혁명(技術革命) 또는 생활혁명(生活革命)을 주창하여 왔습니다. 잘못을 남에게 돌리지 말고 남을 의지하기에 앞서 먼저 자신이 분발하고 비대(肥大)해져야 되겠습니다.

회우 여러분! 지금은 전국적으로 시도지부 총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9월 3일부터는 각도 농업기술자대회가 열리게 됩니다. 우리 농민들이 그야말로 자주적으로 모여 도 단위의 대회를 갖는다는 것은 역사적으로 자못 그 의의가 큰 바 있습니다.

또한 금년도 제7회 전국농업기술자대회는 도 대회에 이어 오는 10월 3 · 4일 양일간 서울에서 열리게 됩니다. 우리 협회의 연례행사로 가장 큰 사업이며, 또 회우 여러분의 기대와 우리나라 전농업계의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는 금년도 대회를 정상적으로 열게 됨을 회우 여러분과 함께 기뻐하여 마지않으며 이에 몇 가지 말씀드립니다.

첫째, 작년과 달리 금년은 참가 인원의 제한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전국의 대의원은 물론 참가 희망자는 누구나 참가하시도록 했습니다.

둘째, 기술연수회에 있어서 앞에서도 말했습니다만, 이 절박한 우리의 현실을 타개하기 위하여 금년은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경제작물 개발」이라는 주제를 내걸고 이 주제 아래 기술연수도 세분화한 경제작물 위주의 연수로 해서 앞으로의 연수방향의 전환점)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금년도 대회를 개최한 것이오니, 회우 여러분께서는 순수한 민간운동으로서의 제7회라는 영예로운 전통을 살려 내일에의 전진을 위한 자조 자립의 자세를 바로 잡고 농촌의 진흥을 위한 의의 있는 행사가 되도록 다수 참석하여 성전(盛典)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농업기술회보(農業技術會報)』 29호, 1966년 9월 1일〕

17) 「특별담화: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경제작물 개발, 알찬 기술자 되어 조국 근대화에 이바지하자」

전국의 회우 여러분 1966년은 정부의 제1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을 종결짓는 해이며, 다시 67년부터 제2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에 착수하려는 준비의 해이기도 합니다. 후진의 굴레를 벗고 조국근대화라는 역사적인 명제 앞에 발버둥치는 이 중요한 시점에서 우리 농업계에 전위 농민들의 순수하고 자주적이며 전통 있는 연례행사인 제7회 전국농업기술자대회를 가진다는 것은 그 의의가 자못 큰 바 있습니다.

우리나라 인구의 70%가 농민이며, 산업의 주종(主宗)이 농업임은 아무도 부인 못할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산업에 비하여 균형 있는 성장을 하지 못하고 있음은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다른 선진국가의 근대화 과정을 보아도 먼저 농업이 발전하여 튼튼한 기반을 닦고 그 위에 2차 · 3차산업이 성장하여 근대화의 꽃을 피우고 복지의 열매를 거두고 있는 것입니다.

FAO회의에서의 논의를 들으면, 아세아의 인구가 세계인구의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으면서 식량은 4분의 1밖에 생산하지 못하고 있고, 인도의 4억 인구 중 2천만의 어린이가 굶주리고 있는 한심한 실정이라고 합니다. 일본의 전 수상 안(岸)씨도 우리나라를 방문하여 한국의 농업생산이 일본에 비해 너무나 뒤떨어져 있음을 지적한 신문보도를 읽은 일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농업의 최근의 추세를 살펴보면, 농가 호수와 호당 농가인구는 차츰 불어나고 있는 반면에, 호당(戶當) 경지면적은 줄어드는 경향에 있습니다. 정부의 적극적인 증산정책에 힘입어 양적으로 놀랄만큼 증산이 되고 있으나, 농가의 소득은 이에 정비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전 체국토 가운데 겨우 22%만이 농경지로 이용되고 있고, 이 농경지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의 비율을 보면 91.7%가 벼, 보리 등 식량작물입니다. 축산, 양잠 원예작물 특용작물 등 소위 경제작물이 차지하는 비율은 불과 8.3%에 지나지 않음을 볼 때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농산물의 수출만 보아도 65년도의 총수출액 1억 7천5백만 불 중에서 농산물은 그 25.4%인 4천4백 60만불이었습니다. 이에 비하여 이웃 대만(台灣)은 연간 농산물만 3억불 이상을 수출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식량의 증산은 국가적으로 초미의 급선무이며 정부에서도 적극 힘쓰고 있고, 우리 회우들도 선봉에 서야 함은 물론입니다.

그러나 식량작물 증산만으로는 농가소득은 물론 광대 재생산도 불가능한 일이므로 우리 협회는 제7회 전국농업기술자대회에 있어서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경제작물의 개발」이란 주제를 내 건 것입니다.

경제작물의 개발이란 곧 황무지에 호미를 들고 나서는 것 이상으로 어려운 일이 앞으로 가로 막습니다. 무엇보다도 국내국제적인 시장과 판로 개척 및 적정가격의 유지와 보장, 가공 및 유통기구의 개선 기술의 개발과 보급 등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이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은 국가에서 정책적인 제도적인 뒷받침이 있어야 할 것이며, 우리들 스스로 힘을 합쳐 공동으로 개발해야 할 일도 많을 것이지만, 우리 회원들은 경제작물에 대한 알찬 기술자가 되어야겠습니다.

우리 전국농업기술자협회가 농업기술 개발에 주동이 되어 회원들로 하여금 알찬 기술로 무장시켜 조국근대화에 기여하지 못한다면 위장 위선이며, 허수아비 꼴이 되어 조소를 면하지 못할 것입니다. 회우 여러분은 천6백만 농민들을 선도할 농업기술자로서 스스로 부끄러움이 없습니까?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경제작물 개발'의 광장으로서 막을 올릴 제7회 전국농업기술자대회에 한마음 한뜻으로 뭉친 전국의 회우 여러분이 모이심을 쌍수를 들어 환영합니다.〔『농업기술회보(農業技術會報)』 31호, 1966년 10월 1일〕

18) 「제7회 전국농업기술자대회 대회사: 우리들에게 지워진 역사적인 의무와 사명」

● 회원에게 실리를 주지 못하면 우리 협회의 존재가치가 없다.

하루 한 시간이 귀중한 이 바쁜 농번기에 제7회 전국농업기술자대회에 전국에서 우리 회원 지들이 이처럼 열성적으로 한자리에 모여주신 대하여 이 대회를 대표해서 감사의 인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아울러 오늘 우리 대회를 이 장소에서 개최할 수 있도록 모든 주선을 맡아주신 건국대학교 총장 선생님 이하 여러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대회를 빛내게 하여주신 내외귀빈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뜻을 표하는 바입니다.

오늘 제7회 전국농업기술자대회를 맞이하여 대회장으로서의 인사말을 겸하여 회우 동지 여러분에게 마음 속에 있는 간절한 말을 호소코자 하는 바입니다.

대회행사 준비에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협조하여 주시고 오늘을 기해서 우리들의 협회와 대회의 앞날에 발전을 가져오는 계기가 되는 뜻있는 행사가 될 것을 간절히 바라는 바입니다.

우리 전국농업기술자대회는 금년으로 7년째에 접어들며 계속적인 사업기관으로서 협회로 발족한 지도 만 3년이 넘었습니다. 한해 두해 해를 거듭할수록 책임을 진 이 사람은 걱정을 놓을 수 없습니다. 두 어깨가 무거워지고 고민이 떠날 날이 없습니다. 우리 협회가 단순히 사교적인 친목단체라면 걱정될 일이 없습니다. '기술'이란 두 글자가 회우들에게 실리를 주는 운동이 되어야 하는 단체이기 때문에 어깨가 무겁고 고민이 따르는 것입니다.

전국적으로 8천명의 회원이 이 운동에 가담하였고 전체 농민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는데, 실리 있는 기술을 보급시켜주는 집단이 되지 못한다면 이 대회와 우리 협회는 무엇 때문에 존재하는 것이며 존재의 가치조차 없는 것입니다.

● 우리 농민은 이 나라의 민족성(民族性)을 지켜온 주인임을 자각하자.

회우 동지들을 모신 이 자리에서 본인은 인사치레나 연설을 하려는 것이 아니고, 마음 속에 끓는 피의 호소인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지워진 역사적인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회우 동지들과 함께 좀 더 심각하게 호소하고자 합니다.

우리나라가 오늘날 이렇게 못살고 경제적으로 후진국가라는 불명예스러운 대명사가 붙은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우리나라가 더욱 잘 살려면 그 방법은 무엇인가. 그 해답은 자명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국민이 가난하고 일을 잘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나라도 가난하게 된 것입니다.

이 나라의 주인이 누구이겠습니까? 이 나라의 주인은 농민입니다. 인구의 비율로 보아도 그렇고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식량을 생산하는 것도 우리들 농민입니다. 농민들이 지켜나가고 있는 국토가 바로 생산장이니, 우리들이 가진 자본이 또한 가장 큰 것이며 어떤 재벌이 돈이 많다고 해도 농민들의 자본에는 비교 안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국가의 존립의 근본이며, 민족의 고유문화 향토문화와 민족성을 우리들 농촌과 농민이 중심이 되어서 지켜지고 유지되어 오고 있으니 주인임에 틀림없는 것입니다. 오늘날과 같이 가난한 후진국가의 주인이 결코 명예로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스스로 분발해서 후진의 굴레에서 탈피하지 않으면 안 될 역사적인 책임이 지워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나라는 두 차례에 걸친 경제개발계획을 통하여 공업국가 건설에 발버둥치고 있습니다. 공업화로 근대화하자는 데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며 반대할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공업화로 근대화하자면 그 바탕이 튼튼해야 합니다. 바탕이란 곧 우리들 농민이 실력을 길러 자립하는 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대회를 통해서 첫째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해봐야 하겠습니다.

우리도 이웃나라 못지않게 잘 살게 되자면 이 나라의 주인으로서 무거운 책임을 진 농민들이 실력을 발휘하여 잘사는 바탕을 만드는 일이 우리들의 귀중한 사명인 것입니다.

정신 · 기술 · 생활 혁명 완수는 우리 회원의 명예로운 의무다.

우리들에게 주어진 역사적인 사명을 완수하자면 세 가지의 혁명을 치루지 않으면 안되겠습니다.

이미 3대혁명에 대해서는 여러 회우동지들이 잘 알고 계실 줄 믿습니다. 농민들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자조자립하려는 정신혁명과 농업에 대해서는 과학적인 경종과 경영으로 수익을 높이는 기술혁명과 농촌에 대해서는 낡고 묵은 누습을 타파하고 새로운 기풍을 진작하여 협동하는 생활혁명을 성취하지 않으면 우리는 후진성에서 탈피할 수 없다는 것을 역설한 바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전국농업기술자협회에 가담한 회우 동지 여러분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정신혁명과 기술혁명과 생활혁명을 두 어깨에 걸머지고 과감히 실천에 옮겨야 할 의무와 사명을 지니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성스러운 역사적인 의무와 사명을 포기한다 할 것 같으면 조국에 태어난 보람을 어디에서 찾는단 말입니까. 우리가 내세우고 부르짖는 혁명은 작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총칼들고 무력으로 혁명하자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들의 혁명이 일조일석(一朝一夕)에 될 혁명도 아닙니다. 사람의 한 세대를 30년으로 보는데 우리들의 과업은 적어도 30년을 두고 해야 할 혁명입니다. 30년이란 세월이 결코 오랜 것이 아니며 금방 지나쳐버립니다.

전국농업기술자대회를 두고 생각할 때 협회로 발족하여 주최한지도 벌써 3회째입니다. 3대혁명 가운데 우선 기술혁명부터 착수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농업기술자협회는 기술을 표방하고 있는 만큼 먼저 기술혁명에 앞장을 서야겠습니다. 기술혁명을 완수하기 위하여 농업기술을 연구하고 개발할 기관으로 농업기술연구소라는 기관을 둘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연구기관은 우리협회의 부설기관으로서 우리 협회의 각급 회의 사업과 연관을 갖고 회우동지들이 가진 기술을 개발해내고 연구하고 또 농정의 방향을 분석하고 정리해서, 회우 동지들의 기술혁명의 방향을 제시하고 뒷바라지를 해보자는 것입니다. 공동으로 개발하고 공동으로 연구하고 조직적으로 실천하여 기술혁명을 완

수해보자는 것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농경지는 전국토 면적의 22%뿐이고 78%가 버려진 산과 임야입니다. 광활하고 비옥한 평야를 갖지 못한 우리는 이 버려진 산야에서 새로운 생산운동을 전개하지 않으면 안되겠습니다. 좁은 평야에 농업인구는 편중되어 경지면적이 영세한 데에다 농업생산의 바탕과 구조가 모순을 안고 있는데, 어찌 농업의 기계화니 근대화가 이루어지겠습니까. 아버지가 짓던 농경지를 아들이 분배하여 가지니 인구증가와 함께 농경지가 영세하여지고, 이 영세한 농경지에다 또 쌀 · 보리 · 감자 등 주곡을 위주로 농사를 지어 식량조차 자급을 못하고 있는 이 딱한 현실을 과감히 개혁하여 나가지 않으면 농가경제의 자립과 기업화의 단계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 주곡(主穀) 농업으론 농촌진흥 없다. 경제작물 개발로 소득 증대를

농업생산물에 있어서도 경제작물이 차지하는 비율은 불과 8.3%에 지나지 않습니다. 농가의 수익을 높일 수 있는 경제작물 다시 말하면 공업원료작물과 수충농산물을 개발하여 농가의 수익 증대에 더욱 힘을 기울이지 않는다면 가난에서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보아 식량작물의 증산과 개량의 자급자족은 국가적으로도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경제작물에 쏟을 여력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오늘 제7회 농업기술상 수상의 영광을 차지한 분들도 모두 경제작물로 성공한 분들입니다. 이분들의 성공담을 들어볼 때 어떤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번 우리 대회의 주제도 바로 이런 뜻에서 내건 것이며 분과 연수회도 경제작물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개발에 중점을 둔 것입니다. 경제작물의 개발에 있어서는 철저한 기술연수와 판로의 개척과 적정가격이 보장 등 정부의 적극적인 뒷받침이 있어야 함은 물론입니다.

제2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을 보아도 너무나 공업화에 치중한 감이 있고 농업분야는 약한 감이 없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들 농민이 솔선하여 앞장을 서고 힘을 뭉쳐 길러야 됩니다.

오늘 기술상 본상 수상자 가운데 정양갑 회우는 대나무밭을 2만7천 평을 조성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일본서 수입되는 대나무를 막자는 장한 생각에 꽉 차 있었다 합니다. 대밭을 조성하여 일본 대나무의 수입을 막는 일은 개인 정양갑 씨의 수익뿐만 아니라 이 나라의 경제자립에 얼마나 플러스 되는 일이겠습니까? 우리 모두 힘을 합쳐 길을 찾고 길을 열어 나갑시다.

우리 회우 동지 여러분들은 지방마다 고장마다 지역으로 조직적인 연구와 개발과 기술교류를 통해서 앞날을 개척해 나가는 데 앞장을 서야겠습니다. 금년부터 기술수련 특히 연수사업에 중점을 두고 사업을 강력하게 추진하여 나갈 것입니다. 농업기술에 뛰어나고 의욕적이며 포부가 있는 회우 동지들을 발굴하고 붙잡아서 선생으로 모시고 연수를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 협회에 가담한 모든 회우들을 모두 알찬 기술자로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탁상의 이론이나 체험을 쌓아 업적을 나타내지 못한 기술을 소용이 없으며 우리들의 힘이 되지는 못합니다.

우리는 위선자가 되어서는 안되겠습니다. 참된 기술은 업적과 체험을 쌓은 진실한 기술에는 거짓이 없습니다. 거짓이 없는 참된 기술을 거짓 없이 익히고 내 것을 만들어야 겠습니다. 그리고 실천에 옮겨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술혁명인 것입니다.

우리 인류역사는 거짓이 하나도 없습니다. 어떤 국가나 어떤 민족이 번영하는 데는 위대한 지도자의 힘이 작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농업기술자협회가 그리 대단하고 큰 존재가 아니라 하더라도 위대한 지도자가 될 수 있는 우리 회우 동지들이 결속하고 새로운 각오와 결의로 우리에게 지워진 3대 혁명의 과업을 실천에 옮겨 완수한다면 우리나라를 위대하게 발전시키는 원동력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회우 동지 여러분!

나는 지금 연설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간절히 호소하는 것입니다. 나이 70이 다된 내가 교육사업을 하든 내가 오직 얼마 남지 않은 여생을 이 나라의 농촌을 부흥 재건하는 사업에 바치겠다는 일편단심뿐입니다. 나는 결코 위선자가 되고 싶지 않습니다. 나는 이 진심을 회우 동지 여러분께서 알아주시고 우리 협회의 사업이 이 나라 농업 발전에 거름이 되고 귀중한 업적을 창조할 영광스러운 앞날이 있기를 바랍니다.『농업기술회보(農業技術會報)』 32호, 1966년 11월 1일〕

19)「1967년 신년사: 역사의 방관자가 되지 말고 대동결속 하여 전진하자」

1967년 정미(丁未) 새해를 맞이하여 전국 회우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여 보람찬 한해가 되기를 축원하는 바입니다.

묵은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할 때마다 세월이 너무나 빠르다는 것을 절실히 느끼게 합니다. 시간의 단위는 예나 지금이나 다름이 없지만 가치 창조에 있어서는 과거의 백년이 오늘날의 하루에 비할 수 있습니다. 조국근대화를 향해서 역사의 수레바퀴는 급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역사의 방관자에게는 오직 패배만이 그들의 것이며 역사의 창조자에게는 위대한 번영이 그들의 것입니다.

전국의 회우 여러분!

오늘날 새 역사 창조의 주인공은 과연 누구이겠습니까. 우리들 농민은 역사의 방관자가 되지 말고 용감히 도전합시다.

우리나라도 이제 후진의 굴레를 벗어나려고 하고 있습니다. 수출의 증대와 산업시설의 건설 등 괄목할 발전상은 의존과 원조에 의해서 유지되어 온 경제가 목전에 자립하려 하고 있습니다. 도시의 고층건물은 근대화에 상징이 될는지 모르지만, 그 그늘에 사치적인 소비성향을 그대로 보아 넘길 수 없고 초현대식 공장이 아무리 많이 세워진다 해도 농업생산의 증대와 농가소득의 향상으로 농 · 공이 균형 병진하지 못한 때, 그 공장들이 검은 연기를 뿜어낼 수 있을 것인지 적이 의심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 농업과 농촌이 작년보다는 금년, 어제보다는 오늘이 향상일로에 있음은 누구나 시인하는 바이지만, 그것이 통계숫자의 지시에 그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 나라의 정치, 경제, 문화— 모든 영역에 걸쳐서 우리들 농민이 정신혁명을 우리의 농업이 기술혁명을 우리의 농촌이 생활혁명을 성취함으로써만이 바로 설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이는 본인의 변함없는 신념이며 철학인 것입니다. 우리는 조용한 혁명의 왕축(王軸)이 되어야겠습니다.

전위농민(前衛農民)을 자처하는 우리가 조용한 혁명 대열에 앞장서지 못하고 형식적인 집회나 행사를 치루는 것이 우리 협회의 사업이라면, 허수아비나 다름없는 존재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지난 한 해를 회고해 보건대, 우리 협회는 이렇다 할 뚜렷한 사업을 하지도 못하였고, 귀중한 시간을 허송한 것을 생각하면 안타까움을 참을 수 없으며, 회우 여러분들에게 솔직히 사과드리는 바입니다.

본인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주창하였지만, 작은 사업의 성패도 사람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렇다 하면 하물며 조용한 혁명을 완수하여 새 역사를 창조하자는 우리의 과업은 첫째도 사람이며, 둘째도 사람이며, 셋째도 사람인 것은 물론인 것이며, 역사의 주인공 될 사람의 발굴이 우리 협회의 기본사업이라 하겠습니다.

새해 들어 그동안 우리 협회의 육성 발전에 큰 공적을 남기고 사정에 의하여 이진수(李鎭洙) 사무국장이 물러남을 계기로 하여 사무국 실무진의 인사쇄신을 단행하고 체제를 정비 중에 있습니다.

부설 농업기술연수원(農業技術研修院)도 이제까지 그 시설을 사장(死藏)하여 두었으나, 새봄을 맞아 증개축을 끝내고 명실공이 정신무장, 기술무장의 도장으로서 농촌진흥의 역군을 양성하는 산실로써 특색 있고 알찬 운영을 하고자 지금 서둘고 있습니다.

국내적으로 독농가(篤農家)의 발굴과 독농기술의 개발도 중요한 일이지만, 우리 협회 회원으로 하여금 선진한 외국에 파견하여 새로운 기술을 연수 도입케 하는 데 힘쓸 것입니다.

「농업기술회보」도 발행 기일을 지킬 것은 물론 내용의 충실을 기하여 여러분들의 기대에 부응토록 할 것입니다.

전국 회원 여러분!

우리는 역사의 방관자가 되지 말고 결속하여 전진합시다. 그리고 악마처럼 생산하여 천사같이 생활합시다.〔『농업기술회보(農業技術會報)』 34호, 1967년 1일 1일〕

20) 「격려사(발췌): 마음의 결정과 행동만이 남았다」

오늘 날씨도 매우 차고 공사로 바쁘실 터인데 우리 서울 · 경기지부에서 기술연수회를 개최함에 있어서 여러 동지들이 많이 참석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러한 성의가 우리들의 앞날과 한국농업의 앞날을 기약하는 중대한 발전의 계기가 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는 바입니다.

회우 동지 여러분!

우리는 어느 때나 이 같은 열성과 정열로 일합시다.

오늘 회우 동지 여러분을 만난 이 자리에서 몇 말씀 꼭 해야 되고 또 하고 싶습니다. 오늘 본인이 말씀 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잘사는 방법, 속되게 말하면 우리 한국농민이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되는가 하는— 즉 부자가 되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도 잘 살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말로 그칠 일이 아니라, 나 자신의 확고한 신념이며 이 방법대로 한다면 틀림없이 잘살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인이 몇 말씀 드리는 것을 깊이 들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부자가 되는 방법에는 3단계가 있습니다. 또 그 단계 단계마다에 각기 세 가지 층이 있는 것인데, 결국 부자가 되는— 말하자면 우리가 잘사는 농민이 되자면 3×3은 9하여 끝내 아홉단계를 거쳐야 한다는 이야깁니다. 1단계가 된다면 2단계로— 2단계가 끝나면 3단계로 각각 이행할 것이지만, 우선 2단계 3단계를 말씀드리고 다음으로 1단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것은 매우 평범한 원리인 것입니다. 그러나 평범한 가운데 진리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단계는 오늘날 세계 각국이나 동서고금을 통해서 잘사는 사람들은 이 범주 속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먼저 2단계, 이것은 여러 번 말씀한 것입니다. 우리 농민도 잘살려면 세 가지 혁명 이를테면 우리 농민에 대해서는 정신혁명(精神革命)을, 농촌에 대해서는 생활혁명(生活革命)을 성취해야한다는 것입니다. 이 2단계의 세 가지 혁명을 꼭 이루어야겠습니다. 이것이 한국농촌 부흥의 가장 중요한 방법입니다.

이 2단계의 정신 · 기술 · 생활의 혁명이 일어났으면, 다음으로 3단계에 들어서게 됩니다. 그것은 첫째 무(無)에서 유(有)로 창조 이행하며, 둘째 하나에서 다원(多元)으로 전개되며, 셋째 소(小)에서 대(對)로 발전하는 것입니다. 2단계의 세 가지 혁명이 이룩되면 이 3단계의 세 가지 변화와 발전은 분명히 일어납니다. 그러면 과연 이 세 가지 변화가 일어나고 무(無)에서 유(有)의 창조가 일어날 수 있을 것인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방법으로서 1단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1단계에 있어서 첫째로 마음에 대한 결정입니다. 마음으로 결정이 되면 우리는 그것을 이루려고 합니다. 그러자니 자연 그 방법과 길을 찾는 것입니다.

이것이 1단계의 둘째 번의 일입니다. 그리고 애써 찾아 그 방법이나 길을 알게 되면 이제는 셋째의 일로 용기 있게 과감히 실천에 옮겨야 합니다. 비근한 예가 하나 있습니다. 지난번 우리 충북 보은지회의 연수회가 그것입니다. 그때 800명의 회우가 참석하여 이선필(李善弼) 씨의 심농법(深農法) 강연을 들었는데, 단 한 사람 김종하 회우가 그것을 듣고 마음으로 결정하여 마침내는 증산왕(增産王)으로 머리에 왕관을 쓰게 된 것입니다. 그 결심에 내 생명이라도 바친다는 각오가 서있지 않으면 안됩니다. 미지근해서는 하나도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나는 요즈음 서기 2000년대의 한국농촌을 그려봅니다. 아무리 보아도 그때에 가서야 겨우 오늘날 선진국가에 비길 수 있을 것만 같이

느껴집니다. 다른 사람들이 그 기간을 50년으로 잡는다면 본인은 20년이나 단축해서 보아도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무엇이 문제인가! 사람과 돈과 기술과 갖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사람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돈이 있고 기술이 있어도 사람이 없으면 안됩니다. 한국농업은 무(無)에서 유(有)를 창조해 내지 않으면 안됩니다. 보리밭을 보십시오, 십년 전의 보리밭이 십년 후에도 보리밭이 되어서는 결코 농업의 발전을 기대할 수 없는 것입니다. 무에서 유로, 하나에서 다(多)로, 소(小)에서 대(大)로 이행 변화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오늘 여러분은 새벽같이 일어나 짐승과 소채를 돌보고 늦어도 일곱 시에는 이곳 연수장을 향해 출발했을 것입니다. 바로 그 정신입니다. 새로운 삶을 영위하는 나라, 부자가 사는 나라, 잘사는 나라가 되는 것은 바로 그 정신만이 이룩할 수 있습니다. 농업의 발전없이 공장이 검은 연기를 뿜을 수 없음은 자명한 원리입니다. 우리는 잘사는 나라를 만드는 가장 중대하고 무거운 역사적 사명을 지고 있습니다. 조국근대화의 기초작업을 닦는 우리 농민의 짐은 그만큼 무거운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새로운 단계로 돌입하여 잘 살 것인가!

우리들의 이 소망은 큰 값어치가 있는 것인 동시에 정성과 정열로서 온갖 지혜를 다 써야 할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농업기술회보(農業技術會報)』 35호, 1967년 2월 1일〕

21) 「위대한 대전쟁의 승리를 위하여, 하나의 자연부락을 살리는 창조적 인간상」

농사철을 맞아 매우 바쁘실 터인데도 불구하고 각도의 상임간사 여러분이 오셔서 매우 감사합니다. 우리 기술자협회의 발전을 위해서 이같이 애써주시니 매우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지금 생각은 금년부터는 좀 더 힘차게 움직여서 소기의 성과를 올려야겠다는 신념에서 다시한번 뜻과 생각을 돈독히 해서 협회의 발전에 박차를 가합시다. 그 시간을 가지기 위해서 오늘 이같이 바쁜 중에도 모인 것입니다.

우선 우리 개체, 개인을 두고 생각해봅시다. 세상에 태어나서 한 세상을 사는 것. 이것은 전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공사(公私)생활을 통해서 보면 꼭 전쟁인 것입니다. 그 전쟁을 선하게 잘했나 못했나에 따라 여러 가지 양상의 생(生)의 결말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협회의 일도 한 개체의 전쟁과 다를 바 없고 다르다면 보다 큰 전쟁임에 틀림없다는 것일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협회가 발전되어서 천육백만 농민이 잘 살 것인가? 협회에 부하된 가장 큰 이 임무를 정부가 하겠습니까? 가만히 앉아서 그렇게 되기만 기다리겠습니까? 그것은 자기의 사명이나 진정한 삶의 포기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전쟁을 치루지 않으면 안됩니다. 우리 협회의 사업은 무슨 전쟁이냐? 1600만 농민을 잘 살게 하는 가장 큰 전쟁이 아니겠소? 이 전쟁을 수행함에 있어서 어떻게 하면 성과를 올릴 것인가를 생각해봅시다. 군대를 두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국방부가 있고 육해공군이 있으며 사령관이 있고 사단에는 사단장이 그리고 영관급에서 일선 소대장 등등 갖가지 계급의 종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쟁을 보면 누가 실제 전쟁을 합니까? 실상은 맨 일선 지대에서 싸우는 일선부대, 그것이 중요합니다. 훌륭한 참모작전– 전략, 전술은 그 자체가 승리는 아닙니다. 일선 전투부대가 없다고 하면 그 전쟁을 되지 않을 것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작전이라도 일선 부대가 잘하나 못 하나에 따라 승패가 달려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나는 우리 도지부며, 시군지부를 생각할 적에 바로 전부투대가 아닌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실제 싸우는 것은 누구냐? 농민을 살리는 전투, 일선부대가 누구냐? 바로 여기 계시는 상임간사 여러분이며 1600만 농민 한 사람 한 사람인 것입니다.

돌아보면 오늘 벌써 협회가 발족한지 5년, 대회 연륜으로 보면 8년입니다. 자! 이 시간만 갖고서는 아무런 소용도 없다는 것을 잘 아실 것입니다.

우리 협회는 1600만 농민 한 사람 한 사람을 잘 살도록 만드는 것이 사명이오, 궁극의 목적입니다. 그러므로 협회의 운동은 구심운동이 아니라 원심작용으로서 지엽으로 힘을 뻗쳐 부락과 그 한 사람, 한사람을 잘 살게 하는 원심운동입니다.

나는 역사적인 전쟁에서 뒷받침이 되고 힘을 주는 일은 할 수 있을지언정 전투부대인 부락, 5만 자연부락이 잘 싸워 주지 않으면 모든 노력이 허사가 되고 맙니다. 그 전투부대들이 부대장인 선도농가의 선도 하에 잘살게 될 것을 확신합니다. 협회가 백년이 걸리더라도 부락 하나 제대로 잘 살게 못한다면 이건 사기집단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부락 하나라도 완전히 살리기 위해 모든 것을 밀어주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이 전쟁, 원심전쟁, 가장 위대한 전쟁, 부락을 향해서 나가는 이 전쟁의 승리를 확신하고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상임간사 여러분이 힘써서 한 사람이라도 붙들어 자립하는 부락으로 만들지 않으면 안되겠습니다. 잘사는 농촌을 만드는 가장 위대한 평화의 승리를 위하여 나는 이 차트– 서기 2천년대 한국농촌의 미래상을 그렸습니다. 책도 만든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조용한 혁명』이란 책도 지금 쓰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책 가운데서 내가 오늘 상임간사 여러분에게 꼭 이야기하고 싶은 도면이나 통계를 뽑아왔습니다. 이제 차–트를 보면 알겠습니다만 5단계의 전쟁입니다! 먼저 철학이 앞서야 합니다.

〔–이하 차트설명, 창조적 인간상에서 부터 서기 2천년대까지의 5단계 농촌발전상 및 농산물과 농가소득 증대과정 예측도〕

농촌 성장의 비약을 위해서 각도 상임간사 여러분은 다시 한 번 각오를 새롭게 해주기 바랍니다. 물론 너무 욕심이 많은지 모르지만 이왕이면 같은 시간 안에 그렇게 되려면 같이 움직이되 기계적으로 움직이는 인간이 되지 말고 능동적으로 활동해야겠습니다.

1967년부터는 우리 모두 새로운 약속 하에서 협회의 활동이 도약단계에 서도록 분발해야겠습니다. 우리는 이 시간에 조용히 반성하고 앞으로의 도표(道標)를 뚜렷이 해서 과감히 전진할 자세를 취합시다.

여러분의 건투를 빌며 대단히 감사합니다.『농업기술회보(農業技術會報)』 38호, 1967년 4월 1일〕

22)「특별담화: 2천년대 미래상은 위대한 꿈, 제3회 시도 농업기술자대회에 부쳐」

전국의 회우 여러분!

온갖 애로와 악조건을 헤치고 굽힘없이 분투하시는 회우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심심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전국의 뜻있는 전위농민(前衛農民)들이 자주적으로 모여 전국농업기술자대회라는 연례행사를 가진지도 벌써 8년째이며, 이 운동의 지류로써 지역적인 특색을 살린 시 · 도별 농업기술자대회는 이제 제3회 맞이합니다.

묵은 연륜을 따지고 형식적인 행사를 되풀이하기에는 우리들 농민 내지 농업에 밀어닥치고 있는 현실이 너무나 절박하다는 것을 통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격동기를 맞이한 이 나라의 역사는 우리들에게 위대한 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전진하는 역사의 소외자나 도피자가 될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참여자서 주역으로서의 임무를 재인식하여야겠습니다.

우리나라의 농업은 그 구조적인 특질로 해서 경제발전에 대한 적응성이 현저히 결여되어 있음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날과 같이 산업과의 불균형이 이처럼 광대되어 가서는 정치 · 경제 · 사회의 안정과 진정한 근대화가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본인은 이번 시도별 농업기술자대회를 통해서 여러 회우들에게 서기 2천년대 한국농업의 미래상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이는 우리들이 반드시 실현해야 할 위대한 꿈인 것입니다. 주먹구구식의 탁상공론이나 단순한 그림이 결코 아닙니다. 반드시 실현할 수 있는 과학적인 근거와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거창한 미래상을 달성하는 방법이 삼위일체 5단계 개발론입니다.

우리 전국농업기술자협회 회우 여러분은 1600만 농민을 이은 선도농가(先導農家)이며, 정신혁명(精神革命) 기술혁명(技術革命) 생활혁명(生活革命)을 앞장서서 완수해야 할 혁명가이기도 합니다.

이제 우리는 주저하고 머뭇거릴 수 없습니다. 전국농업기술자대회와 우리 협회가 지금까지 걸어온 길을 반성해 볼 때, 이렇다 할 큰 업적이나 농촌진흥을 위해서 공헌한 바는 미약하다 하겠으나, 자조 자립하려는 순수한 기상과 작은 몸부림은 높이 평가되어야 하겠습니다. 이 작은 불씨는 커다란 힘의 원동력이 될 것으로 믿어 의심하지 않습니다.

시도별 농업기술자대회는 정치적인 시위를 위해서 열리는 군중대회도 아니며, 목전의 이익만을 추구해서 모이는 오합지중(烏合之衆)도 아닌 것입니다. 행사의 형태나 내용이 문제가 아니라 경제적으로 기술적으로 당면한 공통적인 난제를 해결하려는 공동의 광장으로서 참가하는 데에 커다란 의의가 있는 것입니다.

협회라는 한 단체의 행사라기보다 전체농민들의 행사로서 거도적(擧道的)인 행사로서 회원은 물론 많은 농민들이 참가하여 주시기를 본인은 희망합니다.

대회에 참가해서 무슨 이익을 얻을 것인가? 이런 의문을 가지기에 앞서 스스로 이익을 찾기 위해서 모이는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고립해서는 살 수 없고 한 사람의 뜻과 행동만으로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습니다.

우리들의 위대한 꿈인 2천년대의 미래상을 달성하기 위해서 그 기초공사이며 정지작업에 해당하는 제1차 사업추진 3개년계획을 마련하여, 상임이사회와 이사 및 시 · 군 지부장 합동회의를 거쳐 신년도부터 실천에 옮길 것이며, 회우 여러분들의 여망에 부응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번 시도별 대회가 전체회원과 많은 전위농민들이 참가하여 대성황을 이뤄 각기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유종의 미를 거두길 바라는 바입니다.『농업기술회보(農業技術會報)』 48호, 1967년 9월 1일〕

23)「한재(旱災)와 싸우는 전남 회우 제위, 인내와 끈기로 한재를 이깁시다」

전남의 회우 여러분!

벼이삭이 고개를 숙이고 땀의 댓가가 들판에 풍요하게 결실하는 계절입니다. 그러나 우리 협회 전남지부 보고나 신문 보도를 접할 때, 본인은 가슴이 메어지는 애처로운 심정을 참을 수 없습니다. 당장이라도 달려가 농민들의 앞장에 서서 가뭄과 싸우는 우리 회우들을 격려하고 위로하지 못하고 회보를 통하여 붓을 드는 심정이 몹시 괴롭습니다.

중부지방은 풍년이 들었습니다. 영 · 호남의 가뭄 심하여 좁은 이 나라에 골고루 비를 내려주지 않는 하늘이 원망스럽기까지 합니다. 농작물은 거의 타죽고 이제 식수마저 어려운 사정이라니 이 어려운 고초를 겪고 있는 우리 회우를 글로써 위로할 수 있겠습니까?

당국에서도 적절한 가뭄대책을 세우고 재민구호에 만전을 다하고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협회

가 능력이 없어 물질적으로 돕지 못하는 안타까운 심정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회우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것은 결코 용기를 잃어서는 안 되며, 침착하게 이성(理性)과 끈기로 이 위난을 이겨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치산치수(治山治水)와 풍수해 대책은 정치의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정부에서도 장구한 대책을 세워야 하겠지만 우리들 농민 스스로가 자조(自助) · 자립(自立)의 정신으로 이번에 겪은 재난을 거울삼아서 다시 이러한 재난이 닥치더래도 이겨나갈 수 있는 대책을 세워야 하겠습니다.

이런 기회에 우리들이 흔히 듣고 있는 저 이스라엘이며 호주로 눈을 돌려 그들이 어떻게 가뭄을 이겨내고 우리의 몇십 배나 몇백 배 나쁜 자연조건하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가 배워야 하겠습니다.

지금 열리고 있는 시 · 도별 농업기술자대회를 전남에서는 9월 23일로 작정한 바 있습니다만 이 어려운 사정에서 전남대회를 개최한다는 것은 회우여러분들에게 오히려 부담이 될 것 같아서 10월 13일로 일단 연기를 하였습니다.

이 재난을 당하여 우리 회우들은 농민들의 앞장에 서서 인내와 용기를 보여 주십시오. 그리고 이 재난을 전남의 발전을 위한 밑거름으로 삼아주십시오. 우리 전국의 회우가 여러분에게 성원을 보내고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려움 가운데도 용기 있는 얼굴을 대할 수 있을 날을 기약하면서 이만 줄입니다.〔『농업기술회보(農業技術會報)』 49호, 1967년 9월 15일〕

24) 「특별담화문: 새 진로와 전기 마련, 제8회 전국농업기술자대회에 부쳐」

벌써 중부지방에는 추수가 한창이며, 영호남 등 남부의 한해(旱害)지방을 제외하고는 평년작 내지 풍작의 소식입니다. 추수에 바쁜 전국 회우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지난 9월 11일 강원도에서 시작하여 10월 5일 충남대회와 10월 14일 한해(旱害)로 연기되어온 전남대회에 이르기까지 전국적으로 열린 제3회 시도별 농업기술자대회에 본인은 빠짐없이 참석하여 행사준비에 온갖 어려움을 무릅쓰고 애쓰신 시도지부장님과 임원 그리고 열성적으로 참가한 5천여 회우들을 대할 때 가슴이 벅차오르는 감격을 참을 수 없었으며, 이 지면을 통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도대회를 통하여 본인은 더 한층 어깨가 무거워짐을 느꼈고, 아울러 우리의 운동이 기필코 성취되리라는 확신을 굳게 하였습니다.

전국의 회우 여러분! 이미 회보를 통하여 잘 알고 계실 줄 믿습니다만, 오는 10월 24일과 25일 이틀 동안 서울에서 제8회 전국농업기술자대회를 엽니다.

회고하건대 이 운동이 시작된 1960년 이후 지금까지 유구한 역사를 통해 볼 때는 짧은 한 토막에

지나지 않으나, 그 어느 때에도 비할 수 없을 만큼 격동의 시기였습니다.

전위농민(前衛農民)들의 자주적인 행사가 8년 동안이나 꾸준히 계속되어 왔다는 것은 자랑스러운 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형식적인 연례행사를 거듭한다는 사실 자체가 자랑일 수는 없습니다. 우리들의 대회가 정치적인 시위나 허장성세를 위해 모이거나 소비적인 행사는 결코 아닙니다. 이번 대회를 기해서 우리는 지금까지 해온 일과 걸어온 길을 조용히 반성하고 우리들에게 지워진 역사적인 과업을 뚜렷이 하자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들의 위대한 꿈이요 청사진(靑寫眞)인 2천년대 한국농업의 미래상을 내걸었고, 실현방법으로서 삼위일체적 개발5단계론을 내놓았습니다. 선도농가(先導農家)로서 1600만 농민의 앞장에 서서 정신혁명 기술혁명 생활혁명의 조용한 혁명 완수를 다짐하는 행사가 바로 전국농업기술자대회인 것입니다.

이번 대회는 행사 자체에 있어서도 지난날의 경험을 살려 다채롭고 화려하며 알찬 성전(盛典)이 되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들에게 부딪친 절박한 현실문제를 다루기 위해 사계 권위자를 배심(陪審)으로 초빙하여 참가자 전원과 혼연일체가 된 토론의 광장을 마련하였습니다. 산체험과 농민적인 기술의 개발광장인 분과별 농업기술발표회도 상금을 걸고 겨루기로 하였습니다. 참가의 문호는 완전히 개방하고 장소가 허용되는 대로 회원과 대의원은 물론 전위농민들도 함께 오시길 환영합니다.

이번 전국대의원 총회에서는 제1차 사업추진 3개년 계획도 다루게 될 것입니다.

새로운 진로와 전기를 기하는 이번 대회에 많은 회우들의 참가를 바라는 바입니다.〔『농업기술회보(農業技術會報)』 51호, 1967년 10월 15일〕

25) 「제8회 대회사(요지): 혁명적인 과감한 수술의 집도의(執刀醫)는 선도농가」

한창 바쁜 추수 시기인 이때 전국 방방곡곡에서 회우 동지 여러분께서 이처럼 많이 참석하시어 대성황을 이룬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 대회를 축하하고 빛내어 주시기 위해서 공사로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임석(臨席)하여 주신 국회 장경순(張坰淳) 부의장님과 농림부 구윤석(具允錫) 농정차관보님과 우리 농민들의 지도자이신 공진항(孔鎭恒) 선생님에게 감사를 드리며, 농업협동중앙회와 농촌진흥청 등 유관기관에서 이처럼 많이 와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멀리 삼천포에서 성해기(成海麒) 시장이 참석하여 주신 일을 이 자리에 모인 여러 회우 동지와 함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3 · 1당에서 우리는 제8회 전국농업기술자대회를 개최합니다. 실로 귀중한 8년이란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이 대회나 우리 전국농업기술자협회가 벌려온 운동이나 업적이 얼마나 이 나

라 농촌 부흥 · 재건에 이바지하였는가— 반성하여 볼 때 부끄러운 마음이 앞섭니다. 우리들에게 많은 기대를 걸고 여러 면으로 협력하여 주신 분들에게 응분의 보답을 못해 왔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번 제8회 대회가 해마다 갖는 연례행사로서가 아니라, 이 나라 농촌의 진흥을 위해서 중대한 결정을 내리는 데에 자못 그 의의가 크다고 하겠습니다.

이번 전국대회 이전에 전국 11개 시도별로 열린 대회에서 2천년대를 바라보는 미래상과 그 방법론으로서 조용한 혁명을 내건 바 있습니다. 그중에 국토개발이며 인구문제며, 농업생산에 대한 여러 가지가 제시되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이 3대혁명의 과업과 선도농가 문제인 것입니다. 이 두 가지 문제가 오늘 이 나라 농촌을 발전시켜 나가는 데 선행되어야 할 가장 근본적인 문제인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나라의 농촌경제는 통계에서 밝혀진 바와 같이, 93%가 부채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국민소득을 선진국가와 대비해 보아도 영국(英國)은 국민소득이 1788불이며, 농민소득은 1736불(弗)로써 불과 50불 정도의 차이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120불~130불의 국민소득에 비하여 겨우 67~70불이라는 심한 격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선진국가에 비해서 100년이니 50년이니, 혹은 30년이 뒤떨어졌다는 것은 이미 공론이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이대로는, 이래 가지고는 되지 않는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번 제8회 대회를 계기로 해서 두 가지를 제의합니다.

여기 한 환자가 있다고 합시다. 의사가 진찰한 결과 투약으로는 고칠 수 없고 대수술을 해야 된다는 진단이 내렸다면 병을 고치고 생명을 구하고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서 수술을 해야합니다.

우리 농촌도 마찬가지입니다. 혁명적인 과감한 수술을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농민에 대해서는 정신혁명(情神革命)을, 농업에 대해서는 기술혁명(技術革命)을, 농촌에 대해서는 생활혁명(生活革命)을 완수하였을 때, 우리 농촌은 진흥이 되고 잘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혁명적인 대수술 집도할 의사는 누구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선도농가(先導農家)인 여기 모인 회우 동지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칼을 든 것 같은 강한 결심으로 혁명적인 수술에 나서야 합니다. 여러분이야 말로 이 나라 역사의 주인공이며, 선각자요, 지도자이며, 혁명대열의 선봉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먼저 3대혁명을 완수한다면 위대한 새 역사가 이 땅위에 펼쳐질 것을 본인은 확신하는 바입니다. 우리 협회는 먼저 만 명의 동지가 하나같이 자아혁명(自我革命)을 완수하고, 나아가 5만 명의 선도농가를 양성하는 일이 가장 큰 문제인 것입니다.

회우 동지 여러분!

이미 준비는 갖추어져 있습니다. 우리들의 보람찬 설계인 2천년대의 미래상과 그 방법론— 조용한 혁명이 의미하는 우리의 이념은 다듬어져 있습니다. 부설 농업기술연구소의 설치와 연수원의 운영 강화책도 마련하여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지나온 길을 조용히 반성하고 새로운 진로 새로운 방향을 뚜렷이 한 이번 제8회 대회에서 본인은

회우 동지 여러분에게 혁명대열의 앞장에 설 결심을 가져줄 것을 간절히 바라는 바입니다.

내가 나서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굳은 결의가 이루어진다면, 이번 제8회 대회는 분명히 역사적인 행사가 될 것입니다. 회우 여러분의 건강과 건투를 빕니다.〔『농업기술회보(農業技術會報)』 52호, 1967년 11월 1일〕

26) 「1968년 신년사: 농민의 선도농가 되어 3대혁명을 완수하자」

1968년 무신(戊申) 새해를 맞이하여 전국 회우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행운이 함께 하여 보람찬 한해가 되기를 축원하는 바입니다. 새해를 맞이할 때마다 사람들은 으레껏 한 해 동안의 설계를 하기 마련이지만, 조국의 무거운 역사적 사명을 지고 있는 우리는 조국의 영광된 내일을 위하여 우리와 우리 후손들의 행복된 삶을 위하여 이 한해만은 기필코 그 초석을 굳건히 하는 기회와 계기의 해가 되어야겠습니다.

전국의 회우 여러분!

새 역사 창조의 이 시점에서 그 주인공으로서 우리들 농업인에게 내려진 준엄한 민족적인 양심의 명령에 신성한 몸부림을 느끼지 않습니까? 역리(逆理)와 전도(顚倒)의 현실을 직시하고 급전하는 역사의 수레바퀴가 반역사적인 역전을 거듭치 않도록 용감히 도전합시다.

자립의 지상과제를 향해 치닫는 우리나라의 경제는 수출 증대와 산업시설의 확충 등 근대에 들어 괄목할 발전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근대시설의 공장이 아무리 많이 세워지고 도시의 고층건물이 높이 솟는다 하더라도 농업생산의 뒷받침 없이, 경제자립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인지 염려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농산업을 경시하고 농산물의 성장이 둔화한 나라가 당하는 고충을 우리는 현실적인 교훈으로 받아들여야 할 줄 압니다.

여기에 본인은 지난해에 서기 2천년대를 바라보는 한국농업의 미래상을 제시하고 성공적 수행을 위한 방법론으로서 삼위일체적 개발 5단계론을 주장하였습니다.

전위농민(前衛農民)임을 자부하는 전국의 회우 여러분!

우리는 선도농가(先導農家)로서 먼저 자신부터 정신혁명 · 기술혁명 · 생활혁명을 완수하고 나아가 천6백만 농민의 선봉에 서서 조용한 혁명을 성취하여야 되겠습니다. 정부의 강력한 지원정책과 농민, 선도농가가 삼위일체가 되어 5단계로 이르는 우리들의 위대한 꿈을 실현하여야겠습니다.

돌아보건대 지난 한해 동안에 우리 협회는 이렇다 할 뚜렷한 사업을 하지 못하였음은 안타깝게 여기며, 회우 여러분들에게 심심한 사과를 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나 한 해 동안에 우리 협회는 제1차 사업추진 3개년계획을 수립하였으며, 가장 핵심적인 사

업의 하나인 연수사업을 위해 부설(附設) 농업기술연수원(農業技術研修院)의 개보수 공사를 끝냈고, 또 부설 농업기술연구소(農業技術研究所)도 발족시킴으로써, 본격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준비기로서 귀중한 핵 아닐 수 없었다 하겠습니다.

새해에 들어 본회는 우선 부설 농업기술연수원의 문을 열고 그동안 벌써 2기의 수료생을 배출하고 현재 제3기째 연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계획기간 동안에 1,038명을 연수할 것이며 계획기간이 지난 후에도 연중무휴로 운영하여 명실공이 선도농가(先導農家)의 역군을 양성하는 산실로서의 사명을 다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5만 독농가(篤農家)의 발굴에도 힘을 쓰는 한편 해외의 선진된 농업기술을 연수 도입하기 위하여 선발된 연수생들이 출발의 날을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농업기술회보(農業技術會報)』도 앞날 우리나라 유일의 농업전문지로서의 회우 여러분의 참다운 벗이 되도록, 앞으로는 발행기일을 엄수하며 내용면에서도 충실을 다하여 회우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토록 할 것입니다.

전국의 회우 여러분!

우리는 결코 낙심하지 말고 분연히 일어서서 이 한해가 농촌진흥에 결정적인 계기를 마련하는 해가 되도록 힘써 나아갑시다.『농업기술회보(農業技術會報)』 54호, 1968년 1월 1일〕

27) 「특별담화: 도약을 위한 발전적 계기 모색, 선도농가의 긍지로 전진하자」

전국의 회우 여러분! 이제 우리 농촌은 1년 중 가장 바쁜 일철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선도농가(先導農家)로서 전농민들의 앞장에 서서 애쓰시는 회우 여러분들의 노고에 경복하여 마지않는 바입니다.

지난해의 삼남지방의 한발의 상처를 그대로 두고 겨울 동안의 건조와 혹한에다 봄철의 계속되는 가뭄은 도시나 농촌을 가릴 것 없이 어려운 지경으로 몰아넣고 있습니까.

자연의 지배하에 놓여있는 전근대적인 우리나라의 농업은 자연을 정복하겠다는 농민들 스스로의 굳은 결의와 뭉친 힘을 바탕으로 해서 지하수의 개발, 농용수(農用水)의 확보와 같은 근본적인 문제들은 정부에서 좀 더 과감하고도 적극적으로 해결해주지 않으면 안 되겠습니다.

벌써부터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 금년도 하곡가격을 비롯하여 농지법(農地法) 및 농협법(農協法)의 개정 등, 농정(農政)의 중요한 일들이 지금 논의되고 있는 바 우리는 그 귀추에 비상한 관심과 주목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기에서 일일이 시시비비를 가릴 수는 없습니다만, 지적하고자 하는 바는 지금까지의 경험으로 비추어보아 농민 소외의 정책과 거듭된 시행착오에 희생된 것은 정책의 입안자나 담당자가 아니라 우리들 농민이었던 것입니다. 진정한 조국의 근대화는 고도의 복지문화국가 단계를 거쳐야만 이룩

된다는 것은 본인의 신념인 것이며, 농업발전을 선행조건으로 하는 산업국가 건설을 항상 주창하여 오고 있는 바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역사적으로 보아 가장 중요한 시점에 놓여 있습니다. 흔히들 치솟아 오르는 도시의 고층건물)과 물밀 듯 밀려오는 외국자본에 의해서 세워지고 있는 공장을 가리켜 근대화의 상징처럼 말합니다. 오늘날 농촌이 이처럼 정체되고 낙후성을 지양하지 못하고서는 저 고층건물과 공장들이 사상누각(砂上樓閣)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전국의 회우 여러분!

우리에게는 선도농가로서 나서서 농민의 정신혁명, 농업의 기술혁명, 농촌의 생활혁명이란 3대혁명을 스스로 완수하고 전체농민들을 이끌어야 할 역사적인 사명이 주어져 있습니다.

선도농가들의 집결체인 우리 협회의 할 일 또한 너무나 많고 벅찹니다. 지난해 10월 제1차 사업추진 3개년계획에 의거하여 우리 협회가 해야 할 일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일이 선도농가를 찾아내는 일과 연수하는 일이라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1월 3일부터 4월 4일까지 3개월 동안 30회에 쳐 1,200여 명을 대상으로 특별반 연수를 끝냈습니다. 열성적으로 참여하신 회우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립니다.

파일(派日) 연수생들도 지난 4월 10일 송석도(宋錫度) 부총재 인솔로 일본에 갔으며, 모두 건강하게 연수중이라는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 협회의 사업과 운동은 결코 관념적이거나 추상적이어서는 안 되며, 회원들에게 실리적인 면으로 집약이 되어가야 하겠습니다. 연수원의 운영면을 비롯하여 모든 사업이 재조정되고 새로운 계획들이 지금 세워지고 있으며 불원 발표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꾸준히 그리고 끈기 있게 긍지를 가지고 사명을 다합시다.『농업기술회보(農業技術會報)』 58호, 1968년 5월 1일〕

28) 「특별담화: 과감한 정책적 지원을, 전남의 한재(旱災)는 우리들 전체의 재난이며, 축산진흥은 농민들이 주체 돼야」

전국의 회우 여러분!

1년을 통해서 농업에 종사하는 우리들에게 가장 벅차고 힘겨운 계절입니다. 본인은 주소(晝宵)로 선도농가(先導農家)로서 농촌의 부흥 재건을 위해 분투하시는 회우 여러분들의 노고에 심심한 경의를 표하여 마지않는 바입니다.

작년 신문보도와 우리 지부, 지회의 보고를 접할 때 가슴이 타오르는 심정을 억누를 수가 없습니다. 어쩌면 하늘이 그토록 무심하며 가혹합니까? 양년에 걸쳐 재난을 당하는 전남의 우리 동포들의

고통을 어찌 상상하고 필설(筆舌)로 표현하겠습니까?

어려운 때일수록 지도자가 요청됩니다.

전남 회우여러분들은 용기를 잃지 마시고 훌륭한 지도력을 발휘하시어 재난을 타개 극복하시길 바랍니다. 정부에서도 적극적인 구호와 대책이 세워지고 있는 줄 압니다만, 이런 어려운 때일수록 협동과 단결이 요청됩니다.

전남의 재난이 결코 전남만의 재난이 아닌 것입니다. 다른 시 · 도의 우리 회우들도 어려운 중에 있는 전남의 회우들을 잠시도 잊지 마시고 진심에서 격려를 바랍니다.

정부에서는 근자에 와서 특히 축산 진흥에 힘을 기울이고 있으며, 새로운 정책들이 발표되고 있는 일은 반갑고 고무적인 사실입니다. 그러나 과거의 경험으로 비추어 보아 오히려 농민들에게 손해를 가져 와서는 물론 안되겠습니다. 균형 산업의 발전을 전(前)하여 농업 부문에 좀 더 과감한 투융자와 지원정책이 절실히 요청됩니다.

농민들 또한 협동 · 단결하여 농업생산에 있어서는 농민들이 주체가 되고 주인이 되도록 적극 참여하는 자세가 확립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기업농(企業農) 육성이란 미명 아래 대자본가들을 끌어들이고 그 결과 대다수 농민들이 희생의 제물이 되어서는 안되겠습니다.

이번 기술반(技術班) 연수회에 참가 신청이 밀려드는 것을 보고, 본인은 다시 한 번 평소의 신념을 굳게 다졌습니다. 금년 봄 특별반 연수인원이 1200명에 달하였으나, 이번 기술연수는 상당한 경영규모를 가진 전업농가(專業農家)로 참가 자격을 제한하고 내왕여비는 물론 숙식비 등 모든 비용을 자부담(自負擔)하는 그야말로 자립-자주적인 연수회에 전국적으로 5백 명을 훨씬 넘는 인원이 참가를 신청해온 사실은 바로 우리 농민들, 특히 선도농가들이 얼마나 생산에 대한 의욕이 왕성한가-를 실증하는 것입니다.

이번 기술반 연수가 유종의 미를 거두도록 회우 여러분의 성원을 바랍니다.〔『농업기술회보(農業技術會報)』 61호, 1968년 8월 1일〕

29) 「특별담화: 제9회 전국농업기술자대회에 즈음하여, 행동하는 농민의 역량을 과시, 대회운동의 새 전기를 이루자」

전국 회우 여러분! 자랑스럽고도 빛나는 전통을 지닌 연례행사인 1968년도 제9회 전국농업기술자대회가 오는 10월 11일과 12일 이틀 동안 서울에서 막을 올립니다.

순수한 민간운동으로서 전국의 뜻있는 선도농가(先導農家) 농업기술자(農業技術者) 독농가(篤農家) 농촌지도자들이 자발적인 의사에서 자주적으로 모여, 그해 그해의 농사를 결산하고 서로가 체험한 기술을 교류하는 연례행사를 열어 온지도 벌써 10년 세월을 헤아리게 되었습니다.

10년이 그리 오랜 세월은 아니로되 그동안 거센 역사의 수레바퀴는 그 어느 몇 세기에도 비할 수 없을 힘찬 전진을 하여 왔고 또 전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이 대회운동이 온갖 어려움을 무릅쓰고 꾸준히 성장하여 오늘에 이른 것은 오로지 농촌진흥을 염원하는 한결같은 선도적인 전위농민(前衛農民)들의 뜻이 뭉치고 쌓여서 이룩된 것입니다.

과연 조국의 모습은 달라져가고 있습니다. 후진국이란 굴레를 벗어나기 위해서 몸부림 치고 있습니다. 눈부신 경제성장에 이 세대에 태어난 보람을 느끼며 가슴은 희망에 부풀어 있습니다.

그러나 퇴폐적인 사회풍조와 악성적인 소비성향을 가지고 풍요한 사회로 설명될 수 있으며, 도시의 이상비대와 고층건물이 진정한 조국근대화의 상징이 될 수 있겠습니까?

전국의 회우 여러분!

우리 농촌은 10년간에 비해서 아니 50년 전에 비해서 무엇이 얼마만큼 달라졌습니까?

정부에서는 앞으로 4년 동안에 농어민 소득증대사업을 위해 331억 원이란 방대한 규모의 투융자계획을 수립 발표한 바 있고, 박 대통령은 신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에서 특히 농업의 급속한 발전과 농어민의 소득증대를 위해 중점적인 정책을 쓰게 될 것이라고 다짐한 바 있습니다. 만시지탄이 없지 않으나, 정부의 이와 같은 과감하고 의욕적인 정책 전환을 진심으로 환영하여 마지 않는 바입니다.

듣건대 제3차 5개년계획의 편성 작업에 착수한 경제기획원은 70년대 경제의 최대 장애요인으로 식량자급 부족과 농어민의 저소득 현상을 지목하고 그 타개책을 기본전략으로 잡고 있다고 합니다.

위에서 든 사실들은 곧 그동안의 고도성장 정책이 얼마나 공업화에 치중되어 왔으며, 이로 말미암아 낙후된 우리나라의 농업을 더욱더 침체상태로 몰아넣었던가를 잘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공업입국(工業立國)을 장기목표로 하면서 공업화를 위한 선도산업으로서 먼저 농업 발전에 총력을 집중하여야 된다는 것은 본인의 신념이며 항상 주장하여 오고 있는 바입니다.

농경지를 광대 정리하고 전천후화하며 종자개량이나 농업기술 개선도 농촌진흥에 있어 물론 중요한 시책이 되겠지만, 보다 더 중요한 것은 농민이 "조국근대화의 주인은 우리들이며, 우리들이 앞장서야한다"는 강렬한 의욕이 불타올라야 하는 것입니다.

최근의 조사결과를 보면 우리 농민들이 식량작물 생산에는 의욕을 잃고, 수지맞는 농사를 찾아 좌왕우왕하며 기회만 있으면 다른 산업으로 전환하려는 움직임은 놀라운 경향이 침체를 벗어나지 못하고 농민들의 의욕을 이처럼 잃어버린 원인은 거듭된 농정의 시행착오에도 있습니다만, 한마디로 표현하면 농산물의 가격정책에 있다고 지적(指摘)하지 않을 수 없으며, 소득없는 생산의욕이 어디서 우러나겠습니까?

우리 전국농업기술자대회 운동은 우리나라에서 농민들에 의한 자주적인 유일한 연례행사로 성장하여 오늘에 이른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선언문을 통하여 진로와 과업을 밝힌 바 있습니다만, 이제 이 행사는 단순한 연례행사로서 기술교류나 하고 체험발표나 하기 위하여 모였다 헤어지는 행사가

되어서는 안되겠습니다. 뚜렷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농민의 요구를 집약하여 정부에 반영하는 데도 커다란 의의가 있느니만치 주최자로서는 한층 더 중차대한 책임을 느끼는 바입니다.

농민들에 의한 자발적이고 자주적인 이런 운동이 건전하게 육성되는 일이 농촌진흥의 선결문제입니다. 정부 당국에서도 운동의 순수성과 전통으로 보아 이 행사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조용한 혁명의 선도자인 우리 전국의 회우들도 기운차게, 적극 행동하는 농민으로서의 역량을 과시하여 주기를 바랍니다.

대회장소가 허락하는 한 문호를 개방하였으며, 특히 우리 협회 부설 농업기술연수원 출신 회우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참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농업기술회보(農業技術會報)』 62호, 1968년 9월 1일〕

30) 「결혼(結魂)의 동지 연수원 출신 회우, 대회 통해 전진의 계기로 삼자」

연수원 출신 회우 동지 여러분! 하늘 드높고 오곡백과가 풍성하게 무르익어가는 이때, 우리 연수원출신 2천 회우 동지 여러분들의 건강하심과 가정이 화평하심을 축원합니다. 본인도 여러 회우동지들께서 항상 염려하여 주시는 덕택으로 별 탈 없이 지내고 있습니다.

땀 흘려 씨 뿌리고 가꾼 오곡이 들판에 황금 물결을 일으키는 가을이 우리 농사꾼들에게는 가장 흐뭇하고 즐거운 계절입니다만, 이 수확의 기쁨을 함께 나누지 못하는 전남 일대를 중심한 한해지구의 농민들에게 연민의 정을 금할 수 없습니다. 부디 용기를 잃지 마시고 분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협회의 부설기관으로 농업기술연수원을 세우고 특히 연수사업에 힘써 오고 있습니다만, 시설이 불비하고 부족한 점이 한 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러나 연수반에 6기, 특별반에 20기, 기술반에 7기 모두 33기에 걸쳐 3천명에 달하는 전국의 훌륭한 여러분들과 같은 선도농가들이 연수하셨기에 '선도농가의 도장'으로서 전통이 수립된 것은 자랑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난 특별반 연수 때는 엄동설한에도 구농구국(救農救國)의 일념으로 연수에 열중한 여러 회우동지들의 모습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 후에도 계속 뒷받침을 해드리지 못하고 일일이 편지조차 내지 못한 무성의를 스스로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연수원 출신 회우 동지 여러분! 여러분들이 연수 때 남기고 간 사인을 가끔 바라봅니다. 그때마다 얼마 남지 않은 내 여생을 이 나라 농촌의 부흥재건을 위해 바칠 결의를 다시 다짐합니다. 우리는 서로 결혼(結魂)한 사이가 아닙니까?

'새 역사 창조'란 말은 곧 복지농촌의 건설인 것입니다. 복지농촌은 누가 건설합니까? 아무도 건설해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역사의 주인공임을 자처하고 나서야 할 때가 왔습니다. 우후죽순(雨後竹筍)처럼 치솟고 있는 도회지의 고층건물을 바라보고 부러워하고만 있어서는 안되겠습니다.

우리가 내건 농산업의 3대혁명을 과감히 수행하여 나아갑시다.

이미 회보를 통해서 잘 알고 계실 줄 믿습니다만, 오는 10월 11일 12일 이틀 동안 제9회 전국농업기술자대회가 서울에서 열립니다. 이 전통 있는 유일한 우리들의 행사는 전에 없이 많은 회우들이 참가할 줄 믿습니다만 특히 이번 대회를 통하여 우리들의 자조 자립의 기상을 드높이는 데 커다란 의의가 있는 것입니다.

이번 대회에서 연수원 출신 회우동지 여러분들과 다시 만나기를 기약하면서 두서없이 회보의 지면을 통하여 연수원 출신 회우 동지 여러분들의 건승을 빌면서 붓을 멈춥니다.

1968년 9월 25일

유석창 올림

〔『농업기술회보(農業技術會報)』 63호, 1968년 10월 1일〕

31) 「제9회 대회 대회사」

1600만 농민의 참된 살 길은 선도농가(先導農家)로 앞장 선 농업혁명에 가장 바쁜 추수기에도 불구하고 제9회 전국농업기술자대회를 위하여 이처럼 전국 각 지방으로부터 열성적으로 참가하신 회우 동지 여러분을 대함에 깊은 감사를 느낍니다.

특히 오늘 공사로 다망하신데도 불구하고 농림부 김 차관께서 임석하시고 각계로부터 존경하는 선배 동지 여러분이 자리를 같이 하여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마음을 금치 못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는 지난날 이 나라의 농업발전에 기여한 혁혁한 공로로서 각종 포상을 받고, 농업인의 귀감이 될 자랑스런 동지들이 또한 자리를 같이 하여 이처럼 성대한 제9회 전국농업기술자대회를 개최하게 되었으니 우리 온 농민의 기쁨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이 대회를 통하여 회우동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방금 우리 모두가 제창한 '우리의 목표'에서 밝힌 바 '농업혁명(農業革命)'이라고 하는 이 문제에 대하여 다시 한 번 생각할 기회를 가졌으면 합니다.

나는 그동안 우리 1,600만 농민이 잘살 수 있는 길을 여러 면으로 연구해 보았습니다만, 연구하면 할수록 느껴지고 더욱 신념이 굳어지는 것은 우리나라의 농업이 지금과 같은 상태로서는 절대로 발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농업의 과감한 혁명 없이는 우리나라의 농업이 결코 올바른 발전을 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마음으로 느끼는 단순한 생각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농업현황과 현재의 농업구조가 명확히 증명해주는 사실입니다.

통계상으로 볼 때, 현재 우리나라의 전농가 호수의 불과 0.1% 정도가 전업 양축농가로 되어있습니다. 일본(日本)의 경우 이 비율은 21.8%로서 우리와는 비교도 안될 만큼 월등한 발전이라 하겠습

니다. 축산뿐이 아닙니다. 과수, 채소, 특용작물 등에 있어서도 일본에 비해 너무 뒤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영국과 비교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국토면적에 비한 전답의 이용도는 너무나 차이가 지고 있으며 그 위에 축산이나 경제작물, 특용작물 등 농민의 수입을 증대시키는 생산 활동은 너무나 미약한 실정입니다.

영국은 국토면적은 얼마 안 되는 작은 나라지만 전 국토의 18%가량이 곡류생산에 이용되고 있고 63.5% 이상이 축산 곧 목축업에 활용되고 있어, 전 국토의 80% 이상이 농민의 손에 의하여 가꾸어지고 있으니 놀라운 일이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는 겨우 22.9%가 농민의 손에 다루어지고 있고 나머지는 그대로 유휴상태에 있으니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볼 때 우리가 옛날 조상 때부터 내려오는 그러한 상태로는 절대로 우리의 소득을 증대할 수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간절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이 제9회 전국농업기술자대회를 기해서 다시 한 번 마음속에 강한 결심을 가져주기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 농민의 정신혁명으로 민주적 협동화를 이룩하고 농업은 기술혁명으로 과학화하고 전문화하여 생산성을 높여 보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활은 농촌의 생활혁명을 이룩하여 합리화하고 복지화하자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삼대혁명인 것으로 우리 모두가 다 같이 이룩하지 않으면 안 될 막중한 사명인 것입니다. 그런데 혁명의 의미는 무엇인가? 그것은 곧 비약과 창조를 말합니다.

그러나 혁명은 혁명이란 말을 단상에서 부르짖는다고 하여 곧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 모인 여러 동지와 농민들이 스스로 혁명가로서 선도농가로서 앞장서서 나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것이 첫째 요건입니다. 새 역사창조의 주인공이 없이는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둘째 요건으로는 혁명을 위한 조직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조직은 꼭 필요한 것입니다. 셋째는 혁명을 위한 실천요강입니다. 요강을 구체화해서 혁명의 조직을 통하여 밀고 나가면 일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삼위일체(三位一體)란 말을 많이 합니다만, 이는 우리 농민과 농민을 지도해 나갈 선도농가와 또 정부의 지원정책, 이 세 가지가 합하게 될 때 우리의 낙후된 농업을 개혁하고 앞날을 발전시킬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동지 여러분! 한 번 마음 속에 확고부동한 신념을 가지고 앞날 이 나라 농업의 새로운 전개를 이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만이 우리 1,600만 농민이 잘살 수 있는 길이요, 또 우리가 그 농민을 살찌게 하는 길입니다.

동지 여러분! 앞날의 건투와 건강과 아울러 우리 이 혁명을 일으켜 앞날 우리 농민이 잘사는 번영한 농촌을 만드는 농민이 되어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농업기술회보(農業技術會報)』 64호, 1968년 11월 1일〕

32) 「농민의 외교관으로 연수 분야에 충실」

언어와 풍습이 다른 이국(異國)에서 조국의 명예를 쌍견(雙肩)에 걸머지고 연수에 정진하고 있는 우리 연수생 제군들의 건투를 멀리서 축원합니다.

벌써 제군들을 떠나 보낸지도 8개월의 성상이 흘렀습니다. 정기적인 보고를 통해서 연수상황을 잘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의탁하고 있는 연수처(研修處)의 사장과 간부들의 서신을 통해서도 제군들이 열성적으로 연수를 받고 있다는 소식에 접할 때 흐뭇하고 기쁜 마음 감출 수 없습니다.

특히 우리 제9회 전국농업기술자대회에 제군들이 보내준 메시지는 대단히 감명 깊은 바 있었습니다. 본인은 그동안 개별적으로 일일이 격려의 서신을 내고 싶은 마음 간절하였으나, 이렇게 회보를 통해서 제군들을 대하게 됨을 유감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연수생 제군!

제군들은 벌써 8개월이란 시간을 통해서 가까우면서도 먼 일본이란 나라의 풍물을 어느 정도 보고 익히고 또 기술을 배웠으리라 짐작됩니다.

그 중에서도 나라 안에 있을 때에는 느끼지 못하던 부모형제들의 그리움과 조국애가 가슴 속에서 끓어오르는 정이 각별할 것입니다. 본인은 제군들이 기술을 배우는 일도 중요한 목적이겠으나, 새로운 차원에서 여러분들 가슴 속에 움트고 자라나는 조국애를 앞으로 북돋고 키워나가는 일이 무엇보다도 바람직한 일이 아닌가 합니다. 진정한 의미에서 내가 조국에 돌아가면 어떤 일)로 어떻게 하겠다는 각오와 결심이 확립된다면 제군들의 일생을 통해서 가장 보람있는 한해가 될 것으로 믿는 바입니다.

이제 이해도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한해를 보내는 감회가 제군들은 또 다른 바가 있을 것입니다. 마음을 가다듬고 지난 한해를 조용히 반성하여 주기 바랍니다.

연수생활을 통해서 개별적으로 불평도 있을 수 있고 불만도 많을 것으로 짐작이 갑니다. 그러나 그 불평과 불만스러움을 인내와 협동정신으로 이겨 나가는 그 자체가 바로 훌륭한 연수인 것입니다. 제군들이 떠날 때도 신신당부한 바 있거니와, 국제적인 친선이나 우호 증진은 외교관이 맡아서 하는 임무가 아닙니다. 제군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외교관이며 제군들의 일거수일투족에 한국농민들의 명예, 나아가서 국위가 걸려있음을 명심하여 주기 바랍니다. 우리 겨레는 개인 개인은 뛰어나지만 협동심과 단결력이 약하다는 단점을 흔히 들어온 일이 아닙니까?

우리 협회도 이제 조국근대화라는 역사적인 과업을 담당하고 있으며, 제군들의 귀국 후에 선도농가(先導農家)로서의 활약에 크게 기대를 거는 바입니다.

끝으로 제군들이 더욱 건강하여 얼마 남지 않은 연수를 영광스럽게 끝마치고 금의환향할 날을 기다리며 이만 붓을 멈춥니다.〔『농업기술회보(農業技術會報)』 65호, 1968년 12월 1일〕

33) 「1969년 신년사: 역사의 전진을 직시, 농산업 혁명을 이룩하자」

다사다난하였던 1968년을 보내고 희망에 벅찬 1969년 기유(己酉) 새해를 맞이합니다. 농촌진흥의 선도자로서 온갖 어려움을 무릅쓰고 분투하시는 전국의 회우 동지 여러분들의 건승하심과 아울러 가정에 행복이 함께하시길 축원합니다.

돌이켜 보건대 1 · 21사태 이후 끊임없는 공산침략의 위협에 대처하면서 한편으로 이룩한 눈부신 건설상은 우리 세대의 자랑스러운 한해를 기록하였습니다. 시원하게 트인 경인 · 경부고속도로와 다투어 치솟고 있는 서울의 고층건물이 조국근대화의 상징처럼 보이며, 수출 증대와 고도의 경제성장은 밝고 풍요한 내일을 향해 힘찬 전진을 하고 있는 듯합니다.

그리고 미국의 아폴로 8호 우주선은 인류역사상 처음으로 달을 왕복 비행한 사실도 1968년의 자랑스러운 일로 역사에 기록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농산업을 두고 볼 때 호남 및 남부지방의 한해(旱害) 등 너무나 엄청난 시련을 겪었고, 이로 말미암아 귀중한 외화가 식량 도입에 쓰이지 않으면 안 되며, 다른 산업분야와 경제 성장에 커다란 저해요인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서 쌀을 수입하던 이웃나라 일본은 식량을 자급자족하고도 남아서 우리가 오히려 꾸어 먹게 되었으니 부끄럽고 한심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정부에서는 농가소득 증대와 농업 증산 및 축산 진흥을 위해서 의욕적인 정책을 강구하고 있음은 다행한 일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우리 농민들의 침체된 의욕에 다시 생기를 불어넣고 우리 농민들에게 지워진 역사적인 과업을 올바로 인식시키는 농촌운동 내지는 농민운동을 일으켜야 하겠습니다.

우리 전국농업기술자협회는 선도농가(先導農家)들의 자주적인 집단으로서 부하된 임무가 실로 큰 것입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지난 1년 동안 연수사업에 역점을 두어 1월부터 4월까지 전국에 걸쳐 읍 · 면 대표급 회우를 대상으로 1,200명에게 특별반(特別班) 연수를 실시하였고, 여름에는 전업농가를 위한 기술반(技術班) 연수에 5백 명이 참가한 바 있었습니다. 그리고 10월에 제9회 전국대회를 성대히 치뤘고, 일본국에 2천여 명의 연수생을 파견하여 현재 열심히 연수중에 있습니다. 각급 회(會)에서도 눈부신 활약을 하였음은 자랑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전국의 회우 여러분!

우리는 다시 새해를 맞이함에 있어서 결코 역사의 전진 앞에 낙오자가 되어서는 안되겠습니다. 우리들의 주위와 현실을 직시하여 봅시다. 얼마나 엄청나고 커다란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가를 알아야 하겠습니다. 우리 농민들의 역사의 주인공된 자리를 아무에게도 양보할 수 없습니다. 우리 협회는 지난 대회를 계기로 사단법인(社團法人)으로서 새로운 출발을 한 바 있고, 이 운동을 영원히 뒷받침할 기금(基金)을 세우는 일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밝아오는 1969년은 우리들의 해로서 굳게 뭉쳐 우리가 내건 3대혁명을 완수하기 위해 힘차게 나아갑시다.〔『농업기술회보(農業技術會報)』 66호, 1969년 1월 1일〕

34) 「동계 연수에 부치는 담화: 동계 연수 목적은 불황 타개와 경영 합리화에, 역경 처해 있을수록 공동으로 해결책 찾아야」

전국의 회우 여러분!

우리는 다시 희망에 벅찬 새해를 맞이하였습니다. 연륜에 따라 맞는 새해이기는 합니다만, 1969년은 역사적으로 보아 여러 가지 면에서 획기적인 분수령이기도 한 중대한 해입니다.

60년대는 어둡고 괴롭고 쓰라린 역사를 박차고 조국근대화를 향한 힘찬 전진을 기록한 연대입니다.

서울에 다투어 치솟고 있는 고층건물, 우렁찬 건설의 망치소리, 시원히 뻗은 꿈의 길인 경인 · 경부고속도로와 놀라운 경제성장률은 북한괴뢰의 끊임없는 도발행위에도 철통같은 국민의 반공사상과 튼튼한 국방력을 유지하면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실은 세계에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일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와 반면에 균형된 산업발전과 조국근대화의 근간이 되어야 할 우리 농민은 과거와는 전혀 유형을 달리하는 어려움에 부닥치고 있습니다. 정부의 전에 없는 강력한 정책과 지원에도 불구하고 지금 전국 도처의 양계와 양돈업자들은 도산(倒産)의 아우성이며, 채소원예와 소위 환금작물(換金作物)로 불리는 농사까지 그 전망이 밝고 의욕을 불러일으킬 만한 것이 없다는 현실입니다.

식량만 해도 외국에 의존하는 양이 해마다 증가하여 경제성장의 커다란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놀라운 일은 우리 농민들이 농업생산에 대한 의욕을 잃고, 특히 고속도로 주변이나 중 · 소도시 근교의 지도적인 농민들은 땅값이 얼마나 더 오를 것인가—에만 관심이 쏠리고 있지, 농업경영을 통한 소득증대에 외면하고 있는 일입니다.

우리 전국농업기술자협회는 지금까지 연수사업에 역점을 두어 왔습니다. 연수사업 중에도 선도농가(先導農家)들에 대한 기술반(技術班) 연수에서 많은 성과를 올린 바 있었습니다. 이번 겨울철 농한기를 이용하여 연수회(研修會)를 갖기로 하였습니다.

이제 생산하는 기술이 문제가 아니라 유통과정과 판매 및 경영혁신이 앞서야 할 줄로 잘 압니다. 자기 자신에게 닥친 불황과 경영의 불합리를 혼자서 해결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역경에 처해 있을수록 우리는 서로 모여 공동의 광장에서 헤쳐 나갈 길을 찾는 데에 커다란 의의가 있는 것으로 믿습니다. 한숨과 좌절로 혼자서 방황하는 동안에 전진하는 역사는 무자비하게 지나쳐버리는 것입니다.

이번 우리 연수회의 취지를 살피어 많은 참가 있으시길 당부하는 바입니다.〔『농업기술회보(農業技術

會報)』 67호, 1969년 2월 1일〕

35) 「특별담화: 제10회 대회에 앞선 우리의 각오, 농민은 살아있는 민족의 양심, 한데 묶어 거대한 농촌의 잠재력을 활성화하자」

전국의 회우 동지 여러분!

여러분의 사랑과 노력의 결정인 전국농업기술자대회가 금년으로 그 10년을 맞이하게 됨은 우리 1600만 농민이 다함께 자랑으로 여길 일입니다.

오늘 본인은 잠시 금년도의 제10주년 대회를 어떻게 치뤄야 할 것인가를 생각함에 있어 먼저 그동안 우리 전국의 회우들이 참으로 많은 시간과 정력 그리고 엄청난 돈을 들여가면서 이 대회를 기르고 다듬어왔구나 하는 생각을 할 때 우리나라 농촌진흥을 위하여 여러분께 깊은 신뢰와 용기를 가집니다.

돌아보면 10년이 그리 오랜 세월은 아니로되 옛말에 있듯이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 하였거늘, 과연 조국의 오늘은 놀랄만큼 변모되었습니다. 바야흐로 우리의 신생명이 개척되어가는 심오하고 원대한 발전적 변화의 와중에 지금 우리는 서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면 우리의 사랑하는 농촌은 무관심과 완고성 그리고 정신적 공허와 물질적 빈곤으로 말미암아 간과할 수 없는 상대적인 쇠퇴상을 노정하고 있습니다.

근일 신문보도를 보아도 정부는 2차 5개년계획을 조기 달성함에 있어 농업부문의 저조를 솔직히 시인하고 앞으로는 그 시정을 중점적으로 추구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매년 또는 모임이 있을 때 마다 여러분과 함께 본인은 이러한 파행적 경제성장을 그대로 두고서는 전반적인 경제의 고도성장이 이룩될 수 없음을 지적해 온 바지만, 이번에 정부가 이러한 점을 솔직히 시인한 것은 비록 만시지탄은 있으나마 진심으로 환영할 일이라 하겠습니다.

회우 여러분!

그리고 오늘도 묵묵히 흙을 지키며 내일의 밝은 비전을 찾고 있는 농민 여러분!

때는 왔습니다. 우리의 오늘을 부강하게 그리고 내일의 농촌을 풍요하게 할 절호의 기회를 우리는 이 시점에서 맞이한 것입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루속히 우리의 산업대열을 정비하여 이러한 우호적 시대의 기운을 착오 없이 받아들이고 농촌사회가 가지고 있는 거대한 잠재력을 활성화하여야 되겠습니다. 따라서 금년도 제10회 농업기술자대회는 그 어느 때보다도 단순한 연례행사로서 기술교류나 초빙강사의 강의나 강연을 듣는 것같은 소극적인 자세에서 벗어나 뚜렷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우리의 입장과 처지를 분명히 밝힘과 아울러

확실한 근거위에 우리들의 요구를 집약하여 정부에 반영하는 한편 행동하는 농민으로서의 역량을 과시하는 대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세한 행사의 내용은 현재 사무국에서 성안 중에 있으므로 불원간 이사회를 거쳐 그 전모가 밝혀지겠습니다만, 금년이 10주년 대회라는 데에 주최자로서는 한층 더 중차대한 책임감을 느껴 10주년 대회답게 새로운 전기를 이룩하는데 성열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미 몇몇 회우께서 개별적으로 이번 대회에 특별한 관심이 있음을 피력해왔습니다만 우리 전국의 회원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같이 이번 대회의 성패와 나아가 내일의 진로를 가름하는 열쇠를 쥐고 있음을 깊이 통찰하시고 각별한 성원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이 대회에서 오직 우리 농민만이 가지고 있는 살아있는 민족의 양심을 조국에 고합시다.〔『농업기술회보(農業技術會報)』 74호, 1969년 9월 1일〕

36) 「특별담화: 제10회 대회는 70년대 웅비의 시발, 선도농가의 긍지로 이 광장에 나서자」

전국의 회우 동지 여러분!

금년 농사는 영호남의 일부 수해지구를 제외하고 전국적으로 일찍이 보기 드문 풍작이라는 기쁜 소식입니다. 지금 한창 추수일에 바쁘실 동지 여러분들의 노고에 머리 숙여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봄에 씨 뿌리고 여름에 땀 흘려 가꾸어 가을에 거둬들이는 지금이 우리 농민들로서는 가장 보람있고 즐거운 계절인 것입니다. 그러나 농자금(農資金)의 강제회수 소식을 비롯하여 결정 발표된 추곡(秋穀)의 정부 매상가격(買上價格)을 보도를 통해 들을 때 동지 여러분들의 우울한 심정을 헤아리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동지 여러분! 우리는 지금 60년대의 문턱에 서있습니다.

60년대는 인간이 두 번째로 신비의 베일에 쌓여있던 달에 발을 내디딤으로 해서 인류역사가 바야흐로 우주시대에 들어섰으며, 국내적으로는 60년대 초기에 두 차례에 걸친 혁명을 치루었으나, 이제 정치적인 혼란에서 의욕적인 정부의 경제개발계획으로 고도의 경제성장을 누려 멀지 않아 우리도 후진국이라는 부끄러운 굴레를 벗어던질 날이 눈앞에 다가온 듯합니다. 10년 동안의 서울의 변한 모습은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투어 치솟고 있는 고층건물, 거리를 메운 자동차의 홍수, 사치스런 소비성향 등 이러한 현상들이 진정한 조국근대화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이에 대비하여 우리 농촌의 현실은 어떠합니까.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달라진 것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식량의 자급도가 해마다 낮아져서 경제자립을 저해하고 있고, 부채가 누적되어가는 농가경

제는 상공업의 전진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정부의 농업정책이 두드러진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음은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도시나 농촌이 균형 있는 성장만이 진실한 조국근대화이며 공업입국(工業立國)을 장기목표로 하면서 공업화를 위한 선도산업으로서 먼저 농업개발에 총력을 집중하여야 된다는 것은 본인의 신념으로서 항상 주장하여 온 일입니다. 농업 개발은 정부의 지원과 투자, 농민과 선도농가가 삼위일체가 되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먼저 선도농가(先導農家)가 자아혁명(自我革命)을 완수하고 앞장서 농민에 대서는 정신혁명, 농업에 대해서는 기술혁명, 농촌에 대해서는 생활혁명–이 이른바 우리가 내 건 조용한 혁명이며 자주적으로 완수해야 할 과업인 것입니다. 지금 농업생산의 저하나 농가경제의 적자보다 더욱 우려되는 바 농민들의 의욕이 없고 사기를 잃어버린 사실입니다.

전의(戰意)와 사기(士氣)가 없는 군대는 승리하지 못합니다. 70년대를 향한 이 시점에서 우리는 다시 한 번 역사적인 사명을 재인식하여야겠습니다. 70년대는 정부에서도 제3,4차 경제개발계획을 통해서 농경지의 정리와 전천후화(全天候化), 농업의 기계화, 축산 진흥 농가소득 증대사업 등 과감하고 의욕적인 농업정책을 수립 중이라 하거니와, 먼저 우리들은 자발적인 참여로 70년대는 우리들의 연대(連帶)로서 농촌진흥과 농업근대화의 연대로서 맞이할 것을 동지 여러분에게 호소하는 바입니다.

오는 12월 20일 제10회 전국농업기술자대회가 시민회관에서 열립니다. 10년의 연륜을 쌓았다는 것이 자랑스러울 것은 없습니다. 전위농민(前衛農民)들에 의한 자발적이며 자주적인 농업계 유일의 연례행사로 성장하여 온 사실이 자랑스러운 것입니다.

흔히 있는 연례행사로 기술교류나 하고 체험 발표나 하기 위해서 모였다 헤어지는 행사가 되어서는 안되겠습니다. 농민들의 사기를 되찾고 농민들의 여망으로 집약하여 이를 정부에 반영하는 농민들의 광장으로서의 목적과 의의가 크다고 자부하는 바입니다.

이번 대회는 국민투표와 농번기 장소 교섭 때문에 추운 겨울이 되어 걱정스러운 바 없지 않으나, 행사내용을 종전과는 달리 알차고 힘찬 것으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전국의 회우 동지 여러분! 선도농민(先導農民)으로서의 자부와 긍지로 이 광장에 모두 나서주기를 바라는 바입니다.〔『농업기술회보(農業技術會報)』 75호, 1969년 10월 1일〕

37) 「농민과 신의(信義)의 결정(結晶), 땀의 진실 심으면 복지의 열매 맺으리」

우리는 지금 조상의 유산인 빈곤을 퇴치하여 번영된 조국을 그대로 자손만대에 물려줄 것이냐, 못할 것이냐– 하는 분수령에 서있습니다. 이 역사적인 명제 앞에는 너와 내가 있을 수 없고, 상과 하

가 있을 수 없습니다.

한 집안을 두고 볼 때에도 성실과 근면이 없이 남의 부채와 의타심만으로 성가한 일을 보지 못함과 같이 한 나라도 땀을 흘리지 않고 외채만으로 경제자립을 이룩한 국가를 동서고금을 두고 찾아볼 수 없습니다.

우리 눈앞에 조국근대화의 모습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고속도로! 곧고 바르고 넓고 평탄한 길. 문자 그대로 국토의 대동맥인 것입니다. 너와 나, 우리들 마음속에도 고속도로를 닦아야 하겠습니다. 우리들 가슴속에는 불도저가 들어갈 수 없습니다. 마음의 고속도로는 오로지 정신혁명만으로 닦을 수 있고 외국의 차관 없이 닦을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농공병진(農工竝進)에 앞서 물질적인 근대화와 정신적인 근대화가 병진 균형을 이룩하여야겠습니다. 정신혁명의 바탕 위에 기술혁명을 성취하고 그리고 생활혁명까지 완수함으로서 비로소 복지농촌을 건설할 수 있는 것입니다. 농민 · 농업 · 농촌의 근대화 없는 조국근대화란 존재하지 않으며, 농산업의 회원, 선도농가의 역사적인 사명인 것입니다. 농산업의 혁명은 엘리트인 선도농가의 힘으로 추진되고 쟁취되어야 하겠습니다.

해방 이후 여러 가지 형태와 여러 갈래의 운동이 일어나고 시도되었으나 좌절되는 비운을 너무나 흔히 보아왔습니다. 그 원인은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나의 우리들의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농민들의 힘을 뭉친다면 안 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뭉쳐지지 않는 것은 불신(不信)–서로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상허농촌복지재단은 뒤늦게 전국적으로 동지들 삼백수십 이 발기인으로 서명을 마친 뒤에 알았습니다. 모인 기금액수나 이 일 자체, 재단을 발기한 사실이 놀라운 것이 아니라 동지 여러분들의 뜨거운 열의와 정성스러움에 놀랐습니다. 부끄럽게도 졸호(拙號)를 재단 명칭에 붙인 일은 여러 동지들의 뜻에 흠이 된다고 생각하여 즉시 이를 거절하였으나, 우리 운동을 이끌어 준 자에 대한 농민들의 의리요, 선물이며 명칭이야 뭐라고 하든 참 뜻에 변함이 없다고 우기며, 이제 전국의 회우 동지들에게도 알려진 바 되었습니다.

인생 일대는 길고도 짧은 것, 마을은 아직 청춘이지만, 나이 칠십을 헤아리게 되었습니다. 칠십 평생을 이렇다 할 이루어 놓은 일 없이 석양귀객(夕陽歸客)이 보보망망(步步忙忙)이란 말과 같이 공연히 바쁘기만 합니다. 한 가지 소망이 있다면 죽기 전에 우리 농촌이 복지화되는 것을 보고 싶은 일이요, 또 전국의 회우 동지들과 마음과 뜻을 합하여 벌려놓은 이 운동을 반석 위에 올려놓아야겠다는 일념 뿐입니다. 서산(西山)에 기우는 해가 마지막 광열(光熱)을 토하는 거와 같이 얼마 남지 않은 내 여생을 있는 힘 다 기울여 여러 동지들의 뜻에 보답하고자 새로운 용기와 결의를 밝히는 바입니다.

아마도 농촌복지운동을 위해 농민들이 발기하여 만드는 재단은 처음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엄청난 일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는 힘은 하루 이틀에 생긴 것이 아니며 십년 동안 우리들이 걸어온 길이 한결같고 또한 나갈 길이 분명한 데에 쏟은 순수한 농심과 신의의 결정으로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발기인 동지들이 남기신 서명을 볼 때 피가 끓어올랐습니다. 그렇습니다. 초지일관이며 지성감천이며, 합심단결의 말씀들, 인중승천(人衆勝天)이라– 사람이 무리를 이루면 하나님의 뜻도 돌이킬 수 있을 것입니다.

서명하신 동지들이 뭉친다면 우리들의 과업인 조용한 혁명은 멀지 않아 완수될 것이며, 전국의 뜻있는 동지들이 더욱 많이 이 일에 참여한다면 시한이 좁혀질 것으로 확신합니다. 우리들의 이 순결한 운동에 온 국민들이 눈길을 돌리고 박수와 성원을 아끼지 않으리라 믿습니다.

콩을 심으면 콩 나고 팥을 심으면 팥 난다는 진리는 우주시대에 가서도 변할 리 없습니다. 땀의 진실을 심으면 복지의 열매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우리 전국의 동지들은 한마음 한뜻으로 조용한 혁명 대열에 참여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농업기술회보(農業技術會報)』 76호, 1969년 11월 1일)

38) 「특별담화: 조국근대화 대열의 낙오자 되지 말자, 푸른 깃발 아래 대오를 정비, 질서 정연한 알찬 행사 되길」

전국의 회우 동지 여러분! 우리들 모두가 손꼽아 기다리는 제10회 전국농업기술자대회는 이제 눈앞에 박두하였습니다.

사무국의 전직원은 밤을 새워 행사 준비에 만전을 다하고 있으며, 전국 각지에서 참가를 희망하는 회우들의 서신이 매일같이 쏟아져 들어오는 것을 볼 때 흐뭇한 마음 참을 수 없으며, 알차고 빛나는 행사가 이루어 질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는 바입니다.

이번 대회에 즈음해서 회우 동지들과 함께 우리가 서있는 이 시점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역사적인 의미를 되새겨 보고자 합니다.

60년대! 10년이란 한 토막의 세월이 오랜 역사에 비교하여 보면 실로 짧은 시간이라 하겠으나, 우리 인류사는 우주시대의 장막을 헤쳤고 국내적으로도 조국근대화와 민족중흥이란 꿈을 향해 날개를 펴고 웅비의 발판을 만든 획기적인 년대였던 것입니다.

우연의 일치라기에는 너무도 우연하게 우리 운동을 벌인 것이 1960년이었고, 온갖 어려움과 가시밭길을 달려오는 70년대의 문턱에 와 있습니다.

우리가 흘린 땀이 귀하고 자랑스러움은 자조 자립하려는 목적이 뚜렷하였기 때문입니다. 흔히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우리 대회가 허장성세로 무리를 이루어 사회질서를 문란케 하는 시위도 아니며, 목전의 값싼 실리를 추구하기 위해서 모이는 형식적인 연례행사도 아닙니다.

우리는 이번 대회 행사를 통해서 지나온 길을 돌이켜 보아 조용히 반성하고 앞으로 나아갈 진로를

정립하는 데 커다란 의의가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책임과 의무를 잊어버리고 모든 잘못을 남에게 돌려 분수없이 날 뛰는 곳에는 무서운 함정이 있고 패배의 구렁텅이로 빠지게 마련인 것입니다.

고도의 경제성장과 발전 앞에 우리는 엄숙히 대처하지 않으면 우리는 새로운 바보와 낙오자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어찌하여 우리만이 조국근대화의 대열에서 뒤쳐져야 하겠습니까.

우리 전국농업기술자대회의 주인은 바로 회우 동지 여러분들이며 내가 주인이라는 인식아래 이해와 협조가 이루어지고 질서가 지켜져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뜻과 마음은 하나입니다. 스스로 자중하고 질서정연한 행사를 치루어 나갈 때, 온 국민이 우리들에게 관심을 쏟고 기대를 걸게 될 것입니다. 우리들 뒤에는 수많은 농민들의 지켜보고 따라오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이 실천하여 많은 성과를 올리지 않으면 다른 농민들은 아무도 따라오지 않습니다.

잘사는 마을 어떤 특수한 농작물로 소득을 올리고 있는 지역을 깊이 살펴보면 거기에는 반드시 지도자가 숨어 있습니다.

이러한 지도자들이 우리가 말하는 선도농가(先導農家)인 것입니다. 선도농가들이 자아혁명(自我革命)을 완수하려면 농민들이 조용히 뒤따를 것입니다.

기회 있을 때마다 주장하여 온 바와 같이, 우리 농촌이 우리가 내어 건 3대혁명– 이른바 조용한 혁명을 성취하지 않는 곳에는 정부의 계획이 아무리 훌륭하고 투자와 지원정책이 쏟아져도 마치 밑빠진 독에 물을 들어 쏟는 것과 같은 것이며, 반면 바람직한 지도자가 나서 자조 자립하려고 노력을 하여도 정부의 시책이나 지원이 뒷받침되지 않고서는 땀 흘린 보람이 익어 복지의 열매가 될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내어 건 삼위일체적 발전 5단계론의 출발인 것입니다.

날로 발전되어 가는 군 · 시와 상대적으로 낙후된 농촌의 지역적인 격차, 농업과 상공업간의 산업면에서의 격차가 더욱 심화되어 가는 현실 앞에 실의와 좌절이 문제해결의 열쇠는 아닌 것입니다. 그 열쇠는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며 우리들 스스로가 찾아서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는 문을 열고 나아가야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운동은 이념을 정립하는 데 힘써 농민에 대해서는 정신혁명! 농업에 대해서는 기술혁명! 농촌에 대해서는 생활혁명이란 이른바 조용한 혁명이란 기치를 내걸고, 삼위일체적 개발을 주창하여 왔습니다. 이제 우리들의 푸른 깃발아래 모인 선도적인 농민들이 대오를 정비하여 운동이 구호로 그치는 운동이 아니라 구체적인 실천으로 옮겨가려는 새 출발이 곧 이번 대회의 의의가 있는만큼 새로운 각오와 결의로 광장에 모두 나서주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뒤진 농민들의 손을 이끌고 초가지붕 아래서 한숨과 시름에 잠겨있는 농민들을 일깨워 농촌진흥의 대행진에 참여하여 주저함이 없기를 부탁드립니다.

거듭 당부하거니와 우리는 스스로 조국근대화의 역사적 과업에 우리의 사명이 무엇이며, 우리가 가져야할 짐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 번 깨달아서 질서정연하고 알찬 행사로 수도 서울에 농심(農心)을 심도록 합시다.

도시가 꽃이라면 농촌이 뿌리라는 말과 같이, 싱싱하고 깊이깊이 뻗어가고 살아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계기로 맞이합시다.

12월 20일, 우리들의 날 역사에 기록할 날로써 쌍수를 들어 전국의 회우 동지들이 달려오시길 기다립니다.(『농업기술회보(農業技術會報)』 77호, 1969년 12월 1일)

39) 「1970년 신년사: 도약의 발판 위에 웅비의 날개 펼 70년대, 도시와 농촌의 균형된 발전을 성취하자」

희망에 넘치는 새해를 또다시 맞이하였습니다. 묵은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함은 흐르는 세월의 되풀이라고 하겠으나 1970년을 맞이함에 있어 더욱 감회가 깊은 것입니다.

60년대를 두고 흔히들 조국근대화 과업에 있어 도약의 발판을 구축하였다고 합니다. 사실 인류역사를 두고 보거나 국내의 정세로 보거나 60년대는 그 어느 흘러간 역사의 토막에 견주어 보아도 엄청난 한 단원을 이루었으며, 70년대의 첫해를 맞아 더욱 희망에 벅찬 까닭도 여기에 있습니다.

날로 급변해가는 국제정세에 대응하면서 안으로 이미 이루어놓은 발판을 굳게 딛고서 웅비의 날개를 펼 것이냐– 그렇지 못할 것이냐– 의 판가름이 날 것이며 이 세대에 태어난 우리들 모두가 정신을 다시 한 번 가다듬지 않으면 안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들 어깨에 지워진 준엄한 역사적인 책임을 다시 한 번 절감하는 바입니다. 온 겨레가 한결같이 염원하고 있는 바는 조국의 통일인 것입니다. 70년대에는 기필코 공산북한괴뢰집단을 멸살하여 자유대한의 품에 안고서 통일 성업을 완수하여야겠습니다.

해가 바뀔 때마다 우리 농민들, 농업, 농촌이 보다 더한 발전을 바라왔습니다. 확실히 과거에 비해서 조금은 발전하였습니다. 그러나 도시의 발전과 비교하거나 다른 산업의 발전에 비겨볼 때 그 격차가 더욱 더 벌어지고 있는 사실에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식량의 자급자족은 경제자립의 기초가 되며, 공업입국을 목표로 하더라도 먼저 농업이 선도산업으로 발전하여야 된다고 기회 있을 때 마다 주장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요즈음의 신문지상을 통해서 보고 듣는 바는 우리 농민들로 하여금 희망을 안겨주고 의욕을 북돋아주는 것만은 아닙니다. 우리가 의식적으로 정부의 시비만을 탓하자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 농민들이 스스로 의욕을 가지고 일어설 수 있는 과감한 농업정책이 세워져야 하겠습니다.

지난 12월 20일과 21일 이틀 동안 서울시민회관과 건국대학교 낙원동 교사에서 제10회 전국농업기술자대회의 행사를 가졌습니다. 대회 이래 10년 동안 참가자들이 가장 많은 3,000명을 넘었습니다. 열성적으로 이 대회에 스스로의 힘으로 모였다는 사실 그 자체는 바로 우리 농민들도 큰 힘이 내재한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일이며, 내일의 복지농촌을 스스로의 힘으로 완수할 수 있다는 좋은 본보기이기도 하였습니다.

우리 전국농업기술자협회는 이번 제10회 대회를 치르고 사업체제를 재정비하여 70년대의 힘찬 대행진을 전국의 회우동지 여러분에게 약속드리는 바입니다.

먼저 새해에는 시 · 군 지회를 비롯한 도지부의 총회와 아울러 회원 정비와 회세 확충을 기할 것입니다. 그리고 본회 부설 농업기술연수원을 통한 연수사업에 더욱 힘쓸 작정입니다. 지금까지의 경험을 토대로 하여 회원들에게 실리를 줄 수 있고 활용할 수 있는 기술연수에 중점을 두게 될 것입니다.

우리 협회가 경제사업을 하는 것이 본연의 목적은 아니라 우수한 농업자재를 고르고 찾아내어 널리 알려 실용토록 하는 일은 무엇보다 중요한 사업이라고 하겠습니다. 능력이 미치는 데 까지 지금 추진 중에 있는 사업을 점진적으로 확대시켜서 회우들의 경제적인 실리를 도모할 것입니다.

농민들에 의한 농업기술의 개발과 창출 보급에 여러 가지 애로가 있으나 이미 주목할 만한 몇 가지를 분석 검토 중에 있으며, 회원들로 하여금 널리 보급할 준비를 서둘고 있습니다.

회보를 통한 홍보활동의 강화, 지방의 각급 회를 통한 연수사업 그밖에 새로운 기획이 진행 중인 우리들 사업의 성패는 오로지 전국 회우 동지들의 참여 의욕 여하에 달려있는 만큼 밝아오는 새해에는 새로운 각오와 결의로서 삼(三)대혁명의 푸른 깃발 앞세우고 나아가는 대행진에 참여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새해에는 우리 회우 동지들의 가정에 행복이 깃들기를 빕니다.(『농업기술회보(農業技術會報)』 78호, 1970년 1월 1일)

40) 「특별담화: 대오를 정비하여 전진, 새 결의와 각오로 회원 정비에 협조하길」

전국의 회우 동지 여러분!

벌써 5월! 신록이 발랄한 대지를 물들이고 있는 희망찬 계절입니다. 봄농사 일이 하루하루 바빠지는 이 때 더욱 근심스러운 일은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한 심한 가뭄입니다. 가뭄과 싸우면서 땀 흘리는 회우 동지 여러분들의 노고에 머리 숙여 경의를 표하여 마지않는 바입니다.

본인은 지난 3월 24일로 고희의 나이를 헤아리게 되었습니다.

이날은 조용히 보내면서 여생을 어떻게 하면 좀 더 적극적이고 활기 있는 농촌운동을 벌일 수 있을까– 하는 전략을 구상하려고 혼자 생각한 바 있으나 주위에서 분에 넘치는 잔치를 베풀어주셨고, 더구나 우리 전국농업기술자협회 임원들과 재단 발기인들이 귀한 기념품을 안겨주신 일을 오늘 이 기회에 전회우 동지들 앞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여러분과 더불어 여생을 이 나라 농

촌부흥운동에 바칠 결의를 새로이 하는 바입니다.

지금 역사의 수레바퀴는 국제적으로나 국내적으로나 너무나 거세게 굴러가고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는 얼마나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격동기요, 전환의 시점에 서 있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주위를 둘러싸고 일어나는 사태에 적응하고 대처하는 새로운 차원에서의 농촌운동을 전개시켜 나가야 하겠습니다.

전에 볼 수 없었던 정부의 의욕적인 농업개발 계획과 강력한 행정력이 일방적으로 밀어 닥치고 있습니다.

이를 받아들이고 이를 소화하여 농촌복지의 꽃을 피우게 하자면 자주적이고 자조 자립의 힘이 버금하게 우리 농촌 내부에서 용솟음쳐 나와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농촌운동은 농민들의 힘에 의해서 농촌에 뿌리박아 굳세게 자리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농촌운동을 바로하자고 몸부림치는 이유는 농민 · 농업 · 농촌만 잘되자는 욕심에서가 아닙니다.

하나의 예로, 농민의 정신혁명으로 민주적 협동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우리나라 전체의 민주주의가 바로 설 바탕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공장이 많이 서고 치달리는 공업화에 농업이 뒤쳐진다면 우리나라 전체 경제의 균형이 무너질 것이며 도시와 농촌의 지역적인, 문화적인, 사회적인 격차가 차츰 더 벌어진다면 조국근대화의 참모습을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 전국농업기술자협회는 10년이란 전통이 소중하기는 하되 자랑될 것은 없습니다. 새 차원에서 농촌운동을 벌려 나아가기 위해서 먼저 대오(隊伍)를 정비하여야겠습니다. 대오 정비가 바로 지금 진행 중인 회원 재정비 작업입니다.

전국의 회우 동지여러분!

용기를 잃지 마시고 10년 세월을 두고 이 운동에 참여해 오신 큰 뜻을 되살려 새 결의와 각오로 대오 정비에 나서주길 바랍니다.

여러 회우들 주위에 묻혀있는 훌륭한 선도농가를 많이 발굴하여 손에 손을 마주잡고 우리 운동의 푸른 깃발 아래 참여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며칠 후 제4차 일본국 파견 농업기술연수생 일동 25명이 장도에 오르게 됩니다. 이미 연수를 마치고 와서 선도농가로서 크게 활약하는 회우들은 우리 협회의 자랑스러운 일입니다.

대한민국의 농민을 대표하여 낯선 타국에 큰 사명을 지고 1년 동안의 연수를 위해 떠나는 이들 회우들의 온갖 힘을 당부하거니와, 이들의 장도에 전국의 회우들도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해외파견 연수사업은 연수 자체에만 그치지 않고, 당사국과 경제협력면에서 새로운 방향이 모색되고 있음을 이 기회에 밝혀둡니다.

전국의 회우 동지 여러분의 건투를 빌며 회원 정비작업에 적극 호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농업기술회보(農業技術會報)』 81호, 1970년 4월 1일〕

41)「격려사: 이국땅이라 어려움 많겠지만 사명 완수하여 금의환향 하길」

오늘 본인은 제4차 해외파견 농업기술 연수단 결단식에 즈음하여 먼저 여러분의 오랜 인내와 사무국의 끈질긴 노력의 보람으로 드디어 목적지인 일본으로 떠나게 되었음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사실 본인은 요사이 건강이 좋지 않아 여러분이 떠나는 것을 못보고 입원하려고 했으나, 그렇게 한다면 여러분이 얼마나 섭섭하게 생각할까 해서 내가 3일 동안에 죽지는 않을 것으로 알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연수단원 여러분! 그리고 회우 여러분! 우리 협회 운동이 전개된 지 10년 세월! 그간에는 어려운 고비도 적지아니 넘었습니다만 여러분의 그 뜨거운 열의와 뜻으로 뭉쳐졌기에 벌써 해외파견 연수도 네 차례 째가 되었습니다.

이미 해외에서 연수생활을 끝내고 온 여러분의 선배 연수생들은 선진국에서 익혀온 농업기술을 최대한으로 활용하여 각자 지역사회에서 눈부신 활약을 하고 있다는 보고를 들을 때 이 사업의 의의와 성과를 스스로 자랑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선서를 한 연수단 여러분은 여러분 개인이나 가정뿐만 아니라 적어도 이 나라 전체 농민을 대표한 민간사절로서의 중차대한 사명을 지고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이미 이러한 무거운 책임감을 감당할 수 있다고 인정된 엘리트들이기에 떠나보내는 본인의 마음도 한결 가볍습니다만 낯설은 이국땅에서의 생활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믿어 다소 걱정이 앞서기도 합니다.

우선 무서운 언어의 장벽을 무너뜨려야 하고 풍속이 다르고 생활관습이 다른 그 나라 사람들과의 보이지 않는 마찰이라도 있게 되면, 두 나라 사이의 우호에도 그만큼 금이 가게 되는 것입니다.

기우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부디 여러분은 우리 협회나 전체 농민이 여러분에게 거는 기대에 어긋남이 없이 많은 기술을 배우고 익혀 훌륭한 농업 기술자가 되어 건강한 모습으로 금의환향해서 선도농가로서 앞장서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바랍니다. 다시 한 번 여러분의 장도를 축하합니다.〔『농업기술회보(農業技術會報)』 82호, 1970년 5월 1일 2면 1단〕

42)「특별담화: 회세 확장에 총력을 경주, 이 줄기찬 농민대열에 적극 참여하길」

친애하는 전국의 회우 동지 여러분!

희망과 꿈에 부푼 70년대의 첫해도 벌써 상반기를 보냈습니다. 모내기, 보리타작, 여름채소 가꾸기 등 연중 가장 바쁜 일철을 맞아 더욱 건강하시고 가정이 두루 평안하시길 축원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제 우리는 우리가 완수해야할 3대혁명의 과업도 새로운 시대에 적응할 수 있

는 방향으로 운동을 전개해나가야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대전제 아래서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지금 모색되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하나의 현실은 우리 농민과 농촌과 농업에 대하여 밀려드는 무서운 밀물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점입니다.

우리 전국농업기술자협회는 대회운동을 비롯해서 금년으로만 10년이 됩니다. 10년 동안 뜻을 함께하여 이 운동에 참여하여 오신 전국의 회우동지가 만여 명을 헤아렸습니다. 부설 농업기술연수원을 거쳐 나간 회우만 해도 2천 수백 명이나 됩니다. 그동안 이 무형의 자본을 활용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역사적인 사명을 다해보려고 노력하여 왔습니다.

지금 진행 중에 있는 회원 정리와 조직 정비는 우리협회 운동 이래 가장 크고 근본 된 사업입니다. 회원 정비와 조직 정비의 일을 완수하지 않고서는 어떤 사업도 제대로 펴나갈 수가 없습니다. 오는 7월 17일에 사단법인으로 재발족한 이후 다섯 번째의 이사회를 갖습니다. 이번 이사회에서 금년도 상반기 사업을 결산하고 하반기 사업과 추가 갱정예산안을 다루고자 합니다. 금년도 하반기의 모든 힘은 회원 정리와 조직 정비에 기울이려고 합니다.

전국의 회우 동지 여러분!

이번 회원정리와 회세 재정비에 적극 참여하여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열성적인 우리 회우들의 요청으로 여름연수회를 다시 엽니다. 사무국 실무자들의 풍부한 경험과 그동안의 잘못을 가려내어 시정하고 짧은 시일이지만 자비를 가지고 열리는 연수회에 참가한 충분한 보람을 안겨드리고 실속있는 연수회가 되도록 준비 중에 있습니다.

연수회는 연수 그 자체에도 의의가 큰 것이지만 이 기회에 각 지방에서 모인 동업인이요, 동지들을 서로 만나 교류하는 데에 더욱 큰 얻음이 있을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그동안 활동이 마비되었던 시 · 도 지부에도 7월부터 사무장을 두어 회우동지들의 심부름을 맡도록 하였습니다. 각 시 · 도별로 회우들도 협력하여 훌륭한 사무장을 선정하도록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파일(派日) 연수의 성과나 인원에 있어서 단연 우리 협회가 월등한 성과를 올리고 있습니다. 일본에 가서 연수를 마치고 돌아와서 내 고장의 일군으로 활약한 유능한 인재를 많이 인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의 과업을 완수하여 농촌근대화를 이룩하느냐하는 문제는 우리 농민들 스스로의 의욕과 행동이 농민 자신의 운동으로서 전진하느냐 않느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우리 회우 동지들의 건투를 빕니다.〔『농업기술회보(農業技術會報)』 84호, 1970년 7월 1일〕

43) 「특별담화: 사명감 충일한 힘의 총화로, 자기개발과 농산업혁명의 계기를 이룩하자」

가을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가뭄이 있었고, 장마가 있었고, 병마가 창궐하였고 급기야는 태풍까지 휘몰아간 아픈 상처가 있었기에 어느 때 보다도 이 계절의 의미를 실감하셔, 끝내 이 모든 재앙을 극복한 회우동지 여러분들의 그 강인한 의지와 불굴의 노력에 응분의 보람이 결실되길 기원합니다.

제 11회 전국농업기술자대회가 열릴 시기가 되었습니다.

회원 정리와 회세 정비 강화란 새로운 대오 편성, 우리운동 10년의 자연스러운 결실인 유지재단 설립을 위한 창립 준비작업, 그리고 회원 실리의 극대화란 모토아래 진행되고 있는 경제사업의 조심스러운 모색 등이 모든 사업을 이제 차근차근히 매듭지어 오는 대회를 통해 그 만족할 집적을 구현해야겠습니다. 이는 곧 이번 제11회 전국대회가 10년의 전통 위에 다듬어질 튼튼한 기반 조성과 새로운 운동방향의 설정이란 중차대한 의의를 가짐을 단적으로 말해주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한편 우리운동을 둘러싼 외부사정은 어떠합니까?

지금 우리 국가와 사회는 심오하고 원대한 발전적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60년대에 비롯되었던 우리 운동의 10년을 지난 오늘날에 있어 농민 · 농업 · 농촌의 내부는 물론 외곽의 급격한 변동은 실로 격세의 감이 드는 것입니다.

참으로 자칫 방향조차 예기키 어려운 이러한 변화에 대처하기 위하여 농촌사회의 미래에 대한 뚜렷한 비전의 설정과 이를 향한 부단한 개혁의 노력이 요청되는 시기라 하겠습니다.

바로 이러한 일을 주도하기 위한 농민, 농업, 농촌을 포괄하는 운동으로서 전국대회가 이 중대한 시점에서 그 제11회 대회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금년도 대회는 다른 어느 때보다도 그 규모나 행사 내용에 철저를 기하여 소기의 성과를 달성해야 할 신성한 의무감을 느낍니다.

돌아보면 작년 제10회 대회 때 시민회관을 입추의 여지없이 메운 뜨거운 감동이 아직도 생생합니다만, 그러는 가운데 실의와 실망은 없었던가를 자책하고 반성해 봅니다. 물론 다소 그런 감이 없었던 것은 아니겠으나 금년도 대회는 기필코 대회사상 가장 만족할 만한 행사가 되도록 만전을 다할 계획입니다.

먼저 지금까지 대회의 주요행사를 내용 면에서 더욱 보강함은 물론, 70년대 한국농업이 당면한 시대적인 요청에 부응하여 농업기계 연시(演試) 및 농업기술 기능경기와 모의국회 행사를 새로이 추가하였습니다. 이들 새로운 행사가 비록 많은 난제를 내포하고 있어 과연 원만히 진행될까 우려되는 바가 없지도 않으나, 전국 선도농가의 시대적 방향감각이요, 우리 농업계 당면 방향의 제시라는 막중한 의의를 살려 이 행사를 강력 추진할 것입니다.

그러나 참으로 만족스런 대회는 이러한 행사의 내용이나 준비의 만전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목적의식을 뚜렷이 가진 참가자, 그리고 그 참가자들에 의한 조직적이고 창의적인 행동으로 행사가 이루어지는 일이 가장 바람직한 요건입니다. 그리하여 막연하게 광장에 모인 군중이나 강연장의 청중

이 아니라 마치 전장에 나선 병사와 같은 사명감과 목적의식을 갖춘 힘의 총화이어야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는 한 이번 제11회 대회도 예년대회와 별다른 의의를 찾지 못할 것입니다.

사실 우리 농촌은, 혹은 대부분의 농민 모임은 늘 피동적이고 그 때문에 무기력하기 일쑤입니다. 춘래불사춘(春來不仕春) 이란 옛말과 같이 분명히 내재한 힘은 있건만 그것이 발휘되지 못하고 역부재(力不在) 인 것을 흔히 보아오는 터입니다.

이번 대회는 특히 이 점에 유의하여야겠습니다. 그런즉 일찍이 회원정리와 회세 정비를 단행하여 이에 대비한 아직 지회개편총회를 갖지 않은 지회는 하루속히 개편작업을 완료하길 당부합니다.

그리하여 한사람, 한사람이 개인자격으로 대회에 참가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 내 전체농민의 대표된 긍지 속에 참가할 때 금년도 제11회 전국대회는 분명히 새로운 시대, 70년대에 대응하는 고차원적인 운동으로 비약적 전개를 가져올 것을 확신합니다.

전국의 회우동지, 여러분 이번 제11회 전국대회는 꼭 우리의 현실을 직시하고 하나의 새로운 농업철학을 얻음으로써 자기개발과 나아가 선도농가로서, 농산업혁명 전위로서 힘찬 전진을 이룩할 귀중한 계기가 되도록 다 같이 노력합시다.『농업기술회보(農業技術會報)』 86호, 1970년 9월 1일〕

44)「제11회 전국농업기술자대회 대회사: 10년 전통 위에 이룩될 농산업 혁명, 선도농가 앞장 서 농민을 주도하자」

오늘 이 대회를 개최함에 있어, 농림부장관께서 공사로 다망하신데도 불구하고 특히 바쁜 스케줄까지 취소하시며 오늘 이 자리에 왕림하여 주신 데 대해 매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청와대 경제담당 수석비서관으로 계시는 정소영 비서관님의 참석하심과, 그간 이 모임을 위하여 물질, 정신면으로 많은 협조를 하여 주신 건국대학교 총장님, 또는 건국대 재단의 여러 이사님들과 관계되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이처럼 많이 참석해 주신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금 농촌은 농번기의 가장 바쁜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멀리 있는 제주도에서부터 가까이 있는 서울에 이르기까지 전국 방방곡곡에서 우리 선도농민으로 애쓰는 동지여러분이 오늘 이처럼 이 대회에 많이 참석하신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 이 대회는 오늘로서 제 11회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햇수로 말하면 만 10년이라는 시간을 갖게 된 것입니다.

이 10년 동안 거세인 비바람 속에서도 한 번도 흔들림 없이 그대로 꾸준하게 전진하고 발전해서 오늘과 같은 우리의 모든 협동의 힘을 갖게 된 것을 매우 영광으로 생각하며 또한 농민의 앞에서 많이 노고하신 동지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뜻을 표하는 바입니다.

농민에 있어서는 기술혁명, 농업에 있어서는 기술혁명, 농촌에 있어서는 생활혁명의 삼대혁명 푸

른 깃발을 높이 들고 후진된 이 나라의 농업을 하루바삐 발전시키도록 해보려고 하는 힘으로 여기에 모이신 선도농민 여러분이 앞장서서 그동안 많이 노력하신 결과는 우리 농민이 다 아는 바와 마찬가지로 자기 이기주의로서 남이야 어떻게 되었던 나만 살면 그만이라는 또는 잘살던 못살던 사는 대로 살아 본다는 그런 참의식 가운데 있는 농민들로 하여금 우리 3대혁명의 깃발 아래로 인도해서 서로 협동과 민주화하는 길이 또는 기술에 있어서 과학과 혹은 전문화하는 것에 있어 많은 동지가 10년 동안 방방곡곡에서 나타나서, 또 이분들이 다시 농민의 선두에 서서 지도하는 우리 선도농민이 된 것을 오늘 이 자리에서 지난 날의 모든 것을 회고해 가면서 기쁨과 영광과 감사를 겸해서 맞이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우리조국은 지금 근대화를 위해서 바야흐로 힘차게 나아가고 있고 여러 산업이 근대화에 대한 거대한 업적을 지닌 가운데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농민이 전체국민의 53%를 차지하는 우리농민임을 생각하여 여러 가지 면으로 대종을 이룰 농업과 농산업이 역시 그 후진성을 면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을 볼 때 근대화 작업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지장을 주는 것만은 틀림이 없습니다.

이 나라가 완전히 근대화해서 그 과업을 이룩하자면 농업도 마찬가지로 균형되게 다른 산업과 같은 대열에서 어깨를 나란히 하지 않으면 우리 근대화의 이 작업이 완전히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큰 농업부문이 뒤떨어져서 이 근대화의 작업에 많은 지장을 주는 것을 생각할 때 심히 가슴 아픈 일이며 이미 우리가 생각한 여러 동지들과 더불어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마음가운데 깊은 각오와 관심을 갖는 이 시간인줄 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70년대를 맞아 다시 한 번 더 힘차게 우리 농민들로 하여금 협동과 민주화에 대해서 과학화되며 전문화되는 것에서 많은 증산을 도모하도록 우리의 선각자 되시는 우리 농민 여러분들의 힘찬 노력을 가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이 나라 농민들이 앞날에 발전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는 국가에서도 정부에서도 힘찬 노력을 다하는 가운데 있지만, 모든 것을 자기 자신의 것으로 만들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은 예로부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도와준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농민의 문제는 농민자신이 해결하지 않으면 아무리 잘 한다 해도 안 된다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문제해결에 있어서는 농민 스스로가 해결하기에는 매우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여기에 모이신 선도농민 여러분이 앞장서서 더욱 힘차게 이끌어줌으로 말미암아 앞날 우리가 뜻하는 농업의 발전이 올 것을 우리는 확신해마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잘살고 다른 농민이 살고 조국과 우리 민족국가에 대한 위대한 애국애족에 대한 하나의 뜻이 될 것만은 사실일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다시 70년대의 첫해를 맞이해서 한번 새로운 결심아래 지난날의 10년의 업적을 회고해 가면서 다시 오늘 우리의 70년대의 업적은 더욱 위대한 업적이 나타나고, 그래서 농민이 완전히 근대화의 작업에 같이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

는 앞날을 만들도록 한 번 힘차게 나서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마음가운데 결심하는 이 시간이 되어주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대회에 있어서 특색을 지적한다면, 어제 있었던 농기계 대연시(大演試)와 오후에 있는 모의국회를 들 수 있습니다. 어제 우리가 장안 벌판에서 농업기계 연시 및 전시를 했습니다. 어제에 있던 농기계 연시는 약 30여 종의 현대화된 농기계들을 대연시함으로써 우리 선도농민 되시는 여러분들이 새로운 농업기계를 보심으로 말미암아 더욱 인식을 깊이 하는 가운데 우리나라 농업은 그런 영세농업, 말하자면 한층 더 기계화에 전진할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의욕을 불어넣어 주기 위함인 것으로 농업기계화의 시대가 하루 속히 와야겠다. 이 소농이 하나하나 살 수 없고 협동해서 살려고 하는데 있어서 반드시 기계화 농업이 되지 않으면 안 될 앞날이 중요하기 때문에 농업기계 연시 및 전시를 개최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의 특색은 오늘 오후 이 장소에서 열릴 모의국회의 형식을 통해서 우리 선도농민 또는 우리 한국 전체농민이 가진 마음 가운데 같은 뜻을 어떻게 하면 앞날에 대해서 우리의 살길을 찾느냐 하는 것을 솔직하게 토론할 수 있는 모의국회가 개최되는 데 대해서는 우리 동지 여러분과 더불어 더욱 많은 기대가 되실 줄 생각합니다.

이제 끝으로 이번 우리대회를 이와 같이 개최해서 진행하는 데 있어서 유관기관 특히 농림부, 농협중앙회, 농촌진흥청에서 많이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동지 여러분과 더불어 이 자리를 통해 우리가 다시 감사의 뜻을 서로 표하는 바입니다.

오늘 여기에 모이신 동지 여러분의 앞날의 건강과 아울러 더욱 억센 건투가 있어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매우 감사합니다.〔『농업기술회보(農業技術會報)』 89호, 1970년 12월 1일〕

45) 「1971년 신년사: 71년은 선거의 해, 정치세력에 기생하는 사이비 농촌지도자를 엄중 경계하자」

전국의 회우 동지 여러분!

또다시 새해를 맞이하였습니다.

회우 동지들의 가정마다 복된 한 해가 되기를 비는 마음 간절합니다.

해가 바뀔 때 마다 만감이 오고감은 되풀이 되어온 일이지만 특히 1971년을 맞이함에 있어 감개무량한 바 있으며 지나온 한해, 아니 우리 운동이 걸어온 10년을 조용히 회고하고 반성하며 새해를 맞는 오늘 여러 회우동지들과 함께 앞으로 나아갈 바를 생각하여 보고자 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60년대란 반만년 역사를 통해서 가장 중요한 의의를 부여하였습니다. 두 차례의 큰 혁명을 겪었고 조국근대화라는 역사적 과업이 힘차게 추진되어 왔습니다. 국제적으로 인류역사

상 처음으로 우주를 개척하여 달 표면에 인간이 발을 딛게 한 일을 비롯하여, 분단된 우리나라를 둘러싼 국제정세는 예측과 낙관을 불허하는 새로운 국면에 당해 있습니다.

다시 눈길을 돌려 조용히 우리 주위를 살펴봅시다. 오늘날 우리나라의 농업, 농촌과 농민들의 처지와 현실을 직시하여 봅시다. 여기에서 문제들을 찾아내어 이를 해결하는 데에 노력하자는 것이 우리들의 과업이며 우리의 운동인 것입니다.

10년 동안 벌여온 우리의 운동을 반성할 때 뚜렷이 내어 걸 성과가 없음은 유감스러운 일이나 전국의 회우들이 뜻을 같이하여 꾸준히 이 운동을 이끌어 온 사실은 우리나라 농업사에 자랑스럽게 기록될 일이며 그동안 눈에 보이지 않은 한결같은 우리들의 뜻과 튼튼한 바탕과 깊이 박혀 뿌리는 70년대에 수확이 클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는 바입니다.

정부에서 제3차 5개년계획을 세움에 있어서 농업개발과 농촌진흥에 큰 비중을 둔다 하며, 작년부터 이른바 고미가정책(高米價政策)이라 하여 지금까지 저곡가정책(低穀價政策)에서 탈피하려는 노력 등은 만시지탄은 있으되 지극히 다행이며 환영할 일입니다.

금년만 해도 560만 석(石)이란 막대한 양의 외미(外米)를 도입해야 하며, 귀중한 외화를 수억 불이나 이에 소비하고 있음은 가슴 아픈 일이며 농업국의 수치스러운 일이 아니라 할 수 없습니다.

신품종의 개발, 기술혁신, 농약, 농기구, 자재 공급이 강력한 행정력을 타고 내려가지만, 이에 대응할 수용태세로서 자주 · 자조 · 자립의 운동이 농촌 내부에서 불타오르지 않는 한 끝없는 시행착오가 되풀이 될 뿐입니다.

지난 날 우리는 흔히 보아왔습니다. 농촌운동이, 농민운동이 정치세력에 기생하거나 특정인에 의해서 양성되거나 관(官)의 품에 안겨 안존한 운동의 서글픈 말로를 얼마든지 보아왔습니다.

농민이 주체가 되지 않는 그 어떠한 운동이 존재한다 하여도 뿌리 없는 나무나 다를 바 없습니다.

모든 일에는 선(先)과 후(後)가 있고 그 출발 과정이 중요한 것입니다. 금년은 양대 선거가 하루하루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런 때에 스스로의 분수를 지키지 못하고 농민을 팔아서 영달을 노리는 사이비 농촌지도자를 경계하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역사적인 과업과 우리들의 사명을 재인식하고 진정한 농민운동, 농촌운동을 강력하게 전개하기 위하여 대오를 정비해서 조용한 혁명 완수를 위해 총진군합시다.〔『농업기술회보(農業技術會報)』 90호, 1971년 1월 1일〕

46) 「차원 높은 운동 전개 있을 터, 지혜와 용기로 착실한 전진을 계속하자」

전국의 회우 여러분!

1971년도 벌써 상반기를 지나서 7월에 접어들었습니다. 봄 농사일과 모심기, 보리 수확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시겠습니까! 듣건대 금년 봄 · 채소 등 원예작물은 전반적으로 값이 싸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니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금년 들어 국내적으로는 양대 선거를 무사히 치루었으나, 선거의 소용돌이 속에 우리들의 분수를 지켜 휘말려들지 않았음을 지극히 다행한 일이었습니다. 최근 일어나고 있는 국제정세의 격변을 우리는 또한 조용히 주시하여야 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협회는 너무나 잠잠한 가운데 지내왔습니다. 10년의 전통을 살려 과거를 조용히 반성하고 새로운 시대에 적응하는 차원 높은 농민운동을 전개하자는 준비작업과 대열 정비를 위한 제자리걸음이지, 결코 침체했거나 용기를 잃었거나 다른 이유에서 숨을 죽이고 조용한 것이 아님을 분명히 밝히는 바입니다.

본인은 비록 나이를 먹었으나, 전국의 여러 동지, 회우와 함께 이끌어 온 우리들의 운동을 보다 힘차게 추진하는 데 있어서 과거나 지금이나 용기가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멀지 않아 우리들의 푸른 깃발은 다시 힘차게 나아갈 것입니다.

농민 · 농업 · 농촌에 주어진 현실은 너무나 많은 과제와 문제들을 안고 있습니다. 행정적인 힘이나 정부의 의욕적인 계획만으로는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없습니다. 먼저 농촌을 뛰쳐나오려는 유능한 지도자들의 뛰쳐나오지 않으면 안 될 원인을 옳게 찾아내어 제거해 주는 일이 정부의 역할이며, 자조 자립하려는 강열한 의욕이 꽃피고 열매 맺을 수 있는 분위기와 환경 조성이 선결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들 농민들도 각자가 안고 있는 문제들을 개별적으로 해결하려 할 것이 아니라, 공통인자로 뭉쳐서 해결하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 협회는 새로운 차원에서 활발한 사업을 추진할 준비를 착실히 하고 있사오니 전국의 회우들은 용기를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계농민대학이 개설됩니다. 부문별로 전국의 뜻있는 농민들이 모여 기술의 연수와 교류에도 큰 의의가 있지만, 더욱더 큰 의의는 대화의 광장에 있을 것입니다. 많은 참가를 아울러 부탁드리며, 끝으로 전국의 회우 동지들의 건투를 빕니다.〔『농업기술회보(農業技術會報)』 95호, 1971년 6월 1일〕

47) 「특별담화문: 농촌 진흥은 농민이 주도해야, 상허재단은 협회 운동의 초석」

전국의 회우 동지 여러분!

우리들의 땀이 영그는 1971년의 가을을 맞이하였습니다. 모든 어려움을 참고 견디어 농촌을 지키며 농업 생산을 위해서 분투하시는 회우 동지 여러분들의 노고에 심심한 경의를 표하여 마지않는 바입니다.

신문, 방송 등 보도를 통하여 잘 알고 계실 줄 믿습니다만, 작금의 국내외 정세는 격변의 화중에 놓여있습니다. 하나하나를 여기 열거하지 않습니다만 숨찬 역사적인 격동기에 처해있는 지금 우리

가 해야 할 일은 너무나 벅차고 다급하다 아니 할 수 없습니다.

이른바 국민총화(國民總和)! 얼마나 막중한 역사적인 과업이겠습니까? 우리 농민들을 제쳐놓고 국민총화가 이루어 질수 없습니다. 양차에 걸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은 조국의 면모를 일신하였으며, 국민소득에 있어서는 이미 중진국의 대열에 끼게 되었으며, 정부의 의욕적인 농촌진흥정책은 농업근대화를 향해서 눈부신 발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시와 농촌의 지역적인 격차, 농업과 다른 산업과의 격차, 농민과 상공인과의 소득격차가 날이 갈수록 더욱 심화되어 가는 현실상을 또한 부인할 수 없습니다. 눈부신 수출의 증대에도 불구하고 식량자급도의 저하는 경제자립을 저해하고 있는 농촌경제의 적자가계는 다른 산업의 이 이상의 성장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경제적인, 사회적인, 문화적인, 격차의 해소 없이는 정신적인 국민총화가 이루어질 수 없다고 믿습니다.

정부의 정책과 강력한 행정력이 그 실효를 거두자면, 행정력의 몇 배에 해당하는 자조 자립의 정신적인 바탕 위에서 수용태세를 갖추지 않으면 안 된다고 확신합니다.

오늘날 농업의 근대화, 농촌진흥이 행정주도형에서 농민이 피동적인 입장에 설 것이 아니라, 농민의 정신혁명으로 민주적 협동화를 성취하여 농민주도형으로 이끌어 나아가지 않으면 안되겠습니다.

선도농가(先導農家)와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삼위일체가 된 농촌의 개발을 본인은 기회가 있을 때 마다 주장하여 왔으며, 선도농가의 발굴과 육성, 선도농가의 집결체가 우리 협회의 사업인 것이며, 우리 협회가 존재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전국의 회우 동지 여러분!

본인은 이미 여러 회우 동지 여러분 앞에 선언한 바 있습니다. 본인의 얼마 남지 않은 여생을 조국의 농촌복지화운동에 바치며, 논두렁을 베고 죽는 죽음을 영광스럽게 택하겠다고 말입니다. 신념과 각오와 결의에는 추호도 변함이 없습니다. 전국의 만여 회우가 건재함을 마음 든든하게 생각하며, 이제야 말로 대오를 정비하고 기운차게 운동을 벌릴 때가 왔습니다.

우리는 결코 역사의 고아가 될 수 없고 소외자가 되어서 안되겠습니다. 조국의 운명에 감연히 일어나 농민의 정신혁명, 농업의 기술혁명, 농촌의 생활혁명-푸른 깃발아래 뭉쳐 나아갑시다.

전국의 300여 동지의 정성으로 추진되어 온 재단도 제12회 전국대회 이전에 1단계로 매듭을 지어 마무리를 하려 합니다. 신의(信義)에서 우러나온 티 없는 성금이 우리들의 귀한 씨알이 되어 거목으로 성장하여 풍요한 과실로서 우리의 조용한 혁명을 완수할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신의의 불씨가 비록 작다고 하나 뭉쳐진 힘에 불을 질러주기에는 충분할 것입니다.

생산 없는 농촌운동은 존재의 의의가 없고 경제행위를 수반하지 않는 생산운동도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모색하고 있는 새로운 진로-새로운 차원에서의 농촌운동은 생산운동과 경제운동을 어떻게 병립, 조화시켜 추진하느냐에 관건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이제부터의 우리 협회의 사업에 근본적인 혁신을 하려 하오며, 오는 9월 25일부터 전국 시 · 군 지회 간부회원 연쇄회의의 의의

도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불한당의 무리는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역사적인 사명을 조용한 혁명을 통하여 완수할 것을 당부하면서 전국 회우 동지 여러분의 건투를 빕니다.〔『농업기술회보(農業技術會報)』 96호, 1971년 7월 1일〕

48) 「상허농촌복지재단 발기인 제위에 드리는 글: 농촌 진흥의 신념과 자신에 살아, 설립 후에 더욱 확충할 터」

존경하는 회우 동지 여러분, 살펴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무더운 여름철을 맞이하여 회우 동지 제위의 청녕(淸寧)하심과 댁내 두루 균경(均慶)하시옵길 멀리서 축원합니다. 회우 동지 여러분께서는 항상 염려하여 주시는 덕분으로 노구(老軀)에 별 탈 없사오니 안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오랫동안 소식 전하지 못하여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작년의 국내외 정세를 바라볼 때, 거센 역사의 수레바퀴 소리를 절실히 느끼게 하여 주고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가 지금까지 벌여온 농촌복지화운동의 사명이 더욱 중차대하고, 새로운 차원에서 우리들의 사업을 활발히 추진하여야 할 때가 왔음을 확신합니다.

다행히 우리 전국농업기술자협회는 빛나는 전통을 가지고 있으며, 뜻을 함께하는 믿음직한 회우 동지가 전국에 만여 명이 건재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 사업이 침체하고 부진하였음을 솔직히 시인하며, 회우 동지들의 앞장을 서온 본인의 능력과 재력이 이에 미치지 못하였음을 부끄럽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회우 동지 333인의 정성어린 발기로 추진되어 온 상허농촌복지재단(常虛農村福祉財團)이 3년 세월이 흐른 오늘날까지 마무리하지 못하고 끌어오면서 본인은 형언할 수 없는 고민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회원 동지들의 정성에 보답하고 우리 협회의 사업을 계속 발전시켜 나가자면 명분과 간판만의 재단이 아니라 제 구실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재원이 확보되어야 하겠고, 그 무거운 책임이 본인에게 지워져 있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백방으로 힘을 써왔으나 여의치 못하고 시간만 흐르니 이대로 무한정 끌어나갈 수 없는 일이므로, 회우 동지들이 모은 성금과 그 동안에 증식된 이자를 합한 3백여만 원과 여기에 약속된 성금을 더하여 4백만 원을 만들고, 본인이 6백만 원을 보태어 천만 원의 기금으로 금년도 제22회 전국농업기술자대회 이전에 우선 재단을 성립시키기로 지난 8월 24일에 정장섭(鄭長燮) 전무를 불러 결정하였던 것입니다.

회우 동지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또 천만 원의 재단으로 목적 달성을 위한 충분한 재원이 되지 않으나, 일단 이렇게 매듭을 지어 놓고 여러 동지들과 본인이 더욱 분발하고 힘을 합쳐 재단을 확충하여 나아갈 방침입니다.

이미 여러 차례 기회 있을 때마다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본인은 얼마 남지 않은 여생을 여러 동지들과 함께 농촌복지화운동을 위해서 바치겠으며, 논두렁을 베고 죽는 죽음을 영광스럽게 택할 각오와 결의에는 지금도 변함이 없음을 여기에 다시 한 번 밝혀둡니다.

회우 동지 여러분!

우리가 내건 농민의 정신혁명, 농업의 기술혁명, 농촌의 생활혁명의 푸른 깃발아래 굳게 뭉쳐서, 우리에게 주어진 역사적 사명을 다합시다. 사무국의 임직원들도 새로운 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온갖 어려움을 무릅쓰고 전진의 준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옥체 더욱 보중(保重)하시고 댁내에 언제나 신(神)의 가호 있으시길 빌면서 이만 멈춥니다.

서기 1971년 9월 10일

유석창(劉錫昶) 올림

〔『농업기술회보(農業技術會報)』 97호, 1971년 8월 1일〕

49) 「대회 특별담화: 대회는 자주 · 민주 농심의 발로, 식량 증산에 총진군하자」

전국의 회우 동지 여러분!

이제 막바지 추수 일에 바쁘실 동지 회우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서 감사와 경의를 아울러 드리는 바입니다.

국내외의 정세를 살펴볼 때 갈피를 잡을 수 없으리만큼 격동의 소용돌이 속에 놓여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시기에 제12회 전국농업기술자대회가 열리게 된다는 것은 자못 그 의의가 클 뿐만 아니라 이 대회에 부하된 사명이 또한 중차대하다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번 제12회 대회는 오는 12월 16일에 서울 시민회관에서 개최키로 결정하였습니다.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회의 지난날을 반성하고 회고하며, 이번 대회의 의의를 되새겨 보고자 합니다.

1960년은 역사상 커다란 하나의 전환점이었습니다. 넘쳐흐르는 자유 민주의 사조에 눈이 뜬 농심(農心)이 모이고 모여 대회를 이루고 농민의 정신혁명, 농업의 기술혁명, 농촌의 생활혁명의 푸른 깃발을 지켜 10년이 지난 오늘에 이르기까지 꾸준히 성장하고 전진하여 왔습니다.

양차에 걸친 경제개발 5개년계획의 수행 과정에 있어서 우리는 기회 있을 때마다 농업개발이 우선해야 하며 식량의 자급자족이 곧 경제자립의 기초가 된다는 것을 주창하여 왔습니다. 그리고 선도농가(先導農家)와 농민과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삼위일체가 된 농산업의 혁명을 주장하여 왔습니다. 스스로의 사명과 분수를 지켜 펼쳐온 우리들의 운동이 소기의 성과는 거두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주장한 것이 옳았고, 그 노력이 장한 것임을 자부하지 않을 수 없으며 말만으로 자주, 자조, 자립, 협동을 외쳐온 농민운동 부재의 이 메마른 풍토 위에 알뜰히 가꾸고 키워야 할 귀한 씨알이 10년이란 전통 위에 굳건히 뿌리를 내렸다는 것은 자랑할 만한 사실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전국의 회우 동지 여러분! 우리는 오늘날 격동하는 국내외 정세를 직시하며 우리들의 사명을 재인식하십시다. 국제정세에 대처해서 국민총화(國民總和)란 말이 요즈음 흔히 거론되고 있습니다. 국민총화에 있어 그 주체는 과연 사회의 그 어느 계층이겠습니까?

바로 우리 농민들이 국민총화의 구심세력이며 주체인 것입니다. 우리 농민들이 정신혁명을 완수하여 민주적인 협동화의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면, 민주주의를 바탕으로 하는 국민총화가 성립될 수 없는 것입니다.

양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의 성공적인 완수와 눈부신 경제성장으로 우리도 이제 중진국의 대열에 서게 된 것은 기쁜 일이며, 높이 솟은 공장의 굴뚝과 뻗쳐나가는 고속도로, 다투어 서는 도시의 고층빌딩을 뉘라서 탓하리오마는 만성적인 식량자급도의 저하와 외곡도입량은 이제 2억 달러에 이르니 결과적으로 경제성장 자체를 무색케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야 어디에 있건 식량 생산을 담당하고 있는 우리 농민들은 책임을 통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식량 증산의 근본과제는 농민들의 증산의욕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농민 스스로의 증산의욕이 없는데 어떠한 지원정책이 과감하게 실시된다고 해도 실효를 거둘 수 없습니다. 증산의욕이 스스로 불타오를 수 있는 여건이 선행되고 농민의 의사가 정책에 올바르게 반영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이번 제12회 대회의 주제를 식량문제에다 두고, 농민의 입장에서 정책적 · 경제적 · 기술적인 – 여러 가지 측면에서 문제해결의 길을 찾아내고 정부의 입장에서 농민과 직접 대화를 통하여 농민의 의사를 반영하며 사명을 일깨우고자 합니다. 뿐만 아니라 국내외 정세에 비추어 자주 · 자조 · 자립하려는 우리 농민들의 민주적 역량을 크게 선양하고 과시하자는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와 농촌 내부에 잠재하고 있는 수많은 고질을 털어버리고 소외와 고독에 몸부림치지 말고 감연히 이 광장에 너와 나 모두 모여 힘찬 진군을 다짐합시다.〔『농업기술회보(農業技術會報)』 98호, 1971년 9월 1일〕

50) 「대회 주제에 부쳐: 결코 중단할 수 없는 장한 거사, 낯익은 동지 여러분 대회 때 만납시다」

전국의 회우 동지 여러분!

이제 추수 일도 막바지에 접어들었습니다. 땀 흘리는 회우 동지 여러분들의 노고에 다시금 경의를 표하여 마지않는 바입니다.

들리는 바로는 금년 가을의 김장 농사는 풍작이어서 가격의 하락은 생산농가를 우울하게 하고 있으니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풍작이 소득과 비례하는 제도적이고 정책적인 뒷받침이 아쉬운 마음 간절합니다.

우리 협회의 연례행사인 제12회 전국대회가 오는 12월 16일로 확정되었고, 주제도 정해졌습니다. 기회 있을 때마다 주창하여 오는 바입니다만, 우리들의 전국대회는 우리 협회만의 행사가 아닙니다. 우리들 선도농민(先導農民)이 주인이 된 우리 농민들 전체의 행사요 농업계 전체의 대회인 것입니다.

우리들은 이 대회에 개인으로 참가하는 것이 아니라, 1,600만 농민을 대표하여 참가하느니만치 우리들의 일거수일투족은 1,600만 농민의 행동임을 재인식하고 부하된 사명을 완수하여야겠습니다.

이번 대회의 주제로서 우리는 "만성적인 식량자급률의 저하와 그 대책" 을 내걸었습니다. 사실 식량자급률의 저하가 어제 오늘에 비롯된 문제가 아니면서, 갑자기 요즈음에 와서 크게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노출된 원인을 주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전후 일본이 심각한 식량난에 허덕이고 있을 때, 내건 구호가 "식량의 자급 없는 나라는 독립국가의 자격이 없다"… 였다고 듣고 있습니다.

이제 식량문제는 농업계나 농가경제만의 걸친 일이 아니기에 정부를 위시하여 각계각층에서 논란이 거듭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농민의 입장에서 식량을 생산하는 당사자의 입장에서 이 문제를 간과할 수 없으며, 다각적인 측면에서 구명하여 우리 농민들의 나아갈 바를 정립하자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농민들은 흔히 농가소득 증대라는 말을 많이 들어왔고, 농가소득 증대는 식량작물 이외의 이른바 환금작물(換金作物)로 불리는 농작물을 재배하는 것으로 알아왔고, 또 그렇게 지도받아 왔습니다.

그러나 이를 농가소득 증대와 식량 증산을 직결시켜 농민들 스스로가 증산 의욕이 끓어오르게 하는 일이며 농민들 스스로가 민주적인 협동 단결의 힘으로 증산 의욕을 저해하는 모든 요인을 제거하고 농민들을 선도농가(先導農家)가 주도하고, 정부의 정책적인 지원이 삼위일체가 되어야만 소득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번 대회에서는 고위당국자와 정치인, 학자, 관계기관 인사들을 광범하게 초빙하고, 대화로써 농민의 입장을 밝히고자 합니다.

전국의 회우 동지 여러분!

이제 본인의 나이 칠순을 넘은 노구입니다. 이 대회를 통해서 낯익은 회우 동지 여러분과 앞으로 과연 몇 차례나 더 상면할 것인가를 자문할 때 인생의 무상함을 뼈저리게 느낍니다. 여러 동지들의 뜻이 한 곳에 있는 한, 우리 대회는 이 나라의 농촌을 복지화 하는 일의 주축이 될 것입니다. 어려움 가운데 좌절하면 남는 것은 멸망과 좌절과 고립뿐입니다. 우리들의 힘은 마음과 뜻의 모임이며 뭉침인 것이며 흔쾌하게 이번 제12회 전국대회 광장에 참여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라마지 않는 바입니다.〔『농업기술회보(農業技術會報)』 99호, 1971년 10월 1일〕

51) 「지령 100호를 자축함: 농민의 참된 대변자로서 농촌 발전의 길잡이 될 터, 사회정의 구현의 능동적 역량 발휘에 역점」

우리 사단법인 전국농업기술자협회의 기관지 『농업기술자회보(農業技術者會報)』는 1971년 11월 1일자로써 100호를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농업기술자회보』는 지금부터 7년 전인 1964년 7월 20일에 2,000부의 창간호를 펴냈던 것이 이제 와서는 2만부로 부수도 늘었거니와, 우리 회우 동지)들의 귀와 눈과 입의 역할을 담당하고 새로운 농업기술을 전달하며 계도(啓導)하는 데에 앞장 서 왔습니다. 100호를 펴내며 연 발행부수를 헤아리니 무려 100만 부를 넘었습니다.

우리 회우들과 함께 자축하여 마지않는 바이며, 그동안 기고하여 주신 여러 선생님들과 회우들, 그리고 광고로서 협조를 아끼지 않았던 유관기업인)인 제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현대를 가리켜 정보화시대라 이르며, 정보 전달의 매체는 활자와 종이의 시대에서 전파시대로 비약 발전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문명의 그늘에 있는 우리 농촌은 트랜지스터 라디오가 어느만큼 보급되어 있으나, 정보 전달의 총아인 텔레비전의 보급은 아직도 요원한 한심한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신문 잡지의 보급률도 숫자를 말할 바가 못 된다고 보여집니다. 이는 바로 농촌의 전화와 함께 우리 농촌 근대화를 가로막고 있는 커다란 이유의 하나입니다. 그 이유는 농가소득과도 직결되어 있습니다.

前進! 本報 紙齡100號
紙齡百號를 自祝함
農民의 참된 代辯者로서
社會正義具現의 原動的力量 發揮에力點
農村發展의 길잡이 될 터
農業技術의 啓導와 農民意思 反映토록
農村開發의 신봉되기를
百號編綴하니 感慨無量
우리들人生의 참된證人
—어찌감히 휴지로 쓰겠오?—
『농업기술회보』 지령 100호(1971. 11. 1)

그리고 눈부시게 발달하고 있는 정보수단이 얼마나 농민 편에서 농촌과 농업문제를 다루고 있는가를 살펴볼 때 탄식이 저절로 납니다. 넘쳐흐르는 퇴폐풍조와 외국에서 직수입된 망칙스런 유행은 공서양속(公序良俗)과 기풍(氣風)을 해친다 하여 도시에서도 말썽이 되고 있거니와, 특히 우리 농촌에까지 전염병처럼 만연하여 근로정신을 해치며 내일에의 농촌을 메고 나갈 청소년들을 이농케 하고 있음을 그냥 보아 넘길 수 없습니다.

민주주의는 여론의 정치이며, 여론은 바로 국민들의 의사이며, 그 의사는 신문잡지 등 언론으로 표현됩니다. 언론의 자유는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입니다. 무릇 언론기관은 사시(社是)에 따라서 대중의 의사를 전달하고 사회의 실상을 올바르게 보도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흔히 보아오는 일은 생산자인 농민과 소비자인 도시민이 이해가 상반될 때 언론의 표현은 과연 누구 편에 서서 그 권익을 대변하고 있는가를 냉철히 판단하면 더러는 서운한 마음을 참을 수 없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농민들도 우리농민들의 편에서 정당한 권익과 여론을 주장할 수 있는, 그야말로 "농민의 대변지"가 아쉬운 것입니다. 농민의 대변지는 농민의 힘으로 만들고 농민의 힘으로 육성하여 나가야겠습니다. 어찌 농민의 대변지뿐이겠습니까? 라디오 방송국도 텔레비전 방송국도 농민이 만들고 농민의 힘으로 운영하여 갈 역량이 있을 때가 바로 농업근대화가 이루어지는 때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우리 『농업기술자회보』가 지금까지 걸어온 길을 반성하여 볼 때, 지면 사정으로 회우들의 의사를 충분히 편집에 반영하지 못한 일과 발행기일을 철저히 지키지 못한 일과 행사 때는 전혀 광고안내지의 구실 밖에 하지 못하였음을 사과드립니다. 그리고 회우 동지들을 만나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먼저 회보(會報) 얘기부터 들을 때 우리 동지들이 얼마나 회보에 대한 기대가 크며 회보에 지워진 사명이 무거운 것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이제부터는 한 발자국, 한 발자국씩 전진하여 나가렵니다. 편집의 쇄신, 증면, 발행부수를 늘리고 발행기일을 지켜 명실공히 회우 동지들의 주장과 의사를 반영시키며, 나아가 농민의 대변지로서 농업기술의 계도지로서 깊이 있는 정보의 전달지로써 100호라는 귀중한 바탕 위에 키워나갈 것을 다짐하며 약속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우리 회보는 한국농민운동의 생생한 기록이며, 새 역사 창조의 기록으로 무궁하게 발전할 것입니다.

100호를 자축하면서 끝으로 전국의 회우 동지들에게 몇 말씀 더 덧붙이고자 합니다. 해마다 이 행사가 열리기를 손꼽아 기다리던 제12회 전국농업기술자대회가 오는 12월 16일로 박두하였습니다. 전에 없이 정부요로는 물론 각계각층의 비상한 관심을 모으는 가운데 행사준비가 순조로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작금의 국내외 정세가 심상치 않으며 국민총화와 경제자립이 시급한 이 때, 그 어느 사회계층보다도 우리 농민들에게 부하된 사명이 큽니다. 전통 있는 우리들의 대회요, 소중한 이 행사에 새로운 결의로 분연히 참가하여 국가와 민족에게 밝은 내일에의 기대를 걸게 합시다. 그리고 손에 손을 맞잡고 다시 시민회관에 모여 조국근대화를 향한 선도농민(先導農民)의 뜨거운 열정을 솟구치게 합시다.

끝으로 이번 제12회 전국농업기술자대회는 행정부와 입법부 등 각계의 비상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으니만치 대회에 참가하는 회우 동지들은 행사 진행에 있어 질서를 잘 지켜주시길 거듭 당부합니다.(『농업기술회보(農業技術會報)』 100호, 1971년 11월 1일)

52) 「제12회 전국농업기술자대회를 앞두고 국가비상사태 선언에 따른 특별성명서: 농민총화로 국민총화를 선도, 구농애국(救農愛國)에 총궐기 전진하자」

전국의 회우 동지 여러분!

오는 12월 16일과 17일에 열릴 제12회 전국농업기술자대회를 앞두고 지난 12월 6일에 박정희(朴正熙) 대통령은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하였습니다. 국가비상사태선언에 따라서 제12회 전국농업기술자대회의 의의와 목적을 재천명하는 동시에, 1,600만 농민의 선도자(先導者)로 자부하는 전국의 회우 동지 여러분들에게 몇 말씀 당부하여 두고자 합니다.

제12회 전국농업기술자대회는 국가비상사태선언으로 말미암아 적시(適時)를 얻어 그 의의가 더욱 제고되었으며 주어진 사명이 크다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격동하는 국제정세에 대처하여 승공통일(勝共統一)을 완수하고 자유민주주의를 지키자면 그 무엇보다도 안보가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국가의 안보는 자주국방과 국민총화로서 만이 가능한 것이며, 튼튼한 정신무장과 예기할 수 없는 공산침략에 대비책이 항상 마련되어 있어야 하겠습니다.

국민총화에 있어서 농민의 절대적인 비중이나 자주국방에 있어서 향토방위의 임무는 물론, 병력에 있어서 농민들과 농민들의 자제가 지고 있는 책무가 막중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자주국방은 자립경제로 지탱되어야 하겠습니다. 자립경제는 무엇보다도 식량의 자급이 그 기초가 됨은 물론이며, 그 식량의 생산자는 농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회 그 어느 단계보다도 국가비상사태에 즈음하여 분발하고 각오와 결의를 새롭게 해야 할 계층은 1,600만 농민을 계도해야 할 우리들 선도농가(先導農家)들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번 제12회 전국농업기술자대회의 의의를 다시 한 번 되새기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만 11년, 열두 번째로 전국적인 행사를 치루어 왔습니다만 아직 한 번도 사회와 국민들로부터 지탄을 받아온 일이 없습니다. 스스로 부하된 사명을 완수하고 지켜야 할 분수와 의무를 지키며 나아갈 바를 밝혀 묵묵히 일하여 왔습니다. 도시와 농촌을 비교할 때, 농업과 타 산업을 대비할 때 불평과 불만이 있을 수도 있으나 끈질기게 참고 견디어온 것이 우리들의 기본자세였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우리 농민들이 주저앉아 있을 때가 아닙니다. 우리가 주체가 되어 적극적으로 역사의 수레바퀴를 밀고 나가야 할 과업과 사명이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온 국민 앞에 밝히거니와 우리 전국농업기술자대회는 허장성세를 위한 불한당의 집회가 아닙니다. 우리는 농촌을 구하고 나라를 사랑하는 충성심에서 자발적으로 모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스스로 내건 정신혁명으로 민주적 협동화를 이룩하고, 국민총화에 이바지하여 어느 정도의 희생을 무릅쓰고라도 더욱 증산에 힘써서 하루 속히 식량의 자급을 기하여 자립경제와 자주국방에 뒷받침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번 국가비상사태선언에 우리 농민들은 더한 굳은 각오와 결의로 임해야하겠습니다.

전국의 회우 동지 여러분!

특히 이번 제12회 대회는 연례행사에 임하는 것이 아니라 지난 10년을 통 털어서 가장 중요한 대회가 될 것입니다. 이번 대회에는 새로운 결심으로 한 사람이라도 많은 회원이 참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회우 동지 여러분들의 건투를 삼가 빌면서 대회장에서 다시 만날 것을 약속합니다.(『농업기술회보(農業技術會報)』 101호, 1971년 12월 1일)

53) 「1972년 신년사: 상허재단은 자주농민의 반석, 용기와 신념으로 민주협동의 힘을 기르자」

새로운 희망 속에 1972년의 새해를 맞이하여 회우 동지 여러분과 가정에 건강과 행운을 빌어마지 않는 바입니다.

지난 12월 16일과 17일 열리었던 제12회 전국농업기술자대회 행사를 행정부와 입법부, 그리고 유관기관의 협조와 전국의 회우 동지 여러분들의 성원에 힘입어 성대하고 무사히 치를 수 있었음을 다행하게 생각하며, 멀리 제주도에 이르기까지 어려움을 무릅쓰고 참가하여 주신 회우 동지들에게 거듭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아울러 우리 협회의 새해 예산과 사업계획 등 중요한 안건을 잘 처리 의결하여 주신 대의원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실로 1971년은 다사다난한 한해였습니다. 국제정세는 소용돌이가 계속되고 있고 북괴의 무력도발의 위험 증대는 드디어 지난 12월 6일 박정희(朴正熙) 대통령 각하로 하여금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하기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이번 우리 제12회 전국대회는 그 어느 때 보다도 역사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농민들이 자주적으로 그 사명감을 일깨우고 스스로 대처할 자세와 나아갈 진로를 밝힌 점에서 특히 그 의의가 컸다고 자부하는 바입니다.

새해를 맞이하면서 지난 역사를 반성하고 현실을 의시해 볼 때 국민 모두가 그야말로 총화의 힘을 길러서 나라와 겨레를 보위하여야 할 때가 왔습니다.

국민의 힘이 무력하고 총화(總和)를 발휘하지 못하였을 때 역사는 오도되었고, 슬픈 비극이 되풀이되었음을 역사는 교훈으로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역사 속의 농민은 무력하였고 소외되어 있었으나, 결코 오늘날의 농민은 역사의 고아가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들이 뜻을 함께하여 이 운동에 참여하여 왔고 나아가려는 것은 특정한 개인이 영달이나 정치적인 야욕을 채우기 위한 수단이 되어서는 안되겠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이제까지 벌려온 운동을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야 할 것인가를 새해를 맞는 오늘 전국의 회우들과 함께 조용히 살펴보고자 함입니다.

이 말씀은 결코 우리 운동의 방향전환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우리가 내건 기수(旗手)는 때

를 만나 더욱 선명하게 빛나고 있으니 조용한 가운데, 오직 전진(前進)만이 우리들의 할 일인 것입니다. 전진을 위해서 대오를 정렬하고 좌절된 일군에게는 용기와 희망을 불어넣어 참여시켜 생산운동을 통한 자조 자립과 민주 협동의 힘을 길러가야 하겠습니다.

먼저 이러한 운동을 위해서는 자금이 필요합니다. 이 자금이야말로 자주독립성이 보장되어야 하겠습니다. 보조금에 의한 농촌운동과 남의 힘에 끌려 다니는 운동은 그 힘과 돈이 떨어질 때 그 수명이 다하는 것입니다.

철저한 이념으로 뭉치고 추진되어 온 재단의 일을 마무리해서 우리 운동의 반석으로 삼자는 것이 이 해의 가장 큰 과업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 밖에 다른 사업들은 대의원 총회에서 확립된 일은 내용의 충실을 기하여 알차게 그리고 조용히 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회우 동지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일은 용기와 신념입니다. 이것을 잃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언제나 희망과 미래를 약속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농업기술회보(農業技術會報)』 102호, 1972년 1월 1일〕

54) 「제12회 전국농업기술자대회 대회사: 농민은 자주국방과 경제자립의 주역, 3대혁명 완수로 복지농촌 건설하자」

바쁜 정무에도 불구하시고 농민들을 격하시고자 이 자리에 임석하신 김보현(金輔鉉) 농림부장관, 국회 농림분과 위원장님, 그리고 내외귀빈이 이처럼 많이 와주신데 대해 이 자리에 참석한 3천여 참가자를 대표하여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엄동설한에도 저 멀리 제주도에서부터 강원도 산 끝에 이르기까지, 내왕여비 · 숙식비는 물론 대회비까지도 자부담하면서 오직 구농구국(救農救國)의 충성심에서 이 대회에 참석하신 회우동지 여러분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국내외 정세는 한마디로 말해서 격동의 와중에 있습니다. 지난 12월 6일 박 대통령 각하께서는 이 난국을 헤쳐 나가기 위해서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 당연한 조치를 우리는 전폭적으로 지지하고 이번 제12회 전국농업기술자대회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우리들 지도적인 농민들이 자진해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이며 나아가야할 길이 어디에 있는가를 천명하는 데에 커다란 의의가 있는 것입니다. 안보는 국민총화로 이루어지며 국민총화에 있어서 사회 어느 계층보다도 우리들 농민의 비중이 큰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농민들은 스스로 정신혁명을 완수하여 자조자립의 민주적인 협동화의 힘을 기르고 향토방위를 튼튼히 하여 국민총화를 선도해야 할 역사적인 임무가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경제자립의 기초가 식량의 자급과 농업의 근대화에 있음은 자명한 일인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60년대 두 차례에 걸친 경제개발계획이 성공적으로 추진되어 고도 경제성장과 근대화 과업이 눈부시게 이루어졌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작금 양년에 걸쳐 식량자급률의 저하와 막대한 양의 외곡 도입은 경제자립의 바탕을 흔들고 있음을 볼 때 그 이유와 원인이 어디에 있던 농업생산자인 우리 농민에게 일단 책임을 돌리며 수치와 통분을 참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비상사태 하에서 어느 만큼의 희생을 감수하고라도 식량증산에 매진하지 않으면 안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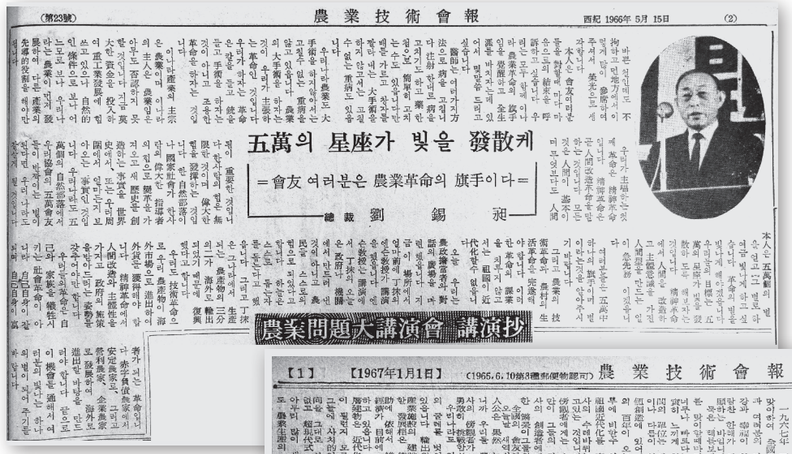
회우 동지 여러분!

우리는 정부에서 무엇을 어떻게 지원해줄 것인가를 바라기에 앞서 우리가 내건 기본과업인 농민에 있어서는 정신혁명, 농업에 있어서는 기술혁명, 농촌에 있어서는 생활혁명을 완수하여야겠습니다. 그리고는 우리들 선도농가가 앞장서서 전체농민을 이끌고 한편으로 정부의 정책적 지원 또한 여기에 함께하게 함으로써 삼위일체적인 복지농촌건설에 매진하여야겠습니다.

이제 우리운동은 12년을 넘어 튼튼한 바탕 위에 전통이 세워졌고 분수를 지켜 대한민국의 무궁한 번영에 기여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는 것입니다. 이제 본인의 나이 70이 넘었습니다. 70평생을 내 나름대로 나라와 겨레를 위해서 약간의 봉사나마 해왔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나의 여생을 이 자리에 모이신 회우동지 여러분과 함께 농촌 부흥을 위해 바칠 것을 말씀드리며, 이 대회가 질서 정연한 가운데 성과를 거두도록 협조하여 줄 것을 간절히 바라면서 대회사에 갈음합니다.

매우 감사합니다.〔『농업기술회보(農業技術會報)』 102호, 1972년 1월 1일〕



農業問題大講演會 講演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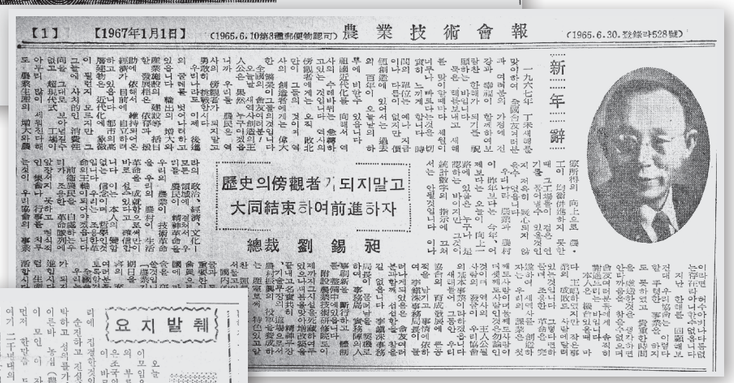
五萬의 星座가 빛을 發케散

=여러분은 農業革命의 旗手이다=

裁總 劉 錫 朴

農 業 技 術 會 報

西紀 1966年 5月 15日 (2)



農 業 技 術 會 報

【1】 【1967年1月1日】 (1965.6.10第3種郵便物認可) (1965.6.30.登錄第528號)

新年辭

歷史의傍觀者가되지말고
大同結束하여前進하자

總裁 劉 錫 朴

二〇〇〇年代 韓國農業의 未來像

千六百萬 선도農

요지발췌

大會長大會解要旨

革命的인果敢한手術의 執刀醫는 先導農家

總裁 劉 錫 朴

참고문헌

1. 유석창 집필 문헌

2. 기타 참고문헌

1. 유석창 집필 문헌

■ 단행본(발행년도 순)

유석창, 『조용한 혁명–선도농가를 위하여–』, 서울: 건국대학교출판부, 1967년.
유석창, 『한국농업의 미래상–서기 2000년대를 바라보며–』, 서울: 건국대학교출판부, 1967년.
유석창 저, 김재신 영역, 『조용한 혁명–선도농가를 위하여–』, 서울: 재단법인 상허문화재단, 2000년.

■ 기고1: 신문(발행년도 순)

유석창, 「('臨床餘閑'其二) 心境의 요모조모」, 『동아일보』 1936년 2월 29일
유석창, 「('臨床餘閑'其三) 仁術을 天職으로」, 『동아일보』 1936년 3월 1일
유석창, 「('臨床餘閑'其四) 가난한 것도 한 몫」, 『동아일보』 1936년 3월 3일
유석창, 「정대의 등불 밝히고자」, 『정대』 1955년 7월 10일
유석창, 「고귀한 창립 정신」, 『정대』 1955년 10월 15일
유석창, 「본 대학 3대 교육 목표 천명」, 『정대』 1956년 3월 15일
유석창, 「성 · 신 · 의의 실현」, 『정대』 1956년 3월 29일
유석창, 「학문의 해이와 안일을 경계」, 『정대』 1957년 11월 20일
유석창, 「세대의 샛별 되라」, 『정대』 1958년 3월 31일
유석창, 「개교 12주년 기념사」, 『政大』 1958년 5월 15일
유석창, 「큰 대학보다 좋은 대학되기를」, 『건대신문』 1959년 4월 28일
유석창, 「유석창 총장 이임사」, 『建大新聞』 1961년 10월 2일
유석창, 「질적 향상 위해 중점주의」, 『건대신문』 1961년 5월 8일
유석창, 「교양교육에 치중 할 터」, 『건대신문』 1962년 11월 8일
유석창, 「1962년 입학식 이사장 고사(告辭)」, 『建大新聞』 1962년 3월 24일
유석창, 「개교 17주년 기념사」, 『建大新聞』 1963년 5월 10일
유석창, 「신념의 씨를 뿌려라」, 『건대신문』 1963년 5월 10일
유석창, 「개교 18주년 기념사」, 『建大新聞』 1964년 5월 15일
유석창, 「회보 발간에 즈음하여」, 『회보(會報)』 1호, 1964년 7월 20일
유석창, 「1965년 새해인사」, 『회보(會報)』 3호, 1965년 2월 1일
유석창, 「성실, 노력, 책임」, 『건대신문』 1965년 2월 27일
유석창, 「제6회 전국농업기술자대회 대회사: 비약과 창조를 잊지 말자, 농업혁명의 선두에 서라」, 『농업기술회보(農業技術會報)』 17호, 1966년 1월 1일
유석창, 「소성에 만족 말고 한 층 더 분발을」, 『건대신문』 1966년 5월 15일
유석창, 「1967년 신년사」, 『농업기술회보(農業技術會報)』 34호, 1967년 1일 1일
유석창, 「특별담화문: 새 진로와 전기 마련, 제8회 전국농업기술자대회에 부쳐」, 『농업기술회보(農業技術會報)』 51호, 1967년 10월 15일
유석창, 「교육의 생산화와 생산의 교육화」, 『건대신문』 1968년 5월 13일
유석창, 「백만평 캠퍼스에 성 · 신 · 의 인간상 구현」, 『건대신문』 1969년 1월 30일
유석창, 「성 · 신 · 의 건학정신으로 모든 분야에서 충실을」, 『건대신문』 1969년 2월 27일
유석창, 「이상과 현실의 조화를」, 『건대신문』 1970년 2월 27일
유석창, 「특별담화」, 『농업기술회보(農業技術會報)』 81호, 1970년 4월 1일
유석창, 「결코 중단할 수 없는 장한 거사」, 『농업기술회보』 87호, 1971년 10월 1일

유석창, 「제12회 전국농업기술자대회를 앞두고 국가비상사태 선언에 따른 특별성명서: 농민총화로 국민총화를 선도, 구농애국(救農愛國)에 총궐기 전진하자」, 『농업기술회보(農業技術會』 101호, 1971년 12월 1일
유석창, 「1972년 신년사: 상허재단은 자주농민의 반석, 용기와 신념으로 민주협동의 힘을 기르자」, 『농업기술회보(農業技術會報)』 102호, 1972년 1월 1일

■ 기고2: 잡지 기타(발행년도 순)

유석창, 「정치대학의 역사적 사명」, 『정대(政大)』 1호(졸업기념호), 1952년.
유석창, 「성 · 신 · 의」, 『건대학보』 제8호, 서울: 건국대학교, 1960년.
유석창, 「건국대학교 총장 이임사」, 『建大學報』 11호, 건대사, 1961. 9. 30.
유석창, 「整備工의 심경으로」, 『건대학보(建大學報)』 12(창간 10주년 기념호), 건대사, 1962년.
유석창, 「드높은 이상 꾸준한 노력」, 『연합학회지』 제2호, 서울: 건국대학교 2부대학, 1964년.
유석창, 「그 성실 길이 지키라」, 『축우』 창간호, 서울: 건국대학교 축산대학, 1964년.
유석창, 「기념사」, 『학술지』 7, 건국학술연구원, 1966년.

2. 기타 참고문헌

■ 신문(발행일시 순)

『경향신문』 『대한일보』 『동아일보』 『매일경제』 『서울경제』 『서울신문』 『신아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국일보』 『건대신문』 『농업기술회보』
「사설: 의약의 사회화」, 『동아일보』 1931년 3월 29일
「實費診療院의 開院式 盛大, 작 십일 오후 네 시에 거행, 社會的 聲援 至大」, 『每日申報』 1931년 5월 14일
「中央實費診療院 舊累一掃코更生, 係爭中에 있던 院舍明渡받아, 銳意施設更新에 邁進」, 『朝鮮日報』 1933년 6월 15일
「無産者에 活人佛, 民衆醫院長 劉錫昶氏」, 『東亞日報』 1936년 4월 2일
「社團法人民衆病院 診療事業 擴充」, 『東亞日報』 1949년 5월 14일
「民衆病院 社團法人으로 發足」, 『朝鮮日報』 1949년 5월 16일
「상허 유석창 박사의 약전」, 『건대신문』, 1961년 10월 2일
「훈육(薰育) 오십년 – 유석창 박사(劉錫昶博士): '건대(建大)' 세운 숨은 기둥」, 『동아일보』 1961년 11월 17일
「한국사회 발전에 크게 공헌한 초대 본교 총장, 현 본교 이사장 유석창 박사께 공익포상(公益褒賞)」, 『건대신문』 1962년 8월 25일
「한종석 씨 등에 기술상 수여」, 『조선일보』 1966년 10월 4일
「'유석창 총재 제안 설명' 요지」, 『농업기술회보』 43호, 1967년 6월 15일
「'2000년대 한국농업의 미래상' 요지」, 『농업기술회보』 46호, 1967년 8월 1일
「修女 수강생도 2명—건국대」, 『한국일보』 1970년 8월 1일
「농업기술자대회 정부에 15개항 건의 "외미(外米) 도입 반감토록"」, 『동아일보』 1971년 12월 16일
「고(故) 낭산(朗山)과 상허(常虛)가 남긴 일화들」, 『경향신문』 1972년 1월 5일
「유석창 박사 사회장 엄수」, 『중앙일보』 1972년 1월 7일
「對談, 일생을 건국과 함께 한 朴勝夏 명예교수」, 『建大新聞』 1986년 5월 19일

김건, 「성 · 신 · 의 교육과 음미」, 『건대신문』 1959년 5월 20일
유희훈(俞喜勳), 「제4회 전국농업기술자대회를 마치고– 건대의 위용(偉容)에 감탄(感嘆)했다」, 『건대신문』 1963년 10월 31일
정범석(鄭範錫), 「종합대 승격의 무렵」, 『건대신문』 1966년 5월 15일

곽종원(郭鍾元), 「유석창(劉錫昶) 박사의 영전에, 멸사애족(滅私愛族)의 평생(平生)」, 『동아일보』 1972년 1월 5일
김두헌, 「고(故) 유석창(劉錫昶) 박사의 뜻 기려」, 『중앙일보』 1972년 1월 5일
이대위, 「한국의 농(農)에 일생을 헌신, 곡(哭) 상허(常虛) 유석창(劉錫昶) 박사」, 『신아일보』 1972년 1월 5일
한격만, 「교육의 선각 — 유석창 박사의 영전에」, 『경향신문』 1972년 1월 5일
李仁, 「常虛 劉錫昶 博士를 哀悼함」, 「朝鮮日報」 1972년 1월 6일
송석도, 「불멸의 구농애국사상(救農愛國思想): 위대한 영도자 상허 유석창 박사 2주기에 붙여」, 『농업기술회보』 126호, 1974년 1월 1일
이인, 「70평생 일만 하다가 간 인생」, 『건대신문』 1974년 1월 2일
성원경, 「건학이념의 재조명」, 『건대신문』 1976년 3월 24일
이훈종, 「건학이념」, 『건대신문』 1976년 3월 31일
정길생, 「건학이념」, 『건대신문』 1976년 4월 14일
정범석, 「건학이념」, 『건대신문』 1976년 4월 21일
김건, 「성 · 신 · 의의 표상: 건대의 비전과 심벌」, 『건대신문』 1978년 10월 18일
김건, 「건학정신」, 『건대신문』 1981년 5월 20일
정장섭, 「내가 만난 상허 선생」, 『건대신문』 1981년 5월 20일
안상원, 「상허 유석창」, 『교원복지신보』 1990년 2월 19일
박강주, 「건학이념과 상허사상 ①」, 『건대학보』 제142호, 1998년 3월 28일
박강주, 「건학이념과 상허사상 ②」, 『건대학보』 제143호, 1998년 4월 6일
박강주, 「건학이념과 상허사상 ③」, 『건대학보』 제144호, 1998년 4월 13일
박강주, 「건학이념과 상허사상 ④」, 『건대학보』 제145호, 1998년 5월 11일
이상희, 「새 시대의 패러다임을 제시한 상허 유석창」, 『법원회보』 146호, 법원행정처, 2000년 2월 15일
박강주, 「상허 선생 탄신100주년 기념에서 본 건학이념과 상허 선생 "성 · 신 · 의 정신 대내 · 외적으로 알려내야"」, 『건대신문』 제1066호, 2000년 3월 13일

■ **잡지 기타(가나다순)**

『建大文化』 편집부, 「故 常虛 劉錫昶博士 生活 片片相」, 『建大文化』 3집, 건국대학교총학생회, 1973.
김건, 「건학정신의 음미」, 『건대문화』 창간호, 서울: 건국대학교, 1971.
김두헌 외, 「내가 본 유석창 박사」, 『建大學報』 11, 건대사, 1961.
鄭範錫, 「常虛先生의 片貌」, 『학술지』 20, 건국대학교 창립 30주년 기념호, 건국대학교 학술연구원, 1976.
김건, 常虛精神의 理念的定立, 『建大學報』 제29집, 1976.
신태수, 「건대 연혁 및 현황 개요」, 『건대학보』 7호, 건대사, 1959.
정홍기, 「상허사상의 원류를 찾아서」, 『농업기술회보』 50권 5호, 전국농업기술자협회, 2013년 10월
주요한(朱耀翰), 「時話: 실비치료원(實費治療院)」, 『동광(東光)』 22호, 1931년 6월 1일

■ **자료집 및 자료(가나다순)**

건국대학교 교무처, 『건국대학교 요람 2006』, 건국대학교 교무처학사관리팀, 2006.
건국대학교 대학원, 『건국대학교 대학원 요람 2004–2005』, 건국대학교 대학원, 2004.
건국대학교 박물관, 『건국대학교 역사자료집(Ⅰ)』, 건국대학교 박물관, 2002.
건국대학교 박물관, 『건국대학교 역사자료집(Ⅱ)』, 건국대학교 박물관, 2003.
건국대학교 박물관, 『건국대학교 역사자료집(Ⅲ)』, 건국대학교 박물관, 2004.
건국대학교 박물관, 『건국대학교 역사자료집(Ⅳ)』, 건국대학교 박물관, 2005.

주요한, 「안창호일기」 1920년 6월 1일자, 『안도산 전서』, 삼중당, 1963.

■ **회고록, 전기(가나다순)**

김동욱, 『金東旭 自傳에세이』, 서울: 叡智閣, 1991.
박기용, 『조용한 혁명을 위하여』, 서울: 나라기획, 1987.
상허 유석창 박사 탄신 100주년 기념사업 추진위원회 편, 『내가 본 상허 유석창』, 서울: 건국대학교출판부, 2001.
상허기념사업회, 『상허 유석창 전기』, 서울: 건국대학교출판부, 1981.
석포 신태수박사 고희록 편집위원회, 『石浦 申泰洙博士 古稀錄』, 서울: 明秀社, 1967.
유덕산, 『건국대학교 흘러간 반세기』, 서울: 신일기획문화주식회사, 2001.
이종규, 『동성 이종규 박사 회고록』.
정교관, 『激(격). 영원한 청년 청암 류태영』, 서울: 흥사단 출판부, 2001.

김병태, 「남정(南庭)의 선물」, 『내가 본 상허 유석창』, 서울: 건국대학교출판부, 2001.
김성도, 「위대한 농민, 위대한 교육자」, 『내가 본 상허 유석창』, 서울: 건국대학교출판부, 2001.
김승곤, 「상허 선생은 위대한 애국자요 사상가였다」, 『내가 본 상허 유석창』, 서울: 건국대학교출판부, 2001.
김창한, 「세 가지 교육철학」, 『내가 본 상허 유석창』, 서울: 건국대학교출판부, 2001.
김현룡, 「상허 선생에 대한 추념」, 『내가 본 상허 유석창』, 서울: 건국대학교출판부, 2001.
류제창, 「민족의 위대하신 스승 상허 선생님」, 『내가 본 상허 유석창』, 서울: 건국대학교출판부, 2001.
류태영, 「상허 선생과 나」, 『내가 본 상허 유석창』, 서울: 건국대학교출판부, 2001.
맹원재, 「축산대학의 태동」, 『내가 본 상허 유석창』, 서울: 건국대학교출판부, 2001.
박영희, 「장안동 캠퍼스의 첫 항공사진」, 『내가 본 상허 유석창』, 서울: 건국대학교출판부, 2001.
박택규, 「상허 선생, 위대한 휴머니스트」, 『내가 본 상허 유석창』, 서울: 건국대학교출판부, 2001.
백수봉, 「상허 유석창 선생님의 농민 · 농촌 · 농업의 사랑」, 『내가 본 상허 유석창』, 서울: 건국대학교출판부, 2001년.
설완, 「상허 선생과의 조그만 인연」, 『내가 본 상허 유석창』, 서울: 건국대학교출판부, 2001.
양재모, 「상허 유석창 선생」, 『내가 본 상허 유석창』, 서울: 건국대학교출판부, 2001.
윤형섭, 「조용한 혁명」, 『내가 본 상허 유석창』, 서울: 건국대학교출판부, 2001.
이광전, 「유석창 총장님과 꿈」, 『내가 본 상허 유석창』, 서울: 건국대학교출판부, 2001.
이여하, 「유 박사의 교육 철학」, 『내가 본 상허 유석창』, 서울: 건국대학교출판부, 2001.
이종규, 「상허 유석창 박사 추모사」, 『내가 본 상허 유석창』, 서울: 건국대학교출판부, 2001.
조일문, 「건학정신 맥맥히 이어져」, 『내가 본 상허 유석창』, 서울: 건국대학교출판부, 2001.
황조연, 「유석창 박사의 유덕을 추모하며」, 『내가 본 상허 유석창』, 서울: 건국대학교출판부, 2001.

■ **단행본(가나다순)**

건국대학교 50년사 편찬위원회, 『건국대학교 50년사』, 서울: 건국대학교출판부, 2000.
건국대학교 교지편찬위원회, 『建國大學校校誌』 제1집, 1971.
건국대학교 연구처, 『(상허 유석창 박사 탄신 100주년 기념) 상허사상 재조명 초청강연회』, 서울: 건국대학교 연구처, 2000년.
경신사편찬위원회, 『경신사(儆新史), 1885~1991』, 서울: 경신중 · 고등학교, 1991.
管谷章, 『日本醫療制度史』, 東京: 原書房, 1976.
민중병원60년사편찬위원회 편, 『민중병원 60년사』, 서울: 민중병원60년사편찬위원회, 1991.
박승훈 엮음, 『교수수필 앤소로지 동터오는 一鑑湖』, 건국대학교출판부, 1981.

상허 유석창 박사 고희 기념논문집 편찬위원회 편, 『상허 유석창 박사 고희기념논문집』, 서울: 삼화인쇄주식회사, 1970.
상허기념사업회 편, 『상허 유석창 사상의 조명』 II, 서울: 건국대학교출판부, 1988.
상허기념사업회 편, 『상허 유석창 전기』, 서울: 건국대학교출판부, 1981.
상허기념사업회 편, 『상허사상의 조명』 I, 서울: 건국대학교출판부, 1985.
상허문화재단 편, 『상허사상 학생연구논문 모음』 1~14, 서울: 재단법인 상허문화재단, 1990~2003.
손인수, 『한국교육사상가 평전』 II, 서울: 문음사, 1990.
이문원, 『한국의 교육사상가』, 서울: 문음사, 2002.
趙一文, 『建學精神 풀이』, 서울: 건국대학교 출판부,1981.
한기언, 『대학의 이념』, 서울: 세광공사, 1979.

■ **일반논문(성명 가나다순)**

권세진, 「상허의 생애와 사상 연구」, 『상허사상』 1, 상허문화재단, 1990.
김 구, 「내가 원하는 우리나라」, 『백범김구선생언론집』 (하), 나남출판, 2004.
김선양, 「상허의 농촌개혁정신」, 『상허사상의 조명』(1), 서울: 상허기념사업회, 1985.
류태영 외, 「건국대학교 건학이념과 새마을운동」, 『새마을연구논문』 제4집, 서울: 건국대학교 새마을 연구소, 1985.
류태영 외, 「선진조국창조를 위한 농촌새마을운동과 복지농촌 건설」, 『새마을운동학술논문집』, 서울: 새마을운동중앙본부 전국대학새마을연구소연합회, 1985.
민상기, 「농민의 새마을운동 참여와 마을공동체 의식」, 『농촌경제』 제3권 1호, 서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980.
박영석, 「유일우 일가의 민족독립운동」, 『재만한인독립운동사연구』, 서울: 일조각, 1988.
박영희, 「장백현에서 유일우의 항일독립운동」, 『근현대 중 · 한 관계사 연구』, 서울: 국학자료원, 2001.
배상길, 「상허 유석창의 사회교육사상과 현대적 계승을 위한 발전전략」, 『상허사상학생연구논문모음』 2, 서울: 재단법인 상허문화재단, 1991.
손인수, 「상허 유석창의 교육이념」, 『상허 유석창 사상의 조명』 II, 서울: 상허기념사업회, 1988.
심지연, 「해방정국에 대한 유석창의 정치적 인식: 정치대학의 창학이념을 중심으로」, 상허 유석창 박사 탄신 100주년 기념 상허사상 재조명을 위한 초청 강연회(2000. 5. 16), 서울: 건국대학교 연구처, 2000.
안병욱 · 유태영 · 박의수,「도산사상과 상허사상: 도산 사상으로 조명해 본 상허의 사상과 업적」, 『島山學術論叢』 제1집, 서울: 도산아카데미연구원, 1991.
안상원, 「상허 유석창의 생애와 정신」, 『상허사상의 조명』 1, 서울: 상허기념사업회, 1985.
안상원 · 임채식, 「상허 유석창과 새 농민 교육론」, 『교육의 이념과 실천』, 서울: 성우출판사, 1991.
양재모, 「대의 상허 유석창 선생의 생애」, 『상허 유석창 사상의 조명』 1, 서울: 상허기념사업회, 1998.
오병호, 「상허의 의료사상과 민족부흥운동」, 『상허사상』 8, 서울: 상허문화재단, 1997.
이성호 외, 「상허 선생의 일생을 통해 나타난 의료사상과 계승」, 『상허사상』 10, 서울: 상허문화재단, 1999.
이시용, 「상어 유석창의 교육사상」, 『초등교육연구소 교육논총』 Vol. 15, 인천: 인천교육대학교, 1998.
임채식, 「상허 유석창의 인간 교육론」, 『교육학연구』 제30권 제4호, 한국교육학회, 1992.
정장섭, 「상허와 농촌의 조용한 혁명」, 『상허 유석창 사상의 조명(II)』, 서울: 상허기념사업회, 1987.
정재철, 「상허 유석창의 애국애족 정신」, 『상허사상의 조명(I)』, 서울: 상허기념사업회, 1985.
조성일 · 주화정, 「상허 유석창의 학교경영 지도성에 관한 연구」, 『교육연구소논문집』 제16집, 서울: 건대교육연구소, 1992.
차석기, 「상허의 인술정신」, 『상허사상의 조명(I)』, 서울: 상허기념사업회, 1985.
한기언, 「건학정신 구현을 위한 건국인의 자세」, 『개교50주년(1996)을 대비하는 대학 발전을 위한 교수심포지엄』, 서울: 건국대학교, 1992.
한기언, 「상허 유석창의 생애와 사상」, 『대학생활 안내』, 서울: 건국대학교, 1985.
한기언, 「상허의 교육정신」, 『상허사상의 조명』 I, 서울: 상허기념사업회, 1985.
황상익, 「의사로서의 상허 유석창」, 『의사학』 제9권 제1호, 대한의사학회, 2000.

황상익, 「의사로서의 상허 유석창」, 상허 유석창 박사 탄신 100주년 기념 상허사상 재조명을 위한 초청강연회(2000. 5. 16), 서울: 건국대학교 연구처, 2000.

■ **학위논문(성명 가나다순)**

권오혁, 「상허 유석창의 사상과 사회교육활동에 관한 연구」, 인하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7.
김남규, 「상허 유석창과 복택유길의 교육사상비교 연구」, 건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2.
박강주, 「상허 유석창의 창학이념과 학교경영관리 구현과의 관계 연구」, 건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4.
박강주, 「해방 후 농촌청소년지도의 발전단계 구분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7.
박동희, 「상허의 농촌개발사상의 현대적 조명과 농촌개발 전략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3.
박성열, 「상허의 농촌개발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0.
임채식, 「상허 유석창의 교육사상 연구」, 건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1.
주화정, 「상허 유석창의 대학 경영 리더십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5.

편찬후기

이제 건국대학교 70년사의 편찬을 마무리하며, 편찬의 책임을 맡아 온 저로서는 남다른 감회에 젖게 됩니다. 맨손으로 집을 짓는다는 자세로 시작했는데, 어느덧 편찬 작업을 마무리해야 하는 시간을 맞이하였습니다.

먼저 모교의 역사를 정리한다는 무거운 짐을 지고 솔선수범과 헌신의 미덕을 보여주신 한상도 도서관장님, 김인웅 팀장님, 전정해 박사, 김명환 · 오계화 선생, '글로컬캠퍼스 부분'의 서술을 맡은 박혜숙 교수님과 정진헌 박사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대로 뒷바라지를 못해 줬는데도 흔쾌히 거들어 준 사학과 학부생들과 대학원생들, 좀더 나은 책을 만들어 보자는 욕심 하나로 함께 고민해 준 손낙구 박사, 김현지 졸업생 등에게 고마움을 전합니다.

역사의 주인공이 인간이듯이, 우리대학 70년사에서도 건국인들의 땀과 눈물, 기쁨과 보람이 녹아있는 역사를 담아내 보고자 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그 동안 우리들의 무관심 속에 파묻혀 있던 자료들을 찾아내고 건국가족의 땀과 눈물까지 담아 보고자 하였으나, 진한 아쉬움이 남습니다.

건대신문 등 교내 간행물과 일간신문 및 잡지 등에서 관련사실을 찾아내 서술에 활용했고, 앞으로 우리대학의 역사 정리에 활용할 수 있는 자료의 기반을 구축했다는 데서 보람을 찾아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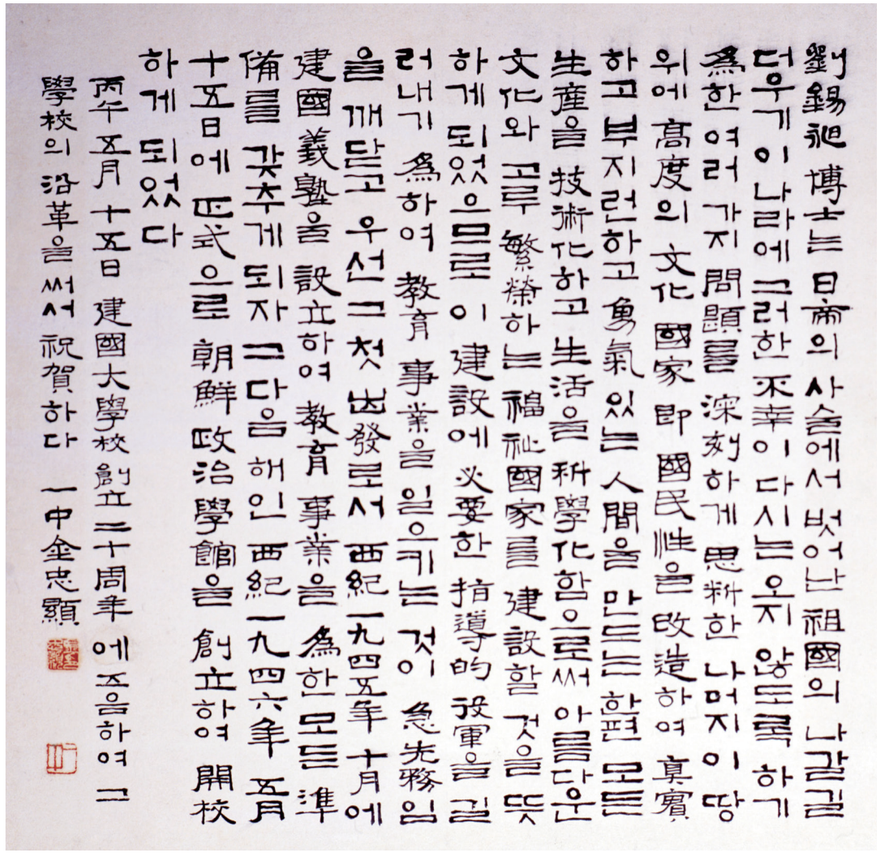
또 졸업생들과 학교 관련자들의 구술과 회고를 활용코자 하였으나,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한 아쉬움을 토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70년사 편찬의 뜻에 공감하고 기꺼이 도와주신 여러분들의 협조로 긴 세월의 공백을 조금이라도 메꿀 수 있었음을 다행으로 여깁니다. 지금부터라도 일상적이고 체계적인 자료 수집과 정리 작업이 지속되어서, 향후 보다 나은 80년사 · 100년사가 나올 수 있게 되기를 기원해 봅니다.

이제 편찬작업을 마무리 하면서, 이 70년사가 지나온 발자취를 되돌아보는 데 그치지 않고, 우리대학이 앞으로 맞이할 70년을 준비하는 밑거름이 되고 출발점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시 한번 제대로 된 모교의 역사책을 갖고 싶어 했던 20만 동문 및 재학생 · 교직원 여러분과 함께 70년사 간행의 기쁨을 오래 간직하겠습니다.

2016년 6월 30일

『학원창립 85주년 기념 건국대학교 70년사』 편찬위원회 위원장
교학부총장 민 상 기 드림


劉錫昶 博士는 日帝의 사슬에서 벗어난 祖國의 나갈길
덩우게이나라에 그러한 不幸이 다시는 오지 않도록 하기
爲한 여러 가지 問題를 深刻하게 思索한 나머지 땅
위에 高度의 文化國家 即 國民性을 改造하여 眞實
하고 부지런하고 勇氣있는 人間을 만드는 한편 모든
生産을 技術化하고 生活을 科學化함으로써 아름다운
文化와 고루 繁榮하는 福祉國家를 建設할 것을 뜻
하게 되었으므로 이 建設에 必要한 指導的 役軍을 길
러내기 爲하여 敎育 事業을 일으키는 것이 急先務임
을 깨닫고 우선 그 첫 出發로서 西紀一九四五年 十月에
建國義塾을 設立하여 敎育 事業을 爲한 모든 準
備를 갖추게 되자 그 다음 해인 西紀一九四六年 五月
十五日에 正式으로 朝鮮 政治學館을 創立하여 開校
하게 되었다
西紀 五月 十五日 建國大學校 創立二十周年에 즈음하여 그
學校의 沿革을 써서 祝賀하다 一中 金忠顯

학원창립 85주년 기념
건국대학교 70년사 편찬위원회

구분	성명	소속 및 직위
편찬위원장	민상기	교학부총장
편찬위원	이 복	법인사무국장
편찬위원	심충진	기획조정본부장
편찬위원	김보경	GLOCAL기획조정처장
편찬위원	유병철	의학전문대학원장
집필총괄위원장	한상도	상허기념도서관장
집필위원	이양섭	행정대외부총장
집필위원	이상영	이과대학장
집필위원	유재원	대학원장
집필위원	박혜숙	중원도서관장
집필위원	임규홍	의학전문대학원 행정실장
간사	김인웅	상허기념도서관 법학학술정보팀장
전문연구원	전정해	건국대학교 70년사 편찬위원회
연구원	김명환	건국대학교 70년사 편찬위원회
연구원	오계화	건국대학교 70년사 편찬위원회
연구원	정진헌	건국대학교 70년사 편찬위원회

학원창립 85주년 기념
건국대학교 70년사 1

인쇄일 2016년 7월 18일
발행일 2016년 7월 31일

편찬인 건국대학교 70년사 편찬위원회
발행인 송희영
발행처 건국대학교
서울특별시 광진구 능동로 120
TEL: 02-450-3114
www.konkuk.ac.kr

디자인 · 제작 : 도서출판 빅애플
출판등록 : 제393-2007-00001호
주소 : 서울시 강남구 언주로 626 1101호
대표 : 조준철
전화 : 02-544-2010
www.BigA.co.kr

값 400,000원(전5권)
ISBN 978-89-98806-31-6 04900(전5권)

ISBN 978-89-98806-31-6 (전5권)

※ 본 저작물의 저작권은 건국대학교에 있으므로 무단전재와 무단복제를 금합니다.